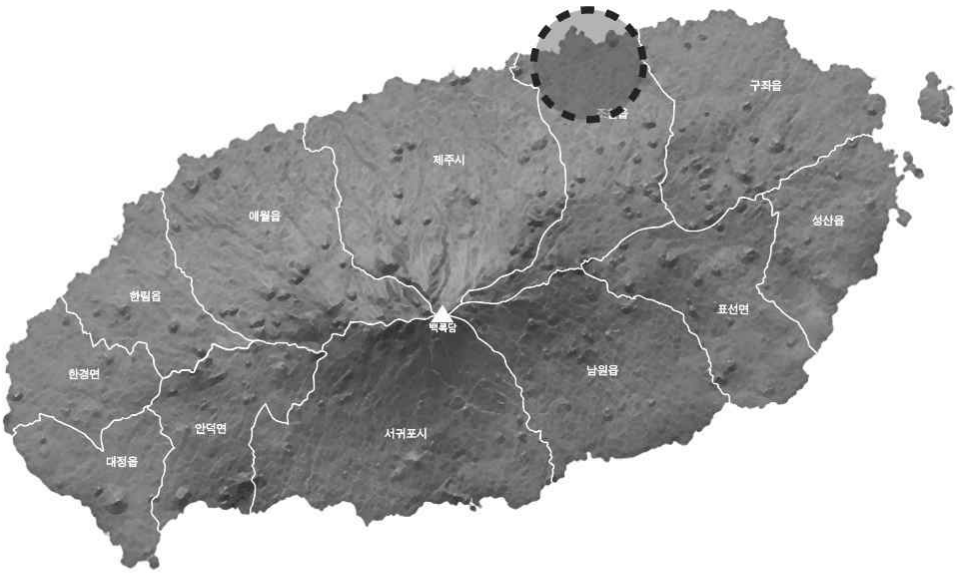
발간 등록 번호
79-6500000-000556-01

2019년도 제주어구술자료집 21

-조천읍 신촌리

구술: 김옥녀, 이명언
채록·전사·표준어 대역: 안민희



제주특별자치도
JRI 제주학연구센터

2019년도 제주어구술자료집(21-28)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공기관 대행 사업을 수탁한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에서 작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제주어구술자료집 21

목 차

Ⅰ. 사업 개요

1. 사업 목적 ····· 5
2. 사업 기간 ····· 5
3. 사업 참여자 ····· 5
4. 조사 지점과 제보자·조사자 ····· 6
5. 사업 추진 과정 ····· 6
6. 표준어 대역 ····· 8
7. 주석 ····· 8

Ⅱ. 구술 자료

1. 조사 마을 ····· 9
2. 제보자 일생 ····· 55
3. 밭일 ····· 96
4. 들일 ····· 213
5. 바다일 ····· 277
6. 의생활 ····· 320
7. 식생활 ····· 337
8. 주생활 ····· 443
9. 놀이 ····· 447
10. 통과의례 ····· 448
11. 민간요법 ····· 496
12. 경험담, 속담, 금기어 듣기 ····· 514

Ⅰ. 사업 개요

1. 사업 목적

‘2019 제주어 채록 사업 자료 표준어 대역 발간 및 보급 사업’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개년에 걸쳐 진행된 ‘제주어 구술 채록 사업’ 종료에 따라 구술 자료를 대중에게 널리 보급하고 활용할 수 있게 제주어 자료를 표준어로 대역하는 데 목적이 있다.

3개년에 걸쳐 이루어진 채록 사업의 성과물인 ≪제주어구술채록보고서≫(1~36)는 현장에서 조사된 내용을 그대로 전사하였기 때문에 지역적 특성은 물론 어휘적 특색으로 말미암아 누구나 쉽게 접근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이 보고서는 제주어를 어느 정도 알아야만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서 보고서 활용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이용의 제한을 극복하고 누구에게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려면 제주어 구술 자료를 표준어로 대역하고 주석을 다는 작업이 불가결한 일이다.

나아가 표준어로 대역하고 주석을 달아 만든 ≪제주어구술자료집≫은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 제12조에도 부합한 일로, 소멸 위기의 제주어의 보전과 그 가치를 널리 알리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다.

2. 사업 기간

2019년 3월 25일~2019년 12월 31일

3. 사업 참여자

‘2019 제주어 채록 사업 자료 표준어 대역 발간 및 보급 사업’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연구진은 2014년부터 시작한 ‘제주어 구술 채록 사업’의 인력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현지 조사와 표준어 대역 담당자를 동일하게 함으로써 이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리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현지 조사와 표준어 대역을 동일인으로 담당하게 한 것은 조사할 때의 발화 상황은 물론 조사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어서 표준어 대역 작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서다.

또 현지 조사자와 표준어 대역 연구자를 동일인으로 한 것은 조사할 때 미흡했던 내용이나 잘못된 내용을 수정, 보강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더불어 추가 조사의 편이성도 고려하였다.

‘표준어 대역’ 사업의 연구진 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자 현황

이름	소속	분야	구분
김순자	제주학연구센터	국어학(제주도방언)	연구 책임・총괄 성산읍 온평리
김미진	제주학연구센터	국어학(제주도방언)	공동 연구 남원읍 태흥리
강영봉	(사)제주어연구소	국어학(제주도방언)	교열 및 감수
안민희	민요패 소리왓	한국학(제주민요)	조천읍 신촌리
김승연	(사)제주학연구소	한국학(제주무속)	제주시 우도면
허영선	제주대학교	한국학(제주역사)	성산읍 온평리
최연미	돋을양지책드르	국문학	표선면 세화리
권미소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국어학(제주도방언)	남원읍 태흥리
김보향	제주대학교	국어학(제주도방언)	한경면 신창리
신우봉	제주대학교	국어학(제주도방언)	한림읍 옹포리
김성룡	귀일중학교	국어학(제주도방언)	애월읍 구엄리
현혜림	제주학연구센터		연구 보조
서수빈	제주학연구센터		연구 보조

4. 조사 지점과 제보자·조사자

‘2019 제주어 채록 사업 자료 표준어 대역 발간 및 보급 사업’의 조사 지점, 제보자, 조사자를 보이면 <표 2>와 같다.

〈표 2〉 조사 지점과 제보자·조사자

번호	조사 지점	제보자	조사자
21	조천읍 신촌리	김옥녀, 이명언	안민희
22	제주시 우도면	한두영, 고옥녀, 홍한옥	김승연
23	성산읍 온평리	송옥금, 강문홍, 강백년	김순자·허영선
24	표선면 세화리	강필문, 고옥화, 송인생, 장술생, 강기수, 김정자, 현봉화, 김양선	최연미
25	남원읍 태흥리	오윤생	김미진·권미소
26	한경면 신창리	진인중, 이순녀	김보향
27	한림읍 옹포리	장경욱, 양순자, 장정자, 김화원	신우봉
28	애월읍 구엄리	김여환, 홍창자	김성룡

5. 사업 추진 과정

‘2019 제주어 채록 사업 자료 표준어 대역 발간 및 보급 사업’은 총 9개월여가 소요

되었다. 현지 조사에서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내용을 조사하기 위하여 추가 채록을 실시하고, 조사된 내용을 전사하도록 하였다.

전사의 통일성과 표준어 대역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연구진 회의를 개최하였다. 연구진 회의는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열렸는데, 이때 도출된 문제점을 해결하여 제주어 표기와 표준어 대역을 통일하려고 애썼다. 연구진 모임을 매달 가진 것은 오류를 가급적 줄이고 통일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다음은 회의를 거치며 통일시킨 내용이다.

-제주어 표기는 <한글 맞춤법>에 따라 제주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체언과 조사, 어간과 어미를 구분하여 표기하도록 한다.

-개인 정보는 숨김표로 표시하고, 청취가 안 되는 부분은 음절수만큼 꽃표(**)를 사용한다.

-필요하지 않은 잡담은 삭제한다.

-띄어쓰기는 <한글 맞춤법>에 따라 제주어와 표준어를 동일하게 한다.

-문장부호 가운데 마침표와 쉼표는 휴지(休止)와 문맥에 따라 표시한다.

-'하다'의 경우 'ᄒᆞ다'가 아닌 경우는 '허다'로 표기한다. '허는구나, 헷구나'처럼 'ㅓ'로 통일한다. 분명하게 '하다'로 발음한 경우에는 '하다'도 허용한다.

-표준 발음과 달리 제보자의 발음이 된소리로 나는 경우는 원형을 밝히어 적되, 발음 기호인 대괄호([ ]) 안에 표기한다.

-보고서의 번호는 2018년에 이어 제주시를 기준으로 동쪽부터 표기한다. 제주시의 표준어 대역 자료가 없기 때문에 '조천읍 신촌리' 구술 자료가 『2019년도 제주어구술자료집 21』이 되는 것이다. 구술 자료의 @는 조사자, #은 제보자라는 표시이다. 제보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1, #2, #3 …처럼 표시하였다.

-활자 크기는 11포인트로 하고, 첫 줄은 '들여쓰기'를 하였다.

-장 구분은 두 줄을 띄었다.

한편 월별에 따른 주요 추진 내용은 <표 3>과 같다.

〈표 3〉 월별에 따른 추진 내용

구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현지 추가 채록	■	■								
추가 전사			■	■						
표준어 대역			■	■	■	■	■	■		
자료집 편집·교열, 감수					■	■	■	■	■	
자료집 발간										■

6. 표준어 대역

표준어 대역의 근거는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두었으며, 몇 가지 원칙을 정하여 통일을 기하려고 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조사된 자료 가운데 10시간 분량의 구술 자료를 표준어로 대역한다. 이는 조사자에 따른 구술 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일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다.
- 조사된 내용 순서에 따라 표준어 대역을 한다. 곧 조사자와 제보자가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조사했기 때문에 표준어 대역 또한 이에 따른다.
- 표준어 대역은 소괄호(()) 안에 넣는다.
- 표준어 대역은 직역을 원칙으로 한다. 의역할 경우는 문맥에 맞게 주석에서 그 내용을 밝힌다.
- 대응 표준어가 없는 경우에는 제주어를 그대로 옮겨 작은따옴표(‘ ’)로 표시하고, 주석에서 그 내용을 밝힌다.(예: ‘바령팟’을)
- ‘에, 으’ 따위의 담화 표지도 가급적 그대로 둔다.
- 외래어는 번역하거나 부득이한 경우는 외래어를 그대로 둔다.

7. 주석

주석은 원칙적으로 표준어로 바꿀 수 없는 경우, 문맥에 따라 그 의미가 달리 쓰인 경우, 지명 등 부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였다. 모아진 의견은 다음과 같다.

- 주석은 각주로 하되, 주석한 제주어에 주 번호를 부여한다.
- 주석은 주어-서술어의 호응 관계를 고려하여 작성한다.
- 주석의 대상은 대응 표준어가 없을 경우, 본래의 뜻과 달리 쓰인 경우, 이해를 돕기 위한 경우 등으로 한다.
- 지명인 경우는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간단하게 주석을 한다.
- 조사 과정의 분위기를 전달하기 위한 경우에도 주석으로 처리한다.
- 동일한 내용을 주석으로 처리할 때는 면수(3~4면 간격)를 고려하여 작성한다.

Ⅱ. 구술 자료

(@: 안민희, #1: 김옥녀, #2: 이명언)

1. 조사 마을

101001 @ 동부락, 이 마을, 신촌[1] 마을이 그냥 신촌? 여기 동부락이우꽈?(동부락, 이 마을, 신촌 마을이 그냥 신촌? 여기 동부락입니까?)

101001 #1 이디 동동.(여기 동동.)

101001 @ 동동? 동동예. 그 이 마을이 언제 형성뭰 건 알아지쿠과?(동동? 동동이요. 그 이 마을이 언제 형성된 건 알아지겠습니까?)

101001 #1 몰라. 난.(몰라. 나는.)

101001 @ 이 마을의 형성?(이 마을의 형성?)

101001 #1 옛날엔 숙군[2]이엔 헤서 숙군. 숙군인디 이젠 신촌이엔 옛날엔 숙군.(옛날엔 '숙군'이라고 해서 '숙군'. '숙군'인데 이젠 신촌이라고 옛날엔 '숙군'.)

101001 @ 숙군이예?('숙군'이요?)

101001 #1 응.(응.)

101001 @ 숙군이?('숙군'이?)

101001 #1 숙군. 옛날은 이 신촌ᄀᆞ라 숙군이엔 헤서. 옛날, 옛날 할머니네 할아버지 때. 신촌이엔 안 헤영 숙군.('숙군'. 옛날은 이 신촌보고 '숙군'이라고 했어. 옛날, 옛날 할머니네 할아버지 때. 신촌이라고 안 하고 '숙군'.)

101001 신촌이엔 안헤영 숙군이렌 헷엇다고예?(신촌이라고 안하고 '숙군'이라고 했었다고요?)

101001 #1 숙군이라고 이 마을이 숙어지니까 숙군.('숙군'이라고 이 마을이 숙어지니까 '숙군'.)

101001 @ 아아, 마을이 숙어지니까.(아아, 마을이 숙어지니까.)

101001 #1 이 신촌이 어디가도 보이질 안허여.(이 신촌이 어디가도 보이질 않아.)

101001 @ 아아.(아아.)

101001 #1 동산에 가도 함덕[3], 조천[4]은 다 보이는디 신촌은 안 보여. 게니까 숙어

1) '신촌'은 제주시 조천읍의 북서부에 위치해 있으며 북쪽으로 남해와 맞닿아 있는 마을이다.
2) '숙군'은 신촌마을의 옛 이름이다.
3) '함덕'은 제주시 조천읍의 북부에 위치해 있으며 북쪽으로 남해와 맞닿아 있는 마을로 북동쪽 경계에 서우봉이 솟아 있으며 함덕 해수욕장이 있는 마을이다.
4) '조천'은 제주시 조천읍의 북서부에 위치해 있으며 북쪽으로 남해와 맞닿아 있는 마을로 연북정, 조천 비석거리, 만세동산이 있는 마을이다.

지니까 숙군.(동산에 가도 함덕, 조천은 다 보이는데 신촌은 안 보여. 그러니까 숙어지니까 '숙군'.)

101001 @ 숙어지니까 숙군? 그믄 숙군이엇을 때는 조천에 들어가낫수과?(숙어지니까 '숙군'? 그러면 '숙군'이었을 때는 조천에 들어갔었습니까?)

101001 #1 조천읍에.(조천읍에.)

101001 @ 조천읍 숙군리?(조천읍 숙군리?)

101001 #1 응. 조천. 옛날은 조천면이엔 헤나서. 이젠 읍이엔 허는 디, 이젠 읍이고 옛날엔 조천 면.(응. 조천. 옛날은 조천 면이라고 했었어. 이젠 읍이라고 하는 데, 이젠 읍이고 옛날엔 조천 면.)

101001 @ 조천 면 숙군리? 숙군리?(조천 면 '숙군리'? '숙군리'?)

101001 #1 숙군.('숙군')

101001 @ 숙군.('숙군'.)

101001 @ 이 마을은 신촌이잖아예.(이 마을은 신촌이잖아요.)

101001 #2 예.(예.)

101001 @ 이 마을의 형성에 대하여 말씀헤 주십시오. 이 마을은 어떵 헹 만들어졋수과?(이 마을의 형성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이 마을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습니까?)

101001 #2 옛날은 저 이 신촌마을이 이 저 어디 잇냐허게 뒈면 웃ᄆᆞ실 지경, 부락이 거기 잇엇던 모양이예요. 이 위에. 그러다가 이 해변 가까이 내려와서 사는 디 신촌이 숙꾼, 속담에 숙꾼, 숙꾼헷주예.(옛날은 저 이 신촌마을이 이 저 어디 있나 하게 되면 윗마을 지경, 부락이 거기 있었던 모양이예요. 이 위에. 그러다가 이 해변 가까이 내려와서 사는 디 신촌이 '숙군', 속담에 '숙군', '숙군'했지요.)

101001 @ 숙꾼?('숙꾼'?)

101001 #2 '숙꾼'이 아니고 수군이랏어.('숙꾼'이 아니고 '수군'이었어.)

101001 @ 아아.(아아.)

101001 #2 수군 머리수자 수, 수군. 그니까 그걸 놔서 여러 사람덜이 말썽이 많앗엇는데 이 향사, 지금 향사가 그 저 구정 형이고 동부에선 와서 전부 와서 협력헤가지고 그 문화재가 뒌 겁니다.(수군 머리 수자 수, 수군. 그러니까 그걸 놔서 여러 사람들이 말썽이 많았었는데 이 향사, 지금 향사가 그 저 구정 형이고 동부에선 와서 전부 와서 협력해가지고 그 문화재가 된 겁니다.)

101001 @ 예.(예.)

101001 #2 이 신촌 향사가.(이 신촌 향사가.)

101001 @ 예에.(예에.)

101001 #2 게난 이 옛날시대에는 이 수군이라고 헷죠. 수군.(그러니까 이 옛날시대에는 이 '수군'이라고 했죠. '수군'.)

101001 @ 수군예.('수군'이요.)

101001 #2 머리 수자 수군.(머리 수자 수군.)

101001 @ 원래 웃뜨리 머 와흘[5]이나 대흘[6]에서 분파되어 왓수과? 조천에서 온 게 아니고 원래 수군이 잇엇고.(원래 '웃드리' 머 와흘이나 대흘에서 분파되어 왔습니까? 조천에서 온 게 아니고 원래 '수군'이 있었고.)

101001 #2 향사는, 문화재 뭰 향사는 이 구좌읍꼬지 다 합헤가지고 그 지은 것이 이 신촌 향삽니다.(향사는, 문화재 된 향사는 이 구좌읍까지 다 합해가지고 거 지은 것이 이 신촌 향삽니다.)

101001 @ 예.(예.)

101001 #2 예. 저 문화재.(예. 저 문화재.)

101001 @ 옛날 신촌 마을은 조천 옆에 수군이라는 이름으로 잇엇다?(예. 옛날 신촌 마을은 조천 옆에 '수군'이라는 이름으로 있었다?)

101001 #2 수군이라고 헌 것을 보통사람이 말하기를 숙군, 숙군 헤 왓는데 나는 저 수군이라고 분명이 동문 밖에서는 제일 이 저 시에서 동쪽으로 나와서는 머리 고을이다. 수군이다. 그 문장이 많이 낫고, 옛날도. 신촌에서가 문장이 많이 낫고.('수군'이라고 헌 것을 보통사람이 '숙군', '숙군' 해왔는데 나는 저 '수군'이라고 분명히 동문 밖에서는 머리 고을이다. '수군'이다. 그 문장이 많이 났고, 옛날도. 신촌에서가 문장이 많이 났고.)

101001 @ 똑똑헌 사람이 많이 나왓구나예?(똑똑한 사람이 많이 나왔군요?)

101001 #2 그렇죠. 어, 그 지금 그 중간에 와서는 강칩, 홍칩이 아주 그 저 허허, 그 굉장한 그 저 권세가들이 살앗죠.(그렇죠. 어, 그 지금 그 중간에 와서는 강씨 집, 홍씨 집이 아주 그 저 허허, 그 굉장한 그 저 권세가들이 살았죠.)

101001 @ 아아.(아아.)

101001 #2 편안 강씨, 강씨허고, 홍씨허고.(편안 강씨, 강씨하고, 홍씨하고.)

101001 @ 홍씨예?(홍씨요?)

101001 #2 예. 권세, 지금은 아주 몰락헤가지고 뭐 허허.(예. 권세, 지금은 아주 몰락해가지고 뭐 허허.)

101001 @ 아아, 그렇게도 헴수다예. 지금은 몰락헤불고예.(아아, 그렇게도 하네요. 지금은 몰락해버리고요.)

101001 #2 축 하나 쓰젠 헤도 날 빌어 가야뒈. 헤헤헤헤.(축 하나 쓰려고 해도 날 빌어 가야돼. 헤헤헤헤.)

101001 @ 옛날에는 강칩, 홍칩? 나 아는 분도 홍칩의 메누리, 저기 우리 집 쪽에도, 홍칩의 메누리로 왓수다만은.(옛날에는 강씨 집, 홍씨 집? 나 아는 분도 홍씨 집의 며느리 우리 집 쪽에도, 홍씨 집의 며느리로 왔습니다만.)

101001 #2 아아. 홍칩이, 강칩이가 으뜸이라낫주. 신촌에선. 섯동네 가면은 조씨가 쪼금 나앗고.(아아. 홍씨 집, 강씨 집이 으뜸이었었지. 신촌에선 서쪽 동네 가면 조씨가 조금 나았고.)

---

5) '와흘'은 제주시 조천읍의 북서부 중산간에 위치해 있으며 남북으로 긴 지형 마을이다.

6) '대흘'은 제주시 조천읍의 중부에 위치해 있으며 남북으로 긴 지형으로 세미오름, 꾀꼬리 오름이 있는 마을이다.

101001 @ 아아.(아아.)

101001 #2 조씨.(조씨.)

101001 @ 아아. 그믄 원래 신촌이라는 이름은 언제쯤 만들어져신고예?(아아. 그러면 원래 신촌이라는 이름은 언제쯤 만들어졌는가요?)

101001 #2 그거는 체 그건 기억을 못 협니다. 언제 만들어졋는지.(그거는 채 그건 기억을 못 합니다. 언제 만들어졌는지.)

101001 @ 그믄 조천이름 옆이 새로 만든 촌이난 신촌이렌 헤신가예?(그러면 조천이름 옆에 새로 만든 촌이니까 신촌이라고 했는가요?)

101001 #2 그 저 옛날은 그 숙군, 숙군허다가, 숙군, 숙군허다가 이 해변가로 부락이 형성뒈면서 아마 신촌으로 뒛을 겁니다.(그 저 옛날은 그 '숙군', '숙군'하다가 '숙군', '숙군'하다가 이 해변가로 부락이 형성되면서 아마 신촌으로 됐을 겁니다.)

101001 @ 그믄 조천에 소속뒈진 안헷구나예. 원래예?(그러면 조천에 소속되진 않았군요. 원래요?)

101001 #2 그렇죠.(그렇죠.)

101001 @ 아아.(아아.)

101001 #2 한계가 딱 있어요. 경계가.(한계가 딱 있어요. 경계가.)

101001 @ 아아 한계가. 경계가 잇엇구나예. 겨믄 삼양까지 딱 시낸데 신촌부터가 딱 북제주군으로 옛날에 들어갓잖아예? 게니까 수군?(아아, 한계가. 경계가 있었군요. 그러면 삼양까지 딱 시낸데 신촌부터가 딱 북제주군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러 니까 '수군'?)

101001 #2 그건 ᄆᆞ음대로 헌거니까. 웬당봉[7]을 두어가지고.(그건 마음대로 한 거니까. 원당봉을 두어 가지고.)

101001 @ 원당봉? 원당봉?(원당봉? 원당봉?)

101001 #2 웬당봉 서쪽으로는 시 관내고, 동쪽으로는 이 조천읍 관내고.(원당봉 서쪽으로는 시 관내고, 동쪽으로는 이 조천읍 관내고.)

101001 @ 음. 읍 관내예.(음. 읍 관내요.)

101001 #2 웬당봉이 반은 저 삼양이고 반은 신촌 거주.('원당봉'이 반은 저 삼양이고 반은 신촌 거주.)

101001 @ 아아.(아아.)

101002 @ 이 마을에는 주로 무슨 성씨로 구성되어 잇습니까?(이 마을에는 주로 무슨 성씨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101001 #1 옛날에는 고씨가 하난데 이젠 양씨는 여 쪼금벳긔 엇어져 불언. 막 엇어져 불언. 멧 사름 엇어. 양씨는.(옛날에는 고씨가 하난데 이젠 양씨는 여 조금밖에 없어져 불언. 막 없어져 버렸어. 몇 사람 없어. 양씨는.)

101002 @ 아아, 아까처럼 강칩, 홍칩, 처음에?(아아, 아까처럼 강씨 집, 홍씨 집, 처음에?)

---

7) '원당봉'은 제주시 삼양동 바닷가.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와의 경계에 걸쳐진 오름이다. 고려 때 원에 의해 세워졌다는 원당사의 터에 오층석탑이 남아 있어 보물 제 1187호로 지정 보호됨 조선에 봉수대가 있었다. 표고 170,7미터이다.

101002 #2 그건 아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예. 아는 사람이 없죠예. 함덕 ᄀᆞ튼 딘 함씨 함덕이라고 해서 함덕이라고 헷덴 허는 말이 잇는데.(그건 아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예. 아는 사람이 없죠. 함덕 같은 덴 함씨 함덕이라고 해서 함덕이라고 했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101002 @ 예.(예.)

101002 #2 그거 아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그건 아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101002 @ 어떤 성씨가 제일 먼저?(성씨가 제일 먼저?)

101002 #2 아는 사람이 없죠. 함덕 같은 덴 함씨 함덕이라고 헤서, 함덕이라고 헷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아는 사람이 없죠. 함덕 같은 덴 함씨 함덕이라고 해서, 함덕이라고 했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101002 @ 예.(예.)

101002 #2 그거 아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그거 아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101002 @ 신촌에는 성이 무신 성이 옛날에는 많아낫수과? 아까 강칩이, 홍칩이.(신촌에는 성이 무신 성이 옛날에는 많았었습니까? 아까 강씨 집, 홍씨 집.)

101002 #2 아, 뭐 고씨도 많고, 김씨도 많고 거 그 성씨야 상당히 많죠.(아, 뭐 고씨도 많고, 김씨도 많고 거 그 성씨야 상당히 많죠.)

101002 @ 주로 많이 있는 성씨는 옛날부터.

101002 #2 예.(예.)

101002 @ 신촌하면 근데 거기에서 강칩, 홍칩이 유명헷엇다는 거지예?(주로 많이 있는 성씨는 옛날부터 신촌하면 그런데 거기서 강씨 집, 홍씨 집이 유명했었다는 거지요?)

101002 #2 권세는 강칩, 홍칩 권세. 권세.(권세는 강씨 집, 홍씨 집 권세. 권세.)

101002 @ 권세는예. 권세가 잇다는 것은 부자엿다는 것도 있고.(권세는요. 권세가 있다는 것은 부자였다는 것도 있고.)

101002 #2 아, 아주.(아, 아주.)

101002 @ 학문을 헷다는 것도 잇고.(학문을 했다는 것도 있고.)

101002 #2 거 무신 정 의원도 허고 강 주ᄉᆞ도 허고 어, 그런 벼슬헷죠. 어.(거 무슨 정 의원도 하고 강 주사도 하고 어, 그런 벼슬했죠. 어.)

101002 @ 벼슬예?(벼슬이요?)

101002 #2 게니까 이 강 칩이 그 뭐 저 종살이 허던 여자가 이 저 열녀가 뒈엇어요.(그러니까 이 강 집에 그 뭐 저 종살이 하던 여자가 이 저 열녀가 되었어요.)

101002 @ 아아.(아아.)

101002 #2 그 어째서 열녀가 뒈엇느냐? 옛날 ᄉᆞ또가 헹ᄎᆞ허다가 물이 그리와서 아, 그 저 강칩이 그 종사허던 그 여자가 물을 떠다 드렷어요.(그 어째서 열녀가 되었느냐? 옛날 사또가 행차하다가 물이 마시고 싶어서 아, 그 저 강 집에 그 종사하던 그 여자가 물을 떠다 드렸어요.)

101002 @ 예.(예.)

101002 #2 물을 떠다드리니까 그 사또가 홀목을 잡았어.(물을 떠다드리니까 그 사또가 손목을 잡았어.)

101002 @ 어.(어.)

101002 #2 아, 그러니까 그 여자가 죽을 때꼬지 이거 저 고운 그 저 호다이로 감듯 감아서 아무도 문직지 못허게 하하하, 그래서 그 열녀, 저 열녀가 잇엇죠. 그런 열녀가. 그 손 흔번 잡아, 홀목 잡아 준 것에. 거 사또가 문직어 준 것이다. 헤 가지고 그거.(아, 그러니까 그 여자가 죽을 때까지 이거 저 고운 그 저 붕대로 감듯 감아서 아무도 만지지 못하게 하하하, 그래서 그 열녀, 저 열녀가 있었죠. 그런 열녀가. 그 손 한번 잡아, 손목 잡아 준 것에. 사또가 만져 준 것이다. 해 가지고 그거.)

101002 @ 그건 좀 너무 심허다예. 겐 시집도 안 가신가예?

101002 #2 시집도 안가고 허니까 열녀비석이 잇엇어요.(시집도 안가고 허니까 열녀비석이 있었어요.)

101002 @ 예. 건 좀 너무 심하다예.(예. 건 좀 너무 심하네요.)

101002 #2 열녀문.(열녀문.)

101002 @ 일생으로 봐서는 불쌍허지 안허꽈?(일생으로 봐서는 불쌍하지 않습니까?)

101002 #2 그렇죠. 일생으로 봐서는 불쌍허죠.(그렇죠. 일생으로 봐서는 불쌍하죠.)

101003 @ 이 마을 사람들은 주로 무슨 일들을 하며 살아가고 잇습니까?(이 마을 사람들은 주로 무슨 일들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101003 #1 에, 이 해녀는 해녀만 헹 살곡이. 또 농ᄉᆞ짓는 사람은 이제나 미깡이주. 옛날은 조, 콩, 보리. 옛날엔 것벳긔. 고구마, 그런 것만 헹 살아서. 이제는 귤 나니까 귤을 헤도 옛날은 그것만 헹 살아낫어. 보리, 조 ,콩, 고구마. 옛날엔. 그것만 헹.(에, 해녀는 해녀만 해서 살고. 또 농사짓는 사람은 이제나 귤이지. 옛날은 조, 콩, 보리. 옛날엔 그런 것밖에 없었어. 고구마, 그런 것만 해서 살았어. 이제는 귤 나니까 귤을 해도 옛날은 그것만 해서 살았었어. 보리, 조 ,콩, 고구마. 옛날엔. 그것만 해서.)

101003 #2 주로 농사죠게. 이 신촌이 마을 이 조천 읍 관내에서도 제일 땅이 농토가 좋아요. 널고.(주로 농사죠. 이 신촌이 마을 이 조천 읍 관내에서도 제일 땅이 농토가 좋아요. 넓고.)

101003 @ 아아, 농토가.(아아, 농토가.)

101003 #2 농토가 좋아요.(농토가 좋아요.)

101003 @ 무슨 농사를 지어신고예?(무슨 농사를 지었는가요?)

101003 #2 나? 아, 나는 뭐 헌다는 거 다 헤봣어. 헤헤.(나? 아, 나는 뭐 한다는 거 다 해봤어. 헤헤.)

101003 @ 주로 신촌에 잘 되는 농사는 무신 농사엿수과? 또 바당 어부도 잇지예?(주로 신촌에 잘 되는 농사는 무신 농사였습니까? 또 바다 어부도 있지요?)

101003 #2 어부들도 많죠. 어부들도 많고 농사 잘 뒈는 건 옛날엔 먹는 조 보리죠 뭐. 조허고 보리. 그것도 우리 제주사람 먹는 것이 제주사람은 저 좁쏠허고 보리쏠허고만 먹고 살앗으니까. 하하하.(어부들도 많죠. 어부들도 많고 농사 잘되는 건 옛날엔 먹

는 조 보리죠 뭐. 조하고 보리, 그것도 우리 제주사람 먹는 것이 제주사람은 저 좁쌀하고 보리쌀하고만 먹고 살았으니까. 하하하.)

101003 @ 옛날, 옛날 보리가 나오기 전엔 좁쏠만 먹고예? 보리가 삼춘 어렷을 때부터 보리는 잇엇지예?(옛날, 옛날 보리가 나오기 전엔 좁쌀만 먹고요? 보리가 삼촌 어렸을 때부터 보리는 있었지요?)

101003 #2 우리 어렸을 적에 보리를 많이 먹었어요. 보리벳긔.(우리 어렸을 적에 보리를 많이 먹었어요. 보리밖에.)

101003 @ 바당에 어부를 보제기렌 헙니까? 어부도 많이 잇엇수과? 라고 멧 명 정도?(바다에 어부를 '보제기'라고 합니까? 어부도 많이 있었습니까? 라고 몇 명 정도?)

101003 #2 그렇죠. 많이 잇엇죠. 그렇죠. 많이 잇엇죠.(그렇죠. 많이 있었죠. 그렇죠. 많이 있었죠.)

101003 @ 거의 남자 분들은 어부라고?(거의 남자 분들은 어부라고?)

101003 #2 그렇죠. 예. 어부 아니 하는 사람도 잇고 농사만 짓는 사람도 잇고, 어부도 있고, 마, 이 바당 영업허는 게 위험허니까 바다 기상예보가 없기 때문에 옛날은 피헤가 많앗어요. 으응. 그 우리 어렷을 때만 봐도 사냥 배 그냥 여기 와서 뒤집어져가지고 사람 너인가 탄디 다 죽은 걸 봣어요.(그렇죠. 예. 어부 아니 하는 사람도 있고 농사만 짓는 사람도 있고, 어부도 있고 마 이 바다 영업하는 게 위험하니까 바다 기상예보가 없기 때문에 옛날은 피해가 많았어요. 으응. 그 우리 어렸을 때만 봐도 사냥 배 그냥 여기 와서 뒤집어져가지고 사람 넷인가 탔는데 다 죽은 걸 봤어요.)

101003 @ 아아. 어릴 때도예. 해녀들도 많이 잇엇수과? 해녀? 즘녀?(아아, 어릴 때도요. 해녀들도 많이 있었습니까? 해녀? 잠녀?)

101003 #2 해녀도 많이 있었죠.(해녀도 많이 있었죠.)

101003 @ 오십 명 넘고?(오십 명 넘고?)

101003 #2 그렇죠. 해녀는 먹을 거 뭐 메역도 주물아다 먹고, 뭐 구젱기도 주물아 먹고, 지금은 멧 안 남앗지만 하여튼 이 해녀가 상당이 세력이 좋죠. 지금도.(그렇죠. 해녀는 먹을 거 뭐 미역도 캐서 먹고, 뭐 소라도 잡아다 먹고, 지금은 몇 안 남았지만 하여튼 이 해녀가 상당이 세력이 좋죠. 지금도.)

101003 @ 어머니도 해녀셧수과?(어머니도 해녀였습니까?)

101003 #2 아니예요. 우리 집엔 해녀가 없었어요.(아니요. 우리 집엔 해녀가 없었어요.)

101003 @ 제주도 말로 골아줍서예.(제주도 말로 말해 주세요.)

101003 #2 예, 예.(예, 예.)

101003 @ 예.(예.)

101004 @ 이 마을에는 주변에 오름, 내창, 바위, 굴 등이 잇으면 소개헤 주십시오.(이 마을에는 주변에 오름, 내, 바위, 굴 등이 있으면 소개해 주십시오.)

101004 #1 여기는 엇어. 저레 대섬[8]이라 헌디 저.(여기는 없어. 저기 대섬이라고 한

8) '대섬'은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와 조천리 경계에 있는 섬을 말한다.

데 저.)

101004 @ 북촌[9]?(북촌?)

101004 #1 조천광 신촌 양 사이에 대섬이 잇어.(조천과 신촌 양 사이에 대섬이 있어.)

101004 @ 아아, 그거는 신촌에 소속뒌?(아아, 그거는 신촌에 소속됐어?)

101004 #1 조천 반, 신촌 반. 대섬.(조천 반, 신촌 반. 대섬.)

101004 @ 조천 반.(조천 반.)

101004 #1 반썩.(반씩.)

101004 @ 대섬 잇구나예.(대섬 있군요.)

101004 #1 대섬이 조천도 반 아사불곡 신촌도 반, 원래 신촌이 많이 부튼디 그때는 조천이 쎄엇어. 신촌보단.(대섬이 조천도 반 가져버리고 신촌도 반, 원래 신촌이 많이 붙었는데 그때는 조천이 셌어. 신촌보다.)

101004 @ 예.(예.)

101004 #1 거니까 자기네가 많이 빼앗아. 옛날 조천이옌 허민 일본놈도 못 이긴 디라. 머리의 조천, 일본말이 아다마노 조뗀허민 머리 쎄덴 허여.(그러니까 자기네가 많이 빼앗아. 옛날 조천이라고 하면 일본 놈도 못 이긴 데라. '머리의 조천', 일본말이 '아다마노 조뗀'하면 머리 세다고 해.)

101004 @ 아다마?('아다마'?)

101004 #1 일본 말로.(일본 말로.)

101004 @ 아다마노 조뗑?('아다마노 조뗑'?)

101004 #1 응. 조천 사람이옌, 아다마노 조뗀. 머리 좋은 조천이옝, 머리빡 좋은 조천이옌. 아다마, 이거 머리가이 일본말로 아다마.(응. 조천사람이라고, 머리의 조천. 머리 좋은 조천이라고, 머리빡 좋은 조천이라고. 머리, 이거 머리가 일본말로 '아다마.')

101004 @ 아다마노 좋은?('아다마노' 좋은?)

101004 #1 조뗀.('조뗀'.)

101004 @ 조뗑 뭐?('조뗑' 뭐?)

101004 #1 머리 좋은 조천.(머리 좋은 조천.)

101004 @ 좋텐, 좋텐?(좋다고, 좋다고?)

101004 #1 아니, 머리 좋은 조천. 머리빡 좋은 조천. 게난 아다마노 조뗀! 일본놈덜이 춤 지엉 간 디라. 조천 사람덜앞이, 제국주의 때. 게난 아다마노 조뗀이옌.(아니, 머리 좋은 조천. 머리 좋은 조천. 그러니까 '아다마노 조뗀'!. 일본 놈들이 참 져서 간 데라. 조천 사람들 앞에. 제국주의 때. 그러니까 '아다마노 조뗀'이라고.)

101004 @ 게난 아다마노 조뗀! 헨. 일본 놈도 춤 지엉 간 디라. 조천사람덜앞이, 일본 제국때에도, 게난 아다마노 조뗀!(그러니까 '아다마노 조뗀'! 했어. 일본 놈도 져서 간 데라. 조천사람들 앞에, 일본제국 때에도, 그러니까 '아다마노 조뗀'!)

101004 @ 조뗀예?('조뗀'이요?)

---

9) '북촌'은 제주시 조천읍의 북동부에 위치해 있으며 북쪽으로 남해와 맞닿은 북쪽에 다려도가 있는 마을이다.

101004 #1 일본말로 아다마노 조뗀!(일본말로 '아다마노 조뗀!')

101004 @ 오름, 냇창, 내창은 여기 엇수과? 신촌에.(오름, 내, 천은 여기 없습니까? 신촌에.)

101004 #1 내창은 엇고 저 어디 섯가름이.(내는 없고 저 어디 '섯가름'.)

101004 @ 예.(예.)

101004 #1 섯가름은 가면은 거기 내창이 이실 꺼라. 서부론 가민 그 내창이 막 커난 디이. 저딜로 웬당알[10]로 돌려신가? 경 안헤시믄 그 내가 이번에 우리 다 죽어.('섯가름'은 가면 거기 내가 있을 거라. 서부론 가면 그 내이 막 컸었는데 저기로 '웬당알'로 돌렸는가? 그렇게 안했으면 그 내가 이번에 우리 다 죽어.)

101004 @ 아아.(아아.)

101004 #1 그, 그 내가 이레 담아들건디 저 낼이 웬당알로 돌려 분 거야. 그레 돌리니까 살앗주. 경 안헤시민 이레 막 들어와.(그, 그 내가 여기로 들어올 건데 저 내를 '웬당알'로 돌려 버린 거야. 그리 돌리니까 살았지. 그렇게 안했으면 여기 막 들어와.)

101004 @ 그렇구나예? 뭐 굴이라든가 바당엔 엇수과? 굴?(그렇군요? 뭐 굴이라든가 바다엔 없습니까? 굴?)

101004 #1 바당에?(바다에?)

101004 @ 예.(예.)

101004 #1 바당에 굴?(바다에 굴?)

101004 @ 굴, 동굴?(굴, 동굴?)

101004 #1 엇어. 고깃집이엔 헌 디 잇어.(없어. '고깃집'이라고 한 데 있어.)

101004 @ 신촌에?(신촌에?)

101004 #1 ᄋᆞ, 바로 이디.(응, 바로 여기.)

101004 @ 동굴 닮은 거?(동굴 닮은 거?)

101004 #1 거기는이. 완전이 굴이라. 견디이. 사람이 들어갈 때는이. 이 머리로 헹 들어가. 건디 나올 때는 그디가 널르니까.(거기는. 완전히 굴이라. 그런데. 사람이 들어갈 때는. 이 머리로 해서 들어가. 그런데 나올 때는 거기가 넓으니까.)

101004 @ 아아.(아아.)

101004 #1 이렇게 돌아아졍 와. 거기에 생복 테레 가잖아. 거기, 굴소곱에다가. 이 천장 문직으면서.(이렇게 돌아서 와. 거기에 생복 떼러 가잖아. 거기, 굴속에다가. 이 천장 만지면서.)

101004 @ 아아.(아아.)

101004 @ 그렇게 해녀들이 힘들어.(그렇게 해녀들이 힘들어.)

101004 @ 물도 들엇닥 나왓닥 허는 디로구나 거기가?(물도 들었다 나왔다 하는 데로구나 거기가?)

101004 #1 거기도 물, 이 물 싸민 싸고, 들민 들고, 들면은 막 짚으고 수심이. 싸민

10) '웬당알'은 '원당'과 '아래'의 합성어로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의 원당봉 아래 바닷가를 이르는 지명으로 쓰이고 있다.

야픈 디. 고깃집이옌 헌 디, 거기가.(거기도 물, 이 물 싸면 싸고, 들면 들고, 들면 막 깊고 수심이, 싸면 얕은 데. '고깃집'이라고 한 데, 거기가.)

101004 @ 아아.(아아.)

101004 #1 고기덜만 놀아.(고기들만 놀아.)

101004 @ 아아.(아아.)

101004 #1 완전이 굴이라. 건디 그 우리는 거기 무서왕 허는 디, 옛날 어른들은 거기가 전복 뗑 나오는 디야. 들어갈 때는 이렇게, 이렇게 헹 들어가고, 나올 때는 굴 닮은 디 널러서 이렇게 제대로 헹. 들어갈 때는 영 헹 들어가.(완전이 굴이라. 그런데 그 우리는 거기가 무서워서 하는데, 옛날 어른들은 거기. 전복 때서 나오는 데야. 들어갈 때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들어가고, 나올 때는 굴 닮은데 넓어서 이렇게 제대로 해서. 들어갈 때는 이렇게 해서 들어가.)

101004 @ 아아.(아아.)

101004 #1 좁으니까. 거긴 고기덜만 사는 데.(좁으니까. 거긴 고기들만 사는 데.)

101004 @ 지금도 물 쌀 때 영 갈 수 잇어마씨?(지금도 물 썰 때 이렇게 갈 수 있어요?)

101004 #1 들면은 막 짚어. 거기는.(들면 막 깊어. 거기는.)

101004 @ 짚엉은에 해녀들만 가는 디로구나?(깊어서 해녀들만 가는 데로구나?)

101004 #1 그냥 사람덜은 못 가.(그냥 사람들은 못 가.)

101004 @ 거기 이름 고깃집이라마씨?(거기 이름 '고깃집'이예요?)

101004 #1 옛날은 옛날 할망덜, 해녀할망덜이 한청이옌 허매. 고기한청이라고.(옛날은 옛날 할머니들, 해녀할머니들이 한청이라고 했어. '고기한청'이라고.)

101004 @ 고기한청? 야.('고기한청'? 야.)

101004 #1 거기가 막 고기만 고기 떼로 사는디. 고깃집, 고깃집.(거기가 막 고기만 고기떼로 사는데. '고깃집', '고깃집'.)

101004 @ 야, 바위 이런 큰 돌멩이 이런 것도 고냉이바위여, 무신 바위여.(야, 바위 이런 큰 돌멩이 이런 것도 '고냉이바위'여, 무슨 바위여.)

101004 #1 그런 건 엇고, 저 이 여, 여 이름은 잇어. 여 이름.(그런 건 없고, 저 이 여, 여 이름은 있어. 여 이름.)

101004 @ 무슨 이름? 검은여[11]예?(무슨 이름? '검은여'요?)

101004 #1 아니, 아니. 안조각여[12].(아니, 아니. '안조각여'.)

101004 @ 안조각여.('안조각여'.)

101004 #1 응. 새조각여[13].(응. '세조각여'.)

101004 @ 해?(해?)

101004 #1 새, 가운데.(사이, 가운데.)

101004 @ 새조각여.('새조각여'.)

---

11) '검은여'는 신촌 동 동네에 있는 여 이름이다.
12) '안조각여'는 신촌 동 동네에 있는 여 이름이다.
13) '새조각여'는 신촌 동 동네에 있는 여 이름이다.

101004 #1 밧조각여[14]. 그 다음은 안뿔여[15].(‘밧조각여’. 그 다음은 ‘안뿔여’.)

101004 @ 안뿔여?(‘안뿔여’?)

101004 #1 응, 또 그 다음은 밧뿔여.(응. 또 그 다음은 ‘밧뿔여’.)

101004 @ 뿔여가 뭣꽈? 밧뿔여?(‘뿔여’가 뭡니까? ‘밧뿔여’?)

101004 #1 그 이름이 그렇지.(그 이름이 그렇지.)

101004 @ 아아, 안쪽에 불여? 밧쪽에?(아아, 안쪽에 붙여? 바깥쪽에?)

101004 #1 안뿔여, 밧뿔여, 샛조각여, 곤빌레[16].(‘안뿔여’, ‘밧뿔여’, ‘샛조각여’, ‘곤빌레’.)

101004 @ 곤빌레, 곤 빌레는 빌레라는 거 아니?(‘곤 빌레’, ‘곤 빌레’는 ‘빌레’라는 거 아니?)

101004 #1 으응. 이 돌이 빌레[17]라도 깨끗허니까 곤 빌레라고.(으응. 이 돌이 ‘빌레’라도 깨끗하니까 고운 ‘빌레’라고.)

101004 @ 고운 빌레?(고운 ‘빌레’?)

101004 #1 응. 여기서 말하면 이쁜 빌레라고 허는 거지. 곤빌레, 옛날 할망덜.(응. 여기서 말하면 예쁜 ‘빌레’라고 하는 거지. ‘곤빌레’, 옛날 할머니들.)

101004 @ 바위 바위가?(바위 바위가?)

101004 #1 여기는 바위가 엇고.(여기는 바위가 없고.)

101004 @ 이쁜 빌레, 곤빌레?(예쁜 ‘빌레’, ‘곤빌레’?)

101004 #1 바당 일름이야 그거. 안조각여, 밧조각여 거 바당 일름이야. 일름. 그거, 거기는 이제 해녀가 들어갈 수 잇고이. 그 나머진 너무 수심 짚어가지고 못 들어가. 그렇게 빌레만 춪으면서 이제 해녀 질을 헤여.(바다이름이야 그거. ‘안조각여’, ‘밧조각여’ 거 바다 이름이야. 이름. 그거, 거기는 이제 해녀가 들어갈 수 있고. 그 나머진 너무 수심 깊어가지고 못 들어가. 그렇게 ‘빌레’만 찾으면서 이제 해녀 일을 해.)

101004 @ 아아.(아아.)

101004 #1 나도 십이 미터 보통 들어가 낫어. 전복만 떼어.(나도 십이 미터 보통 들어갔었어. 전복만 떼.)

101004 @ 아아.(아아.)

101004 #1 생복벳긔 안 떼어. 소라도 안허고.(전복밖에 안 떼. 소라도 안하고.)

101004 @ 상군이엇구나예.(상군이었군요.)

101004 #1 응. 막 베끗디, 이디 그 줄 잇어. 나 헤난 줄, 아사오건 보젠?(응. 막 바깥에, 여기 그 줄 있어. 나 했었던 줄, 가져오면 볼래?)

101004 @ 아아, 나중에, 거 나중에랑 보게예.(아아, 나중에, 거 나중에 봐요.)

101004 #1 막 짚은 열두 발, 십 이미터.(막 깊은 열두 발, 십 이미터.)

101004 @ 지금은 물질 안 헴수과?(지금은 물질 안 합니까?)

---

14) ‘밧조각여’는 신촌 동 동네에 있는 여 이름이다.
15) ‘안뿔여’는 신촌 동 동네에 있는 여 이름이다.
16) ‘곤빌레’는 고운 빌레라는 뜻으로 신촌 동 동네에 있는 빌레 이름이다.
17) ‘빌레’는 지면 또는 땅에 넓적하고 평평하게 묻힌 돌을 말한다.

101004 #1 하이고, 걷지 못헹 못헤여.(하이고, 걷지 못해서 못해.)

101004 @ 거난 위험허여.(그러니까 위험해.)

101004 #1 이제도 바당에만 가면은 허는데, 걷지 못헤. 네려졍.(이제도 바다에만 가면은 하는데, 걷지 못해. 넘어져서.)

101004 @ 네려젼예?(넘어져서요?)

101004 #1 다리가 말 안 들언, 경만 안허믄 뭐 허지.(다리가 말 안 들어서, 그렇게만 안하면 뭐 하지.)

101004 @ 게도 곳디서 무슨 뭐 주스레 가곡 경도 안허곡?(그래도 갯가에서 무슨 뭐 주우러 가고 그렇게도 안하고?)

101004 #1 네려졍.(넘어져서.)

101004 @ 네려졍 안 뒈여.(넘어져서 안 돼.)

101004 #1 건디 이디 갓다가 이디 문딱 다쳣어.(이디 갔다가 여기 모두 다쳤어.)

101004 @ 큰일 나.(큰일 나.)

101004 #1 자빠젼. 게난 못 다녀. 네려졍.(자빠져서. 그러니까 못 다녀. 넘어져서.)

101004 @ 안 뒙니다게.(안 됩니다.)

101004 #1 이 발이 말 안 들어.(이 발이 말 안 들어.)

101004 @ 맞아. 우리 어머니도 톳 허레 혼번 갓단예.(맞아. 우리 어머니도 톳 하러 한번 갔다가요.)

101004 #1 ᄒᆞ꼼 ᄒᆞ민 그냥 막 자빠젼, 거난 무서웡 못 뎅기크라. 네려젼.(조금하면 그냥 막 자빠져서, 그러니까 무서워서 못 다니겠어. 넘어져서.)

101004 @ 예. 안뒈여.(예. 안 돼.)

101004 #1 팔십 세ᄁᆞ지 물질헷주만은 이젠 못 헤여.(팔십 세까지 물질했지만 이젠 못 해.)

101004 @ 팔십 세까지예.(팔십 세까지요.)

101004 #1 응.(응.)

101004 @ 신촌엔 오름이 없지예? 이 근방에.(신촌엔 오름이 없지요? 이 근방에.)

101004 #2 웬당봉벳긔 없죠.(원당봉 밖에 없죠.)

101004 @ 오름 웬당봉예. 웬당봉 반은 신촌 소속이고. 다음 내창은?(오름 원당봉이요. 원당봉 반은 신촌 소속이고. 다음 내는?)

101004 #2 내창은 이 저 종인내[18]라고 해가지고 저 우로 내려오는 내가 지금 저 닥ᄆᆞ루[19]ᄁᆞ지 내려가죠.(내는 이 저 '종인내'라고 해가지고 저 위로 내려오는 내가 지금 저 '닥ᄆᆞ르'까지 내려가죠.)

101004 @ 닥ᄆᆞ루도 잇엇수과? 여기?('닥ᄆᆞ르'도 있었습니까? 여기?)

101004 #2 닥ᄆᆞ루가 잇고, 이 웬당알 아주 고기가 많이 나고, 지금도 낚시질을 많이 갑니다.('닥ᄆᆞ르'가 있고, 이 '웬당알' 아주 고기가 많이 나고, 지금도 낚시질을 많이 갑

18) '종인내'는 신촌의 동 동네에 있는 내 이름이다.
19) '닥ᄆᆞ르'는 신촌마을의 지명으로 바닷가에 닭의 날개를 펼친 모양을 하고 있다.

니다.)

101004 @ 아아.(아아.)

101004 #2 웬당알을.(‘웬당알’을.)

101004 @ 그 웬당알은 신촌 구역이꽈? 바당?(그 ‘웬당알’ 신촌 구역입니까? 바다?)

101004 #2 그렇죠.(그렇죠.)

101004 @ 삼양이 아니고?(삼양이 아니고?)

101004 #2 아, 이 삼양하고부터 연결뒈어 잇주만은 지금 저 한전으로 저쪽으론 삼양이고.(아, 이 삼양하고부터 연결되어 있지만 지금 저 한전으로 저쪽으론 삼양이고.)

101004 @ 예.(예.)

101004 #2 한전 이쪽은 신촌이죠.(한전 이쪽은 신촌이죠.)

101004 @ 아아, 고기가 많이 나고예?(아아, 고기가 많이 나고요?)

101004 #2 예.(예.)

101004 @ 거기 그 웬당알이 닥ᄆᆞ루가 잇수과?(거기 그 ‘웬당알’가 ‘닥ᄆᆞ르’가 있습니까?)

101004 #2 아, 닥ᄆᆞ루 신촌부락에 붙엇어요.(아, ‘닭ᄆᆞ르’ 신촌부락에 붙었어요.)

101004 @ 아아, 그 닥ᄆᆞ루? 꼬꼬댁허는 닥ᄆᆞ루꽈?(아아, 그 ‘닥ᄆᆞ르’? 꼬꼬댁하는 ‘닥ᄆᆞ르’입니까?)

101004 #2 닥ᄆᆞ루예. 닥ᄆᆞ루.(‘닥ᄆᆞ르’요. ‘닥ᄆᆞ르’.)

101004 @ 진드르에 잇는 진드르로 들어가는 디지예.(‘진드르’에 있는 ‘진드르’로 들어가는 데지요.)

101004 #2 예. 그렇죠.(예. 그렇죠.)

101004 @ 무사 닥ᄆᆞ루옌 허고 진드르엔 헤신고예?(왜 ‘닥ᄆᆞ르’라 하고 ‘진드르’라고 했는가요?)

101004 #2 진드르[20]는 밧디 좋으니까 진드르라고 헤엿고 닥ᄆᆞ루는 닭 형치ᄀᆞ치 생겨서 닥ᄆᆞ루 가민 경치가 썩 좋죠. 또 닥ᄆᆞ루, 닥머리ᄀᆞ치 생긴 디도 잇고 그 괴석이 많습니다.(‘진드르’는 밭이 좋으니까 ‘진드르’라고 했고 ‘닥ᄆᆞ르’는 닭 형치 같이 생겨서 ‘닥ᄆᆞ르’ 가면 경치가 썩 좋죠. 또 ‘닥ᄆᆞ르’, 닭 머리같이 생긴 데도 있고 괴석이 많습니다.)

101004 @ 괴석예? 아름다운 돌, 돌덜이 거기 많이 잇지예? 닥ᄆᆞ루말고도 다른 모양 잇는, 이름이 잇는 바위도 잇수과? 고냉이여? 무신?(괴석이요? 아름다운 돌, 돌들이 거기 많이 있지요? ‘닥ᄆᆞ르’ 말고도 다른 모양 있는, 이름이 있는 바위도 있습니까? 고양이여? 무슨?)

101004 #2 아니, 거긴.(아니, 거긴.)

101004 @ 닭 형치.(닭 형치.)

101004 #2 닥ᄆᆞ루 이제 구경도 많이 옵니다.(‘닥ᄆᆞ르’, 이제 구경도 많이 옵니다.)

101004 @ 예.(예.)

---

20) ‘진드르’는 긴 들이라는 뜻으로 신촌마을의 지명이다.

101004 #2 이제 구경도 많이 오고 웬당알이 이 저 어족이 풍부헤가 지고.(이제 구경도 많이 오고 '웬당알'가 이 저 어족이 풍부해 가지고.)

101004 @ 어.(어.)

101004 #2 어족이 풍부헤서.(어족이 풍부해서.)

101004 @ 어족이 풍부헤서.(어족이 풍부해서.)

101004 #2 없는 고기가 없고 수심이 깊으고 그러니까.(없는 고기가 없고 수심이 깊고 그러니까.)

101004 @ 그렇구나. 굴도 엇수과? 굴? 바당에 동굴?(그렇구나. 굴도 없습니까? 굴? 바다에 동굴?)

101004 #2 굴이 있어도 알 수가 있나? 이거 저 자동 옛날 거리레 갓다가 바당 속에 굴이 있는데 그물이 그 속으로 굴속으로 들어가 불엇어. 그런 디가 잇어요.(굴이 있어도 알 수가 있나? 이거 저 자동 옛날 뜨러 갔다가 자동 바다 속에 굴이 있는데 그물이 그 속으로 굴속으로 들어가 버렸어. 그런 데가 있어요.)

101004 @ 그물이 굴속으로예?(그물이 굴속으로요?)

101004 #2 그물이 그래서 그걸 겨우겨우 빼냇다는 말이 있는데.(그물이 그래서 그걸 겨우겨우 빼냈다는 말이 있는데.)

101004 @ 게난 그게 고기 굴이렌 헙니까? 고기집?(그러니까 그게 고기굴이라고 합니까? '고기집'?)

101004 #2 그렇죠. 고기가 그 굴속에 살죠.(그렇죠. 고기가 그 굴속에 살죠.)

101004 @ 사니까예.(사니까요.)

101004 #2 자리도 살고.(자리도 살고.)

101004 @ 거기가 저 웬당알에 잇수과? 것도?(거기가 저 '웬당알'에 있습니까? 것도?)

101004 #2 예. 한전 옆에 있어요.(예. 한전 옆에 있어요.)

101004 @ 한전 옆에예. 삼춘 그 구멍에 들어가 봣수과? 어릴 때?(한전 옆에요. 삼춘 그 구멍에 들어가 봤습니까? 어릴 때?)

101004 #2 아이고, 사람 못 들어가죠.(아이고, 사람 못 들어가죠.)

101004 @ 아아.(아아.)

101004 #2 바닷속에.(바다 속에.)

101004 @ 해녀들은 들어갓덴 헙디다. 영 헤영 알로 영 들어간?(해녀들은 들어갔다고 합디다. 이렇게 해서 아래로 이렇게 들어간?)

101004 #2 아, 그물이 저 이 지반이 넓은 건데, 그놈이 그 속으로 들어가니까 빼내지 못헤 가지고 그.(아, 그물이 저 이 지반이 넓은 건데, 그놈이 그 속으로 들어가니까 빼내지 못해 가지고 그.)

101004 @ 그런 이야기가 잇구나예.(그런 이야기가 있군요.)

101004 #2 한전 옆에.(한전 옆에.)

101004 @ 한전 옆에 고깃집예. 아, 그것도 참 재미잇는 건데 그냥 물 싸면 아무나

갈 수 잇는 곳은 아니구나예.(한전 옆에 '고깃집'이요. 아, 그것도 참 재미있는 건데 그냥 물 싸면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은 아니군요.)

101004 #2 아니 바닷속이니까.(아니 바닷속이니까.)

101004 @ 바닷속에 굴이 잇다는 거지예.(바닷속에 굴이 있다는 거지요.)

101005 @ 게난 이 마을에 노인당은 세 개나 잇덴 협디다예?(그러니까 이 마을에 노인당은 세 개나 있다고 하던데요?)

101005 #1 세 개, 거 셔봐. 아, 동부, 저 대수동[21]은 노인당 엇어. 이레 다 합쳐 불어실거라.(세 개, 거 셔봐. 아, 동부, 저 대수동은 노인당 없어. 여기 다 합쳐 버렸을 거라.)

101005 @ 경로당 동부, 서부?(경로당 동부, 서부?)

101005 #1 응. 노인당은 세바띤디 질 큰더레 몰렷네.(응. 노인당은 세 군덴데 젤 큰 데로 몰렸네.)

101005 @ 아아.(아아.)

101005 #1 여기 동동, 중동.(여기 동동, 중동.)

101005 @ 동동이 크꽈?(동동이 큽니까?)

101005 #1 응. 크지 ᄆᆞ을이 질 커. 신촌에선, 이 동부락이 최고 큰 디라.(응. 크지 마을이 젤 커. 신촌에선, 이 동부락이 최고 큰 데라.)

101005 @ 아이구, 노인회장님도 잘도 똑똑하십디다예.(아이구, 노인회장님도 잘도 똑똑하시던데요.)

101005 #1 이장만 십년 헤 먹은 사람이라. 마을에 이장님만 십년 헌 사람이라. 이 사람, 그렇게 잘허니까 십년을 헷지. 게도 요만큼 안 먹으니까 먹어시민 젼뎌 나가지 못헤. 깨끗허게 이장질 헌 사람 이 사람. 요 십년 헤도 원 요 바늘 틈만이 먹은 거 없어. 고정허니까. 상 줄 만헌 사람이여 이 사람. 십년.(이장만 십년 해 먹은 사람이라. 마을에 이장님만 십년 한 사람이라. 이 사람, 그렇게 잘하니까 십년을 했지. 게도 요만큼 안 먹으니까 먹었으면 견뎌 나가지 못해. 깨끗하게 이장일 한 사람 이 사람. 요 십년 해도 원 요 바늘 틈만큼도 먹은 거 없어. 고정하니까. 상 줄 만한 사람이여 이 사람. 십년.)

101005 @ 이 마을에는 무슨 기관이 있습니까? 기관이라고 하면.(이 마을에는 무슨 기관이 있습니까? 기관이라고 하면.)

101005 #2 기관이라고 하면 거 무슨 사무소하고 농협이나허고 뭐 ᄆᆞ을금고나 허고 그렇죠 뭐.(기관이라고 하면 거 무슨 사무소하고 농협이나 하고 뭐 마을금고나 하고 그렇죠 뭐.)

101005 @ 노인당, 경로당.(노인당, 경로당.)

101005 #2 예. 노인당은 각 동마다 다 잇어요.(예. 노인당은 각 동마다 다 있어요.)

101005 @ 각 동마다 멧 개? 서카름, 동카름 이렇게?(각 동마다 몇 개? '서카름', '동카름' 이렇게?)

101005 #2 섯동, 동동도 잇고 상동도 잇고, 여기 중동에도 잇고 대수동에도 잇고.(서

21) '대수동'은 신촌마을의 부락 이름이다.

동, 동동도 있고 상동도 있고, 여기 중동에도 있고 대수동에도 있고.)

101005 @ 이제는 통합 헹 두 군데벳긔 엇덴 헙디다.(이제는 통합 헹 두 군데밖에 없다고 합디다.)

101005 @ 신촌에?(신촌에?)

101005 #2 예.(예.)

101005 @ 옛날엔?(옛날엔?)

101005 #2 아, 옛날엔 두 군데 각 동마다 다 지엇어요.(아, 옛날엔 두 군데 각 동마다 다 지었어요.)

101005 @ 아, 경헷수과? 여기는 동동이고 섯동 두군데만 이신 줄 알아신디 대수동 잇고, 상동에 잇고, 중동도 잇구나예?(아, 그렇게 했습니까? 여기는 동동이고, 서동 두 군데만 있는 줄 알았는데 대수동 있고, 상동에 있고, 중동도 있군요?)

101005 #2 대수동 잇고 중동엔 엇고 여기 중동엔 엇고 상동에 잇고.(대수동 있고 중동엔 없고 여기 중동엔 없고 상동에 있고.)

101005 @ 아아, 그믄 총 네 개가 잇다는 거다예?(아아, 그러면 총 네 개가 있다는 거네요?)

101005 #2 섯동에도 흔군데 그자 잇어요.(서동에도 한군데 그저 있어요.)

101006 @ 옛날에는 여기예 무슨 접이나 계, 어촌계.(옛날에는 여기예요 무슨 접이나 계, 어촌계.)

101006 #1 응.(응.)

101006 @ 어촌계는 언제 삼촌 어릴 때부터 잇어낫수과?(어촌계는 언제? 삼촌 어릴 때부터 있었습니까?)

101006 #1 어촌계옌 헌 거는이 이 나건 디가 어촌계옌 헨 나건 디가 멧 년 안뒛어.(어촌계라고 한 거는 이 난 지가 어촌계라고 해서 난 지가 몇 년 안됐어.)

101006 @ 아아. 신촌에서?(아아. 신촌에서?)

101006 #1 어. 어촌계옌 헌 디가 멧 년 안 뒈고 그 전인이 이 해녀ᄀᆞ라 줌수옌 헤나서.(어. 어촌계라고 한 데가 몇 년 안 되고 그 전엔 이 해녀보고 잠수라고 했었어.)

101005 @ 줌수옌?(잠수라고?)

101006 #1 이거 저 어촌계 나건 딘 멧 년 안 뒈서. 어촌계, 일제 때부터 허긴 헷주만은 일제 때부터 나와서 이 해녀덜은.(이거 저 어촌계 나온 지는 몇 년 안 되었어. 어촌계, 일제 때부터 허긴 했지만 일제 때부터 나와서 이 해녀들은.)

101006 @ 무슨 접, 접이여 계여, 상여계여, 상여접이여?(무슨 접, 접이여 계여, 상여계여, 상여접이여?)

101006 #1 건 섯가름.(건 '섯가름'.)

101006 @ 섯가름 잇엇수과?('섯가름' 있었습니까?)

101006 #1 어. 상여계여 뭐여 섯동, 섯동가민은 알아. 섯동해녀들, 여기는 뭐 아까 ᄀᆞᆮ듯.(어. 상여계여 뭐여 서동, 서동 가면 알아. 서동 해녀들, 여기는 뭐 아까 말하듯.)

101006 @ 그릇제여, 뭐?(그릇제여 뭐?)

101006 #1 아니, 뭐 안조각여, 밧조각여, 곤빌레, 안뿔여, 밧뿔여 그거. 건디 그거 나벳긔 몰라. 뚠 사람은 몰라.(아니, 뭐 '안조각여', '밧조각여', '곤빌레', '안뿔여', '밧뿔여' 그거. 그런데 그거 나밖에 몰라. 딴 사람은 몰라.)

101006 @ 게난.(그러니까.)

101006 #1 짚은 데 안 강이. 요디서만 허는디 나는 전복만 테기 덕분에 다 알아. 다 알아. 숨 질덴, 전복만 테주, 소라 ᄀᆞ튼 건 안 헤여.(깊은 데 안가서. 여기서만 하는데 나는 전복만 떼기 덕분에 다 알아. 다 알아. 숨 길 땐 전복만 떼지. 소라 같은 건 안 해.)

101006 @ 무사 돈이 뒈니까?(왜 돈이 되니까?)

101006 #1 돈 뒈는 것만 ᄒᆞ나라도 춧앙 떼젠 허주. 소라는 안헤. 소라 허는 거믄 벌써 다른 거 보젠 허지. 경허니까 전복벳긔 안 떼. 난, 소라ᄀᆞ튼 건 안헤. 십이 미터 보통 들어가. 이제 저디.(돈 되는 것만 하나라도 찾아서 떼려고 하지. 소라는 안헤. 소라 하는 거면 벌써 다른 거 보려고 하지. 그렇게 하니까 전복밖에 안 떼. 난, 소라 같은 건 안 해. 십이 미터 보통 들어가. 이제 저기.)

101006 @ 십이 미터민 나 키보다 멧 배는?(십이 미터면 내 키보다 몇 배는?)

101006 #1 이 발로다가 노손 발로다가 열두 발.(이 발로다가 '노손' 발로다가 열두 발.)

101006 @ 십이 발 들어간다는 거예?(십이 발 들어간다는 거예요?)

101006 #1 어, 저디 잇어. 노손, 야, 어머어마헌디 들어가졋드라. 이젠 보니까.(어, 저기 있어. 노손, 야, 어머어마한데 들어갔더라. 이젠 보니까.)

101006 @ 아아, 바당에 들어가믄 뭐가 제일 무서와마씨?(아아, 바다에 들어가면 뭐가 제일 무서워요?)

101006 #1 무서운 것이 엇지. 이제 숨 쫄랑 죽는 것이 무섭지.(무서운 것이 없지. 이제 숨 짧아서 죽는 것이 무섭지.)

101006 @ 숨 쫄랑 죽는 것이 제일?(숨 짧아서 죽는 것이 제일?)

101006 #1 것이 무섭지 뭐. 이제 그 옛날엔 돌고래 그거 떼가 떼죽으로 ᄆᆞᆯ려 와가믄 좀 ᄆᆞ습지. 그 조름에는 상어가 조차오라.(것이 무섭지 뭐. 이제 그 옛날엔 돌고래 그거 떼가 떼로 몰려 와가면 좀 무섭지. 그 뒤에는 상어가 쫓아와.)

101006 @ 아, 정말마씨?(아, 정말이요?)

101006 #1 그렇지. 이 그 곰세기 막 그냥 뛰곡 대곡허단이 상어가 또ᄁᆞ망에 조친뎅헹 그것이 ᄆᆞ습지. 그거 뭐 무싱거 그 저 곰세기는 ᄀᆞ치 안앙 둥굴어.(그렇지. 이 그 돌고래 막 그냥 뛰고 대고하다가 상어가 똥구멍에 쫓는다고 해서 그것이 무섭지. 그거 뭐 무슨 거 그 저 돌고래는 같이 안아서 뒹굴어.)

101006 @ 아아, 곰세기는 ᄀᆞ치 안앙 둥굴어.(아아, 돌고래는 같이 안아서 뒹굴어.)

101006 #1 응.(응.)

101006 @ 경 착헤마씨?(그렇게 착해요?)

101006 #1 착헤여. 거이 와가민이 배 알로 배 알로 알로 씰씰, 어떵 말을 잘 알아듣

는 줄 알아?(착해. 거 와가면 배 아래로, 배 아래로, 아래로 슬슬, 어떻게 말을 잘 알아듣는 줄 알아?)

101006 @ 어고야야아.(아이고야야아.)

101006 #1 사람보다 희한헤여. 거. 배알로 배알로! 와작착와작착허당이, 배알로 배알로! 허민 살살살살 허멍 곰베만이 튀라! 마께만 튀라! 빨축빨축 튀고, 말 잘 알아듣는 거라 거.(사람보다 희한해. 거 배 아래로 배 아래로! 와작착 와작착하다가, 배 아래로 배 아래로! 하면 살살살살 하면서 곰방메만큼 뛰라! 방망이만큼 뛰라! 팔짝팔짝 뛰고, 말 잘 알아듣는 거라 거.)

101006 @ 곰베만이 튀라! 허면 발착발착 뛰고?(곰방메만큼 뛰라! 하면 팔짝팔짝 뛰고?)

101006 #1 곰베만이 튀라 마께만이 허민 곰베민 요만이, 마께만이 이만썩 튀곡 허민 이만씩 튀고. 배 알로 배 알로! 허민 알로 살 살 살 살 거 말 잘 알아들어.(곰방메만큼 뛰라 마께만큼 하면 곰방메 요만큼, 방망이만큼 이만큼 뛰고 하면 이만큼씩 뛰고. 배 아래로 배 아래로! 하면 아래로 살 살 살 살 거 말 잘 알아들어.)

101006 @ 아하, 가까이서도 봐낫수과?(아하, 가까이서도 봤었습니까?)

101006 #1 가까이서도 허곡 또 먼디 강도 보이고 그거 날 우치젠 허민 잘 뎅겨.(가까이서도 하고 또 먼데 가서도 보이고 그거 날 궂으려고 하면 잘 다녀.)

101006 @ 아아.(아아.)

101006 #1 비나 바람이나 불젠 허믄, 이젠이 하지 아니영 옛날은 떼죽으로 뎅겻져. 무서와.(비나 바람이나 불려고 하면, 이제는 하지 않고 옛날은 떼로 다녔어. 무서워.)

101006 @ 떼죽으로 뎅견예?(떼로 다녔어요?)

101006 #1 주둥이광 꼬짝 헤둠서 그냥 쉑쉑쉑쉑허멍.(주둥이는 뾰족 하고서는 그냥 쉑쉑쉑쉑 하면서.)

101006 @ 무섭지 않으면서 무서와헴수다예. 상어 때문에?(무섭지 않으면서 무서워합니다. 상어 때문에?)

101006 #1 아니, 상어가 또ᄁᆞ망에 좇암시카부덴 곰세기는 ᄀᆞ치 안앙 둥굴어. 그거는 이 아무도 안 헤. 상어가 무섭지. 상어는이 옛날은 짚은 딜로만 뎅겨. 상어가, 건디 여자는 맨스 오잖아. 그 맨스 온 사람신디만 더 좇아간덴 허난.(아니, 상어가 똥구멍에 쫓아올까봐 돌고래는 같이 안아서 뒹굴어. 그거는 아무도 안 해. 상어가 무섭지. 상어는 옛날은 깊은 데로만 다녀. 상어가, 그런데 여자는 생리 오잖아. 그 생리 온 사람에게만 더 쫓아간다고 하니까.)

101006 @ 음.(음.)

101006 #1 핏내 나가지고.(피비린내 나가지고.)

101006 @ 핏내 나가지고.(피비린내 나가지고.)

101006 #1 겐디 이젠 그런 상어에 사람 죽엇젠 말은 엇어. 옛날은.(그런데 이젠 그런 상어에 사람 죽었다고 말은 없어. 옛날은.)

101006 @ 옛날은 잇어예. 종달리[22]에도 보난 우도 영화에 나오는 거 보난. 상어에.

(옛날은 있어요. '종달리'에도 보니까 우도 영화에 나오는 거 보니까. 상어에.)

101006 #1 아이구, 상어이 이런 거 끊어 먹어 불어. 물착물착.(아이구, 상어 이런 거 끊어 먹어버려. '물착물착'.)

101006 @ 거 어렷을 때 봐 본 적은 없지예? 신촌에서?(거 어렸을 때 봐 본 적은 없지요? 신촌에서?)

101006 #1 상어는 안 봐봣지. 그 곰세기 삘룩삘룩 뛰는 거. 그런 거는 계속 보지.(상어는 안 봐봤지. 그 곰세기 '삘룩삘룩' 뛰는 거. 그런 거는 계속 보지.)

101006 @ 경헤가민 일단 불턱으로 돌아옵니까? 그런 거 보여가면?(그렇게 해가면 일단 불턱으로 돌아옵니까? 그런 거 보이면?)

101006 #1 그게 왜냐허면은 날 우치젠 허면은 그게 낭 뎅겨. 바람이나 낭 뎅겨.(그게 왜냐하면 날 궂으려고 하면 그게 나서 다녀. 바람이나 나서 다녀.)

101006 @ 날 우치젠 허민예.(날 궂으려고 하면요.)

101006 #1 일기.(일기.)

101006 @ 음. 신촌에는 듬북, 감태도 많이 나옵니까?(음. 신촌에는 듬북, 감태도 많이 나옵니까?)

101006 #1 어, 그거 이젠 없어.(어, 그거 이젠 없어.)

101006 @ 이젠 엇어마씨?(이젠 없어요?)

101006 #1 오염이, 저 웬당알 잇잖아. 저 발전소.(오염이, 저 '웬당알' 있잖아. 저 발전소.)

101006 @ 발전소쪽이 웬당알이렌 헙니까?(발전소 쪽이 '웬당알'라고 합니까?)

101006 #1 그디 웬당알. 거기 뜨거운 물을 막 내려노니까 바당이 헤양헷잖아. 하도 뜨거운 물을 막 내려노니까 감태고 뭐 소라고 원 없어.(거기 '웬당알'. 거기 뜨거운 물을 막 내려버리니까 바다가 하얗잖아. 하도 뜨거운 물을 막 내려버리니까 감태고 뭐 소라고 전혀 없어.)

101006 @ 바당이 헤양헤 불언마씨?(바다가 하얗게 돼버렸어요?)

101006 #1 그렇지. 완전히 이 색깔이옌 허난. 저 냉장고 색깔.(그렇지. 완전히 이 색깔이라고 하니까. 저 냉장고 색깔.)

101006 @ 아이고.(아이고.)

101006 #1 헤양케 게난 줌녀곡지 뭇아 불엇잖아. 저 그 웬당알, 저 그 발전소 물. 막 뜨거완.(하얗게 그러니까 잠녀곡지 마 버렸잖아. 저 그 '웬당알', 저 그 발전소 물 막 뜨거워서.)

101006 @ 뭘 뭇아 불언마씨?(뭘 마 버렸어요?)

101006 #1 발전소 물 잇잖아? 막 뜨겁지이.(발전소 물 있잖아? 막 뜨겁지).

101006 @ 예.(예.)

101006 #1 그걸 바다더레 내치니까 물이 다 뜨거우니까 여가 다 감태도 못나, 헤양헤불언.(그걸 바다에 내치니까 물이 다 뜨거우니까 여가 다 감태도 못나, 하얗게 돼버렸

22) '종달리'는 구좌읍 종달리를 말한다.

어.)

101006 @ 거니까.(그러니까.)

101006 #1 그전이 우리 생복 탈 땐 막, 뭐 ᄀᆨ제기, 감태, 뭐 실겡이, 막 잇어나서. 이젠 뭐 노랑젱이, 아무것도 엇어. 이젠, 웬당알 그 발전소물이 뜨거운 물 내려와부난, 그것만 아니ᄀᆞ뜨민 즘녀덜 괜찮을 건디, 저걸로 헹 즘녀덜 망조.(그전에 우리 전복 딸 땐 막, 뭐 ᄀᆨ제기, 감태, 뭐 실겡이, 막 있었어. 이젠 뭐 '노랑쟁이', 아무것도 없어. 이젠, '웬당알' 그 발전소 물이 뜨거운 물 내려와 버리니까, 그것만 아니라면 잠녀들 괜찮을 건데, 저걸로 해서 잠녀들 망조.)

101006 @ 발전손 언제 셍겻수과?(발전손 언제 생겼습니까?)

101006 #1 저 발전소가 아멩헤도 ᄒᆞᆫ 이십 년 넘어 닮아붸여. 나 생각에.(저 발전소가 아무리 해도 한 이십 년 넘은 것 같아 보여. 나 생각에.)

101006 @ 발전소가 뭘 허는 딧과?(발전소가 뭘 하는 뎁니까?)

101006 #1 저 전기 잇잖아. 이 전기가 거기서 물 돌아가멍 이 발전.(저 전기 있잖아. 이 전기가 거기서 물 돌아가면서 이 발전.)

101006 @ 아, 세상에.(아, 세상에.)

101006 #1 다 글로 발전소, 이거게 전기발전소.(다 거기로 발전소, 이거 전기발전소.)

101006 @ 전기발전소가 필요하긴 헌 건데?(전기발전소가 필요하긴 한 건데?)

101006 #1 필요헌디 즘녀는.(필요한데 잠녀는.)

101006 @ 즘녀한테는 치명적이다.(잠녀한테는 치명적이다.)

101006 #1 막 그냥 손 들럿지. 막 뜨거운 물 내려노니까 듬북도 안 난덴 허난, 막 뜨거운 물이니까 바당이 익혓젠 허난, 바당이 익혀불언.(막 그냥 손들었지. 막 뜨거운 물 내려버리니까 듬북도 안 난다고 하니까, 막 뜨거운 물이니까 바다가 익었다고 하니까, 바다가 익어버렸어.)

101006 @ 바당이 익혀불언예?(바다가 익어버렸어요?)

101006 #1 이 바당이 저 듬북덜 나는 바당이 못나. 뜨거운 물 내려와 부니까, 이런 여가 죽어 불어가지고.(이 바다가 저 '듬북'들 나는 바다가 못나. 뜨거운 물 내려와 버리니까, 이런 여가 죽어 버려가지고.)

101006 @ 여가 죽어?(여가 죽어?)

101006 #1 뜨거운 물, 사람이 뜨거운 거 이제 ᄀᆞ트민 저 사름도 다 폐적 나잖아. 바당도 마찬가지야. 꼭 사람허고 ᄀᆞ타.(뜨거운 물, 사람이 뜨거운 거 이제 같으면 저 사람도 다 표적 나잖아. 바다도 마찬가지야. 꼭 사람하고 같아.)

101006 @ 듬북, 감태는 어떵 채취헷수과?(듬북, 감태는 어떻게 채취했습니까?)

101006 #1 거 우리 일제 땐데 옛날에 나가 그때 멧 술에 물질 헤져신고 허면은 열일곱인가? 하여튼 열일곱, 열여덟 그 사이에 헌디, 중군, 상군, 아니 주군, 아니 소군, 중군, 상군 세 가달로 뽑아이. 경허면은 이 우리끼리 세금을 받아. 상군아핀 곱 받고 중군은 조금만 받고, 또 하질은 아주 ᄒᆞ쏠만 받고, 거 우린 항상 상군질에 놓잖아. 그 어린 때도, 그난 원간 숨이 질어노니까 경 헨 허여서.(그거 우리 일제 땐데 옛날에 나가

그때 몇 살에 물질 했는지 하면 열일곱인가? 하여튼 열일곱, 열여덟 그 사이에 했는데, 중군, 상군, 아니 하면 소군, 중군, 상군 세 가닥으로 뽑아. 그렇게 하면은 이 우리끼리 세금을 받아. 상군 앞엔 곱 받고 중군은 조금만 받고, 또 하질은 아주 조금만 받고, 거 우린 항상 상군질에 놓잖아. 그 어린 때, 그러니까 원간 숨이 길어버리니까 그렇게 했어.)

101006 @ 어릴 때부터 겅?(어릴 때부터 그렇게?)

101006 #1 열싀 술에부터.(열세 살에부터.)

101006 @ 열싀 술에?(열세 살에?)

101006 #1 열싀 술에서부터 영 헤엄치잖아.(열세 살에서부터 이렇게 헤엄치잖아.)

101006 @ 예.(예.)

101006 #1 근디 우리 할머니가 요만이헌 테왁 헤주곡, 막 이 미역으로 옛날은 해녀덜이 메역으로 살잖아게.(그런데 우리 할머니가 요만한 테왁 해주고, 막 이 미역으로 옛날은 해녀들이 미역으로 살잖아.)

101006 @ 예.(예.)

101006 #1 막 그걸 ᄌᆞ물어 오렌 허여.(막 그걸 따 오라고 해.)

101006 @ 아아.(아아.)

101006 #1 어린 때부터. 할마니 옛날은이 이젠 고무옷 입으난 헤도 옛날은 속옷 입엉 헷잖아. 달달달달 추워. 그믄 추웡 안 가켄 허민 우리 할마님이 막 가라, 가라. 체얌은이 아무것도 못헤 나오고, 또 두 번첸 가라, 가라. 허니까 메역 꼴렝이. 짚은 디 꼴렝이 짚은 디 쪼금 들어가지 못허난 꼴렝이 끊엉 또 가렌 허난, 이번엔 굽으로 강 끊어완. 느 이제 물질허켜! 우리 할마님이 시험 받아봔 느 물질헌다. 느 상군 된다. 그렇게 헨. 우리 헤낫어. 에이고, 춤말로 이젯 아이덜은 공부나 헷저. 옛날엔 맨발에다가 벌락벌락 춤말로 삶인지 죽음인지 옷이 어디 셔? 댓댓 주멍 입으멍.(어린 때부터. 할머니 옛날은 이젠 고무옷 입으니까 해도 옛날은 속옷 입어서 했잖아. 달달달달 추워. 그러면 추워서 안 가겠다고 하면 우리 할머님이 막 가라, 가라. 처음은 아무것도 못해서 나오고, 또 두 번째 가라, 가라 하니까 미역 꼬리 깊은 데 미역 꼬리 깊은 데 조금 들어가지 못하니까 꼬리 끊어서 또 가라고 하니까, 이번엔 밑동으로 가서 끊어서 왔어. 너 이제 물질하겠다! 우리 할머님이 시험 받아봐서는 너 물질한다. 너 상군 된다. 그렇게 했어. 우리 했었어. 에이고, 참말로 이제 아이들은 공부나 했지. 옛날엔 맨발에다가 '벌락벌락' 참말로 삶인지 죽음인지 옷이 어디 있어? 댓댓 기우면서 입으며.)

101006 @ 할머니가 배와줫구나예. 어머니가 가르쳐준 게 아니고 물질은?(할머니가 배워줬군요. 어머니가 가르쳐준 게 아니고 물질은?)

101006 #1 내냥으로주. 어멍이 어떵 헹 ᄀᆞ르쳐?(나 스스로지. 어머니가 어떻게 해서 가르쳐?)

101006 @ 어머니도 해녀? 줌수?(어머니도 해녀? 잠수?)

101006 #1 어머니도 줌넨디 줌녜 안 헤여. 우리 어머닌 나 허는 거 안 봐봔. 내가 큰 후제는 우리 어머니 물질 허는 거 안 보니까 헐 충 몰른거고, 우리 이모님은 잘헤여.

겐디 우리 어머님은 나 컨 보난 물질 허는 거 안 봐봔. 우리 이모님은 잘 허지. 우리 어머니는 물질.(어머니도 잠녀인데 잠녀 안 해. 우리 어머닌 나 하는 거 안 봐 봤어. 내가 큰 후로는 우리 어머니 물질 하는 거 안 보니까 할 줄 모른 거고, 우리 이모님은 잘해. 그런데 우리 어머님은 나 커서 보니까 물질 하는 거 안 봐봤어. 우리 이모님은 잘 하지. 우리 어머니는 물질.)

101006 @ 할머님안티 배운 거꽈? 이모님안티 배운 거꽈?(할머님한테 배운 겁니까? 이모님한테 배운 겁니까?)

101006 #1 아, 이거는 누구아피 벱지 안허여. 자기 스스로 허는 거지.(아, 이거는 누구한테 배우지 않아. 자기 스스로 하는 거지.)

101006 @ 그래도 할머니가 막 헤오라, 헤오라. 허니까 헤 온 거 아니?(그래도 할머니가 막 해오라, 해오라. 허니까 해 온 거 아니?)

101006 #1 헤 오렌 막 몽둥이 들렁 막 아니가켄 뚜둘멍 따울리니까 저 매에 ᄆᆞᄉᆞ와서 갓지. 체얌엔 아무것도 못헹 얼엉 추워가지고 이제 또 따울리니까 가난 요만이헌 메역 꼴렝일 간 허난 뒛젠. 또 세 번짼 가니까 하나 비어 온 거라. 게니까 넌 상군 뒈겟다. 경 허드라.(해 오라고 막 몽둥이 들어서 막 안 가겠다고 두드리면서 쫓으니까 저 매에 무서워서 갔지. 처음엔 아무것도 못해서 추워서 추워가지고 이제 또 쫓으니까 가니까 요만이한 미역꼬리 가서 하니까 됐다고. 또 세 번짼 가니까 하나 베어서 온 거라. 그러니까 넌 상군 되겠다. 그렇게 하더라.)

101006 @ 할머니 경 굽데가?(할머니 그렇게 말했습니까?)

101006 #1 너는 상군 뒈겠다. 메역 끊어온 거 보난 경 골아라. 우린 수심 짚은 데로만 뎅겨. 전복허레. 이제 저디 닻줄 잇어. 나 헤난 거.(너는 상군 되겠다. 미역 끊어온 거 보니까 그렇게 말 했었다. 우린 수심 깊은 데로만 다녀. 전복하러. 이제 저기 닻줄 있어. 나 했었던 거.)

101006 @ 듬북, 감태도 다 여기 많이 나낫수과?(듬북, 감태도 다 여기 많이 났었습니까?)

101006 #1 하이고 많이 나는 디 나 이디 구경도 못헤. 저 발전소 물로 막 그냥 뜨거운 물로.(하이고 많이 나는 데 나 여기 구경도 못해. 저 발전소 물로 막 그냥 뜨거운 물로.)

101006 @ 옛날에는?(옛날에는?)

101006 #1 옛날에는 감태, 뭐 감태, 곡제기[23], 실겡이[24], 막 나와. 노랑쟁이[25].(옛날에는 감태, 뭐 감태, '곡제기', '실겡이', 막 나와. '노랑쟁이'.)

101006 @ 곡제기는 뭣꽈?('곡제기'는 뭡니까?)

101006 #1 곡제기, 곡제기란 헌 듬북이 터박터박헌디 보리왓디 들이민은 그것이 걸름 뒈어.('곡제기', '곡제기'라고 한 듬북이 터박터박한데 보리밭에 들이면 그것이 거름돼.)

---

23) '곡제기'는 듬북의 일종으로 주로 밭에 거름으로 사용하며 고제기 듬북이라고도 한다.
24) '실겡이'는 거름용 해초의 일종이다.
25) '노랑쟁이'는 괭생이 모자반으로 거름용 해초의 일종이다.

101006 @ 아아.(아아.)

101006 #1 보리가 막 잘뒈어. 그 곡제기가.(보리가 막 잘돼. 그 '곡제기'가.)

101006 @ 아아.(아아.)

101006 #1 다른 이제 듬북은 베랑 안 뒈. 이 곡제기듬북이 걸어.(다른 이제 듬북은 별로 안 돼. 이 '곡제기'듬북이 걸어.)

101006 @ 아아.(아아.)

101006 #1 그것이 썩어가민이 소 늘추럭ᄀᆞ치 질질허잖아 그 곡제기가.(그것이 썩어가면 소 침처럼 질질하잖아 그 '곡제기'가.)

101006 @ 소 늘추럭이 뭣꽈?(소 '늘추럭'이 뭡니까?)

101006 #1 소가?(소가.)

101006 @ 늬치름?(침.)

101006 #1 늬치름 질질 나잖아. 그런 걸 나와. 이 저 곡제기가.(침 질질 나잖아. 그런 걸 나와. 이 저 '곡제기'가.)

101006 @ 썩어 가민.(썩어 가면.)

101006 #1 응, 썩어 가민, 는잘는잘, 감태는 베랑 걸름 안뒈고 곡제기, 곡제기, 우리 곡제기 헤당은에 옛날은 곡제기 ᄌᆞ문 사람은 밧 빌려주곡, 그런 거 안 헌 사람은 밧도 안 빌려줘. 우리는 그걸 주로 줌으니까 밧은 얼마든지 빌엉 홀 수 잇어.(응, 썩어 가면, 는잘는잘, 감태는 별로 거름 안 되고 곡제기 '곡제기', 우리 '곡제기' 해다가 옛날은 '곡제기' 캔 사람은 밭 빌려주고, 그런 거 안 한 사람은 밭도 안 빌려줘. 우리는 그걸 주로 캐니까 밭은 얼마든지 빌어서 할 수 있어.)

101006 @ 아아.(아아.)

101006 #1 그거 들여야 밧이 걸름 뒝 풀어지난게. 거난 듬북 들인 사람은 밧을 잘 빌어.(그거 들여야 밭이 거름 돼서 풀어지니까. 그러니까 듬북 들인 사람은 밭을 잘 빌어.)

101006 @ 아아.(아아.)

101006 #1 듬북 엇인 사람 밧 빌기 힘들어. 경 안허믄 소걸름, ᄆᆞᆯ걸름, 뒈지걸름 그런 거 안 헤난 사람은 바당에 곡줴길 ᄌᆞ물어야. 막 눌로 눌어. 바당에, 막 곡줴길 눌로 눌어. 일제 땐이 감태 ᄆᆞᆯ류와근에이 태와. 그걸, 태우민이 ᄒᆞᆫ 덩어리 뒈어. 일제 때 우리 거 헤도렌 헹 다 술앙 가멩이 싸근에 다 공출로 허렌. 일제 때.(듬북 없는 사람 밭 빌기 힘들어. 그렇게 안하면 소두엄, 말거름, 돼지거름 그런 거 안 했었던 사람은 바다에 '곡제기' 따야. 막 가리로 가려. 바다에, 막 '곡줴기'를 가리로 가려. 일제 땐 감태 말려서 태워. 그걸, 태우면 한 덩어리 돼. 일제 때 우리 거 해달라고 해서 다 태워서 가마니 싸서 다 공출로 하라고. 일제 때.)

101006 @ 아아, 태워서마씨?(아아, 태워서요?)

101006 #1 그게.(그게.)

101006 @ 불로 테왕?(불로 태워서?)

101006 #1 그게 감태 잇고 곡제기가 잇어. 감태가 영양가치 잇는 거야. 거는 일본

놈덜이 거 폭탄 만드는 거야. 거 감태가.(그게 감태 있고, 곡쵀기가 있어. 감태가 영양가치 있는 거야. 거는 일본 놈들이 거 폭탄 만드는 거야. 거 감태가.)

101006 @ 폭탄. 감태로?(폭탄. 감태로?)

101006 #1 응. 솔앙은에이 그거 재로 오고셍이 헤여근에 아래 가멩이 바쪙, 다 호왕바쪄나서. 우리 잘도 고생헤낫어. 일제 때에, 고사리공출이여, 뭐.(응. 태워서 그거 재로 그대로 해서 아래 가마니 바쳐서, 다 호아서 바쳤었어. 우리 잘도 고생했었어. 일제 때에, 고사리공출이여, 뭐.)

101006 @ 고사리공출.(고사리공출.)

101006 #1 고구마 공출, 보리공출, 조 공출, 먹는 거라 헌 건 다 앗아가. 일본놈덜. 헌 사람이 벌엉 못 먹어. 다 가져가 불언. 그렇게 헤도 배고파. 다 가져가 부니까. 좀 자기네 이제 멘 주거니나 안 사람은 좀 밧이 열 섬 날 거민 반을 주는 사람은 뒈곡 그런 사람 일제 때 왕창 먹어보지도 못허곡 배고판 고구마 공출이여, 뭐 고사리 공출까지 다 헤낫지. 일본 놈덜 그냥.(고구마 공출, 보리공출, 조 공출, 먹는 거라한 건 다 가져가 일본놈들. 한 사람이 벌어서 못 먹어. 다 가져가버렸어. 그렇게 해도 배고파. 다 가져가버리니까, 좀 자기네 이제 모두 주거나 안 사람은 좀 밭이 열섬 날 거면 반을 주는 사람은 되고 왕창 먹어보지도 못하고 배고파서 고구마 공출이여, 고사리 공출까지 다 했었지. 일본 놈들 그냥.)

101006 @ 참예.(참.)

101006 #2 섯동네에도 그 흔 군데 그냥 잇어요.('섯동네'에도 그 한 군데 그냥 있어요.)

101006 @ 예. 게믄 어촌계도 있고, 어촌계는 막 옛날에 잇엇던 건 아니지예?(예. 그러면 어촌계도 있고, 어촌계는 막 옛날에 있었던 건 아니지요?)

101006 #2 어촌계라는 것이 중간에 생긴 건데 이 뭐 저 이 해녀덜 위허는 거지 다른 해녀덜이 돈 많이 나니까 거기서 돈 틀어 먹자고 우뭇가사리니 무신 소라니 메역이니 뭐 하여튼 해녀가 돈은 많이 벌어.(어촌계라는 것이 중간에 생긴 건데 이 뭐 저 이 해녀들 위하는 거지 다른 해녀덜이 돈 많이 나니까 거기서 돈 뜯어먹자고 우뭇가사리니 무신 소라니 미역이니 뭐 하여튼 해녀가 돈은 많이 벌어.)

101006 @ 응, 이 마을에는 어떤 계들이 있습니까? 어촌계가 잇고 또 상여계나 옛날에 잇엇수과? 그릇제?(응, 이 마을에는 어떤 계들이 있습니까? 어천계가 있고 또 상여계나 옛날에 있었습니까? 그릇계?)

101006 #2 계가 성창이주게. 상여계도 잇고.(계가 성창이지. 상여계도 있고.)

101006 @ 상여할 때 그 집 지어 가지고.(상여할 때 그 집 지어 가지고.)

101006 #2 아아 그 계.(아아 그 계.)

101006 @ 접 그런 거 만드는 동네서.(접 그런 거 만드는 동네서.)

101006 #2 소방산이라고.('소방산'이라고.)

101006 @ 소방산?('소방산'?)

101006 #2 그 저 사람 죽어서 메어가는 그 다 계가 잇엇어요.(그 저 사람 죽어서 메

어가는 그 다 계가 있었어요.)

101006 @ 무엇을 위헤서 상여계가 만들어지는 거꽈?(무엇을 위해서 상여계가 만들어지는 겁니까?)

101006 #2 사람 죽으면은 그 저 곱게 저.(사람 죽으면 그 저 곱게 저.)

101006 @ 호상 옷 입히고. 꼿, 꼿상여?(수의 옷 입히고. 꽃, 꽃상여?)

101006 #2 응. 저 꼿 ᄀᆞ튼 거 꼿고 장지까지 모사갈 때 허는 걸 그걸 저 상여계주. 상여계. 거 나도 그걸 해방 후에, 해방 후가 아니라 사삼사건 후에 나가 와서 계를 조직헤 가지고 거 만들엇던 건데 거 없어졋어요. 허허.(응. 저 꽃 같은 거 꼿고 장지까지 모셔갈 때 하는 걸 그걸 저 상여계지. 상여계 거 나도 그걸 해방 후에, 해방 후가 아니라 사삼사건 후에 나갔다 와서 계를 조직해 가지고 거 만들었던 건데 거 없어졌어요. 허허.)

101006 @ 언제쯤 없어졋수과? 새마을 운동허멍? ᄉᆞ삼사건 나멍?(언제쯤 없어졌습니까? 새마을 운동하면서? 사삼사건 나면서?)

101006 #2 이 장의사 나고 뭐 없어진 거죠. 이제는 뭐 그런 사람이 죽으면 옛날엔 그 동네가 총 출동헤 가지고 그 헹상 메어서 소리하면서 거 모셔 갓는데, 지금은 뭐 그 그런 옛날은 참 거 좋앗죠. 추도니 저 멩경이니 헤가지고 막 그냥 그거 지고 메어가지고 막 메고덜 헹상허곡 소리덜 잘하는 사람이 많앗어요. 옛날은 듣기도 좋고.(이 장의사 나고 뭐 없어진 거죠. 이제는 뭐 그런 사람이 죽으면 옛날엔 그 동네가 총 출동해가지고 그 행상 매어서 소리하면서 거 모셔갔는데, 지금은 뭐 그 그런 옛날은 참 거 좋았죠. 추도니 저 명경이니 해가지고 막 그냥 그거 지고 매어가지고 막 매고들 행상하고 소리들 잘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옛날은 듣기도 좋고.)

101006 @ 이 소리를 삼촌은?(이 소리를 삼촌은?)

101006 #2 상당히 많앗어요. 노래도 나도 소리 많이 헷어요. 나, 노래 잘합니다.(상당히 많았어요. 노래도 나도 소리 많이 했어요. 나, 노래 잘합니다.)

101006 @ 아, 기꽈? 노래 다 녹음헤야쿠다. 그런 거. 진토 파는 소리 집에서 불르면 안 뒈마씨?(아, 그래요? 노래 다 녹음해야겠어요. 그런 거. 진토 파는 소리 집에서 부르면 안돼요?)

101006 #2 불러도 나 다른 노래 부르죠. 옛날 노래 부르죠.(불러도 나 다른 노래 부르죠. 옛날 노래 부르죠.)

101006 @ 옛날 노래예? 그거 저 중간 중간 농사짓는 거 나와 가믄 그때 헤줍서예. 그 상여계 여자덜은 그릇제?(옛날 노래요? 그거 저 중간 중간 농사짓는 거 나와 가면 그때 해주세요. 그 상여계 여자들은 그릇계?)

101006 #2 그렇죠. 그릇제, 쏠제도 잇고.(그릇계, 쌀계도 있고.)

101006 @ 쏠제?(쌀계?)

101006 #2 쏠도 조꼼썩 모여서.(쌀도 조금씩 모여서)

101006 @ 아아.(아아.)

101006 #2 허는 제도 잇고.(하는 계도 있고.)

101006 @ 그 쏠제는 뭐에 쓰는 것꽈? 멩절에? 제사 때?(그 쌀계는 뭐에 쓰는 겁니까? 명절에? 제사 때?)

101006 #2 아, 그 저 돈도 계를 허고, 그자 모이는 재산 모이는 쏠도 허고 옛날은 그러다가 망허는 사람덜도 잇고 그냥.(아, 그 저 돈도 계를 하고, 그저 모이는 재산 모이는 쌀도 하고 옛날은 그러다가 망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냥.)

101006 @ 그렇게.(그렇게.)

101006 #2 계주가 먹고 도망 가불민 계주가 먹고.(계주가 먹고 도망 가버리면 계주가 먹고.)

101006 @ 그런 경우도 잇엇구나예. 봉개[26] 같은 경우는 지금도 상여 놧던 그 집예?(그런 경우도 있었군요. 봉개 같은 경우는 지금도 상여 놨던 그 집이요?)

101006 #2 응.(응.)

101006 @ 그런 것도 아직도 잇덴 헙디다.(그런 것도 아직도 있다고 합디다.)

101006 #2 지금도 여기도 멧 군데 잇엇어요.(지금도 여기도 몇 군데 있었어요.)

101006 @ 다 설러 불언?(다 치워 버렸어요?)

101006 #2 지금도 멧 군데 잇어.(지금도 몇 군데 있어.)

101006 @ 아아. 지금도 상여 집은 잇수과? 개인 땅이꽈? 막살이 같은 초막.(아아. 지금도 상여 집은 있습니까? 개인 땅입니까? 오막살이 같은 초막.)

101006 #2 건디 바닷가에 개인 땅이 아니고 그자 나라의 땅이겟지 뭐.(그런데 바닷가에 개인 땅이 아니고 그저 나라의 땅이겠지 뭐.)

101006 @ 거기에다가 뭐 이렇게 지엉은에 상여 놓곡 헷엇지예? 꼿상여 그런 식으로예.(거기에다가 뭐 이렇게 지어서 상여 놓고 했었지요? 꽃상여 그런 식으로요.)

101006 #2 예.(예.)

101006 @ 지금은 다 없어져 불엇지예.(지금은 다 없어져 버렸지요.)

101006 #2 다 없어졋죠.(다 없어졌죠.)

101006 @ 그런 것들이 이제는 점점예. 삼춘 역사다예.(그런 것들이 이제는 점점이요. 삼춘 역사네요.)

101006 #2 지금은 이웃집이 죽어도 아주 딴 판이죠. 그냥 사람이 죽으민 이 날은 동네에서 다 모여가지고 옛날은 다 도와주고 묻어주고.(지금은 이웃집이 죽어도 아주 딴 판이죠. 그냥 사람이 죽으면 이 날은 동네에서 다 모여가지고 옛날은 다 도와주고 묻어주고.)

101006 @ 참, 세상이 너무 바뀌엇지예.(참, 세상이 너무 바뀌었지요.)

101007 @ 이 마을에는 어떤 풍습이 있습니까?(이 마을에는 어떤 풍습이 있습니까?)

101007 #1 이 마을에? 이 마을에는이, 옛날은 해녀굿을 헷어이. 굿을 헤난디 설러불엇네, 돈 당허지 못헤연. 이젠 포제가 잇어. ᄆᆞ을 포제.(이 마을에? 이 마을에는, 옛날은 '해녀굿'을 했어. 굿을 했었는데 그만둬 버렸네, 돈 당하지 못했어. 이젠 포제가 있어. 마을 포제.)

---

26) '봉개'는 옛지명은 봉아름으로 제주시 봉개동으로 절물오름과 대기고등학교가 있다.

101007 @ 포제가 잇고예. 해녀굿이 언제 설러분지 기억남수과?(포제가 있구요. 해녀굿이 언제 그만둔지 기억납니까?)

101007 #1 아이구, 막 오래여서 설러 분지.(아이구, 막 오래여서 그만 둔지.)

101007 @ 오래여. 메인심방 누구엿수과?(오래여. 메인심방 누구였습니까?)

101007 #1 죽어불엇네. 그 심방.(죽어버렸네. 그 심방.)

101007 @ 신촌에 살아낫수과? 그 심방.(신촌에 살았었습니까? 그 심방.)

101007 #1 시에 심방 와낫수과?(시에 심방 왔었습니까?)

101007 @ 누군지 기억남수과?(누군지 기억납니까?)

101007 #1 한일하숙이옌 허는 할망인디 죽어 불엇어 근디 막 오래연.(한일하숙이라고 하는 할머니인데 죽어버렸어. 그런데 막 오래된.)

101007 @ 함덕 할망 빌어당 헴십디다예?(함덕 할머니 빌어다가 했던데요?)

101007 #1 여기는 시엣 할망 와난디 죽어 불엇어. 설러 불엇어.(여기는 시엣 할머니 왔었는데 죽어 버렸어. 그만둬 버렸어.)

101007 @ 시엣 할망 누군지 기억남수과?(시의 할머니 누군지 기억납니까?)

101007 #1 한일하숙이지. 그 저 부두에 가면 한일하숙이옌 간판 써서. 그디 할망.(한일 하숙이지. 그 저 부두에 가면 한일하숙이라고 간판 써서. 거기 할머니.)

101007 @ 불르는 이름은 엇고?(부르는 이름은 없고?)

101007 #1 응. 한일하숙이옌만, 그 할망네가 하숙을 봇어. 하르방 성이 한가라부난이 한일화숙.(응. 한일하숙이라고만, 그 할머니네가 하숙을 봤어. 할아버지 성이 한가이어서 한일하숙.)

101007 @ 하르방도 심방?(할아버지도 무당?)

101007 #1 아니, 아니. 할망만.(아니, 아니. 할머니만.)

101007 @ 할망 성은 뭔지 모르고?(할머니 성은 뭔지 모르고?)

101007 #1 김가 김씨, 김씰 거라. 나 알기에는.(김가 김씨, 김씨일 거라. 나 알기에는.)

101007 @ 이름은 모르고예? 거길 멧 년을 이 좀수굿을 담당을 헤신고예? 그 할머니는.(이름은 모르고요? 거길 몇 년을 이 잠수굿을 담당을 했는가요? 그 할머니는.)

101007 #1 응. 굿 멧 년 못 헷지. 이 마을에 좀 동네가 말이 잇어서, 게난 허당 확 설러 불언.(응. 굿 몇 년 못 했지. 이 마을에 좀 동네가 말이 있어서, 그러니까 하다가 확 그만둬 버렸어.)

101007 @ 그 전에는?(그 전에는?)

101007 #1 그 전에 저 굿허다가 해녀가 죽어 불엇어게. 게난 그걸 못허게 허연. 사람 죽는디 그 말도 맞지. 기도헤영 사람도 사람덜 잃어 가는디.(그 전에 저 굿하다가 해녀가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그걸 못하게 했어. 사람 죽는데 그 말도 맞지. 기도해서 사람도 사람들 잃어 가는데.)

101007 @ 해녀 죽으민 물굿이렌 허영 더 크게도 헙디다만은 조천리는.(해녀 죽으면 '물굿'이라고 해서 더 크게도 합디다만 조천리는.)

101007 #1 죽어부난에이 이 사람들 편안허게 헤도렌 마무리로 해서. 경헤뒁 다시 굿 안허연. 걸로 설러불언.(죽어버리니까 사람들 편안하게 해주라고 마무리로 해서. 그렇게 해두고 다시 굿 안했어. 걸로 그만둬버렸어.)

101007 @ 옛날 할머니 어렷을 때 다시 안 헤불언. 신촌에도 큰 심방.(옛날 할머니 어렸을 때 다시 안 해버렸어. 신촌에도 큰 무당.)

101007 #1 심방 핫지.(무당 많지.)

101007 @ 옛날엔?(옛날엔?)

101007 #1 응.(응.)

101007 @ 좀수굿[27]은 신촌.('잠수굿'은 신촌.)

101007 #1 응, 정두샘이도 있고이. 그 심방 이름이 정두삼이.(응, 정두삼도 있고. 그 심방 이름이 정두삼이.)

101007 @ 정두샘이? 그 분이 신촌?(정두삼이? 그 분이 신촌?)

101007 #1 신촌, 본래 신촌 사람, 심방 핫지. 정두샘이도 잇고.(신촌, 본래 신촌 사람, 심방 많지. 정두삼이도 있고.)

101007 @ 신촌 분, 거기도 영등굿[28] 헤나고?(신촌 분, 거기도 영등굿 했었고?)

101007 #1 응. 영등굿 잘허여. 큰 심방이니까 그 사람넨이, 대 ᄂᆞ리는 심방, 겐디 그 사람네 이제 엇어부난 대 끊어져불언, 또시 만택이엔 허는 와흘 사람, 그 사람 이제 신촌 완 집 빌엉 왕 살당 집 산 살멍 그 사름 큰 굿허고.(응. 영등굿 잘해. 큰 심방이니까 그 사람네, 대 내리는 무당, 그런데 그 사람네 이제 없어버리니까 대 끊어져버렸어. 또 만택이라고 하는 와흘 사람, 그 사람 이제 신촌 와서 집 빌려서 와서 살다가 집 사서 살면서 그 사름 큰 굿하고.)

101007 @ 무슨 만택인지 몰르고예?(무슨 만택인지 모르고요?)

101007 #1 몰라. 성 몰르컨게.(몰라. 성 모르겠네.)

101007 @ 만택이가 하단 또?(만택이가 하다가 또?)

101007 #1 허단 설러불엇네.(하다가 그만둬버렸네.)

101007 @ 설러불고 김씨 할망이 허단 설러불고?(그만둬버리고 김씨 할머니가 하다가 그만둬버리고?)

101007 #1 김씨 할망 영등굿 헤나고, 만택이는 동네서 굿허고, 저 만택이엔 헌 사람 와흘당 잇잖아이? 그 사람 와흘 사람.(김씨 할망 '영등굿' 했었고, 만택이는 동네서 굿하고, 저 만택이라고 한 사람 와흘당 있잖아? 그 사람 와흘 사람.)

101007 @ 본향당은 어디 잇수과?(본향당은 어디 있습니까?)

101007 #1 일뤠당 있는디 요디, 쪼끌락헌 디.('일뤠당' 있는데 요기, 작은 데.)

101007 @ 집도 있고예.(집도 있고요.)

101007 #1 집 엇어. 그냥 요마니 헌 세멘으로 담 다왕.(집 없어. 그냥 요만큼 한 세멘으로 담 쌓아서.)

---

27) '좀수굿'은 해녀들을 중심으로 해서 물질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굿을 말한다.
28) '영등굿'은 영등신을 맞이하여 치르는 당굿을 말한다.

101007 @ 삼촌도 거기 가낫수과?(삼촌도 거기 갔었습니까?)

101007 #1 뎅기당이 고혜불엇지. 여녕이 하부니까.(다니다가 고해버렸지. 연령이 많아버리니까.)

101007 @ 예.(예.)

101007 #1 ᄇᆞ레지 맙쎈 허영 다니다가 고해버렸지. 연령이 많아버리니까.(보지 말라고 해서 다니다가 고해버렸지. 연량이 많아버리니까.)

101007 @ 지금도 다니는 사람 이신가예?(지금도 다니는 사람 있는가요?)

101007 #1 그디 가끔 잇는 셍이라. 그 밥 영 올레 거려 놓는 거 보민, ᄌᆞ준 엇고 가끔.(거기 가끔 있는 모양이라. 그 밥 이렇게 올레 떠 놓는 거 보면, 자준 없고 가끔.)

101007 @ 일뤠할망당[29]예? 무슨 날 간 거 기억 안 남수과?('일뤠할망당'이요? 무슨 날 간 거 기억 안 납니까?)

101007 #1 일뤳날, 일뤳당이옌 허여. 일뤠할망당이라고 어디 감시니? 허민 일뤠에 감젠.(이렛날, '일뤳당'이라고 해. '일뤠할망당'이라고 어디 가니? 하면 이레에 간다고.)

101007 @ 정월 일뤳날 가진 않고?(정월 이레날 가진 않고?)

101007 #1 아니, 아무 때라도.(아니, 아무 때라도.)

101007 @ 아이덜 잘뒈렌예?(아이들 잘되라고요?)

101007 #1 아이덜 거기는이. 거기는이. 좀 종기가 나잖아. 종기가 나오민 그디 가오민 좋아 불어.(아이들 거기는. 거기는. 좀 종기가 나잖아. 종기가 나면 거기 가오면 좋아버려.)

101007 @ 으음.(으음.)

101007 #1 춤 희안허지. 이젠 안 뎅겨. 아무도, 이젠이 저 새 사람덜 나가니까 그런 거 좋아 안 허여.(참 희한하지. 이젠 안 다녀. 아무도, 이젠 저 새 사람들 나가니까 그런 거 좋아 안 해.)

101007 @ 신촌에 보민 집 닮은 또 당도 ᄒᆞ나 잇수게?(신촌에 보면 집 닮은 또 당도 하나 있지요?)

101007 #1 거, 섯가름[30].(거, '섯가름'.)

101007 @ 섯가름, 건 무신 당?('섯가름', 건 무슨 당?)

101007 #1 그 당이 무신 당이옌 허더라만은 나도 몰라. 뭐 무신 당이렌 ᄀᆞᆯ앗어.(그 당이 무신 당이옌 허더라만은 나도 몰라. 뭐 무슨 당이라고 말했어.)

101007 @ 크게 보이던데 요 동카름 사람덜은 섯가름 안가?(크게 보이던데 요 '동카름' 사람들은 '섯가름' 안가?)

101007 #1 안 가. 안 가. 거긴 섯가름 사름벳긔 안 가. 여기 굿헐 때는 거기 가. 굿헐 때는 무당덜 왕 헐 때는 거기 갔다 와. 여기 사람 그디 안가. 요 동네사름, 동네도 안 뎅기는 셍이라. 영 보니까 뭐 뎅기는 냥이 엇언.(안 가. 안 가. 거긴 '섯가름' 사람밖에 안 가. 여기 굿헐 때는 거기 가. 굿할 때는 무당들 와서 할 때는 거기 갔다 와. 여기

29) '일뤠할망당'은 이렛 할망당으로 17일, 27일에 다니는 신당으로 이 당에 모신 '일뤠할망'은 어린아이의 치병과 산육을 담당한다.

30) '서카름' 마을 안에서 작은 단위로 구분한 서쪽동네를 말한다. 서까름, 섯가름이라고도 한다.

사람 거기 안 가. 요 동네사름, 동네도 안 다니는 모양이라. 이렇게 보니까 뭐 다니는 모양이 없었어.)

101007 @ 거기도 메인 심방은 정두샘이나 만택 씨?(거기도 메인 심방은 정두삼이나 만택 씨?)

101007 #1 만택이는 동네 굿헐 때 사람 죽으민 질 치잖아. 그런 거 헐 때 허는 사람, 정두샘이는 이녁 고향 사람이니까 아무 때라도 빌어당 허여.(만택이는 동네 굿할 때 사람 죽으면 길 내잖아. 그런 거 할 때 하는 사람, 정두삼이는 이녁 고향 사람이니까 아무 때라도 빌어다가 해.)

101007 @ 으음. 거믄 섯가름에 당은 메인 심방은 누구라낫수과?(으음. 그러면 '섯가름'에 당은 메인 심방은 누구였습니까?)

101007 #1 그디 심방은 난 몰라. 섯동네라부난 몰라. 일루 섯동네 일은 모르지.(거기 무당은 난 몰라. '섯동네'라버리니까 몰라. 여기로 '섯동네' 일은 모르지.)

101007 @ 거믄 삼촌네 요기 당은 정두삼씨가 메인 심방이라낫수과?(그러면 삼촌네 요기 당은 정두삼씨가 매인 무당이었습니까?)

101007 #1 정두삼이네도 안뒈고, 우리 ᄀᆞ튼 사람이 이 건강하게 헤줍센 혜영 이 노인덜 가주. 기추룩 와쌍바쌍[31]은 안 허여. 심방은 안 빌어.(정두삼이네도 안되고, 우리 같은 사람이 이 건강하게 해주라고 해서 이 노인들 가지. 그처럼 '와쌍파쌍'은 안 해. 무당은 안 빌어.)

101007 @ 심방은 안 빌어? 본향당은 아니로구나, 일뤳당?(무당은 안 빌어? 본향당은 아니로구나, '일뤳당'?)

101007 #1 심방 안 빌어 경허매. 일뤠당 그자 동네에 운동 헐 때 동네에 운동 ᄆᆞ을 운동이 잇어. 그럴 때덜 가고 경허메.(무당 안 빌어 그렇게 해. '일뤠당' 그저 동네에 운동할 때 동네에 운동 마을 운동이 있어. 그럴 때들 가고 그렇게 해.)

101007 @ 종기 나면예.(종기 나면요.)

101007 #1 종기 나면은 그디 가오곡.(종기 나면은 거기 가오고.)

101007 @ 삼촌은 멧 살까지 거기 일뤳당에 갓다는 말이지예?(삼촌은 몇 살까지 거기 '일뤳당'에 갔다는 말이지요?)

101007 #1 종기 나면은 그디 가오곡.(종기 나면은 거기 가오고.)

101007 @ '영등굿'은 ᄉᆞ삼 지낭도 헷는데 삼촌 한 멧 살 때?('영등굿'은 사삼 지나서도 했는데 삼촌 한 몇 살 때?)

101007 #1 그렇지, 그때가 멧 살 때냐 허믄? 흔 육십 땐가?(그렇지, 그때가 몇 살 때냐 하면? 한 육십 땐가?)

101007 @ 육십 때면?(육십 때면?)

101007 #1 육십, 팔십, 구십, 육십 때도 아주 넘어신게.(육십, 팔십, 구십, 육십 때도 아주 넘었네.)

101007 @ 이십 팔년 전 천구백년도?(이십 팔년 전 천구백년도?)

---

31) '와쌍바쌍'은 사기그릇따위를 부수는 소리를 말한다. 와싹,파싹, 와삭바삭으로 쓰기도 한다.

101007 #1 육십댄가? 육십대도 아주 넘어신게.(육십댄가? 육십대도 아주 넘었네.)

101007 @천구백년도?(천구백년도?)

101007 #1 응. 나가 이제 여든 아홉이 남서. 거즘 흔 육십 대쯤 헤실 거라. 이디 신촌 영등 굿이. 육십 대 육십 안에 이쪽저쪽이라.(응. 나가 이제 여든 아홉이 남서. 거의 한 육십 대쯤 했을 거라. 여기 신촌 영등 굿이. 육십 대 육십 안에 이쪽저쪽이라.)

101007 @ 영등굿 기억남수과? 배방선도 허곡.(영등굿 기억납니까? 배방선도 하고.)

101007 #1 거 기억나지.(거 기억나지.)

101007 @ 해녀들이 멧 명 그때 잇어신고예?(해녀들이 몇 명 그때 있었는가요?)

101007 #1 그때 해녀덜이 막 ᄋᆞ라 명이라난디 이제는 늙고, 죽고 헤부난 여기도 멧 명 없어.(그때 해녀들이 막 여러 명이었는데 이제는 늙고, 죽고 해버리니까 여기도 몇 명 없어.)

101007 @ 오십 명은 뒛수과?(오십 명은 됐습니까?)

101007 #1 여기 오십 명 당추 안 뒈여. 사름 흔 댓 사름벳긔 안 뒈여.(여기 오십 명 당최 안 돼. 사름 한 다섯 사람밖에 안 돼.)

101007 @ 옛날엔?(옛날엔?)

101007 #1 옛날은 이제 미역을 헤다 풀아서 쏠도 받아먹고 헐 때는 해녀덜이 막 하나서. 우리 그때에 멧 솔인고 허면은 열다섯, 열여슷 ᄀᆞ리에 그때는 막.(옛날은 이제 미역을 해다 팔아서 쌀도 받아먹고 할 때는 해녀들이 막 하나서. 우리 그때에 몇 살인고 하면 열다섯, 열여섯쯤에 그때는 막.)

101007 @ 오십 명 정도 잇언?(오십 명 정도 있었어?)

101007 #1 오십 명 정도는 엇어도 흔 이십 명쯤은 보통 잇어낫어.(오십 명 정도는 없어도 한 이십 명쯤은 보통 있었었어.)

101007 @ 신촌에예? 동카름, 서카름 다 합쳥?(신촌에요? '동카름', '서카름' 다 합쳐서?)

101007 #1 아니, 아니. 동카름만.(아니, 아니. '동카름'만.)

101007 @ 동카름만.('동카름'만.)

101007 #1 겐디 이제 즘녀덜이 엇언. 젊은 아이덜이 안 헤부니까. 우리 뚜래 허당 설러부난 엇네. 엇어. 여기 허긴 헷자, 댓 사람 헴지, 겐디 비끗디 안 허여. 요기서만 허지. 베겻딘 안 나가.(그런데 이제 잠녀들이 없어. 젊은 아이들이 안 해버리니까. 우리 또래 하다가 그만둬 버리니까 없네. 없어. 여기 하긴 해봤자, 댓 사람 하지, 그런데 밖에 안 해. 요기서만 하지. 밖에 안 나가.)

101007 @ 음, 게믄 '일뤠할망당'에서 헷수과? 어디, 그 '영등굿'을 어디서 헷수과?(음, 그러면 '일뤠할망당'에서 했습니까? 어디, 그 '영등굿'을 어디서 했습니까?)

101007 #1 바당에.(바다에.)

101007 @ 바당 밖에서 그냥 질 쳔 거기서?(바다 밖에서 그냥 길 내서 거기서?)

101007 #1 거기 집 잇어난디 집 틀어 불엇어. 왜냐허믄 거기서 이제 마을 포제[32]

32) '포제'는 마을을 지킨다는 신에게 온 마을이 정성을 다하여 소원을 비는 의식을 말한다. 유교식으로 한다.

해나서. 그 집이서, 경헌디 그 땅이 리에 땅이 동카름 땅이 아니라.(거기 집 있었던데 집 뜯어버렸어. 왜냐하면 거기서 마을 포제 했었어. 그 집에서, 그렇게 했는데 그 땅이 리에 땅이 '동카름' 땅이 아니라.)

101007 @ 으음.(으음.)

101007 #1 거, 개인 땅이라부난 그 집은 틀어 불언. 틀어 뒨 이젠.(거, 개인 땅이라 버리니까 그 집은 뜯어 버렸어. 뜯어 둬서 이젠.)

101007 @ 아아.(아아.)

101007 #1 이 동카름 뚜로 포제허는 집이 잇어. 거는 이 바당 해신제라고, 정월 나민 허매.(이 '동카름' 따로 포제하는 집이 있어. 거는 이 바다 해신제라고, 정월 나면 해.)

101007 @ 해신제예? 정월해신제예? 원래는 그게 당굿으로.(해신제요? 정월 해신제 원래는 그게 당굿으로.)

101007 #1 당굿이 아니고 옛날에 우리도 몰른디, 그냥 바다에 고기 허레 가민 풍파 난 계속 죽어가니까 그 포젤 헤가난 경 안헤렌.(당굿이 아니고 옛날에 우리도 모른데, 그냥 바다에 고기 하러 가면 풍파 나서 계속 죽어가니까 그 포젤 해가니까 그렇게 안 했다고.)

101007 @ 어어.(어어.)

101007 #1 옛날 할아버지덜이.(옛날 할아버지들이.)

101007 @ 포제 전에는 영등할망한티.(포제 전에는 영등할머니한테.)

101007 #1 아니, 포제 전에는 사람이 계속 죽엇젠, 대풍에.(아니, 포제 전에는 사람이 계속 죽었다고, 대풍에.)

101007 @ 예.(예.)

101007 #1 고기 나끄레 갓당, 헌디 그디 그 포젤헤 헤가난 포제헌 후제는 풍파가 엇엇덴. 그 옛날 어른덜이. 곧는 거 들엇지. 나 곧는 거.(고기 낚으러 갔다가, 한데 거기 그 포젤 해가니까 포제한 후에는 풍파가 없었다고. 그 옛날 어른들이. 말하는 거 들었지. 나 말하는 거.)

101007 @ 해신제는 누구 심방도 안 오고 유교식으로?(해신제는 누구 무당도 안 오고 유교식으로?)

101007 #1 그냥 해신제는 ᄆᆞ을에.(그냥 해신제는 마을에.)

101007 @ 생고기들 올리고?(생고기들 올리고?)

101007 #1 응. 큰 도새기 셍차로 올리곡, ᄆᆞ을에이 제관 뽑젠 허민 이. 이 부베 간도 좀 안자고, 뚜로 거기 강 제관덜이 자.(응. 큰 돼지 생째로 올리고, 마을에 제관 뽑으려고 하면 이. 이 부부간도 잠 안 자고, 따로 거기 가서 제관들이 자.)

101007 @ 음.(음.)

101007 #1 이제도 경 헴서. 이제도 정월달은 이제도 경 헴서.(이제도 그렇게 해. 이제도 정월달은 이제도 그렇게 해.)

101007 @ 영등굿 끝나멍 해신제로 더?(영등굿 끝나면서 해신제로 더?)

101007 #1 아니, 영등굿은 우리 해녀덜 우렁헌 거고.(아니, 영등굿은 우리 해녀들 위해서 한 거고.)

101007 @ 어부들이영 해녀들이영.(어부들이랑 해녀들이랑.)

101007 #1 어부허고 해년디 이젠 ᄆᆞ을이라 노난 ᄆᆞ을에서 해신제 헤여.(어부하고 해년데 이젠 마을이라 버리니까 마을에서 해신제 해.)

101007 @ 해신제로예?(해신제로요?)

101007 #1 응. 이디허곡 또 저 리에 이, 이제 상두거리이. 거기 집이 기와집 잇어. 거기서 또 큰 이 ᄆᆞ을 펜안허게 거기서 제 지내고 이 해신제 왕 제 지내고, 해신젠 바당에 가는 사름 우렁 허는 거지.(응. 여기하고 또 저 리에 이, 이제 '상두거리'. 거기 집이 기와집 있어. 거기서 또 큰 이 마을 편안하게 거기서 제 지내고 이 해신제 와서 제 지내고, 해신젠 바다에 가는 사람 위해서 하는 거지.)

101007 @ 옛날에 영등굿은 그 아까 포제집 잇엇던 데서 헷다는 거지예?(옛날에 '영등굿'은 그 아까 포제집 있었던 데서 했다는 거지요?)

101007 #1 응. 허당 튿어 불엇어.(응. 하다가 뜯어 버렸어.)

101007 @ 거기에 그 바당에 할망당이 있지 안헤시카?(거기에 그 바다에 '할망당'이 있지 않았을까?)

101007 #1 엇어.(없어.)

101007 @ 바당에도 보면 그 영등굿허는덴 다 당이 이십디다.(바다에도 보면 영등하는 덴 다 당이 이십디다.)

101007 #1 당이 이기 거 거닐이주. 이디 잇어. 이디.(당이 여기 거 들먹이지. 여기 있어. 여기.)

101007 @ 이디 건디 바당에 강 허는구나.(여기 건데 바다에 가서 하는구나.)

101007 #1 아니, 거기 굿 허젠 허민 여기 굿허염수다. 헤영 밥 아져당은에.(아니, 거기 굿 하려고 하면 여기 굿합니다. 해서 밥 가져다가.)

101007 @ 먼저.(먼저.)

101007 #1 손님질 허듯 경만 허여.('손님질' 하듯 그렇게만 해.)

101007 @ 경헤영 거기 강 허는구나예?(그렇게 해서 거기 가서 하는군요?)

101007 #1 크게는 안 허여. 왕 거닐어 섯가름엔 막 크게 허메. 당이라도.(크게는 안 해. 와서 거닐어 '섯가름'엔 막 크게 해. 당이라도.)

101007 @ 으음. 섯가름에도 크게 허고예. 그 집 잇는 디 거기서 헙니까?(음. '섯가름'에도 크게 하고요. 그 집 있는 데 거기서 합니까?)

101007 #1 그 집이 안순옥이 살암실 거라.(그 집이 안순옥이 살고 있을 거라.)

101007 @ 바당도 아닌디 거기서 안순옥이가 누구꽈?(바다도 아닌데 거기서 안순옥이가 누굽니까?)

101007 #1 섯가름 사름이지.('섯가름' 사람이지.)

101007 @ 무사 집이 엇이난 그 당집을 빌엉 살암수과?(왜 집이 없으니까 그 당집을 빌어서 삽니까?)

101007 #1 본래 지네 집이라난 셍이란게.(본래 자기네 집이었던 모양이었어.)

101007 @ 심방은 아니고?(무당은 아니고?)

101007 #1 응. 그 집 두깡에 그 할망 당이 잇어. 그 어른네 집 두깡에 당 잇어.(응. 그 집 뒤에 그 할망당이 있어. 그 어른네 집 뒤에 당 있어.)

101007 @ 개인이?(개인이?)

101007 #1 개인이지 ᄆᆞ을에 ᄆᆞ을, 마을 포제 갔다 와. 거뿐이라. 일 년에 혼 번.(개인이지 마을에 마을, 마을포제 갔다 와. 거뿐이라. 일 년에 한 번.)

101007 @ 거기도 할망당이지예?(거기도 '할망당'이지요?)

101007 #1 몰라. '할망당'인지 '하르방당'인지. 건 몰르고 ᄆᆞ을 포제허민 갓다오메. 영 헴수다, 헹 인사로.(몰라. '할망당'인지 '하르방당'인지. 건 모르고 마을 포제하면 갔다 와. 이렇게 합니다. 해서 인사로.)

101007 @ 거기가 '본향당' 닮다예, 큰 당이다예?(거기가 '본향당' 같네요, 큰 당이네요?)

101007 #1 것이 본향당[33] 닮아 이. 신촌에서는이. 이 심방들 여기서 헐 때 그 당을 거닐이더라고. 그디 갓다 오고, 이 당은 안 뎅기고 이딧 당은.(그것이 '본향당' 닮아 이. 신촌에서는. 이 심방들 여기서 헐 때 그 당을 들먹이더라고. 거기 갔다 오고, 이 당은 안 다니고 여기 당은.)

101007 @ 신촌 김윤수 선생은 칠머리 당굿 거기 강?(신촌 김윤수 선생은 '칠머리당굿' 거기 가서?)

101007 #1 윤수는 요디 살지. 그 사람은이 여기서 안 빌어. 동네에서도 안 빌고. 칠머리당만 강 허메.(수는 요기 살지. 그 사람은 여기서 안 빌어. 동네에서도 안 빌고. '칠머리당'만 가서 해.)

101007 @ 아. 칠머리.(아. 칠머리.)

101007 #1 동네에서도 안 빌어. 외방은 강 빌어 와도.(동네에서도 안 빌어. 외방은 가서 빌어 와도.)

101007 @ 원래 신촌은 아닌가부다?(원래 신촌은 아닌가보다?)

101007 #1 아니 저 사람덜, 원래 신촌은 아니라, 뚠 디서 오래서 오건디, 저 사람덜 오건딘.(아니 저 사람들, 원래 신촌은 아니라, 딴 데서 오래서 온 지, 저 사람들 온 지.)

101007 @ 함덕 할머닌 빕니까? 잇수게.(함덕 할머닌 빕니까? 있잖아요.)

101007 #1 함덕, 그 저 인호 누인 잘 빌어당 허메.(함덕, 그 저 인호 누인 잘 빌어다가 해.)

101007 @ 예. 할머니예.(예. 할머니요.)

101007 #1 그 아덜도 허고. 맞아. 인호 누이, 요디 살암서. 그 저 오라방이.(그 아들도 하고. 맞아. 인호누이, 요기 살고 있어. 그 저 오빠가.)

101007 @ 아아 오라방이?(아아 오빠가?)

101007 #1 게난 그 할망도 큰 심방이라. 시집이부터 그 심방이라.(그러니까 그 할머

33) '본향당'은 마을의 모신 당을 말한다.

니도 큰 무당이라. 시집에서부터 그 무당이라.)

101007 @ 게난 아덜도 물려.(그러니까 아들도 물려.)

101007 #1 아덜도 물려받고, 가이도 아니 허젠 허난 막 아판. 너미 못젼뎐 졍 헴서. 윤수 알로 들어왓지. 야이가 그 알로 들어실 거라. 이 저 윤수 알로.(아들도 물려받고, 걔도 안 하려고 하니까 막 아팠어. 너무 못 견뎌서 저렇게 하고 있어. 윤수 아래로 들어왔지. 애가 그 아래로 들었을 거라. 이 저 윤수 아래로.)

101007 @ 게난예, 심방 팔자가예?(그러니까요. 무당 팔자가요?)

101007 #1 심방팔재, 즘녀 팔재, 기박허지.(무당 팔자, 잠녀 팔자, 기구하지.)

101007 @ 기박허여예?(기구해요?)

101007 #1 그렇지. 즘녀나 심방이나 똑ᄀᆞ트지. 즘녀도 그날 올라와야 올라오느네. 생명 걸어 놩 작업헌덴 허난 오널 ᄒᆞ꼼만 뜨게 나왓당 그냥 생명 가불어. 위험한 병이라. 저 이제 사람덜은이 요디 '쫄락쫄락' 나오지. 우린 열두 발허는디 들어가거든. 그런 디 허는 사람 위험허지. 우린 전복벳긔 없어. 그런 딘 짚은 디는.(그렇지. 잠녀나 무당이나 똑같지. 잠녀도 그날 올라와야 올라 온다. 생명 걸어 놔서 작업한다고 하니까 오늘 조금만 늦게 나왔다가 그냥 생명 가버려. 위험한 병이라. 저 이제 사람들은 요기 '쫄락쫄락' 나오지. 우린 열두 발하는데 들어가거든. 그런 데 하는 사람 위험하지. 우린 전복밖에 없어. 그런 덴 깊은 데는.)

101007 @ 짚은 디가 전복 잇구나예?(전화)(깊은 데가 전복 있군요?(전화)

101007 #1 게난 여기선 나가 질 숨 질덴 허지. 질 짚은 디 나가부니까. 그런 디 나가는 사름 엇어, 두 사름인디 ᄒᆞᆫ 사름은 죽언. 이제 나벳긔 안 남아서이. 이제 겐디 이제 난 늙어부난 이제 바당에 못 뎅겨. 걸어 뎅기지 못혜. 내려젼. 이젠이 다 요런 디서만 헤여.(그러니까 여기선 나가 제일 숨 길다고 하지. 질 깊은 디 나가버리니까. 그런데 나가는 사름 없어, 두 사름인데 한 사름은 죽었어. 이제 나밖에 안 남았어. 이제 그런데 이제 난 늙어버리니까 이제 바다에 못 다녀. 걸어 다니지 못해. 넘어져서. 이젠 다 요런 데서만 해.)

101007 @ 음. 이 마을에는 어떤 풍습이 있습니까? 소개할 만한 풍습 옛날에?(음. 이 마을에는 어떤 풍습이 있습니까? 소개할 만한 풍습 옛날에?)

101007 #2 옛날엔 우리 어렷을 때 보면 집도 지으면 ᄆᆞ을 사람덜이 다 가서 같이 일해서 집도 지어주고, 고지에 가서 나무도 헤다 집을 지어주고 헷죠. 지금 세상은 딴판입니다.(옛날엔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집도 지으면 마을 사람들이 다 가서 같이 일해서 집도 지어주고, 숲에 가서 나무도 해다 집을 지어주고 했죠. 지금 세상은 딴판입니다.)

101007 @ 고지 나무옌 허민 원당봉이꽈?(숲 나무라고 하면 원당봉입니까?)

101007 #2 산에 가믄 '바농벵듸', '바농벵듸' 더 가야죠.(산에 가면 '바농벵듸', '바농벵듸' 더 가야죠.)

101007 @ 바농벵듸?('바농벵듸'?)

101007 #2 바농벵듸 넘어가야 그 곶속에 가야 좋은 나무 끈어다가 집도 짓고.('바농벵듸' 넘어가야 그 숲속에 가야 좋은 나무 잘라다가 집도 짓고.)

101007 @ 곶속에 강, 곶속이라는 건 한라산을 말하는 거지예?(숲속에 가서, 숲속이라는 건 한라산을 말하는 거지요?)

101007 #2 그렇죠. 여기선 바른 디가 바농오름[34] 잇는 데니까 바농오름 굽으로 올라 강.(그렇죠. 여기선 가까운 데가 바농오름 잇는 데니까 바농오름 밑으로 올라가서.)

101007 @ '바농오름'으로 올라강 '바농오름'은 지금 와흘에 잇수과? 어디? 봉개에 잇수과?('바농오름'으로 올라가서 '바농오름은 지금 와흘에 있습니까? 어디? 봉개에 있습니까?)

101007 #2 여기서도 날 좋으민 보이는데 저 그 마을이 없어요. 거기 제일 가까운 ᄆᆞ을이 저 물터진골.(여기서도 날 좋으면 보이는데 저 그 마을이 없어요. 거기 제일 가까운 마을이 저 '물터진골'.)

101007 @ 물 터진골?('물터진골'?)

101007 #2 물터진골이옌 헌디가 그 저 바농오름 제일 가까운 디 잇는 디입니다.('물터진골'이라고 한 데가 그 저 '바농오름' 제일 가까운 데 있는 데입니다.)

101007 @ 물터진골 마을 이름이 뭐 선흘이라던가 이런.('물터진골' 마을 이름이 뭐 선흘이라든가 이런.)

101007 #2 선흘은 그 동쪽이고.(선흘은 그 동쪽이고.)

101007 @ 동쪽이고.(동쪽이고.)

101007 #2 그 보필벵이라고, 궷드르라고 헤가지고 궷드르, 그 저 궷드르, 그 보통 많이 목초도 비레 가고, 새왓도 허고 그 궷드르 지형에 가서.(그 '보필벵'이라고, '궷드르'라고 해가지고 '궷드르', 그 저 '궷드르', 그 보통 많이 목초도 베러 가고, '새왓'도 하고 그 '궷드르' 지경에 가서.)

101007 @ 거기 강 새왓[35]도 허고예.(거기 가서 '새왓'도 하고요.)

101007 #2 대흘 우이(대흘 위에.)

101007 @ 예?(예?)

101007 #2 대흘 우이죠.(대흘 위죠.)

101007 @ 대흘 우에예. 대흘 우에 바농오름 잇구나. 신촌허고 관계가 잇다예. 그 곶디 강 나무를 헤왓고. 또 그런 풍습 말고 옛날에 풍습 생각나는 거 잇수과?(대흘 위에요. 대흘 위에 '바농오름' 있구나. 신촌하고 관계가 있네요. 그 숲에 가서 나무를 해왔고. 또 그런 풍습 말고 옛날에 풍습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101007 #2 무슨 거?(무슨 거?)

101007 @ 풍습?(풍습?)

101007 #2 풍습 밥을 못 헤 먹는다. 그레가지고 연기가 메칠 동안 안 나면 동네에서 연기가 쏠이 없엉 밥을 못 헤 먹는다. 연기가 쌀 엇엉 밥 못 헤영 메칠 동안 안 나는 거죠. 동네에서 연기가 안 나죠.(풍습 밥을 못 해 먹는다. 그래가지고 연기가 며칠 동안 안 나면 동네에서 연기가 쌀이 없어서 밥을 못 해 먹는다. 연기가 쌀 없어서 밥 못 해

34) '바농오름'은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와 와흘리의 경계. '바농벵듸' 남쪽에 있는 오름. 위에 둘레 600미터. 깊이 25미터의 환형분화구. 사면에는 말굽형 분화구가 벌어짐. 표고는 552.1미터이다.

35) '새왓'은 띠밭을 말하며 지붕을 일 띠가 자라는 밭을 말한다.

서 며칠 동안 안 나는 거죠. 동네에서 연기가 안 나죠.)

101007 @ 말은 못하고?(말은 못하고?)

101007 #2 예.(예.)

101007 @ 풍습이렌 헨게 향교렌 헨게 그 어릴 때 옛날에도 신촌에도 잇엇수과? 기우제, 무싱거 지내는 것꽈? 포제? 그것이 유명허꽈?(풍습이라고 향교라고 하던데 그 어릴 때 옛날에도 신촌에도 있었습니까? 기우제, 무슨 거 지내는 겁니까? 포제? 그것이 유명합니까?)

101007 #2 지금도 하죠.(지금도 하죠.)

101007 @ 옛날에도 헷수과?(옛날에도 했습니까?)

101007 #2 용왕제, ᄆᆞ을 토신제.(용왕제, 마을 토신제.)

101007 @ ᄆᆞ을 토신제. 용왕제?(마을 토신제. 용왕제?)

101007 #2 나가 짐게제축을 몃 해 헷어.(나가 '짐게제축'을 몇 해 했어.)

101007 @ 삼촌 어릴 때 멧 살부터 이걸 봣수과?(삼촌 어릴 때 몇 살부터 이걸 봤습니까?)

101007 #2 난 예순 뒈어야 제관으로 나갓어. 나가 어렷을 적에도 우리 부모네가 아주 빈곤헤 가지고 우리가 ᄉᆞ 남매가 컷는데 춤 지네게 뒈니까 나가 일곱 술에 서당에 가니까, 저 멘동지 고 선생안티 가니까, 천자로부터 동몽서지, 개명서지ᄁᆞ지 일곱 술에 읽엇어요. 아, 그러니까 동네 사람이 감짝 놀레언 이제 ᄀᆞ트민 천재가 낫다고 헐 거주. 건디 천자 ᄒᆞᆫ 권도 삼 년 뒈도 못 읽는 사람이 천지예요.(난 예순 뒈어야 제관으로 나갔어. 나가 어렸을 적에도 우리 부모네가 아주 빈곤해가지고 우리가 사남매가 컸는데 참 지내게 되니까 나가 일곱 살에 서당에 가니까, 저 '멘동지' 고 선생한테 가니까, 천자로부터 동몽서지, 개명서지까지 일곱 살에 읽었어요. 아, 그러니까 동네 사람이 깜짝 놀라서 이제 같으면 천재가 낫다고 할 거지. 그런데 천자 한권도 삼 년 되도 못 읽는 사람이 천지예요.)

101007 @ 예.(예.)

101007 #2 나는 일년에 천자문 동몽서지, 개명서지ᄁᆞ지 익으니까, 동네사람덜이 깜짝 놀렛어요.(나는 일년에 천자문 동몽서지, 개명서지까지 읽으니까, 동네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101007 @ 음.(음.)

101007 #2 그래서 집이 가난허니 아버지가 일본에 가버리니 여덟 술, 아홉 술은 그냥 놀아부렷어.(그래서 집이 가난하니 아버지가 일본에 가버리니 여덟 살, 아홉 살은 그냥 놀아버렸어.)

101007 @ 음.(음.)

101007 #2 그냥 여덟 살, 아홉 살은 그냥 놀아부니까 뭐 일곱 술에 글 읽어난 거 같지도 않죠. 어머니가 잇으니까, 어머니가 날더러 아기, 아이덜, 동생덜 보라고 헤가지고, 어머니는 밧디 가버리고, 그러니까 이 요덟 술, 아홉 술은 공부를 못 헷죠. 겐 열 술 뒈니까 아버지가 일본서 와서, 어떻게 저 명언이 서당엘 안 보네느냐? 아, 경허니까 하 집

이 가난헤서 먹을 것도 부족헐 뿐 아니라 홀 수 엇이 아이들, 동생들.(그냥 여덟 살, 아홉 살은 그냥 놀아 버리니까 뭐 일곱 살에 글 읽어난 거 같지도 않죠. 어머니가 있으니까, 어머니가 날더러 아기, 아이들, 동생들 보라고 해가지고, 어머니는 밭에 가버리고, 그러니까 이 여덟 살, 아홉 살은 공부를 못 했죠. 그래서 열 살 되니까 아버지가 일본서 와서, 어떻게 저 명언이 서당엘 안 보내느냐? 아, 그렇게 하니까 하 집이 가난해서 먹을 것도 부족할 뿐 아니라 할 수 없이 아이들, 동생들.)

101007 @ 봐야.(봐야.)

101007 #2 봐야 뒈니까, 못 갓다고 헤서, 열 술부터 저 강원재 선생안티 가서 글을 읽는데 아, 일사천리로 읽엇죠. 글을.(봐야 되니까, 못 갔다고 해서, 열 살부터 저 강원재 선생한테 가서 글을 읽는데 아, 일사천리로 읽었죠. 글을.)

101007 @ 어어.(어어.)

101007 #2 뭐, 뭐, 뭐 또 천자문으로 시작헤가지고 동문서지, 개몽편, 명심보감, 소학끄지. 그니까 열두 술 반, 두 혜 반을 읽으니까 그 선생이 나가 저 나가 아는 건 다 ᄀ르차 줫으니까 다른 선생을 츶아가라고 허니까 다른 선생을 츶앙 뎅겨도 안 뒙디다. 그 다른 선생님덜도 많이 잇엇는데 견디 저 화북에 임이우 선생, 그 어른안테 구 개월 배운 것이 월등하게 배왓어요.(뭐, 뭐, 뭐, 또 천자문으로 시작해가지고 동문서지, 개몽편, 명심보감, 소학까지. 그니까 열두 살 반, 두 해반을 읽으니까 그 선생이 나가 저 나가 아는 건 다 가르쳐 줬으니까 다른 선생을 찾아가라고 하니까 다른 선생을 찾아서 다녀도 안 됩디다. 그 다른 선생님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런데 저 화북에 임이우 선생, 그 어른한테 구 개월 배운 것이 월등하게 배웠어요.)

101007 @ 화북에 임이우.(화북에 임이우.)

101007 #2 비 우자.(비 우자.)

101007 @ 아이고, 세상에.(아이고, 세상에.)

101007 #2 그 선생이 제일 훌륭한 선생이랏고.(그 선생이 제일 훌륭한 선생이었고.)

101007 @ 겐 그 분은 다 돌아가시고 화북에 살당?(그래서 그 분은 다 돌아가시고 화북에 살다가?)

101007 #2 글쎄 죽엇는지 살앗는지 사삼ᄉ건에 어떻게 뒈엇을 거야. 나 화북에 가서 물어볼라고 헤도.(글쎄 죽었는지 살았는지 사삼3사건에 어떻게 되었을 거야. 나 화북에 가서 물어 볼라고 해도.)

101007 #2 찻간에서 흔번은 만낫는데 해방뒈어가지고. 그 임이우 선생이 아니, 지금 저 화북에서 날 전 위원장 인민위원장인가 무슨 위원장을 하라고 위원장헤서 내가 잇네, 게니까 인민위원장 헷으면 죽엇주. 그 ᄉ건에.(찻간에서 한번은 만났는데 해방되어가지고. 그 임이우 선생이 아니, 지금 저 화북에서 날 전 위원장 인민위원장인가 무슨 위원장을 하라고 위원장해서 내가 있네, 그러니까 인민위원장 했으면 죽었지. 그 사건에)

101007 @ 게니까 죽엇지.(그러니까 죽었지.)

101007 #2 ᄉ건에 죽엇는지, 그냥, 죽엇는지, 노인 늙어서 죽엇는지, 건 잘 몰라요.

(사건에 죽었는지, 그냥 죽었는지 노인 늙어서 죽었는지, 건 잘 몰라요.)

101007 @ 예. 그렇구나예.(예. 그렇군요.)

101007 #2 하여튼 훌륭헌 분이셧어.(하여튼 훌륭한 분이셨어.)

101007 @ 삼촌 그때가 열 살 때마씨?(삼촌 그때가 열 살 때요?)

101007 #2 그때가 열다슷 술 때.(그때가 열다섯 살 때.)

101007 @ 열다섯 술 때. 그분은 멧 술이엇수과?(열다섯 살 때. 그분은 몇 살이었습니까?)

101007 #2 그분이 흔 육십 이상이랏죠.(그분이 한 육십 이상이었죠.)

101007 @ 에. 삼촌이 십오 술 때, 그분이 육십 이상, 아이고 기록이 남아 싯쿠과예?(에. 삼촌이 십오 살 때, 그분이 육십 이상, 아이고 기록이 남아 있습니까?)

101007 #2 응.(응.)

101007 @ 참, 그때 거기 가보민 자식이 이십디가?(참, 그때 거기 가보면 자식이 있습디까?)

101007 #2 가보질 못헤엿어요.(가보질 못했어요.)

101007 @ 어디서 배웟수과? 그믄 그 집이 강 배운 게 아니고 화북?(어디서 배웠습니까? 그러면 그 집에 가서 배운 게 아니고 화북?)

101007 #2 여기 향사에서 와가지고.(여기 향사에서 와가지고.)

101007 @ 아아.(아아.)

101007 #2 선생이 와서 배와 줫어요.(선생님이 와서 배워 줬어요.)

101007 @ 그분이 선생님으로 향사에 왓엇구나예.(그분이 선생님으로 향사에 왔었군요.)

101007 #2 예.(예.)

101007 @ 아, 여기 향사가 중요헌 디 닮다예. 삼촌 태어나도 여기 향사가 이십데가?(아, 여기 향사가 중요한 데 같네요. 삼촌 태어나도 여기 향사가 있습디까?)

101007 #2 그렇죠.(그렇죠.)

101007 @ 조천만 그 학자들이 많덴 난 들엇거든예?(조천만 그 학자들이 많다고 난 들었거든요?)

101007 #2 이 저 거기가 이 동문 밖에선 제일 기와집 지은 것이 저 신촌이에요.(이 저 거기가 이 저 동문 밖에선 제일 기와집 지은 것이 저 신촌이에요.)

101007 @ 아아.(아아.)

101007 #2 그 문화재. 조천 뭐 저 무슨 연북정이니 뭐니 지어도 그 다 그 후에 지은 집덜이고.(그 문화재. 조천 연북정이니 뭐니 지어도 다 그 후에 지은 집들이고.)

101007 @ 후에 지은 거?(지은 거?)

101007 #2 제일 옛날 지은 건 이 저 신촌향사에요. 그러니까 수군, 그 저 옛날도 그 법에서 수군이라고 헤가지고 주접ᄉᆞᆨ지 와가지고 조력헤서 지엇다고 하니까.(제일 옛날도 지은 건 이 저 신촌향사에요. 그러니까 수군, 그 저 옛날 법에서 수군이라고 해가지고 주접소까지 와서 조력해서 지었다고 하니까.)

101007 @ 예. 그믄 이 향사에 삼촌 태어나기도 전부터 학자들이 많이 왓다는 거네예?(예. 그러면 이 향사에 삼촌 태어나기도 전부터 학자들이 많이 왔다는 거네요?)

101007 #2 그렇죠.(그렇죠.)

101007 @ 그믄 향사의 의미는 뭣꽈? 그 향교, 공부허는 곳도 아니고, 유교를 하는 무슨 사당?(그믄 향사의 의미는 뭡니까? 그 향교, 공부하는 곳도 아니고, 유교를 하는 무슨 사당?)

101007 #2 무슨 회의도 허곡 부락에서 모여서 회의도 허고 뭣도 허곡 헷는데 리사무소ᄀᆞ찌도 쓰고 헷는데 여기 지금은 이제는 제단ᄀᆞ찌 뒈엇어.(무슨 회의도 하고 부락에서 모여서 회의도 하고 뭣도 하고 했는데 리사무소 같이도 쓰고 했는데 여기 지금은 이제는 제단같이 되었어.)

101007 @ 제단.(제단.)

101007 #2 마을제를 거기서 지내. 마을젤.(마을 제를 거기서 지내고 있어요. 마을젤.)

101007 @ 거기서. 옛날에는 저기 학자들이 거기 왓다갓다 헷던 곳인데. 사삼 때 거기 피헤는 없엇다예. 불타거나.(거기서. 옛날에는 저기 학자들이 거기 왔다갔다 했던 곳인데. 사삼 때 피해는 없었네요. 불타거나.)

101007 #2 난 사삼 때에 그 난 잘 모르겟어요. 난 떠나버리니까.(난 사삼 때에 그 난 잘 모르겠어요. 난 떠나버리니까.)

101007 @ 아아, 경헨 삼촌 살앗구나.(아아, 그렇게 해서 삼촌 살았구나.)

101007 #2 사람 보면 쏘앙 죽이니까 내가 그냥 츰, 재수가 좋앗지.(사람 보면 쏘아서 죽이니까 내가 그냥 참, 재수가 좋았지.)

101007 @ 예.(예.)

101007 #2 이 배도 바닷길도 문딱 막아불고 꼼짝 못하게 헤서 그냥 뭐 총으로 죽여노니까 뭐 여ᄌᆞ, 남ᄌᆞ, 아이, 어른 헐 거 없이 만나민 쏴 죽이기 시작하니까. 아, 그냥 어찌어찌해서 시에 들어가서 육지 가는 배를 조사헤 보니까 주정공장 청주환이라고 헤서.(이 배도 바닷길도 모두 막아버리고 꼼짝 못하게 해서 그냥 뭐 총으로 죽여 놓으니까 뭐 여자, 남자, 아이, 어른 할 거 없이 만나면 쏴 죽이기 시작하니까. 아, 그냥 어찌어찌해서 시에 들어가서 육지 가는 배를 조사해 보니까 주정공장 청주환이라고 해서.)

101008 @ 이 마을의 특산물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이 마을의 특산물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101008 #1 특산물 베랑 엇일 거라.(특산물 별로 없을 거라.)

101008 @ 이 마을의 특산물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이 마을의 특산물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101008 #2 여기 특산물이라는 게 별로 없어요. 저 하여튼 이 식량이 보리 조가 많이 낫죠.(여기 특산물이라는 게 별로 없어요. 저 하여튼 이 식량이 보리 조가 많이 났죠.)

101008 @ 배추도 유명허지 안헷수과? 배추 수박?(배추도 유명하지 않았습니까? 배추 수박?)

101008 #2 아, 배추도 수박도 많이 나고 나도 무 갈아서 많이 벌어서 성공헷어요. 무 갈아서 많은 수확을 봣어요.(아, 배추도 수박도 많이 나고 나도 무 갈아서 많이 벌어서 성공했어요. 무 갈아서 많은 수확을 봤어요.)

101008 @ 아아. 땅이 좋으난 영 수박도 허고 무도 헷구나예?(아아, 땅이 좋으니까 이렇게 수박도 하고 무도 했군요?)

101008 #2 수박도 헤 보고 웨도 놔보고 허허.(수박도 해 보고 외도 놔보고 허허.)

101008 @ 무가 제일 잘 뒙디가? 삼촌은.(무가 제일 잘 됩디까? 삼촌은.)

101008 #2 무 헤서 생기리도 허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나가 신촌리 땅이 농토가 넙다고 헤도 땅 흔 평이 없엇어요. 서른다숫꺼진 없엇어. 땅 흔 평이, 흔 평도 남의 밧 빌어서도 허고 떼밧도 지어서 허고 농ᄉᆞ지으면서 내가 만 평을 삿어. 거 땅을.(무해서 무 말랭이도 하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나가 신촌리 땅이 농토가 넓다고 해도 땅 한 평이 없었어요. 서른다섯까지 없었어. 땅 한 평이, 한 평도 남의 밭 빌어서도 하고 때 밭도 지어서 하고 농사지으면서 내가 만 평을 샀어. 거 땅을.)

101008 @ 아이고 세상에.(아이고 세상에.)

101008 #2 더러 팔려불엇지만 열심히 헷어.(더러 팔려버렸지만 열심히 했어.)

101008 @ 특산물로는 신촌에는 그래도 이런 옛날에는 조, 보리, 콩인데, 그 이후에는 또 여러 가지를 심어서.(특산물로는 신촌에는 그래도 이런 옛날에는 조, 보리, 콩인데, 그 이후에는 또 여러 가지를 심어서.)

101008 #2 그렇죠.(그렇죠.)

101008 @ 특산물로 재배를 헷다는 거네요? 그런데 여기 한동안 수박허단 이젠 신엄만 허고 여기 수박 별로 안 허는 거 닮아예?(특산물로 재배를 했다는 거네요? 그런데 여기 한동안 수박하다가 이젠 신엄만 하고 여기 수박 별로 안 하는 거 같아요?)

101008 #2 허는 사람이 드물어.(하는 사람이 드물어.)

101008 @ 참웨도 그렇고 무는 헙니까? 아직까지. 미깡으로 많이 돌아신가?(참외도 그렇고 무는 합니까? 아직까지. 귤로 많이 돌았는가?)

101008 #2 미깡으로 많이 돌아부니까 헌디 무는 지금도 가는 사람들은 갈아.(귤로 많이 돌아버리니까 한데 무는 지금도 가는 사람들은 갈아.)

101008 @ 지금도 갈고예. 미깡으로 저 유명헤진 미깡을 언제쯤부터 싱거신고예?(지금도 갈고요. 귤로 저 유명해진 귤을 언제쯤부터 심었는가요?)

101008 #2 여기 미깡 싱근 딘 제일 이 북군관리에선 화북에 문수창이네가 질 시초로 심엇지. 아마.(여기 귤 심은 덴 제일 이 북군 관내에선 화북에 문수창이네가 제일 시초로 심었지. 아마.)

101008 @ 아아.(아아.)

101008 #2 게곡, 신촌엔 저 이 뭐시? 그 사람 이젠 잊어불엇다. 음, 음 저 신촌에 처음 싱근 사람이 저 이문헹이.(그리고 신촌엔 저 이 뭐? 그 사람 이젠 잊어버렸다. 음, 음 저 신촌에 처음 심은 사람이 저 이문행.)

101008 @ 이문헹이(이문행.)

101008 #2 성은 이가고 일름은 문헹이.(성은 이가고 이름은 문행.)

101008 @ 문헹이. 이문헹 씨가 처음 지엇는데 그 분은 지금 돌아가 버리셧고.(이문행씨가 처음 지었는데 그 분은 지금 돌아가 버리셨고.)

101008 #2 동수동 강학수허곡.(동수동 강학수하고.)

101008 @ 예? 강학수라는 분.(예? 강학수라는 분.)

101008 #2 강학수. 나보다 두나 밑에라도 먼여 심엇어.(나보다 두 살 밑이라도 먼저 심었어.)

101008 @ 먼여 가셧고예. 근데 이분이 처음으로 밀감을 심엇다는 거지예?(먼저 가셨고요. 근데 이분이 처음으로 밀감을 심었다는 거지요?)

101008 #2 그렇지.(그렇지.)

101008 @ 화북에.(화북에.)

101008 #2 문수창이.(문수창.)

101008 @ 문수창이 보면서 이제 헌 건디. 잘뒈난.(문수창이 보면서 이제 한 건데. 잘되니까.)

101008 #2 예.(예.)

101008 @ 또 다른 사람덜이.(또 다른 사람들이.)

101008 #2 수확이 돈 많이 나니까.(수확이 돈 많아 나니까.)

101008 @ 응.(응.)

101008 #2 그루후제 난 그 사람덜로 헤서 십 년 뒤에나 나는 심었는데, 나가 쉰에나 쉬흔 살부터 심었어.(그 후에 난 그 사람들로 해서 십 년 뒤에나 나는 심었는데, 내가 쉰에 나 쉰 살부터 심었어.)

101008 @ 아아. 그믄 멧 평? 땅, 그땐 땅 없을 때잖아예.(아아. 그러면 몇 평? 그땐 땅 없을 때잖아요.)

101008 #2 아니, 그때 땅을 삿지. 마흔 다숫꼬지 땅을 막 삿어. 내가.(아니, 그때 땅을 샀지. 마흔 다섯까지 땅을 막 샀어. 내가.)

101008 @ 예.(예)

101008 #2 무 갈아서 생기리 헤서 벌고 그리저리 헤서 버니까 막 삿어.(무 갈아서 무말랭이 해서 벌고 그리저리 해서 버니까 막 샀어.)

101009 @ 이 마을의 자랑거리는 무엇이 있습니까?(이 마을의 자랑거리는 무엇이 있습니까?)

101009 #1 없어. 자랑거리가 무신, 자랑거리 자랑헐 일이 하나토 엇어.(없어. 자랑거리가 무슨, 자랑거리 자랑할 일이 하나도 없어.)

101009 @ 무을 포제나벳긔 ᄒᆞ는 거 엇일 거여. 일 년에 ᄒᆞᆫ 번 무을 포제 무을에 편안하게 헤도렌 정월달에 허여. 음력정월달에. 정월도이 열흘 안에 허메. 포제가.(마을 포제나밖에 하는 거 없을 거야. 일 년에 한 번 마을 포제 마을에 편안하게 해 달라고 정월달에 해. 음력정월달에. 정월도 열흘 안에 해. 포제가.)

101009 @ 똑똑헌 사람들 많이 나오지.(똑똑한 사람들 많이 나오지.)

101009 #1 똑똑 이덕구 나왓당 사삼사건에 죽엇지. 얽은 사람, 그 사람이.(똑똑 이덕구 나왔다가 사삼사건에 죽었지. 얽은 사람, 그 사람이.)

101009 @ 여기가 고향?(여기가 고향?)

101009 #1 고향게. 이디서 큰 사람이지. 신촌사람이라 그 사람.(고향이지. 여기서 큰 사람이지. 신촌사람이라 그 사람.)

101009 @ 그렇구나. 그 이외에 똑똑허고 유명헌 사람은 나온 사람은 없습니까?(그렇구나. 그 이외에 똑똑하고 유명한 사람은 나온 사람은 없습니까?)

101009 #1 엇지. 엇어. 사삼사건에 다 죽엇어. 똑똑헌 사람은 다 죽엇어. 그 사람덜은 대통령 자격덜이라 죽은 사람덜은.(없지. 없어. 사삼사건에 다 죽었어. 똑똑한 사람은 다 죽었어. 그 사람들은 대통령 자격들이라 죽은 사람들은.)

101009 @ 뭐 대섬[36]이라든가 마을.(뭐 '대섬'이라든가 마을.)

101009 #1 대섬은 요기.('대섬'은 요기.)

101009 @ 토지가 좋거나 뭐 경치 좋거나 뭐 이런 건 엇수과?(토지가 좋거나 뭐 경치 좋거나 뭐 이런 건 없습니까?)

101009 #1 엇어. 대섬벳긴.(없어. '대섬'밖엔.)

101009 @ 조천보다 신촌이 좋다허는 건 뭐꽈?(조천보다 신촌이 좋다하는 건 뭡니까?)

101009 #1 신촌허고 조천허고 반반 대섬이.(신촌하고 조천하고 반반 '대섬'이.)

101009 @ 음, 거기 대섬이 이시민 뭐가 좀니까?(음, 거기 '대섬'이 있으면 뭐가 좋습니까?)

101009 #1 대섬이 거기 가민 노는 사람덜허곡, 고기 바당에서 ᄀᆞᆺ들로 강 나끄는 사람덜허고.('대섬'이 거기 가면 노는 사람들하고, 고기 바다에서 갯가로 가서 낚는 사람들하고.)

101009 @ 자랑거리에 들어가?(자랑거리에 들어가?)

101009 #1 으응? 자랑거리? 그것이 발전뒐 건디 데모헤부난.(으응? 자랑거리? 그것이 발전될 건데 데모해버리니까.)

101009 @ 아아.(아아.)

101009 #1 완전히 거기 발전뒈 갈 건디 멧 사름 강 데모헤부난 데모헌디 주나게 아니주지.(완전히 거기 발전돼 갈 건데 몇 사람 가서 데모해버리니까 데모하는데 주나 안 주지.)

101009 @ 거기 발전뒈민 발전소처럼 뒈불어.(거기 발전되면 발전소처럼 돼 버려.)

101009 #1 어, 경 헐건디 이디 멧 사름 드러 내 강 데모해부니까 안 줘. 이제 발전을 못헤여.(어, 그렇게 할 건데 여기 몇 사람 마구 가서 데모해 버리니까 안 줘. 이제 발전을 못해.)

101009 @ 발전 안 하는 게 더 좋은 거 아닌가?(발전 안 하는 게 더 좋은 거 아닌가?)

---

36) '대섬'은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와 조천리 경계 있는 섬을 말한다.

101009 #1 그때는 발전허민이 외국사람덜 막 담아진덴 허드라고. 노인덜이, 이제 죽어 분 어른덜, 여기 발전 뒈가믄 외국 사람덜 들어온덴. 할망덜 죽어불엇네. 그 할망덜. 그렇게 허드라고.(그때는 발전하면 외국 사람들 막 담아진다고 하더라고. 노인들이, 이제 죽어 버린 어른들, 여기 발전 돼 가면 외국 사람들 들어온다고. 할머니들 죽어 버렸네. 그 할머니들. 그렇게 하더라고.)

101009 @ 이 마을에 자랑거리가 잇으면 말씀헤 주십시오.(이 마을에 자랑거리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101009 #2 신촌에 이기빈이가 리사무소 지어주엇어.(신촌에 이기빈이가 리사무소 지어주었어.)

101009 @ 사람 말고 또 자랑거리허민 뭐, 인심은 좋앗수과?(사람 말고 또 자랑거리하면 뭐, 인심은 좋았습니까?)

101009 #2 인심 좋앗지. 옛날은, 신촌에 옛날도 양반이 많이 살앗어. 신촌에 문장도 많이 낫고 이유럭이 제주도에 최고 문장이엇어. 제주도적으로 상당한 문장이엇어.(인심 좋았지. 옛날은, 신촌에 옛날도 양반이 많이 살았어. 신촌에 문장도 많이 났고 이유럭이 제주도에 최고 문장이었어. 제주도적으로 상당한 문장이었어.)

101010 @ 이밖에 이 마을에 대헤서 덧붙일 말씀이 있으면 헤 주십시오. 가까운 디 이름이 뭐렌 헷수과 요전에 물?(이밖에 이 마을에 대해서 덧붙일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십시오. 가까운데 이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요전에 물?)

101010 #1 가마물[37], 통물[38], 든물[39], 다 메와 불엇어. 이제 가마물 ᄒᆞ나 남안 이제, 엉창물[40], 엉창물은 남자만 목욕허는 물, 여자 안 뎅겨.('가마물', '통물', '단물', 다 메워버렸어. 이제 '가마물' 하나 남았어. 이제 '엉창물', '엉창물'은 남자만 목욕하는 물, 여자 안 다녀.)

101010 @ 여자만 허는 목욕허는 물은?(여자만 허는 목욕하는 물은?)

101010 #1 가마 물, 다 ᄯᅳ로, 경허당 남자 쭐락[41] 가나 여자가 쭐락 가나 허잖아. 물이 ᄯᅳ로ᄯᅳ로 헤야.('가마 물', 다 따로, 그렇게 하다가 남자 '쭐락' 가나 여자가 '쭐락' 가나 하잖아. 물이 따로따로 해야.)

101010 @ 무사 가마물인가예?(왜 '가마물'인가요?)

101010 #1 옛날어른덜이 일름을 너는 큰년, 즉은년 허듯 물도 가마물, 통물, 든물.(옛날어른들이 이름을 너는 큰년, 작은년 하듯 물도 '가마물', '통물', '단물'.)

101010 @ 제일 물이 맛 좋은 딘 무슨 물이 엇수과?(제일 물이 맛 좋은 덴 무슨 물이 없습니까?)

101010 #1 가마물이 맛좋지. 든물은 깨끗헤도 찝찌룽허여.('가마물'이 맛좋지. 단물은 깨끗해도 짭조름해.)

---

37) '가마 물'은 신촌마을의 용천수 중 하나로 지금도 있다.
38) '통물'은 신촌마을의 용천수 중 하나인데 지금은 없다.
39) '든물'은 신촌마을의 용천수 중 하나인데 지금은 없다.
40) '엉창물'은 신촌마을의 용천수 중 하나로 지금도 있다.
41) '줄락'은 갑자기 나오는 모양을 뜻한다.

101010 @ 가마물은 물 거리는 물하고 목욕허는 물이 따로 잇엇구나?(가마 물은 물 긷는 물하고 목욕하는 물이 따로 있었구나?)

101010 #1 목욕허는 물 뜨르고 먹는 물 뜨나. 먹는 물에 강 목욕헷당 이제 난리나.(목욕하는 물 다르고 먹는 물 달라. 먹는 물에 가서 목욕했다가 이제 난리나.)

101010 @ 거믄 동카름 사람은 무조건 가마물에 거령 먹고, 서카름사람이 올 수도 잇수과?(그러면 '동카름' 사람은 무조건 '가마물'에 길어 먹고, '서카름' 사람이 올 수도 있습니까?)

101010 #1 큰물[42]에, 서카름 사람은 큰물에 일로 가민.(큰물에, '서카름' 사람은 '큰물'에 여기로 가면.)

101010 @ 어느 물이 좋다는 건 엇어?(어느 물이 좋다는 건 없어?)

101010 #1 큰물.('큰물'.)

101010 @ 큰물이 좋아.('큰물'이 좋아.)

101010 #1 큰물도 이제 오히려 물 빠부난 물살이 죽엇덴, 창창창창 누려. 그 물이.('큰물'도 이제 오히려 물 빼버리니까 물살이 죽었다고, 창창창창 내려. 그 물이.)

101010 @ 그믄 옛날에 삼촌들, 멀긴 해도 큰물에도 강 물 떠와도 뭐렌 안헨마씨?(그러면 옛날에 삼촌들, 멀긴 해도 '큰물'에도 가서 물 떠와도 뭐라고 안 해요?)

101010 #1 아니, 여기서도 즈끗디서 질여당 먹주. 큰물끄지 안가. 즈끗디 먼먼헌 디 질레 가나? 즈끗디, 큰물이 좋아. 이딧물은 궂어. 우린 즈끄디서 뎅겨.멀어서, 큰물이 좋긴 헌디 그디 안가.(아니, 여기서도 가까운데서 길어다가 먹지. '큰물'까지 안 가. 가까운데 멀고 먼 데 길러 가나? 가까운데, '큰물'이 좋아. 여기 물은 궂어. 우린 가까운데서 다녀. 멀어서, '큰물'이 좋긴 한데 거기 안가.)

101010 @ 살아오면서 신촌마을이 뭐가 좋앗수과?(살아오면서 신촌 마을이 뭐가 좋았습니까?)

101010 #2 신촌에 물이 좋고.(신촌에 물이 좋고.)

101010 @무슨 물이꽈? 여기는.(무슨 물입니까? 여기는.)

101010 #2 큰물 봣어요? 큰물 오족 좋아요. 제주시로 동쪽으로 와서는 이 신촌 큰물만이한 물이 없을 거야.('큰물' 봤어요? '큰물' 오죽 좋아요. 제주시로 동쪽으로 와서는 이 신촌 '큰물'만한 물이 없을 거야)

101010 @ 함덕이나 조천도 물이 잇잖아예?(함덕이나 조천도 물이 있잖아요?)

101010 #2 잇지만은 당추 여기 십 분지 일 만큼도 안헤여. 군데군데 다 나오는 물이 잇어. 봉천수가 다 잇는데 큰물은 아마 삼양 감수동이 물이 좋다고 지금 거려올리고 잇지만 신촌 큰물이 상당이 좋아. 목욕 여자목욕탕이나 남자목욕탕이나 시에서도 해 와.(있지만 당최 여기 십 분의 일 만큼도 안 해. 군데군데 다 나오는 물이 있어. 봉천수가 다 있는데 '큰물'은 아마 삼양 '감수동'이 물이 좋다고 지금 길어올리고 있지만 신촌 '큰물'이 상당히 좋아. 목욕 여자목욕탕이나 남자목욕탕이나 시에서도 해 와.)

101010 @ 옛날엔 더 좋앗다예, 동카름에는 무슨 물이 잇엇수과?(옛날엔 더 좋았네

42)'큰물' 신촌마을의 대표적 용천수 중 하나로 지금도 있다.

요. ‘동카름’에는 무슨 물이 있었습니까?)

101010 #2 동카름엔 감은물[43], 든물[44] ,통물.(동카름엔 ‘감은 물’, ‘단물’, ‘통물’.)

101010 @ 무사 감은물, 든물, 통물이렌 이름이 지어져신고예?(왜 ‘감은물’, ‘단물’, ‘통물’이라고 이름이 지었는가요?)

101010 #2 여기는 ᄌᆞ반물.(여기는 ‘조반물’)

101010 @ ‘ᄌᆞ반물’이 무슨 뜻이꽈?(‘조반물’이 무슨 뜻입니까?)

101010 #2 글쎄, 건 몰라. ᄌᆞ반물이라고 허니까 중동에 붙엇는디 대수동, 중동, 여기서 봐지는 딘디. 거 물 좋아.(글쎄, 건 몰라. ‘조반물’이라고 하니까 중동에 붙었는데 대수동, 중동, 여기서 보이는 덴데. 거 물 좋아.)

101010 @ ᄌᆞ반 물? 지금도 잇수과? 먹는 물이고예, 이쪽동네는 감은 물, 든물, 통물, 감은물은 무슨? 이름이 감은물?(‘조반물’? 지금도 있습니까? 먹는 물이고요. 이쪽 동네는 ‘감은물’, ‘단물’, ‘통물’, ‘감은물’은 무슨? 이름이 ‘감은물’?)

101010 #2 감은 ᄃᆞᆯ 감자 봇지.(감은 달 감자 봤지.)

101010 @ 아아, ᄃᆞᆯ 감, 단물이다. 든물은?(아아, 달 감, 단물이다. ‘단물’은?)

101010 #2 든물은 엇어져 불엇어. 통물도 ᄆᆞᆯ라버리고.(단물은 없어져 버렸어. ‘통물’도 말라버리고,)

101010 @ 신촌 대단허구나예. 이렇게 마을마다 물이 다 일름이 틀리고, 물이 얼마나 좋아시민 큰물이렌 헤시쿠과게.(신촌 대단하군요. 이렇게 마을마다 물이 다 이름이 틀리고, 물이 얼마나 좋았으면 ‘큰물’이라고 했겠습니까.)

101010 #2 신촌 큰물이 물이 콰콰하게 솓아오는디 지금 여자 목욕탕, 남자 목욕탕 다 따로따로 잇고, 하여튼 큰물에 물이 막 솓아지는 게 내 ᄂᆞ리는 것 같으니까.(신촌 ‘큰물’이 물이 콰콰하게 솓아 오는데 지금 여자 목욕탕, 남자 목욕탕 다 따로따로 있고, 하여튼 ‘큰물’에 물이 막 솓아지는 게 내 내리는 것 같으니까.)

107023 @ 게도 저 어릴 때 헤엄치레 갈 수도 잇지예? 그쪽에도.(그래도 저 어릴 때 헤엄치러 갈 수도 있지요? 그쪽에도.)

107023 #1 아니, 이디 우리 바당이 잇인디 무사 그디 가?(아니, 여기 우리 바다가 있는데 왜 거기 가?)

107023 @ 아아. 게도게.(아아. 그래도.)

107023 #1 큰물이 좋아. 무사 가?(‘큰물’이 좋아. 왜 가?)

107023 @ 같은 마을인디도 ᄂᆞᆷ의 바당이다예. 완전.(같은 바다인데 남의 바다네요. 완전.)

107023 #1 멀어서 안 가지. 가까운 디 가지. 이디선 한참 큰물에 가얄건디. 여기선 멧 메다 안 걸엉 그냥 걸어가 불어. 는 먼디 가지커냐?(멀어서 안 가지. 가까운 디 가지. 이디선 한참 큰물에 가얄 건데. 여기선 몇 미터 안 걸어서 그냥 걸어가 버려. 넌 먼데 갈 수 있겠니?)

---

43) ‘감은 물’은 신촌마을의 용천수 중 하나로 지금도 있다.

44) ‘든물’은 신촌 동 동네에 있는 용천수이다. 현재는 없다.

107023 @ 게도 벗에게, 놂에.(그래도 벗에게, 놂에.)
107023 #1 아니 벗에도 안 가. ᄌᆞ끗디서.(아니 벗에도 안 가. 가까운데서.)
107023 @ 그렇구나.(그렇구나.)
107023 #1 ᄌᆞ끗디서 허주. 먼 디. 큰물이 좋긴 헌디 그디 안 가.(가까운데 하지. 먼데. 큰물이 좋긴 한데 거기 안 가.)
107023 @ 으응.(으응.)
107023 #1 ᄌᆞ끗디서덜.(가까운 데.)
107023 @ 큰물에 ᄒᆞᆫ번도 강 목욕 안 헤봣수과?('큰물'에 한번도 가서 목욕 안 해봤습니까?)
107023 #1 아니 가끔 허지. 뎅기당도 넘어가당 더우면은 옷 벗엉. 큰물이 막 차가와.(아니 가끔 하지. 다니다가도 넘어가다가 더우면 옷 벗어서. '큰물'이 막 차가와.)
107023 @ 차가와.(차가와.)
107023 #1 이 가마물 닮지 아녕 막 차가와.(이 '가마물' 같지 않고 막 차가워.)

2. 제보자 일생

102001 @ 자 이젠예. 삼촌이 낳고 자란 과정을 이야기헤 주십시오.(자 이젠요. 삼촌이 낳고 자란 과정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102001 #1 나? 나는이, 신촌에서 나고 여기서 나고 크고 원 어디 가보질 안헷어. 구십, 팔십팔 년도를 나, 팔십팔 년도를 팔십팔 년을 산 거여. 이동에 베끗디 나가보도 못허고.(나? 나는, 신촌에서 나고 여기서 나고 크고 원 어디 가보질 않았어. 구십, 팔십팔 년도를 나, 팔십팔 년도를 팔십팔 년을 산 거야. 이동에 밖에 나가보지도 못하고.)
102001 @ 천구백 멧 년셍이꽈?(천구백 몇 년생입니까?)
102001 #1 나가 이십구년생.(내가 이십구년생.)
102001 @ 천구백이십구 년생, 멧 번째 첫 번째 딸로 태어낫덴 헷잖아예?(천구백이십구 년생, 몇 번째 첫 번째 딸로 태어났다고 했잖아요?)
102001 #1 나가 큰뚤.(내가 큰딸.)
102001 @ 어머니, 아버지 오랫동안 사셧수과?(어머니, 아버지 오랫동안 사셨습니까?)
102001 #1 아버지는 각시 얻엉 ᄯᅳ로 살아불고, 아부지는 ᄇᆞ롬둥이라. 각시 여러, 두 개 헤노난 우리는.(아버지는 각시 얻어서 따로 살아버리고, 아버지는 바람둥이야. 각시 여러, 두 명 해버리니까 우리는.)
102001 @ 신촌에 살고?(신촌에 살고?)
102001 #1 아니, 저 조천에 살앗지. 겐디 우리는 이제 웨할망네 집이 살앗지. 집이 엇어 부니까.(아니, 저 조천에 살았지. 그런데 우리는 이제 외할머니네 집에 살았지. 집이 없어 버리니까.)

102001 @ 웨삼춘도 그럼 잇엇고?(외삼촌도 그럼 있었고?)

102001 #1 웨삼춘은 엇고, 이모, 우리 어머니 아시, 동생.(외삼촌은 없고, 이모, 우리 어머니 아우, 동생.)

102001 @ ᄀᆞ찌 살앗구나예?(같이 살았군요?)

102001 #1 응 ᄀᆞ찌 살앗지.(응 같이 살았지.)

102001 @ 이모도 시집가지 안헨?(이모도 시집가지 않았어?)

102001 #1 시집간 후에는 우리도 이제 시집가 불고 허난 이모가 거기 살다가 이모가 그 집 풀아불엇지. 이모가 풀아먹은 거야. 거난 풀믄 우리 어머니가 큰 뚤이난.(시집간 후에는 우리도 이제 시집가버리고 하니까 이모가 거기 살다가 이모가 그 집 팔아버렸지. 이모가 팔아먹은 거야. 거니까 팔면 우리 어머니가 큰 딸이니까.)

102001 @ 웨할머니는 뚤이 둘?(외할머니는 딸이 둘?)

102001 #1 뚤이 셋인데 흔 사람은 저 일제 때에 그 미국 놈덜 완 폭발헤 부난 거기가 무신 오사까옌 허메. 오사까. 대판, 거기서이 미국 놈덜.(딸이 셋인데 한 사람은 저 일제 때에 그 미국 놈들 와서 폭발해버리니까 거기가 무슨 오사카라고 해. 오사카. 대판, 거기서 미국 놈들.)

102001 @ 히로시마 뭐 이런 데서.('히로시마' 뭐 이런 데서.)

102001 #1 어, 히로시마!(어, '히로시마!')

102001 @ 원자폭탄.(원자폭탄.)

102001 #1 거기 살단이. 원자폭탄이 헤난 그 ᄀᆞ루닮은 거 뿌려부난 영, 영 허멍 그냥 ᄀᆞ짝ᄀᆞ짝 사부난 덴노헤이까! 첨 손들러 불엇네. 그냥 팡팡허는 건 아니헐 건디 ᄀᆞ루닮은 거 허난 그냥 영, 영 허멍 ᄀᆞ짝ᄀᆞ짝헤부난 손들러 불어세. 우리 셋 이모네 경헨 죽어불엇네. 서이 새끼가, 아방 어멍에 아덜에.(거기 살다가. 원자폭탄이 했었던 그 가루 같은 거 뿌려버리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그냥 쭈뼛 쭈뼛 서버리니까 천황폐하! 첨 손들어 버렸네. 그냥 팡팡하는 건 아니할 건데 가루 같은 거 하니까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쭈뼛 쭈뼛해 버리니까 손들어 버렸어. 우리 둘째 이모네 그렇게 해서 죽어버렸네. 세 새끼가, 아버지 어머니에 아들에.)

102001 @ 아이고 직접 피헤자로구나예.(아이고 직접 피해자로군요.)

102001 #1 피해자지. 사월 식게가, 사월 스무날일 거라. 우리 셋이모가. 게 얼마 엇엉 해방뒈드라고. 우리이 셋이모네 죽엉 얼마 엇엉 해방뒈언.(피해자지. 사월 제사가, 사월 스무 날일 거라. 우리 둘째이모가. 게 얼마 없어서 해방되더라고. 우리 둘째이모네 죽어서 얼마 없어서 해방되었어.)

102001 @ 할머니가 막 속상헷겟다예.(할머니가 막 속상했겠네요.)

102001 #1 우리 할머니 죽젠이 저 웬당알로 막 물에 빠정 죽젠 헤도 안 죽어젼. 할망이.(우리 할머니 죽으려고. 저 '웬당알'로 막 물에 빠져서 죽으려 해도 안 죽어졌어. 할머니가.)

102001 @ 할아버진 없엇고?(할아버진 없었고?)

102001 #1 웨할아버진 막 우리 어머님네 어린 때 돌아갓덴 허여.(외할아버진 막 우

리 어머님네 어릴 때 돌아갔다고 해.)

102001 @ 아덜은 엇엇수과?(아들은 없었습니까?)

102001 #1 아덜은 엇어. 뚤만 우리 할마님 세 개, 겐디 하난 일본엔 공습에 죽고, 우리 어머님은 그냥 아팡 죽고, 우리 작은 이모도 이제사 죽건 지가 혼 사년.(아들은 없어. 딸만 우리 할머님 세 개, 그런데 하난 일본엔 공습에 죽고, 우리 어머님은 그냥 아파서 죽고, 우리 작은 이모도 이제야 죽은 지가 한 사년.)

102001 @ 그 이모가 더 의지뒀구나. 어머니보다?(그 이모가 더 의지됐구나. 어머니보다?)

102001 #1 이모가 어멍ᄀᆞ치 우리어머님이 어릴 때 죽어부니까 그 이모가 어멍역할헹 키왓지.(이모가 어머니같이 우리어머님이 어릴 때 죽어버리니까 그 이모가 어머니 역할해서 키웠지.)

102001 @ 아고야, 게믄 어머니는 딸을 큰뚤허곡 멧 낭은에?(아고야, 그러면 어머니는 딸을 큰딸하고 몇 나서?)

102001 #1 우리 어머니? 서오누이. 나 우리 밑에 아시 잇고 동생 이신디 동생은 죽어 불고, 아판 죽어 불고.(우리 어머니? 세 오누이. 나 우리 밑에 아우 있고 동생 있는데 동생은 죽어버리고, 아파서 죽어 버리고.)

102001 @ 삼촌 멧 살에 어머니가 돌아가션마씨?(삼촌 몇 살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102001 #1 나가 스물둘에, 우리 오레비는 열싀 술엔가 죽고, 우리 아시는 열일곱엔가 열요숫엔가 죽고, 나광 우리 아시 차이가.(나가 스물둘에, 우리 오빠는 열세 살엔가 죽고, 우리 동생은 열일곱엔가 열여섯엔가 죽고, 나와 우리 동생 차이가.)

102001 @ 어머니가 한이 맺혀시컨게(어머니가 한이 맺혔겠네요.)

102001 #1 하이고, 나보다 그 어린 동생덜이 불쌍허여. 나는 결혼헤분 때라. 스물둘에 게난 아방은 군인 지원헹 헤병대로 가불곡, 겨난 우리 아시넨 어멍 어릴 때 죽어부난 막 한이 맺현. 말도 몰르게 고생헷어, 우리.(하이고, 나보다 그 어린 동생들이 불쌍해. 나는 결혼해버린 때라. 스물둘에 그러니까 아방은 군인 지원해서 해병대로 가버리고, 겨난 우리 동생넨 어머니 어릴 때 죽어버리니까 막 한이 맺혔어. 말도 모르게 고생했어, 우리.)

102001 @ 겐디 오래 살지 못헷구나예?(그런데 오래 살지 못했군요?)

102001 #1 우리 어머니?(우리 어머니?)

102001 @ 아덜.(아들.)

102001 #1 아덜. 쉰둘에 돌아간. 어멍이 쉰둘에 죽으난 아, 우리 오레비도 쉰둘에 죽어라.(아들 쉰둘에 돌아갔어. 어머니 쉰둘에 죽으니까 아, 우리 오빠도 쉰둘에 죽어라.)

102001 @ 게도 결혼헹 다 살긴 사난.(그래도 결혼해서 다 살긴 사니까.)

102001 #1 결혼헨디 애기 엇언.(결혼했는데 애기 없었어.)

102001 @ 아이고.(아이고.)

102001 #1 멧 년 살아도 자식이 엇언.(몇 년 살아도 자식이 없었어.)

102001 @ 아이고, 옛날에도 경헷구나예?(아이고, 옛날에도 그렇게 했군요?)

102001 #1 여자가 엇인 애기.(여자가 없는 애기.)

102001 @ 겨믄 아이고 결국은 씨가 엇엇구나.(그러면 아이고 결국은 씨가 없었구나.)

102001 #1 씨가 엇어져 불언. 엇어져 불언. 우리 오래비 와 간 흔적이 엇어 불언. 얼마나 한이 맺현, 그 우리 오래비 우리어머님이 그때 당시는 보리밥 먹기가 힘들엇어이. 헌디 똑 그 아덜은 지름밥허멍 멕이더라고. 약떡허멍 그 아덜만, 우리는 안 줘. 그 아덜만.(씨가 없어져 버렸어. 없어져 버렸어. 우리 오빠 와 간 흔적이 없어져버렸어. 얼마나 한이 맺혀서 그 우리 오빠 우리 어머님이 그때 당시는 보리밥 먹기가 힘들었어. 그런데 꼭 그 아들은 기름밥하면서 먹이더라고. 약떡하면서 그 아들만, 우리는 안 줘. 그 아들만.)

102001 @ 쯧쯧. 멧 살 차이가 뒈는 거꽈?(쯧쯧. 몇 살 차이가 되는 겁니까?)

102001 #1 우리 오래비가 쉰둘에 죽고.(우리 오빠가 쉰둘에 죽고.)

102001 @ 거의 아홉 술 차이 삼촌이영?(거의 아홉 살 차이 삼촌이랑?)

102001 #1 우리 아시가 이제 요든 넷.(우리 동생이 이제 여든 넷.)

102001 @ 게난 여동생 으든넷이고?(그러니까 여동생 여든넷이고?)

102001 #1 난 으든 아홉, 아홉채 들언. 이제 여든으덥. 네 살 차이.(난 여든아홉, 아홉째 들어서. 이제 여든 여덟. 네 살 차이.)

102001 @ 남자동생은 돌아가신 멧 술 차이엿수과? 터울이?(남자동생은 돌아가신 몇 살 차이였습니까? 터울이?)

102001 #1 나영 가이영은 우리 아시허곡 세 술 차이. 여섯 술 차이. 그 남동생허곡. 이제 살아시민 우리 아시가 요든 넷이난에 여든 하나쯤 될 거라.(나랑 걔랑은 우리 아우하고 세살차이. 여섯 살차이. 그 남동생하고. 이제 살았으면 우리 동생이 여든 넷이니까 여든 하나쯤 될 거라.)

102001 @ 그추룩 공들영 키와신디?(그렇게 공들여서 키웠나요?)

102001 #1 은이여 금이여 헷지. 경허단 보난 죽어불언.(은이여 금이여 했지. 그렇게 하 보니까 죽어버렸어.)

102001 @ 게도 의는 좋앗수과? 삼촌하고도 이모하고도?(그래도 의는 좋았습니까? 삼촌하고도 이모하고도?)

102001 #1 가이가 일본 살앗지.(걔가 일본 살았지.)

102001 @ 아이고.(아이고.)

102001 #1 죽으난 여기이 신장[45]으로 완.(죽으니까 여기 신장으로 왔어.)

102001 @ 아이고!(아이고!)

102001 #1 보지도 못 헤서.(보지도 못 했어.)

102001 @ 태왕은에 옵니까? 태와서 시체를?(태워서 옵니까? 태워서 시체를?)

102001 #1 아니, 그냥 신장으로 와. 신장으로 왕 묻엇어.(아니, 그냥 '신장'으로 와.

45) '신장'은 시체를 바로 펴서 매장하는 방법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시체의 뜻으로 쓰인 듯하다.

‘신장’으로 왕 묻었어.)

102001 @ 경도 헙니까?(그렇게도 합니까?)

102001 #1 응. 일본서 신장으로 왓드라고.(응. 일본서 신장으로 왔더라고.)

102001 @ 아이고야.(아이고야.)

102001 #1 이제 죽건 디가 멧 십 년이라게.(이제 죽은 지가 몇 십 년이라.)

102001 @ 일본서 살당?(일본서 살다가.)

102001 #1 응. 일본서 죽언.(응. 일본서 죽었어.)

102001 @ 무사 일본까지 가신고예?(왜 일본까지 갔는가요?)

102001 #1 돈벌레.(돈벌레.)

102001 @ 아, 신촌도 일본 많이 갓구나예?(아, 신촌도 일본 많이 갔군요?)

102001 #1 아이구, 많이 갓어. 돈 벌레 갓당 자식도 엇고 돈은 번 건 각시가 다 앗안 뎅기당 각시도 차에 사고 난 죽고, 아무것도 애기도 엇고.(아이구, 많이 갔어. 돈 벌러 갔다가 자식도 없고 돈은 번 건 각시가 다 가져서 다니다가 각시도 차에 사고 나서 죽고, 아무것도 애기도 없고.)

102001 @ 그 집은 누가?(그 집은 누가?)

102001 #1 봉가 온 뚤, 가이만 복덩이라.(주워 온 딸, 걔만 복덩이라.)

102001 @ 양녀렌 헙니까? 어디서 외로완.(양녀라고 합니까? 어디서 외로워서.)

102001 #1 어린 때에 주서당 키운 거.(어린 때에 주워다가 키운 거)

102002 @ 부모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부모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102002 #2 늘그막엔 농사지엇지.(늘그막엔 농사지었지.)

102003 @ 어머님의 고향은 어디십니까?(어머님의 고향은 어디십니까?)

102003 #2 신촌, 강씨.(신촌, 강씨.)

102004 @ 어릴 땐 어떤 놀이를 하며 자랏습니까?(어릴 땐 어떤 놀이를 하며 자랐습니까?)

102004 #2 모치기도 허고, 연날리기도 허고, 윷놀이 ᄀᆞ튼 것도 안 헤보고, 빠차치긴 헷어. 팽이치기도 허고, 돈 놩 구녁치기. 하하.(모치기도 하고, 연날리기도 하고, 윷놀이 같은 것도 안 해보고, 딱지치긴 했어. 팽이치기도 하고, 돈 놔서 구멍치기. 하하.)

102004 #1 낮인 흑교허고 밤인 탕건허고.(낮엔 학교하고 밤엔 탕건하고.)

102004 @ 일만 헷수과? 놀 때 곱을락이여, 무신 베들락이여?(일만 했습니까? 놀 때 숨바꼭질이다, 무신 줄넘기다?)

102004 #1 아아, 건 어릴 때.(아아, 건 어릴 때.)

102004 @ 어떤 놀이?(어떤 놀이?)

102004 #1 어릴 땐 베뛸락허고.(어릴 땐 줄넘기하고.)

102004 @ 베뛸락.(줄넘기.)

102004 #1 이렇게 영 헤영은에이 영 둘이 줴연 그믄 영 이렇게 막 뛰지.(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둘이 쥐어서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막 뛰지.)

102004 @ 거 뭐?(거 뭐?)

102004 #1 이렇게 둘이 고무줄 잇잖아.(이렇게 둘이 고무줄 있잖아.)

102004 @ 아아, 고무줄놀이?(아아, 고무줄놀이?)

102004 #1 게믄 고무줄로 막.(그러면 고무줄로 막.)

102004 @ 아아. 고무줄놀이? 아아 노래라도 불렀수과?(아아. 고무줄놀이? 아아 노래라도 불렀습니까?)

102004 #1 거 이, 이찌게츠람뽕 하루스시데! 허멍 일본말로.(거 이, '이찌게츠람뽕 하루스시데!' 하면서 일본말로.)

102004 @ 이찌게츠.('이찌게츠'.)

102004 #1 일본말로 이찌게츠람뽕 하루스시데! 무시거 이제 그ᄁᆞ지벳긔 몰라. 잊어불언.(일본말로 '이찌게츠람뽕 하루스시데!' 무슨 거 이제 그까지밖에 몰라. 잊어 버렸어.)

102004 @ 다 생각헹 놔 둡서. 일본말로 고무줄놀이 헷고, 또 공기. 공기를 뭐렌 헷수과? 돌멩이?(다 생각해서 놔 두세요. 일본말로 고무줄놀이 했고, 또 공기. 공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돌멩이?)

102004 #1 돌멩이ᄀᆞ라 공기옌벳긔 더허여.(돌멩이보고 공기라고 밖에 더해.)

102004 @ 공기놀이?(공기놀이?)

102004 #1 응. 공기놀이. 거 이 다숫 갠가? 멧 개?(응. 공기놀이. 거 이 다섯 갠가? 몇 개?)

102004 @ 다숫 개.(다섯 개.)

102004 #1 또 그 영 튀우는 거이 오지다마옌 헌 거.(또 그 이렇게 띄우는 거 '오지다마'이라고 한 거.)

102004 @ 오지다마?('오지다마'?)

102004 #1 그거이 콩이나 보리술이나 놩 이 이렇게 막 올리잖아.(그거 콩이나 보리쌀이나 놔서 이 이렇게 막 올리잖아.)

102004 @ 오지다마?('오지다마?')

102004 #1 오지다마. 네 개ᄁᆞ진 우리 올려낫어.('오지다마.' 네 개까진 우리 올렸었어.)

102005 @ 일제강점기에 공출 등 생활 전반에 대해서 아는 바를 말씀혜 주십시오.(일제강점기에 공출 등 생활 전반에 대해서 아는 바를 말씀해 주십시오.)

102005 #1 공출허민 우리 어린 때난 몰라. 공출에 대헹은이 우리 이모님네 어멍덜알주. 우리 어린 때 어떵 헹 아냐?(공출하면 우리 어린 때난 몰라. 공출에 대해서 우리 이모님네 어머니들 알지. 우리 어린 때 어떻게 해서 아니?)

102005 @ 뭐 바치고, 바치고 이런 거?(뭐 바치고, 바치고 이런 거?)

102005 #1 어린 때지. 혹생, 혼 이학년 때쯤, 근데이 맨발에 뎅겨서. 신 엇이니까.(어린 때지. 학생, 한 이학년 때쯤, 그런데 맨발에 다녔어. 신 없으니까.)

102005 @ 야, 학교 갈 때도?(야, 학교 갈 때도?)

102005 #1 학교 갈 때도 신 사줜에 신 아까왕 손에 잡앙가.(학교 갈 때도 신 사줘서

신 아까워서 손에 잡아서 가.)

102005 @ 고무신, 검은 것꽈? 흰 것꽈?(고무신, 검은 겁니까? 흰 것입니까?)

102005 #1 검은 반나신, 검은 거. 가방이 어딘나. 가방에 영 놧당 영 무껑, 필통도 엇어. 이런 기지로 헤영은에 영 확 호루쌍 그런 걸로 허곡, 에이구, 고무 잇잖아. 영 것도 엇엉이. 흰 고무신 다 끈어진거이 뒤칙이 헤당 끈어당 그걸로 막 밀고, 이걸로 하 헹영 밀곡 아이고 공책 하나민 멧 번 쓰나? 연필로 써낭 그 다음은, 필통 거 저 무신?(검은 '반나신', 검은 거. 가방이 어디 있나? 가방에 이렇게 놨다가 이렇게 묶어서, 필통도 없어. 이런 기지로 해서 이렇게 확 에워싸서 그런 걸로 하고, 에이구, 고무 있잖아. 이렇게 것도 없어서 흰 고무신 다 끊어진 거 뒤축이 해다가 끊어다가 그걸로 막 밀고, 이걸로 하 해서 이렇게 밀고 아이고 공책 하나면 몇 번 쓰나? 연필로 쓰고 나서 그 다음은, 필통 거 저 무슨?)

102005 @ 볼펜, 숫검정 볼펜?(볼펜, 숯검정 볼펜?)

102005 #1 볼펜, 그런 걸로 써낭, 세번짼 먹으로 써. 공책 하나에 그렇게 힘들어. 공책 사기도 힘들어. 우리 때 얼마나 고생헌 줄 알암나 이젯 아이덜은 연필, 벨 거 다, 에이고, 책포도 터져가민 주워. 포따리에 포따리 쌍 이렇게 무껑, 이제 허는 거. 우리 헤난 거.(볼펜, 그런 걸로 쓰고 나서, 세 번짼 먹으로 써. 공책 하나에 그렇게 힘들어. 공책 사기도 힘들어. 우리 때 얼마나 고생한 줄 아나 이제 아이들은 연필, 별 거 다, 에이고, 책보도 터져 가면 뀌매. 보따리에 보따리 싸서 이렇게 묶어서, 이제 하는 거. 우리 했던 거.)

102005 @ 드라마 이런 거에 나오는 거 보믄예?(드라마 이런 거에 나오는 거 보면요?)

102005 #1 삶인지 죽음인지 그런 시절이 돌아오랑 다덜 죽어불주. 살앙 무시것 헤여 힘들고.(삶인지 죽음인지 그런 시절이 돌아와서 다들 죽어버리지. 살아서 뭐 해 힘들고.)

102005 @ 게도 아버지도 생각은 하는구나예?(그래도 아버지도 생각은 하는군요?)

102005 #1 아버지이? 생각은 무신 놈의 생각? 각시만 쳐 얻엉.(아버지? 생각은 무슨 놈의 생각? 각시만 쳐 얻어서.)

102005 @ 게도 사삼 때 삼촌 게도 그렇게 헤서?(그래도 사삼 때 삼촌 그래도 그렇게 해서?)

102005 #1 사삼 때 조천 가난 살앗지. 이덕구 세계난 문딱 심어당 죽여불어.(사삼 때 조천 가난 살았지. 이덕구 세계니까 모두 잡아다가 죽여 버려.)

102005 @ 아버지가 이시난 게도.(아버지가 있으니까 그래도.)

102005 #1 아버지 조천에 시난, 든든헤영, 심으레도 안 가. 아방이, 국민ᄒᆞ교이 저 무싱거라 그 국민ᄒᆞᆨ교 그 집 트더져 가민 다 우리 아버지가 목시 헤당 고찌고, 다 고치고, ᄒᆞᆨ교 위원장, ᄆᆞ을에 이장, 이장아니라 구장이옌 허매. 쎄게 아방이 놀아나노난, 아방이 쎄게 게난 아방 빽으로.(아버지 조천에 있으니까, 든든해서, 잡으러도 안 가. 아버지가, 국민학교이 저 무슨 거라 그 국민학교 그 집 뜯어져 가면 다 우리 아버지가 목수해다가 고치고, 다 고치고, 학교 위원장, 마을에 이장, 이장 아니라 구장이라고 해. 세게

아버지가 놀아버리니까, 아방이 세게 그러니까 아버지 백으로.)

102005 @ 살아놓고 뭘 헤도.(살아놓고 뭘 해도.)

102005 @ 삼촌 뭐 뒛구나.(삼촌 뭐 됐구나.)

102005 #1 게믄 어떵허나? 이녁 어멍 내불어뒁 이녁이 살젠 허난.(그러면 어떻게 하나? 이녁 어머니 내버려두고 이녁이 살려고 하니까.)

102005 @ 그렇지. 살아놓고 뭘 헤야주게.(그렇지. 살아놓고 뭘 해야지.)

102005 @ 일제강점기에 공출 등 생활 전반에 대헤서 아는 바를 말씀헤 주십시오.(일제강점기에 공출 등 생활 전반에 대헤서 아는 바를 말씀해 주십시오.)

102005 @ 일제시대 때가 삼촌이 멧 살 뒐 철이꽈? 천구백십구년이니까?(일제시대 때가 삼촌이 몇 살 될 철입니까? 천구백십구년이니까?)

102005 #2 스물흔 술에 해방뒀어. 스물흔 술에, 게 이 고구마 썰엉 절간 공출, 뒈지 공출, 뒈야지 통시에 기르는 것도 다 부쳐간 뒈야지 공출, 뭐 왕은에 항굽 다 드러냉 곡식 잡곡이나 이시민 다 털어가고 왜놈덜 말이야, 이 조천읍사무소 상당히 심혯어, 그때. 게 고○○이 해방뒈니까 행방불명뒌 어디 죽엇는지 살앗는지 몰라도, 하엿튼 고○○이 면장 때 말이여, 조천면민들은 상당이 못젼뎟어. 절간해 가지고 공출허기.(스물한 살에 해방됐어. 스물한 살에, 게 이 고구마 썰어서 절간공출, 돼지공출, 돼지 통시에 기르는 것도 다 부쳐간 돼지공출, 뭐 와서 항아리 밑에 다 드러내서 곡식 잡곡이나 있으면 다 털어가고 왜놈들 말이야, 이 조천읍사무소 상당히 심했어. 그때. 게 고○○이 해방되니까 행방불명된 어디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라도, 하여튼 고○○이 면장 때 말이야, 조천면민들은 상당이 못 견뎠어. 절간해가지고 공출하기.)

102005 @ 고○○이 면장헤 가지고 못뒌 짓헤부난 나중엔 해방뒈난 행방불명 뒈불언 마씨?(고○○이 면장해 가지고 못된 짓해버리니까 나중엔 해방되니까 행방불명 돼 버렸어요?)

102005 #2 어디 갓는지 죽엇는지 살앗는지 소식이 없어. 그 사람.(어디 갔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소식이 없어. 그 사람.)

102005 @ 보리, 조, 이런 거 다 공출?(보리, 조, 이런 거 다 공출?)

102005 #2 곡식 보리,조, 막 눌굽을 다, 눌굽을 더듬으고 이 조천면민들을 상당이 못젼디게 굴엇어.(곡식 보리, 조, 막 가리 밑바닥을 다, 가리 밑바닥을 더듬고 이 조천면민들을 상당히 못 견디게 굴었어.)

102005 @ 어머니도 무ᄉᆞ와헷겟다예? 아버지가 일헌 것덜 다 빼사갓단 말이잖아예? 소, 말 이런 것들 뭐?(어머니도 무서워했겠네요? 아버지가 일한 것들 다 뺏어갔단 말이잖아요? 소, 말 이런 것들 뭐?)

102005 #2 소도 공출허고 헷주만은 우린 소가 없엇으니까 뒈지공출은 헷어요. 집집마다 통시에 뒈지 길루왓거든. 그때는 집집마다.(소도 공출하고 했지만 우린 소가 없었으니까 돼지공출은 했어요. 집집마다 통시에 돼지 길렀거든. 그때는 집집마다.)

102005 @ 일본 순사덜 칼 찬 것도 보고 말탕 다니는 것도 봐봇수과?(일본순사들 칼 찬 것도 보고 말 타서 다니는 것도 봤습니까?)

102005 #2 스물흔 술에 해방뒈엇어.(스물한 살에 해방되었어.)

102005 @ 사십오 년도니까 멧 년에 태어낫수과?(사십오 년도니까 몇 년에 태어났습니까?)

102005 #2 대정 십삼 년에.(대정 십삼 년에.)

102005 @ 십삼 년이믄 일제시대다예? 한일합방이 천구백십 년이난.(십삼 년이면 일제시대네요? 한일합방이 천구백십 년이니까.)

102005 #2 쇼와[46]가 나보다 흔나 밑에랏어. 쇼와 이십 년도에 해방뒛어.(소화가 나보다 하나 아래였어. 소화 이십 년도에 해방됐어.)

102005 @ 게믄 일본말도 잘 알겟다예?(그러면 일본말도 잘 알겠네요?)

102005 #2 쪼금 알앗지뭐.(조금 알았지. 뭐.)

102006 @ 사삼 사건 때 소개 등 생활 전반과 겪었던 내용을 말씀헤 주십시오.(사삼 사건 때 소개 등 생활 전반과 겪었던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102006 @ 그 동창덜은 다 어디 갓수과?(그 동창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102006 #1 하나토 엇어. 이제. 다 죽언. 이제. 사삼사건에 다 죽어불언.(하나도 없어. 이제. 다 죽언. 이제. 사삼사건에 다 죽어 버렸어.)

102006 @ 사삼 때 세상에?(사삼 때 세상에?)

102006 #1 ᄒᆞ나토 엇어. 이제, 다 죽어불언.(하나도 없어. 이제, 다 죽어 버렸어.)

102006 @ 아이고야 막 울어져시쿠다예. 친구들, 어쨋튼 어릴 때 친구들 다 돌아가션?(아이고야 막 울어졌겠네요. 친구들, 어쨌든 어릴 때 친구들 다 돌아가셨어요?)

102006 #1 원 ᄒᆞ나토 엇덴 허난, 다 죽어불언.(원 하나도 없다고 하니까, 다 죽어버렸어.)

102006 @ 다 사삼 때?(다 사삼 때?)

102006 #1 사삼 때도 허고 아팡도 죽고, 일본도 가고, 외국도 가고, 다 삐어져 불언.(사삼 때도 하고 아파서도 죽고, 일본도 가고, 외국도 가고, 다 흩어져 버렸어.)

102006 @ 한두 명 재수 좋게 산 사람도 잇긴 잇어?(한두 명 재수 좋게 산 사람도 있긴 있어요?)

102006 #1 엇어. 엇어. 나벳긔 엇어.(없어. 없어. 나밖에 없어.)

102006 @ 사삼 때 산 사람도 잇긴 잇엇지예?(사삼 때 산 사람도 있긴 있었지요?)

102006 #1 사삼 때 남자 다 죽여불언. 이덕구 세계라 노난.(사삼 때 남자 다 죽여버렸어. 이덕구 세계라 버리니까.)

102006 @ 맞아.(맞아.)

102006 #1 여자도 다 심어당 다 죽엿젠 허난. 우리 오죽헹 곱지 못헹이 살지 못헨.(여자도 다 잡아다가 다 죽였다고 하니까. 우리 오죽해서 곱지 못해서 살지 못했어.)

102006 @ 여자덜도 너무 고와도 안뒈시쿠다?(여자들도 너무 고와도 안 되었겠습니다?)

102006 #1 고운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사상이 뜰리잖아.(고운 것이 문제가 아니고

46) '쇼와(昭話)'는 일본 히로히토 천황시대의 연호를 말한다.

그 사상이 틀리잖아.)

102006 @ 거난. 걸리면.(그러니까. 걸리면.)

102006 #1 그 사람덜은 빨갱이 아냐.(그 사람들은 빨갱이 아냐.)

102006 @ 너무 고와도 또 순경이 그걸 뭐헤 가지고 점 찍엉 놔두민 또.(너무 고와도 또 순경이 그걸 뭐해 가지고 점 찍어서 놔두면 또.)

102006 #1 허이구 말 말라. 그것이 아니고 우린 경 헷저. 조천이 아방[47]이 조천 사니까 하도 이덕구 세계니까 심으레 오난 아방네 집이 곱으레 가서.(하이구, 말 말라. 그것이 아니고 우린 그렇게 했다. 조천 아방이 조천 사니까 하도 이덕구 세계니까 잡으러 오니까 아버지네 집에 숨으러 갔어.)

102006 @ 아아.(아아.)

102006 #1 곱으레 간디 밤이민 근무허곡, 폭도 들어오카부덴 낮인 성잇잖아. 성. 그거 싸고, 코로 피, 또 그 순간엔 나무헤당 밤이 불 땔 거, 막에. 우리 놀아본 중 알암댜? 경허당 ᄒᆞ낌허민 훈련, 훈련.(숨으러 갔는데 밤에면 근무하고, 폭도 들어올까봐 낮엔 성 있잖아 성. 그거 싸고, 코로 피, 또 그 순간엔 나무하다가 밤이 불 땔 거, 막에. 우리 놀아본 줄 알았냐? 그렇게 하다가 조금 하면 훈련, 훈련.)

102006 @ 산엔 안 가봣수과?(산엔 안 가봤습니까?)

102006 #1 산엔 안 가왓지. 산엔 폭도나 가지. 산에 안가고 안에서만.(산엔 안 가왔지. 산엔 폭도나 가지. 산에 안가고 안에서만.)

102006 @ 곱으레.(숨으러.)

102006 #1 산엔 안 가오고, 여기사 이 안에서만.(산엔 안 가오고, 여기야 이 안에서만.)

102006 @ 조천에도.(조천에도.)

102006 #1 조천엔 곱으레 안 뎅겨. 이덕구 세계니까 신촌이.(조천엔 숨으러 안 다녀. 이덕구 세계니까 신촌이.)

102006 @ 그믄 신촌에 사람덜이 조천으로 많이 가기도 헷겠다예?(그러면 신촌에 사람들이 조천으로 많이 가기도 했겠네요?)

102006 #1 조천으로 우린 아방이 시난 가곡, 홈불로 안줘.(조천으로 우린 아버지가 있으니까 가고, 함부로 안줘.)

102006 @ 아아, 그니까.(아아, 그러니까.)

102006 #1 난 아방이 시니까. 아방이.(난 아버지가 있으니까. 아버지가.)

102006 @ 그니까 동생이영 같이 갓수과? 세 명이?(동생이랑 같이 갔습니까? 세 명이?)

102006 #1 아니, 우리 아신 어릴 때난.(아니, 우리 아운 어릴 때니까.)

102006 @ 음. 잠깐 쉬게예.(음. 잠깐 쉬어요.)

102006 #1 우리 나는 열일곱, 네 술 차이, 다숫 술 차인가? 허난 나는 열일곱, 우리 동생은 ᄒᆞᆫ 열두 술인가, 열ᄒᆞᆫ 술인가, 가이넨 안 심어가. 우리덜만 심어가.(우리 나는 열

47) '아방'은 아버지의 뜻이나 여기서는 남편을 일컬어 쓰고 있다.

일곱, 네 살 차이, 다섯 살 차인가 하니까 나는 열일곱, 우리 동생은 한 열두 살인가, 열한 살인가, 걔넨 안 잡아가. 우리들만 잡아가.)

102006 @ 삼촌네가 무섭주게. 여자덜이.(삼촌네가 무섭지. 여자들이.)

102006 #1 아이구, 뛰는 걸 잘 뛰어노니까이 경 허난 조천 도망가 불엇지. 경 안허민이 산에 끄서가 분덴 허난. 뛰는 거 잘 뛰어부난 아니 가민 그냥 잡혀간덴, 산에서.(아이구, 뛰는 걸 잘 뛰어노니까 그렇게 하니까 조천 도망가 버렸지. 그렇게 안 하면 산에 끌어가 버린다고 하니까. 뛰는 거 잘 뛰어버리니까 안 가면 그냥 잡혀갔다고, 산에서.)

102006 @ 아이구.(아이구.)

102006 #1 뛰는 걸 워낙 소문나게 뛰어부니까.(뛰는 걸 워낙 소문나게 뛰어버리니까.)

102006 @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102006 #1 비 니쥬규, 일본말로, 제트기 비 이십구.('비 니쥬규', 일본말로, 제트기 비 이십구.)

102006 @ 운동신경이 발달헤노난.(운동신경이 발달해버리니까.)

102006 #1 벨로가, 우리 삼십육반ᄁᆞ지 체조헌 사람이라. 일제 땐 본께교다이쇼이마니헌 낭칼, 우리이 사람 죽이는 건만 연습헷젠 허난 일제에도. 이마니헌 그 낭칼 이 오전 오십전인가 얼마줜 산, 겐 만나까, 일본말로 만나깐 저.(별명이, 우리 삼십육반까지 체조한 사람이라. 일제땐 '본께교다이쇼' 이만큼한 나무칼, 우리 사람 죽이는 것만 연습했다고 하니까 일제에도. 이만한 그 나무칼 오전 오십전인가 얼마 줘서 샀어, 그래서 '만나까', 일본말로 '만나까' 저.)

102006 @ 가운데.(가운데.)

102006 #1 가운디, 구비 허민 야게, 끄느렌 허고, 만나까, 아다마 허렌 아다마 이거막 그런 것만 배왓젠 허난. 게난 우리 큰아덜은 우리 어머닌 옛날엔 순 사람 죽이는 것만 헷어. 경 ᄀᆞᆫ넨 허난. 저 큰아덜, 그런 거벳긔 시국을 그런 시국에 나노니까.(가운데 목하면 목, 끊으라고 하고, 중앙, 머리 하라고. 머리 이거 막 그런 것만 배웠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큰 아들은 우리 어머닌 옛날엔 순 사람 죽이는 것만 했어. 그렇게 말한다고 하니까, 저 큰아들, 그런 거밖에 시국을 그런 시국에 나버리니까.)

102006 @ 큰아들이 지금 멧 살마씨?(큰아들이 지금 몇 살이에요?)

102006 #1 야이가 쉰ᄒᆞ나난 쉰넷인가? 쉰다숫인가?(얘가 쉰하나니까 쉰넷인가? 쉰다섯인가?)

102006 @ 세 살 차이.(세 살 차이.)

102006 #1 큰뚤이 예순ᄒᆞ난디 예순둘인디.(큰딸이 예순하나인데 예순둘인데.)

102006 @ 모르주게. 우리도 왁왁이우다게. ᄉᆞ삼얘기허믄?(모르지. 우리도 깜깜입니다. 사삼얘기하면?)

102006 #1 에이구, 사삼 ᄉᆞ건 걸려보라. 다 그냥 약 먹으멍 죽주, 살젠 안허여. ᄉᆞ삼ᄉᆞ건에.(에이구, 사삼사건 걸려보라. 다 그냥 약 먹으면서 죽주, 살려고 안 해. 사삼사건

에.)

102006 @ 사삼ᄉᆞ건 때 소게 등 생활전반과 겪엇던 내용을 말씀헤 주십시오.(사삼사건 때 소개 등 생활전반과 겪었던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102006 #1 사삼ᄉᆞ건에?(사삼사건에?)

102006 @ 예. 열일곱 살이구나?(예. 열일곱 살이구나?)

102006 #1 거 사삼 ᄉᆞ건에 우리 그때가 열여숫인가 열여숫에서부터 거 이디 영 헹은에 빗게[48] 사렌 헨이.(거 사삼 사건에 우리 그때가 열여섯인가 열여섯에서부터 거 여기 이렇게 해서 '빗게' 서라고 했어.)

102006 @ 빗게.('빗게'.)

102006 #1 빗게엔 허매. 빗게 사렌 헨, 우리 어릴 때난 시키는 데로만 허거든. 사람이 경찰ᄀᆞ란 검은 개엔허곡 그 군인ᄀᆞ란 노랑 개엔허고 막 그거 허렌 허여 어린 때.('빗게'엔 해. '빗게' 사라고 했어. 우리 어릴 때니까 시키는 데로만 하거든. 사람이 경찰보곤 검은 개라고 하고 그 군인보곤 노랑 개라고 하고 막 그거 하라고 해. 어린 때.)

102006 @ 군인이 주둔헌 디가 어딘디 여기 신촌만 들엉만 막 이덕구 때문에?(군인이 주둔한 데가 어딘데 여기 신촌만 들어서 막 이덕구 때문에?)

102006 #1 신촌은 이덕구 세계라 노니까 빨갱이 다 물들엇젠 헹 이디만 헨. 조천은 어떵 안헤연. 조천 함덕ᄀᆞ튼딘.(신촌은 이덕구 세계라 노니까 빨갱이 다 물들었다고 해서 여기만 했어. 조천은 아무렇지도 않아. 조천 함덕 같은 덴.)

102006 @ 아아.(아아.)

102006 #1 북촌은 전멸헤서. 어이구.(북촌은 전멸해서. 어이구.)

102006 @ 그난 북촌은 전멸헷덴예. 남자덜 다?(그난 북촌은 전멸했다고요. 남자들 다?)

102006 #1 빨갱이 북촌은 전멸시켜 불언.(빨갱이 북촌은 전멸시켜 버렸어.)

102006 @ 무사 북촌은 경 헤신고예?(왜 북촌은 그렇게 했는가요?)

102006 #1 거기가 빨갱이가 하부니까.(거기가 빨갱이가 많아버리니까.)

102006 @ 똑똑헌 사람이 꽤 잇엇나보다예.(똑똑한 사람이 꽤 있었나보네요.)

102006 #1 똑똑헌 사람도 잇주만은 빨갱이가 많헌 고장인가 막 그냥 습격헹 다 심어당 막 집에 불캐와 불고.(똑똑한 사람도 있지만 빨갱이가 많은 고장인가 막 그냥 습격해서 다 잡아다가 막 집에 불 태워 버리고.)

102006 @ 게난 북촌 때문에 조천이나 함덕은 그래도 ᄒᆞ꼼 영?(그러니까 북촌 때문에 조천이나 함덕은 그래도 조금 이렇게?)

102006 #1 조천 아무충도 안허연. ᄁᆞ딱도 안허연. 북촌만. 북촌은이 집이 ᄌᆞ으니까 단체가 좋거든. 거난 집 한딘 단체가 엇거든. 경허니까 북촌은 전멸헤 불언.(조천 아무렇지도 않았어. 까딱도 않았어. 북촌만. 북촌은 집이 작으니까 단체가 좋거든. 그러니까 집 많은 덴 단체가 없거든. 그렇게 하니까 북촌은 전멸 해버렸어.)

---

48) '빗게'는 4. 3때 대나무 막대를 들고 보초를 서며 군인이나 경찰이 오는 지 마을에 알리는 역할을 하였는데 젊은 아이가 주로 맡아 했다고 한다.

102006 @ 쯧쯧쯧쯧. 삼춘은 그런 거 저런 거 다 봣겟다예? 불태우는 거영.(쯧쯧쯧쯧. 삼춘은 그런 거 저런 거 다 봤겠네요? 불태우는 거랑.)

102006 #1 ᄒᆞ곡이 또 그 빨갱이가족은 집단생활헤여이. 집단생활허면은 그 살당은에 죽이게 뒈면은 다 심어당이, 쭐쭐이 헤영 기관총 딱 대영 다다다다다다 다 허멍 다 죽여불어. 게민, 그믄 우리 냥으로 가멩이 다 헤당 더끄고. 영장을.(하고 또 그 빨갱이가족은 집단 생활해. 집단생활하면 그 살다가 죽이게 되면 다 심어다가, 줄줄이 해서 기관총 딱 대서 다다다다다다 다 하면서 다 죽여 버려. 그러면, 그러면 우리 스스로 가마니 다 해다가 덮고. 영장을.)

102006 @ 삼촌도 헤봔?(삼촌도 해봤어요?)

102006 #1 거 더껏지. 더끄렌 허민 안 더꺼지나 거기.(거 덮었지. 덮으라고 하면 안 덮어지나 거기.)

102006 @ 누게 아는 사람도 엇인 디도 간?(누구 아는 사람도 없는 데도 간?)

102006 #1 우린 그 그때는 웨냐허믄 막 지컬 때 아냐, 우리 그런 거 다 봐나난이 진절머리가. 진절머리가.(우린 그 그때는 왜냐하면 막 지킬 때 아냐, 우리 그런 거 다 봤었기 때문에 진절머리가. 진절머리가.)

102006 @ 열일곱 살이면 끔찍헷겟다예?(열일곱 살이면 끔찍했겠네요?)

102006 #1 김일성이 봐가믄 막 징그러완. 저놈의 새끼덜, 저놈의 새끼덜 아니면 왜 이디 넘어왕은에 그사 람덜 넘어왕 경 허니까.(김일성이 봐 가면 막 징그러웠어. 저놈의 새끼들, 저놈의 새끼들 아니면 왜 여기 넘어와서 그 사람들 넘어와서 그렇게 하니까.)

102006 @ 그놈덜도 나쁜 일은 많이 헷덴 헙디다게. 멀쩡헌 사람덜 어쨋든 다 죽이는 것도 문제주게. 무식한 사람도 많앗덴 헙디다.(그놈들도 나쁜 일은 많이 했다고 합디다. 멀쩡한 사람들 어쨌든 다 죽이는 것도 문제지. 무식한 사람도 많았다고 합디다.)

102006 #1 일름 ᄀᆞ타도 심어당 죽여 불고이. 일름 ᄀᆞ타도.(이름 같아도 잡아다가 죽여 버리고. 이름 같아도.)

102006 @ 아이고.(아이고.)

102006 #1 빨갱이 물에 들엉 일름 ᄀᆞ트민이 일름 ᄀᆞ트민 그거 헹 심어당 먹알로 심어당 죽어. 일름 ᄀᆞ타도.(빨갱이 물에 들어서 이름 같으면 이름 같으면 그거 해서 잡아다가 '먹알'로 잡아다가 죽어. 이름 같아도.)

102006 @ 재수 엇이 걸리민?(재수 없이 걸리면?)

102006 #1 그렇지. 에, 근디 특히나 이덕구 세계라노난 다른 딘 어떵 안헤여. 이디 신촌만.(그렇지. 에, 그런데 특히나 이덕구 세계라버리니까 다른 덴 어떻지 않아. 여기 신촌만.)

102006 @ 삼촌네 친구들 똑똑헌 아이덜 잇어낫수과?(삼촌네 친구들 똑똑한 아이들 있었습니까?)

102006 #1 똑똑헌디 아이덜 다 죽엇네. ᄉᆞ삼ᄉᆞ건에.(똑똑한 아이들 다 죽었네. 사삼 사건에.)

102006 @ 다 산에 올라갓수과?(다 산에 올라갔습니까?)

102006 #1 산에도 올라가고 심어당도 다 죽여 불고, 게난 엇어. 엇어.(산에도 올라가고 잡아서도 다 죽여 버리고, 그러니까 없어. 없어.)

102006 @ 삼촌 좋아헤난 남자아이는 엇엇수과?(삼촌 좋아했었던 남자아이는 있었습니까?)

102006 #1 야이, 좋아헤난 남자가 어딧나? 정신 빠진 아이야 야야.(야이, 좋아했던 남자가 어디 있나? 정신 빠진 아이야 야야.)

102006 @ 아니, 학교 다닐 때부터 그런 친구들?(아니, 학교 다닐 때부터 그런 친구들?)

102006 #1 남혹생, 여혹생 딱딱 뜨로 안쪄 불어. 남자여자 저 남자나 여자나 이추룩 말 골으민 와갓다 와갓다! 아노 히또 누구누구 막 그냥 남혹생이옌 좋아헴젠 와갓다 와갓다! 알앗저 알앗저! 허연. 남혹생허곡 ᄀᆞ찌 놀도 안허여 뜨로뜨로.(남학생, 여학생 딱딱 따로 앉혀버려. 남자여자 저 남자나 여자나 이처럼 말하면 '알았다! 알았다!' 저 사람 누구누구 막 그냥 남학생이라고 좋아한다고 알았다! 알았다! 알았다! 알았다! 허연. 남학생하고 같이 놀지도 안 해. 따로따로.)

102006 @ 아이고 무서웟다예? 동네아이덜 게도 생각날 때가 옛날 생각덜?(아이고 무서웠네요? 동네아이들 그래도 생각날 때가 옛날 생각들?)

102006 #1 옛날 생각나는 사람덜 다 죽어 불언. 하나 안 살안. 멘딱 죽어 불언. 나만 살안.(옛날 생각나는 사람들 다 죽어 버렸어. 하나 안 살았어. 모두 죽어 버렸어. 나만 살았어.)

102006 @ 여자들은?(여자들은?)

102006 #1 여자덜도 죽고, 남자덜도 죽고.(여자들도 죽고, 남자들도 죽고.)

102006 @ 여자덜도 사삼 때 죽고?(여자들도 사삼 때 죽고?)

102006 #1 아팡도 죽고, 사삼ᄉᆞ건에 올라강도 죽고, 거난 엇어.(아파서도 죽고, 사삼 사건에 올라가서도 죽고, 그러니까 없어.)

102006 @ 삼촌은 안 올라갓다예?(삼촌은 안 올라갔네요?)

102006 #1 응. 난 안 올라 간. 난 아방 빽으로 조천 강 살아불엇주. 경 안헤시민 ᄀᆞ치 잡혀가.(응. 난 안 올라 간. 난 아버지 백으로 조천가서 살아버렸지. 그렇게 안했으면 같이 잡혀가.)

102006 @ 멧 년간 살앗수과?(몇 년간 살았습니까?)

102006 #1 어?(어?)

102006 @ 조천에 간 멧 년? 일 년?(조천에 간 몇 년? 일 년?)

102006 #1 막 오래 살아서.(막 오래 살았어.)

102006 @ 새어머니랑 같이 잇엇겟네?(새어머니랑 같이 있었겠네?)

102006 #1 큰어멍이지.(큰어머니지.)

102006 @] 큰어멍.(큰어머니.)

102006 #1 우리 어멍은 즉은어멍.(우리 어머니는 작은어머니.)

102006 @ 큰어멍 막 구박하고 그러진 않고?(큰어머니 막 구박하고 그러진 않고?)

102006 #1 아니, 구박허게 헷나? 오줌 잇잖아? 오줌 항에 진 거, 그거 다 지어당 밧디다가 나가 보리에 뿌리고, 나가 검질메고.(아니, 구박하게 했나? 오줌 있잖아? 오줌 항에 진 거, 그거 다 지어다가 밭에 다가 나가 보리에 뿌리고, 나가 김매고.)

102006 @ 거기 강 일 헷구나?(거기 가서 일 했구나?)

102006 #1 일 헷지. 또 옛날은 그 우리 아버지가 유지자니까이 옷은 잘 입으니까 두루막 그런 것도 다듬이허고 나, 다 헤서.(일 했지. 또 옛날은 그 우리 아버지가 유지니까 옷은 잘 입으니까 두루마기 그런 것도 다듬이하고 나, 다 해서.)

102006 @ 그때 아부지 처음 많이 봣구나.(그때 아버지 처음 많이 봤구나.)

102006 #1 응. 곱으레 간 살앗지. 가기 싫어도 이덕구 세계라노난.(응. 숨으러 간 살았지. 가기 싫어도 이덕구 세계였으니까.)

102006 @ 게난.(그러니까.)

102006 #1 심으레 뎅겨가니까.(잡으러 다녀가니까.)

102006 @ 멧 년? 이, 삼년?(몇 년? 이, 삼년?)

102006 #1 흔 일년 넘어가난 좀 끔끔헤가니까 와불엇지. ᄆᆞ을이 좀 잔잔헤지니까, 이덕구도 심어단 헤가고 허니까 이제, 그냥 와불엇지.(한 일 년 넘어가니까 좀 끔끔해가니까 와버렸지. ᄆᆞ을이 좀 잔잔해지니까, 이덕구도 잡아다가 해가고 하니까 이제, 그냥 와 버렸지.)

102006 @ 게믄 거기서는 자식이 엇덴 헷수과? 오빠도 잇고 거기 애기들 잇잖아요?(그러면 거기서는 자식이 없다고 했습니까? 오빠도 있고 거기 애기들 있잖아요?)

102006 #1 그디 어멍네가 육남매, 우리 어머님은 삼남매.(거기 어머니네가 육남매, 우리 어머님은 삼남매.)

102006 @ 겐 그디 육남매랑 같이 살멍?(겐 거기 육남매랑 같이 살면서?)

102006 #1 아니, 그 나 우에 사람은 서울로 공부허레 대학허레 가불고, 또 김녕은 김녕 시집 가불고, 또 우에는 일본서덜 시집 강 살고, 다 흩어젼.(아니, 그 나 위에 사람은 서울로 공부하러 대학하러 가버리고, 또 김녕은 김녕 시집 가버리고, 또 우에는 일본서덜 시집가서 살고, 다 흩어졌어.)

102006 @ 흩어젼? 지금 그 공부허레 간 사람도 돌아가시고 다?(흩어졌어요? 지금 그 공부하러 간 사람도 돌아가시고 다?)

102006 #1 죽엇지. ᄀᆞ자 잇나? 북한 넘어 강 죽엇지.(죽었지. 아직까지 있나? 북한 넘어 가서 죽었지.)

102006 @ 하.(하.)

102006 #1 저이 서울서이 공부허노렌 허난 육이오 때 막 ᄆᆞᆯ아가 불엇네게. 그때 ᄆᆞᆯ아가 불언. 공부허는 아이덜. 그때, 그때.(저이 서울서 공부하느라고 하니까 육이오 때 막 몰아가 버렸네. 그때 몰아가 버렸어. 공부하는 아이들. 그때, 그때.)

102006 @ 쯧쯧쯧쯧 운명이예.(쯧쯧쯧쯧 운명이요.)

102006 #1 그 오라방만 잇어시민 이것이 대장이주. 공부도 잘허고, 그냥 몰아가 부난 거기서 죽엇네.(그 오빠만 있었으면 이것이 대장이지. 공부도 잘하고, 그냥 몰아가

버리니까 거기서 죽었네.)

102006 @ 아이고.(아이고.)

102006 #1 시국 아이고 환장허여. 게난 큰어머니 난 아기 난 어멍이 돌아불언. 큰어멍이, 작산[49] 아덜게.(시국 아이고 환장해. 그러니까 큰어머니 난 아기니까 어머니가 돌아버렸어. 큰어머니가, 다 큰 아들.)

102006 @ 사삼 지나고 나서?(사삼 지나고 나서?)

102006 #1 그냥 심어가 불언. 몰아간. 육이오 때 몰아가 불언.(그냥 잡아가 버렸어. 몰아갔어. 육이오 때 몰아가 버렸어.)

102006 @ 육이오 때 몰아가 불언. 게난 아버지랑 큰어머니 큰 충격을 받앗겟다예?(육이오 때 몰아가버렸어. 그러니까 아버지랑 큰어머니 큰 충격을 받았겠네요?)

102006 #1 그렇지. 게난 아방은 남제니까 어멍은 충격 받앙 죽어 불언.(그렇지. 그러니까 아버지는 남자니까 어머니는 충격 받아서 죽어버렸어.)

102006 @ 아아.(아아.)

102006 #1 오래 안 살안.(오래 안 살았어.)

102006 @ 오래 안 살안.(오래 안 살았어.)

102006 #1 화로.(화로.)

102006 @ 화로.(화로.)

102006 #1 막 옷 다 벗곡이 냉수로만 막 야 그 작산 아덜 경 헤보라. 아녀느냐? 겐디 공부허는디 그 육이오 때 터졍은에 혹생덜 다 몰아가 불언네.(막 옷 다 벗고 냉수로만 막 야 그 다 큰 아들 그렇게 해보라. 안 하느냐? 그런데 공부하는데 그 육이오때 터져서 학생들 다 몰아가 버렸어.)

102006 @ 사상이라 부난예?(사상이라 버리니까요?)

102006 #1 게. 몰아가 부니까 와보지도 못허고 죽어 불엇주.(그래. 몰아가 버리니까 와보지도 못하고 죽어버렸지.)

102006 @ 그 밑에 동생덜도 이실 건디 그추룩 너무 큰아덜한테만 기대를 헷구나?(그 밑에 동생들도 있을 건데 그처럼 너무 큰아들한테만 기대를 했구나?)

102006 #1 큰아덜만 아덜 두 개, 하난 죽어불곡 하난 공부허레 갓당은에 북한 몰아가 불언 죽고, 엇어. 우리 어머니도 서 오누이 낳단 오레비 죽어부난 성제 매기, 동생덜도 엇저.(큰아들만 아들 두 개, 하난 죽어 버리고 하나는 공부하러 갔다가 북한 몰아가 버려서 죽고, 없어. 우리 어머니도 세 오누이 낳다가 오빠 죽어버리니까 형제 뿐, 동생들도 없다.)

102006 @ 참, 서로가덜 왜 그렇게?(참, 서로가들 왜 그렇게?)

102006 #1 우리 사삼사건 만난이 에이구 얼마나 힘들엇냐?(우리 사삼사건 만난 에이구, 얼마나 힘들었냐?)

102006 @ 빗게도 사보고 나중에 사삼 끗낭 이렇게 마을에 성도 쌓아낫수과?('빗게'도 사보고 나중에 사삼 끝나서 이렇게 마을에 성도 쌓았었습니까?)

---

49) '작산'은 수량이 많다는 뜻이다.

102006 #1 우린 조천 도망가 부난 조천서 그 만세동산 잇잖아. 거 우리가 그디 강 쌓앗어. 이만썩헌 돌, 그 마다리, 푸대로이.(우린 조천 도망가 버리니까 조천서 그 만세동산 있잖아. 거 우리가 거기 가서 쌓았어. 이만큼한 돌, 그 마대, 부대로.)

102006 @ 그게 다 사삼ᄉᆞ건에 쌓은 거로구나.(그게 다 사삼사건에 쌓은 거로구나.)

102006 #1 그래. 사삼ᄉᆞ건에 폭도 못 들어오게. 산에 들어간 폭도덜이 막 들어와. 거 난 거 못 들어오게끔, 폭도이 사람헤영은에 민보단 헤영이 저 전달시켜. 아홉시민 아홉시 전달! 허민 아홉시 전달! 전달허곡 경허멍 살앗저. 밤인 그 성 굽이서 불 초고, 파싹 얼어. 경헨 또 요만이헌 막 지성 거긴 즘 한 시간에 ᄒᆞ나썩 교대.(그래. 사삼사건에 폭도 못 들어오게, 산에 들어간 폭도덜이 막 들어와. 그러니까 거 못 들어오게끔, 폭도이 사람해서 민보단 해서 저 전달시켜. 아홉시민 아홉시 전달! 하면 아홉시 전달! 전달허곡 그렇게 하면서 살았다. 밤엔 그 성 밑에서 불 쬐고, 바싹 얼어. 그렇게 해서 또 요만한 막 지어서 거긴 잠 한시간에 하나씩 교대.)

102006 @ 허.(허.)

102006 #1 경 자당은에 ᄒᆞᆫ시간 뒈민 일리민 깨어낭 가고.(그렇게 자다가 한 시간 되면 깨우면 깨어나서 가고.)

102006 @ 허, 젊은 아이덜만 헌 거꽈?(허, 젊은 아이들만 한 겁니까?)

102006 #1응. 우리 또래.(응. 우리 또래.)

102006 @ 민보단이? 멧 살부터 경 헌 거라? 어른덜은 안하고?(민보단이? 몇 살부터 그렇게 한 거라? 어른들은 안하고?)

102006 #1 응. 어른덜 누게가 시키나? 뛰어야 헐 거 아니야, 밤이라도 폭도가 와가민 뛰어사.(응. 어른들 누가 시키나? 뛰어야 헐 거 아니야, 밤이라도 폭도가 와가면 뛰어야.)

102006 @ 삼촌, 여자 ᄒᆞᆫ잔데 무섭지 안헙디가?(삼촌, 여자 혼잔데 무섭지 않았습니까?)

102006 #1 우리 ᄯᅳ래 다 이신디.(우리 또래 다 있는데.)

102006 @ 멧 명씩 보초 사?(몇 명씩 보초 서?)

102006 #1 남자 ᄒᆞ나에, 남잔 여자 전달허민 폭도덜이 여펜 살암젠이 여자헴젠 나무라카부덴 전달은 남자가 시키고 멧 술 전달! 전달허는 걸로 여덟시민 여덟시에 전달! 열두시민 열두시에 전달!(남자 하나에, 남잔 여자 전달은 폭도들이 여편 산다고 여자 한다고 나무랄까봐 전달은 남자가 시키고 몇 살 전달! 전달하는 걸로 여덟시면 여덟시에 전달! 열두시면 열두시에 전달!)

102006 @ 만세동산에?(만세동산에?)

102006 #1 에이고, 우리ᄀᆞ찌 고생, 우리 일제 때로부터 사삼ᄉᆞ건으로부터, 얼마나 힘들엇이? 일제 우리ᄯᅳ래가 다 힘들게 나서.(에이고, 우리같이 고생, 우리일제 때로부터 사삼사건으로부터, 얼마나 힘들었니? 일제 우리또래가 다 힘들게 나서.)

102006 @ 게난.(그러니까.)

102006 #1 일제 때는 일제때대로, 구쇼께이 무신 게이까이가이죠여.(일제 때는 일제

때대로, ‘구쇼께이’ 무슨 ‘게이까이가이죠’여.)

102006 @ 게이까이가이죠.(‘게이까이가이죠’.)

102006 #1 구쇼허면은이.(‘구쇼’하면.)

102006 @ 구쇼.(‘구쇼’.)

102006 #1 저 미국 놈덜이 미국허고 일본 싸왓네. 우린 그난 일본짝이라. 게믄 이제 구쇼 허면은 이 저 미국 놈덜이 들어왐다 허는 거라. 구쇼께이 허민 바로 들어와. 가이죠 허민 나가젠 허고.(저 미국 놈들이 미국하고 일본 싸웠네. 우린 그러니까 일본쪽이라. 그러면 이제 ‘구쇼’ 하면 이 저 미국 놈들이 들어온다 하는 거라. ‘구쇼께이’ 하면 바로 들어와. ‘가이죠’ 하면 나가려고 하고.)

102006 @ 아아, 가이죠.(아아, ‘가이죠’.)

102006 #1 일본말로, 우리 조선말 못 써봣어. 오마이 조센고 스가따, 거 과료 내렌허여. 돈으로, 게난 조선말 ᄒᆞ끔도 못혜. 일본말만.(우리 조선말 못 써봤어. ‘오마이조센고스가따’, 그거 과료 내라고 해. 돈으로, 그러니까 조선말 조금도 못해. 일본말만.)

102006 @ 아아.(아아.)

102006 @ 옛날에는 신촌 향사가 학자들이 왓다 갓다헷던 곳이구나예. 사삼 때 피해는 없엇다예? 불타거나?(옛날에는 신촌 향사가 학자들이 왔다갔다 했던 곳이군요. 사삼 때 피해는 없었네요? 불타거나?)

102006 #2 사삼 때에 그 츰 난 잘 모르겟어요. 난 떠나버리니까.(사삼 때에 그 참 난 잘 모르겠어요. 난 떠나버리니까.)

102006 @ 아, 경허니까 삼촌이 살앗구나.(아, 그러니까 삼촌이 살았구나.)

102006 #2 게난 나가 살앗지. 사람이 죽어가니까 그냥 보면 쏘아 죽이니까 나가 그냥 츰 재수가 좋앗지. 이 배도 바닷길도 막아버리고 원 어디 꼼짝 못허게 헤서 그냥 총으로 헤서 막 죽여 노니까 여자, 남자, 아이, 어른 홀 것 엇이 만나민 쏘아 죽이기 시작허니까 어찌어찌헤서 시에 들어가서 저 육지 가는 배를 조사헤 보니까, 아무 배도 없어. 주정공장 청주환이라고 주정공장배가 이십디다.(그러니까 나가 살았지. 사람이 죽어가니까 그냥 보면 쏘아 죽이니까 나가 그냥 참 재수가 좋았지. 이 배도 바닷길도 막아버리고 원 어디 꼼짝 못하게 해서 그냥 총으로 해서 막 죽여 버리니까 여자, 남자, 아이, 어른 홀 것 엇이 만나면 쏘아 죽이기 시작하니까 어찌어찌해서 시에 들어가서 저 육지 가는 배를 조사해 보니까, 아무배도 없어. 주정공장 청주환이라고 주정공장배가 있습디다.)

102006 @ 주정공장은 뭐꽈?(주정공장은 뭡니까?)

102006 #2 저 그 옛날 그 동 부두 우에 주정공장이 잇엇죠. 동부두에.(저 그 옛날 그 동부두 우에 주정공장이 있었죠. 동부두에.)

102006 @ 예. 고구마, 감제주시로 주정공장 아?(예. 고구마, 고구마찌꺼기로 주정공장 아?)

102006 #2 거기 청주환이라는 배가 잇엇는데 그 배가 인천 간다는 소문을 들엇어.(거기 청주환이라는 배가 있었는데 그 배가 인천 간다는 소문을 들었어.)

102006 @ 인천, 아이고야?(인천, 아이고야?)

102006 #2 아, 가서 그냥 선장안티 막 절을 허곡 날 좀 같이 태와달라고, 아, 그래서 어찌어찌 그 배를 타서 난 가버렷죠.(아, 가서 그냥 선장안티 막 절을 하고 날 좀 같이 태워 달라고, 아, 그래서 어찌어찌 그 배를 타서 난 가버렸죠.)

102006 @ 아무도 아는 사람도 어신디 무조건 살려고?(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는데 무조건 살려고?)

102006 #2 아는 사람도 없어요. 그냥 가서 막 사정헤 가지고 저 그러니까 그 츰, 그때 놓쳣으면 그냥 여기서 죽엇어?(아는 사람도 없어요. 그냥 가서 막 사정해 가지고 저 그러니까 그 참, 그때 놓쳤으면 죽었어.)

102006 @ 죽엇죠.(죽었죠.)

102006 #2 거기 못 갓으면 죽어.(거기 못 갔으면 죽어.)

102006 @ 다 돌아가셧드라고요.(다 돌아가셨더라고요.)

102006 #2 그때가 스물세 술인디.(그때가 스물세 살인데.)

102006 @ 세상에, 겐 멧 년을 숨엉 살당 왓수과?(세상에, 그래서 몇 년을 숨어서 살다가 왔습니까?)

102006 #2 아, 인천에 가서 인천에 가가지고 오년 살앗어요.(아, 인천에 가서 인천에 가가지고 오년 살았어요.)

102006 @ 돌아와 보난 뭐렌 허는 사람 엇엇수과?(돌아와 보니까 뭐라고 하는 사람 없었습니까?)

102006 #2 육이오 나니까 왓죠.(육이오 나니까 왔죠.)

102006 @ 아이고, 세상에.(아이고, 세상에.)

102006 #2 육이오 때 기냥 또 죽을 뻔헷어요, 인천서. 음.(육이오 때 그냥 또 죽을 뻔 했어요. 인천서. 음.)

102006 @ 군인 갓당?(군인 갔다가?)

102006 #2 아, 군인 안 가고 그냥 셋어멍, 셋아방이 잇엇는데 스물다숫에 셋어멍 죽어. 셋아방 죽어, 우리 동생 하나가 이제 소년 형무소에 강 죽어.(아, 군인 안 가고 그냥 둘째어머니, 둘째아버지가 있었는데 스물다섯에 둘째어머니 죽어. 둘째아버지 죽어. 우리 동생 하나가 이제 소년 형무소에 가서 죽어.)

102006 @ 허.(허.)

102006 #2 아, 그냥 두 둘 새에 장사를 세 번 나노니까 정신이 잇겟어요. 아무도 식구는 아무도 엇고, 이 저 우리 스촌동생 열두 술짜리허고 열흔 술짜리허고, 저 누이허고 열두 술짜리 동생허고 그 셋아방 아덜덜, 아들 ᄒᆞ나, 뚤 ᄒᆞ나, 잇엇는데 거 데리고 잇다가 그냥 그 육이오 만나가지고 그냥 그 뭐 재산도 아무것도 엇고, 절단가옥이고 그러니까 그냥 싹 불 태와 가지고 월미도[50] 살다가.(아, 그냥 두 달 사이에 장사를 세 번 나노니까 정신이 있겠어요. 아무도 식구는 아무도 없고, 이 저 우리 사촌동생 열두 살짜리하고 열한 살짜리하고, 저 누이하고 열두 살짜리 동생하고 그 둘째아방 아들들, 아들 하나

50) '월미도'는 인천 광역시 중구에 있는 섬을 말한다.

딸 하나 있었는데 거 데리고 있다가 그냥 그 육이오만나가지고 그냥 그 뭐 재산도 아무것도 엇고, 절단가옥이고 그러니까 그냥 싹 불 태워 가지고 월미도 살다가.)

102006 @ 월미도? 세상에. 그 아이덜은마씨? 사촌.(월미도? 세상에. 그 아이들은요? 사촌.)

102006 #2 어찌 어찌 헤가지고 미리, 저 우리 맹호동생은 미리 제주로 보네고 어멍, 아방 죽으니까 누이동생은 그냥 그디 아는 사람안티 줘두고 그래서 나도 그냥 아, 그 저 함마 죽을 뻔 거기서 헷죠. 뭐 그냥. 뭐 우리나라 사람덜 사람 죽이는 거 좋아하잖아요. 나도 함마터라민 그냥.(어찌 어찌 해가지고 미리, 저 우리 맹호동생은 미리 제주로 보내고 어머니, 아버지 죽으니까 누이동생은 그냥 거기 아는 사람안티 줘두고 그래서 나도 그냥 아, 그 저 하마터면 죽을 뻔 거기서 했죠. 뭐 그냥. 뭐, 뭐 우리나라 사람들 사람 죽이는 거 좋아하잖아요. 나도 하마터면 그냥.)

102006 @ 무사마씨? 잘못헌 것도 엇인디?(왜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102006 #2 제주도니까 빨갱이라고 헤가지고.(제주도니까 빨갱이라고 해가지고.)

102006 @ 아아 세상에, 아이고야.(아아 세상에, 아이고야.)

102006 #2 동생이 형무소에 죽엇단 말이여.(동생이 형무소에 죽었단 말이야.)

102006 @ 아아, 경허니까.(아아, 그렇게 하니까.)

102006 #2 셋동생은 나가 데리고 가서 헐일 없으니까 군인 보내 부니까.(둘째동생은 내가 데리고 가서 할 일 없으니까 군인 보내 버리니까.)

102006 @ 살고.(살고.)

102006 #2 군인 보넷주.(군인 보냈지.)

102006 @ 아이고 세상에.(아이고 세상에.)

102006 #2 경 헨 하여튼 날 잡아다가 갇혀서 먹을 걸 안 줘노니까 이십일만에 변소 혼 번 봣어요. 이십일 만에.(그렇게 해서 하여튼 날 잡아다가 갇혀서 먹을 걸 안 줘버리니까 이십 일 만에 변소 한 번 봤어요. 이십 일 만에.)

102006 @ 게도 어떵 잘 나왓다예? 하늘에 뜻으로.(그래도 어떻게 잘 나왔네요? 하늘에 뜻으로.)

102006 #2 예. 게도 군인 돌아간 거 잇고, 또 동생 하나는 형무소에서 죽엇주만은 백이십일 만에 군인 간 형무소 그레저레허니까 나가 빨갱이 노릇은 안헷단 말이여.(예. 게도 군인 돌아간 거 있고, 또 동생하나는 형무소에서 죽었지만 백이십일 만에 군인 간 형무소 그리저리하니까 나가 빨갱이 노릇은 안 했단 말이야.)

102006 @ 죄도 없엇고(죄도 없었고.)

102006 #2 결국은 사십삼일 갇형, 그 영창에 노니까.(결국은 사십삼일 갇혀서, 그 영창에 놓으니까.)

102006 @ 야하!(야하!)

102006 #2 나오니까 그냥 콕콕 박아져서 사람이.(나오니까 그냥 콕콕 박아져서 사람이.)

102006 @ 먹지 못 헷고.(먹지 못 했고.)

102006 #2 사람이 아주 그냥 저 세발자국을 놓지 못혜. 그냥 박아져서.(사람이 아주 그냥 저 세발자국을 놓지 못 해. 그냥 박아져서.)

102006 @ 아이고 세상에.(아이고 세상에.)

102006 #2 굼고게 먹을 거 안 주니까 굼고.(굶고 먹을 거 안 주니까 굶고.)

102006 @ 그때가 스물 멧 살 때다예. 젊은 나이에?(그때가 스물 몇 살 때네요. 젊은 나이에?)

102006 #2 스물여슷 술 때.(스물여섯 살 때.)

102006 @ 아이고, 세상에.(아이고, 세상에.)

102006 #2 스물다슷에 셋어멍, 셋아방, 우리 동생, 서이가 다 죽고, 아 이제 스물여슷 술에 그 육이오가 낫단 말이여.(스물다섯에 둘째어머니, 둘째아버지 우리 동생, 셋 다 죽고, 아, 이제 스물여섯 살에 그 육이오가 났단 말이야.)

102006 @ 아.(아.)

102006 #2 육이오가 나가지고 바다에 빠졍도 ᄒᆞ룻밤 살고, 아하하하. 무서와서 그냥, 비행기가 막 폭격을 허곡 그냥.(육이오가 나가지고 바다에 빠져서도 하룻밤 살고, 아하하. 무서워서 그냥, 비행기가 막 폭격을 하고 그냥.)

102006 @ 인천에서?(인천에서?)

102006 #2 군인덜 와서 그냥 총 쏘고.(군인들 와서 그냥 총 쏘고.)

102006 @ 월미도?(월미도?)

102006 #2 예.(예.)

102006 @ 무서워서?(무서워서?)

102006 #2 겨니까 그냥 집 나오니까 기름 뿌려가지고 싹허게 불태워버리고 집도, 거 사람덜이 겐 그 인민군, 인민군 들어와가지고 ᄒᆞᆫ 삼개월 지낫지. 아마. 인천서 다 인민군 점령헷드렛어.(그러니까 그냥 집 나오니까 기름 뿌려가지고 불태워버리고 집도, 거 사람들이 그래서 그 인민군, 인민군 들어와 가지고 한 3개월 지났지. 아마. 인천서 다 인민군 점령했었어.)

102006 @ 예. 인천상륙작전. 겡 어디로? 제주도로 와집디가?(인천상륙작전. 예. 그래서 어디로? 제주도로 올 수 있었습니까?)

102006 #2 아, 그니까. 이젠.(아, 그러니까. 이젠.)

102006 @ 군인 갓수과?(군인 갔습니까?)

102006 #2 여기서 인천상륙헷거든. 여기 군인덜이. 상륙헌 후에 아, 그 영창이 날 빨갱이라고 뭘 헷는데 어찌어찌헤서 상륙한 후에 빨갱이라고 죽일라고 헷는데 어찌어찌허다가 거기서 훈련 받으렌 막 허는 걸 아팡 죽어지겟다고 허니까.(여기서 인천상륙했거든. 여기 군인들이. 상륙한 후에 여기 군인들이, 영창에 빨갱이라고 뭘 했는데 어찌어찌해서 상륙한 후에 빨갱이라고 죽일라고 했는데 어찌어찌하다가 거기서 훈련받으라고 하는 걸 아파서 죽어지겠다고 하니까.)

102006 @ 음.(음.)

102006 #2 그냥, 춤, 제대증을 줘가지고 가라고 헤서 이제 통영서 ᄒᆞᆫ엇이 부산 가니

까 부산엔 아는 사람이 많이 잇엇어요. 응 거기서.(그냥, 참, 제대증을 줘가지고 가라고 헤서 이제 통영서 한없이 부산 가니까 부산엔 아는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응 거기서.)

102006 @ 조끔 회복하고.(거기서 회복하고.)

102006 #2 예.(예.)

102006 @ 군인은 안 갓수과?(군인은 안 갔습니까?)

102006 #2 아, 겐 여기 와서 경찰혹교도 나오고 경찰에도 뎅기고.(아, 그래서 여기 와서 경찰학교도 나오고 경찰에도 다니고.)

102006 @ 살젠 허난.(살려고 하니까.)

102006 #2 또 스물여슷 술에. 스물아홉에 군인 갓어요.(또 스물여섯 살에. 스물아홉에 군인 갔어요.)

102006 @ 아아, 안 갈 수가 없지예?(아아, 안 갈 수가 없지요?)

102006 #2 군인가서 경리혹교 나오고.(군인 가서 경리학교 나오고.)

102006 @ 아이고.(아이고.)

102006 #2 육군 경리혹교.(육군 경리학교.)

102006 @ 육군 경리혹교.(육군 경리학교.)

102006 #2 예. 육군하사관 경리혹교도 나왓고.(군인 육군하사관 경리학교도 나왔고.)

102006 #2 어, 서른ᄒᆞ나에 제대헷죠. 군인.(서른하나에 제대했죠. 군인.)

102006 @ 쯧쯧쯧쯧. 결혼도 안하고? 와보난 어머니 아버지 살아 잇언마씨?(쯧쯧쯧쯧. 결혼도 안하고? 와보니까 어머니 아버지 살아 있었어요?)

102006 #2 아버지는 죽어버리고 어머니만 잇엇는데 그래서 내가 고생을 많이 헷죠. 아버지 없으니까.(아버지는 죽어버리고 어머니만 있었는데 그래서 내가 고생을 많이 했죠. 아버지 없으니까.)

102006 @ 큰아덜이고예.(큰아들이고요.)

102006 #2 예. 큰 아덜이고 출세도 못허고 내가 공부는 한문을 읽어도 남만이 허긴 헷는데 써먹을 때가 없어. 저 게니까 학교를 뎅겻으면 헐건 디 혹교 졸업장도 없어노니까 공무원도 못 들어가고 내 공부는 한문은 이 신촌ᄆᆞ을에서 한문은 나만이 아는 사람 없을 거야. 한문은.(예. 큰아들이고 출세도 못하고 내가 공부는 한문을 읽어도 남만이 하긴 했는데 써먹을 때가 없어. 저 게니까 학교를 다녔으면 할건 데 학교 졸업장도 없어버리니까 공무원도 못 들어가고 내 공부는 한문은 이 신촌 마을에서 한문은 나만큼 아는 사람 없을 거야. 한문은.)

102006 @ 세상에 겐 어머니도, 어머니 멧 살까지 어머니 살앗수과? 게도 어머니가 잇이난 의지혜영.(세상에 그래서 어머니, 어머니 몇 살까지 어머니 살았습니까? 그래도 어머니가 있으니까 의지해서.)

102006 #2 나가 쉰일곱ᄁᆞ지 사는데 아흔넷에 돌아가셧어. 아흔네 술까지 살앗어. 아흔 네술까지.(내가 쉰일곱까지 사는데 아흔넷에 돌아 가셨어. 아흔네 살까지 살았어. 아흔네 살까지.)

102006 @ 아흔네 술까지 어머니가예. 아이고, 장수허시긴 헷다예. 게믄 자식들은 그

한명만 형무소에 돌아가시고 다 살앗수과?(아흔 네 살까지 어머니가요. 아이고, 장수하시긴 했네요. 그러면 자식들은 그 한명만 형무소에 돌아가시고 다 살았습니까?)

102006 #2 아신 시에 완 잘살고 누이동생 ᄒᆞ나 지금도 살아 잇고 지금 여든 흔 일곱인가? ᄋᆞ닯인가? 뒛지.(아우 시에 와서 잘살고 누이동생 하나 지금도 살아 있고 지금 여든 한 일곱인가 여덟인가 됐지.)

102006 @ 어디 살암수과? 아시는?(어디 살고 있습니까? 아우는?)

102006 #2 아시? 아시는 나보다 두나 밑엔데 지금 아흔넷일 건데 시에산디 뭐 어디 요양소에 강 산다. 덴다. 허니까 나가 이제 거랠 안헤요. 아, 그 선묘를 나 몰래 천리헤부니까 나 거래 안 헤요. 우리 선묘를 그 고조 하르방, 증조 하르방 아니, 이태껏 나 모르게 그냥 다 이장헷어.(아우? 아우는 나보다 두나 밑인데 지금 아흔넷일 건데 시엔지 뭐 어디 요양소에 가서 산다. 만다. 하니까 내가 이제 거랠 안 해요. 아, 그 선묘를 나 몰래 천리해버리니까 나 거래 안 해요. 우리 선묘를 그 고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아니, 여태껏 나 모르게 그냥 다 이장했어.)

102006 @ 왜 그렇게 헷을까예?(왜 그렇게 했을까요?)

102006 #2 그게 나쁜 사람덜이지.(그게 나쁜 사람들이지.)

102006 @ 아이고, 형인데. 형님이 잇는데.(아이고, 형인데. 형님이 있는데.)

102006 #2 그러니까 나가 형이라고 헐 수도 없고 동생이라고 헐 수도 없고.(나가 형이라고 할 수도 없고 동생이라고 할 수도 없고.)

102006 @ 아이고, 이런, 참 여동생은 연락허고예?(아이고, 이런, 참 여동생은 연락하고요?)

102006 #2 예. 여동생은 이젠 다 늙으니까 어멍 제ᄉᆞ에도 안 와. 허허.(예. 이제 여동생은 다 늙으니까 어머니 제사에도 안 와. 허허.)

102006 @ 어디 살암수과?(어디 삽니까?)

102006 #2 저 어디? 신제주 그 저 노형[51].(저 어디? 신제주 그 저 노형.)

102006 @ 아, 노형. 노형에 시집갓구나예?(아, 노형. 노형에 시집갔군요?)

102006 #2 아니, 남군에 저 대포엔 헌 디 시집은 갓는데.(아니, 남군에 저 대포라고 한 데 시집은 갔는데)

102006 @ 음, 노형 어디? 정존마을[52], 월랑[53], 뭐 이런 디 어디 살암신고예? 이름이 뭐꽈?(음, 노형 어디? 정존마을, 월랑, 뭐 이런 데 어디 살고 있는지요? 이름이 뭡니까?)

102006 #2 이○○이라고 헷는데.(이○○이라고 했는데.)

102006 @ 이○○?(이○○?)

102006 #2 어.(어.)

102006 @ 여든 일곱예?(여든 일곱이요?)

102006 #2 저 지금 오일장 바로 웃쪽 뒐 거여.(지금 오일장 바로 위쪽 될 거야.)

---

51) '노형'은 제주시 노형동 마을을 뜻한다.
52) '정존마을'은 제주시 노형동에 속한 마을을 말한다.
53) '월랑'은 제주시 노형동에 속한 마을을 말한다.

102006 @ 게믄 월랑이다예.(그러면 월랑이네요.)

102006 #2 삼촌은 아예 모르는구나. 어머니안티.(삼촌은 아예 모르는구나. 어머니한테.)

102006 #2 ᄉᆞ숨ᄉᆞ건 일어나젠 허니까 시에 총 검속이 잇엇는데 전부 잡아가는데 난 안 잡아갓어. 고문 받고 벨 거 다 허는 디.(사삼사건 일어나젠 하니까 시에 총 검속이 있었는데 전부 잡아가는데 난 안 잡아갔어. 고문 받고 별 거 다 하는 데.)

102006 @ 무사 삼촌은 안 잡혀 가신고예? 빽도 엇인디.(왜 삼촌은 안 잡혀갔는가요? 백도 없는데.)

102006 #2 아니, 그냥 봐져야 잡아가지 곱아분디.(아니, 그냥 봐져야 잡아가지 숨어버렸는데.)

102006 @ 어디 저 동굴이나 곶자왈 그런디 곱앗수과?(디 저 동굴이나 곶자왈 그런데 숨었습니까?)

102006 #2 아니, 집안이 잇어도 난 헤당이 안뒈언, 그러니까 그놈덜이 나가 이제 인천 살다가 왓거든.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할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인천 갓다가 나가 미군부대에 두 둘 동안 다녓어. 다니니까 미군 캬바 옷 ᄒᆞᆫ 벌 번찍헌 거 가지고 잇다가, 아 ᄉᆞ숨ᄉᆞ건 나기 전인디, 총검속 헤영 심엉 아 그냥 서북청년 그렇게 까다로왓거든. 또 보는 대로 잡아가는데 ᄉᆞ숨ᄉᆞ건 난 후에로구나. ᄉᆞ숨ᄉᆞ건 난 후에 나가 이제 우리 부엌에서 저 그때 저 웬당 밧 ᄒᆞᆫ ᄋᆞ답 말지기가 농ᄉᆞ질게 잇엇는디 그걸 갈아달라고 허니까 소를 요집에서 빌엇어. 겐디 밧 갈레 갈려고 조반을 먹는디, 아, 그 의용댄가 무슨 댄가 경찰덜이 팍 담아져가지고 말이야. 담아져서 아이고 그냥 어디 강 우리 어머니도 팍팍 떨어서 어디 강 곱으라. 곱으라. 허는 디 에이 난 아시날 이발을 싹하고 그 미군 캬바 옷을 우알로 싹 입엉 부엌에 앚앙 밥을 먹언.(아니, 집안에 있어도 난 해다가 안 뒀어. 그러니까 그놈들이 나가 이제 인천 살다가 왔거든.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할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인천 갔다가 내가 미군부대에 두 달 동안 다녔어. 다니니까 미군 카바레 옷 한 벌 멀쩡한 거 가지고 있다가, 아 사삼사건 나기 전인데, 총 검속해서 잡아서 아, 그냥 서북청년 그렇게 까다로웠거든 또. 보는 대로 잡아가는데 사삼사건 난 후로구나. 사삼사건 난 후에 나가 이제 우리 부엌에서 저 그때 저 원당 밭 한 여덟 마지기가 농사길, 있었는데 그걸 갈아달라고 하니까 소를 요 집에서 빌었어. 그런데 밭 갈러 갈려고 조반을 먹는데, 아 그 의용댄가 무슨 댄가 경찰들이 팍 담아져가지고 말이야. 담아져서 아이고, 그냥 어디 가서 우리 어머니도 팍팍 떨었어. 어디 가서 숨어라. 숨어라. 하는데 에이 난 전날 이발을 싹 하고 그 미군 카바레 옷을 위 알로 싹 입어서 부엌에 앉아서 밥을 먹었어.)

102006 @ 무사 그 옷을 입언? 밧갈레 갈 건디.(왜 그 옷을 입었어요? 밭 갈러 갈 건데.)

102006 #2 아니 폭도가.(아니 폭도가.)

102006 @ 폭도 아니라는 걸 증명허젠?(폭도 아니라는 걸 증명하려고?)

102006 #2 증명허젠, 게니까 순경이 그냥 들어완 나보니까 탁 허게 실탄 탁 장역허

면서 야 너 산에 갓다 왓지. 난 대답을 못허고 저쪽 문으로 어머니가 아이고 이 사람 육지서 와부난 아무 분수도 모르는 사람이라 헤연, 육지 어디서 왓어?, 저 인천서 왓습니다. 겨난 이제 곧 또 인천 갈 겁니다. 겨난 순경이 그냥 가불언, 순경이.(증명하려고, 그러니까 순경이 그냥 들어와서 나보니까 탁 하게 실탄 탁 장전하면서 야 너 산에 갔다 왔지. 난 대답을 못하고 저쪽 문으로 어머니가 아이고 이 사람 육지서 와버리니까 아무 분수도 모르는 사람이라 해서, 육지 어디서 왔어?, 저 인천서 왔습니다. 겨난 이제 곧 또 인천 갈 겁니다. 겨난 순경이 그냥 가버렸어, 순경이.)

102006 @ 아이고 삼촌이 살젠 허난 진짜, 옷이라도 증거가 이시난 헷구나.(아이고 삼촌이 살려고 하니까 진짜, 옷이라도 증거가 있으니까 했구나.)

102006 #2 게난 쉐 잇는 집이 강 쉐 이끄고 잠대 지고 곧 그 문간 나오기 전에 그냥 총소리가 콩 보끄는 소리가 바닥바닥바닥 그 앞이 골목 집 잇어. 겨니까 저 뒤으로 물러 사지도 못 허고 앞으로 나가지도 못 허고 잠대 지고 쉐 이껏는디 에이, 죽어도 그냥 가자고 헤가지고.(그러니까 있는 집에 가서 소 이끌고 쟁기 지고 곧 그 문간 나오기 전에 그냥 총소리가 콩 볶는 소리가 바닥바닥바닥 그 앞이 골목 집 있어. 그러니까 저 뒤로 물러서지도 못하고 앞으로 나가지도 못 하고 쟁기 지고 소 이끌었는데 에이, 죽어도 그냥 가자고 해가지고.)

102006 @ 군인 복 입언?(군인 복 입어서?)

102006 #2 확 옷 갈아 입엇지. 소리가 쟁기 지고 쉐 이끄고 혜연에 저 웬당 종민이네 집, 그 저 집까지 가는 데까지 개미새끼 하나 못 봐. 간 그날 강 그 밧을 다 갈앗어.(확 옷 갈아입었지. 소리가 쟁기 지고 소 이끌고 해서 저 원당 종민이네 집, 그 저 집까지 가는 데까지 개미새끼 하나 못 봐. 간 그날 강 그 밭을 다 갈았어.)

102006 @ 대담허다예.(대담하네요.)

102006 #2 게니까 ᄉᆞ방에서 총소린 팡팡 나지. ᄉᆞ방에서, 그집 엉덕이 잇는디 그 엉덕에 강 고만이 앚앗당 또 그 밧을 다 갈고 돌아와서 뒷날 아침 그냥 시더레 헹 와불엇지.(그러니까 사방에서 총소린 팡팡 나지. 사방에서, 그 집 언덕이 있는데 그 언덕에 가서 가만히 앉았다가 또 그 밭을 다 갈고 돌아와서 뒷날 아침 그냥 시에 해서 와버렸지.)

102006 @ 시로 강 또 인천에 갓수과?(시로 강 또 인천에 갔습니까?)

102006 #2 시에 가서 흔 보름 동안을 그냥 그때 뜨신 때니까이 그냥 밖에서 자고 아는 사람 보면 밥 좀 달라고 헤서 먹고, 그 어디 궨당칩도 없고, 시에 갓자 어디 의지할 때가 원 없엇어. 그래서 그래도 그자.(시에 가서 한 보름동안을 그냥 그때 따뜻한 때니까 그냥 밖에서 자고 아는 사람 보면 밥 좀 달라고 해서 먹고, 그 어디 친척집도 없고, 시에 가봤자 어디 의지할 때가 원 없었어. 그래서 그래도 그저.)

102006 @ 신촌이 무서와 뵈니까 그때가 멧 년도꽈?(신촌이 무서워 보이니까 그때가 몇 년도입니까?)

102006 #2 그때가 사삼ᄉᆞ건 나는 해에.(그때가 사삼사건 나는 해에.)

102006 @ 천구백사십팔년 게난 삼촌이 아직 인천에 갓당 웨할머니 댁에 왓구나.(천구백사십팔년 그러니까 삼촌이 아직 인천에 갔다가 외할머니 댁에 왔구나.)

102006 #2 할머니 돌아가시니까 흔번 왓기 때문에.(할머니 돌아가시니까 한번 왔기 때문에.)

102006 @ 아이고, 것도 한 번 더 죽을 뻔 헷구나.(아이고, 것도 한 번 더 죽을 뻔 했구나.)

102006 #2 죽을 뻔 헷어. ᄉᆞ숨ᄉᆞ건을 봣지. 그냥 할머니가 안 죽엇으민 ᄉᆞ삼ᄉᆞ건을 그냥 인천 살아불엇으면 ᄉᆞ삼ᄉᆞ건을 모를건디 할머니 돌아가신 덕분에 왓다가 저 게서 뒷날은 밧 갈아 뒁 완 새벽이.(죽을 뻔 했어. 사삼사건을 봤지. 그냥 할머니가 안 죽었으면 사삼사건을 그냥 인천 살아버렸으면 사삼사건을 모를 건데 할머니 돌아가신 덕분에 왔다가 저 게서 뒷날은 밭 갈아 두고 와서 새벽에.)

102006 #2 십오일간을 살앗어. 그냥 얻어먹으면서 말이야. 그래서 청주환 배가 저 여객선도 없고 아무 배도 없으니까 저 육지갈 엄두를 내지 못 허겟어. 겐 어떵 어떵헹 그 소식을 들어가지고 인천 간다는 그 청주환 배 간 막 엎드령 절허고 좀 살려달라고 헷더니 육지 사람이 선장이대. 아이 무서운 사람이더라고, 날 살려 줫어.(십오일간을 살았어. 그냥 얻어먹으면서 말이야. 그래서 청주환 배가 저 여객선도 없고 아무 배도 없으니까 저 육지 갈 엄두를 내지 못 하겠어.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그 소식을 들어가지고 인천 간다는 그 청주환 배 간 막 엎드려서 절하고 좀 살려달라고 했더니 육지 사람이 선장이대. 아이 무서운 사람이더라고, 날 살려 줬어.)

102006 @ 그 후 만나지 못헷지예?(그 후 만나지 못했지요?)

102006 #2 만나지 못헷어.(만나지 못했어.)

102006 @ 야! 인연이란 게 신기하다예.(야! 인연이란 게 신기하네요.)

102006 #2 사람이 살젠 허니까 그 ᄆᆞ음이, 게니까 그루후제 막 악화뒈니까 그때 보니까 시에 북국민학교 응원대덜이 꽉 들어찻어.(사람이 살려고 하니까 그 마음이, 그러니까 그루후제 막 악화되니까 그때 보니까 시에 북 국민 학교 응원대들이 꽉 들어찼어.)

102006 @ 북국민학교예. 삼촌 어디 제주시 숨언 잇언?(북초등학교요. 삼촌 어디 제주시 숨어 있었나요?)

102006 #2 ᄉᆞ삼ᄉᆞ건 곧 낫을 땐 저 이 촌에나 그냥 보민 총으로 쏴 죽이고 헷지. 시에는 그렇지 안허대.(사삼사건 곧 낫을 땐 저 이 촌에나 그냥 보면 총으로 쏴 죽이고 했지. 시에는 그렇지 않대.)

102006 @ 조천, 함덕보다 신촌이 피헤가 많앗덴예?(조천, 함덕보다 신촌이 피해가 많았다고요?)

102006 #2 아이고. 피헤가 신촌이 제일 많아. 나가 잇을 때 여러 사람이 죽고, 여기 골목집이서도 여러 사람이 총 맞고.(아이고. 피해가 신촌이 제일 많아. 내가 있을 때 여러 사람이 죽고, 여기 골목집에서도 여러 사람이 총 맞고.)

102006 @ 할머니 메칠 잇엇수과?(할머니 며칠 있었습니까?)

102006 #2 흔 멧 둘 잇엇어. 겐디 할머니가 구월둘에 돌아가시니까 게난 사삼 터지기전 해, ᄉᆞ십칠년 구월 둘에 왓는데 오니까 그 뒷 해에는 ᄉᆞ삼ᄉᆞ건이 난 거라. 구월둘에 할머니가 돌아가시니까 구월 말쯤에 왓지. 그때가 나가 멧 ᄉᆞᆯ인ᄀᆞ 허니까 저 그때가

스물세 술 나던 핸디 할머니 죽어서 뒷 해에 ᄉᆞ삼ᄉᆞ건이 발생헌 거라.(한 몇 달 있었어. 그런데 할머니가 구월에 돌아가시니까 그러니까 사삼 터지기 전 해, 사십칠 년 구월에 왔는데 오니까 그 뒷 해에는 사삼사건이 난 거라. 구월에 할머니가 돌아가시니까 구월 말쯤에 왔지. 그때가 나가 몇 살인고 하니까 저 그때가 스물세 살 나던 핸데 할머니 죽어서 이듬해에 사삼사건이 발생한 거라.)

102007 @ 중매결혼을 하셨습니까? 연애결혼을 하셨습니까?(중매결혼을 하셨습니까? 연애결혼을 하셨습니까?)

102007 #1 중매, 우리이 신랑 얼굴도 안 봔. 결혼헌 후에야 얼굴 봣지. 안 봐봣어. 어떤 사람이던지 겐디 아방은 나 보ᄀᆞ렌, 조천서 훈련 받앗지. 얼굴 안 방 결혼허나? 경ᄀᆞᆯ으멘, 진 보고 난 안 봣어. 진 보ᄀᆞ렌.(중매, 우리 신랑 얼굴도 안 봤어. 결혼한 후에야 얼굴 봤지. 안 봐봣어. 어떤 사람이든지 그런데 아방은 나 봤다고, 조천에서 훈련 받았지. 얼굴 안 봐서 결혼하나? 그렇게 말했어. 자기는 보고 난 안 봤어. 자기는 봤다고.)

102007 @ 겐 어디서 결혼헷수과?(그래서 어디서 결혼했습니까?)

102007 #1 조천서, 아방.(조천에서, 아버지.)

102007 @ 아방집으로 갑니까?(아버지 집으로 갑니까?)

102007 #1 아방집이서 풀안, 아방 조천 사난.(아버지 집에서 팔았어. 아버지 조천 사니까.)

102007 @ 마당에서 초례청?(마당에서 초례청?)

102007 #1 그냥이 옛날도이 멘사포 썽 영 걸어 오데. 아방이 조천 살아나난 조천서 걸언.(그냥이 옛날도 면사포 써서 이렇게 걸어 오대. 아버지가 조천 살았었기 때문에 조천에서 걸어서.)

102007 @ 말 탕은에 가마 탕 그런 게?(말 타서 가마 타고 그런 게?)

102007 #1 ᄉᆞ삼 끝나니까이. ᄉᆞ삼사건 끝나니까 뭐가 말이 잇나. 무신 가마가 잇나? 우리이 우리ᄀᆞ치 고생허멍 산 사람 엇어. 시국도 그렇게 못 만나고게. 부모도 가난허고.(사삼 끝나니까. 사삼사건 끝나니까 뭐가 말이 있나. 무슨 가마가 있나? 우리 우리같이 고생하면서 산 사람 없어. 시국도 그렇게 못 만나고 부모도 가난하고.)

102007 @ ᄉᆞ삼 끝나난 살아 잇는 사람끼리 결혼헌 거네?(사삼 끝나니까 살아 있는 사람끼리 결혼한 거네?)

102007 #1 그렇지. 야! 제주도는이 남자 ᄒᆞ나에 여자 네 개라도 여자가 남아돌앗지. 우리도 아방빽으로 쟈이네 아방신디 시집가서. 거난 우리 아버지가 ᄒᆞᆨ교에 조천서 대장이니까 ᄆᆞ을에서 대장이니까이 막 중매 들어오대. 원호 선생까라 군인까라, 경찰까라 농부하닌 쟈이네 아방 ᄒᆞ나, 우리 어머니신디 저 오렌 헨 가난 무사 오렌 헨덴 허난 저딘 각시 얻엉 살아부난, 똘이 중매가 들어왐시난 어떤디 풀틴? 우리 아버지가 나가 키운 똘 ᄀᆞ트민 나 ᄆᆞ음대로 풀주만은 어디? 아이고 원호 선생도 오고, 군인도 오고, 조천 경찰도 오고, 또 농부하니 야이네 아방도 오곡허난, 어디 풀틴? 허난 나 우리 똘 펜안헤주는 농부한이 앞이 허난 쟈이네 아방, 원호선생도 들어가곡 경찰도 들어가곡헌디 아이구 농부한이한티 아이구 무식허게.(그렇지. 야! 제주도는이 남자 하나에 여자 네 개라도 여

자가 남아돌았지. 우리도 아방 백으로 쟤네 아버지에게 시집가서.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학교에 조천서 대장이니까 마을에서 대장이니까 막 중매 들어오더라. 원호 선생에서부터, 군인에서부터, 경찰에서부터 농부는 쟤네 아버지 하나, 우리 어머니에게 저 오라고 해서 가니까 왜 오라고 하냐고 하니까 저긴 각시 얻어서 살아버리니까, 딸이 중매가 들어오니까 어떤 데 팔겠냐고? 우리 아버지가 나가 키운 딸 같으면 나 마음대로 팔지만 어디? 아이고, 원호선생도 오고, 군인도 오고, 조천 경찰도 오고, 또 농사꾼 얘네 아버지도 오고 하니까, 어디 팔겠냐고? 하니까 나 우리 딸 편안하게 해주는 농사꾼 앞에 많으니까 쟤네 아버지, 원호 선생도 들어가고 경찰도 들어가고 했는데 아이구 농사꾼한테 아이구 무식하게.)

102007 @ 어머니가?(어머니가?)

102007 #1 그렇지.(그렇지.)

102007 @ 어머니가 뽑은 거?(어머니가 뽑은 거?)

102007 #1 어머니가 뽑은 거라. 이제 잇어시민 막 싸울 거 막 싸와.(어머니가 뽑은 거라. 이제 있었으면 막 싸울 거 막 싸워.)

102007 @ 것 때문에.(것 때문에.)

102007 #1 것 때문에 쌉지게.(것 때문에 싸우지.)

102007 @ 나중에 결혼헤영?(나중에 결혼해서?)

102007 #1 결국 헤연에 스물둘에 결혼헤연 쟈이네 아방은 해병대로 군인 지원헹 가불언. 삼월 둘에 결혼헤뒁 결국 군인 가불언.(결국 해서 스물둘에 결혼해서 쟤네 아버지는 해병대로 군인 지원해서 가 버렸어.)

102007 @ 그런 얘기 들어지난 또 어머니안티 뭐렌 헷구나?(그런 얘기 들으니까 또 어머니한테 뭐라고 했구나?)

102007 #1 막 어멍ᄀᆞ라 뭐예? 뭐예? 막.(막 어머니보고 뭐예요? 뭐예요? 막.)

102007 @ 이 고생시키젠 엇인 사름.(이 고생시키려고 없는 사람.)

102007 #1 야, 선생은 가민 나무래고, 요 무슨 거 군인은 어쩨고, 경찰은 어쩨고 농부한이가 편안허여. 허멍 그렇게 말하더라. 농부한이가 편안허덴. 경ᄒᆞ난 옛날 할망덜 무식허여.(야, 선생은 가면 나무라고, 요 무슨 거 군인은 어쩌고, 경찰은 어쩌고 농사꾼이 편안해. 하면서 그렇게 말하더라. 농부가 편안하다고. 그렇게 하니까 옛날 할머니들 무식해.)

102007 @ 하하하하.(하하하하.)

102007 #1 원호 선생은이 이 우리 아버지네 집에 사니까 ᄒᆞ교에 위원장이니까 그 선생이 나보레 오는 중은 모르고 아방이 위원장이난 뭐 일 잇이난 왐주. 물 걸어다 도렌 허믄 물 영 걸어가고, 말제 보난 사람 보레 뎅기는 거게.(원호 선생은 우리 아버지네 집에 사니까 학교에 위원장이니까 그 선생이 나보러 오는 줄은 모르고 아버지가 위원장이니까 뭐 일 있으니까 오는 거지. 물 떠다 주라고 하면 물 이렇게 떠가고, 나중에 보니까 사람 보러 다니는 거야.)

102007 @ 아아.(아아.)

102007 #1 아이구, 이제 생각허믄 그렇게 멍청도 헷나? 물 거려다 도렌 허믄 물, 선생이니까, 아방 춧앙 오는 줄.(아이구, 이제 생각하면 그렇게 멍청했나? 물 떠다 달라고 하면 물, 선생이니까, 아버지 찾아서 오는 줄.)

102007 @ 얼굴 잘 생견마씨?(얼굴 잘 생겼어요?)

102007 #1 원호 선생? 지레 조그만 헤도 영리한 사람이더라고. 똑똑헤여.(원호 선생? 지레 조그만 해도 영리한 사람이더라고. 똑똑해.)

102007 @ 운명이예?(운명이요?)

102007 #1 한림 사람, 죽어실 거라.(한림 사람, 죽었을 거라.)

102007 @ 하하하하.(하하하하.)

102007 #1 으이구, 나이, 우리 아방, 저 우리 어멍으로 헤연이. 아이구 우리 뚤 펜안허젠 허민 농부한이.(으이구, 나, 우리 아버지, 저 우리 어머니로 해서. 아이구 우리 딸 편안하려고 하면 농사꾼.)

102007 @ 농부?(농부?)

102007 #1 농부한이!(농사꾼!)

102007 @ 아이고 진짜 재미잇다예.(아이고 진짜 재미있네요.)

102007 #1 저 어멍으로 헤연이 으이구, 나 ᄀᆞ트민 선생 앞이.(저 어머니로 해서 으이구, 나 같으면 선생 앞에.)

102007 @ 경헤도 아덜이영 뚤이영게 봉가지난 또 경 또.(그렇게 해도 아들이랑 딸이랑 낳아지니까 또 그렇게 또.)

102007 #1 너무 힘들엉 사니까 밧 토지도 엇고이. 이제사 밧 삿지. 옛날은 놈의 밧 빌엉 벵작헤 먹엇잖아. 열 섬을 갈라야 닷 섬, 이녁 직시라.(너무 힘들어서 사니까 밭 토지도 없고. 이제야 밭 샀지. 옛날은 남의 밭 빌어서 병작해먹었잖아. 열 섬을 갈라야 다섯 섬, 이녁 몫이라.)

102007 @ 학교 선생도 뭐 헤도 좋은데.(학교 선생도 뭐 해도 좋은데.)

102007 #1 하이고.(하이고.)

102007 #1 우리 뚤 펜안허젠 허민 농부한이! 아이고, 겨난 무식헌 할망이지. 에이구, 우리 아버지 굴아. 느네 어멍이 멍청헤부난 헐 수가 엇다. 아방이 풀젠 헤도 어멍이 경 뚤 펜안헌 디만 풀켄 허난 어떵허느니?(우리 딸 편안하려고 하면 농사꾼! 아이고, 그러니까 무식한 할머니지. 에이구, 우리 아버지 말해. 너희 어머니가 멍청해버리니까 할 수가 없다. 아버지가 팔려고 해도 어머니가 그렇게 딸 편안한 데만 팔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니?)

102007 @ 게도 아버지가 그런 의논을 잘도 뭐 허다예?(그래도 아버지가 그런 의논을 잘도 뭐하네요?)

102007 #1 의논헤연 영, 영헌 디서 세 밧디서 들어오난 어디 풀티? 허난 우리 뚤 펜안허젠 허민 농부한이 아이고 아방이 아이고, 게난 당신 안 키와부난 ᄆᆞ음대로 못 허켄.(의논해서 이렇게, 이렇게 한 데서 세 군데서 들어오니까 어디 팔까? 하니까 우리 딸 편안하려고 하면 농사꾼 아이고 아버지가 아이고, 그러니까 당신 안 키워버리니까 마음

대로 못 하겠다고.)

102007 @ 겐디 다 일일이 보고 결정을 헤야뒈는데예.(그런데 다 일일이 보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102007 #1 게난 그 원호 선생이 한림 사람이라. 잘도 똑똑헤여. 원호 선생.(그러니까 그 원호 선생이 한림 사람이라. 잘도 똑똑해. 원호 선생.)

102007 @ 참 추적헤보고 싶다예. 어떵 살아신지?(참 추적해보고 싶네요. 어떻게 살았는지?)

102007 #1 죽어실 거라. 죽어실 거라. 여녕이 죽을 여녕 뒈엇네. 죽은 걸로 알아져. 막 똑똑해여. 그 원호 선생, 아 ,거난 나 보젠 물 거려다 도렌허는 거, 난 아방이영 친ᄒᆞ난 물 거려 도렌 헌 걸 계속 물만 도렌 ᄒᆞ난, 아이 말제라가난 기분이 나빠 가. 생각헤보라게. 메칠에 흔 번씩 왕 물만 도렌 허난 기분 나쁘지 안허냐, 말제엔 물 도렌 허난 자기냥으로 거려당 먹으렌, 알앗젠 경허믄, 체얌엔 모르난 거려다 도렌.(죽었을 거라. 죽었을 거라. 연령이 죽을 연령 되었네. 죽은 걸로 알아. 막 똑똑해. 그 원호 선생, 아, 그러니까 나 보려고 물 떠다 달라고 하는 거, 난 아버지랑 친하니까 물 떠 달라고 한 걸 계속 물만 달라고 하니까, 아이 나중 되니까 기분이 나빠 가. 생각해보라. 며칠에 한 번씩 와서 물만 달라고 하니까 기분 나쁘지 않니? 말제엔 물 달라고 하니까 자기 스스로 떠다가 먹으라고, 알았다고 그렇게 하면, 처음엔 모르니까 떠다 달라고.)

102007 @ 결혼식날 남편을 처음 본 거 아니예? 아저씨를?(결혼식 날 남편을 처음 본 거죠? 아저씨를?)

102007 #1 응. 아니, 결혼헌 날도 안 봣어.(응. 아니, 결혼한 날도 안 봤어.)

102007 @ 이거 사진도 찍고?(이거 사진도 찍고?)

102007 #1 응. 부끄러와서이. 남자 보난 부끄러와서, 도망가불언.(응. 부끄러워서. 남자 보니까 부끄러워서, 도망가 버렸어.)

102007 @ 세상에, 얼굴 보난 마음에 안 듭데가?(세상에, 얼굴 보니까 마음에 안 들었습니까?)

102007 #1 얼굴도 안 봔에 그냥 결혼헹, 메칠 이서가난 영 봣주.(얼굴도 안 봐서 그냥 결혼해서, 며칠 있어가니까 이렇게 봤지.)

102007 @ 경ᄒᆞ난 어떵헐 거라?(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할 거라?)

102007 #1 잘 생겻어. 쟈이네 아방, 키도 좋고, 군인 해병대로.(잘 생겼어. 재네 아버지, 키도 크고, 군인 해병대로.)

102007 @ 인물은 오케인게예?(인물은 오케이네요?)

102007 #1 어, 인물은 잘도 좋아. 나보단도 더 좋아. 자네 아방 인물은, 막 얼굴은 키도 크고이. 신체도 든든허고.(어, 인물은 잘도 좋아. 나보다도 더 좋아. 쟤 아버지는 인물은, 막 얼굴은 키도 크고. 신체도 든든하고.)

102007 @ 몰라. 어머니가 인물을 봣을 수도 잇겟다. 얼굴을?(몰라. 어머니가 인물을 봤을 수도 있겠다. 얼굴을?)

102007 #1 우리 어머닌 봣지. 아이고, 농부한이, 원호 선생은 지레 즉아. 조천 경찰

은 키도 커. 이마니헌 칼 찬 왓더라고.(우리 어머닌 봤지. 아이고, 농사꾼, 원호선생은 키 작아. 조천 경찰은 키도 커. 이만한 칼 차서 왔더라고.)

102007 @ 인물이 좋앗나부다, 해녀 안 헤실 건디.(인물이 좋았나보다, 해녀 안 했을 건데.)

102007 #1 우리 아버지는 농부한일 안 허젠 헌거라. 뚤 고생헌덴, 우리어머닌 아이구 나 뚤 펜안허젠 허믄 농부하니, 이제 살아시민 맨날 싸와실 거라. 택도 잘해서 택도, 옛날은 부모가 요디 시집가렌 허민 그디 가. 그디 강 살렌, 오민 막 또 시집이 가렌 막 두드령 내좇아.(우리 아버지는 농사꾼을 안 하려고 한 거라. 딸 고생한다고, 우리어머닌 아이구, 나 딸 편안하려고 하면 농사꾼, 이제 살았으면 매일 싸웠을 거라. 택도 잘해서 택도, 옛날은 부모가 요기 시집가라고 하면 거기 가. 거기 가서 살라고, 오면 마구 또 시집에 가라고 마구 때려서 내쫓아.)

102007 @ 거긴 시어머니나 이런 분 엇입데가?(거긴 시어머니나 이런 분 없었어요?)

102007 #1 시아방도 시어멍도 잇고.(시아버지도 시어머니도 있고.)

102007 @ 고생헷겟다예? 큰아덜?(고생했겠네요? 큰아들?)

102007 #1 아니, 큰아덜도 아판 죽고, 뚤도 아판 죽고 허멍, 자네 아방 하나뿐.(아니, 큰아들도 아파서 죽고, 딸도 아파서 죽고 하면서, 쟤네 아버지 하나뿐,)

102007 @ 아이고 고생헷겟네? 시아버지, 시어머니는 어떵 괴롭히지 안헨?(아이고 고생했겠네? 시아버지, 시어머니는 어떻게 괴롭히지 안했어?)

102007 #1 막 늙엇더라. 육십이 넘으니까, 막 늙어서.(막 늙었더라. 육십이 넘으니까, 막 늙어서.)

102007 @ 밥헹 안네곡 헤야 뒈는 거?(밥해서 드리고 해야 되는 거?)

102007 #1 야, 간 보난이, 사삼ᄉᆞ건 나난 쏠이 잇냐? 보리 잇잖아 보리. 보리 헤당 나냥으로 그걸 이렇게 ᄇᆞ비멍 막 헤네 솖아네 널어네 푸멍 ᄀᆞ레에 푸멍, 시어멍, 시아방네 상한병 잇잖아. 열병, 그거 헤부난 다 누난, 신촌에 우리 할마님은 난데엇이 계란을 막 먹으렌 허여. 말젠 그것이 사돈 상한병 걸리민 막 쥐똥꼿 본덴, 우리 할마니 썩은 오줌에 솖안 멕인 거라 나, 거난 안 걸렷젠 허는 거라. 방법으로 먹이ᄀᆞ렌, 거난 난데엇이 나만.(야, 가서 보니까, 사삼사건 나니까 쌀이 있니? 보리 있잖아 보리. 보리 해다가 내 스스로 그걸 이렇게 비비면서 마구 해서 삶아서 널어서 푸면서 맷돌에 푸면서, 시어머니, 시아버지네 상한병 있잖아. 열병, 그거 해버리니까 다 누난, 신촌에 우리 할머님은 난데없이 계란을 막 먹으라고 해. 말려고 그것이 사돈 상한병 걸리면 막 '쥐똥꽃' 본다고, 우리할머니 썩은 오줌에 삶아서 먹인 거라 나, 그러니까 안 걸렸다고 하는 거라. 방법으로 먹였다고, 그러니까 난데없이 나만.)

102007 @ 할머니가? 물질허렌 막 욕헌 할머니?(할머니가? 물질하라고 막 욕한 할머니?)

102007 #1 응. 그 할머니가 방법으로 먹으렌 헌 거게.(응. 그 할머니가 방법으로 먹으라고 한 거.)

102007 @ 그추룩 열병 걸련 다 돌아가션마씨?(그렇게 열병 걸려서 다 돌아가셨어요?)

102007 #1 아니, 다 살안.(아니, 다 살았어.)

102007 @ 보리가 차가운 성분이주게.(보리가 차가운 성분이지.)

102007 #1 게난 시아방네도 그런 열병에도 살아나더라. 쟈이네 아방도 열병 걸리고 다 걸련. 다. 겐디 난 안 걸련게, 그 우리 할머니 방법을 헤부니까, ᄀᆞ찌 강 그디 강 살아도.(그러니까 시아버지네도 그런 열병에도 살아나더라. 쟤네 아버지도 열병 걸리고 다 걸렸어. 다. 그런데 난 안 걸렸어, 그 우리 할머니 방법을 해버리니까, 같이 가서 거기 가서 살아도.)

102007 @ 뭘 먹으난 효과가 이십데가?(뭘 먹으니까 효과가 있습디까?)

102007 #1 그거 우리 할머님 말이 오줌 잇잖아. 사람 싼 오줌, 그것에 그 계란을 솖앙 멕이ᄀᆞ렌, 거니까 넌 안 걸릴 거렌, 방법으로, 게난 그건 중 알민 나가 먹나 추접허연 안 먹엇지. 아이고 시집이 강 살젠 허난 고생헷저. 마! 이거 계란이.(그거 우리 할머님 말이 오줌 있잖아. 사람 싼 오줌, 그것에 그 계란을 삶아서 먹였다고, 거니까 넌 안 걸릴 거라고, 방법으로, 그러니까 그건 줄 알면 내가 먹나 추접해서 안 먹었지. 아이고, 시댁에 가서 살려고 하니까 고생했다. 자! 이거 계란이.)

102007 @ 멧 년을 시아버지, 시어머니 모신 거꽈?(몇 년을 시아버지, 시어머니 모신 겁니까?)

102007 #1 가며오며이 베랑 안 살앗지. 그자 갓다 왓다.(가며오며 별로 안 살았지. 그저 갔다 왔다.)

102007 @ 아, 조천에?(아, 조천에?)

102007 #1 갓다 왓다만 허멍 살지 안허고, 쟈네 아방 군인 가불고 헤부난.(갔다 왔다만 하면서 살지 않고, 쟤네 아버지 군인 가버리고 해버리니까.)

102007 @ 군인 가불고 아저씨 이쪽으로 와불엇수과?(군인 가버리고 아저씨 이쪽으로 와버렸습니까?)

102007 #1 아저씨도 나 신촌 사난 이레 와불고.(아저씨도 나 신촌 사니까 이리 와버리고.)

102007 @ 아, 어머니 아버지 내 불어 뒁 이레 와불언? 가까우니까.(아, 어머니 아버지 내버려두고 이리로 와버렸어요? 가까우니까.)

102007 #1 어머니, 아버지가 다 죽엇네.(어머니, 아버지가 다 죽었네.)

102007 @ 시어머님 시아바지가 다 죽어불언?(시어머님 시아버지가 다 죽어버렸어요?)

102007 #1 응. 군인 간 왕보난 가시어멍덜도 두 개 죽어불고, 지네어멍, 지네아방도, 하르방 하나 살아낫구나. 하르방 하나 살안 각시얻엉 살단에 죽어불언.(응. 군인 간 와서 보니까 장모도 두 개 죽어버리고, 자기네 어머니, 자기네 아버지도, 할아버지 하나 살았었구나. 할아버지 하나 살아서 각시 얻어서 살다가 죽어버렸어.)

102007 @ 능력좋다예?(능력 좋네요?)

102007 #1 하르방 능력도 좋아, 원.(할아버지 능력도 좋아, 원.)

102007 @ 각시 안 얻어시민 삼촌?(각시 안 얻었으면 삼촌?)

102007 #1 둘앙 살아야지 그 할망이 십 년을 둘앙 살앗어.(데리고 살아야지 그 할머니가 십 년을 데리고 살았어.)

102007 @ 아이고야 고마운게게.(아이고야 고맙네.)

102007 #1 게난 아방 못 얻게, 다 늙은 하르방 구신 맡으젠 헴쩬 막 싸완, 아방이영 막 싸우난, 나가 내불렌, 가숙이 가숙인데 내가 헤주커매 ᄀᆞ만이 내불렌 허난 너 덕분이여. 너 덕분이여. 원망 들엇저. 거난 할망 얻쩡 내부난 막 좋안, 십년을 둘안사니까, 아이고 막 펜안헤연게, 난 막 펜안헤연.(그러니까 아버지 못 얻게, 다 늙은 할아버지 귀신 맡으려고 한다고 마구 싸워서, 아버지랑 마구 싸우니까, 내가 내버리라고, 가숙이 가숙인데 내가 해줄 테니까 가만히 내버리라고 하니까 너 덕분이야. 너 덕분이야. 원망 들었다. 그러니까 할머니 얻어서 내버리니까 막 좋았어. 십년을 데리고 사니까, 아이고 막 편안해서, 난 막 편안했어.)

102007 @ 결혼을 어떵허게 뒌 것꽈? 중매꽈? 결혼을 어떵?(결혼을 어떻게 된 겁니까? 중매입니까? 결혼을 어떻게?)

102007 #2 사삼ᄉᆞ건에 만딱 ᄉᆞ나이덜 막 죽고, 스물여덟에 우리 집 사람을 만나서.(사삼사건에 모두 사나이들 막 죽고, 스물여덟에 우리 집 사람을 만났어.)

102007 @ 어디 신촌에서마씨? 원래 신촌 여자?(어디 신촌에서요? 원래 신촌 여자?)

102007 #2 응. 신촌 여자, 만나서 스물아홉에 뚤을 낳고 서른둘에 아덜 낳고.(응. 신촌 여자, 만나서 스물아홉에 딸을 낳고 서른둘에 아들 낳고.)

102007 @ 그믄 군대 갓다 왕 아덜 낳앗구나예?(그러면 군대 갔다 와서 아들 낳았군요?)

102007 #2 군대 갓다 왕 저 아덜은 낳고 군대 가기 전이 뚤은 낳고.(군대 갔다 와서 저 아들은 낳고 군대 가기 전에 딸은 낳고.)

102011 @ 결혼사진은 찍었습니까?(결혼사진은 찍었습니까?)

102011 #1 그때 사진이 어딧나? 우리 사진 엇어서.(그때 사진이 어디 있니? 우리 사진 없어서.)

102011 @ 사진 못 찍었고예. 신혼살림은 어디서 하셨습니까? 제일 처음 사는 거? 신랑 집이서 시집은 가서.(사진 못 찍었고요. 신혼살림은 어디서 하셨습니까? 제일 처음 사는 거? 신랑 집에서 시집은 가서.)

102011 #1 가서 그냥 신촌리더레 왓지.(가서 그냥 신촌리로 왔지.)

102011 @ 거기서 메칠 살고?(거기서 며칠 살고?)

102011 #1 아니 신랑이, 저 와흘이엔 헌 디 본 태생이라. 경헌디 거기서 신랑이 조천 내려왓드라고 내려왕 거기서 이제 결혼헹은에 나가 이 해녀라부난이, 해녀라부난 바당에 종사허젠 이디 오난 신랑도 ᄀᆞ찌 뚜라왕 그냥 살았어.(아니 신랑이, 저 와흘이라고 한데 본 태생이라. 그런데 거기서 신랑이 조천 내려왔더라고 내려와서 거기서 이제 결혼해서 내가 이 해녀라버리니까, 해녀라버리니까 바다에 종사하려고 여기 오니까 신랑

도 같이 따라와서 그냥 살았어.)

102011 @ 그믄 바로 결혼하자마자 신촌에 왕 살앗구나예?(그러면 바로 결혼하자마자 신촌에 와서 살았군요?)

102011 #1 결혼은 조천서 허곡, 남자가 조천이니까 조천 내려왓잖아. 내려왕 헤여서 나가 해녀로 물에 들젠 거길 못 가서. 왜냐면 남자도 날 ᄃᆞ라완.(결혼은 조천에서 하고, 남자가 조천이니까 조천 내려왔잖아. 내려와서 해서 내가 해녀로 물에 들려고 거길 못 갔어. 왜냐면 남자도 날 따라왔어.)

102011 @ ᄃᆞ라완, 그믄 어머니랑 같이 산 것꽈? 따로 집을 빌엇수꽈?(따라와서, 그러면 어머니랑 같이 산겁니까? 따로 집을 빌었습니까?)

102011 #1 따로 집 빌엇어. 남의 집 빌언.(따로 집 빌었어. 남의 집 빌었어.)

102011 @ 남의 집을 아예 하나 빌언?(남의 집을 아예 하나 빌었어요?)

102011 #1 아니, 작은 방.(아니, 작은 방.)

102011 @ 작은 방 하나만?(작은 방 하나만?)

102011 #1 집이 어딧냐? 그때 작은 방, 이 통차 집이 엇엇어. 바끄레도 엇고이. 그땐 초가집덜이 요만썩허고, 또 방도 요만썩 허지 않나? 요만썩헌 방 저 아래 바다 조끄띠 빌언 살아낫어.(집이 어디 있니? 그때 작은 방, 이 통째 집이 없었어. 바깥채도 없고. 그땐 초가집들이 요만씩하고, 또 방도 요만씩 하지 않니? 요만한 방 저 아래 바다 곁에 빌어서 살았었어.)

102011 @ ᄂᆞᆷ 사는 디 옆방.(남 사는 데 옆방.)

102011 #1 ᄋᆞ. 큰방에는 주인 살고, 우린 족은방.(어. 큰방에는 주인 살고, 우린 작은방.)

102011 @ 주인은 혼자만 사는 사람?(주인은 혼자만 사는 사람?)

102011 #1 아니, 둘이 사는디 신랑은 군인 가부니까.(아니, 둘이 사는데 신랑은 군인 가버리니까.)

102011 @ 음, 그렇게도 살앗구나예?(음, 그렇게도 살았군요?)

102011 #1 응. ᄂᆞᆷ의 집.(응. 남의 집.)

102012 @ 게믄 아이들은 어떻게 뒙니까? 그믄 바로 삼 개월 만에 아저씨가 군인 가부난.(그러면 아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바로 삼 개월 만에 아저씨가 군인 가버리니까.)

102012 #1 응.(응.)

102011 @ 애기가 엇이 있단.(애기가 없이 있다가.)

102012 #1 엇이, 간 온 후에.(없이, 간 온 후에.)

102012 @ 멧년 살앙 왓수과? 간 삼년 살앙 오난?(몇 년 살아서 왔습니까? 간 삼년 살아서 오니까?)

102012 #1 삼년, 지원헹 해병대로 가오랏잖아.(삼년, 지원해서 해병대로 가왔잖아.)

102012 @ 삼촌이 그때가 스무 살?(삼촌이 그때가 스무 살?)

102012 #1 아방이 지원, 해병대로 지원헹 간, 삼년 살안 완. 이제 큰뚤 나앗지.(아방

이 지원, 해병대로 지원해서 간, 삼년 살아서 왔어. 이제 큰딸 낳았지.)

102012 @ 큰뚤이 멧 년도에 난 거라?(큰딸이 몇 년도에 낳은 거야?)

102012 #1 나가 스물여섯에 나니까.(나가 스물여섯에 낳으니까.)

102012 @ 스물여섯에 큰뚤 낳고, 해병대에 삼년 갔다 왕 여기서 바당에 일헷수과? 그냥 여러 가지 일들?(스물여섯에 큰딸 낳고, 해병대에 삼년 갔다 와서 여기서 바다에 일했습니까? 그냥 여러 가지 일들?)

102012 #1 응. 아방은 남의 밧, 밧이 엇이니까 남의 밧 빌엉 농ᄉᆞ헹 밧디 가고, 나는 바당에 가고, 그렇게 헹 살아서.(응. 남편은 남의 밭, 밭이 없으니까 남의 밭 빌어서 농사해서 밭에 가고, 나는 바다에 가고, 그렇게 해서 살았어.)

102012 @ 딸은 누가 돌봐줜? 웨할머니는?(딸은 누가 돌봐줬어요? 외할머니는?)

102012 #1 그때 우리 웨할머니 산 때난 할머니가 봐줬어. 그렇게 힘들게 우리 살아서. 죽기 아니민 살기로.(그때 우리 외할머니 산 때니까 할머니가 봐줬어. 그렇게 힘들게 우리 살았어. 죽기 아니면 살기로.)

102012 @ 웨할머니는 해녀 안 헷고예?(외할머니는 해녀 안 했고요?)

102012 #1 웨할머니도 해녀야.(외할머니도 해녀야.)

102012 @ 아, 웨할머니도 해녀 이모도 해녀?(아, 외할머니도 해녀 이모도 해녀?)

102012 #1 이모도 해녀.(이모도 해녀.)

102012 @ 엄마만 해녀 아니.(엄마만 해녀 아니.)

102012 #1 엄마만 해녀 아니. 엄마 나 ᄋᆞᆨ은 후젠 해녀질 허는 거 안 봣어. 안 허고.(엄마만 해녀 아니. 엄마 나 큰 후엔 해녀일 하는 거 안 봤어. 안 하고.)

102012 @ 엄마만, 어머니 멧 살에 돌아가셧수과?(엄마만, 어머니 몇 살에 돌아가셨습니까?)

102012 #1 나가 스물둘에, 스물셋에 돌아갓구나.(내가 스물 둘에, 스물셋에 돌아 갔구나.)

102012 @ 애기는 봐줫겠다. 첫 애기는.(애기는 봐줬겠다. 첫 애기는.)

102012 #1 아니, 못 봔. 돌아가션. 결혼헤연에이, 저.(아니, 못 봤어. 돌아가셨어. 결혼해서, 저.)

02012 @ 스물여섯에 큰뚤을 낳아부니까.(스물여섯에 큰딸을 낳아버리니까.)

102012 #1 스물셋에 결혼헤연에 스물넷엔 어머니가 돌아가 불언. 스물넷이랑마랑 스물셋에 돌아갓구나.(스물셋에 결혼해서 스물넷엔 어머니가 돌아가 버렸어. 스물넷은커녕 스물셋에 돌아갔구나.)

02012 @ 웨할머니가 오래 살앗구나예.(외할머니가 오래 살았군요.)

102012 #1 우리 어머니가 스물셋에 돌아가션. 그때 당시에는 먹을 것이 엇엇어. 겨믄 너무 가난헤영 사니까 이제 남의 밧 빌엉 벵작을 허면 반을 갈라 아사불어.(우리어머니가 스물셋에 돌아가셨어. 그때 당시에는 먹을 것이 없었어. 그러면 너무 가난해서 사니까 이제 남의 밭 빌어서 병작을 하면 반을 갈라 가져버려.)

102012 @ 아아.(아아.)

102012 #1 우리가 전부 당헹은 삼분에 일 허고 또 반반 당헹은 바로 갈라아사 불엇어. 놈의 밧디. 그믄 열섬을 벌어야 반 갈르민 닷섬이고 또 그냥허면은 흔 석섬반쯤, 임제뚜로 삼분 패 헤가지고.(우리가 전부 당해서는 삼분의 일 하고 또 반반 당해서은 바로 갈라서 가져버렸어. 남의 밭에. 그러면 열섬을 벌어야 반 가르면 다섯 섬이고 또 그냥하면 한 석 섬 반쯤, 임자 따로 삼분 패 해가지고.)

102012 @ 겐 아이덜은 육남매를 뒀덴 헷지예?(그래서 아이들은 육남매를 뒀다고 했지요?)

102012 #1 응. 육남매.(응. 육남매.)

102012 @ 멧 술 터울? 큰뚤 낳고?(몇 살 터울? 큰딸 낳고?)

102012 #1 우리 큰뚤이.(우리 큰딸이.)

102012 @ 스물여섯에 나고.(스물여섯에 낳고.)

102012 #1 스물여섯에 나고. 또.(스물여섯에 낳고. 또.)

102012 @ 두 번째 뚤이?(두 번째 딸이?)

102012 #1 두 술 ᄆᆞ지니까 스물여덜에, 세 번채는 또 세 술 차이라.(두 살 차이니까 스물여덟에, 세 번째는 또 세 살 차이라.)

102012 @ 서른ᄒᆞ나에 낳고.(서른하나에 낳고.)

102012 #1 응. 또 네 번째는 큰아덜. 이제 쉰셋, 쉰넷인가?(응. 또 네 번째는 큰아들. 이제 쉰셋, 쉰넷인가?)

102012 @ 다섯 번째는 또 아들이꽈?(다섯 번째는 또 아들입니까?)

102012 #1 ᄋᆞ.(응.)

102012 @ 오십하나, 말띠.(오십하나, 말띠.)

102012 #1 그 밑에 뚤.(그 밑에 딸.)

102012 @ 여섯 번째가? 그 막내딸이?(여섯 번째가? 그 막내딸이?)

102012 #1 응.(응.)

102012 @ 거기가 지금 몃 술마씨?(거기가 지금 몇 살이에요?)

102012 #1 이제? 이제 서른여덟 ᄃᆞ헤치.(이제? 이제 서른여덟 닭띠.)

102012 @ 늦게 났네.(늦게 낳았네.)

102012 #1 마지막.(마지막.)

102012 @ 게난 많이 늦게 나서.(그러니까 많이 늦게 낳아서.)

102012 #1 야이광 세 술 차이 아냐?(얘랑 세 살 차이 아냐?)

102012 @ 게믄 마흔여덜, 서른여덜이 아니고.(그러면 마흔여덟, 서른여덟이 아니고.)

102012 #1 맞아. 마흔여덟에, 가이가 마지막으로.(맞아. 마흔여덟에, 걔가 마지막으로.)

102012 @ 지금 마흔여덟예. 삼촌이 마흔여섯에 낫덴 헤신가?(지금 마흔여덟이요. 삼촌이 마흔여섯에 낳았다고 했는가?)

102012 #1 응. 경 나져실 거라.(응. 그렇게 낳았을 거라.)

102012 @ 아이구, 세상에.(아이구, 세상에.)

102012 #1 그 애기이, 죽어불렌 헨이. 그때 너무 사는 것이 힘드니까 죽어 ᄃᆞ라게 죽어 ᄃᆞ라 헤도 절대 안 죽어. 아파도 내불어도 살아나데. 약도 안허고 침도 안맞현. 경헤도 죽으렌 막 밧 가운디 강 내불민 빨강케 카도 살아난 거 아니라. 그것이 그 똘이 효자라. 삶이, 삶이 아니자나. 가이가 엇어시믄 일이라도 다니고 바당에도 댕길건디, 여유가 엇어부난게 밧디도이 애기구덕이 헐어부니까 못 아젼 가난 골채 잇잖아. 검질 담앙 내치곡 걸름 뿌리는 거. 그것에 담아근에 밧디 강 내불어. 내불엉 허민 이불포 헤다근에 영 헹 쳥 내불민 그냥 ᄇᆞ름에 걷어져근에 왕 보믄 발강케 그냥 헤뜩헤뜩. 게난 이제도 까망허잔아. 그 어린 때 막 케와나부난. 그렇게 힘들게 산 사름이야. 애기 봐줄 사름 엇이니까.(그 아기, 죽어버리라고 해서. 그때 너무 사는 것이 힘드니까 죽어 달라, 죽어 달라 그렇게 해도 절대 안 죽어. 아파도 내버려도 살아나데. 약도 안하고 침도 안 맞현. 그렇게 해도 죽으라고 막 밭 가운데 가서 내버리면 빨갛게 타도 살아난 거 아니라. 그것이 그 딸이 효자라. 삶이, 삶이 아니잖아. 걔가 없었으면 일이라도 다니고 바다에도 다닐 건데, 여유가 없어버리니까 밭에도 애기구덕이 헐어버리니까 못 가지고가니까 삼태기 있잖아. 잡초 담아서 내치고 거름 뿌리는 거. 그것에 담아서 밭에 가서 내버려. 내버리고 하면 이불보 해다가 이렇게 해서 쳐서 내버리면 그냥 보르르 걷어져서 와서 보면 빨갛게 그냥 희뜩희뜩. 그러니까 이제도 까맣잖아. 그 어린 때 막 태워버렸으니. 그렇게 힘들게 산 사름이다. 애기 봐줄 사름 없으니까.)

102013 @ 시집살이에 대한 기억은 조천에 잇어부난.(시집살이에 대한 기억은 조천에 있어 버리니까.)

102013 #1 우리 시어머님이 결혼헌 후에 돌아가 불엇어. 허니까 시아버지가 조천서 뚠 마누라 정헹 살앗주. 경해도 그후에 그 마누라가 돌아가불엇나 어떵헹 허니까 그 후로 우리신디 왕 살다가 또 할망 정헨 ᄯᅳ로 살고. 우리 시아버지가 흔 거의 구십 난 돌아가셔실 거라. 팔십팔인가 구십인가 허난 돌아가실 거라. 늙언 돌아가서.(우리 시어머님이 결혼한 후에 돌아가 버렸어. 하니까 시아버지가 조천에서 딴 마누라 정해서 살았지. 그래도 그 후에 그 마누라가 돌아가 버렸나 어떻게 해서 하니까 그 후로 우리한테 와서 살다가 또 할머니 정해서 따로 살고. 우리 시아버지가 한 거의 구십 난 돌아가셨을 거라. 팔십팔인가 구십인가 하니까 돌아가실 거라. 늙어서 돌아갔어.)

102013 @ 경허난 장례도 다 웨아덜이난 다 치렷겟다예.(그렇게 하니까 장례도 다 외아들이니까 다 치렀겠네요.)

102013 #1 다 우리가 허지 누가 잇나. 우에 형 죽어불엇지, 누나 죽어불엇지, 아무도 엇이니까 우리만 우리가 다 헷지. 그때는 뭐 쏠이 잇나. 영장을 허젠 헤도 쏠이 엇이니까 이제 우리 돌아간 이모가 쏠, 곤쏠 닷말 사다줜 걸로 허고이, 뒈지고기 살 돈도 엇이니까 콩국 끌려서 거 장ᄉᆞ헷잖아.(다 우리가 하지. 누가 있나. 우에 형 죽어버렸지. 누나 죽어버렸지. 아무도 없으니까 우리만 우리가 다 했지. 그때는 뭐 쌀이 있나. 영장을 하려고 해도 쌀이 없으니까 이제 우리 돌아간 이모가 쌀, 흰쌀 닷 말 사다줘서 걸로 하고, 돼지고기 살 돈도 없으니까 콩국 끓여서 거 장사지냈잖아.)

102013 @ 콩국도 끌영 장례식도 헙니까?(콩국도 끓여서 장례식도 합니까?)

102013 #1 야, 돼지고기 살 돈이 엇이니까 콩만 혼 두 관뒈만 골민 걸로 국 끌령. 우리 얼마나 힘들게 살면은.(야, 돼지고기 살 돈이 없으니까 콩만 한 두 되만 갈면 걸로 국 끓여서. 우리 얼마나 힘들게 살면.)

102013 @ 혹시 장례식에 영 아는 사름덜 오면 콩국하고 밥을 대접헷다는 거?(혹시 장례식에 이렇게 아는 사름들 오면 콩국하고 밥을 대접했다는 거?)

102013 #1 아, 밥을 멕여야 그 사름덜 일헐 거 아냐. 그때는이.(아, 밥을 먹여야 그 사람들 일할 거 아냐. 그때는.)

102013 @ 부주허레 오는 게 아니고 일단 저 장례식 치를 사람덜안테 밥을 멕여야 뒈니까.(부조하러 오는 게 아니고 일단 저 장례식 치를 사람들한테 밥을 먹여야 되니까.)

102013 #1 그 사름덜 멕여야지. 일허젠 허믄 그 사름덜. 이제덜은 이 놉 빌엉 돈 주민 그때 당시엔 공짜로 일덜 허먹여 다, 밥만 멕여주민 공짜로 다.(그 사람들 먹여야지. 일하려고 하면 그 사람들. 이제들은 이 놉 빌어서 돈 주면 그때 당시엔 공짜로 일들 해다. 밥만 먹여주면 공짜로 다.)

102013 @ 인정이잖아예.(인정이잖아요.)

102013 #1 인심이 좋아. 동네에 고기 국 끌려도 왕 밥 먹으렌 허영 막 둘아당 멕이곡 허여. 원 그렇게덜 인심 좋아낫어. 도둑도 엇고, 그때는 이, 이만이 헌 우리 발로 두 발은 헌 낭이 있어. 거민 영 나가는 올레가 있어. 그디 딱 노민 사름 엇인 집이라고 해서 근처에 가도 안헤여. 그렇게 도둑도 엇어.(인심이 좋아. 동네에 고기 국 끓여도 와서 밥 먹으라고 해서 막 데려다가 먹이고 해. 원 그렇게들 인심 좋았었어. 도둑도 없고, 그때는 이, 이만큼 한 우리발로 두발은 한 나무가 있어. 그거면 이렇게 나가는 골목이 있어. 거기 딱 놓으면 사람 없는 집이라고 해서 근처에 가도 않아. 그렇게 도둑도 없어.)

102013 @ 나눠먹을 줄도 알고.(나눠먹을 줄도 알고.)

102013 #1 응. 거 낭 이신 집은 사롬 엇인 집으로 알고 들어가도 안헤서. 거난 성냥도 엇이니깐 남의 집의 연기 나가민 그디 강 불 담아다가 밥 헷잖아. 혼 밧디만 연기 나가민 다 불 담으레 와. 성냥이 엇이니까. 그렇게 힘들어. 우리 맨발에 다녀나시난.(응. 거 나무 있는 집은 사람 없는 집으로 알고 들어가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성냥도 없으니깐 남의 집의 연기 나가면 거기 가서 불 담아다가 밥 했잖아. 한 군데만 연기 나면 다 불 담으러 와. 성냥이 없으니까. 그렇게 힘들어. 우리 맨발에 다녔었으니까.)

102013 @ 멧 살까지?(몇 살까지?)

102013 #1 우리가 그때는 혼 열 술 넘어 맨발에 뎅겨서. 학교에 들어갈 때꼬지. 들어간 후에사 우리 어머니 운동화 사더라고. 맨발에 뎅기단.(우리가 그때는 한 열 살 넘어 맨발로 다녔어. 학교에 들어갈 때까지. 들어간 후에야 우리 어머니 운동화 사더라고. 맨발에 다니다가.)

102013 @ 아이구, 돈도 엇고예.(아이구, 돈도 없고요.)

102013 #1 야, 공책 하나 사줘이. 공책 하나민이 연필로 써 이. 체얌. 그담은 이런 볼펜으로 씌잔아. 그 다음은 붓으로 씌어. 붓글 쓸 때는 붓으로 걸 쓴다고. 공책 하나에

다가. 이런 공책도 힘들어, 사젠 허면은. 그니까 원가 뛰는 걸 잘 뛰니까 일등이면 삼등 세 번만 돌리믄 여섯 권. 거믄 일 년 써. 공책 세 가지, 여섯 권.(야, 공책 하나 사줘. 공책 하나민이 연필로 써 이. 처음. 그담은 이런 볼펜으로 쓰잖아. 그 다음은 붓으로 씌어. 붓글 쓸 때는 붓으로 걸 쓴다고. 공책 하나에다가. 이런 공책도 힘들어, 사려고 하면. 그니까 원가 뛰는 걸 잘 뛰니까 일등이면 삼등 세 번만 달리면 여섯 권. 그러면 일 년 써. 공책 세 가지, 여섯 권.)

102013 @ 달리기를 그렇게 잘헨예.(달리기를 그렇게 잘했네요.)

102013 #1 달리기는 리레이에서도 나 이 십 전장허는 거. 걸 벨로 줫잖아. 뛰는 걸 그렇게 잘 뛰어. 항상 일등만 허잖아. 저 조천도 강이 리레이 선수로 뽑아가고 뛰는 걸 그렇게 잘 뛰어. 이제도 뭐 우리 춘배에 놔서 뛰면 내가 일등이지, 이제도. 암만 다리 아파도 그 할망덜이 걷지 못헹.(달리기는 릴레이에서도 나 이 십 전장하는 거. 걸 별명 줬잖아. 뛰는 걸 그렇게 잘 뛰어. 항상 일등만 하잖아. 저 조천도 가서 릴레이 선수로 뽑혀가고 뛰는 걸 그렇게 잘 뛰어. 이제도 뭐 우리 '춘배'에 놔서 뛰면 내가 일등이지, 이제도. 아무리 다리 아파도 그 할머니들이 걷지 못해서.)

102013 @ 운동신경이 좋은 거라. 경허난 바당일도 그치룩 잘 허고.(운동신경이 좋은 거라. 그렇게 하니까 바다일도 그렇게 잘 하고.)

102013 #1 바당 십이 미터 들어가. 저기 요디 잇잔아. 이렇게 헌 거. 기념으로. 야, 너 샛살에 영 당그민 숨 쉬어지나 못 쉬주. 거 줄 놔서, 이거봐라. 이디 나가 들어가낫다. 전복을 테어야 돈이 왕창 벌고 소라같은건 돈 안줘. 그 전복 텔라고 막 먼딜로만 댕견. 게난 아무도 밝히도 못헌게 숨 쫄란. 난 숨이 질어. 십이 미터 뭐 보통 들어간덴 허난.(바다 십이 미터 들어가. 저기 요기 있잖아. 이렇게 한 거. 기념으로, 야, 너 '샛살'에 이렇게 담그면 숨 쉬어지나 못 쉬지. 거 줄 놔서, 이거 봐라. 여기 내가 들어갔었다. 전복을 떼야 돈이 왕창 벌고 소라 같은 건 돈 안줘. 그 전복 따려고 막 먼데로만 다녔어. 그러니까 아무도 밝히도 못한 게 숨 짧아서. 난 숨이 길어. 십이 미터 뭐 보통 들어갔다고 하니까.)

102013 @ 시어머니허고 싸우는 건 없고예?(시어머니하고 싸우는 건 없고요?)

102013 #2 전혀 없어. 우리 집 아이 어멍이 원체 순헤.(전혀 없어. 우리 집 아이 엄마가 원체 순해.)

102014 @ 자식들의 결혼은 어떻게 하셨습니까?(자식들의 결혼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102014 #1 자식들, 하이고 어떵사 헨 결혼헤져신가?(자식들, 하이고 어떻게야 해서 결혼해졌는가?)

102014 @ 연애결혼덜 헨?(연애결혼들 했어?)

102014 #1 아니 우리 큰뚤은 중매결혼이고, 셋뚤은 연애결혼이고, 말젯뚤도 연애결혼이고.(아니 우리 큰딸은 중매결혼이고, 둘째딸은 연애결혼이고, 셋째딸도 연애결혼이고.)

102014 @ 다 츠례츠례 결혼헷수과?(다 차례차례 결혼했습니까?)

102014 #1 어, 큰뚤만 연애결혼 안 헹, 딴 것덜은 다 지대로 결혼헨. 연애허연.(어, 큰딸만 연애결혼 안 해서, 딴 것들은 다 자기대로 결혼했어. 연애해서.)

102015 @ 사위덜은 어떵헙니까? 다 좋아?(사위들은 어떻습니까? 다 좋아?)

102015 #1 사우덜이 다 좋아. 아덜 닮지 아년. 큰사우도 경 좋고, 셋사우도 말젯사우도, 말젯사우는 경 좋은 사름 죽어불곡.(사위들이 다 좋아. 아들 같지 않아서. 큰 사위도 그렇게 좋고, 둘째사위도 셋째사위도, 셋째사위는 그렇게 좋은 사람 죽어버리고.)

102015 @ 아아.(아아.)

102015 #1 사우 네 갠디 세 개벳긔 안 남안.(사위 네 갠데 세 개밖에 안 남았어.)

102015 @ 세 번째 딸.(세 번째 딸.)

102015 #1 응, 세 번째 사우가.(응, 세 번째 사위가.)

102015 @ 아판?(아팠어요?)

102015 #1 아판 죽어불언. 제일 항상 돈을 그 사우가 잘 줫는데. 죽어부니까 지갑도 텅텅 비고 그 사우만 살아시믄 돈을 항상 지갑에 놓는디. 다른 사우덜은 자기네 먹고 바쁘니까 주고 싶어도 주질 못 허지.(응, 세 번째 사위가 아파서 죽어버렸어. 제일 항상 돈을 그 사위가 잘 줬는데. 죽어버리니까 지갑도 텅텅 비고 그 사위만 살았으면 돈을 항상 지갑에 놓는데. 다른 사위들은 자기네 먹고 바쁘니까 주고 싶어도 주질 못 하지.)

102015 @ 애기들도 손지방상도 어마장장 허쿠다.(애기들도 손자 방상도 어마장장 하겠습니다.)

102015 #1 우리? 친척도 엇지.(우리? 친척도 없지.)

102015 @ 예.(예.)

102015 #1 아방이 혼자로만 사니까. 동싱도 엇곡.(아방이 혼자로만 사니까. 동생도 없고.)

102015 @ 게도 큰뚤에.(그래도 큰딸에.)

102015 #1 먼 친척덜은 이제.(먼 친척들은 이제.)

102015 @ 큰뚤에 손지 멧 명?(그래도 큰딸에 손자 몇 명?)

102015 #1 웨손지가 세 명, 두 번채 뚤이 두 개.(외손자가 세 명, 두 번째 딸이 두 개.)

102015 @ 세 번째 뚤도?(세 번째 딸도?)

102015 #1 세 번째 뚤도 두 개, 네 번채 뚤은 하나.(세 번째 딸도 두 개, 네 번째 딸은 하나.)

102015 @ 하나.(하나.)

102015 #1 또 이제 큰 아덜은 아덜만 세 개. 족은 아덜은 오누이. 저 군인 ᄒᆞ나에 뚤 ᄒᆞ나 허연.(또 이제 큰아들은 아들만 세 개. 작은 아들은 오누이. 저 군인 하나에 딸 하나 해서.)

102015 @ 큰아덜은 같이 계속 살앗수과? 신촌에?(큰아들은 같이 계속 살았습니까? 신촌에?)

102015 #1 응. 이제 ᄀᆞ치 쭉 살안.(응. 이제 같이 쭉 살았어.)

102015 @ 것도 복이우다게.(것도 복입니다.)

102015 #1 쭉 ᄀᆞ찌 살안.(쭉 같이 살았어.)

102015 @ 육지 보넹은에 거기 사람 만낭 사는 사람도 많고.(육지 보내서 거기 사람 만나서 사는 사람도 많고.)

102015 #1 아니, 우리 아이덜은 아덜도 제주사름만 허고, 야이도 제주사름만 허고, 뚤덜만 육지사름.(아니, 우리 아이들은 아들도 제주사람만 하고, 얘도 제주사람만 하고, 딸들만 육지사람.)

102015 @ 아, 뚤들은 육지 사위덜?(아, 딸들은 육지 사위들?)

102015 #1 이제 세 번짜 뚤만 이딧 사름, 그 나머진 다 육지 사름. 지네냥으로덜 연애헹덜 강.(이제 세 번째 딸만 여기 사람, 그 나머진 다 육지 사람. 자기스스로들 연애해서 가서.)

102015 @ 육지에서 복 좋게덜 좋은 제주 사름덜 만낫구나게.(육지에서 복 좋게들 좋은 제주 사름들 만났구나.)

102015 #1 복 좋은디, 복 엇는디, 이딧 애기가 못 전디어. 그 사람덜 못 젼뎌? 우리 말젯 뚤이 벵원에 들아가지, 돈 당허지, 나는 뭐우꽈? 돈은 돈대로 당허고 일은 일대로. 어떵헤? ᄉᆞ정헤야지. 거 세 번채 뚤이 지일 힘들엄지. 그냥 아파가민 아이가 들아와. 어젠가 그저께도 나 벵원에 들앙간.(복 좋은데, 복 없는데, 여기 애기가 못 견뎌. 그 사람들 못 견뎌? 우리 셋째 딸이 병원에 데려가지, 돈 당하지, 나는 뭡니까? 돈은 돈대로 당하고 일은 일대로. 어떻게 해? 사정해야지. 거 세 번째 딸이 제일 힘들겠지. 그냥 아파가면 아이가 돌아와. 어젠가 그저께도 날 병원에 데리고 갔어.)

102015 @ 시내 살암수과?(시내 살고 있습니까?)

102015 #1 응, 시내.(응, 시내.)

102015 @ 그래도 어머니가 있는 게 의지가 뒈주게. 아무리.(그래도 어머니가 있는 게 의지가 되지. 아무리.)

102015 #1 응, 막 어머니 건강헤사주. 건강헙셍 허믄 아이구, 나 빨리 죽어야주 아니우다. 그런 말 허지맙서. 어머니 엇이믄 누게ᄀᆞ라 어머니옝 헙니까? 허멍 아이덜이 다 착헤여. 효자라, 효자. 애기덜이. 나가 자랑을 안허난 허염주. 자랑을 안허난.(응, 막 어머니 건강해야지. 건강하시라고 하면 아이구, 나 빨리 죽어야지. 아닙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어머니 없으면 누구보고 어머니라고 합니까? 하면서 아이들이 다 착해. 효자라, 효자. 애기들이. 나가 자랑을 안 하니까 하지. 자랑을 안 하니까.)

102015 @ 고생헌 보람이, 그 아이덜 때문에.(고생한 보람이, 그 아이들 때문에.)

102015 #1 뭐 대답허는 애긴 ᄒᆞ나토 엇어. 나 대답헷당은 이 성질 나믄이 몽둥이로 무시거, 이제 늙은 아덜도 그냥 앗아당 꽂아. 절대 대답 못 헤여. 나가 그냥 신경이 날 카로와가지고. 그냥 해녀질허멍 신경질만 막 나난. 그것이 쿠세뒈불언. ᄒᆞ꼼허믄 팔딱팔딱허연. 야 바당에 가보라 신경 안 쓰나? 그날 재수가 좋으면은 아니허고 아무것도 못헌 날은 신경이 막 화륵화륵. 집에 와도 마찬가지. 게난 아방이 뭐 재산이 잇나, 무신 기술이 잇나.(뭐 대답하는 애긴 하나도 없어. 나 대답했다가는 이 성질나면 몽둥이로 무

슨 거, 이제 늙은 아들도 그냥 갖다가 꽂아. 절대 대답 못 해. 나가 그냥 신경이 날카로워가지고. 그냥 해녀일 하면서 신경질만 막 나니까. 그것이 버릇 돼버렸어. 조금하면 팔딱팔딱해서. 야 바다에 가보라 신경 안 쓰나? 그날 재수가 좋으면 안 하고 아무것도 못 한 날은 신경이 막 우르르. 집에 와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남편 뭐 재산이 있나, 무슨 기술이 있나.)

102015 @ 걸로 살앗으니까.(걸로 살았으니까.)

102015 #1 거난 놈의 밧 벵작허단 벵작 아니뒈민 번쩍 손들르곡 그렇게 헨. 이 바당에서만 산거야. 바당에 강 와야 아이덜 차비도 주고 뭐 학비도 내여 주고.(그러니까 남의 밭 병작하다가 병작 안 되면 번쩍 손들고 그렇게 했어. 이 바다에서만 산거야. 바다에 가서 와야 아이들 차비도 주고 뭐 학비도 내어 주고.)

102015 @ 게난마씨.(그러니까요.)

102015 #1 바당에서만 살앗어.(바다에서만 살았어.)

3. 밭일

보리농사

103002 @ 자 이번에는 예, 밧일, 보리농사를 지으려면 밧일 중에 보리농사에 대한 이야기우다예.(자 이번에는 예, 밭일, 보리농사를 지으려면 밭일 중에 보리농사에 대한 이야깁니다요.)

103002 #1 응. 알아. 알아.(응. 알아. 알아.)

103002 @ 보리농사 지어봣지예? 신촌에 보리농산 어떻게 지었을까 이런 얘기우다예.(보리농사 지어봤지요? 신촌에 보리농산 어떻게 지었을까 이런 얘깁니다.)

103002 #1 보리가, 이제는 부념 잇잖아. 옛날은 부념이 엇엇어.(보리가, 이제는 '부념' 있잖아. 옛날은 '부념'이 없었어.)

103002 @ 보리농사를 지으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합니까?(보리농사를 지으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합니까?)

103002 #1 어떤 준비가 허나. 나 뭐 보리 삐여근에이 보리 삐여가지고 끄실퀴라 헌 거 잇어. 소낭, 소나무 헤당 만들어근에 이렇게 끄서가믄 걸로 민짝 더꺼져.(어떤 준비가 하나. 나 뭐 보리 뿌려서 보리 뿌려가지고 끙게라 헌 거 있어. 소나무, 소나무 해다가 만들어서 이렇게 끌어가면 걸로 모두 덮어져.)

103002 @ 섬피가 아니고 끄실퀴?(끙게가 아니고 '끄실퀴?')

103002 #1 끄실퀴.(끙게.)

103002 @ 끄실?(끄실?)

103002 #1 끄실퀴. 끄서가니까, 끄시니까 끄실퀴라고 헤.(끙게. 끌어가니까, 끄니까

끙게라고 해.)

103002 @ 끄실퀴예? 신촌에서는예.(끙게요? 신촌에서는요.)

103002 #1 응 걸로 덮어. 소나무 끄쳐다근에 만들앙 메. 이만이 무껑 돌이, 돌 지들롼이, 막 끗잔아. 경헤사 그것이 풴풴허게 보리가 다 묻어지지 경 안허믄이 나오믄 가마귀 다 주서 먹어 불어.(응. 걸로 덮어. 소나무 끊어다 만들어서 매. 이만큼 묶어서 돌이, 돌 눌러서, 막 끌잖아. 그렇게 해야 그것이 편편하게 보리가 다 묻어지지. 그렇게 안하면 나오면 까마귀 다 주워 먹어버려.)

103002 @ 아, 까마귀가예.(아, 까마귀가요.)

103002 #1 그렇지. 게믄 나 보리가 안뒈지. 다 주서 먹으믄 나지 못헤가지고. 게믄 그걸로 더끄잖아. 막 곰베옌 헌 것이 잇어이. 걸로 벙에로 막 두들고, 거 보리씨 이제 감추느라고. 그렇게 힘들어 살앗다 우리.(그렇지. 그러면 나 보리가 안 되지. 다 주워 먹으면 나지 못해가지고. 그러면 그걸로 덮잖아. 막 곰방메라고 한 것이 있어. 걸로 덩어리 막 두들기고, 거 보리씨 이제 감추느라고. 그렇게 힘들어 살았다 우리.)

103002 @ 보리 하나씩 질문이 틀려예.(보리 하나씩 질문이 틀려요.)

103002 #1 응.(응.)

103002 @ 보리농사를 지으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하고?(보리농사를 지으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하고?)

103002 #1 이제는 그냥 잇주만은 그땐 부념 엇엇어이.(이제는 그냥 있지만 그땐 '부념' 없었어.)

103002 @ 부념?('부념'?)

103002 #1 그땐 부념 안 낫어. 우리 헐 때는.(그땐 '부념'. 우리 할 때는.)

103002 @ 부념?(부념?)

103002 #1 그렇지.(그렇지.)

103002 @ 부념이 뭣과?('부념'이 뭡니까?)

103002 #1 보리 부념 잇잔아, 걸르는 거. 부념 몰라? 보리왓디 들이는 부념. 아니 낭밧디도 부념 안 들이나? 미깡밧디.(보리 '부념' 있잖아. 거르는 거. '부념' 몰라? 보리밭에 들이는 '부념'. 아니 나무밭에도 '부념' 안 들이니? 귤 밭에.)

103002 @ 미깡밧디도 부념허여?(귤 밭에도 '부념'해?)

103002 #1 그렇지.(그렇지.)

103002 @ 부념이 뭐꽈?('부념'이 뭡니까?)

103002 #1 걸름이야 걸름.(거름이야 거름.)

103002 @ 걸름을 부념이렌 허여?(거름을 '부념'이라고 해?)

103002 #1 그렇지.(그렇지.)

103002 @ 응. 보리농사를 지으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합니까?(응. 보리농사를 지으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합니까?)

103002 #2 아, 첫째 퉤비죠 뭐.(아, 첫째 퇴비죠 뭐.)

103003 @ 보리밧 걸름은 어떻게 마련합니까? 부념이렌 헤예. 여기서는예.(보리밭 거

름은 어떻게 마련합니까? ‘부넘’이라고 해요. 여기서는요.)

103003 #1 경허고이, 뒈지이. 뒈지 길루와근에 뒈지 똥으로도 걸름허곡, 소, 말 길루왕 걸로도 걸름허고.(그렇게 하고, 돼지. 돼지 길러서 돼지 똥으로도 거름하고, 소, 말 길러서 걸로도 거름하고.)

103003 @ 소, 말 길뢍?(소, 말 길러서?)

103003 #1응.(응.)

103003 @ 걸 걸름을 어떻게 허는 방법을.(걸 거름을 어떻게 하는 방법을.)

103003 #1 무싱 걸로?(무슨 걸로?)

103003 @ 퇘지통에 걸름을 어떵?(돼지우리에 거름을 어떻게?)

103003 #1 뒈지를 길루젠 허면은 보릿대 잇잔아. 보릿낭.(돼지를 기르려고 하면 보릿대 있잖아. 보릿대.)

103003 @ 보릿낭.(보릿대.)

103003 #1 그걸 막 담아놔.(그걸 막 담아놔.)

103003 @ 담아놔.(담아놔.)

103003 #1 담아노민 이제, 이제는 화장실 쓸. 그때 당시는 뒈지가 똥 먹엇어.(담아놓으면 이제, 이제는 화장실 쓸. 그때 당시는 돼지가 똥 먹었어.)

103003 @ 예.(예.)

103003 #1 뒈지 질루와가지고 이제 그 돼지가 헤민 이젠 그 돼지 통시에 걸름 내여.(돼지 길러가지고 이제 그 돼지가 하면 이젠 그 돼지 통시에 거름 내여.)

103003 @ 예.(예.)

103003 #1 걸름 내여근에 그거 이제 좀.(거름 내여서 그거 이제 좀.)

103003 @ 어디 놔둬? 거.(어디 놔둬? 거.)

103003 #1 이 이런 디 내둬.(이 이런 데 내둬.)

103003 @ 담벼락에?(담벽에?)

103003 #1 응. 즈끗디. 무거왕 먼 디 들러가지나게?(응. 곁에. 무거워서 먼 데 들고 갈 수 있니?)

103003 @ 맞아.(맞아.)

103003 #1 통시에 거 막 무거운 건디.(돼지우리에 거 막 무거운 건데.)

103003 @ 거 누가 헤마씨? 남자덜이?(거 누가 해요? 남자들이?)

103003 #1 아방[54]이. 아방 산 때.(아버지가. 아버지 산 때.)

103003 @ 글겡이로?(갈퀴로?)

103003 #1 거 걸름 잇인 사람은 밧 빌려주고 경 안 헌 사름은 안 빌려줘.(거 거름 있는 사람은 밭 빌려주고 그렇게 안한 사름은 안 빌려줘.)

103003 @ 집에 그거 봥은에.(집에 그거 봐서.)

103003 #1 그것도 허고 또시 바당에 곡제기[55] 즈물아다가.(그것도 하고 또 바다에

54) ‘아방’은 아버지의 제주어이지만 여기서는 남편의 의미로 사용한 것이다.

55) ‘곡제기’는 고제기 듬북. 고족묾, 고지기라고도 불리며 듬북의 일종으로 주로 밭에 거름으로 사용한다.

‘곡제기’ 채취해다가.)

103003 @ 곡제기가 감테 닮은 것꽈?(‘곡제기’가 감태 닮은 겁니까?)

103003 #1 감테보단 좀질아.(감태보단 가늘어.)

103003 @ 곡제기. 바당에 곡제기. 그것도 좀진 거. 걸름이 뒈는데 그냥 생으로 헙니까? 물류왓당 거름을 헙니까?(곡제기. 바다에 ‘곡제기’. 그것도 거름이 되는데 그냥 생으로 합니까? 말렸다 거름을 합니까?)

103003 #1 놀것이 좋지만은 힘들어. 물류왕 들이지.(날것이 좋지만 힘들어. 말려서 들이지.)

103003 @ 물류왕 놧당, 눌엉 놧당?(말려서 놨다가, 가리어서 놨다가?)

103003 #1 응. 경헷다근에 이제 보리 갈아나믄 그 우터레 다 끌아.(응. 그렇게 했다가 이제 보리 갈아나면 그 위에 다 깔아.)

103003 @ 거름예. 퉤비? 거름은 어떻게 마련합니까?(거름이요. 퇴비? 거름은 어떻게 마련합니까?)

103003 #2 옛날에 이 우리 소 물 메는디는 마구간에 쓰는 퉤비를 쓰고 뒈야지 우리에서 또 여하튼 퉤비 쓰고 뒈야지 길르믄 밧은 먹으면 곡식이 잘되니까.(옛날에 우리 소, 말 매는 데는 마구간에 쓰는 퇴비를 쓰고 돼지우리에서 또 여하튼 퇴비 쓰고 돼지 기르면 밭은 먹으면 곡식이 잘되니까.)

103003 @ 삼춘은 거름을 도새기 거기 통시에 다.(삼춘은 거름을 돼지 거기 돼지우리에 다)

103003 #2 아, 저 남군엔 보니까 그걸 막 마당에 놔가지고 다 남군은 보리씨 삐어서 불롸가지고 허는디 그런거 잘뒈믄 보기 좋습니다. 아주 농사를 지어보믄 자미날 때가 잇어요. 자미잇일 때가 잇어요. 그니까 거름을 잘하고 관리를 잘허면 춤 잘 뭘 때가 있어요.(아, 저 남군엔 보니까 그걸 막 마당에 놔가지고 다 남군은 보리씨 뿌려서 밟아가지고 하는데 그런 거 잘되면 보기 좋습니다. 아주 농사를 지어보면 재미날 때가 있어요. 재미있을 때가 있어요. 그니까 거름을 잘하고 관리를 잘하면 참 잘 될 때가 있어요.)

103003 @ 그러면 밧을 갈멍 거름을 헙니까? 씨를 뿌리멍 씨를 먼저 뿌립니까? 거름을 먼저 헙니까?(그러면 밭을 갈면서 거름을 합니까? 씨를 뿌리면서 씨를 먼저 뿌립니까? 거름을 먼저 합니까?)

103003 #2 밧 갈아 놔서 거름 막 뿌리고 씨를 우린 그자.(밭 갈아 놔서 거름 막 뿌리고 씨를 우린 그저.)

103003 @ 거름 뿌리고 씨를 뿌려마씨?(거름 뿌리고 씨를 뿌려요?)

103003 #2 거름을 미릿 줘야주.(거름을 미리 줘야지.)

103003 @ 예. 거름을 미릿 주고, 바로 그날에 합니까? 당일 날에 밧 가는 날에?(예. 거름을 미리주고, 바로 그날에 합니까? 당일 날에 밭 가는 날에?)

103003 #2 가까워오민 그자 이삼일 전이 거름을 뿌려두고.(가까워오면 그저 이삼 일 전에 거름을 뿌려두고.)

103003 @ 걸름도 똑같이 헙니까? 맥주보리나 술보리나?(거름도 똑같이 합니까? 맥

주보리나 쌀보리나?)

103003 #2 그니까 퉤비를 저 많이 잇으면 좋고, 뭐 이 저 화약비료만 많이 잇어도 퉤긴 허는데 조끄만 헤도 퉤비만은 못허죠.(그러니까 퇴비를 저 많이 있으면 좋고, 뭐 이 저 화약비료만 많이 있어도 되긴 하는데 조금만 해도 퇴비만은 못하죠.)

103003 @ 삼촌은 보리농사 허는 걸 누구안테 배왓덴 생각헴수꽈? 아부지, 어머니?(삼촌은 보리농사 허는 걸 누구한테 배웠다고 생각합니까? 아버지, 어머니?)

103003 #2 거 저 남허는 거 봐서 햇죠. 뭐.(거 저 남 하는 거 봐서 했죠. 뭐.)

103003 @ 멧 술부터 이거를 어머니 도웨고?(몇 살부터 이거를 어머니 돕고?)

103003 #2 어린 때는 농수를 전혀 아니 생각을 헷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는 예닐곱 술에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그때부터는 그걸 생각을 헷죠.(어린 때는 농사를 전혀 아니 생각을 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는 예닐곱 살에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그때부터는 그걸 생각을 했죠.)

103004 @ 아아. 보리는 언제 누가 어떻게 갑니까?(아아. 보리는 언제 누가 어떻게 갑니까?)

103004 #1 어떻게 ᄀᆞ냐. 콩 있잔아. 거 그레 이제 보리덜 다 갈잔아. 이제 ᄀᆞᆯ 시기야.(어떻게 가냐. 콩 있잖아. 거 거기 이제 보리들 다 갈잖아. 이제 갈 시기야.)

103004 @ 지금이 멧 월이꽈? 음력?(지금이 몇 월입니까? 음력?)

103004 #1 음력이 구월달 아냐? 시월 나민 보릴 갈아. 음력 시월달.(음력이 구월 아냐? 시월 나면 보릴 갈아. 음력 시월.)

103004 @ 음력 시월 나면 보리 갈아예?(음력 시월 나면 보리 갈아요?)

103004 #1 응.(응.)

103004 @ 콩 그르?(콩 그루?)

103004 #1 콩 그르[56]나 뭐 보리 그르나 건 뭐 뒈는 대로.(콩 그루나 뭐 보리 갈았던데나 건 뭐 되는 대로.)

103004 @ 누가, 소가 있는 사람, 아부지가, 남편이 갑니까?(누가, 소가 있는 사람, 아버지가, 남편이 갑니까?)

103004 #1 그렇지. 소 길룅.(그렇지. 소 길러서.)

103004 @ 소 키우고 있으니까. 어떻게 갑니까?(소 키우고 있으니까. 어떻게 갑니까?)

103004 #1 아, 어떻게 가냐. 소 몰아가지고 거 밧가는 거. 거 쒜가 잇어. 넙작헌거. 쟁기?(아, 어떻게 가냐. 소 몰아가지고 거 밭가는 거. 그거 소가 있어. 넙적한 거. 쟁기?)

103004 #1 것ᄀᆞ라.(것보고.)

103004 @ 잠대?(잠대?)

103004 #1 맞아, 것ᄀᆞ라 잠대. 잘 알암신게 잠대, 그걸로 갈지. 소 몰아 아졍간.(맞아, 것보고 잠대. 잘 알고 있네. 잠대, 그걸로 갈지. 소 몰아 가져갔어.)

103004 @ 갈믄 여자들은 뭘 헙니까? 보리를 삐어?(갈면 여자들은 뭘 합니까? 보리

56) '그르'는 농사를 지었던 자리를 말한다.

를 뿌려?)

103004 #1 여자덜은 부념도 허고.(여자들은 거름도 허고.)

103004 @ 부념은 거름을 바로 우이로? 골체에 담앙?('부념'은 거름을 바로 위로? 삼태기에 담아서?)

103004 #1 부념 잇잖아. 골체에 담앙 허는 건 걸름.('부념' 있잖아. 삼태기에 담아서 하는 건 거름.)

103004 @ 걸름. 골체에 담는 건 걸름이고.(거름. 삼태기에 담는 건 거름이고.)

103004 #1 부념은 뭐 바구니나 세싸리나 아져당 삐는 거. 부념은.('부념'은 뭐 바구니나 '세싸리'나 가져다가 뿌리는 거. '부념'은.)

103004 @ 부념은 씨 뿌리는 것꽈?('부념'은 씨 뿌리는 겁니까?)

103004 #1 아, 씨도 경 헹 뿌리곡 그냥 부념도 경 헹 뿌리곡. 부념이 웃부념 잇고 알부념 잇어.(아, 씨도 그렇게 해서 뿌리고 그냥 '부념'도 그렇게 해서 뿌리곡. '부념'이 '웃부념' 있고 '아랫부념' 있어.)

103004 @ 웃부념은 뭣고, 알부념은 뭣꽈?('웃부념'은 뭐고, '알부념'은 뭡니까?)

103004 #1 요소, 요소 부념. 알부념은.(요소, 요소 '부념'. '알부념'은.)

103004 @ 아, 비료 말하는 거?(아, 비료 말하는 거?)

103004 #1 거 부념, 걸름. 걸름은 돼지 통시에 난 것이 걸름이고.(그거 '부념', 거름. 거름은 돼지 통시에 난 것이 거름이고.)

103004 @ 부념은 비료?('부념'은 비료?)

103004 #1 어 비료, 비료.(어 비료, 비료.)

103004 @ 비료를 웃비념, 알비념?(비료를 '웃부념', '알부념'?)

103004 #1 그래. 알부념 잇고, 웃부념 잇지.(그래. '알부념' 있고, '웃비념' 있지.)

103004 @ 아, 비료는 사당 허는 거 아니예?(아, 비료는 사다가 하는 거 아니예요?)

103004 #1 사와야지.(사와야지.)

103004 @ 옛날에도 잇엇수꽈?(옛날에도 있었습니까?)

103004 #1 농협에 강 사다근에.(농협에 가서 사다가.)

103004 @ 부념은 비료구나.('부념'은 비료구나.)

103004 #1 농협으로 나오잔아.(농협으로 나오잖아.)

103004 @ 옛날 아주 더 옛날에는 부념 안헷지예.(옛날 아주 더 옛날에는 '부념' 안 했지요.)

103004 #1 안헷지. 돼지 통시 꺼허고 사름이 오줌 싸잔아. 그것을 허벅에다가 질어가지고 세숫싸리에 아시다근에 검질매당 올 땐 걸로 밧디 보리더레 뿌려뒁 와.(안했지. 돼지 통시 거하고 사름이 오줌 싸잖아. 그것을 허벅에다가 길어가지고 세숫대야에 갖다다가 김매다가 올 땐 걸로 밭에 보리에 뿌려두고 와.)

103004 @ 그 진 거를. 거 썩어야 뒈지예? 썩은 거? 썩은 오줌?(그 진 거를. 거 썩어야 되지요? 썩은 거? 썩은 오줌?)

103004 #1 오줌항 잇잔아. 오줌 받은 거 걸로 질어다가 뿌리지.(오줌항아리 있잖아.

오줌 받은 거 걸로 길어다가 뿌리지.)

103004 @ 보리씨 뿌린 우에? 보리 나면?(보리씨 뿌린 우에? 보리 나면?)

103004 #1 보리 나기 전에도 뿌리곡, 난 후에도 뿌려.(보리 나기 전에도 뿌리고, 난 후에도 뿌려.)

103004 @ 아, 그게 어떵 뿌립니까? 그냥 좔락좔락?(아, 그게 어떻게 뿌립니까? 그냥 '좔락좔락'?)

103004 #1 아니야, 이렇게 허벅 잇잔아, 오줌허벅.(아니야, 이렇게 허벅 있잖아. 오줌허벅.)

103004 @ 예.(예.)

103004 #1 부려가지고 검질메당 나올 땐 오줌허벅 물구덕에 꺼 이레 내료왕.(내려가지고 김매다가 나올 땐 오줌허벅 물구덕에 꺼 이리 내려서.)

103004 @ 예.(예.)

103004 #1 이레 팡팡 부어가지고 삭삭 뿌리지. 경허민 뿌려난 딘 페적을 허여.(이레 팡팡 부어가지고 삭삭 뿌리지. 그렇게 하면 뿌렸던 덴 표적을 허여.)

103004 @ 아아.(아아.)

103004 #1 왜 페적을 허냐믄 듯날 몰라. 게난 거 무신 바당에 곡제기 ᄀᆞ뜬 걸 막아 아졍 갔다가 걸로 영 ᄀᆞ리영. 경허멍 살앗저. 야야, 그땐 기계가 잇나? 보리 비영 도께로 두두려. 도레긴가 뭔가.(왜 표적을 하냐면 뒷날 몰라. 그러니까 거 무슨 바다에 곡제기 같은 걸 막아져서 갔다가 걸로 이렇게 ᄀᆞ리영. 그렇게 하면서 살았다. 야야, 그땐 기계가 있나? 보리 베여서 도리깨로 때려. 바퀴인가 뭔가.)

103004 @ 음.(음.)

103004 #1 그걸로 두들어놧자 말제에 뒈가난 보리태작기계 나왓주.(그걸로 두들겨놔도 말제에 돼가니까 보리타작기계 나왔지.)

103004 @ 음.(음.)

103004 #1 고고리 게믄 쏠 엇이면은 보리 익어 가민이 좀 쏠이 영 벌겨가민이 그 할마니가 이렇게 이렇게 헤다가 영 ᄆᆞ까가지고 집이왕 덕석에서 이렇게 발로도 ᄇᆞᆯ르고 손으로 난 허는 거 봣지. 부비다가 그놈을 이젠 솟디 물 놩 숢아. 숢아가지고 건져. 건져근에 덕석, 거 너는 거 덕석.(이삭 그러면 쌀 없으면 보리 익어 가면 좀 쌀이 이렇게 벌어져 가면 그 할머니가 이렇게, 이렇게 해다가 이렇게 마쳐가지고 집에 와서 덕석에서 이렇게 발로도 바르고 손으로 난 하는 거 봤지. 비비다가 그놈을 이젠 솥에 물 놔서 삶아. 삶아가지고 건져. 건져서 덕석, 거 너는 거 덕석.)

103004 @ 멍석?(멍석?)

103004 #1 멍석, 그것에 ᄆᆞᆯ류와. ᄆᆞᆯ류민 이제는 이, 그거 ᄆᆞᆯ류민 이만이헌 멧돌 잇어. 사름 대엿개 ᄃᆞᆯ아져야 그걸 ᄀᆞᆯ아. 것에 헤다근에 ᄆᆞᆯ류왕 멧돌로 영 벌렁 밥도 헹 먹곡, 죽도 쒕 먹곡, 그렇게 헨.(멍석, 그것에 말려. 말리면 이제는, 그거 말리면 이만한 맷돌에서 사람 대여섯 개 매달려야 그걸 갈아. 것에 해서 말려서 맷돌로 이렇게 쪼개서 밥도 해서 먹고, 죽도 쒀서 먹고, 그렇게 했어.)

103004 @ 익으믄예.(익으면요.)

103004 #1 아니.(아니.)

103004 @ 익기 전에?(익기 전에?)

103004 #1 아니, 보리 장만헤영 보리.(아니, 보리 장만해서 보리.)

103004 @ 으응. 장만허영.(으응. 장만해서.)

103004 #1 보리. 보리가, 쌀이 색깔이 물긋물긋 헤가민 영허믄 부허믄 그때는 이제 우의로 호미로 톡톡 헤다가 할무니가 가마니에 담아가지고 이제 그놈을 막 ᄆᆞᆯ령 부벼가믄 빨리 ᄆᆞᆯ류라고 솟디 놩 솖아. 경 헹 건져네영 또 ᄆᆞᆯ류왕은에.(보리. 보리가, 쌀이 색깔이 물긋물긋 해가면 이렇게 하면 부하면 그때는 이제 위로 낫으로 톡톡 해다가 할머니가 가마니에 담아가지고 이제 그놈을 막 말려서 비벼 가면 빨리 말리라고 솥에 놔서 삶아. 그렇게 해서 건져내서 또 말려서.)

103004 @ 아이고.(아이고.)

103004 #1 경 헤영 이젠 ᄀᆞ레에 강 둥글려당 ᄆᆞᆯ류왕 또 돌, 돌 것ᄀᆞ라 뭐?(그렇게 해서 이젠 맷돌에 가서 굴려다가 말려서 또 돌, 돌 그것보고 뭐?)

103004 @ ᄀᆞ레.(맷돌.)

103004 #1 ᄀᆞ레 멧돌, 걸로 이제 ᄀᆞᆯ아근에 홁은 놈은 밥헹 먹곡, 준 거는 죽 쒕 먹곡.(맷돌, 걸로 이제 갈아서 굵은 놈은 밥해서 먹고, 가는 거는 죽 쒀서 먹고.)

103004 @ 보리죽?(보리죽?)

103004 #1 응. 그렇게 헤연.(응. 그렇게 했어.)

103004 @ 보리죽 쑬 땐 뭐 놓지 안 헙니까?(보리죽 쑬 땐 뭐 놓지 안합니까?)

103004 #1 뭐 아무것도 안 헹 그냥 쑤주.(뭐 아무것도 안 해서 그냥 쑤지.)

103004 @ 그냥 쑤고.(그냥 쑤고.)

103004 #1 할마니가 헷주. 우린 그런 거(할머니가 했지. 우린 그런 거)

103004 @ 보리가 엇이믄 어떵 살아서예?(보리가 없으면 어떻게 살았나요?)

103004 #1 게난 이제 속 아파. 이런 좋은 세상에 좋은 옷에 좋은 밥에 먹단 돌아가시민 헐 건데 먹으멍도 속이 아파.(그러니까 이제 속 아파. 이런 좋은 세상에 좋은 옷에 좋은 밥에 먹다가 돌아가시면 할 건데 먹으면서도 속이 아파.)

103005 @ 음. 보리씨는 어떻게 뿌립니까?(음. 보리씨는 어떻게 뿌립니까?)

103005 #1 어떻게 뿌리냐. 이렇게 그 씨 멩텡이가 잇어 요만이헌. 영헤근에 저 산뒤찍으로.(어떻게 뿌리냐. 이렇게 그 씨 멱서리가 이서 요만큼 한. 이렇게 해서 저 밭볏짚으로.)

103005 @ 아아.(아아.)

103005 #1 할으버지덜 요만이 허영 영 메는 것이 잇어. 메, 테레비에 안 나와?(할아버지들 요만큼 해서 이렇게 매는 것이 있어. 매, 텔레비젼에 안 나와?)

103005 @ 예.(예.)

103005 #1 그걸로 헤여다가 싹싹, 메영 막 뿌려.(그걸로 해다가 싹싹, 매여서 막 뿌려.)

103005 @ 삼촌도 뿌립니까?(삼촌도 뿌립니까?)

103005 #1 나 안 삐여.(나 안 뿌려.)

103005 @ 남자가?(남자가?)

103005 #1 아방이 뿌리주. 거 아무나 못 뿌려.(아방이 뿌리지. 거 아무나 못 뿌려.)

103005 @ 그난.(그러니까.)

103005 #1 가는 딘 가곡, 안가는 딘 아니 가잖아. 선수덜은 다 쭉 골르게 뿌리는디 우리는 찌륵탁, 짜륵탁 허멍 가는 딘 가고 안가는 딘 보리 안 나.(가는 덴 가고, 안가는 덴 아니 가잖아. 선수들은 다 쭉 고르게 뿌리는데 우리는 '찌륵탁, 짜륵탁' 하면서 가는 덴 가고 안가는 덴 보리 안 나.)

103005 @ 아무나 뿌리는 게 아니로구나.(아무나 뿌리는 게 아니로구나.)

103005 #1 거, 그래.(거, 그래.)

103005 @ 여자도 잘 뿌리는 사람은 잘 허고.(여자도 잘 뿌리는 사람은 잘 하고.)

103005 #1 잘 뿌리는 사람 잘 뿌리고, 우린 안 헤. 못 헤.(잘 뿌리는 사람 잘 뿌리고, 우린 안 해. 못 해.)

103005 @ 해녀 일이 더 잘헷다는 거지예.(해녀 일이 더 잘했다는 거지요.)

103005 #1 해녀만 허니까 그런 것도 잘 안 허고, 아방 대목허지.(해녀만 하니까 그런 것도 잘 안하고, 아방 대목하지.)

103005 @ 아저씨가 잘 헷구나양.(아저씨가 잘 했군요.)

103005 #1 응. 겐디 아저씨가 검질을 못 매요.(응. 그런데 아저씨가 김을 못 매요.)

103005 @ 무산고예. 남자들은 검질을 잘 안 맵디다.(왠가요. 남자들은 김을 잘 안 맵디다.)

103005 #1 안 헤. 안 헤여. 아쳬, 아쳬, 안 헤. 다른 일은 헤도 검질은 못 메켄.(안 해. 안 해. 아예, 아예, 안해. 다른 일은 해도 김은 못 매겠다고.)

103005 @ 제주도 남자덜 다?(제주도 남자들 다?)

103005 #1 어, 어, 메는 일 잘 메여. 겐디 우리집이 애기아빠는 절대 안허켄. 못허켄. 허리 아프고 무릅 아프고 다 정허멍 헴젠 헤도 들은 체도 안 헤여. 안 헤. 안 헤. 검질 안 매여 봣어. 이때꼬지.(어, 어, 매는 일 잘 매여. 그런데 우리 집의 애기아빠는 절대 안하겠다고. 못하겠다고.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프고 다 져서 하면서 한다고 해도 들은 체도 안 해. 안 해 안 해. 김 안 매 봤어. 이때까지.)

103005 @ 이삼일 전이 거름을 뿌려두고 씨는 누게가 뿌립니까?(이삼일 전에 거름을 뿌려두고 씨는 누가 뿌립니까?)

103005 #2 거 각자가 다 아무라도 뿌리주. 잘 뿌리는 사람은 골고루 꼭 나고 잘못 뿌린 사람은 나는 딘 푹삭 나곡 안 나는 디 안 나고.(거 각자가 다 아무라도 뿌리지. 잘 뿌리는 사람은 골고루 꼭 나고 잘못 뿌린 사람은 나는 덴 푹삭 나고 안 나는데 안 나고.)

103005 @ 보리씨는 어떻게 뿌립니까?(보리씨는 어떻게 뿌립니까?)

103005 #2 보리씨도 모든 씨가 보리씨 아니라, 콩씨, 보리씨, 팟씨 뭐 다 마찬가지로

다 보릿방울 나가는 것을 봐서 던져야지 던진 디 또 던지곡 그러면 안뒈고.(보리씨도 모든 씨가 보리씨 아니라, 콩씨, 보리씨, 팥씨 뭐 다 마찬가지로다 보리방울 나가는 것을 봐서 던져야지 던진 데 또 던지고 그러면 안 되고.)

103006 @ 보리 종류는 어떤 종류가 잇수과? 솔보리여 맥주보리여.(보리 종류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쌀보리여 맥주보리여.)

103006 #1 맥주보리 허고 솔보리.(맥주보리 하고 쌀보리.)

103006 @ 겉보리는 뭐꽈?(겉보리는 뭡니까?)

103006 #1 겉보리가 맥주보리지.(겉보리가 맥주보리지.)

103006 @ 아, 겉보리가 맥주보리.(아, 겉보리가 맥주보리.)

103006 #1 그놈의 거는 ᄀᆞ레에 ᄀᆞᆯ아도 겁적이 잘 벗어지질 안해여.(그놈의 거는 맷돌에 깔아도 껍데기가 잘 벗겨지질 않아.)

103006 @ 겁적이?(껍데기?)

103006 #1 겁적, 겁적. 벗어지질 잘 안허는데 오래 ᄀᆞᆯ아야 벗어지지 솔오리는 빨리 벗어지곡. 겉보리는 힘들어. 그거 벳기젠 허믄. 물에 그 보릴 ᄃᆞᆼ갓다가 ᄀᆞᆯ잔아.(껍데기, 껍데기. 벗어지질 잘 안하는데 오래 갈아야 벗어지지 겉보리는 빨리 벗어지고. 겉보리는 힘들어. 그거 벗기려고 하면. 물에 그 보릴 담갔다가 갈잖아.)

103006 @ 겉보린예.(겉보린요.)

103006 #1 ᄋᆞ. 큰 맷돌 이, 혼 대ᄋᆞ섯이 둥글리는 거 큰 돌, 그것에서 강 ᄀᆞᆯ아.(응. 큰 맷돌 이, 한 대여섯이 둥글리는 거 큰 돌, 그것에서 가서 갈아.)

103006 @ ᄆᆞᆯᄀᆞ레 아니?(연자매 아니?)

103006 #1 ᄆᆞᆯ, ᄆᆞᆯ방엔깐. 그난 ᄆᆞᆯ로 ᄀᆞ니까 ᄆᆞᆯ방에로.(말, 연자매. 그러니까 말로 가니까 연자매로)

103006 @ ᄆᆞᆯ로 ᄀᆞ니까 ᄆᆞᆯᄀᆞ레엔도 허고예.(말로 가니까 연자매라고도 하고요.)

103006 #1 ᄆᆞᆯ방에, ᄆᆞᆯ방에.(연자매, 연자매.)

103006 @ ᄆᆞᆯ방에예. 그믄 솔보리, 맥주보리가 있었고.(연자매요. 그러면 겉보리, 맥주보리가 있었고.)

103006 #1 맥주보리가 겉보리고 겉보리가 맥주보리고.(맥주보리가 겉보리고 겉보리가 맥주보리고.)

103006 @ 예.(예.)

103006 @ 보리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잇습니까?(보리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103006 #2 우리가 겉보리는 잘 안 갈아보고 맥주 맥은 맥주 맥허고 솔보리.(우리가 겉보리는 잘 안 갈아보고 맥주 맥은 맥주 맥하고 쌀보리.)

103006 @ 무사 겉보리는 안 갈아마씨? 맥주보리는?(왜 겉보리는 안 갈아요? 맥주보리는?)

103006 #2 맥주보리는 주정도 허고 겉보린 겉보린데 맛도 잇고.(맥주보리는 주정도 하고 겉보린 겉보린데 맛도 있고.)

103006 @ 밥도 헤먹어마씨? 맥주맥이?(밥도 해먹어요? 맥주맥이?)

103006 #2 밥도 헤먹을 수도 잇고, 저 전분으로도 헐 수 잇고, 맥주도 만들고 뭐 주정도 허고 뭐 아주.(밥도 해먹을 수도 있고, 저 전분으로도 할 수 있고, 맥주도 만들고 뭐 주정도 하고 뭐 아주.)

103006 @ 술보리를 더 많이 헙니까? 맥주보리를 헙니까? 술보리는 밥 헹먹는 거꽈?(쌀보리를 더 많이 헙니까? 맥주보리를 합니까? 쌀보리는 밥해서 먹는 겁니까?)

103006 #2 술보린 식량으론 최고죠.(쌀보린 식량으론 최고죠.)

103006 @ 맥주보리는 풀려고 허는 거고예?(맥주보리는 팔려고 하는 거고요?)

103006 #2 맥주보리는 그 상인들이 사가니까.(맥주보리는 그 상인들이 사가니까.)

103007 @ 예, 보리밭 밟기는 어떻게 합니까? 보리밭 밟는 거. 겨울에, 저실 들민.(예, 보리밭 밟기는 어떻게 합니까? 보리밭 밟는 거. 겨울에, 겨울 들면.)

103007 #1 그게 밧으로 가지. 밧이 존 밧은 아이 불려도 뒈어.(그게 밭으로 가지. 밭이 좋은 밭은 아니 밟아도 돼.)

103007 @ 으음.(으음.)

103007 #1 나쁜 밧은 이, 불려야 혀. 경 안허민 보릿발 다 들려부렁 죽어 불어.(나쁜 밭은 이, 밟아야 해. 그렇게 안하면 보릿발 다 들려서 죽어버려.)

103007 @ 보릿발 다 들러부렁.(보릿발 다 들려서.)

103007 #1 ᄋᆞ 폭삭폭삭허니까 밧이 존 밧은 안 불려도 뒈곡. 뜬 밧은 이, 불려야 혀.(응. 폭삭폭삭하니까 밭이 좋은 밭은 안 밟아도 되고. 뜬 밭은 밟아야 해.)

103007 @ 뜬 밧예. 신촌도 불려수과? 많이.(뜬 밭이요. 신촌도 밟았습니까? 많이.)

103007 #1 불리지. 이 그 뜬 밧이 잇어.(밟지. 이 그 뜬 밭이 있어.)

103007 @ 으음.(으음.)

103007 #1 존 밧은 아이 불려도 되고.(좋은 밭은 아니 밟아도 되고.)

103007 @ 삼촌도 붋아봐수과?(삼촌도 밟아봤습니까?)

103007 #1 나는 안 불려봇어. 아방이.(나는 안 밟아 봤어. 아버지가.)

103007 @ 막 아이덜 데령강도 불리고?(막 아이들 데려가서도 밟고?)

103007 #1 아이구, 아이구. 혹교ᄒᆞ젠 허믄 안 ᄃᆞᆯ앙가고. 아방이 거 무신 ᄆᆞᆯ이나 무싱 거 아졍 강 불리주기.(아이구, 아이구. 학교하려고 하면 안 데려서가고. 아방이 거 무슨 말이나 무슨 거 가지고 가서 밟았지.)

103007 @ ᄆᆞᆯ, 그런 거 가졍강예. 밟앙 왓덴 ᄀᆞ르곡?(말, 그런 거 가져가서요. 밟아서 왔다고 말하고?)

103007 #1 안 불려도 뒈는디이, 밧이 나쁜 밧은 불려야.(안 밟아도 되는 데, 밭이 나쁜 밭은 밟아야.)

103007 @ 나쁜 밧은 불려야예.(나쁜 밭은 밟아야요).

103007 #1 이 보리 발이 죽어 불어.(이 보리 발이 죽어 버려.)

103007 @ 눈 올 때 불라? 언제 불라?(눈 올 때 밟아? 언제 밟아?)

103007 #1 것이 ᄒᆞᆫ 이월달 삼월달 나가믄 불려야지.(것이 한 이월 삼월 나가면 밟아야지.)

103007 @ 이월이나 삼월달에예.(이월이나 삼월에요.)

103007 #1 음력으로. 난 양력 안 세. 음력으로.(음력으로. 난 양력 안 세. 음력으로.)

103007 @ 보리밧 밟는 거 겨울에 해 봣수과?(보리밭 밟는 거 겨울에 해 봤습니까?)

103007 #2 보리밧 밟는 거? 부락 근처 보릴 갈면 그 보리밧디서 연을 띠와 막 아이덜이 모여서, 그 밧디 보리가 그렇게 잘 뒈어. 밟으믄 잘뒈어.(보리밭 밟는 거? 부락 근처 보릴 갈면 그 보리밭에서 연을 띠와 막 아이들이 모여서, 그 밭에 보리가 그렇게 잘 돼. 밟으면 잘돼.)

103007 @ 정월, 겨울?(정월, 겨울?)

103007 #2 정월달에 보통으로는 정월ᄇᆞ름에 연을 술아 없애니까 그전에.(정월달에 보통으로는 정월보름에 연을 태워 없애니까 그전에,)

103007 @ 정월ᄇᆞ름에 연 날렷던 거 다 술아 불어마씨?(정월보름에 연 날렸던 거 다 태워버려요?)

103007 #2 정월ᄇᆞ름에 술아요.(정월보름에 태워요.)

103007 @ 처음보는 풍습이다예. 몰랏는데.(처음 보는 풍습이네요. 몰랐는데.)

103007 #2 밧 임자덜도 말 안 혜. 보리밧데 다른디 돌아뎅겨도 견디 보리가 잘뒈어. 사람이 불롸주면.(밭 임자들도 말 안 해. 보리밭에 다른 디 돌아다녀도 그런데 보리가 잘돼. 사람이 밟아주면.)

103007 @ 이 밧, 저 밧 다닐 수는 잇겟다예?(이 밭, 저 밭 다닐 수는 있겠네요?)

103007 #2 놀러 갈 수 잇는 밧이나 가지 아무 밧이나 못 가지. 이 가까운 디.(놀러 갈 수 있는 밭이나 가지 아무 밭이나 못 가지. 이 가까운 데)

103007 @ 그때가 멧 살 때꽈? 연 날리곡 헐 때가?(그때가 몇 살 때입니까? 연 날리고 할 때가?)

103007 #2 일곱 술로 열다슷 안이죠.(일곱 살로 열다섯 안이죠.)

103007 @ 일곱 술로 열다슷 안, 그믄 그 연은 누가 만들어줍니까?(일곱 살로 열다섯 안, 그러면 그 연은 누가 만들어 줍니까?)

103007 #2 아, 연은 뭐 우리대로도 만들고 또 잘 만드는 사람안테 대는 잘 가까가지고 부쳐야, 그 연이 잘 뜨고, 뭐 이레도 가젠 허믄 가고, 저레도 가젠 허민 가고, 연도 그 잘 만드는 기술자가 잇어요. 잘 만드는 사람은 잘 만들어요.(아, 연은 뭐 우리대로도 만들고 또 잘 만드는 사람한테 대는 잘 깎아가지고 부쳐야, 그 연이 잘 뜨고, 뭐 이리도 가려고 하면 가고, 저리도 가려고 하면 가고, 연도 그 잘 만드는 기술자가 있어요. 잘 만드는 사람은 잘 만들어요.)

103007 @ 삼촌은 잘 안 만들엇수과?(삼촌은 잘 안 만들었습니까?)

103007 #2 나는 잘 만들진 못허고예.(나는 잘 만들진 못하고요.)

103008 @ 그럼 보리밧 검질매는 거는 몃 번 합니까?(그럼 보리밭 김매는 거는 몇 번 합니까?)

103008 #1 두 번.(두 번.)

103008 @ 두 번? 초불 두불?(두 번? 초벌 두벌?)

103008 #1 응.(응.)

103008 @ 싀 불은 안 맵니까?(세 벌은 안 맵니까?)

103008 #1 세 불도 매는 딘 메주만은 바빵 메어져. 딱 두불 메민 뒈어.(세 벌도 매는 덴 매지만 바빠서 매지나. 딱 두벌 매면 돼.)

103008 @ 그럼 보리밧 검질도 메봇수과?(그럼 보리밭 김도 매봤습니까?)

103008 #2 아이, 나 검질은 못 메엇어. 앚아서 허는 일 허리 아파서 못헤. 그 어린 때부터, 그니까 검질메다가 나 도망도 가고, 아버지, 어머니 ᄀᆞ치 검질메라고 허니까 밧디 강 앚앗다가 어머니, 아부지 못 보는 틈에 도망도 간 적이 잇고.(아이, 나 김은 못 매었어. 앉아서 하는 일 허리 아파서 못해. 그 어린 때부터, 그러니까 김매다가 나 도망도 가고, 아버지, 어머니 같이 김매라고 하니까 밭에 가서 앉았다가 어머니, 아버지 못 보는 틈에 도망도 간 적이 있고.)

103008 @ 그럼 보리밧 검질은 멧 번 멥니까 보리밧 검질?(그럼 보리밭 김은 몇 번 맵니까? 보리밭 김?)

103008 #2 두불도 메고 그거 상당히 곤란해서.(두벌도 매고 그거 상당히 곤란해서.)

103009 @ 어떤 검질들이 자랍니까? 보리밧에는.(어떤 김들이 자랍니까? 보리밭에는.)

103009 #1 소시락콜도 잇고, 난셍이 검질도 잇고, 또 대오리도 잇고.(‘소시락콜’도 있고, 냉이 김도 있고, 또 대오리도 있고.)

103009 @ 대오리, ᄀᆞ라지, 제완지 이런 건 들어봐수과?(귀리. 가라지, 바랭이 이런 건 들어봤습니까?)

103009 #1 ᄀᆞ레조는 조 불릴 때. 보리는 그런 거 엇어. ᄀᆞ레조 엇어. 보리는 대오리, 소시락콜, 난셍이 그런 거나 잇지.(가라지는 조 밟을 때. 보리는 그런 거 없어. 가라지 없어. 보리는 귀리, ‘소시락콜’, 냉이 그런 거나 있지.)

103009 @ 지금은 그거 밖에 보이지 않지예?(지금은 그거 밖에 보이지 않지요?)

103009 #1 뭐?(뭐?)

103009 @ 소시락콜 이런 거 봐집니까?(‘소시락콜’ 이런 거 봐집니까?)

103009 #1 새봄 나사.(새봄 나야.)

103009 @ 소시락콜이 뭔지 잘 몰르쿠다.(‘소시락콜’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103009 #1 여름에는 쒜비념이고. 이 소시락콜이옌 헌 게, 그게 잘 아이 메면은 이, 그거 읏물 가지민 똥글똥글 까망헤. 그놈의 게. 밥헤도 까망헤 그건. 체로 아이 치민 이, 밥해도 그놈의 건 똑 픗 섞은 거 ᄀᆞ치 꺼물꺼물헌 거 잇어. 소시락콜이옌 헌 거. 검질 잘 아이 메민 그렇게 뒈불어.(여름에는 쇠비름이고. 이 ‘소시락콜’이라고 한 거,게 그거 잘 아니 매면, 그거 여물 가지면 똥글똥글 까매. 그놈의 게. 밥해도 까매. 그건. 체로 아니 치민 이, 밥해도 그놈의 건 꼭 팥 섞은 거 같이 꺼물꺼물한 거 있어. ‘소시락콜’이라고 한 거. 김 잘 아니 매면 그렇게 돼 버려.)

103009 @ 아아.(아아.)

103009 #1 검질 깨끗허게 메면 그런 거 없는데 검질 두루마니 메영 그냥 초불만 맹

내불민 그런 거 나와.(김 깨끗하게 매면 그런 거 없는데 김 대충 매여서 그냥 초벌만 매서 내버리면 그런 거 나와.)

103009 @ 약헤진다는 거지예. 튼실하지가 않으니까.(약해진다는 거지요. 튼실하지가 않으니까.)

103009 #1 약이 없어. 그때 손으로만 매지. 부넘허곡, 부넘이 엇이니까 오줌 허곡 곡제기 들이곡 불치, 밧 불 솜아나민 그 불치 들이곡, 오좀 들이곡, 그땐 이 부넘이 엇인 때라. 부넘 이신 땐 이, 왕창 곡식이 많이 나지.(약이 없어. 그때 손으로만 매지. '부넘' 하고, '부넘'이 없으니까 오줌 하고 '곡제기' 들이고 재, 밭 불 때 나면 그 재 들이고, 오줌 들이고, 그땐 이 '부넘'이 없는 때라. '부넘' 있는 땐, 왕창 곡식이 많이 나지.)

103009 @ 곡제기나 불치.('곡제기'나 재.)

103009 #1 불치, 오줌 들이고.(재, 오줌 들이고.)

103009 @ 오줌은 똑같은 시기에 헙니까? 씨 뿌리자마자 허는 것과, 아니면 시기가 다 잇수과?(오줌은 똑같은 시기에 합니까? 씨 뿌리자마자 하는 것과, 아니면 시기가 다 있습니까?)

103009 #1 오줌 누어가지고 오좀항이 넘어가민 이제 그냥 강 밧디 강 뿌려.(오줌 누어가지고 오줌항아리가 넘어가면 이제 그냥 가서 밭에 가서 뿌려.)

103009 @ 게난 씨 뿌리자마자?(그러니까 씨 뿌리자마자?)

103009 #1 응.(응.)

103009 @ 아니믄 ᄒᆞ꼼 잇당?(아니면 조금 있다가?)

103009 #1 오좀항이 하영 넘어가민 허곡.(오줌항아리가 많이 넘어가면 하고.)

103009 @ 아무 때나.(아무 때나.)

103009 #1 게 아니믄 봄 나가가면은 이제 검질매레 갓당 물허벅[57] 졍 가근에 올 땐 뿌려동 오곡.(게 아니면 봄 나가면 이제 김매러 갔다가 물허벅 져서 가서 올 땐 뿌려두고 오고.)

103009 @ 봄 나민 오줌항에 꺼 뿌리고 구월달부터 씨 뿌령 막 오줌 놓는 건 아니고?(봄 나면 오줌항아리에 꺼 뿌리고 구월부터 씨 뿌려서 막 오줌 놓는 건 아니고?)

103009 #1 아니, 아니.(아니, 아니.)

103009 @ 한 싹이 나서.(한 싹이 나서.)

103009 #1 싹 나기 전에도 뿌려. 오줌이 하영 이시면.(싹 나기 전에도 뿌려. 오줌이 많이 있으면.)

103009 @ 하영 잇이면.(많이 있으면.)

103009 #1 거 걸름이니까.(거 거름이니까.)

103009 @ 걸름이니까. 돗통시 걸름은 같이 갈멍?(거름이니까. 돼지우리 거름은 같이 갈면서?)

103009 #1 돗통시 걸름은 보리 갈멍 뿌려. 싹이 난 후젠 안 깔아.(돼지우리 거름은 보리 갈면서 뿌려. 싹이 난 후엔 안 깔아.)

---

57) '물허벅'은 모양이 둥글고 배가 불룩하고 아가리는 아주 좁으며 물을 길어 나르는 동이를 말한다.

103009 @ 게난 어떤 사름은 마당에 저쪽 서쪽에는 마당에 무신 걸름을 헹 거기에 뿌령 또 밧디 가져간덴 허는 사람도 이십디다.(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마당에 저쪽 서쪽에는 마당에 무슨 거름을 해서 거기에 뿌려서 또 밭에 가져간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디다.)

103009 #1 아니, 우린 경 아녀난. 그냥 보리 갈기 전에 걸 뿌렷다가 이제 소로 갈아근에 씨 뿌려. 영 끄실퀴로.(아니, 우린 그렇게 안하니까. 그냥 보리 갈기 전에 걸 뿌렸다가 이제 소로 갈아서 씨 뿌려. 이렇게 끙게로.)

103009 @ 이 땅에 먼저 걸름을 뿌리고 난 다음에 또 거기에 씨를 뿌렷다는 거지예.(이 땅에 먼저 거름을 뿌리고 난 다음에 또 거기에 씨를 뿌렸다는 거지요.)

103009 #1 아니, 그게 걸름을 뿌려. 갈기 전에 뿌려.(아니, 그게 거름을 뿌려. 갈기 전에 뿌려.)

103009 @ 갈기 전에 뿌려.(갈기 전에 뿌려.)

103009 #1 뿌려 보리씨도 그냥 ᄀᆞ찌 뿌려 불어.(보리씨도 그냥 같이 뿌려버려.)

103009 @ 응.(응.)

103009 #1 경 헹 갈앙 그 끄실퀴란 것에 영 끗어 불어.(그렇게 해서 갈아서 그 돼지우리란 것에 이렇게 끌어버려.)

103009 @ 뿌령 가는구나.(뿌려서 가는구나.)

103009 #1 ᄋᆞ(응)

103009 @ 씨를 먼저 뿌령 갈아. 갈앙 뿌리는 게 아니고.(씨를 먼저 뿌려서 갈아. 갈아서 뿌리는 게 아니고.)

103009 #1 갈기 전엔 하나씩 뿌리고 제라허게는 갈아논 거에 뿌려. 헌데 보리도 여러 가지라이. 이렇게 갈아 놩 골을 쳐 괭이로. 경 골보리가 잇고. 그냥 잡으로.(갈기 전엔 하나씩 뿌리고 정확하게는 갈아 논 거에 뿌려. 그런데 보리도 여러 가지라. 이렇게 갈아놔서 골을 쳐 괭이로. 그렇게 골보리가 있고. 그냥 잡으로.)

103009 @ 아아.(아아.)

103009 #1 아무 디나 뿌려불믄 잡 보리.(아무 데나 뿌려버리면 잡 보리.)

103009 @ 골보리가 좋아마씨? 잡보리가 좋아마씨?(골보리가 좋아요? 잡보리가 좋아요?)

103009 #1 아니, 저 무시 거는 똑 같다.(아니, 저 뭐는 똑같아.)

103009 @ 밭에 따랑 헴신가?(밭에 따라서 하는가?)

103009 #1 아니, 그 골보리는 검질매기 좋게.(아니, 그 골보리는 김 매기 좋게.)

103009 @ 아아.(아아.)

103009 #1 이 땅으로는 괭이라도 탁탁 쳐불믄 검질매믄 보릿강알에 것만 매고 잡 거는 경 못허지. 그냥 쭉 ᄀᆞ찌 보리 삐여부니까.(이 땅으로는 괭이라도 탁탁 쳐버리면 김매면 '보릿강알'에 것만 매고 잡 거는 그렇게 못하지. 그냥 쭉 같이 보리 뿌려버리니까.)

103009 @ 두 가질 다 헷다는 거지예?(두 가질 다 했다는 거지요?)

103009 #1 응.(응.)

103009 @ 그믄 삼촌도 검질 많이 메봣수과?(그러면 삼촌도 김 많이 매봤습니까?)

103009 #1 그렇지. 검질 아이 메믄 농부한이가 뒈나? 조팟디 검질도 메사, 콩밧디도 메사, 보리밧디도 메사. 쭉 메잖아.(그렇지. 김 아니 매면 농사꾼이 되나? 조밭에 김도 매야, 콩밭에도 매야, 보리밭에도 매야. 쭉 매잖아.)

103009 @ 보리 검질은 멧 월달에?(보리 김은 몇 월에?)

103009 #1 보리 검질은.(보리 김은.)

103009 @ 음력.(음력.)

103009 #1 음력으로 이 정월들만 나가면은 메매.(음력으로 이 정월만 나가면 매.)

103009 @ 추울 건데.(추울 건데.)

103009 #1 추워도이 불 초멍.(추워도 불 쬐면서.)

103009 @ 불 초멍.(불 쬐면서.)

103009 #1 막 눈 이신 땐 아녀곡, 눈 풀어지면은.(막 눈 있는 땐 아니고, 눈 풀어지면.)

103009 @ 눈 풀어지면.(눈 풀어지면.)

103009 #1 막 그땐 뭐 장갑이 잇나. 손에 막 그냥 흑 부뎡은에 ᄉᆞ락ᄉᆞ락[58] 아녀근에 눈 녹아가믄 그자.(막 그땐 뭐 장갑이 있나? 손에 막 그냥 흙 붙어서 싸락싸락 안 해서 눈 녹아가면 그저.)

103009 @ 보리가 ᄒᆞ꼼 영 납작헐 때 검질을 매주는구나.(보리가 조금 이렇게 납작할 때 김을 매주는구나.)

103009 #1 응. 보리가 뽀족뽀족 나잖아.(응. 보리가 뾰족뾰족 나잖아.)

103009 @ 초불 검질은 그때 매주고 또 이제.(초벌 김은 그때 매주고 또 이제.)

103009 #1 그러게 두불 메여가면은 보리가 막 홁어가메.(그러게 두벌 매여가면 보리가 막 굵어 가요.)

103009 @ 봄 뒈는 구나예. 봄에.(봄 되는 군요. 봄에.)

103009 #1 봄에 매지. 보리가 나야. 겨울에 보리 나나. 봄 나야. 아이 겐디 이 시월에 보리 갈면은 보리 나.(봄에 매지. 보리가 나야. 겨울에 보리 나나. 봄 나야. 아이 그런데 이 시월에 보리 갈면 보리 나.)

103009 @ 예. 예. 눈 올 때 붋아난 기억이 나 예.(예. 예. 눈 올 때 밟았던 기억이 나 예.)

103009 #1 우린 보리 불라보진 안헤서. 거 뜬 밧디 간 사름은 불르곡 허여신디. 우린 이 밧이 엇어도 소걸름이 잇이니까.(우린 보리 밟아보진 않았어. 거 뜬 밭에 간 사람은 밟고 했는데. 우린 이 밭이 없어도 소두엄이 있으니까.)

103009 @ 아아.(아아.)

103009 #1 존 밧만 빌언. 걸름 엇인 사름은 바당에 가야지. 이제 듬북 ᄌᆞ문 사름허곡 걸름 잇인 사름벳긔 안 빌려줘서.(좋은 밭만 빌었어. 거름 없는 사람은 바다에 가야

58) ‘ᄉᆞ락ᄉᆞ락’은 만지거나 스칠 때 부드럽고 상쾌한 느낌이 나는 모양을 말한다.

지. 이제 듬북 캔 사람하고 거름 있는 사람밖에 안 빌려줬어.)

103009 @ 자기네 밧 좋아지라고.(자기네 밭 좋아지라고.)

103009 #1 자기네 밧이. 우리가 뒈야지 고기 먹으민 늠삭허[59]잔아. 밧도 그걸 멕여줘야 늠삭헹 곡석이 잘나는 거라. 밧이 막 풀어진덴. 옛날엔 이, 바다에 멜 잇잔아.(자기네 밭이. 우리가 돼지고기 먹으면 '늠삭하'잖아. 밭도 그걸 먹여줘야 '늠삭'해서 곡식이 잘나는 거라. 밭이 막 풀어진다고. 옛날엔 이, 바다에 멸치 있잖아.)

103009 @ 예.(예.)

103009 #1 멜도 뿌려.(멸치도 뿌려.)

103009 @ 막 많이 들었을 때?(막 많이 들었을 때?)

103009 #1 많이덜 혀. 멜 걸름.(많이들 해. 멸치 거름.)

103009 @ 생으로? 아니믄 걸 걸름으로.(생으로? 아니면 걸 거름으로.)

103009 #1 쌩으로 밥혜난 불치 잇잔아? 걸로 버무려근에.(생으로 밥했던 재 있잖아? 걸로 버무려서.)

103009 @ 아이고야, 멜하고 불치를 버무렁. 게믄 멜이 막 썩혀?(아이고야, 멸치하고 재를 버무려서. 그러면 멸치가 막 썩혀?)

103009 #1 응.(응.)

103009 @ 썩히지 안헹 그냥 쌩으로?(썩히지 않고 그냥 생으로?)

103009 #1 쌩으로.(생으로.)

103009 @ 냄새 막 나커라.(냄새 막 나겠다.)

103009 #1 응. 쎅영은 못헤여. 물 뒈어 불어.(응. 썩어서는 못해. 물 되어 버려.)

103009 @ 물 뒈어 불어.(물 되어 버려.)

103009 #1 것이 이, 썩엉 물 뒈어 불어.(것이, 썩어서 물 되 버려.)

103009 @ 밧디 경 뿌리믄 냄새낫겟다예.(밭에 그렇게 뿌리면 냄새났겠네요.)

103009 #1 밧듸는 미여지벵뒨[60] 냄새 안나. 막 공기 좋은디니까 하근 디, 방안에가 냄새나주 뭐 베끗디사.(밭에는 '미여지벵뒨' 냄새 안나. 막 공기 좋은 데니까 여러 군데 방안에가 냄새나지. 뭐 바깥에야.)

103009 @ 보리밧에는 어떤 검질들이 자라는지 알아마씨?(보리밭에는 어떤 김들이 자라는지 알아요?)

103009 #2 검질이 이 보리밧데 아주 검질이 지시민 사람 막 못견뎌요. 나가 농사를 짓기 시작허니까 혼 멧 천 평을 짓는데 보리밧데 놉을 그냥 혼 멧 십 명씩헤도 검질이 남아돌아가.(김이 이 보리밭에 아주 김이 짓으면 사람 막 못 견뎌요. 나가 농사를 짓기 시작하니까 한 몇 천 평을 짓는데 보리밭에 놉을 그냥 한 몇 십 명씩 해도 김이 남아돌아가.)

103009 @ 검질 이름이 대오리도 잇일 거고.(김 이름이 귀리도 있을 거고.)

103009 #2 그렇죠. 대오리도 잇고 눈 불근 사람은 대오리는 저 이파리가 짤브니까

59) '늠삭ᄒᆞ다'는 기름기가 많은 음식을 먹어서 입안에 기름지게 느껴지는 것을 말한다.
60) '미여지 벵뒤'는 아무 거침없이 트인 널따란 벌판을 뜻한다.

알 수가 잇는데, 보리가 고고리 피어서 대오리가 그 싹이 나와야 거 들어가서 뽑고.(그렇죠. 귀리도 있고 눈 밝은 사람은 귀리는 저 이파리가 짧으니까 알 수가 있는데, 보리가 이삭 피어서 귀리가 그 싹이 나와야 거 들어가서 뽑고.)

103009 @ 경 안하면 몰라예. 대오리, 제완지, ᄀᆞ라지 뭐 이런 거?(그렇게 안하면 몰라요. 귀리, 바랭이, 가라지 뭐 이런 거?)

103009 #2 제완지 별별 저 검질이 다 잇어.(바랭이 별별 저 김이 다 있어.)

103009 @ 무슨 이름 알아지는 거 ᄀᆞᆯ아봅서. 여름 검질이꽈? 쒜비늠?(무슨 이름 알아지는 거 말해 보십시오. 여름김입니까? 쇠비름?)

103009 #2 이 쒜비늠은 생전 마르지 안허는 물건이라 노난 보통으론 마구잡이로 내쳐야뒈어.(이 쇠비름은 생전 마르지 안하는 물건이라 버리니까 보통으론 마구잡이로 내쳐야 돼.)

103009 @ 남자덜이 내쳐줍니까?(남자덜이 내쳐줍니까?)

103009 #2 여자도 내치고 남자도 내치고 내치는 거야 뭐.(여자도 내치고 남자도 내치고 내치는 거야 뭐.)

103010 @ 공기 좋은 디니까 햇볕 말르멍예. 그믄 보리 수확은 어떻게 합니까? 베는 건 어떵 베고, 무끄는 건 어떵 무끄고.(공기 좋은 데니까 햇볕 마르면서요. 그러면 보리 수확은 어떻게 합니까? 베는 건 어떻게 베고, 묶는 건 어떻게 묶고.)

103010 #1 야, 보리 익어야 베는 거주. 보리 익지도 안헌디 베냐?(야, 보리 익어야 베는 거지. 보리 익지도 않은데 베니?)

103010 @ 헤헤. 보리가 언제 익습니까? 음력 유월? 오월?(헤헤. 보리가 언제 익습니까? 음력 유월? 오월?)

103010 #1 아니야, 사월달에 음력 사월달에 비여.(아니야, 사월에 음력 사월에 베여.)

103010 @ 익으민 호미 가정강 비여예.(익으면 호미 가져가서 비어요.)

103010 #1 비엉 ᄆᆞᆯ류면 이제 산뒤 찍 영.(비어서 말리면 이제 밭벼 짚 이렇게.)

103010 @ 아, 비민 바로 ᄆᆞᆯ려야 뒙니까? 무끄지 안허영?(아, 베면 바로 말려야 됩니까? 묶지 안하고?)

103010 #1 ᄆᆞᆯ려야지.(말려야지.)

103010 @ 무끄지 안허영?(묶지 않고?)

103010 #1ᄆᆞᆯ려야 무끌 거 아냐? ᄆᆞᆯ령 무꺼놩 눌어. 비 오카부덴.(말려야 묶을 거 아냐? 말려서 묶어놔서 가리어. 비 올까봐.)

103010 @ 뚜?(또?)

103010 #1 뚜 눌어야 헤여.(또 가려야 해.)

103010 @ 아, 무끈 걸 눌어?(아, 묶은 걸 가려?)

103010 #1 응.(응.)

103010 @ 무끈 걸 눌어?(묶은 걸 가려?)

103010 #1 보리 ᄆᆞᆯ르민 눌엇다근에 이제 시꺼당 홀타.(응. 보리 마르면 가리었다가 이제 실어다가 홅아.)

103010 @ 눌지 안헤영 바로 무끈 거 가져오민 안뒈어? 집이 왕 눌 수도 잇고.(가리지 안 해서 바로 묶은 거 가져오면 안돼요? 집이 와서 가릴 수도 있고.)

103010 #1 힘들지. 그게 시끄는 것이. 이게 좀자야 것이 차분이 눌어뜨는디 왕그랑헤가지고 시끄민 시끄긴 헌디 안 뒈여.(힘들지. 그게 싣는 것이. 이게 잠자야 것이 차분이 가려지는데 '왕그랑해'가지고 실으면 실기는 하는데 안 돼.)

103010 @ 밧디서 일단 누는구나예?(밭에서 일단 가리는군요?)

103010 #1 닝끼려. 겨고이 고고리 막 털어져불곡. 거 눌엇당 허민 덜 털어지는디 고거 그냥 시꺼 민 바삭바삭 털어져. 고고리 줏젠 허민 힘들주.(미끄러워. 그리고 이삭 막 떨어져버리고. 거 가리었다가 하면 덜 떨어지는데 그거 그냥 실으면 바삭바삭 떨어져. 이삭 주우려고 하면 힘들지.)

103010 @ 보리 수확은 어떻게 합니까? 보리 베는 건 어떵허고 보리 무끄는 건 어떵허고 옛날?(보리 수확은 어떻게 합니까? 보리 베는 건 어떻고 보리 묶는 건 어떻고 옛날?)

103010 #2 보리 무끄는 건, 뭐 나 밤에도 가서 비가 올깍지니까 무꺼난 예가 잇고, 보리를 봄에 수확헤가지고 전부 홀타가지고 우리 마당이 널벗는데 그냥 오름마니 쌓아놓고 그냥 비가 와가지고 밑으로 물이 그냥 이마니 올라와부니까 전부 쎅힌 일이 잇지. 지금은 기계가 발달하고 다 사람덜이 영리허니까 그런 일이 없지요이. 그때는 춤 옛날이 뒛어.(보리 묶는 건, 뭐 나 밤에도 가서 비가 올 거 같으니까 묶어난 예가 있고, 보리를 봄에 수확해가지고 전부 홅아가지고 우리 마당이 넓었는데 그냥 오름만큼 쌓아놓고 그냥 비가 와가지고 밑으로 물이 그냥 이만큼 올라와버리니까 전부 썩힌 일이 있지. 지금은 기계가 발달하고 다 사람들이 영리하니까 그런 일이 없지요. 그때는 참 옛날이 됐어.)

103010 @ 겐 건 아예 먹지도 못헨마씨?(그래서 건 아예 먹지도 못했어요?)

103010 #2 그냥 고고리 홀타논 건데 아 비오니까 그냥 물이 그냥 이마니 올라오니까 그 아래 아랫 건 전부 물에 잠겨가지고 그냥 썩어서, 게니까 내가 보리, 우리 집이 널으니까 맥주 맥, 먹보리, 술보리 세 눌을 크게 눌어 잇는데 거 비가 그때는 그렇게 많이 오니까, 눌 눈데 보리 눈 눌 우이서 보리 싹이 낫어. 싹이 낫어. 퍼렇게.(그냥 이삭 홅아 논 건데 아 비오니까 그냥 물이 그냥 이만큼 올라오니까 그 아래, 아래 건 전부 물에 잠겨가지고 그냥 썩어서, 그러니까 내가 보리, 우리 집에 너니까 맥주 맥, 깜부기, 쌀보리 세 가리를 크게 가리어 있는데 그거 비가 그때는 그렇게 많이 오니까, 가리 가린데 보리 가린 가리 위에서 보리 싹이 났어. 싹이 났어. 퍼렇게.)

103010 @ 아이고 세상에 세 눌이라는 것은 맥주맥도 눌고, 고고리만?(아이고 세상에 세 가리라는 것은 맥주맥도 가리고, 이삭만?)

103010 #2 아니 아니, 남뎅이 차, 그 집이 와서 그 홀태로 홀타야 뒈니까.(아니, 아니, 보릿대 째, 그 집에 와서 그 그네로 홅아야 되니까.)

103010 @ 아, 베어온 거 그대로 묶은 체, 눌을 쌓아 놔두는데.(아, 베어온 거 그대로 묶은 체, 가리를 쌓아 놔두는데.)

103010 #2 묶은 체, 집만씩 눌엇지. 집만씩.(묶은 체, 집만큼씩 가리었지. 집만큼씩.)

103010 @ 맥주 맥하고, 솔보리하고 또 하나마씨?(맥주 맥하고, 쌀보리하고 또 하나요?)

103010 #2 먹보리.(먹보리.)

103010 @ 먹보리, 먹보린 뭐꽈?(먹보리, 먹보린 뭡니까?)

103010 #2 먹보리 혼참 벌엇어. 검은보리 잇엇어.(먹보리 한참 벌었어. 검은 보리 있었어.)

103010 @ 검은 보리예? 아아 거는 뭐가 좋아마씨?(검은 보리요? 아아 거는 뭐가 좋았습니까?)

103010 #2 좁쏠 같에. 떡을 헤도 오매기헤도 차근차근허고, 저 좁쏠오매기 기 ᄀᆞ찌, 먹보리가 잇엇어.(좁쌀 같아. 떡을 해도 오매기해도 '차근차근'하고, 저 좁쌀 오매기 같이, 깜부기가 있었어.)

103010 @ 지금은 안하잖아예. 맛은 어떵헙니까?(지금은 안하잖아요. 맛은 어떻습니까?)

103010 #2 그 보리 없어졋어. 맛도 좋아.(그 보리 없어졌어. 맛도 좋아.)

103010 @ 솔보리에 서껑도 밥헹 먹음니까? 걸 무사 헴신고예? 무사 좁쏠처럼 가루로 만들젠 헤신가예?(쌀보리에 섞어서도 밥해서 먹습니까? 그걸 왜 하는가요? 왜 좁쌀처럼 가루로 만들려고 하는가요?)

103010 #2 떡도 헤먹고 그자 바로 출떡 뒛죠.(떡도 해먹고 그저 바로 찰떡 됐죠.)

103010 @ 먹보리로 떡을 헷구나예. 그믄 베어서 묶어서 어떵 햇빛이 나민 어떵 거를 다 헤쌍?(먹보리로 떡을 했군요. 그러면 베어서 묶어서 어떻게 햇빛이 나면 어떻게 거를 다 해쳐서?)

103010 #2 그러니까 마가 지니까 제주돈 마가 많이 졋어. 보리 헐 때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눌에서 그 꼭대기에는 안 나지만은 그 밑에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놓거든. 비 마진 건 오래 비가 오니까, 다 나가지고 말이야 제일 믄여 나는 것이 이 저 맥주맥이야. 맥주맥이, 제일 뿔리 나.(그러니까 마가 지니까 제주돈 마가 많이 졌어. 보리 할 때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가리에서 그 꼭대기에는 안 나지만 그 밑에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놓거든. 비 맞은 건 오래 비가 오니까, 다 나가지고 말이야 제일 먼저 나는 것이 이 저 맥주 맥이야. 맥주 맥이, 제일 빨리 나.)

103010 @ 경 헹 어떵 헷수과 그거?(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

103010 #2 아, 그거 뭐 쉐도 주곡, 물도 주고, 또 그렇지 않으민 저 그거 물려가지고 저 골로 쓰기도 헷어. 골, 감주 만드는 그 골.(아, 그거 뭐 소도 주고, 말도 주고, 또 그렇지 않으면 저 그거 말려가지고 저 골로 쓰기도 했어. 골, 감주 만드는 그 골.)

103010 @ 어떵이라도 썻구나예 게도 겐 다시 눌 헷던 거 고고리 또 튿앙?(어떻게라도 썼군요. 그래도 그래서 다시 가리 했던 거 이삭 또 뜯어서?)

103010 #2 홀태로 홀타가지고 홀태로 홀타서 마당에서 그냥 도깨로 때령도 허고 기계로 태작도 허고, 그 태작하는 기계가 그 저 군데군데 잇엇어요. 그 기계 빌어다가 그

냥 저 홀태로 홀타가지고.(그네로 홅어가지고 그네로 홅어서 마당에서 그냥 도리깨로 때려서도 하고 기계로 태작도 하고, 그 타작하는 기계가 그 저 군데군데 있었어요. 그 기계 빌어다가 그냥 저 그네로 홅어가지고.)

103010 @ 뭐에 담아, 항아리에? 맥에 담아마씨? 그걸?(뭐에 담아, 항아리에? 맥에 담아요? 그걸?)

103010 #2 그러니까 멕도 담고, 항아리에도 담고, 보리 다 헤 놩 비우니까 방에다가 쌓아 놔뒀더니 눌러부터 가지고 잘 안 몰리와가지고 그런 거니까 그래서 그 후에는 도루무깡을 저 반값 줘가지고 내 그때 도루무깡 어떻게 비싼지 말이여. 농사짓는 게 상당히 고생헷죠. 그때는 기계가 없으니까. 그냥 비오는 데도 집안에서 보리를 홀탓으니까 홀태로, 집안에서.(그러니까 멱서리에도 담고, 항아리에도 담고, 보리 다 해 놩 비우니까 방에다가 쌓아 놔뒀더니 눌어붙어 가지고 잘 안 말려 가지고 그런 거니까 그래서 그 후에는 '도루무깡'을 저 반값 줘가지고 내 그때 '도루무깡' 어떻게 비싼지 말이야. 농사짓는 게 상당히 고생했죠. 그때는 기계가 없으니까. 그냥 비 오는데도 집안에서 보리를 홅으니까 홀태로, 집안에서.)

103010 @ 비와 불민 그게 제일 문제로구나.(비와 버리면 그게 제일 문제로구나.)

103010 #2 옛날엔 비가 많이 왓어요. 장마지면은 그 오월 장마, 유월 장마 지면.(옛날엔 비가 많이 왔어요. 장마지면은 그 오월 장마, 유월 장마 지면.)

103010 @ 오월 장마, 유월 장마예? 어떵 그거를 애쓰게 헌 거 다 날라가 버리면 그것 땜에 탁탁허켜예?(오월 장마, 유월 장마요? 어떻게 그거를 애쓰게 한 거 다 날아가 버리면 그것 땜에 걱정했겠네요?)

103010 #2 그렇죠.(그렇죠.)

103010 @ 먹을 만큼은 놔누고 팔안마씨?(먹을 만큼은 나누고 팔았어요?)

103010 #2 아, 그렇죠. 남으면 풀고.(아, 그렇죠. 남으면 팔고.)

103010 @ 멧 항아리 먹을 걸로 나둡니까?(몇 항아리 먹을 걸로 나둡니까?)

103010 #2 식구에 따라서.(식구에 따라서.)

103010 @ 제일 중요한 게 보리는 다 갈앗겟다예? 무사 도께아덜 누가 만들언 마씨?(제일 중요한 게 보리는 다 갈았겠네요? 왜 도리깻열 누가 만들었어요?)

103010 #2 도께, 우리대로 다 맨들어 썻죠.(도리깨, 우리대로 다 만들어 썼죠.)

103010 @ 도께어시여, 도께아덜이여, 무사 도께아덜헤신고예?(도리깻장부여, 도리깻열이여, 무사 도리깻열 했는가요?)

103010 #2 도께아덜이옌 허고 어시는 몽둥이 ᄀᆞ튼거 헤서 낭 종류가 틀리니까 꼭 종낭을 헤야 도께어시가 뒈고, 윤유리낭 도께아덜로 써야 뒈고 그 나무가 막 때려도 질기니까, 윤유리낭이.(도리깻열이라고 하고 '어시'는 몽둥이 같은 그거 해서 낭 종류가 틀리니까 꼭 때죽나무를 해야 도리깻장부가 되고, 윤노리나무 도리깻열로 써야 되고 그 나무가 막 때려도 질기니까, 윤노리나무가.)

103010 @ 종낭이 뭔지, 윤유리낭이 뭔지 알아야 것도 헐 거 아이예? 지금 봐집니까?(때죽나무가 뭔지, 윤노리나무가 뭔지 알아야 것도 할 거 아닌가요? 지금 보입니까?)

103010 #2 그런 것쯤이야.(그런 것쯤이야.)

103010 @ 윤유리낭, 도께아덜 무사 도께아덜이옌 이름을 지와신고예?(윤노리나무, 도리깻열 무사 도리깻열이라고 이름을 지었는가요?)

103010 #2 도께아덜은 아 이렇게 헹 때리는 거니까 돌리면서 싹 때리면은 거 도께아덜.(도리깻열은 아 이렇게 해서 때리는 거니까 돌리면서 싹 때리면 거 도리깻열.)

103010 @ 무사 도께 뚤이 아니고 도께아덜이 뒈신고예?(왜 도리깨 딸이 아니고 도리깻열이 됐는가요?)

103010 #2 글쎄. 옛날 어른덜이 어떻게 헤서.(글쎄. 옛날 어른들이 어떻게 해서.)

103010 @ 도께는 여자덜도 남자덜도 허고 마당에서 뭐 꼴앙 헙니까? 멍석 꼴아?(도리깨는 여자들도 남자들도 하고 마당에서 뭐 깔아서 합니까? 멍석 깔아?)

103010 #2 꼴지 안헹 마당에서 많이 헷고, 꼴젠 허민 이제ᄀᆞ찌 가빠가 잇어. 뭐 거 잇어. 튀어가지 못허게 막을 수밖에 엇주.(깔지 않고 마당에서 많이 했고, 깔려고 하면 이제같이 '가빠'가 있어. 뭐 거 있어. 튀어가지 못하게 막을 수밖에 없지.)

103010 @ 덕석은 뭐고 멍석이 뭣꽈?(덕석은 뭐고 멍석이 뭡니까?)

103010 #2 덕석이 멍석이고, 멍석이 덕석이지. 멍석이 덕석이고 덕석이 멍석이고.(덕석이 멍석이고, 멍석이 덕석이지. 멍석이 덕석이고 덕석이 멍석이고.)

103010 @ 게믄 삼촌, 예펜삼춘도 도께질은 허고?(그러면 삼촌, 여자삼촌도 도리깨질은 하고?)

103010 #2 다 헷죠.(다 했죠.)

103010 @ 도께질이 어려웁니까? 베는 게 어려웁니까?(도리깨질이 어렵습니까? 베는 게 어렵습니까?)

103010 #2 마당질 헐 땐 마당질이라고 허는데 마장질헐 땐 그 시중허는 사람이 잘해야 뒈어. 뒈쌍노민 뒈싸놓고, 가르싸노민 가르싸 놓고.(마당질할 땐 마당질이라고 하는데 마당질할 땐 그 시중하는 사람이 잘해야 돼. 뒤집어 놓으면 뒤집어 놓고 놓고, 뒤집어 놓으면 뒤집어 놓고.)

103010 @ 경허는 사람을 뭐렌 헤마씨? 시중?(그렇게 하는 사람을 뭐라고 해요? 시중?)

103010 #2 시중질, 그게 아주 잘 허는 사람이 헤야 ᄀᆞᆯ루ᄀᆞᆯ루 때리고.('시중질', 그게 아주 잘 하는 사람이 해야 고루고루 때리고.)

103010 @ 그믄 ᄆᆞᆯ방에나 이런 거는 여기 멧 개 잇엇수과?(그러면 연자매나 이런 거는 여기 몇 개 있었습니까?)

103010 #2 많이 잇엇죠. 개인적으로 잇는 디가 잇엇고, 거 ᄆᆞᆯ뱅에는 이 저 군데군데 많이 잇엇어요.(많이 있었죠. 개인적으로 있는 데가 있었고, 거 연자매는 이 저 군데군데 많이 있었어요.)

103010 @ 이제는 아무디도 엇지예 신촌에? ᄆᆞᆯ방앳간이렌 헹 집도 지성 잇엇수과?(이제는 아무데도 없지요 신촌에? 연자매간이라고 해서 집도 지어서 있었습니까?)

103010 #2 옛날은 ᄆᆞᆯ벵에에 동녕바치 들어강, ᄆᆞᆯ벵에 비니까 좀도 자고 동녕바치덜

지나가다가 자고, ᄆᆞᆯ방에에서 경 그 ᄋᆞ식ᄒᆞᆫ 디 밤ᄀᆞ튼 때 연애도 그디 강 허고 옛날은 ᄆᆞᆯ방에가 제일 그 공간이 빈 디니까.(옛날은 연자매에 거지 들어가서, 연자매 비니까 잠도 자고 거지들 지나가다가 자고, 연자매에서 그렇게 그 'ᄋᆞ식한' 데 밤 같은 때 연애도 거기 가서하고 옛날은 연자매가 제일 그 공간이 빈 데니까)

103010 @ 그렇구나. ᄆᆞᆯ방에예. 그믄 여기 동네에 멧 개 잇엇수과? 옛날에 돌덜은 다 엇어져 불엇지예?(그렇구나. 연자매요. 그러면 여기 동네에 몇 개 있었습니까? 옛날에 돌들은 다 없어져버렸지요?)

103010 #2 동카름에도 하나, 두 개, 세 개, 세 갠 확실히 알겟네이. 이 저 큰물에도 뭐 이 뭐 동네마다 잇엇어. 동네마다 ᄆᆞᆯ방에가 잇엇어.(동 동네에도 하나, 두 개, 세 개, 세 갠 확실히 알겠네. 이 저 큰물에도 뭐 이 뭐 동네마다 있었어. 동네마다 연자매가 있었어)

103010 @ 신촌엔 열 개 넘어신가?(신촌엔 열 개 넘었는가?)

103010 #2 신촌에? 열다ᄉᆞᆺ개도 넘을거야.(신촌에? 열다섯 개도 넘을 거야.)

103010 @ 말이 돌립니까? 소가 돌립니까? 사람이 돌립니까?(말이 돌립니까? 소가 돌립니까? 사람이 돌립니까?)

103010 #2 사람으로도 하고 ᄆᆞᆯ로도 허고, ᄆᆞᆯ로 그러니까 ᄆᆞᆯ방에라고 헷는데 ᄆᆞᆯ을 이렇게 메어서 뱅뱅 돌아가니까 ᄆᆞᆯ방에라고.(사람으로도 하고 말로도 하고, 말로 그러니까 연자매라고 했는데 말을 이렇게 매어서 뱅뱅 돌아가니까 연자매라고,)

103010 @ 무사 소는 안헷수과? 느련. 소는 안헨?(왜 소는 안했습니까? 느려서. 소는 안했습니까?)

103010 #2 소는 안 헤. 소는 허는 걸 못 봣어. 이제까지 봐와도.(소는 안 해. 소는 하는 걸 못 봤어. 이제까지 봤어도.)

103010 @ 안 ᄃᆞᆯ아가는가? 말이 영리한가?(안 돌아가는가? 말이 영리한가?)

103010 #2 말은 헤도, 소 허는 건 못봣어.(말은 해도, 소하는 건 못 봤어.)

103010 @ 소는 밧 갈고 구루마는 게도 헴수궤? 구루마는 허는데, ᄆᆞᆯ구루마도 허긴 헷수과?(소는 밭 갈고 달구지는 그래도 하지요? 달구지는 하는데, 말달구지도 하긴 했습니까?)

103010 #2 헷죠, ᄆᆞᆯ구르마도, 소구르마도 허고.(했죠, 말달구지도, 소달구지도 하고.)

103010 @ 게도 ᄆᆞᆯ뱅애는 소는 안헷고?(그래도 연자매는 소는 안했고?)

103010 #2 소허는 건 못봣어. ᄆᆞᆯ은 헤도.(소하는 건 못 봤어. 말은 해도.)

103010 @ 삼촌네 ᄆᆞᆯ이 잇엇수과?(삼촌네 말이 있었습니까?)

103010 #2 ᄆᆞᆯ이 이섯지.(말이 있었지.)

103010 @ 다른 사람도 빌려주고마씨? 혹시.(다른 사람도 빌려주고요? 혹시.)

103010 #2 없는 사람은 빌어다 쓰긴 써요.(없는 사람은 빌어다 쓰긴 써요.)

103010 @ 돈으로 받읍니까?(돈으로 받습니까?)

103010 #2 옛날은 그자지.(옛날은 그저지.)

103010 @ 사람이 허는 건 힘들잔아예. ᄆᆞᆯ이 헤야 좀예.(사람이 하는 건 힘들잖아요.

말이 해야 좀요.)

103010 @ 그믄 ᄀᆞ레 ᄀᆞ는 거는 남자도 헙니까? 거이 안 하지예?(그러면 맷돌 가는 거는 남자도 합니까? 거의 안 하지요?)

103010 #2 그러니까 이렇게 ᄀᆞ는 돌ᄀᆞ레라고 잇어. 그걸로 보리쏠 벌러 가지고 밥헤 먹고, 그 저.(그러니까 이 이렇게 가는 돌 맷돌이라고 있어. 그걸로 보리쌀 쪼개 가지고 밥해 먹고, 그 저.)

103010 @ 무사 벌렁 밥헤야 뒈마씨? 빨리 밥헤집니까? 그냥 밥헤도 뒐 거 아니?(왜 쪼개서 밥해야 되요? 빨리 밥 됩니까? 그냥 밥해도 될 거 아니?)

103010 #2 옛날 보통 다 저 그냥 통차 먹는 건 통 보리밥이라고 헤가지고 큰일 때나 잔치 때나 그 통보리 쏠 썻지. 그냥 집이서 밥 헹 먹는 건 다 벌러서, 돌ᄀᆞ레에 벌러 가지고.(옛날 보통 다 저 그냥 통차 먹는 건 통 보리밥이라고 해가지고 큰일 때나 잔치 때나 그 통 보리쌀 썼지. 그냥 집에서 밥해서 먹는 건 다 쪼개서, 돌 맷돌에 쪼개 가지고.)

103010 @ 너무 벌르면 가루가 뒙니께. 적당이?(너무 쪼개면 가루가 됩니다. 적당히?)

103010 #2 가루 나오민 가루로 먹고, 가루가 뒈민.(가루 나오면 가루로 먹고, 가루가 되면.)

103010 @ 굵은 건 밥헤 먹고 보통 여자가 헷지예?(굵은 건 밥해 먹고 보통 여자가 했지요?)

103010 #2 여자가 많이 보통 다 여자가 헷어.(여자가 많이 보통 다 여자가 했어.)

103010 @ 삼촌 어머니 ᄀᆞ레 ᄀᆞ는 소리 들어봣수과? 해지쿠과?(삼촌 어머니 맷돌 가는 소리 들어봤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103010 #2 이여이여 이여도 허라.('이여이여 이여도 허라'.)

103011 @ 겡 눌엇당 집이 왕 또 집이 왕 그거를 보리타작은 밧디서 헐 수도 잇고.(그래서 가리었다가 집에 와서 또 집에 와서 그거를 보리타작은 밭에서 할 수도 있고.)

103011 #1 거 밧 기계 난 때는 밧디서 허여.(거 밭 기계 난 때는 밭에서 해.)

103011 @ 음.(음.)

103011 #1 태작기 매난 땐. 그땐 테작기가 엇언 도께로 뚜들 땐.(타작기 매난 땐. 그땐 타작기가 없어 도리깨로 뚜드릴 땐)

103011 @ 예.(예.)

103011 #1 집이 왕 마당에, 흑 마당에다가.(집에 와서 마당에, 흙 마당에다가.)

103011 #1 흑 마당에다가.(흙 마당에다가.)

103011 @ 멍석ᄀᆞᆯ앙?(멍석 깔아서?)

103011 #1 멍석 ᄀᆞᆯ지 아니허여. 멍석은 베끗딜로, 보리 튀어나민 걸로 털어 아실 거. 그냥 흑마당에서 뚜들여(멍석 깔지 않아. 멍석은 바깥에로, 보리 튀어나면 걸로 털어 가질 거. 그냥 흙 마당에서 두들겨.)

103011 @ 아이고.(아이고.)

103011 #1 에구에구, 사람인지.(에구에구, 사람인지.)

103011 @ 흑 마당에 보리가 흑에 막 묻혀지면 거 어떻게?(흙 마당에 보리가 흙에 막 묻히면 거 어떻게?)

103011 #1 흑에 마당이 세멘마당이 뒈어.(흙에 마당이 시멘트 마당이 돼.)

103011 @ 빠닥빠닥 뒈어 잇구나.(빠닥빠닥 되어 있구나.)

103011 #1 막 ᄆᆞᆯ류니까.(막 말리니까.)

103011 @ ᄆᆞᆯ란.(말라서.)

103011 #1 사람 발로 갓다 왓다 허니까. 건 아니 헹 베기주.(흙에 마당이 세멘마당 돼. 막 말리니까. 사람 발로 갔다 왔다 하니까. 건 안 해서 버티지)

103011 @ 아아, 여름이니까 비가 안 올 때예.(아아, 여름이니까 비가 안 올 때요.)

103011 #1 비오민 못헤여. 땅이 젖엉. ᄆᆞᆯ라야.(비오면 못해. 땅이 젖어서. 말려야.)

103011 @ 도께질? 도리께렌 헙니까? 도깨렌 헙니까?(도리깨질? 도리리깨라고 합니까? '도깨'라고 헙니까?)

103011 #1 도께. 육지 사름은 도리께옌 허더라. 우린 도께.(도리깨. 육지 사람은 도리깨라고 허더라. 우린 '도깨.')

103011 @ 도께질(도리깨질)

103011 #1 응. 도께로 뚜들어.(응. 도리깨로 때려.)

103011 @ 도께로 그 도깬 누가 만들어마씨?(도리깨로 그 도리깬 누가 만들었어요?)

103011 #1 우리 시아바님사. 남자덜이나. 그거 이 이만이헌 께누룽헌 몽둥이덜 헤다 근에 우리 시아바님도 잘 만들곡 아방도 잘 만들아. ᄒᆞ루 멧 개썩 끈어진지 몰라.(우리 시아버님이야. 남자들이나. 그거 이 이만한 가는 몽둥이들 해다가 우리 시아버님도 잘 만들고 아버지도 잘 만들아. 하루 몇 개씩 끊어진 지 몰라.)

103011 @ 영 허믄 도께 두드리는 거는 도께아덜이여.(이렇게 하면 도리깨 두드리는 거는 도리깻열이여.)

103011 #1 도께아덜은게 허곡, 또 영 두드리는 몽둥이는 무신 무시게엔 해라.(도리깻열은 하고, 또 이렇게 두드리는 몽둥이는 뭐라고 해라)

103011 @ 어신가?('어시'인가?)

103011 #1 뭐옌 ᄀᆞᆯ아도 나 잊어불언 모르크라. 도께아덜은 알아도.(뭐라고 말해도 나 잊어버려서 모르겠다. 도리깻열은 알아도.)

103011 @ 도께아덜은 무사 아덜이옌 헤신고에?(도리깻열은 왜 아들이라고 했는가요?)

103011 #1 도께아덜. ᄯᆞᆯ딸 대보름ᄯᆞᆯ.(도리깻열 딸딸 대보름달.)

103011 @ 거 무신 말이꽈 건?(거 무슨 말입니까 건?)

103011 #1 아이 ᄯᆞᆯ은 대ᄇᆞ름ᄯᆞᆯ ᄀᆞ치 훤허게 트고 도께아덜은 아덜이니까 부수 일을 헤야 헐 거 아니냐.(아이 딸은 대 보름달 같이 훤하게 뜨고 도리깻열은 아들이니까 부수로 일을 해야 할 거 아니냐.)

103011 @ 좋은 뜻이꽈?(좋은 뜻입니까?)

103011 #1 거 좋은. 아덜은 일을 해야 헐 거 아냐? 도께아덜. 막 마당질허저.(거 좋은. 아들은 일을 해야 할 거 아? 도릿깨열. 막 타작하랴.)

103011 @ 건디 실질적으로 제주도 여자덜이 더 일을 많이 허는데.(그런데 실질적으로 제주도 여자들이 더 일을 많이 하는데)

103011 #1 여기 바다 ᄌᆞ끗디는 남자덜이 한걸허지. 여자만 바다에 가난. 이 저 웃드리덜은 남자가 힘들어. 이 바당에는 이, 여자가 힘들고.(여기 바다 곁에는 남자들이 한가하지. 여자만 바다에 가니까. 이 저 '웃드리'에서들은 남자가 힘들어. 이 바다에는, 여자가 힘들고.)

103011 @ 거고 검질메는 것도 다 여자가 허고게 여자 안 하는게 엇인디 ᄃᆞᆯᄃᆞᆯ 대ᄇᆞ름 똘 거 언제부터 거. 아덜, 아덜 도께아덜. 게난 일을 많이 허난 도께아덜이렌 헌 건가?(거고 김매는 것도 다 여자가 하고 여자 안 하는 게 없는데 달달 대보름달 거 언제부터 거. 아들, 아들 도릿깨열. 그러니까 일을 많이 하니까 도릿깨열이라고 한 건가?)

103011 #1 대보름ᄃᆞᆯ은 보름에 ᄒᆞᆫ ᄃᆞᆯ에 ᄒᆞᆫ 번 훤허게 보잔아. 거니까 훤허게 비치는 것뿐이고 아덜은 계속 일허니까.(대보름달은 보름에 한 달에 한 번 훤하게 보잖아. 그렇게 하니까 훤하게 비치는 것뿐이고 아들은 계속 일하니까.)

103011 @ 그게 좋은 뜻이구나. 난 또 막 아덜이 막.(그게 좋은 뜻이구나. 난 또 막 아들이 막.)

103011 #1 아덜은 도께아덜. 도께로 얼마나 힘들이 두두러야 헐 거 아니야? 생각을 해봐라. 아, 너 생각해 보라. 이치적으로 마당질, 그 도께로, 똘은 대ᄇᆞ름똘 ᄀᆞ찌 보름에 ᄒᆞᆫ번 훤허게 비침만 허고. 게난 옛날 할머니들이 똘 손지는 업고 아덜 손진 걸루잔아. 손 심엉은에. 빨리 글라 업은 애기 발 실루왐저. 거난 걷는 애긴 발 안 실롭는가? 그렇게 차이 있어. 웨손질 그렇게 애껴.(아들은 도리깨아들. 도리깨로 얼마나 힘들여 두드려야 할 거 아니니? 생각을 해봐라. 아, 너 생각해 보라. 이치적으로 마당질, 그 도리깨로, 달은 대보름달 같이 보름에 한 번 훤하게 비추기만 하고. 그러니까 옛날 할머니들이 딸 손자는 업고 아들 손진 걸리잖아. 손 잡고서. 빨리 가자. 업은 애기 발 차갑다. 그러니까 걷는 애긴 발 안 차갑나? 그렇게 차이 있어. 외손질 그렇게 아껴.)

103011 @ 여자 아이를?(여자 아이를?)

103011 #1 똘애길 애껴.(딸아길 아껴.)

103011 @ 딸, 딸을?(딸, 딸을?)

103011 #1 웨손지지, 똘애기난. 똘난 건 웨손지, 성손진 아덜 난 거.(외손지지, 딸아기니까. 딸 난 건 외손지, 성손진 아들 난 거.)

103011 @ 어, 건디 왜?(어, 그런데 왜?)

103011 #1 건디 옛날 할망은.(그런데 옛날 할머니는.)

103011 @ 삼촌은 아들, 아들 헷잔아. 또 우에 어머니도 아들, 아들 허고.(삼촌은 아들, 아들 했잖아. 또 위에 어머니도 아들, 아들 하고.)

103011 #1 아덜, 아덜 혜도 우리 경 저 시어멍네 경 그런 거 업엉 뎅겨나지 안헤서. 빨리 죽어부니까. 시어멍이나 시아방만 오래오래.(아들, 아들 해도 우리 경 저 시어머니

네 그렇게 그런 거 업어서 다녔었지 안했어. 빨리 죽어버리니까. 시어머니이나 시아버지만 오래오래.)

103011 @ 경헤도 제주도는 큰 아덜, 큰 아덜 헹 맛존 것도 아덜, 아덜 허곡.(그래도 제주도는 큰 아들, 큰 아들 해서 맛좋은 것도 아들, 아들 하고.)

103011 #1 그런디 사람 칩마다 뚤라.(그런데 사람 집마다 달라.)

103011 @ 물허벅도 지게 하고 여자들은 고생, 고생허난 무사 날 쉐로 낳주. 뚤로 낫수과? 허멍 그런 원망도.('물허벅'도 지게 하고 여자들은 고생, 고생하니까 왜 날 소로 낳지. 딸로 낳았습니까? 하면서 그런 원망도.)

103011 #1 그런 건 안 허고 바당에 희어갈 때 노래가 잇지. 비창허게 노래허멍 희어가.(그런 건 안 하고 바다에 희어갈 때 노래가 있지. 비창하게 노래하면서 희어가.)

103011 @ 어떻게?(어떻게?)

103011 #1 우리 어멍 날 무사 낭.(우리 어머니 날 왜 나서.)

103011 @ 노래로 흔번 헤봅서!(노래로 한번 해보세요!)

103011 #1 막 물 속곳 입엉 빠져봐라. 달달달달 춥잔아. 막 손이 다 죽어 불어.(막 물 속옷 입어서 빠져봐라. 달달달달 춥잖아. 막 손이 다 죽어버려.)

103011 @ 노래 한번 해봅서. 삼촌 노래도 잘허고. 못허는게 엇다예.(노래 한번 해보세요. 삼촌 노래도 잘하고. 못하는 게 없네요)

103011 #1 어떠난 나 노래 잘 허는 거 알안?(어째서 내 노래 잘 하는 거 알았어?)

103011 @ 저번에 흔번 창가 부르는 거 보난. 바로 기억력 어릴 때 그.(저번에 한번 창가 부르는 거 보니까. 바로 기억력 어릴 때 그.)

103011 #1 이제도 일본노래 잊어불지 아녀. 일본노래.(이제도 일본노래 잊어버리지 않아. 일본노래.)

103011 @ 게난 다 녹음헤 줍서.(그러니까 다 녹음해 주세요.)

103011 #1 일본노래는이 우리나라가 애국가 잇잔아. 일본나라도 애국가가 잇어. 일본 애국가는 이. 이시노 나리 고께노~ 무스~마데. 이제 구십이 다낫네. 나가.(일본노래는 우리나라가 애국가 있잖아. 일본나라도 애국가가 있어. 일본 애국가는. 이시노 나리 고께노~ 무스~까지. 이제 구십이 다 되었네. 내가.)

103011 @ 기억이 대단허우다.(기억이 대단합니다.)

103011 #1 이젠 막 잊어불언. 오히려 일본말이 쉬와. 오학년ᄁᆞ지 일본말만 헤낫저게. 조선말 원 못씨게 허여. 우리 대엔, 우리시절엔 일본말만. 일본글만 허고 일본말만 허고. 게난 이제 구구법도이 이이는 사가? 일본말이 쉬와. 일본글로만 헤나난. 거민 이 일제 때에 저 조천 가면은 우린 강습을 헤여. 어머니가 힘드난 이 조천국민학굘 안왕 강습소 강습솔 온 거야. 게민이 야스쿠니 신자[61]에 가민이 강습손 저 흔편 구석에 강 세웁곡 조천흑교 허곡 함덕흑굔 가운디 세와. 거민이 거 일본놈 시절이니까 저 어디 가민 야스쿠니 신자가 잇어. 기도허는 디.(이젠 막 잊어버렸어. 오히려 일본말이 쉬워. 오학년까지

61) '야스쿠니 신자'는 야스쿠니 신사(神社)를 말하며 일본 도쿄 지요다구에 있는 신사로 메이지 이후의 전쟁 따위로 죽은 250여 만의 혼을 모아 제사를 지내는 곳으로 제이차대전이 끝날 때까지 황실의 보호를 받고 있다.

일본말만 했었지. 조선말 원 못쓰게 해. 우리 대엔, 우리시절엔 일본말만. 일본글만 하고 일본말만 하고. 그러니까 이제 구구법도 이이는 사가? 일본말이 쉬워. 일본글로만 해나난. 거민 이 일제 때에 저 조천 가면은 우린 강습을 해. 어머니가 힘드니까 이 조천국민학교를 안 왔어. 강습소 강습솔 온 거야. 그러면 야스쿠니 신사에 가면 강습손 저 한편 구석에 가서 세우고 조천학교 하고 함덕학교는 가운데 세워. 거면 거 일본 놈 시절이니까 저 어디 가민 야스쿠니 신사가 있어. 기도하는데.)

103011 @ 아아.(아아.)

103011 #1 기도허는 디 시민 이제 너네 텔레비전로 아이 봠나? 혜영 헌 옷 입엉 일본사람이 그거 다 우리 혜난 거.(기도하는데 있으면 이제 너흰 텔레비젼으로 안 보니? 하양 한 옷 입어서 일본사람이 그거 다 우리 했었던 거.)

103011 @ 에고.(에고.)

103011 #1 거믄 그 하르버지가 축을 읽어. 여기서 ᄀᆞ뜨민 이제 막 거 기도허는 거야이.(그러면 그 할아버지가 축을 읽어. 여기서 같으면 이제 막 거 기도하는 거야.)

103011 @ 아아.(아아.)

103011 #1 이제 부처님 허믄 이 정구업지 허듯 허는 기도라. 신미요꼬 난지~. 고거 다 우리 혜난 거.(이제 부처님 하면 이 정구업지 하듯 하는 기도라 '신미요꼬 난지~.' 그거 다 우리 했었던 거.)

103011 @ 하하하하 어떵 외왓수과 거?(하하하하 어떻게 외웠습니까? 거?)

103011 #1 근디 믄 잊어 부럿잔아. 이제는. 멧 년이냐? 거 헤나 건 디가. 우리가 열싀 술에 헤나 건 디라. 열싀 술에 헤난 냥이라. 일본말도.(그런데 모두 잊어버렸잖아. 이제는. 몇 년이니? 거 했었던 지가. 우리가 열세 살에 했었던 대로라. 열세 살에 했었던 대로라. 일본말도)

103011 @ 그 해녀노렌 누구안티 배워수과?(그 해녀노랜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103011 #1 게난 우리가 답답헌 소리지. 이어도사하 아아 이어도사 하 아아 이어도사나 흥 이어이어~ 우리 어멍어어어~ 날 무사나아아앙 대천바당아아 물질허영어어 ~ 이어도사아아 ᄉᆞ십요왕아앙 할마니야 아아 우리 ᄌᆞ손 가는 디랑~ 소라 고동~ 전복 존 딜로 가게나 헙서 이어도사나~ 이어도사아아아하 이어도사아아하 한라산에~ 눈 묻은 건~ 제주도민이 다 알건만은 요네 간장 타는 불은 어느 누가아아 알아나 주리이이 이어도사나아아아 이어도사나 아아 혼질 두질이이이히 열두 발이~ 근당하니 저싱길이 훤혜엿구나 이어도사나아아 이어도사나아아.(그러니까 우리가 답답한 소리지. '이어도사하 아아 이어도사 하 아아 이어도사나 흥 이어이어~ 우리 어멍어어어~ 날 무사나아아앙 대천바당아아 물질허영어어 ~ 이어도사아아 ᄉᆞ십요왕아앙 할마니야 아아 우리 ᄌᆞ손 가는 디랑~ 소라 고동~ 전복 존 딜로 가게나 헙서 이어도사나~ 이어도사아아아하 이어도사아아하 한라산에~ 눈 묻은 건~ 제주도민이 다 알건만은 요네 간장 타는 불은 어느 누가아아 알아나 주리이이 이어도사나아아아 이어도사나 아아 혼질 두질이이이히 열두 발이~ 근당하니 저싱길이 훤혜엿구나 이어도사나아아 이어도사나아아'.)

103011 @ 너무너무 잘한다예.(너무너무 잘하네요.)

103011 #1 나가 여기서 상군이야 상군. 여기서 들어봐. 숨비는 해녀 중에 숨진 사름 하난 죽어불곡 나만 살아이서게.(나가 여기서 상군이야 상군. 여기서 들어봐. 숨비는 해녀 중에 숨진 사름 많으니까 죽어버리고 나만 살아있어.)

103011 @ 거 돌아가신 분은 그냥 아판?(거 돌아가신 분은 그냥 아팠어?)

103011 #1 응, 아판 죽엇어. 그 사름허고 나벳긔 베끗디 안가. 우린 소라도 안 잡으러. 전복만 테레.(응, 아판 죽었어. 그 사람하고 나밖에 밖에 안가. 우린 소라도 안 잡으러. 전복만 때러.)

103011 @ 어디? 대마도여 저.(어디? 대마도여 저.)

103011 #1 그런덴 안 가완. 요 신촌에서나.(그런덴 안 가왔어. 요 신촌에서나.)

103011 @ 육지는 글렌 헤도 안 가낫구나.(육지는 가자고 해도 안 갔었구나.)

103011 #1 육지물질 안 가, 우린.(육지물질 안 가, 우린.)

103011 @ 무사 안 갑디가? 겁낭.(왜 안 갔습니까? 겁나서.)

103011 #1 아니 가질 못헤여. 아기 낳저, 밧디 보저, 바당 보저. 어떵헹 가냐? 것도 애기도 안 나고 시집 아이간 사람덜은 그디 강 벌지.(안 가질 못해. 아기 낳으랴, 밭에 보랴, 바다 보랴. 어떻게 해서 가니? 것도 애기도 안 낳고 시집 아니 간 사람들은 거기 가서 벌지.)

103011 @ 일본에도 가고 막 헷덴 헙디다.(일본에도 가고 막 했다고 합디다.)

103011 #1 일본 대마도는 아무나 못헤. 막 바당물이 세다고 혜. 강온 사름덜 말이. 대마도는 완전히 물질 가고.(일본 대마도는 아무나 못해. 막 바닷물이 세다고 해. 가서 온 사름들 말이. 대마도는 완전히 물질 가고.)

103011 @ 김녕 사람덜은 많이 가십디다예.(김녕 사람들은 많이 가십디다.)

103011 #1 김녕 사름덜은 물질 헹만 살지. 이젠 물질 허는 사름은이 알아주질 안혜.(김녕 사람들은 물질 해서만 살지. 이젠 물질하는 사람은 알아주질 않아.)

103011 @ 음.(음.)

103011 #1 물질허는 사람 불각제기옌 허여. 알아주지 안허여.(물질하는 사람 '불각제기'라고 해. 알아주지 않아.)

103011 @ 비바리라고 안헹 불각제기옌 헷수과?(비바리라고 않고 '불각제기'라고 했습니까?)

103011 #1 게난 이 옛날 어른덜이 불각제기옝만 헤여. 물질허는 사름을.(그러니까 옛날 어른들이 '불각제기'라고만 해. 물질하는 사람을.)

103011 @ 불각제기는 무신 말? 각제기는 고기 이름이고.('불각제기'는 무슨 말? 각제기는 고기 이름이고.)

103011 #1 불각제기ᄀᆞ찌 에이고, 그냥 물에만 들렝. 것이 나쁜 말이다게. 불각제기옌 헌 게.('불각제기'같이 에이고, 그냥 물에만 들라고. 것이 나쁜 말이다. '불각제기'라고 한 게.)

103011 @ 불각제기는.('불각제기'는.)

103011 #1 불각제기는 고기 일름이 아니고 사람이 그냥 힘들이 거 허는 말이라. 불

각제기(‘불각제기’는 고기 이름이 아니고 사람이 그냥 힘들어 거 하는 말이라. ‘불각제기’.)

103011 @ 예를 들면 악바리 같은.(예를 들면 악바리 같은.)

103011 #1 그런 식이지. 막 악바리 담덴 헌거지. 불각제기랑. 그자 사투리가 불각제기. 악바리는 저 표준말이고.(그런 식이지. 막 악바리 같다고 한 거지. ‘불각제기’랑. 그저 사투리가 ‘불각제기’. 악바리는 저 표준말이고.)

103011 @ 비바리라는 말도 썻수과?(비바리라는 말도 썼습니까?)

103011 #1 우리? 어, 연날 우리ᄀᆞ라 여자ᄀᆞ라 비바리.(우리? 어, 옛날 우리보고 여자보고 비바리.)

103011 @ 거는 물질하는 사람을 비바리옌 헷덴 헨게 그건 아닌가?(거는 물질하는 사람을 비바리라고 했다고 하던데 그건 아닌가?)

103011 #1 해녀, 줌녜. 똘 나민 줌네 난.(해녀, 잠녀. 딸 나면 잠녀 낳았어.)

103011 @ 똘나민 줌네 난. 근디 아까 삼촌 말헌 것처럼 정말 딸은 만약에 우에 애기가 아들이고 여기 걸어다니는 아이가 똘일 수도 잇잔아?(딸 나면 잠녀 낳았어. 그런데 아까 삼촌 말한 것처럼 정말 딸은 만약에 우에 애기가 아들이고 여기 걸어 다니는 아이가 딸일 수도 있잖아?)

103011 #1 걸어 뎅기는 애긴 똘애길 업고, 아덜 애긴 걸려 뎅겨.(걸어 다니는 아긴 딸아길 업고, 아들 아긴 걸려서 다녀.)

103011 @ 건 용감하게 크렌 경 헌건가 아니면 딸이 아까워서 그런 거?(건 용감하게 크라고 그렇게 한 건가 아니면 딸이 아까워서 그런 거?)

103011 #1 딸이 아까웁고, 또 똘은 흔번 가불민 못보고 아덜은 메누리 멧 개라도 허여. 그런 뜻이지.(딸이 아깝고, 또 딸은 한번 가버리면 못 보고 아들은 며느리 몇 개라도 해. 그런 뜻이지.)

103011 @ 아아, 어쨌든 마음속으로는 딸 뭐 헤도 자기 같은 운명이기 때문에 딸을 아끼기는 아꼇다는 거네.(아아, 어쨌든 마음속으로는 딸 뭐해도 자기 같은 운명이기 때문에 딸을 아끼기는 아꼈다는 거네.)

103011 #1 아끼지. 아껴. 겨난 똘이 애끼니까 똘난 애기는 허곡 메누리는 멧 개라도 허민 아기 볼 수가 잇고. 빨리 걸어. 업은 애기 발 실로왐서.(아끼지. 아껴. 겨난 딸이 아끼니까 딸 난 애기는 하고 며느리는 몇 개라도 하면 아기 볼 수가 있고. 빨리 걸어. 업은 애기 발 차가워.)

103011 @ 하하하하. 난 또예 꺼꿀로만 오해를 헷어예. 아들, 아들만 우리 제주도 여자들은 엄마들이 아들, 아들만 헌 줄 알앗거든.(하하하하. 난 또요. 거꾸로만 오해를 했어요. 아들, 아들만 우리 제주도 여자들은 엄마들이 아들, 아들만 한 줄 알았거든.)

103011 #1 아덜, 아덜은 헤도 그 차이 잇잔아. 똘은 죽어 불민 다시 못 봐도 아덜은 가지믄 멧 개라도 손지가 많잖아. 빨리 걸어. 업은 애기 발 실로왐서. 거니까 똘이 아까웁지. 메누리보담. 그런 뜻이야. 에구.(아들, 아들은 해도 그 차이 있잖아. 딸은 죽어버리면 다시 못 봐도 아들은 가지면 몇 개라도 손자가 많잖아. 빨리 걸어. 업은 애기 발 차

갑다. 거니까 딸이 아깝지. 며느리보다. 그런 뜻이야. 에구.)

103011 @ 그렇구나. 게난예. 어릴 땐 아덜도 죽을 힘 다헹 키와도 점점 또 실망허는 일들도 많이 셍겨.(그렇구나. 그러니까요. 어릴 땐 아들도 죽을 힘 다해서 키워도 점점 또 실망하는 일들도 많이 생겨.)

103011 #1 겨난 뚤은 부모 심정을 알아도 아덜은 몰라. 재산 먹는 건 아덜이고.(그러니까 딸은 부모 심정을 알아도 아들은 몰라. 재산 먹는 건 아들이고.)

103011 @ 하하.(하하.)

103011 #1 고생허는 건 뚤이고. 그렇잔아이. 이제 지금.(고생하는 건 딸이고. 그렇잖아. 이제 지금.)

103011 @ 하하.(하하.)

103011 #1 재산 먹는 건 아덜이고 뚤은 고생허고, 먹지도 못허곡, 야 이레 와라! 저레 와라! 뭐 벵원에 돌아가라. 무시거 사와라 옷도 다 떨어졋저.(재산 먹는 건 아들이고 딸은 고생하고, 먹지도 못하고, 야 이리 와라! 저리 와라! 뭐 병원에 데려가라 뭐 사와라 옷도 다 떨어져.)

103011 @ 맞아.(맞아.)

103011 #1 뚤신딘 골아도 아덜신디, 메누리신딘 못 골아. 게난 먹는 건 아덜이고 고생허는 건 뚤이고.(딸에게는 말해도 아들에게, 며느리에게는 못 말해. 그러니까 먹는 건 아들이고 고생하는 건 딸이고.)

103011 @ 경헤도 봅서게. 뚤 이시난게.(그렇게 해도 보세요. 딸 있으니까.)

103011 #1 게난 뚤 네 개.(그러니까 딸 네 개.)

103011 @ 게난.(그러니까.)

103011 #1 얼마나 좋아.(얼마나 좋아.)

103011 @ 옛날에는 힘들어도 그게.(옛날에는 힘들어도 그게.)

103011 #1 뚤덜이 그렇게 돈도 가져다주고 옷도 사오고 먹을 것도.(딸들이 그렇게 돈도 가져다주고 옷도 사오고 먹을 것도.)

103011 @ 마음을 아니까게.(마음을 아니까.)

103011 #1 어멍 못 젼뎜젠 아파가민 빨리 병원에 그릅서! 병원에 그릅서! 경허난 메누리 아덜신딘 아프덴 안허여. 뚤신디만 아이구, 아이구, 아이구, 머리도 아프곡 뭐 허리도 아프곡 어쩌고, 저쩌고. 아 무사 아덜ᄀᆞ라 ᄀᆞ릅서. 아오고 난 아덜ᄀᆞ라 못ᄀᆞᆯ켜! 아이구 빨리오라! 나 죽어지켜! 아이구 아이구 막 쿠사리 먹으멍도 막 뚤ᄀᆞ라 오렌 허믄 메누리신디 ᄀᆞᆯ렌. 아이구, 무사 날ᄀᆞ라 그디 강 ᄀᆞ릅서. 아이구, 나 못ᄀᆞᆯ켜게! 자기 오라게!(어머니 못 견딘다고 아파가면 빨리 병원에 갑시다! 병원에 갑시다! 그렇게 하니까 며느리, 아들에게 아프다고 안 해. 딸에게만 아이구, 아이구, 아이구, 머리도 아프고 뭐 허리도 아프고 어쩌고, 저쩌고, 아 무사 아들보고 말하세요. 아이고 난 아들보고 못 말하겠다! 아이구 빨리 오라! 나 죽어지겠다! 아이구, 아이구, 막 핀잔 먹으면서도 막 딸보고 오라고 하면 며느리에게 말하라고. 아이구, 왜? 날보고 거기 가서 말하세요. 아이구, 나 못 말하겠다! 빨리 오라!)

103011 @ 어려운 거구나예.(어려운 거군요.)

103011 #1 뚤이 부드러와. 뚤하고 막 이년, 저년헤도 잊어불곡이.(딸이 부드러워. 딸하고 막 이년, 저년해도 잊어버리고.)

103011 @ 하하하하.(하하하하.)

103011 #1 메누리 골은 말은 절대 아이 잊어 불어 또 시어멍도 메누리 골은 거 절대. 뚤ᄀᆞ라 이년아, 저년아 죽어라 살려라 헤도 뚤도 잊어불곡 어멍도 잊어불곡. 게난 뱃속에 이서난 것이 차이가 잇어.(며느리 말한 말은 절대 안 잊어버려. 또 시어머니도 며느리 갈은 거 절대. 딸보고 이년아, 저년아 죽어라 살려라 해도 딸도 잊어버리고 어머니도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뱃속에 있었던 것이 차이가 있어.)

103011 @ 차이가.(차이가.)

103011 #1 메누린 놈의 뱃속에 잇고 뚤은 이녁 뱃속에.(며느린 남의 뱃속에 있고 딸은 이녁 뱃속에.)

103011 @ 점점 더.(점점 더.)

103011 #1 겐디 이제 지금 뚤한 사름은 펜안허여.(그런데 이제 지금 딸 많은 사름은 편안해.)

103011 @ 비행기 탄 저 여행 다닌덴 헴수게.(비행기 탄 저 여행 다닌다고 합니다.)

103011 #1 저디 관오 각시 뚤이 아옵개라. 아덜은 엇곡. 얼마나 야, 십만 원썩이라도 혼둘 구십만 원 아냐. 거난 이제 세상은 뚤 한 사름이 펜안헤. 옛날엔 아덜아덜 헤난디. 도깨아덜. 뚤덜 대ᄇᆞ름들이 좋아. 시훤헌 게.(저기 관오 각시 딸이 아홉 개라. 아들은 없고. 얼마나 야, 십만 원씩이라도 한달 구십 만원 아니니? 그러니까 이제 세상은 딸 많은 사람이 편안해. 옛날엔 아들, 아들 했었는데. 도리깻열. 딸들 대보름달이 좋아. 시원한 게.)

103012 @ 하하하하, 재밋다예.(하하하하, 재밌네요.)

103012 #1 아, 정말이라.(아, 정말이라.)

103012 @ 그렇구나예. 게믄 보리쌀은 어떻게 장만합니까? 연자매 맷돌에.(그렇군요. 그러면 보리쌀은 어떻게 장만합니까? 연자매 맷돌에.)

103012 #1 보리는 장만헐 덱에 거 옛날은 도께로 두드련 장만헤낫지. 이제 그 태작기 이신 때는 얼마 오래지 안 헷어.(보리는 장만할 적에 거 옛날은 도리깨로 두드려서 장만했었지. 이제 그 타작기 있는 때는 얼마 오래지 안했어.)

103012 @ 여기 신촌에는 그 방엣돌이 몰방앗간이 몃 개 잇엇수과?(여기 신촌에는 그 방아돌이 연자매간이 몇 개 있었습니까?)

103012 #1 다 트더불엇네. 다 트더불언.(다 뜯어버렸네. 다 뜯어버렸어)

103012 @ 옛날에 기억남수과? 멧 개 이서신고예?(옛날에 기억납니까? 몇 개 있었는가요?)

103012 #1 다 태와불언. 여기가 멧 갠곤 허민 돌코지[62] 하나, 또 일뤠낭[63]에 하나,

62) '돌코지'는 제주 신촌마을 바다의 지명 이름이다.

63) '일뤠낭'은 신촌의 일뤳당을 말하는데 이제 팽나무는 없다.

든물[64]에 하나, 세 개.(다 태워버렸어. 여기가 몇 갠가 하면 '돌코지' 하나, 또 일뤠낭에 하나, '든물'에 하나, 세 개.)

103012 @ 든물, 일뤠낭.('든물', '일뤠낭.')

103012 #1 든물에 혼밧디 허곡 일뤠낭에 하나 허곡 돌코지 하나 허고 세밧디 이선.('든물'에 한군데 하고 '일뤠낭'에 하나 하고 '돌코지' 하나 하고 세군데 있었어.)

103012 @ 일레낭, 든물, 돌코지, 세 밧디 이선예. 이게 동카름?('일레낭', '든물', '돌코지', 세 군데 있었어요. 이게 '동카름'?)

103012 #1 동카름.('동카름'.)

103012 @ 그믄 서카름은 모르고예?(그러면 '서카름'은 모르고요?)

103012 #1 서카름은 몰라. 우린 동카름.('서카름'는 몰라. 우린 '동카름'.)

103012 @ 음.(음.)

103012 #1 나가 이 동카름에서 나곡 컨. 어디 원 안 가봣젠 허난.(내가 이 '동카름'에서 나고 컸어. 어디 원 안 가봤다고 하니까.)

103012 @ 말방엣간 세 군데 중에 삼촌넨 어디를 주로 이용헷수과?(연자매간 세 군데 중에 삼촌넨 어디를 주로 이용했습니까?)

103012 #1 든물에도 가고 돌코지도 가고.('든물'에도 가고 '돌코지'도 가고.)

103012 @ 차례차례 영 줄 지어가멍?(차례차례 이렇게 줄 지어가면서?)

103012 #1 그렇지. 왜냐하면이, 차경 잇어이.(그렇지. 왜냐하면, '차경' 있어.)

103012 @ 음.(음.)

103012 #1 밀리멍 꿰영덜 허는 차경덜 잇어이. 그거 ᄆᆞ녀 가져다놔야 ᄀᆞᆯ아.(밀리면서 꿰여서들 하는 채들 있어. 그거 먼저 가져다놔야 갈아.)

103012 @ 차경이 뭐꽈?('차경'이 뭡니까?)

103012 #1 거 밀리는 그 ᄀᆞ레 밀리는 낭 헤영 걸로 막.(거 밀리는 그 맷돌 밀리는 나무해서 걸로 막.)

103012 @ 아아, 낭 이렇게, 차경.(아아, 나무 이렇게, 채.)

103012 #1 그걸 가져다 놔야 먼여 헤여. 그거 안 아져다 노민 못 헤여.(그걸 가져다 놔야 먼저 해. 그거 안 가져다 놓으면 못해.)

103012 @ 마을에서 공동으로 ᄀᆞ는.(마을에서 공동으로 가는.)

103012 #1 건 동네에서 공동으로 ᄀᆞᆯ안. ᄆᆞ녀 ᄀᆞ는 사름이 채. ᄀᆞ레 다 선배, 후배가 잇지. 거난 거, 그거 ᄀᆞᆯ젠 허민 좀 안장 일찍.(건 동네에서 공동으로 갈아서. 먼저 가는 사람이 채. 맷돌 다 선배, 후배가 있지. 그러니까 거, 그거 말하려고 하면 잠 안자서 일찍.)

103012 @ 새벽에.(새벽에.)

103012 #1 새벽에 그걸 아시다 놔야 돼. 겨믄 이젠 그 누게 다음엔 나 다음엔 누게 헤영 ᄀᆞᆯ잔아. 허민 거 혼 사람신더레 먼여 가지믄 이 다음은 나우다예. ᄀᆞᆯ읍서예. 허곡 또 그다음 사름은 이번 나여 헹 ᄀᆞᆯ곡. 그게 중간, 중간 누게 어멍 이번엔 ᄀᆞᆯ거 경 헹.

64) '든물'은 신촌에 있는 물로 지금은 사라지고 없다.

(새벽에 그걸 가져다 놔야 돼. 그러면 이젠 그 누게 다음엔 나 다음엔 누가 해서 갈잖아. 하면 거 한 사람에게 먼저 가지면 이다음은 나예요. 말하세요. 하고 또 그다음 사름은 이번 나여 해서 갈고. 그게 중간, 중간 누구 어머니 이번엔 갈 거 그렇게 해서.)

103012 @ 경 헹 싸우기도 허곡?(그렇게 해서 싸우기도 하고?)

103012 #1 안 싸와. 딱 준번이 이신디. 아니 준번이 이신디 싸우느냐. 준번 멕여분데. 권리로 헴시민 싸우지.(안 싸와. 딱 순번이 있는데. 아니 순번이 있는데 싸우느냐. 순번 먹여버린데. 권리로 한다면 싸우지.)

103012 @ 경 헹 누구 도와주는 사람 엇고 알앙 어멍, 아방이 강 소가 끗습니까? 말이 끗습니까?(그렇게 해서 누구 도와주는 사람 없고 알아서 어머니, 아버지가 가서 소가 끕니까? 말이 끕니까?)

103012 #1 소 말 잇인 사름은 부제 칩이고 그냥 사람은 사람 힘으로.(소 말 있는 사름은 부자 집이고 그냥 사람은 사람 힘으로.)

103012 @ 남자가?(남자가?)

103012 #1 수눌어 가멍.(품앗이 하면서.)

103012 @ 아아, 수눌어가멍. 한번 혜주민 자기가 혜주고.(아아, 품앗이 하면서. 한번 해주면 자기가 해주고.)

103012 #1 혜주민 또 그디 강 ᄀᆞᆯ아주곡.(해주면 또 거기 가서 갈아주고.)

103012 @ ᄆᆞᆯᄀᆞ레 소리는 엇엇수과? 어허야 디야.(연자매 소리는 없었습니까? 어허야 디야.)

103012 #1 그건 돌ᄏᆞ레.(그건 돌 맷돌.)

103012 @ 돌ᄀᆞ레.(돌 맷돌.)

103012 #1 그 ᄆᆞᆯ방에ᄀᆞ린 크게 ᄀᆞᆯ아다놩 ᄇᆞ름에 불령 여기 널엉.(그 연자매 맷돌 크게 갈아다놔서 바람에 불려서 여기 널어서.)

103012 @ ᄆᆞᆯᄀᆞ레 방에도 어디 가민 소리 이십디다. 엉허야 도야.(연자매 방아도 어디 가면 소리 있습디다. '엉허야 도야~'.)

103012 #1 어디 엉허야 도야 건 영 건 돌ᄏᆞ레. 그거 ᄀᆞᆯ 때는 엇어. 그냥 막 똠이 잘잘 나지. 큰 맷돌로 ᄀᆞ는디 그거 소리헤지나? 똠으로 닥닥닥닥 사름이 숨이 다 바쁜디. 이 ᄀᆞ레는 이어도ᄀᆞ레~ 재기나 돌라~ 요놈의 ᄀᆞ레야 멍텅구리ᄀᆞ찌 재기 돌아라 이여이여 ᄀᆞ레.(어디 '엉허야 도야' 건 영 건 돌맷돌. 그거 갈 때는 없어. 그냥 막 땀이 뻘뻘 나지. 큰 맷돌로 가는데 그거 노래 할 수 있니? 땀으로 닥닥닥닥 사람이 숨이 다 바쁜데. 이 맷돌은 이어도ᄀᆞ레 빨리나 돌라 요놈의 맷돌아 멍텅구리같이 재게 돌아라 이여이여 맷돌~.)

103012 @ ᄒᆞ꼼만 더 불러봅서. 이 노래가 진짜에 좋은 거 닮아.(조금만 더 불러보세요. 이 노래가 진짜에 좋은 거 같아.)

103012 #1 그거, 그거 힘드니까 더 내용 들어 강. 이어도ᄀᆞ레 재기벌러나지라 이어도ᄀᆞ레 요ᄀᆞ레를 빨리 헤여야 널엇당 보리쏠 ᄀᆞᆯ 거 아니가 이어도ᄀᆞ레~. 경 헨. 난 니 빠져노난 말을 못 ᄀᆞᆯ켜게.(그거, 그거 힘드니까 더 내용 들어 가서. '이어도ᄀᆞ레 재기 벌

러나지라 이어도ᄀᆞ레 요 ᄀᆞ레를 빨리 헤여야 널엇당 보리쏠 ᄀᆞᆯ 거 아니가 이어도ᄀᆞ레~'. 그렇게 했어. 난 이 빠져 놓으니까 말을 못 하겠다.)

103012 @ 이여도ᄀᆞ레~ 멧 소절하고예. 이어도사나~.('이여도ᄀᆞ레~' 몇 소절하고요. '이어도 사나~'.)

103012 #1 거 맷돌에 ᄀᆞ는 건 이어도ᄀᆞ레~. 마당질은이.(거 맷돌에 가는 건 '이어도ᄀᆞ레~'. 마당질은.)

103012 @ 도리께소리.(도리깨소리.)

103012 #1 도리께 어야도홍 어가홍아아아~ 어야도홍 경허고. 걸 노래도 늘어지지 안허게. 이 맷돌, 이년ᄀᆞ레 이년ᄀᆞ레 재기나 돌라 요 ᄀᆞ렐 ᄀᆞᆯ아근에 저녁에 보리쏠 밥도 허여사 헐 거 아니가? 이여도ᄀᆞ레 이거지. 마당질 어야홍 어야홍 요동산은 팔제 궂인 내 앞이로구나 어야홍 어야홍 요동산을~ 내리와보자. 어야홍 오른착 가달은~ 들러메곡 왼쪽 가달은 땅에 디디곡 어야홍 어야홍. 이거라. 나신디 영 배와다근 뭘 헐라고.(도리깨 '어야도홍 어가홍아아아아~ 어야도홍' 그렇게 하고. 그걸 노래도 늘어지지 않게. 이 맷돌, '이년ᄀᆞ레 이년ᄀᆞ레 재기나 돌라 요 ᄀᆞ렐 ᄀᆞᆯ아근에 저녁에 보리쏠 밥도 허여사 헐 거 아니가? 이여도ᄀᆞ레' 이거지. 마당질 '어야홍 어야홍 요동산은 팔자 궂은 내 앞이로구나 어야홍 어야홍 요 동산을 내리워보자. 어야홍 오른착 가달은~ 들러메곡 왼쪽 가달은 땅에 디디곡 어야홍 어야홍'. 이거라. 나에게 이렇게 배워다가 뭘 하려고.)

103012 @ 우리 소리 공연하죠. 요런 걸 가졍 공연으로 만들엉 이 소리가 들엇을 때 가슴이 좀 아프잔아예.(우리 소리 공연하죠. 요런 걸 가져서 공연으로 만들어서 이 소리가 들었을 때 가슴이 좀 아프잖아요.)

103012 #1 서창허잔아. 또 탕건 노래가 잇어이. 혼 코, 두코, 혼 코, 두 코 걸려지라 걸려지라 나 탕건아 나 탕건아 자기 걸려야 혼 장 도막에 ᄆᆞ까사 쏠 받아당 먹을 거난 이여도 탕건 이여도 탕건. 혼 코 두 코 걸려지라 걸려지라~. 이건 탕건 소리.(애절하잖아. 또 탕건노래가 있어. '혼 코, 두 코, 혼 코, 두 코 걸려지라 걸려지라 나 탕건아 나 탕건아 자기 걸려야 혼 장 도막에 ᄆᆞ까사 쏠 받아당 먹을 거난 이여도 탕건 이여도 탕건. 혼 코 두 코 걸려지라 걸려지라~' 이건 탕건소리.)

103012 @ 아아. 아이고.(아아. 아이고.)

103012 #1 에휴 나 이렇게 살앗저. 탕건허지. 물질허지. 마당질허지. 검질매지. 아이구 살믄 이제 사람사 아이구, 아이구. 이불 걷지. 밤엔 옷 주워야지. 밤에 안허민 일가부렁 옷도 못주어. 양말도 주어야지. 양말도이 이거 하나민이 다 끈어지믄 또 트더동 또 새로 줍곡.(에휴, 나 이렇게 살았다. 탕건하지. 물질하지. 타작하지. 김매지. 아이구, 살면 이제 사람이야 아이구, 아이구. 이불 걷지. 밤엔 옷 기워야지 밤에 안하면 일 가버려서 옷도 못 기워. 양말도 기워야지 양말도 이거 하나면 다 끊어지면 또 뜯어두고 또 새로 깁고.)

103012 @ 우리 어렷을 때도 경.(우리 어렸을 때도 그렇게.)

103012 #1 밤인 양말 줘야지 옷 주어야지. 에이고 사는 건지 뭘 헌 건지 이젯사름은 경 헨 안 살아. 안 살아. 우리는 멍텅헌 어둠나라 사난 살앗주. 야! 물질허곡 보리밧디

강 보리 비곡 마당질허곡 응. 물 질어오지 쏠밥가? 보리쏠 미릇 솖아야 틈 재와야 밥헐 거. 재기 못 헤여. 그런 세상 바당 물질허지. 으이구, 삶은 왕보민 쌀 엇곡, 물엇곡이 뒈지도 물 지로우민 튀엉 돌아나불곡 아무것도 안 주니까 배고파가난 뒈지도 튄 거주. 아이구, 우린 산 세상 허민이 진짜 조도 이 마당 도께로 두드려야, 조도.(밤엔 양말 기워야지 옷 기워야지 에이고 사는 건지 뭘 한 건지 이제 사람은 그렇게 해서 안 살아. 안 살아. 우리는 멍청한 어둠나라 사니까 살았지. 야! 물질허곡 보리밭에 가서 보리 베고, 타작하고 응. 물 길어오지 쌀밥이니? 보리쌀 미릇 삶아야 틈 재워야 밥 할 거고 빨리 못해. 그런 세상 바다 물질하지 으이구, 삶은 와서 보면 쌀 없고, 물 없고 돼지도 물 그리우면 뛰어서 달아나버리고 아무것도 안 주니까 배고파가니까 돼지도 뛴 거지. 아이구 우린 산 세상 하면 진짜 조도 이 마당 도리깨로 두드려야, 조도.)

103012 @ 조는 두 번째가 조고예. 이번에는 맷돌, ᄀᆞ레는 멧 시간까지 갑니까?(조는 두 번째가 조고요. 이번에는 맷돌, 맷돌은 몇 시간까지 갑니까?)

103012 #1 ᄀᆞ레? 하영 ᄀᆞᆯ젠 허민 오래 ᄀᆞᆯ곡. 족게 ᄀᆞᆯ젠 허민 빨리 ᄀᆞᆯ곡.(맷돌? 많이 갈려고 하면 오래 갈고. 작게 갈려고 하면 빨리 갈고.)

103012 @ 다 여자가 허는 거지예.(다 여자가 하는 거지요.)

103012 #1 아, 여자가 허지. 남잔 안허여.(아, 여자가 하지. 남잔 안 해.)

103012 @ 그믄 둘이도 갈곡?(그러면 둘이도 갈고?)

103012 #1 둘이는 똘이나.(둘이는 딸이나.)

103012 @ 큰딸도 헤봐수과?(큰딸도 해봤습니까?)

103012 #1 가이네 안 헤봔. 가이넨 어떵 허는 것도 몰라. 우리 어린 때 해나난.(걔네 안 해 봤어. 걘넨 어떻게 하는 것도 몰라. 우리 어린 때 했었으니까.)

103012 @ 할머니네영은 헤봣구나예.(할머니랑은 해봤군요.)

103012 #1 응. 할마님 허는디 ᄀᆞ찌 ᄀᆞᆯ렌 허민.(응. 할머님 하는데 같이 갈라고 하면.)

103012 @ 삼촌도 많이 헤봐수과?(삼촌도 많이 해봤습니까?)

103012 #1 아, 할망이 허는냥 ᄀᆞᆯ주. 영 돌리렌 허믄.(아, 할머니가 하는 대로 말하지. 이렇게 돌리라고 하면.)

103012 @ 노래는 누가 영 ᄀᆞ르쳐 줍디가?(노래는 누가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103012 #1 노래는? 할마니 허는 거, 들엇다가 . 우리 할마니 허는 거, 들엇다가 이젠.(노래는? 할머니 하는 거, 들었다가. 우리 할머니 하는 거, 들었다가 이젠.)

103012 @ 달리기만 잘 허는 게 아니고 또 이렇게 영리하고 노래도 잘 허고.(달리기만 잘 하는 게 아니고 또 이렇게 영리하고 노래도 잘 하고.)

103012 #1 무신 영리허냐? 바보.(무신 영리하니? 바보.)

103012 @ 게난 이 소리를 아무나 잘 허는 게 아니라예.(그러니까 이 소리를 아무나 잘 하는 게 아니에요.)

103012 #1 에에.(에에.)

103012 @ 진짜.(진짜.)

103012 #1 나원. 소린? 우린 바당에 히어가는 노래도 허고 또.(참나. 소린? 우린 바

다에 헤엄쳐 가는 노래도 하고 또.)

103012 @ 영 보믄 이런 노래들 못허는 사름은 못헤여.(이렇게 보면 이런 노래들 못하는 사람은 못해.)

103012 #1 마당질 노래도 허곡. 우린 헤여 나니까 안 헤난 사람은 못헤여.(타작 노래도 하고. 우린 해 나니까 안 했었던 사람은 못해.)

103012 @ 게난 어떻게?(그러니까 어떻게?)

103012 #1 헤 나니까 거 헴지. 또 검질메는 노래가 잇고.(해 나니까 거 하지. 또 김매는 노래가 있고.)

103012 @ 신촌에 검질메는 소리도, 신촌에 검질메는 소린 어떻게 헴수과?(신촌에 김매는 소린 어떻게 합니까?)

103012 #1 검질메는 소리? 앞멍에요여랑 들어나오라 둣멍에라근 물러나가라~. 이거 검질매는. 검질짓고야 골너른밧데 어기녀랑 사데로구나. 사데소리가 줓아나가면 검질손도나 줓아간다~. 이거 우리가 헤난 거. 헤난 거난 불럼주. 아니헤난 사름 못불러. 겐디 우리 일본노래고, 일본말이고 잊어부렁 못헌디 글으믄 다 알아들어. 너도 일본말 배왓지이.(김매는 소리? '앞멍에랑 들어나오라 뒷멍에라근 물러나가라 이거 김매는. 김 짓고야 골 너른 밭에 어기녀랑 사데로구나 사데소리가 쫓아나가면 김 손도나 쫓아간다~'. 이거 우리가 했었던 거. 했었던 거니까 부르지. 안 했었던 사람 못 불러. 그런데 우리 일본노래고, 일본말이고 잊어버려서 못하는데 말하면 다 알아들어. 너도 일본말 배웠지.)

103012 @ 예. 나도 일본은 한 이년 갓다오난.(예. 나도 일본은 한 이년 갔다 오니까.)

103012 #1 응. 이거 우리 배울 땐이 가오, 마유, 메, 하나, 구비, 우데, 지찌, 하라, 오망기, 에이구, 츰 우리도 잘도 뛰는 선순 나가 최고 잘 뛰어. 비 니쥬교!(응. 이거 우리 배울 땐 얼굴, 눈썹, 눈, 코, 목, 팔, 젖, 배, '오망기', 에이구, 참 우리도 잘도 뛰는 선순 나가 최고 잘 뛰어. '비 니쥬교'!)

103012 @ 야. 진짜 삼촌 이렇게 소리 잘하고 하니까 그동안 많이들 녹음 헹 가시큰게.(야. 진짜 삼촌 이렇게 소리 잘하고 하니까 그동안 많이들 녹음해서 갔겠네.)

103012 #1 많이 즉아가서.(많이 적어갔어.)

103012 @ 민요대전에도 삼촌 이름이 들어가신가 한번 찾아봐야 뒈쿠다.(민요대전에도 삼촌 이름이 들어가신가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103012 #1 몰라. 많이 즉아가서. 재재작년에도 즉아가고이 여러 번을 즉아갓다. 하여튼 서울 대학생덜 완.(몰라. 많이 적어갔어. 재재작년에도 적어가고. 여러 번을 적어갔다. 하여튼 서울 대학생들 와서.)

103012 @ 서울에서. 대학생덜.(서울에서. 대학생들.)

103012 #1 즉아간. 저 서까름 살 때도 완 즉아가고. 서울 대학생이노렌 헹 즉아가고 제주사름은 즉아가는 냥 엇고. 그것덜이 뭐옌사 즉아가신지 몰라.(적어갔어. 저 서 동네 살 때도 와서 적어가고. 서울 대학생이라고 해서 적어가고 제주사람은 적어 가는 냥 없고. 그것들이 뭐라고 적어갔는지 몰라.)

103012 @ 노래도 불러줍데가? 노래 불러주렌 안헙디가?(노래도 불러줬습니까? 노래 불러주라고 안 합디까?)

103012 #1 노래도 불럿지. 삼다도라 제주에는 아가씨도 많은데 바닷물에 시른 살결 꽃같이 피엇구나 미역을 따오리까 소라를 딸까 비바리 하소연이 물결 속에 꺼져가네 아아아아, 물결에 꺼져가네. 노래 잘 헴샤?(노래도 불렀지. '삼다도라 제주에는 아가씨도 많은데 바닷물에 실은 살결 꽃같이 피었구나. 미역을 따오리까 소라를 딸까 비바리 하소연이 물결 속에 꺼져가네 아아아아, 물결에 꺼져가네.' 노래 잘 하니?)

103012 @ (박수) 이거 두고두고 이거 남을 노래우다예. ᄀᆞ레ᄀᆞ는 소리 나 이런 거.(이거 두고두고 이거 남을 노랩니다. 맷돌 가는 소리 나 이런 거.)

103012 #1 ᄀᆞ레ᄀᆞ는 소리, ᄆᆞᆯ방에 ᄀᆞ는 거 큰 맷돌은 안허고 이렇게 ᄀᆞ는 건 이여이여도ᄀᆞ레~ 빨리빨리 돌아라~ 이어도ᄀᆞ레야~ 빨리 벌러지여사 저녁도 허고~ 아침밥도 지어사 허고 이여도ᄀᆞ레 이년ᄀᆞ레 우리어멍 날 무사 나근에~ 요ᄀᆞ레 ᄀᆞᆯ곡 삼시굶엉 물질허멍 요거 무신 일인고~ 이여도ᄀᆞ레 우리 어머니 날 무사 낳고 날랑 나컨 남ᄌᆞ로 낳주 이여도~자기 신세노래.(맷돌 가는 소리 연자매 가는 거 큰 맷돌은 안하고 이렇게 가는 건 '이여이여도ᄀᆞ레~ 빨리빨리 돌아라~ 이어도ᄀᆞ레야~ 빨리 벌러지여사 저녁도 허고~ 아침밥도 지어사 허고 이여도ᄀᆞ레 이년ᄀᆞ레 우리어멍 날 무사 나근에~ 요ᄀᆞ레 ᄀᆞᆯ곡 삼시굶엉 물질허멍 요거 무신 일인고~ 이여도ᄀᆞ레 우리 어머니 날 무사 낳고 날랑 나컨 남ᄌᆞ로 낳주 이여도~' 자기 신세노래.)

103012 @ 카.(카.)

103012 #1 우리 겐디 일본말은 잘 못헤도 ᄀᆞ는 건 돼. 그 일본 야스쿠니 신사 헌 거 다 알아.(우리 그런데 일본말은 잘 못해도 가는 건 돼. 그 일본 야스쿠니 신사 한 거 다 알아.)

103012 @ 그 내용은 무슨 내용이꽈? 난 빠르니까 못 알아들으커라.(그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난 빠르니까 못 알아듣겠다.)

103012 #1 이거 일본놈덜 축 익는 거. 저 애국가 불르듯.(이거 일본 놈들 축 익는 거. 저 애국가 부르듯.)

103012 @ 거난 그 내용은? 헤석하면.(그러니까 그 내용은? 해석하면.)

103012 #1 진 오모니 헌 거는 우리 포제에 국궁백 흥 허는 식이야. 일본놈덜 이거 몃 년 고게 열세 살에 헤난 거.('진 오모니' 한 거는 우리 포제에 '국궁백 흥' 허는 식이야. 일본 놈들 이거 몇 년 이야. 열세 살에 했었던 거.)

103012 @ 얼마나, 몃 번 학교 가믄 다 외우게 허니깐 이렇게.(얼마나, 몇 번 학교가면 다 외우게 하니깐 이렇게.)

103012 #1 아니 몃 번 아니 헹 다 머리더레 들어완.(아니 몇 번 안 해서 다 머리에 들어와서.)

103012 @ 삼촌 열세 살 때 ᄒᆞ교가믄 이걸 매일 허렌 허여?(삼촌 열세 살 때 학교가면 이걸 매일 하라고 해?)

103012 #1 다 배와줘. 선생이. 조선말 씌지 말렌 일본말만 허렌 허영.(다 배워줘 선

생이. 조선말 쓰지 말라고 일본말만 하라고 해서.)

103012 @ 일본 사람? 그 선생은 누구꽈? 이걸 가르쳐준 사람.(일본 사람? 그 선생은 누굽니까? 이걸 가르쳐준 사람.)

103012 #1 일본사람도 기고 또 이딧사름도 일본말만 허고 아사노선생, 도꼬야마 선생, 야마무라 선생, 미야모도 선생, 가나사와 선생 다 우리 배와준 사람.(일본사람도 있고 또 여기 사람도 일본말만 하고 아사노 선생, 도꼬야마 선생, 야마무라 선생, 미야모도 선생, 가나사와 선생 다 우리 배워준 사람.)

103012 @ 그 사람들 지금 뭐.(그 사람들 지금 뭐.)

103012 #1 다 죽엇지. 다 우리보단 우에 선생덜인디.(다 죽었지. 다 우리보단 위에 선생들인데.)

103012 @ 다 일본으로 패망허난 가불엇지예?(다 일본으로 패망하니까 가부렸지요?)

103012 #1 아니. 가고 오는 건 몰른디이 도꼬야마 선생은 제주사람인디 죽어실 거라.(아니. 가고 오는 건 몰르느데 도꼬야마 선생은 제주사람인데 죽었을 거라.)

103012 @ 아아, 도꼬야마 선생은 제주사람.(아아, 도꼬야마 선생은 제주사람.)

103012 #1 아사노 센세이도 잇고.(아사노 선생도 있고.)

103012 @ 제주도에서 ᄉᆞ삼때 죽진 않고 살단.(제주도에서 사삼 때 죽진 않고 살다가.)

103012 #1 몰라 ᄉᆞ삼에 죽엇는지 몰라. 다 우리 배와줘난 선생덜.(몰라 사삼에 죽었는지 몰라. 다 우리 배워주니까 선생들.)

103012 @ 삼촌은 그분들이 살앗는지 죽엇는지 모른다는 거지예?(삼촌은 그분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른다는 거지요?)

103012 #1 몰라. 하나토. 게곡 죽엇저게. 우리보단 여녕 한 선생덜.(몰라. 하나도. 그리고 죽었겠지. 우리보단 연령 많은 선생들.)

103012 @ 살면서 소식 들어본 적이 엇엇수과?(살면서 소식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까?)

103012 #1 엇어. 도고야마 선생 하나 살앗덴 헨게 죽어실 거라. 이거 멧 년이냐? 그 선생 하나 사난.(엇어. 도고야마 선생 하나 살았다고 하던데 죽었을 거라. 이거 몇 년이냐? 그 선생 하나 사니까.)

103012 @ 삼촌 학교 다닐 때 이덕구는 일본에 가 잇는 거엿수과?(삼촌 학교 다닐 때 이덕구는 일본에 가 있는 거였습니까?)

103012 #1 여기, 여기.(여기, 여기.)

103012 @ 멧 살 우이엿수과? 삼촌보다.(몇 살 위였습니까? 삼촌보다.)

103012 #1 ᄒᆞᆫ 우리 이모님이영 동갑이니까.(우리 이모님이랑 동갑이니까.)

103012 @ 아아.(아아.)

103012 #1 우리이모님 이제 살아시면은 구십.(우리이모님 이제 살았으면 구십.)

103012 @ 그럼 이모님이영 친구엿겟네?(그럼 이모님이랑 친구였겠네요?)

103012 #1 응, 그 또래라.(응, 그 또래라.)

103012 @ 아이고야.(아이고야.)

103012 #1 아흔 으답, 아홉 뒈실 거라. 이덕구가 살암시민.(아흔 여덟, 아홉 됐을 거라. 이덕구가 살았었으면.)

103012 @ 이모님 또래.(이모님 또래.)

103012 #1 이덕구 일본 혹교 대학 ᄆᆞ끈 사름이라.(이덕구 일본 학교 대학 마친 사람이라.)

103012 @ 게믄 나이가 많이 차이 나신게게.(그러면 나이가 많이 차이 났겠네요.)

103012 #1 응.(응.)

103012 @ 삼촌이영.(삼촌이랑.)

103012 #1 아이구 막 차이 잇지.(아이구 막 차이 있지.)

103012 @ 막 차이 잇덴 헤도 열 살 차이밖에.(막 차이 있다고 해도 열 살 차이밖에.)

103012 #1 우리도이 얼굴 알똥 말똥헤. 이덕구가 바로 이동넨디, 그 사름 일본 대학 ᄆᆞ끈 사름이라.(우리도 얼굴 알듯 말듯해. 이덕구가 바로 이 동넨데, 그 사람 일본 대학 마친 사람이라.)

103012 @ 응.(응.)

103012 #1 야 일본말로 아다마가이 이덕구가 이제 ᄀᆞ뜨민 대통령 이상 넘은 사름이라. 살아시민.(야 일본말로 '아다마가이' 이덕구가 이제 같으면 대통령 이상 넘은 사람이라. 살았으면.)

103012 @ 똑똑허민.(똑똑하면.)

103012 #1 머리가 막 똑똑헌, 이 사삼사건에 똑똑헌 사름은 다 죽어 불엇어.(머리가 막 똑똑한, 이 사삼사건에 똑똑한 사람은 다 죽어버렸어.)

103012 @ 시국을 잘못 만난예. 신촌이 똑똑헌 사람이 경 많아낫구나예. 근데 집안이 어떤 집안이엇길래 그 아덜을 유학시켜신고예?(시국을 잘못 만나서요. 신촌이 똑똑한 사람이 그렇게 많았었군요. 그런데 집안이 어떤 집안이었길래 그 아들을 유학시켰는가요?)

103012 #1 부젯칩이지.(부잣집이지.)

103012 @ 부젯칩이엇나 부다.(부잣집이었나 보다.)

103012 #1 근데 사삼사건에 밧이고, 집이고, 십촌꺼지 다 심어당 죽여 불어시난 권당도 엇어. 십촌까지 다 심어다 놩 이덕구아덜 이제 살아시면은 흔 칠십 뒈게 뒈실걸. 가이 흔 커나민 복수헌덴. 아이구, 이레 자락, 저레 자락 헌 거, 총으로 쏴 불언 이덕구 아덜. 복수험직 허난. 겐 죽엇주. 아이가 그냥이.(그런데 사삼사건에 밭이고 집이고 십촌까지 다 잡아다가 죽여 버렸으니 친척도 없어. 십촌까지 다 잡아다 놔서 이덕구 아들 이제 살았으면 한 칠십 되게 됐을 걸. 걔 한 컸으면 복수한다고. 아이구, '이레 자락, 저레 자락' 한 거, 총으로 쏴버렸어. 이덕구 아들 복수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죽었지. 아이가 그냥.)

103012 @ 이덕구 아덜은 삼촌허고 좀 또래 아니?(이덕구 아들은 삼촌하고 좀 또래 아니?)

103012 #1 이덕구 아덜? 나보단 아래지.(이덕구 아들? 나보단 아래지.)

103012 @ 아래.(아래.)

103012 #1 그렇지. 우리 그 사삼사건에 심어당.(그렇지. 우리 그 사삼사건에 잡아다가.)

103012 @ 이덕구 형도 잇엇고.(이덕구 형도 있었고.)

103012 #1 삼형제엔 호구, 자구, 덕구. 삼형제. 신촌 안네선 왕이라. 삼형제가.(삼형제엔 호구, 자구, 덕구. 삼형제. 신촌 안에선 왕이라. 삼형제가.)

103012 @ 다 일본 유학 갓다 왓구나.(다 일본 유학 갔다가 왔구나.)

103012 #1 다 공부덜 현. 십촌까지 다 죽여 불엇어.(다 공부들 했어. 십촌까지 다 죽여 버렸어.)

103012 @ 다 똑똑헤신디.(다 똑똑했었는데.)

103012 #1 권당도 엇어. 만딱 죽여불언.(친척도 없어. 모두 죽여 버렸어.)

103012 @ 다 죽여불언.(모두 죽여 버렸어.)

103012 #1 다 심어당 다 죽여부난 복수헌덴. 징그러운 세상이라.(다 잡아다가 다 죽여부난 복수한다고. 징그러운 세상이라.)

103012 @ 앗 떠불라! 헷겟다예?(앗 '떠불라'! 했겠네요?)

103012 #1 그냥이 여기 신촌마을 만딱 불태와 불엇어. 그 후제 새로 짓인 집이라 이거. 저 초등학교도 불태와 불곡 우리 해난 혹교 불태와 불언. 우리 거기서 일본말로 거 헤난 혹교가 일회 졸업이라. 우리 해시민 일회 졸업이라. 건디 우리어머님이 쏠 받아 먹으멍도 공부 시켯어. 나를 밤엔 탕관허고 낮에는 혹교 가고 밤엔 붉도록 탕관헤. 붉으민 또 혹교 가고.(그냥 여기 신촌마을 모두 불태워 버렸어. 그 후에 새로 지은 집이라 이거. 저 초등학교도 불태워 버리고 우리 했었던 학교 불태워 버렸어. 우리 거기서 일본말로 거 했었던 학교가 일회 졸업이라. 우리 했으면 일회 졸업이라. 그런데 우리어머님이 쌀 받아먹으면서도 공부 시켰어. 나를 밤엔 탕건하고 낮에는 학교가고 밤엔 밝도록 탕건 해. 밝으면 또 학교 가고.)

103012 @ 여동생도 공부헷수과?(여동생도 공부했습니까?)

103012 #1 그렇지. 육학년 졸업 ᄆᆞ까서. 나는 오학년까지 허고.(그렇지. 육학년 졸업 마쳤어. 나는 오학년까지 하고.)

103012 @ 생각보다.(생각보다.)

103012 #1 나 동생도 머리 막 좋아. 겐디 놈덜은 나 머리 막 좋덴 헤도 난 답답헹 못살커라. 한 복희어멍 머리 좋아! 헤도 야! 그런 말 말라! 난 답답헹 못살키여.(나 동생도 머리 막 좋아. 그런데 남덜은 나 머리 막 좋다고 해도 난 답답해서 못살겠더라. 한 복희어멍 머리 좋아! 해도 야! 그런 말 말라! 난 답답해서 못살겠더라.)

103012 @ 조금 더 세상을 살아살건디.(조금 더 세상을 살았을 건데.)

103012 #1 경헌디 공분헤시믄 나도 놈만은 허여. 학교헐 때도 탕관은 허면서도 남 앞이 떨어지진 안헷어. 거 탕관 허면서도 여기 배운 걸 다 보멍 탕간헤도 영영 책 보멍.(그런데 공분했으면 나도 남만은 해. 학교할 때도 탕건은 하면서도 남 앞에 떨어지진

안했어. 거 탕건 하면서도 여기 배운 걸 다 보면서 탕건해도 이렇게, 이렇게 책 보면서.)

103012 @ 아니, 저 다른 사람덜 탕건노래보다 삼촌 탕건노래가 더 좋수다.(아니, 저 다른 사람들 탕건노래보다 삼촌 탕건노래가 더 좋습니다.)

103012 #1 그 사름덜 부제니까 탕건 안헷지.(그 사람들 부자니까 탕건 안했지.)

103012 @ 아니, 노래를 더 잘헴서. 그거 지정이라도 뒀으민 지정 뒀을 건 디 왜 알려지질 않았지?(아니, 노래를 더 잘 합니다. 그거 지정이라도 됐으면 지정 됐을 건데 왜 알려지질 않았지?)

103012 #1 모르지. 그때는 누게가 노래헌 거 알아주나? 이젠 노래만 헤도 살 땐디. 그땐 시국에 노래도 허는 거 아니 알아주고.(모르지. 그때는 누가 노래한 거 알아주나? 이젠 노래만 해도 살 땐데. 그땐 시국에 노래도 하는 거 아니 알아주고.)

103012 @ 나중에라도 삼촌 탕건노래라든가 노래 잘 허는 거, 알암시믄.(나중에라도 삼촌 탕건노래라든가 노래 잘 하는 거 알았으면.)

103012 #1 몰람지.(모르지.)

103012 @ 그렇게 알려지지 안헷구나.(그렇게 알려지지 안했구나.)

103012 #1 탕관노래는 이여이여이여 탕건 ᄆᆞ자나지라. ᄆᆞ자나지라. ᄒᆞᆫ 코 두 코 걸렴시라. 걸렴시민 사를메난다. 이년이년 이년도 탕건~ 거민이 우리 친구덜 소리허당이나 소리헤가믄 ᄉᆞᆨᄉᆞᆷ헹 ᄀᆞ만이 들어. 왜 너넨 노래 안 허고 나만 허나? 야 너 소리 헤가난 우린 죽어불엇저.(탕관노래는 '이여이여이여 탕건 ᄆᆞ자나지라. ᄆᆞ자나지라. ᄒᆞᆫ 코 두 코 걸렴시라. 걸렴시민 사를메난다. 이년이년 이년도 탕건~' 그러면 우리 친구들 소리하다가 내 소리해가면 조용해서 가만히 들어. 왜 너넨 노래 안하고 나만 허나? 야 너 소리 해가니까 우린 죽어버렸다.)

103012 @ 하하하하.(하하하하.)

103012 #1 경 ᄀᆞ라. 탕건에 그것덜이 노래허당 ᄌᆞᆷᄌᆞᆷ허난 왜 ᄌᆞᆷᄌᆞᆷ허냐? 너 소리 나와 가난 우린 죽엇저! 죽엇어!(그렇게 말해. 탕건에 그것덜이 노래하다가 조용하니까 왜 조용하니? 너 소리 나와 가니까 우린 죽었다! 죽었어!)

103012 @ 하하하하.(하하하하.)

103012 #1 우리 탕관도 잘 헤여. 탕관도 잘 허고 탕관 찢어진 것도 다 자사내고 그런데 탕관도 고왕이 우리 어머님 가믄 빨리 팔앙 나와. 다른 사름껀이 궂이민 남고 나건 가가민 이 그냥 앗아오렝 허여. 빨리 팔앙 와. 탕관이 나는 궂은 걸 또 클렁 새로 허지. 다른 사름은 궂지 안허영 빨리만 허젱 허지만 난 안 뒌건 또 클렁 새로 헤야 그니까 탕관이 곱지.(우리 탕건도 잘 해. 탕건도 잘 하고 탕건 찢어진 것도 다 짜내고 그런데 탕관도 고와서 우리 어머님 가면 빨리 팔아서 나와. 다른 사람 건 궂으면 남고 나건 가가면 이 그냥 갖고 오라고 해. 빨리 팔아서 와. 탕건이 나는 궂은 걸 또 풀어서 새로 하지. 다른 사람은 궂지 않아서 빨리만 하려고 하지만 난 안 된 건 또 풀어서 새로 해야. 그니까 탕건이 곱지.)

103012 @ 음.(음.)

103012 #1 그 사람덜 그냥 궂고 좋고 막 하영 만 허젠 허곡.(그 사람들 그냥 궂고 좋고 막 많이만 하려고 하고.)

103012 @ 음.(음.)

103012 #1 나는 거 안 뒈믄 또 클렁 똑 제자리에 놔야 거니깐 탕관이 영 노민 빈찍 빈찍 허여. 거믄 우리어머닌 아이구, 느 탕관만 아져오렌 헌다.(나는 거, 안되면 또 풀어서 똑 제자리에 놔야 하니깐 탕건이 이렇게 놓으면 반짝반짝 해. 그러면 우리어머닌 아이구, 너 탕건만 가져오라고 한다.)

103012 @ 하하하하.(하하하하.)

103012 #1 아이고, 나 탕관으로 살곡 물질헤영 살곡.(아이고, 나 탕건으로 살고 물질해서 살고.)

103012 @ 아이구, 그렇게 대단헷수과?(아이구, 그렇게 대단했습니까?)

103012 #1 쏠 받아다 놓곡, 혹교가곡 신도 엇이 맨발에 말젠 운동화 사주난 아까완 손에 영 쥐여아젼 맨발에 다니곡. 어이고, 신 끊어지카부덴. 발랑 박던가 말던가. 영 쥐여.(쌀 받아다 놓고, 학교가고 신도 없이 맨발에 나중엔 운동화 사주니까 아까워서 손에 이렇게 쥐어가지고 맨발에 다니고. 어이고, 신 끊어질까봐서. 발이랑 부딪히든가 말든가. 이렇게 쥐어.)

103012 @ 그때가 멧 살 때꽈? 흰 색깔? 운동화가 열 살?(그때가 몇 살 때입니까? 흰 색깔? 운동화가 열 살?)

103012 #1 꺼믄 운동화 운동화살 때 그치룩 헨 헌디 열세 살, 열네 살인가?(까만 운동화 운동화살 때 그렇게 해서 했는데 열세 살, 열네 살인가?)

103012 @ 처음 사준 거구나.(처음 사준 거구나.)

103012 #1 처음엔 멧 살 때 사줜가? 열두 살에부떠 사주데. 탕관 잘헴젠.(처음엔 몇 살 때 사줬는가? 열두 살에부터 사주더라고. 탕건 잘 한다고.)

103012 @ 하나에 얼마 헷수과? 탕건은.(하나에 얼마 했습니까? 탕건은.)

103012 #1 얼마헤신디 오래여부니까 뭐 알아져? 그때는이 천 원 짜리가 엇어나서. 천 원이엔 헌 돈이 엇어난.(얼마 했는지 오래버리니까 뭐 알 수 있어? 그때는 천 원 짜리가 없었어. 천 원이라고 헌 돈이 없었어.)

103012 @ 그거 하나 만들젠 허믄 시간이 한 달은 걸리지 안헤?(그거 하나 만들려고 하면 시간이 한 달은 걸리지 않아요?)

103012 #1 그거 왜냐하면 엉근 탕관 줌진 탕관이 잇어. 엉근 거는 혼 장동안에 두 개주만은 줌진 건 하나벳긔 못헤. 엉근 탕관은 빨리 허지. 엉글엉글허게 허니까 우린 줌진 거 허니까 혼 장 동안에 하나. 오일에 하나벳긔 못헷지. 밤의 끼와야.(그거 왜냐하면 엉긴 탕건 가는 탕건이 있어. 엉긴 거는 한 장 동안에 두 개지만 가는 건 하나밖에 못해. 엉긴 탕건은 빨리 하지. 엉글엉글하게 하니까 우린 가는 거 하니까 한 장 동안에 하나. 오 일에 하나밖에 못했지. 밤에 끼워야.)

103012 @ 거믄 메칠 걸려?(그러면 며칠 걸려?)

103012 #1 오일.(오 일.)

103012 @ 오일이믄 헤마씨?(오 일이면 해요?)

103012 #1 ᄉᆞ일까지 허믄 닷새챈 풀레 가야지.(사일까지 하면 닷새짼 팔러 가야지.)

103012 @ 오일장이니까.(오일장이니까.)

103012 #1 나흘에.(나흘에.)

103012 @ 아이구.(아이구.)

103012 #1 하나 헤야 듯날은 오일장에 풀레 가야. 풀아야 쏠 받아당 먹곡.(나흘에 하나 해야 뒷날은 오일장에 팔러 가야. 팔아야 쌀 받아다가 먹고.)

103012 @ 흔 달 육장 씨 베긴 망건.(한 달 육장 씨 박힌 망건.)

103012 #1 공부만 헹사 왜 못허냐? 나는 이제 지금. 아 공부 하나 헹사 선생 ᄀᆞ는말 외웁곡, 외웁곡 왜 떨어지나? 아이들ᄀᆞ라 막 허여.(공부만 하면 왜 못하니? 나는 이제 지금. 아 공부 하나 하면 선생 말씀하는 말 외우고, 외우고 왜 떨어지니? 아이들보고 막 해.)

103012 @ 어머님 머리 존 소리.(어머님 머리 좋은 소리.)

103012 #1 머리 똑ᄀᆞ뜬 머리지 머리. 우리 뜬 머리 가졋나? 똑ᄀᆞ뜬 머리지.(머리 똑 같은 머리지 머리. 우리 딴 머리 가졌나? 똑같은 머리지.)

103012 @ 우리 저 김주옥선생님은 이년이년이년도ᄒᆞ라 이년 망근 몾아나지라~.(우리 저 김주옥선생님은 '이년이년이년도ᄒᆞ라 이년 망근 몾아나지라~'.)

103012 #1 경허난 소리가 다 ᄯᅮ나이. 저 동더레 서러레 ᄯᅮ나고.(그렇게 하니까 소리가 다 달라. 저 동으로 서로 다르고.)

103012 @ 여긴 월정에도.(여긴 월정에도.)

103012 #1 월정? 여긴, 앞의 가는 알양새야 두에 가는 똥꼴레비, 똥꼴레비, 똥꼴레비~거난 앞에 가는 알양새야 조름에 가는 떨어진 애기 똥꼴레기 아이고 춤, 우리 탕관은 밤이 허고 낮인 학교에 가고 일요일날 또 탕관은 하영허지. 흑교 안 가난. 게믄 거 한 장 도막에 다헤야 쏠 받아와야 먹을 거 아니냐? 밤이만 헌 탕관이라.(월정? 여긴, '앞의 가는 알양새야 두에 가는 똥꼴레비, 똥꼴레비, 똥꼴레비~거난 앞에 가는 알양새야 조름에 가는 떨어진 애기 똥꼴레기' 아이고 참, 우리 탕건은 밤에 하고 낮엔 학교에 가고 일요일 날 또 탕건은 많이 하지. 학교 안 가니까. 그러면 거 한 장 도막에 다해야 쌀 받아와야 먹을 거 아니니? 밤에만 한 탕건이라.)

103012 @ 멧 시까지 헙니까?(몇 시까지 합니까?)

103012 #1 탕관이, 몃 시까지 허믄 거 이 물에 들 땐 바다에 갈 땐 탕간 안허여. 음력 팔월나민 탕간허기 시작혜.(탕건이, 몇 시까지 하면 거 이 물에 들 땐 바다에 갈 땐 탕건 안 해.)

103012 @ 음.(음.)

103012 #1 음력 팔월 나민.(음력 팔월 나면.)

103012 @ 팔월이면 더우면은 바당도 많이 들잔아마씸.(팔월이면 더우면 바다도 많이 들잖아요.)

103012 #1 그땐 바당 안 가.(그땐 바다 안 가.)

103012 @ 무사?(왜?)

103012 #1 왜냐하면 그땐 메역벳긔 안허지.(왜냐하면 그땐 미역밖에 안하지.)

103012 @ 삼촌은 메역은 안 허여?(삼촌은 미역은 안 해요?)

103012 #1 메역헤여.(미역해.)

103012 @ 메역은 어렵지 안헤여?(미역은 어렵지 않아요?)

103012 #1 메역이야 쉬웁지.(미역이야 쉽지.)

103012 @ 멧 시간만 허믄 뒈는 거라?(몇 시간만 하면 되는 거라?)

103012 #1 아, 그때는 속곳만 입으난 추워. 빨리 올라와. 고무 옷 입으믄 막 오래주만은 그땐.(아, 그때는 속곳만 입으니까 추워. 빨리 올라와. 고무 옷 입으면 막 오래지만 그땐.)

103012 @ 멧 시간 보통?(몇 시간 보통?)

103012 #1 멧 시간은 못 살메. 추원.(몇 시간은 못 살아. 추워서.)

103012 @ 한두 시간?(한두 시간?)

103012 #1 아니, 나 생각으로는 흔 삼십분도 아니 살아진 거 닮아. 가가믄 탈탈탈탈탈.(아니, 나 생각으로는 한 삼십분도 안 살아진 거 같아. 가가면 덜덜덜덜)

103012 @ 게믄 하루에 멧 번 들 수 잇겟다예.(그러면 하루에 몇 번 들 수 있겠네요.)

103012 #1 불 츠왕 두 번.(불 쪼여서 두 번.)

103012 @ 불츠왕 두 번. 아이구, 세상에. 게믄 보통 아침에?(불 쪼여서 두 번. 아이구, 세상에. 그러면 보통 아침에?)

103012 #1 아니, 물때 보멍.(아니, 물때 보면서 아침에.)

103012 @ 물때 보멍.(물때 보면서.)

103012 #1 아침에 들 때도 잇곡.(아침에 밀 때도 있고.)

103012 @ 음.(음.)

103012 #1 흔 오후 들 때도 잇곡 물때, 물때 보멍 드는 거여. 조금에는 뭐 낮이 가도 뒈지. 또 아홉 물에는 빨리 들어 오난 일찍 가고.(한 오후 들 때도 있고 물 때보면서 드는 거야. 조금에는 뭐 낮에 가도 되지. 또 아홉 물에는 빨리 들어오니까 일찍 가고.)

103012 @ 아홉 물에는 일찍. 일찍 헌 날은 이제 왕 탕건을 헌다는 말이지예?(아홉 물에는 일찍. 일찍 한 날은 이제 와서 탕건을 한다는 말이지요?)

103012 #1 그렇지.(그렇지.)

103012 @ 그믄 밤엔 각지불 켱?(그러면. 밤엔 등잔불 켜서?)

103012 #1 이런 그 저 호야.(이런 그 저 호야.)

103012 @ 호야.(호야.)

103012 #1 그거 따까근에이 섹유지름 담앙은에 허믄 너이 앚아. 그 불 하나에.(그거 닦아서 석유기름 담아서 하면 넷이 앉아. 그 불 하나에.)

103012 @ 불 하나에 너이.(불 하나에 넷이.)

103012 #1 너이 앚앙 탕건 헤여.(넷이 앉아서 탕건 해.)

103012 @ 거기 동생도 잇엇수과? 누가 ᄀᆞ리쳐줘 외할머니 이모?(거기 동생도 있었습니까? 누가 가르쳐 줘? 외할머니? 이모?)

103012 #1 뭐?(뭐?)

103012 @ 탕건 만드는 거?(탕건 만드는 거?)

103012 #1 탕건 이모. 건디 우리 이모님 나 멧 번사 맞아신디. 탕건 잘못허민 그냥 탁.(탕건 이모. 그런데 우리 이모님 나 몇 번이나 맞았는지. 탕건 잘못하면 그냥 탁.)

103012 @ 아, 스승님이 잇엇구나. 이모가 큰 스승님이라.(아, 스승님이 있었구나. 이모가 큰 스승님이라.)

103012 #1 경 헹 막 매 맞이멍 게난 이젠 우리어머님 하도 때려 가난.(그렇게 해서 막 매 맞으면서 그러니까 이젠 우리어머님 하도 때려 가니까.)

103012 @ 어머닌 안 허고?(어머닌 안 하고?)

103012 #1 우리 어머님은 양테.(우리 어머님은 양태.)

103012 @ 아이고야.(아이고야.)

103012 #1 어머님은 양테 허곡 나는 탕건허곡. 거믄 난 양테 헤근에 호박 사당 먹켜. 허곡 난 탕건 헹 쏠 받앙 먹곡.(어머님은 양태하고 나는 탕건하고. 그러면 난 양태해서 호박 사다가 먹겠다. 하고 난 탕건해서 쌀 받아서 먹고.)

103012 @ 탕건이 비싸구나.(탕건이 비싸구나.)

103012 #1 비싸지. 양텐 멧 개 풀아도.(비싸지. 양탠 몇 개 팔아도.)

103012 @ 게믄 말꼬리나 이런 건 어디 강 상와?(그러면 말꼬리나 이런 건 어디 가서 사서 와?)

103012 #1 ᄆᆞᆯ꼴렝이.(말꼬리.)

103012 @ 어디서 사?(어디서 사?)

103012 #1 일본서 와야. 일본서 들어와야 그 ᄆᆞᆯ꼴렝이 사주. 그믄이 ᄆᆞᆯ꼴렝이가 진 거 아다로[65] 헌 사름은 탕관도 빨리 허여. 요만썩 허믄 자꾸 잇저, 잇저 허니까 오래지. 진 거 아다로 헌 사름은 빨리 헤여. 이거 영 딜이는 사이믄 멧 코 막 뿔리 나가니까. 밥 먹으레덜 가잔아. 아츰에이, 그 사름보단 이젠 떨어지카부덴이 밥도 두어 숟가락벳긔 안 먹어. 탕건 떨어지카부덴. 에이구, 나 원. 참말로.(일본서 와야. 일본서 들어와야 그 말꼬리 사지. 그러면 말꼬리가 긴 거 걸린 사람은 탕건도 빨리 해. 요만큼씩 하면 자꾸 잇자, 잇자 하니까 오래지. 긴 거 받은 사람은 빨리 해. 이거 이렇게 들이는 사이면 몇 코 막 빨리 나가니까. 밥 먹으러들 가잖아. 아침에, 그 사람보단 이젠 떨어질까 봐 밥도 두어 숟가락밖에 안 먹어. 탕건 떨어질까 봐. 에이구, 나 원. 참말로.)

103012 @ 양하.(양하.)

103012 #1 게난이 도꼬야마 선생이 결석을 하도 헤가난 결석을 허고 선생이 가정방문을 온 거라. 결석을 허난 야이가 어멍 몰르게 ᄒᆞ교 아니왐시카부덴 공부는 ᄂᆞᆷ광ᄀᆞ치 ᄯᅳ라가고 결석은 계속허고 집이 완 가정방문 완 거난 나가 일본말로 가네까와라이. 아이고 선생님 저 학부형님 가정방문 와수다. 허난 아이고 어떵허연 옵데가? 이디 옥녀옌

65) '아다로'는 일본말로 当たゐ(あたゐ)로 쓰며 여기서는 받다 라는 의미로 쓰였다.

헌 아이가 결석이 말도 못허연. 아이고 경 헴수다게. 허난 어떵헨마씀? 우린 엇어부난 예. 결석을 해사 탕간 헤야 쏠 받아다 먹어부난예. 야인 공부도 잘 못헴수다. 밤낮 탕관만 허고 흑교에 간 멧 시간벳긔 아이 베완, 그때는 선생님 하, 그러꽈? 허난 단우의 올라산이. 일본말로 이. 돈도 엇고 헌 아이가 공부가 이렇게 뒛덴 허면서 흑교마당에서 연설허는 디 창피헤가지고 양지가 막 뻘겅허고이. 아이구, 게난 어머닌 야! 나 창피 봐수께. 무사? 허난 막 선생 강 연설헤부난양. 학생덜이 막 나만 쳐다보고 나 흑교 아이 가쿠다. 허난 흑교 아니 강 어떵헐 말이라. 그땐 우리어머님 일본 가젠 나 공부시켱 당신이 일본가난 글을 몰라렌. 어드레 가는 차 어드레 가는 차 몰라렌. 거난 나가 공불시켠 일본 돌아가젠 공부시킨거라. 일본은 어디시난? 그레저레 허단 ᄉᆞ삼사건 만나고, 기영저영 허단 어멍도 죽어불곡, 일본가젠 나 일본글 배운 거.(그러니까 도꼬야마 선생이 결석을 하도 해가니까 결석을 하고 선생이 가정방문을 온 거라. 결석을 하니까 얘가 어머니 모르게 학교 아니올까봐 공부는 남과같이 따라가고 결석은 계속하고 집에 와서 가정방문 와서 그러니까 내가 일본말로 가네까와라이. 아이고 선생님 저 학부형님 가정방문 왔습니다. 하니까 아이고, 어떻게 해서 왔습니까? 여기 옥녀라고 한 아이가 결석이 말도 못해서 아이고, 그렇게 합니다.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우린 없어버리니까 결석을 해야 탕건 해야 쌀받아다 먹어부버리니까요. 앤 공부도 잘 못합니다 밤낮 탕건만 하고 학교에 가서 몇시간밖에 아니 배워서 그때는 선생님 하, 그럽니까? 하니까 단위에 올라서서 일본말로요. 돈도 없고 한 아이가 공부가 이렇게 됐다고 하면서 학교마당에서 연설하는데 창피해가지고 양지가 막 빨갛고 아이구 그러니까 어머닌 야 나 창피 봤습니다 왜? 하니까 막 선생 가서 연설해 버리니까 학생들이 막 나만 쳐다보고 나 학교 아니 가겠다. 하니까 학교 아니 가서 어떻게 할말이라. 그땐 우리어머님 일본 가려고 나 공부시켜서 당신이 일본 가니까 글을 모르더래. 어디로 가는 지 어디로 가는 지 모르더래. 거난 날 공불시켜서 일본 데려가려고 공부시킨 거라. 일본은 어디있니? 그리저리 하다가 사삼사건 만나고, 그렇게, 저렇게 하다가 어머니도 죽어버리고 일본 가려고 나 일본 글 배운 거.)

103012 @ 어멍 죽어 불고 경 헤부난 여기 잇게 뒌 거로구나.(어머니 죽어 버리고 그렇게 해버리니까 여기 있게 된 거로구나.)

103012 #1 우리어머님 쉰둘에 돌아가서.(우리어머님 쉰둘에 돌아갔어.)

103012 @ 여차헤시믄.(여차했으면.)

103012 #1 나 시집보내뒨 뒷 해에 돌아가 불엇어.(나 시집보내두고 이듬해에 돌아가 버렸어.)

103012 @ 게도 막 자랑스러워시쿠다게. 자기는 양테 허는 디 뚤이 탕건도 잘 허고.(그래도 막 자랑스러웠겠습니다. 자기는 양태 하는 데 딸이 탕건도 잘하고.)

103012 #1 거난 물질도 잘허지.(그러니까 물질도 잘하지.)

103012 @ 하하하하.(하하하하.)

103012 #1 물질도 잘허난 우리어머님이 바다에 간 나 뚤 잘낫덴 영 헤나서. 물질도 숨 질어부니까 남만 헤여. 또 공비도 그냥 낮이만 가도 놈만인 허고 게난 막 애껴. 우리

아시는 이 놈의 밧디 강 검질만 메곡이. 나는 탕관허곡 혹교벳긔 안뎅견. 게믄 얼굴이 벳 아이 맞안 파랑헨. 아랑 아랑 아랑. 벳을 안 맞앗지. 탕관허멍.(물질도 잘하니까 우리 어머님이 바다에 간 나 딸 잘났다고 이렇게 했었어. 물질도 숨 길어버리니까 남만 해. 또 공부도 낮에만 가도 남만인 하고 그러니까 막 아껴. 우리 아우는 남의 밭에 가서 김만 매고. 나는 탕건하고 학교밖에 안다녔어. 그러면 얼굴이 볕 아니 맞아서 파랑 했어. '아랑 아랑 아랑'. 볕을 안 맞았지. 탕건하면서.)

103012 @ 하하하하.(하하하하.)

103012 #1 게민 어느제민 이 봄이 들어오코? 물질헐라고 탕간 안허젠. 아이고 봄만 돌아왐시민 아이구 난 탕관만 헤가믄 귀찬여. 이렇게 탕간헤나믄이 눈이 아롱 아롱헹 먼 디 사름 누겐 중 몰라. 이렇게만 헤여나니까.(그러면 언제면 이 봄이 돌아올까? 아이구 난 물질 하라고 탕건 안하려고. 아이고, 봄만 돌아와 가면 탕건만 해가면 귀찮아. 이렇게 탕건하고 나면 눈이 아롱아롱해서 먼 데 사람 누군 줄 몰라. 이렇게만 했었으니까.)

103012 @ 삼춘 탕건 만들멍 조천에서 어떤 할머니가 부른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가 낫네~ 아리랑 고개로~ 이런 노래 안들어 봐수과?(삼촌 탕건 만들면서 조천에서 어떤 할머니가 부른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이런 노래 안 들어봤습니까?)

103012 #1 그 할망은 배운 할망이라.(그 할머니는 배운 할머니라.)

103012 @ 고운산 할망.(고운산 할머니.)

103012 #1 우리는 그런 거 아니 헤봔. 이년탕건 이년탕건 걸려지라 걸려지라 흔코두코 흔코두코 걸려지라~ 그런 노래허주 경 아리랑 아리랑은 안 헤연.(우리는 그런 거 안 해 봤어. '이년탕건 이년탕건 걸려지라 걸려지라 흔코두코 흔코두코 걸려지라~' 그런 노래하지. 그렇게 아리랑 아리랑은 안 했어.)

103012 @ 거기 육지에서 온 할망안티 망건청에서 배왓덴.(거기 육지에서 온 할머니한테 망건청에서 배웠다고.)

103012 #1 거 망긴허는 할망. 우리보담 선배. 우리는 망긴 몰라 탕건벳긔. 우린 그런 노랜 잘 몰라. 일본 노래는 잘허여. 일본노래도, 오또꼬 나라 ~지나 모에루. 이절은 잘 모르크라. 나 이 이제도 한이 맥현. 공부만 허구정 허연. 종 땅땅 두드려가믄 저건 나오는 종 들어가는 종 쉬는 종 다 알아.(거 망건 하는 할머니. 우리보단 선배. 우리는 망건 몰라, 탕건밖에. 우린 그런 노랜 잘 몰라. 일본 노래는 잘해. 일본노래도, '오또꼬 나라 ~지나 모에루'. 이절은 잘 모르겠다. 나 이 이제도 한이 막혔어. 공부만 하고 싶어 했어. 종 땅땅 두드려 가면 저건 나오는 종 들어가는 종 쉬는 종 다 알아.)

103012 @ 삼춘, 그때 학교 다닐 땐 무슨 옷을 입어수과?(삼촌, 그때 학교 다닐 땐 무슨 옷을 입었습니까?)

103012 #1 요만이헌 까만 치매에다가 띠 둘른 거.(요만한 까만 치마에다가 띠 두른 거.)

103012 @ 아아.(아아.)

103012 #1 조천은 두 개, 우리 신촌은 하나.(조천은 두 개, 우리 신촌은 하나.)

103012 @ 아아.(아아.)

103012 #1 치매로부떠 알아.(치마로부터 알아.)

103012 @ 까만 치마에 무슨 색깔 띠를 둘런마씨?(까만 치마에 무슨 색깔 띠를 둘렀어요?)

103012 #1 흰 띠.(흰 띠.)

103012 @ 아아, 일본식에. 일본.(아아, 일본식에. 일본.)

103012 #1 게믄 이 흰 띠 둘르민 신촌이 강습소. 조천은 두 개. 띠가. 걸로 봐도 다 알아. 그믄 치마는 요디까지 동무릅.(그러면 이 흰 띠 두르면 신촌 강습소. 조천은 두 개. 띠가. 걸로 봐도 다 알아. 그러면 치마는 여기까지 무릎.)

103012 @ 동 무릅 밑에. 우에는 저고리?(동 무릎 밑에. 위에는 저고리?)

103012 #1 우인 흰 저고리.(위는 흰 저고리.)

103012 @ 아, 게도 일본놈들은 일본말 허렌 허멍 저고린 입으렌 헷다예.(아, 그래도 일본 놈들은 일본말 하라고 하면서 저고린 입으라고 했네요.)

103012 #1 입어. 궨찬에, 옷은.(입어. 괜찮아, 옷은.)

103012 @ 옷은 궨찬아.(옷은 괜찮아.)

103012 #1 건디 그 히다다께 헤여근 구시께이 허는 거는 옷을 뚜른 옷 입어. 몸빼.(그런데 그 '히다다께' 해서 '구시께이' 하는 거는 옷을 다른 옷 입어. 일바지.)

103012 @ 몸빼.(일바지.)

103012 #1 거 이제 그때 몸빼가 저거라.(거 이제 그때 일바지 저거라.)

103012 @ 고무줄.(고무줄.)

103012 #1 그땐 이. 치마벳긴 안 입어난디 그때는 몸빼 입언. 몸빼 입어근에 요만이 헌 저 거 운동복 닮은 것이 잇어. 거 진 옷. 그거 입언.(그땐 이 치마밖엔 안 입었었는데 그때는 일바지 입었어. 일바지 입어서 요만한 저 거 운동복 같은 것이 있어. 거 긴 옷. 그거 입었어.)

103012 @ 검은 몸빼꽈?(검은 일바지입니까?)

103012 #1 검은 치마에다가 흰 저고리. 또 그 이제 훈련이, 몸빼입엉 시따다끼 구쇼께이 허믄이 헐 때는 일본놈들이이.(검은 치마에다가 흰 저고리. 또 그 이제 훈련이, 일바지 입어서 '시따다끼 구쇼께이' 할 때는 준비하고 일본 놈들이.)

103012 @ 구쇼가 뭐꽈?('구쇼'가 뭡니까?)

103012 #1 곧건 들으라. 구쇼헐 땐 준비허고. 구시께이요 허면은 빨리 들어오는 거 '가이죠'허면. 구쇼는 이 미국놈덜허고 일본놈덜 싸울 거 아니냐? 구쇼허는 건 벌써 미국놈덜이 들어온다는 준비고 이, '구쇼께이'면 지켱 들어왓다. 일본말로 허는 거야. 가이죠 허면 나갔다 허는 거. 거난이. 아이고, 저 어른 멧 해나도 저 일본말 잊어 불도 안 허여. 아이고 난 대가리가 돌대가리 다된 허민 아이고, 아니 성님 잘도 머리 좋아. 거니 이제 뭐 옛날 일본 노래도 다 알고.(말 하면 들어라. '구쇼'할 땐 준비하고. '구시께이요' 하면 빨리 들어오는 거. '구쇼'는 이 미국 놈들하고 일본 놈들 싸울 거 아니냐? '구쇼'하

는 건 벌써 미국 놈들이 들어온다는 준비고 이, '구쇼께이'면 지켜서 들어왔다. 하는 거야. '가이죠' 하면 나갔다 하는 거. 그러니까 저 어른 몇 해 지나도 저 일본말 잊어버리지도 안 해. 아이고 난 대가리가 돌대가리 다되어서 하면 아이고, 아니 형님 잘도 머리 좋아. 그러니 이제 뭐 옛날 일본 노래도 다 알고.)

103012 @ 그때 배왓던 사름이 한 명도 엇수게?(그때 배웠던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까?)

103012 #1 나같이 고령은 다 죽어 불엇어. 엇어.(나같이 고령은 다 죽어버렸어. 없어.)

103012 @ 구십 난 이명언 할아버지는 동창 아니꽈?(구십 난 이명언 할아버지는 동창 아닙니까?)

103012 #1 아니, 아니 선배.(아니, 아니 선배.)

103012 @ 멧 살 선배라?(몇 살 선배라?)

103012 #1 세 술.(세 살.)

103012 @ 세 살? 그믄 그 학교 안 다녀수과?(세 살? 그러면 그 학교 안 다녔습니까?)

103012 #1 그 할으방넨 하늘천 따지.(그 할아버지넨 하늘 천 따지.)

103012 @ 학교는 안 다년?(학교는 안 다녔어요?)

103012 #1 학교는 안 다니고 한문 헌 어른. 우리허곤 틀리지. 그 어른은 한자만. 우린 일본글만.(학교는 안 다니고 한문 한 어른. 우리하곤 틀리지. 그 어른은 한자만. 우린 일본글만.)

103012 @ 그 삼춘은 농사는 지엇지예?(그 삼춘은 농사는 지었지요?)

103012 #1 농사짓지. 농사짓지. 농사짓지.(농사짓지. 농사짓지. 농사짓지.)

103012 @ 그렇다고 탕건을 만든 것도 아니고 남자들은 그냥 농사만?(그렇다고 탕건을 만든 것도 아니고 남자들은 그냥 농사만?)

103012 #1 그때는 멩원이네 아방넨 바당에 듬북 헤나실 거여. 걸름헐라고.(그때는 명원이네 아버지넨 바다에 듬북 했었을 거여. 거름하려고.)

103012 @ 게도 살아남앗다는게 중요헌거 아니꽈?(그래도 살아남았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103012 #1 그 하르방 살앗다 어떵 헹. 다 죽은디. 명언이네도게 다 죽엇주. 건디 저 하르방은 어떵 헹 살아서. 것 희한해. 나도이 곱안 조천 가낫잔아.(그 할아버지 살았다 어떻게 해서. 다 죽은데. 명언이네도게 다 죽었지. 그런데 저 할아버지는 어떻게 해서 살아서. 거 희한해. 나도 숨어서 조천 갔었잖아.)

103012 @ 게난.(그러니까.)

103012 #1 이덕구 맨날 세게는 맨날 심으레 오난.(이덕구 매일 세게는 매일 잡으러 오니까.)

103012 @ 삼촌네는 순경이나 누구네 친척이 잇지 안헤시카?(삼촌네는 순경이나 누구네 친척이 있지 않았을까?)

103012 #1 엇어. 엇어. 경찰 이신 사름 빽이야 막 좋주. 거 우리는 엇어.(없어. 없어. 경찰 있는 사람 배경이야 막 좋지. 거 우리는 없어.)

103012 @ 삼촌은 조천 간 헤도 그 이명언 하르방네는.(삼촌은 조천 간 해도 그 이명언 할아버지네는.)

103012 #1 그 이명언 하르방은 신촌리 강 살곡 난 조천 가불엇주. 하도 심으레 와가니까 아, 저 하르방 산 건 보민 어떵헨사 살아신고 몰라.(그 이명언할아버지는 신촌리 가서 살고 난 조천 가버렸지. 하도 잡으러 와가니까 아, 저 할아버지 산 건 보면 어떻게 해서 살았는지 몰라.)

103012 @ 게메이.(글쎄.)

103012 #1 나가 거 들어보저 들어보저 허멍. 사솜사건에.(내가 거 들어보자. 들어보자 하면서. 사삼사건에.)

103012 @ 형제들, 이번 혼번.(형제들, 이번 한번.)

103012 #1 아니 아시는 죽고.(아니 아우는 죽고.)

103012 @ 아아.(아아.)

103012 #1 건디 우의로 성제는 확실히 살아서.(그런데 위로 형제는 확실히 살아서.)

103012 @ 둘이가 살앗구나.(둘이가 살았구나.)

103012 #1 멩언이, 멩운이, 멩돈이, 우에 하르방이 멩운이.(명언이, 명운이, 명돈이, 위에 할아버지가 명운이.)

103012 @ 그 우엣 할아버지도 살안?(그 위에 할아버지도 살았어요?)

103012 #1 우엣 하르방이 멩언이.(위에 할아버지가 명언이.)

103012 @ 멩원인 젤 큰아들. 두 번째 하르부지도 살안?(명언인 제일 큰아들. 두 번째 할아버지도 살았어요?)

103012 #1 몰라. 죽어신디. 시에 사난게. 세 번채는 멩돈이는 어릴 때부떠 죽어불곡. 단명허연.(몰라. 죽었는데. 시에 사니까. 세 번째는 명돈이는 어릴 때부터 죽어버리고. 단명해서.)

103012 @ 거기도 신촌의 역사가 나오겟다예.(거기도 신촌의 역사가 나오겠네요.)

103012 #1 그 하르방 몰르는 거 엇어. 한자가 많이 들엇잔아. 뭐 구신도 떼는 하르방이라. 자기네 각시 껄련 헌디이, 자기 정문으로 떼고렌. 경으로. 경 한자로 한자가 이 구신 떼는 글이 잇어.(그 할아버지 모르는 거 없어. 한자가 많이 들었잖아. 뭐 귀신도 때는 할아버지라. 자기네 각시 걸려서 한데, 자기 경문으로 땠다고. 경으로. 그렇게 한자로 한자가 이 귀신 떼는 글이 있어.)

103012 @ 주역이 잇주게.(주역이 있지.)

103012 #1 그 하르방 저걸로 떼고렌. 굿 헐 건디 완전히 걸로 떼고렌. 지네 각시.(그 할아버지 저걸로 땠다고. 굿 할 건데 완전히 걸로 땠다고. 자기네 각시.)

103012 @ 살아계셔마씨?(살아계셔요?)

103012 #1 할망 죽언. 저 하르방, 메누리영 살암실거라.(할머니 죽었어. 저 할아버지, 며느리랑 살고 있을 거라.)

103012 @ 게도 메누리도 펜션 허고 잘 사난.(그래도 며느리도 펜션 하고 잘 사니까.)

103012 #1 메누리 잘 살지. 동장도 허고.(며느리 잘 살지. 통장도 하고.)

103013 @ 그렇구나예. 그믄예, 보리쌀로는 무엇을 합니까?(그렇군요. 그러면요, 보리쌀로는 무엇을 합니까?)

103013 #1 밥허지게.(밥하지.)

103013 @ 밥하고, 개역?(밥하고, 미숫가루?)

103013 #1 개역은 보리쏠로 안헤여. 보리, 보리 바싹 몰랏당 비와가면은 보까다가 ᄀᆞ레에 ᄀᆞᆯ아.(미숫가루는 보리쌀로 안 해. 보리, 보리 바싹 말렸다가 비 와가면 볶아다가 맷돌에 갈아.)

103013 @ 아주 옛날엔 솟뚜껑에 놩 보까수과?(아주 옛날엔 솥뚜껑에 놔서 볶았습니까?)

103013 #1 어어, 그거, 그거 ᄀᆞᆯ아. ᄀᆞᆯ아.(어어, 그거, 그거 갈아. 갈아.)

103013 @ 보깡.(볶아서.)

103013 #1 ᄀᆞᆯ아근에이 저 사꼬린 놓곡 소금 놩 ᄀᆞ라근엥에 막 체로 쳐. ᄀᆞ는 체로 치곡, 거름체[66]로 치곡.(갈아서 저 사카린 놓고 소금 놔서 갈아서 막 체로 쳐. 가는 체로 치고, '거름체'로 치고.)

103013 @ 거름체는 더 가는 거?('거름체'는 더 가는 거?)

103013 #1 ᄀᆞ는 첸 좀진 거.(가는 챈 가는 거.)

103013 @ 응.(응.)

103013 #1 거름첸 좀 홁은 거.('거름첸' 좀 굵은 거.)

103013 @ 홁은 거.(굵은 거.)

103013 #1 대거름첸[67] 아주 홁은 거.('대거름첸' 아주 굵은 거.)

103013 @ 아주 홁은 건 대거름체.(아주 굵은 건 '대거름체.')

103013 #1 보리쌀을 영 벌르면 이제 대체로 쳐놩 그 다음 대거름체 치곡.(보리쌀을 이렇게 쪼개면 이제 대체로 쳐놔서 '대거름체' 치고.)

103013 @ 대체[68] 쳐낭 대거름체 치곡.(대체 치고 나서 '대거름체' 치고.)

103013 #1 체가 세 개 들어가.(체가 세 개 들어가.)

103013 @ 세 개 들어가.(세 개 들어가.)

103013 #1 대체, 중체, 거름체.(대체 중체. '거름체.')

103013 @ 대체, 중체, 거름체.(대체, 중체, '거름체.')

103013 #1 또 ᄀᆞ는 체 네 개. 대체가 질 홁은 거. 그냥 대체는 이 영 홁은 거 보리쏠 걸려. 또 얼멩이[69]가 잇어.(또 가는 체 네 개. 대체가 제일 굵은 거. 그냥 대체는 이

66) '거름체'는 쳇눈이 1밀리 정도인 체이다.

67) '대거름체'는 쳇불을 가는 댓개비로 조금 눈이 굵게 짜서 메운 체로 쌀 따위를 쳐내거나 액체를 받아내는 도구를 말한다.

68) '대체'는 구멍이 큰 편에 속하는 체로 조나 보리 따위를 타작하고 난 후에 어레미 다음으로 뉘를 쳐내 버릴 때 쓰는 체를 말한다.

69) '얼멩이'는 체들 중 그 바닥인 쳇불의 구멍이 가장 큰 것으로 쳇바퀴가 없이 대오리로 비스듬히 정사각형이

이렇게 굵은 거 보리쌀 걸려. 또 어레미가 있어.)

103013 @ 더.(더.)

103013 #1 얼멩이, 더 홁은 거. 얼멩이는 홁은 거, 치는 거고 대체는 그 다음.(어레미, 더 굵은 거. 어레미는 굵은 거, 치는 거고 대체는 그 다음.)

103013 @ 그 다음.(그 다음.)

103013 #1 그 다음은 중체, 그 다음은 하체거든.(그 다음은 중체, 그 다음은 하체거든.)

103013 @ 하체?(하체?)

103013 #1 좀질이 허는 건, ᄀᆞ는 체.(가늘게 하는 건, 가는 체.)

103013 @ ᄀᆞ는 체. 경 헹 개역을 허면 어떵 헹 먹어수과?(가는 체. 그렇게 해서 미숫가루를 하면 어떻게 해서 먹었습니까?)

103013 #1 맷돌에 ᄀᆞᆯ아다가 먹주.(맷돌에 갈아다가 먹지.)

103013 @ 맷돌에 ᄀᆞᆯ앙, ᄀᆞ레에 ᄀᆞᆯ앙 그거 헷당, 언제까지 여름에? 여름에 주로 먹엇지예.(맷돌에 갈아서, 맷돌에 갈아서 그거 했다가, 언제까지 여름에? 여름에 주로 먹었지요.)

103013 #1 응, 영, 영 치여. 치여근에이 이제. 보리밥에 부병먹어.(응, 이렇게, 이렇게 쳐. 쳐서 보리밥에 비벼먹어.)

103013 @ 부병먹고.(비벼서 먹고.)

103013 #1 또 물에도 타먹고, 그리 헤여.(또 물에도 타먹고, 그렇게 해.)

103013 @ 또 우미?(또 우뭇가사리?)

103013 #1 우미도 솖앙 먹고. 우미도 솖앙덜 개역에 버무령 먹는디 난 우민 아니먹어나난 몰라. 개역에 버무령. 난 우민 안 먹어. 우미 솖은 건 안 먹어. 본래부터. 먹고프지 안 헤여.(우뭇가사리도 삶아서 먹고. 우뭇가사리도 삶아서들 미숫가루에 버무려서 먹는데 난 우민 아니 먹어나니까 몰라. 미숫가루에 버무려서. 난 우문 안 먹어. 우무 삶은 건 안 먹어. 본래부터 먹고프지 않아.)

103013 @ 무사?(왜?)

103013 #1 몰라. 먹기가 싫어.(몰라. 먹기가 싫어.)

103013 @ 건 요즘도 살 빼는 거랜 헤영 젊은 아이덜 막 먹은덴 헙디다만은예.(건 요즘도 살 빼는 거라고 해서 젊은 아이들 마구 먹는다고 합디다만.)

103013 #1 난 우민 먹어본 도래가 엇어. 먹어지질 안 허여.(난 우문 먹어본 도리가 없어. 먹어지질 안 허여.)

103013 @ 거믄 또 다른 걸로 먹어난 적은 엇수과? 개역은, 물에 타 먹는 게 제일.(그러면 또 다른 걸로 먹어난 적은 없습니까? 미숫가루는, 물에 타 먹는 게 제일.)

103013 #1 개역은 먹지. 개역은 먹는데 우미는 안 먹어. '정내' 나가지고. '정내' 냄새낭 안 먹어.(미숫가루는 먹지. 미숫가루는 먹는데 우미는 안 먹어. 정내 나가지고. 정내 냄새 나서 안 먹어.)

되게 둘레를 만들며 메밀이나 콩 따위를 탈곡하고 난 후에 처음으로 그 뉘를 쳐내 버릴 때 쓰는 체를 말한다.

103013 @ 응. 그렇구나.(응. 그렇구나.)

103013 #1 다른 사름은 막 먹어도 난 정내 냄새난 우미옌 헌 거는 안 먹어.(다른 사름은 막 먹어도 난 정내 냄새난 우뭇가사리라고 한 거는 안 먹어.)

103013 @ 개역은 좋아합니까? 지금도 헤먹어?(미숫가루는 좋아합니까? 지금도 해먹어?)

103013 #1 개역, 이젠 뭐 그거 먹나? 음식덜이 좋은디. 개역 안 먹어.(미숫가루, 이젠 뭐 그거 먹나? 음식들이 좋은데. 미숫가루 안 먹어.)

103013 @ 옛날에는 아이들 막 그걸로 보리낭껭이로.(옛날에는 아이들 막 그걸로 보리대로.)

103013 #1 보리 보끈 것도 먹곡 개역은 막 생각헤서 개역 허주. 아무 집이나 개역 못헤여.(보리 볶은 것도 먹고 미숫가루는 막 생각해서 미숫가루 하지. 아무 집이나 미숫가루 못해.)

103013 @ 게난. 아이덜은 개역 헹 줘나수과?(그러니까. 아이들은 미숫가루 해서 줬었습니까?)

103013 #1 헤줫지. 그때는 아방이사 농사를 많이 헷으니까. 우리 옛날엔 결혼 아니헌 때니까 탕간만 헐 때니까 우린 농사 아니허고 골겡이도 안 쥐어나서. 결혼헌 후제사 농사지엇지이. 밧디엔 헌건 구경도 안 헨. 탕간만 헨 탕간만 헤연.(해줬지. 그때는 남편이야 농사를 많이 했으니까. 우리 옛날엔 결혼 안 한 때니까 탕건만 할 때니까 우린 농사 안 하고 호미도 안 쥐었었어. 결혼한 후에나 농사지었지. 밭이라고 한 건 구경도 안 했어. 탕건만 했어. 탕건만 했어.)

103013 @ 동카름에 물을 거려당 먹엇지예. 허벅에. 어느 물이 좋앗수과? 큰물?(동동네에 물을 길어다가 먹었지요. 허벅에. 어느 물이 좋았습니까? 큰물?)

103013 #1 큰물에는 섯동.('큰물'에는 서 동네.)

103013 @ 큰물은 섯동이 큰물. 여기는 무슨 물 길어당 먹어수과?('큰물'은 서 동네가 '큰물'. 여기는 무슨 물 길어다가 먹었습니까?)

103013 #1 감언물[70].('감언물.')

103013 @ 예?(예?)

103013 #1 감언물.('감언물.')

103013 @ 감언물? 지금도 잇수과?('감언물?' 지금도 있습니까?)

103013 #1 잇지.(있지.)

103013 @ 거기 물도 시원헹 좋아수과?(거기 물도 시원해서 좋았습니까?)

103013 #1 좋아실 거라. 난 안 봐봇어.(좋았을 거라. 난 안 봐봤어.)

103013 @ 삼촌 어디 강 물 길어당 먹언?(삼촌 어디 가서 물 길어다가 먹었어요?)

103013 #1 감안물.('감안물'.)

103013 @ 감안물. 요즘 안 가봔?(감안물. 요즘 안 가봤어?)

103013 #1 응, 든물은 메와불곡.(응, 단물은 메워버리고.)

---

70) '감언물'은 신촌 동 동네에 있는 용천수이다.

103013 @ 든물은 메와불언마씨?(단물은 메워버렸어요?)

103013 #1 통물[71]도 잇곡.('통물'도 있고.)

103013 @ 든물이 좋앗구나.('단물'이 좋았구나.)

103013 #1 아니 감안물은, 헌디 든물은 좀 찝찌름해, 짜. 통물도 메와불곡. 이제 가만물 하나 잇어.(아니 '감안물'은, 그런데 단물은 좀 찝찌름해, 짜. '통물'도 메워버리고. 이제 '감언물' 하나 있어.)

103013 @ 아이고 언제 메와 불어수과?(아이고 언제 메워 버렸습니까?)

103013 #1 자동적으로 메와졋지. 아이먹어가난.(자동적으로 메워졌지. 아니 먹어가니까.)

103013 @ 아오야. 물이 안 나와? 게믄 비올 땐 나올 수도 잇잖아예.(아오야. 물이 안 나와? 그러면 비올 땐 나올 수도 있잖아요.)

103013 #1 이제이 우의로 수도가 뽑아부니까 물줄기 우이로 강 수도 뽑아부난 물이 다 죽어불언. 그전인 이 물줄기 아년 땐 막 허는디 큰물도 죽어불엇네. 우이로덜 수도 뽑아부난. 큰물 창창창창 허는 물이 죽엇어.(이제 위로 수도가 뽑아버리니까 물줄기 위로 가서 수도 뽑아버리니까 물이 다 죽어버렸어. 그전엔 이 안 할 땐 막 하는데 큰물도 죽어버렸네. 위로들 수도 뽑아버리니까. 큰물 창창창창 하는 물이 죽었어.)

103013 @ 아아.(아아.)

103013 #1 우이로 수도가 뽑아부니까.(위로 수도가 뽑아버리니까.)

103013 @ 아아.(아아.)

103013 #1 물줄기, 물줄기를 우이로 강 수도 강 뽑아부니까 내려오냐? 그게.(물줄기, 물줄기를 위로 가서, 수도 가서 뽑아버리니까 내려 오냐? 그게.)

103013 @ 문제는 그거라.(문제는 그거라.)

103013 #1 그래. 물 우의로덜 막 수도 걸어 불엇잔아. 이제 옛날 와흘 ᄀᆞ뜬딘 물 있나? 글로덜 강 막 파부니까 한라산으로 물줄기덜이 다 뽑아 올라부난에 이레는 물이 죽어불엇주.(그래. 물 위에로들 막 수도 걸어버렸잖아. 이제 옛날 와흘 같은 덴 물 있나? 거기로들 가서 막 파버리니까 한라산으로 물줄기들이 다 뽑아 올라버리니까 이리로는 물이 죽어버렸지.)

103013 @ 아아.(아아.)

103013 #1 다 수돗물만 먹엄주. 수도에서 빨래허고 수도 먹고 허난 무신 바당물 먹엄나.(다 수돗물만 먹지. 수도에서 빨래하고 수도 먹고 하니까 무슨 바닷물 먹나.)

103013 @ 게난.(그러니까.)

103013 #1 먹지도 아녀. 바당 물.(먹지도 않아. 바다 물.)

103013 @ 먹지도 안허주만은 물이 거 죽어버리면 큰일인데.(먹지도 않지만 물이 거 죽어버리면 큰일인데.)

103013 #1 물 죽엇지게. 우의로 다 뽑아부난.(물 죽었지. 위로 다 뽑아버리니까.)

103014 @ 그믄 이제는 보릿겨, 보릿짚, 보리까끄라기 등은 어떻게 활용헷습니까?(그

71) '통물'은 신촌 동 동네에 있는 용천수이다. 현재는 없다.

러면 이제는 보릿겨, 보릿짚, 보리까끄라기 등은 어떻게 활용했습니까?)

103014 #1 보리 까끄는건 기계.(보리 깎는 건 기계.)

103014 @ 아니, 그 보리 낭땡이랑 그 보리 끙시락이랑 이런거는 어떻게 활용헷습니까?(아니, 그 보리 짚이랑 그 보리 까끄라기랑 이런 거는 어떻게 활용했습니까?)

103014 #1 이 답답헌 아이야.(이 답답한 아이야.)

103014 @ 질문, 질문 하하하하.(질문, 질문 하하하하.)

103014 #1 보리를 빌 거 아니냐? 비민 몰라. 몰르민 이젠 짚이 잇어. 걸 영 막 세와다가.(보리를 벨 거 아니니? 베면 몰라. 모르면 이젠 짚이 있어. 걸 이렇게 막 세워다가.)

103014 @ 그걸 보릿대렌 헙니까 보릿낭이렌 헙니까? 보릿낭껭이?(그걸 보릿대라고 합니까? 보릿짚이라고 합니까? 보릿짚?)

103014 #1 보릿낭 마라 짚뎅이로 허영 보릴 무꺼.(보릿짚 말고 짚으로 해서 보릴 묶어.)

103014 @ 고고리?(이삭?)

103014 #1 보리고고리 채 묶어. 무꺼당 눌엇다가 구루마 빌엉 시꺼당 이제 홀타. 그놈의 걸.(보리이삭 째 묶어. 묶어다가 가리었다가 달구지 빌어서 실어다가 이제 훑아. 그놈의 걸.)

103014 @ 예.(예.)

103014 #1 이렇게 홀타 막 놉 빌어당 홀타. 게민 말젠 보리 지게 빌어당 태작마당에서 태작헤.(이렇게 훑아. 막 놉 빌어다가 훑아. 그러면 나중엔 보리 지게 빌어다가 태작마당에서 타작해.)

103014 @ 그거 고고리만?(그거 이삭만?)

103014 #1 고고리만. 남뎅인 남뎅이대로 무껑 눌엄네.(이삭만. 줄기는 줄기대로 묶어서 가리네.)

103014 @ 남뎅이는 그 이삭, 고고리 털어난 걸 남뎅이렌 허지예?(줄기는 그 이삭, 이삭 털었던 걸 줄기라고 하지요?)

103014 #1 남뎅이는 이렇게 홀타. 보리고고린 보릿고고리대로 허고 남뎅인 남뎅이대로 헤.(줄기는 이렇게 훑아. 보리이삭 보리이삭대로 하고 줄기는 줄기로 해.)

103014 @ 남뎅이는 낭껭이를 말허는 거꽈(줄기는 나뭇개비를 말하는 겁니까?)

103014 #1 응. 남뎅이만 뚜루. 게민 짚댕이 헤당 그놈을 무꺼근에 눌어. 걸름도 허곡.(응. 줄기만 따로. 그러면 짚 해다가 그놈을 묶어서 가려. 거름도 하고.)

103014 @ 남뎅이가 보리낭깽이, 보리낭을 남뎅이렌 헷수과?(줄기가 보릿대, 보리짚을 '남뎅이'라고 했습니까?)

103014 #1 어.(어.)

103014 @ 이거 고고리 빼버린 거를 남뎅이엔 허는 거?(이거 이삭 빼버린 거를 '남뎅이'라고 하는 거?)

103014 #1 응응, 빈 걸. 그건 보리낭, 보리찍.(응응, 빈 걸. 그건 보리짚, 보리짚.)

103014 @ 난 보리고고리에서 보리 빼진 것이 남뎅인줄 알아신디. 보리낭깽이가.(난 보리이삭에서 보리 빼진 것이 '남뎅이'인 줄 알았는데. 보리짚이.)

103014 #1 아니 낭껭이가 보리찍. 이제 매탁기계 빌어다근에 때려. 이젠 새 기계난 한글허지. 매탁기가. 그전인 도께로 두들어낫잔아.(아니 짚이 보리짚. 이제 탈곡기 빌려다가 때려. 이젠 새 기계니까 한가하지. 탈곡기가. 그전인 도리깨로 두들겼잖아.)

103014 @ 남뎅인 눌엇당 그걸 어떵 씁니까?('줄기'는 가렸다가 그걸 어떻게 씁니까?)

103014 #1 뭐 불도 슴앙 밥도 헤먹곡 통시에 놩 걸름도 허곡.(뭐 불도 때서 밥도 해 먹고 돼지우리에 놔서 거름도 하고.)

103014 @ 애기구덕에도 놓고.(애기구덕에도 놓고.)

103014 #1 애기구덕에도 놓곡 또 소 또꼬망에도 걸름 막 끌곡. 필요헤여.(애기구덕에도 넣고 또 소 똥구멍에도 거름 막 깔고. 필요해.)

103014 @ 필요헤여.(필요해.)

103014 #1 보릿낭이.(보릿짚이.)

103014 @ 뽀송뽀송허니까.(뽀송뽀송하니까.)

103014 #1 기양 통시에 담앙 걸름도 허곡. 소 또꼬망에도 막 끌아주고.(그냥 돼지우리에 담아서 거름도 하고. 소 똥구멍에도 막 깔아주고.)

103014 @ 끌아주고. 여자애기날 때도 북덕자리[72]옌 헤근에.(깔아주고. 여자아기 날 때도 '북덕자리'라고 해서.)

103014 #1 연날엔 여자 애기나면 피나면 보리낭 끌아. 장마나민 뭐허고 뭐 옷이 잇나마나. 그놈을 헹 애기 봇이 잇어이. 그거 헹 바당에 강 다 엉과 강 솔아.(옛날엔 여자 애기나면 피나면 보리 짚 깔아. 장마나면 뭐하고 뭐 옷이 있으나마나. 그놈을 해서 애기 봇이 있어. 그거 해서 바다에 가서 다 엉궈서 태워.)

103014 @ 솔아. 그걸 북덕자리렌 헤수과?(태워. 그걸 '북덕자리'라고 했나요?)

103014 #1 그거. 봇, 봇, 아기 봇.(그거. 태, 태, 아기 태.)

103014 @ 아기 봇?(아기 태?)

103014 #1 돼지나 소나 봇 잇잔아. 사름도 그런 거 잇어.(돼지나 소나 태 있잖아. 사람도 그런 거 있어.)

103014 @ 테반.(태반.)

103014 #1 바당에 강 태와.(바다에 가서 태워.)

103014 @ 태와.(태워.)

103014 #1 거 잘못 헤민 애기덜이 피부병 걸령 뽀족뽀족 거 잘 아이 케왓당은 애기 피부병 걸려.(거 잘못 하면 애기들이 피부병 걸려서 뾰족뾰족 거 잘 아이 태웠다가 애기 피부병 걸려.)

103014 @ 잘 태우고 안태우고가 잇수과? 깨끗이 태우라는 말?(잘 태우고 안태우고가 있습니까? 깨끗이 태우라는 말?)

---

72) '북덕자리'는 보리짚을 깔아 아기를 날 수 있게 한 자리를 말한다.

103014 #1 이 장소가 깨끗헌 자리에 아니 헷당은 애기가 피부가 나쁜다 허여.(이 장소가 깨끗한 자리에 아이 해다가 애기가 피부가 나쁘다고 해.)

103014 @ 아, 태우는 거.(아, 태우는 거.)

103014 #1 또 뱃똥줄은 끊엉이, 이런 디 공장에 둘아매여.(또 배꼽 줄은 끊어서, 이런데 공중에 달아 매.)

103014 @ 뱃똥 줄? 애기 꺼.(배꼽 줄? 애기 거.)

103014 #1 배똥줄 잇잔아. 그 애기 날 때 배똥 줄 잇어. 게믄 실로 무끄민 혼 일주일 뒈 가믄 그거 털어져.(배꼽 줄 잇잖아. 그 아기 날 때 배꼽 줄 있어. 그러면 실로 묶으면 한 일주일 돼 가면 그거 떨어져.)

103014 @ 털어지잖아예.(떨어지잖아요.)

103014 #1 털어지믄 공장에 둘아 매여.(떨어지면 공중에 달아 매.)

103014 @ 메칠간?(며칠간?)

103014 #1 거 막 오래 헷당, 오래 정성허는 사름은 막 오래 놧당 그 애기 대학 시험 갈 때 보겟도에서.(거 막 오래 했다가, 오래 정성하는 사람은 막 오래 놨다가 그 애기 대학 시험 갈 때 주머니에서.)

103014 @ 우리할머니도 보관헹은에 나한테 줍디다게.(우리할머니도 보관해서 나한테 줍디다.)

103014 #1 왜냐하면 그 애기 몰르게 보곰지더레 놓으믄 거믄 합격뒌덴.(왜냐하면 그 아기 모르게 지갑에 놓으면 그러면 합격된다고.)

103014 @ 그거를 놧당 나안테 나중에 꼭 나안테 줍디다게.(그거를 놨다가 나한테 나중에 꼭 나한테 줍디다.)

103014 #1 거 이제도 잇어?(거 이제도 있어?)

103014 @ 예. 어디실거라. 할머니가.(예. 어디 있을 거라. 할머니가 .)

103014 #1 야, 할마니가 똑똑허다. 우리는 어드레사 아시다 데껴져신지.(야, 할머니가 똑똑하다. 우리는 어디에야 갖다 다 던져버렸는지.)

103014 @ 요즘은 산부인과 가도예. 거 주렌허민 주긴 헙디다.(요즘은 산부인과 가도요. 그거 주라 하면 주긴 합디다.)

103014 #1 주어. 주는 디 씩 끈엉 아무디나 넹겻당 아닌것도 기옝허멍 앗다준덴 헤라. 또 그걸 그 아이를 허느냐? 그땐 무데기로 가낫싸정 어느것사 기산디. 거 이녁쿠로 난 때 뚜루허주이. 그런디 껀 믿질 못헤여. 생각헤 보라. 으라 아기 나는 디 어느 거이 기산디 알 말이가? 그거 그 애기 날 때 간호사신디 직시 나건 헤ᄃᆞ렌 헤. 아니헹은이.(줘. 주는 데로 끊어서 아무데나 만졌다가 아닌 것도 그렇다고 하면서 갖다 준다고 하더라. 또 그걸 그 아이를 하니? 그땐 무더기로 뒤섞어져서 어느 것이 진짜인지. 거 이녁 스스로 난 때 따로 하지. 그런 데 건 믿질 못해. 생각해 봐라. 여러 아기 나는 디 어느 거 진짜인지 알 말이야. 그거 그 애기 날 때 간호사에게 직시 나건 해 달라고 해. 아니 해서는.)

103014 @ 맞아.(맞아.)

103014 #1 구벨허지 못헤여.(구별하지 못해.)

103014 @ 아이구, 옛날예. 봐난 사람이 그난 팔십 넘은 분들신디 얘기 안 들으민 어떵 압니까? 이런 거를.(아이구, 옛날이요. 봤던 사람이 그러니까 팔십 넘은 분들에게 얘기 안 들으면 어떻게 압니까? 이런 거를.)

103014 #1 모르지. 이제 죽어불믄 몰라. 나도이 이 동네서 젤 나으 하영 먹은 사름이라. 멩원이 다음에 나라.(모르지. 이제 죽어버리면 몰라. 나도 이 동네서 젤 나이 많이 먹은 사름이라. 명원이 다음에 나라.)

103014 @ ᄀᆞ시락은 어떵 썻수과? 굴묵 지던? ᄀᆞ시락.(까끄라기는 어떻게 썼습니까? 굴묵 짇던? 까끄라기)

103014 #1 ᄀᆞ시락은 이 매탁기계 막 두들어나민 그 ᄀᆞ시락 누는 사름은 눌어근에 굴묵짓고.(까끄라기는 이 매타 기계 막 두들겨나면 그 까끄라기 가리는 사람은 가리어서 '굴묵' 때고.)

103014 @ 아아.(아아.)

103014 #1 또 창고잇인 사름은 창고에 놩 놔둬. 겨울에 때젠. 굴묵 뜨뜻헐 때.(또 창고 있는 사람은 창고에 놔서 놔둬. 겨울에 때려고. '굴묵' 따뜻할 때.)

103015 @ 그믄 이 보리 짚 가졍은에 아니면은 보리에 대한 추억, 예를 들면 꿩ᄃᆞᆨ세기를 봉갓다든가 보리하면서 뭐 ᄀᆞ시락이 들엇다든가, 뭐 보리를 베다가 무슨 뭐 그런 뭐 옛날 생각나는 것들은 엇수과?(그러면 이 보리 짚 가져서 아니면 보리에 대한 추억, 예를 들면 꿩알을 주웠다든가 보리하면서 뭐 까끄라기 들었다든가, 뭐 보리를 베다가 무슨 뭐 그런 뭐 옛날 생각나는 것들은 없습니까?)

103015 #1 우리 옛날은 마당질 헤난 끝에는 태작기계가 나왓어. 근디 그 태작기계헐 때도 거 ᄀᆞ시락 그거 이제 창고에 담앗다가 겨울엔 그거 헤다가 굴묵지던. 거 막 필요헌 거.(우리 옛날은 도리깨질 했었던 끝에는 타작기계가 나왔어. 그런데 그 타작기계할 때도 거 까끄라기 그거 이제 창고에 담았다가 겨울엔 그거 해다가 '굴묵' 때던. 거 막 필요한 거.)

103015 @ 삼춘도 보리벨 때 꿩ᄃᆞᆨ세기 발견허믄 가졍 왕.(삼촌도 보리 벨 때 꿩알 발견하면 가져와서.)

103015 #1 아니 우린 불쌍헤서. 아니 아져완. 그 꿩이 세 번만 새끼낭 일러불믄이 돌 안앙 둥글엉 키웁넨. 애썬게. 혼 번 두 번ᄁᆞ지 허당 세 번차 일러불민 돌안앙 그냥 께왕 꿩이 죽나 허여.(안 우린 불쌍해서. 안 가져왔어. 그 꿩이 세 번만 새끼 나서 잃어버리면 돌 안아서 둥글면서 키운다고. 애써서. 한번 두 번까지 하다가 세 번째 잃어버리면 돌 안아서 그냥 깨워서 꿩이 죽는다고 해.)

103015 @ 그거는 얘기가 그렇다는 거지예?(그거는 얘기가 그렇다는 거지요?)

103015 #1 아니, 경 죽넨 꿩이.(아니, 그렇게 죽는다고 꿩이.)

103015 @ 메께라. 가이도 그런 맺힌 게 잇어 가지고.(어머나. 걔도 그런 맺힌 게 있어 가지고.)

103015 #1 경허난 사람이 꿩만도 못허여. 꿩만도 못허여. 중싱만도 못허다 이거라.

즘싱은 자기 새끼들 거둡건마는 사람은 새끼나동 데껴 불어동 돌아나불메.(그러니까 사람이 꿩만도 못해. 꿩만도 못해. 짐승만도 못해. 이거라. 짐승은 자기 새끼들 거두건만 사람은 새끼 나두고 던져 버려두고 달아나버려.)

103015 @ 쯧쯧쯧 세상에.(쯧쯧쯧 세상에.)

103015 #1 사람이 중싱만도 못허여. 거니까 옛날도 나쁘니까 베락맞앙 죽잔아. 이젠 베락이 엇어. 옛날은 이 어떵헹 베락을 치냐 허면은 그 옛날은 비옷 엇엉 새로 만든 비옷이 잇어. 너 아나?(사람이 짐승만도 못해. 거니까 옛날도 나쁘니까 벼락 맞아서 죽잖아. 이젠 벼락이 없어. 그 옛날은 이 어떻게 해서 벼락을 치냐 하면 옛날은 비옷 없어서 새로 만든 비옷이 있어. 너 아니?)

103015 @ 우장? 우장이옌 헷수과?(우장? 우장이라고 했습니까?)

103015 #1 우장. 그걸 씌면은 그 천둥이, 왈캉왈캉 나쁜 새가 잇어이, 그것이 총달샌가 무신 샐 거라. 올라갈 때는 하느님, 하느님 살려 주십서! 살려 주십서! 허곡 내려올 땐 내 또꼬망 비짝비짝 헤부니까 내려올 때는 거니까 그 천둥헤가믄 새가 노래영이 그 우장 잇잔아. 그 소곱더레 들어가믄 그 새 죽이젱 허당 그 사름 죽어. 게난 죄 짓은 놈 졑디 앚앗단 베락맞나. 경허는거지. 무사 안들언?(우장. 그걸 쓰면 그 천둥이, 왈캉왈캉 나쁜 새가 있어. 그것이 총달샌가 무슨 샐 거라. 올라갈 때는 하느님, 하느님 살려 주십시요! 살려 주십시오! 하고 내려 올 땐 내 똥구멍 비쭉비쭉 해버리니까 내려올 때는 거니까 그 천둥해가면 새가 놀래서 그 우장 있잖아. 그 속에 들어가면 그 새 죽이려고 하다가 그 사람 죽어. 그러니까 죄 지은 놈 곁에 앉았다가 벼락 맞나. 그렇게 하는 거지. 왜 안 들었니?)

103015 @ 처음 들어보멘.(처음 들어보네.)

103015 #1 죄 잇는 사람 즈끗디 아잣당은 베락맞나? 이거라. 그거 그거지. 것도 안 들어? 이거 추억이라.(죄 있는 사람 곁에 앉았다가 벼락 맞나? 이거라. 그거 그거지. 것도 안 들어? 이거 추억이라.)

103015 @ 총달샌가 뭔가 처음에는 살려줍서. 허당 똥꼬망 비짝비짝 내려와가난 그 사냥꾼이 걸 쏩젠 허난 어떵마씨?(총달샌가 뭔가 처음에는 살려 주세요. 하다가 똥구멍 비쭉비쭉 내려와 가니까 그 사냥꾼이 걸 쏘려고 하니까 어떻게요?)

103015 #1 사냥꾼이냐, 하느님에서 베락을 때려. 옛날에.(사냥꾼이냐, 하느님에서 벼락을 때려. 옛날에.)

103015 @ 그 저 버릇없다 헤가지고 그 새안테 베락을 때렷는데.(그 저 버릇없다 해가지고 그 새한테 벼락을 때렸는데.)

103015 #1 또꼬망 비짝비짝허난 사름 ᄀᆞ뜨믄 나무렛다 허는 거지. 하느님이. 비짝비짝 헤가면은 그거 베락을 때리는 게 그 우장 소곱더레 그 나쁜 새가 들어가. 거난 거 죽이젠 허난 그 우장 씬 사름ᄁᆞ지 다 죽엇젠. 게난 죄짓인 놈 즈끗디 앚앙 베락 맞나 이거야.(똥구멍 비쭉비쭉하니까 사람 같으면 나무랬다 하는 거지. 하느님이. 비쭉비쭉 해가면 그거 벼락을 때리는 게 그 우장 속에 그 나쁜 새가 들어가. 그러니까 거 죽이려고 하니까 그 우장 쓴 사람 같지 다 죽었다고. 그러니까 죄 지은 놈 곁에 앉아서 벼락

맞나 이거야.)

103015 @ 게난 죄짓인 놈은 그 총달샌가 헌 생인디.(그러니까 죄지은 놈은 그 총달샌가 한 샌데.)

103015 #1 그거 죽이젠 사름 죽엇네게.(그거 죽이려고 사람 죽었네.)

103015 @ 아이구, 그 저 우장 속에 들어갓단 베락 맞앗다.(아이구, 그 저 우장 속에 들어갔다가 벼락 맞았다.)

103015 #1 왈캉왈캉 헤가난 노래어가난게 우장 소곱더레 들어가난게 새는 이레 들어 새 죽이젠 허당 그 죄짓인 놈 생일 쏩젠 베락 때려신디 사름이 죽언. 게난 죄짓인 놈 ᄌᆞ끗데 앚앗당 베락 맞나.(왈캉왈캉 해가니까 놀래어 가니까 우장 속에 들어가니까 새는 이레 들어 새 죽이려고 하다가 죄지은 놈 샐 쏘려고 벼락 때렸는데 사람이 죽언. 그러니까 그 죄 지은 놈 곁에 앉았다가 벼락 맞나.)

103015 @ 죄짓인 놈안티 베락이 떨어져야 허는디 참.(죄지은 놈한테 벼락이 떨어져야 하데 참.)

103015 #1 게난 죄짓인 놈 ᄌᆞ끄디 앚앗단 베락맞아. 생이는 못 쏩고, 우장 씐 사름 죽인 거 아니?(그러니까 죄 지은 놈 곁에 앉았다가 벼락 맞아. 새는 못 쏘고, 우장 쓴 사람 죽인 거 아니?)

103015 @ 게난 말이우다.(그러니까 말입니다.)

103015 #1 게난 쿰에 쿰어부난 못죽연. 게난 우리 사투리가 에이구, 죄짓인 놈 ᄌᆞ끗디 갓당 베락맞아.(그러니까 품에 품어버리니까 못 죽연. 그러니까 우리 사투리가 에이구, 죄지은 놈 옆에 갔다가 벼락 맞아.)

103015 @ 그 말이 나왓구나예.(그 말이 나왔군요.)

103015 #1 그, 그 말 거. 게난 에이구, 숭에 튀당 복쟁이 튀당 웬담[73]에 배 채여정 죽고.(그, 그 말 거. 그러니까 에이구, 숭어 뛰다가 복어 튀다가 원담에 배 찢어져서 죽고.)

103015 @ 예?(예?)

103015 #1 숭어 튀는 거 봣당 복쟁이가 튀어. 튀당 이젠 웬담에 밸 체어정 죽나 숭에ᄀᆞ치 삘룩삘룩 튀지 못허난 죽은 거야 웬담 배가. 그거야. 어이구 무신 둥글어온 돌이 박인 돌 팍팍 차고 둥글어온 돌이 박힌 돌을 팍팍 찬덴 경허고 느 나말 많이 배왐다. 사투리.(숭어 뛰는 거 봤다가 복어가 뛰어. 뛰다가 이젠 원담에 밸 차여 죽나 숭어같이 뿔룩뿔룩 뛰지 못하니까 죽은 거야. 원담 배가. 그거야. 어이구 무슨 둥글어온 돌이 박힌 돌 팍팍 차고 둥글어온 돌이 박힌 돌을 팍팍 찬다고 그리고 너 내말 많이 배운다. 사투리.)

103015 @ 이걸 잘 적엉 써먹어야 뒈는데. 게난 꿩ᄃᆞᆨ새기는 아예 안 솖아 먹어봐수과?(이걸 잘 적어서 써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꿩알은 아예 안 삶아 먹어 봤습니까?)

103015 #1 아예 봉가도 안 봉가. 속 아판. 거 이녁이 그땐이 계란 엇인 때니까 꿩ᄃᆞᆨ

73) '원담'은 원이라고도 하며 해변 조간대에 만을 이루는 듯한 곳에 돌담을 축조해 놓고 밀물을 따라 몰려든 고기떼를 썰물이 나면 그 안에 가둬놓아 쉬 잡을 수 있게 장치해 둔 곳을 말한다.

새길 막 필요허지 계란 이시난 거 봉가오젠도 아니혀.(아예 주워도 안 주워. 속 아파서. 거 이녁이 그땐 계란 없을 때니까 꿩알 막 필요하지. 계란 있으니까 거 주워오려고도 안 해.)

103015 @ 아니, 옛날에 우리 할머닌 봉가당 숢아주민 막 맛좋게 먹어난.(아니, 옛날에 우리 할머닌 주워 다가 삶아주면 아주 맛좋게 먹었어요.)

103015 #1 이젠 계란 잇어부난.(이젠 계란 있어버리니까.)

103015 @ 아, 옛날 얘기.(아, 옛날 얘기.)

103015 #1 옛날엔 게도 이젠 이, 옛날도 안 사름은 꿩독새기 꿩이 가심 아픈덴 헨. 꿩이 세 번만 새끼 일르믄 그냥 둘아낭 죽어분덴. 그렇게 꿩 가심 아프듯.(옛날엔 게도 이젠 이, 옛날도 안 사름은 꿩알 꿩이 가슴 아프다고 했어. 꿩이 세 번만 새끼 잃으면 그냥 달아나서 죽어 버린다고. 그렇게 꿩 가슴 아프듯.)

103015 @ 꿩 가슴 아프듯.(꿩 가슴 아프듯.)

103015 #1 자기 새끼 주워와 부난 꿩이 얼마나 가심 아플 거니?(자기 새끼 주워와 버리니까 꿩이 얼마나 가슴 아플 거니?)

103015 @ 아이구, 세상에. 게믄 보리 베당 무신 베염 보고.(아이구, 세상에. 그러면 보리 베다가 뭐 뱀 보고.)

103015 #1 뱀 보지.(뱀 보지.)

103015 @ 죽이진 안헷지예?(죽이진 안했지요?)

103015 #1 베염이 빌 때는 없어. 비영 보리가 아졍 ᄀᆞ찡ᄀᆞ찡 놓지. 경 묶을 땐 잇어 베염이. 빌 때는 없어. 산 보리 벨 때는 엇엇당 무끌때는 밑에 잇언.(뱀이 벨 때는 없어. 베어서 보리가 가져서 가지런히 놓지. 그렇게 묶을 땐 있어. 뱀이. 벨 때는 없어. 서서 보리 벨 때는 없었다가 묶을 때는 밑에 있었어.)

103015 @ 그믄 놀라고?(그러면 놀라고?)

103015 #1 그 소곱에 숨엇다가.(그 속에 숨었다가.)

103015 @ 물린 사람은 안봐봐수과?(물린 사람은 안 봐봤습니까?)

103015 #1 몰라. 보리 무끄단 물렷젠 말은 엇곡, 그 소곱에 잘 들어간덴 헤여, 베염이.(몰라. 보리 묶다가 물렸다 말은 없고, 그 속에 잘 들어간다고 해. 뱀이.)

103015 @ 작대기로 막 툭툭툭툭 헤야주게.(작대기로 막 툭툭툭툭 해야지.)

103015 #1 어떵헹 매 것에 닥닥 두드나? 바쁘니까 그냥 무끄기가 바쁘지. 독독독독 아이고 한걸도 헷저. 야이 닮은 아이. 그 독독 두드는 사이믄 멧 갤 무끌거니? 어이고 독독 두들고.(어떻게 해서 모든 것에 닥닥 두드리나? 바쁘니까 그냥 묶기가 바쁘지. 툭툭툭툭 아이고 한가하기도 했다. 얘 같은 아이. 그 독독 두드리는 사이면 몇 개 묶을 거니? 어이고 툭툭 두드리고.)

103015 @ 게난 무서와서 요즘은.(그러니까 무서워서 요즘은.)

103015 #1 에구 느네 시절은 얼마나 좋은 시절 만나시. 일제 때에이 그 고생허연 공출 다헤가불언 우리 배고팡 못살아. 일본놈덜 만딱 공출헤가부난 이 죽만 먹어네 이젠 죽을 먹구정을 안 헌덴 허난. 뇌연. 쏠 흔 관뒈 받아왕 거 멧 번을 죽만 먹을거니? 거난

우리가 죽만 먹엉 죽을 먹지 안허잔아, 질려서. 죽 아이고 밥만 먹겐허민. 야야 쏠이 어디 시냐? 거믄 이젠.(에구 너희 시절은 얼마나 좋은 시절 만났니? 일제 때에 그 고생해서 공출 다 해 가버렸어 우리 배고파서 못살아. 일본 놈들 모두 공출 해 가버리니까 이 죽만 먹어서 이젠 죽을 먹고 싶지를 않다고 하니까 질련. 쌀 한 되 받아와서 거 몇 번을 죽만 먹을 거니? 거니까 우리가 죽만 먹어서 죽을 먹지 않잖아. 질려서. 죽 아이고 밥만 먹자고 하면. 야야 쌀이 어디 있니? 그러면 이젠.)

103015 @ 무슨 죽을 주로 끌영 먹어수과?(무슨 죽을 주로 끓여서 먹습니까?)

103015 #1 곤쏠 말량 그거 받아당 죽 쑤고게, 일제 때 만딱 공출헤가부니까게.(흰쌀 말량 그거 받아다가 죽 쑤고, 일제 때 모두 공출해 가버리니까.)

103015 @ 보리죽도 먹곡.(보리죽도 먹고.)

103015 #1 보리죽도 먹곡.(보리죽도 먹고.)

103015 @ 콩죽, 좁쏠죽.(콩죽, 좁쌀죽.)

103015 #1 호박입에 보리ᄀᆞ루 서텅도 먹고 또 감제 뎅구이 헤당 술망도 먹곡, 경헤여.(호박잎에 보리가루 섞어서도 먹고 또 고구마 줄거리 해다가 삶아서도 먹고, 그렇게 해.)

103015 @ 어려운 시절예.(어려운 시절이요.)

103015 #1 또시 바다에 페, 페 헤여다근에 솔믄 사람이믄 그거 사당 먹곡. 큰 항에 꺼 전문으로 허는 사름이 잇어. 페 허곡 이제 그것이 뭇? 뭇 헤당 술므믄 그렇게 맛이서.(또 바다에 패, 패 해다가 삶은 사람이면 그거 사다가 먹고. 큰 항아리에 거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 패하고 이제 그것이 무릇?, 무릇 해다가 삶으면 그렇게 맛있어.)

103015 @ 바다에?(바다에?)

103015 #1 바당에 패 메다가.(바다에 패 매다가.)

103015 @ 음. 패가 어떻게 생겨. ᄆᆞᆷ 같은 거꽈(음. 패가 어떻게 생겨. 모자반 같은 겁니까?)

103015 #1 아니, 아니. 패가 잇어. 이제 패가 없어 오염으로 다 죽어부난. 그 패가 이 까실까실까실 헤여. 근디 뭇은 술므믄 그것이 문데기 숢아저. 경허믄 보리쏠 흔 사발 아져가믄 물릇 흔 사발 바꽈줜.(아니, 아니. 패가 있어. 이제 패가 없어 오염으로 다 죽어버리니까. 그 패가 이 까슬까슬까슬 해. 그런데 뭇은 삶으면 그것이 문데기 삶아저. 그러면 보리쌀 한 사발 가져가면 무릇 한 사발 바꿔 줬어.)

103015 @ 그믄 그거에 뭘 서꺼서 밥을 헤마씸?(그러면 그거에 뭘 섞어서 밥을 해요?)

103015 #1 그냥 물릇만 먹어. 쏠 엇이니까.(그냥 무릇만 먹어. 쌀 없으니까.)

103015 @ 톳 달믄 거꽈(톳 닮은 겁니까?)

103015 #1 톳 달믄 건. 까실까실 즘진즘진헌 거 잇어.(톳 닮은 건. 까슬까슬 가는가는 한 거 있어.)

103015 @ 색깔은?(색깔은?)

103015 #1 까망헤여.(까매.)

103015 @ 까망헤. 술망 먹어?(까매. 삶아서 먹어?)

103015 #1 항 아져가지고 다 나 허는 거 봣어. 어린 때도. 항에 밋밋 그 흑 잇잔아. 흑으로 다 불라. 아래 이 쉐똥으로 숨데. 빨리 궤믄 안 뒈여. 츠츰츠츰 헤사 딸려져 경 허민이 물릇[74] 혼사발 아졍 왕 보리쏠 혼사발 바꽝와. 뭐 오죽 먹고정 헤사. 그, 그 물릇 장시가 잇어.(항아리 가져가지고 다 나 하는 거 봤어. 어린 때도. 항아리에 밋밋 그 흙 있잖아. 흙으로 다 밟아. 아래 이 소똥으로 때대. 빨리 끓이면 안 돼. 차츰차츰 해야 달여져 그렇게 하면 무릇 한 사발 가져 와서 보리쌀 한 사발 바꿔서 와. 뭐 오죽 먹고 싶어 해야. 그, 그 무릇 장수가 있어.)

103015 @ 거 물릇은 거 딸려?(거 무릇은 거 다려?)

103015 #1 항에 항.(항아리에 항아리.)

103015 @ 항에 걸 끌여.(항아리에 걸 끓여.)

103015 #1 항에이 흑헤당 막 불라근에 낭으로 허민 왈랑왈랑헹 재기 딸려진뎅 못 씨는 거. 쉐똥으론가 무시걸로 막 숨데.(항아리에 흙 해다가 막 밟아서 나무로 하면 왈랑왈랑해서 빨리 다려진다고 못 쓰는 거. 소똥으론가 무슨 걸로 막 때대.)

103015 @ 게믄 그걸 국물을 먹어마씨?(그러면 그걸 국물을 먹어요?)

103015 #1 국물이영 건더기영.(국물이랑 건더기랑.)

103015 @ 건더기영 다 먹어?(건더기랑 다 먹어?)

103015 #1 맛잇어. 돌아. 이젠 거 먹도 아녀. 이젠.(맛있어. 달아. 이젠 거 먹도 아녀. 이젠)

103015 @ 나 어떤 건지도 몰르쿠다. 바당에 이시카?(나 어떤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다에 있을까?)

103015 #1 그거이 그 패가 이젠 오염뒌 엇일거라. 너패 마랑 패가 잇어. 까슬락까슬락 헌 거. 그거 헤당 딸려.(그거 그 패가 이젠 오염된 없을 거라. 넓패 말고 패가 있어. 까끌까끌 한 거. 그거 해다가 딸려.)

103015 @ 너패 마랑 패예. 뭇하고예.(넓패 말고 패요. 무릇하고요.)

조 농사

103016 @ 그믄예 이제 조농사만 오늘은 허쿠다예.(그러면요 이제 조농사만 오늘은 할께요.)

103016 #1 응.(응.)

103016 @ 조농사까지예. 조농사를 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합니까?(조농사까지요. 조농사를 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합니까?)

103016 #1 조는이. 하영 불리는 사람은 이제 갈아근에 좁씰 내껴. 남테[75]로도 불르

74) '물릇'은 식물로 뭇, 무릇, 물롯 이라고도 불린다.

75) '남테'는 둥근 나무토막에 굵은 나뭇가지를 돌아가며 수없이 박아 붙여 만든 농기구로 굴려서 밭 따위의 토양을 다지는 데 쓰는 농기구를 말한다.

곡, 또 이신 사름은 저 웃드리 가근에 ᄆᆞᆯ테우리 말, 말, 그거 빌어당 ᄇᆞᆯ르곡.(조는 이. 많이 밟는 사람은 이제 갈아서 좁씰 내껴. '남테'로도 밟고, 또 있는 사람은 저 '웃드리' 가서 말 목동 말, 말, 그거 빌어다가 밟고.)

103016 @ 아, 웃두리 강. ᄆᆞᆯ도 빌리곡, ᄆᆞᆯ테우리도 빌령. ᄁᆞᆩ성 와사.(아, '웃드리' 가서. 말도 빌리고, 말 목동도 빌려서. 끌고 와야.)

103016 #1 ᄆᆞᆯ 킵는 사름신디강 ᄀᆞᆯ민 ᄇᆞᆯ려근에 돈벌젠이, 조랑말덜을 많이 질루와. ᄆᆞᆯ도 하나썩 죽어. 더원. 물 먹구정 헌 때 막 ᄇᆞᆯ련. ᄆᆞᆯ도 이 막 죽는 말이 잇어. 밧ᄇᆞᆯ리당.(말 키우는 사람에게 가서 말하면 밟아서 돈 벌려고, 조랑말들을 많이 길러. 말도 하나씩 죽어. 더워서. 물 먹고 싶을 때 막 밟게 해. 말도 막 죽는 말이 있어. 밭 밟다가.)

103016 @ 밧 ᄇᆞᆯ리당.(밭 밟다가.)

103016 #1 여러 섬지기 ᄇᆞᆯ라 봐라. 말이 얼마나 애쓰나? 경 혜영 멧 섬 줍곡. 또 그냥 사름은이, 그냥 보릿ᄀᆞ리 그 남뎅이 굽텅어리이.(여러 섬지기 밟아 봐라. 말이 얼마나 애쓰나? 그렇게 해서 몇 섬 줍고. 또 그냥 사람은, 그냥 보릿고비 그 대 그루터기.)

103016 @ 예.(예.)

103016 #1 그거 메여근에 골갱이로 글겅 영 발로 ᄇᆞᆯ랑. 건 ᄍᆞ끌락허게 ᄒᆞ는 거. 하영 허는 사름덜은 이 큰 밧더렌 그냥 갈아근에.(그거 매여서 호미로 긁어서 이렇게 발로 밟아서. 건 조그맣게 하는 거.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이 큰 밭은 그냥 갈아서.)

103016 @ 보리 헤난 다음 조를 갈아수과?(보리 한 다음 조를 갈았습니까?)

103016 #1 ᄋᆞᄋᆞ. 그렇지. 또이, 음력으로 오월이 그물아가민 조 ᄇᆞᆯ리지.(응응. 그렇지. 또, 음력으로 오월이 그물어가면 조 밟지.)

103016 @ 조 ᄇᆞᆯ려예. 음력 오월이 뒈는데.(조 밟아요. 음력 오월이 되는데.)

103016 #1 음력으로. 오월이 그물아가민 조 ᄇᆞᆯ리메.(음력으로. 오월이 그물어가면 조 밟지.)

103016 @ 그믄 그냥 밧 갈멍 조 씨 뿌령 ᄇᆞᆯ릅니까?(그러면 그냥 밭 갈면서 조 씨 뿌려서 밟습니까?)

103016 #1 그렇지. 조는 이, 빨리 나기 덕분에 빨리 아이 ᄇᆞᆯ랑 듯날 ᄇᆞᆯ르젠 허민 나불어.(그렇지. 조는, 빨리 나기 때문에 빨리 아니 밟고 뒷날 밟으려고 하면 나버려.)

103016 @ 아아.(아아.)

103016 #1 순 나불어.(순 나버려.)

103016 @ 거믄 안되겟다예. 시기 놓치믄.(아, 그러면 안 되겠네요. 시기 놓치면.)

103016 #1 거난 조, 밤에 꿈 본 말광 머리 검은 그 조 시꾸믄 이 막 그날 급히 일이 난덴 허여. 너넨 조 아니 헤나부난 꿈에 안 시뀜저만은이, 조 헤난 사름덜 조 시 꾸믄이 막 걱정덜 허여. 금방 일이 터진덴 허여.(그러니까 조, 밤에 꿈 본 말이랑 머리 검은 그 조 나타나면 이 막 그날 급히 일이 난다고 해. 너흰 조 안 했었기 때문에 꿈에 안 나타나지만, 조 했던 사람들 조 나타나면 막 걱정들 해. 금방 일이 터진다고 해.)

103016 @ 아아. 금방 일이 터진다.(아아. 금방 일이 터진다.)

103016 #1 보리 시꾸면은 볼일 난뎅허곡.(보리 나타나면 볼일 난다고 하고.)

103016 @ 볼일?(볼일?)

103016 #1 응.(응.)

103016 @ 볼일이 뭐꽈? 잔치라든가 부주?(볼일이 뭡니까? 잔치라든가 부주?)

103016 #1 볼일, 볼일게 잔치 때나 뭐 영장 난 집이나 그런 디 볼일. 소상, 대상도 볼일이고.(볼일, 볼일게 잔치 때나 뭐 영장 난 집이나 그런 데 볼일. 소상, 대상도 볼일이고.)

103016 @ 조 시꾸믄?(조 꿈에 나타나면?)

103016 #1 빨리 일 터져.(빨리 일 터져.)

103016 @ 빨리 일 터진다는 거는? 영장도 날 수 잇고?(빨리 일 터진다는 거는? 영장도 날 수 있고?)

103016 #1 사름이 금방 직사도 허고.(사람이 금방 즉사도 하고.)

103016 @ 죽을 수도 잇고.(죽을 수도 있고.)

103016 #1 그렇지.(그렇지.)

103016 @ 영장난다는 말이다예.(장사난다는 말이네요.)

103016 #1 응.(응.)

103016 @ 빨리 나기 때문에 씨 뿌리자마자 불려야 뒌다는 거다예.(빨리 나기 때문에 씨 뿌리자마자 밟아야 된다는 거네요.)

103016 #1 보리는 보리 시꾸믄 볼 일 나고 조는 빨리 헹 일 터진덴. 거난 나쁘지 그게. 니넨 그런 거 아니 헤나부난 그런 꿈 아이 본다.(보리는 보리 꿈에 나타나면 볼 일 나고 조는 빨리해서 일터진다고. 그러니까 나쁘지 그게. 너흰 그런 거 안 했었기 때문에 그런 꿈 안 본다.)

103016 @ 음.(음.)

103016 #1 우리는 헤나부난 그런 꿈 봐.(우리는 했었기 때문에 그런 꿈 봐.)

103016 @ 조 농사를 할려면 테우리들안테 빌리민 돈 줘야 뒈는 건가?(조 농사를 하려면 목동들에게 빌리면 돈 줘야 되는 건가?)

103016 #1 줘야주.(줘야지.)

103016 @ 멧 마리 데령 오믄?(몇 마리 데려서 오면?)

103016 #1 혼말지기 불른 것에 얼마 헤여근 백오십 펭이 혼말 아니냐? 그 혼말지기 불리민 얼마 달렌허여. 그 사름덜.(한말지기 밟은 것에 얼마 해서 백오십 평이 한말 아니냐? 그 한말지기 밟으면 얼마 달라고 해. 그 사람들.)

103016 @ 달렌요?(달라고요?)

103016 #1 혼말지기 불르민 돈을 달라 헤여. 얼마, 얼마. 게믄 열마지기민 돈이 하지.(한말지기 밟으면 돈을 달라 해. 얼마, 얼마. 그러면 열마지기면 돈이 많지.)

103016 @ 그믄 물을 지네가 열 마리 데려오든 다섯 마리 데려오든 알앙은에 불리면은?(그러면 말을 자기네가 열 마리 데려오든 다섯 마리 데려오든 알아서 밟으면?)

103016 #1 이 한말지기 불린것에 얼마허면은 밧임젠 돈 주고. 또 물이 하면 빨리 불리곡.(이 한말지기 밟은 것에 얼마하면 밭 임잔 돈 주고. 또 말이 하면 빨리 밟고.)

103016 @ 빨리 불리곡. 건디 신촌은 거의 불렷다는 거지예?(빨리 밟고. 그런데 신촌은 거의 밟았다는 거지요?)

103016 #1 그렇지. 남테로 불라. 남테로.(그렇지. '남테'로 밟아. '남테'로.)

103016 @ 신촌은 남테예?(신촌은 '남테'네요?)

103016 #1 남테로 주로 불라. 그거 들아오젠 허믄 막 돈 마니 들어.('남테'로 주로 밟아. 그거 데려오려고 하면 막 돈 많이 들어.)

103016 @ 남테는 물 뒤에 이렇게.('남테'는 말 뒤에 이렇게.)

103016 #1 어, 나무로 만든 거. 것이 남테.(어, 나무로 만든 거. 것이 '남테'.)

103016 @ 그러면 남테도 여러 개 헷겟다예?(그러면 '남테'도 여러 개 했겠네요?)

103016 #1 남테가 발 많이 돗치지. 이만이썩헌 나무에다가.('남테'가 발 많이 달리지. 이만한 나무에다가.)

103016 @ 그거 여러 개. 물에다가 하나씩?(그거 여러 개. 말에다가 하나씩?)

103016 #1 아니, 그 남테에다가 이만씩헌 남을 가까가지고 박아. 박으민 물 발ᄀᆞ치 콱콱콱콱 들어가. 것이 남테.(아니, 그 '남테'에다가 이만한 나무을 깎아가지고 박아. 박으면 말 발같이 콱콱콱콱 들어가. 것이 '남테'.)

103016 @ 거 사람이 헙니까? 말이 헙니까?(거 사람이 합니까? 말이 합니까?)

103016 #1 아니, 사람으로도 끗곡, 물로도 끗고 또 물 ᄒᆞ나에 사람 여러 개 담아들엉 불리기도 허곡.(아니, 사람으로도 끌고, 말로도 끌고 또 말 하나에 사람 여러 개 담아 들어서 밟기도 하고.)

103017 @ 조팟 걸름은 어떻게 마련헤수과?(조밭 거름은 어떻게 마련했습니까?)

103017 #1 어디 조팟딘 걸름 안헤여. 보리왓디만 허주. 조팟딘 걸름 안헤여. 가끔 요소, 부넘 하나씩 아져당 뿌리주 걸름은. 보리왓디 걸어난딘 그거 조 불리지.(어디 조밭엔 거름 안 해. 보리밭에만 하지. 조밭엔 거름 안 해. 가끔 요소, 부넘 하나씩 가져다가 뿌리지. 거름은. 보리밭에 걸었던 덴 그거 조 밟지.)

103018 @ 조는 언제 어떻게 갑니까?(조는 언제 어떻게 갑니까?)

103018 #1 보리 헤난 끝에.(보리 했던 끝에.)

103018 @ 보리 헨 끝에 유월? 음력 오월 그물어갈 때?(보리 해서 끝에 유월? 음력 오월 그물어갈 때?)

103018 #1 아메도 오월 그물어갈 때 조 불릴 거라. 저 어린 때 헤나부난 나도 모르겟다.(아마도 오월 그물어갈 때 조 밟을 거라. 저 어릴 때 했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겠다.)

103019 @ 좁씨는 어떻게 뿌립니까?(좁씨는 어떻게 뿌립니까?)

103019 #1 아 망탱이.(아, 망태기.)

103019 @ 똑같아? 보리랑?(똑같아? 보리랑?)

103019 #1 그렇지.(그렇지.)

103019 @ 것도 잘 뿌리는 사람이 헤야겟다예.(것도 잘 뿌리는 사람이 해야겠네요.)

103019 #1 그래. 못허는 사름은 문탁문탁 가는디 가고 안가는디 안 가주만은 잘 불

리는 사름은 쭉 골르게.(그래. 못하는 사람은 문덕문덕 가는데 가고 안 가는데 안가지만 잘 밟는 사람은 쭉 골고루.)

103019 @ 주로 남자가 뿌립니까?(주로 남자가 뿌립니까?)

103019 #1 여ᄌᆞ도 잘 뿌리는 사름은 잘 뿌리고.(여자도 잘 뿌리는 사름은 잘 뿌리고.)

103020 @ 잘 뿌리는 사람은 잘 뿌리고. 조팟은 어떻게 밟습니까? 남테. 말테, 돌테, 끙개 이런 건 안 들어봐수과?(잘 뿌리는 사람은 잘 뿌리고. 조팟은 어떻게 밟습니까? 남테. 말테, 돌테, 끙게 이런 건 안 들어봤습니까?)

103020 #1 그거 무싱거라? 돌테. 돌테가 머이라?(그거 무슨 거라? 돌테. 돌테가 뭐라?)

103021 @ 현대말로. 신촌은 남테예. 조밧 김매기는 몇 번 합니까? 조팟 검질은 멧 번 멥니까?(현대말로. 신촌은 남태예요. 조밭 김매기는 몇 번 합니까? 조밭 김은 몇 번 맵니까?)

103021 #1 세 번.(세 번.)

103021 @ 보리는 두 번 조팟은 세 번?(보리는 두 번 조밭은 세 번?)

103021 #1 응.(응.)

103021 @ 싀불검질예?(세벌 김요?)

103021 #1 조팟은 이 유월 가달만 넹겨지믄 조 좋넨 헌다. 게난 이 검질을 그렇게 메여주랜 말이지. 가달만 넹긴 것이 뭐 조냐게. 그렇게 검질을 메여 주렌 헌거지.(조밭은 이 유월 다리만 넘겨지면 조 좋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 김을 그렇게 매여 주라고 말이지. 다리만 넘긴 것이 뭐 조냐. 그렇게 김질을 매여 주라고 한 거지.)

103021 @ 그면 세 번 매고.(그면 세 번 매고.)

103021 #1 조팟디는 세볼, 보리왓디는 두 볼.(조밭에는 세 벌, 보리밭에는 두 벌.)

103022 @ 조팟 검질들은 어떤 검질들이 잇습니까?(조밭 김들은 어떤 김들이 있습니까?)

103022 #1 검질이 뭐, 조팟디 검질은.(김이 뭐, 조밭에 김은.)

103022 @ 여름검질?(여름 김?)

103022 #1 그렇지. 쉐비념도 잇고, ᄀᆞ레조도 잇고, 것ᄀᆞ라 무시거렌? 재완지도 잇고, 또 것ᄀᆞ라 무신 것도 잇저만은 못 ᄀᆞᆯ켜.(그렇지. 쇠비름도 있고, 가라지도 있고, 것보고 뭐라고? 바랭이도 있고, 또 것보고 무슨 것도 있지만 못 말하겠다.)

103023 @ 조 수확은 베고 묶고 하는 거는 어떻게?(조 수확은 베고 묶고 하는 거는 어떻게?)

103023 #1 조는 익어가면은 고개, 사람도 잘난 사름은 항상 고갤 영 숙이잔아. 못난 것이 거짝헌다. 조도 이 ᄀᆞ라조 못난 건 버짝허고, 질 익어가믄 고볏허게 절허잔아. 조도. 거난 조도 잘난 건 이렇게 고개 굽고 못난 건 ᄀᆞ라조ᄀᆞ찌 거짝헌 것이. 그렇잔아. 너넨 몰라도이 못난게 아이구 이 ᄀᆞ레조 닮은 새끼야.(조는 익어 가면 고개, 사람도 잘난 사람은 항상 고갤 영 숙이잖아. 못난 것이 거짝한 것이. 조도 이 가라지 못난 건 뺏

뼛하고, 질 익어 가면 '고볏하게' 절하잖아 조도. 그러니까 조도 잘난 건 이렇게 고개 굽고 못난 건 가라지같이 '거짝헌' 거 있어. 그렇잖아. 너흰 몰라도 못난 게 아이구, 이 가라지 닮은 새끼야.)

103023 @ 어떵 베어마씨?(어떻게 베요?)

103023 #1 뭐?(뭐?)

103023 @ 조 베는 거. 똑같아. 보리랑?(조 베는 거. 똑같아. 보리랑?)

103023 #1 똑ᄀᆞ치 비지. 낫으로.(똑같이 베지. 낫으로.)

103023 @ 묶는 것도 똑같아마씨?(묶는 것도 똑같아요?)

103023 #1 그렇지. 조도 이렇게 비엉 ᄆᆞᆯ류면은.(그렇지. 조도 이렇게 비어서 말리면)

103023 @ ᄆᆞᆯ류면은.(말리면)

103023 #1 호미로 다 고고리만 튿아.(호미로 다 이삭만 뜯어.)

103023 @ 무꺼. 일단 무껑 말려?(묶어. 일단 묶어서 말려?)

103023 #1 아니. 무껑 ᄆᆞᆯ류와근에 눌엇당 튿으는 사름도 잇고, 그냥 넌째 튿으는 사름도 잇고.(아니. 묶어서 말려서 가리었다가 뜯는 사람도 있고, 그냥 널은 채 뜯는 사람도 있고.)

103023 @ 아아.(아아.)

103023 #1 거 왜냐 허면은 그거 무꺼근에 허는 거는 일기가 비왐직 허면은 무꺼근에 눌잔아. 저 비 맞으카부뎅. 또 비 아니온 날은 그냥 눌에서 막 튿앙.(거 왜냐 하면 그거 묶어서 하는 거는 일기가 비 올 것 같으면 묶어서 가리잖아. 저 비맞을까봐. 또 비 아니온 날은 그냥 가리에서 막 뜯어서.)

103023 @ 튿앙 멕에 담앙?(뜯어서 멱서리에 담아서?)

103023 #1 멕에도 담곡, 가마니에도 담곡, 푸대에도 담곡.(멱서리에도 담고, 가마니에도 담고, 부대에도 담고.)

103023 @ 경헹 집에 가정왕 도께로 두들겨. 홀트는 것이.(그렇게 해서 집에 가져 와서 도리깨로 두들겨. 훑는 것이.)

103023 #1 건 보리. 홀트는 건 보리. 조는 고고리로 튿아당 그냥 두드리는 거고. 보린 홀탕 두두는 거고.(건 보리. 훑는 건 보리. 조는 고고리로 뜯어다가 그냥 두드리는 거고. 보린 훑아서 두드리는 거고.)

103023 @ 게믄 무끄는 건?(그러면 묶는 건?)

103023 #1 무끄는 건 조남뎅이. 조 튿아난 거.(묶는 건 조 줄기. 조 뜯어난 거.)

103023 @ 조남뎅이는 눌어 또?(조 줄기는 가리어 또?)

103023 #1 아니 비왐직 허면은 그냥 무꺼근에 헷당 날 조민 튿곡, 또 비 아니 왐직 허민 그냥 내불엇당 튿곡.(아니 비올 것 같으면 그냥 묶어서 했다가 날 좋으면 뜯고, 또 비 안 비올 것 같으면 그냥 내버렸다가 뜯고.)

103023 @ 그 남댕이도 눌엇당 뭐 씁니까?(그 줄기도 가리었다가 뭐 씁니까?)

103023 #1 게. 쓰지. 소 멕이잔아.(그럼. 쓰지. 소 먹이잖아.)

103023 @ 조남댕이는 소멕여예? 것도 눌어야겟다예?(조 줄기는 소 먹여요? 것도 가

리어야겠네요?)

103023 #1 또이 그냥 사름은 밥ᄒᆞ고, 조남뎅이. 소 엇인 사름은 걸로 불솜앙 밥ᄒᆞ곡. 소 잇는 사름은 콩고질이고 조남뎅이고 소 다 멕여. 소 아예 엇인 사름이 불 때주.(또 그냥 사람은 밥하고, 불 때서. 소 없는 사람은 그걸로 불 때서 밥하고. 조 줄기. 소 있는 사람은 콩깍지이고 조 줄기고 소 다 먹여. 소 아예 없는 사람이 불 때지.)

103023 @ 버릴 것 엇다예? 진짜.(버릴 것 없네요? 진짜.)

103023 #1 응. 버릴 거 엇지. 다 보리남뎅이고 조 남뎅이고 다 필요허게 써.(응. 버릴 거 없지. 다 보리줄기고 조 줄기고 다 필요하게 써.)

103024 @ 조 타작은 고고리 그런.(조 타작은 이삭 그런.)

103024 #1 고고리로만.(이삭만.)

103024 @ 고고리는 도께도 하고 덩드렁마께로도 튿고?(이삭은 도리깨도 하고 '덩드렁마께'로도 뜯고?)

103024 #1 응. 마께로 두드는 사름도 잇고, 또 태작, 한 사름은 조로 테작허는 디도 신디. ᄒᆞ꼼만 헌 사름은 마께로.(응. 방망이로 두드리는 사름도 잇고, 또 타작, 많은 사람은 조로 타작 나는 대도 있는데. 조금만 한 사람은 방망이로.)

103024 @ 마께 어디다 놩 마께로?(방망이 어디다 놔서 방망이로?)

103024 #1 덕석에다가 놩 마께로 두둘어.(덕석에다가 놔서 방망이로 두드려.)

103024 @ 여자들이예?(여자들이요?)

103024 #1 ᄋᆞ.(응.)

103024 @ 조검질 맬 때나 검질 맬 때나 노래는 똑같으과?(조 김 맬 때나 김 맬 때나 노래는 똑같습니까?)

103024 #1 보리검질 맬 땐 노래허지 못헤. 해가 쫄라노난. 빨리 헹 허젠 허믄. 조컴질이 해가 질잔아. 막 더웁고 뜸나곡. 거난 거 소리로 그냥 핼 집잔아.(보리 김 맬 땐 노래하지 못해. 해가 짧아버리니까. 빨리 해서 하려고 하면. 조 김이 해가 질잖아. 막 덥고 땀나고. 그러니까 거 소리로 그냥 해를 지잖아.)

103024 @ 거난 조 컴질에 소리가 나온 거로구나예.(그러니까 조 김에 소리가 나온 거로군요.)

103024 #1 거 못 전디니까. 해는 질고 막 뜨거웁고, 해는 짱짱 불르고, 그때는 모제도 없어. 모제도 엇이민이, 풀 헤다가 그냥 감앙 써. 더꺼.(거 못 견디니까. 해는 길고 막 뜨겁고, 해는 쨍쨍 비추고, 그때는 모자도 없어. 모자도 없으면, 풀 해다가 그냥 감아서 써. 덮어.)

103024 @ 머리 수건에? 머리 수건 영 쓰곡 우에다 더꺼?(머리 수건에? 머리 수건 이렇게 쓰고 위에다 덮어?)

103024 #1 써놩 영 수건 헹 씨는 사름도 싯고 수건 엇는 사름은 풀로 감앙 그냥 씨고. 풀로 감앙 머릿수건 쓸 수도 잇고, 수건 이신사름은 그 수건에 풀 헤당 더꺼도 수건 엇인 사람은 풀로만 감앙 그냥 써. 우리 시절이 그렇게 얼먹은 시절이야.(써 놔서 이렇게 수건 해서 쓰는 사람도 있고 수건 없는 사람은 풀로 감아서 그냥 쓰고. 풀로 감아서

머릿수건 쓸 수도 있고, 수건 있는 사람은 그 수건에 풀 해다가 덮어도 수건 없는 사람은 풀로만 감아서 그냥 써. 우리 시절이 그렇게 얼먹은 시절이야.)

103024 @ 그 풀이 뭐 모싯닙도 잇고 뭐.(그 풀이 뭐 모시 잎도 있고 뭐.)

103024 #1 아, 모싯잎 안 돼. 그거는. 그거 일름이 무신 걸 일름을 몰르커라.(아, 모시 안 돼. 그거는. 그거 이름이 뭔 지 이름을 모르겠다.)

103024 @ 사삼 때 멩게낭은 연기가 안낭.(사삼 때 청미래 덩굴은 연기가 안 나서.)

103024 #1 맹게낭은 거 불 때는 거고. 이 영 씌는 거는 거 무신 끅 줄인가?(청미래 덩굴은 거 불 때는 거고. 이 영 씌는 거는 거 무슨 칡 줄인가?)

103024 @ 아, 칙, 칙.(아, 칡, 칡.)

103024 #1 칙 달믄 거 헤당은에 씨잔아.(칡 닮은 거 해다가 쓰잖아.)

103024 @ 아아.(아아.)

103024 #1 모자ᄀᆞ치룩.(모자처럼.)

103024 @ 그건 하간 듸 많이 이시난예.(그건 여러 곳에 많이 있으니까요.)

103024 #1 거 걷어다근에 밧디 영 백헤 이시민 호미 안 아졍 가믄 돌로 뭇아당 걷어근에.(거 걷어다가 밭에 이렇게 박혀 있으면 호미 안 가져서 가면 돌로 마서 걷어서.)

103024 @ 맞아 끊기가 어려워. 아, 그걸 끅이렌 헴신가? 칙을.(맞아 끊기가 어려워. 아, 그걸 '끅'이라고 했는가? 칡을.)

103024 #1 칙은 끅이엔 허메. 옛날. 우린 칙이옝 허고.(칡은 '끅'이엔 해. 옛날. 우린 칡이라고 하고.)

103025 @ 좁쌀은 어떻게 장만헙니까?(좁쌀은 어떻게 장만합니까?)

103025 #1 좁쏠은 기계에도 강 ᄀᆞᆯ곡, 기계 나기 전엔 ᄀᆞ레. 큰 맷돌에다가.(좁쌀은 기계에도 가서 갈고, 기계 나기 전엔 맷돌. 큰 맷돌에다가.)

103025 @ 것도 ᄆᆞᆯᄀᆞ레.(것도 연자매.)

103025 #1 엉. 걸로 ᄀᆞᆯ아. 기계난 후제는 기계에 강 ᄀᆞᆯ아.(응. 걸로 갈아. 기계난 후에는 기계에 가서 갈아.)

103025 @ 거 조코고리에서 ᄠᅳᆫ아난 똥글락헌 짝은 거 그거를 ᄆᆞᆯᄀᆞ레에 노면은 다 부서져불지 안헤마씨?(거 조 이삭에서 뜯었던 둥그런 작은 거 그거를 연자매에 놓으면 다 부서져버리지 않아요?)

103025 #1 그거 부서져야 겁데기가 허지. 그거이 불려다가 또 ᄀᆞᆯ아야지 경 아니 허면 그 겁적이 많이 잇이민 밥 못 먹어. 비삭비삭헤여[76]. 거 다 벳겨놔야.(그거 부서져야 껍데기가 하지. 그거 불려다가 또 말해야지. 그렇게 아니 하면 그 껍데기가 많이 있으면 밥 못 먹어. '비삭비삭해'. 거 다 벗겨놔야.)

103025 @ 하도 방울이 즉아노난 거 벗기젠 허믄 보통일이 아니로구나.(하도 방울이 작아버리니까 거 벗기려고 하면 보통일이 아니로구나.)

103025 #1 그거 보통일이 아니. 힘들어. 보리보단 더 힘들어. 조가.(그거 보통일이 아니. 힘들어. 보리보단 더 힘들어. 조가.)

76) '비석비석ᄒᆞ다'는 물건의 부피가 앙상하여 옹골차지 못함을 말한다.

103025 @ 이것도 똑같이 물방에가 중요허구나예.(이것도 똑같이 연자매가 중요하군요.)

103025 #1 건 물로 아이 ᄀᆞ는 거. 그냥 물른 차 ᄀᆞ는 거.(그건 물로 아니 가는 거. 그냥 마른 채 가는 거.)

103025 @ ᄆᆞ른 채로. 그문 다 납딱허게 짤라져 불진 안허고?(마른 채로. 그러면 다 납작하게 잘라져 버리진 안하고?)

103025 #1 왜 쫄라져?(왜 잘라져?)

103025 @ 껍데기만 벗겨집니까? 물ᄀᆞ레로 하면? 돌멩이 밑이니까.(껍데기만 벗겨집니까? 연자매로 하면? 돌멩이 밑이니까.)

103025 #1 큰 돌, 요만이헌 돌, 여섯 사람이나 들어사 거 돌려. 물 잇인 사름은 물허고 사름 세 개만 뒈믄 뒈는데 물 엇인 사름은 흔 여섯 사름은 들어야.(큰 돌, 요만큼한 돌, 여섯 사람이나 들어야 거 돌려. 말 있는 사람은 말하고 사람 세 개만 되면 되는데 말 없는 사람은 한 여섯 사람은 들어야.)

103025 @ 거믄 다 수눌엉도 허곡 빌어야켜예.(그러면 다 품앗이하기도 하고 빌어야겠네요.)

103025 #1 수눌엉 허는 사름도 잇곡, 부젯사름덜은 물로 굴지.(품앗이해서 하는 사람도 있고, 부자 사람들은 말로 말하지.)

103026 @ 좁쌀로는 무엇을 합니까?(좁쌀로는 무엇을 합니까?)

103026 #1 밥 헹 먹지.(밥해서 먹지.)

103026 @ 밥하고 떡? 조침떡?(밥하고 떡? 조 시루떡?)

103026 #1 모윈조가 잇고 히린조가 잇어.(메조가 있고 차조가 있어.)

103026 @ 뭘로 떡을 헹 먹습니까?(뭐로 떡을 해서 먹습니까?)

103026 #1 히린조. 히린조는 이 찹쌀같이 히린 좁쌀.(차조. 차조는 이 찹쌀같이 차좁쌀.)

103026 @ 뭘로 해야 젤 맛좋습니까? 좁쌀 놓은 거. 오메기, 감주 술 이런 거.(뭘로 해야 젤 맛좋습니까? 좁쌀 놓은 거. 오메기, 감주 술 이런 거)

103026 #1 것도 히린 조로 허여.(것도 차조로 허여.)

103026 @ 다 히린조로?(다 차조로?)

103026 #1 히린조로 해야 수확이 많이 나.(차조로 해야 수확이 많이 나.)

103026 @ 술 다끄는 것도 히린 조. 오메기예.(술 닦는 것도 차 조. '오메기'요.)

103026 #1 오메길로 허든 그냥 무데기로 침떡 치듯 허든가. 오메기로 허는 거는 막걸리. 술로 다끄는 건 그냥 큰 시리에다 담아다 놔근에 허는 거. 오메기는 막걸리라.('오메길'로 하든 그냥 무더기로 시루떡 찌듯 하든가. '오메기'로 하는 거는 막걸리. 술로 닦는 건 그냥 큰 시리에다 담아다 놔서 하는 거. 오메기는 막걸리라.)

103026 @ 오메기를 무사 오메기렌 헤신고예?('오메기'를 왜 '오메기'라고 했는가요?)

103026 #1 오메기는 히린 좁쏠 ᄀᆞ루 잇잔아. 헤당 물 팔팔 끌여. 헤당 만들아. 게믄 물 팔팔 끌러가믄 그 물에다 익히는 것이 오메기라, 게서 그거 익으면은 픗 잇잔아. 픗

뿟앙 폿을 묻혀야 부뜨질 안 허여. 경 안허민 히린 거니까 다른 것에 다른 것에 막 범벅 뒈 불어. 폿을 헤여야 안 붙어. 폿을 미쳐야.('오메기'는 흐린 좁쌀 가루 있잖아. 해다가 물 팔팔 끓여. 해다가 만들아. 그러면 물 팔팔 끓여 가면 그 물에다 익히는 것이 '오메기'라. 게서 그거 익으면 팥 있잖아. 팥 빻아서 팥을 묻혀야 붙질 않아. 그렇게 안하면 찰진 거니까 다른 것에 다른 것에 막 범벅 되어 버려. 팥을 해야 안 붙어. 팥을 묻혀야.)

103026 @ 오메기는 흐린 조를 가졍 오메기 모양으로 똥그락헌 거 그냥?('오메기'는 차조를 가져서 '오메기' 모양으로 동그란 거 그냥?)

103026 #1 똥그락허여.(동글해.)

103026 @ 고망 안 뚤랑?(구멍 안 뚫어서?)

103026 #1 고망 안 뚤라. 똥글허게 만들앙 치여근에 폿 솔망 이렇게, 이렇게 누르떠근에 톡톡 차롱에.(구멍 안 뚫어. 동글하게 만들어서 치여서 팥 삶아서 이렇게, 이렇게 눌러서 톡톡 채롱에.)

103026 @ 아, 그냥 먹으컨게. 술 담그는 게 아니고. 거는 먹는 거 아니꽈? 오메기?(아, 그냥 먹으컨게. 술 담그는 게 아니고. 거는 먹는 거 아닙니까? 오메기?)

103026 #1 오메기떡[77]은 먹는 거고 술 담으는 건 이 그 약술이라고 오메기떡으로도 폿 안 미쳥 그거를 그냥 헤여근에 식히면은 그 누룩이 잇어. 술 원료. 누룩을 헤다가 막 문작문작 ᄀᆞ찌 뀌와 놔근에 항아리에 담으민 것이 막걸리도 되고 술도 짜곡. 그 차좁쏠이 맛잇어. 술도 맛잇고, 막걸리도 맛잇고.('오메기떡'은 먹는 거고 술 담으는 건 그 약술이라고 '오메기'떡으로도 팥 안 묻혀서 그거를 그냥 해서 식히면 그 누룩이 있어. 술 원료. 누룩을 해다가 막 문적문적 같이 이겨놔서 항아리에 담으면 것이 막걸리도 되고 술도 짜고. 그 차좁쌀이 맛있어. 술도 맛있고, 막걸리도 맛있고.)

103026 @ 삼촌 헤봣수과?(삼촌 해봤습니까?)

103026 #1 허다도 나 원, 우리 술도 다 현. 풀레도 다 뎅겨.(하다도 나 참, 우리 술도 다 했어. 팔러도 다 다녔어.)

103026 @ 무사 그런 것도 잘헤수과? 어머니가 잘헤수과?(왜 그런 것도 잘했습니까? 어머니가 잘했습니까?)

103026 #1 장ᄉᆞ허젠 허니까 야야, 먹고 살젠 허난.(장사하려고 하니까 야야, 먹고 살려고 하니까.)

103026 @ 웨할머니가 잘헤수과?(외할머니가 잘했습니까?)

103026 #1 아녀. 웨할망도 안 시켜줜 나냥으로 헷지. 시집간 후제.(아니. 외할머니도 안 시켜줘서 나 스스로 했지. 시집간 후에.)

103026 @ 게도 누구안테 배와야 될 거 아니?(그래도 누구한테 배워야 될 거 아니?)

103026 #1 아, 배웁지 아녀도 말 들어근에 허는 거지.(아, 배우지 않아도 말 들어서 하는 거지.)

77) .오메기떡'은 차좁쌀 가루를 익반죽하여 둥글게 빚은 뒤 가운데에 구멍을 내어 삶아 낸 떡으로 제주 고유의 오메기술을 만드는 술밥으로 쓰인다.

103026 @ 이모?(이모?)

103026 #1 우리 이모님네 그런 거 헐 충도 몰르고 우리 할마님도 안 헤여.(우리 이모님네 그런 거 할 줄도 모르고 우리 할머님도 안 해.)

103026 @ 거난 어머니?(그러니까 어머니?)

103026 #1 우리 친구도 그거 허고 나도 허고.(우리 친구도 그거 하고 나도 하고.)

103026 @ 어머니는 안허고.(어머니는 안하고.)

103026 #1 우리 어머닌 그런 거 헐 충 몰라. 거난 친구허고 나허곡 시에 잇잔아. 시예 허벅지영 풀레 가. 게난 옛날엔 쏠 으스대기지 못헨. 술조사가 잇어. 거 걸리믄 이, 징역 살고 과태료 네여. 술 허지 못헨. 쏠 귀헌 디 술로덜 헤부럼덴 헹. 거 몰르게 허는 거.(우리어머닌 그런 거 할 줄 몰라. 그러니까 친구하고 나하고 시에 있잖아. 시예 허벅지랑 팔러 가. 그러니까 옛날엔 쌀 없애지 못 해서 술 조사가 있어. 거 걸리면 이, 징역 살고 과태료 내. 술 하지 못 했어. 쌀 귀한데 술로 한다고 해서 거 모르게 하는 거.)

103026 @ 그게 경 용감허다예. 게도.(그게 그렇게 용감하네요. 그래도.)

103026 #1 아이고, 일로 이, 시에이 성안이옌 헤낫저. 성안을 지여 아젼간. 거믄이.(아이고, 이리로, 시에 성안이라고 했었지. 성안을 져서 가져갔어. 그러면)

103026 @ 몃 살 때 얘기꽈? 지금. 삼십 넘엉?(몇 살 때 얘깁니까? 지금. 삼십 넘어서?)

103026 #1 응. 시집간 때니까 흔 스물.(응. 시집간 때니까 한 스물.)

103026 @ 그 친군 어디 갓수과?(그 친군 어디 갔습니까?)

103026 #1 죽엇주게.(죽었지.)

103026 @ 둘이가 잘헷구나. 그럼 벗 부청예.(둘이가 잘했구나. 그럼 벗 부쳐서요.)

103026 #1 가인 큰방에 살고, 난 즉은 방에 살곡. 막 좋아 가이가. 친굴 헤여봐도 그 친구 닮은 친군 엇어. 이제 나는 겁둥이라노니까 술을 시에 가믄 풀질 못헤여. 그 들어가는디 신촌 사름이 살아. 어느 제믄 그 집만 가민 곱지젠게. 술 곱졍. 곱져줘. ᄀᆞ뜬 동네 사람이난. 거믄 이젠 난 노래영 풀레 안 뎅겨. 심으카 부덴. 우리 친구가 이웃에 살당 강 오난 지가 출렁 출렁 강 헤당 풀아. 풀아도 나가 풀안. 나가 풀지 아니허믄 너 못 가. 집이 못 가.(갠 큰방에 살고, 난 작은 방에 살고. 막 좋아 걔가. 친굴 해봐도 그 친구 닮은 친군 없어. 이제 나는 겁쟁이라 버리니까 술을 시에 가면 팔질 못해. 그 들어가는 디 신촌 사름이 살아. 언제면 그 집만 가민 숨기려고. 술 숨겨서. 숨겨 줘. 같은 동네 사람이니까. 그러면 이젠 난 노래랑 팔러 안 다녀. 잡을까봐. 우리 친구가 이웃에 살다가 가서 오니까 자기가 출렁 출렁 가서 해다가 팔아. 팔아도 내가 팔았어. 내가 팔지 안하면 너 못 가. 집에 못 가.)

103026 @ 막걸리? 아까 오메기떡 걸로 이름을 뭐옌 헙니까? 동동주?(막걸리? 아까 오메기떡 걸로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동동주?)

103026 #1 동동주는 저 술 시리에 크게 담아놩 술 허는 것이 이 술 짜, 우리가. 짜곡, 막걸리는 그냥 오메기떡으로 허영 그냥 뀌여근에 거 저 아휴, 메주. 아이구, 것고라 무시거옌 해라.(동동주는 저 술 시루에 크게 담아놔서 술 하는 것이 이 술 짜, 우리가.

짜고, 막걸리는 그냥 '오메기떡'으로 해서 그냥 이겨서 거 저 아휴, 메주. 아이구, 그것 보고 뭐라고 해라.)

103026 @ 아, 삼촌은 거믄 오메기떡 술도 담가나시믄 지금이라도 허믄 장사라도 해 지켜.(아, 삼촌은 그러면 오메기떡 술도 담갔었으면 지금이라도 하면 장사라도 하겠다.)

103026 #1 허지. 상웨떡도 잘헤여. 청묵도 잘허곡.(하지. 상화떡도 잘해. 청묵도 잘하고.)

103026 @ 거 누구안테 가르쳐 줘야지.(거 누구한테 가르쳐 줘야지.)

103026 #1 저 서울서 우리뚤네 상웨떡 헹줘. 고구마 놩이 상웨떡 허믄 그렇게 맛잇어. 고구마 즘진, 즘진 썰어놓곡 또 풋 솖아근에 앙꼬 담으믄 그렇게 맛잇어. 그거이 무신 약을 노나? 직접 그냥 쏠을 밥헤근에 그것이 궤여가면은 부글부글허믄 그걸로 ᄆᆞ끄주.(저 서울서 우리딸네 상화떡 해서 줘. 고구마 놔서 상화떡 하면 그렇게 맛있어. 고구마 잘게, 잘게 썰어놓고 또 팥 삶아서 팥소 담으면 그렇게 맛있어. 그것이 무슨 약을 놓나? 직접 그냥 쌀을 밥해서 그것이 괴어가면 부글부글하면 그걸로 마치지.)

103026 @ 밀가루가 아닌 쌀로 허는구나. 멥쌀, 찹쌀?(밀가루가 아닌 쌀로 하는구나. 멥쌀, 찹쌀?)

103026 #1 그게 밀ᄀᆞ루, 밀ᄀᆞ루.(그게 밀가루, 밀가루.)

103026 @ 밀ᄀᆞ루로 상웨떡? 맞아.(밀가루로 상화떡? 맞아.)

103026 #1 밀ᄀᆞ루로 헤연. 우리 그런 거 잘해여. 맛잇젠 허메. 우리 허는 거. 청묵도 잘허고, 청묵은 아무나 못허여.(밀가루로 해서. 우리 그런 거 잘해. 맛있다고 해. 우리 하는 거. 청묵도 잘하고, 청묵은 아무나 못 해.)

103026 @ 삼촌 솜씨가, 여러 가지 잘헴수다예.(삼촌 솜씨가, 여러 가지 잘합니다.)

103026 #1 청묵은 이, 이렇게 영 헤영 착 헤보면이 ᄀᆞ를. 다른 사름은 이 못헌다 허는 거라. 우린이 때려근에 영 헤여 보민 딱 알맞아도 뚠 사름은 경헤도 못허겟다는 거라. 원 이런 놈의 시상도 이시카. 아이고.(청묵은 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착 해보면이 가루. 다른 사름은 이 못한다 하는 거라. 우린 때려서 이렇게 해 보면 딱 알맞아도 딴 사름은 그렇게 해도 못하겠다는 거라. 원 이런 놈의 세상도 있을까. 아이고)

103026 @ 야, 삼촌은 앞으로 감주 술 가지고 떡이영 ᄀᆞᆯ을 말이 많으큰게예.(야, 삼촌은 앞으로 감주 술 가지고 떡이랑 말 할 말이 많겠네요.)

103026 #1 다 헤난 것덜.(다 했었던 것들.)

103027 @ 이번은 조짚, 조남뎅이는 어떻게 활용합니까?(이번은 조짚, 조 줄기는 어떻게 활용합니까?)

103027 #1 소 이신 사름은 소 멕이고 소 엇인 사름은 불로 밥허지.(소 있는 사람은 소 먹이고 소 없는 사름은 불로 밥하지.)

103028 @ 조 농사에 얽힌 추억이나 경험을 말씀헤 주십시오. 검질맬 때가 힘들엇지예.(조 농사에 얽힌 추억이나 경험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맬 때가 힘들었지요.)

103028 #1 검질만 메여 놓으면은 대풍 불민 조가 엇어. 다 털어불언. ᄀᆞ레조만 남아. 거딱ᄒᆞ게. 게난 양반은 다 털어지고 쌍놈만 거딱허게. 거니까 싸울 땐 아이구, 이 ᄀᆞ레

조 ᄀᆞ뜬 놈아.(김만 매여 놓으면 대풍불면 조가 없어. 다 털어 버련. 가라조만 남아. '거딱하게'. 그러니까 양반은 다 털어지고 쌍놈만 '거딱하게'. 거니까 싸울 땐 아이구, 이 가라지 같은 놈아.)

103028 @ 하하하하.(하하하하.)

103028 #1 싸울 때는 오직 욕이 지독허냐. 제라헌 거 다 털어부난 싼 거나 우데기 서 잇어. 거난 이 날 한 복희 어멍이렌 허주. 한 복희 어멍안티 당허지 못헌덴. 어이구 숭에 튀는디 복젱이 튀당 원담에 배 체어졍 죽을 거.(싸울 때는 오직 욕이 지독하냐. 온전한 거 다 털어버리니까 싼 거나 '우데기' 서 있어. 그러니까 이 날 한 복희 어머니라고 하지. 한 복희 어머니한테 당하지 못한다고. 어이구, 숭어 뛰는 데 복어 뛰다가 원담에 배 찢어져서 죽을 거.)

103028 @ 어머니가 한자 복자 희자꽈?(어머니가 한자 복자 희자입니까?)

103028 #1 우리뚤넨 한씨고 난 김가고.(우리딸넨 한씨고 난 김가고.)

103028 @ 아, 큰딸이 이름이?(아, 큰딸이 이름이?)

103028 #1 한복희.(한복희.)

103028 @ 하하하하.(하하하하.)

103028 #1 게난 한 복희 어멍, 한 복희 어멍. 게난 고복희가 잇고 한복희가 이시난 우린 한씨난 한복희옌 허고 이딘 고씨는 고복희. 게난 성으로 ᄀᆞᆯ리고렌. 고복희. 한복희. 우리 큰뚤이 한복희. 이제 가이가 예순. ᄆᆞᆯ띠난 예순 하난가? 둘인가?(그러니까 한복희 어머니, 한복희 어머니. 그러니까 고복희가 있고 한복희가 있으니까 우린 한씨니까 한복희라고 하고 고씨는 고복희. 그러니까 성으로 갈렸다고. 고복희, 한복희. 우리 큰딸이 한복희 이제 걔가 예순. 말띠니까 예순 하난가 둘인가.)

103028 @ ᄆᆞᆯ띠믄 그믄 오십 ᄒᆞ나에 열둘을 더ᄒᆞ면 육십셋.(말띠면 그러면 오십 하나에 열둘을 더하면 육십 셋.)

103028 #1 긴가? 큰뚤이 예순셋이나 낫구나.(긴가? 큰딸이 예순셋이나 났구나.)

103028 @ 아이구야, ᄆᆞᆯ띠로구나게.(아이구야, 말띠로구나.)

103028 #1 큰뚤이 ᄆᆞᆯ띠. 자이도 ᄆᆞᆯ띠고.(큰딸이 말띠. 쟤도 말띠고.)

103028 @ 동생들은 아낍니까?(동생들은 아낍니까?)

103028 #1 응. 자이넨 막 애껴. 오늘도 세 번채 뚤 어저께 와간 몬딱 냉장고 청소헤 주고이 헤동 가서. 뚤이 완. 게난 어멍이 아판에 무시 거 못헤가난 문딱 냉장고 청소헤 주곡.(응. 쟤넨 막 아껴. 오늘도 세 번째 딸 어저께 와간 모두 냉장고 청소해주고 해두고 갔어. 딸이 와서.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파서 무슨 거 못해가니까 모두 냉장고 청소해 주고.)

103028 @ 거긴 뭐 시어머니나 누군 엇어?(거긴 뭐 시어머니나 누군 없어?)

103028 #1 다 죽어 불언. 남편도 죽곡.(다 죽어 버렸어. 남편도 죽고.)

103028 @ 삼촌은 원 대단허우다게. 어떵 헹은에 참 인연이 이렇게 뒈가지고.(삼촌은 원 대단합니다. 어떻게 해서 참 인연이 이렇게 돼가지고.)

콩농사

103029 @ 콩 농사를 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합니까?(콩 농사를 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합니까?)

103029 #1 콩게. 보리, 보리 비어나민.(콩. 보리, 보리 베어나면.)

103030 @ 보리 비어나면.(보리 베어나면.)

103029 #1 보리 비어나면은 테작헤난 끝에는 그냥 콩 갈잖아게.(보리 베어나면 타작한 끝에는 그냥 콩 갈잖아.)

103029 #2 콩은 아주 쉽지 뭐. 저 밧만 잘 저 검질만 엇게 하면은 콩은 씨 뿌려서 갈기만 하면 뒈니까.(콩은 아주 쉽지 뭐. 저 밭만 잘 저 김만 없게 하면은 콩은 씨 뿌려서 갈기만 하면 되니까.)

103030 @ 콩은 언제, 어떻게 갑니까?(콩은 언제, 어떻게 갑니까?)

103030 #1 콩은이, 옛날은이 소로 갈아낫잖아. 보리그르에 영 삐어가지고 씨를 삐영.(콩은, 옛날은 소로 갈았었잖아. 보리그루에 이렇게 뿌려가지고 씨를 뿌려서.)

103030 @ 예.(예.)

103030 #1 경 콩 가는 디 이제는 그 소가 잘 갈질 안 허여.(그렇게 콩 가는 데 이제는 그 소가 잘 갈질 않아.)

103030 @ 예.(예.)

103030 #1 그니까 그 기계 잇잖아? 탁탁탁탁 허는 그런 기계로 갈아 불어.(그러니까 그 기계 있잖아? 탁탁탁탁 하는 그런 기계로 갈아버려.)

103030 @ 옛날, 옛날에?(옛날, 옛날에?)

103030 #1 옛날은 소로.(옛날은 소로.)

103030 @ 소로예? 콩 농사를 하려면 소를 빌고.(소로요? 콩 농사를 하려면 소를 빌고.)

103030 #1 응. 콩 농스나 조 농스나 보리농스나 자기 앞이 이제 소 엇인 건 다 빌어야 허여.(응. 콩 농사나 조 농사나 보리농사나 자기 앞에 이제 소 없는 건 다 빌어야 허여.)

103030 @ 콩은 언제, 어떻게 갑니까? 보릿그르에?(콩은 언제, 어떻게 갑니까? 보리그루에?)

103030 #1 보리 다 헤난 다음에 그냥 콩 갈아.(보리 다 한 다음에 그냥 콩 갈아.)

103030 @ 소로 갈아가지고예?(소로 갈아가지고요?)

103030 #1 소로.(소로.)

103030 #2 것도 혼 유월 둘에.(그것도 한 유월에.)

103030 @ 음력마씨?(음력이요?)

103030 #2 양력. 하여튼 오월, 유월둘에 갈민 콩이 잘뒈주.(양력. 하여튼 오월, 유월에 갈면 콩이 잘되지.)

103031 @ 그 다음 콩밭 거름은 어떻게 마련합니까?(그 다음 콩밭 거름은 어떻게 마

련합니까?)

103031 #1 콩은 걸름 안허여.(콩은 거름 안 해.)

103031 @ 콩은 걸름 안허고.(콩은 거름 안하고.)

103031 #1 응. 보리만 걸름허여.(응. 보리만 거름허여.)

103031 #2 걸름 안 헤. 콩ᄀᆞ튼 건 걸름 안헤봣어.(거름 안 해. 콩 같은 건 거름 안 해봤어.)

103032 @ 콩씨는 어떻게 뿌립니까?(콩씨는 어떻게 뿌립니까?)

103032 #1 보리 갈아난 그르에다가 그냥 막 삐여. 삐영 내불민 소로 갈민 다 나와.(보리 갈아난 그루에다가 그냥 막 뿌려. 뿌려서 내버리면 소로 갈면 다 나와.)

103032 @ 음, 다 갈아난 다음 삡니까?(음, 다 갈아난 다음 뿌립니까?)

103032 #1 아니, 아니.(아니, 아니.)

103032 @ 갈기 전에 삐엇다가?(갈기 전에 뿌렸다가?)

103032 #1 보리 갈아난 그르에다가.(아니, 아니 보리 갈았던 그루에다가.)

103032 @ 막 삐여서?(막 뿌려서?)

103032 #1 삐여서 갈면은 것이.(뿌려서 갈면 것이.)

103032 @ 갈면은 그딜로 들어가예?(갈면 거기로 들어가요?)

103032 #1 그냥 콩이 나. 이 저 콩은이, 이렇게 탁탁 튀김만헤도 콩은 나는 거. 보리 닮지 안 헤영 보리는 우이 내불민 안뒈는데, 그 막 끄실크로 끄는데, 콩은이, 우에만 삐영 내 불어도 나와.(그냥 콩이 나. 이 저 콩은, 이렇게 탁탁 튀김만해도 콩은 나는 거. 보리 닮지 않아서 보리는 위에 내버리면 안 되는데, 그 막 끙게로 끄는데, 콩은, 위에만 뿌려서 내버려도 나와.)

103032 #2 이렇게 보면서 잡아서 쫙쫙 뿌리지. 잘 뿌리는 사람도 잇고 못 뿌리는 사람이 잇고.(이렇게 보면서 잡아서 쫙쫙 뿌리지. 잘 뿌리는 사람도 있고 못 뿌리는 사람이 있고.)

103033 @ 콩밭 김매기는 멧 번 합니까?(콩밭 김매기는 몇 번 합니까?)

103034 #2 흔번도 매고 두 번도 매고 잇으면 자주 매야 뒈.(한 번도 매고 두 번도 매고 있으면 자주 매야 돼.)

103034 @ 콩밭에는 어떤 검질들이?(콩밭에는 어떤 김들이?)

103034 #1 콩밧디 검질은 제완지.(콩밭에 김은 바랭이.)

103034 @ 콩밧디 검질은 제완지.(콩밭에 김은 바랭이.)

103034 #1 또 쉐비늄.(또 쇠비름.)

103034 @ 콩밧디 검질은 제완지, 쉐비늄. 또?(콩밭에 김은 바랭이, 또 쇠비름. 또?)

103034 #1 쉐터럭, 아이구, 거 세 가지.(김의털, 아이구, 거 세 가지.)

103034 @ 쉐터럭.(김의털.)

103034 #2 여름 검질.(여름 김.)

103034 @ 여름 검질은 뭐가 잇수과? 쒜비늠?(여름 김은 뭐가 있습니까? 쇠비름?)

103034 #2 쒜비늠도 잇고 무슨 으름에 나는 검질허고 겨울에 나는 검질허고 틀려,

보리밧 검질하고 틀리주.(쇠비름도 있고 무슨 여름에 나는 김하고 겨울에 나는 김하고 틀려, 보리밭김하고 틀리지.)

103034 @ 제완지 이런 거?(바랭이 이런 거?)

103034 #2 제완지 뭐.(바랭이 뭐.)

103034 @ 고라지.(가라지.)

103034 #2 그렇지.(그렇지.)

103035 @ 콩 수확은 어떻게 합니까?(꺾기, 도리깨질 등)

103035 #1 콩이 잘뒈민은 수확이 나고.(콩이 잘되면 수확이 나고.)

103035 @ 예.(예.)

103035 #1 안 뒈민 잘 나지 안 허여. 수확 얼마 하질 안 허여.(콩이 잘되면 수확이 나고 안 되면 잘 나지 않아. 수확 얼마 하질 않아.)

103035 @ 콩은 호미로 벱니까? 꺽읍니까?(콩은 호미로 벱니까? 꺾습니까?)

103035 #1 꺽으지. 호미로 꺽으지.(꺾지. 호미로 꺾지.)

103035 @ 호미로 꺽어?(호미로 꺾어?)

103035 #1 어.(어.)

103035 @ 골갱이로 꺽어?(호미로 꺾어?)

103035 #1 보리는 비어도 콩은 이 이렇게, 영 허민 딱 꺾어져. 영 눌러 가민.(보리는 베어도 콩은 이 이렇게, 이렇게 하면 딱 꺾어져. 이렇게 눌러 가면.)

103035 @ 꺽으고, 도께도 도께질하고예?(꺾고, 도리깨도 도리깨질하고요?)

103035 #1 콩? 응. 도께로 두들고 기계로도 태작허곡, 이젠 기계로 때려.(콩? 응. 도리깨로 두드리고 기계로도 타작하고, 이젠 기계로 때려.)

103035 @ 옛날에는 도께예?(옛날에는 도리깨요?)

103035 #1 응. 옛날 껄로만 썸구나이.(응. 옛날 걸로만 쓰는구나.)

103035 @ 예.(예.)

103035 #1 옛날은 도께로.(옛날은 도리깨로.)

103035 #2 그렇죠. 골겡이로 꺽어도 뒈고 호미로 꺽어도 뒈곡 그냥 막 꺽어가지고 그냥 도께로 그냥 테작허는 거니까.(그렇죠. 호미로 꺾어도 되고 호미로 꺾어도 되고 그냥 막 꺾어가지고 그냥 도리깨로 그냥 타작하는 거니까.)

103035 @ 걸 무껑은에 집이 가져왓수과? 거기서 도께질 헷수과? 밧디서.(걸 묶어서 집에 가져왔습니까? 거기서 도리깨질 했습니까? 밭에서.)

103035 #2 밧디서 허는 사람이 잇주만은 보통은 집이 가져.(밭에서 하는 사람이 있지만 보통은 집에 가져.)

103035 @ 구루마로 뭐에 담앙 옵니까? 묶어옵니까?(달구지로 뭐에 담아서 옵니까? 묶어옵니까?)

103035 #2 사람이 지어도 오고 물로 시꺼도 오고 이제 구루마 나니까 구루마로 가져오다가 이제는 차로 시꺼오주기.(사람이 지어도 오고 말로 실어도 오고 이제 달구지 나니까 달구지로 가져오다가 이제는 차로 실어오지.)

103035 @ 집에 왕 멍석 꼴앙 도께질 헙니까? 그냥.(집에 와서 멍석 깔아서 도리깨질 합니까? 그냥.)

103035 #2 콩은 콩 방울이 홁으니까 딱 튀니까 잘 고름베기헤야 밧디서 타작할라고 헤도 튀면 주어앗기가 곤란허니까.(콩은 콩 방울이 굵으니까 딱 뛰니까 잘 '고름베기' 해야 밭에서 타작하려고 해도 튀면 주워 갖기가 곤란하니까.)

103035 @ 줍기가 곤란하니까. 집이 왕 마당에서 그냥 막?(줍기가 곤란하니까. 집에 와서 마당에서 그냥 막?)

103035 #2 그렇지. 우리 집이 사람 하나 빌어서 도께로 타작허는데 나허고 둘이서 우리 닷 섬을 헤봣어. 우리 마당에서, 우리 마당이 옛날 집 잇을 땐 마당이 널러낫어.(그렇지. 우리 집에 사람 하나 빌어서 도리깨로 타작하는데 나하고 둘이서 우리 닷 섬을 해봤어. 우리 마당에서, 우리 마당이 옛날 집 있을 땐 마당이 넓었었어.)

103035 @ 예.(예.)

103035 #2 마당이 막 널르니까 역부러 전부 무스걸 치워가지고 도망가지 못허게.(마당이 막 넓으니까 일부러 전부 무슨 걸 치워가지고 도망가지 못하게.)

103035 @ 멍석 꼴앙 도께질헙니까?(멍석 깔아서 도리깨질합니까?)

103035 #2 시꺼도 오고 구루마 나니까.(실어도 오고 달구지 나니까.)

103036 @ 콩으로는 무엇을 합니까?(콩으로는 무엇을 합니까?)

103036 #1 응?(응?)

103036 @ 콩나물, 콩주름이렌 헙니까? 여기서는.(콩나물, '콩주름'이라고 합니까? 여기서는.)

103036 #1 콩은 허믄, 두부도 허곡, 또시 장, 된장도 담고.(콩은 하면, 두부도 하고, 또 장, 된장도 담고.)

103036 @ 둠비, 된장, 메주?(두부, 된장, 메주?)

103036 #1 것도 허곡 또 콩ᄀᆞ루로 죽도 쑤곡.(것도 하고 또 콩가루로 죽도 쑤고,)

103036 @ 콩ᄀᆞ루로 죽도 쑤곡.(콩가루로 죽도 쑤고.)

103036 #1 여러 가지, 콩ᄂᆞ물도 허곡.(여러 가지, 콩나물도 하고.)

103036 @ 콩ᄂᆞ물이옌 헙니까? 콩주름이옌 헙니까?(콩나물이라고 합니까? '콩주름'이라고 합니까?)

103036 #1 콩주름이옌도 허고 콩ᄂᆞ물이옌도 허고.('콩주름'이라고도 하고 콩나물라고도 하고.)

103036 @ 옛날말로는 콩주름?(옛날말로는 콩나물?)

103036 #1 응. 콩주름.(응. 콩나물.)

103036 @ 둠비도 허고예?(두부도 하고요?)

103036 #1 응. 뒌장도 허곡.(응. 된장도 하고.)

103036 @ 뒌장도 허곡, 간장도 허고.(된장도 하고, 간장도 하고.)

103036 #1 또시 그거이 보깡은에 간장에 이렇게 그릇더레 비와 놩 반찬도 허곡.(또 그거 볶아서 간장에 이렇게 그릇에 비워 놔. 반찬도 하고.)

103036 @ 반찬?(반찬?)

103036 #1 보깡.(볶아서.)

103036 @ 보깡예? 깅이도 잡아당 놓고?(볶아서요? 게도 잡아다 놓고?)

103036 #1 깅인 안 헌다. 무신.(겐 안 한다. 무슨.)

103036 @ 우럭도 헐 때 콩 놓고? 우럭?(우럭도 할 때 콩 놓고? 우럭?)

103036 #1 우럭?(우럭?)

103036 @ 우럭 지질 때?(우럭 지질 때?)

103036 #1 응. 그것에도 지져. 콩 놓고 꿰도 놓곡 고칫ᄀᆞ루도 놓고.(응. 그것에도 지져. 콩 놓고 깨도 놓고 고춧가루도 놓고.)

103036 @ 콩주름 물 줘봣수과? 콩나물 콩주름?('콩주름' 물 줘봤습니까? 콩나물 '콩주름'?)

103036 #2 응. 자주 줘야지. 집이서 기르는 건 먹을 건 할머니가 다 허주지만 남자도 콩나물 장사허니까, 나 콩ᄂᆞ물 장사허는 것도 이리 가서 봣어.(응. 자주 줘야지. 집에서 기르는 건 먹을 건 할머니가 다 하지만 남자도 콩나물 장사하니까, 나 콩나물 장사하는 것도 이리 가서 봤어.)

103036 @ 메주도 쑤고 둠비?(메주도 쑤고 두부?)

103036 #2 메주 쑤고 둠비허고 콩이 좋은 음식이주.(메주 쑤고 두부하고 콩이 좋은 음식이지.)

103036 @ 콩ᄀᆞ루로 뭐 헤신고예?(콩가루로 뭐 했는가요?)

103036 #2 콩국이 춤 맛싯어. 콩국.(콩국이 참 맛있어. 콩국.)

103036 @ 뭐 놩 끌이민 맛좋습니까?(뭐 놔서 끓이면 맛좋습니까?)

103036 #2 콩국이 맛잇어. 바로 저 잘 잘 끌리민 두부 같으니까.(콩국이 맛있어. 바로 저 잘 잘 끓이면 두부 같으니까.)

103037 @ 부드럽고예. 콩찍은 어떻게 활용합니까?(부드럽고요. 콩짚은 어떻게 활용합니까?)

103037 #1 콩찍?(콩짚.)

103037 @ 콩찍이옌 헙니까? 콩, 콩, 그 콩깍지? 그 콩대?(콩짚이라고 합니까? 콩, 콩, 그 콩깍지? 그 콩대?)

103037 #1 아아, 그거는 소 잇인 사람은 소 멕이고.(아아, 그거는 소 있는 사람은 소 먹이고.)

103037 @ 음.(음.)

103037 #1 소 엇인 사람은 걸로 불 때여. 밥허는 거.(소 없는 사람은 걸로 불 때. 밥하는 거.)

103037 @ 걸 콩대렌 헙니까? 콩깍지렌 헙니까? 콩꼬질.(걸 콩대라고 합니까? 콩깍지라고 합니까? 콩깍지.)

103037 #1 콩꼬질.(콩깍지.)

103037 #2 콩깍지.(콩깍지.)

103037 @ 콩꼬질? 불 때고 소 잇인 사람은 소 멕이고.(콩깍지? 불 때고 소 있는 사람은 소 먹이고.)

103037 #1 소 엇인 사람은 불 때영 밥허고.(소 없는 사람은 불 때서 밥하고.)

103037 @ 밥허고?(밥하고?)

103037 #1 숨아가지고.(삶아가지고.)

103037 @ 콩찍은 눌 눕니까?(콩짚은 가리 가립니까?)

103037 #2 눌 눌어야지 비 안 들게, 비 안 맞게 헤야, 소나 물이나 잘 먹고.(가리 가리어야지 비 안 들게. 비 안 맞게 해야. 소나 말이나 잘 먹고.)

103037 @ 딱딱허지 않앙 잘 먹읍니까?(딱딱하지 않아서 잘 먹습니까?)

103037 #2 꺽지는이 저 물이나 쉐는 잘 먹으니까?(깍지는 저 말이나 소는 잘 먹으니까?)

103037 @ 그믄 콩, 이렇게 알맹이 헷던 거를 콩깍지렌 헙니까?(그러면 콩, 이렇게 알맹이 했던 거를 콩깍지라고 합니까?)

103037 #2 이렇게 속엔 알맹이가 잇고, 바낏딧 건 껍데기지.(이렇게 속엔 알맹이가 있고, 바깥에 건 껍데기지.)

103037 @ 콩 껍데기렌 헙니까? 콩 껍데기도 놧당 다 소줍니까?(콩 껍데기라고 합니까? 콩 껍데기도 놨다가 다 소줍니까?)

103037 #2 다 소, 물 주고.(다 소, 말 주고.)

103037 @ 다 소주고예. 그믄 콩은 무슨 물방에허고 이런 건 없겟다예 바로?(다 소주고요. 그러면 콩은 무슨 연자매하고 이런 건 없겠네요 바로?)

103037 #2 아, 그런 건 없죠, 이 저 ᄀᆞ레 ᄀᆞᆯ젠 허민 옛날엔 돌ᄏᆞ레 영 헹 ᄀᆞᆯ아.(아, 그런 건 없죠, 이 저 맷돌 갈려고 하면 옛날엔 돌 맷돌 이렇게 해서 갈아.)

103037 @ 돌ᄏᆞ레예? ᄀᆞ루 만들젠 허믄예. 물 적셧당?(돌 맷돌이요? 가루 만들려고 하면요. 물 적셨다가?)

103037 #2 아니.(아니.)

103037 @ 생으로?(생으로?)

103037 #2 생으로 허는 것도 잇고, 물적정 허는 것도 잇주마는 두부허젠 허면 생으로 허여. 물 적정.(생으로 하는 것도 있고, 물 묻혀서 하는 것도 있지만 두부하려고 하면 생으로 해. 물 묻혀서.)

103038 @ 소 멕이고, 콩 농사에 얽힌 추억이나 경험을 말씀혜 보십시오. 다른 거에 비해서 콩은 꺽으는 거나 어려웁니까?(소 먹이고, 콩 농사에 얽힌 추억이나 경험을 말씀해 보십시오. 다른 거에 비해서 콩은 꺾는 거나 어렵습니까?)

103038 #1 아, 쉬와.(아, 쉬워.)

103038 @ 가을에 조를 먼저 빕니까? 콩을 먼저 빕니까?(가을에 조를 먼저 빕니까? 콩을 먼저 빕니까?)

103038 #1 뭐 ᄀᆞ찌, ᄀᆞ찌 뭴 거라.(뭐 같이, 같이 될 거라.)

103038 @ ᄀᆞ찌, ᄀᆞ찌.(같이, 같이.)

103038 #1 응. 비등비등헐 거라. 겐디 이 저 조가 빨리 헐 거라.(같이, 같이 될 거라. 비슷비슷할 거라. 그런데 이 저 조가 빨리 할 거라.)

103038 @ 조가예?(조가요?)

103038 #1 콩보단 경 아니민이.(콩보다 그렇게 아니면.)

103038 @ 음.(음.)

103038 #1 그거 막 이기젠 허민이.(그거 마구 이기려고 하면.)

103038 @ 예.(예.)

103038 #1 ᄇᆞ름 불민이 ᄆᆞᆫ딱 털어불잖아.(바람 불면 모두 털어버리잖아.)

103038 @ 음.(음.)

103038 #1 게난 조는 거 다 이기젠 허믄이 막 ᄇᆞ름허카부덴 ᄇᆞ름 불민 다 털어 불어.(그러니까 조는 거 다 이기려고 하면 마구 바람 할까봐 바람 불민 다 털어버려.)

103038 @ 다 털어불어.(다 털어버려.)

103038 #1 먹을 것도 엇어.(먹을 것도 없어.)

103038 @ 아이구.(아이구.)

103038 #1 남뎅이만 과작혜영.(줄기만 곧게 해서.)

103038 @ 남뎅이만.(줄기만.)

103038 #1 대풍만이 불엇다허민 다 털어불어.(태풍만 불었다하면 다 털어버려.)

103038 @ 콩꼬질이옌도 허고, 콩대렌도 허곡, 또 저 콩남뎅이렌도 헙니까?(콩깍지이라고도 하고, 콩대렌도 하고, 또 저 콩대라고도 합니까?)

103038 #1 남뎅인 안 헹 콩꼬질이옌허여.(줄기라고 안하고 콩깍지라고 해.)

103038 @ 남뎅이렌 안하고 콩꼬질?(줄기라고 안하고 콩깍지?)

103038 #1 응. 콩꼬질이옌 허고, 콩 때려난 주시레기는, 저 뭐옌 헌다만은 원! 안ᄀᆞᆯ아가난 이젠, 콩 때려난 거꼬라 주시가 잇어이. 건 안 ᄀᆞᆯ아가난 잊어불엉 모르크라. 콩깡메기!(응. 콩깍지라고 하고, 콩 때려난 찌꺼기는, 저 뭐라고 한다만 원! 안 말해가니까 잊어버렸어. 콩 때려난 거보고 찌꺼기가 있어. 건 안 말해가니까 잊어버려서 모르겠다. 콩꼬투리!)

103038 @ 예? 콩깡메기?(예? 콩꼬투리?)

103038 #1 콩깡메기. 때려난 거 주시렌기 콩깡메기. 사투리 막 이상헤여.(콩꼬투리. 때려난 거 찌꺼기 콩꼬투리 사투리 막 이상해.)

103038 @ 콩깡메기예? 콩주시레기를 콩깡메기.(콩꼬투리요?, 콩 찌꺼기를 콩꼬투리.)

밭벼농사

103039 @ 이제는 산듸우다예. 밭벼. 밭벼농사를 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합니까?(이제는 밭벼입니다. 밭벼. 밭벼농사를 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합니까?)

103039 #1 산듸는이, 산듸 갈젠 허면 보리 안 갈아. 봄에, 놀렷다가 밧을 놀렷다가 그 그르[78]에 산듸 불려.(밭벼는, 밭벼 갈려고 하면 보리 안 갈아. 봄에, 놀렸다가 밭을

놀렸다가 그 ‘그르’에 밭벼 밟아.)

103039 @ 음.(음.)

103039 #1 보리 안 갈앙.(보리 안 갈아서.)

103040 @ 그믄 밧벼, 산듸는 언제 어떻게 갑니까? 멧 월달이 됩니까?(그러면 밭벼, 밭벼는 언제 어떻게 갑니까? 몇 월이 됩니까?)

103040 #1 산듸는 혼 어, 스월 초에 가는가?(밭벼는 한 어, 사월 초에 가는가?)

103040 @ 음력 사월예?(음력 사월이요?)

103040 #1 스월초에도 갈고, 삼월 그물어가멍도 기고.(사월 초에도 갈고, 삼월 그물어가면서도 하고.)

103040 #2 산듸, 우리 내가 많이 헷어.(밭벼, 우리 내가 많이 했어.)

103040 @ 아아.(아아.)

103040 #2 잘뒈민 이 육지에 나룩보당도 잘뒈는 수가 잇어.(잘되면 이 육지에 벼보다도 잘되는 수가 있어.)

103040 @ 아아. 맛은 그래도 나룩이 나아마씨?(아아. 맛은 그래도 벼가 나아요?)

103040 #2 맛은 여기 산듸 갈민 지금 새 덕분에 갈면, 새 덕분 못허는데 여기 쏠이 맛싯어. 춥쌀 잘 뒈어 여기. 나 죽장 많이 헷어. 춥쏠을.(맛은 여기 밭벼 갈면 지금 새 덕분에 갈면, 새 덕분 못하는데 여기 쌀이 맛있어. 찹쌀 잘 돼. 여기. 나 죽장 많이 했어. 찹쌀을)

103040 @ 산듸가 찹쌀이과? 멥쏠이지예?(밭벼가 찹쌀이과? 멥쌀이지요?)

103040 #2 멥쏠산디도 잇고 이제 춥쏠산듸도 잇고 헌디, 여기 제주춥쏠산듸 닮은 쏠이 없어.(멥쌀밭벼도 있고 이제 찹쌀밭벼도 있고 한데, 여기 제주 찹쌀밭벼 닮은 쌀이 없어.)

103040 @ 여기 것도요?(여기 것도요?)

103040 #2 여기 건 뭐 죽장 많이 그걸로 살앗는데 춥쏠로.(여기 건 뭐 죽장 많이 그걸로 살았는데 찹쌀로.)

103040 @ 산듸 춥쏠예?(밭벼 찹쌀이요?)

103040 #2 츠나룩이라고허는데 츠나룩,(찰벼이라고 하는데 찰벼.)

103040 @ 산듸 춥쏠산듸꽈? 츠나룩이 춥쏠산듸?(밭벼 찹쌀밭벼입니까? 찰벼가 찹쌀밭벼?)

103040 #2 여기서 허민 육지에서도 못봐. 여기 츠나룩헤당 저 방에간에 거시기허믄 쌀이 뿌옇고 말이여, 참 맛이 여간 좋지 안허고, 여기 육지 찹쌀덜은 뭐 춥쌀이야? 아무것도 아니야.(여기서 하면 육지에서도 못 봐. 여기 찰벼 해다가 저 방아 간에 거시기하면 쌀이 뿌옇고 말이야. 참 맛이 여간 좋지 않고, 여기 육지 찹쌀들은 뭐 찹쌀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103040 @ 산듸농사를 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합니까?(밭벼농사를 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합니까?)

78) ‘그르’는 농사를 지었던 자리를 말한다.

103040 #2 산듸농산 일찍 헤야 뒈어. 봄에.(밭벼농산 일찍 해야 돼. 봄에)

103040 @ 봄, 멧 월달에마씨?(봄, 몇 월에요?)

103040 #2 봄, 삼ᄉᆞ월달에 헤야지. 다른 농사보다 ᄆᆞᆫ처 헤야.(봄, 삼사월에 해야지. 다른 농사보다 먼저 해야)

103041 @ 아아. 산듸가 다른 농사보다 먼처예.(아아. 밭벼가 다른 농사보다 먼저요.)

103040 #2 응. 먼처.(응. 먼저.)

103041 @ 산듸 걸름은 어떻게 마련합니까?(밭벼 거름은 어떻게 마련합니까?)

103041 #1 걸름 안 헤여. 산듸는. 보리나 허지.(거름 안 해. 밭벼는. 보리나 하지.)

103041 @ 보리만?(보리만?)

103041 #1 보리는 걸루와도 산듸는 안걸롸. 보리 콩은 안 걸류와.(보리는 걸러도 밭벼는 안 걸러. 보리 콩은 안 걸려.)

103041 @ 걸름은 어떻게 마련합니까?(거름은 어떻게 마련합니까?)

103042 #2 비료도 허고 잘 걸롸야 뒈어. 잘 걸뤄야.(비료도 하고 잘 걸러야 돼. 잘 걸러야.)

103042 @ 잘 걸롸야 뒈어마씨?(잘 걸러야 돼요?)

103042 #2 걸름을 많이 헌다는 것이 걸롸야 뭰다는 거.(거름을 많이 한다는 것이 걸러야 된다는 거.)

103042 @ 걸롸야 뒈는 것은 뭘 걸롸마씨? 톳통시 걸 헙니까? 불치, 오줌을 헙니까?(걸러야 되는 것은 뭘 걸러요? 돼지우리 걸 합니까? 재, 오줌을 합니까?)

103042 #2 비료를 많이 썻지. 비료를.(비료를 많이 썼지. 비료를.)

103042 @ 비료 없을 때?(비료 없을 때?)

103042 #2 보통 그자, 잇는 데로 없으면 못허는 거니까.(보통 그저, 있는 데로 없으면 못하는 거니까.)

103042 @ 만약에 어떤 거름? 오줌, 불치?(만약에 어떤 거름? 오줌, 재?)

103042 #2 오줌, 불치 뭐 무신 뒈야지 통시에 걸름, 뭐 그런 거 노믄.(오줌, 재 뭐 무슨 돼지 돼지우리에 거름, 뭐 그런 거 놓으면.)

103042 @ 산듸씨는 어떻게 뿌립니까?(밭벼 씨는 어떻게 뿌립니까?)

103042 #1 좁씨삐듯 보리씨 삐듯.(좁씨 뿌리듯 보리씨 뿌리듯.)

103042 @ 좁씨삐듯 보리씨 삐듯.(좁씨 뿌리듯 보리씨 뿌리듯.)

103042 #1 그냥 이렇게, 멜 망텡이 메어가지고, 망텡이 메엉.(그냥 이렇게, 멸치 망태기 매어가지고, 망태기 매어서.)

103042 @ 무사 멜망텡이렌 헷수과?(왜 '멜망태기'라고 했습니까?)

103042 #1 씨망텡이ᄀᆞ라 멜망텡이옌 허잖아. 메니까.('씨망태기'보고 '멜망태기'라고 하잖아. 메니까.)

103042 @ 메니까?(메니까?)

103042 #1 친 헹 매니까 멜망텡이, 메니까 아 이치적으로 세보라. 멜망텡이옌, 메니까 멜망텡이라고 허지. 무신.(끈 해서 매니까 '멜망태기', 매니까 아 이치적으로 세보라.

‘멜망태기’라고, 매니까 ‘멜망태기’라고 하지. 무슨.)

103042 @ 멜망텡이렌 허난 바당에 또 멜이 갑자기 생각나가지고.(‘멜망태기’라고 하니까 바다에 또 멸치가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103042 #1 건 멜, 이건 멜망텡이 맥, 맥으로 ᄌᆞ니까.(건 맬, 이건 ‘멜망태기’ 멱서리, 멱서리로 짜니까)

103042 @ 멕망텡이?(멱서리망태기?)

103042 #1 응, 씨망텡이옌도 허고, 멜망텡이옌도 허고.(응, ‘씨망태기’라고도 하고, ‘멜망태기’라고도 하고.)

103042 @ 씨망텡이렌도 허고예?(‘씨망태기’라고도 하고요?)

103042 #1 응.(응.)

103042 @ 걸름을 놓고 씨뿌립니까? 밧갈고 씨뿌리지예?(거름을 놓고 씨 뿌립니까? 밭 갈고 씨 뿌리지요?)

103042 #2 걸름을 놔서 밧 갈아가지고 씨 뿌려서, 것도 불려야뒘. 조 불리듯.(거름을 놔서 밭 갈아가지고 씨 뿌려서, 그것도 밟아야 돼. 조 밟듯.)

103042 @ 조 불리듯 산듸도 불려마씨? 산듸도 밧 불리는 소리도 똑같아마씨? 조허고 똑같이?(조 밟듯 밭벼도 밟아요? 밭벼도 밭 밟는 소리도 똑같아요? 조하고 똑같이?)

103042 #2 똑같으지.(똑같지.)

103043 @ 그믄 산듸 밧 김매기는 검질은 몇 번 합니까?(그러면 밭벼 밭 김매기는 김은 몇 번 합니까?)

103043 #1 것도 여름 거니까 산듸는 더 맬 거라. 인칙 꺼는, 혼 산듸는 세 번쯤이나 메어사 헐 거라.(것도 여름 거니까 밭벼는 더 맬 거라. 아까 거는, 한 밭벼는 세 번쯤이나 매어야 할 거라.)

103043 #2 여러 번 메야지. 일찍 가니까, 두서너 번 메야 뒈어.(여러 번 매야지. 일찍 가니까, 두서너 번 매야 돼.)

103044 @ 산듸밧에는 어떤 검질이 자랍니까?(밭벼밭에는 어떤 김이 자랍니까?)

103044 #2 봄으로부터 여름ᄁᆞ지 나는 검질은 다 나니까.(봄으로부터 여름까지 나는 김은 다 나니까.)

103045 @ 산듸 수확은 어떻게 합니까?(밭벼 수확은 어떻게 합니까?)

103045 #1 잘뒈면은 하영 나고 안 뒈면은 원 안 나지.(잘되면 많이 나고 안 되면 원 안 나지.)

103045 @ 베어서 또 이것도 호미로 베어서 도께질?(베어서 또 이것도 호미로 베어서 도리깨질?)

103045 #1 그렇지. 산듸도 도께질 허곡, 옛날 우린 도께로 때려낫어.(그렇지. 밭벼도 도리깨질 하고, 옛날 우린 도리깨로 때렸었어.)

103045 @ 아, 산듸도예?(아, 밭벼도요?)

103045 #1 응.(응.)

103045 @ 산듸는 어떻게 수확은 어떻게 베고 도께질합니까?(밭벼는 어떻게 수확은

어떻게 베고 도리깨질 합니까?)

103045 #2 홀태로 홀타가지고 홀태로 옛날은 그.(그네로 홅아가지고 그네로 옛날은 그.)

103045 @ 이것도 홀타마씨? 보리 훌듯이?(이것도 홅아요? 보리 홅듯?)

103045 #2 응, 그렇지. 홀타야지.(응, 그렇지. 홅아야지.)

103045 @ 산듸도 보리클로 헙니까? 산듸클[79]?(밭벼도 '보리클'로 합니까? '산듸클'?)

103045 #2 좀 줌진 클로 헤가지고?(조금 가는 틀로 해가지고?)

103045 @ 산듸클? 이거 보리클하고 달라마씨?('산듸클'? 이거 '보리클'하고 달라요?)

103045 #2 보리클[80]허고 비등헌거야.('보리클'하고 비슷한 거야.)

103045 @ 비등헌디 다르긴 달라? 똑가치 않아예?(비등한데 다르긴 달라? 똑같이 않아요?)

103045 #2 보리클로도 헐 수 잇어.('보리클'로도 할 수 있어.)

103045 @ 산디클예, 밧디서 다 헤옵니까? 밧디서 고고리 다 따 불어? 산듸클로.('산듸클'요. 밭에서 다 해옵니까? 밭에서 이삭 다 따 버려? '산듸클'로)

103045 #2 집이 시꺼당 집이서 다 헴주. 옛날엔게.(집에 실어다가 집에서 다 하지. 옛날에는.)

103046 @ 산듸쌀로는 무엇을 합니까?(밭 볍쌀로는 무엇을 합니까?)

103046 #1 산듸쌀은 제사 혜 먹지게 쏠은.(밭 볍쌀은 제사 해 먹지. 쌀은.)

103046 @ 밥하고 제사밥허곡, 떡, 멥쌀로 떡 무슨 떡? 뽓아근에.(밥하고 제사 밥하고, 떡, 멥쌀로 떡 무슨 떡? 빻아서.)

103046 #1 떡도 허고 친떡도 허곡 송편도 허고.(떡도 하고 시루떡도 하고 송편도 하고.)

103046 @ 송편.(송편.)

103046 #1 친떡도 허곡 그 쏠 산듸쏠 갈앙.(시루떡도 하고 그 쌀 밭벼 쌀 갈아서.)

103046 @ 희양헌 떡을 헷수과?(하얀 떡을 했습니까?)

103046 #1 어?(어?)

103046 @ 아니면 저 거기 풋을 불랏수과 침떡?(아니면 저 거기 팥을 발랐습니까? 시루떡?)

103046 #1 친떡? 그 자기 허고정 헌 냥게.(시루떡? 그 자기 하고 싶어서 하는 대로.)

103046 @ 음.(음.)

103046 #1 헤양케 허고정헌 사람은 헤양케 허고, 풋 놓코정 허민 풋 놓고, 그게 풋은이 왜냐허민이 큰 시리에다가 식게 때나 영장 때나 소상 때나 큰 시리허민 그레 풋을 숣아가지고 산 산 산 산 허껑 또 우에 또 그 헐마니 헤영 솔박[81]으로 세 개쯤 놩은에 또 영 헤놩 또 영 헤영 허끄면은 치면은 거 다 갈라져. 경 안허믄 흰 거 다 담아노민 흔덩어리 뒝 끈질 못 허여.(하얗게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은 하얗게 하고, 팥 놓고 싶어

79) '산듸클'은 밭벼를 떠는 농기구를 말한다.
80) '보리클'은 보리를 떠는 농기구를 말한다.
81) '솔박'은 나무를 둥그스름하고 납죽하게 파서 만든 작은 바가지 비슷한 그릇을 말한다.

하면 팥 놓고, 그게 팥은 왜냐하면 큰 시루에다가 제사 때나 영장 때나 소상 때나 큰 시루하면 거기 팥을 삶아가지고 산 산 산 산 섞어서 또 위에 또 그 할 만큼 해서 '솔박'으로 세 개쯤 놔서 또 이렇게 해놔서 또 이렇게 해서 섞어서 찌면 거 다 갈라져. 그렇게 안하면 흰 거 다 담아놓으면 한 덩어리 돼서 끊질 못해.)

103046 @ 아아.(아아.)

103046 #1 헤끄라졍.(부서져서)

103046 @ 아아.(아아.)

103046 #1 거 그 픗을 놔야 징이 다 있어.(거 그 팥을 놔야 층이 다 있어.)

103046 @ 징이.(층이.)

103046 #1 게난 걸 다 떼지잖아.(그러니까 걸 다 떨어지잖아.)

103046 @ 떼지지 않게예?(떨어지지 않게요?)

103046 #1 떼지게.(떨어지게.)

103046 @ 떼지게. 첨예. 그믄 떡허곡 밥, 산듸찍 등은?(떨어지게. 참요. 그러면 떡하고 밥, 밭볏짚 등은?)

103047 #1 산듸찧은이 멍석도 만들곡, 맥도 만들고, 초신도 허곡, 또 보리 무끄는 것도 허고, 산듸찧 막 필요허여.(밭볏짚은 멍석도 만들고, 멱서리도 만들고, 짚신도 하고, 또 보리 묶는 것도 하고, 밭볏짚 막 필요해.)

103047 @ 그믄 산듸찍보다 나룩찍이 더 좋덴 헙디다만은 나룩찍을 어디 강 사 올 수 이신가예?(그러면 밭벼 짚보다 볏짚이 더 좋다고 합디다만 볏짚을 어디 가서 사 올 수 있는가요?)

103047 #1 보리 무끄젠 허믄이 새도 좋고 산듸짚도 좋고 보리 무끌 때는.(보리 묶으려고 하면 새도 좋고 밭벼 짚도 좋고 보리 묶을 때는.)

103047 @ 음.(음.)

103047 #1 그게이 영 헤여근에 물 적졍 그거 듬박허면은 아니 끈어지고이. 그냥 막 바셍이 ᄆᆞ를 때믄 착착 끈어졍 보리 못 무꺼.(그게 이렇게 해서 물 적셔서 그거 '듬박'하면 안 끊어지고. 그냥 막 바싹 마를 때면 착착 끊어져서 보리 못 묶어.)

103047 @ 아아. 물 적시믄 안 뒈어.(아아 물 적시면 안 돼.)

103047 #1 물 적져야, 거믄 안헌디이, ᄆᆞ른 첸 못 무꺼. 착착 끈어져 불엉.(물 적셔야, 그러면 안하는데, 마른 채 못 묶어. 착착 끊어져 버려서.)

103047 @ 으음. 산듸찍은 노도 꼬고, 짚신 삼고?(으음. 밭벼 짚은 노도 꼬고, 짚신 삼고?)

103047 #1 멍석도 ᄆᆞᆯ고, 덕석 잇잖아.(멍석도 짜고, 덕석 있잖아.)

103047 @ 이 저 새끼줄 이런 것도 헷수과?(이 저 새끼줄 이런 것도 했습니까?)

103047 #1 새끼줄도 허곡. 거 여러 가지 허메. 저 짚신도 만들곡.(새끼줄도 하고. 거 여러 가지 해. 저 짚신도 만들고.)

103047 @ 그 산듸를 여기 신촌에도 많이 갈앗수과?(그 밭벼를 여기 신촌에도 많이 갈았습니까?)

103047 #1 이 해각엔 안 갈곡 저 웃뜨리 산에 사람덜 갈안. 여기서는이 보리 콩벳긔 안헤여.(이 해변엔 안 갈고 저 '웃드리' 산에 사람들 갈았어. 여기서는 보리 콩밖에 안 해.)

103047 @ 음. 산듸는 아예 안헨? 헤끔?(음. 밭벼는 아예 안했어요? 조금?)

103047 #1 응. 산듸는 뜬 땅에 허는 거 아냐?(응. 밭벼는 뜬 땅에 하는 거 아니니?)

103047 @ 아아 산듸는.(아아 밭벼는.)

103047 #1 땅이 북삭북삭헌디는 허곡 여기는 안 뒈여. 땅이 옵아부니까.(땅이 푹신푹신 한데는 하고 여기는 안 돼. 땅이 단단해버리니까.)

103047 @ 아아.(아아.)

103047 #1 보리허곡 보리, 콩, 조벳긔 안뒈여. 산듸ᄀᆞ튼 건이 잘 뒈질 안헤여. 땅이 너미 쎄어노니까 저 부드러운 땅이라야.(보리하고 보리, 콩, 조 밖에 안 돼. 밭벼 같은 건 잘 되질 않아. 땅이 너무 세어 버리니까 저 부드러운 땅이라야.)

103047 @ 여긴 쎈 땅예, 옵은 땅예?(여긴 센 땅이요, 단단한 땅이요?)

103047 #1 옵은 땅이니까 보리허곡 조, 콩, 그런 거나벳긔 이 산듸는 뜬 땅이라.(여문 땅이니까 보리하고 조, 콩, 그런 거나 밖에 이 밭벼는 뜬 땅이라야.)

103047 @ 산듸 찍이나 이런 걸을 사옵니까? 뭘로 바꽈옵니까?(밭벼 짚이나 이런 걸을 사옵니까? 뭐로 바꿔옵니까?)

103047 #1 사다근에 보리 무끄지.(사다가 보리 묶지.)

103047 @ 뭘 돈 주곡.(뭘 돈 주고.)

103047 #1 돈 주곡, 또 친한 디 강 빌어 오고.(돈 주고, 또 친한데 가서 빌려 오고.)

103047 @ 쏠로 바꽈당도?(쌀로 바꿔다가도?)

103047 #1 아니, 아니. 짚세기는이 보리만 무끄는 거니까.(아니, 아니. 짚은 보리만 묶는 거니까.)

103047 @ 옛날에는 엽전으로 썻수과? 그냥 돈 나올 땐 얼마에 그걸.(옛날에는 엽전으로 썼습니까? 그냥 돈 나올 땐 얼마에 그걸.)

103047 #1 우리 대엔 옵전 안 헤서. 옵전이 뭔지 몰라. 우리 대에는 일전.(우리 대엔 엽전 안 했어. 엽전이 뭔지 몰라. 우리 대에는 일전.)

103047 @ 일전?(일전?)

103047 #1 그 쒜돈 동글락헌 거 일전.(그 쇠돈 동그란 거 일전.)

103047 @ 음.(음.)

103047 #1 그거 하나 일전 앗앙가민이 다마 사탕 이만썩 헌 거 하난가 두 갠가 줘. 그 일 전 아졍가민이 사탕도 이만허여. 게민이 갈랑 먹젠 허민 돌로 뭇아. 돌로 뭇이나 경 안허민 그 쉐막뗑이 영 허는 거.(그거 하나 일전 가져가면 구슬 사탕 이만큼 한 거 하난가 두 갠가 줘. 그 일 전 가져서 가면 사탕도 이만해. 그러면 갈라서 먹으려고 하면 돌로 마. 돌로 마거나 그렇게 안하면 그 쇠몽둥이 이렇게 하는 거.)

103047 @ 망치.(망치.)

103047 #1 응. 그걸로 벌르나 경 헨 갈랑 먹어. 이만썩 이만허여 그 사탕이.(응. 그

걸로 쪼개거나 그렇게 해서 갈라서 먹어. 이만큼 이만해. 그 사탕이.)

103047 @ 우리도 경 헷수다. 삼촌 일전이민 사탕 말고 다른 것도 삿수과?(우리도 그렇게 했습니다. 삼촌 일전이면 사탕 말고 다른 것도 샀습니까?)

103047 #1 일전 가지민 저 엿, 엿 사시오 땡글땡글허멍 가위로 그런 것도 사 먹고, 또 어멍네 신 ᄒᆞ꼼 헐어가민 노둔 것도 강 사당 먹엉 막 매도 맞고, 엿 사시오! 든 거 먹ᄀᆞ정허니까 신은 보니까 좀 괜찮은 거라도 아시당은에 사먹어부난 막 우리 매 맞아낫어.(일전 가지면 저 엿, 엿 사시오 땡글땡글하면서 가위로 그런 것도 사 먹고, 또 어머니네 신 조금 헐어가면 놔둔 것도 가서 사다가 먹어서 막 매도 맞고, 엿 사시오! 단 거 먹고 싶으니까 신은 보니까 좀 괜찮은 거라도 갖다 다가 사 먹어버리니까 막 우리 매 맞았었어.)

103047 @ 삼촌이 경 헷수과? 동생이 경 헷수과?(삼촌이 그렇게 했습니까? 동생이 그렇게 했습니까?)

103047 #1 나가 경 헷지. 엿은 막 그때 머리털 앗아가도 엿 주대.(내가 그렇게 했지. 엿은 막 그때 머리카락 가져가도 엿 주대.)

103047 @ 하하하.(하하하.)

103047 #1 머리털은 맨날이 좁져 논 거 다 빵 먹어부난 엇이난 이젠 어멍 신 좀 터졋관데 아져단에 이디 신 어디 갓덴? 엿 사 먹언덴? 아이고 신는 거 헷덴 아이고 몽둥이로 맞앗젠 허난.(머리털은 매일 끼워 논 거 다 빼서 먹어버리니까 없으니까 이젠 어머니 신 좀 터져 있어서 가져다가 여기 신 어디 갔냐고? 엿 사먹었다고? 아이고, 신는 거 했다고 아이고 몽둥이로 맞았다고 하니까.)

103047 @ 크으.(크으.)

103047 #1 셈 창아리 엇인 년이옌 허멍.(배알 없는 년이라고 하면서,)

103047 @ 아, 그게.(아, 그게.)

103047 #1 신는 신, 강게 ᄒᆞ꼼 영 뒤칙이 허니까게 헐어베난 강 사먹어 불엇주게. 어멍은 신는 거 아져당은에 사먹엇젠 그땐 엿벳긔 엇어나서. 먹을 것이(신는 신, 가서 조금 이렇게 뒤축이 허니까 헐어보이니까 가서 사먹어 버렸지. 어머니는 신는 거 가져다가 사먹었다고 그땐 엿밖에 없었었어. 먹을 것이.)

103047 @ 거난 맛좋은 게.(그러니까 맛좋은 게.)

103047 #1 어이구.(어이구.)

103047 @ 삼촌도 보통이 아니엇수다게.(삼촌도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103047 #1 어떵허난게.(어떻게 하다가.)

103047 @ 아무리 먹고 싶어도 거 바꿔불민.(아무리 먹고 싶어도 거 바꿔버리면.)

103047 #1 엿 사시오! 엿 사시오! 고무신이나 머리턱이나 뭐 무신 총이나 다 ᄀᆞ져오민 싸구리! 싸구리! 엿 싸구리! 싸구리! 싸구리! 허믄 이제 싸게 주카부덴 허난 쌈이랑마랑 그 엿장시.(엿 사시오! 엿 사시오! 고무신이나 머리칼이나 뭐 무신 총이나 다 가져오면 싸구려! 싸구려! 엿 싸구려! 싸구려! 싸구려! 하면 이제 싸게 줄까 보다 했는데 싸기는커녕 그 엿장수.)

103047 @ 산듸찍은 뭐헙니까?(밭벼 짚은 뭐합니까?)

103047 #2 멍석도 줏고 맥도 줏고, 남으민 물도 주고, 쉐도 주고.(멍석도 짜고 멱서리도 짜고, 남으면 말도 주고, 소도 주고.)

103047 @ 남으민 쉐도 주고 물도 먹어마씨? 그믄 이것도 눌 눌고마씨?(남으면 소도 주고 말도 먹어요? 그러면 이것도 가리 가리고요?)

103047 #2 눌 눌어야지.(가리 가려야지.)

103047 @ 찝신도 만들고?(짚신도 만들고?)

103047 #2 아, 그렇지. 멍석도 만들고.(아, 그렇지. 멍석도 만들고.)

103048 @ 산듸 농사는 지어보지 안헷구나예?(밭벼 농사는 지어보지 안 했군요?)

103048 #1 아니 지어나서.(안 지었었어.)

103048 @ 산듸허면서 얽힌 추억이나 경험?(밭벼하면서 얽힌 추억이나 경험?)

103048 #1 아니 우리 저 산에 간.(아니 우리 저 산에 가서.)

103048 @ 빌령?(빌려서?)

103048 #1 그 밧 풀아불엇지. 이녁밧이니까.(그 밭 팔아버렸지. 이녁 밭이니까.)

103048 @ 아아.(아아.)

103048 #1 거기 산디 잘 뒈대. 저 뜬 땅이니까.(거기 밭벼 잘 되더라. 저 뜬 땅이니까.)

103048 @ 와흘에 뭐 땅이 잇엇수과?(와흘에 뭐 땅이 있습니까?)

103048 #1 와흘에 잇어난디 문딱 풀아불언.(와흘에 있었는데 모두 팔아버렸어.)

103048 @ 아이구, 아깝다예.(아이구, 아깝네요.)

103048 #1 아방이 다 풀아불언. 경허니까 난 이디 살아부니까 밧이 어디신 거 몰라.(아버지가 다 팔아버렸어. 그렇게 하니까 난 여기 살아 버리니까 밭이 어디 있는 거 몰라.)

103048 @ 으음.(으음.)

103048 #1 막 밧 하난디이.(아주 밭 많았었는데.)

103048 @ 아이고.(아이고.)

103048 #1 거난 지는 밧 춪지 말앙 내분덴 거기 ᄉᆞ춘이 살아. 와흘에.(그러니까 자기는 밭 찾지 말아서 내버린다고 거기 사촌이 살아. 와흘에.)

103048 @ 예.(예.)

103048 #1 다 풀아불언네. 춪지도 못헌덴 허멍.(다 팔아버렸네. 찾지도 못한다고 하면서)

103048 @ 에이가이고.(에이가이고.)

103048 #1 거도 옛날이주게. 이제 ᄀᆞ뜨민 문세 걷으멍 밧 문세 걷으멍 다 춪을 거 아니가?(거도 옛날이지. 이제 같으면 문서 걷으면서 밭문서 걷으면서 찾을 거 아닐까?)

103048 @ 게난마씨.(그러니까요.)

103048 #1 옛날은 이것도 나 밧이엔 허민 그냥 내불어.(옛날은 이것도 내 밭이라고 하면 그냥 내버려.)

103048 @ 게난마씨.(그러니까요.)

103048 #1 그런 어둑 나라.(그런 어두운 나라.)

103048 @ 에이구. 땅값은 올라가고.(에이구. 땅값은 올라가고.)

103048 #1 춤말로.(참말로.)

103048 @ 산듸는 잘 뒈면 좀 비쌋겟다예?(밭벼는 잘 되면 좀 비쌌겠네요?)

103048 #1 산듸는 베랑 안 풀아. 자기 제사헤 먹고, 또 필요허게 서껑 먹고, 베랑 우리 쏠 헤도 흔 멧 말벳긔 못 풀아 먹엇어. 집이가 제ᄉᆞ가 하니까 멩질 제ᄉᆞ, 경 헨 이젠 그걸로 허믄 떡도 허곡 멩질도 허곡.(밭벼는 별로 안 팔아. 자기 제사해 먹고, 또 필요하게 섞어서 먹고, 별로 우리 쌀 해도 한 몇 말밖에 못 팔아먹었어. 집에가 제사가 많으니까 명절 제사, 그렇게 해서 이젠 그걸로 하면 떡도 하고 명절도 하고.)

103048 @ 떡은 쌀떡은 귀하잖아예. 모멀떡이여 뭐여 허잖아예?(떡은 쌀떡은 귀하잖아요. 메밀떡이랑 뭐랑 하잖아요?)

103048 #1 ᄆᆞ멀은 우리 갈아나긴 헤도 ᄆᆞ멀떡은 안 헤여. ᄆᆞ멀떡 허는 사름 베랑 엇어. 저 웃드리덜이 허지. 이딘.(메밀은 우리 갈아나긴 해도 메밀떡은 안 해. 메밀떡 하는 사람 별로 없어. 저 '웃드리'들이 하지. 여긴.)

103048 @ 조침떡 많이 허는데?(조 시루떡 많이 하는데?)

103048 #1 옛날은. 이젠 안 허여. 먹도 안 허여. 조침떡은이 ᄑᆞᆺ 징징이 놩 먹으민이 맛잇어.(옛날은. 이젠 안 해. 먹도 안 해. 조 시루떡은 팥 층층이 놔서 먹으면 맛있어.)

103048 @ 무우도 노던데?(무도 놓던데?)

103048 #1 음, 무우는이 희린 것엔 안 뒈여.(음, 무는 찰진 것엔 안 돼.)

103048 @ 아아.(아아.)

103048 #1 무우는이 쏠, 백쏠ᄀᆞ루에.(무는 쌀, 흰쌀 가루에.)

103048 @ 아아.(아아.)

103048 #1 것에 허터야 좋아. 그것에 허껑 치민 그냥 헤영헌디, 고구만 썰엉 노민이 저 다 나타나곡이 무운 썰민 나타나지 안허여.(것에 섞어야 좋아. 그것에 섞어 치면 그냥 하얀데, 고구만 썰어 놓으면 저 다 나타나고 무는 썰면 나타나지 않아)

103048 @ 조에?(조에?)

103048 #1 친떡 칠 때.(시루떡 찔 때.)

103048 @ 게난 침떡 칠 때? 조침떡 칠 때? 아니 백설기?(그러니까 시루떡 찔 때? 조 시루떡 찔 때? 아니 백설기?)

103048 #1 백설기에.(백설기에.)

103048 @ 백설기에. 무우는?(백설기에. 무는?)

103048 #1 조침떡은 고구마 썰어놓고.(조 시루떡은 고구마 썰어놓고.)

103048 @ 아, 조침떡은.(아, 조 시루떡은.)

103048 #1 것도 쏠에 매지.(것도 쌀에 매지.)

103048 @ 으음.(으음.)

103048 #1 희린 좁쏠엔 고구마 썰어 놓고, 또 백설기는 그 무우 썰어 놓고.(차좁쌀

엔 고구마 썰어 놓고, 또 백설기는 그 무 썰어 놓고.)

103048 @ 으음. 백설기는 그 무우 썰어 놓고. 산듸 농사헐 때 뭐 어려웟던 건 어섯수과?(으음. 백설기는 그 무 썰어 놓고. 밭벼 농사할 때 뭐 어려웠던 건 없었습니까?)

103048 #1 어려운 건 무신 거.(어려운 건 무슨 거.)

103048 @ 태풍 쳥 엇어졋다든가.(태풍 쳐서 없어졌다든가.)

103048 #1 대풍 불민 아무것도 못 헤먹어. 산듸고 콩이고 다 씰어부는 디 잇나? 것이 츰 거 ᄇᆞ름.(대풍 불면 아무것도 못 해먹어. 밭벼고 콩이고 다 쓸어버리는데 있나? 것이 참 거 바람.)

103048 @ 산듸농사도 뜬 밧에서 잘 뒈는 때가 잇지만 막 어렵고, 안 뒐 수도 잇지예?(밭벼농사도 뜬 밭에서 잘 되는 때가 있지만 막 어렵고, 안 될 수도 있지요?)

103048 #1 농사 안 뒐 때가 하.(농사 안 될 때가 많아.)

103048 @ 어려와?(어려워?)

103048 #1 응. 농사 안 뒐 때가 풍년 진 땐 진짜 재미나게 떨어져. 그게.(응. 농사 안 될 때가 풍년 될 땐 진짜 재미나게 떨어져. 그게.)

103048 @ 아아.(아아.)

103048 #1 건디 ᄇᆞ름이나 아시다 패따까 노민 씨도 잃어 불어. 씨도.(그런데 바람이나 가져다 파헤쳐 노면 씨도 잃어버려 씨도.)

103048 @ 아아. 씨도.(씨도.)

103048 #1 씨도 못 건져. 그냥. 문딱 대풍에 물 ᄀᆞᆯ랑 그냥.(씨도 못 건져. 그냥. 모두 태풍에 물 잠겨서 그냥.)

103048 @ 그 씨는 어떻게 그냥 하얀 곤쏠에.(그 씨는 어떻게 그냥 하얀 흰쌀에.)

103048 #1 그거 뒈면은 왜 거 육지 나룩밧디 잇잖아. 똑 그와 같아. 산듸가.(그거 되면 왜 거 육지 벼 밭에 있잖아. 꼭 그와 같아 밭벼가.)

103048 @ 음. 그거 놧당 씨를 뿌립니까? 아니민.(음. 그거 놨다가 씨를 뿌립니까? 아니면.)

103048 #1 그거 가을에 잘 ᄆᆞᆯ렷다가 뒷 해는 거 씨로 헹.(그거 가을에 잘 말렸다가 뒷 해는 거 씨로 해서.)

103048 @ 뿌리믄 나?(뿌리면 나?)

103048 #1 나지.(나지.)

103048 @ 육지 ᄀᆞ뜬 경우는 모내기 헹 그거 심급디다만은.(육지 같은 경우는 모내기해서 그거 심습디다만.)

103048 #1 그것도 그 사람덜도 씨 놧다가 모내길 놈지. 씨 엇이 그냥 모내길 노나?(그것도 그 사람들도 씨 놨다가 모내길 놓지. 씨 없이 그냥 모내길 놓나?)

103048 @ 그니까.(그러니까.)

103048 #1 그 사름덜토 나룩을 허면은 씰 놔 둬. 그때는 모내기에 모종 놀 때 그때 씨허고, 똑 ᄀᆞ타.(그 사름들도 벼를 하면 씰 놔 둬. 그때는 모내기에 모종 놀 때 그때 씨하고, 꼭 같아.)

103048 @ 똑같아? 물이 여기는 밧 없다 잇다가?(똑같아? 물이 여기는 밭 없다 있다가?)

103048 #1 여기는 그냥 모종으로 놧다가 삐지.(여기는 그냥 모종으로 놨다가 뿌리지.)

103048 @ 가뭄이나 들민 다 망허켜예? 산듸는.(가뭄이나 들면 다 망하겠네요? 밭벼는.)

103048 #1 산듸만 망허나? 콩이고 뭐고 다.(밭벼만 망하나? 콩이고 뭐고 다.)

103048 @ 게도 산듸가 물을 많이 먹어야 뒈는 거 아니우꽈?(그래도 밭벼가 물을 많이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03048 #1 많이 먹주만은 저 웃드리덜엔이 밧이 떠부니까.(많이 먹지만 저 '웃드리'에는 밭이 떠버리니까.)

103048 @ 아아.(아아.)

103048 #1 경 ᄀᆞ뭄을 안타.(그렇게 가뭄을 안 타.)

103048 @ 어어.(어어.)

103048 #1 이렌 막 땅이 쎄여 노니까 ᄀᆞ뭄을 잘타주. 산쪽더레 웃드리더레 와흘더레 선흘 뭐 와산 그런 더렌 땅이 뜨니까 저 그 지실 감저 그런 것도 잘 뒈어. 뜬 땅이난, 지실 감자도 잘뒈어.(이렌 막 땅이 쎄 버리니까 가뭄을 잘 타지. 산쪽더레 '웃드리'에 와흘에 선흘, 뭐 와산 그런데는 땅이 뜨니까 저 그 지실 감자 그런 것도 잘 돼. 뜬 땅이니까, 지실 감자도 잘돼.)

103048 @ 산디쏠로는 뭐를 헤서 먹습니까? 밥, 떡? 밥은 매일 먹질 못헷잖아예.(밭벼쌀로는 뭐를 해서 먹습니까? 밥, 떡? 밥은 매일 먹질 못했잖아요.)

103048 #2 제ᄉᆞ멩질 때나 쓰지.(제사명절 때나 쓰지.)

103048 @ 떡은 곤떡?(떡은 흰떡?)

103048 #2 곤떡도 허고 친떡도 치고.(흰떡도 허고 시루떡도 치고.)

103048 @ 친떡도 치고. 근디 이거 산듸쌀 엇인 집에서는 엄청 귀허겟다예?(시루떡도 찌고. 그런데 이거 밭벼쌀 없는 집에서는 엄청 귀하겠네요?)

103048 #2 엄청 귀허주.(엄청 귀하지.)

103048 @ 게믄 제사 때만 쓰고예. 이거를 보리쌀로 환산헷을 때 산디쏠 흔 뒈를 살려면 보리쌀 멧 뒈가 필요헌고예?(그러면 제사 때만 쓰고요. 이거를 보리쌀로 환산했을 때 밭벼쌀 한 되를 살려면 보리쌀 몇 되가 필요한가요?)

103048 #2 아이고 비쌋어. 옛날은 저 지금 육지에서 온 나룩쏠도 사젠 허민 보리쏠 너 말 줘야 그 나룩쏠 흔 말 사낫어.(아이고 비쌌어. 옛날은 저 지금 육지에서 온 볍쌀도 사려고 하면 보리쌀 네 말 줘야 그 볍쌀 한 말 샀었어.)

103048 @ 보리쏠 너 말 줘야 육지 나룩쏠 흔 말?(보리쌀 네 말 줘야 육지 볍쌀 한 말?)

103048 #2 네 곱젱이 줘야 뒈어.(네 곱 줘야 돼.)

103048 @ 네 곱을 줘야 뒈어예. 보리쏠 네 곱을 줘야 나룩쏠 흔 말예.(네 곱을 줘야

돼요. 보리쌀 네 곱을 줘야 볍쌀 한 말이요.)

103048 #2 그렇지.(그렇지.)

고구마 농사

103049 @ 고구마 농사를 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합니까?(고구마 농사를 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합니까?)

103049 #1 고구마는이 고구마 잇잖아 쪄먹는 거. 그거이 겨울에민 푸대에 이런 방에 놧돵도 씨 놓고, 또 경 안허민 감자 눌듯 통 팡은에 조침 영 둘러 놩 모종도 놓고, 또 푸대에도 놧당허고, 하영 놓는 사람은 눌엇다가도.(고구마는 고구마 있잖아. 쪄먹는 거. 그거 겨울이면 부대에 이런 방에 놨다가도 씨 놓고, 또 그렇게 안하면 감자 가리듯 통 파서 조침 이렇게 둘러 놔서 모종도 놓고, 또 부대에도 놨다가 하고, 많이 놓는 사람은 가리었다가도.)

103049 @ 눌엇다가 구덩이 팡?(가리었다가 구덩이 파서?)

103049 #1 응. 폼도 허고.(응. 팔기도 하고.)

103049 @ 조침이 뭣꽈?('조침'이 뭡니까?)

103049 #1 조 남댕이. 땅을 파가지고 조 남뎅이를 바위에 타 놔. 밑에는 콩꼬질 깔고, 경 헤 놩 이제 고구마를 어느 정도 노면은, 이젠 그 조 남댕이를 영 가운데 놩 흑으로 올리지.(조 줄기. 땅을 파가지고 조 줄기를 바위에 타 놔. 밑에는 콩깍지 깔고, 그렇게 해 놔서 이제 고구마를 어느 정도 노면, 이젠 그 조 줄기를 이렇게 가운데 놔서 흙으로 올리지.)

103049 @ 아아. 흙으로 덮어 불어?(아아. 흙으로 덮어 버려?)

103049 #1 그래. 덮어놩 또 우에는 ᄂᆞ람지 덕끄고 그 다음은 주젱이 더끄고, 물 못 들어가게, 물 들어가민 썩어 불어.(그래. 덮어 놔서 또 위에는 이엉 덮고 그 다음은 주저리 덮고, 물 못 들어가게, 물 들어가면 썩어 버려.)

103049 @ 경 헹 썩어부니까예. 겨울 씨 헐 때야 꺼내여? 중간에 꺼넹 먹기도.(그렇게 해서 썩어버리니까요. 겨울 씨 할 때야 꺼내요? 중간에 꺼내서 먹기도.)

103049 #1 씨 헐 때는 하영 놓는 사람은 자기네 우영팟디나 밧구석이나 걸 묻어근에 흔 멧 가마니씩 묻어. 경 헹 ᄂᆞ람지로 더껑 놔두고 또 집이는 얼마 하영 못허지게. 자기네 눌만이.(씨 할 때는 많이 놓는 사람은 자기네 텃밭에나 밭 구석에나 걸 묻어서 한 몇 가마니씩 묻어. 그렇게 해서 이엉으로 덮어 놔두고 또 집에는 얼마 많이 못하지. 자기네 가릴만큼.)

103049 @ 방구석에 우리도 ᄯᅳ뜻허게?(방구석에 우리도 따뜻하게?)

103049 #1 ᄯᅳ로 헷당은에 그놈의 고구말 이렇게 조사가지고이 감저 모종을 놓젠 허믄 조사가지고 감저를 이렇게 쭐쭐이 놔놩 흑을 덮어. 다 영 놔근에 골 지성 놩 흑 더펑 놔두민 나.(따로 했다가 그놈의 고구말 이렇게 쪼아가지고 고구마 모종을 놓으려고 하면 쪼아가지고 고구마를 이렇게 줄줄이 놔 놓고 흙을 덮어. 다 이렇게 놔서 골 지성

놔서 흙 덮어서 놔두면 나.)

103049 @ 응.(응.)

103049 #1 순 나면은 이만썩 커 가민 그놈을 비어당은에 싱그잖허나? 밧에.(순 나면은 이만큼 커 가면 그놈을 베어다가 심지 않니? 밭에.)

103049 #2 종자를 잘 놔야 뒈. 종자를 잘 지와야 고구마는.(종자를 잘 놔야 돼. 종자를 잘 지워야 고구마는.)

103050 @ 고구마는 언제, 어떻게 갑니까?(고구마는 언제, 어떻게 갑니까?)

103050 #1 고구마, 아, 보릿그르에게.(고구마, 아, 보리그루에.)

103050 @ 보릿그르. 그믄 음력 보리 끝난 다음?(보리그루. 그러면 음력 보리 끝난 다음?)

103050 #1 음. 보리 비어불민 그냥 고구마 싱그잔아.(음. 보리 베어버리면 그냥 고구마 심잖아.)

103050 @ 그믄 음력 오월말쯤, 보리 비어난 다음 고구마 싱 거?(그러면 음력 오월말쯤, 보리 베어난 다음 고구마 심어?)

103050 #1 음.(음.)

103050 @ 으음. 고구마 헤 난 다음은 조도 싱거야 뒈곡, 저, 저 보리 헤난 다음은 고구마?(으음. 고구마 한 다음은 조도 심어야 되고, 저, 저 보리 한 다음은 고구마?)

103050 #1 보리 헤난 다음엔 조도 갈고 밧 엇는 사람은 흔펜이 요디는 조 갈고, 요디는 고구마 싱그고 경 헤.(보리 한 다음엔 조도 갈고 밭 없는 사람은 한편에 요기는 조 갈고, 요기는 고구마 심고 그렇게 해.)

103050 @ 아아.(아아.)

103050 #1 흔펜씩.(한편씩.)

103050 @ 고구마는 언제, 어떻게 갑니까?(고구마는 언제, 어떻게 갑니까?)

103050 #2 봄 뒈민 고구마 종자를 고구마를 땅에 묻으민 그게 순이 나거든. 순이 나면 이제 때가 고구마 심을 때가 뒈민 그 순을 따다가 심으민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고.(봄 되면 고구마 종자를 고구마를 땅에 묻으면 그게 순이 나거든. 순이 나면 이제 때가 고구마 심을 때가 되면 그 순을 따다가 심으면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고.)

103051 @ 고구마 밧 걸름은 어떻게 준비합니까?(고구마 밭 거름은 어떻게 준비합니까?)

103051 #1 고구마 경 걸름 안 줘. 거 보리 헐 때이 듬북 잇잖아.(고구마 그렇게 거름 안 줘. 거 보리 할 때 듬북 있잖아.)

103051 @ 듬북?(듬북?)

103051 #1 곡제기[82] ᄀᆞ튼 거 그런 거 보리 헐 때 들영 놔두민 고구마 헐 때는 잘 들어.('곡제기' 같은 거 그런 거 보리 할 때 들여서 놔두면 고구마 할 때는 잘 들어.)

103051 @ 아아.(아아.)

103051 #1 미릇 그걸 걸름이 땅에 썩으니까게.(미리 그걸 거름이 땅에 썩으니까.)

82) '곡제기'는 해초로 고제기 듬북이라고도 한다.

103051 @ 그믄 보리 헤난 디 고구마를 주로 많이 싱것구나예?(그러면 보리 했었던 데 고구마를 주로 많이 심었군요?)

103051 #1 어어.(어어.)

103051 @ 보리 헤난 디 조도 심곡.(보리 했었던 데 조도 심고.)

103051 #1 조도 갈고 고구마도 심고.(조도 갈고 고구마도 심고.)

103051 @ 근데 보리에 걸름을 할 때 곡제기나 듬북 같은 거 많이 하면 밧이 좋아서?(근데 보리에 거름을 할 때 '곡제기'나 듬북 같은 거 많이 하면 밭이 좋아서?)

103051 #1 그런 때는 곡제기 들일 때는이 우리는 음력으로만 씨여이. 이월달에 그게 저 곡제기 들이지. 경 안허민 또 갈멍이 보리 나기 전에도 들여불곡.(그런 때는 '곡제기' 들일 때는 우리는 음력으로만 써. 이월에 그게 저 '곡제기' 들이지. 그렇게 안 하면 또 갈면서 보리 나기 전에도 들여 버리고.)

103051 @ 음.(음.)

103051 #1 곡제기는 자기 틈나는 냥, 보리 날 때 들이는 사름, ᄒᆞ기전에 그냥 꼴아부는 사름 헤여. 사름덜.('곡제기'는 자기 틈나는 냥, 보리 날 때 들이는 사람, 하기 전에 그냥 깔아 버리는 사람 해. 사람들.)

103051 @ 고구마 밧 걸름은?(고구마 밭 거름은?)

103051 #2 뭐이든지 좋아. 땅이 좋으면, 이 제일 좋은 것이 해초, 바다의 해초.(뭣이든지 좋아. 땅이 좋으면, 이 제일 좋은 것이 해초, 바다의 해초.)

103051 @ 듬북. 또 어떤 해초가 잇수과? 듬북하고 또?(듬북. 또 어떤 해초가 있습니까? 듬북 하고 또?)

103051 #2 듬북이나 소걸름이나, 그런 거 놔가민 고구마가 잘 들어.(듬북이나 소 두엄이나, 그런 거 놔 가면 고구마가 잘 들어.)

103051 @ 듬북, 감태?(듬북, 감태?)

103051 #2 뭐 그런 거 노민 썩 좋죠.(뭐 그런 거 놓으면 썩 좋죠.)

103051 @ 그믄 생거 놉니까? 바당에서 그 짠짠헌 거를, 말령 놉니까?(그러면 생 거 놓습니까? 바다에서 그 짠짠한 거를, 말려서 놓습니까?)

103051 #2 옛날은 듬북을 막 ᄆᆞᆯ렷다가, 갖다 논는 거주.(옛날은 듬북을 막 말렸다가, 갖다 놓는 거지.)

103052 @ 그믄 고구마는 어떻게 심습니까? 그냥 아까처럼? 골을 만들엉?(그러면 고구마는 어떻게 심습니까? 그냥 아까처럼? 골을 만들어서?)

103052 #1 쉐로 갈민이.(소로 갈면.)

103052 @ 쉐로 갈면.(소로 갈면.)

103052 #1 이만썩헤여. 막 쉐로 올리민 거민 그거 이제 고구마줄, 어디 가시? 고구마 줄로이 영 ᄀᆞᆯ 긋엉 탁 놩은에 양쪽으로 다 흑 더껑 톡톡 두들고, 또 경 헹 놔. 경 놔두민 그게 살아근에 고구마 뒈어.(이만큼 해. 막 소로 올리면 그러면 그거 이제 고구마 줄기, 어디 갔지? 고구마 줄기로 이렇게 골 그어서 탁 놔서 양쪽으로 다 흙 덮어서 톡톡 두드리고, 또 그렇게 해서 놔. 그렇게 놔두면 그게 살아서 고구마 돼.)

103052 @ 줄기가 뻗어예?(줄기가 뻗어요?)

103052 #1 응.(응.)

103052 @ 고구마는 어떻게 심읍니까? 아까처럼.(고구마는 어떻게 심습니까? 아까처럼.)

103052 #2 밧이렁을 이렇게 쭉 갈아가지고 이렁을 만들어서 우에다 심어가지. 이렁 우에다.(밭이랑을 이렇게 쭉 갈아가지고 이랑을 만들어서 위에다 심어가지. 이랑 위에다.)

103053 @ 고구마 검질은 몇 번 맵니까?(고구마 김은 몇 번 맵니까?)

103053 #1 고구마는이 풀 이렇게 고구마줄로 더꺼져 부난 검질 베랑 엇어. 흔 번쯤 메매.(고구마는 풀 이렇게 고구마 줄로 덮어져 버리니까 별로 없어. 한 번쯤 매.)

103053 @ 흔 번.(한 번.)

103053 #1 줄이 나니까 땅에 더꺼져 부니까 태양빛을 맞아야 검질이 날 건디 태양빛을 못 맞잖아. 감제줄로 더꺼져 부난 게난 흔 불벳긔 안 매어.(줄이 나니까 땅에 덮어져 버리니까 태양빛을 맞아야 김이 날 건데 태양빛을 못 맞잖아. 고구마 줄기로 덮어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한 벌밖에 안 매.)

103053 @ 흔 벌예.(한벌이요.)

103053 #1 흔벌. 감제 줄이 엉키는 덕분에 검질이 나질 못 헤. 흔 번 맬까?(한 벌.고구마 줄기가 엉키는 때문에 김이 나질 못 해. 한 번 맬까?)

103053 #2 고구마 밧데는 고구마 줄이 엉키기 때문에 별로 검질이 못나고, 고구마 줄이 엉켜.(고구마 밭에는 고구마 줄기이 엉키기 때문에 별로 김이 못나고, 고구마 줄이 엉켜.)

103053 @ 멧 번 정도 두 번?(몇 번 정도 두 번?)

103053 #2 잘허민 흔 번 멜까말까 그자.(잘하면 한 번 맬까말까 그저.)

103054 @ 고구마 밧에는 어떤 검질들이 자랍니까?(고구마 밭에는 어떤 김들이 자랍니까?)

103054 #1 건 마찬가지 뭐 저 제완지 ᄀᆞ튼 거, 쒜비념 ᄀᆞ튼 거, 또 쉐터럭 ᄀᆞ튼 거, 그런 거 그난 여름검질 ᄯᅮ나지. 겨울에는 소시락콜 나고 대우리 나고, 보리왓디, 그냥 콩밧디는 조팟티나 콩밧띠나 쒜비념, 뭐 소시락콜이 아니고 쉐터럭, 검질일름도 막 하. 무신 뚤감낭이여, 아들감낭이여.(건 마찬가지 뭐 저 바랭이 같은 거, 쇠비름 같은 거, 또 김의 털 같은 거, 그런 거 그러니까 여름 김 다르지. 겨울에는 '소시락콜' 나고 대오리 나고, 보리밭에, 그냥 콩밭에는 조밭에나 콩밭에나 쇠비름, 뭐 '소시락콜'이 아니고 김의 털, 김 이름도 아주 많아. 무슨 '뚤감낭'이여, '아들 감낭'여.)

103054 @ 예? 뚤?(예? 딸?)

103054 #1 뚤감낭. 그 검질도이 납작헌 거는 뚤감낭이옌 허고, ᄒᆞ꼼 높은 건 메누리감낭이옌, 메누리이 감 타레 갓당 가달 쩨졍 죽으렌, 뚤은이 아까우니까.('뚤감낭' 그 김도 납작한 거는 '뚤감낭'이라고 하고, 조금 높은 건 '메느리감낭'라고. 며느리 감 따러 갔다가 다리 찢어져서 죽으라고, 딸은 아까우니까.)

103054 @ 뚤감낭, 메누리감낭?(‘뚤감낭’, ‘메느리감낭’?)

103054 #1 메누리 오죽 미와사, 놉은 걸로만 허느니?(며느리 오죽 미워야, 높은 걸로만 하니?)

103054 @ 검질 이름이 뚤감낭, 아들감낭?(김 이름이 ‘뚤감낭’, ‘아들감낭’?)

103054 #1 그렇지.(그렇지.)

103054 @ 크흐흐흐흐.(크흐흐흐흐.)

103054 #1 무사 웃어? 옛날 할망덜, 춤. 지독헌 할망덜.(왜 웃어? 옛날 할머니들, 참. 지독한 할머니들.)

103054 @ 현실이 그런 걸 뭐예?(현실이 그런 걸 뭐요?)

103054 #1 지네 성 손진 빨리 걸어. 업은 애기 발 실려왐서. 웨손진 발 실려왐젠 허고 걷는 애긴 빨리 걸어라 허고.(자기네 성 손진 빨리 걸어. 업은 애기 발 실린다고, 외손진 발 시린다고 걷는 애긴 빨리 걸어라 하고.)

103054 @ 겐디 웨손진 지 뭐 아니렌 허멍 또 경 허는 사람도 이십디다마는?(그래도 외손진 지 뭐 아니라고 하면서 또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디다만?)

103054 #1 거 웨냐허믄이, 아들만 이시민 메누리 애기 나민 경허곡 뚤은 죽어불민 걸로 끗이지.(거 왜냐하면, 아들만 있으면 며느리 애기 나면 그렇게 하고 딸은 죽어버리면 걸로 끝이지.)

103054 @ 거니까.(그러니까.)

103054 #1 게난 뚤 씨앗은 원수ᄀᆞ치 허고, 메누리 씨앗은 막 어화덩싹 헹 막, 막 그냥 아덜 ᄒᆞ나에 메누리만, 이 메누리도 좋다. 저 메누리도, 막 뚤 씨앗은 원수라.(그러니까 딸 씨앗은 원수같이 하고, 며느리 씨앗은 막 ‘어화덩싹’ 해서 막, 막 그냥 아들 하나에 며느리만, 이 며느리도 좋다. 저 며느리도, 막 딸 씨앗은 원수라.)

103054 @ 원수까지 아니주만은?(원수까지 아니지만?)

103054 #1 원수지. 뚤 씨앗 삼으레 가는디 다 할망이 뚜라가는디. 얼마나 원수ᄀᆞ치 생각허나? 겐, 뚤이게 넴편 잃엉 뚠 여자허고 살아봐라! 그 할망이 얼마나 화 날거냐? 뚤 안 뒈 가민 얼마나 화나냐? 경 허는 것도 이해가 가.(원수지. 딸 씨앗 삼으러 가는데 다 할머니가 따라가는데. 얼마나 원수같이 생각하나? 그러니까, 딸이 남편 잃어서 딴 여자하고 살아봐라! 그 할머니가 얼마나 화 날거니? 딸 안 돼 가면 얼마나 화나니? 그렇게 하는 것도 이해가 가.)

103054 @ 손지는 아깝지 않읍니까?(손자는 아깝지 않습니까?)

103054 #1 겐디 메누리 미와 가민 손지도 미웁넨. 메누리 미우민 니 에미 ᄀᆞ찌.허멍, 조용허라! 옛날 할망덜, 니 에미 닮덴, 잘못허민 아덜이나 안 거닐고 왜 에미 건드리나? 니 에미 모냥으로.(그런데 며느리 미워 가면 손자도 미운다고. 며느리 미우면 너 어미 같이 하면서, 조용해라! 옛날 할머니들, 너 어미 닮았다고, 잘못하면 아들이나 안 거닐고 왜 어미 건드리나? 너 어미 모양으로.)

103054 @ 에구, 춤말로.(에구, 참말로.)

103054 @ 고구마 밭에는 어떤 검질들이 자랍니까?(고구마 밭에는 어떤 김들이 자랍

니까?)

103054 #2 고구마 밧딘 그 고구마 줄이 엉키기 덕분에 검질이 나질 못헤.(고구마 밭엔 그 고구마 줄이 엉키기 때문에 김이 나질 못해.)

103055 @ 고구마 수확은 어떻게 합니까?(고구마 수확은 어떻게 합니까?)

103055 #1 팔 때는이 줄을 비어. 호미로, 비어근에 막 요만씩 비멍 그냥 다른 더레 놔. 호미로 비어근에 다른 디레 놔. 감제 파나민 그 감제줄을 그 자리에서 ᄆᆞᆯ려야 허어. 고구마 파나민 ᄀᆞᆯ갱이로도 파고 쉐로도 갈고, 쉐 잇인 사람은 쉐로 갈고. 쉐 엇인 사람은.(팔 때는 줄을 베. 호미로, 비어서 막 요만씩 베면서 그냥 다른데 놔. 호미로 베어서 다른 데 놔. 고구마 파나면 그 고구마 줄기를 그 자리에서 말려야 해. 고구마 파나면 호미로도 파고 소로도 갈고, 소 있는 사람은 소로 갈고. 소 없는 사람은.)

103055 @ 그믄 감젯줄 뻗은 걸을 저 베엉은에 하나씩 헹 또 싱급니까?(그러면 고구마줄 뻗은 걸을 저 베어서 하나씩 해서 또 심습니까?)

103055 #1 그렇지 한 웨로.(그렇지 한 외로.)

103055 @ 웨로 ᄒᆞᆫ 가닥씩?(외로 한 가닥씩?)

103055 #1 웨로 감제줄이 막 나민 이만썩도 허여. 게민 두 개, 싀개 끊엉 게난 ᄌᆞ주 끈으민 이 거 감제가 ᄌᆞ주ᄌᆞ주 나고 웨로 질게 나민 경 하영 올지 못 헤여. 거난 그 이치를 생각헤도게, 요만썩, 요만썩허민 다 ᄆᆞ디마다 다.(외로 고구마 줄기가 막 나면 이만큼도 해. 그러면 두 개, 세 개 끊어서 그러니까 자주 끊으면 이 거 고구마가 자주자주 나고 외로 길게 나면 그렇게 많이 열지 못해. 그러니까 그 이치를 생각해도, 요만큼씩, 요만큼씩 하면 다 마디마다 다.)

103055 @ ᄆᆞ디마다 다 짤르는 것도 기술이다예?(마디마다 다 자르는 것도 기술이네요?)

103055 #1 그렇지.(그렇지.)

103055 @ 경험이 많은 사람이?(경험이 많은 사람이?)

103055 #1 우리 다 경허멍 이만씩 헌 건이 감저 놓기가 쉬와이. 놈보다 ᄆᆞᆫ여허지만, 감제 올리젠 허믄이 끈으멍, 끈으멍 싱거. 이마니 줄 벋으냥 아녀. 그거 세도막이나 끈어야.(우리 다 그렇게 하면서 이만큼씩 한 건이 고구마 놓기가 쉬워. 남보다 먼저 하지만, 고구마 열리려고 하면 자르면서, 자르면서 심어. 이만큼 줄 뻗은 대로 안 해. 그거 세도막이나 끊어야.)

103055 @ 삼촌은 물질허레 갈 시간도 엇인디 그런 것도 허기도?(삼촌은 물질하러 갈 시간도 없는데 그런 것도 하기도?)

103055 #1 그거 다 허지. 물질 못헤여. 그거 허젠 허민.(그거 다 하지. 물질 못해. 그거 하려고 하면.)

103055 @ 하루는 헤야 뒈니까 모다들엉.(하루는 해야 되니까 모여들어서.)

103055 #1 그거 다 끝나야 물질 허지. 거, 세상에 일 년 먹을 농ᄉᆞ 네부 뒁 바당에 가냐?(거 다 끝나야 물질하지. 거, 세상에 일 년 먹을 농사 내버려 두고 바다에 가냐?)

103055 @ 음.(음.)

103055 #1 생각을 헤봐라.(생각을 해봐라.)

103055 @ 그건 헐 땐 헤야?(그건 할 땐 해야?)

103055 #1 그거 헤둬사 놀 때는 바다에 가지.(그거 해둬야 놀 때는 바다에 가지.)

103055 @ 지네 밧디 안허는 사람은 바다에 가곡.(자기네 밭에 안하는 사람은 바다에 가고.)

103055 #1 바다에 뎅기는 사람은 멧 개 엇어. 저 웃트리 사람덜은 바다 흴 충도 몰라.(바다에 다니는 사람은 몇 개 없어. 저 '웃드르' 사람들은 바다 헤엄 칠 줄도 몰라.)

103055 @ 음.(음.)

103055 #1 게난 이 바다 즈끗디 사는 사름벳긔 안 헤여. 옛날은이 해녀 아니 알아줘. 옷 벗엉 뎅기난.(그러니까 이 바다 곁에 사는 사람밖에 안 해. 옛날은 해녀 안 알아줘. 옷 벗어서 다닌다고.)

103055 @ 음.(음.)

103055 #1 불각재기라고 해.('불각재기'라고 해.)

103055 @ 불각재기.('불각재기.')

103055 #1 원 알아주지 안 허는 거. 옷 벗엉 뎅겸젠 헹 아니 알아줘. 이제는 뭐 해녀가 어쩌고, 저쩌고, 해녀 메누린 허지도 안허여.(원 알아주지 안하는 거. 옷 벗어서 다닌다고 해서 안 알아줘. 이제는 뭐 해녀가 어쩌고, 저쩌고, 해녀 며느린 하지도 안 해.)

103055 @ 게난마씨. 에이구, 혹시나 물려 받으카부덴?(그러니까요. 에이구, 혹시나 물려 받을까봐?)

103055 #1 아니 웨냐하면이 그 옷 벗엉 물질허는거옌 헹.(아니 왜냐면 그 옷 벗어서 물질하는 거라고 해서.)

103055 @ 부끄럽다고?(부끄럽다고?)

103055 #1 챙피하다고.(창피하다고.)

103055 @ 그건 아니주게. 고구마 수확은 어떻게 합니까? 파기.(그건 아니죠. 고구마 수확은 어떻게 합니까? 파기.)

103055 #1 뭐?(뭐?)

103055 @ 팔 때 막 큰 거 어만큼 커?(팔 때 막 큰 거 얼마만큼 커?)

103055 #1 감저, 막 이마닌 안 허여. 막 커야 이거지 이만씩, 거민 영 들민 다랑 다랑 다랑.(고구마, 막 이마큼 안 해. 막 커야 이거지 이만큼씩, 그러면 이렇게 들면 주렁주렁 주렁.)

103055 @ 벌겅 것도 잇고 하얀 것도 잇고?(빨간 것도 있고 하얀 것도 있고?)

103055 #1 아니, 감잰 종류로 가.(아니, 고구마 종류로 가.)

103055 @ 종류로예?(종류로요?)

103055 #1 뿔근 걸로 허민 감저도 빨강허고.(붉은 걸로 하면 고구마도 빨강하고.)

103055 @ 예.(예.)

103055 #1 흰 씨로 허민 고구마도 희양허여.(흰 씨로 하면 고구마도 하양 해.)

103055 @ 희고.(희고.)

103055 #1 그 씨로 가.(그 씨로 가.)

103055 @ 씨로예? 두 가지 종류가 잇지예?(씨로요? 두 가지 종류가 있지요?)

103055 #1 게난 두 가지지. 물 감자가 잇고 모인 감저가 잇고 물감잔이 나 대가리만씩 크고, 그 폭삭폭삭허는 건 소랑소랑[83] 헹 크도 안 헤. 이마니. 지일 커야 이거지.(그러니까 두 가지지. 물 고구마가 있고 메진 고구마가 있고 물고구만 내 머리만큼씩 크고, 그 폭삭폭삭하는 건 '소랑소랑' 해서 크지도 않아. 이만큼. 제일 커야 이거지.)

103055 @ 쳥 먹을 때는?(쪄 먹을 때는?)

103055 #1 벌러서 쳐.(잘라서 찌지.)

103055 @ 모인 감자가 맛좋아?(모인 감자가 맛좋아?)

103055 #1 맛좋고, 또 겨울에는 그 희린 감저가 맛잇어.(맛좋고, 또 겨울에는 그 찰고구마가 맛있어.)

103055 @ 아아.(아아.)

103055 #1 고구마ᄀᆞ치, 아니 저, 감ᄀᆞ찌.(고구마같이, 아니 저, 감같이.)

103055 @ 감 ᄀᆞ찌예.(감 같이요.)

103055 #1 이 겨울엔 모인 감자 맛읏어.(이 겨울엔 메진 고구마 맛없어.)

103055 @ 아아.(아아.)

103055 #1 희린 감자라야.(찰진 고구마라야.)

103055 @ 희린 감자는 ᄆᆞᆯ렷당 먹으민게 ᄃᆞᆫ 맛이.(찰진 감자는 말렸다가 먹으면 단 맛이.)

103055 #1 아니 그거 시쳥 가을에 시둘롸.(아니 그거 씻어서 가을에 말려.)

103055 @ 시둘뢍.(말려서.)

103055 #1 시둘뢋당 누는 방에 푸대에 담앗당은에 눈와가민 큰 건 영 벌렁 찌고, 경 즌 건 그냥 찌고, 거 짐치에 쏠이 엇이난 짐치에다가 쏠 대신 먹잖아. 그게.(아니 그거 씻어서 가을에 말려. 말렸다가 누는 방에 부대에 담았다가 눈 와가면 큰 건 이렇게 잘라서 찌고, 그렇게 잔 건 그냥 찌고, 거 김치에 쌀이 없으니까 김치에다가 쌀 대신 먹잖아. 그게.)

103055 @ 요기뒈주게. 것도 맛좋고예?(요기되지. 것도 맛좋고요?)

103055 #1 짐치에다가 콩국에다가.(김치에다가 콩국에다가.)

103055 @ 콩국에도 먹고. 아이고, 밥 안 헤영예?(콩국에도 먹고. 아이고, 밥 안해서요?)

103055 #1 쏠이 엇인 사름은 쏠 신 사람은 경 안해.(쌀이 없는 사람은 쌀 있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해.)

103055 @ 제주도 사람들이 진짜 고구마를 많이 먹엇던 거 닮아. 나도 어렷을 때 고구마 맛좋더라고?(제주도 사람들이 진짜 고구마를 많이 먹었던 거 같아. 나도 어렸을 때 고구마 맛좋더라고?)

103055 #1 고구마?(고구마?)

---

83) '소랑소랑'은 수랑수랑이라고도 하며 가늘고 길쭉한 모양을 말한다.

103055 @ 감자.(고구마.)

103055 #1 우리 감제 팔 때 구웡 먹잖아.(우리 고구마 팔 때 구워서 먹잖아.)

103055 @ 예.(예.)

103055 #1 감자 팜시민 아방이 흔ᄀᆞᆯ채 헤당은에이 짇을커 헤당은에 그냥 구워. 영 헤쌍보민 무랑허여.(고구마 파고 있으면 아방이 한 삼태기 해다가 땔감 해다가 그냥 구워. 그러면 이렇게 헤쳐서보면 물렁해.)

103055 @ 맛좋아.(맛좋아.)

103055 #1 그날 먹당 내불민 묻엉 내불민 뒷날도 먹고, 불치에 냉 묻엉 내불민 아방시난 헷주. 우린 못헤. 짇을커 헤다가 그런 디 강 어떵 헤.(그날 먹다가 내버리면 묻어서 내버리면 뒷날도 먹고, 불치에 냉 묻어서 내버리면 아버지 있으니까 했지 우린 못해. 땔감 해다가 그런데 가서 어떻게 해.)

103055 @ 밧디서?(밭에서?)

103055 #1 밧디서.(밭에서.)

103055 @ 맛 좋앗겟다예.(맛 좋았겠네요.)

103055 #1 겐디 밧디선 맛 잇인디 집인 오난 맛읏더라.(그런데 밭에선 맛있는데 집엔 오니까 맛없더라.)

103055 @ 집이서도 잉경에 가끔 구웡은에?(집에서도 잉경에 가끔 구워서?)

103055 #1 집이서도이.(집에서도.)

103055 @ 즌즌헌 거.(잔잔한 거.)

103055 #1 그 밥허멍 솟강알에서.(그 밥하면서 솥 아궁이에서.)

103055 @ 솟강알에.(솥아궁이에.)

103055 #1 구운 거는 맛이신디 밧디서 구워온 건 맛읏어.(구운 거는 맛있는데 밭에서 구워온 건 맛없어.)

103055 @ 예.(예.)

103055 #1 거 이상허여.(거 이상해.)

103055 @ 헤헤헤.(헤헤헤.)

103055 #1 ᄀᆞ튼 군 감자라도.(같은 군 감자라도.)

103055 @ 예.(예.)

103055 #1 우리 밥헤 나믄 솟강알에서 굽잔아.(우리 밥하고 나면 솥 아궁이에서 굽잖아.)

103055 @ 예.(예.)

103055 #1 밥 헤나믄 그건 맛이신디 밧디선 아져온 건 맛이 업서. 밧디선 맛잇어도.(밥 하고 나면 그건 맛있는데 밭에선 가져온 건 맛이 없어. 밭에선 맛있어도.)

103055 @ 밧디선 맛잇엇는데.(밭에선 맛있었는데.)

103055 #1 김치도 칼로 썬 거는 맛읏어도 손으로 찢어야 맛잇인 거라. 김치도 마찬가지라.(김치도 칼로 썬 거는 맛없어도 손으로 찢어야 맛있는 거라. 김치도 마찬가지라.)

103055 @ 맞아.(맞아.)

103055 #1 지일 이 손이 양념이라.(제일 이 손이 양념이라.)

103055 @ 예. 정성이고예?(예. 정성이고요?)

103055 #1 손으로 헌 음식이 맛잇어. 고무장갑이나 무신 거 헤봐. 맛대가리 어서, 이 손으로만 헤야 맛잇어.(손으로 한 음식이 맛있어. 고무장갑이나 무엇 해봐. 맛대가리 없어, 이 손으로만 해야 맛있어.)

103055 @ 고구마 수확은 어떻게 합니까? 줄을 베어서?(고구마 수확은 어떻게 합니까? 줄을 베어서?)

103055 #2 가을 들면 저 골갱이로 파기도 허고 경 안허민 소로 갈아서 그냥 줄 아찌고, 소로 갈아서 줄 앗고.(가을 들면 저 호미로 파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소로 갈아서 그냥 줄 걷고, 소로 갈아서 줄 걷고.)

103055 @ 소로 갈아서 뭘 헤마씨? 줄 앗쪄?(소로 갈아서 뭘 해요? 줄 걷어?)

103055 #2 이렇게 잇으면 소로 그냥 쑥 갈면은 고구마가 싹 나오거든. 줄 앚쪄.(이렇게 있으면 소로 그냥 쑥 갈면 고구마가 싹 나오거든. 줄 걷어.)

103055 @ 줄 앚끼만 허믄 뒈여. 소로예? 겐디 막 헐리 나지 않을 건가?(줄걷기만 하면 돼. 소로요? 그런데 막 '헌데' 나지 않을 건가?)

103055 #2 아 소로 갈면? 가당 헐리 나는 것도 잇주만은 조심해서 잘 갈면 싹 나와. 많이 헤봣어. 우리도.(아 소로 갈면? 가다가 '헌데' 나는 것도 있지만 조심해서 잘 갈면 싹 나와. 많이 해봤어. 우리도.)

103055 @ 소로 갈고 경 안허믄 사람 손으로 다 파고, 햇빛 낭 땅땅헤 불민 그런 건 어려우켜예? 땅이.(소로 갈고 그렇게 안하면 사람 손으로 다 파고, 햇빛 나서 딴딴해 버리면 그런 건 어렵겠네요? 땅이.)

103055 #2 고구마밧은 우연허면 다 갈 수 잇어.(고구마 밭은 우연하면 다 갈 수 있어.)

103056 @ 고구마는 어떻게 보관합니까?(고구마는 어떻게 보관합니까?)

103056 #1 곧당 보니까.(말하다가 보니까.)

103056 @ 감제눌예?(고구마 가리요.)

103056 #1 감제 눌에 눌엉 그 ᄂᆞ람지 더꺼당 허는 사름도 잇고, 또 구들에 노는 사람도 잇고.(고구마 가리에 가리어서 그 이엉 덮어다가 사람도 있고, 또 방에 놓는 사람도 있고.)

103056 @ 너무 추운데 노민 감제가 안뒈니까 방에 놓드라예?(너무 추운데 놓으면 고구마가 안 되니까 방에 놓대요?)

103056 #1 썩어 불어. 썩어불어.(썩어버려. 썩어버려.)

103056 @ 썩어분덴 허드라예?(썩어버린다고 하데요?)

103056 #1 사람 누는 디가 췌고, 호박도.(사람 누는 데가 최고, 호박도.)

103056 @ 게난예? 호박도?(그러니까요? 호박도?)

103056 #1 호박도. 누는 방에 노민 생전 안 썩고, 베끗디 노민 그냥 빨리 썩어. 호박도 마찬가지.(호박도 눕는 방에 놓으면 생전 안 썩고, 밖에 놓으면 그냥 빨리 썩어. 호

박도 마찬가지.)

103056 @ 거난 안에덜 놓는구나?(그러니까 안에들 놓는구나?)

103056 #1 경허난 사람허고 호박이 ᄀᆞ찌 연결이 잇는 셍이라. 방엔 논 건 안 썩고 베끗디 논 건 썩넨 허난.(그렇게 하니까 사람하고 호박이 같이 연결이 있는 모양이라. 방엔 논 건 안 썩고 밖에 놓은 건 썩는다고 하니까.)

103056 @ 아, 아이고야.(아, 아이고야.)

103056 #1 방에는 ᄯᅳ시잖아. 경허니까 베끗디 노민이 빨리 썩나.(방에는 따시잖아. 그렇게 하니까 밖에 놓으면 빨리 썩나.)

103056 @ 보통 음식은 ᄯᅳ신디 노민 썩는디예?(보통 음식은 따신데 놓으면 썩는데요?)

103056 #1 근디 고구마는 뜻아야. 뜻이민 안 썩어.(그런데 고구마는 따뜻해야. 따뜻하면 안 썩어.)

103056 @ 고구마는 어떻게 보관합니까?(고구마는 어떻게 보관합니까?)

103056 #2 땅 파가지고 땅을 이렇게 파서 옆으로 찧 다 대고 거기다 막 부어가지고 이렇게.(땅 파가지고 땅을 이렇게 파서 옆으로 짚 다 대고 거기다 막 부어가지고 이렇게.)

103056 @ 찧은 무슨 찧으로 옆에 덮어마씨?(짚은 무슨 짚으로 옆에 덮어요?)

103056 #2 물론 조찧도 뒈고, 뭐 좃대도 뒈곡 뭐이든지 옆으로 다 대서 거기다 고구마 넣어가지고 우에는 그 ᄂᆞ람지헹은에 더껑 딱 비 아니 들게 말이여.(물론 조짚도 되고, 뭐 조대도 되고 뭣이든지 옆으로 다 대서 거기다 고구마 넣어가지고 위에는 그 이엉해서 덮어서 딱 비 아니 들게 말이야.)

103056 @ 비 아니 들게예 그건 큰 디는 막 컷수과? 구덩이가.(비 아니 들게요 그건 큰 데는 막 컸습니까? 구덩이가.)

103056 #2 그렇죠.(그렇죠.)

103056 @ 썩지 않을 건가?(썩지 않을 건가?)

103056 #2 썩는 것도 잇고, 또 아니 썩는 것도 잇고, 그게 잘못 뒈민 썩는 게 많허고.(썩는 것도 있고, 또 아니 썩는 것도 있고, 그게 잘못 되면 썩는 게 많고.)

103056 @ 비라도 많이 오민 그게 들어 갈 수도 잇겟다예. 썩는 것도 많겠다예?(비라도 많이 오면 그게 들어 갈 수도 있겠네요. 썩는 것도 많겠네요?)

103056 #2 비가 못 딜게 이렇게 허민 이렇게 싹 헤가지고 이 저 흑을 올려서 비가 오면 바까띠레 나가지. 이 안에 못 들어가게 다 방법이.(비가 못 들어오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싹 해가지고 이 저 흙을 올려서 비가 오면 바깥에 나가지 .이 안에 못 들어가게 다 방법이)

103056 @ 헤질 건가?(할 수 있을 건가?)

103056 #2 지금은 온도계가 잇으니까 헌디 옛날은 온도계 없어노니까, 썩는 일이 많이 잇지.(지금은 온도계가 있으니까 한데 옛날은 온도계 없어버리니까, 썩는 일이 많이 있지.)

103056 @ 씨 고구마는 집 안에도 놉니까?(씨 고구마는 집 안에도 놉니까?)

103056 #2 그냥 밖에 땅 파서 놧다가 봄 나민 그쳐가지고 심고.(그냥 밖에 땅 파서 놨다가 봄 나면 끊어가지고 심고.)

103056 @ 겨울에 하나라도 꺼내먹젠 허민 막 불편허겟다예. 방에도 보관헤난 거 닮은디?(겨울에 하나라도 꺼내먹으려고 하면 막 불편하겠네요. 방에도 보관했던 거 같은데?)

103056 #2 방에 허면 쪼그만 거, 한 푸대 두 푸대 그 정도 허지. 많은 거. 이제 ᄀᆞ뜨민 차로 하나씩 흔 구뎅이에 묻는 데.(방에 하면 조그만 거, 한 부대, 두 부대 그 정도 하지. 많은 거. 이제 같으면 차로 하나씩 한 구덩이에 묻는데.)

103057 @ 고구마로는 무엇을 합니까? 절간고구마는 뻿데기 말헴지예?(고구마로는 무엇을 합니까? 절간고구마는 '뻿데기' 말하지요?)

103057 #1 건 써는 거, 썰엉 ᄆᆞᆯ리와야 헐 거고.(건 써는 거, 썰어서 말려야 할 거고.)

103057 @ 여기도 헷수과? 옛날 뻿데기 헤난 거 ᄀᆞᆯ아줍서?(여기도 했습니까? 옛날 절간고구마 했던 거 말 해 주세요?)

103057 #1 옛날 일제 때에 공출로 헹 썰어낫주.(옛날 일제 때에 공출로 해서 썰어났지.)

103057 @ 공출.(공출.)

103057 #1 이젠 썰지 안 허여. 일제 때 공출로 기계, 감자 써는 기계가 잇어. 그거 빌어당은에이 거 허민 많이 썰어져. 손으로 헌 건이 두껍지 안 허나? 자게 ᄆᆞᆯ리도 안 허고 재기 썰도 못허여. 기계라야, 기계는 영 놩 흔들어가면 착착착착 ᄀᆞᆯ아지는디 칼로 독탁독탁허젠 허민.(이젠 썰지 안 해. 일제 때 공출로 기계, 고구마 써는 기계가 있어. 그거 빌려다가 거 하면 많이 썰어져. 손으로 한 건이 두껍지 안 하나? 재우 마르지도 안 하고 재우 썰지도 못해. 기계라야, 기계는 이렇게 놔서 흔들어 가면 착착착착 갈아지는데 칼로 툭탁툭탁하려고 하면.)

103057 @ 기계는 돈 줭 또 빌어야 뒈는 거라 마을에서 허는 거라?(기계는 돈 줘서 또 빌려야 되는 거라 마을에서 하는 거라?)

103057 #1 아니, 돈 줭 안 빌엉 아는 집이 그냥 빌려줘. 지네 헤나난. 돈 줭 안 빌어.(아니, 돈 줘서 안 빌려서 아는 집이 그냥 빌려줘. 자기네 했었으니까. 돈 줘서 안 빌려.)

103057 @ 어디 지붕에도 널고 햇수꿰?(어디 지붕에도 널고 했죠?)

103057 #1 그 뭐 기신새 ᄇᆞᆯ라불민 줄도 끄너지고 안 뒈어. 초가집이 뿌렁 너는 사람도 잇인디 아닌 사람은 집 판 난덴 안 혀. 마당 ᄀᆞ튼 디 조크르[84]ᄀᆞ튼 디 조크르.(그 뭐 '썩은 새' 밟아버리면 줄도 끊어지고 안 돼. 초가집이 뿌려서 너는 사람도 있는데 아닌 사람은 집 고장 난다고 안 해. 마당 같은 데 '조크르'같은 데 '조크르'.)

103057 @ 조크르?('조크르'?)

103057 #1 조 비어난 그르에 싹싹 ᄆᆞᆯ리와. 겨믄 손으로 다 걷어. 흑 채. 겐 그놈이가

84) '조크르'는 조를 베고 남은 밑동 또는 그 밭을 말한다.

막 ᄆᆞᆯ리민이.(조 베었던 그루에 싹싹 말려. 그러면 손으로 다 걷어. 흙 째. 그래서 그놈이가 막 말리면.)

103057 @ 예.(예.)

103057 #1 큰 그 ᄀᆞ레에다가 ᄀᆞᆯ앙 체로 쳥.(큰 그 맷돌에다가 갈아서 체로 쳐서.)

103057 @ ᄆᆞᆯᄀᆞ레에 초가지붕을 덮었던 묵은 ᄀᆞᆯ앙?(연자매에 초가지붕을 덮었던 묵은 갈아서?)

103057 #1 ᄆᆞᆯ방에에 강, 걸로 ᄀᆞᆯ앙 걸 쳥은에 허민 맛잇어. 조베기도 맛딧고 떡도 치민 푸달푸달.(연자매에 가서, 걸로 갈아서 걸 쪄서 하면 맛있어. 수제비도 맛있고 떡도 치면 풀풀.)

103057 @ ᄀᆞ루 만들엉?(가루 만들어서?)

103057 #1 응, ᄀᆞ루로 감젤 ᄆᆞᆯ리왓다가.(응, 가루로 고구말 말렸다가.)

103057 @ 뻿대기로 조베기랑?(절간고구마로 수제비랑?)

103057 #1 어 뻿대기로, 떡도 허고 친떡도 허고 다 허여.(어 절간고구마로, 떡도 하고 시루떡도 하고 다 해.)

103057 @ 제사에도 허고마씨?(제사에도 하고요?)

103057 #1 제사엔 잘 올리지 안허여.(제사엔 잘 올리지 않아.)

103057 @ 먹을 걸로.(먹을 걸로.)

103057 #1 먹을 걸로.(먹을 걸로.)

103057 @ ᄃᆞᆯ코롬허여?(달콤해?)

103057 #1 ᄃᆞᆯ아.(달아.)

103057 @ 맛좋안예?(맛좋았다고요?)

103057 #1 ᄃᆞᆯ콤, ᄃᆞᆯ콤허지.(달콤, 달콤하지.)

103057 @ 썬 거 ᄆᆞᆯ린 거 쪙도 먹고?(썬 거 말린 거 쪄도 먹고?)

103057 #1 쪙도 먹고, 무으쩟당 쪄야지 그냥 꽝꽝허영 안 뒈여.(쪄도 먹고, 불렸다가 쪄야지 그냥 딴딴해서 안 돼.)

103057 @ 아아.(아아.)

103057 #1 무으쩟당 찌민 복삭복삭허고 그냥 찌민 꽝꽝헤여. 이치적으로 ᄆᆞᆯ른 건 쳐봐라.(불렸다가 찌면 폭삭폭삭하고 그냥 찌면 딴딴해. 이치적으로 마른 건 쪄 봐라.)

103057 @ 맞아.(맞아.)

103057 #1 솖아도 빠당빠당허잔아. 물에이 거 ᄃᆞᆼ가야 그거 익으민 푹삭푹삭 허는디 그냥 치민 짜락짜락.(삶아도 빳빳하잖아. 물에 거 담가야 그거 익으면 폭삭폭삭 하는데 그냥 찌면 '짜락짜락.')

103057 @ 그렇구나.(그렇구나.)

103057 #1 거 이치적으로 다 생각을 허민 그렇지 말이다. ᄆᆞ른 때 치면.(거 이치적으로 다 생각을 하면 그렇지 말이다. 마른 때 찌면.)

103058 @ 고구마 줄기는 어떻게 활용합니까? 고구마 줄긴 옛날에 먹지 안 헤나서 예? 지금에야 먹지.(고구마 줄기는 어떻게 활용합니까? 고구마 줄긴 옛날에 먹지 안했었

죠? 지금에야 먹지.)

103058 #1 우리 일제 땐 먹어낫다. 다 공출헤부니까 영 베껑 그냥 솖아 먹어낫저. 막 찔기더라고, 이파리는 국 끌영 먹고, ᄀᆞ루로 허텅은에.(우리 일제 땐 먹었었다. 다 공출해버리니까 이렇게 벗겨서 그냥 삶아 먹었었다. 막 질기더라고, 이파리는 국 끓여서 먹고, 가루로 섞어서.)

103058 @ 고구마 이파리? 아이고야.(고구마 이파리? 아이고야.)

103058 #1 문작허여. 그게. 우리 안 먹어 본 거 엇나. 쑥도 밥에 서껑 먹어보고, 바당에 패도, 패밥은 못 먹겟더라고 쑥밥은 먹어도.(반드러워. 그게. 우리 안 먹어 본 거 없다. 쑥도 밥에 섞어서 먹어보고, 바다에 패도, 패밥은 못 먹겠더라고 쑥밥은 먹어도.)

103058 @ 아아.(아아.)

103058 @ 까칠까칠.(까칠까칠.)

103058 @ 아아.(아아.)

103058 #1 입에 가면은 쏠 뚜로 그거 뚜로 잇어. 뚜로뚜로 다 갈라져불어. 쑥밥은 뒈는 디 패밥은 못 먹겟더라. 일제 때 하도 공출헤부니까 그런 거 죽지 않으민 살기로 거 먹는 거 아니냐. 겨믄 무지 쏠 엇인 사람이 쏠 도둑질헤 가 불어. 쏠 도둑질, 게난 고팡문 항상 줌그지 안허나? 게난 고팡문 가멍 줌그고 오멍 줌가.(입에 가면은 쌀 따로 그거 따로. 있어. 따로따로 다 갈라져버려. 쑥밥은 되는 데 패밥은 못 먹겠더라. 일제 때 하도 공출해버리니까 그런 거 죽지 않으면 살기로 거 먹는 거 아니냐. 그러면 무지 쌀 없는 사람이 쌀 도둑질해 가버려. 쌀 도둑질, 그러니까 고방문 항상 잠그지 안하나? 그러니까 고방문 가면서 잠그고 오면서 잠가.)

103057 @ 절간고구마는 뻿데기 어떵 널엉 말렷수과?(절간고구마는 '뻿데기' 어떻게 널어서 말렸습니까?)

103057 #2 그냥 떼밧디 그냥 썰어가지고 널어가지고.(그냥 잔디밭에 그냥 썰어가지고 널어가지고.)

103057 @ 걸 뭐 기계로 썰엇수과? 칼로 썰엇수과?(걸 뭐 기계로 썰었습니까? 칼로 썰었습니까?)

103057 #2 기계가 잇엇어. 웨정시대에.(기계가 있었어. 왜정시대에.)

103057 @ 참석허젠 허믄 여러 사람이 다투겟다예, 돈 줭 빌어?(참석하려고 하면 여러 사람이 다투겠네요. 돈 줘서 빌려?)

103057 #2 그거 웨정시대에 막 공출허다시피 헷으니까.(그거 왜정시대에 막 공출하다시피 했으니까.)

103057 @ 빌려줍니까?(빌려줍니까?)

103057 #2 게니까 기계를 다 그 개인들이 가져 잇엇어. 그 저 그걸로 주정을 멘들앗으니까, 왜놈덜이 말이여.(그러니까 기계를 다 그 개인들이 가져 있었어. 그 저 그걸로 주정을 만들었으니까, 왜놈들이 말이야.)

103058 @ 도둑 없다는 말도 거짓말이로구나?(도둑 없다는 말도 거짓말이로구나?)

103058 #1 도둑 잇어. 도둑도, 그 엇인 사람덜 가져가 불어. 도둑이 경 쏠 아사가불

어.(도둑 있어. 도둑도, 그 없는 사람들 가져가 버려. 도둑이 그렇게 쌀 가져가 버려.)

103058 @ 옛날에도예. 전쟁 잇어불고게. 어려와노난 하도.(옛날에도요. 전쟁 있어버리고. 어려워 버리니까 하도.)

103058 #1 어려우난 밧 엇인 사람 농ᄉᆞ헤주고게. 밧 잇인 사람은 부제니까 허는디 밧 엇인 사람은 에이구, 겉보리 두관 뒈 먹으민 ᄒᆞ루헤쳔 강 검질메 줘사 헤여. 겉보리 잇잖아. 겁적 이신 보리, 거 두 관 뒈 먹엇당 헤쳔 강 검질메 줘사, 마당질도 헤쳔 강.(어려우니까 밭 없는 사람 농사해주고. 밭 있는 사람은 부자니까 하는데 밭 없는 사람은 에이구, 겉보리 두관 되 먹으면 하루 종일 가서 김 매줘야 해. 겉보리 있잖아. 껍데기 있는 보리, 거 두 관 되 먹었다가 종일 가서 김 매줘야, 마당질도 종일 가서.)

103058 @ 두 관 뒈 먹엇다는 건 두 번?(두 반 되 먹었다는 건 두 번?)

103058 #1 관뒈 잇잖아? 요마니 헌 거.(관되 있잖아? 요만큼 한 거.)

103058 @ 아, 뒈, 두 뒈?(아, 되, 두 되?)

103058 #1 걸로 두뒈 먹엇당은 헤쳥 강 마당질헤여. 엇는 사람은 너무 괴롭고, 게난 공산당이 좋주게. 느것 나것 엇이 그냥.(걸로 두되 먹었다가 종일 가서 마당질해. 없는 사람은 너무 괴롭고, 그러니까 공산당이 좋지. 너것 나것 없이 그냥.)

103059 @ 공것이 어디 잇수과게? 그냥. 공평하게 말로는예.(공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공평하게 말로는요.)

103059 @ 고구마 농사에 얽힌 추억이나 경험을 말씀혜 주십시오. 생각나는 거? 고구마 범벅?(고구마 농사에 얽힌 추억이나 경험을 말씀해 주십시오. 생각나는 거? 고구마 범벅?)

103059 #1 범벅도 헹 먹고 찌엉도 먹고.(범벅도 해서 먹고 쪄서도 먹고.)

103059 @ 동생이영 쌉고 아니면은 뭐?(동생이랑 싸우고 아니면 뭐?)

103059 #1 아니. 동생이 너무 나이가 잇어노니까 안 싸와. 우리 아시허고는 네술차이고 우리 오래비허고는 일곱술 차이고허니까 원간 차이가 이서부난 안 싸와.(아니. 동생이 너무 나이가 있어버리니까 안 싸워. 우리 아우하고는 네 살 차이고 우리 오빠하고는 일곱 살 차이고 하니까 원간 차이가 있어버리니까 안 싸워.)

103059 @ 고구마 가졍도 어머니 차별허고 이런 건 엇엇수과?(고구마 가져서도 어머니 차별하고 이런 건 없었습니까?)

103059 #1 아덜만 ᄯᅳ로. 아덜은 쏠헤다가 기름밥 헹 먹고, 우린 보리밥 ᄀᆞ튼 거 뭐, 감제밥ᄀᆞ튼 거, 아덜만 ᄯᅳ로 헹.(아들만 따로. 아들은 쌀 해다가 기름밥 해서 먹고, 우린 보리밥 같은 거 뭐, 고구마 밥 같은 거, 아들만 따로 해서.)

103059 @ 범벅허민 무신 범벅이 맛 좋앗수과?(범벅하면 무신 범벅이 맛 좋았습니까?)

103059 #1 ᄆᆞ멀범벅.(메밀범벅.)

103059 @ ᄆᆞ멀범벅도 헤먹엇수과?(메밀범벅도 해먹었습니까?)

103059 #1 헹 먹지. 우에 강 사당은에 웃드리[85] 강.(해서 먹지. 위에 가서 사다가

85) '웃드리'는 웃드르라고도 하며 한라산이 있는 쪽 벽지 근처의 들, 또는 그런 곳에서 이루어진 마을을 뜻한다.

‘웃드리’ 가서.)

103059 @ 웃드리 강, 와흘 그런 딘 ᄆᆞ멀이 좋앗지예?(‘웃드르’ 가서, 와흘 그런 딘 메밀이 좋았지요?)

103059 #1 그지. 그런 디 강이 바꽈당, 쏠 아졍 강 바꽈당. 그딘이 보리가 귀허지게. 땅이 떠부니까, 모멀 ᄀᆞ튼 거,(그지. 그런 데 가서 바꿔다가, 쌀 가져가서 바꿔다가. 거긴 보리가 귀하지. 땅이 떠버리니까, 메밀 같은 거.)

103059 @ 어느 게 더 싸신고예?(어느 게 더 쌌는가요?)

103059 #1 모멀ᄒᆞ고, 조 ᄀᆞ튼 거허고 보리는 잘 안 뒈어. 땅이 떠부니까.(메밀하고, 조 같은 거하고 보리는 잘 안 돼. 땅이 떠버리니까.)

103059 @ 그믄 비슷비슷헷겟다예?(그러면 비슷비슷했겠네요?)

103059 #1 응. 조 ᄀᆞ튼 거. 고구마 ᄀᆞ튼 거 그런 거 심검실 거여.(응. 조 같은 거. 고구마 같은 거 그런 거 심었을 거야.)

103059 @ 조는 여기서 나고?(는 여기서 나고?)

103059 #1 아니 거기도 뒈어. 그디도, 뜬 땅이라도 언간 잘 ᄇᆞᆯ리민.(아니 거기도 돼. 거기도, 뜬 땅이라도 언간 잘 밟으면.)

103059 @ 고구마는 꼭 헷지예? 고구마는 농사를 지엇지예. 먹젠예? 너도 나도?(고구마는 꼭 했지요? 고구마는 농사를 지었지요. 먹으려고요? 너도 나도?)

103059 #1 하영은 안하고, 먹젠 ᄒᆞᆫ 두어 가멩이쯤.(많이는 안하고, 먹으려고 한 두어 가마니쯤.)

103059 @ 두 가멩이예, 고구마 이파리도 먹엇다는 건 처음 들엄다예?(두 가마니요, 고구마 이파리도 먹었다는 건 처음 듣네요?)

103059 #1 건 일제 때에, 제국 때에.(건 일제 때에, 제국 때에)

103059 @ 공출 다 바쳐불민.(공출 다 바쳐버리면.)

103059 #1 다 아져가부니까 이파리벳긔 더 잇나?(다 가져가버리니까 이파리밖에 더 있나?)

103059 @ 이파리도 죽지는 안는구나.(이파리도 죽지는 안는구나.)

103059 #1 안 죽어. 사람이 그렇게 목숨이 질겨.(안 죽어. 사람이 그렇게 목숨이 질겨.)

103059 @ 걸 쌈 싸먹고 이런 건 봐 본적이 엇어부난, 그걸 끓영?(걸 쌈 싸먹고 이런 건 봐 본 적이 없어버리니까, 그걸 끓여서?)

103059 #1 그 이파리는이 시쳐다가 호박잎국 끓이듯 끓영 먹고, 또 댕구리는 영 이젠보난 거죽 베껴도 거적 안 베껴. 그냥 솖앙 막 질겨. 게도 이빨이 조니까 뒌장에다가 영 찍엉 먹어.(그 이파리는 씻어다가 호박잎 국 끓이듯 끓여서 먹고, 또 대가리는 이렇게 이젠 보니까 가죽 벗겨도 거죽 안 벗겨. 그냥 삶아서 막 질겨. 그래도 이빨이 좋으니까 된장에다가 이렇게 찍어서 먹어.)

103059 @ 껍데기 베껑 먹을 생각은 무사 못헤신고예?(껍데기 벗겨서 먹을 생각은 무사 못했는가요?)

103059 #1 바쁘니까.(바쁘니까.)

103059 @ 알고는 잇어도.(알고는 있어도.)

103059 #1 응. 알아도 안 베껴. 바쁘니까, 영, 영 일엇이 거 허느냐게.(응. 알아도 안 벗겨. 바쁘니까, 이렇게, 이렇게 일없이 거 하느냐.)

103059 @ 고구마 농사에 얽힌 추억이나 경험을 말씀혜 주십시오. 고구마 줄기는 어떻게 합니까?(고구마 농사에 얽힌 추억이나 경험을 말씀해 주십시오. 고구마 줄기는 어떻게 합니까?)

103059 #2 고구마 줄기는 소, 물이 츰 잘 먹지. 아주 츰 곤밥이여 곤밥. 소, 물은.(고구마 줄기는 소, 말이 참 잘 먹지. 아주 참 흰밥이여 흰밥. 소, 말은.)

103059 @ 고구마 줄기가 소, 말안텐 최고 특식이로구나. 이거를 눌 땐 어떵 눕니까?(고구마 줄기가 소, 말한테는 최고 특식이로구나. 이거를 가릴 땐 어떻게 가립니까?)

103059 #2 고구마 줄기를?(고구마 줄기를?)

103059 @ 예, 줄기.(예, 줄기.)

103059 #2 아니 그냥 물르면 말이여. 요만치, 요만치 흔번 줄만씩 다 만들어가지고 놧다가 하나씩 하나씩 빠면서 주는 거주.(아니 그냥 마르면 말이야. 요만큼, 요만큼 한 번 줄만큼씩 다 만들어가지고 놨다가 하나씩 하나씩 빼면서 주는 거지.)

103059 @ 흰 감자 뻘건 감자 어느 게 맛좋고, 뭐 허다. 모윈감자여.(흰 감자 빨간 감자 어느 게 맛좋고, 뭐 하다. 메진 고구마여,)

103059 #2 거 밧으로 가.(거 밭으로 가.)

103059 @ 음.(음.)

103059 #2 밧디 마진 밧텐 막 고구마가 모의고, 거 종ᄌᆞ로 가는게 아니고 땅 토질로 간다니까.(밭에 마진 밭엔 막 고구마가 메지고, 거 종자로 가는 게 아니고 땅 토질로 간다니까.)

103059 @ 아아, 종자로 가는 게 아니고 토지로 가는 거예.(아아, 종자로 가는 게 아니고 토지로 가는 거요.)

103059 #2 옛날엔 우리 어릴 적엔 뭐 저 드르에 갓다가 고구마 구웡 먹을라고, 아무 밧디라도 고구마 심은디 가민 캐어가지고 뭐 짇을커 헤당 저 그 불살라가지고 제일 고구마 굽는 딘 콩꼬질이 좋아. 콩, 콩남뎅이.(옛날엔 우리 어릴 적엔 뭐 저 들에 갔다가 고구마 구워 먹을라고, 아무 밭에라도 고구마 심은데 가면 캐어가지고 뭐 땔감 해다가 저 그 불살라가지고 제일 고구마 굽는 덴 좋아하기는 콩깍지가 좋아. 콩, 콩짚이.)

103059 @ 콩꼬질이 무사 좋은고예?(콩깍지가 왜 좋은가요?)

103059 #2 그게 불이 잘 부트고, 고구마가 잘 익고.(그게 불이 잘 붙고, 고구마가 잘 익고.)

103059 @ 사삼사건 때도 고구마 심으믄 안뒈시쿠다예.(사삼사건 때도 고구마 심으면 안됐겠네요.)

103059 #2 고구마 많이 심엇지. 사삼 사건 때도.(고구마 많이 심었지, 사삼사건 때도.)

기타 농사(수박/참외/고추/배추/무/감자/피/메밀/담배 등)

103060 @ 수박 농사는 헤낫수과? 신촌도?(수박 농사는 했었습니까? 신촌도?)

103060 #1 응. 신촌 많이 놔.(응. 신촌 많이 놔.)

103060 @ 옛날 옛날은 수박이 함덕에서가 잘헷젠.(옛날 옛날은 수박이 함덕에서가 잘했다고.)

103060 #1 아이고 이디서도 막 놔.(아이고 여기서도 막 놔.)

103060 @ 나중엔 진드르에서 헷덴 허고?(나중엔 '진드르'에서 했다고 하고?)

103060 #1 진드르도 거 헌디 웃두리만 헤난디이 말젠이이 이 아래도 수박이 뒈더라고.('진드르'도 거 했는데 '웃두리'만 했었는데 나중엔 이 아래도 수박이 되더라고.)

103060 @ 아아. 신촌도 수박.(아아. 신촌도 수박.)

103060 #1 우리이 수박, 아방 산 때 잘허연. 아방이 죽어부난 안 헷지. 아방이 그거 전문이라, 전문.(우리 수박, 아버지 산 때 잘했어. 아버지가 죽어버리니까 안했지. 아버지가 그거 전문이라, 전문.)

103060 @ 이제는 신엄도 신촌도 많이 엇어지지는 거 닮아. 신촌도?(이제는 신엄도 신촌도 많이 없어지는 거 같아. 신촌도?)

103060 #1 상 먹주. 물이 앚아도 안 뒈고, 지믜져도[86] 안뒈여.(사서 먹지. 물이 있어도 안 되고, '지믜져'도 안 돼.)

103060 @ 지믜가 뭐꽈?('지믜'가 뭡니까?)

103060 #1 지믜라 헌 거는이 그냥 헤옇게 ᄆᆞ라 불어.('지믜'라 한 거는 그냥 하얗게 말라버려.)

103060 @ 가뭄? 비가 안 와?(가뭄? 비가 안 와?)

103060 #1 아니, 비오나 안 오나 그런 병이 잇어. 병으로.(아니, 비오나 안 오나 그런 병이 있어. 병으로.)

103060 @ 지믜 지는 거, 신촌은 수박 농사를 햇고 수박 ᄀᆞ튼 경우 어떻게 농사를 지언마씨?('지믜' 지는 거, 신촌은 수박 농사를 했고 수박 같은 경우 어떻게 농사를 지었어요?)

103060 #1 수박은 갈아근에 요만썩 요만썩, 호박 구뎅이 헤낫지이? 호박 구뎅이ᄀᆞ치 흙을 다 모두와가지고 그레 영 헤근에 수박씰 꼭꼭 덮엉 놔둬서.(수박은 갈아서 요 만큼씩 요 만큼씩, 호박 구덩이 했었지? 호박 구덩이같이 흙을 다 모아 가지고 거기 이렇게 해서 수박씰 꼭꼭 덮어서 놔둬서.)

103060 @ 싹이 나면.(싹이 나면.)

103060 #1 싹이 나민이 거 ᄒᆞ나만 나뒁 다 뽑아 불어. 경안허민이 두 개 노민이 수박이 요만썩. 웨로 싱거야 수박도 혹곡. 또 우엣거 타 불어야 허곡. 우엣것이 막 뿔아 먹으믄 베끗디 것이 크지 못허여. 거난 굽텅어리까지 다 ᄐᆞᆫ아 불어야. 베끗디 수박이.

86) '지믜지다'는 식물의 잎이 희읍스름하게 시들어 마르다는 뜻이다.

맛도 없어. 그 우엣 건. 부삭부삭 헤근에, 우리 주로 수박헤낫네.(싹이 나면 거 하나만 나두고 다 뽑아버려. 그렇게 안하면 두 개 놓으면 수박이 요 만큼씩. 외로 심어야 수박도 굵곡. 또 위엣 거 타버려야 하고. 위엣 것이 막 빨아 먹으면 바깥에 것이 크지 못해. 그러니까 굽 덩어리까지 다 뜯어버려야. 바깥에 수박이. 맛도 없어. 그 위엣 건. 푸석푸석 해서, 우리 주로 수박했었네.)

103060 @ 멧 평에 헤가지고?(몇 평에 해가지고?)

103060 #1 응. 수박 하영 놀 때도 잇곡 즉게 놀 때도 잇고.(응. 수박 많이 놀 때도 있고 작게 놀 때도 있고.)

103060 @ 밧떼기로 허영 넘깁니까?(밭떼기로 해서 넘깁니까?)

103060 #1 밧떼기로 안사. 그 시간도 몰라. 수박은, 지미져 불어. 대풍불어도 엇고. 거난 이 타근에 시예강 풀아. 구루마로 시꺼당. 밤이 걸엉 아방이. 수박을 저녁에 탓다근에 시껏당 듯날 아침은 시에 시껑가고.(밭떼기로 안 사. 그 시간도 몰라. 수박은, '지믜져'버려. 태풍 불어도 없고. 그러니까 타서 시에 가서 팔아. 달구지로 실어다가 밤에 걸어서 아버지. 수박을 저녁에 탔다가 실어다가 뒷날 아침은 시에 실어가고.)

103060 @ 언제 싱급니까? 수박은?(언제 심습니까? 수박은?)

103060 #2 봄에 싱그주.(봄에 심지.)

103061 @ 참외도 마찬가지?(참외도 마찬가지?)

103061 #1 춤웨도.(참외도.)

103061 @ 춤웨 농사도 여기 신촌에 헷지예?(참외 농사도 여기 신촌에 했지요?)

103061 #1 다 혀. 겐디 이제덜은 아니헴신게.(다 해. 그런데 이제들은 안 하.)

103061 @ 수박 간 밧에 춤웨도 갑니까?(수박 간 밭에 참외도 갑니까?)

103061 #1 그렇지.(그렇지.)

103061 @ 어느 게 쉽고 어느 게 궂고 이런 건 엇어?(어느 게 쉽고 어느 게 궂고 이런 건 없어?)

103061 #1 그땐이 쉐뿔춤웨옌 헹 이만씩헌 춤웨.(그땐 쇠뿔참외라고 해서 이만한 참외.)

103061 @ 아, 쉐뿔춤웨?(아, 쇠뿔참외?)

103061 #1 맛잇어. 이젠 그런 춤웨 이젠 못봐. 우리 헐 때 춤웨. 이젠 이 노랑헌 춤웨만 있지이.(맛있어. 이젠 그런 참외 이젠 못 봐. 우리할 때 참외. 이젠 이 노랑한 참외만 있지.)

103061 @ 예.(예)

103061 #1 그 춤웨는 거부. 진 진허곡. 막 맛잇어. 그 쉐뿔, 거옌 허는 디 그 노랑헌 것보단 그것이 맛잇어. 전디 그 씨를 업솨 불어신게. 나오질 안 헤여. 거난 거 이녁 헐 때이 수박씨고 춤웨 씨고 다 제장 헹 놔둬야 뒈. 이녁쿠로. 에이구, 우리 어떵사 살아져신디.(그 참외는 거부. 긴 긴하고. 아주 맛있어. 그 쇠뿔, 그거라고 하는데 그 노란 것보단 그것이 맛있어. 그런데 그 씨를 없애 버렸네. 나오질 않아. 그러니까 거 이녁 할 때 수박씨고 참외 씨고 다 저장해서 놔둬야 돼. 이녁대로. 에이구, 우리 어떻게 해야 살았

는지.)

103061 @ 토종 씨앗이 엇어져 불언예. 멧 월달에 수박씨를 뿌려마씨? 봄에?(토종 씨앗이 없어져 버렸어요. 몇 월에 수박씨를 뿌려요? 봄에?)

103061 #1 수박씨는 봄에. 봄에 싱거.(수박씨는 봄에. 봄에 심어.)

103061 @ 여름에 타젠 허믄예.(여름에 타려고 하면요.)

103061 @ 참웨농사는 마씨?(참외 농사는요?)

103061 #2 참웨도 역시 마찬가지.(참외도 역시 마찬가지.)

103062 @ 고추 농사는마씨? 헷수과? 제주도도?(고추 농사는요? 했습니까? 제주도도?)

103062 #1 고치, 많이 갈잔아.(고추, 많이 갈잖아.)

103062 @ 많이는 아니주게, 전라도에 비헤서.(많이는 아니지, 전라도에 비해서.)

103062 #1 아니, 이디도 많이 갈아.(아니, 여기도 많이 갈아.)

103062 @ 이제는.(이제는.)

103062 #1 아이구, 막 고치 폰덴 허난.(아이구, 막 고추 판다고 하니까.)

103062 @ 비싸니까예. 김치는 헤먹어야 될 거고.(비싸니까요. 김치는 헤먹어야 될 거고.)

103062 #1 자기네가 먹젱 허단 남은 건 풀지.(자기네가 먹으려고 하다가 남은 거는 팔지.)

103062 @ 음.(음.)

103062 #1 고치가 최고 수확난덴 헤여.(고추가 최고 수확난다고 해.)

103062 @ 게매예. 김친 다 헤 먹을 거 아니?(글쎄요. 김친 다 해 먹을 거 아니?)

103062 #1 밧 잇인 사름은 헤도 밧 엇인 사름은 고추 안 갈아. 밧 잇인 사름은 갈지.(밭 있는 사람은 해도 밭 없는 사람은 고추 안 갈아. 밭 있는 사람은 갈지.)

103062 @ 음. 거름이나 이런 거 안 헹 싱경 놔두민 여름에 따믄 끗이다예.(음. 거름이나 이런 거 안 해서 심어서 놔두면 여름에 따면 끝이네요.)

103062 #1 고치? 부넘도 허지.(고추? 비료도 하지.)

103062 @ 비료.(비료.)

103062 #1 부넘도 허여. 헤야 고추도 훅고 크지. 수확도 잘나고. 땅도 먹어야 나지 먹지 아니민이 수확 안 나.('부넘'도 해. 해야 고추도 굵고 크지. 수확도 잘나고. 땅도 먹어야 나지 먹지 아니면 수확 안 나.)

103062 @ 고추농사는?(고추농사는?)

103062 #2 고추도 역시 마찬가지. 봄에 심어가지고.(고추도 역시 마찬가지. 봄에 심어가지고.)

103063@ 배추농사는 어떻게 합니까? 배추도 헷지예. 참.(배추농사는 어떻게 합니까? 배추도 했지요. 참.)

103063 #1 배추 막 주로덜 허여.(배추 막 주로들 해.)

103063@ 게난. 제주도에서 젤 여기가 맛잇덴 허드라고.(그러니까. 제주도에서 젤 여

기가 맛있다고 하더라고.)

103063 #1 이제는이 종제기에 ᄒᆞ나씩 논디 옛날엔이 그냥 이렇게 나가는 냥 뽑아. 애기.(이제는 종지에 하나씩 놓았는데 옛날엔 그냥 이렇게 나가는 냥 뽑아. 애기.)

103063@ 애기ᄂᆞᄆᆞᆯ?(아기나물?)

103063 #1 뽑아근에 ᄒᆞ나 놔뒁 ᄒᆞ나 크면은 것이 그냥 . 배추 거 물 앚아도 안 뒈고 이 병 걸려도 안 뒈더라 우리. ᄒᆞᆫ ᄒᆞᆫ때 헤난 이 손들러 불언.(뽑아서 하나 놔둬서 하나 크면 것이 그냥. 배추 거 물 고여도 안 되고 병 걸려도 안 되더라 우리. 여유 많을 때 했었는데 손들어 버렸어.)

103063@ 배추?(배추?)

103063 #1 대풍 불언이, 막 부벼 불고 허난 이 물 앚안 다 죽어 불언.(태풍 불어서, 마구 비벼 버리고 하니까 이 물 고여서 다 죽어버렸어.)

103063@ 물 앚안예. 젤 문제가 그거로구나, 배추농사는.(물 고이고요. 제일 문제가 그거로구나, 배추농사는.)

103063 #1 물 앚고 ᄇᆞ름 패다까불고, 제주에는 이 ᄇᆞ름이 바다 가까우니까 최고 ᄇᆞ름 분덴 허난.(물 고이고 바람 뒤엎어버리고, 제주에는 이 바람이 바다 가까우니까 최고 바람 분다고 하니까.)

103063@ 태풍 한번 불고 가을에 뭐 해불믄 농사가.(태풍 한번 불고 가을에 뭐 해버리면 농사가.)

103063 #1 우리가 바당 가운디 살암네 이, 제주는 거니까 ᄇᆞ름이 쎄여. 바당 가운데. 서울은 이 ᄇᆞ름 엇어도 이딘 대풍이라.(우리가 바다 가운데 살고 있네. 제주는 그러니까 바람이 쎄. 바다 가운데. 서울은 이 바람 없어도 여긴 태풍이라.)

103063@ 섬이라부난게.(섬이라버리니까.)

103063 #1 에이구.(에이구.)

103064 @ 무 농사? 헷지예?(무 농사? 했지요?)

103064 #1 무 농사도 허고.(무 농사도 하고.)

103064 @ 헷지예. 무도 제주도에서는 겨울에는 잘 먹잔아예. ᄂᆞᆷ삐렌 헷지예?(했지요. 무도 제주도에서는 겨울에는 잘 먹잖아요. 무라고 했지요?)

103064 @ ᄂᆞᆷ삐.(무.)

103064 #1 국도 끌령 먹고, 채소도 헤먹고.(국도 끓여서 먹고, 채소도 해 먹고.)

103064 @ 채소도 솔망 잘헤 먹어예?(채소도 삶아서 잘해 먹어요?)

103064 #1 김치도 허고. 무김치도 맛잇어. 무김치 손바닥만썩 헹 두둑두둑 해봐. 익으믄 수왕 수왕 수왕.(김치도 하고. 무김치도 맛있어. 무김치 손바닥만큼씩 해서 두둑두둑 해봐. 익으면 서벅 서벅 서벅.)

103064 @ 아, 제주사람도 전라도식으로 헷구나?(아, 제주사람도 전라도식으로 했구나?)

103064 #1 우리아덜은 막 그것만 먹젱 허는 거. 손바닥만씩 헹이 두둑두둑 헹 내불민 그거이 그게 무수 짐칠 잘헤야 맛잇어. 그 저 모녜 이, 소금 놩은 무가 약헤여. 북베

기 헤야 수왕 수왕 수왕.(우리아들은 막 그것만 먹으려고 하는 거. 손바닥만씩해서 두둑 두둑 해서 내버리면 그거 그게 무김치 잘해야 맛있어. 그 저 먼저, 소금 놔서는 무가 약해. '북베기' 해야 서벅 서벅 서벅.)

103064 @ 북베기가 뭣과?('북베기'가 뭡니까?)

103064 #1 흔 번에 양념. 소금이고 뭐이고 헌 거는 수왕수왕허는데 소금 절엿다가 양념헹은이 물싹물싹헤여. 부드러와가지고.(한 번에 양념. 소금이고 뭐고 한 거는 서벅서벅하는데 소금 절였다가 양념해서는 이 물씬물씬해. 부드러워가지고.)

103064 @ 아, 소금 절이지 마랑 허라.(아, 소금 절이지 말라서 하라.)

103064 #1 응. 북베기 헤야.(응.'북베기 해야.)

103064 @ 흔 번에예.(한 번에요.)

103064 #1 짐치도 소금 절이는 것이 호령이라.(김치도 소금 절이는 것이 호령이라.)

103064 @ 짐치도, 맞수다게. 아삭아삭하게.(김치도, 맞맞습니다. 아삭아삭하게.)

103064 #1 그렇지. 게난에 김치도 이 몰른 사름은 헤영 오래 둥그잔아. 헤영 흔 네 시간 다섯 시간 뒈믄 기냥 만들어야 헤. 게사 수왕수왕헤.(그렇지. 그러니까 김치도 이 모른 사람은 해서 오래 담그잖아. 해서 한 네 시간 다섯 시간 되면 그냥 만들어야 해. 그래야 서벅서벅해.)

103064 @ 맞아.(맞아.)

103064 #1 간 오래노민 찔겨. 찔겨. 게난 이 절이는 것이 호렝이라.(간 오래하면 질겨. 질겨. 그러니까 이 절이는 것이 호랑이라.)

103064 @ 배추하고 무 농사는 어떻게?(배추하고 무 농사는 어떻게?)

103064 #2 무는 여름 뒈가지고 무는 제일 늦게 흔 유월, 칠월 뒈가지고 허는 거.(무는 여름 되어 가지고 무는 제일 늦게 한 유월, 칠월 되어 가지고 하는 거.)

103064 @ 무가 제일 늦게예? ᄆᆞ멀이 제일 늦게가 아니고?(무가 제일 늦게요? 메밀이 제일 늦은 게 아니고?)

103064 #2 응, ᄆᆞ멀이. ᄆᆞ멀허고 같이 갈믄 뒈.(응, 메밀이. 메밀하고 같이 갈면 돼.)

103064 @ 무가 ᄆᆞ멀허고예.(무가 메밀하고요.)

103065 @ 그 다음은 지실 농사.(그 다음은 감자 농사.)

103065 #1 지실은 우리 안헤 봔. 저 우터레 산더레 사람들.(감자는 우리 안 해 봤어. 저 위에 산에 사람들)

103065 @ 지실은 또 언제 갑니까?(감자는 또 언제 갑니까?)

103065 #2 지실 역시 봄에 헤야지.(감자 역시 봄에 해야지.)

103066 @ 피 농사도 어떻게 헙니까?(피 농사도 어떻게 헙니까?)

103066 #1 피농사도 웃드리 사람덜. 이젠 허지 안허여. 이딘 피옌 헌건 앗아뎅기질 안허여.(피 농사도 '웃드르' 사람들. 이젠 허지 않아. 여긴 피라고 한 건 가져 다니질 않아.)

103067 @ ᄆᆞ멀농사도?(메밀 농사도?)

103067 #1 ᄆᆞ멀농사도 안헤여. 웃드리.(메밀 농사도 안 해. '웃드르'.)

103067 @ 아예 안 헤?(안 해.)

103067 #1 안 헤.(안 해?)

103067 @ 뜬 땅에서 잘 뒈는구나.(뜬 땅에서 잘 되는구나.)

103067 #1 뜬 땅에. 여기는 보리 조 콩 고구마, 그런 거나 허지이. 피여, 무신 ᄆᆞᆯ이영 안 해.(뜬 땅에. 여기는 보리 조 콩 고구마, 그런 거나 하지. 피여, 무슨 메밀이랑 안 해.)

103066 @ 피 농사는 어떵 헙니까?(피 농사는 어떻게 합니까?)

103066 #2 피농사는 안헤봣주만은 피도 역시 저 나록이나 마찬가지여.(피 농사는 안 해봤지만 피도 역시 저 벼나 마찬가지야.)

103067 @ ᄆᆞ멀 농사?(메밀 농사?)

103067 #2 ᄆᆞ멀 농사는 저 무 허고 같은 시기에 여름 거의 지나가지고 제일 늦게 심는 것이 ᄆᆞ밀허고 무죠이. 같은 시기에.(메밀 농사는 저 무 허고 같은 시기에 여름 거의 지나가지고 제일 늦게 심는 것이 메밀하고 무죠. 같은 시기에.)

103067 @ 무사 무가 늦어신고예?(왜 무가 늦었는가요?)

103067 #2 일찍 갈면 무가 좋질 안헤.(일찍 갈면 무가 좋질 않아.)

103067 @ 아!(아!)

103067 #2 ᄃᆞᆯ지가 않고.(달지가 않고.)

103068 @ 아아. 담배 농사?(담배 농사?)

103068 #1 담배 농사도 안 헤. 옛날 헤낫지. 옛날 우리 해나서.(담배 농사도 안 해. 옛날 했었지. 옛날 우리 했었어.)

103068 @ 건 어떻게, 무사?(건 어떻게, 왜?)

103068 #1 담배?(담배?)

103068 @ ᄑᆞ니까 헌 거 아니예?(파니까 한 거 아니에요?)

103068 #1 그거 담배 헤영 흔 한 때 담배를, 것도 힘들어. 창고나 이신 사름은 창고에다 헌다. 비에 다 썩어 불어.(그거 담배 해서 여유가 많을 때 담배를, 것도 힘들어. 창고나 있는 사람은 창고에다 한다. 비에 다 썩어 버려.)

103068 @ ᄆᆞᆯ려야 뒈난예.(말려야 되니까요.)

103068 #1 날 일기에 맞촹 조면은 잘 뒈는디 그걸 튿음 시작헹 비나 오민 그냥 문젝이 다 썩어 불어.(날 일기에 맞춰서 좋으면 잘 되는데 그걸 뜯음 시작해서 비나 오면 그냥 '문젝이' 다 썩어버려.)

103068 @ 에이고.(에이고.)

103068 #1 그거 쒜줄로 다 꿰잔아. 쒜줄로. 우리 아니 헤 본 거 이샤? 에이고.(그거 쇠줄로 다 꿰잖아. 쇠줄로. 우리 아니 해 본 거 있나? 에이고.)

103068 @ 햇빛이 중요하구나. 담배는. 것도 봄에 헹 여름에 거둡니까?(햇빛이 중요하구나. 담배는, 것도 봄에 해서 여름에 거둡니까?)

103068 #1 응. 봄에 싱것당 여름 나가면은 담배가 이만이 커. 겨믄 굽으로부떠 튿아. 굽으로부떠. 이만이씩 넙작넙작.(응. 봄에 심었다가 여름 나가면 담배가 이만큼 커. 그러

면 굽으로부터 뜯어. 굽으로부터. 이만큼씩 넙적넙적.)

103068 @ 아, 뭉툭헌 거.(아, 뭉툭한 거.)

103068 #1 경 헹 쒜줄로 꿰여근에 직직 헤근에 이서부텀 저꺼지. 그 담배 허젱허민 이 다 준비헤사. 아멩이나 안 뒈여. 것도 크게 하우스 치여근에 거기서 걸엉 헤사주. 그냥은 일기 잘못허믄 네불어.(그렇게 해서 쇠줄로 꿰여서 직직 해서 이어 붙여서 저까지. 그 담배 하려고 하면 다 준비해야. 아무렇게나 안 돼. 것도 크게 하우스 쳐서 거기서 걸어서 해야지 그냥은 일기 잘못하면 내버려.)

103068 @ 에이그, 어렵다예.(에이그, 어렵네요.)

103068 #1 우리 안 헤본 거 엇다. 담배 농ᄉᆞ도 헤보고.(우리 안 해본 거 없다. 담배 농사도 해보고.)

103068 @ 담배 농사는 어떻게 합니까?(담배 농사는 어떻게 합니까?)

103068 #2 담배는 봄에 심어 봇주. 봄에.(담배는 봄에 심어 봤지. 봄에.)

103068 @ 이런 것도 헤봇수과?(이런 것도 해봤습니까?)

103068 #2 담배도 심어봇어.(담배도 심어봤어.)

103068 @ 이 농사들 삼촌 안 헤본 거 엇이 다 헤봇수과? 무 농사 헹 잘 벌엇덴 허멍?(이 농사들 삼촌 안 해본 거 없이 다 해봤습니까? 무 농사해서 잘 벌었다고 하면서?)

103068 #2 응. 무 농사가 쉬워.(응. 무 농사가 쉬워.)

103068 @ 무는 어떻게 하면 잘 헤마씨? 종자가 좋아야 허고.(무는 어떻게 하면 잘 해요? 종자가 좋아야 하고.)

103068 #2 밧을 잘 깨끗하게 단장헤가지고 무씨를 잘 뿌려두면 걸어가민 무대가리가 이까지 올라와. 무가 좋으면 무 하나가 이만썩 허주게.(밭을 잘 깨끗하게 단장해가지고 무씨를 잘 뿌려두면 걸어가면 무대가리가 이까지 올라와. 무가 좋으면 무 하나가 이만큼씩 하지.)

4. 들일

소 기르기

104001 @ 소는 어떻게 기릅니까?(소는 어떻게 기릅니까?)

104001 #1 아, 소는 저 산에 가근에 촐 비여당 저울엔 눌엇다근에 빠멍다가 멕이지게. ᄒᆞ루 세 번 멕일 거라. 것도.(아, 소는 저 산에 가서 꼴 베여다가 겨울엔 가리었다가 빼면서 먹이지. 하루 세 번 먹일 거라. 것도.)

104001 @ 삼춘네 소 키와 봇수과?(삼촌네 소 키워 봤습니까?)

104001 #1 ᄋᆞ. 소영 ᄆᆞ리영 다.(응. 소랑 말이랑 다.)

104001 @ 여자들만 이신디.(여자들만 있는데.)

104001 #1 아방[87].(아버지.)

104001 @ 아, 결혼헤서?(아, 결혼해서?)

104001 #1 아방 죽어부난.(아버지 죽어버리니까.)

104001 @ 안하고.(안하고.)

104001 #1 아방 산 때 다.(아버지 살았을 때.)

104001 @ 산 때.(살았을 때.)

104001 #1 우린 물 일러불고 쉐 일러불민 춪지도 못허는디.(우린 말 잃어버리고 소 잃어버리면 찾지도 못하는데.)

104001 @ 그 전엔?(그 전엔?)

104001 #1 아방 강 다 춪아와.(아버지 가서 다 찾아와.)

104001 @ 그 전에도 없엇고?(그 전에도 없었고?)

104001 #1 아니 헤봔. 그런 거.(안 해봤어. 그런 거.)

104001 @ 할머니영 살 때는.(할머니랑 살 때는.)

104001 #1 나는 이, 이 농사라 흔 건 헤본 도레가 엇어. 탕간허고.(나는 이, 이 농사라고 한 건 해본 도리가 없어. 탕건하고.)

104001 @ 해녀.(해녀.)

104001 #1 물질허고.(물질하고.)

104001 @ 처녀 때는.(처녀 때는.)

104001 #1 거나벳긔 농수옌 헌 건이 검질도 안 메봇어. 우리 절로 저레 나무나 짇을커[88]나 그런 것도 안 헤봇어.(그거 나밖에 농사라고 한 건 김도 안 매봤어. 우리 저리로 저리 나무나 땔감이나 그런 것도 안 해봤어.)

104001 @ 처녀 때? 근디 이제 결혼헌 후에는 어쩔수 엇이?(처녀 때? 그런데 이제 결혼한 후에는 어쩔 수 없이?)

104001 #1 거 결혼헹 아방신디 온 후제 진탕 고생만 헷지.(거 결혼해서 아버지에게 온 후에 진탕 고생만 했지.)

104001 @ 쯧쯧쯧. 멧 가지 일을예?(쯧쯧쯧. 몇 가지 일을요?)

104001 #1 으이구, 진짜.(으이구, 진짜.)

104001 @ 허허허.(허허허.)

104001 #1 아이구, 아이구.(아이구, 아이구.)

104001 @ 안 도와줄 수도 엇고예.(안 도와줄 수도 없고요.)

104001 #1 안 도와줄 수도 엇고.(안 도와줄 수도 없고.)

104001 @ 밥도 헤야 뒈고.(밥도 해야 되고.)

104001 #1 혼자만 내ᄇᆞ넬 수도 엇곡, 또 구르만 짐 시끄젠 허민 혼자 직허곡, 네껴주곡, 베제우곡 헤살 거.(혼자만 내 버릴 수도 없고, 또 수렌 짐 실으려고 하면 혼자 지키고 '네껴주곡', '베제우곡' 해야 할 걸.)

87) '아방'은 아버지를 뜻하는 제주어지만 여기서는 남편을 말한다.

88) '짇을커'는 장작, 검불 따위의 불을 때는 데 쓰는 재료를 말한다. 지들거, 지들것, 지들커라고도 한다.

104001 @ 아이가고.(아이가고.)

104001 #1 경허니까 배운 사름은 배운디끼리 간 사름은 펜안허고 농부한이신디 간 사름은 그렇게 얼먹어.(그렇게 하니까 배운 사름은 배운 사람끼리 간 사름은 편안하고 농사꾼에게 간 사람은 그렇게 얼 먹어.)

104001 @ 게난 우리 어머니, 사람덜이 공부허고.(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사람들이 공부하고.)

104001 #1 나 전번에도 골앗주만은 나 우리 어머니 덕분에 농부한이 좋덴 헨 얼 먹엇젠 허난.(나 전번에도 말했지만 나 우리 어머니 덕분에 농사꾼이 좋다고 해서 얼먹었다고 하니까.)

104001 @ 하하하하.(하하하하.)

104001 #1 아, 원우 선생도 막 이 날 좋아허고이. 나도 으망지더라고. 한림 선생이라. 그 사름이. 경헌디 아, 이 사름이 적당은 ᄒᆞ다 헤가는디 우리 어머닌 이젠 어멍 돌아오렌 허난 우리 아버지가 나 킵지 아니헌 똘이니까 어디 풀틴 허난 아, 우리 아기 펜허기는 농부한이가 좋안게. 이제 이 애기아방. 에이고 나 원. 원우 선생아피, 한림 선생아피 가시민이 월급만 타멍 먹을 거 아니가? 게난이 어멍으로 헨 나 이, 이제쯤 잇어시민 막 싸우컬.(아 원우 선생도 막 이 날 좋아하고, 나도 똑똑해 보이더라고. 한림 선생이라. 그 사람이, 그런데 아, 이 사람이 적당은 하다 해 가는데 우리어머닌 이젠 어머니 데리고 오라고 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나 키우지 아니한 딸이니까 어디 팔 거? 하니까 아, 우리 아기 편하기는 농사꾼이 좋더라. 이제 이 아기 아버지. 에이고 나 원. 원우 선생 앞에, 한림 선생 앞에 가시면 이 월급만 타면서 먹을 거 아니가? 그러니까 어머니로 해서 나 이 이제쯤 계셨으면 막 싸울걸.)

104001 @ 크으! 엇인 어멍. 경헤도(크으! 없는 어머니. 그래도.)

104001 #1 게난 옛날 어른은 우리애기가 못 베와노니까 그런 사람신디 가믄 고생헌덴 헨 농부한이안티 푼 거라.(그러니까 옛날 어른은 우리아기가 못 배워버리니까 그런 사람에게 가면 고생한다고 해서 농사꾼에게 판 거라.)

104001 @ 게난 수준에 맞췽은에 뭐 허난.(그러니까 수준을 맞춰서 뭐 하니까.)

104001 #1 그렇지.(그렇지.)

104001 @ 어떤 부분은 그럴 수도 잇어마씨. 행복이라는 게. 고생은 허는디 게메예. 우리가 지식인덜이 다 잘 사는 거 닮아도.(어떤 부분은 그럴 수도 있어요. 행복이라는 게. 고생은 하는디 글쎄요. 우리가 지식인들이 다 잘 사는 거 같아도.)

104001 #1 야, 끼리끼리 가믄 덜 나무레곡이, 공부 아니 헹 무대뽀로 가민 그렇게 차이있게 시집이서 나무렌덴 허난.(야, 끼리끼리 가면 덜 나무라고, 공부 아니 해서 '무대뽀'로 가면 그렇게 차이 있게 시집에서 나무란다고 하니까.)

104001 @ 거난.(그러니까.)

104001 @ 게난 신칙이 노픈 거. 사돈 노픈 거. 신칙이 알아져?(그러니까 신발 뒤축이 높은 거. 사돈 높은 거. 신발 뒤축이 알아?)

104001 @ 신 뒤축?(신발 뒤축?)

104001 #1 초신 뒤축이.(짚신 뒤축이.)

104001 @ 뒤축.(뒤축.)

104001 #1 초신 잇잔아, 짚신. 그거 일로 막 찝을 막 북물엉 막 아파 벳겨젼.(짚신 뒤축. 짚신 있잖아, 짚신. 그거 일로 막 짚을 막 부르터서 막 아파 벗겨져서.)

104001 @ 아아.(아아.)

104001 #1 게난 뒤칙이 노픈 거, 사돈 노픈 거. 경 신이 얼마나 초신이 이디 막 벳기는 줄 알아.(그러니까 뒤축이 높은 거, 사돈 높은 거. 그렇게 신이 얼마나 짚신이 여기 막 벗기는 줄 알아.)

104001 @ 아.(아.)

104001 #1 게민 막 험벅으로 신에 막 감아. 또 막 벳겨 불어.(그러면 막 헝겊으로 신을 막 감아. 또 막 벗겨 버려.)

104001 @ 벳겨부난.(벗겨 버리니까.)

104001 #1 막 아파. 우리 초신 사당 신어난. 신엉 댕겨나서. 게난 초신도 아무나 못 헤여. 맨발에 저 테국사람 벌레벌레. 그렇게 혜연 살아낫어.(막 아파. 우리 짚신 사다가 신었었어. 신어서 다녔었어. 그러니까 짚신도 아무나 못 해. 맨발에 저 타국사람 '벌레벌레'. 그렇게 해서 살았었어.)

104001 @ 아이구. 게도 여기 초신 저 그거 헹 픈는 하르바진 엇엇수과?(아이구. 그래도 여기 짚신 저 그거 해서 파는 할아버진 없었습니까?)

104001 #1 이섯지.(있었지.)

104001 @ 게난 그 하르바지.(그러니까 그 할아버지.)

104001 #1 그 계획적으로 픈는 사람.(있었지. 그 계획적으로 파는 사람.)

104001 @ 돈 주멍.(돈 주면서.)

104001 #1 곱게 삼은 건 막 비싸고.(곱게 삼은 건 막 비싸고.)

104001 @ 걸 깍신[89]이렌 헙니까?(걸 '깍신'이라고 합니까?)

104001 #1 거 초신도 곤 거 잇고 깍신이옌 헌 건 바당에서 신고, 이 초신도이 곤 거 잇고 나쁜 거 잇어.(거 짚신도 고운 거 있고 '깍신'이라고 한 건 바다에서 신고, 이 짚신도 고운 거 있고 나쁜 거 있어.)

104001 @ 응.(응.)

104001 #1 바당에 신는 건 막 깍 네여근에 엉글엉글ᄒᆞ게 신곡, 곶디 신는 건 막 곱닥허게 혜영 신어. 경 다 끈어져 가민 영 뒤집어 가지고. 초신 뒤집엉도 신어.(바다에 신는 건 막 깍 내여서 '엉글엉글하게' 신고, 숲에 신는 건 막 곱게 해서 신어. 그렇게 다 헤어져 가면 이렇게 뒤집어 가지고. 짚신 뒤집어서도 신어.)

104001 @ 아이구야.(아이구야.)

104001 #1 이디 끈어가면은.(여기 끊어지면.)

104001 @ 쯧쯧쯧쯧.(쯧쯧쯧쯧.)

104001 #1 그게 영 뒤집어. 뒈싸.(그게 이렇게 뒤집어. 뒤집어.)

89) '깍신'은 짚신보다 더 곱게 삼은 것으로 비빔깍신, 튼깍신을 딴총박이라고 한다.

104001 @ 뒈싸.(뒤집어.)

104001 #1 뒈싼 이제 이디 허는 거 다 끈은 거 다 클러근에 또 영영 꼬으멍 또 잣아.(뒤집어서 이제 여기 하는 거 다 끈은 거 다 풀어서 또 이렇게, 이렇게 꼬면서 또 자아.)

104001 @ 아이고오.(아이고오.)

104001 #1 춤 나 원. 경헌디 우린 이 양말 주는 건 최고 잘 주워. 양말이 아무나 못 주워. 양말도. 겐디 우리 오레비 산 땐 큰누님만 양말도 줍고 옷도 큰누님만. 우리 아신 못ᄒᆞ게. 아니, 허지 말렌. 거난 이. 바농질도 이 곱게 허영 싹 허민 고우는디 우리 아시넨 클렁당, 클렁당.(그런데 우린 이 양말 주는 건 최고 잘 기워. 양말이 아무나 못 기워. 양말도. 겐디 우리 오빠 산 땐 큰누님만 양말도 줍고 옷도 큰누님만 하라고 해. 우리 아운 못 하게. 아니,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 바느질도 이 곱게 해서 싹 하면 예쁜데 우리 아운 풀었다, 풀었다 하니까.)

104001 @ 크으으으.(크으으으.)

104001 #1 허니까 족은누님 나 옷 줍지 마라. 허지 마라. 큰누님만 헤.(하니까 작은누님 나 옷 깁지 마라. 하지 마라. 큰누나만 해)

104001 @ 솜씨가 달라예.(솜씨가 달라요.)

104001 #1 딸라. 바농질 뚠나. 이 주는 것부떠 뚠나.(달라. 바느질 달라. 이 주는 것부터 달라.)

104001 @ 소는 어떻게 기릅니까?(소는 어떻게 기릅니까?)

104001 #2 잘 멕이면 소가 말 잘 듣고 말이여. 사람 이상이여.(잘 먹이면 소가 말 잘 듣고 말이야. 사람 이상이야.)

104001 #2 소는 봄 나면, 풀 나믄 드르에 놔서 길에도 전부 소 먹을 것이 천지곡 허니까 그냥 드르에도 놓고, 목장에도 가 놓고, 겨울 때는 가을에 촐 비어다가 막 흔눌썩 눌엇다가 멕이고.(소는 봄 나면, 풀 나면 들에 놔서 길에도 전부 소 먹을 것이 천지이고 하니까 그냥 들에도 놓고, 목장에도 가 놓고, 겨울 때는 가을에 꼴 베다가 막 한 가리씩 가렸다가 먹이고.)

104001 @ 눌엇다가?(가리었다가?)

104001 #2 눌 눌엇다가 하나씩 빠면서 멕이곡 헷는디. 난 솔 기르면 소도, 말 기르면 말도, 그렇게 말을 잘 들어가지고 말이여. 게니까 나 살림이 조금 나아질라니까 사람 말 아니 ᄀᆞᆯ을 뿐이지 소가 그렇게 말 잘 듣고, ᄆᆞᆯ이 그렇게 말 잘 듣고. 그니까 내 운이 랄지.(가리 가리었다가 하나씩 빼면서 먹이고 했는데. 난 솔 기르면 소도, 말 기르면 말도 그렇게 말을 잘 들어가지고 말이야. 그러니까 나 살림이 조금 나아질려니까 사람 말 아니 했을 뿐이지 소가 그렇게 말 잘 듣고, 말이 그렇게 말 잘 듣고. 그니까 내 운이랄지.)

104001 @ 멧 마릴 키와봐신디 소 말이 경 말 잘 들읍디가?(몇 마릴 키워봤는데 소 말이 그렇게 말 잘 듣습디까?)

104001 #2 말은 한번 사서 헤봇주만은 소는 한 ᄋᆞ라마리 지나갓어. 소 밧을 가는 디

사람 뭐 시키지 안 헤도 일을 경 잘 헤여. 구루마도 잘 허고.(말은 한번 사서 해봤지만 소는 한 여러 마리 지나갔어. 소 밭을 가는 데 사람 뭐 시키지 안 해도 일을 그렇게 잘해. 달구지도 잘하고.)

104001 @ 다 동네에서 새끼 나믄 그 송아지 사옵니까?(다 동네에서 새끼 나면 그 송아지 사옵니까?)

104001 #2 난 저 숫소만 질러봣주. 암소는 안 질뤄보고.(난 저 수소만 길러봤지. 암소는 안 길러 보고.)

104001 @ 숫쉐하고 암쉐하고 뭣이 달라마씨? 밧을 갈려면 숫쉐가, 부룽이가 낫지예?(수소하고 암소하고 뭣이 달라요? 밭을 갈려면 수소가, 부룩소가 낫지요?)

104001 #2 아, 부룽이가 일 잘허지게. 쎄고. 게 나 밧을 많이 갈아서.(아, 부룩소가 일 잘하지. 세고. 그럼. 나 밭을 많이 갈아서.)

104001 @ 웨양간이 소막?(외양간이 소막?)

104001 #2 쉐막이옌 허여. 따로 잇어.(외양간이라고 해. 따로 있어.)

104001 @ 안거리고 쉐막은 어느 쪽에 이십니까?(안거리고 외양간은 어느 쪽에 있읍니까?)

104001 #2 문간 쪽에 항시 잇엇어.(문간 쪽에 항상 있었어.)

104001 @ 소는 멧 마리 이섯수과?(소는 몇 마리 있었습니까?)

104001 #2 소? 뭐 암소도 좀 질롸봣지만 보통 부룽이 하나.(소? 뭐 암소도 좀 길러봤지만 보통 부룩소 하나.)

104001 @ 부룽이 하나. 밧갈 쉐?(밭갈 소?)

104001 #2 밧갈 쉐, 하나.(밭갈 소, 하나.)

104002 @ 기억을 헤봅서예. 소의 종류에 대헤서 말씀헤 주십시오.(기억을 해보세요. 소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4002 #1 소도 검은 쉐가 잇고이.(소도 검은 소가 있고.)

104002 @ 예.(예.)

104002 #1 영 좀 서꺼진 쉐가 있고, 노랑헌 색 쫌 벌경헌 쉐가 잇어.(이렇게 좀 섞여진 소가 있고, 노란 색 좀 빨간 소가 있어.)

104002 @ 이름들 몰르쿠과? 다간, 저 무슨, 얼룩쉐?(이름들 모르겠습니까? 다간, 저 뭐, 얼룩소?)

104002 #1 다간버리여 뭐여. 다간버린 소가 아무레도 뿔이 영 오그라진 셍이라. 나 생각엔 다간버리 무신, 뿔도 영헌 뿔 잇곡 이. 게난 그런 건 종류는 몰라. 우린.('다간버리'여 뭐여. '다간버린' 소가 아무래도 뿔이 이렇게 오그라진 모양이라. 나 생각엔 '다간버리' 무슨, 뿔도 이렇게 한 뿔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건 종류는 몰라. 우린.)

104002 @ 예.(예.)

104002 @ 소의 종류에 대헤 말씀헤 주십시오.(소의 종류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104002 #2 난 검은 쉐를, 밧갈쉐이 오래 맨디 흔 십년 이상 질르는 쉐가 잇어. 경헌디 일을 그렇게 잘헤. 구루마도 잘 끗고, 밧도 잘 갈고, 소도 내가 풀아부니까 강보니까

그냥 나신디서 이실 때는 잘 멕이니까 이렇게 막 헨게 딴디 풀아분디가 잘 안 멕여노니까 그냥 바짝 몰라선게 소가 나 보니까 눈물을 좔좔좔좔 흘리데. 거, 소도 아는 거야. 말은 못헤도 나 가니까 우리 집에선 나가 열심히 멕이니까 춤 제가 일도 잘 헷고, 잘 살앗는데 그 딴 데 가니까 어떻게 잘 못 멕여가지고 빠짝 뭐 소가 술이 빠지고 자 보니깐 그냥 눈물을 좔좔 흘려. 뚝 뚝 눈물이.(난 검은 소를, 밭갈 소 오래 맸는데 한 십년 이상 기르는 소가 있어. 그런데 일을 그렇게 잘해. 달구지도 잘 끌고, 밭도 잘 갈고, 소도 내가 팔아버리니까 가서 보니까 그냥 나에게서 있을 때는 잘 먹이니까 이렇게 막 했는데 딴 데 팔아버린 데가 잘 안 먹여버리니까 그냥 바짝 말랐는데 소가 나 보니까 눈물을 좔좔좔좔 흘리더라. 거, 소도 아는 거야. 말은 못해도 내가 가니까 우리 집에선 내가 열심히 먹이니까 참 제가 일도 잘 했고, 잘 살았는데 그 딴 데 가니까 어떻게 잘 못 먹여가지고 빠짝 뭐 소가 살이 빠지고 가보니까 그냥 눈물을 좔좔 흘려. 뚝 뚝 눈물이.)

104002 @ 그렇구나예. 소의 종류는 어떤 종류가 잇수과?(그렇군요. 소의 종류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104002 #2 노린 쉐도 잇고 검은 쉐도 잇고 경허주뭐. 난 검은 소를 많이 멕엿어.(노린 소도 있고 검은 소도 있고 그렇지 뭐. 난 검은 소를 많이 먹였어.)

104002 #2 난 검은 쉐를 많이 질렷어.(난 검은 소를 많이 길렀어.)

104002 @ 이름이 뭐?(이름이 뭐?)

104002 #2 이름은 엇고?(이름은 없고?)

104002 @ 뿔 모양이 오그라진 것도 있고, 뭐?(뿔 모양이 오그라진 것도 있고, 뭐?)

104002 #2 그런 건 작박도리[90]렌 허여.(그런 건 '작박도리'라고 해.)

104002 @ 작박도리, 이런 게 중요허여마씀.('작박도리', 이런 게 중요해요.)

104002 #2 나는 소를 잘 멕여노니까 소가 다 좋아낫어.(나는 소를 잘 먹였으니까 소가 다 좋았었어.)

104003 @ 소는 어떻게 이용합니까? 밧 갈 때?(소는 어떻게 이용합니까? 밭 갈 때?)

104003 #1 밧 갈 때.(밭 갈 때.)

104003 @ 밧 갈 때.(밭 갈 때.)

104003 #1 밧 갈 때 씨여먹는 거?(밭 갈 때. 밭갈 때 써먹는 거?)

104003 @ 경허곡 구루마?(그리고 달구지?)

104003 #1 구루마도 허곡, 밧도 갈곡.(달구지도 하고, 밭도 갈고)

104003 #1 또 짐도 시끄곡.(또 짐도 싣고.)

104003 @ 소가 말을 안 들면 이거 누가 질들여야 뒐 거 아니?(소가 말을 안 들으면 이거 누가 길들여야 될 거 아니?)

104003 #1 아이고 이. 난 눈으로 지켱 본디 몰 잇잔아. 몰.(아이고. 이 난 눈으로 지켜서 봤는데 말 잇잖아. 말.)

104003 @ 소는 어떻게 길들이는지?(소는 어떻게 길들이는지?)

104003 #1 소도 길롸낫주만은 몰이 이 그렇게 꿰부리는 말은 처음 봐봇어.(소도 길

90) '작박도리'는 뿔이 뒤로 향한 수소를 말한다.

러났지만 말이 이 그렇게 꾀부리는 말은 처음 봐봤어.)

104003 @ 하하하.(하하하.)

104003 #1 수박이 안 뒈니까 호박만 에염에 이시니까 대풍 불엉 문딱 씰어부난 호박을 타온디 흔 구루말 타서. 그거 풀아 불어서 이제. 시꺼서. 아, 요놈의 물이 그냥 요만만헌 동산을 절대 아니 걸어. 디뎌사, 디뎌사. 아니 아방이 이. 거 영 채경[91] 잇어. 가운디 들어가는 채경, 채경이 잇엇어. 물을 이젠 나 뭐 경 물 페다둠 헐 중도 몰르곡 채경 아방이 곱게 말허데. 채경 들러. 들럿지게. 들르난 채경 놔.(수박이 안 되니까 호박만 옆에 있으니까 대풍 불어서 모두 쓸어버리니까 호박을 타왔는데 한 달구지를 땄어. 그거 팔아 버리려고 이제. 실어서. 아, 요놈의 말이 그냥 요만만한 동산을 절대 아니 걸어. 디뎌야, 디뎌야. 아니 아버지가 거 이렇게 채 있어. 가운데 들어가는 채, 채가 있었어. 말을 이젠 나 뭐 그렇게 말 패대기 할 줄도 모르고 채 아버지가 곱게 말하더라. 채 들어. 들었지. 들으니까 채 놔.)

104003 @ 채경이 뭐?(채가 뭐?)

104003 #1 물 영 질게 나무. 거 진진허게. 물 새에서 놩 엉구는 거, 것ᄀᆞ라 체경이옌 허여.(말 이렇게 길게 나무. 거 길게. 말 사이에서 놔서 엉구는 거, 그것보고 채라고 해.)

104003 @ 채경?(채?)

104003 #1 거난 이제 물을 꺼내데. 허난 뭘 허젠 헴신고? 헨 허난 아이구 낭에 이. 낭에다가 그 석 헤다가 막 대깍 무꺼. 어디로 감신곤 허난 그때 장봉인가 무신건가 요만이헌 지레기 낭을 강 끈엉 와. 난 경 물 두둘릴 중은 몰르고, 뭐 헴신곤 허당보난 막 죽게 패두둘어, 물을. 이놈으 새끼! 나 꿰부리는 중 몰를 중 아나? 오널 너 죽여근에 저디 강 나무헤단 구웡 먹엉 나가 기시렁 구웡 먹엉 가켄. 기냥 막 패딱사니질을 헤여. 막. 아이구 고만 ᄄᆞ립서게. 아이구, 아이구, 아이구 고만 ᄄᆞ립서. 너 제레 가! 이거 오널 꿰둥이 오널. 아방은 이. 물 꿰허는 거 다 알아. 물도이 막 뛰는 물도 심엉 와 아방이. 막 뿔란. 막 저만이 물이 막 뛰어가도 강 심엉 온덴 허난. 경헨이 몽둥이를 그냥 막 허난 물은 살려ᄃᆞ렌 눈이영 헤뜩헤뜩 허난. 아이고 그만 ᄄᆞ립서게. 고만 ᄄᆞ리긴 이거 오널 죽여근에 잡앙 구웡 먹엉 가야지 허멍. 막 헹 이젠 흔데기 두드려노난 이젠 차경 메연에. 나 ᄀᆞ트민 매 아이 맞앙 꼭 온 물이라. 그매 맞곡 그 오름을 착착 올라라. 물ᄀᆞ치 궁흉 센 거 엇어라. 매 죽게 맞아서.(그러니까 이제 말을 꺼내데. 하니까 뭘 하려고 하는고? 해서 하니까 아이구 나무에 이 나무에다가 그 고삐 해다가 막 대깍 묶어. 어디로 가는고 하니까 그때 장봉인가 무슨 뭔가 한 요만큼한 길이 나무를 가서 끈어서 와. 난 그렇게 말 두드릴 줄은 모르고, 뭐하는고 하다가보니까 막 죽게 패두들어. 말을. 이놈의 새끼! 나 꾀부리는 줄 모를 줄 아나? 오늘 너 죽여서 저기 가서 나무해다가 구워서 먹고 내가 그슬려서 구워서 먹고 가겠다고. 그냥 막 '패닥사니질'을 해. 막 아이구 그만 때리세요. 아이구 아이구 아이구 그만 때리세요. 너 저리 가! 이거 오널 꾀둥이 오늘. 아버지는 이 말 꾀하는 거 다 알아. 말도 막 뛰는 말도 잡아서 와, 아버지가. 막 빨라서. 막

91) '채경'은 표준어로 채라고 하며 차경, 창낭, 챗낭으로도 불린다. 수레의 앞쪽으로 양옆에 댄 긴 나무 막대기를 말한다.

저만큼 말이 막 뛰어가도 가서 잡아서 온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몽둥이를 그냥 막 하니까 말은 살려달라고 눈이랑 희뜩희뜩 하니까. 아이고 그만 때리세요. 그만 때리긴 이거 오늘 죽여서 잡아서 구워서 먹고 가야지. 하면서 막 해서 이젠 흠씬 두드려버리니까 이젠 채 매여서. 나같으면 매 아니 맞아서 꼭 온 말이라. 그 매 맞곡 그 오름을 착착 올라라. 말같이 궁흉 센 거 없어라. 매 죽게 맞았어.)

104003 @ 야.(야.)

104003 #1 게난 이. 꿰부리는 건 알아진덴.(그러니까 이 꾀부리는 건 알아진다고.)

104003 @ 영리허구나.(영리하구나.)

104003 #1 영 탁 이 물 메젱 심어보민이 꿰부리는 말은 안덴.(이렇게 탁 이 말 매려고 잡아보면 꾀부리는 말은 안대.)

104003 @ 아이고야.(아이고야.)

104003 #1 거니까 알아 가지고이.(거니까 알아 가지고.)

104003 @ 아.(아.)

104003 #1 죽게 맞앗젠 허난.(죽게 맞았다고 하니까.)

104003 @ 아오야.(아오야.)

104003 #1 피가 막 나더라. 이런 딜로 막 뚜드려노니까.(피가 막 나더라. 이런 데로 막 뚜드려버리니까.)

104003 @ 게난 거 어떵헷수과, 언제까지 키와수과? 하하하하하.(그러니까 거 어떻게 했습니까? 언제까지 키웠습니까? 하하하하하.)

104003 #1 경허단이 버청 허는 디 아방은 물은 잘 다뤄. 다른 사람 버친건디 아방은 힘 때가 좋아노니까. 뭐 조천면에서 씨름헨 다 이기고렌 헌 사름인디.(그러다가 버거워서 하는 데 아버지는 말은 잘 다뤄. 다른 사람 버거운 건데 아버지는 힘 때가 좋으니까. 뭐 조천면에서 씨름해서 다 이겼다고 한 사람인데.)

104003 @ 아이고.(아이고.)

104003 #1 다 이기ᄀᆞ렌. 힘이 경 장골이라.(다 이겼다고. 힘이 그렇게 장골이라.)

104003 @ 장골.(장골.)

104003 #1 경허난게 물 같은 것도 심엉, 쉐도 탁 메부쪄.(그렇게 하니까 말 같은 것도 잡아서, 소도 탁 메다쳤어.)

104003 @ 아아.(아아.)

104003 #1 쉐도 메여다부쪄.(소도 메다쳤어.)

104003 @ 아, 웨할머니가 그런 거에 반한 셍이우다게.(아, 외할머니가 그런 거에 반한 모양입니다.)

104003 #1 어?(어?)

104003 @ 그런 잘 셍기고. 그런 거. 허허허.(그런 잘 생기고. 그런 거. 허허허.)

104003 #1 나는 이 친정엔 이 쉐고 물이고 아니 헤봣어. 시집가난에 그런 걸 헷지. 촐도 비어보고.(나는 이 친정엔 이 소고 말이고 안 해봤어. 시집가니까 그런 걸 했지. 꼴도 베어보고.)

104003 @ 남자다운 그런 게.(남자다운 그런 게.)

104003 #1 나물도 멕이레 가보고, 촐도 헤봣지. 탕건만 허고 물질만 헹 그런 거 헤보도 안 헌 사름이 헷젠 허난. 고만이 선생암피 시집가시민 고생도 안허고.(나물도 먹이러 가보고, 꼴도 해봤지. 탕건만 하고 물질만 해서 그런 거 해보지도 안한 사름이 했다고 하니까. 가만히 선생한테 시집갔으면 고생도 안하고.)

104003 @ 뭐 책만 읽어시쿠과? 마찬가지 밥허고, 뭐허고 헤실 거주.(뭐 책만 읽었겠습니까? 마찬가지 밥하고, 뭐하고 했을 거죠.)

104003 #1 그놈으 선생은 이. 장개와 보젠 그냥 매날 물 거려ᄃᆞ렌. 이 멍청인 무사 영 물도 자꾸, 저 사름 온 적마다, 나 속으로만 나 보레 온 중은 몰르곡. 뭐 와가믄 저 사름 이상헌 사름이여. 물만 ᄃᆞ렌.(그놈의 선생은 이 장가 와보려고 그냥 매일 물 떠 주라고. 이 멍청인 왜 이렇게 물도 자꾸, 저 사람 올 적마다, 나 속으로만, 나 보러 온 줄은 모르고. 뭐 와가면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물만 달라고.)

104003 @ 헤헤.(헤헤.)

104003 #1 말젠 가난 그 얼굴 보레 오는 거.(나중엔 가니까 그 얼굴 보러 오는 거.)

104003 @ 어렷주게.(어렸죠.)

104003 #1 얼굴 보민 이 뒈지 사례 오고렌 허영 얼굴 잘 붸와뒁 가메. 이 사름은 물만 도렌 헤여, 선생. 미안허지만 물 흔 사발만 줍서. 게난 물도 이 베랑 안 먹으멍, 비우멍. 말제 가난 눈치 알안.(얼굴 보면 이 돼지 사러 왔다고 하면서 얼굴 잘 보여주고 갔어. 이 사람은 물만 달라고 하고, 선생, 미안하지만 물 한 사발만 주세요. 그러니까 물도 이 별로 안 먹으면서, 비우면서. 나중에 가니까 눈치 알아서.)

104003 @ 하하.(하하.)

104003 #1 나가. 눈치 알아서.(내가. 눈치 알았어.)

104003 @ 아하하하.(아하하하.)

104003 #1 또 물, 무신 난 물장시꽈?(또 물, 무슨 난 물장삽니까?)

104003 @ 하하하.(하하하.)

104003 #1 자기냥으로 거려당 먹주. 알아가난. 말젠 보난 장개오켄 헌 사람.(자기스스로 떠다가 먹지. 알아가니까. 나중에 보니까 장가오겠다고 한 사람.)

104003 @ 아이고야.(아이고야.)

104003 #1 원오 선생, 지레 조그만헤도 막 ᄋᆞ망진 선생이라. 내가 눈치 알아서.(원오 선생, 키 조그만 해도 막 똑똑한 선생이라. 내가 눈치 알아서.)

104003 @ 아이고. 게매, 인물치레로 가는 게 아니라부난.(아이고. 글쎄, 인물치레로 가는 게 아니라버리니까)

104003 #1 아이구, 웃어. 물 거려다 ᄃᆞ렌 허난 수투름허게[92] 거려밀고.(아이구, 웃어. 물 떠다 달라고 하니까 수투름허게 '거려밀고.')

104003 @ 인물도 좋고게. 벱고 하면 더 여자들이 많이 따르지.(인물도 좋고. 배우고 하면 더 여자들이 많이 따르지.)

---

92) '수투룸ᄒᆞ다'는 사람이 약지 못하고 어수룩하다는 뜻이다.

104003 #1 그때는이. 연애헐 충도 몰란.(그때는 이 연애할 줄도 몰랐어.)

104003 @ 게메마씸.(글쎄요.)

104003 #1 연애가 뭐인지 요디 시집가렌 허난 그냥 그디 강, 살렌 허난 그자 사는 건 경 헹 살앗저. 새시방 얼굴도 안보곡. 중매 말만 들언.(연애가 뭐인지 요기 시집가라고 하니까 그냥 거기 가서, 살라고 하니까 그저 사는 건 그렇게 살았지. 새신랑 얼굴도 안보고. 중매 말만 들어서.)

104003 @ 쯧쯧쯧. 게난 이 저, 아저씨는 소말 길들이는 것도 잘헷구나예.(쯧쯧쯧. 그러니까 이 저, 아저씨는 소말 길들이는 것도 잘했군요.)

104003 #1 잘헤여. 해병대 사기생이민 말 잘헷저. 사람만 죽이단 오고렌 헤. 사기생이민이 전장 부뜬 사람. 왕 곧는 거 보난이. 토술산, 산이 영헌디라렌 영 헌디서 거난이 그 총에 그 칼 잇잔아?(잘해. 해병대 사기생이면 말 잘했지. 사람만 죽이다가 왔다고 해. 사기생이면 전쟁 붙은 사람. 와서 말하는 거 보니까 토술산, 산이 이렇게 한데라고 이렇게 한 데서 그러니까 그 총에 그 칼 있잖아?)

104003 @ 총칼.(총칼.)

104003 #1 그걸 꼬주와. 게난 해병대, 개병대옌 헤낫저. 지네ᄀᆞ라. 전투헹 막 사람덜 다 죽이고. 아이구, 그것덜 죽이지 아니허믄 우리나라가 지게 뒈난 막 그냥 죽지 아니민 살기로.(그 총에 그걸 꽂아. 그러니까 해병대, 개병대라고 했었어. 자기네보고. 전투해서 막 사람들 다 죽이고. 아이구, 그것들 죽이지 아니하면 우리나라가 지게 되니까 막 그냥 죽지 않으면 살기로.)

104003 @ 전쟁도 헤나수과? 오십 년대에 가신가?(전쟁도 했었습니까? 오십 년대에 갔는가?)

104003 #1 사기생, 해병대. 스물셋에 간.(사기생, 해병대. 스물셋에 갔어.)

104003 @ 몃 년 돈고? 전쟁이 천구백오십년에 터지니까.(몇 년 돈가? 전쟁이 1950년에 터지니까.)

104003 #1 아방네가 간 서울탈환, 펭양 탈환헷네. 막 이 부산ᄁᆞ지. 아이, 부산만 넹겨동 서울 다 먹어분 거. 게난 아방네가 간 이겨서.(아버지가 간 서울탈환 평양 탈환했네. 막 부산까지. 아이, 부산만 남겨두고 서울 다 먹어버린 거. 그러니까 아버지네가 가서 이겼어.)

104003 @ 아이고, 거 무슨 백마고지여, 무신 거여 나오키여? 막.(아이고, 거 뭐 백마고지여, 뭐여 나오겠네? 막.)

104003 #1 이제이 저디 훈장 다 잇어.(이제 저기 훈장 다 있어.)

104003 @ 아이고, 찍어야 뒈쿠다예.(아이고, 찍어야 되겠네요.)

104003 #1 게난 사람 하나 죽인 건 심어가도 안헌덴.(그러니까 사람 하나 죽인 건 잡아가도 안한다고.)

104003 @ 어이구. 살아서 돌아온 건만 헤도 대단헌 거우다예.(어이구. 살아서 돌아온 건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104003 #1 일로 총 맞앙 일로 나오고, 몸은 다 총 맞안. 이디도 파편 들엉 영 헤가

믄 뿔룩, 뿔룩, 뿔룩, 뿔룩.(이리로 총 맞아서 이리로 나오고, 몸은 다 총 맞았어. 여기도 파편 들어서 이렇게 해가면 불룩, 불룩, 불룩, 불룩.)

104003 @ 메께라!(어쩌나!)

104003 #1 파편 이만썩헌 거 다 들어 간.(파편 이만씩 한 거 다 들어갔어.)

104003 @ 그믄 유공자로 등록뒈수과?(그러면 유공자로 등록됐습니까?)

104003 #1 유공자지.(유공자지.)

104003 @ 아아. 세상에.(아아. 세상에.)

104003 #1 해병대 사기생이옌 헹. 여기 태극기 다 놩 이런 디 만딱 헤연. 겨난에 자기는 사름 하나 죽인 건 그딱도 안헌덴. 원갖 전장 다녀부난. 그 토술산에 강 올라간 때 보난에 북한 것덜이 근무 사서렌. 그디. 대검으로 콱콱 쑤시멍 팍팍 차 둠서, 그디 강 탁 기관총 부대난.(해병대 사기생이라고 해서 여기 태극기 다 놔서 이런데 모두 해서 그러니까 자기는 사람 하나 죽인 건 끄떡도 안한다고. 온갖 전쟁 다녀버리니까. 그 토술산에 가서 올라간 때 보니까 북한 것들이 근무 섰더라고. 거기. 대검으로 콱콱 쑤시면서 팍팍 차 두고, 거기 가서 탁 기관총을 드니까 그 기관총부대니까.)

104003 @ 아이고, 무서워라.(아이고, 무서워라.)

104003 #1 그 기관총이 서이, 너이 들러 산 거 말제는 자기만도 들럿덴.(그 기관총 셋, 넷이 들어 선 거 말째는 자기만도 들었다고.)

104003 @ 할아버지 성함은 한자?(할아버지 성함은 한자?)

104003 #1 한씨.(한씨.)

104003 @ 한, 뭐꽈?(한, 뭡니까?)

104003 #1 한 달생이. 아방이난.(한씨, 한 달생. 아버지니까.)

104003 @ 달생?(달생?)

104003 #1 날 생, 통달 생. 날생 제. 통달 생자허고 날생 자.(날 생, 통달 생. 날생자. 통달 생자하고 날생 자.)

104003 @ 성은?(성은?)

104003 #1 한가.(한가.)

104003 @ 한?(한?)

104003 #1 달생.(달생.)

104003 @ 한날생? 한생?(한날생? 한생?)

104003 #1 달생.(달생.)

104003 @ 한달생.(한달생.)

104003 #1 에이구, 게난 우리 대답도 안헤여. 원간 전장헤난 사름이난이.(에이구, 그러니까 우리 대답도 안 해. 온갖 전쟁 했었던 사람이니까.)

104003 @ 아이구, 살아서 돌아온 건만 헤도.(아이구, 살아서 돌아온 것만 해도.)

104003 #1 눈 탁허게 데싸져가믄 이. 아이구, 저 사름은 무서운 사름이난 고만이, 싸웁지 안 허여. 지 허는 냥 고만이 네불어. 허는 냥, 이영 허렌허민 으으응.(눈 탁하게 뒤집어져 가면 이 아이구, 저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니까 가만히, 싸우지 안 해. 자기 하는

냥 가만히 내버려. 하는 냥, 이렇게 하라고 하면 으으응.)

104003 @ 게믄 삼촌이 져 줫다는 거 아니?(그러면 삼촌이 져 줬다는 거 아니?)

104003 #1 졋지. 거, 거 이기젠 허민 사름 ᄒᆞ나가 죽을 건디.(졌지. 거, 거 이기려고 하면 사람 하나가 죽을 건데.)

104003 @ 하.(하.)

104003 #1 지 허고헨 허렌허는 냥 멩녕이라.(자기 했다고 하라고 하는 냥 명령이라.)

104003 @ 쯧쯧쯧.(쯧쯧쯧.)

104003 #1 상부의 명령은 팔부망천에 절대 복종허라 이거야.(상부의 명령은 '팔부망천'에 절대 복종하라. 이거야.)

104003 @ 아이구.(아이구.)

104003 #1 말 흔마디 대답 아녓저. 나는. 경 헨 산거라.(말 한마디 대답 안했다. 나는. 그렇게 해서 산거라.)

104003 @ 아이구, 답답허쿠다.(아이구, 답답하겠습니다.)

104003 #1 거난 고만이 내불어. 그 사름광 싸우민 갈리도 못허곡 매나 후 두드려 맞지 무신.(그러니까 가만히 내버려. 그 사람과 싸우면 갈리지도 못하고 매나 후 두드려 맞지 뭐.)

104003 @ 때리진 안헷고예?(때리진 안했고요?)

104003 #1 안 때려. 삐얌 흔번 안 때려. 남은 건 다 뚜드려도 집읫 애기나 가속은 츰, 요만도 것지지도 안헤여.(안 때려. 뺨 한번 안 때려. 남은 건 다 뚜드려도 집의 애기나 가속은 참, 요만큼도 건들지도 안 해.)

104003 @ 삼촌이 죽어주니까게.(삼촌이 죽어주니까.)

104003 #1 아이구. 거난 우리 아시는.(아이구. 그러니까 우리 아우는.)

104003 @ 벌어오고.(벌어오고.)

104003 #1 우리 성은 대답 안ᄒᆞ난 싸웁지 안헷주기. 대답 헷쟈 이기지도 못허여. 놈이나 웃주.(우리 언니는 대답 안하니까 싸우지 안했지. 대답 해봐도 이기지도 못해. 남이나 웃지.)

104003 @ 게난. 그거 현명한 판단이우다게.(그러니까. 그거 현명한 판단입니다.)

104003 #1 내가 그걸 헤영 이길 자신 시면은 허주만은. 전장헤난 사람인디 이기지도 못 허곡 눈 영 터가민 우트레 팍 올려.(내가 그걸 해서 이길 자신 있으면 하지만은. 전장했던 사람인데 이기지도 못 하고 눈 이렇게 떠가면 위로 팍 올려서.)

104003 @ 아이구.(아이구.)

104003 #1 거난 전장헐 때에 다 직헌 디가 잇어렌. 해낮이, 해낮이 막 느 죽고 나죽고 막 그냥 싸우는디 눈에 헤영헌 하르방이 탁 앞이, 앞이 나산에이, 넌 나 시키는 대로만 헤라 헨. 영 텅 보난 그 하르방이 엇어렌. 건디이 저딘 포 떨어질 거 담다 허민 똑 그레 강 털어져렌. 저레 피헤살 건디 허민 똑 그레허민 그레. 거 지키는 거라렌.(그러니까 전쟁할 때에 다 지킨 데가 있었다고. 대낮에, 대낮에 막 너 죽고 나 죽고 막 그냥 싸우는데 눈에 하얀 할아버지가 딱 앞에, 앞에 나서서, 넌 나 시키는 대로만 하라. 이렇게

떠 보니까 그 할아버지가 없더라고. 그런데 이 저딘 포 떨어질 거 담다 하면 똑 그리 가서 떨어져. 저리 피해야 할 건데 하면 그리하면 거기. 그거 지키는 거라고.)

104003 @ 지켜줫네. 조상이.(지켜줬네. 조상이.)

104003 #1 지켜줜. 초상이. 겨난 어디 간 들으난에 왕족 하르방이, 한씨 왕족 하르방이 청주에 잇다네.(지켜줬어. 초상이. 그러니까 어디 가서 들으니까 왕족 할아버지가 한씨 왕족 할아버지가 청주에 있다네.)

104003 @ 음.(음.)

104003 #1 무신 일 잘못헤부난 제주로 귀양을 와서 그 하르부지가.(무슨 일 잘못해 버리니까 제주로 귀양을 와서 그 할아버지가.)

104003 @ 아아.(아아.)

104003 #1 가시리[93]에 완.(가시리 와서.)

104003 @ 아아.(아아.)

104003 #1 주둔헨 그 가시리 땅이 다 한씨 가속들 땅이라.(주둔해서 그 가시리 땅이 다 한씨 가속들 땅이라.)

104003 @ 아아.(아아.)

104003 #1 그 후대는 다 풀아먹어 불언.(그 후에는 다 팔아먹어버렸어.)

104003 @ 아아.(아아.)

104003 #1 그 하르방이 이디 귀양 완.(그 할아버지가 여기 귀양 와서.)

104003 @ 아아.(아아.)

104003 #1 산 하르방이 한씨라. 청주에서 원간 쎄게사 싸와신디 어떤지 제주로 보내부난.(산 할아버지가 한씨라. 청주에서 워낙 세게 싸웠는지 어떤지 제주로 보내버리니까)

104003 @ 음.(음.)

104003 #1 가시리로 보내부난 경 헨 하르방이. 그 하르방이 왕족이옌.(가시리로 보내버리니까 그렇게 해서 할아버지가, 그 할아버지가 왕족이라고.)

104003 @ 에이구, 살아서 돌아오난 자식들도 영 낳곡.(에이구, 살아서 돌아오니까 자식들도 이렇게 낳고.)

104003 #1 이제 스물, 스물셋에 군인 지원헨 해병대로 간, 이젠 스물으섯 나난.(이제 스물, 스물셋에 군인 지원해서 해병대로 간, 이젠 스물여섯 나니까.)

104003 @ 완.(와서.)

104003 #1 제대헨 완.(제대해서 와서.)

104003 @ 자식도 보고.(자식도 보고.)

104003 #1 경 온 후제 애기덜 낫주. 이제 원 나보지도 안허고.(그렇게 온 후에 애기들 낳았지. 이제 원 나보지도 않고.)

104003 @ 아이구, 군인이엇구나예. 경헤노난.(아이구, 군인이었군요. 그러니까.)

104003 #1 해병대.(해병대.)

93) '가시리'는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를 말한다.

104003 @ 겨난 자꾸.(그러니까 자꾸.)

104003 #1 북한 놈덜은 개병대옌 헌덴.(북한 놈들은 '개병대'라고 한다고.)

104003 @ 아이구, 어머니, 그 아까 말한 그, 그 사름 생각이, 공부헌 사람이 나을 수도 잇엇겟다예. 쳇.(아이구, 어머니, 그 아까 말한 그, 그 사람 생각이, 공부한 사람이 나을 수도 있었겠네요. 쳇.)

104003 #1 건디 우리 어멍이 우리 뚤 펜안혜영 농부한이 허난에 이추룩 농부한이헌티 간 거라. 게난 우리 아버진 어이구.(그런데 우리 어머니 우리 딸 편안해서 농사꾼 하니까 이렇게 농사꾼에게 간 거라. 그러니까 우리 아버진 어이구.)

104003 @ 군인은 무서와.(군인은 무서워.)

104003 #1 우리 아버지는 원간 배운 어른이니까 이장질 허고, 유지자고, 혹교 위원장이민 막 쎄게 놀아낫어게.(우리 아버지는 원간 배운 어른이니까 이장일 하고, 유지고, 학교위원장이면 막 세게 놀았었어.)

104003 @ 때리지만 안허여도 다행이우다게. 에이구.(때리지만 않아도 다행입니다. 에이구.)

104003 #1 때리진 안허여. 여ᄌᆞ ᄯᅮ리는 건 사람 아니옌 허여.(때리진 않아. 여자 때리는 거는 사람 아니라고 해.)

104003 @ 사람 아니주게.(사람 아니죠.)

104003 #1 거 여ᄌᆞ ᄯᅮ리는 건 인간이 아니옌 ᄀᆞᆯ아.(거 여자 때리는 건 인간이 아니라고 말해.)

104003 @ 인간이 아니주게. 건 맞아.(인간이 아니죠. 건 맞아.)

104003 #1 사람이 어디 여ᄌᆞᆯ 때리냐고 애기도 원 ᄋᆞᆨ도 아니 헨 키와. 원 ᄋᆞᆨ 흔번 아니 헨 야이네 여섯 오누이 다 컨.(사람이 어디 여잘 때리냐고 애기도 원 욕도 아니 해서 키워. 원 욕 한번 아니 했어. 야이네 여섯 오누이 다 컸어.)

104003 @ 야, 신기하다예.(야, 신기하네요.)

104003 #1 아이고, ᄋᆞᆨ도 아니 허여. 나 때리민 기냥 막 열 받아. 왜 애기 때리느냐고.(아이고, 욕도 안 해. 나 때리면 그냥 막 열 받아. 왜 애기 때리느냐고.)

104003 @ 아까와헨예.(아까워했군요.)

104003 #1 자기 혼자 독신이니까.(자기 혼자 독신이니까.)

104003 @ 그런 게 잇나봐.(그런 게 있나봐.)

104003 #1 애기를 기중하더라고, 기중허게 생각허더라고.(애기를 귀중하더라고, 귀중하게 생각하더라고.)

104003 @ 자기 핏줄을.(자기 핏줄을.)

104003 #1 이녁 혼자만 단 아덜로만 키운 거니까.(이녁 혼자만 외아들로만 키운 거니까.)

104003 @ 외로와서.(외로워서.)

104003 #1 친척도 엇고게. 웨로 ᄒᆞ니까. 것도이 이제 동싱덜이 하야 팍팍 퍼질건 디지 혼자니까 외롭지.(친척도 없고 외로 있으니까. 것도 이제 동생들이 많아야 팍팍 퍼질

건 데 자기 혼자니까 외롭지.)

104003 @ 그렇지.(그렇지.)

104003 #1 그니까 애기가 그렇게 기중허게 킵더라.(그러니까 애기가 그렇게 지중하게 키우더라.)

104003 @ 그렇구나. 거니까예. 하여튼 자기자식만큼은.(그렇구나. 그러니까요. 하여튼 자기자식만큼은.)

104003 #1 나신딘 커싱커싱[94]허곡이. 애기신디는이 크게 말도 아니 골아. 뭐옌허민 기여! 경ᄒᆞ라. 난 안 뒈어! 안 뒈어! 나신디. 어따! 애기신딘 기여 허곡 무사 나광 드렁? 너광이나 허지 아기광 헤지나?(나에겐 '커싱커싱'하고, 애기한테는 크게 말도 안 해. 뭐라고 하면 그래! 그렇게 해라. 난 안 돼! 안 돼! 나에게. 어따! 애기에게 그래 하고 왜 나하고만? 너하고나 하지. 아기랑 하나?)

104003 @ 아오.(아오.)

104003 #1 애기덜은 경 에끼더라고.(애기들은 그렇게 아끼더라고.)

104003 @ 그렇구나예. 아들딸 뭐 구별은 안헷수과?(그렇군요. 아들딸 뭐 구별은 안했습니까?)

104003 #1 똑ᄀᆞ치.(똑같이.)

104003 @ 똑ᄀᆞ치예.(똑같이요.)

104003 #1 게난 이제 우리 셋뚤은 이제도 아버지벳긔 몰라.(그러니까 이제 우리 둘째딸은 이제도 아버지밖에 몰라.)

104003 @ 음.(음.)

104003 #1 견디 이디 족은아덜ᄒᆞ고 어, 말젯뚤ᄒᆞ고 족은뚤은 어멍을 기중허게 네기고 셋 뚤에.(그런데 여기 작은아들하고 어, 셋째딸하고 작은 딸은 어머니를 귀중하게 여기고 둘째딸에.)

104003 @ 크으으으으.(크으으으으.)

104003 #1 큰뚤에, 큰아덜은 아방벳긔 몰라.(큰딸에, 큰아들은 아버지밖에 몰라.)

104003 @ 아아.(아.)

104003 #1 또 세 개는 또 어멍벳긔 몰르고.(또 세 개는 또 어머니밖에 모르고)

104003 @ 어어.(어어.)

104003 #1 세 개는 난 어멍이 좋아.(세 개는 난 어머니가 좋아.)

104003 @ 아오야. 신기하다예.(신기하네요.)

104003 #1 세 개는 아방이 좋아허멍. 우리 셋뚤은. 어멍 물에 빠지고 아방 물에 들민 나 아방 건지주. 어멍 무신.(세 개는 아버지가 좋아하면서. 우리 둘째딸은. 어머니 물에 빠지고 아버지 물에 들면 나 아버지 건지지. 어머니 무슨.)

104003 @ 아이구 춤.(아이구 참.)

104003 #1 뭐 경 곧는 아이라.(뭐 그렇게 말하는 아이라.)

104003 @ 크으으으으으. 재밋다.(크으으으으으. 재밌다.)

94) '커싱커싱'은 신경질적으로 자꾸 화를 내는 모양을 뜻한다.

104003 #1 셋뚤은.(둘째딸은.)

104003 @ 아이구, 춤말로.(아이구, 참말로.)

104003 #1 그 셋뚤 말이옌 허믄 잘도 들어.(그 둘째딸 말이라고 하면 잘도 들어.)

104003 @ 응.(응.)

104003 #1 아방이.(남편이.)

104003 @ 응.(응.)

104003 #1 영 헙서. 기여. 정 헙서헤도 기여.(이렇게 해요. 그래. 저렇게 해요. 해도 그래.)

104003 @ 뭐가 태운, 똑똑허고 허니까.(뭐가 태운 똑똑하고 하니까.)

104003 #1 막 영리허여. 셋뚤이. 영근덴 ᄒᆞ난.(막 영리허여. 둘째딸 이. 영리한다고 하니까.)

104003 @ 좋은 남자 만나고게. 또.(좋은 남자 만나고. 또.)

104003 #1 서울 놈 만낭 잘 살암세.(서울 놈 만나서 잘 사네.)

104003 @ 소는 어떻게 이용합니까?(소는 어떻게 이용합니까?)

104003 #2 소는 밥을 잘 주면 뭐 주인 말을 잘 들어.(소는 밥을 잘 주면 뭐 주인 말을 잘 들어.)

104003 @ 소는 밧을 갈고?(소는 밭을 갈고?)

104003 #2 밧 갈고 구루마.(밭 갈고 달구지.)

104003 @ 또 다른 건 뭐 잇수과? 사람은 안 타지예?(또 다른 건 뭐 있습니까? 사람은 안 타지요?)

104003 #2 소는 그런 적이 없어. 말이 잇지.(소는 그런 적이 없어. 말이 있지.)

104004 @ 소는 어떻게 길들입니까?(소는 어떻게 길들입니까?)

104004 #2 나가 저 두 술짜리 소를 갖다가 가르켜 봣는데, 소가 말 잘 들을라고 허니까 그 세 술 때 쟁기를 메왕 밧을 가니까 그냥 갈아 불데. 딴 사람덜은 소 가르칠라면 상당히 못 견디는데 나는 ᄒᆞ루에 가르쳣어.(나가 저 두 살짜리 소를 갖다가 가르쳐 봤는데, 소가 말 잘 들으려고 하니까 그 세살 때 쟁기를 매어서 밭을 가니까 그냥 갈아 버리더라. 딴 사람들은 소 가르치려면 상당히 못 견디는데 나는 하루에 가르쳤어.)

104004 @ 어떤 요령이 이신고예?(어떤 요령이 있는가요?)

104004 #2 나가 소를 사랑해 주니까 그건지 그 소가 말 안 헤도 뭐, 뭐.(내가 소를 사랑해 주니까 그건지 그 소가 말 안 해도 뭐, 뭐.)

104004 @ 애기 때부터 길들입니까?(애기 때부터 길들입니까?)

104004 #2 소가 자랄 만큼 자라야 세설, 네 설 뒈야 가르치는 디 난 세 술에 가르쳐도 그렇게 잘허데게.(소가 자랄 만큼 자라야 세 살, 네 살 되어야 가르치는 데 난 세 살에 가르쳐도 그렇게 잘 하대.)

104004 @ 세 술쯤 뒈면? 그다음은 그냥 집에서 멕이고 그렇게만 하다가?(세 살쯤 되면? 그 다음은 그냥 집에서 먹이고 그렇게만 하다가?)

104004 #2 그렇주.(그렇지.)

104004 @ 어떻게 가르쳐마씨? 뭐 돌멩이를 끗으렌 헤? 코뚜레를 꿰어?(어떻게 가르쳐요? 뭐 돌멩이를 끌라고 해? 코뚜레를 꿰어?)

104004 #2 난 코 꿰어본 일이 엇고.(난 코 꿰어본 일이 없고.)

104004 @ 아.(아.)

104004 #2 코 꿰어본 일도 엇고, 소가 집에서 먹을 걸 잘 주곡, 그러믄 소도 아는 모냥이라. 나 말이라면 뭐 백 프로 들으니까. 말 아이 들믄 코 꿰는디.(코 꿰어본 일도 없고, 소가 집에서 먹을 걸 잘 주고, 그러면 소도 아는 모양이라. 나 말이라면 뭐 백 프로 들으니까. 말 아니 들으면 코 꿰는데.)

104004 #2 말 안 듣는 건 코 꿰야지.(말 안 듣는 건 코 꿰어야지.)

104004 @ 말 잘 들어도 코는 꿰야 뒈는 거 아니예?(말 잘 들어도 코는 꿰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04004 #2 아니, 난 코 안 꿰엿어. 그렇게 말 잘 드니까 코 안 꿰어도.(아니, 난 코 안 꿰였어. 그렇게 말 잘 드니까 코 안 꿰어도.)

104004 @ 아, 말 안 듣는 놈만 꿰는 거꽈? 길들일 때 어려운거나 뭐 어떵 헹 길들입니까, 처음엔?(아, 말 안 듣는 놈만 꿰는 겁니까? 길들일 때 어려운거나 뭐 어떻게 해서 길들입니까, 처음엔?)

104004 #2 나가 많이 길들여 봣는데 그냥 잘 달루믄 소가 벌써 아는 모냥이여. 가서 처음으로 밧을 갈레 갓는데, 사람 이꺼야 뒈. 처음으로. 사람 빌리고서 헨 갓는데 당일로 가르쳐지데. 당일로. 하루에.(재가 많이 길들여 봤는데 그냥 잘 달래면 소가 벌써 아는 모양이야. 가서 처음으로 밭을 갈러 갔는데, 사람 끌어야 돼. 처음으로. 사람 빌리고서 해서 갔는데 당일로 가르쳐지대. 당일로. 하루에.)

104004 @ 아, 하루에.(아, 하루에.)

104004 #2 경 헹 밧을 잘 갈고 저쪽에 가민 지절로 쑥 돌아오고. 아주 사람하고 마찬가지. 소가 영리하면 지대로 탁탁 하니까 내말이 필요가 없어.(그렇게 해서 밭을 잘 갈고 저쪽에 가면 저절로 쑥 돌아오고. 아주 사람하고 마찬가지. 소가 영리하면 제대로 탁탁 하니까 내말이 필요가 없어.)

104005 @ 소의 나이에 대헤서 말씀혜 주십시오.(소의 나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4005 #1 소?(소?)

104005 @ 예. 멧 살까지 삽니까?(예. 몇 살까지 삽니까?)

104005 #1 흔 열 살까지 허믄 잡아먹어 불엄실 거여.(한 열 살까지 하면 잡아먹어 버릴 거야.)

104005 @ 열 살?(열 살?)

104005 #1 나 생각엔. 늙어 가민 도수장벳긔 더 가냐? 일 못 헤가믄.(나 생각엔. 늙어 가면 도축장 밖에 더 가냐? 일 못 해가면.)

104005 @ 하하하하.(하하하하.)

104005 #1 밧도 못 골곡게. 쉐가 죽으레 가는 거 알아. 눈물 두룩두룩 나.(밭도 못

갈고. 소가 죽으러 가는 거 알아. 눈물 뚝뚝 나.)

104005 @ 정말마씨?(정말이요?)

104005 #1 다 알아.(다 알아.)

104005 @ 하? 봐봣수과?(하? 봐봤습니까?)

104005 #1 다 알아들어.(다 알아들어.)

104005 @ 아오야.(아오야.)

104005 #1 쉐이, 뀌부령.(소, 꾀부려서.)

104005 @ 쯧쯧쯧쯧.(쯧쯧쯧쯧.)

104005 #1 밧 아이 갈아 가믄이.(밭 아니 갈아 가면.)

104005 @ 아오야.(아오야.)

104005 #1 또꼬망에 불 짇어도 아니 일어나는 쉔 안 일어나. 어떵 궁흉이 쎈 중 알아 쉐가.(똥구멍에 불 붙여도 안 일어나는 손 안 일어나. 어떻게 궁흉이 센 줄 알아 소가.)

104005 @ 아.(아.)

104005 #1 송곳으로 찔러도 끄딱도 안 혀. 쉐가. 뀌부리는 쉐.(송곳으로 찔러도 끄떡도 안 해. 소가. 꾀부리는 소.)

104005 @ 아저씨가 그런 것도 잘 헷구나.(아저씨가 그런 것도 잘 했구나.)

104005 #1 잘 혜여. 게난 버친 건 다 아방이 다 헤여.(잘 해. 그러니까 버거운 건 다 아버지가 다 해.)

104005 @ 겐 풀 때 우는 건 언제 봐봣수과?(그래서 팔 때 소 우는 거 언제 봐봤습니까?)

104005 #1 어?(어?)

104005 @ 소우는 거 어떤 때 봐봐수과?(소우는 거 어떤 때 봐봤습니까?)

104005 #1 사름 울 듯 울어라. 거 좋지 아녀.(사람 울 듯 울어라. 거 좋지 않아. 집안이 좋지 않아.)

104005 @ 아오야.(아오야.)

104005 #1 집안이 좋지 아녀. 똑 사름울 듯. 거난 거 풀아부나 잡아부나 허메.(꼭 사람 울 듯. 그러니까 그거 팔아버리니까 잡아버리나 해.)

104005 @ 그런 소리 나가믄.(그런 소리 나가면.)

104005 #1 건디 우린 경 안 헌디 놈덜 말이. 막 징그러와렌. 겐 너 죽을 것이다. 경 기분 나쁘게 울엄젠 허멍. 겐디 소는 알아렌. 말은 못 골아도.(그런데 우린 그렇게 안 하는데 남들 말이. 막 징그러웠다고. 그래서 너 죽을 것이다, 그렇게 기분 나쁘게 운다고 하면서. 그런데 소는 알더라고. 말은 못 해도.)

104005 @ 참.(참.)

104005 #1 진짜 영물엣 쉐라. 소는. 몰은이 실개 엇이 덜랑덜랑 허곡.(진짜 영물이 소라. 소는. 말은 이 쓸개 없이 '덜랑덜랑' 하고.)

104005 @ 어, 몰이 더 영리허덴 허는디이?(아, 말이 더 영리하다고 하는데요?)

104005 #1 몰은 실개가 엇어.(말은 쓸개가 없어.)

104005 @ 허허, 실개 엇덴 말은 들어수다만은. 하하.(허허, 쓸개 없다는 말은 들었습니디만. 하하.)

104005 #1 몰은 실개가 엇곡, 쉐는 실개 잇고.(말은 쓸개가 없고, 소는 쓸개 있고.)

104005 @ 아아.(아아.)

104005 #1 쉐는 밤이라도 앞이 세우면 도체비 ᄀᆞ뜬 거 다 휙휙 케우려 불어도 몰은 사름 앞더레 돌아온덴. 놀레영. 도체비 보믄.(소는 밤이라도 앞이 세우면 도깨비 같은 거 다 휙휙 떼버리지. 말은 사람 앞에 데리고 온다고. 놀래서. 도깨비 보면.)

104005 @ 도체비 보면.(도깨비 보면.)

104005 #1 그냥 사름 앞더레 튀어온덴. 쉐는 끄딱도 아녕. 쉐는 안심허곡 몰은 사름 앞더레 뛰어와렌. 아방 말이.(그냥 사람 앞에 뛰어버린다고. 소는 끄떡도 않았어. 소는 안심하고 말은 사람 앞으로 뛰어오더래. 아버지 말이.)

104005 @ 으응.(으응.)

104005 #1 췌고 아는 거라렌. 자기넨 몰른디 막 몰이 그냥 막 앞더레.(최고 아는거라고. 자기넨 모르는데 말이 그냥 막 앞으로.)

104005 @ 도체비 봐지민.(도깨비 보면.)

104005 #1 경허난 말젠 보난 그 도체비. 게난 무수 풀레 가는 디 친구 하나가 원, 저 삼양 우티ᄁᆞ지, 그디가 주공아빠뜨?(그런데 나중엔 보니까 그 도깨비. 그러니까 무팔러 가는데 친구 하나가 저 삼양 위에까지, 거기가 주공아파트?)

104005 @ 응.(응.)

104005 #1 거기서 도체빌 만난. 만나네 친구 하나가 암만 오카부덴 헤도 아니 오니까 이상허다 헨 이젠 몰을 메언 뒌 완 보난, 도체비 만낭 기냥 몰도 문딱 그냥 무수도 다 기냥 와당탕와당탕.(거기서 도깨빌 만났어. 만나서 친구 하나가 원, 아무리 올까 해도 아니 오니까 이상하다 해서 이젠 말을 매어서 두고 와서 보니까, 도깨비 만나서 그냥 말도 모두 그냥 무도 다 그냥 와당탕와당탕.)

104005 @ 쯧쯧쯧쯧 아이고.(쯧쯧쯧쯧 아이고.)

104005 #1 케우려[95]불곡, 막 혜연이, 간 보난이 죽엄직헤서렌. 사람이고 몰이고.('케우려버리고', 막 해서, 간 보니까 죽을 것 같더라고. 사람이고 말이고.)

104005 @ 메께라?(어머나?)

104005 #1 경헨 이 아방이 몰 ᄆᆞ데기 탁 잡안이 허연이. 반은 시끄고 반은 아이 시껀 만딱 케우령 데껴 불언. 하도 들럭퀴난게. 영 무수 다 무꺼논 건디게 문딱 케우쿠련 데껴부난 지 아니 만나시민 죽으커라렌 친구가 간 보난에 그냥 원.(그렇게 해서 이 아버지가 말 마디 탁 잡아서 해서 반은 싣고 반은 아니 싣고 모두 던져 버렸어. 너무 날 뛰니까. 자기 아니 만났으면 꼭 죽겠더라고 친구가 가서 보니까 그냥 원.)

104005 @ 쯧쯧쯧쯧.(쯧쯧쯧쯧.)

104005 #1 몰도 와당탕와당탕허곡 그냥, 그냥 구루마 헌 것이 다 삐데경 설러불고

95) '케우리다'는 모여 있는 물체를 헤집어 이리저리 흩어지게 한다는 말이다.

사람은 버치난 그냥 자빠져 불엇고 경헨 아방이 원간 쎄난 ᄆᆞᆯ을 팍 잡안 허난 경헨 이젠 지 ᄆᆞᆯ은 친구가 끗이렌 허곡, 그, 그 ᄆᆞᆯ은 이녁이 잡안 가고렌. 버쳔 친구. 그 ᄆᆞᆯ은 못 허켄 버쳔. 게난 게건 영철아 나 말 몰앙 글라. 날랑 느 ᄆᆞᆯ 몰앙 딱 잡으난 ᄁᆞ딱을 못헤렌. 아방이 막 세여. ᄃᆞ는 ᄆᆞᆯ도 심어당 메다 부찌고, 쉐도 메부찌는 사람. 탁탁 잡안. 아이구, 조천면에서 씨름 헨 일등 먹은 사람이여. 다 이기ᄀᆞ렌 허는데. 거난 힘도 좋잔아. 불떡불떡허잔아. 새로 부트믄 또 메도치고 붙으고. 으이구, 다 이기ᄀᆞ렌 허는 디. 힘 쎄여.(말도 와당탕와당탕하고 그냥, 그냥 달구지 한 것이 다 뿌려져서 그만둬 버리고 사람은 힘드니까 그냥 자빠져 불었고 그렇게 해서 아버지가 워낙 세니까 말을 팍 잡아서 하니까 친구가. 그래서 이젠 자기 말을 친구가 끌라고 하고, 그, 그 말은 이녁이 잡아서 갔다고. 힘들어서 친구. 그 말은 못 하겠다고. 힘들어서. 그러니까 그래서 영철아 나 말 몰아서 가자. 나는 너 말 몰아서 딱 잡으니까 까딱을 못하더라고. 아버지가 막 세여. 달리는는 말도 잡아다가 매다부치고, 소도 매부치는 사람. 탁탁 잡안. 아이구, 조천면에서 씨름 해서 일등 먹은 사람이야. 다 이기겠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힘도 좋잖아. 불끈불끈하잖아. 새로 붙으면 또 매도치고 붙으고. 으이구, 다 이겼다고 하는 데. 힘 세여.)

104005 @ 겐 또 그거 자상하게 갓당 왕 그런 얘기 ᄀᆞᆯ읍디가?(걸 자상하게 갔다가 오면 다 말했습니까?)

104005 #1 ᄋᆞ.(그래.)

104005 @ 아아.(아아.)

104005 #1 군인 간 왕 헤난 말도 난 ᄀᆞ만이 말 경 협데겐도 안허고 ᄀᆞ만이 들으만 허민 다 ᄀᆞᆯ아.(군인 가 와서 했던 말도 난 가만히 말 그렇게 했냐고도 안하고 가만히 듣기만 하면 다 말해.)

104005 @ 아, 게도 들어주는 것도 첨.(아, 그래도 들어주는 것도 참.)

104005 #1 경허고 거 속솜헹. 거 들어나니까 이제도 ᄀᆞᆫ는 거라. ᄀᆞᆯ아나니까. 토술산, 토술산서 거기서 전쟁 부뜨ᄀᆞ렌.(그렇게 하고 거 조용해서 거 들어나니까 이제도 말하는 거라. 말했으니까. '토술산', '토술산'서 거기서 전쟁 붙었다고.)

104005 @ 토?(토?)

104005 #1 토술산이옌 일름이.('토술산'이라고 이름이.)

104005 @ 토술산?(토술산?)

104005 #1 한라산 허듯. 일름이 토술산. 견디 영 헌디라렌 바로 영 헌디.(한라산 하듯. 이름이 '토술산'. 그런데 이렇게 한데라고 바로 이렇게 한데.)

104005 @ 건디 절벽?(그런데 절벽?)

104005 #1 응. 절박 헌 디 간 보난 북한 놈 입초 사멍 잠서렌. 팍팍 찔러 뒁 기냥 그 우이 올라 산 기관총 탁 메영은에 그 기냥 다다다다 허난 기냥 밋밋[96],밋밋 막 야, 사람도 하렌. 막 올라와렌. 막 올라와렌.(응. 절벽 한 데 가서 보니까 북한 놈 입초 서면서 자고 있더라고. 팍팍 찔러 두고 그냥 그 위에 올라 상 기관총 탁 매여서 그 그냥 다

96) '밋밋'은 거침없이 줄곧 넘어가는 모양을 듯한다.

다다다하니까 기냥 '밋밋, 밋밋' 막 야, 사람도 많더라고. 막 올라오더라고. 막 올라오더라고.)

104005 @ 무섭다예.(무섭네요.)

104005 #1 경헤연 밤 새낭 싸와가난 기관총에 그냥 불이 얼랑얼랑 막 그냥 열 받안 옷 찌지멍 물 둥그멍 그레 담그멍 ᄒᆞ난 기관총 뻣기민 총살이옌. 강 봥 기관총 뻣기민 총살헤불민. 완 보난 밤새낭 싸완. 상 나오난이. 안 마트ᄀᆞ렌. 뚠사람 맡안. 무사 안 맡으? 꼭 상 맡아나민 전장나민 꼭 총맞앙 죽넨.(그렇게 해서 밤 새 싸싸와가니까 기관총에 그냥 불이 얼랑얼랑 막 그냥 열 받아서 옷 찢으면서 물 담그면서 거기 담그면서 하니까 기관총 뺏기면 총살이라고. 강 봥 기관총 뺏기면 총살해버리면. 와서 보니까 밤새 내내 싸워서. 상 나오니까. 안 맡았다고. 딴 사람 맡아서. 왜 안 맡아? 꼭 상 맡으면 전쟁나면 꼭 총 맞아서 죽는다고.)

104005 @ 크.(크.)

104005 #1 안 마트ᄀᆞ렌. 그난 똑 가민 죽넨 그거. 상 맡은 사람. 그난 안 맡으젠 헌덴.(안 맡았다고. 그러니까 꼭 가면 죽는다고. 상 맡은 사람. 그니까 안 맡으려고 한다고.)

104005 @ 하하하하.(하하하하.)

104005 #1 꼭 전장 잘 헷젠 헤연이. 상 맡은 사람은이.(꼭 전쟁 잘 했다고 해서. 상 맡은 사람은.)

104005 @ 하하하하.(하하하하.)

104005 #1 어이구 경허난 서울탈환, 벵령 탈환허난 느네 공산당 안뒌 펜안이 살암쪄.(어이구 그래서 서울탈환, 평양 탈환하니까 너희 공산당 안 되어서 편안이 살지.)

104005 @ 아이고 게매예.(아이구, 글쎄요.)

104005 #1 북한 놈덜.(북한 놈들.)

104005 @ 어떵사 뒐 건지.(어떻게 될 건지.)

104005 #1 부산ᄁᆞ지, 서울ᄁᆞ지 막 먹은 거ᄁᆞ지 이젠.(부산까지, 서울까지 막 먹은 거까지 이젠.)

104005 @ 게메. 미국이영 소련이영.(글쎄. 미국이랑 소련이랑.)

104005 #1 게난이 서울, 인천, 부산만 넹겨둰, 부산. 인천, 서울 막 먹어 불언.(그러니까 서울, 인천, 부산만 남겨두고, 부산. 인천, 서울 막 먹어버렸어.)

104005 @ 인천상륙작전 말헴구나.(인천상륙작전 말하는구나.)

104005 #1 응. 우리 복희 아방, 겐 이견 나완.(응. 우리 복희 아버지, 겐 이겨서 나왔어.)

104005 @ 음.(음.)

104005 #1 전장허민이 목이 막 ᄆᆞ르민이. 강에 영장이 둥굴둥굴 떠도 거 업드러젼 그 물을 먹어야.(전쟁하면 목이 막 마르면. 강에 영장이 둥글둥글 떠도 거 엎드려서 그 물을 먹어야.)

104005 @ 쯧쯧쯧.(쯧쯧쯧.)

104005 #1 막 속에 불이 난. 그 밤새낭 싸웁젠 헤보라게. 느 죽고 나 죽고 겐 강에 이 영장이 둥굴둥굴 터도이. 그 물을 먹어야 뭰덴. 목이 너무너무 몰르니까. 에이구, 게난 이젯 사람덜은 군인도 안 가고 전장도 아니허고.(막 속에 불이 난. 그 밤새 싸우려고 해보라. 너 죽고 나 죽고 그래서 강에 영장이 둥글둥글 떠도. 그 물을 먹어야 된다고. 목이 너무너무 마르니까. 에이구,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군인도 안 가고 전쟁도 안하고.)

104005 @ 우리도 아들 군인 가신디예. 힘 들덴.(우리도 아들 군인 갔는데요. 힘 들다고.)

104005 #1 아이고, 무신 전장헴샤?(아이고, 뭔 전쟁하니?)

104005 @ 건 아무것도 아니. 요즘 아이덜.(건 아무것도 아니. 요즘 아이들.)

104005 #1 저 놈도 그냥 살암주만은.(저 놈도 그냥 살지만.)

104005 @ 호호허단게 가난게. 힘들게 헴주게.(호호하다가 가니까. 힘들게 하지요.)

104005 #1 느네 아덜이? 하나?(너희 아들이? 하나?)

104005 @ 하나.(하나.)

104005 #1 에구, 얼마나 보고 정 헐거고?(에구, 얼마나 보고 싶을 거고?)

104005 @ 할머니영 통화헤신디.(할머니랑 통화했는데.)

104005 #1 군인갈 때이 쟈이 군인, 앞이 흔저 가라. 보내 뒨.(군인 갈 때 쟤 군인, 앞에 빨리 가라. 보내 두고.)

104005 @ 삼촌.(삼촌?)

104005 #1 막 가이 앞이서 울민 뭐 허카부덴이. 아이고, 용기 잇게 헤라이. 허라 헤뒨이. 저만이 간 잘잘잘잘. 아이고, 잘도 울어서. 쟈이 갈 때.(막 걔 앞에서 울면 뭐 할까봐. 아이고, 용기 있게 해라. 하라 해두고. 저만큼 간 줄줄줄줄. 아이고, 잘도 울어서. 쟤 갈 때.)

104005 @ 멧 살 때 헤어졋수과?(몇 살 때 헤어졌습니까?)

104005 #1 야이? 뭐?(야이? 뭐?)

104005 @ 아빠영.(아빠랑.)

104005 #1 아빠. 쟈이 군인 갈 때끄지 아방이 나왕 돌앙 살앗주.(아빠. 쟤 군인 갈 때까지 아버지가 나와서 데리고 살았지.)

104005 @ 아아, 여기서?(아아, 여기서?)

104005 #1 우리 저 어디? 쟈이 돌안 제주 섯가름서 살단 완.(우리 저 어디? 쟤 데려서 제주 '섯가름'서 살다가 왔어.)

104005 @ 아아. 여기서도 멧 년 살안?(아아. 여기서도 몇 년 살았어?)

104005 #1 여기서는 흔 반년 사나마나.(여기서는 한 반년 사나마나.)

104005 @ 게도 정 들어신게. 반달이라도 할머니가.(그래도 정 들었네요. 반달이라도 할머니가.)

104005 #1 경헌디.(그런데.)

104005 @ 할머니가 계속 보기는 봐시컨게게?(할머니가 계속 보기는 봤겠네요?)

104005 #1 누게?(누구?)
104005 @ 야이. 어릴 때부터.(얘. 어릴 때부터.)
104005 #1 ᄀᆞ찌 살앗주게.(같이 살았지.)
104005 @ 경ᄒᆞ난.(그렇게 하니까.)
104005 #1 게난 군인 보내뒌.(그러니까 군인 보내두고.)
104005 @ 정이. 암만헤도.(정이. 아무리 해도.)
104005 #1 그땐 쟈이 군인, 서울이. 서울서 간 디 고모도 울고 다 울언. 쟈이 그 부대더레 보내뒌. 게난 그 옷은이. 또 벗언에 똑 보넷더라고 입엉 간 옷.(그땐 쟤 군인, 서울이. 서울서 갔는데 고모도 울고 다 울었어. 쟤 그 부대에 보내두고. 그러니까 그 옷은. 또 벗어서 꼭 보냈더라고 입어서 간 옷.)
104005 @ 예게.(예.)
104005 #1 신이영 그 옷이영 보멍.(신이랑 그 옷이랑 보면서.)
104005 @ 예게.(예.)
104005 #1 아니 울젠 헤도 아니 울 수가 잇어. 성민아, 성민아! 아이고 하느님아 이 애기 잘 키와줍서. 중알, 중알, 중알.(아니 울려고 해도 아니 울 수가 있어. 성민아. 성민아! 아이고 하느님아 이 애기 잘 키워주세요. 중얼, 중얼, 중얼.)
104005 @ 큰 아덜에 아이덜은 다 군대 갓다 오고?(큰 아들에 아이들은 다 군대 갔다 오고?)
104005 #1 응. 다 갓다 오고.(응. 다 갔다 오고.)
104005 @ 그땐 안 울어신디?(그땐 안 울었는데?)
104005 #1 그때는 자네 어멍, 아방 잇고 야인 어멍이 엇잔아.(그때는 자네 어머니, 아버지 있고 얜 어머니가 없잖아.)
104005 @ 어멍, 무사 할망 잇잔아?(어머니, 왜 할머니 있잖아?)
104005 #1 이혼헷잔아.(이혼했잖아.)
104005 @ 이혼헤도 어멍 보긴 보잔아.(이혼해도 어머니 보긴 보잖아.)
104005 #1 어릴 땐.(어릴 땐.)
104005 @ 군대 갓다 오고?(군대 갔다 오고?)
104005 #1 응.(응.)
104005 @ 그때는 안 울어신디?(그때는 안 울었는데?)
104005 #1 야인 어멍이 없잔아.(얜 어머니가 없잖아.)
104005 @ 보기는 봠잔아?(보기는 보잖아?)
104005 #1 이제사 봠주 이젠 ᄋᆞᆨ으니까.(이제야 보지 이젠 역으니까.)
104005 @ 멧 살 때 이혼헌 거꽈(몇 살 때 이혼한 겁니까?)
104005 #1 쟈이 열, 열 솔인가? 아홉 솔인가?(쟤 열, 열 살인가? 아홉 살인가?)
104005 @ 아오.(아오.)
104005 #1 초등ᄒᆞ교 일ᄒᆞ년 때 전에 가 불엇어.(초등학교 일학년 때 전에 가버렸어.)
104005 @ 겐 어멍ᄒᆞ고 여동생은 여기서 다 컨. 할무니가?(그래서 어머니하고 여동

생은 여기서 다 컸어. 할머니가?)

104005 #1 아니 뚤은 ᄃᆞ란가고.(아니 딸은 데려가고.)

104005 @ 데련가고.(데려가고.)

104005 #1 아덜만 여기서.(아들만 여기서.)

104005 @ 잘도 고생헤시컨게.(잘도 고생했겠네요.)

104005 #1 그렇지. 게도 나가 이시니까.(그렇지. 그래도 내가 있으니까.)

104005 @ 이시난.(있으니까.)

104005 #1 할망 이시니까.(할머니 있으니까.)

104005 @ 그난 할머니가 어머니 역할을 헷네. 울지 않을 수가 없겟네.(그러니까 할머니가 어머니 역할을 했네. 울지 않을 수가 없겠네.)

104005 #1 아이고, ◯◯아 파이팅! 허멍 보네뒨이.(아이고, 00아 파이팅! 하면서 보내두고.)

104005 @ 하하하하.(하하하하.)

104005 #1 눈물이 잘잘잘잘.(눈물이 줄줄줄줄.)

104005 @ 아이구, 세상에.(아이구, 세상에.)

104005 #1 잘도 울엇어. 저거이 보카부덴 이. 막 용기 잇게 헤뒨이.(잘도 울었어. 저거 볼까봐. 막 용기 있게 해두고.)

104005 @ 하하하하.(하하하하.)

104005 #1 막 게난 키와난 생각 허멍이. 쟈이 아이고, 나난 키왓주이. 버침직헤라. 저거이.(막 그러니까 키운 생각 하면서. 쟤 아이고, 나니까 키웠지. 버거울 것 같더라. 저거.)

104005 @ 성질 잇어?(성질 있어?)

104005 #1 성질이 파딱허민이.(성질이 팔딱하면.)

104005 @ 사춘기들게.(사춘기들.)

104005 #1 파딱허믄이 낭도 불도 몰라. 저거. 흔번은이. 죽젠 죽으라. 죽ᄀᆞ정 흔 사람은 죽어. 살ᄀᆞ정흔 사람은 살고. 느 멋대로 허라. ᄀᆞ만 네부난 ᄒᆞᆷ 시난 줄줄 와서. 우리 아무도 ᄃᆞᆯ레 안 가난. 이놈으 새끼가 꿰부련에 그냥. 왜 안 죽엉 왓나? 잘못헷수다. 왜 안 죽엉 왓나? 너 응. 이놈으 새끼 너 경 허는 거 아니다. 어디 경허나? 아이고, 잘못헷수다. 자기도 왁 허난에 열 받안.(팔딱하면 나무도 불도 몰라. 저거. 한번은. 죽으려고? 죽으라. 죽을려고 한 사람은 죽어. 살고 싶은 사람은 살고. 느 멋대로 허라. 가만 내버니까 조금 있으니까 줄줄 왔어. 우리 아무도 데리러 안 가니까. 이놈의 새끼가 꾀부려서 그냥. 왜 안 죽어서 왔나? 잘못했습니다. 왜 안 죽어서 왔나? 너 응. 이놈의 새끼 너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어디 그렇게 하나?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자기도 왁 하니까 열 받으니까.)

104005 @ 요즘 아이덜 ᄆᆞᄉᆞ와. 감정을예 뭐허지 못헨.(요즘 아이들 무서워. 감정을 요 뭐하지 못해서.)

104005 #1 게난 우리 애기어멍은 넉난 애기 완이. 요마니 헐 때 다 키와서. 소리엇

이 키와서. ᄂᆞ 어떵헤영 애기, 그 애기 성질에 따랑 키와사 헙네다. 우리 애기 어멍이. 성질 바쁜 건 바쁜 대로 알앙 키웁고 ᄂᆞᄅᆞᆺ헌[97] 건 ᄂᆞᄅᆞᆺ헌 성질에 따랑 키와사합네다. (그러니까 우리 아기 어머니는 넋 나가서 애기 와서 요만큼 할 때 다 키웠어. 소리 없이 키웠어. 너 어떻게 해서 그 애기 성질에 따라서 키워야 합니다. 우리 아기 어머니가. 성질 바쁜 건 바쁜 대로 알아서 키우고 'ᄂᆞᄅᆞᆺ헌' 건 'ᄂᆞᄅᆞᆺ헌'성질에 따라서 키워야합니다.)

104005 @ 지금은 엄마 보는 거로구나예.(지금은 엄마 보는 거로군요.)

104005 #1 어멍신디 갓다 왓다 헴주게. 지네 어멍신디.(어머니에게 갔다 왔다 하지. 자기네 어머니에게.)

104005 @ 게도 뗄 순 엇어.(그래도 뗄 순 없어.)

104005 #1 게난 어멍신디 갓다왓다 헤. 누이가 그디 간 사니까.(그러니까 어머니에게 갔다 왔다 해. 누이가 거기 가서 사니까.)

104005 @ 누이도 여기 옵니까?(누이도 여기 옵니까?)

104005 #1 ᄒᆞᆫ번 왓다갓주.(한번 왔다갔지.)

104005 @ 응. 게도 키우지 안허난 정은 엇이켜.(응. 그래도 키우지 안하니까 정은 없겠네.)

104005 #1 가이가이. 삼성이산디 어디 들어가서. 뚤이 고와.(걔가. 삼성인지 어디 들어가서. 딸이 고와.)

104005 @ 고와?(고와?)

104005 #1 쟈인 얼굴 넙작헌디 가인 소랑허여.(쟨 얼굴 넓적한데 가인 길쭉해.)

104005 @ 하하하하.(하하하하.)

104005 #1 잘도 고와.(잘도 고와.)

104005 @ 아빠 닮앗구나.(아빠 닮았구나.)

104005 #1 얼굴이 소랑허난.(얼굴이 길쭉하니까.)

104005 @ 삼촌 닮앙.(삼촌 닮아서.)

104005 #1 아니, 막 고와. 애기가. 이녁 손지엔 허랴이. 저건 얼굴 너부작작ᄒᆞ고. 지네 어멍ᄀᆞ찌헌디 가인 아방 닮앙.(아니, 막 고와. 애기가. 이녁 손지엔 하랴. 저건 얼굴 '너부작작ᄒᆞ고'. 자기네 어머니같이 가인 아버지 닮아서.)

104005 @ 아방 닮앙.(아버지 닮아서.)

104005 #1 소랑허여. 똑 아방 닮아. 쟈인 어멍ᄀᆞ찌 너부작작ᄒᆞ고. 쟈이도 고셍헷지게.(길쭉해. 똑 아버지 닮아. 쟨 어머니같이 '너부작작하고'. 쟤도 고생했지.)

104005 @ 게난.(그러니까.)

104005 #1 어멍 가부난.(어머니 가버리니까.)

104005 @ 하나씩 나눈다는 게 보통 일이꽈? 가슴 아픈 일들이주.(하나씩 나눈다는 게 보통 일입니까? 가슴 아픈 일들이지.)

104005 #1 겐디 이제 우리 ○○이는 혼자 살아도 펜안허여. 애기덜 다 커부니까. 누게 돈 ᄃᆞ렌 헐 사람이 잇나? 뭐 잇나? 지만 먹고 닷 냥, 뭐 닷 냥, 벌어 닷냥 허멍.(그

97) 'ᄂᆞᄅᆞᆺᄒᆞ다'는 성질이 거세지 않고 유순하다는 뜻이다.

런데 이제 우리 ○○이는 혼자 살아도 편안해. 애기들 다 커버리니까. 누구 돈 달라고 할 사람이 있나? 뭐 있나? 자기만 먹고 닷 냥, 뭐 닷 냥, 벌어 닷 냥 하면서.)

104005 @ 열심히 벌엉 좋은 사람 만나야주게.(열심히 벌어서 좋은 사람 만나야지.)

104005 #1 누게가 좋은 사람 오느니? 늙은디. 쉰하나 아니가?(누가 좋은 사람 오느니? 늙었는데. 쉰하나 아니냐?)

104005 @ 우리 친구들도 쉰하나 뒈도 혼자 사는 사람 많아. 게도 인연이란 게.(우리 친구들도 쉰하나 되도 혼자 사는 사람 많아. 그래도 인연이란 게.)

104005 #1 야인 막 착하고, 고정, 고정허곡이 헛뒌 말도 안허연.(얜 막 착하고, 고정, 고정하고 헛된 말도 않고.)

104005 @ 두 사람이 문제주.(두 사람이 문제지.)

104005 #1 ᄒᆞ루 ᄒᆞᆫ 말 ᄀᆞ나 마나 헤여. 속솜헤영. 게도 원 대답도 안허여. 어디 감수다. 왐수다. 그런 말도 안허여. 그런 건 잘 허여. 쟈이는이 자랑할 만헌 애기라. 야이는. 큰 아덜은 사분사분 ᄀᆞᆫ는디 야인 ᄒᆞ루 ᄒᆞᆫ말 안허여. 소곱에서만. 야이는 원 고정이라. 야이는.(하루 한 말 말하나 마나 해. 조용해서. 그래도 원 대답도 안 해. 어디 갑니다. 옵니다. 그런 말도 안 해. 그런 건 잘 해. 쟤는 자랑할 만한 애기라. 얘는. 큰 아들은 사분사분 말하는데 얜 하루 한말 안 해. 속에서만. 얘는 원 고정이라. 얘는.)

104005 @ 본인덜이 다 알앙덜. 제주도 바닥은 좁으난예.(본인들이 다 알아서들. 제주도 바닥은 좁으니까.)

104005 #1 아이구, 게도 나쁜짓도 안하고.(아이구, 그래도 나쁜 짓도 안하고.)

104005 @ 만날 인연이 잇긴 잇겟주마씨게.(만날 인연이 있긴 있겠지만요.)

104005 #1 어디 잇긴 잇주만은 몰란에.(어디 있긴 있지만 몰라서.)

104005 @ 아이구, 어머니 마음이라는 게.(아이구, 어머니 마음이라는 게.)

104005 #1 게난에 나 산 때 짝이나 지와시민. 나 산 때에. 뭐 나 죽어불어도 살긴 살지. 살긴 사는데. 그게 아니라이. 죽어가멍 속이 아프지.(그러니까 나 산 때 짝이나 지었으면 나 산 때에. 뭐 나 죽어버려도 살긴 살지. 살긴 사는데. 그게 아니라. 죽어가면서 속이 아프지.)

104005 @ 그렇지. 외로우니까.(그렇지. 외로우니까.)

104005 #1 응. 쯧, 건디 아덜이 효자라. 먹을 거 다 냉장고더레. 나 먹을 것도 다 사당.(응. 쯧, 그런데 아들이 효자라. 먹을 거 다 냉장고에. 나 먹을 것도 다 사다가.)

104005 @ 어머니가 잇이믄 것도 의지잔아. 하루하루 살멍.(어머니가 있으면 것도 의지잖아. 하루하루 살면서.)

104005 #1 먹을 건이. 먹켄 헌 거 다 헤와. 야이가.(먹을 건. 먹겠다고 한 거 다 해와. 얘가.)

104005 @ 그게 낙이주게.(그게 낙이죠.)

104005 #1 오널도 원 안 가는 게 어디 놀다오쿠다 헨 나간 게 안 들어왐싱게.(오늘도 원 안 가는 게 어디 놀다오겠습니다 해서 나간 게 안 들어오는.)

104005 @ 친구들도 많이 잇고. 좋주게. 잘만 열심히 하면.(친구들도 많이 있고. 좋

지. 잘만 열심히 하면.)

104005 #1 동창이 하.(동창이 많아.)

104005 @ 게난. 제주도는.(그러니까. 제주도는.)

104005 #1 매날 어디감디? 동창회우다 무신. 무신 서창회우다.(매날 어디 가니? 동창회입니다 뭐. 뭐 서창회입니다.)

104005 @ 음. 경허멍 인연도 만날 수 잇일 거우다게.(음. 그러면서 인연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104005 #1 에에 아이가 소상, 사상 골아사 인연허주.(에에 아이가 소상, 사상 말해야 인연하지.)

104005 @ 헤헤.(헤헤.)

104005 #1 말도 안 골앙 속솜허는디. 무신.(말도 안 해서 조용하는데. 뭐.)

104005 @ 소의 나이에 대헤서 말씀혜 주십시오.(소의 나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4005 #2 소 열 살 이상끄지 소를 메어봣는데 소는 스무 술까지 기를 수 잇어. 스무 술까지도. 소 한 열 살 지낭까지 키와 봣어. 나도.(소 열 살 이상까지 소를 메어봤는데 소는 스무 살까지 기를 수 있어. 스무 살까지도. 소 한 열 살 지나서까지 키워봤어. 나도.)

104005 @ 소 키우당 죽은 적은 엇수과?(소 키우다가 죽은 적은 없습니까?)

104005 #2 그런 일 엇고.(그런 일 없고.)

104005 @ 겡 늙어 가믄 풀아 불어?(그렇게 늙어 가면 팔아버려?)

104005 #2 응.(응.)

104005 @ 정들엉 풀아집디가?(정들어서 팔아집디까?)

104005 #2 아, 삿다 풀앗다 여러 번 헷어. 소가 ᄆᆞ음에 들면 달라는 대로 주어가지고 소를 삿어. 내가. 그 저 소도 주인을 알아.(아, 샀다 팔았다 여러 번 했어. 소가 마음에 들면 달라는 대로 주어가지고 소를 샀어. 내가. 그 저 소도 주인을 알아.)

104006 @ 쟁기의 부분 명칭은 잠대랜 허지예?(쟁기의 부분 명칭은 잠대라고 하지요?)

104006 #1 어? 잠대.(어? 잠대.)

104006 @ 질메?(길마?)

104006 #1 질메는 소 이렇게 헤영은에 밧가는 거. 질메.(길마는 소 이렇게 해서 밭 가는 거. 길마.)

104006 @ 멍에?(멍에?)

104006 #1 멍에, 멍에가 이런디 허곡 또 질메는 짐 지는 거.(멍에, 멍에가 이런데 하고 길마는 짐 지는 거.)

104006 @ 짐 지는 건 질메.(짐 지는 거 길마.)

104006 #1 짐 시끄는 거. 질메.(짐 싣는 거. 길마.)

104006 @ 짐 시끄는 거. 질메.(짐 싣는 거. 길마.)

104006 #1 멍에는 영 새에 영 나무헤근에 헤영 끄시는 건 멍에고. 질메는 짐 지우는 거. 짐. 영 쉐질멧가지 잇잔아?(멍에는 이렇게 사이에 이렇게 나무해서 헨 끄는 건 멍에고. 길마는 짐 지우는 거. 영 소길마가지 잇잖아?)

104006 @ 예.(예.)

104006 #1 그거 탁. 그건 질메.(그거 탁. 그건 길마.)

104006 @ 질메.(길마.)

104006 #1 멍에는 밧 갈 때에 이런 나무이.(멍에는 밭갈 때 이런 나무.)

104006 @ 아.(아.)

104006 #1 영 허는 건. 이런 디 하나 이마니 아니허나? 줄 영, 건 멍에고.(이렇게 하는 건. 이런 데 하나 이만큼 안하나? 줄 이렇게, 건 멍에고.)

104006 @ 예.(예.)

104006 #1 질메는 짐 시끄는 거.(길마는 짐 싣는 거.)

104006 @ 짐 시끄는 거.(짐 싣는 거.)

104006 @ 목장은 어떻게 관리합니까?(목장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104006 #1 응 목장은 저 산에.(응. 목장은 저 산에.)

104006 @ 산에예.(산에요.)

104006 #1 겐디 이 이젠 만짝 개간헤부난.(그런데 이젠 모두 개간해버리니까.)

104006 @ 옛날엔.(옛날엔.)

104006 #1 옛날엔 그냥 우이 강 헌디 놈은 못 찾아도 아방은 강 꼭 춪아와.(옛날엔 그냥 위에 가서 했는데 남은 못 찾아도 아버지는 가서 꼭 찾아와.)

104006 @ 목장에 소를?(목장에 소를?)

104006 #1 응.(응.)

104006 @ 언제 방목합니까?(언제 방목합니까?)

104006 #1 그냥 놔두믄 둘아나 불어. 소가.(옛날엔 그냥 위에 가서 한데 남은 못 찾아도 아버지는 가서 꼭 찾아와. 그냥 놔두면 달아나버려. 소가.)

104006 @ 표시허지예?(표시하지요?)

104006 #1 표시 다 허지. 이녁 꺼 다 알아.(표시 다 하지. 이녁 꺼 다 알아.)

104006 @ 경허당 겨울 지낭 춪이레 갑니까? 아니믄 봄에?(그렇게 하다가 겨울 지나서 찾으러 갑니까? 아니면 봄에?)

104006 #1 가을 들엉은에 소막에 메게 뒈어야.(가을 들어서 외양간에 매게 되어야.)

104006 @ 가을까지 풀엉은에 거기 놔둬?(가을까지 풀어서 거기 놔둬?)

104006 #1 응.(응.)

104006 @ 언제 풀어? 여름에?(가을까지 풀어서 거기 놔둬? 언제 풀어서? 여름에?)

104006 #1 그냥이 조헤여 난 디나 고구마 헤난디나 네불민 지냥으로 밧디 가둥 네불민, 담 다왕. 거기서 먹곡.(그냥 조 했던 데나 고구마 했던 데나 내버리면 자기 냥으로 밭에 가둬서 내버리면, 담 쌓아서. 거기서 먹고.)

104006 @ 아아.(아아.)

104006 #1 튿어먹곡.(뜯어먹고.)

104006 @ 아, 밧 속에예?(아, 밭 속에요?)

104006 #1 응.(응.)

104006 @ 저 어디 목장에 강 맡기지 안허영?(저 어디 목장에 가서 맡기지 않아서?)

104006 #1 아니. 조 ᄀᆞ리에. 목장에는 ᄋᆞ름에.(아니. 조 'ᄀᆞ리'에. 목장에는 여름에.)

104006 @ 여름에. 멧 달 맡겨?(여름에. 몇 달 맡겨?)

104006 #1 거는 ᄋᆞ름에 아맹헤도 ᄀᆞ만시라. 혼 유월? 대엿ᄃᆞᆯ 뒈여. ᄋᆞ름에 올리는 게. 게나제나 봄에로 부떠 우에 올릴 거난.(거는 여름에 그저 아무리 해도 가만 있어라. 한 유월? 한 다섯, 여섯 달 돼. 여름에 올리는 게. 그러나 저러나 봄에로 부터 위에 올릴 거니까.)

104006 @ 음, 봄에로부터 올려?(음, 봄에로부터 올려?)

104006 #1 게난 뎃ᄃᆞᆯ 뒈커라.(그러니까 '대여섯 달' 될 거야.)

104006 @ 뎃달예.('대여섯 달'이요.)

104006 @ 쟁기를 잠대렌 헙니까?('쟁기'를 잠대라고 합니까?)

104006 #2 응. 쟁기, 잠대옌도 허고.(응. '쟁기', 잠대라고도 하고.)

104007 @ 질메는 무싱거렌 헙니까?(길마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104007 #2 질메? 짐 시끄는 건 쉐질메. 등뗑이에 놔가지고.(길마? 짐 싣는 건 소 길마. 등에 놔가지고.)

104008 @ 멍에?(멍에?)

104008 #2 멍에는 밧가는 디 멍에 씌와가지고 하는걸 멍에라고 허여. 나무로 해가지고 멍에를 만들엇주.(멍에는 밭가는 데 멍에 씌워가지고 하는 걸 멍에라고 해. 나무로 해가지고 멍에를 만들었지.)

104009 @ 목장은 어떻게 관리헙니까?(목장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104009 #2 목장?(목장?)

104009 @ 신촌에도 목장이 이섯수과?(신촌에도 목장이 있었습니까?)

104009 #2 아니. 저 바로 우에 바농벵뒤[98] 강 그냥 올령 내버리곡,(아니. 저 바로 우에 '바농벵뒤' 가서 그냥 올려서 내버리고,)

104009 @ 바농벵뒤('바농벵뒤.')

104009 #2 이 부룽이 소덜은 멕이는 사람이 얼마씩 받아가지고 멧 달간 목장에서 관리헤서 멕엿어. 소가 영리헌 것이 그 집에 매는 밧갈 쉐덜은 따로 해가지고 사람안테 멧겨서 돈 얼마씩 주어가지고 멕이는데 한번은 저 교래에 가서 멧겻는데 그디 가서 멕이는 사름이 그때는 무수 갈라고 소를 멕이레 갓는데 아, 그날 가니까 그냥 막 비가 많이 와서 그 ᄃᆞ리 안네가 막 터져가지고 말이여, 그 소가 영리헌 것이 솔 이제 이꺼가지고 오는데 그 내를 건너젠 허니까 내가 좀 잔잔하길레 그 낼 막 내리는데 그 소를 이끄럿는디 소가 사름보다 더 영리혜. 여기 내가 확 허게 떨어지는 낭떠러진데 난 그 높은 데를 찾아가지고 오는 데 소를 심어야 뒈는디 소는 더 알아가지고 사름보단 더 영리헌

98) '바농벵뒤'는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와 와흘리 경계에 있는 바농오름 북쪽에 위치한다.

것이 글로 떨어질까 봐서 그 우로 가서 소는 넘어 오데. 그 소가 사람보단 더 조심허는 거. 소도 즘생이고.(이 부룩소들은 먹이는 사람이 얼마씩 받아가지고 몇 달간 목장에서 관리해서 먹였어. 소가 영리한 것이 그 집에 매는 밭갈 소들은 따로 해가지고 사람한테 맡겨서 돈 얼마씩 주어가지고 먹이는데 한번은 저 교래에 가서 맡겼는데 거기 가서 먹이는 사람이 그때는 무 갈라고 소를 먹이러 갔는데 아, 그날 가니까 그냥 막 비가 많이 와서 그 다리 안에가 막 터져가지고 말이야. 그 소가 영리한 것이 솔 이제 끌어가지고 오는데 그 내를 건너려고 하니까 내가 좀 잔잔해서 그 낼 막 내리는데 그 소를 끄는데 소가 사람보다 더 영리해. 여기 내가 확 하게 떨어지는 낭떠러진데 난 그 높은 데를 찾아가지고 오는 데 소를 심어야 되는데 소는 더 알아가지고 사름보단 더 영리한 것이 거기로 떨어질까 봐서 그 위로 가서 소는 넘어 오대. 그 소가 사람보단 더 조심하는 거. 소도 짐승이고.)

104009 #2 옛날엔 목장이라고 헌건 그냥 이 저 조천면 일수장, 이수장, 삼수장, 사수장이 제주도에 돌아가면서 잇엇는데, 그저 목장에 갖다 놔버리면 뒈.(옛날엔 목장이라고 한건 그냥 이 저 조천면 일수장, 이수장, 삼수장, 사수장이 제주도에 돌아가면서 있었는데, 그저 목장에 갖다 놔버리면 돼.)

104009 @ 소를 마씨?(소를요?)

104009 #2 응. 아 견디 이 부룽이는 그 방목허는 사람안테 맡겨야 뒈, 돈 주어서.(응. 아 그런데 이 부룩소는 그 방목하는 사람한테 맡겨야 돼. 돈 주어서.)

104009 @ 아, 부룽이는 숫소?(아, 부룩소는 수소?)

104009 #2 응. 부룽이는 수소.(응. 부룩소는 수소.)

104009 @ 무사마씨?(왜요?)

104009 #2 그게 저 그대로 헤노믄 어디 갈띠, 일러먹을지도 모르니까 한 자리에 맏쳐. 월급주면서 꼭 맡겨야지.(그게 저 그대로 해놓으면 어디 갈 때, 잃어버릴지도 모르니까 한 자리에 맡겨. 월급주면서 꼭 맡겨야지.)

104009 @ 삼촌은 어디 맡겨난 마씨?(삼촌은 어디 맡겼었나요?)

104009 #2 난 여러 군데 맡겨 봣는디, 뭐 저 교래끄지도 가고 요디 가까운디도 맡겨보고, 만약 여름에 더울 때에는 보통 밧가는 거 끝나면 거기다 맡겨서 돈주어가지고.(난 여러 군데 맡겨 봤는데, 뭐 저 교래까지도 가고 요기 가까운데도 맡겨보고, 만약 여름에 더울 때에는 보통 밭가는 거 끝나면 거기다 맡겨서 돈 주어가지고.)

104009 @ 그믄 여름에 맡경 언제 데리고 와 마씸?(그러면 여름에 맡겨서 언제 데리고 와요?)

104009 #2 그러니까 일헐 때는 끌어다가 일허고 또 갓다 멧기고 허는데 가을 틀면 촐 헤다가 집에다 쌓아놓고 겨울에 멕이는 거 다 준비헤 놓고.(그러니까 일할 때는 끌어다가 일하고 또 갖다 맡기고 하는데 가을 들면 꼴 해다가 집에다 쌓아놓고 겨울에 먹이는 거 다 준비해 놓고.)

104009 @ 촐 때문에 또 데려왓다가 또 보내마씨, 겨울에?(꼴 때문에 또 데려왔다가 또 보내요. 겨울에?)

104009 #2 겨울엔 보통 집에서 기루고.(겨울엔 보통 집에서 기르고.)

104009 @ 아, 그 목장에는 여름에 맡긴다는 거구나.(아, 그 목장에는 여름에 맡긴다는 거구나.)

104009 #2 어, 풀 낫을 때만.(어, 풀 났을 때만.)

104009 @ 풀 낫을 때. 게믄 얼마를 주고 맡깁니까? 암컷은 안 맡기고 부룽이만?(풀 났을 때. 그러면 얼마를 주고 맡깁니까? 암컷은 안 맡기고 부룩소만?)

104009 #2 암컷덜은 맡기는데가 별로 엇엇고, 저 부룽인 꼭 맡겨야 뒈. 약 한달에 만원이나 얼마씩이나 주어가지고.(암컷들은 맡기는 데가 별로 없었고, 저 부룩소는 꼭 맡겨야 돼. 약 한 달에 만원이나 얼마씩이나 주어가지고.)

104009 @ 게믄 여름 멧 개월을 맡기는고예?(그러면 여름 몇 개월을 맡기는가요?)

104009 #2 여름 흔 삼사 개월 이상 멧길 거주.(여름 한 삼사 개월 이상 맡길 거지.)

104009 @ 여름 삼사 개월예.(여름 삼사 개월이요.)

104009 #2 이 저 보통 사오월 둘 쯤에 이 부종 끝나가지고 밧가는 거 농사 다 끝나면 멧겨 가지고 가을쯤 뒈면 데려 오는 거지. 또. 거 영업적으로 멕이는 사름이 잇주. 소 한 마리에 돈 얼마씩 받으면서.(이 저 보통 사오 월쯤에 이 부종 끝나가지고 밭가는 거 농사 다 끝나면 맡겨 가지고 가을쯤 되면 데려 오는 거지 또. 거 영업적으로 먹이는 사람이 있지. 소 한 마리에 돈 얼마씩 받으면서.)

104009 @ 그믄 그 소가 다치거나 혹시 일러버리면 배상을 받습니까? 그런 일은 어섯수과?(그러면 그 소가 다치거나 혹시 잃어버리면 배상을 받습니까? 그런 일은 없었습니까?)

104009 #2 그런 일은 못 봣어.(그런 일은 못 봤어.)

104009 @ 게믄 술쪙 옵니까? 풀 하영 먹엉?(그러면 살쪄서 옵니까? 풀 많이 먹어서?)

104009 #2 풀만 먹는 거지.(풀만 먹는 거지.)

104009 @ 소도 병 걸리잔아예?(소도 병 걸리잖아요?)

104009 #2 아, 병 걸리고말고. 경허고 소는 천엽이 잇기 때문에 그 잘못 멕여가지고 죽는 건 봣어.(아, 병 걸리고말고. 그리고 소는 천엽이 있기 때문에 그 잘못 먹여가지고 죽는 건 봤어.)

104009 @ 뭘 잘못 먹연마씨?(뭘 잘못 먹였어요?)

104009 #2 이 천엽이라는 것이 종잇장ᄀᆞ치 나풀나풀헌 것이 소화시키는 기군데, 가리를 주면, 밀가리나 보릿가루라도 즘진 거 주면 거 붙어버리면 죽어 그냥. 거 위험헌거야.(이 천엽이라는 것이 종잇장같이 나풀나풀한 것이 소화시키는 기군데, 가루를 주면, 밀가루나 보릿가루라도 가는 거주면 거 붙어버리면 죽어 그냥. 거 위험한 거야.)

104009 @ 죽 쒕 먹을 때 그런 것이 쑬 수가 잇잔아예.(죽 쒀서 먹을 때 그런 것이 쑬 수가 있잖아요.)

104009 #2 그렇지.(그렇지.)

104009 @ 그거를 잘못 먹는 거?(그거를 잘못 먹는 거?)

104009 #2 그렇지.(그렇지.)

104009 @ 견디 물에 끌영 풀풀허게 허면 그건 궨찬은 거지예?(그런데 물에 끓여서 풀풀하게 하면 그건 괜찮은 거지요?)

104009 #2 그렇주. 끌리믄 혹 몰라도 쪼끔 끌리지만 안 헤엿어도 가리음식 주는건 소는 위험헤.(그렇지. 끌리면 혹 몰라도 조금 끌리지만 안 해였어도 가루음식 주는 건 소는 위험해.)

104009 @ 아.(아.)

104009 #2 가리음식.(가리음식.)

104009 @ 그렇게 죽는 거 봐봣수과?(그렇게 죽는 거 봐봤습니까?)

104009 #2 아, 그축 봐봣고, 또 너미 과식헤도 죽는 수가 잇어.(아, 그렇게 봐봤고, 또 너무 과식해도 죽는 수가 있어.)

104009 @ 아, 그렇구나.(아, 그렇구나.)

104009 #2 뭐 보리나 콩이나 이런 거 허민 소는 주는 대로 먹거든. 자기가 죽을 걸 모르고.(뭐 보리나 콩이나 이런 거 허민 소는 주는 대로 먹거든. 자기가 죽을 걸 모르고.)

104009 @ 아, 거믄 사람이 조절헤 줘야 뒈는구나예.(아, 그러면 사람이 조절해 줘야 되는군요.)

104009 #2 그렇지. 사람이 잘못허믄 죽는 거주.(그렇지. 사람이 잘못하면 죽는 거지.)

104009 @ 아, 자기가 배부르면 안 먹을 수도 잇잔아마씨?(아, 자기가 배부르면 안 먹을 수도 있잖아요?)

104009 #2 그 소는 배불어도 그냥 자기가 죽을 줄 모르고 먹는 거야.(그 소는 배불어도 그냥 자기가 죽을 줄 모르고 먹는 거야.)

104009 @ 거믄 그 목장에 풀어놔두면 풀을 계속 뜯어먹을 거 아니?(그러면 그 목장에 풀어놔두면 풀을 계속 뜯어먹을 거 아니?)

104009 #2 아, 풀은 뭐 언마든지 먹어도 안 헤여. 거는.(아, 풀은 뭐 얼마든지 먹어도 안 해. 거는.)

104009 @ 풀은 아무리 먹어도 괜찬코 곡식을 먹엇을 때 말이로구나예.(풀은 아무리 먹어도 괜찮고 곡식을 먹었을 때 말이로군요.)

104010 @ 소를 기르면서 느꼈던 추억이나 경험을 얘기헤 주십시오.(소를 기르면서 느꼈던 추억이나 경험을 얘기해 주십시오.)

104010 #1 새끼 날 때.(새끼 날 때.)

104010 @ 새끼도 여러 번 내와 봣수과?(새끼도 여러 번 내워 봤습니까?)

104010 #1 응.(응.)

104010 @ 실패하진 않고 다 잘?(실패하진 않고 다 잘?)

104010 #1 우리 소 풀멍 이 집도 사고 다 헌 거라.(우리 소 팔면서 이 집도 사고 다 한 거라.)

104010 @ 아저씨가예.(아저씨가요.)

104010 #1 부지런허여. 놀지 안허여.(부지런해. 놀지 않아.)

104010 @ 놀지 안허여. 목숨 걸엉 살아나신디예.(놀지 않아. 목숨 걸어서 살아났으니까.)

104010 @ 소를 기르면서 느꼈던 추억이나 경험을 말씀헤 주십시오.(소를 기르면서 느꼈던 추억이나 경험을 말씀해 주십시오.)

104010 #2 아, 소는 주인이 잘 허민 춤, 말 안 골을 뿐이여. 거 나가 멘 소들은.(아, 소는 주인이 잘 하면 참, 말 안 할 뿐이야. 거 내가 맨 소들은.)

104010 @ 삼촌은 물 멕이레는 몇 시에 갑니까? 보통. 멧 살부터 물 멕이레 가낫수과? 삼촌. 태어나가지고.(삼촌은 물 먹이러 몇 시에 갑니까? 보통. 몇 살부터 물 먹이러 갔었습니까? 삼촌. 태어나가지고.)

104010 #2 난 열 살엔 소, 말을 전혀 몰랏는데, 한 열 일곱술 후부터 소를.(난 열 살엔 소, 말을 전혀 몰랐는데, 한 열 일곱 살 후부터 소를.)

104010 @ 건 누가 가르쳐 줍디가?(건 누가 가르쳐 줬습니까?)

104010 #2 아, 거 살젠 허니까.(아, 거 살려고 하니까.)

104010 @ 아버지 허는 거 봅디가?(아버지 하는 거 봤습니까?)

104010 #2 아버지는 소를 못매봣어. 아버지안텐.(아버지는 소를 못 매봤어. 아버지한텐.)

104010 @ 아버지는 유학자꽈? 그런 걸 안 헨?(아버지는 유학자입니까? 그런 걸 안 했나요?)

104010 #2 아니. 저 젊엇을 때 돌아가셧주마는 일은 잘 헷는데, 그 때는 소도 재산이 잇어야 소를 메는 건데 소 아무집이나 경 막 맬 수는 없주기. 재산 없으니까 소를 못 맷어.(아니. 저 젊었을 때 돌아가셨지만 일은 잘 했는데, 그 때는 소도 재산이 있어야 소를 매는 건데 소 아무 집이나 그렇게 막 맬 수는 없지. 재산 없으니까 소를 못 맸어.)

104010 @ 삼촌 가난헤낫구나.(삼촌 가난했었구나.)

104010 #2 아, 우리아버진 막 가난헤서.(아, 우리아버진 막 가난해서.)

104010 @ 경 가난헌디 어떵 삼촌은 일곱 살에 공부도 시키고 경 똑똑헤신고예?(그렇게 가난한데 어떻게 삼촌은 일곱 살에 공부도 시키고 그렇게 똑똑했는가요?)

104010 #2 아이 거 가난헤여도 날 나니까 거 춤, 공불 시킬라고 앨 썻주게. 우리 부모네가. 경허곡 공불헤도 나가 이 어렷을 적에도 절대 벗들하고 무슨 싸움이나 이런 걸 안허고 꼭 허라는 것만 내가 헷으니까. 부모가 시키는 대로. 그치룩 허니까 부모가 상당히 아껴주고. 그 일찍 돌아가시니까 헷지.(아이 거 가난해도 날 나니까 거 참, 공불 시키려고 앨 썼지. 우리 부모네가. 그렇게 하고 공불해도 내가 어렸을 적에도 절대 벗들하고 무슨 싸움이나 이런 걸 안하고 꼭 하라는 것만 내가 했으니까. 부모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하니까 부모가 상당히 아껴주고. 그 일찍 돌아가시니까 했지.)

104010 @ 아버지가 몇 살 때 돌아가신 거꽈?(아버지가 몇 살 때 돌아가신 겁니까?)

104010 #2 열일곱 살 때게.(열일곱 살 때.)

104010 @ 아, 거난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후에 소를.(아, 그러니까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후에 소를.)

104010 #2 아, 그루후에도 쭉 키다가 흔 서른 댓 뒈가지고 소도 메고 농사도 많이 허고.(아, 그 후에도 쭉 키다가 한 서른 댓 되가지고 소도 매고 농사도 많이 하고.)

104010 @ 그 소를 삿구나예?(그 소를 샀군요?)

104010 #2 밧가는 소를 삿지.(밭가는 소를 샀지.)

104010 @ 소는 몃 마리 정도 키우고 멧 살까지 키와봣수과?(소는 몇 마리 정도 키우고 몇 살까지 키워봤습니까?)

104010 #2 겡 처음 산건 열 살ᄁᆞ지 키와봣어이.(그래서 처음 산 건 열 살까지 키워봤어.)

104010 @ 십년?(십년?)

104010 #2 열술ᄁᆞ지도 한 십여년 나가 메고, 그 후에는 흔 삼년에 ᄒᆞ나씩 교체허면서 좋은 쉐도 메여보고 나쁜 쉐도 메여보고.(열 살까지도 한 십 여년 내가 매고, 그 후에는 한 삼년에 하나씩 교체하면서 좋은 소도 매여보고 나쁜 소도 매여보고.)

104010 @ 좋은 쉔 뭐고 나쁜 쉔 뭣과? 말 잘 듣고 말 안 듣고?(좋은 소는 뭐고 나쁜 소는 뭡니까? 말 잘 듣고 말 안 듣고?)

104010 #2 그렇지. 말 안 듣는 건 밧도 잘 안 갈아가고.(그렇지. 말 안 듣는 건 밭도 잘 안 갈아가고.)

104010 @ 그런 건 삼년 키왕 풀아 불어수과?(그런 건 삼년 키워서 팔아버렸습니까?)

104010 #2 그렇지.(그렇지.)

104010 @ 젤 생각나는 손 잇수과? 처음에 십년 키운 거?(젤 생각나는 손 있습니까? 처음에 십년 키운 거?)

104010 #2 아이구, 좋은 소가. 나 이제도 생각이 나. 소는 말 아니 헤도 소는 일로 쭉 가민 자기가 돌아갈 땐 지대로 돌아사. 사람이 이렇게 허렌 안헤도 지대로. 응.(아이구, 좋은 소가. 나 이제도 생각이 나. 소는 말 아니 해도 소는 일로 쭉 가면 자기가 돌아갈 땐 제대로 돌아야. 사람이 이렇게 하라고 안 해도 제대로. 응.)

104010 @ 밧가는 소리 헤집니까?(밭가는 소리 할 수 있습니까?)

104010 #2 밧가는 소리라는 건 제주도에서 어러씩씩 어러 씩씩 벳긔 뭐 허는 게 잇어?(밭가는 소리라는 건 제주도에서 '어러씩씩 어러 씩씩' 밖에 뭐 하는 게 있어?)

104010 @ 거믄 그 소가 말 알아듣고 예. 밧불리는 소리도 말로 하지예?(그러면 그 소가 말 알아듣고요. 밭 밟는 소리도 말로 하지요?)

104010 #2 밧불리는 소리는 ᄆᆞᆯ로 대부분 ᄒᆞ니까 ᄆᆞᆯ로 허는 디 밧불리는 소리는 춤 잘허는 사름은 목청이 좋은 사름이 잘 허여. 얼 하랴하랴.(밭 밟는 소리는 말로 대부분 하니까 말로 하는 데 밭 밟는 소리는 참 잘하는 사람은 목청이 좋은 사람이 잘 해. '얼 하랴하랴.')

104010 @ 신촌에도 그런 분이 이섯수과?(신촌에도 그런 분이 있었습니까?)

104010 #2 아, 많에. 많이 잇어. 그때는.(아, 많아. 많이 있어. 그때는.)

104010 @ 다 돌아가셧잔아예?(다 돌아가셨잖아요?)

104010 #2 아, 이제 다 돌아갓지.(아, 이제 다 돌아갔지.)

104010 @ 송아지도 내와봇수과?(송아지도 내워봤습니까?)

104010 #2 송아지는 난 안 뒈겟데. 아이 뒈. 관리 못허고.(송아지는 난 안 되겠대. 아니 돼. 관리 못하고.)

104010 @ 말은 키와봐수과?(말은 키워봤습니까?)

104010 #2 말도 하나 산데, 춤, 저 우리 집의 아덜 이학년 때 남의 동네 사람이 밧데 농사헤 놓은 거 실러오질 못허니까 나도 엇고 허니깐 우리 아덜보고 아이고 느라도 저거 허영 물 구루마 허영 흑썰 시꺼다 드라 허난 물이 원체 순허고 말 잘 들어노니까 그 아이영 가근 놈으 짐을 시꺼와서.(말도 하나 산데, 참, 저 우리 집의 아들 이학년 때 남의 동네 사람이 밭에 농사해 놓은 거 실어 오질 못하니까 나도 없고 하니깐 우리 아들보고 아이고 너라도 저거 해서 말 달구지 해서 조금 실러다 줘라. 하니까 말이 원체 순하고 말 잘 들으니까 그 아이랑 가서 남의 짐을 실어왔어.)

104010 @ 아들이?(아들이?)

104010 #2 응.(응.)

104010 #2 그런 일은 엇고, 물은 하나 죽여봇어.(그런 일은 없고, 말은 하나 죽여 봤어.)

104010 @ 물은 망아지 낳당마씨?(말은 망아지 낳다가요?)

104010 #2 새끼 낳젠 허다가 그냥 대흘에서 죽언.(새끼 낳으려고 하다가 그냥 대흘에서 죽었어.)

말 기르기

104011 @ 물도 키와 봇수과?(말도 키워 봤습니까?)

104011 #1 응.(응.)

104011 @ 물은 어떻게 기릅니까? 말 키와봇수과?(말은 어떻게 기릅니까? 말 키워봤습니까?)

104011 #1 쉐허고 ᄀᆞ찌게, 흔펜씩.(소하고 같이, 한편씩.)

104011 @ 쉐막에.(외양간.)

104011 #1 응. ᄀᆞ찌 요디는 쉐, 요디는 물, 겨울에 흔펜씩.(응. 같이 요기는 소, 요기는 말, 겨울에 한편씩.)

104011 @ 칸, 칸. 영 허고?(칸, 칸 이렇게 하고?)

104011 #1 칸, 안 헤도 흔펜씩.(칸, 안 해도 한편씩)

104011 @ 지네끼리 쌉지 안허고?(자기네끼리 싸우지 안하고?)

104011 #1 안 싸와.(안 싸워.)

104011 @ 말은 어떻게 기릅니까? 소하고 달라마씨?(말은 어떻게 기릅니까? 소하고

달라요?)

104011 #2 말도 소나 마찬가지 뭐. 풀 헤여다 줭 멕이고.(말도 소나 마찬가지 뭐. 풀 해여다 줘서 먹이고.)

104011 @ 먹는 건 쪼끔 틀리지 안 헤마씨? 똑같아?(먹는 건 쪼끔 틀리지 안 해요? 똑같아?)

104011 #2 어, 똑같아. 풀 주민 먹고.(어, 똑같아. 풀 주면 먹고.)

104011 #2 말은 그냥 산에 놩 내불민 지대로 먹어서 살지 뭐.(말은 그냥 산에 놔서 내버리면 제대로 먹어서 살지 뭐.)

104011 @ 아, 봄부터마씨?(아, 봄부터요?)

104011 #2 응.(응.)

104011 @ 목장에 놧당 겨울엔 데려 와야지예?(목장에 놨다가 겨울엔 데려 와야지요?)

104011 #2 물은 겨울에도 보통 목장에 그냥 잇엇는데 겨울에는 이 물 키우는 사름은 흔 멧 십도 멧 백도 허는 사름이 잇엇는데 보통 목장에 그냥 놔.(말은 겨울에도 보통 목장에 그냥 있었는데 겨울에는 이 말 키우는 사름은 한 몇 십도 몇 백도 하는 사름이 있었는데 보통 목장에 그냥 놔.)

104011 @ 봄부터 겨울까지 내내?(봄부터 겨울까지 내내?)

104011 #2 응.(응.)

104012 @ 말의 종류에 대헤서 말씀헤 주십시오.(말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4012 #1 그런 건 몰라. 난.(그런 건 몰라. 난)

104012 #2 말도 나쁜 물은 막 말을 안 들어가지고 막 그냥 광대ᄀᆞ치 허는 물이 잇고, 아주 순헌 물이 잇고, 그런 거니까 물 잘 보는 사름은 물 보믄 알아. 물 타기 좋은 물 일 잘 ᄒᆞ는 물.(말도 나쁜 말은 막 말을 안 들어가지고 막 그냥 광대같이 하는 말이 있고, 아주 순한 말이 있고, 그런 거니까 말 잘 보는 사람은 말보면 알아. 말 타기 좋은 말 일 잘 하는 말.)

104012 @ 소가 비쌉니까? 말이 비쌉니까?(소가 비쌉니까? 말이 비쌉니까?)

104012 #2 소가 비싸지.(소가 비싸지.)

104012 #2 제주도 물이야 다 조랑말이엇지만 헌데 이 물이 지금 좋은 물 구진 물, 물도 사람이 탈수 잇는 물이 잇고 못 타는 물이 잇고, 아주 사나운 물이 잇고, 물도 아주 사나우면 상당히 가지 잘르기가 어려와.(제주도 말이야 다 조랑말이었지만 그런데 이 말이 지금 좋은 말 구진 말, 말도 사람이 탈수 있는 말이 있고 못타는 말이 있고, 아주 사나운 말이 있고, 말도 아주 사나우면 상당히 가지자르기가 어려워.)

104012 @ 털색깔이나 모양에 따라서.(털색깔이나 모양에 따라서.)

104012 #2 아, 정총마여, 월라말이여 유마물.(아, '정총마'여, '월라말'이여, '유마'말.)

104012 @ 월라가 무신 말이꽈?('월라'가 무슨 말입니까?)

104012 #2 좀 얼룩진 물.(좀 얼룩진 말.)

104012 @ 또 적토마를 붉은색?(또 적토마를 붉은색?)

104012 #2 유마ᄆᆞᆯ이 붉은색.('유마말'이 붉은색.)

104012 @ 유마ᄆᆞᆯ, 그 다음?('유마말', 그 다음?)

104012 #2 그 어둑허게 뭔건 적토마옌 허지. 막 검지도 않고 막 희도 않고.(그 어둑하게 된 건 적토마라고 하지. 막 검지도 않고 막 희도 않고.)

104012 @ 또 다른 말 잇수과?(또 다른 말 있습니까?)

104012 #2 이젠 다 알아지커라?(이젠 다 알겠다?)

104013 @ 말은 어떻게 이용합니까?(말은 어떻게 이용합니까?)

104013 #1 말? 말이 페락진 말도 잇고 순헌 말이 잇어.(말? 말이 사나운 말도 있고 순한 말이 있어.)

104013 @ 밧 ᄇᆞᆯ리는 거에 쓰고?(밭 밟는 거에 쓰고?)

104013 #1 밧 ᄇᆞᆯ리는 건 아무 ᄆᆞᆯ이라도 ᄇᆞᆯ리는데, 그 남테.(밭 밟는 건 아무 말이라도 밟는데, 그 남태.)

104013 @ 남테도 ᄆᆞᆯ허고?(남태도 말하고?)

104013 #1 걸로 ᄇᆞᆯ린다.(그걸로 밟는다.)

104013 @ 구루마에는 말보다 소가 나아?(달구지에는 말보다 소가 나아?)

104013 #1 ᄆᆞᆯ이 낫지.(말이 났지.)

104013 @ 아.(아.)

104013 #1 ᄲᆞᆯ르지. 소는 끈닥끈닥, 느랏느랏ᄒᆞ고 ᄆᆞ른 파짝파짝파짝 아방은이 느랏느랏헌 거 안헤여. 지 성질광 ᄀᆞ딱 막 뛰는 거라사.(빠르지. 소는 끈적끈적 느릿느릿하고 마른 팔짝팔짝팔짝 아버지는 느릿느릿한 거 안 해. 지 성질이랑 까딱 막 뛰는 거라야.)

104013 @ 아, 구루마를 말로 헷구나.(아, 달구지를 말로 했구나.)

104013 #1 야, 버친 ᄆᆞᆯ이, 저 ᄆᆞᆯ 좋은 거 사당 주쿠덴 ᄒᆞ난 이 이녁 속 만이 알앙 싯당 오골레끼 풀앙 ᄃᆞᆯ아나 불언. 아이구, 그 사람 심젠이. 아방 일도 못헤서. ᄋᆞ름에 간, 이젠 간 심언. 곱은 걸 강 심엇어. 심엉 이 도독놈으 새끼, 이제 ᄀᆞ뜨민 경찰에 가지. 그때는 그런 것이 엇엇어. 간 보난 곱안 저 산에 강 살암선게. 심언에이.(야, 버친 말이, 저 말 좋은 거 사다가 주겠다고 하니까 이 이녁 속 만큼 알아서 있다가 온전히 팔아서 달아나버렸어. 아이구, 그 사람 잡으려고 아버지 일도 못했어. 여름에 간, 이젠 간 잡아서. 숨은 걸가서 잡았어. 잡아서 이 도독 놈의 새끼, 이제 같으면 경찰에 가지. 그때는 그런 것이 없었어. 간 보니까 숨어서 저 산에 가서 살고 있었는데. 잡아서.)

104013 @ 에이우.(에이우.)

104013 #1 이 새끼 그냥 너 죽어불켄. 게난 이젠 이, ᄆᆞᆯ 이. 꿰둥이 하나가 이시난 것도 어디 강 거짓말 헨 앗아 온거주게. 아 그거 아니 앗아왓당 요놈으 새끼 죽이지도 못허곡게. 그 꿰둥일 ᄒᆞ여오난 ᄆᆞᆯ을. 꿰둥이 헤 오난 이제 요디 도당 친구네 집을 이젠 그때 도당으로 그 집 짓엇어. 도당을 시껑 오는디 비에이, 이젠 아스빨트주. 그 땐이 한 질도 그런 거 엇언. 흑이라. 는착는착[99] 허는디 이빠이 시껀 그냥 후닥후닥 오난 삼양

할망이 몰장시라이. 걸 봣다이. 겐 우리 집이 완에 그 말을 폽서. 나 돈 안네커메. 이 말은 나빼끼 못씹니다. 솔직히 말허주. 꿰부령 못헤. 경헤도 사켄만 허는 거라. 말제엔 나 원이랑 맙서. 나 솔직히 다 굴암시난예. 아 경헤도 하도 일헤연 오는 거 보난 환장헌 거라게. 그 비에다가 그 도당을 시껀 파닥파닥오난 할망이 환장을 헤연. 막 폴렌만. 이건 나벳긔 못심는 몰이우다. 경헤도 헨 아니헐싸 아니라 가난 일을 허느냐 꿰부련. 게난 솔직히 다 굴앗겟다 ᄀᆞ니까 돌르레 와지느냐? 속였으면 물르러 오지. 소문엔 드는 아버지가 일 안한다고 팔아달라고 하니까 그만이 말해도 그 할머니가 말 안듣데. 이젠 돌르렌 안 해. 그런데 흔번은 물에 들레 간 보난에 우리몰 아방이 존거벳긔 안메여. 야, 몰 좋다 헌 것만 메여. 몰이고 쉐고, 막 특으로만 메여.(이 새끼 그냥 너 죽어버리겠다고 그러니까 이젠, 말 꾀둥이 하나가 있으니까 것도 어디 가서 거짓말해서 가져온 거지. 아 그거 아니 가져왔다가 요놈의 새끼 죽이지도 못하고 그 꾀둥이해서 오니까 말을. 꾀둥일 해 오니까 이제 요기 도당 친구네 집을 이젠 그때 도당으로 그 집 지었어. 도당을 실어 오는데 비에, 이젠 아스팔트지. 그 땐 한길도 그런 거 없었어. 흙이라. '는착는착' 하는데 가득 실어서 그냥 '허작허작' 오니까 삼양할머니가 말장수라. 걸 봤다. 그래서 우리 집의 와서 그 말을 파세요. 나 돈 드릴테니 막 팔라고만. 이 말은 나밖에 못 씁니다. 솔직히 말하지. 꾀부려서 못해. 그래도 사겠다고만 하는거라. 말제엔 나 원이랑 마세요. 나 솔직히 다 말했으니까. 아 그래도 너무 일해서 오는 거 보니까 환장한 거라. 그 비에다가 그 도당을 실어서 파닥파닥오니까 할머니가 환장을 해서. 이건 나밖에 못 쓰는 말입니다. 그래도 해서 아니할까봐 가니까 일을 하느냐? 꾀부려서. 그러니까 솔직히 다 말했겠다 말하니까 바꾸러 와지냐? 속였으면 바꾸러 오지. 소문엔 드는 아방이 일 안한다고. 팔아달라고 하니까 그만큼 말해도 그 할머니가 말 안 듣대. 이젠 바꾸라고 안해. 그래서 한번은 물에 들어가려고 가서 보니까 우리 말 아버지가 좋은 거밖에 안 매. 야, 말 좋다. 한 것만 매여. 말이고 소고, 막 특으로만 매여.)

104013 @ 응.(응.)

104013 #1 겐디이. 갈 땐 몰장시가 이젠 막 완 몰덜 흥정헴데. 이제 우리집이 초가집의 신 때라. 이거 짓건디가 흔 ᄉᆞ십, ᄉᆞ십오년은 뒈서.(그런데 갈 땐 말장수가 이제 막 와서 말들 흥정하대. 이제 우리 집이 초가집이 있을 때라. 이거 지은 지가 한 40, 45년은 됐어.)

104013 @ 그전엔 초가집?(그전엔 초가집?)

104013 #1 이제. 새로 짓인 집이라. 흔번은 물에 들레 가멍 보난에 몰을 폴안에 우리 앞이서 신덜 신으멍 나가는 거 보아서. 아이 물에 들언 오멍 보난 몰이 이디 메여져 이서. 아이고 돌르레 왓구나. 몰 흥성헌 하르방이 이제 죽엇주게. 게난 나 들어가니까 눈 꼼막허데. 아 눈치챙. 조케야! 예. 몰 돌르레 왓저. 무사마씀? 몰이 발이 어떵허고. 예. 새각시 헌세나민 그 새각시 못 폴 듯 당신네 번찍헌 몰. 발이 어쩨고 허니까예 몰 내 불어동 갑서. 우리 들러먹지 안 헹 몰 폴앗젱 ᄒᆞ건 왕 돈 아져갑서. 거난 무시거옝 굴아게. 겨고양 몰깝은 엇수다. 빚 물어부난. 돈은 잇지. 잇어. 빚 물어부난 엇고예, 몰

99) '는착는착'은 땅이 질고 반드러워 밟으면 자꾸 밀려 나가는 모양을 말한다.

내 불어동 가민 우리 풀앙 안네크메 네불엉. 겡 이건 물 아니 아졍 갓당은 이건 뭐. 이것도 아니뒈고 저것도 아니뒈여. 이제 물을 앗앙 간. 간에 아메도 비싸뵈난 셍이라. 이젠 ᄀᆞ찌 온사름은 게건 차비나 줍서 허난에 우리 아신 잇단에 차비 타레 왓구나. 막 비꼬아부난 이 그 ᄒᆞ나 남젠이 아이탕가켄 헌 거 그 비꼬아도 이 그거 똑 돈을 아졍 가더라. 경헨 이 물 물앙 가고 그 차비, 아이고. 나 원. 벨 사름이 다 잇어.(이제. 새로 지은 집이라. 한번은 물에 들어가려고 가면서 보니까 말을 팔아서 우리 앞에서 신들 신으면서 나가는 거 봤어. 아이 물에 들언 오면서 보니까 말이 이디 매여져 있어. 아이고 바꾸러 왔구나. 말 흥정한 할아버지가 이제 죽었지. 그러니까 나 들어가니까 눈 깜박하대. 아 눈치채서. 조카야! 예. 말 바꾸러 왔다. 왜요? 말이 발이 어떻고. 예. 새각시 '헌새'나면 그 새각시 못팔 듯 당신네 멀쩡한 말 발이 어쩌고 하니까요. 말 내버리고 가세요. 우리 들러먹지 안하고 말 팔았다고 하면 와서 돈 가져가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 그리고요 말값은 없습니다, 빚 물어보니까. 돈은 있지 있어. 빚 물어버리니까 없고요. 말 내버리고 가면 우리 팔아서 드리겠으니 내버려서. 그래서 이건 말 아니 가져서 갔다가는 이건 뭐. 이것도 아니 되고 저것도 아니돼. 이제 말을 가져 간. 가서 아마도 비싸 보인 모양이라. 이젠 같이 온사름은 그러면 차비나 주세요. 하니까 우리 아우는 있다가 차비 타러 왔구나 막 비꼬아버리니까 그 하나 남잔 아니 타서 가겠다고 한 거 그 비꼬아도 이 그거 꼭 돈을 가져서 가더라. 그렇게 해서 이 말 몰아서 가고 그 차비, 아이고. 나 원. 별 사람이 다 있어.)

104013 @ 하하하하.(하하하하.)

104013 #1 그 남ᄌᆞ들은 비우 약헤여.(그 남자들은 비우 약해.)

104013 @ 허허.(허허.)

104013 #1 아방은 비우 약헤부난 돈은 아기어멍이 가져부난 오민 ᄀᆞᆯ앙 주키여 허영 나 올띠만 기다린 거라. 게난 난 눈 끔막허난 벌써 눈치 알앙. 돈 잇수과? 물 전화 돈은 엇다. 우리아시.(아버지는 비위 약해버리니까 돈은 아기엄마 가져버리니까 오면 말해서 주겠다고 해서 나 올 때만 기다린 거라. 그러니까 난 눈 깜박하니까 벌써 눈치 알아서. 돈 있습니까? 말 전화 돈은 없다. 우리아우.)

104013 @ 아이구, 똑똑허다예.(아이구, 똑똑하네요.)

104013 #1 나? 경허난 지식이 아방이 이, 자네 각신 잘 얻엇고. 뚠사름 ᄀᆞᆯ아가민 실쩨기 돈 내주카부덴 허난 하르방이. 딱 우겨자쳐렌 허멍. 막 각신 잘 얻엇젠 허멍. 우린 보내뒁 어떵 우신중 알아.(나? 그렇게 하니까 지식이 아방이 이, 자네 각신 잘 얻었고. 딴 사름 말해가면 슬쩍 돈 내줄까 봐 하니까 할아버지가. 딱 우긴다고 하면서. 막 각신 잘 얻었다고 하면서. 우린 보내두고 어떻게 웃은 줄 알아.)

104013 @ 아방[100]허고 하르방[101]은 나안티 씌와 분거라.(아버지하고 할아버지는 나한테 씌워 버린 거라.)

104013 #1 물 네 불어뒁 갑서. 풀앙 안네쿠다. 우리아시, 그 차비 타레 왓구나.

---

100) '아방'은 제주어로 아버지지만 여기서는 남편을 뜻한다.

101) '하르방' 원래 할아버지지만 여기서는 시아버지를 뜻한다.

돈 네주카부덴 허ᄀᆞ렌 하르방.(말 내버려두고 가세요. 팔아서 드리겠습니다. 우리아우, 그 차비 타러 왔구나. 돈 내 줄까봐 했다고 '하르방'.)

104013 @ 추억이다예.(추억이네요.)

104013 @ 말은 어떻게 이용헙니까? 밧 ᄇᆞᆯ릴 때 하고, 구루마?(말은 어떻게 이용합니까? 밭 밟을 때 하고, 달구지?)

104013 #2 ᄆᆞᆯ 구루마 허고, 밧 ᄇᆞᆯ릴 때도 허고, 밧도 갈곡, 내중에 밧도 ᄆᆞᆯ로 갈아서.(말 달구지 하고, 밭 밟을 때도 하고, 밭도 갈고, 나중에 밭도 말로 갈아서.)

104013 #2 ᄆᆞᆯ도 구루마도 허고, 사람 타는데 ᄆᆞᆯ도 잇고 밧 가는 ᄆᆞᆯ도 잇고.(말도 달구지도 하고, 사람 타는데 말도 있고 밭가는 말도 있고.)

104013 @ 말의 나이에 대헤서 말씀헤 주십시오. 소하고 말 중에 누가 오래 살 건고예?(말의 나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소하고 말 중에 누가 오래 살 건가요?)

104013 #2 소가 오래 살 거여. 아마. 소를 한 스무 살까지 길루는 사람이 잇어.(소가 오래 살 거여. 아마. 소를 한 스무 살까지 기르는 사람이 있어.)

104013 @ 말을 기르면서 느꼇던 추억이나 경험에 대헤서 말씀해 주십시오.(말을 기르면서 느꼈던 추억이나 경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4013 #2 말은 말 아이들면 상당히 나쁜 ᄆᆞᆯ이 뒈여서, 나 그런 ᄆᆞᆯ 하나 햇다가 그냥 버리다시피 내버린 ᄆᆞᆯ이 잇는데 아주 사람ᄀᆞ찌 몽니가 사나와.(말은 말 아니 들면 상당히 나쁜 말이 되어서, 나 그런 말 하나 했다가 그냥 버리다시피 내버린 말이 있는데 아주 사람같이 몽니 사나워.)

104013 @ 몽니가 센 말은 어떻게 다룹니까?(성질이 센 말은 어떻게 다룹니까?)

104013 #2 아. 그 ᄆᆞᆯ 때릴 수밖에 엇주. 뭐. ᄆᆞᆯ은 코 안 꿰고 자갈 물리는 거니까 여기다가 물려서 말 아니 들으민 자갈 물려근에.(아. 그 말 때릴 수밖에 없지. 뭐. 말은 코 안 꿰고 자갈물리는 거니까 여기다가 물려서 말 아니 들으면 자갈 물려서.)

104014 @ 말은 소보다 더 삽니까? 덜 살아?(말은 소보다 더 삽니까? 덜 살아?)

104014 #1 ᄆᆞᆯ은 이 영리허여 영리, 소보단. 소는 멍청이 거찌 대가리 맞앙 죽나허주만 ᄆᆞᆯ은 영리헌다고. ᄆᆞᆯ은이. 구촌까지 ᄀᆞᆯ랴.(말은 영리허여 영리, 소보단. 소는 멍청이 같이 대가리 맞아서 죽나하지만 말은 영리한다고. 말은 구촌까지 가려.)

104014 @ 구촌.(구촌.)

104014 #1 쉐는 이녁어멍 우터레 타 앚앙 헤여도이.(소는 이녁 어머니 위에 타 앉아서 해도)

104014 @ 하하.(하하.)

104014 #1 ᄆᆞᆯ은 구츤까지 ᄀᆞᆯ랴. 사름보다 낫지?(말은 구촌까지 가려. 사름보다 낫지?)

104014 @ 아오야.(아오야.)

104014 #1 구촌. 구촌. 뚠 사름은 안 헤여. 어떵 영리헌 중 알암나. ᄆᆞᆯ은.(구촌, 구촌 뚠 사름은 안 해. 어떻게 영리한 줄 아나. 말은.)

104014 @ 아오야.(아오야.)

104014 #1 ᄆᆞᆯ이 경 영리허여. 실갠 엇덴 ᄆᆞᆯ은.(말이 그렇게 영리허여. 쓸개 없다는 말은.)

104014 @ 허허.(허허.)

104014 #1 아이구, 요 ᄆᆞᆯᄀᆞ치 실개 엇이.(아이구, 요 말같이 쓸개 없이.)

104014 @ 하하.(하하.)

104014 #1 경허지 안냐? 무시거 잘못허민 아이구, ᄆᆞᆯᄀᆞ치 실개 엇다게.(그렇지 않니? 뭐 잘못하면 아이구, 말같이 쓸개 없다.)

104014 @ 열 살까진 사는가?(열 살까진 사는가?)

104014 #1 열 술 더 살지.(열 살 더 살지.)

104014 @ 열 술까지 더 살 거라예.(열 살까지 더 살 거예요.)

104014 #1 길름에 매지. 길름에. ᄆᆞᆯ이 잘허민 오래오래 길루고, 또 ᄆᆞᆯ 탐나네 풀렌 헌 사름은 풀아 줘불곡. 또 기냥 오래 길룰 사름은.(기르기에 매지. 기르기에. 말이 잘하면 오래오래 기루고, 또 말 탐나서 팔라고 한 사람은 팔아 줘버리고. 또 그냥 오래 기를 사람은.)

104014 @ 말의 나이는 소, 말 중에 누가 오래 삽니까?(말의 나이는 소, 말 중에 누가 오래 삽니까?)

104014 #2 말도 소나 비등비등허주만은. 늙으믄 못써. ᄆᆞᆯ은.(말도 소나 비등비등하지만. 늙으면 못써. 말은.)

104014 @ 게믄 말이 늙으민 어떵헐 거라? 잡아먹어?(그러면 말이 늙으면 어떻게 할 거라? 잡아먹어?)

104014 #2 글쎄. ᄆᆞᆯ 잡아먹는 건 잘 못 봣는데 잡아먹엇겟주 뭐.(글쎄. 말 잡아먹는 건 잘 못 봤는데 잡아먹었겠지. 뭐.)

104015 @ ᄆᆞᆯ 타거나 경허진 않지예?(말 타거나 그렇진 않지요?)

104015 #1 ᄆᆞᆯ 타.(말 타.)

104015 @ 사람이?(사람이?)

104015 #1 응. 아방 ᄆᆞᆯ 막 탕 뎅겨. 타근에 산에도 가고. 걸엉 안 뎅겨. ᄆᆞᆯ 탕.(응. 아버지 말 막 타서 다녀. 타서 산에도 가고. 걸어서 안 다녀. 말 타서.)

104015 @ 아이고야!(아이고야!)

104015 #1 ᄆᆞᆯ엔 호렝이옌 허난.(말엔 호랑이라고 하니까.)

104015 @ 아이고야!(아이고야!)

104015 #1 뛰는 ᄆᆞᆯ도 경 심어당 메다치는 사름이옌 하난. 막 힘 대가.(뛰는 말도 그렇게 잡아다가 매다가 치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막 힘 대가.)

104015 @ 밧 ᄇᆞᆯ리는 소리 이런 것도 잘헤낫수과? 소리는 별로?(밭 밟는 소리 이런 것도 잘했습니까? 소리는 별로?)

104015 #1 아방 소리 허는 건 못 봐봣어. 그런 것들 우리 시아바님은 잘헤서. 우리 시아바님은 소릴 헤난디 우리 집의 애기아방은 이 나 소리 허는 건 들어 본디 엇다. 경헌디 군인 간 온 소린 허메.(아버지 소리 하는 건 못 봐봤어. 그런 것들 우리 시아버님

은 잘 했어. 우리 시아버님은 소릴 했었는데 우리 집의 애기 아버지는 이 나 소리하는 건 들어본데 없다. 그런데 군인 가서 온 소린 해.)

104015 @ 창가?(창가?)

104015 #1 군인 간 디. 전우에 시체를 넘고 넘어~ 그거 허더라고. 앞으로, 앞으로. 낙동강아 잘 잇거라. 우리는 전진한다. 원한이 피에 미친 적군을 무찌르고서 파란 담배 연기 속에 쓰러진 전우야.(군인 간 디. '전우에 시체를 넘고 넘어~ 그거 허더라고. 앞으로, 앞으로. 낙동강아 잘 있거라. 우리는 전진한다. 원한이 피에 미친 적군을 무찌르고서 파란 담배 연기 속에 쓰러진 전우야.')

104015 @ 아이고 삼촌은 아저씨안티 들은 노래를 이렇게 잘 불러.(아이고 삼촌은 아저씨한테 들은 노래를 이렇게 잘 불러.)

104015 #1 우린 머리에 다 들어온다고.(우린 머리에 다 들어온다고.)

104015 @ 아아.(아아.)

104015 #1 우리 탕간허멍도 공부에 뭐 중 이상 올른디. 나홀 허여.(우리 탕건하면서도 공부에 뭐 중 이상 올랐는데. 나홀 해.)

104015 @ 아다마가 이이데쓰네.('아다마가 이이데쓰네'.)

104015 #1 웨우는 것도 놈보다.(외우는 것도 남보다.)

104015 @ 못헌덴 허난.(못한다고 하니까.)

104015 #1 멧 해냐?(몇 해냐?)

104015 @ ㅋㅎㅎㅎ.(ㅋㅎㅎㅎ.)

104015 #1 일본노래덜 헤여.(일본노래들 해.)

104015 @ 말을 기르면서 느꼇던 추억이나 경험을 말씀헤 보십시오. 소하고 말이 뭐 달라마씨?(말을 기르면서 느꼈던 추억이나 경험을 말씀해 보십시오. 소하고 말이 뭐 달라요?)

104015 #2 비등헤여. 비등. 경허고 우리 마굿간인디 이쪽엔 소 메고 이쪽엔 ᄆᆞᆯ 메고. ᄒᆞᆫ 집 안에 ᄆᆞᆯ하고 소하고 메엿어.(비등해. 비등. 경허고 우리 마구간인데 이쪽엔 소 매고 이쪽엔 말 매고. 한 집 안에 말하고 소하고 매였어.)

104015 @ 어떻게, 누가 똑똑헤마씨?(어떻게, 누가 똑똑해요?)

104015 #2 물론 소나 말은 사름 가믄 무시거 먹을 거나 줄 건가 해서 즘생이니까, 촐 헤여다가 막 쌓아두엇다가 갖다 주면은 먹고 자고 그자 그거지. 물 멕이고 그자. ᄒᆞ루 ᄒᆞᆫ번씩 물주고.(물론 소나 말은 사람 가면 무슨 거 먹을 거나 줄 건가 해서 짐승이니까, 꼴 해다가 막 쌓아두었다가 갖다 주면은 먹고 자고 그저 그거지. 물 먹이고 그저. 하루 한 번씩 물주고.)

104015 @ 소 청소라든가 관리하는 거는 비슷헤마씨? 소나 말이나?(소 청소라든가 관리하는 거는 비슷해요? 소나 말이나?)

104015 #2 ᄆᆞᆯ 메는 디고 소 메는 디고 퉤비로 쓰니까 거기 오줌싸고 똥 싸고, 그러면은 자꾸 이 저 검부럭을 놔가지고 헤이 저 방이 불 땐 거ᄀᆞ치, 온돌방ᄀᆞ치 그 똥싸고 오줌싸고 헤노난. 거 겨울에도 마굿간에 가민 뜨뜻헤.(말 매는 데고 소 매는 데고 퇴비

로 쓰니까 거기 오줌 싸고 똥 싸고, 그러면은 자꾸 이 저 '검부럭' 놔가지고 따뜻해. 이 저 방이 불 땐 거같이, 온돌방같이 그 똥 싸고 오줌 싸고 하니까. 거 겨울에도 마구간에 가면 따뜻해.)

먹이

104016 @ 말하고 소의 먹이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말하고 소의 먹이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104016 #1 똑ᄀᆞ찌 멕여. 콩ᄁᆡ질도 소나 ᄆᆞᆯ이나 똑ᄀᆞ찌.(똑같이 먹여. 콩깍지도 소나 말이나 똑같이.)

104016 @ 뭘 좋아합니까? 촐?(뭘 좋아합니까? 꼴?)

104016 #1 촐도 먹곡 또.(꼴도 먹고 또.)

104016 @ 서꺼?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섞어?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104016 #1 또 콩에 그 ᄆᆞᆯ이나 쉐나 일 시키젠 허민 잘 멕여야 헐 거. 사람도 잘 먹어야 일허듯 마찬가지라.(또 콩에 그 말이나 소나 일 시키려고 하면 잘 먹여야 헐 거. 사람도 잘 먹어야 일하듯 마찬가지라.)

104016 @ 잘 멕여.(잘 먹여.)

104016 #1 소도 읏물 헹 막 멕여야 하고 죽쒀근에.(소도 여물 해서 막 먹여야 하고 죽 쒀서.)

104016 @ 무싱 거로 죽 쒀?(무슨 거로 죽 쒀?)

104016 #1 콩.(콩.)

104016 @ 콩깍지?(콩깍지?)

104016 #1 콩이. 콩 벌렁은에.(콩 쪼개서.)

104016 @ 콩 벌렁. 새 콩을?(콩 쪼개서. 새 콩을?)

104016 #1 콩을 기계바위에 강 달 달 달 달, 거페다가 겉보리, 겉보리 놓고, 몸 잇잔아. 바당에 몸. 거 놩 막 쑤어근에.(콩을 기계테두리에 가서 달 달 달 달 거펴다가 겉보리, 겉보리 놓고, 모자반 잇잖아. 바다에 모자반. 거 놔서 막 쒀서.)

104016 @ 아아, 아이고야.(아아, 아이고야.)

104016 #1 쉐 멕여. ᄆᆞᆯ은 경 안헤여. 소.(소 먹여. 말은 그렇게 안 해. 소.)

104016 @ 아아, 무사 ᄆᆞᆯ은 경 안허고?(아아, 왜 말은 그렇게 안 해?)

104016 #1 게믄 쉐가이 문딱허여.(그러면 소가 이 '문딱'해.)

104016 @ 아아.(아아.)

104016 #1 쉐가이 문딱허고.(소가 '문딱'하고.)

104016 @ 바당에도? 콩이 비지근헌[102] 셍이다예.(바다에도? 콩이 '비지근한' 모양이네요.)

104016 #1 콩을 게난 콩을 멕여야, 콩.(콩을 그러니까 콩을 먹여야, 콩.)

102) '비지근ᄒᆞ다'는 '베지근ᄒᆞ다'라고도 쓰며 고기 따위를 끓인 국물이 깊은 맛이 있을 때 표현하는 말이다.

104016 @ 콩이 몸에 좋은 거라.(콩이 몸에 좋은 거라.)

104016 #1 콩이 그 기름이 잇잔아.(콩이 그 기름이 있잖아.)

104016 @ 콩, 콩기름 빠듯이.(콩, 콩기름 빠듯이.)

104016 #1 응. 콩죽도 너미 먹으민 설세 나. 기름이니까.(응. 콩죽도 너무 먹으면 설사 나. 기름이니까.)

104016 @ 아.(아.)

104016 #1 어느 정도 먹어야지. 게난 다심애기는 콩 멕이고, 이녁애긴 픗 멕이난, 픗이 맛좋지. 픗딱지만 떼작떼작허고 다심애긴 문딱헤연.(어느 정도 먹어야지. 그러니까 의붓자식는 콩 먹이고, 이녁 애긴 팥 먹이니까, 팥이 맛 좋지. 팥 딱지만 누덕누덕하고 의붓자식은 '문딱'해.)

104016 @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104016 #1 에이구, 그 픗이 맛 조니깐이, 이녁애긴 픗만 멕이고 게난 다심애긴 콩만 메기난. 문짝 곱고 지 애긴 픗 딱지만 떼작떼작.(에이구, 그 팥이 맛 좋으니깐, 그러니까 이녁애기 팥만 먹이고 그러니까 의붓자식은 콩만 먹이니까. '문짝' 곱고 자기 아긴 팥 딱지만 누덕누덕.)

104016 @ 흐흐흐흐, 근디 픗이 맛엇어.(흐흐흐흐, 그런데 팥이 맛없어.)

104016 #1 거난 이녁 애길 콩을 멕여얄 건디 이 바보 ᄀᆞ뜬 이년은.(그러니까 자기 아길 콩을 먹여야 할 건데 바보 같은 이년은.)

104016 @ 하하하하.(하하하하.)

104016 #1 콩 맛다가리 엇곡 픗이 맛조난 픗만 멕이난 픗딱지만 떼작떼작.(콩 맛대가리 없고 팥이 맛좋으니까 팥만 먹이니까 팥 딱지만 누덕누덕.)

104016 @ 하하하, 아이구 첨.(하하하, 아이구 참.)

104016 @ 마소의 먹이는 어떤 것들이 잇습니까?(마소의 먹이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104016 #2 그니까 가을 들민 모든 곡식이 여물아갈 때니까. 풀도 ᄋᆞ물이 있어. 풀도. ᄋᆞ물아갈 때 다 빛에 말렷다가 막 집만씩 쌓아놧다가 그걸 내내 빠다가 한 뭇씩 주고.(그러니까 가을 들면 모든 곡식이 여물아갈 때니까. 풀도 여물이 있어. 풀도. 여물아갈 때 다 빛에 말렸다가 막 집만큼씩 쌓아놨다가 그걸 내내 빼다가 한 뭇씩 주고.)

104016 @ 밭에 쌓아 놉니까? 집에?(밭에 쌓아 놓습니까? 집에?)

104016 #2 집에.(집에.)

104016 @ 응. 집에 눌 눈다는 거지예. 촐로예.(응. 집에 가리 가린다는 거지요. 꼴로요.)

104016 #2 촐 눌.(꼴 가리.)

104016 @ 그믄 사오기도 하고? 지네 밧디서 촐을 베오기도 하고?(그러면 사오기도 하고? 자기네 밭에서 꼴을 베어 오기도 하고?)

104016 #2 그렇지.(그렇지.)

104016 #2 먹이는 비등허지 뭐.(먹이는 비등하지 뭐.)

104016 @ 아까 콩꼬질 눌엇던 것들예.(아까 콩깍지 가리었던 것들이요.)
104016 #2 응. 물도 잘 먹어.(응. 말도 잘 먹어.)
104017 @ 촐은 어떻게 마련합니까?(꼴은 어떻게 마련합니까?)
104017 #1 촐은 거세기 팔뤌 나민 저 산에 강 비여당.(꼴은 거시기 팔월 나면 저 산에 가서 베여다가.)
104017 @ 음력 팔월? 그건 누가 씨 뿌립니까?(음력 팔월? 그건 누가 씨 뿌립니까?)
104017 #1 아방냥으로.(아버지대로.)
104017 @ 언제 씨를 뿌령?(언제 씨를 뿌려서?)
104017 #1 뭐?(뭐?)
104017 @ 촐.(꼴.)
104017 #1 촐, 뿌리지 안허여.(꼴, 뿌리지 않아.)
104017 @ 지냥으로 알앙.(자기 대로 알아서.)
104017 #1 목초 이. 목초 ᄀᆞ뜬 거나 골지이, 산에 강 그냥 테역 잇어. 이녁밧디. 그거 이 크민 팔뤌 나가민 그거 벌초허듯 거 물랏다근에 무껑.(목초 이 목초 같은 거나 말하지. 산에 가서 그냥 태역 있어 이녁 밭에. 그거 크면 팔월 나가면 그거 벌초하듯 거 말렸다가 묶어서.)
104017 @ 새하고 촐이 뭐가 다릅니까? 새?(띠하고 꼴이 뭐가 다릅니까? 띠?)
104017 #1 어?(어?)
104017 @ 새?(꼴?)
104017 #1 새가 촐이지. 그 어린 때니까.(어? 새가 꼴이지. 그 어린 때니까.)
104017 @ 어린 때? 그믄 새는 조금 더 자란 것은 초가집 허고.(어린 때? 그러면 띠는 조금 더 자란 것은 초가집 하고.)
104017 #1 아니, 초가집은 그냥 막 컹 익형 헤영케 익혀야 초가집 허고, 촐은 파랑헌 때 비어야.(아니, 초가집은 그냥 막 커서 익혀서 하얗게 익혀야 초가집 하고, 꼴은 파란 때 베어야.)
104017 @ 아아, 파랑헐 때.(아아, 파란 때.)
104017 #1 팔뤌 때. 우린 소분헐 때.(팔월 때. 우리 벌초할 때.)
104017 @ 소분헐 때.(벌초할 때.)
104017 #1 그럴 때가 파랑헌 건.(그럴 때가 파란 거.)
104017 @ 소분헐 때. 아아. 그게 촐이고.(벌초할 때. 아아. 그게 꼴이고.)
104017 #1 응.(응.)
104017 @ 그거를 놔두면은 새가 뒈고.(그거를 놔두면 띠가 되고.)
104017 #1 아니. 또 새가 뜬나. 촐밧 뜬나고 새왓 뜬나.(아니. 또 띠가 달라. 꼴밭 다르고 띠밭 달라.)
104017 @ 아아.(아아.)
104017 #1 집 이는 새왓허고 촐왓허고 뜬나.(집 이는 띠밭하고 꼴밭하고 달라.)
104017 @ 아아. 촐은 먹는 거고?(아아. 꼴은 먹는 거고?)

104017 #1 촐은 이. 테역밧디 복작허고, 새는 이. 이만썩 크잔아.(꼴은 이 잔디밭에 '복작'하고, 띠는 이. 이만큼씩 크잖아.)

104017 @ 씨가 달르구나.(씨가 다르구나.)

104017 #1 응.(응.)

104017 @ 씨가 달라.(씨가 달라.)

104017 #1 달라. 촐허고 새는 뜨나.(달라. 꼴하고 띠는 달라.)

104017 @ 아아.(아아.)

104017 @ 꼴은 어떻게 마련합니까?(꼴은 어떻게 마련합니까?)

104017 #2 촐은 촐밧이라고 이 저 중산간에 가면은 풀밧이 잇어. 그거 비어서 말려가지고. 게니까 촐밧도 풀고 사고 허니까 옛날엔 나도 촐밧을 멧 개 사서.(꼴은 꼴밭이라고 이 저 중산간에 가면은 풀밭이 있어. 그거 비어서 말려가지고. 그러니까 꼴밭도 팔고 사고 하니까 옛날엔 나도 꼴밭을 몇 개 사서.)

104017 @ 촐밧이 좀 쌋수과?(꼴밭이 좀 쌌습니까?)

104017 #2 지금은 촐밧도 금깝이라.(지금은 꼴밭도 금값이라.)

104017 @ 게난. 옛날엔예.(그러니까. 옛날엔요.)

104017 #2 밧디 가서 가을에 전부 비영 말렷다가.(밭에 가서 가을에 전부 베어서 말렸다가.)

104017 @ 놈의 밧디 아니예?(남의 밭에 아니요?)

104017 #2 응. 가을에. 이제 가을 농사 허기 전에 팔구월에 전부 촐 비어가지고 말려두엇다가 겨울 내내 먹이지.(응. 가을에. 이제 가을 농사하기 전에 팔구월에 전부 꼴 베어가지고 말려두었다가 겨울 내내 먹이지.)

104017 @ 촐을 사젠 허민 그 촐을 삽니까, 우리가 갑니까?(꼴을 사려고 하면 그 꼴을 삽니까? 우리가 갑니까?)

104017 #2 촐밧이 따로 있으니까 산에 강 촐밧을 사서 허는 사름도 잇고, 그냥 호미로 비어서 허는 사름도 잇고 낫으로 ᄀᆞ려서 허는 사름도 잇고.(꼴밭이 따로 있으니까 산에 가서 꼴밭을 사서 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호미로 베어서 하는 사람도 있고 낫으로 가려서 하는 사람도 있고.)

104018 @ 꼴 베기에 대헤서 말씀헤 주십시오. 홍애기소리나 저.(꼴 베기에 대헤서 말씀헤 주십시오. 홍애기 소리나 저.)

104018 #1 그런 소리 안헌다게. 속솜헹 촐 비주. 거 이 홍애기소리 허는 건 낫으로 비는 사름덜. 버쳐가민, 그런 사름덜 소리허지. 어, 무시거 어쩌구, 저쩌구.(그런 소리 안 한다. 조용해서 꼴 베지. 거 이 홍애기소리 허는 건 낫으로 베는 사람들. 힘들어 가면, 그런 사람들 소리하지. 어, 뭐 어쩌구, 저쩌구.)

104018 @ 건 안 들어봣수과?(건 안 들어봤습니까?)

104018 #1 아니헤 봔. 소린. 들어보도 아녀곡. 오, 어떵 헨? 이원임이 허는 거 보난 막 소리도 이상허드라고. 촐 비는 소리.(안 해 봤어. 소린. 들어보지도 안 하고. 오, 어떻게 했어요? 이원임이 하는 거 보니까 막 소리도 이상하더라고. 꼴 베는 소리.)

104018 @ 음.(음.)
104018 #1 원임이 허는 거 들어봣주.(원임이 허는 거 들어봤지.)
104018 @ 원임인 누구꽈?(원임인 누굽니까?)
104018 #1 요 동넷 사름.(요 동네 사람.)
104018 @ 돌아가셧수과?(돌아가셨습니까?)
104018 #1 잇어.(있어.)
104018 @ 남자? 그 분은 촐 베는 소리 부르겟네?(남자? 그 분은 꼴 베는 소리 부르겠네?)
104018 #1 응.(응.)
104018 @ 오.(오)
104018 #1 불르데.(부르대.)
104018 @ 멧 살 낫수과?(몇 살 났습니까?)
104018 #1 이제 흔 팔십 넘어실 거라.(이제 한 팔십 넘었을 거라.)
104018 @ 오, 남자 분?(오, 남자 분?)
104018 #1 나가 팔십 으닯이니까.(내가 팔십 여덟이니까.)
104018 @ 노인당도 옵니까?(노인당도 옵니까?)
104018 #1 팔십 다숫쯤은 뒈실 거라.(팔십 다섯쯤은 됐을 거라.)
104018 @ 노인당도 와?(노인당도 와?)
104018 #1 안 뎅겨. 남자덜은 노인당에 안.(안 다녀. 남자들은 안.)
104018 @ 원래 신촌?(원래 신촌?)
104018 #1 아니. 와흘 사름.(아니. 와흘 사람.)
104018 @ 아아.(아아.)
104018 #1 ᄉᆞ삼ᄉᆞ건에 ᄂᆞ려완. 아이 간.(사삼 때에 내려왔어.)
104018 @ 아아, 경허난 촐 베는 소리헴구나.(아아, 그러니까 꼴 베는 소리 하는구나.)
104018 #1 와흘 사름인디 그냥 내려오난 여기 사람 아니?(와흘 사람인데 그냥 내려오니까 여기 사람 아니?)
104018 @ 팔십? 농사짓고 지금까지 살앗구나예?(팔십? 농사짓고 지금까지 살았군요?)
104018 #1 막 부제라.(막 부자라.)
104018 @ 이젠 부자뒌예?(이젠 부자 됐어요?)
104018 #1 밧도 쳐 사고.(밭도 쳐 사고)
104018 @ 쯧쯧, 신촌 사람 뒛구나.(쯧쯧, 신촌 사람 됐구나.)
104018 #1 와흘이 토지 핫주기.(와흘이 토지 많지.)
104018 @ 오십 년을 넘게 여기 살앗다예?(오십 년을 넘게 여기 살았네요?)
104018 #1 이디 완 살안. 올라가지 안안.(여기 와서 살았어. 올라가지 않고.)
104018 @ 여자는 신촌?(여자는 신촌?)

104018 #1 우리 집, 복희 아방도 와흘이라.(우리 집, 복희 아버지도 와흘이라.)
104018 @ 게난.(그러니까.)
104018 #1 와흘 사름, 거난 결혼ᄒᆞ난 여기 살안.(와흘 사람, 그러니까 결혼하니까 여기 살았어.)
104018 @ 신촌여자랑 결혼허연예? 할머니도 살아계시고?(신촌여자랑 결혼해서요? 할머니도 살아계시고?)
104018 #1 할망은 재기 죽어불언.(할머니는 빨리 죽어버렸어.)
104018 @ 아아.(아아.)
104018 #1 우리 시어멍은이 예순 ᄋᆞ섯에 돌아가션.(우리 시어머니는 예순 여섯에 돌아가셨어.)
104018 @ 아니, 그 아까 촐 베는 소리 허는 분 그.(아니, 그 아까 꼴 베는 소리 하는 분 그.)
104018 #1 원임이?(원임이?)
104018 @ 원임이네 각시 부인은. 살아 잇어마씨?(원임이네 각시 부인은. 살아 있어요?)
104018 #1 잇어.(있어.)
104018 @ 어어. 거기도 팔십?(어어. 거기도 팔십?)
104018 #1 어 그건 소리도 헐 줄 몰르고. 뭐가 뭔지 몰라.(어 그건 소리도 헐 줄 모르고. 뭐가 뭔지 몰라.)
104018 @ 아, 허허허허.(아, 허허허허.)
104018 #1 서방만 소리, 아메헤도 촐 비는 소린 헐 거라.(서방만 소리, 아무리해도 꼴 베는 소린 할 거라.)
104018 @ 음, 촐 베는 건 헤봐수과?(음, 꼴 베는 건 해봤습니까?)
104018 #1 촐 비여낫지. 호미로.(꼴 베었었지. 호미로.)
104018 @ 호미로 것도 비고? 앉앙?(호미로 것도 베고? 앉아서?)
104018 #1 응.(응.)
104018 @ 촐 베기에 대헤서 말씀헤 주십시오.(꼴 베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4018 #2 처음엔 낫으로 이렇게, 이렇게 비다가 내중엔 낫으로 이.(처음엔 낫으로 이렇게, 이렇게 베다가 나중엔 낫으로.)
104018 @ 긴 낫? 선 낫?(긴 낫? 선 낫?)
104018 #2 긴 낫으로 이렇게 헤서.(긴 낫으로 이렇게 해서.)
104018 @ 큰 낫으로?(큰 낫으로?)
104018 #2 큰 낫.(큰 낫.)
104018 @ 거 헤봣수과? 신촌은 어떵헙니까?(거 해봤습니까? 신촌은 어떻습니까?)
104018 #2 거 나 잘 헤서.(거 나 잘 했어.)
104018 @ 촐 베는 소리도 헷수과?(꼴 베는 소리도 했습니까?)
104018 #2 소리 잘 허는 사름은 잘헤여.(소리 잘 하는 사람은 잘해.)

104018 @ 그거 한번 헤봅서.(그거 한번 해보세요.)

104018 #2 아니 나 이제 늙엉 못허겟어.(아니 나 이제 늙어서 못하겠어.)

104018 @ 촐 베는 소리엔 헙니까?(꼴 베는 소리라고 합니까?)

104018 #2 촐 비는 소리엔 허지. 호미질하면서 그 소리하면서 비어가는 사름이 잇어.(꼴 베는 소리라고 하지. 낫질하면서 그 소리하면서 베어가는 사람이 있어.)

104018 @ 그것이 중요헌 소린데.(그것이 중요한 소린데.)

104018 #2 그렇지. 어어엉, 으여 촐을 비어야 허는구나. 잘 허는 사름은 잘헤.(그렇지. '어어엉, 으여' 꼴을 베어야 하는구나. 잘 하는 사람은 잘해.)

104018 @ 훗소리는 어떻게 헙니까?(후 소리는 어떻게 합니까?)

104018 #2 훗소린 없어. 여즈 사람이 가도 잘 허는 사름이 허면 듣기나 허지. 제일 듣기 좋은 것이 그 행상메어가는 소리, 진토굿 파는 소리, 달구 지는 소리. 달구지는 소리 나 선소리 잘 헷어. 난, 경으로 헷지. 경으로 부르지 난. 나만이 헐 사름이 없엇지.(후 소린 없어. 여자 사람이 가도 잘 하는 사람이 하면 듣기나 하지. 제일 듣기 좋은 것이 그 행상 매어가는 소리, 진토굿 파는 소리, 달구 찧는 소리. 달구 찧는 소리 나 선소리 잘 했어. 난, 경으로 했지. 경으로 부르지 난. 나만이 할 사람이 없었지.)

104018 @ 것도 좀 헤줍서.(것도 좀 해주세요.)

104018 #2 저 달구 짓는 소리 이.(저 달구 찧는 소리.)

104018 @ 예. 달구 짓는 소리.(예. 달구 찧는 소리.)

104018 #2 동방새성 안심지여. 경 헹 다음 사름은 어어어허어여. 이렇게 허곡 서방금성 보헤지여. 하믄 또 다음 사람이.('동방새성 안심지여'. 그렇게 해서 다음 사람은 어어어허어여. 이렇게 허곡 '서방금성 보해지여'. 하면 또 다음 사람이.)

104018 @ 어허어어 달구.(어허어어 달구.)

104018 #2 서방금성 보헤지.('서방금성 보해지'.)

104018 @ 어허어어 달구.(어허어어 달구.)

104018 #2 북방수성 노헤지여.('북방수성 노해지여'.)

104018 @ 어허어어 달구.(어허어어 달구.)

104018 #2 해저남으 변령지여. 술이나 혼잔 먹곡 허민 무덤 저리헐 때에 난 경으로 이디 경책이 잇는디 난 동동 웨완. 나가 웨우는 건 명당경인데.('해저남의 변령지여'. 술이나 한잔 먹고 하면 무덤 저리 헐 때에 난 경으로 여기 경책이 있는데 난 동동 외원. 나가 외우는 건 명당경인데.)

104018 @ 예.(예.)

104018 #2 나만이 웨울 사람이 없어. 명당경이엔 헌 건. 이거 명당경인디 여러 장 썬 다 웨우렌 줫잔아. 어디에서 부르든지. 이거 집이나 묘에나 익어주민 막 좋은 경이여 이게. 아무디라도 초흐루 보름에 익어주민 집안이 막 잘 뒌덴 허여.(나만큼 외울 사람이 없어. 명당경이라고 한 건. 이거 명당경인데 여러 장 썬 다 외우라고 줬잖아. 어디에서 부르든지. 이거 집이나 묘에나 익어주면 막 좋은 경이여 이게. 아무데라도 초하루 보름에 익어주면 집안이 막 잘 된다고 해.)

104018 @ 촐 사젠 허민 비쌉니까?(꼴 사려고 하면 비쌉니까?)

104018 #2 촐? 그냥 밧디로 사가지고 비어가지는 거니까 많이 비싸민 못허지.(꼴? 그냥 밭에로 사가지고 베어가지는 거니까 많이 비싸면 못하지.)

104019 @ 것도 저 소나 말이 운반헤영 와야 뒈지예?(것도 저 소나 말이 운반해서 와야 되지요?)

104019 #1 그거 ᄆᆞᆯ류면은 무껑(그거 말리면 묶어서.)

104019 @ 거기서 ᄆᆞᆯ리왕?(거기서 말려서?)

104019 #1 거기서 무껑은에 눌엇당 시꺼오잔아. 집이.(거기서 묶어서 가리었다가 실어오잖아. 집에.)

104019 @ 소가? ᄆᆞᆯ이? ᄆᆞᆯ이 시꺼와?(소가? 말이? 말이 실어와?)

104019 #1 ᄆᆞᆯ이 시꺼와야지.(말이 실어와야지.)

104019 @ 구루마로?(달구지로?)

104019 #1 아니. 농살 짓젠 허믄 소 말 다 잇어야.(아니. 농살 지으려고 하면 소 말 다 있어야.)

104019 @ 게난. 시껑오는 것 때문에예?(그러니까. 실어오는 것 때문에요?)

104019 #1 응.(응.)

104019 @ 게믄 집이 눌어신가예?(그러면 집에 가리었는가요?)

104019 #1 눌어야지. 눌어야 겨울 들멍 뽑으멍 멕여얄 거 아냐.(가리어야지. 가리어야 겨울 들면서 뽑으면서 먹여야 할 거 아냐.)

104019 @ 응.(응.)

104019 #1 거 다 멕이면은 걸름허고.(거 다 먹이면 거름하고.)

104019 @ 응.(응.)

104019 #1 ᄆᆞᆯ허고 소는 드르에 또 멕이레 보내고.(말하고 소는 들에 또 먹이러 보내고.)

104019 @ 어.(어.)

104019 @ 촐을 운반하고 저장에 대헤서 말씀헤 주십시오.(꼴을 운반하고 저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4019 #2 차 빌엉.(차 빌어서.)

104019 @ 옛날에 차 엇일 때.(옛날에 차 없을 때.)

104019 #2 차 엇일 땐.(차 없을 땐.)

104019 @ 구루마?(달구지?)

104019 #2 ᄆᆞᆯ에, 소ㄹ에 이렇게 실러서. 소로, ᄆᆞᆯ로 실러서 많이 왓지.(말에, 소에 이렇게 실어서. 소로, 마로 실어서 많이 왔지.)

104019 @ 그때 소가 좋습니까 ᄆᆞᆯ이 좋습니까? 뻐른 건 말이지예?(그때 소가 좋습니까? 말이 좋습니까? 빠른 건 말이지요?)

104019 #2 빠른 건 말이주.(빠른 건 말이지.)

104019 @ 게믄 멧 뭇을 시꺼지는 거라?(그러면 몇 뭇을 실을 수 있는 거라?)

104019 #2 이제덜토 흔 바리 시끄젠 허민 흔바리옌 허민 흔 스무 뭇 서른 뭇.(이제들도 한 바리 실으려고 하면 한 바리라고 하면 한 스무 뭇 서른 뭇.)

104019 @ 말이 많이 시꺼마씨? 소가 많이?(말이 많이 실어요? 소가 많이?)

104019 #2 소가 쎄니까 많이 시꺼지지. 뻐르긴 ᄆᆞᆯ이 뻐르긴 허는 디.(소가 세니까 많이 실을 수 있지. 빠르긴 말이 빠르긴 하는 데.)

104019 @ 그믄 걸 몃 번을 져 날라야 뒐 거라? 사름도 져 날르곡?(그러면 걸 몇 번을 져 날라야 될 거라? 사람도 져 나르고?)

104019 #2 그렇지, 사름도 지곡, 소에도 시끄곡.(그렇지, 사람도 지고, 소에도 싣고.)

104019 @ 경 집에 왕 또 눌곡. 뭇은 어만큼 헤마씨?(그렇게 집에 와서 또 가리고. 뭇은 얼마만큼 해요?)

104019 #2 어, 이만씩 허여.(어, 이만큼씩 해.)

104019 @ 딱 무끄기 좋게 그렇게 합니까? 보리뭇이여, 콩뭇이여, 다 틀립디다예?(딱 묶기 좋게 그렇게 합니까? 보리 뭇이여, 콩뭇이여, 다 틀리던데요?)

104019 #2 그렇지. 콩뭇허고 보릿뭇 틀려. 콩은 무끄기가 막 사나웁고, 그러니까 이렇게 무끄고. 보리나 조는 무끄는 사름이 드물고, 조는 그냥 튿아. 보리는 요만씩 무꺼서 집의 실러가서 테작도 허고. 홀태로 홀트기도 허고.(그렇지. 콩뭇하고 보릿뭇 틀려. 콩은 묶기가 막 사납고, 그러니까 이렇게 묶고. 보리나 조는 묶는 사람이 드물고, 조는 그냥 뜯어. 보리는 요만큼씩 묶어서 집에 실어가서 타작도 하고. 그네로 홅기도 하고.)

04019 #2 거기서 ᄆᆞᆯ랴서 무꺼가지고.(거기서 말라서 묶어가지고.)

104019 @ 비와불믄 비 온 대로 비 맞이믄 또 말려?(비 와 버리면 비 온 대로 비 맞이면 또 말려?)

104019 #2 비 맞으민 안 뒈여. 비 맞으민 버려야지.(비 맞으면 안 돼. 비 맞으면 버려야지.)

104019 @ 아!(아!)

104019 #2 소나 ᄆᆞᆯ이 잘 안 먹어. 썩어서.(소나 말이 잘 안 먹어. 썩어서.)

104019 @ 비 맞아도 다음날 날씨가 좋으면 말리는 거고?(비 맞아도 다음날 날씨가 좋으면 말리는 거고?)

104019 #2 그렇주.(그렇지.)

104019 @ 겡 그거를 운반하고 저장하는 것도 구루마.(그래서 그거를 운반하고 저장하는 것도 달구지.)

104019 #2 그렇지. 옛날엔 소 ᄆᆞᆯ이 다 지여왓는디 이제 구루마 나오니까 구루마로 실러오고 차 나오니까 차로 실러오고.(그렇지. 옛날엔 소, 말이 다 져 왔는데 이제 달구지 나오니까 달구지로 실어오고 차 나오니까 차로 실어오고.)

104019 @ 운반하고 눌 이제 눌어야 뒈고예?(운반하고 눌 이제 가리어야 되고요?)

104019 #2 그렇지.(그렇지.)

104020 @ 여물은 어떻게 마련합니까?(여물은 어떻게 마련합니까?)

104020 #1 ᄋᆞ물이.(여물이.)

104020 @ 아까 콩 벌렁 허고?(아까 콩 쪼개서 하고?)

104020 #1 콩 벌르곡, 작두 잇잔아, 작두. 그걸로 촐 끈엉 솖아.(콩 쪼개고, 작두 있잖아, 작두. 그걸로 꼴 끊어서 삶아.)

104020 @ ᄀᆞ치.(같이.)

104020 #1 큰 솟디 다가리 솟디 콩이영 거영 놩 술망 짐이 팡팡 ᄒᆞ게 헤영 식형 멕이잔아.(큰 솥에 '다가리' 솥에 콩이랑 거랑 놔서 삶아서 김이 팡팡 하게 해서 식혀서 먹이잖아.)

104020 @ 식혀가지고.(식혀가지고.)

104020 #1 좀질게 썰엉. 거 경헹 멕여봐. 막 술져.(자잘하게 썰어서. 거 그렇게 해서 먹여봐. 막 살쪄.)

104020 @ 한번? 아침이?(한번? 아침에?)

104020 #1 아니 헹 술망 내불민 어느 때사 멕이는디. 난 몰라 술망만 내불민. 아방이 헤부난.(아니 해서 삶아서 내불면 어느 때야 먹이는데. 난 몰라 삶아서만 내버리면. 아버지가 해버리니까.)

104020 @ 큰 가마솟에예?(큰 가마솥에요?)

104020 #1 응. 그 가마솟도 터져 불엇어. 막 큰큰헌 거.(응. 그 가마솥도 터져버렸어. 막 큰큰한 거.)

104020 @ 삼촌이 거 다 헷구나. 아침이.(삼촌이 거 다 했구나. 아침에.)

104020 #1 헌데 이젠 터져부니까 풀아버렷주기. 엿장시아피사 풀아신디.(헌데 이젠 터져버리니까 팔아버렸지. 엿장수에게 팔았는지.)

104020 @ 엿장시아피.(엿장수한테.)

104020 #1 누게아피사 풀아져신디.(누구한테야 팔아졌는지.)

104020 @ 여물은 어떻게 마련합니까?(여물은 어떻게 마련합니까?)

104020 #2 ᄋᆞ물이옌 허민 곡식을 ᄋᆞ물이랜 헤. 조든 보리든 콩이든 뭐이던지 걸 주로 그걸 ᄋᆞ물이렌 허지.(여물이라고 하면 곡식을 여물이라고 해. 조든 보리든 콩이든 뭐이던지 걸 주로 그걸 여물이라고 하지.)

104020 @ 좋지 않은 걸로 나두겟다예. 좋지 않은 건 어떤 건고예? 사람 먹을 것도 엇인디.(좋지 않은 걸로 놔두겠네요. 좋지 않은 건 어떤 건가요? 사람 먹을 것도 없는데.)

104020 #2 건 사람 못 먹을 걸 많이 주엇고, 곡식이 아이 뒌 해는 사람 못 먹을 걸로 많이 주엇고, 또 곡식 많으면은 사람 먹는 것도 주고.(그건 사람 못 먹을 걸 많이 주었고, 곡식이 아니 된 해는 사람 못 먹을 걸로 많이 주었고, 또 곡식 많으면 사람 먹는 것도 주고.)

104020 #2 ᄋᆞ물은 곡식으로 주는 걸 ᄋᆞ물이라고.(여물은 곡식으로 주는 걸 여물이라고.)

104020 @ 곡식 사람 먹을 것도 엇인디 여물을 줘?(곡식 사람 먹을 것도 없는데 여물을 줘?)

104020 #2 아, 그래도 주는 사름은 이섯주.(아, 그래도 주는 사람은 있었지.)

104020 @ 콩도 벌렁 주고?(콩도 쪼개서 주고?)

104020 #2 콩도 솖아당 주고, 나도 소 멕이면서 콩도 많이 솖아당 주고.(콩도 삶아다가 주고, 나도 소 먹이면서 콩도 많이 삶아다가 주고.)

104020 @ 쌩으론 아다닥 아다닥 허니까 솖암신가예?(생으론 아다닥 아다닥 하니까 삶았는가요?)

104020 #2 그렇주.(그렇지.)

104020 @ 풋 그런 건 아니고 콩만?(팥 그런 건 아니고 콩만?)

104020 #2 콩이고 무슨 보리고.(콩이고 무슨 보리고.)

104020 @ 보리도?(보리도?)

104020 #2 보리도 뒈주 뭐. 보리도 먹으민 소가 술져.(보리도 되지 뭐. 보리도 먹으면 소가 살쪄.)

104021 @ 술져예. 촐 베면서 어려웠던 거 추억거린 엇수과?(살쪄요. 꼴 베면서 어려웠던 거 추억거린 없습니까?)

104021 #1 무신 그때 당시에 다 어려와신디.(무슨 그때 당시에 다 어려웠는데.)

104021 @ 비 맞으민 안뒈켜예, 이것도.(비 맞으면 안 되겠네요, 이것도.)

104021 #1 안뒈지. 먹도 안헌다.(안되지. 먹도 안한다.)

104021 @ 아아.(아아.)

104021 #1 파랑헤사 먹주이. 소 먹도 안허여. 소ᄀᆞ치 입매가 좋은 것도 어디시카부덴. 코시롱허곡 파랑헤사 먹주이, 기신새 닮은 건 잘 안먹어.(파래야 먹지. 소 먹지도 않아. 소같이 입매가 좋은 게 어디 있을까 봐. 고소하고 파래야 먹지. '기신새' 닮은 건 잘 안 먹어.)

104021 @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104021 #1 소가 얼마나 잘 아는 중 알아?(소가 얼마나 잘 아는 줄 알아?)

104021 @ 촐 베면서 얽힌 추억이나 경험을 말씀헤 주십시오.(꼴 베면서 얽힌 추억이나 경험을 말씀해 주십시오.)

104021 #2 소리도 허고. 홍애기 소리게.(소리도 하고. 홍애기 소리.)

104021 @ 삼촌 헤지쿠과?(삼촌 할 수 있겠습니까?)

104021 #2 난 벨로 못헤.(난 별로 못해.)

104021 @ 거믄 잘 허는 사람 잇엇지예.(그러면 잘 하는 사람 있었지요.)

104021 #2 잘 허는 사름은 잘헤여. 듣기 좋아.(잘 하는 사람은 잘해. 듣기 좋아.)

104021 @ 홍애기가 무신 말인고예?(홍애기가 무슨 말인가요?)

104021 #2 홍애기 소리라고, 어째서 홍애기소리라 하는지, 촐 비면서. 거 소리 헤가믄 듣기 좋게 잘 허는 사름이 잇어. 잘하는 사람은 잘 헷저. 여기선 부르젠 허민 안뒈어도 이렇게 힘내어서 일하면서 낫질을 하면서 헤가민 그 기운이 나지. 노래헤 가면 기운이 나. 실지 일 ᄒᆞ면서 허민 몰라도 안 뒈여. 여기 고만이 방안에 앚아선 안 뒈.(홍애기 소리라고, 어째서 홍애기 소리라 하는지, 촐 비면서. 거 소리 해가면 듣기 좋게 잘 허는

사름이 있어. 잘하는 사람은 잘했다. 여기선 부르려고 하면 안 되어도 이렇게 힘내어서 일하면서 낫질을 하면서 해가면 그 기운이 나지. 노래 해가면 기운이 나. 실지 일 하면서 하면 몰라도 안 돼. 여기 고만이 방안에 앉아선 안 돼.)

땔감

104022 @ 땔감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땔감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4022 #1 땔감?(땔감?)

104022 @ 낭, 낭.(나무, 나무.)

104022 #1 나무는 산에 가야 헤오지.(나무는 산에 가야 해오지.)

104022 @ 산에 강 짇을커렌 헙니까, 삭다리옌 헙니까?(산에 가서 땔감이라고 합니까? 삭정이라고 합니까?)

104022 #1 삭다리 거 아방네가 헤오주. 난 그런 거 안헤.(삭정이 거 아버지네가 해오지. 난 그런 거 안 해.)

104022 @ 안 헤봔?(안 해 봤어?)

104022 #1 아방이 헤오주.(아버지가 해오지.)

104022 @ 요기 신촌 가까운 디 어디 오름이나 이런 건 엇수과?(요기 신촌 가까운데 어디 오름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104022 #1 엇어. 저디 웬당오름이나 요 ᄌᆞᄁᆞ띠 거벳긔 엇어.(없어. 저기 원당오름이나 요 옆에 거밖에 없어.)

104022 @ 웬당오름 저 와흘 우터레 올라가야.(저 와흘 위에 올라가야.)

104022 @ 와흘 우터레 올라가야.(와흘 위에 올라가야.)

104022 #1 아주 우이 올라가야, ᄃᆞ리[103] 잇잔아. ᄃᆞ리로 쑥 허게 올라가서 나무 헤여.(아주 위에 올라가야, 교래 잇잖아. 교래로 쑥 하게 올라가서 나무 해.)

104022 @ ᄃᆞ리 송당?(교래 송당?)

104022 #1 그래. 글로 아주 우터레 더 올라가야. 잘도 멀어 막.(그래. 글로 아주 위에 더 올라가야. 잘도 멀어 막.)

104022 @ 남자들은 어쨌든 땔감 허레 가긴 가야겟다예.(남자들은 어쨌든 땔감 하러 가긴 가야겠네요.)

104022 #1 가지. 옛날엔 그거 헤 와야 밥허고, 굴묵 짓고, 거난 아방이 그거, 게난이 남ᄌᆞ덜토이. 이 나무덜 헤와가민 이만이 올라가민 그 재미로 막 허더라고.(가지. 옛날엔 그거 해 와야 밥하고, '굴묵' 때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거, 그러니까 남자들도 이 나무들 해 와가면 이만큼 올라가면 그 재미로 막 하더라고.)

104022 @ 음.(음.)

104022 #1 그냥이 데명 놔두민 아져오민 이만썩 나무가 그냥. 귀허지 나무가. 거난

103) 'ᄃᆞ리'는 조천읍 교래리의 옛이름이다.

그 올르는 재미로 허레 가더라고.(그냥이 쌓아서 놔두면서 가져오면 이만큼씩 나무가 그냥. 귀하지 나무가. 그러니까 그 오르는 재미로 하러 가더라고,)

104022 @ 땔감의 종류에 대헤 말씀헤 주십시오.(땔감의 종류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104022 #2 저 곶디 가서 낭도 헤오고. 무슨 보릿대고 콩대고 조대고 불 못 솜는 것이 없는 디 제일 좋기야게 나무가 젤 좋주만은 그니까 옛날엔 어려왓어. 곶디 안 가민 못 헤오니까 나무를 허자면 산에 가야. 그니까 여기선 보통 유채 많이 갈 땐 유채낭덜 허영 낭불로 많이 썻고, 불 땔 걸론 유챗낭을 많이 썻어. 이 저 보릿대도 허고 조때도 허고, 불 때는 건 ᄆᆞ른 풀이 잇으면 다 불 때는 걸로 헷으니까.(저 숲에 가서 나무도 해오고. 무슨 보릿대고 콩대고 조대고 불 못 때는 것이 없는데 제일 좋기야 나무가 젤 좋지만 그니까 옛날엔 어려웠어. 숲에 안 가면 못 해오니까 나무를 하려면 산에 가야. 그니까 여기선 보통 유채 많이 갈 땐 유채나무들 해서 나무불로 많이 썼고, 불 땔 걸론 유챗대를 많이 썼어. 이 저 보릿대도 하고 조짚도 하고, 불 때는 건 마른 풀이 있으면 다 불 때는 걸로 했으니까.)

104022 @ 삭다리엔도 헙니까? 짇을커렌 헙니까?(삭정이라고도 합니까? 땔감이라고 합니까?)

104022 #2 삭다리옌 헌 건 소나무 가지 올라가다 죽은걸 삭다리라고 허는디.(삭정이라고 한 건 소나무 가지 올라가다 죽은 걸 삭정이라고 하는데.)

104022 @ 아, 소나무? 다른 나문 아니고?(아, 소나무? 다른 나문 아니고?)

104022 #2 다른 나무도 죽은 가지는 삭다리지.(다른 나무도 죽은 가지는 삭정이지.)

104022 @ 짇을커는 뭣과?(땔감은 뭡니까?)

104022 #2 짇을커? 불 때는 거.(땔감? 불 때는 거.)

104022 @ 불 때는 모든 거를 짇을커렌 허고예?(불 때는 모든 거를 땔감이라고 하고요?)

104022 #2 그러지.(그렇지.)

104022 @ 땔감은 아무 낭이나 다 땔감이 뒈는 거지예?(땔감은 아무 나무나 다 땔감이 되는 거지요?)

104022 #2 그러지.(그렇지.)

104022 @ 근데 소나무는 쌩으로 함부로 하면 안 뒈잔아예. 나무도 아무 낭이나 함부로 허민 안 뒈지예?(그런데 소나무는 생으로 함부로 하면 안 되잖아요. 나무도 아무나무나 함부로 하면 안 되지요?)

104022 #2 보통은 다 쓰는디 무슨 낭 무슨 낭은 불 아이 솜는 낭이 잇어. 복숭아 낭인가? 무신 낭인가는 불 안 때여.(보통은 다 쓰는데 무슨 나무, 무슨 나무는 불 아니 때는 나무가 있어. 복숭아나무인가? 무슨 나무인가는 불 안 때.)

104022 @ 무산고예?(왠가요?)

104022 #2 그게 연기가 좋지 안헤부난 재가 좋지 안허니까.(그게 연기가 좋지 않아버리니까 재가 좋지 않으니까.)

104022 #2 저 곶디 가서 나무도 헹오고. 구루마로.(저 곶에 가서 나무도 해서 오고. 달구지로.)

104022 @ 아무디 낭이라도 헤불민 뒈어?(아무데 나무라도 해버리면 돼?)

104022 #2 그렇지. 소나무던 뭐 산 곶디 아무 나무라도 많이덜 헤왓지.(그렇지. 소나무든 뭐 산 숲에 아무 나무라도 많이들 해왔지.)

104022 @ 죽은 나무 삭다리덜 말고?(죽은 나무 삭정이들 말고?)

104022 #2 응. 나도 수백 구루마 헤여왓어. 저 교래끄지 강. 바농오름 우로 쩌 조낭게 쪽으로 어딜로 남 아니헤난 디가 나무도 좋은 게 잇고.(응. 나도 수백 달구지 해왔어. 저 교래까지 가서. 바농오름 위로 저 '조낭게' 쪽으로 어디로 나무 아니 했던 데가 나무도 좋은 게 있고.)

104023 @ 소똥, 말똥 연료에 대헤서 말씀헤 주십시오.(소똥, 말똥 연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4023 #1 소똥, 말똥 그거 걸름이주게.(소똥, 말똥 그거 거름이지.)

104023 @ 다 굴묵에 짇엇수과?(다 '굴묵' 땠습니까?)

104023 #1 아니야. 농ᄉᆞ짓는 사름은 걸름이지.(아냐. 농사짓는 사람은 거름이지.)

104023 @ 아, 걸름.(아, 거름.)

104023 #1 그러지. 농사 아니 짓는 사름이 그거 이제 빈 밧디 강 주서당 허주 농ᄉᆞ짓는 사름은 그거 먹어나민. 다 똥 쌀 거 아니야? 그거 걸름ᄒᆞ지.(그렇지. 농사 아니 짓는 사람이 그거 이제 빈 밭에 가서 주어다가 하지. 농사짓는 사람은 그거 먹고나면 다 똥 쌀 거 아니냐? 그거 거름하지.)

104023 @ 밖에서 강 주서오진 안헷수과?(밖에 가서 주어오진 않았습니까?)

104023 #1 베끗딘 주서보지 안혜연.(밖엔 주어보지 않았어.)

104023 @ 그 굴묵 짓는다는 말은 안 들어봅디가?(그 '굴묵' 땐다는 말은 안 들어봅디까?)

104023 #1 굴묵도 오래 짇어낫어.('굴묵'도 오래 땠었어.)

104023 @ 뭐가 좋아마씨? 소똥이 좋아? 말똥이 좋아?(뭐가 좋아요? 소똥이 좋아? 말똥이 좋아?)

104023 #1 그런 거 아니 현. ᄀᆞ시락.(그런 거 아니 핸. 까끄라기.)

104023 @ ᄀᆞ시락으로 ᄒᆞ고? 겐디 말똥으론 아예 안 헤봐수과?(까끄라기로 하고? 그런데 말똥으론 아예 안 해 봤습니까?)

104023 #1 아니 헤봔. 그런 거 주시레도 아니 가고.(안 해 봤어. 그런 거 주우러 안 가고.)

104023 @ 아저씨도 안 가져오고?(아저씨도 안 가져오고?)

104023 #1 그런 거 안헤여. ᄀᆞ시락 이. 막 하. 보리 하나니깐. 보리가 스물댓 섬 ᄒᆞ니까 ᄀᆞ시락이 얼마나 할 거냐. 그거믄 일 년 내낭 때여. ᄒᆞ루 두 번 것도.(그런 거 안 해. 까끄라기 막 많아. 보리 많았으니깐. 보리가 스물댓 섬 하니까 까끄라기가 얼마나 할 거냐? 그거면 일 년 내내 때. 하루 두 번 그것도.)

104023 @ 웃두리는 말똥으로 다 줏언 굴묵 지뎃덴 헙디다예.(‘웃드리’는 말똥으로 다 주어서 ‘굴묵’ 땠다고 합디다.)

104023 #1 경헌디 우리 그런 거 허렌 안 다년.(그런데 우리 그런 거 하러 안 다녔어.)

104023 @ 음.(음.)

104023 #1 그런 거 허렌 이 안 뎅견.(그런데 우리 그런 거 하라고 안 다녔어. 그런 거 하라고 안 다녔어.)

104023 @ 집에 잇는 똥덜은 다 저 거름으로 내엇구나.(집에 잇는 똥들은 다 거름으로 내었구나.)

104023 #1 거믄이 뒈지 길르는 걸름허곡, 아방 보민이, 아방이 주로 그런 걸름을 잘 내여게. 걸름 내여놓곡, 통시에 걸름 내여놓곡, 지푸렝이 놩 쎅영게.(그러면 돼지 기르는 거름하고, 아버지 보면, 아방이 주로 그런 거름을 잘 내여. 거름 내여 놓고, 돼지우리요? 거름 내여 놓고, 지푸라기 놔서 썩혀서.)

104023 @ 아, 무신 나무지? 삼촌은 소똥, 말똥도 연료로 썻수과?(아, 무슨 나무지? 삼촌은 소똥, 말똥도 연료로 썼습니까?)

104023 #2 그렇지. 소똥 물똥은 구들묵 부찌는 거.(그렇지. 소똥 말똥은 ‘굴묵’ 때는 거.)

104023 @ 굴묵?(‘굴묵’?)

104023 #2 구둘목. 최고 좋지. 최고.(‘굴묵’. 최고 좋지. 최고.)

104023 @ 아, 소똥이 좋습니까? 말똥이 좋습니까?(아, 소똥이 좋습니까? 말똥이 좋습니까?)

104023 #2 아마 비등헐 거여. 이 저 구둘 묵 짇는 건 소똥 물똥이 최고.(아마 비등할거야. 이 저 구들 묵 때는 건 소똥 말똥이 최고.)

104023 @ 겐디 어떤 웃드리는 물똥은 뚜락뚜락허난 줏기가 좋앙 허주만 소똥은 착착 헤부난 말르지 안허면 줍기가 어려우난 말똥이 좋덴 허드라고예.(그런데 어떤 ‘웃드리’는 말똥은 ‘뚜락뚜락하니까’ 줍기가 좋아서 하지만 소똥은 착착 해버리니까 마르지 않으면 줍기가 어려우니까 말똥이 좋다고 하드라고요.)

104023 #2 어, 물똥이 좋주. 소똥도 많이 잇는디 목장에 가믄 뭐 물근 때 가면 많이 주울 수가 잇어.(어, 말똥이 좋지. 소똥도 많이 있는데 목장에 가면 뭐 맑은 때 가면 많이 주울 수가 있어.)

104023 @ 삼촌 그런 일도 헤나수과?(삼촌 그런 일도 했었습니까?)

104023 #2 아니 난 그런 건 안 해보고.(아니 난 그런 건 안 해보고.)

104023 @ 어머니가 그런 거 주워옵니까?(어머니가 그런 거 주워옵니까?)

104023 #2 아니, 어머니도 그런 거 웃드리 가야 줍지. 이 해변 산 사름은 거 어렵고.(아니, 어머니도 그런 거 ‘웃드리’ 가야 줍지. 이 해변 산 사람은 거 어렵고.)

104023 #2 불 땔 때? 소똥도 좋고 물똥도 좋아. 물류면 구둘묵 짇는 건 그걸로 많이 헷어.(불 땔 때? 소똥도 좋고 말똥도 좋아. 말리면 굴묵 때는 건 그걸로 많이 했어.)

104023 @ 삼촌 무싱 거 줏이레 많이 다녓수과?(삼촌 무슨 거 주우러 많이 다녔습니까?)

104023 #2 난 그런 거, 줏이레는 안 다녀봣어. 목장에 가믄 많이 헤. 소똥 말똥.(난 그런 거, 주우러 안 다녀봤어. 목장에 가면 많이 해 소똥, 말똥.)

104023 @ 게도 누가 줏엉 와. 그런 거?(그래도 누가 주어서 와. 그런 거?)

104023 #2 거 줏는 사름이 따로 잇지. 우리 그런 거 아니 헤 보니까 헌디. 목장에 가믄 뭐 소똥, 말똥이 뭐 천지지 뭐.(거 줍는 사람이 따로 있지. 우리 그런 거 아니해 보니까 그런데. 목장에 가면 뭐 소똥, 말똥이 뭐 천지지 뭐.)

104023 @ 굴목에 주로 지덧구나예?(굴목에 주로 땠군요?)

104023 #2 굴묵 지덧지. 소똥, 말똥으로 구둘묵 짇으민 그렇게 똣앗거든.('굴묵' 땠지. 소똥, 말똥으로 구들 묵 때면 그렇게 따뜻했거든.)

104024 @ 솔잎 긁으레도 가봣수과?(솔잎 긁으러도 가봤습니까?)

104024 #1 그런 거 아니 뎅겨. 우리 아시는 헤나도 나는 아니 헤난.(그런 거 아니 다녀. 우리 아우는 했어도 나는 아니했어.)

104024 @ 바빤예 삼촌은.(바빴군요. 삼촌은.)

104024 #1 나는 그런 거 헐 충도 몰르고 뎅기도 안 허여. 우리 아신 잘헤여. 우리 아신이 일도 우리 곱, 두 사름 칠 헤여. 나는 헤헤.(나는 그런 거 할 줄도 모르고 다니지도 안 해. 우리 아운 잘해. 우리 아운 일도 우리 곱, 두 사람 몫을 해. 나는 헤헤.)

104024 @ 바당일도 허고예, 아시.(바다일도 하고요. 아우.)

104024 #1 우리 아시는 이 잘헤. 잘헤.(우리 아우는 잘해. 잘해.)

104024 @ 바당일은 삼촌이 더 잘허고?(바다일은 삼촌이 더 잘하고?)

104024 #1 바당일은 뭐 나가 잘허지. 숨이 질어부니까. 아이구, 저 숨 나나 주주. 우리 아시. 막 욕심꾸레기라. 난 이 경 놈이 거 쳐다보지 안헌디 우리 아신이 막 놈의 거 하영 이시민 죽거나 살거나 막. 나는 경 안헤여. 나 재주로 살주. 게난 물질도 지픈 디만 강 허주이. 그냥 하, 안 헤부난. 십이부터 보통 들어가잔아. 나는.(바다일은 뭐 나가 잘하지. 숨이 길어버리니까. 아이구, 저 저 숨 나나 주주. 우리아우. 막 욕심꾸러기라. 난 이 그렇게 남 이거 쳐다보지 안 한데 우리 아운 막 남의 거 많이 있으면 죽거나 살거나 막. 나는 그렇게 안 해. 나 재주로 살주. 그러니까 물질도 깊은 데만 가서 하지. 그냥 하, 안 해버리니까. 십이부터 보통 들어가잖아. 나는.)

104024 @ 게믄 아시는 야튼 데도 허고?(그러면 아우는 얕은데도 하고?)

104024 #1 막 야튼 디벳긔 못헤. 지픈디 강 요만이도 못헤. 하하하 허멍 무신. 그런 물질은.(막 얕은 데밖에 못해. 깊은 데가 요만큼도 못해. 하하하 하면서 무슨. 그런 물질은.)

104024 @ 밧디 일은 더 잘한다는 거지예.(밭에 일은 더 잘한다는 거지요.)

104024 #1 거 나 곱헤여. 밧디는 그냥 원 호렝이ᄀᆞ찌 허여. 물질은 지픈 딘 나가 잘허곡. 곶디 일은 야이가 잘허곡. 탕관도 나가 잘허곡.(거 나 곱해야. 밭에는 그냥 원 호랑이같이 해. 물질은 깊은 덴 내가 잘하고. 밭일은 얘가 잘하고. 탕건도 내가 잘하고.)

104024 @ 솔입을 하면 언니안테 주거나 이러진 않는구나.(솔잎을 하면 언니한테 주거나 이러진 않는구나.)

104024 #1 솔입 가이도 걷으레 베랑 안 뎅겨.(솔잎 걔도 걷으러 별로 안 다녀.)

104024 @ 가게 뒈민 어디를 가는 거라?(가게 되면 어디를 가는 거라?)

104024 #1 몰라. 저 산으로 강 걷어 왐실테주. 난 솔입이옌 헌건 걷어 뎅겨 보지도 안허곡, 헤보지도 안허곡. 아방이 시니까 산에 강 나무 헹 오잔아.(몰라. 저 산으로 가서 걷어 왔을 테지. 난 솔잎이라고 한건 걷어 다녀 보지도 안하고, 해보지도 안하고. 아버지가 있으니까 산에 가서 나무해서 오잖아.)

104024 @ 솔입도 긁어보고?(솔잎도 긁어보고?)

104024 #2 그렇지, 그건 남자덜도 헷지.(그렇지, 그건 남자들도 했지.)

104024 @ 삼촌은 안 헤보고예?(삼촌은 안 해보고요?)

104024 #2 난 안 헤봣지.(난 안 해봤지.)

104024 @ 어디 갑니까? 솔입 긁으레.(어디 갑니까? 솔잎 긁으러.)

104024 #2 소낭밧디.(소나무밭에.)

104024 @ 게난 소낭밧디가 어디 이 신촌 쪽에 잇수과?(그러니까 소나무밭에가 어디 이 신촌 쪽에 있습니까?)

104024 #2 아, 이 우로 가민 지금도 가민 솔잎이 북삭 잇지. 그디강 글겡이로 끗어서 보달쳐가지고 무꺼가지고 거 땔감으로 쓰민 좋아.(아, 이 위로 가면 지금도 가면 솔잎이 북삭 있지. 거기 가서 갈퀴로 긁어서 '보달쳐'가지고 묶어가지고 거 땔감으로 쓰면 좋아.)

104024 @ 원당봉?(원당봉?)

104024 #2 아니, 이 우로 가민 하영 잇어.(아니, 이 위로 가면 많이 있어.)

104024 @ 삼촌 헤봐수과?(삼촌 해봤습니까?)

104024 #2 아. 솔입 긁는 건 나 안 헤보고.(아. 솔잎 긁는 건 나 안 해보고.)

104024 @ 예펜 삼촌 허는 건 봐봐수과?(여자 삼촌 하는 건 봐봤습니까?)

104024 #2 아, 우리 집인 그런 거 아니 헤서. 그냥 나무헤당 때지. 거 무슨 거 솔입 긁는 시간이민 나무 비어다가 떼지. 아, 거 밥 헤먹는 땔감으로 좋지.(아, 우리 집엔 그런 거 안 해서. 그냥 나무 해다가 때지 거 무슨 거 솔잎 긁는 시간이면 나무 베어다가 떼지. 아, 거 밥 해먹는 땔감으로 좋지.)

104025 @ 노형에는 여자들도 나무허레 갑디다.(노형에는 여자들도 나무하러 갑디다.)

104025 #1 게. 요디도 경헤여. 겐디 이젠 안헤여. 어이구 이딧 여자덜토 얼마나 쎄냐? 바다에 가지. 드르에 가지. 요 신촌 여자도 춤 만만 안 헤여.(그래. 요기도 그렇게 해. 그런데 이젠 안 해. 어이구, 여기 여자들도 얼마나 세냐? 바다에 가지. 들에 가지. 요 신촌 여자도 참 만만하지 않아.)

104025 @ 삼촌은 산에 강 나무도 안 헤 보고?(삼촌은 산에 가서 나무도 안 해 보고?)

104025 #1 안 헷어. 아방이 걸렌도 안헤.(안 했어. 아방이 가자고도 안 해.)

104025 @ 나무하기에 대해서 말씀헤 주십시오. 무슨 낭을 헤마씨? 도끼 가졍간?(나무하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무슨 나무를 해요? 도끼 가져 간?)

104025 #2 톱허고 자궁이허곡 가졍가민 뒈어. 나무 짤르는 건 많이 헷지 뭐. 나물 이런 나물 앗다근에 막 짤라서 도끼로 패가지고 말이여 옛날엔 시에 강 풀기도 허고.(톱하고 자귀하고 가져서 가면 돼. 나무 자르는 건 많이 했지 뭐. 나무를 이런나무를 가져다가 막 잘라서 도끼로 패가지고 말이야 옛날엔 시에 가서 팔기도 하고.)

104025 @ 누가 뭐 나무 베민 뭐렌 안 헙니까?(누가 뭐 나무 베면 뭐라고 안 합니까?)

104025 #2 아무 디나 강 못허지. 자기 밧이나 소나무 하니까 이 우이 소나무 밧이 많이 있으니까 땔감들이 많이 나왓어. 솔 이파리도 글고, 솔잎 가지치기도 헤다가.(아무데나 가서 못 하지. 자기 밭이나 소나무 많으니까 이 위에 소나무 밭이 많이 있으니까 땔감들이 많이 나왔어. 솔 이파리도 긁고, 솔잎 가지치기도 해다가.)

104026 @ 그 다음 숯 굽는 것에 대헤서 말씀헤 주십시오. 숯 굽는 것?(그 다음 숯 굽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숯 굽는 것?)

104026 #1 그런 거 안 헤. 아방도 안 헤.(그런 거 안 해. 아버지도 안 해.)

104026 #2 혼번 허는 거 봣는데, 그 숫을 굽는데 제일 좋은 것이 츠낭이거든. 츠낭 숫이면.(한번 하는 거 봤는데, 그 숯을 굽는데 제일 좋은 것이 참나무이거든. 참나무 숯이면.)

104026 @ 춤낭?(참나무?)

104026 #2 춤나무라고 잇어, 츠낭이. 츠낭이라고 허는데 그런 걸로 헤서 막 짤라가지고 그냥 이렇게 싹 세와놓고 그 옆의 흑으로 그냥 돌로 그냥 불이 붙어도 연기 안나게 싹 싸놓고 밑에 불붙이는 궁기 밑에 뚤버가지고 글로 불을 붙이면 거기서 그냥 불이 붙어 가는데 그 숫이 연기로 익는 거라.(참나무라고 있어, 참나무가. 참나무라고 하는데 그런 걸로 해서 막 잘라가지고 그냥 이렇게 싹 세워놓고 그 옆의 흙으로 그냥 돌로 그냥 불이 붙어도 연기 안 나게 싹 싸놓고 밑에 불붙이는 궁기 밑에 뚫어 가지고 거기로 불을 붙이면 거기서 그냥 불이 붙어 가는데 그 숯이 연기로 익는 거라.)

104026 @ 아.(아.)

104026 #2 그 저 고지 강 산에서 숫 노는 것도 봣는데 산에는 원체 흑이 좋고 그 돌이 좋으니까 쉬운 게 이 해변은 어려와. 숫 굽기가. 흑이 없고.(그 저 고지 가서 산에서 숯 노는 것도 봤는데 산에는 원체 흙이 좋고 그 돌이 좋으니까 쉬운 게 이 해변은 어려워. 숯 굽기가. 흙이 없고.)

104026 #2 숯 굽는 사람 잇어나서. 경헌디 자기 영업으로 허는 사름은 이 신촌 ᄀᆞ뜬 딘 엇고, 저 웃드리 사름덜은 영업으로 놧지 뭐. 숯 혼가마에 뭐, 이제ᄀᆞ뜨민 멧 만원 감실 거여. 숫은 참나무가 제일 좋으니까 참나무 숫이라야. 참나무 숫이라야. 산에 가민 지금도 참나무덜 잇지 뭐.(숯 굽는 사람 있었어. 그런데 자기 영업으로 하는 사람은 이 신촌 같은덴 없고, 저 '웃드리' 사람들은 영업으로 놨지 뭐. 숯 한 가마에 뭐, 이제 같으

면 몇 만원 가고 있을 거야. 숯은 참나무가 제일 좋으니까 참나무 숯이라야. 참나무 숯이라야. 산에 가면 지금도 참나무들 있지 뭐.)

104026 @ 숯은 참나무가 좋고?(숯은 참나무가 좋고?)

104026 #2 참나무 숫이라야 숫불이 오래 가.(참나무 숯이라야 숯불이 오래 가.)

104026 @ 참나무니 뭐니 허는 게 딱 보민 알아져마씨?(참나무니 뭐니 하는 게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104026 #2 참나무는 이파리가 까릿까릿허고.(참나무는 이파리가 '까릿까릿'하고.)

104026 @ 숯 만드는 건 참나무라야만 뒈는 거라예?(숯 만드는 건 참나무라야만 되는 거네요?)

104026 #2 아니, 다른 나무도 뒈긴 뒈는데, 참나무가 오래가.(아니, 다른 나무도 되긴 되는데, 참나무가 오래가.)

104027 @ 땔감 준비를 하면서 느꼈던 추억이나 경험을 말씀혜 주십시오.(땔감 준비를 하면서 느꼈던 추억이나 경험을 말씀해 주십시오.)

104027 #1 게난 땔감 헤나민 그 망굴 잇잖아. 그거 담앙 겨울에 불추잖아. 불화리에 담앙.(그러니까 땔감 하고 나면 그 잉걸 있잖아. 그거 담아서 겨울에 불 쬐잖아. 불 화로에 담아서.)

104027 @ 불 화리에 그 낭불?(불 화로에 그 나무불?)

104027 #1 낭 헤나민 그디 망굴 나무가 잇어. 게믄 그거 담아당 불 화루에 놩. 겨울에.(나무 하고 나면 거기 잉걸 나무가 있어. 그러면 그거 담아다가 불 화로에 놔서. 겨울에.)

104027 @ 그, 그런 낭덜은 아저씨가 다 헤왓수과?(그, 그런 나무들은 아저씨가 다 해왔습니까?)

104027 #1 응. 나는 안 뎅겨. 안 뎅겨. 나는 그런 디 안 뎅겨.(응. 나는 안 다녀. 안 다녀. 나는 그런 디 안 다녀.)

104027 @ 땔감 준비를 하면서 느꼈던 추억이나 경험을 말씀혜 주십시오. 멧 살 때부터 이런 나무허레 갑니까, 아이덜끼리?(땔감 준비를 하면서 느꼈던 추억이나 경험을 말씀해 주십시오. 몇 살 때부터 이런 나무하러 갑니까? 아이들끼리?)

104027 #2 거 집안 형편에 따라서.(거 집안 형편에 따라서.)

104027 @ 삼촌은 혼자 갓수과?(삼촌은 혼자 갔습니까?)

104027 #2 어, 난 혼자만 허레 다녓주.(어, 난 혼자만 하러 다녔지.)

104027 @ 무섭지 안헨마씨?(무섭지 안했나요?)

104027 #2 무서운 것 엇주만은.(무서운 것 없지만.)

104027 @ 게믄 거 정 와마씨?(그러면 거 지셔 와요?)

104027 #2 그렇지. 지어서도 오고 구루마 이실땐 구루마로 져오곡. 여기서 저 교래꼬지도 가왓어. 나무허러.(그렇지. 져서도 오고 달구지 있을 땐 달구지로 져오고. 여기서 저 교래까지도 가왔어. 나무하러.)

104027 @ 영 놔두믄 누게 가져가불곡 그럴 수도 잇겟다예.(이렇게 놔두면 누구 가

져가버리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104027 #2 가져가는 일은 드물고, 그 제주도 사름덜이 그렇게 그 저 나쁜 사름덜은 벨로 없엇어. 옛날엔.(가져가는 일은 드물고, 그 제주도 사름들이 그렇게 그 저 나쁜 사름들은 별로 없었어. 옛날엔.)

104027 @ 뭐 다치거나 한라산까지 가보거나 이런 건 엇엇수과?(뭐 다치거나 한라산까지 가보거나 이런 건 없었습니까?)

104027 #2 아, 저 등산은 한번 가낫져만은 나무허레는 한라산까지 갈 수가 엇고.(아, 저 등산은 한번 갔었지만 나무하러는 한라산까지 갈 수가 없고.)

104027 @ 여기서 잘 가는 거는 원당봉?(여기서 잘 가는 거는 원당봉?)

104027 #2 아니, 저 교래[104] 가차운 디깡지.(아니, 저 교래 가까운 데까지.)

104027 @ 교래 무신 오름 많이 가수과? 곶자왈?(교래 무슨 오름 많이 갔습니까? 곶자왈?)

104027 #2 곶자왈[105].(곶자왈.)

104027 @ 교래리에?('교래리'에?)

104027 #2 교래리 가는디. 그 뭐 많지 뭐. 바메기오름[106], 울오름 보통으로 갓엇주.(교래리 가는데. 그 뭐 많지 뭐. '바메기오름', '울오름' 보통으로 갔었지.)

104027 @ 바농오름[107]?('바농오름'?)

104027 #2 바농오름.('바농오름'.)

104027 @ 바농오름 뭐 좋은 거 이선마씨?('바농오름' 뭐 좋은 거 있었어요?)

104027 #2 바농오름은 뭐 나무가 벨로 엇고 그 우로 가야뒈.('바농오름'은 뭐 나무가 벨로 없고 그 위로 가야 돼.)

사냥

104028 @ 사농에 대헤서 들어본 적 이수과? 꿩코?(사냥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습니까? 꿩 올가미?)

104028 #1 그런 건 안 혜. 아방도 그런 건 안 허드라고.(그런 건 안 해. 아방도 그런 건 안 허더라고.)

104028 #2 노루 잡는 게 사농. 노루잡고. 산촌사름이나 알지. 우린 잘 몰라.(노루 잡는 게 사냥. 노루 잡고. 산촌사름이나 알지. 우린 잘 몰라.)

104029 @ 꿩 사농 헤봐수과?(꿩 사냥 해봤습니까?)

104029 #2 안 헤봔.(안 해봤어.)

104029 @ 상 먹어본 적은 이수과?(사서 먹어본 적은 있습니까?)

104029 #2 지다리도 상 먹어보고.(오소리도 사서 먹어보고.)

---

104) '교래리'는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이며 한라산동쪽 해발 420고지에 자리하고 있는 중산간 마을을 말한다.
105) '곶자왈'은 나무와 덩굴 따위가 마구 엉클어져 수풀같이 어수선하게 된 곳을 말한다.
106) '바메기오름'은 조천읍 선흘리에 있으며 알바메기오름과 웃바메기 오름이 있다.
107) '바농오름'은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에 위치해 있으며, 바능오름, 바능악이라고도 한다.

104031 @ 지다리 사냥 그런 것도 안 들어보고?(오소리 사냥 그런 것도 안 들어보고?

104031 #1 어, 그런 건 웃드리 사람들이 허지 이딧사름은 안헤여. 여기는 주로이 바당에 사는 해녀나 허곡, 곶디 사름은 농ᄉᆞ나 허곡이.(어, 그런 건 '웃드리' 사람들이 하지. 여기 사람은 안 해. 여기는 주로 바다에 사는 해녀나 하고, 숲에 사람은 농사나 하고.)

104031 @ 지다리가 표준말로 뭐꽈?(오소리가 표준말로 뭡니까?)

104031 #2 오로.(오소리)

104031 @ 오소리?(오소리?)

104031 #2 오소리지, 오로.(오소리지, '오로.')

104031 @ 오로옌 헙니까?(오소리라고 합니까?)

104031 #2 거 맛좋아.(거 맛좋아.)

104031 @ 뭐 헤서 먹어마씨?(뭐 해서 먹어요?)

104031 #2 폐병 걸린 사름은 거 먹으면 아주 좋다고 헷어.(폐병 걸린 사름은 거 먹으면 아주 좋다고 했어.)

104031 @ 삶앙?(삶아서?)

104031 #2 삶앙.(삶아서.)

104031 @ 몸보신에 좋덴 할머니안티 많이 들어난 거 달믄디.(몸보신에 좋다고 할머니한테 많이 들어난 거 같은데.)

104031 #2 그렇지. 몸 약헌 거옌 오루가 막 좋아. 보약이여.(그렇지. 몸 약한 거라고 오소리가 막 좋아. 보약이야.)

104031 @ 오소리가 오루? 지다리?(오소리가 '오루'? 오소리?)

104031 #2 나가 저 소 ᄎᆞ지레 가다가 안개가 푸욱 지니까 요런 소롯길이 잇어. 나가 가다가 보니까 오로 새끼들인디 이만씩 헌거. 헌디 이게 사람이 금방 이까지 가도 오루가 날 못본 모냥이야. 안개가 포옥 껴노니까. 견디 이놈들이 ᄲᅳ르지가 안해. 그냥 네 ᄆᆞ리가 쪼르르륵 허게 막 가까이 가니까 도망가데. 견디 ᄲᅳ르질 못허니까 밧담가차이서 하나씩 톡톡 노니까 문딱 자빠지데. 경 네 ᄆᆞ리 잡아다가 내가 보신탕 헷어. 오루가 저 보신용으로 좋은거주. 옛날덜 폣병걸린 사름이나 이런 사람은 오루를 먹ᄀᆞ렌 헨게.(내가 저 소 찾으러 가다가 안개가 푹 끼니까 요런 소로 길이 있어. 내가 가다가 보니까 오소리 새끼들인데 이만큼씩 한 거. 그런데 이게 사람이 금방 이까지 가도 오소리가 날 못본 모양이야. 안개가 폭 끼어서. 그런데 이놈들이 빠르지가 않아. 그냥 네 마리가 쪼르르륵 하게 막 가까이 가니까 도망가대. 그런데 빠르질 못하니까 밭담 가까이서 하나씩 톡톡 놓으니까 모두 자빠지대. 그렇게 네 마리 잡아다가 내가 보신탕 했어. 오소리가 저 보신용으로 좋은 거지. 옛날들 폐병 걸린 사람이나 이런 사람은 오소리를 먹었다고 하던데.)

104031 @ 노루는?(노루는?)

104031 #2 노루는 먹어봣자 맛도 엇고.(노루는 먹어봤자 맛도 없고.)

104032 @ 족제비 덫에 대헤서 말씀혜 주십시오.(족제비 덫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4032 #2 아, 건 헤봣어.(아, 건 해봤어.)

104032 @ 어떻게요?(어떻게요?)

104032 #2 그 족제비 덫이옌 헌 건 나무 요렇게 한걸 해가지고 요렇게 쪽 짜서 여기다 요렇게 세왓다가 여기다 무신 중이나 듹 대가리나 이렇게 늬껍을 허면 이놈이 탁 허게시리 걸 물엇을 때 우로 무거운 돌 헤가지고 족제비는 나가 몃 개 잡아봐실거라.(그 족제비 덫이라고 한 건 나무 요렇게 한걸 해가지고 요렇게 쪽 짜서 여기다 요렇게 세웠다가 여기다 무신 중이나 닭 대가리나 이렇게 미끼를 허면 이놈이 탁 하게끔 걸 물었을 때 우로 무거운 돌 해가지고 족제비는 나가 몇 개 잡아봤을 거라.)

104032 @ 드르에 많아마씨?(들에 많아요?)

104032 #2 지금은 못 봐. 지금도 족제비 있긴 있는데, 우리 과수원에 듹을 질룬디 족제비안티 듹을 몃 개 일러 불엇어. 내가. 그 듹 머리만 씹어 먹어 분다니까.(지금은 못 봐. 지금도 족제비 있긴 있는데, 우리 과수원에 닭을 기르는데 족제비한테 닭을 몇 개 잃어버렸어. 내가. 그 닭 머리만 씹어 먹어버린다니까.)

104032 @ 예?(예?)

104032 #2 듹 대가리만 씹어먹어 불어.(닭 대가리만 씹어 먹어버렸어.)

104032 @ 족제비가 닭 대가리를? 살아 있는 거?(족제비가 닭 대가리를? 살아 있는 거?)

104032 #2 살아 있는 거. 그래서 내가 듹 멧 개 일러 불엇어.(살아 있는 거. 그래서 내가 닭 몇 개 잃어버렸어.)

104032 @ 족제비가 쪼끄만헌 게 잘도 쎄다예.(족제비가 조그마한 게 잘도 세네요.)

5. 바다일

105001 @ 바다에서 하는 일들은 어떤 것들이 잇습니까?(바다에서 하는 일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105001 #2 바다에는 고기가 많지 뭐.(바다에는 고기가 많지 뭐.)

105001 @ 삼촌은 몃 살부터 바다에서 헤엄쳐수과?(삼촌은 몇 살부터 바다에서 헤엄쳤나요?)

105001 #2 난 바다에 전혀 관심이 없어서 안 헷는데.(난 바다에 전혀 관심이 없어서 안했는데.)

105001 @ 어릴 때는?(어릴 때는?)

105001 #2 칠십 뒈어야 고기 나끄레 뎅겻어.(칠십 되어야 고기 낚으러 다녔어.)

105001 @ 아, 젊은 때는 농사만 지엇고?(아, 젊은 때는 농사만 지었고?)

105001 #2 칠십 뒈야 농산 이자 아들이 맡앙 허겟다. 허니까 이제 나가 바당에.(칠

십 되야 농산 이제 아들이 맡아서 하겠다. 하니까 이제 나가 바다에)

105001 @ 테우도 안 타보고 낚시헐 중도 몰르고? 바당에 헤엄은 쳐봣지예?(떼배도 안 타보고 낚시할 줄도 모르고? 바다에 헤엄은 쳐봤지요?)

105001 #2 아, 헤엄은 쳇지.(아, 헤엄은 쳤지.)

105001 @ 몇 살부터 헤엄 쳐수과?(몇 살부터 헤엄 쳤습니까?)

105001 #2 어린 때부터 헤엄은 잘 쳇어.(어린 때부터 헤엄은 잘 쳤어.)

105001 @ 그때 뭐 작살이나 소살 이런 건 안 헤봐수과?(그때 뭐 작살이나 소살 이런 건 안 해봤습니까?)

105001 #2 그런 게 없엇어, 우리 어린 땐.(그런 게 없었어. 우리 어린 땐.)

105001 @ 낚시도 안 헤 봔?(낚시도 안 해 봔?)

105001 #2 어릴 땐 낚시질도 잘 안 헤봣고, 가에서 무신 보들락이나 장어나 이런 건 나까봣주만은 다른 건.(어릴 땐 낚시질도 잘 안 해봤고, 가에서 무신 '보들락'이나 장어나 이런 건 낚아봤지만 다른 건.)

105001 @ 신촌은 무슨 고기가 잘 나옵디가?(신촌은 무슨 고기가 잘 나옵디까?)

105001 #2 나오는 바다에 고기가 다 나오주. 이젠 고기가 없어 한전 들어와 부난.(나오는 바다의 고기가 다 나오지. 이젠 고기가 없어 한전 들어와버리니까.)

105002 @ 듬북, 감태는 어떻게 채취합니까? 감태도 채취헹은에 다 공출 바쪄불고?(듬북, 감태는 어떻게 채취합니까? 감태도 채취해서 다 공출 바쳐버리고?)

105002 #1 어어, 일제 때.(어어, 일제 때.)

105002 @ 옛날에는 감태가 저기 막 중요하게 안 여기당 일제시대 때부터 막 중요헤졋구나예?(옛날에는 감태가 저기 막 중요하게 안 여기다가 일제시대 때부터 막 중요해졌군요?)

105002 #1 문딱 가져가 불어. 고사리 공출끄지 일제 때. 일본 놈덜.(모두 가져가버려. 고사리 공출까지 일제 때. 일본 놈들.)

105002 @ 감태.(감태.)

105002 #1 일제 때는 몰리와가지고 불을 태와서. 그게 타면은 덩어리가 져.(일제 때는 말려가지고 불을 태웠어. 그게 타면 덩어리가 져.)

105002 @ 아아.(아아.)

105002 #1 그 감태가. 곡쥐기는 경 안 허는데 감태는 대개 영양가치가 잇는 거라.(그 감태가. '곡쥐기'는 그렇게 안 하는데 감태는 대개 영양가치가 있는 거라.)

105002 @ 아아.(아아.)

105002 #1 게민 그 감태만 옛날은이 일본허곡 미국 싸와낫잖아 전장.(그러면 그 감태만 옛날은 일본하고 미국 싸웠었잖아 전쟁.)

105002 @ 예.(예.)

105002 #1 게민 우리 해녀덜이 감태 ᄒᆞ나 영 허민이 감태가 귀헤부니까 미국놈ᄒᆞ나 죽엿다. 헤나서. 옛날은. 이제 미국에 ᄀᆞ치 헷주만은 그때 미국은 영 감태ᄒᆞ나 ᄌᆞ물민 미국 놈 ᄒᆞ나 죽였다. 우리 어린 때 그렇게 허연.(그러면 우리 해녀들이 감태 하나 이렇

게 하면 감태가 귀해버리니까 미국 놈 하나 죽였다. 했었어. 옛날은. 이제 미국에 같이 했지만 그때 미국은 영 감태하나 캐면 미국 놈 하나 죽였다. 우리 어린 때 그렇게 했어.)

105002 @ 감태ᄒᆞ나 주민?(감태하나 주면?)

105002 #1 감태 ᄒᆞ나 ᄌᆞ물민 미국 놈 ᄒᆞ나 죽였다 이거야. 그 일본과 미국놈 싸와갓잖아. 겐디 이제 북한놈 어쩌고 저쩌고 헤도 마찬가지 그때도. 우리 어떵 못 젼딘 생활 헴샤? 아이고.(감태 하나 캐면 미국 놈 하나 죽였다 이거야. 그 일본과 미국 놈 싸웠었잖아. 그런데 이제 북한 놈 어쩌고, 저쩌고 해도 마찬가지. 그때도. 우리 어떻게 못 견딘 생활하니? 아이고.)

105002 @ 듬북, 감태는 어떻게 채취합니까?(듬북, 감태는 어떻게 채취합니까?)

105002 #2 어머니도 바다에 안 다니고, 듬북은 거름 헐 거로 해서 헤여당 한 지붕만썩 눌어놓곡. 밭에다 노면 곡식이 잘 뒈거든.(어머니도 바다에 안다니고, 듬북은 거름할 거로 해서 해다가 한 지붕만큼씩 가리어 놓고. 밭에다 놓으면 곡식이 잘 되거든.)

105002 @ 그문 그냥 바당에 잇는 것채 놓진 않고 썩형? 말령?(그러면 그냥 바다에 있는 것째 놓지는 않고 썩혀서? 말려서?)

105002 #2 말령. 말르민 그냥 밭에 가서 풀어놓고 허민.(말려서. 마르면 그냥 밭에 가서 풀어놓고 하면.)

105002 @ 그 듬북이 ᄆᆞᆷ 닮은 거꽈(그 듬북이 모자반 같은 겁니까?)

105002 #2 그렇주. 아주 그건 열심히덜 헷지.(그렇지. 아주 그건 열심히들 했지.)

105002 @ 걸름으로만 헷구나예. 듬북을. 먹진 안허고?(거름으로만 했군요. 듬북를. 먹진 안하고?)

105002 #2 먹는 건 ᄆᆞᆷ이나 이. 톨이나 그런 건 먹주만은.(먹는 건 모자반이나 이. 톳이나 그런 건 먹지만.)

105002 @ ᄆᆞᆷ이나 톨은 신촌에 많이 낫지예?(모자반이나 톳은 신촌에 많이 났지요?)

105002 #2 먹는 건 ᄆᆞᆷ이나 이. 톨이나 그런 건 먹주만은.(먹는 건 모자반이나 이. 톳이나 그런 건 먹지만.)

105002 @ 그믄 건 사다먹엇겟네?(그러면 건 사다먹었겠네?)

105002 #2 아니 우리도 듬북은 헷어. 우리 아버지 산 때 듬북을 헤가지고 트럭으로 가서 듬북을 헤가지고 막 실러오면 여기 사름덜은 거기 ᄆᆞᆷ이 서터지면 거 주어당 먹어도 말 안 헤.(아니 우리도 듬북는 했어. 우리 아버지 산 때 듬북을 해가지고 트럭으로 가서 듬북을 해가지고 막 실어오면 여기 사람들은 거기 모자반이 섞어지면 거 주서다가 먹어도 말 안 해.)

105002 @ 어떤 때 듬북이 많이 나옵니까?(어떤 때 듬북 많이 나옵니까?)

105002 #2 봄에.(봄에.)

105002 @ 바다에 가민 많이 이서마씨?(바다에 가면 많이 있어요?)

105002 #2 ᄇᆞ름에 쓸려나온 것도 잇고, 옛날에 그 터위덜 해서 단체해 가지고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줍으민 굽으로 막 끈어져. 쒜로 놀 멘들앙 길게 멘들어가지고

경허믄 그게 우끗 올라오거든. 속에서. 그걸 들어올렁 막 시꺼서 그냥. 올라온거 보민 몸도 잇고, 톨도 잇고 듬북도 잇고 그러니까 몸은 먹을 사름 골라가도 말 안해여.(바람에 쓸려나온 것도 있었고, 옛날에 그 테우들 해서 단체해 가지고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집으면 굽으로 막 끊어져. 쇠로 날 만들어서 길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그게 불끈 올라오거든. 속에서. 그걸 들어 올려서 막 실어서 그냥. 올라온 거 보면 모자반도 있고, 톳도 있고 듬북도 있고 그러니까 모자반은 먹을 사람 골라가도 말 안 해.)

105002 @ 서꺼졍 나와. 게믄 또 감태는 뭘 헤마씨?(섞어져서 나와. 그러면 또 감태는 뭘 해요?)

105002 #2 감태도 거름으로 허는데 웨정시대엔 그 감태를 테와가지고 재를 가져갓어. 감태 재를. 거 뭐허냐 허민 그게 약이라는데 폭탄 멘드는데 드는 모냥이지.(감태도 거름으로 하는데 왜정시대엔 그 감태를 태워가지고 재를 가져갔어. 감태 재를. 거 뭐하냐 하면 그게 약이라는데 폭탄 만드는데 드는 모양이지.)

105002 @ 거 누가 태와?(거 누가 태워?)

105002 #2 아니, 거 태와서 사가. 일본 놈덜이.(아니, 거 태워서 사가. 일본 놈들이.)

105002 @ 삼촌도 헤봐수과? 여자, 남자 누게가 헙니까?(삼촌도 해봤습니까? 여자, 남자 누가 합니까?)

105002 #2 여자도 허고, 남자도 허고.(여자도 하고, 남자도 하고.)

105002 @ 바다에서 태웁니까?(바다에서 태웁니까?)

105002 #2 물려가지고 태와. 물리지 안허믄 불이 안 붙지. 그 재로 뭐 화약을 맨든다고 허던가 뭘 헌다든가 헨. 하여튼 공출 허다시피덜 많이 헷지.(말려가지고 태워. 말리지 않으면 불이 안 붙지. 그 재로 뭐 화약을 만든다고 하든가 뭘 한다든가 했어. 하여튼 공출 하다시피들 많이 했지.)

105002 #2 듬북 단체로 헤가지고 한 열흘간씩 헤서 터우로 헤가지고 바다에 가서 막 듬북을 그 무슨 기계 만들어가지고 듬북을 끈으민 그놈을 공젱이로 올려서 시꺼다가 퍼가지고 말려서 퉤비할라고. 듬북눌이 그냥 이 키만씩 눌엇어.(듬북 단체로 해가지고 한 열흘간씩 해서 떼로 해가지고 바다에 가서 막 듬북을 그 무슨 기계 만들어가지고 듬북을 끊으면 그놈을 갈고리로 올려서 실어다가 퍼가지고 말려서 퇴비하려고. 듬북 가리가 그냥 이 키만큼씩 가리었어.)

105002 @ 감태는?(감태는?)

105002 #2 화약으로 쓴다고 헤가지고 왜놈들이 다 공출하라고 헤가지고.(화약으로 쓴다고 해가지고 왜놈들이 다 공출하라고 해가지고)

105002 @ 남자들도 물에 들어강 헤야 뒈는 거라?(남자들도 물에 들어가서 해야 되는 거라?)

105002 #2 우리 어릴 때 헤나부니까 잘 몰른디 우리 어릴 땐 그 감태 솔아가지고 그 재를 가지고 일본 놈덜이 화약으로 쓴다고 그런 말을 들엇어.(우리 어릴 때 했었으니까 잘 모른데 우리 어릴 땐 그 감태 태워가지고 그 재를 가지고 일본 놈들이 화약으로 쓴다고 그런 말을 들었어.)

105002 @ 듬북, 감태는 언제 많이 납니까?(듬북, 감태는 언제 많이 납니까?)

105002 #2 여름에.(여름에.)

105003 @ 고둥과 게는 어떻게 잡습니까? 신촌에도 고동은 보말이옌 헙니까?(고둥과 게는 어떻게 잡습니까? 신촌에도 고둥은 보말이라고 합니까?)

105003 #2 그렇지.(그렇지.)

105003 @ 보말이나 깅이 이런 거 많이 잡아봣수과?(고둥이나 게 이런 거 많이 잡아봤습니까?)

105003 #2 아, 그런 거 많이 잡아봣지.(아, 그런 거 많이 잡아봤지.)

105003 @ 어릴 때도?(어릴 때도?)

105003 #2 어릴 때도.(어릴 때도.)

105004 @ 고둥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고동이민 여기 구젱이옝 헙니까?(고둥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고동이면 여기 '구젱이'라고 합니까?)

105004 #1 어, 고동은 소라.(어, 고동은 소라.)

105004 @ 소라옌 헙니까 구젱이옌 헙니까?(소라라고 합니까? '구젱이'라고 합니까?)

105004 #1 구젱기는 사투리고.('구젱기'는 사투리고.)

105004 @ 사투리로 골아야뒈어예.(사투리로 말해야 돼.)

105004 #1 어어. 사투린 구젱기.(어어. 사투린 '구젱기'.)

105004 @ 구젱기허고 깅이?(소라하고 게?)

105004 #1 깅이는 몰라.(게는 몰라.)

105004 @ 깅인 뻐상 죽도 쒀먹고 안헤봅디가?(게는 빻아서 죽도 쒀 먹고 안 해봅디까?)

105004 #1 에에, 그건 곳디서 잡아오는 거. 숨 쉬멍 영 앚아둠서 검질매듯 잡아 오는 거고, 이 짚은 디 강 숨비는[108] 건 생복.(에에, 그건 갯가서 잡아오는 거. 숨 쉬면서 이렇게 앉고서 검질 매듯 잡아 오는 거고. 이 깊은 데 가서 '숨비는' 건 전복.)

105004 @ 생복.(전복.)

105004 #1 짚은 디, 난 생복벳긔 안 떼어. 소라 같은 것도 안 헤여. 짚은 디 전복만 떼어.(깊은 데, 난 전복밖에 안 떼. 소라 같은 것도 안 해. 깊은 데 전복만 떼어.)

105004 @ 그래도 구젱기도 큰 거 이시믄?(그래도 소라도 큰 거 있으면?)

105004 #1 소라 하나 보는 거민 큰 전복 ᄒᆞ나 돈 왕창 올릴 거 아니냐? 그거 떼젠 허지. 소라 같은 건 난 안 헤여. 발로 발롸도 안 헌다고. 그거 허는 거민 ᄒᆞᆫ바퀴 여 더 넘으민 전복 떼지.(소라 하나 보는 거면 큰 전복 하나 돈 왕창 올릴 거 아니냐? 그거 떼려고 하지, 소라 같은 건 난 안해. 발로 밟아도 안한다고 그거 하는 거면 바퀴 여 더 넘으면 전복 떼지.)

105004 @ 아아.(아아.)

105004 #1 거난 난 전복벳긔 안 떼어. 이디 줌녀덜은 다 알아.(그러니까 난 전복밖에 안 떼. 이디 잠녀들은 다 알아.)

---

108) '숨비다'는 숨을 참고 물 속으로 들어감을 뜻한다.

105004 @ 게도 나이 들어가민 구젱기도 집이서도 먹고게, 젓도 담고.(그래도 나이 들어가면 소라도 집이서도 먹고. 젓도 담고.)

105004 #1 그리 헤도 나는이. 그거 ᄒᆞ는 거민 전복만 테젠 허지. 소라는 안 헤여.(그리 해도 나는 그거 하는 거면 전복만 떼려고 하지 소라는 안 해.)

105004 @ 그믄 그 구젱이는 이렇게 뽀쪽뽀족 난 거 조쿠젱이여, 쏠쿠젱이여 어떻게 구별뒈니까?(그러면 그 소라는 이렇게 뽀쪽뽀족 난 거 '조쿠젱이'여, '쏠쿠젱이'여 어떻게 구별됩니까?)

105004 #1 왜냐허면은 조쿠젱인 요만이 헌 거야.(왜냐하면 '조쿠젱인' 요만큼 한 거야.)

105004 @ 즌즌헌 거.(잔잔한 거.)

105004 #1 아주 써. 먹도 못허여. 써.(아주 써 먹지도 못해. 써.)

105004 @ 아아. 잘 졸고 쓰다.(아아. 잘 잘고 쓰다.)

105004 #1 조쿠젱이, 그다음 중쿠젱이.('조쿠젱이', 그다음 중소라.)

105004 @ 중쿠젱이.(중소라.)

105004 #1 또 이만헌 건 대구젱이, 세 개야. 소라도. 소구젱이, 중구젱이, 대구젱이, 그 막 추리지 안 허나? ᄌᆞ물앙 왕 싹 망아리 탁 헤영 헤여근에 ᄆᆞᆫ딱 추려. 대구젱인 대구젱이, 중쿠젱인 중구젱이, 소쿠젱인 바당에 던지고.(또 이만큼한 건 대소라, 세 개야. 소라도, 작은 소라, 중소라, 대소라, 그 막 추리지 안 하나? 캐서 와서 싹 망사리 탁 하고 해서 모두 추려. 대소라 대소라, 중소란 중소라, 작은 소란 바다에 던지고.)

105004 @ 던져불고예.(던져 버려요.)

105004 #1 응. 크렌.(응. 크라고.)

105004 @ 던져불어예, 소쿠젱이렌 헙니까? 조쿠젱이.(던져 버려요, '소쿠젱이'라고 합니까? '조쿠젱이')

105004 #1 조쿠젱이가 소쿠젱이, 조쿠젱이 사투리 조쿠젱인.('조쿠젱이'가 소쿠젱이, '조쿠젱이' 사투리 '조쿠젱이'는.)

105004 @ 건 던져불어예?(건 던져버려요?)

105004 #1 소쿠리에 그런 건 크라고 던져불어.(바구니에 그런 건 크라고 던져 버려.)

105004 @ 여기는 또 저 신촌엔 깅이도 많이 나낫수과 ᄀᆞᆺ디?(여기는 또 저 신촌엔게도 많이 났었습니까? 가에?)

105004 #1 ᄀᆞᆺ디 이제도 막 몰래왓디 허면은 실꺼라. 우린 그런 거 안헤나난.

먹는 사람은 잡아당 죽도 쒀 먹고 우리는 그런 거 잡아보도 안 허고 먹어보도 안 허고.(바닷가에 이제도 막 모래밭에 하면 있을 꺼라. 우리는 그런 거 안 했었으니까. 먹는 사람은 잡아다가 죽도 쒀 먹고 우리는 그런 거 잡아보지도 안 하고 먹어보지도 안 하고.)

105004 @ 신경통에 좋덴은 허는디.(신경통에 좋다고는 하는데.)

105004 #1 응 허여지민 좋덴 허는디 우린 그런 거 잘못 먹으민 설사 나. 막 걸어. 하영 먹엇당 완전이 설사나.(응 하면 좋다고 하는데 우린 그런 거 잘못 먹으면 설사 나.

막 걸어. 많이 먹었다가 완전히 설사 나.)

105004 @ 깅이 죽이예?(게 죽이요?)

105004 #1 응. 거 무릎에 존넨 허매. 깅이가.(응. 거 무릎에 좋다고 해. 게가.)

105004 @ 네.(네.)

105004 @ 메옹이?(두드럭고둥?)

105004 #2 메옹이도 잇고.(두드럭고둥도 있고.)

105004 @ 어떤 보말이 맛좋아마씨?(어떤 고둥이 맛좋아요?)

105004 #2 젤 존 것은 먹보말이지. 먹보말이 최고.(젤 좋은 것은 밤고둥이지. 밤고둥이 최고.)

105004 @ 먹보말은 뭐고 수두리보말은 뭐꽈?(밤고둥은 뭐고 두드럭고둥은 뭡니까?)

105004 #2 수두리보말은 쪼끔 뒤가 삐짝허고 꼴랭이가 삐짝허고 먹보말은 똥그래.(두드럭고둥은 조끔 뒤가 삐쭉하고 꼬리가 삐쭉하고 밤고둥은 동그래.)

105004 @ 먹보말이 더 맛좋아마씨, 수두리보다?(밤고둥이 더 맛좋아요. 두드럭고둥보다?)

105004 #2 응 술지고.(응 살찌고.)

105004 @ 그걸로 어머니가 보말죽이나 보말국도 끌여줘나수과?(그걸로 어머니가 고둥죽이나 고둥국도 끓여줬습니까?)

105004 #2 아, 거 혜당 많이 먹엇어. 솔만에 까먹고 그자.(아, 거 해다가 많이 먹었어. 삶아서 까먹고 그자.)

105004 @ 지금은 엇어예 그런 것도.(지금은 없어요. 그런 것도.)

105004 #2 지금도 많이 나.(지금도 많이 나.)

105004 @ 물 쌀 때?(물 썰 때?)

105004 #2 물 쌀 때.(물 썰 때?)

105004 @ 보말은 무슨 보말 기억나는 거 잇수과?(고둥은 무슨 고둥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105004 #2 먹보말, 돌보말, 코토데기, 맹꽁이.(밤고둥, 문다드리, '코ᄐᆞ데기', 두드럭고둥.)

105004 @ 아, 여기는 맹꽁이렌 허더라예. 저기선 메옹이렌 허는 디.(아, 여기는 '맹꽁이'라고 하더라구요. 저기선 두드럭고둥이라고 하는데.)

105004 @ 성게를 뭐렌 헷수과?(성게를 뭐라고 했습니까?)

105004 #2 퀴.(성게.)

105004 @ 구살이렌 안헹 퀴렌 헨예. 물구럭은 뭉게?(성게라고 안 해서 '퀴'라고 했어요. 문어는 '뭉게'?)

105004 #2 @ 뭉게. 나 뭉게 많이 잡앗어.(문어. 나 문어 많이 잡았어.)

105004 @ 뭉겐 어디 강 많이 잡습니까?(문언 어디 가서 많이 잡습니까?)

105004 #2 없어. 이제.(없어. 이제.)

105004 @ 이젠 없어예. 옛날 횃불 들렁 가는 건, 낙지?(이젠 없어요. 옛날 횃불 들

어서 가는 건, 낙지?)

105004 #2 낙지허고 뭉게.(낙지하고 문어.)

105004 @ 철이 언제꽈?(철이 언제입니까?)

105004 #2 낙지는 이제부터.(낙지는 이제부터.)

105004 @ 가을?(가을?)

105004 #2 가을에, 낙지는 우리 아들이 잘 허여. 난 못 잡아.(가을에, 낙지는 우리 아들이 잘해. 난 못 잡아.)

105004 @ 아덜이 뭐가 어디 잇는지 아는구나?(아들이 뭐가 어디 있는지 아는구나?)

105004 #2 바당일은 아들이 잘허여. 난 서툴러서. 난 많이 먹기만 해. 오분재기 하나 떼어보지 못헤서.(바다일은 아들이 잘 해. 난 서툴러서. 난 많이 먹기만 해. '오분재기' 하나 떼어보지 못해서.)

105005 @ 깅이는 무싱거 춤깅이여, 똥깅이여.(게는 뭐 참게여, 똥게여.)

105005 #1 어어. 그런 거 잇지.(어어. 그런 거 있지.)

105005 @ 무슨 깅이 이름이 더 잇수과? 지름깅이여?(무슨 게 이름이 더 있습니까? 기름 게여?)

105005 #1 지름깅이, 또 베염깅이.(기름 게, 또 뱀 게.)

105005 @ 베염깅인 또 뭐라? 색깔이 얼룩달룩 허나부다?(뱀 겐 또 뭐라? 색깔이 알록달록 하나보다?)

105005 #1 아니, 발이 터럭돋아 베염깅인 , 터럭돋아. 게난 거 먹도 안허여. 육지 사름덜이나 잡아당 먹지 이디 사람덜은 먹도 안허여.(아니, 발이 털 돋아 뱀, 털 돋아. 그러니까 거 먹지도 않아. 육지 사름들이나 잡아다가 먹지 여기 사람들은 먹지도 않아.)

105005 @ 지름깅이, 베염깅이, 춤깅이, 똥깅이?(기름 게, 뱀 게, 참게, 똥게?)

105005 #1 응. 똥깅이는 물랑물랑 헌 거.(응. 똥게는 물렁물렁 한 거.)

105005 @ 똥깅이는 물랑물랑 헌 거.(똥게는 물렁물렁 한 거.)

105005 #1 그게이 물랑물랑허여. 꽝꽝 안 헤. 똥깅이는. 심도 안 헤. 물싹물싹헤여.(그게 물렁물렁해. 꽝꽝 안 해. 똥게는, 잡지도 않아. 물씬물씬해.)

105005 @ 그믄 뭐가 지름깅이만 먹음니까?(그러면 뭐가 기름 게만 먹습니까?)

105005 #1 지름깅이가 맛딧지. 빨강 헤. 그놈으 깅이는.(기름 게가 맛있지. 빨강 해. 그놈의 게는.)

105005 @ 아아, 빨강헤마씨? 거멍허지가 않고?(아아, 빨강해요? 거멓지가 않고?)

105005 #1 거멍헌 건 베염깅이라고. 터럭 돗은 거. 꺼먼 건 깅이라.(꺼먼 건 뱀 게라고. 털 같은 꺼먼 건 게라.)

105005 @ 베염깅이도 먹고예?(뱀 게도 먹고요?)

105005 #1 먹는 사람 먹어. 우린 안 먹어봇어.(먹는 사람 먹어. 우린 안 먹어봤어.)

105005 @ 춤깅이는?(참게는?)

105005 #1 춤깅이는 빨강허지.(참게는 새빨갛지.)

105005 @ 춤깅이는 숢아사 빨강허고 거멍허주게 보통은?(참게는 삶아야 빨갛고 까

맣지. 보통은?)

105005 #1 보통도 좀 색깔이 뜰려. 붉어.(보통도 좀 색깔이 틀려. 붉어.)

105005 @ 츰깅이?(참게?)

105005 #1 응. 잡은 거부터 뜰려.(응. 잡은 거부터 틀려.)

105005 @ 지름깅이도 뻘겅?(기름 게도 빨강?)

105005 #1 지름깅이는 뻘겅허곡.(기름 게는 빨갛고.)

105005 @ 예.(예.)

105005 #1 뚜시 물랑물랑헌 건 똥깅이옌 허매.(또 물렁물렁한 건 똥게라고 해.)

105005 @ 예. 지름깅이도 뻘겅. 츰깅이도 뻘겅?(예. 기름 게도 빨강. 참게도 빨강?)

105005 #1 그놈의 애비가 그놈이 애빌 테지.(그놈의 애비가 그놈이 애빌 테지.)

105005 @ 하하하하.(하하하하.)

105005 #1 두 가지라.(두 가지라.)

105005 @ 깅이는 어떻게 잡습니까?(게는 어떻게 잡습니까?)

105005 #2 깅이는 돌 ᄀᆞ튼거 영 일루민 잇이민 거 잡아놓고, 잡아놓고.(게는 돌 같은 거 이렇게 일으키면 있으면 거 잡아 놓고, 잡아 놓고.)

105005 @ 무슨 깅이를 먹습니까?(무슨 게를 먹습니까?)

105005 #2 깅이도 지름깅이도 잇고 똥깅이도 잇고, 바릇킹이도 잇고, 깅이도 여러 가지 종륜데 지금 사름덜은 보민 뭐 이것저것 다 잡아먹어.(게도 기름 게도 있고 똥게도 있고, 바닷게도 있고, 게도 여러 가지 종륜데 지금 사름들은 보면 뭐 이것저것 다 잡아먹어.)

105005 @ 뭐가 젤 맛좋아수과?(뭐가 젤 맛 좋았습니까?)

105005 #2 지름깅이가 좋주 뭐. 딱지 보민 아는디 지름깅이옌 헌건 등따지가 멘짝헌 것이 지름깅이.(기름 게가 좋지 뭐. 딱지 보면 아는데 기름 게라고 한 건 등이 반드러운 것이 기름 게.)

105005 @ 바릇깅인 또 뭐꽈?('바릇깅인' 또 뭡니까?)

105005 #2 바릇킹이 것도 맛 괜찬아.('바릇킹이' 것도 맛 괜찮아.)

105005 @ 똥깅이만 못 먹는거라?(똥게만 못 먹는 거라?)

105005 #2 건디 시엣 사름덜은 똥깅이고 뭐고 깅이만 보민 다 잡아가.(그런데 시내 사람들은 똥게고 뭐고 게만 보면 다 잡아가.)

105005 @ 거드락지렌 헷수과? 보말 빈 거에다가 사는 거.(소라게라고 했습니까? 보말 빈 거에다가 사는 거.)

105005 #2 게들레기. 것도 먹는 사름은 먹을 것이여 아마, 우린 안 먹어봣는데. 이젯 사름덜은 것도 다 먹는 모냥이야. 막 귀헤가니까.(소라게. 것도 먹는 사름은 먹을 것이여 아마, 우린 안 먹어봤는데. 이제 사람들은 것도 다 먹는 모양이야. 막 귀해가니까.)

105006 @ 그믄 또 횃불을 이용헤서 해산물을 어떻게 잡습니까? 낙지도 잡음네까?(그러면 또 횃불을 이용해서 해산물을 어떻게 잡습니까? 낙지도 잡습니까?)

105006 #1 응, 옛날은, 옛날은.(응, 옛날은, 옛날은.)

105006 @ 예. 옛날.(예. 옛날.)

105006 #1 그 초가집 잇잖아. 그 새로 일엉.(그 초가집 잇잖아. 그 새로 일어서.)

105006 @ 예.(예.)

105006 #1 그 그거 이제 새가 자꾸 더꺼가민 집이 이만이 높아.(그 그거 이제 새가 자꾸 덮어 가면 집이 이만큼 높아.)

105006 @ 예.(예.)

105006 #1 겨민 하르부지덜이 걷어불엇지.(그러면 할아버지들이 걷어버렸지.)

105006 @ 어.(어.)

105006 #1 그 새를.(그 새를.)

105006 @ 새를.(새를.)

105006 #1 그걸 기신새라고 헤여.(그걸 썩은새라고 해.)

105006 @ 예.(예.)

105006 #1 그거 걷어 가면은 그거 이제 걷은 거 놧다가 이렇게 뭐 조칩뎅가리로 묶어가지고 이제 지어. 지엉 이제 바당에 강, 불 켱은에 낙지 심잖아.(그거 걷어 가면 그거 이제 걷은 거 놧다가 이렇게 조짚줄거리로 묶어가지고 이제 지어. 지어서 이제 바다에 가서, 불 켜서 낙지 잡잖아.)

105006 @ 아아.(아아.)

105006 #1 멜도 걸이고.(멸치도 잡고.)

105006 @ 불 켱 낙지.(불 켜서 낙지.)

105006 #1 옛날은 후라쉬 엇어부니까 그런 걸로만 하잖아.(옛날은 손전등 없어버리니까 그런 걸로만 하잖아.)

105006 @ 그믄 불에 막 가까이 오는구나예.(그러면 불에 막 가까이 오는군요.)

105006 #1 응. 또 그놈이 거 영 들르민 멜도 잘 들어와.(응. 또 그놈이 거 이렇게 들면 멸치도 잘 들어와.)

105006 @ 아아.(아아.)

105006 #1 불 보면은.(불 보면.)

105006 @ 불 보민.(불보면.)

105006 #1그렇지, 건디 이젠 후라쉬로만 허영 그런 거.(그렇지. 그런데 이젠 손전등으로만 해서 그런 거.)

105006 @ 그래서 함덕 서우봉[109]에 뭐 멜도채비여 무싱거여?(그래서 함덕 '서우봉'에 뭐 멸치 도깨비여 뭐여?)

105006 #1 함덕 서모봉.(함덕 서우봉.)

105006 @ 서모봉?('서모봉?')

105006 #1 함덕 서모봉에는 사슴수건에 그디 사람 다 죽여나서. 빈지룽이 세와놩, 빨갱이덜 다 심어돠놩, 기관총으로 다닥다닥허민이 우리 그때 물에 들레가민이 허릿디 떨어정 죽은, 죽어간 죽으면은 쳐지면은 허릿띠 남잖아. 허릿띠, 운동화 다 잇어. 이젠

109) '서우봉'은 제주시 조천읍 함덕에 있는 오름을 말한다.

엇어져실 거라. 그디 사람 죽영, 서모봉은 사람 많이 죽엿어. 거기 세와놩 기관총으로 타닥타닥 바당더레 다 떨어져.(함덕 '서모봉', 함덕 '서모봉'에는 사삼사건에 거기 사람 다 죽였었어. 빤히 세워 놔서, 빨갱이들 다 잡아 놓아다가 놔서, 기관총으로 다닥다닥하면 우리 그때 물에 들러 가면 허리띠 떨어져서 죽은, 죽어가서 죽으면 쳐지면 허리띠 남잖아. 허리띠, 운동화 다 있어. 이젠 없어졌을 거라. 거기 사람 죽여서, 서모봉은 사람 많이 죽였어. 거기 세워놔서 기관총으로 타닥타닥 바다에 다 떨어져.)

105006 @ 쯧쯧쯧쯧.(쯧쯧쯧쯧.)

105006 #1 으이고 대창으로 다 죽이곡.(으이고 대창으로 다 죽이고.)

105006 @ 삼촌 멧솔 때우꽈? 그게?(삼촌 몇 살 때입니까? 그게?)

105006 #1 나? 그때가 열에 솔 에서부터 열일곱으로부터 하여튼 십오세 이상은.(나? 그때가 열여섯 살에서부터 열일곱으로부터 하여튼 십오세 이상은.)

105006 @ 열여덟쯤 뒈겟다.(열여덟쯤 되겠다.)

105006 #1 뭐?(뭐?)

105006 @ 삼촌 열여덟쯤 뒈시 커라?(삼촌 열여덟쯤 됐을 거라?)

105006 #1 아니, 뭐? ᄉᆞ삼ᄉᆞ건에.(아니, 뭐? 사삼사건에.)

105006 @ 열아홉?(열아홉?)

105006 #1 아니. 열다섯에서부터는 헌 거 열여섯, 열일곱 나민 완전이 무장 둘러멩 싸와, 그렇게 헤여. 질 뛰기 좋은 때에 열여섯 열일곱이 질 뛰기 좋잔아. 그런 사람 뽑아간덴 허난.(아니. 열다섯에서부터는 한 거 열여섯, 열일곱 나면 완전이 무장 둘러매서 싸워. 그렇게 해. 젤 뛰기 좋은 때에 열여섯, 열일곱이 젤 뛰기 좋잖아. 그런 사람 뽑아간다고 하니까.)

105006 @ 여자로 태어나난 헷주.(여자로 태어나니까 했지.)

105006 #1 여자로 태어나도 다 뽑아 가. 아무나 안 뽑아가 잘 뛰는 사람.(여자로 태어나도 다 뽑아 가. 아무나 안 뽑아가 잘 뛰는 사람.)

105006 @ 아, 삼촌은 거기 안 들어가난 다행 아니?(아, 삼촌은 거기 안 들어가니까 다행 아니?)

105006 #1 아이구, 아이구, 들어갓단 나도 도망가 불엇어. 여기 이덕구세계니까.(아이구, 아이구, 들어갔다가 나도 도망가 버렸어. 여기 이덕구세계니까.)

105006 @ 맞아.(맞아.)

105006 #1 매일 잡히레와. 매일. 요디가 이덕구네 집, 매일 심으레오니까 돼지허고도 ᄀᆞ찌 ᄀᆞᆸ고, 허다허다 버쳔 조천 강 보니까, 군인이고 그냥이고 다 ᄀᆞ찌 살암성게. 신촌만, 신촌만. 이덕구 세계난.(매일 잡으러 와. 매일, 요기가 이덕구네 집, 매일 잡으러 오니까 돼지하고도 같이 숨고, 하다하다 힘들어서 조천가서 보니까, 군인이고 그냥이고 다 같이 살던데. 신촌만, 신촌만. 이덕구 세계니까.)

105006 @ 아아.(아아.)

105006 #1 요디라.(여기라.)

105006 @ 아이고.(아이고.)

105006 #1 아 그디가난 해방뒈언.(아 거기 가니까 해방되어서.)

105006 @ 아, 이덕구는 조천 아니우꽈?(아, 이덕구는 조천 아닙니까?)

105006 #1 신촌, 요디라. 요집, 가까우니까 이디만 들엉, 그 습격도 이디만 들엉허주. 이덕구네 동네, 바로 요디가 이덕구네 집이라.(신촌, 요기라. 요집, 가까우니까 여기만 들어서, 그 습격도 여기만 들어서 하지. 이덕구네 동네, 바로 요기가 이덕구네 집이라.)

105006 @ 아아. 건 몰랏수다.(아아. 건 몰랐습니다.)

105006 #1 응?(응?)

105006 @ 건 몰랏수다. 조천이렌만 허난.(건 몰랐습니다. 조천이라고만 하니까.)

105006 #1 아이구, 신촌, 신촌게. 바로 이디게.(아이구, 신촌, 신촌. 바로 여기.)

105006 @ 중학교선생이렌 허멍.(중학교선생이라고 하면서.)

105006 #1 이덕구? 머리가 좋아. 막 얽은 사람이라도, 머리가 최고 좋아. 옛날 일제 때 대학 먹은 사람이라 일본 강.(이덕구? 머리가 좋아. 막 얽은 사람이라도, 머리가 최고 좋아. 옛날 일제 때 대학 먹은 사람이라 일본 가서.)

105006 @ 음.(음.)

105006 #1 그 이덕구가, 게난 이제 셔시민 대통령헐 사람, 겐디 막 얼근 사람이야.(그 이덕구가, 그러니까 이제 있었으면 대통령할 사람, 그런데 막 얽은 사람이야.)

105006 @ 아아. 얼근.(아아. 얽은.)

105006 #1 게도 머리가 막, 가시어멍 친척 다 죽여 불엇어.(그래도 머리가 막, 장모, 친척 다 죽여 버렸어.)

105006 @ 게난 얼굴 봐낫수과?(그러니까 얼굴 봤었습니까?)

105006 #1 다 알지게. 이 동넨디 모르나?(다 알지. 이 동넨데 모르나?)

105006 @ 삼촌보다 우에지. 어쩨튼.(삼촌보다 위에지. 어쨌든.)

105006 #1 아이구 이제 살아시민 흔 백 술은, 백 술은 뒈실꺼라. 덕구가.(아이구 이제 살았으면 한 백 살은, 백 살은 됐을 꺼라. 덕구가.)

105006 @ 야학선생님은 안헷수과?(야학선생님은 안했습니까?)

105006 #1 야학은 조캐.(야학은 조카,)

105006 @ 야학선생.(야학선생.)

105006 #1 저 덕구는 그런 거 안 헤보고, 조캐, 성 아덜은 공부시켜도이, 덕구란 헌 사람은 공부시키는 거 안 봐봇어.(저 덕구는 그런 거 안 해 보고, 조카, 형 아들은 공부시켜도, 덕구라고 한 사람은 공부시키는 거 안 봐봤어.)

105006 @ 음.(음.)

105006 #1 그 순호옌 헌 성아덜은 시켜.(그 순호라고 한 형 아들은 시켜.)

1005006 @ 순호, 이순호?(순호, 이순호?)

105006 #1 이 순호, 그 덕구 성 아덜.(이 순호, 그 덕구 형 아들.)

105006 @ 음.(음.)

105006 #1 거 이순호, 그 사람은 우리 공부 ᄀᆞ르차 줘도 덕구는 아니 시켜. 봐 보도 못허고 그 사름.(거 이순호, 그 사람은 우리 공부 가르쳐 줘도 덕구는 아니 시켜. 봐 보

지도 못 하고 그 사람.)

1005006 @ 역사에 생생한 뭐다예.(역사에 생생한 뭐네요.)

105006 #1 음.(음.)

105006 @ 나중에 또 사삼얘기 들어갈 땐예. 이런 것들이 하나에 아무도 모릅니께. 이런 역사는.(나중에 또 사삼얘기 들어갈 땐요. 이런 것들이 하나에 아무도 모릅니다. 이런 역사는.)

105006 #1 모르지. 우리또래벳긔 몰라.(모르지. 우리또래밖에 몰라.)

105006 @ 게난 세상에.(그러니까 세상에.)

105006 #1 우리 죽어불민 몰라.(우리 죽어버리면 몰라.)

105006 @ 몰라 절대.(몰라 절대.)

105006 #1 우리는 다 알지. 우리가 막 헤나니까 여기 이덕구 세계니까 경찰은 꺼믄 개.(우리는 다 알지. 우리가 막 해나니까 여기 이덕구 세계니까 경찰은 검은 개.)

105006 @ 검은 개.(검은 개.)

105006 #1 군인은 노랑개, 그러면 저기 이제 댈 세와. 대옌 헌 거, 진진헌 대막대기 잇잖아. 그걸 세왕은에 눅지민 완전이 들어온 거. 이 마을에. 거 세운 땐 안심허곡, 영 봥 엇이민 들어왓덴 막 숨으레 뎅기잖아게. 이덕구 세계난 그냥 줴 잇던 엇던 그냥 막 심어간덴 허난.(군인은 노랑 개, 그러면 저기 이제 댈 세와. 대라고 한 거, 긴긴한 대막대기 있잖아. 그걸 세워서 눕히면 완전히 들어온 거, 이 마을에, 거 세운 땐 안심하고, 이렇게 봐서 없으면 들어왔다고 막 숨으러 다니잖아. 이덕구 세계니까 그냥 죄 있든 없든 그냥 막 잡아간다고 하니까.)

1005006 @ 세우면, 눅지면?(세우면, 눕히면?)

105006 #1 눅지면은 그 군인들 들어온 거고.(눕히면 그 군인들 들어온 거고.)

105006 @ 아아.(아아.)

105006 #1 세운 땐 안심헌 거고.(세운 땐 안심한 거고.)

105006 @ 아아.(아아.)

105006 #1 거난 들어오가믄 그냥 그디 세운 사람이 잇어. 들어와 가민 탁 눅져뒁 도망가 불어. 게민 대 못 봐불민 그냥 곱으레 돌아뎅기고. 아이고, 징그러운 세상, 나이 사삼ᄉᆞ건 돌아온덴 허민 다 죽어. 살젠 안허여. 너무너무 어이고, 철창 다 막곡이.(거니까 들어 오가면 그냥 거기 세운 사람이 있어. 들어와 가면 탁 눕혀두고 도망가 버렸어. 그러면 대 못 봐불민 그냥 숨으러 달아나고. 아이고, 징그러운 세상, 나이 사삼사건 돌아온다고 하면 다 죽어. 살려고 안 해. 너무너무 어이고, 철창 다 막고.)

105006 @ 경헤도 그 세월을 지내오난 애기도 이렇게 낳고 살아온 거 아니예?(그래도 그 세월을 지나오니까 아기도 이렇게 낳고 살아온 거 아니에요?)

105006 #1 나는 그것에 베랑 안든데 그것에 든 사람덜이 잇어. 우린 그런 디 안들어. 그것에 안 들어 봣어. 든 사람덜은 다 죽엇어. 다 죽이고 지고, 안든 사람은 살아도 든 사람은 다 죽엇쪄.(나는 그것에 별로 안 들었는데 그것에 든 사람들이 있어. 우린 그런 데 안 들어. 그것에 안 들어 봤어. 든 사람들은 다 죽었지.)

105006 @ 그니까.(그러니까.)

105006 #1 시대가 못뒈먹은 시대를 만나노니까게. 다 죽이고, 안 든 사람은 살아도 든 사람은 다 죽었어. 시대가 못돼 먹은 시대를 만나 놓으니까. 안 든 사람은 살아도 든 사람은 다 죽었어.)

105006 @ 게난마씨.(그러니까요.)

105006 #1 그때는 신도 엇어. 초신, 아방 이신 사람은 초신 신고, 우린 맨발에, 신도 어성 맨발에, 맨발에 주로 뎅겻지. 맨발에.(그때는 신도 없어. 집신, 아버지 있는 사람은 초신 신고, 우린 맨발에, 신도 없어서 맨발에, 맨발에 주로 다녔지. 맨발에.)

105006 @ 맨발에?(맨발에?)

105006 #1 맨발에 양발도 엇고, 이 사람보라! 맨발에 그냥 다녀 맨발에.(맨발에 양발도 엇고, 이 사람보라! 맨발에 그냥 다녀 맨발에.)

105006 @ 이 동네를?(이 동네를?)

105006 #1 이동네 다아, 우리 어린 때, 신 엇어.(이 동네 다, 우리 어린 때, 신 없어.)

105006 @ 초신은 게도?(짚신은 그래도?)

105006 #1 초신은 아방 잇인 사람 삼아 주니까 아방도 엇고 누게가 삼아줘(짚신은 아버지 있는 사람 삼아 주니까 아버지도 없고 누가 삼아 줘)

105006 @ 어린 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셧구나예.(어린 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군요.)

105006 #1 어 아니, 살긴 살아도 각시 얻엉 살아부니까, 우리 몰르지.(어 아니, 살긴 살아도 각시 얻어서 살아버리니까, 우리 모르지.)

105006 @ 아이구 시상에.(아이구 세상에.)

105006 #1 에이구, 우리 그런 시상, ᄉᆞ삼사건, 일제 때로부터 고생헌 사람이난이. 에이구, 진짜 진절머리가, 우리 이만이헌 낭칼이 그때 돈 오십전 줭 상이, 거 다 우리 거 배운 사람이여. 낭칼로. 야게 끈는 식, 머리 끈는 식, 다 우리 배왓잖아. 어이구 춤, 일제 때부터 배와서. 시다다끼옌 헌 건 이 불끄는 거, 우리 잘도 고생헷저. 일제 때부터 ᄉᆞ삼사건으로부터, 세상 이제 사람사 엿먹기주. 매날 굽으레 돌아뎅기멍, 심어가니까게, 더퍼놓고 심어간덴 허난 이덕구 세계는. 줴 잇던 엇던 막 심어간덴 허난. 조천은 가난이 해방이란게 해방, 신촌만, 신촌만.(에이구, 우리 그런 세상, 사삼사건, 일제 때로부터 고생한 사람이니까. 에이구, 진짜 진절머리, 우리 이만한 나무칼이 그때 돈 오십전 줘서 사서, 거 다 우리 거 배운 사람이야. 나무칼로, 목, 끊는 식, 머리 끊는 식, 다 우리 배웠잖아. 어이구 참, 일제 때부터 배웠어. '시다다끼'라고 한 건 이 불 끄는 거, 우리 잘도 고생했다. 일제 때부터 사삼사건으로부터, 세상 이제 사람덜이야 엿 먹기지. 매일 숨으러 달려 다니면서, 잡아가니까, 덮어놓고 잡아간다고 하니까 이덕구 세계는. 죄 있던 없던 막 잡아간다고 하니까, 조천은 가니까 해방이란게 해방, 신촌만, 신촌만.)

105006 @ 신촌만?(신촌만?)

105006 #1 조천은 아무충도 안허고.(조천은 아무렇지도 않고.)

105006 @ 하.(하.)

105006 #1 조천 요디 아니냐게. 이 이덕구 세계니까 경헌거야.(조천 요기 아니냐. 이 이덕구 세계니까 그렇게 한 거야.)

105006 @ 아이고 시상에.(아이구 세상에.)

105006 #1 얼마나 신촌 사람덜 얼먹은 줄 아냐. 가시어멍ᄁᆞ지 다 죽여불고, 친척이 십촌까지 다 죽여 불엇어. 이덕구네 권당덜 하나토 엇어. 다 심어당 죽여불언, 가시어멍ᄁᆞ지 다 심어당 죽여.(얼마나 신촌 사람들 얼먹은 줄 아니? 장모까지 다 죽여 버리고, 친척이 십촌까지 다 죽여 버렸어. 이덕구네 친척들 하나도 없어. 다 잡아다가 죽여 버렸어. 장모까지 다 잡아다가 죽여.)

105006 @ 아이고 세상에.(아이고 세상에.)

105006 #1 아이구, 그런 세상 살렌 허민이 다 죽어불주. 살 사람 엇어.(아이구, 그런 세상 살라고 하면 다 죽어버리지. 살 사람 없어.)

105006 @ 횃불을 이용헤서 해산물을 어떻게 잡습니까?(횃불을 이용해서 해산물을 어떻게 잡습니까?)

105006 #1 횃불?(횃불?)

105006 @ 아까 낙지허고 멜?(아까 낙지하고 멸치?)

105006 #1 멜 거릴 때 이거 들르민 멜이 잘 들어오지. 횃불을 들르민 낙지 심고.(멸치 잡을 때 이거 들면 멸치가 잘 들어오지. 횃불을 들면 낙지 잡고.)

105006 @ 낙지도 잡아봣수과?(낙지도 잡아봤습니까?)

105006 #1 심으레 뎅겻지. 횃불 이렇게 안 ᄀᆞᆯ앗나? 아까.(잡으러 다녔지. 횃불 이렇게 안 말했나? 아까.)

105006 @ 예.(예.)

105006 #1 초가집이 이만이 허민 걷어.(초가집이 이만큼 하면 걷어.)

105006 @ 그걸로 누구랑 갑니까? 동네친구들이랑, 아니면 아버지랑?(그걸로 누구랑 갑니까? 동네친구들이랑, 아니면 아버지랑?)

105006 #1 아니,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 아버지 각시 얻엉 살아부난 우리만 살아. 거민 나도 그거 낙지 심엉 풀아.(아니,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 아버지 각시 얻어서 살아버리니까 우리만 살아. 그러면 나도 그거 낙지 잡아서 팔아.)

105006 @ 누구랑 가? 친구들이영?(누구랑 가? 친구들이랑?)

105006 #1 아니, 이녁 혼자, 친구가민 왈탕왈탕 헤불민 낙지가 ᄃᆞᆯ아나니까 솔솔뎅겨야지. 사람 뎅겨난디 안 나와.(아니, 이녁 혼자, 친구가면 와글와글 해버리면 낙지가 달아나니까 살살 다녀야지. 사람 다녔던 데는 안 나와.)

105006 @ 여자 혼자 무섭지 안헤마씨?(여자 혼자 무섭지 않아요?)

105006 #1 무신 무서와. 돈 벌젠 허민, 밤에.(무신 무서와. 돈 벌려고 하면, 밤에.)

105006 @ 밤에 혼자?(밤에 혼자?)

105006 #1 혼자, 거 혼자 강 심으멍,(혼자, 거 혼자 가서 잡으면서.)

105006 @ 저 아가씨 때꽈? 아니믄 결혼한 때?(저 아가씨 때입니까? 아니면 결혼한

때?)

105006 #1 아가씨때 어린 때에.(아가씨 때 어린 때에.)

105006 @ 어린 때 멧 살부터 그렇게?(어린 때 몇 살부터 그렇게?)

105006 #1 거의 열다숫 센가? 열여숫 센가? 거 낙지 심어왕 풀아야 쏠 받앙 먹어.(거의 열다섯 센가? 열여섯 센가? 거 낙지 잡아와서 팔아야 쌀 받아서 먹어.)

105006 @ 게도 친구랑 같이 안 강 혼자가면 무섭지 않에마씨?(그래도 친구랑 같이 안 강 혼자가면 무섭지 않아요?)

105006 #1 친구가민 왈탕왈탕 헤연 심어 불카부덴 혼자만 듣지.(친구가면 아글와글 해서 잡아 버릴까봐 혼자만 달리지.)

105006 @ 아아, 대단허다예. 남자덜도 많이 가지 안헤마씨?(아아, 대단하네요. 남자들도 많이 가지 않아요?)

105006 #1 남자덜은 아니, 여자덜만.(남자들은 아니, 여자들만.)

105006 @ 횃불 들렁 남자가 안가고 여자덜만마씨?(횃불 들어서 남자가 안가고 여자들만요?)

105006 #1 아니, 횃불 이렇게 들르잖아. 허민이 조남뎅이 잇잖아.(아니, 횃불 이렇게 들르잖아. 하면 조대 있잖아.)

105006 @ 조?(조?)

105006 #1 조. 몰라?(조. 몰라?)

105006 @ 조 알아마씨.(조 알아요.)

105006 #1 조남뎅이.(조대.)

105006 @ 남뎅이.(대.)

105006 #1 남뎅이를 이렇게 줄라메가지고 그걸 아사강 꿰어. 조남뎅이 아져강 꿰어.(조대를 이렇게 잘라매가지고 그걸 가져가서 꿰어. 조대 가져가서 꿰어.)

105006 @ 조남뎅인 고고리 다 털어난 거?(조대 이삭 다 털고 난 거?)

105006 #1 어어, 털어난 거 뭐 쉐줄이 잇나? 뭐허나? 그거 아져강 그 조남뎅이로 꿰어.(어어, 털고 난 거 뭐 쇠줄이 있나? 뭐 하나? 그거 가져가서 그 조대로 꿰어.)

105006 @ 낙지를?(낙지를?)

105006 #1 응. 걸로 꿰어.(응. 걸로 꿰어.)

105006 @ 영 들이치민?(이렇게 넣으면?)

105006 #1 들이치나게? 낙지 심으민.(넣나? 낙지 잡으면.)

105006 @ 아아.(아아.)

105006 #1 조남뎅이를 가져갓다가 영 꿰영.(조대를 가져갔다가 이렇게 꿰여서.)

105006 @ 아아.(아아.)

105006 #1 영 들렁뎅긴덴 허난.(이렇게 들어서 다닌다고 하니까.)

105006 @ 아아.(아아.)

105006 #1 낙지 또 심어지민 또 꿰곡(낙지 또 잡아지면 또 꿰고.)

105006 @ 아아, 그믄 입, 입이 아니고 눈 잇는 쪽으로 영 뚤러지는 델로?(아아, 그

러면 입, 입이 아니고 눈 있는 쪽으로 이렇게 뚫어지는 델로?)

105006 #1 아니, 상퉁이로.(아니, 상투로)

105006 @ 상퉁이로.(상투로.)

105006 #1 머리, 요만헌 상퉁이로 꿰어.(머리, 요만한 상투로 꿰어.)

105006 @ 아아.(아아.)

105006 #1 에고, 우리 안 헤본 것이 엇어. 에고 츰.(에고, 우리 안 해 본 것이 없어. 에고 참.)

105006 @ 그 보리탈 꿰듯이 꿰영은에?(그 가시딸기 꿰듯이 꿰여서?)

105006 #1 꿰영이, 그거 꿰영이 그땐 시에ᄀᆞ라 성안이옌 ᄀᆞᆯ아. 성안 강 풀아.(꿰여서, 그거 꿰여서 그땐 시에 보고 성안이라고 말해. 성안 가서 팔아.)

105006 @ 아아. 성안이민 어디 오일장?(아아. 성안이면 어디 오일장?)

105006 #1 아니, 성안허민 제주시에 거, 사는 디가 잇어.(아니, 성안하면 제주시에 거, 사는 데가 있어.)

105006 @ 사는 디가.(사는 데가.)

105006 #1 그디 강.(거기 가서.)

105006 @ 걸엉 강?(걸어서 가서?)

105006 #1 그땐 걸어가야 허여. 차가 엇이니까.(그땐 걸어가야 허여. 차가 없으니까.)

105006 @ 혼자?(혼자?)

105006 #1 혼자 걸어가지 누가 걸엉 가냐.(혼자 걸어가지. 누가 걸어서 가냐.)

105006 @ 그때가 열 멧솔때예?(그때가 열 몇 살 때요?)

105006 #1 열 일곱땐가? 겐디 우린 안헌디 우리 이모님이 풀레 잘 덴겨. 심어오민, 나는 안 덴겨. 우리 이모님이 강 잘 풀아와. 나는 어려노니까 우리이모님이 강 풀아오주.(열일곱 땐가? 그런데 우린 안 했는데 우리 이모님이 팔러 잘 다녀. 심어오민, 나는 안 다녀. 우리 이모님이 가서 잘 팔아와. 나는 어리니까 우리이모님이 가서 팔아오지.)

105006 @ 이모님은 지금 돌아가셧지예?(이모님은 지금 돌아가셨지요?)

105006 #1 돌아갓지. 이제 살아시민 백 멧.(돌아갔지. 이제 살았으면 백 몇.)

105006 @ 그 이모님이 물질을 잘 하셧구나예.(그 이모님이 물질을 잘 하셨군요.)

105006 #1 물질 상군이야, 상군, 회장.(물질 상군이야, 상군, 회장.)

105006 @ 이름은 어떵 뒘수과?(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105006 #1 한 장만이옌헌 어른인디.(한 장만이라고 한 어른인데.)

105006 @ 한 장만?(한 장만?)

105006 #1 음. 해녀 회장이라 나서. 물질도 잘허고 해녀 회장만 허단에 돌아가셧어.(음. 해녀 회장이라 나서. 물질도 잘하고 해녀 회장만 하다가 돌아가셨어.)

105006 @ 그거 삼촌이 물려받앗구나.(그거 삼촌이 물려받았구나.)

105006 #1 나? 음, 물려받앗젠도 헐 수가 잇지. 짚은 딘 우리 이모님이 잘 들어가니까, 짚은 딘 아무나 못 들어가. 우리 저디 닷줄이 십이미터 보통 더 들어간덴 허난. 그렇게 숨질어낫덴 말이여. 이제도 잇어. 닷줄.(나? 음, 물려받았다고도 헐 수가 있지. 깊

은 덴 우리 이모님이 잘 들어가니까, 깊은 덴 아무나 못 들어가. 우리 저기 닻줄이 십이 미터 보통 더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렇게 숨 길었었다고 말이야. 이제도 있어. 닻줄.)

105006 @ 횃불을 이용헤서 해산물을 어떻게 잡습니까?(횃불을 이용해서 해산물을 어떻게 잡습니까?)

105006 #2 횃불은 문어나 낙지. 바다에서 나는 건 다잡지 뭐.(횃불은 문어나 낙지. 바다에서 나는 건 다잡지 뭐.)

105006 @ 밤에 그런 거 헤봐수과?(밤에 그런 거 해봤습니까?)

105006 #2 아, 난 흔번 헤봣는데 문어 많이 잡아봣어.(아, 난 한번 해봤는데 문어 많이 잡아봤어.)

105006 @ 어느 쪽이 경 합디가?(어느 쪽이 그렇게 합디까?)

105006 #2 옛날엔 이제ᄀᆞ치 전기도 엇고, 뭣도 없으니까 그 저 그신새 이서. 횃불 싸가지고 가는 디 아 거 뭐 문어가 바글바글 이야. 그래서 들어강 잡지 못허고 흔다라 잡아완. 아침에 촐을 허러 가자면 아침 흔 세시쯤에 일어나서 이제 밥을 먹고 간디, 일어나 보니까 물이 바짝 쌋길래 그 홰 이만헌거 흔 두어 개 가지고 갓어. 가보니까 바로 요 밑에다 그냥 문어가 어떻게 많은지 하하. 한번 경 헹 잡아봣어.(옛날엔 이제같이 전기도 없고, 뭣도 없으니까 그 저 썩은새 있어. 횃불 싸가지고 가는 데 아 거 뭐 문어가 바글바글 이야. 그래서 들어가서 잡지 못하고 한 다라 잡아 완. 아침에 꼴을 하러 가자면 아침 한 세시쯤에 일어나서 이제 밥을 먹고 간데, 일어나 보니까 물이 바짝 썰물이어서 그 홰 이만한 거 한 두어 개 가지고 갔어. 가보니까 바로 요 밑에다 그냥 문어가 어떻게 많은지 하하. 한번 그렇게 해서 잡아봤어.)

105006 @ 그게 몃 살 때꽈?(그게 몇 살 때입니까?)

105006 #2 그때가 흔 ᄉᆞ십 세 뒌 때라.(그때가 한 사십 세 된 때라.)

105006 @ 어릴 땐 안 헤보고마씸?(어릴 땐 안 해보고요?)

105006 #2 어린 땐 못 헷고. 아 바다에 갓다 하나씩 잡긴 허지. 문어.(어린 땐 못 했고. 아 바다에 갔다 하나씩 잡긴 하지. 문어.)

105006 @ 난 훼 들렁 가는 건, 낙지만 잇는 중 알앗주게.(난 홰 들러서 가는 건, 낙지만 있는 중 알았지.)

105006 #2 문어도 가을 뒈민 올라왕 흔 팔월 고비쯤은 막 올라온 땐 바글바글 해여.(문어도 가을 되면 올라와서 한 팔월 고비쯤은 막 올라온 땐 바글바글 여.)

105007 @ '원'(원담)에 들어온 고기는 어떻게 잡습니까? 신촌에도 원담 잇수과?'원'에 들어온 고기는 어떻게 잡습니까? 신촌에도 '원담' 있습니까?)

105007 #1 원담 잇지. 여기.('원담' 있지. 여기.)

105007 @ 멧 개 이섯수과?(몇 개 있었습니까?)

105007 #1 응. 저 큰물에 섯동네도 잇고이. 중동에도 잇고, 동동네도 잇어. 멜 거리는 거 원담, 섯동네도 잇고.(응. 저 큰물에 서 동네도 있고. 중동에도 있고, 동 동네도 있어. 멸치 잡는 거 원담, 서 동네도 있고.)

105007 @ 멜 그리는 거예? 세 개?(멸치 뜨는 거요? 세 개?)

105007 #1 세 개지. 이디 동동에 ᄒᆞ나, 중동에 하나, 섯동에 하나, 게난 이녁 동마다 멜 걸이지.(세 개지. 여기 동동에 하나, 중동에 하나, 섯동에 하나, 그러니까 이녁 동마다 멸치 뜨지.)

105007 @ 아아.(아아.)

105007 #1 다른 동네 오노렌 허민 벌써 다 거려 불어. 가까운디 사람 다 걸여 불어.(다른 동네 오노라고 하면 벌써 다 떠 버려. 가까운데 사람 다 떠 버려.)

105007 @ 거려 불어.(떠 버려.)

105007 #1 오노렌 허민 다 거려 불어.(오노라고 하면 다 떠 버려.)

105007 @ 그것도 누가 염치엇인 사람이 먼저 다 거려불민 욕 들지예?(그것도 누가 염치없는 사람이 먼저 다 떠버리면 욕 들지요?)

105007 #1 욕은 없어. 먼여 강 거리는 게 임제지.(욕은 없어. 먼저 가서 뜨는 게 임자지.)

105007 @ 아아, 새벽부터?(아아, 새벽부터?)

105007 #1 즘 안자야. 멜 거리젠 허민.(잠 안자야. 멸치 잡으려면.)

105007 @ 밤에 강 서끄는 사람이 잇겟네?(밤에 가서 어지르는 사람이 있겠네?)

105007 #1 밤에 강 걸이지. 무신 소리 나민, 다 왕 걸여불카부덴 걸 술쩨기 걸여.(밤에 가서 뜨지. 무슨 소리 나면, 다 와서 쩌 버릴까봐 살짝 떠.)

105007 @ 그런 거는 게도 일리가 잇다예?(그런 거는 그래도 일리가 있네요?)

105007 #1 그믄 원담도 다운 사람이 질 대장이지. 안다운 사람은이 너 원담 다왓나? 아이고 츰.(그러면 '원담'도 다운 사람이 제일 대장이지. 안다운 사람은 너 원담 쌓았나? 아이고 참.)

105007 @ 경허믄 싸울 수도 잇겟다예.(그러면 싸울 수도 있겠네요.)

105007 #1 싸울 수도 잇지.(싸울 수도 있지.)

105007 @ 답지도 안헌 놈이 제일 먼저 강 다.(답지도 안한 놈이 제일 먼저 가서 다.)

105007 #1 사람이 장소 놩 싸와. 건디 저 웃동네 사람이 너 원담이나 다왕 이디 왕 헴나? 끽 소리 못 허지. 다운 사람이 잇는디.(사람이 장소 놔서 싸와. 그런데 저 윗동네 사람이 너 '원담'이나 쌓아서 여기 와서 하나? 끽 소리 못하지. 다운 사람이 있는데.)

105007 @ 그믄 원담 안 다운 사람은 안가?(그러면 '원담' 안 쌓은 사람은 안가?)

105007 #1 아니, 가.(아니, 가.)

105007 @ 가긴 가도?(가긴 가도?)

105007 #1 가는디. 멜이 장소를 잇어.(가는데. 멸치가 장소가 있어.)

105007 @ 큰 거는 하영.(큰 거는 많이.)

105007 #1 큰 거는 하영.(큰 거는 많이.)

105007 @ 여자덜도?(여자들도?)

105007 #1 여자덜이 잘 걸여.(여자들이 잘 떠.)

105007 @ 원담, 갯담에 들어온 고기는 어떵 헹 잡습니까?('원담', '갯담'에 들어온 고

기는 어떻게 해서 잡습니까?)

105007 #2 작살로.(작살로.)

105007 @ 원이 이섯수과? 신촌도?(원이 있었습니까? 신촌도?)

105007 #2 아 원 많에.(아 원 많아.)

105007 @ 그거는 누가 원담도 쌓고.(그거는 누가 '원담'도 쌓고.)

105007 #2 아. 동네에서 다 출역해서 다 허는데 멜이 많이 원안에 들어오민 거리고 큰 고기 들어와도 가서 잡고.(아. 동네에서 다 출역해서 다 하는데 멸치가 많이 원안에 들어오면 뜨고 큰 고기 들어와도 가서 잡고.)

105007 @ 그 원은 멧 개 잇엇수과?(그 '원'은 몇 개 있었습니까?)

105007 #2 하나 두 개. 한 서너 개 잇엇지.(하나 두 개. 한 서너 개 있었지.)

105007 @ 애기덜은 못 들어가지예. 어른들이 관리허여?(애기들은 못 들어가지요. 어른들이 관리해?)

105007 #2 아, 아기덜토 들어가고 어른도 가고.(아, 아기들도 들어가고 어른도 가고.)

105007 @ 새벽부터 거기강 꺼내와도 뒈어마씨?(새벽부터 거기 가서 꺼내와도 되요?)

105007 #2 아, 멜이 들어야지. 금년 ᄀᆞ뜨민 멜 흔번 구경을 못허네. 거 많이 들 때는 여기서도 그냥 많이 거렷어. 흔차씩 거렷어.(아, 멸치가 들어야지. 금년 같으면 멸치 한번 구경을 못하네. 거 많이 들 때는 여기서도 그냥 많이 떴어. 한차씩 떴어.)

105007 @ 함덕도 많이 거렷덴 헙디다만은.(함덕도 많이 떴다고 합디다만.)

105007 #2 함덕 멜 최고 나는 디라. 모래판에. 그물 쳐야. 거기는 원이 없고, 그물 쳐가지고.(함덕 멸치 최고 나는 데라. 모래판에. 그물 쳐야. 거기는 원이 없고, 그물 쳐가지고.)

105007 @ 원담에 들어온 고기는 어떻게 잡습니까?('원담'에 들어온 고기는 어떻게 잡습니까?)

105007 #2 작살로 소살로 헹 잡아야지.(작살로 소살로 해서 잡아야지.)

105007 @ 원담에 들어온 고기는 누가 임자꽈? 젤 먼처 간 사람?('원담'에 들어온 고기는 누가 임자입니까? 제일 먼저 간 사람?)

105007 #2 젤 ᄆᆞ녀 간 사람이 임자야.(제일 먼저 간 사람이 임자야.)

105007 @ 그믄 몃 시부터 거기 갑니까?(그러면 몇 시부터 거기 갑니까?)

105007 #2 물 싼 ᄀᆞ리에 가봐야 알지. 이제 들어오는 고기도 엇고.(물 썬 기회에 가봐야 알지. 이제 들어오는 고기도 없고.)

105007 @ 원담은 일찍 강 헤가불믄 쌉고 이런 건 어섯수과?('원담'은 일찍 가서 해가버리면 쌓고 이런 건 없었습니까?)

105007 #2 옛날 어른덜이 다 헤여놓은 거니까 이젠 해녀덜이 관리헤노니까 원담이 다 허물어지고 뭐 이젠 고기도 안 들어오고, 금년은 멜 한번 구경을 못 헷네.(옛날 어른들이 다 해놓은 거니까 이젠 해녀들이 관리해버리니까 '원담'이 다 허물어지고 뭐 이젠 고기도 안 들어오고, 금년은 멸치 한번 구경을 못 했네.)

105008 @ 원에 보수는 남자들이 하는 거지예?('원'에 보수는 남자들이 하는 거지요?)

105008 #1 뭐? 원담 다우는 건 남자덜. 여즈들은이 존돌 훅훅 네끼고 남자덜은 이만씩헌 돌. 어이구 그믄 멜 거릴 땐 탕 돌 데끼민 거 누구냐? 허민 원담 다운 사람덜이 용심내고, 원담 흐나 답지도 안허고 만딱 돌 데끼고.(뭐? '원담' 쌓는 건 남자들. 여자들은 잔돌 훅훅 던지고 남자들은 이만큼한 돌, 어이구 그러면 멸치 뜰 땐 타서 돌 던지면 거 누구냐? 하면. '원담' 쌓은 사람들이 용심내고, '원담' 하나 쌓지도 안하고 모두 돌 던지고.)

105008 @ 원담 잘 답는 사람이 잇수게?('원담' 잘 쌓는 사람이 있지요?)

105008 #1 거 고기에 봥, 이젠 어서도 옛날엔 오월 장마뒈민 이만썩헌 멩마구리가 들어. 게민 그 원 다운 사람이 그건 헤 아사.(거 고기에 봐서, 이젠 없어도 옛날엔 5월 장마되면 이만큼씩한 '맹마구리'가 들어. 그러면 그 원 쌓은 사람이 그건 해 가져.)

105008 @ 멩 멩?(맹 맹?)

105008 #1 멩마구리.('맹마구리.')

105008 @ 멩마구리?('맹마구리?')

105008 #1 큰 오징어 닮은 거 잇잖아. 막 두꺼운 거.(큰 오징어 닮은 거 잇잖아. 막 두꺼운 거.)

105008 @ 아아, 오징어 들어왕 원담에?(아, 오징어 들어와서 '원담'에?)

105008 #1 오징어가 아니고 멩마구리옌 허메.(오징어가 아니고 갑오징어라고 해.)

105008 @ 멩마구리예?(갑오징어?)

105008 #1 오징에 닮은 거라도, 막 고기가 두꺼와. 그게.(오징어 닮은 거라도, 막 고기가 두꺼워. 그게.)

105008 @ 으응.(으응.) 그게 맛좋덴 헙니다게.(그게 맛좋다고 합니다.)

105008 #1 응. 맛좋아.(맛좋아.)

105008 @ 젓갈도 허고예.(적도 하고요.)

105008 #1 거 이제 멩마구리 못 봐. 옛날엔 장마 져가민 막 원에 들어오는디.(거 이제 갑오징어 못 봐. 옛날엔 장마 되어 가면 막 원에 들어오는데.)

105008 @ 태풍이라도 치믄 보수헤야키여예.(태풍이라도 치면 보수해야겠네요.)

105008 #2 이년에 한번 동네에서 나가서 주로 다 보수허지.(이년에 한번 동네에서 나가서 주로 다 보수하지.)

105008 @ 멧 월달에 주로 헙니까?(몇 월에 주로 합니까?)

105008 #2 봄에 허지. 지금은 나라에서 보조 헤줨서. 아, 동에서 나강덜 다 헷는디 이제는 안 헹 내 불어.(봄에 하지. 지금은 나라에서 보조 해줘. 아, 동에서 나가서들 다 했는데 이제는 안 해서 내버려.)

105009 @ 멸치는 어떻게 잡습니까?(멸치는 어떻게 잡습니까?)

105009 #1 멜이. 장소를 잇어. 멜 코가 잘 들어오는 코, 그거 놩 이 그물 우이 또 그물을 놔 가민 싸우는 거지.(멸치가. 장소를 있어. 멸치 코가 잘 들어오는 코, 그거 놔서

이 그물 위에 또 그물을 놔 가면 싸우는 거지.)

105009 @ 아아.(아아.)

105009 #1 에이구, 멜 거리레 강 막 싸와. 물 지쳐 불어도 싸우고, 잘 싸와. 멜 거리레 강.(에이구, 멸치 잡으러 가서 막 싸워. 물 지쳐버려도 싸우고, 잘 싸워. 멸치 잡으러 가서.)

105009 @ 아. 남자덜끼리예?(아. 남자들끼리요?)

105009 #1 남자덜은 아닌디 에펜덜이 싸와. 막 싸와.(남자들은 아닌데 여자들이 싸워. 막 싸워.)

105009 @ 차롱착 들렁 갑니까?(채롱 들고 갑니까?)

105009 #1 아니야. 멜 그물 우리 집이 이서. 거리는 거.(아니야. 멸치 그물 우리 집에 있어. 걸이는 거.)

105009 @ 족바지 닮은 거.(뜰채 닮은 거.)

105009 #1 큰 거 잇어. 큰 거는 하영 걸여. 우리 집 저디 셔.(멸치 그물 우리 집이 있어. 걸이는 거 큰 거 있어. 큰 거는 많이 떠. 우리 집 저기 있어.)

105009 @ 여자덜도?(여자들도?)

105009 #1 여자덜이 잘 걸이지.(여자들이 잘 뜨지.)

105009 @ 아이고 세상에.(아이고 세상에.)

105009 #1 춤말로 우리.(참말로 우리.)

105009 @ 신촌도 멜치가, 멜이 잘 들엇수과?(신촌도 멸치가, 멸치가 잘 들었습니까?)

105009 #1 요샌 원 안 들엄신게. 멜 들게 뒈민 잘들어.(요샌 원 안 드네. 멸치 들게 되면 잘 들어.)

105009 @ 옛날엔.(옛날엔.)

105009 #1 이 멜 거리는 배 잇잔아. 그것덜 덕분에 이디 들어오지 안헨.(이 멸치 뜨는 배 있잖아. 그것들 덕분에 여기 들어오지 않았어.)

105009 @ 옛날에는 저 서우봉?(옛날에는 저 '서우봉'?)

105009 #1 응. 서모봉.(응. '서모봉'.)

105009 @ 서모봉이 엄청 많이 들엇덴헨게? 서우봉이 아니고 서모봉이꽈?('서모봉'이 엄청 많이 들었다고 하던데? '서우봉'이 아니고 '서모봉'입니까?)

105009 #1 서모봉, 봉.(서우봉, 봉.)

105009 @ 서모봉이우꽈? 서우봉이꽈?(서우봉에 엄청 많이 들었다고 했는데? 서우봉입니까? '서모봉'입니까?)

105009 #1 서봉.('서봉'.)

105009 @ 서봉. 그냥.('서봉'. 그냥.)

105009 #1 응. 서봉. 거기 사삼사건에 막 사람 많이 죽엇어.(응. '서봉'. 거기 사삼사건에 막 사람 많이 죽었어.)

105009 @ 서우봉이 아니고 서모?(서우봉이 아니고 서모?)

105009 #1 서봉이옌 허메.(‘서봉’이라고 해.)
105009 @ 서모봉.(‘서모봉’.)
105009 #1 함덕 서모봉.(함덕 서우봉.)
105009 @ 서모봉.(서우봉.)
105009 #1 응.(응.)
105009 @ 서모?(서모?)
105009 #1 서봉.(‘서봉’.)
105009 @ 서봉? 그냥.(‘서봉’? 그냥.)
105009 #1 함덕 서모봉. 함덕에 들엇잖아. 거 함덕 서모봉, 우리 옛날에 노래허잖아. 함덕 서모봉에 해가 뜨고요. 조천 사립 흑교 운동 잘한다. 서산에 지는 해는 서더레 가고. 우리 막 그런 노래 잘 허여.(함덕에 들었잖아. 함덕 ‘서모봉’, 우리 옛날에 노래하잖아. 거 함덕 ‘서모봉’에 해가 뜨고요. 조천 사립학교 운동 잘한다. 서산에 지는 해는 서쪽에 가고. 우리 막 그런 노래 잘해.)
105009 @ 흔번 더 불러봅서! 끗끄지.(한번 더 불러보세요! 끝까지.)
105009 #1 이거 헐어부난 못허여.(이거 헐어버리니까 못해.)
105009 @ 좋수다. 다 들리멘. 야. 잘도 똑똑허다예.(좋습니다. 다 들려. 야. 똑똑하네요.)
105009 #1 에고, 에고.(에고, 에고,)
105009 @ 그게 창가거든, 그 노래도 정말 중요헤여마씨.(그게 창가거든, 그 노래도 정말 중요해요.)
105009 #1 그거 우리 어릴 때 흑생 때 베와나서.(그거 우리 어릴 때 학생 때 배웠었어.)
105009 @ 그난 학교 때 베웟던 거.(그러니까 학교 때 베웠던 거.)
105009 #1 함덕 서모봉에 해가 뜨고요. 조천, 조천 초등흑교 잇잔아.(함덕 서모봉에 해가 뜨고요. 조천, 조천 초등학교 있잖아.)
105009 @ 예.(예.)
105009 #1 조천 사립흑교 운동 잘하네. 서산에 지는 해는 어데로 가나? 물속에 들어가서 또 돌아온다.(조천 사립학교 운동 잘하네. 서산에 지는 해는 어디로 가나? 물속에 들어가서 또 돌아온다.)
105009 @ 아하.(아하.)
105009 #1 우리 거 막 헤여 노래로. 아이구, 춤 하하하.(우리 거 막 해여 노래로. 아이구, 참 하하하.)
105009 @ 서산에 지는 해는.(서산에 지는 해는.)
105009 #1 지고 싶어 가고.(지고 싶어 가고.)
105009 @ 어디로 가나?(어디로 가나?)
105009 #1 지엉 어디로 가나?(져서 어디로 가나?)
105009 @ 물로 들어간다. 어디로 가나?(물로 들어간다. 어디로 가나?)

105009 #1 음.(음.)

105009 @ 물속으로.(물속으로.)

105009 #1 서산에 지는 해는 물 속으로 들어가고.(서산에 지는 해는 물속으로 들어가고.)

105009 @ 어디로 가나?(어디로 가나?)

105009 #1 응. 함덕 서모봉에는 해가 뜨고.(응. 함덕 '서모봉'에는 해가 뜨고.)

105009 @ 물 속으로 들어갓다.(물속으로 들어갔다.)

105009 #1 들어가지. 우리 보건 데는 바로 바당 속으로 들어간덴 허난.(들어가지. 우리 보기에는 바로 바다 속으로 들어간다고 하니까.)

105009 @ 어디로 가나? 물속으로 들어갓다 나온다?(어디로 가나? 물속으로 들어갔다 나온다?)

105009 #1 어?(어?)

105009 @ 물속으로 들어갓다 나온다? 서산에 지는 해는 어디로 가나?(물속으로 들어갔다 나온다? 서산에 지는 해는 어디로 가나?)

105009 #1 조천 '서모봉'에 해가 뜨고요. 우린 노래로 허지.(조천 서우봉에 해가 뜨고요. 우린 노래로 하지.)

105009 @ 함덕 서모봉에.(함덕 서우봉에.)

105009 #1 음.(음.)

105009 @ 해가 뜨고요.(해가 뜨고요.)

105009 #1 서산에 지는 해는 바다로 가고 우리 거 어릴 때 분쉬똑다가리 몰르게 노래 헌거라. 이제 왕 보니까 것도 맞아 베어.(우리 거 어릴 때 분수 '똑다가리' 모르게 노래 한 거라. 이제 와서 보니까 그것도 맞아 보여.)

105009 @ 예.(예.)

105009 #1 서산에 지는 해는 어디로 가나? 물속으로 들어갓다 나온다?(서산에 지는 해는 어디로 가나? 물속으로 들어갔다 나온다?)

105009 @ 음. 바로 우리 보건데는 물속으로 들어가.(음. 바로 우리 보기에는 물속으로 들어가.)

105009 @ 아니 노래로 흔번 헤봅서.(아니 노래로 한번 해 보세요.)

105009 #1 함덕 서모봉에 해가 뜨고요. 서쪽 서산에는 해가 바당으로 들어가. 바다 바로 들어가는 거 닮아. 우리 그거 막 노래허여.(함덕 서우봉에 해가 뜨고요. 서쪽 서산에는 해가 바다로 들어가. 바다 바로 들어가는 거 같아. 우리 그거 막 노래해.)

105009 @ 물속으로 들어갓다 나온다.(물속으로 들어갔다 나온다.)

105009 #1 물속으로 들어가고. 또 돌아와서 동으로 또 턴덴 말이라. 우리 보건데는 물속으로 들어가. 해가. 거 지구가 빙빙 도니까.(물속으로 들어가고. 또 돌아와서 동으로 또 뜬다는 말이라. 우리 보기는 물속으로 들어가. 해가. 거 지구가 빙빙 도니까.)

105009 @ 음. 그믄 멜도 삼촌 어렷을 때도 잡아?(음. 그러면 멸치도 삼촌 어렸을 때도 잘 잡았어요?)

105009 #1 응. 멜 잘 걸여.(응. 멸치 잘 잡았어.)

105009 @ 차롱착 들렁 애기 때는?(바구니 들어서 애기 때는?)

105009 #1 아니, 아니. 차롱착이 아니, 완전이 큰 구덕에다가 차고, 막 따울리고, 멜은이 사람 하야 많이 걸여. 막 먼 디 거라도 막 몰아다 놔. 사람 하나두개는 안 들어. 멜이 노래야 들어오지. 막 와닥탁 와닥탁.(아니, 아니. 바구니 아니, 완전히 큰 구덕에다가 채우고, 막 쫓고, 멸치는 사람 많아야 많이 떠. 막 먼데 거라도 막 몰아다 놔. 사람 하나두 개는 안 들어. 멸치가 놀라야 들어오지. 막 '와닥탁 와닥탁'.)

105009 @ 와닥탁 놀레야.('와닥탁' 놀라야.)

105009 #1 허니까 사름이 많헤야 멜도 잘 들어. 사람 하나는 얼마. 밤에는 거리지마는 붉은 때는 멜이 옥아가지고 안 들어. 밤에는 거려. 밤에는.(그러니까 사람이 많아야 멸치도 잘 들어. 사람 하나는 얼마. 밤에는 뜨지만 밝은 때는 멸치가 커가지고 안 들어. 밤에는 떠. 밤에는.)

105009 @ 밤에.(밤에.)

105009 #1 아이구, 아이구.(아이구, 아이구.)

105009 @ 멜치는 어떻게 잡습니까?(멸치는 어떻게 잡습니까?)

105009 #2 그물로게.(그물로.)

105009 @ 작은 그물?(작은 그물?)

105009 #2 영헌 그물 아져강 영 거리지.(이런 그물 가져가서 이렇게 뜨지.)

105009 @ 헤봐수과?(해봤습니까?)

105009 #2 많이 헷어. 집이 그물 잇어.(많이 했어. 집이 그물 있어.)

105009 @ 멜 거려당 뭐 헤먹어마씨? 국 끌여?(멸치 떠다가 뭐 해먹어요? 국 끓여?)

105009 #2 몰랏다가 반찬도 허고, 젓도 담고.(말렸다가 반찬도 하고, 젓도 담고.)

105009 @ 쌩으로 몰려마씨? 솖앙 말려?(생으로 말려요? 삶아서 말려?)

105009 #2 뭐 솖으면 이루꾸 뒈고, 거니까 잘 허면 이루꾸도 헤서 먹고, 멜젓도 담그고, 멜은.(뭐 삶으면 멸치 되고, 거니까 잘 하면 멸치도 해서 먹고, 멸치젓도 담그고, 멸치는.)

105009 @ 국도 끌영 먹고.(국도 끓여서 먹고.)

105009 #2 사람마다 다르지 뭐.(사람마다 다르지 뭐.)

105010 @ 고기는 어떻게 해서 낚습니까? 늬껍은 어디서.(고기는 어떻게 해서 낚습니까? 미끼는 어디서.)

105010 #2 옛날에는 갯지렁이 팡, 허곡 헤신디 지금은 새우를 많이 써.(옛날에는 갯지렁이 파서, 하고 했는데 지금은 새우를 많이 써.)

105010 #2 고기는 낚시에 미끼 꿰영 두면 뭐, 나끄지 뭐.(고기는 낚시에 미끼 꿰여서 두면 뭐, 낚지 뭐.)

105010 @ 미끼는 사당? 지렁이 늬껍?(미끼는 사다가? 지렁이 미끼?)

105010 #2 난 저기 사위 사다 논 거 잇어.(난 저기 새우 사다 논 거 있어.)

105011 음, 낚싯대, 낚싯줄, 낚시, 봉돌 등은 어떻게 구합니까? 옛날에.(음. 낚싯대,

낚싯줄, 낚시, 봉돌 등은 어떻게 구합니까? 옛날에.)

105011 #2 옛날엔 다 만들어 썻지만은 이젠 저 이 낚시점들이 잇으니까 다 낚시고 봉돌이고 뭐이고 다 ᄑᆞ는게 잇으니까 지금은 쉬와.(옛날엔 다 만들어 썼지만 이젠 저 이 낚시점들이 잇으니까 다 낚시고 봉돌이고 뭐이고 다 파는 게 있으니까 지금은 쉬워.)

105011 @ 옛날은?(옛날은?)

105011 #2 옛날은 낚싯댄 대 끈어다 만들고, 낚시는 쒜 헤가지고 만들어서 낚시도 만들어서 썻지 뭐.(옛날엔 다 지대로 만들었지 뭐. 낚싯댄 대 끊어다 만들고, 낚시는 쇠 해가지고 만들어서 낚시도 만들어서 썼지 뭐.)

105011 @ 뽕똘 등은?(봉돌 등은?)

105011 #2 뽕똘은 무슨 연철 헤다가 그거 뽕똘 멘들어서 쓰고.(봉돌은 무슨 연철 해다가 그거 봉돌 만들어서 쓰고.)

105012 @ 궤기는? 남자덜 이렇게 낚시허는 건 안 헤봣지예?(고기는? 남자들 이렇게 낚시하는 건 안 해봤지요?)

105012 #1 안 헤보고.(안 해보고.)

105012 @ 건 할아버지덜이 잘 알고. 낚싯대, 낚싯줄, 이런 거. 뽕돌 이런 것도 남자덜이 다 아는 거잖아예?(건 할아버지들이 잘 알고. 낚싯대, 낚싯줄, 이런 거. 뽕돌 이런 것도 남자들이 다 아는 거잖아요?)

105012 #1 뽕돌?(봉돌?)

105012 @ 뽕돌이나 이런 거.(봉돌이나 이런 거.)

105012 #1 고기?(고기?)

105012 @ 예.(예.)

105012 #1 건 남자덜이 허주. 여잔 안 허여.(건 남자들이 허주. 여잔 안 해.)

105012 @ 작살로 고기를 어떻게 잡습니까? 삼촌, 헤보긴 헤도 잘 안 헤 봣고예?(작살로 고기를 어떻게 잡습니까? 삼촌, 해보긴 해도 잘 안 해 봤구요?)

105012 #1 ᄒᆞᆫ디 장역[110] 을 못 허난 아시단 데껴 불언.(같이 조준을 못 하니까 가져다가 던져버렸어.)

105012 @ 장역을 못 허난예.(조준을 못 하니까요.)

105012 #1 못ᄒᆞ더라. 안뒈연. 안뒈연. 게난 그거 허믄이 물 이 물질 험도 궂어. 어음에께엔 허믄 징갈징갈.(못하더라. 안되어서. 안되어서. 그러니까 그거 하면 물 이 물질하기도 궂어. '어음에께'엔 하면 징글징글.)

105012 #1 ᄒᆞᆫ번 쏩지도 못허고 허는 거.(한번 쏘지도 못하고 하는 거.)

105012 @ 갖고 다니는 것도 거치장스럽고예?(갖고 다니는 것도 거추장스럽고예?)

105012 #1 그 망아리에 ᄃᆞᆯ아메민이 어떤 땐 옷에도 걸려 불고.(그 '망사리'에 달아매면 어떤 땐 옷에도 걸려 버리고.)

105012 @ 걸려불고.(걸려 버리고.)

105012 #1 궂더라고. 겐.(궂더라고. 그래서.)

110) '장역허다'는 장전하다, 장약하다에서 온 말이지만 여기서는 조준하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105012 @ 위험허주게.(위험하지.)

105012 #1 그게 고기를 쏘아졈시믄헤도 허지도 못허난 클렁 데껴불언.(함께 조준을 못하니까. 못하더라. 싸우지도 못하고 '망사리'에 끌러서 던져버렸어.)

그렇구나. 하하하하.(그렇구나. 하하하하.)

105012 #1 것도 젱역을 잘헤사주.(조준을 잘해야지.)

105012 @ 고기는 어떻게 헤서 낚습니까?(고기는 어떻게 헤서 낚습니까?)

105012 #1 고기?(고기?)

105012 @ 예. 물고기?(예. 물고기?)

105012 #1 내가 아냐.(내가 아냐.)

105012 @ 작살로 쏘아봣수과?(작살로 쏘아봤습니까?)

105012 #1 우리 쏘아낫지. 물에서.(우리 쏘았었지. 물에서.)

105012 @ 소살로?(소살로?)

105012 #1 응.(응.)

105012 @ 잘헷수과?(잘했습니까?)

105012 #1 장역허민 잘 들어가고 장역 못허민 도망가불고. 작살로이 고무줄 영 네려둉 착허민이 고기가 강 탁 맞아. 거민 그 작살 차 내불 거 아니? 고기 큰 건쯤은 작살 차 막 돌아난덴 허난. 어떤 땐 작살 잃어 불어. 거 죽긴 죽어.(조준하면 잘 들어가고 조준 못하면 도망가 버려. 작살로 고무줄 이렇게 내려두고 착 하면 고기가 가서 탁 맞아. 그러면 그 작살 째 내버릴 거 아니? 고기 큰 건쯤은 작살 채 막 달아난다고 하니까, 어떤 땐 작살 잃어버려. 거 죽긴 죽어.)

105012 @ 죽지예.(죽지요.)

105012 #1 막 베끗디레 돌아나불민 해녀덜 지쳥은에 못 가지게. 게믄 어디 강 죽어. 죽어. 쏘은디.(막 바깥에 달아나버리면 해녀들 지쳐서 못 가지. 그러면 어디 가서 죽어. 죽어. 쏘았는데.)

105012 @ 겐 못 춪아본적 잇수과?(그래서 못 찾아본 적 잇습니까?)

105012 #1 어? 못 춪지. 막 베낏디레 희여부는디. 작살ᄁᆞ지 다 잃어 불어.(어? 못 찾지. 막 바깥에 헤엄쳐버리는데. 작살까지 다 잃어버려.)

105012 @ 뭘 잘 잡아낫수과? 삼촌은.(뭘 잘 잡았었습니까? 삼촌은.)

105012 #1 나는, 전복.(나는, 전복.)

105012 @ 전복은 헷는디 만약 고기 쏘게 뒈민 뭘 잡아봣수과? 우럭?(전복은 했는데 만약 고기 쏘게 되면 뭘 잡아봤습니까? 우럭?)

105012 #1 그런 건 잘 안 헤보고, 그런 건 잘 안 헤보고 골갱이로 ᄀᆞ튼 건 쏘아도이 작살론 안 헤여.(그런 건 잘 안 해보고, 그런 건 잘 안 허고 호미로 같은 건 쏘아도 작살론 안 해.(그런 건 잘 안 해보고, 그런 건 잘 안 해보고 호미로 같은 건 쏘아도 작살론 안 해.)

105012 @ 작살론 잘 못 헤난?(작살론 잘 못 했었어요?)

105012 #1 안 혀, 안 혀. 안 헤연.(안 해, 안 해. 안 했어.)

105012 @ 자기 전문 분야만.(자기 전문 분야만.)

105012 #1 그거이 작살 쏘는 여자가 잇어. 장역 잘헤. 우리는 못 허여. 피들락피들락 도망가 불어. 꼴랑질 맞안.(그거 작살 쏘는 여자가 있어. 조준 잘해. 우리는 못 해. '피들락피들락' 도망가 버려. 꼬릴 맞아서.)

105012 @ 음. 그것도 기술이라 부난.(음. 그것도 기술이라 버리니까.)

105012 #1 그거 딱 장역헤, 장역허노렌 헤도 뚠 더레 가분덴 허난.(그거 딱 조준해. 조준하느라고 해도 딴 데 가버린다고 하니까.)

105012 @ 신촌에 잘허는 사람도 이섯낫수과?(신촌에 잘하는 사람도 있었습니까?)

105012 #1 죽엇어. 죽엇어.(죽었어. 죽었어.)

105012 @ 잘헤난 사람 잇어 낫수과?(잘 했었던 사람 있었습니까?)

105012 #1 어. 할망.(어. 할머니.)

105012 @ 할망?(할머니?)

105012 #1 이제 살아시민 백 얼마, 백두어 개 뒈실 거라.(이제 살았으면 백 얼마, 백두어 살 됐을 거라.)

105012 @ 그 할망은 이게 기술이 좋은 셍이다예?(그 할머니는 이게 기술이 좋은 모양이네요?)

105012 #1 잘 장역헌덴 허난.(잘 조준한다고 하니까.)

105012 @ 아아.(아아.)

105012 #1 우리 저 웬당알[111]꼬지 물질허레 가와서. 그 할망.(우리 저 '웬당알'까지 물질하러 갔었어. 그 할머니.)

105012 @ 전복보다 그런 걸 더 잘헷구나 그 할망?(전복보다 그런 걸 더 잘했구나보네요?)

105012 #1 응. 그 할망이 영 헤연은에 고기 영 쒜레가 보난 인녀, 얼굴은 사람이고 꼴렝인 고기, 책에 잇잖아?(응. 그 할머니가 이렇게 해서 고기 이렇게 쏘러가 보니까 인어, 얼굴은 사람이고 꼬린 고기, 책에 있잖아?)

105012 @ 예. 물할망, 걸 뭐렌 헙니까?(예. '물할망', 걸 뭐라고 합니까?)

105012 #1 인어, 인어.(인어, 인어.)

105012 @ 인어렌 헙니까? 물할망이렌 안허여?(인어라고 합니까? '물할망'이라고 안 해요?)

105012 #1 물할망[112]. 아니, 인어, 인어. 사람인제.('물할망'. 아니, 인어, 인어. 사람인자.)

105012 @ 그거 봣덴?(그거 봤대요?)

105012 #1 거 봔. 할망이.(거 봤어. 할머니가.)

105012 @ 아아.(아아.)

105012 #1 경 헨에 쏘레 영 간 보난, 지집아이 단발헌 머리라렌, 방삭방삭 우시난

111) '웬당알'은 '원당'과 '아래'의 합성어로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의 원당봉 아래 바닷가를 이르는 지명으로 쓰이고 있다.

112) '물할망'은 제주 바닷물 속에 사는 신이라고 전해진다.

노래연 할망이 굿헤연이 메칠 춰서. 많이 돈 들엇어. 할망.(그렇게 해서 쏘러 가서 보니까, 계집아이 단발한 머리더라고, 방실방실 웃으니까 놀래서 할머니가 굿해서 며칠 췄어, 많이 돈 들었어. 할머니.)

105012 @ 겐 살아나긴 헷구나?(그래서 살아나긴 했구나?)

105012 #1 살아나긴 헌디 물질 못 헷노렌.(살아나긴 했는데 물질 못 했다고.)

105012 @ 놀래연.(놀래서.)

105012 #1 꽁지가 고기니까.(꼬리가 고기니까.)

105012 @ 응.(응.)

105012 #1 고기니까 작살을 영 쏘레 가난 방삭방삭 웃엉 사람이라렌, 겐 노래연.(고기니까 작살을 이렇게 쏘러 가니까 방실방실 웃어서 사람이더라고. 그래서 놀래서.)

105012 @ 아아.(아아.)

105012 #1 막 굿헤영.(막 굿해서.)

105012 @ 아아. 작살 쏘젠 허난게 그거 사람이라 부난 쏩지도 못하고 놀래연.(아아. 작살 쏘려고 하니까 사람이라 버리니까 싸우지도 못하고 놀라서.)

105012 #1 못헤영 그냥 놀랜 거라.(못해서 그냥 놀랜 거라.)

105012 @ 아이고야.(아이고야.)

105012 #1 겐 아판. 아판. 꼴렝이는 고기고 막 우서렌 영. 막 우서렌. 게난 노래연. 할망 막 돈 하영 들엇어.(꼬리는 고기고 막 웃더라고. 이렇게 막 웃더라고. 그러니까 놀래서. 할머니 막 돈 많이 들었어.)

105012 @ 아아.(아아.)

105012 #1 굿 헤영은에.(굿해서.)

105012 @ 아아. 겐 그이후론 작살 안 쏘앗구나?(아아. 그래서 그 이후론 작살 안 쏘았구나?)

105012 #1 그 후론 물질 설런.(그 후론 물질 그만둬버렸어.)

105025 @ 설러 불언.(그만둬버렸어.)

105012 #1 아니허켄, 못 허켄. 눈에 징그렁헨.(안 하겠다고, 못 하겠다고. 눈에 징그러워했어.)

105025 @ 징그러불언.(징그러워서.)

105012 #1 바로 사람이라렌.(바로 사람이었대.)

105025 @ 아이고야.(아이고야.)

105012 #1 일로 이렌 고기고 일로 이레는 사람이라렌.(이리로 이리론 고기고 이리로 이리론 사람이었대.)

105025 @ 어오야. 본 사람도 잇구나.(어오야. 본 사람도 있구나.)

105012 #1 풀도 영, 영 허고.(팔도 이렇게, 이렇게 하고.)

105012 @ 본 사람도 잇구나. 삼촌은 봐 본 적 잇수과?(본 사람도 있구나. 삼촌은 본 적 있습니까?)

105012 #1 안 봐봇어.(안 봐봤어.)

105012 @ 허허허.(허허허.)

105012 #1 그런 거 안 봐본디. 그 할망은, 웬당알에 강 웬당알에 그거 비오젠 허민 잘 나온덴.(그런 거 안 봐봤는데. 그 할머니는, '웬당알'에 가서 '웬당알'에 그거 비 오려고 하면 잘 나온다고.)

105012 @ 웬당알은 어느 바당 알이꽈?('웬당알'는 어느 바다 아래입니까?)

105012 #1 웬당알 몰라? 왜 저 이제 발전소.('웬당알' 몰라? 왜 저 이제 발전소.)

105012 @ 큰물 잇인디?(큰물 있는데?)

105012 #1 아니, 발전소 잇잔아? 저디.(아니, 발전소 있잖아? 저기.)

105012 @ 발전소 이신 디가.(발전소 있는 데가.)

105012 #1 거기가 웬당알이라.(거기가 '웬당알'라.)

105012 @ 거기가 원래 고기가 많이 좋앗는데.(거기가 원래 고기가 많이 좋았는데.)

105012 #1 그디가 웬당알이라.(거기가 '웬당알'이라.)

105012 @ 발전소가 생기멍 안 좋아져 불엇구나. 물이.(발전소가 생기면서 안 좋아져 버렸구나. 물이.)

105012 #1 막 뜨거와부난.(막 뜨거워버리니까.)

105012 @ 뜨거와부난.(뜨거워버리니까.)

105012 #1 뜨거운 물 내려와 부난.(뜨거운 물 내려와 버리니까.)

105012 @ 웬당알.('웬당알')

105012 #1 응. 그디가 웬당알.(응. 거기가 응. '웬당알'.)

105012 @ 작살로 고기를 어떻게 잡습니까? 작살 소살이옌 헙니까?(작살로 고기를 어떻게 잡습니까? 작살 소살이라고 합니까?)

105012 #2 응. 소살.(응. 소살.)

105012 @ 헤봣수과?(해봤습니까?)

105012 #2 아, 난 못헤보고 우리 아덜 잘 헷어. 거, 아무나 못헤. 거 우리집에 아들이 백발백중으로 쏴.(아, 난 못해보고 우리 아들 잘 했어. 거 아무나 못해. 거, 우리 집에 아들이 백발백중으로 쏴.)

105013 @ 고깃배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고깃배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105013 #1 신촌은 뱃물질 안 허여.(신촌은 '뱃물질' 안 해.)

105013 #2 작은 배도 잇고 큰 배도 잇고. 작은 배는 가까운 바당에서. 큰 배는 먼바당에 나강 큰 고기덜 잡고. 고깃배도 그물하는 배가 잇고 낚시질 하는 배가 잇고. 나도 배 쪼꼬만 배 하나 산 칠십 뭰 때 아덜이 과수원 허겟다 허니까 나놔줘. 돈.(작은 배도 있고 큰 배도 있고. 작은 배는 가까운 바다에서. 큰 배는 먼 바다에 나가서 큰 고기들 잡고. 고깃배도 그물 하는 배가 있고 낚시질 하는 배가 있고. 나도 배 조그만 배 하나 산 칠십 된 때 아들이 과수원 하겠다 하니까 나눠줘 돈.)

105014 @ 제주도에 해녀 중에 경합을 헌덴 허믄 그런 대회가 없엇주만은 삼춘이 뭐 일등 먹어실 수도 잇엇겟다예?(제주도에 해녀 중에 경합을 한다고 하면 그런 대회가 없었지만 삼춘이 뭐 일등 먹었을 수도 있었겠네요?)

105014 #1 이제?(이제?)

105014 @ 옛날.(옛날.)

105014 #1 우리 김녕ᄁᆞ지 물질허레 가왓덴 허난. 김녕으로, 삼양으로.(우리 김녕까지 물질하러 왔다고 하니까. 김녕으로, 삼양으로.)

105014 @ 거기도 해녀덜 많이 잇수꽤?(거기도 해녀들 많이 있습니까?)

105014 #1 아이구, 그디 대장상군덜만 사는디. 거 메역,(아이구, 거기 대장상군들만 사는데 거 미역.)

105014 @ 꿀리지 안헹?(꿀리지 않고?)

105014 #1 거 메역, 메역을 헤영 반 갈르기로 헤연 여기 경찰이 사니까 거기 김녕 주둔허니까 나가 헤도렌 헤연 허면은 메역을 경찰 사는 사람 반, 나 반 헹 메역 아이고 잘도 좋더라. 미 바당 메역 하나 구경ᄒᆞ기가 우리 이 바당 밋밋 그런 디도 강 물질허고.(거 미역, 미역을 해서 반 가르기로 해서 여기 경찰이 사니까 거기 김녕 주둔하니까 내가 해주라고 해서 하면 미역을 경찰 사는 사람 반, 나 반 해서 미역 아이고, 잘도 좋더라. 이 바다 미역 하나 구경하기가 우리 이 바다 '밋밋' 그런 데도 가서 물질하고.)

105014 @ 김녕, 바당이 좋구나.(김녕, 바다가 좋구나.)

105014 #1 그냥 가니까 우리 그런 메역을 안봐낫거든. 메역이 민짝 그냥 숨이 질어노니까이 배로 물질허대. 배로, 나가 간 디가 지일 상군 배에 강 올린 거라. 질 베끗디, 게난 이제 간 허난이. 그 망아리 잇잖아. 이 망사릴 ᄀᆞ득으면 우트레 올리민 사공덜이 꺼내엉 그 따가리에 담아. 일름 신 따가리더레, 경 담으민 그 이빠이 차면은 그냥 ᄀᆞᆺ디 시껑, 나 김녕바다에 강 경헨 메역 반썩 갈란. 반 갈란. 에이구, 나이 어린 때라도 그렇게 고생허멍 산 사름.(그냥 가니까 우리 그런 미역을 안 봤었거든. 미역이 모두 그냥 숨이 길어버리니까 배로 물질하대. 배로, 내가 간 데가 지일 상군배에 가서 올린 거라. 길바깥에, 그러니까 이제 가서 하니까, 그 망사리 있잖아. 이 망사리 가득하면 위에 올리면 사공들이 꺼내어서 그 '따가리'에 담아. 이름 있는 '따가리'에, 그렇게 담으면 그 가득 차면 그냥 가까이 실어서, 나 김녕 바다에 가서 그렇게 해서 미역 반씩 갈라서, 반 갈라서, 에이구, 나이 어린 때라도 그렇게 고생하면서 산 사람.)

105014 @ 그믄 여기서 삼촌허고 멧 명만 가는 거라? 잘허는 사람만 김녕에?(그러면 여기서 삼촌하고 몇 명만 가는 거라? 잘하는 사람만 김녕에?)

105014 #1 아무나 못 가. 그디 동연이네옌 헌 사람 서방이 경찰이니까 이 거기서가 이 자기 그 숭키옌 허믄이, 송키옌 허매이, 메역을,(아무나 못 가. 거기 동연이네라고 한 사람 서방이 경찰이니까 이 거기서가 이 자기 그 푸성귀라고 하면, 푸성귀라고 해, 미역을.)

105014 @ 메역을 숭키렌헤마씨?(미역을 푸성귀이라고 해요?)

105014 #1 응. 숭키옌.(응. 푸성귀라고.)

105014 @ 메께라. 바당에 숭키네 그럼?(어머나. 바다에 푸성귀네 그럼?)

105014 #1 아니, 메역ᄀᆞ라 숭키옌 허매.(아니, 미역보고 푸성귀라고 해.)

105014 @ 아아.(아아.)

105014 #1 영 뿔아먹으니까 숭키라고 헤여.(이렇게 빨아먹으니까 푸성귀이라고 해.)

105014 @ ᄂᆞ멀 닮으난?(나물 닮으니까?)

105014 #1 응. 게난 그거 헤연에 경찰허고 나허고 반 갈라완에 나이 춤말로.(응. 그러니까 그거 해서 경찰하고 나하고 반 갈라서 나 참말로.)

105014 @ 혼자만 갓구나.(혼자만 갔구나.)

105014 #1 혼자, 거 아무나 못허여.(혼자, 거 아무나 못해.)

105014 @ 아이구, 대단허다예.(아이구, 대단하네요.)

105014 #1 거 아무나 못허여. 거기도 질 잘허는 사람 ᄃᆞᆯ아가젠 허주. 못허는 사람 ᄃᆞᆯ아가젠 허나, 야 나도이 자랑이 아니고이. 물질을 남만이 헤여. 숨이 질어부니까, 메역은 하난가 숨비도 안허여. 하영 헌디만 강 혼꺼번에 허여. 어떤 딘 빈 망사리허지. 거 한디 촛아 뎅기단 엇이민 그냥 나온덴 허니까. 한 디만 왓다 허민 뭐 그냥 망아리에 이빠이.(거 아무나 못해. 거기도 제일 잘하는 사람 데리고 가려고 하지. 못하는 사람 데리고 가려고 하나, 야 나도 자랑이 아니고. 물질을 남만큼 해. 숨이 길어버리니까, 미역은 많았는지 '숨비지도' 않아. 많은 데만 가서 한꺼번에 해. 어떤 덴 빈 망사리하지. 거 많은데 찾아다니다가 없으면 그냥 나온다고 하니까, 많은 데만 왔다하면 뭐 그냥 망사리에 가득.)

105014 @ 신촌도 메역 좋앗수과?(신촌도 미역 좋았습니까?)

105014 #1 메역, 신촌 바당은 좋넨 헤사 베랑. 질 큰 고지가 바당이 쎄어. 물쎄어. 큰 고진이 진짜 테왁이 천리만리 끄서다부는 디 아니가? 아이고 물질 안허도 살고, 여든 셋ᄁᆞ지 내가 우미 ᄌᆞ물앗저. 근디 이제는 원.(미역, 신촌 바다는 좋다고 해야 별로, 제일 큰 고지가 바다가 세. 물 세. 큰 고진 진짜 테왁이 천리만리 끌어다버리는 데 아니가? 아이고 물질 안 해도 살고, 여든셋까지 내가 우미 캤지. 그런데 이제는 원.)

105014 @ 여든셋ᄁᆞ지예.(여든셋까지요.)

1050019 #1 우미 ᄌᆞ물앗주게.(우뭇가사리 채취했지.)

105014 @ 해삼을 미렌 헙니까?(해삼을 '미'라고 합니까?)

105014 #1 해삼을 미.(해삼을 '미'.)

105014 @ 성게는?(성게는?)

105014 #1 여긴 퀴, 성게ᄀᆞ라 퀴.(여긴 퀴, 성게보고 '퀴'.)

105014 @ 옛날에는 퀴하고 솜도 어느 철에 경 헷수과?(옛날에는 성게하고 말똥성게도 어느 철에 그렇게 했습니까?)

105014 #1 봄에, 삼월 ᄃᆞᆯ에 ᄉᆞ월 오월 뒈가민 거 알 싸불어. 질 맛존 때가 삼월 ᄃᆞᆯ에, 음력 삼월 ᄃᆞᆯ에, 겐디 음력 이월 ᄃᆞᆯ, 정월ᄃᆞᆯ엔 퀴가 죽어.(봄에, 삼월에 사월 오월 돼 가면 거 알 싸버려. 제일 맛좋을 때가 삼월에, 음력 삼월에, 그런데 음력 이월, 정월엔 성게가 죽어.)

105014 @ 다 아아 음력 이월ᄃᆞᆯ은 영등ᄃᆞᆯ은 다 죽지예?(다 아아 음력 이월은 '영등달'은 다 죽지요?)

105014 #1 영등ᄃᆞᆯ은 죽지. 추워노니까 뜨셔야 옴고.('영등달'은 죽지. 추워버리니까

따뜻해야 여물고.)

105014 @ 그믄 이런 거 퀴영 솜이영 허는 게 달라마씨, 물질헐 때?(그러면 이런 거 성게랑 말똥성게랑 하는 게 달라요? 물질할 때?)

105014 #1 솜은 돌 일러사 허는 거여.(말똥성게는 돌 들어야 하는 거야.)

105014 @ 아아, 그게 달라마씨? 깊은 바다에도 솜이 이서마씨?(아아, 그게 달라요? 깊은 바다에도 말똥성게가 있어요?)

105014 #1 엇어. 깆디벳긔 엇어. 짚은 딘이 퀴도 엇어. 이런 가까운디벳긔, 바당퀸 잇지, 바당퀴, 짚은 디, 바당퀴 막 맛이서.(없어. 바닷가밖에 없어. 깊은 덴 성게도 엇어. 이런 가까운데 밖에, 바다성겐 있지. 바다성게, 깊은 데, 바다성게 너무 맛있어.)

105014 @ 바당퀴는 달라마씨?(바다성게는 달라요?)

105014 #1 달르지. 색깔도 빨강허여. 이 거펑이 거멍허지 안헹 빨강허여. 짚은 디벳긔 엇어.(다르지. 색깔도 빨개. 이 '거펑'이 까맣지 않고 빨개. 깊은 데 밖에 엇어.)

105014 @ 큰가부다예?(큰가보네요?)

105014 #1 큼도 크주만은 ᄋᆞ물이 하.(크기도 크지만 여물이 하.)

105014 @ 지금은 보기 힘들겟다예?(지금은 보기 힘들겠네요?)

105014 #1 이제 엇어. 그런 디 가는 사람 엇어.(이제 없어. 그런 데 가는 사람 없어.)

105014 @ 잠녀들이 물질하는데 필요한 도구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잠녀들이 물질하는데 필요한 도구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105014 #1 닻줄 어음에 그것에 묶엉, 돌도 큰 거라사 다른 사람 걸려사 이거 닻줄 멧 개 끈어서 ᄃᆞᆼ길 거 아냐? 물에 강 실실 강 헤가민 끈어져. 허긴 허뒈 코돌 줍젠 허민 어디 잇느니?(닻줄 어음에 그것에 묶어서, 돌도 큰 거라야 다른 사람 걸려야 이거 닻줄 몇 개 끊어서 당길 거 아냐? 물에 가서 실실 가서 해가면 끊어져. 하긴 하되 코돌 주우려고 하면 어디 있니?)

105014 #2 해녀덜은 소라나 성게나 전복이나 하여튼 지금 해녀들 상당히 좋암지. 대우가 좋잔아. 여기 신촌 해녀 멧 없어.(해녀들은 소라나 성게나 전복이나 하여튼 지금 해녀들 상당히 좋지. 대우가 좋잖아. 여기 신촌 해녀 몇 없어.)

105015 @ 해녀들이 물질하는데 필요한 도구들은 어떤 것들이 잇습니까? 족은눈 허당 큰 눈 헷지예?(해녀들이 물질하는데 필요한 도구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작은 물안경 하다가 큰 물안경 했지요?)

105015 #1 요만이헌 눈 허당 큰눈 허난 바로 그냥 훤허여. 다 보여. 족은눈 이렇게 벨라불엉 못 써. 옛날 우리 할마니넨 눈 엇이 헤나ᄀᆞ렌, 그냥 강 영 헹 헤연 허ᄀᆞ렌.(요만큼한 물안경 하다가 큰 물안경 하니까 바로 그냥 훤해. 다 보여. 물안경 이렇게 벌어져 버려서 못 써. 옛날 우리 할머니는 물안경 없이 했었다고. 그냥 가서 이렇게 해서했다고.)

105015 @ 일본시대 왕 그것도.(일본시대 와서 그것도.)

105015 #1 경헤도 어떵 눈은 와직와직허메. 쫀물이난, 우리할마님넨 눈 엇이헤나ᄀᆞ렌.(그렇게 해도 어떻게 물안경은 따끔따끔해. 짠물이니까, 우리 할머님넨 물안경 없이

했었다고.)

105015 @ 물안경은 꼭 쑥으로 닦습니까? 쑥으로 닦으민 뭐가 좋아?(물안경은 꼭 쑥으로 닦습니까? 쑥으로 닦으면 뭐가 좋아?)

105015 #1 쑥으로 닦으면은 우리가 사람이 다 지름이 잇어. 얼굴에, 그 얼굴에 지름이 눈더레 들어가면은 눈이 왁왁헤불어, 거니까 그 쑥으로 닦으면은 그 지름이 안 피어. 눈에, 눈 지름피민 눈 어두웡 보이지 안혀. 어두왕 걸로 닦아야 해여.(쑥으로 닦으면 우리가 사람이 다 기름이 있어. 얼굴에, 그 얼굴에 기름이 눈에 들어가면 눈이 캄캄해버려. 거니까 그 쑥으로 닦으면 그 기름이 안 피어. 눈에, 눈 기름 피면 눈 어두워서 보이지 않아. 어두워서 걸로 닦아야 해.)

105015 @ 일년 내내 쑥이 잇는 거 아니잖아예?(일년 내내 쑥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105015 #1 엇이민 담배꽁초, 담배 피와낭덜 데껴 불지 안허나 꽁치? 거 봉가당은에.(없으면 담배꽁초, 담배 피워서들 던져 버리지 않나 꽁초? 거 주워다가.)

105015 @ 그러면 좋아? 담배, 그걸로 닦아? 물에 적셩?(그러면 좋아? 담배, 그걸로 닦아? 물에 적셔서?)

105015 #1 좋지. 잘 벗어. 물에 적졍 그 꽁치로 막 밀어. 경헤야지 경 안허민 눈이 지름 피영 잘 안보여. 아래가민 캄캄헤불어. 캄캄 어둑우니까 어둑지 못허게 막는 거.(좋지. 잘 벗겨져. 물에 적셔서 그 꽁초로 막 밀어.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안하면 눈이 기름 피여서 잘 안보여. 아래 가면 캄캄해버려. 캄캄 어두우니까 어둡지 못하게 막는 거.)

105015 #2 망사리여 해녀복이여. 뭐여. 이제는.(망사리다 해녀복이다. 뭐다. 이제는)

105015 @ 빗창이여.(빗창이다.)

105015 #2 그거 다 허지만 옛날에는 이녁냥으로 다 멘들앙 헷지만은 옛날엔 해녀복도 없엇어. 지금은 추운날에도 고무옷 입으믄 물에 들어가도 춥지가 않지. 옛날엔 입은 옷 그냥 들어가민 불턱 헤가지고 올라오민 추워가지고 그냥 불살랑 촙곡.(그거 다 하지만 옛날에는 이녁냥으로 다 만들어서 했지만 옛날엔 해녀복도 없었어. 지금은 추운 날에도 고무 옷 입으면 물에 들어가도 춥지가 않지. 옛날엔 입은 옷 그냥 들어가면 불턱 해가지고 올라오면 추워가지고 그냥 불 사라서 쬐고.)

105016 @ 잠녀들이 물질을 예전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잠녀들이 물질을 예전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105016 #1 일제 때는 상군, 중군, 하군, 경 이젠 세금 똑같이 나와.(일제 때는 상군, 중군, 하군, 그렇게 이젠 세금 똑같이 나와.)

105017 @ 잠녀들이 물옷의 변천에 대헤서 말씀헤 주십시오.(잠녀들이 물옷의 변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5017 #1 물옷만 입엉 들 때, 고무옷 나건 딘 멧 년 안 뒛어. 옛날엔 속곳만 입엉 헷어.(물옷만 입어서 들 때, 고무옷 난 지 몇 년 안 됐어. 옛날엔 속곳만 입어서 했어.)

105018 @ 톳도 몸에 좋습니께. 톳?(톳도 몸에 좋잖습니까. 톳?)

105018 #1 여기 톨 엇어.(여기 톳 없어.)

105018 @ 신촌은 톨 엇어?(신촌은 톳 없어?)

105018 #1 톨 잇긴 잇엇쟈 멧 겁 엇나.(톳 있긴 있어야 몇 가닥 없다.)

105018 @ 아아. 옛날에, 옛날엔?(옛날에, 옛날엔?)

105018 #1 옛날은 막 좋아낫지. 옛날은 톨 이만씩 헤여. 이젠 저 웬당알로 막 뜨거운 물 내려부난 바당이 다 죽어불언.(옛날은 막 좋았었지. 옛날은 톳 이만큼씩 해. 이젠 저 '웬당알'로 막 뜨거운 물 내려버리니까 바다가 다 죽어버렸어.)

105018 @ 쯧쯧쯧쯧.(쯧쯧쯧쯧.)

105018 #1 저 웬당알만 정 안헴시민.(저 '웬당알'만 저렇게 안했으면.)

105018 @ 아아.(아아.)

105018 #1 원, 저 웬당알로헨에이 즘녀 곱게 뭇아 불언.(원, 저 '웬당알'로 해서 잠녀 곱게 마버렸어.)

105018 @ 게난 해녀덜이 또 안 나오는 게 그 이유일 수 잇겟다예? 조천에는 젊은 아이덜이라도 막.(그러니까 해녀들이 또 안 나오는 게 그 이유일 수 있겠네요? 조천에는 젊은 아이들이라도 막.)

105018 #1 거기는 이디허고 뜰리지.(거긴 여기하고 틀리지.)

105018 @ 응.(응.)

105018 #1 이딘 발전소가 가깝고.(여긴 발전소가 가깝고.)

105018 @ 발전소 땜에.(발전소 때문에.)

105018 #1 저딘 멀지. 멀어노난에 조천사 덜 허주게. 이디만 피해감주.(저긴 멀지. 멀어버리니까 조천에야 덜 하지. 여기만 피해가지.)

105018 #2 지금은 어촌계에서만 관리를 딱 헤버리니까.(지금은 어촌계에서만 관리를 딱 해버리니까.)

105018 @ 옛날엔 어떵 헷수과?(옛날엔 어떻게 했습니까?)

105018 #2 옛날엔 동네별로 자기 구역만씩해서 활당헤가지고 구역에서 나왕.(옛날엔 동네별로 자기 구역만큼씩해서 할당해가지고 구역에서 나와서.)

105019 @ 우뭇가사리가 저 뭐?(우뭇가사리가 저 뭐?)

1050019 #1 우미.(우뭇가사리.)

105019 @ 우미엔 허지예.(우뭇가사리라고 하지요.)

1050019 #1 천초ᄀᆞ라 우미.('천초'보고 우뭇가사리.)

105019 @ 천초예. 여기서는 천초옌 헙니까?('천초'요. 여기서는 '천초'라고 합니까?)

1050019 #1 옛날은 우미, 우미헤난디 이젠 천초옌 허매.(옛날은 우뭇가사리, 우뭇가사리 했었는데 이젠 천초라고 해.)

105019 @ 우미는 언제, 멧 월들에 헙니까?(우뭇가사리는 언제 몇 월에 합니까?)

1050019 #1 우미는 음력 삼월들로부터 매지. 음력 삼월들로부터.(음력 삼월로부터 매지. 음력 삼월로부터.)

105019 @ 음.(음)

1050019 #1 것이 이 오래가닥지 근 나가.(것이 오래갈수록 근 나가.)

105019 @ 으응.(으응.)

1050019 #1 인찍 맨 건 근 안 나가.(일찍 맨 건 근 안 나가.)

1050019 @ 우미 ᄌᆞ무는 게 경 무섭덴 허멍예, 사람도 우미 ᄌᆞ물당 죽는덴 우도에서는 영화 보당 보난?(우뭇가사리 채취하는 게 그렇게 무섭다고 하면서요, 사람도 우뭇가사리 채취하다가 죽는다고 우도에서는 영화 보다가 보니까?)

1050019 #1 야, 그거 욕심치레 하단 그렇지, 어느지간 허민 설르지. 막 그냥 ᄂᆞᆷ보다 하영 허젠 말고 하여튼 욕심 잇는 사람 죽으매. 한걸헌 사람은이 숨 쉬멍 하영 허젠 말고 노릇ᄒᆞᆫ 사람한틴, 막 ᄂᆞᆷ보다 쳐 허젠 막 허젠 허민 숨 다 먹잖아. 그게.(야, 그거 욕심치레 하단 그렇지, 어느 정도 하면 그만두지. 막 그냥 남보다 많이 하려말고 하여튼 욕심 있는 사람 죽는다. 한가한 사람은 숨 쉬면서 많이 하려 말고 '노릇'한 사람에게, 막 남보다 쳐 하려고 막 하려고하면 숨 다 먹잖아. 그게.)

1050019 @ 물숨이지예? 물숨 먹엉?('물숨이지요? '물숨' 먹어서?)

1050019 #1 그렇지. 물숨 먹으민 왜냐면은 그 좀 한걸이 노릇허민 물이 바당에 가도 숨이 질곡, 그냥 할딱 할딱허믄 숨 쫄랑 허도 못 헌다. 이 테왁짚엉 한창 숨을 ᄂᆞ리기서야 물질이 뒈지. 우린 전복만 테나니까 다른 건 허도 안헤. 숨 질어부난 전복벳긔, 이디 소문난 사람이야. 한 복희어멍허고, 나 벗 하난 죽어버렷어. 그 사람허고 나벳긔 안 가 바껫바당은, 막 베끗디 아득헌디 나가.(그렇지. 물숨 먹으면 왜냐면 그 좀 한가하게 '노릇'하면 물이 바다에 가도 숨이 길고, 그냥 할딱할딱하면 숨 짧아서 하지도 못한다. 이 테왁 짚어서 한참 숨을 내리쉬어야 물질이 되지. 우린 전복만 잡아나니까 다른 건 허도 안 해. 숨 길어버리니까 전복밖에, 여기 소문난 사람이야. 한복희 어머니하고, 나 벗 하난 죽어버렸어. 그 사람하고 나밖에 안 가. 밖에 바다는, 막 밖에 아득한 데 나가.)

105019 @ 우뭇가사리는 어떵헷수과?(우뭇가사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105019 #2 우뭇가사리도 구역별로. 우뭇가사린 시세가 없는 모양이지? 나 헤다 논 거 잇어. 지금. 우뭇가사리 하얗게 바렌 거, 강 ᄉᆞᆯ므민 먹어질거.(우뭇가사리도 구역별로. 우뭇가사린 시세가 없는 모양이지? 내가 해다 놓은 거 있어. 지금. 우뭇가사리 하얗게 바랜 거. 가서 삶으면 먹어질 거.)

105020 @ 전복과 소라도 개인으로 합니까? 공동으로 합니까?(전복과 소라는 개인으로 합니까? 공동으로 합니까?)

105020 #1 공동은이 양식장. 거 가두왕 아무도 못 뎅기게 허는 건 ᄀᆞ치 ᄌᆞ물곡, 베끗딘 가인으로.(공동은 양식장, 거 가둬서 아무도 못 다니게 하는 건 같이 잡고, 밖엔 개인으로.)

105020 @ 베끗딘 개인.(밖엔 개인.)

105020 #1 어느 ᄒᆞᆫ으로 어딘 개인, 어느 ᄒᆞᆫ으로 어딘 양식장.(어느 한으로 어딘 개인, 어느 한으로 어딘 양식장.)

105020 @ 아아, 돈 모앙은에 뿌린 씨를 뿌리니까 양식장?(아아, 돈 모아서 뿌린 씨를 뿌리니까 양식장?)

105020 #1 아니, 아니. 양식장엔은이 사람 안 가니까 하지. 그냥 막 즈물아불믄 엇잖아. 거난 안 즈무니까 거기서 보태가곡, 크곡, 새끼치중헤가믄 하지.(아니, 아니. 양식장에는 사람 안 가니까 많지. 그냥 막 채취해버리면 없잖아. 그러니까 안 채취하니까 거기서 보태고, 크고, 새끼 쳐가며 많지.)

105020 @ 으응.(으응.)

105020 #1 거 양식장.(거 양식장.)

105020 @ 양식장. 건 어디에서 어디가 양식장?(양식장. 건 어디에서 어디가 양식장?)

105020 #1 그렇지. 다 떼빡 틔와.(그렇지. 다 '떼빡' 띄워.)

105020 @ 씨도 뿌리곡?(씨도 뿌리고?)

105020 #1 아냐. 베끗디 강 준 거 헤당 안트레 담아.(아냐. 밖에 가서 잔 거 해다가 안으로 담아.)

105020 @ 아아, 옛날에는.(아아, 옛날에는.)

105020 #1 베끗디 강이 홁은 구젱인 풀걸로 허곡, 준 건 안터레.(밖에 가서 굵은 소라 팔 걸로 하고, 잔 건 안으로.)

105020 @ 잡아왓을 때.(잡아왔을 때.)

105020 #1 안트레 강 문딱 비와불어. 크렌.(안으로 가서 모두 비워버려. 크라고.)

105020 @ 크렌.(크라고.)

105020 #1 홁은 건 풀고 준 건 이레 드리치곡.(굵은 건 팔고, 잔 건 이리로 집어넣고.)

105020 @ 아아.(아아.)

105020 #1 에이구, 춤말로.(에이구, 참말로.)

105020 @ 똑똑 헷다예 그런 거는예.(똑똑 했네요 그런 거는요.)

105020 #1 거믄이 여기도이 잘허는 사람 못 허는 사람 다 잇잖아. 상질, 중질, 하질.(그러면 여기도 잘하는 사람 못 허는 사람 다 잇잖아. 상질, 중질, 하질.)

105020 @ 그믄 상질은 세금을 더 낸다는 것도 참 재밋다예?(그러면 상질은 세금을 더 냈다는 건 재밌네요?)

105020 #1 건 옛날 일제 때지. 이제는 세금 꼭끗찌 나와.(건 옛날 일제 때지. 이제는 세금 똑같이 나와.)

105020 @ 그렇지게. 실력이난.(그렇지. 실력이니까.)

105020 #1 공동으로 나온덴 허난.(공동으로 나온다고 하니까.)

105020 @ 실력이난.(실력이니까.)

105020 #1 옛날엔이 일제 때는이 상군, 중군, 하군. 우리도 옛날에는 상군에만 들어서.(옛날엔 일제 때는 상군, 중군, 하군. 우리도 옛날에는 상군에만 들어서.)

105020 @ 많이 잡으민 많이 네민 나쁘진 않은디이.(많이 잡으면 많이 내면 나쁘진 않은데.)

105020 @ 옛날에 삼촌은 퀴 허레도 갓다는 거지예?(옛날에 삼촌은 성게 하러도 갔

다는 거지요?)

105020 #1 퀴 베끗디 퀴 헐충도 몰르고 베끗디, 퀴 허는 거민 전복 하나 태우민 멧 배로 벌어.(성게, 바깥에 성게 할 줄도 모르고 바깥에, 성게 하는 거면 전복 하나 잡으면 몇 배로 벌어.)

105020 @ 삼촌은 육십년간을 전복만 헤연.(삼촌은 육십년간을 전복만 했어.)

105020 #1 전복만. 퀴허는 사람은 헤쳔 까도 나 전복 하나 흔 것보다 돌리지도 못허고 문딱 헤갈아 불어. 나는 베낏딜로만 간 그것만 허주. 퀴 같은 건 이제도 못해.(전복만. 성게 하는 사람은 하루 종일 까도 나 전복 하나 한 것보다 돌리지도 못하고 모두 헤집어 갈아버려. 나는 밖으로만 가서 그것만 하지. 성게 같은 건 이제도 못해.)

105020 @ 신촌 바당은 다 잡앗구나예 전복으로?(신촌바다는 다 잡았군요. 전복으로?)

105020 #1 나, 아이고 신촌 바당이 우리 동동, 중동, 섯동이 바당 갈라버리니까 못가매. 흔이 다 이서.(나, 아이고 신촌 바다가 우리 동동, 중동, 섯동이 바다 갈라버리니까 못 간다. 한이 다 있어.)

105020 @ 삼촌은 동동?(삼촌은 동동네?)

105020 #1 우린 동동, 저레 가가민 막 난리가.(우린 동 동네, 저리 가가면 막 난리가.)

105020 @ 동동만 헷다는 거? 옛날에도?(동 동네만 했다는 거? 옛날에도?)

105020 #1 일제 때부터.(일제 때부터.)

105020 @ 그 전에는 경 안헤신디.(그 전에는 경 안했는데)

105020 #1 아니, 아니. 옛날로부터 경 바당 갈르더라고, 그레 넘어가지 못해. 또 그디 꺼 이레 넘어오지 못허고.(아니, 아니. 옛날로부터 그렇게 바다 가르더라고, 그리로 넘어가지 못해. 또 거기 꺼 이리로 넘어오지 못하고.)

105020 @ 그쪽에도 잘허는 삼촌이 잇엇겟다예?(그쪽에도 잘하는 삼촌이 있었겠네요?)

105020 #1 잇지. 이제 늙어부난 못헤. 이제 해녀들이, 우리 또래 엇이민 물질헐 사름 읏어.(있지. 이제 늙어버리니까 못해. 이제 해녀들이, 우리 또래 없으면 물질할 사름 없어.)

105020 @ 지금 멧 명 이신고예?(지금 몇 명 있는가요?)

105020 #1 이제 우리 헐 때는 막 하난디 잘하민 이디 사름도 흔 예실곱 사름 뒈고, 요 중카름에가 하나고, 또 서카름에가 셋인가 넷인가고.(이제 우리 할 때는 막 많았었는데 잘하면 여기 사람도 한 여섯, 일곱 사람 되고, 요 중 동네에 하나고, 또 서 동네에가 셋인가 넷은 가고.)

105020 @ 조천은 하영 이신디?(조천은 많이 있는데?)

105020 #1 조천 이신디 이딘 엇어. 경허고 동더레 사람 와도 안해여. 신촌은 동이사람 해와도 물질을 안 헌다고 조천덜은 막 허여. 것도 춤 이상허여.(조천 있는데 여긴 없어. 그리고 동쪽에 사람 와도 안 해. 신촌은 동쪽 사람 해와도 물질을 안 한다고 조천들

은 막 해. 것도 참 이상해.)

105020 @ 신촌 바당은 그래도 해산물이 많이 잇겟다예.(신촌 바다는 그래도 해산물이 많이 있겠네요.)

105020 #1 잇긴 잇지. 제라한 전복바당에 강 숨벼야 전복이 나주. 전복 바당이 잇지.(있긴 있지. 진짜 전복바다에 가서 '숨벼야' 전복이 나지. 전복 바다가 있지.)

105020 @ 삼촌만이 아는 곳이 잇지예. 막 잠자당도 아른아른 생각날 때가 잇구나예?(삼촌만이 아는 곳이 있지요. 막 잠자다가도 아른아른 생각날 때가 있군요?)

105020 #1 그게 전복 테젠 허민 꿈에부터 나타나. 거 춤 이상해?(그게 전복 잡으려고 하면 꿈에부터 나타나. 거 참 이상해?)

105020 @ 어머나 어떤 꿈을 꿔져마씨? 전복이 나와마씨?(어머나 어떤 꿈을 꿔져요? 전복이 나와요?)

105020 #1 전복 테젠 허민 꿈에부터 나타나. 전복 테젠 허민 남잘 시꾸고, 뚜시 이 소똥 잇잖아. 걸 막 주서 베고, 그렇게 그 꿈을 보면은 전복을 캐어.(전복 잡으려고 하면 꿈에부터 나타나. 전복 잡으려고 남잘 나타나고, 또 이 소똥 있잖아. 걸 막 주워도 보이고, 그렇게 그 꿈을 보면 전복을 캐.)

105020 #1 뭐든지 자기 머리로 감상허멍 만들어야 뒈어. 전복은이 그 여에 이싱거 베랑 가다오다 잇지. 전복허는 딘 막 머흘밧, 짚은 디, 그런 디, 가야 전복 테어.(뭐든지 자기 머리로 감상하면서 만들어야 돼. 전복은 그 여에 있는 거 별로 가다오다 있지. 전복하는 덴 막 머흘밭, 깊은 데, 그런 데 가야 전복 잡아.)

105020 @ 머흘밧은 돌밧이지예?(자갈밭은 돌밭이지요?)

105020 #1 아예 돌이 이만썩이만썩 뚜로뚜로 갈라지는 건 머흘밧, 또 그냥 여엔헌 건 민짝 이신 건 여.(아예 돌이 이만큼씩, 이만큼씩 따로따로 갈라지는 건 머흘밭, 또 그냥 여라고 한 건 모두 있는 건 여.)

105021 @ 전복과 소라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전복과 소라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105021 @ 암전복 수전복은 모양이 틀려마씨?(암전복 수전복은 모양이 틀려요?)

105021 #1 뜰리지. 수전복이 알멩이가 하지. 두껍고, 암천복은 바짝허고 암천복은 두꺼움도 넓적허고, 수컷은 수랑허고 알멩이가 하. 수커는.(틀리지. 수전복이 알멩이가 많지. 두껍고, 암전복은 '바짝하고' 암전복은 두꺼움도 넓적하고, 수컷은 길쭉하고 알맹이가 많아. 수커는.)

105021 @ 그믄 근수도 많이 나가겟다예?(그러면 근수도 많이 나가겠네요?)

105021 #1 그렇지.(그렇지.)

105021 @ 맛은 어떵헙니까?(맛은 어떻습니까?)

105021 #1 맛은 아멩헤도 비등비등허주만은 수전복이 더 맛은 이실 거라. 술이 하니까, 암천복은 베짝허여.(맛은 아무리 해도 비등비등하지만 수전복이 더 맛은 있을 거라. 살이 많으니까, 암천복은 '베짝해'.)

105021 @ 얼마만큼 큰 것이 잇수과?(얼마만큼 큰 것이 있습니까?)

105021 #1 전복?(전복?)

105021 @ 막 솟두껑ᄀᆞ치 밥도 해 먹엇덴 허난.(막 솥뚜껑같이 밥도 해 먹었다고 하니까.)

105021 #1 그것에도 반찬도 지져. 이젠 그런 전복 테레 못가. 막 베끗디 가야 그런 거.(것에도 반찬도 지져. 이젠 그런 전복 잡으러 못가. 막 밖에 가야 그런 거.)

105021 @ 겨난마씨 얼마나 커시민, 얼굴만큼?(그러니까요 얼마나 컸으면, 얼굴만큼?)

105021 #1 아니, 이만이허여. 큰 전복쯤은 이만해.(아니, 이만큼 해. 큰 전복쯤은 이만해.)

105021 @ 껍데기라도 ᄒᆞ나 나둘거꿰?(껍데기라도 하나 놔둘걸요?)

105021 #1 이거 풀레 가야지. 이거 전복.(이거 팔러 가야지. 이거 전복.)

105021 @ 옛날에 엿장시가예?(옛날에 엿장수가요?)

105021 #1 아이고 우리 전복을 테어도 아방 하나 먹어보지 못헤. 풀레 시장더레 둘아. 그거 풀아와야 애기덜 ᄒᆞ비허고, 돈 줍센 허민 주곡 허니까, 아방 ᄒᆞᆫ번 멕여보지도 못헨, 전복은 많이 태어도, 풀레 둘아나. 그거 풀아와야 쓸 거니까.(아이고 우리 전복을 잡아도 아방 하나 먹어보지 못해. 팔러 시장에 달려가. 그거 팔아 와야 애기들 학비하고, 돈 주세요하면 주고 하니까, 아방 한번 먹여보지도 못했어. 전복은 많이 태어도, 팔러 달려가. 그거 팔아 와야 쓸 거니까.)

105004 @ 그믄 아까 구젱이는 세 가지 종류가 잇다는 거지예?(그러면 아까 소라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지요?)

105004 #1 조쿠젱이, 중쿠젱이, 대쿠젱이, 대구젱인 막 큰 거, 또 대쿠젱이 다음에 건 중구젱이, 중구젱이 다음에 건 조쿠젱이.('조쿠젱이', 중소라, 대소라, 대소란 막 큰 거, 또 대소라 다음에 건 중소라, 중소라 다음에 건 '조쿠젱이'.)

105004 @ 막 뽀쪽뽀족 암수 이런 거?(막 '뽀쪽뽀족' 암수 이런 거?)

105004 #1 뽀쪽뽀족 난 거는 거 큰 구젱기야. 조쿠젱인 그런 거 없어. 멘뜰락허여. 요만썩 헹 멘뜰락. 그런 거 없어 ᄌᆞ쿠젱인 커야 그런 거 나와.('뽀쪽뽀족' 난 거는 거 큰 소라야. 작은 소란 그런 거 없어. 매끈해. 요만큼씩 해서 매끈. 그런 거 없어 작은 소란 커야 그런 거 나와.)

105022 @ 떼에 대헤서 말씀헤 주십시오.(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5022 #2 테우는 옛날 그 듬북헐라고 다 만들어 논 거여. 자리 뜨고. 저 하ᄅᆞ산에 가민 구상낭 잇는데 구상낭으로 꼭 만들엇어.(떼는 옛날 그 듬북하려고 다 만들어 논거야. 자리 뜨고. 저 한라산에 가면 구상나무 있는데 구상나무로 꼭 만들었어.)

105022 @ 구상낭으로 테우를예?(구상나무로 떼를요?)

105022 #2 응.(응)

105022 @ 구상낭이 좋아마씨?(구상나무가 좋아요?)

105022 #2 구상낭이라야만 뒈지. 다른 낭은 안뒈여.(구상나무라야만 되지. 다른 나무는 안 돼.)

105022 @ 테우가?(떼가?)

105022 #2 테우가. 물에 가라앉아. 물속으로 구상나무가 제일 가벼와서 잘 트고.(떼가. 물에 가라앉아. 물속으로 구상나무가 제일 가벼워서 잘 뜨고.)

105022 @ 아!(아!)

105022 #2 그니까 구상낭으로만 테우를 헷어.(그니까 구상낭으로만 떼를 했어.)

105022 #2 테우가 많이 잇어. 우리 어렷을 적엔 여기도 성창이 잇고 저기도 성창이 잇고, 수정없이 잇엇주. 동마을에도 한 십여 척 이상이. 우리아바님 신 때도 터위일을 헷어. 터위 탕 고기 낚으레덜토 많이 다니고 갈치 나끄레도 많이 다니고.(떼가 많이 있어. 우리 어렸을 적엔 여기도 성창이 있고 저기도 성창이 있고, 수없이 있었지. 동 마을에도 한 십 여척 이상이. 우리아바님 있을 때도 떼 일을 했어. 떼 타서 고기 낚으러도 많이 다니고 갈치 낚으러도 많이 다니고.)

105022 @ 아버지도 이런 어부 일은 헤봐수과?(아버지도 이런 어부 일은 해봤습니까?)

105022 #2 아니 어부는 전연 안 헤보고 일본에도 돈 벌레 강 많이 살고.(아니 어부는 전연 안 해보고 일본에도 돈 벌러 가서 많이 살고.)

105022 @ 돛배가 이섯수과?(닻배가 있었습니까?)

105022 #2 닻은 옛날엔 나이롱도 잇고 벨 거 다 이섯지만 칙을 끈허다가 닻줄을 헷어.(닻은 옛날엔 나일론도 있고 별거 다 있었지만 칡을 끊어다가 닻줄을 했어.)

105022 @ 테우 만드는 건 봐봣수과? 만드는 사람덜 다 돌아가셧지예?(떼 만드는 건 봐봤습니까? 만드는 사람들 다 돌아가셨지요?)

105022 #2 다 돌아갓주. 테우는 낭덜 흔 아홉 개 열 개 하면 꼭 고르게 굵기를 짤라가지고 쎈 나무로 해서 글로 그냥 못질을 헤가지고 이것이 그냥 열 개나 멧개 꼬아가지고 그 테우를 꼭 구상낭이라야 테우 뒈지. 다른 낭으론 안 뒈. 그 산에 가서 구상낭이 둘레씩 헌 놈을 전부 해다가 테우를 다 만들어. 구상낭은 물에 잘 뜨는 낭이라. 그니까 테우를 이렇게 저어가지고 가서 고기도 나끄고 듬북도 허고.(다 돌아갔지. 떼는 나무들 한 아홉 개 열 개 하면 꼭 고르게 굵기를 잘라가지고 센 나무로 해서 거기로 그냥 못질을 해가지고 이것이 그냥 열 개나 몇 개 꼬아가지고 그 떼를 꼭 구상나무라야 떼 되지. 다른 나무론 안 돼. 그 산에 가서 구상나무 이 둘레씩 한 놈을 전부 해다가 떼를 다 만들어. 구상나무는 물에 잘 뜨는 나무라. 그니까 떼를 이렇게 저어가지고 가서 고기도 낚고 듬북도 하고.)

105022 @ 테우는 개인 거지예. 어떵 빌령 쓰기도 헷수과?(떼는 개인 거지요. 어떻게 빌려서 쓰기도 했습니까?)

105022 #2 그렇지. 것도 배ᄀᆞ치 풀고 사기도 헤서.(그렇지. 것도 배같이 팔고 사기도 해서.)

105022 @ 삼촌넨 없엇고예.(삼촌넨 없었고요.)

105022 #2 우리도 잇엇어.(우리도 있었어.)

105022 @ 아버지가 산?(아버지가 산?)

105022 #2 내가 한 열두어 설 날 때 테우가 이섯어.(내가 한 열두어 살 날 때 떼가 있었어.)

105022 @ 그믄 아버지가 주로 거기 가서 뭘 잡아마씨?(그러면 아버지가 주로 거기 가서 뭘 잡아요?)

105022 #2 듬북헐라고.(듬북하려고.)

105022 @ 자리 거리는 것도?(자리 잡는 것도?)

105022 #2 그런 건 안 헤.(그런 건 안 해.)

105022 @ 보통 멜 거리고 자리 거리는디.(보통 멸치 잡고 자리 잡는데.)

105022 #2 그렇지. 주로 멜 거리고 자리 거리는 데 많이 썻어. 거 옛날엔 멜이 어떻게 흔헷는지.(그렇지. 주로 멸치 잡고 자리 잡는 데 많이 썼어. 거 옛날엔 멸치가 어떻게 흔했는지.)

105022 @ 함덕에 멜이 많앗덴 허는디.(함덕에 멸치가 많았다고 하는데.)

105022 #2 어, 신촌도 많엇어. 그냥 저 터위 가서 그 멜 잇는 걸 어떻게 아는지 장막쿨이라는 그물이 잇어. 그물로 그냥 에워싸가지고 허면 그냥 그 저 멜쿠덕이 이 방 두 배쯤 뒈겟네이. 그걸 두 개씩 터위에 시꺼가지고 그냥 그걸로 막 담아오면 말이여, 길에 그냥 우리 어렷을 적에 보면 전부 멜 널어가지고 그거 말려가지고 퉤비로. 멜로 퉤비로.(어, 신촌도 많았어. 그냥 저 떼 가서 그 멸치 있는 걸 어떻게 아는지 '장막쿨'이라는 그물이 있어. 그물로 그냥 에워싸 가지고 하면 그냥 그 저 멸치구덕이 이 방 두 배쯤 됐겠네. 그걸 두 개씩 떼에 실어가지고 그냥 그걸로 막 담아오면 말이야. 길에 그냥 우리 어렸을 적에 보면 전부 멸치 널어가지고 그거 말려가지고 퇴비로. 멸치로 퇴비로.)

105022 @ 말령예.(말려서요.)

105022 #2 거 말려가지고 다 옛날엔 퉤비헷어. 거 멜거름이 밧디 가민 상당히 좋은 거고.(거 말려가지고 다 옛날엔 퇴비했어. 거 멸치거름이 밭에 가면 상당히 좋은 거고.)

105022 @ 그 멜을 말령 언제 어떻게 거름을 헤여?(그 멸치를 말려서 언제 어떻게 거름을 해?)

105022 #2 듬북 헤당 놧다가 듬북 속에 놧다가 밧디 강 뿌리민 보리가 상당히 잘 자라.(듬북 해다가 놨다가 듬북 속에 놨다가 밭에 가서 뿌리면 보리가 상당히 잘 자라.)

105022 @ 보리 난 상태에서 멜을 뿌리는 구나예.(보리 난 상태에서 멸치를 뿌리는 군요.)

105022 #2 보리 갈 때.(보리 갈 때.)

105022 @ 아, 놧다가 보리갈 때 멜을?(아, 놨다가 보리 갈 때 멸치를?)

105023 @ 돛배에 대헤서 아는 바를 말씀헤 주십시오.(돛배에 대해서 아는 바를 말씀해 주십시오.)

105023 #2 돛 돌앙 다니는 배? 옛날엔 기계 엇일 때는 다 돛 돌앙 다녓주.(닻 달아서 다니는 배? 옛날엔 기계 엇일 때는 다 닻 달아서 다녔지.)

105023 @ 그거에 해녀들을 태와 가지고 먼 바다에도 가고. 이디 해녀덜은 육지물질 안가십디다.(그거에 해녀들을 태워 가지고 먼 바다에도 가고. 이디 해녀들은 육지물질

안가십디다.)

105023 #2 아니 가. 동데레 성산덜은 많이덜 가고. 삼척 가보니까 평대사람이 여자가 상당헌 부자가 잇데. 그 상점들이 쭉 나란이 잇는데 전부 자기 거렌.(아니 가. 동으로 성산들은 많이들 가고. 삼척 가보니까 평대사람이 여자가 상당한 부자가 있데. 그 상점들이 쭉 나란히 있는데 전부 자기 거라고.)

105025 @ 여기는 그 바당의 돌고래를 수애기렌 헙니까? 저 곰수기렌 헙니까?(여기는 그 바다의 돌고래를 '수애기'라고 합니까? 저 돌고래라고 합니까?)

105025 #1 곰세기.(돌고래.)

105025 @ 거 곰세기렌 헙니까?(거 돌고래라고 합니까?)

105025 #1 그냥 이제 말론 돌고래엔 허고이, 옛날엔 곰세기. 우리가 물에 들면은 그놈이 것이이 막 떼죽으로 ᄂᆞ려와. 말도 잘 알아들어.(그냥 이제 말론 돌고래엔 하고. 옛날엔 돌고래. 우리가 물에 들면 그놈이 것이 막 떼로 내려와. 말도 잘 알아들어.)

105025 @ 떼죽으로예?(떼로요?)

105025 #1 떼죽으로 막 덤벼온덴 허난. 거 막 주둥이도 막 진진헤여. 그놈이 거. 거 올땐이. 소리가 나더라고. 찍찍찍찍 헤더라고, 무신 찍찍찍찍 헴신고 보니까 것덜이 떼죽으로 와가난 겁나더라게. 겁나더라게. 배알로 배알로 헤가난이, 우리 밑으로 살살 넘어가. 말 잘 알아 또이 곰베만이 튀라 마께만이 튀라. 삘죽삘죽 튀곡, 말 잘 알아들어 그거. 숭찍도 안 한 거라. 말만 못 ᄀᆞᆯ앗주. 말은 잘 알아들어.(떼로 막 덤벼온다고 하니까. 거 막 주둥이도 막 진진해. 그놈의 거. 거 올 땐 소리가 나더라고. 찍찍찍찍 해더라고, 무슨 찍찍찍찍 하는가? 보니까 것들이 떼로 와가니까 겁나더라. 겁나더라. 배 아래로 배 아래로 해가니까. 우리 밑으로 살살 넘어가. 말 잘 알아 또 곰방메만큼 튀라. 방망이만큼 튀라. '불룩불룩' 뛰고, 말 잘 알아들어 그거. '숭찍'도 안 한 거라. 말만 못 했지. 말은 잘 알아들어.)

105025 @ 큰고랜 안 봐봣고예?(큰고랜 안 봤었구요?)

105025 #1 아니 곰세기가 이만썩헤여. 겐디 곰세기 조름에 상어가 쫓인덴 허지. 게난 그것이 무섭다는 거지.(아니 돌고래가 이만큼씩 해. 그런데 돌고래 조름에 상어가 쫓는다고 하지. 그러니까 그것이 무섭다는 거지.)

105025 @ 겨믄 일단 곰세기 봐지민 밖으로 나와 붑니까? 어떵헙니까?(그러면 일단 돌고래 보이면 밖으로 나와 버립니까? 어떻게 합니까?)

105025 #1 아니, ᄀᆞ치 들엉 쉭쉭쉭쉭 허는 소리에 영 나왕보민 ᄃᆞᆯ려들엉 이꺼지 ᄃᆞᆯ려드는거라 이녁 앞더레.(아니, 같이 들어서 쉭쉭쉭쉭 하는 소리에 이렇게 나와서보면 달려들어서 이까지 달려드는 거라 자기 앞으로.)

105025 @ 해녀들은(해녀들은)

105025 #1 해녀들은 배알로 배알로. 물질 못허지. 와작착와작착, 배알로 배알로허민 알로 실실실실.(해녀들은 배 아래로, 배 아래로. 물질 못하지. 와작착와작착, 배 아래로, 배 아래로. 하면 아래로 실실실실,)

105025 @ 테왁 이신 딜로 올라왕 배알로 배알로 헙니까?(테왁 있는 데로 올라와서

배 아래로, 배 아래로 합니까?)

105025 #1 응. 테왁 영 짚어둠서. 배알로 배알로. 허민 알로 살살살살, 곰베만이 튀라. 마께만이 튀라. 빌쭉빌쭉 튀고, 말 잘 알아들어.(응. 테왁 이렇게 짚고 배 아래로 배 아래로. 하면 아래로 살살살살, 곰방메만큼 튀라 방망이만큼 튀라. '빌쭉빌쭉' 뛰라. 비나 오려고 하면 난다. 말 잘 알아들어.)

105025 @ 곰베만이 튀라?(곰방메만큼 뛰라?)

105025 #1 응.(응.)

105025 @ 이렇게 튀라?(이렇게 뛰라?)

105025 #1 이렇게 막 튀라는 거라. 곰베만이 튀라 마께만이 튀라. 빌쭉빌쭉 튀어. 그게. 비나 오젠 허민 난다. 이젠 그거 못봐. 곰세기 나오는디 물질덜도 안허고. 곰세긴 짚은 디.(이렇게 막 튀라는 거라. 곰방메만큼 뛰라 방망이만큼 뛰라. '빌쭉빌쭉' 뛰어. 그게. 비나 오려고 하면 난다. 이젠 그거 못 봐. 돌고래 나오는데 물질들도 안하고. 돌고래는 깊은 데.)

6. 의생활

옷감

106001 @ 옷감의 종류에 대헤서 말씀헤 주십시오.(옷감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6001 #1 옷감의 종류? 나가 어떵 헹 알아?(옷감의 종류? 나가 어떻게 해서 알아?)

106001 @ 예를 들면 멩주도 잇고게.(예를 들면 명주도 있고.)

106001 #1 광목, 베.(광목, 베.)

106001 @ 광목, 베,(광목, 베.)

106001 #1 멩주.(명주.)

106001 @ 모시.(모시)

106001 #1 모시, 비단, 사보다이.(명주, 비단, '사보다이.')

명주

106003 @ 멩주의 종류에 대헤서 말씀헤 주십시오. 멩주도 생멩주 잇고 수아주 이런 거?(명주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명주도 생명주 있고 수아주 이런 거?)

106003 #1 쌩멩주 잇고, 익은 멩주 잇어. 멩주도 멧 가지라. 쌩멩주는이 바짝허곡이. 그냥 멩주는 홀랑홀랑허잔아. 쌩멩주는 완전 바닥바닥허여.(생명주 있고, 익은 명주 있어. 명주도 몇 가지라. 생명주는 바짝하고 그냥 명주는 홀랑홀랑하잖아. 생명주는 완전

빠닥빠닥해.)

106004 @ 멩주로 어떤 옷을 만듭니까?(명주로 어떤 옷을 만듭니까?)

106004 #1 명주는 남자덜 바지저고리허곡.(명주는 남자들 바지저고리하고.)

106004 @ 멩주로 남자 바지저고리?(명주로 남자바지저고리?)

106004 #1 응. 여전 치메저고리, 우린 그런 거 입어보도 안 헷저. 멩주엔 헌 거.(응. 여잔 치마저고리, 우린 그런 거 입어보지도 않았어. 명주라고 한 거.)

106004 @ 호상옷?(호상옷?)

106004 #1 호상은 멩주로 허지.(호상은 명주로 하지.)

106004 @ 무사 그 멩주는 건 버렝이로 만든 거 아니예?(왜 그 명주는 건 벌레로 만든 거 아니에요?)

106004 #1 멩주 누에가 만든 거.(명주 누에가 만든 거.)

106004 @ 누에가 만든 거.(누에가 만든 거.)

106004 #1 멩주.(명주.)

106004 @ 그난 이게 얼마나 고급인디 죽엉 갈 때 입엉가켄 곱닥허게 입겐 허는거지예?(그니까 이게 얼마나 고급인데 죽어서 갈 때 입어서 가겠다고 곱게 입겠다고 하는 거지요?)

106004 #1 멩주 우린 호상도 저디 잇주마는 멩주로 헤여져신가? 것도 걷엉 봐야커라. 무슨 거로 헤져신가.(명주. 우린 호상도 저기 있지만 명주로 해졌는가? 걷어서 봐야겠다. 뭐로 했는지.)

106004 @ 멩주는게 누에로 만든 거난 좀 일어분덴 허드라고예.(명주는 누에로 만든 거라 좀 일어버린다고 하더라고요.)

106004 #1 존 거는 안 일어.(좋은 거는 안 일어.)

106004 @ 아아.(아아.)

106004 #1 멩주도 이 분 잇잔아. 밀ᄀᆞ루. 그런 건 그냥 고망 바롱바롱 헤 불어. 나도 이제 클렁 보켜만은 나 멩진 좋아부니까, 존걸로 허니까. 멩지가이 좀 먹으는 밀ᄀᆞ루 닮은 멩주가 잇어. 그런 거는 그냥 바롱바롱 먹어 불어. 아이고, 것도 걷엉 봐사켜. 좀 말끗에. 호상헹 놧지.(명주도 이 분 있잖아. 밀가루. 그런 건 그냥 구멍 '바롱바롱' 해버려. 나도 이제 끌러서 보겠다만 나 명준 좋아버리니까, 좋은 걸로 해 놓으니까. 명주가 좀 먹는 밀가루 닮은 명주가 있어. 그런 거는 그냥 숭숭 먹어 버려. 아이고, 것도 걷어서 봐야겠다. 좀 말끝에. 호상해서 놨지.)

106004 @ 마가 들어부난예.(마가 들어버리니까요.)

106004 #1 나도. 또 멩지로 두루막 것도 이시니까 것도 죽엉 가민 입을 거. 멩지에 두루막 잇어, 분홍 꺼. 또 그냥 두루막은 그냥 대껴 불언.(나도. 또 명주로 두루마기 것도 있으니까 것도 죽어서 가면 입을 거. 명주에 두루마기 있어, 분홍 거. 또 그냥 두루마기는 그냥 던져버렸어.)

106005 @ 음. 멩주가 비싸주게. 엄청. 게믄 무명실을 만드는 과정에 대헤서 말씀헤 주십시오.(음. 명주가 비싸주게. 엄청. 그러면 무명실을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

십시오.)

106005 #1 거는 어디 서촌사름이나 경 허주. 이딧 사름덜은 모른다.(거는 어디 서촌사람이나 그렇게 하지. 여기 사람들은 모른다.)

106006 @ 누에치기도 모르고예?(누에치기도 모르고요?)

106006 #1 어.(어.)

무명

106007 @ 다음, 무명의 종류?(다음, 무명의 종류?)

106007 #1 무시거?(뭐?)

106007 @ 무명이면 뭣꽈? 광목을 무명? 광목을 무멩이렌 헙니까?(무명이면 뭡니까? 광목을 무명? 광목을 무명이라고 합니까?)

106007 #1 뭐? 몰라. 모멘, 모멘.(몰라. 무명, 무명.)

106007 @ 모멘, 모멘.(무명, 무명.)

106007 #1 문멩이 아니고 모멘, 모멘이라 헌 건이. 그 광목 닮은 것ᄀᆞ라 ᄆᆞ멘. 이 저 나이롱 실 아니 든 것이 모멘.(무명. 무명이 아니고 모명, 모명이라 한 거. 그 광목 같은 것보고 무명. 이 저 나일론 실 안 든 것이 무명.)

106007 @ 토목, 생목, 광목?(토목, 생목, 광목?)

106007 #1 토목은 저 그 미녕으로 헌 거. 시거멍헌 것ᄀᆞ라 미녕.(토목은 무명으로 한 거. 새까만 것보고 무명.)

106007 @ 토목은 시거멍.(토목은 새까매.)

106007 #1 미녕이 시꺼멍혜여.(무명이 새까매.)

106007 @ 생목은?(생목은?)

106007 #1 생목은 희지.(생목은 희지.)

106007 @ 광목도 닷세미녕? 엿세미녕?(광목도 닷새무명? 엿새무명?)

106007 #1 그런 건 안 봐봔.(그런 건 안 봐봤어.)

106008 @ 미녕으로 어떤 것을 만듭니까?(무명으로 어떤 것을 만듭니까?)

106008 #1 옛날엔 바지도 멘들고 치매도 멘들고 이불안도 허고.(옛날엔 바지도 만들고 치마도 만들고 이불안도 하고.)

106009 @ 이불안도예. 토목으로 뭘 합니까? 시커멍헌 미녕으론 뭘 만듭니까?(이불안도요. 토목으로 뭘 합니까? 시커먼 무명으론 뭘 만듭니까?)

106009 #1 그 시커멍헌 거 우리 안 만들엇어. 옛날 옷 엇인때 그런 거 헷주. 옷 이신 땐. 미녕은 옷 아니. 미녕은이 주로 갈중이 하잖아. 갈중이.(그 시꺼먼 거, 우리 안 만들었어. 옛날 옷 없을 때 그런 거 했지. 옷 있을 땐. 무명은 옷 아니. 무명은 주로 갈중이 많잖아. 갈중이.)

106010 @ 미녕은 주로 갈중이예. 그믄 광목으로 무엇을 만듭니까?(무명은 주로 갈중이요. 그믄 광목으로 무엇을 만듭니까?)

106010 #1 광목으로 뭐 이불안도 허고, ᄇᆞ선도 만들고, 또 무싱거 감 멕이는 갈옷도 허고.(광목으로 뭐 이불안도 하고, 버선도 만들고, 또 뭐 감 먹이는 갈옷도 하고.)

106010 @ 광목으로예?(광목으로요?)

106010 #1 여러 가지 해여.(여러 가지 해.)

106011 @ 홍세미녕에 대헤서 말씀헤 주십시오.('홍세미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6011 #1 홍세미녕은 결혼헐 때.('홍세미녕'은 결혼할 때)

106011 @ 좋은 거예?(좋은 거요?)

106011 #1 ᄋᆞ.(응)

106014 @ 붉은 색깔이 홍세미녕이꽈?(좋은 거요? 붉은 색깔이 '홍세무명'입니까?)

106011 #1 아니야, 그냥 미녕.(아니야, 그냥 무명.)

106012 @ 좋은 거예. 멘네 농시에 대헤서 말씀헤 주십시오. 멘네용시?(좋은 거요. 목화 농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면화농사?)

106012 #1 멘네 허는 거 몰라.(무명 하는 거 몰라.)

106012 @ 아, 이쪽은 아예 안헷수과?(아, 이쪽은 아예 안했습니까?)

106012 #1 안헤연. 안헤연.(안했어. 안했어.)

106012 @ 아아.(아아.)

106012 #1 거 저 웃드리 사람덜이나 허주. 여기 옛날엔 애기, 뚤 풀젠 허민 멘넬 갈아.(면화하는 거 몰라. 안했어. 거 저 '웃드리' 사람들이나 하지. 옛날은 딸 팔려고 하면 면화 갈아.)

106012 @ 아아.(아아.)

106012 #1 겐디 이제는 솜덜 좋은 거 나와부난 안허여.(그런데 이제는 솜 좋은 거 나와 버리니까 안 해.)

106012 @ 옛날에는 뚤 풀젠 허민.(딸 팔려고 하면.)

106012 #1 뚤 풀젠 허민이. 멘네를이.(딸 팔려고 하면. 면화를.)

106012 @ 예.(예.)

106012 #1 흔 삼년 갈아야.(한 삼년 갈아야.)

106012 @ 삼년 무사 경.(삼년 왜 그렇게.)

106012 #1 거 일일이 그.(그거 일일이.)

106012 @ 이불?(이불?)

106012 #1 응. 이불.(응. 이불.)

106012 @ 이불헹 보내젠예.(이불해서 보내려고요.)

106011 #1 게. 이제는 솜덜이 막 좋은 거 나부난. 거 이불 채 사오잖아. 다 만든 것덜.(그래. 이제는 솜들이 막 좋은 거 나노니까. 거 이불째 사오잖아. 다 만든 것들.)

모시

106013 @ 모시도 들어 봣수과? 모시도 안 만들지예?(모시도 들어 봤습니까? 모시도 안 만들지요?)

106013 #1 여기 안 만들어.(여기 안 만들어.)

106014 @ 모시로 어떤 옷을 만듭니까?(모시로 어떤 옷을 만듭니까?)

106014 #1 뭐 모시로 치마저고리 만들지. 모시도 존 거 잇고, 나쁜 거. 모시는 죽엉 갈 때 안 입어. 베는 입어.(뭐 모시로 치마저고리 만들지. 모시도 좋은 거 있고, 나쁜 거. 모시는 죽어서 갈 때 안 입어. 베는 입어.)

106014 @ 무사 안 입어마씨?(왜 안 입어요?)

106014 #1 거 모시는 입지도 안헤여. 그 모시가 그 관 소곱에 들어가민이.(거 모시는 입지도 않아. 그 모시가 그 관 속에 들어가면.)

106014 @ 예.(예.)

106014 #1 애기 나민 머리가 헤영헌덴.(거 모시는 입지도 않아. 그 모시가 그 관 속에 들어가면 애기 나면 머리가 하얗게 된다고.)

106014 @ 모시가 관 속에 들어가면.(모시가 관 속에 들어가면.)

106014 #1 애기가 머리가 흰덴. 머리가 흰 머리가 많이 나온덴. 그 모시 관에 들어간다면.(애기가 머리가 희여 진다고. 머리가 흰 머리가 많이 나온다고. 그 모시 관에 들어간다면.)

106014 @ 노형에영 똑같이 골암싱게. 이거(노형이랑 똑같이 말하네요.)

106014 #1 어?(어?)

106014 @ 노형에서 똑같이 골읍디다. 제주도 풍습인가 봐.(노형에서 똑같이 말합디다. 제주도 풍습인가 봐.)

106014 #1 ᄋᆞ 그게 모시가 관 소곱엔 안 놔.(응. 그게 모시가 관 속엔 안 놔.)

106014 @ 음.(음.)

106014 #1 애기가 손지가 태어나민이 머리가.(애기가 손지가 태어나면 머리가.)

106014 @ 흰덴?(희여 진다고?)

106014 #1 사시머리가 희뜩희뜩. 거니까 모시는 아이 놓는거. 죽엉 가도 안 입고. 베는 입어도, 베허고 민영은 헤도 모시는 안 헤여.(사시머리가 희뜩희뜩. 거니까 모시는 아이 놓는 거. 죽어서 가도 안 입고. 베는 입어도, 베하고 무명은 해도 모시는 안 해.)

106014 @ 음.(음.)

삼

106016 @ 삼실을 만드는 과정에 대헤서 말씀헤 주십시오. 베 만드는 삼 재배하는 건 모르지예?(삼실을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베 만드는 삼 재배하는 건 모르지요?)

106016 #1 아니 우린 그런 거 봐본 도래 엇다. 건 어디 서촌더레 짜는가? 짜는 디가 잇어.(아니 우린 그런 거 봐본 도리 없다. 건 어디 서촌에 짜는가? 짜는 데가 있어.)

106017 @ 음. 베로 어떤 옷을 만듭니까?(음. 베로 어떤 옷을 만듭니까?)

106017 #1 베로 사람이 죽으민 묶음도 허고, 상제 옷도 허고.(베로 사람이 죽으면 묶음도 하고, 상제 옷도 하고.)

106017 @ 베로예.(베로요.)

106017 #1 그냥 우리가 그냥 베로도 입고, 여름에.(그냥 우리가 그냥 베로도 입고, 여름에.)

106017 @ 여름에예.(여름에요.)

106017 #1 막 건더웁잖아.(막 시원하잖아.)

106017 @ 무사 여름에, 이렇게 베옷을 입어시코예?(왜 여름에, 이렇게 베옷을 입었을까요?)

106017 #1 궁기가 좋아노니까 막 ᄇᆞ름 들고, 똠도 안 부트고.(구멍이 좋으니까 막 바람 들고, 땀도 안 붙고)

106017 @ 겨울에는 춥잖아?(겨울에는 춥잖아?)

106017 #1 추워. 못 입어. 여름에만 입어.(추워. 못 입어. 여름에만 입어.)

106017 @ 상제들은 겨울에도 입음니께.(상제들은 겨울에도 입습니다.)

106017 #1 상제는 거, 사람 죽으민 ᄒᆞᆯ 수 엇이 입는 거주. 소곱에 막 뜻게 입엇네.(상제는 거, 사람 죽으면 할 수 없이 입는 거지. 속에 막 따뜻하게 입었네.)

106017 @ 무사 베옷을 입어신고예?(왜 베옷을 입었는가요?)

106017 #1 옛날은 그거 주로 또 옛날은이 그랑그랑 머리에도 그랑그랑허곡이. 옷도 막 그랑 그랑 헌디, 이제는 그축 안 헤. 깨끗헌 옷덜 입져.(옛날은 그거 주로 또 옛날은 너덜너덜, 머리에도 너덜너덜하고, 옷도 막 너덜너덜 한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해. 깨끗한 옷들 입혀.)

도구

106019 @ 씨아, 물레, 베클 들어봐수과?(씨아 물레 베틀 들어봤습니까?)

106019 #1 그런 거 우린 안 헌다게. 이레 사름덜 그런 거 봐보지도 안허고 헤보지도 안허고.(그런 거 우린 안한다. 여기 사름들 그런 거 봐보지도 안하고 해보지도 안하고.)

바느질

106022 @ 바농질 도구에 대헤서 말씀헤 주십시오.(바느질 도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6022 #1 거 옛날이주. 이제 바농질 허는 사름 어딧나?(거 옛날이지. 이제 바느질 하는 사람 어디 있나?)

106022 @ 옛날, 바농상지에?(옛날, 바늘쌈지에?)

106022 #1 바농쌈지에, 바농상지?(바늘쌈지에, 바늘쌈지?)

106022 @ 바농상지?(바늘쌈지?)

106022 #1 바농상지 시집가젠 허민.(바늘쌈지 시집가려고 하면.)

106022 @ 시집가젠 허민.(시집가려고 하면.)

106022 #1 바농상지 아졍가고 가위허고 실허고 그 머리턱이.(바늘쌈지 가져가고 가위하고 실하고 그 머리털.)

106022 @ 머리턱.(머리털.)

106022 #1 이만이 헌 거, 헤근에 기지에 만들앙 바농 영헹 꼿주와. 경허민 절대 바농 ᄇᆞ미지 안 헤.(이만큼 한 거, 해서 기지에 만들어서 바늘 이렇게 해서 꽂아. 그렇게 하면 절대 바늘 녹슬지 않아.)

106022 @ 아아.(아아.)

106022 #1 머리턱, 요새 뭐 빠마허는디 가민 머리덜, 진머리 허잖아. 그런 거 붕가당은에 감앙은에 만들민 이 바농 ᄇᆞ미질 안허여.(머리털, 요새 뭐 파마하는데 가면 머리들, 긴 머리 많잖아. 그런 거 주워다가 감아서 만들면 이 바늘 녹슬지 않아.)

106023 @ 바농질 방법에 대헤서 말씀헤 주십시오. 홈질도 잇고 박음질도 잇고.(바느질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홈질도 있고 박음질도 있고.)

106023 #1 영영영 저 시끄는 바농? ᄋᆞ만썩헌 거.(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시치는 바늘? 요만한 거.)

106023 @ 휘감기도 잇고.(휘감기도 있고.)

106023 #1 건 모르는데. 만약에 사람이 죽으민 복옷이 있어. 거 허젠 허면 그렁 거 중간, 중간 실로 안헹 요만씩헌 바농으로 꼭꼭 찔러. 걸로 헤난 다음 ᄯᅳ시 빠 뒁은에 또 다른 걸로 허영.(건 모르는데. 만약에 사람이 죽으면 상옷이 있어. 거 하려고 하면 그런 거 중간, 중간 실로 안 해서 요만한 바늘로 꼭꼭 찔러. 걸로 해난 다음 또 빼두고서 또 다른 걸로 해서.)

106023 @ 아, ᄆᆞ작 짓지 안 헹?(아, 매듭 만들지 안 해서?)

106023 #1 응. 모작 안 졍 그냥 꼭꼭꼭꼭 찔렁. 거민 이 허게 뒈민 헤난 다음 또 다 빠잖아.(응. 매듭 안 져서 그냥 꼭꼭꼭꼭 찔러서. 그러면 하게 되면 한 다음 또 다 빼잖아.)

106023 @ 아. 경허젠.(아. 그렇게 하려고.)

106023 #1 음. 경 허는 거. 그 실로 안 헤영. 쉬웁주게.(음. 그렇게 하는 거. 그 실로 안 해서. 쉽지.)

106023 @ 아.(아.)

106023 #1 그걸로 꼭꼭 찔르잖아. 실로 안 헤영. 쉽주게. 영 꼭꼭 찔러부니까.(그걸로 꼭꼭 찌르잖아. 실로 안 해서. 쉽지. 이렇게 꼭꼭 찔러버리니까.)

106023 @ 음.(음.)

옷 종류

106024 @ 남자 옷의 종류는 뭐가 잇수과?(남자 옷의 종류는 뭐가 있습니까?)
106024 #1 바지, 저고리, 쪼게.(바지, 저고리, 조끼.)
106025 @ 여자 옷의 종류에 대헤서 말씀헤 주십시오.(여자 옷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6025 #1 치마저고리, 마고자 안허고 두루마기나 허고 마고지 입엉 뎅기는 사람 엇어. 이 동네에.(치마저고리, 마고자 안하고 두루마기나 하고 마고자 입어서 다니는 사람 없어. 이 동네에.)
106026 @ 흐흐흐흐. 아이 옷은?(흐흐흐흐. 아이 옷은?)
106026 #1 아이 옷은 그런 거 입지는 거 안 봐봇져. 우리.(아이 옷은 그런 거 입히는 거 안 봐봤어. 우리.)
106026 @ 똑같아예.(똑같아요.)
106028 @ 바지, 저고리, 치마, 보선?(바지, 저고리, 치마, 보선?)
106028 #1 거 옛날이주 허도 안해여.(거 옛날이지. 하지도 않아.)
106029 @ 단추는 ᄆᆞ작단추 단추?(단추는 매듭단추? 단추?)
106029 #1 그런 건 아무나 못허여.(그런 건 아무나 못해.)
106029 @ ᄆᆞ작단추?(매듭단추.)
106029 #1 아무나 못헌다고.(아무나 못한다고.)
106029 @ 아아.(아아.)
106029 #1 바농질왓디도 ᄆᆞ작단추 못허는 건 못허여.(바느질 밭에도 매듭단추 못하는 건 못해.)
106029 @ 아아.(아아.)
106029 #1 거 물건장시 오미자는 잘헤여.(거 물건장수 오미자는 잘해.)
106029 @ 아아.(아아.)

재단과 염색

106031 @ 염색에 대헤서 말씀헤 주십시오.(염색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6031 #1 그런 거 염색 여기선 안 헤여.(그런 거 염색 여기선 안 해.)

신발

106032 @ 신의 종류에 대헤서 말씀헤 주십시오.(신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6032 #1 옛날엔 짚신허고 남신허고.(옛날엔 짚신하고 남신하고.)
106032 #2 찝신, 나막신, 나막신이 비올 때 많이 썻고.(짚신, 나막신, 나막신은 비올 때 많이 썼고,)
106032 @ 예.(예.)

106032 #2 일제시대, 왜정시대엔 우리 저 게다를 많이 신엇어.(일제시대, 왜정시대엔 우리 저 게다를 많이 신었어.)

106033 @ 게다렌 헷구나예. 가죽신은 만들어 봣수과?('게다'라고 했군요. 가죽신은 만들어 봤습니까?)

106033 #2 안 만들어봔. 가죽신은 사농허는 사름덜이나.(안 만들어 봤어. 가죽신은 사냥하는 사름들이나.)

106034 @ 남신.(나막신.)

106034 #1 나무로 만든 신이 잇어. 비올 때 눈 올 때.(나무로 만든 신이 있어. 비올 때 눈 올 때)

106034 @ 누구 만들어낫수과?(누구 만들었었습니까?)

106034 #1 그런 걸로 만들앙 우리도 어릴 때 신어나서.(그런 걸로 만들어서 우리도 어릴 때 신어나서.)

106034 @ 돈 주고 사야?(돈 주고 사야?)

106034 #1 사당 풀아. 비오곡 이 눈와가믄 그거 신어.(사다가 팔아. 비오고 눈 와가면 그거 신어.)

106034 @ 남자가 어서부난 초신도 사당신고?(남자가 없어버리니까 짚신도 사다신고?)

106034 #1 어, 조천장에 가믄 막 풀아.(어, 조천장에 가면 막 팔아.)

106034 @ 조천장예?(조천장이요?)

106034 #1 오일장.(오일장.)

106034 @ 메칠.(며칠.)

106034 #1 이젠 없어져 불엇어.(이젠 없어져 버렸어.)

106034 @ 메칠.(며칠.)

106034 #1 거, 없어지건디 흔 오십년도 넘어실 거라. 조천장 엇인 디가.(거, 없어진지가 한 오십년도 넘었을 거라. 조천장 없어진지가.)

106034 @ 지금은 이에 오에 오일장?(지금은 이에 오에 오일장?)

106034 #1 함덕허고 제주시허고 그디나 베낀 엇어. 함덕은 잇어.(함덕하고 제주시하고 거기나 밖엔 없어. 함덕은 있어.)

106034 @ 짚신 종류도.(짚신 종류도.)

106034 #1 우리 옛날엔 조리도 삼앙 신어낫다.(우리 옛날엔 조리도 삼아서 신었었다.)

106034 @ 나막신을 만드는 거는 아버지도 만들엇수과?(나막신을 만드는 거는 아버지도 만들었습니까?)

106034 #2 아니 것도 기술자 아니민 안 뒈여.(아니 것도 기술자 아니면 안 돼.)

106034 @ 신촌에 잇엇수과?(신촌에 있었습니까?)

106034 #2 아, 연장도 잇고, 그 나막신을 만들라면 그 곡쉐옌 헌 것이 저 어려와.(아, 연장도 있고, 그 나막신을 만들라면 그 호비칼이라고 한 것이 저 어려워.)

106034 @ 곡쉐가 필요허구나?(호비칼이 필요하구나?)

106034 #2 어, 그 남을 글거내젠 허민.(어, 그 남을 긁어내려고 하면.)

106034 @ 신촌에 그런 거 허는 거 봐봣수과?(신촌에 그런 거 허는 거 봐봤습니까?)

106034 #2 난 보도 못헷어.(난 보지도 못했어.)

106034 @ 누구 잘하는 사람 이신 것도 모르고?(누구 잘하는 사람 있는 것도 모르고?)

106034 #2 모르고.(모르고.)

106034 @ 신어봣수과?)(신어봤습니까?)

106034 #2 난 신어보도 안허고.(난 신어보지도 안하고.)

106034 @ 나막신을 만드는 건?(나막신을 만드는 건?)

106034 #2 신엉 댕기는 건 나 봣지. 만드는 건.(신어서 다니는 건 나 봤지. 만드는 건.)

106035 @ 짚신을 만드는 과정?(짚신을 만드는 과정?)

106035 #2 짚신은 나도 만들엇어.(짚신은 나도 만들었어.)

106035 @ 어떻게 만들어마씨?(어떻게 만들어요?)

106035 #2 옛날은 노가 어려우니까 어욱에 미를 따다가 그거를 이렇게 꼬아가지고 놀[113]을 하고, 신 허리에 이렇게 차가지고 발에 영 끼어서 짚신을 만들앗는데 거 깍 내곡. 나도 그건 많이 헷어.(옛날은 노가 어려우니까 억새에 미를 따다가 그거를 이렇게 꼬아가지고 날을 하고, 신 허리에 이렇게 차가지고 발에 영 끼어서 짚신을 만들었는데 거 총 내고. 나도 그건 많이 했어.)

106035 @ 누구안테 배워수과? 아버지?(누구한테 배웠습니까? 아버지?)

106035 #2 그렇지. 어른들허고 아버지안테 배워야지.(그렇지. 어른들하고 아버지한테 배워야지.)

106035 @ 남자가 엇이믄 짚신도 사당 써야 뒈는데예.(남자가 없으면 짚신도 사다가 써야 되는데요.)

106035 #2 그렇주.(그렇지.)

106035 @ 어렵지 안헤마씨? 멫 시간 걸려마씨?(어렵지 않아요? 몇 시간 걸려요?)

106035 #2 하루허민 두 컬레도 맹글 수 잇고 세 컬레도 멘들 수 잇고.(하루하면 두 켤레도 만들 수 있고 세 켤레도 만들 수 있고.)

106035 @ 짚신 종류는? 뭐 깍신도 잇고.(짚신 종류는? 뭐 '깍신'도 있고.)

106035 #2 전부 깍이 다 들어가야 짚신이 뒈여.(전부 총이 다 들어가야 짚신이 돼.)

106035 #2 그게 나도 찝신은 만들어봣는데, 짚신은 그자 막 신는 신은 주로 나록찝허고 칙허고, 미허고, 그거 잇어야 뒈여. 그니까 거 깍을 내야 뒈여. 그 ᄋᆞ피 이렇게 허는 건 깍이여, 깍, 깍이라 허여. 그 찝신은 이제도 나가 만들라믄 만들 수 잇어.(그게 나도 짚신은 만들어 봤는데, 짚신은 그자 막 신는 신은 주로 볏짚하고 칡하고, 미하고, 그거 있어야 돼. 그러니까 거 총을 내야 돼. 그 옆에 이렇게 허는 건 총이야. 총, 총이라

113) '놀'은 짚신을 삼을 때 짚신의 바닥에다 신의 근간을 이루도록 길게 놓은 굵은 줄을 말한다.

해. 그 짚신은 이제도 나가 만들려면 만들 수 있어.)

106035 @ 찝신을 고운 걸 깍신이렌 헷수과?(짚신을 고운 걸 '깍신'이라고 했습니까?)

106035 #2 어, 그 깍이 고와야. 막 염색도 ᄒᆞ고, 곱게 허민 바로 새각시 신ᄀᆞ치 곱게 만드는 사름이 이섯서.(어, 그 총이 고와야. 막 염색도 하고, 곱게 하면 바로 새색시 신 같이 곱게 만드는 사람이 있었어.)

106035 @ 염색은 뭘로 헙니까?(염색은 뭐로 합니까?)

106035 #2 색깔, 물론 사당 헷겟지. 그러니까 빗깔 곱게 헤가지고 깍을 곱게 허민 이렇게 쪼르르르 헌 거는 쪽 빼여가지고 옆으로 짝 두줄로 싸민 보기 막 고운 신.(색깔, 물론 사다가 했겠지. 그러니까 빗깔 곱게 해가지고 총을 곱게 하면 이렇게 쪼르르르 한 거는 쪽 빼가지고 옆으로 짝 두 줄로 싸면 보기 막 고운 신.)

106035 @ 고운 신도 만들어봣수과?(고운 신도 만들어봤습니까?)

106035 #2 그런 건 안 헤봔.(그런 건 안 해봤어.)

106035 @ 그런 건 안 헤보고, 초신?(그런 건 안 해보고, 짚신?)

106035 #2 초신게.(짚신.)

106035 @ 초신 쉬운 걸로?(짚신 쉬운 걸로?)

106035 #2 응. 우리가 한창 어렷을 적에는 한 열두어 서너 술 뒈니까 아버지가 초신 삼으면 ᄒᆞ루에 끈어버려. 막 돌아다니니까. 겐디이 나가 자라나서는 그 초신을 내가 만드니까 곱게도 만들지 못허고, 사름이 재주가 신건지 곱게 만드는 사람은 상당히 곱게 만드는데 그래도 그 저 이런 헝겊 끄트머리로 허믄 쪼끔 오래 가.(응. 우리가 한창 어렸을 적에는 한 열두어 서너 살 되니까 아버지가 초신 삼으면 하루에 끊어버려. 막 돌아다니니까. 그런데 나가 자라나서는 그 짚신을 내가 만드니까 곱게도 만들지 못하고, 사름이 재주가 있는 건지 곱게 만드는 사람은 상당히 곱게 만드는데 그래도 그 저 이런 헝겊 끄트머리로 하면 조금 오래 가.)

106036 @ 짚신의 종류에 대헤서 말씀헤 주십시오. 짚신 종류도 조리도 잇고?(짚신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짚신 종류도 조리도 있고?)

106036 #1 조리는 일본 놈덜 삼앙 허는 거, 우리도 옛날엔 일제 때 ᄒᆞᆨ생 때 조리 삼앙 신어낫다.(조리는 일본 놈들 삼아서 하는 거, 우리도 옛날엔 일제 때 학생 때 조리 삼아서 신었었다.)

106036 @ 초신, 찍신, 또 좋은 거는 깍신?(초신, 짚신, 또 좋은 거는 '깍신'?)

106036 #1 짚신이 초신이주게. 그 놈이 덕석이 멍석이여. 멍석이 덕석이고.(짚신이 짚신이지. 그 놈이 덕석이 멍석이야. 멍석이 덕석이고.)

106036 @ 깍신?(깍신?)

106036 #1 깍신은 아주 즘진즘진허게 헌거 초신은 홁게, 홁게 헌 거, 깍신은이 즘진즘진허게 만드는 거고, 찝신는 홁게, 홁게 헌 거.('깍신'은 아주 자디잘게 한 거 짚신은 굵게, 굵게 한 거, '깍신'은 자디잘게 만드는 거고, 짚신은 굵게, 굵게 한 거.)

106036 @ 결혼 헐 때 그 신은?(결혼 할 때 그 신은?)

106036 #1 거게 깍신, 옛날은 그런 거 신엉 시집갓주. 막 고와 그게, 즘진즘진허게.(거 '깍신', 옛날은 그런 거 신어서 시집갔지. 막 고와 그게, 자디잘게.)

106036 @ 건 더 비싸겟다예?(건 더 비싸겠네요?)

106036 #1 비싸지.(비싸지.)

모자 등

106037 @ 모자의 종류에 대헤서 말씀헤 주십시오.(모자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6037 #1 모자 종륜 나가 알게 뭐냐.(모자 종륜 나가 알게 뭐냐.)

106037 @ 모자의 종류? 여름모자 겨울 모자 양태? 뭐 다른 게 이수과?(모자의 종류? 여름모자 겨울 모자 양태, 뭐 다른 게 있습니까?)

106037 #2 거난 밀짚모자. 밀대가 잇어. 밀대로 주로 짜는 거 잇어. 밀대로 많이 헷고 그 후에는 또 이제 저 뭐 줄고빗대, 줄고빗대로 많이 만들엇고.(그러니까 밀짚모자. 밀대가 있어. 밀대로 주로 짜는 거 있어. 밀대로 많이 했고 그 후에는 또 이제 저 뭐 '줄고빗대', '줄고빗대'로 많이 만들었고.)

106037 #2 밀낭페렝이나 이 촌에서 만들엇지. 다른 모자는 만들어보질 못허고.(밀짚모자나 이 촌에서 만들었지. 다른 모자는 만들어보질 못하고.)

106037 @ 정동모자도 잇수게?(정동모자도 있지요?)

106037 #2 칙으로 헌 거? 그런 거 허는 거 난 안 봣어.(칡으로 한 거? 그런 거 하는 거 난 안 봤어.)

106037 @ 어머니가 양태 헷엇고?(어머니가 양태 했었고?)

106037 #2 양태는 어머니가 많이 헷엇지.(양태는 어머니가 많이 했었지.)

106037 @ 총모자 탕 건, 망건 이런 거는?(총모자 탕건, 망건 이런 거는?)

106037 #2 탕건도 보고 갓도 보고 다 헷주만은 탕건 허는 건 보고, 양태 허는 것만 봣지. 다른 건 아이 봣어.(탕건도 보고 갓도 보고 다 했지만 탕건 하는 건 보고, 양태 하는 것만 봤지. 다른 건 안 봤어.)

106037 @ 이 신촌은 탕건입디다예.(이 신촌은 탕건입디다.)

106037 #2 양태허고 탕건.(양태하고 탕건.)

106037 @ 부인도 허고.(부인도 하고.)

106037 #2 아니, 부인은 안허고.(아니, 부인은 안하고.)

106038 @ 밀랑패랭이허고.(밀짚모자하고.)

106038 #1 패랭이사 뭐.(패랭이야 뭐.)

106038 @ 패랭이는 뭘로 만들엇수과?(패랭이는 뭐로 만들었습니까?)

106038 #1 그거는 보릿낭으로 만들엇주.(거는 보릿대로 만들었지.)

106038 @ 옛날은 밀낭으로도 만들엇덴 헙디다.(옛날은 밀대로도 만들었다고 합디다.)

106038 #1 옛날에도 보리낭 헤. 맥주맥 해난 거, 맥주맥 낭이나벳긔 솔오리 낭은 끊어져 불어. 맥주맥허고 밀낭.(옛날에도 보릿대 해. 맥주 맥 했던 거, 맥주 맥 대밖에 '살보릿대'는 끊어져 버려. 맥주맥하고 밀대.)

106038 @ 밀낭이 더 좋아?(밀대가 더 좋아?)

106038 #1 막 질겨. 맥주 맥보다 밀낭이 질겨. 자이네 아방 산 때 막 잘헤여 그 모자. 고와. 곱게 헤여. 다 행 쪙 가시난 친구안티 뺏견, 거 메칠 멧날 짠에 헌걸 강. 에이고 춤말, 아 무사 줫덴 허난 빼앗이는 걸 어떵 잘도 곱게 헤선게.(막 질겨. 맥주 맥보다 밀대가 질겨. 쟤네 아버지 산 때 막 잘해. 그 모자. 고와. 곱게 해. 다 해서 쓰고 가니까 친구한테 뺏겨서 거 며칠 몇날 짜서 한 걸 가서. 에이고 참말, 아, 왜 줬냐고 하니까 빼앗는 걸 어떻게. 잘도 곱게 했는데.)

106039 @ 겨울 모자에 대헤서 말씀헤 주십시오.(겨울 모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6039 #1 겨울 모잔 난 모른다.(겨울 모잔 난 모른다.)

106040 @ 양태 겯기에 대헤서 말씀헤 주십시오.(양태 겯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6040 #1 나 탕관벳긔 더헷나?(나 탕건밖에 더했나?)

106040 @ 어머니 허는걸 생각해 가지고.(어머니 하는 걸 생각해서.)

106040 #1 어머니 허는 건 나 몰라. 그때 양테판이옌 헌거 둥글락헌 거? 그런걸로 허는 건 봐낫다.(어머니 하는 건 나 몰라. 그때 양태판이라고 한 거 둥그런 거? 그런 걸로 하는 건 봤었다.)

106040 @ 양테판이 둥글락헌 거예.(양태판이 둥그런 거요.)

106040 #1 난 그런 건 아니 헤낫어. 판이.(난 그런 건 아니 했었어. 판이.)

106040 @ 판?(판?)

106040 #1 판이.(판이.)

106040 @ 양테판이?('양태판이'?)

106040 @ 이거는 뭘로 만든 거꽈 대낭?(이거는 뭘로 만든 겁니까? 대나무?)

106040 #1 대라. 대. 대로이 저 육지서 들어와. 들어오민 이만씩 헌 통낭이라. 우리 어머니네 허는 거 보민 이 ᄆᆞ디ᄆᆞ디 쌍 허는 거. ᄆᆞ디가 잇어. 거 싸가지고 칼로 딱딱딱 벌르데. 벌러근에 솖아. 대를. 솖아가지고 뒈지 먹는 구정물 통에 이것에 ᄃᆞᆼ갓다가 꺼내연에 막 달릅데. 대칼로. 경헨에 허는 거 봐낫주.(이거는 뭐로 만든 겁과? 대낭?(대라. 대. 대로 저 육지서 들어와. 들어오면 이만큼씩 헌 통나무이라. 우리 머니네 하는 거 보면 이 마디마디 잘라서 하는 거. 마디가 있어. 거 싸가지고 칼로 딱딱딱 자르대. 잘라서 삶아. 대를. 삶아가지고 돼지 먹는 구정물 통에 이것에 담갔다가 꺼내서 막 다루대. 대칼로. 그렇게 해서 하는 거 봤었지.)

106040 @ 막 힘들주예?(막 힘들지요?)

106040 #1 막 힘들어. 그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막 이렇게 헤가지고 무릎장이옌 헌 쉐가죽으로 만든 게 잇어. 그걸로 막 쫙쫙 늘루완. 쫙쫙쫙쫙 막 늘롸근에 헤영 ᄆᆞᆫ딱

헤근에 즘질게 잘도 허더라 우리 어머님넨. 칼로 이 영영영영 허는 거 봣주. 영영영영 헤놘 말젠 영헨 찍찍 찍찍 헤가난이 즘질게 막 나완게. 거. 난 안헌디 어멍 허는 거 봔.(막 힘들어. 그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무릎장이라고 한 소가 죽으로 만든 게 있어. 그걸로 막 쫙쫙 늘려서. 쫙쫙쫙쫙 막 늘려서 해서는 모두해서 잘게 잘 하더라. 우리 어머님넨. 칼로 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봤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두고 나중엔 이렇게 해서 찍찍 찍찍 해가니까 잘게 막 나왔어. 거. 난 안했는데 어머니 하는 거 봤어.)

106040 #1 탐라문화제 헐 때 할머니가 아직 살아계셔예.(탐라문화제 할 때 할머니가 아직 살아계셔요.)

106040 #1 이제 살아?(이제 살아?)

106040 @ 똘덜안티 물려줜예.(딸들한테 물려줬어요.)

106040 #1 아니.(아니.)

106040 @ 탐라문화제에 나와.(탐라문화제에 나와.)

106040 #1 탕건만 헤여. 우리 어머님은 허여.(탕건만 해. 우리 어머님은 해.)

106040 @ 삼양이영 어디여 지정뒌 나완.(삼양이랑 어디여 지정된 나왔어.)

106040 #1 양태는 이 삼영, 탕관은 신촌, 멩긴은 조천.(양태는 이 삼영, 탕건은 신촌, 망건은 조천.)

106040 @ 조천.(조천.)

106040 #1 다 동네가 뜰려. 여기는 탕간, 조천은 멩긴. 삼양은 양태.(다 동네가 틀려. 여기는 탕건, 조천은 망건. 삼양은 양태.)

106040 @ 어머니는 양태하거나 망건 안헤수과?(어머니는 양태하거나 망건 안했습니까?)

106040 #2 양태만 헷지.(양태만 했지.)

106040 @ 어머니가?(어머니가?)

106040 #2 응.(응.)

106040 @ 무사 신촌은 양태를 많이 헤신고예?(왜 신촌은 양태를 많이 했는가요?)

106040 #2 그렇지. 양태를 허다가 나중에 탕건덜토 헷주만은 이 양태를 많이 헷어. 저 우리어머닌.(그렇지. 양태를 하다가 나중에 탕건들도 했지만 이 양태를 많이 했어. 저 우리어머닌.)

106040 @ 망건청도 잇고 그거 만드는 거 봐봣수과?(망건청도 있고 그거 만드는 거 봐봤습니까?)

106040 #2 응.(응.)

106040 @ 어머니는 안헷수과?(어머니는 안했습니까?)

106040 #2 망건은 아니헷고 양태만 허는 거 봣어.(망건은 아니했고 양태만 하는 거 봤어.)

106040 @ 양태는 뭘로 만드는지 알아마씨?(양태는 뭐로 만드는지 알아요?)

106040 #2 대로.(대로.)

106040 @ 왕대꽈, 거?(왕대입니까, 거?)

106040 #2 왕대라도 아주 좋은 대 뽑아야 뒈, 양태허는 거.(왕대라도 아주 좋은 대 뽑아야 돼. 양태하는 거.)

106040 @ 보통일이 아닙디다예. 신촌은 양태가 유명허구나.(보통일이 아닙디다. 신촌은 양태가 유명하구나.)

106040 #2 탕건도 많이 허곡.(탕건도 많이 하고.)

106041 @ 총모자는?(총모자는?)

106041 #1 총모제도 그거 어디서 나와신지 모르커라. 총모제는 못 보고. 탕간허는 건.(총모자도 그거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다. 총모자는 못 보고. 탕건하는 건.)

106041 @ 총모자는 잘 모르쿠과?(총모자는 잘 모르겠습니까?)

106041 #1 거 서촌사름 알 거라.(거 서촌사람 알 거라.)

106041 @ 총모자는?(총모자는?)

106041 #1 거 무시거 것ᄀᆞ라 무신 탕관 꼴 닮은 거 무싱거옌 ᄀᆞᆯ아라마는. 우리가 보건 디는 거 정짓방석으로 ᄀᆞᆯ앙 앚는, 집이도 셔라. 나도 탕관 꼴이 흔 서너개 이서신디 어디사 가신디. 아메도 누게 빌려줜 잊어불엇네.(거 뭐 것보고 무슨 탕건 골 닮은 거 뭐라고 말하더라만. 우리가 보기에는 거 부엌방석으로 깔아서 앉는, 집에도 있더라. 나도 탕건 골이 한 서너 개 있었는데 어디로 갔는지. 아마도 누구 빌려줘서 잊어버렸네.)

106041 @ 흔번 춪아봅서. 게도예.(한번 찾아보세요. 그래도요.)

106041 #1 어디간 허단? 잊어 불언. 이거 멧 해냐? 애기 낳기 전에 빌려줘부난. 그 사름도 엇일 거라. 다 죽어불엇주 무신.(어디 가서 하다가? 잊어버렸어. 이거 몇 해냐? 애기 낳기 전에 빌려줘 버리니까. 그 사람도 없을 거라. 다 죽어버렸지. 무슨.)

106041 @ 음.(음.)

106041 #1 탕간게 빌리렌 헹게 이녁 안헤지난 내 불언 시집오젠, 일러분 거라.(탕건도 빌리라고 하던데 이녁 안해지니까 내버려서 시집오젠, 잃어버린 거라.)

106041 @ 도롱이가 뭐꽈? 도롱이. 도롱이가 우장은 아니지예?(도롱이가 뭡니까? 도롱이. 도롱이가 우장은 아니지요?)

106041 #1 어?(어?)

106041 @ 도롱이가 우장?('도롱이'가 우장?)

106041 #1 몰라. 우장은 새로 만든 거지.(몰라. 우장은 새로 만든 거지.)

106041 @ 예. 도롱이는 우장 아닌가?(예. '도롱이'는 우장 아닌가?)

106041 #1 우장이옌 허메 그거 새로 만든 거. 거 비온 때 씌곡, 눈 올 땐 영 헤근에 허곡 이런디 가죽 모저 씨곡.(우장이라고 해. 그거 새로 만든 거. 거 비온 때 쓰고, 눈 올 땐 이렇게 해서 하고 이런데 가죽 모자 쓰고.)

106042 @ 탕건허는 디 뭐가 필요헤마씨? 틀이?(탕건 하는데 뭐가 필요해요? 틀이?)

106042 #1 탕관 꼴[114].(탕건 골.)

114) '탕건 꼴'은 탕건을 결을 때 쓰는 연장의 한 가지로 탕건 모양의 테두리를 잡는 나무로 만들어진 틀이며 위아래로 나뉘어졌다.

106042 @ 탕건 골로?(탕건 골로?)

106042 #1 골로. 탕관 꼴이 이서야 허지. 탕관 꼴 엇엉은 허지도 못헌다. 그게 이 탕관도 여러 찔이라. 홁은탕관, 중탕관, 좀진 탕관, 세 개라. 우린 좀진 것만 헤연. 비싼 건만.(골로. 탕건 꼴이 있어야 하지. 탕건 꼴 없어서는 하지도 못한다. 그게 이 탕건도 여러 질이라. 굵은 탕건, 중탕건, 가는 탕건, 세 개라. 우린 가는 것만 해서. 비싼 거만.)

106042 @ 그믄 말꼬리로?(그러면 말꼬리로?)

106042 #1 물총.(말총.)

106042 @ 말총은 어디서 사완마씨?(말총은 어디서 사와요?)

106042 #1 일본서 들어와.(일본서 들어와.)

106042 @ 오일장에서 사는 거라? 누가?(오일장에서 사는 거라? 누가?)

106042 #1 응, 오일장에덜 풀레 와. 일본서 왕. 일본서 온건 이 이만썩 질곡이, 제줏말에 껀이 줄아.(응, 오일장에 팔러 와. 일본서 와서. 일본서 온건 이 이만큼씩 길고, 제주 말에 껀 잘아.)

106042 @ 게믄 도대체 그걸 얼마에 사당 얼마에 픈는 거꽈 만들엉.(그러면 도대체 그걸 얼마에 사다가 얼마에 파는 겁니까? 만들어서.)

106042 #1 아이구, 내가 아냐, 막 오래여부니까.(아이구, 내가 아냐, 막 오래어버리니까.)

106042 @ 그걸 누가 그걸 사당 씁니까? 양반덜?(그걸 누가 그렇게 사다가 씁니까? 양반들?)

106042 #1 조천장에 강 풀아.(조천 장에 가서 팔아.)

106042 @ 게민 그거를.(그러면 그거를.)

106042 #1 그거 사가는 사름이 잇어. 그거 사가면은 이, 육지더레 보내여. 그 양태 중상이 사가. 양태사당 픈는 사름이 탕간도 사가.(조천 장에 가서 팔아. 그거 사가는 사람이 있어. 그거 사가면 이, 육지에 보내. 양태 사다가 파는 사람이 탕건도 사가.)

106042 @ 음.(음.)

106042 #1 탕간도 여러질이주게. 우리는 막 비싼 것벳긔 안허여. 좀진 탕건.(탕간도 여러 질이지. 우리는 막 비싼 것 밖에 안 해. 가는 탕건.)

106042 @ 사일 걸린덴 헷지예?(사일 걸린다고 했지요?)

106042 #1 오일.(오일.)

106042 @ 오일 걸려.(오일 걸려.)

106042 #1 오일 걸엉, 게난 밤의끄지 허영 오일이지.(오일 걸려서, 그러니까 밤에까지 해서 오일이지.)

106042 @ 음.(음.)

106042 #1 밤인 붉두룩 헌다 붉두룩.(밤엔 밝도룩 한다 밝도록.)

106042 @ 어휴.(어휴.)

106042 #1 게믄 그냥 꼬딱꼬딱꼬딱꼬딱.(그러면 그냥 꼬딱꼬딱꼬딱꼬딱.)

106042 @ 졸기도 허곡.(졸기도 하고.)

106042 #1 게. 밤인 즘 안 자난게.(그래. 밤엔 잠 안 자니까.)

106042 @ 그때는 뭐 먹으멍이라도 헙니까? 고구마라도.(그때는 뭐 먹으면서라도 합니까? 고구마라도.)

106042 #1 에구, 먹기는 무시거 먹을 말이냐게.(에구, 먹기는 무슨 먹을 말이냐.)

106042 @ 여러 명이 잇어부난예. 그런 것도.(여러 명이 있어버리니까요. 그런 것도.)

106042 #1 겐디 탕간 허젠 허민이 어멍이 밥상꼬지 전부 헤당 멕여. 거디 가난 거민 탕관허라 허는 거. 요디 가는 새에 탕관 멧 개 걸릴 거니까.(그런데 탕건 하려고하면 어머니가 밥상까지 전부 해다가 먹여. 거기 가니까 그러면 탕건하라 하는 거. 요기 가는 사이에 탕건 몇 개 걸릴 거니까.)

106042 @ 아이구, 밥 차려당 주는구나예.(아이구, 밥 차려다가 주는군요.)

106042 #1 물도 못 질게 허여. 탕관만 허렌. 아이구, 물이라도 질어보젠 허민 물도 못질게 헨. 탕관만들렌. 에이구, 네미 탕관만 안 헤민 살을 건디.(물도 못 길게 해. 탕건만 하라고. 아이구, 물이라도 길어보려고 하면 물도 못 길게 했어. 탕건 만들라고. 에이구, 네미 탕건만 안 하면 살건데.)

106042 @ 쯧쯧쯧.(쯧쯧쯧.)

106042 #1 얼마나 힘드냐? 거. 탕간만 허렌. 겐 봄 나가민 해방이라. 물에 드니까.(얼마나 힘드냐? 거. 탕건만 하라고. 그래서 봄 나가면 해방이라. 물에 드니까.)

106042 @ 탕건도 바늘이 잇는 거지예?(탕건도 바늘이 있는 거지요?)

106042 #1 바늘로 허지. 탕간바농이 잇어.(바늘로 하지. 탕건바늘이 있어.)

106042 @ 음.(음.)

106042 #1 탕간바농은 귀가이 쪼짝허고이.(탕건바늘은 귀가 '쪼짝'하고.)

106042 @ 아아.(아아.)

106042 #1 옷 허는 바농은 귀가 크잔아.(옷 하는 바늘은 귀가 크잖아.)

106042 @ 아아.(아아.)

106042 #1 총 꿰는 건. 그냥 큰 바농은 총이 자꾸 빠져 불어. 이 눈 쪼끌락헌 거는 잘 안 빠지고.(총 꿰는 건. 그냥 큰 바늘은 총이 자꾸 빠져 버려. 눈 작은 거는 잘 안 빠지고.)

106042 @ 그거 꿰젠 허면 궹장이 눈 벨랑 헤야키여예?(그거 꿰려고 하면 굉장하게 눈 벌려서 해야겠네요?)

106042 #1 아니, 아니. 뀀도 쉬와. 총으로 영 확확 꿰영.(아니, 아니. 뀀도 쉬워. 총으로 이렇게 확확 꿰여서.)

106042 @ 아, 뻐닥뻐닥허난.(아, 뻣뻣하니까.)

106042 #1 응. 확 꿰여 확. 거난 총도 거 뭇는 총은 막 좋은 걸로 뭇아. 서이는 총이 뜻나고 이렇게 우이서 허는 총이 뜻나고 뭇는 총이 뚠나. 두 가지라.(응. 확 꿰여가. 그러니까 총도 거 뭇는 총은 막 좋은 걸로 뭇아. 서이는 총이 다르고 이렇게 위에서 하는 총이 다르고 맺는 총이 달라. 두 가지라.)

106042 @ 아, 위로 이렇게 가는 거랑 옆으로 가는 거랑.(아, 위로 이렇게 가는 거랑

옆으로 가는 거랑.)

106042 #1 그렇지. 경 못는 거는 밀어가민 착착 끈어져. 경 좋은 걸로 헤야.(그렇지. 그렇게 맺는 거는 밀어가면 착착 끊어져. 그렇게 좋은 걸로 해야.)

106042 @ 끊어져 버리면 어떵.(끊어져 버리면 어떻게.)

106042 #1 잣기는 잣아. 우리 탕관도 잘 잣아. 잣이멍 허잔아.(겯기는 결어. 우리 탕건도 잘 결어. 결으면서 하잖아.)

106042 @ 쯧쯧쯧쯧.(쯧쯧쯧쯧.)

106042 #1 거 이 어떵헤근에 아니 끈어지는 탕관은 츰 재수 존 탕관이라. 총이 좋아야.(거 이 어떻게 해서 안 끊어지는 탕건은 참 재수 좋은 탕건이라. 총이 좋아야.)

106042 @ 총이 좋아야.(총이 좋아야.)

106042 #1 총 나쁘민 착착착착.(총 나쁘면 착착착착.)

106042 @ 재료 좋아야예.(재료 좋아야.)

106042 #1 음. 재료 좋아야 일본서 오는 총은 이만썩 질어.(음. 재료 좋아야 일본서 오는 총은 이만큼씩 길어.)

106044 @ 도롱이는 뭐꽈? 우장?(도롱이는 뭡니까? 우장?)

106044 #2 글쎄, 나도.(글쎄, 나도.)

7. 식생활

밥과 국

107001 @ 밥 종류? 밥은 곤밥 보리밥.(밥은 흰밥, 보리밥.)

107001 #1 좁쏠(좁쌀.)

107001 @ 조팝.(조밥.)

107001 @ 콩밥? 풋밥? 녹디밥?(콩밥? 팥밥? 녹두밥?)

107001 #1 다 잇어. 그게.(다 있어. 그게.)

107001 @ 삼촌은 밥 하면 무슨 밥을 먹어난 기억이 남수과?(삼촌은 밥 하면 무슨 밥을 먹어난 기억이 납니까?)

107001 #2 보리밥 조팝 먹어. 많이 먹엇지 뭐.(보리밥, 조밥 먹어. 많이 먹었지 뭐.)

107001 @ 반지기밥?(반지기밥?)

107001 #2 그렇지. 젤 좋은게 통보리쏠밥. 통보리쏠 쏠 서터가지고 허민 최고 맛이 잇어.(그렇지. 제일 좋은 게 통보리쌀밥. 통보리쌀 쌀 섞어가지고 하면 최고 맛이 있어.)

107001 @ 풋밥도 먹어봐수과?(팥밥도 먹어봤습니까?)

107001 #2 풋쌀이 부족허니까 틋으로 서텅 허는 게 틋밥이라게.(팥 쌀이 부족하니까 톳으로 섞어 하는 게 톳밥이라.)

107001 @ 톳밥도 먹어수과?(톳밥도 먹었습니까?)

107001 #2 난 아니 먹어봇어.(난 안 먹어봤어.)
107001 @ 보리밥 헤봇수과?(보리밥 해봤습니까?)
107001 #2 밥은 안 헤보고.(밥은 안 해보고.)
107001 @ 반지기밥은?(반지기 밥은?)
107001 #2 서속. 보리하고 쌀 하고 서트민 반지기지.(서속. 보리하고 쌀 하고 섞으면 반지기지.)
107001 @ 곤밥에 대한 생각?(흰밥에 대한 생각?)
107001 #2 우리 어릴 때 식게칩의 가민 곤밥 얻어 먹을라고 식게칩이 가질 안헷어.(우리 어릴 때 제삿집의 가면 흰밥 얻어먹으려고 제삿집에 가질 안했어.)
107001 @ 삼촌 잘 얻어 먹어집디가?(삼촌 잘 얻어먹어졌습니까?)
107001 #2 그렇지.(그렇지.)
107001 @ 조팝, 풋밥, 피밥, 감제밥, 무밥?(조팝, 팥밥, 피밥, 감자밥, 무밥?)
107001 #2 이 피밥은 나 먹어보지 못허고. 산촌사람이나 피밥 먹엇지. 이 해변사람은 피밥 어려와.(이 피밥은 나 먹어보지 못하고. 산촌사람이나 피밥 먹었지. 이 해변사람은 피밥 어려워.)
107002 @ 밥쌀의 종류?(밥쌀의 종류?)
107002 #1 거 무신 말이라?(거 무슨 말이라?)
107002 @ 밥할 수 잇는 쌀 말하는 건가? 보리쏠, 곤쏠.(밥할 수 있는 쌀 말하는 건가? 보리쌀, 흰쌀.)
107002 #1 보리쏠, 좁쏠, 콩, 팟, ᄆᆞᆯ, 그 옛날에인 해신제 허젠 허민 오곡밥을 헤여.(보리쌀, 좁쌀, 콩, 팥, 메밀, 그 옛날에이 '해신제' 하려고 하면 오곡밥을 해.)
107002 @ 오곡이 뭐꽈?(오곡이 뭡니까?)
107002 #1 쏠이 다숫 가지.(쌀이 다섯 가지.)
107002 @ 응. 어떤 거?(응. 어떤 거?)
107002 #1 보리쏠, 좁쏠, 풋, 콩, 또시 저 뭐냐? ᄆᆞᆯ쏠.(보리쌀, 좁쌀, 팥, 콩, 또 저 뭐냐?)
107002 @ 곤쏠은 엇인게.(흰쌀은 없네.)
107002 #1 쏠.(쌀)
107002 @ 아, 쌀.(아, 쌀)
107002 #1 좁쏠, 보리쏠. ᄆᆞᆯ쏠,(좁쌀, 보리쌀, 메밀쌀.)
107002 @ 풋, 콩.(팥, 콩.)
107002 #1 게난 콩, 풋, 좁쏠, 보리쏠. ᄆᆞᆯ쏠. 다숫 가지.(그러니까 콩, 팥, 좁쌀, 보리쌀. 메밀쌀. 다섯 가지.)
107002 @ 곤쏠이 안 들어가.(흰쌀이 안 들어가.)
107002 #1 게난 쏠게.(그러니까 쌀.)
107002 @ 여섯 개가 뒈야 오곡인데. 여섯 개가 뒈야 오곡인데.(여섯 개가 되어야 오곡인데. 여섯 개가 되야 오곡인데.)

107002 #1 곤쏠, 보리쏠.(흰쌀, 보리쌀.)

107002 @ 좁쏠.(좁쌀)

107002 #1 좁쏠, 풋, 콩, ᄆᆞᆯ쏠까지 ᄋᆞ섯가지라.(좁쌀, 팥, 콩, 메밀쌀까지 여섯 가지라.)

107002 @ 여섯 가지. 그렇구나.(여섯 가지. 그렇구나.)

107003 @ 보리밥에 대헤서 말씀헤 주십시오.(보리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7003 #1 보리밥은 어떵허냐? 쏠을 시쳥 보리쏠을 시쳐가지고 솖아. 그땐 쒜솟이라. 쒜솟으로 이제 물을 맞게, 너미 익어도 안뒈여. 물 맞게 헤여근에 솖아가믄 바르르허게 부끄잔아. 부끄민 솟뚜껭일 영 올아근에 반쯤 요만이헹 못 부끄게 헹 솜다근에이 톡 더꺼불어. 불 ᄆᆞ지렁 내불어. 겨믄이. 저 그거 틈 재우민이 밥이 후달후달허곡이 그냥허민 갈갈갈갈 헤여. 보리밥도.(쌀을 씻어서 보리쌀을 씻어가지고 삶아. 그땐 쇠솥이라. 쇠솥으로 이제 물을 맞게, 너무 익어도 안 돼. 물 맞게 해서 삶아 가면 바르르하게 넘치잖아. 넘치면 솥뚜껑일 이렇게 열어서 반쯤 요만큼 해서 못 넘치게 해서 삶다가 톡 덮어버려. 불 꺼서 내버려. 그거 뜸 들이면 밥이 '후달후달'하고 그냥하면 달달달달 해. 보리밥도.)

107003 @ 틈 재와야 뒈는구나.(뜸 들여야 되는구나.)

107003 #1 틈 재와야 그것 문닥허지. 그거 곧 허민 물 그냥 갈갈 나오메.(뜸 들여야 그것 문닥하지. 그거 곧 하면 물 그냥 갈갈 나오메.)

107003 @ 갈갈헤 불어.(갈갈해버려.)

107003 #1 틈 재와야 그게 풀어지지. 경 헹 또 뿔루와야.(뜸 들여야 그게 풀어지지. 그렇게 해서 또 불려야.)

107003 @ 뿔루와야.(불려야.)

107003 #1 또 뿔루와야 바짝헤여사. 게사 밥이 눌어사 맛 잇잖아. 부꾸와근에 뿔루와.(또 불려야 바짝해야. 그래야 밥이 눌어야 맛있잖아. 불려서 불려.)

107003 @ 뿔루와.(불려.)

107003 #1 두 번차 허는 건, 뿔루는 거.(두 번째 하는 건, 불리는 거.)

107004 @ 반지기밥에 대헤서 말씀헤 주십시오.('반지기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7004 #1 보릿쏠에 풋에 곤쏠에 게난 그것이 반지기밥이주.(보리쌀에 팥에 흰쌀에 그러니까 그것이 '반직이밥'이지.)

107004 @ 서꺼?(섞어?)

107004 #1 서꺼서. 반지기. 반 서끄니까 반지기.(섞어서. '반지기.' 반 섞으니까 '반지기.')

107004 @ 엇일 때 얘기지예?(없을 때 얘기지요?)

107004 #1 어?(어?)

107004 @ 엇일 때 얘기라. 이추룩 헹 도시락도 싸봐수과?(없을 때 얘기라. 이렇게 해서 도시락도 싸봤습니까?)

107004 #1 도시락쌀 때이 부젯칩의 아이나 그거 허지. 이 그 가난헌 집의 애긴 쏠이 어딧나? 부젯칩 애긴 계란 반찬에다가 쏠밥에. 우리 엇는 사람에 어디 쏠이 잇나게. 그 뻰또 아이 쌍 뎅기지.(도시락 쌀 때 부잣집의 아이나 그거 하지 이 그 가난한 집의 애긴 쌀이 어디 있나? 부잣집 애긴 계란 반찬에다가 쌀밥에. 우리 없는 사람에 어디 쌀이 있나. 그 도시락 안 싸서 다녔지.)

107004 @ 보리밥에 뭐 싸줘수과?(보리밥에 뭐 싸줬습니까?)

107004 #1 보리밥에 지시에만 헨.(보리밥에 장아찌에만 했어.)

107004 @ 지시.(장아찌.)

107004 #1 계란 반찬 헌 아이 부재아기.(계란 반찬 한 아이 부자아기.)

107004 @ 독도 키와나수과? 닭? 닭?(닭도 키웠습니까? 닭? 닭?)

107004 #1 아니 키완.(안 키웠어.)

107004 @ 계란이 어렵주게.(계란이 어렵지.)

107005 @ 음. 곤밥에 대헤서 말씀헤 주십시오.(음. 흰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7003 #1 어?(어?)

107003 @ 곤밥?(흰밥.)

107003 #1 곤밥이 곤밥이주. 무신.(흰밥이 흰밥이지. 무슨.)

107003 @ 곤밥은 제사 때나 먹고.(흰밥은 제사 때나 먹고.)

107003 #1 응.(응.)

107003 @ 아무 때나 못 먹곡, 산듸쏠 놧당.(밭벼.)

107003 #1 산뒨, 산듸 허는 사람이주게. 그냥 사람은 나룩쏠 받아다 먹주.(밭벼, 밭벼 하는 사람이지. 그냥 사람은 볍쌀 받아다 먹지.)

107003 @ 아아. 사당?(아아. 사다가?)

107003 #1 산듸는 자게 헌 사람덜. 지네 먹주, 거 프냐? 겨곡 맛도 엇어. 까락까락. 쏠밥만이. 산듸쏠은 맛엇어.(밭벼는 빨리 한 사람들. 자기네 먹지, 거 파냐? 그리고 맛도 없어. '까락까락'. 쌀밥만큼 밭벼쌀은 맛없어.)

107003 @ 근디 나룩쏠은 비싸잖아.(그런데 볍쌀은 비싸잖아.)

107003 #1 산듸밥보다 나룩쏠이 맛좋주게. 산듸밥은 사라사락헤여.(밭벼 밥보단 쌀밥이 맛 좋지. 밭벼 밥은 '사락사락해.')

107003 @ 옛날에는게 곤밥 먹젠 허믄 언제 먹어마씨?(옛날은 흰밥 먹으려고 하면 언제 먹어요?)

107005 #1 거 자기네 간 사름덜은.(거 자기네 간 사람들은.)

107003 @ 음.(음.)

107005 #1 이 산디쏠을 헤영 밥헤도 그냥 사람덜은 받아와야. 쏠은 받아와야. 잔치에도 쏠이 귀허니까, 우에 흔 숟가락쯤 더꺼. 보리밥 우에. 경 헹줘.(이 밭벼쌀을 해서 밥해도 그냥 쌀은 받아와야. 쌀이 귀하니까, 위에 한 숟가락쯤 덮어. 보리밥 위에. 그렇게 해서 줘.)

107003 @ 경헹 줘.(그렇게 해서 줘.)

107005 #1 쏠이 귀허니까.(쌀이 귀허니까.)

107003 @ 잔치에도예.(잔치에도요.)

107005 #1 잔치에도. 보리밥에, 픗에, 통보리쏠에, 거 쏠 우이 ᄒᆞ꼼 서꺼근에. 우이 더꺼.(잔치에도. 보리밥, 팥에 통보리쌀에 또 쌀 위에 조금 섞어서. 위에 덮어.)

107005 @ 통보리 밥.(통보리 밥.)

107005 #1 통보리 밥.(통보리 밥.)

107005 @ 멩질하고 제사 때만 곤밥 먹고, 다 먹지도 못허지예?(명절하고 제사 때만 흰밥 먹고, 다 먹지도 못하지요?)

107005 #1 경허믄이, 제삿집 아이 몹쓴덴 허잔아.(그렇게 하면, 제삿집 아이 사납다고 하잖아.)

107005 @ 제삿집 아이 몹씬다.(제삿집 아이 사납다.)

107005 #1 우리 집이 오지마라. 우리 집의 식게라, ᄒᆞ멍. 으이고, 우리도 경 헤낫져. 우리 집 식게라. 우리 집이 식게라. 헤가멍. 우리 집이 오지마라. 가이네 미깔엇이 와게. 이제 생각ᄒᆞ민. 우리 집이 식게라. 우리 집이 곤밥헐 거.(우리 집에 오지마라 우리 집의 제사라. 하면서. 으이고, 우리도 그렇게 했었지. 우리 집 제사라. 우리 집에 제사라. 해가면서. 우리 집에 오지마라. 걔네 눈치 없이 와. 이제 생각하면. 우리 집에 제사라. 우리 집의 흰밥할 거.)

107005 @ 하하하하.(하하하하.)

107005 #1 아멩헤도 그거 일고으덟 술쯤 뒈어져실 거라. 너네집 식게헴나? 우리집 식게헴다 허멍.(아무리 해도 그거 일고여덟 살쯤 됐을 거라. 너희 집 제사하니? 우리 집 제사한다. 하면서.)

107005 @ 헤헤헤.(헤헤헤.)

107005 #1 식게집아인 거찌지도 말렌 ᄒᆞ메, 몹씰앙. 아이고, 그런 어두운 나라가 잇나?(제삿집아인 건들지도 말라고 해. 사나워서. 아이고, 그런 어두운 나라가 있나?)

107006 @ 조밥?(조밥?)

107006 #1 조팝도이 모인조팝 잇곡, 히린조팝 잇어. 모인조팝은 살락허고, 히린 조팝은 밥이 찰져. 막 푸달푸달허곡.(조밥도 메조밥 있고, 차조밥 있어. 메조팝은 살락하고 차조밥은 밥이 찰져. 막 끈적끈적하고.)

107006 @ 히린좁쏠이 맛좋구나.(차좁쌀이 맛좋구나.)

107006 #1 기지. 모인좁쌀은 이 야게 걸어.(그렇지. 메좁쌀은 목 걸어.)

107006 @ 흐흐흐.(흐흐흐.)

107006 #1 그갈그갈헤연.('그갈그갈'해서.)

107006 @ 그믄 사람덜이 다 흐린좁쌀만 갈큰게.(그러면 사람들이 다 차좁쌀만 갈겠네.)

107006 #1 모인조팝은이. 밥이 하지.(메조밥은 밥이 많지.)

107006 @ 밥이 하.(밥이 많아.)

107006 #1 그이 아이 닮은 아이야. 밥한 거 헤당 어멍이 멕이주. 게믄 경 고급 헤당

멕이느냐? 히린좁쏠은 밥 헤끔베낀 안헤여.(그이 아이 닮은 아이야. 밥 한 거 해다가 어머니가 먹이지. 그러면 그렇게 고급 해다가 먹이느냐? 차좁쌀은 밥 조금밖에 안 해.)

107006 @ 아아.(아아.)

107006 #1 에이구 춤말로. 모인좁쌀은 막 하고. 에이구 춤말로. 겡 모인조팝에 감저 서꺼봐라. 살락살락살락. 우리 삶인지 죽음인지 몰라.(에이구, 참말로. 메좁쌀은 아주 많고. 에이구, 참말로. 그래서 메조밥에 감자 섞어봐라. 살락살락살락. 우리 삶인지 죽음인지 몰라.)

107006 @ 국을 먹어줘야켜예. 뒌장국이라도.(국을 먹어줘야겠다. 된장국이라도.)

107006 #1 겡 뒌장국 끌려. 뒌장국에 무수 썰어 노나? 배출 노나?(그래서 된장국 끓여. 된장국에 무 썰어 넣으나? 배출 넣으나?)

107006 @ 경 안허믄?(그렇게 안하면?)

107006 #1 또 몸을 노나. 에구.(또 모자반을 넣으나. 에구.)

107006 @ 조팝?(조밥)

107007 #1 죽만, 죽만 먹으니까 어머니 밥 호꼼 헤. 쏠이 어디 시냐게? 에구에구.(죽만, 죽만 먹으니까 어머니 밥 조금 해. 쌀이 어디 있냐? 에구에구.)

107007 @ 픗밥, 픗밥도 헹 먹어나수과?(팥밥, 팥밥도 해서 먹었었습니까?)

107007 #1 픗?(팥?)

107006 @ 픗 놩 밥?(팥 놔서 밥?)

107007 #1 픗 노믄 픗밥이주.(팥 넣으면 팥밥이지.)

107007 @ 돔비 놓지는 아녀수꽈?(동부 넣지는 안했습니까?)

107007 #1 돔비도 서껑 먹고.(동부도 섞어서 먹고.)

107007 @ 서껑 먹고.(섞어 먹고.)

107007 #1 또 녹디도 서껑 먹고. 콩도 서껑 먹고. 콩은 둥글락둥글락 맛은 엇어.(또 녹두도 섞어서 먹고. 콩도 섞어서 먹고. 콩은 둥글락둥글락 맛은 없어.)

107007 @ 음.(음.)

107007 #1 콩밥은. 게난 징역 사는 사름 콩밥 멕이잔아.(콩밥은. 그러니까 징역사는 사람 콩밥 먹이잖아.)

107007 @ 크으으으흐.(크으으으흐.)

107007 #1 징역 사는 사름. 너 ᄒᆞ꼼만 콩밥 먹으레 갈래? 징역사는 사름 콩밥 멕여.(징역 사는 사람 너 조금만 콩밥 먹으러 갈래? 징역사는 사람 콩밥 먹여.)

107008 @ 피밥?(피밥?)

107008 #1 피밥은 좁쏠 닮은 거.(피밥은 좁쌀 같은 거.)

107008 @ 아.(아.)

107008 #1 똑 좁쏠 닮아(꼭 좁쌀 같아.)

107008 @ 먹을 만헤마씨?(먹을 만해요?)

107008 #1 아니, 히린좁쏠만이 못헤. 것도. 모인거난 게싹게싹헨[115].(아니, 차좁쌀만

115) '게싹게싹ᄒᆞ다'는 물기가 없거나 메져서 잘 엉기지 아니하다 는 뜻을 지닌 말이다.

큼 못해. 것도 메진거니까 '게삭게삭'해.)
107008 @ 게삭게삭.('게삭게삭'.)
107008 #1 히린 건 새카망허고 히린 좁쏠은 오족 맛잇어.(흐린 건 새카맣고 차좁쌀은 오죽 맛있어.)
107008 @ 맛좋어.(맛좋아.)
107008 #1 겐디 이젠 그치룩 히린좁쏠이 엇어. 모의어.(그런데 이젠 그렇게 차좁쌀이 없어. 메져.)
107008 @ 모의어.(메져.)
107008 #1 쏠덜이. 찰찰 흐리질 안허여.(쌀들이. 찰찰 차지질 않아.)
107009 @ 찰찰 흐리질 안허여. 감저밥? 고구마밥을 감제밥?(찰찰 차지지 않아. '감저밥'? 고구마밥을 '감제밥'?)
107009 #1 감저 썰엉.(고구마 썰어서.)
107009 @ 맛좋아?(맛좋아?)
107009 #1 거 죽지 아니민 살기지. 먹어야 살 거니까.(거 죽지 않으면 살기지. 먹어야 살 거니까.)
107010 @ 무밥도 헷수과?(무밥도 했습니까?)
107010 무밥도 헹 먹지. 무밥은 잘 헹 먹어.(무밥도 해서 먹지. 무밥은 잘 해서 먹어.)
107011 @ 톳밥도. 톳밥?(톳밥도 톳밥?)
107011 #1 톳밥은 베랑은 안 먹어봣져. 무밥은 잘 헤여. 우린.(톳밥은 별로 안 먹어봤지. 무밥은 잘 헤여. 우린.)
107013 @ 국의 종류에 대헤서 말씀헤 주십시오.(국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7013 @ ᄆᆞ멀국, 콩나물국, 무국, 콩국, 호박입국.(메밀국, 콩나물국, 무국, 콩국, 호박잎국.)
107013 #2 그렇지.(그렇지.)
107013 @ 뭐가 맛좁디가? 삼촌. 삼촌은 콩국이 제일 맛좋아?(뭐가 맛좋습디까? 삼촌. 삼촌은 콩국이 제일 맛좋아?)
107013 #2 호박입국도 좋주 뭐.(호박잎국도 좋지 뭐.)
107013 @ 삼촌은 혼자 끌령 먹어집니까?(삼촌은 혼자 끓여서 먹을 수 있습니까?)
107013 #2 게니까 나가 끌리난 맛이 업데.(그러니까 내가 끓이니까 맛이 없대.)
107013 @ 안헤나니까예. 몸국?(안했었으니까요. 모자반국?)
107013 #2 몸국은 궨찬아.(모자반국은 괜찮아.)
107013 @ 옥돔국, 메역국, 성게국.(옥돔국, 메역국, 성게국.)
107013 #2 성게국이 췌고주.(성게국이 최고지.)
107013 @ 물회, 자리물회, 냉국.(물회, 자리물회, 냉국.)
107013 #2 나가 자리를 많이 나깟어.(내가 자리를 많이 낚았어.)

107013 @ 자리도 나끕니까? 지금도 나까마씨?(자리도 낚습니까? 지금도 낚아요?)

107013 #2 아니 이젠 자리덜 안 나와.(아니 이젠 자리돔들 안 나와.)

107018 @ 호박입국은?(호박잎국은?)

107018 #1 호박입국게.(호박잎국)

107018 @ 뒌장 놉니까?(된장 놉니까?)

107018 #1 그렇게. 뒌장 걸러놔근에 물을 끌여가민, 하여튼 식은 물에 노민 이 호박닙이 실강실강허여. 뀌는 물에다가 놔야 문작허지. 경 헹은에 그 밀ᄀᆞ루 타놔근에 그레영 젓이민 호박닙국.(된장 걸러놔서 물을 끓여 가면, 하여튼 식은 물에 넣으면 이 호박잎이 설경설경해. 끓는 물에다가 놔야 '문작'하지. 그렇게 해서 그 밀가루 타놔서 거기 이렇게 저으면 호박잎국.)

107019 @ 몸국에 대헤서 말씀헤 주십시오.(모자반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7019 #1 몸국은 저 뒌장이 맛이서야 몸국이 맛싯고 뒌장이 좋지 않으민 맛이 읏어.(모자반은 저 된장이 맛있어야 모자반국이 맛있고 된장이 좋지 않으면 맛이 없어.)

107019 @ 그믄 몸국은 흔번 끌여봣수과?(그러면 모자반국은 한번 끓여봤습니까?)

107019 #1 우리 죽장 끌영 먹는 거, 나가 몸은 바당에 짚은 디벳긔 안나. 건 나가 짚은디 숨비니까 몸 헤당 흔 구덕에 얼마 헤영 풀곡, 남제긴 저 서답줄에 몰렷당은에 뿔앙 겨울에도 먹고, 여름에도 먹고.(우리 죽장 끓여서 먹는 거, 내가 모자반은 바다에 깊은 데 밖에 안 나. 건 나가 깊은 데 '숨비니까' 모자반 해다가 한 바구니에 얼마 해서 팔고, 나머진 저 빨랫줄에 말렸다가 빨아서 겨울에도 먹고, 여름에도 먹고.)

107019 @ 몰렷당 솖지 말앙 그냥 몰려?(말렸다가 삶지 말고 그냥 말려?)

107019 #1 아니, 그냥 바당에서 올려온 냥 그냥 몰롸야 헤여.(아니, 그냥 바다에서 올려온 냥 그냥 말려야 해.)

107019 @ 아아.(아아.)

107019 #1 그 뿔아불민 맛엇어.(그 빨아버리면 맛없어.)

107019 @ 톳은 뿔앙?(톳은 빨아서?)

107019 #1 뿔앙 안 뒈어. 안 뒈어.(빨아서 안 돼. 안 돼.)

107019 @ 톳은 솖앙 몰리잖아예?(톳은 삶아서 말리잖아요?)

107019 #1 어?(어?)

107019 @ 톳은 솖앙 몰리잖아예? 톳? 톳?(톳은 삶아서 말리잖아요? 톳? 톳?)

107019 #1 톳이야 거 물 끌어가는 냥 솖아야지. 솖아근에 톨도이 파랑허게 뎁젠 허면은 물 팔팔 끓이는 물에 강 ᄃᆞᆼ강 금방 건지민 파랑허곡, 파랑헌 게 질겨베민 그냥 냉물에다가 솖아가민 누렁헤 색깔이. 그믄 부드럽고, 파랑헌 건 저 좀 찔겨.(톳이야 거 물 끓여가는 냥 삶아야지. 삶아서 톳도 파랗게 데우려 하면 물 팔팔 끓이는 물에 가서 담가서 금방 건지면 파랗고, 파란 게 질기면 그냥 냉수에다가 삶으면 누래. 색깔이. 그러면 부드럽고, 파란 건 저 좀 질겨.)

107019 @ 아아.(아아.)

107019 #1 찔겨.(질겨.)

107019 @ 아아.(아아.)

107019 #1 누렁케 솖아야 막 부드럽지. 니 존 사람은 파랑헌 거 먹고, 니 엇인 사람은 누렇케 솖아야 먹어.(누렇게 삶아야 막 부드럽지. 이 좋은 사람은 파란 거 먹고, 이 없는 사람은 누렇게 삶아야 먹어.)

107019 @ 그렇구나. 몸국에 뒈지고기를 넣으면 접작뻬국이 뒙니까?(그렇구나. 모자반국에 돼지고기를 넣으면 갈비뼈국이 됩니까?)

107019 #1 그게 왜냐면 그 잔치허젠 허면 막 뒈지 큰 솟디 흔 막 담아놩 막 솖아. 솖아나민 거기 지름 빠지잖아. 고기 다 건져뒁은에 그것에 소금 놓고 몸 놩은에 딸려근에 잔치 먹으레 온 사람덜 다 멕이고. 그렇게 허는 거야. 우린 그렇게 안허여.(그게 왜냐면 그 잔치하려고 하면 한 막 돼지 큰 솥에 막 담아놔서 막 삶아. 삶고 나면 거기 기름 빠지잖아. 고기 다 건져두고 그것에 소금 놓고 모자반 놔서 딸려서 잔치 먹으러 온 사람들 다 먹이고. 그렇게 허는 거야. 우린 그렇게 안 해.)

107019 @ 막 삶아난 물이지예?(막 삶았던 물이지요?)

107019 #1 고기 딸려난 물, 게난 그 고기에 지름이 다 빠지잔아 물에. 그니까 몸국 끌이민 막 맛잇잔아.(고기 끓였던 물, 그러니까 그 고기에 기름이 다 빠지잖아. 물에, 그러니까 모자반국 끓이면 막 맛있잖아.)

107019 @ 그 몸국 끌이는 건 춤몸이꽈, 무신 몸?(그 모자반국 끓이는 건 참모자반입니까? 무슨 모자반?)

107019 #1 곳몸도 잇고 바당몸도 잇고, 겐디 이제 오염 뒈부난 몸이 엇어. 다 죽어불언.('곳몸'도 있고 '바당몸'도 있고, 그런데 이제 오염 돼버리니까 모자반이 없어. 다 죽어버려서.)

107019 @ 예.(예.)

107019 #1 바당몸은 는작허고 곳몸은 이파리가 부글레기도 크고, 바당몸이 맛잇지. 짚은 디 몸이('바당몸'은 는작하고 '곳몸'은 이파리가 거품도 크고, '바당몸'이 맛있지. 깊은 데 모자반이.)

107019 @ 바당몸이 더 맛좋아예.('바당몸'이 더 맛좋아요.)

107019 #1 응.(응.)

107019 @ 그믄 몸국 끌일 때도 바당몸을 헤야 맛좋는 거예? 썰엉예?(그러면 모자반국 끓일 때도 바다모자반을 해야 맛좋은 거예요? 썰어서요?)

107019 #1 썰지 안헹 거 그게이 겨울 묵엉 새봄 나야 그냥헤서 다 이파리 떨어지지 그냥은 칼로 끊어야 헤여. 뿔앙.(썰지 않고 거 그게 겨울 묵어서 새봄 나야 그냥해서 다 이파리 떨어지지 그냥은 칼로 끊어야 해. 빨아서.)

107019 @ 뿔앙예.(빨아서요.)

107019 #1 응.(응.)

107019 @ 겐 언제 몸은 켑니까?(그래서 언제 모자반은 캡니까?)

107019 #1 거 몸이. 몸이 흔 음력으로이 삼월, 음력 삼월쯤 뒈가민 바당몸이 솟아올라.(거 모자반이 한 음력으로 삼월, 음력 삼월쯤 돼 가면 바다모자반이 솟아올라.)

107019 @ 음.(음.)

107019 #1 곳몸은 뭐 그냥 음력 동짓둘에 캐고, 바당몸은 새에 새봄나야. 그디 가도 못허여. 추웡. 바당몸이 나는 디는 멀엉 짚어부난.(‘곳몸’은 뭐 그냥 음력 동짓달에 캐고, ‘바당몸’은 새에 새봄 나야, 거기 가도 못해. 추워서, ‘바당몸’이 나는 데는 멀어서 깊어버리니까.)

107019 @ 음. 영등둘이 지나야. 어쨋든.(음. 영등달이 지나야. 어쨌든.)

107019 #1 삼월, 음력삼월 아메도 ᄇᆞ름이 넘어야 헤여. 그런 디 가젠 허민, 곳몸은 묵은 해 동짓둘에야 허는 거니까 이제 몸덜 엇어. 다 죽어불언. 오염으로. 몸 하나토 엇어. 다 죽어불언, 톨도 읏고.(삼월, 음력삼월 아마도 보름이 넘어야 허여. 그런 데 가려고 하면, 갯가모자반은 묵은 해 동짓달에야 하는 거니까 이제 모자반들 없어. 다 죽어버렸어. 오염으로 모자반 하나도 없어. 다 죽어버렸어. 톳도 없고.)

107019 @ 하나토 엇어예. 톨도 엇고.(하나도 없어. 톳도 없고.)

107019 #1 오염으로.(오염으로.)

107022 @ 냉국 헐 때는 집에 우영밧데 그 물웨 싱것수과?(냉국 할 때는 집에 텃밭에 그 물외 심었습니까?)

107022 #1 우리?(우리?)

107022 @ 응.(응.)

107022 #1 싱것 먹어낫지.(심어서 먹었었지.)

107022 @ 물웨로 냉국 끌여먹지예?(물외로 냉국 끓여 먹지요?)

107022 #1 응. 무쳥도 먹고.(응. 무쳐서도 먹고.)

107022 @ 무쳥도 먹고.(무쳐서도 먹고.)

107022 #1 베껑 뒌장에도 찍엉 먹고.(벗겨서 된장에도 찍어서 먹고.)

107022 @ 베껑 뒌장에도 찍엉 먹고.(벗겨서 된장에도 찍어서 먹고.)

107022 #1 응. 옛날에 밧디 강 잇당 물웨 거죽베껑 뒌장에 밥에 찍엉먹고.(응. 옛날에 밭에 가서 있다가 물외 껍데기 벗겨서 된장에 밥에 찍어서 먹고.)

107022 @ 그걸 뒌장에 풀엉 먹는 거지예?(그걸 된장에 풀어서 먹는 거지요?)

107022 #1 아니, 풀엉도 먹고 그냥도 먹고 베껑은에.(아니, 풀어서도 먹고 그냥도 먹고 벗겨서.)

107023 @ 몸국, 메역국, 성게국, 보말국, 넓패국, 가시리국.(모자반국, 미역국, 성게국, 고둥국, 넓패국, 가시리국.)

107022 #1 메역새[116]국.(‘메역새’국.)

107023 @ 메역새국.(‘메역새’국.)

107023 #1 메역샌 안 둘안?(‘메역샌’ 안 달았어?)

107023 @ 메역국이 메역새 아니꽈?(미역국이 ‘메역새’ 아닙니까?)

107023 #1 아니야. 메역새 뜻나고 메역 뜻나.(아니야. ‘메역새’ 다르고 미역 달라.)

107023 @ 아아. 메역새국은 어떵 끓여마씨?(아아. ‘미역새’국은 어떻게 끓여요?)

116) ‘메역새’는 바다에 돌에 짤막하게 돋은 미역과 비슷한 해초를 말한다.

107023 #1 것도 넙패국 끌리듯 끌이지. 그게이 넙패가 넙패 알아져?(것도 넓패국 끓이듯 끌이지. 그게 넓패가 넓패 알아?)

107023 @ 일단은 해산물예, 해초. 해초.(일단은 해산물이요. 해초. 해초.)

107023 #1 이제 그 옛날은 식량이 엇이니까 팰 메어다가 막 뺄아. 든물에 강.(이제 그 옛날은 식량이 없으니까 팰 매어다가 막 빨아. 단물에 가서.)

107023 @ 예.(예.)

107023 #1 뺄아가지고. 그것ᄀᆞ라 뭐옌허느니? 뭇, 뭇이옌 헹 바당에 요만 동글동글 것ᄀᆞ라 뭇이 잇어.(빨아가지고. 그것보고 뭐라고 하니? 무릇, 무릇이라고 해서 바다에 요만 동글동글 것보고 무릇이 있어.)

107023 @ 예.(예.)

107023 #1 그거 주서당 시쳥은에, 시쳥.(그거 주어다가 씻어서, 씻어서.)

107023 @ 예.(예.)

107023 #1 이제 그 솟디 안 놩 딸령. 저 큰 항아리에다가 솟 아찌듯 아쪙, 항아리 베낏딜로 흑 잇잖아. 밥 아찔 때.(이제 그 솥에 안 놔서 끓여서. 저 큰 항아리에다가 솥 안치듯 안쳐서, 항아리 밖으로 흙 있잖아. 밥 안칠 때.)

107023 @ 아.(아.)

107023 #1 흑을 밋밋 불라. 벌러지지 못허게, 경허영 걸로이 물똥 주서당은에 걸로 막 뭇, 뭇, 뭇, 뭇 딸린다는 게 그렇게 메칠 딸려야 헤여.(흙을 쭉 밟아. 벌어지지 못하게. 그렇게 해서 걸로 말똥 주워다가 걸로 막 무릇, 무릇, 무릇, 무릇 끓인다는 게 그렇게 며칠 끓여야 해.)

107023 @ 뭇, 뭇 딸린다.(무릇, 무릇 끓인다.)

107023 #1 경 헹 그것이 맛딧어. 게민 그 쏠 흔 사발 아상강 무릇 바꽈당 먹잖아. 옛날은 설탕도 엇고 사탕도 엇고 헤부난.(그렇게 해서 그것이 맛있어. 그러면 그 쌀 한 사발 가져가서 무릇 바꿔다가 먹잖아. 옛날은 설탕도 없고 사탕도 없고 해버리니까.)

107023 @ 뒌장 놩?(된장 놔서?)

107023 #1 어?(어?)

107023 @ 뒌장?(된장.)

107023 #1 아니야. 뭇은 그냥 놩 먹고 뒌장은 뒌장국(아니야. 무릇은 그냥 놩 먹고 된장은 된장국.)

107023 @ 뭇에는 간장 놉니까? 간은 뭘로 헤? 소금?(무릇에는 간장 놉니까? 간은 뭘로 해? 소금?)

107023 #1 무시거?

107023 @ 뭇국?(무릇국?)

107023 #1 뒌장이 맛좋지.(된장이 맛좋지.)

107023 @ 뒌장 놓지예?(된장 놓지요?)

107023 #1 소금에 끌리는 건 콩나물국이 정당허곡. 저 이. 그것이 이 몸국은 저 뒌장이 맛잇어야 몸국이 맛잇고 뒌장이 좋지 않으민 몸국 못 먹어. 궂어.(소금에 끓이는

건 콩나물국이 적당하고. 저 이. 그것이 이 모자반국은 저 된장이 맛있어야 모자반국이 맛있고 된장이 좋지 않으면 모자반국 못 먹어. 궂어.)

107023 @ 아아.(아아.)

107023 #1 몸국, 메역국, 메역새국, 가시리국. 넓패국.(모자반국, 미역국, 미역새국, 가시리국. 넓패국.)

107023 @ 성게국은 어떵 끌입니까?(성게국은 어떻게 끓입니까?)

107023 #1 성게국은이 저 조개다시다 놔야 끌려. 조개다시다 아니민 맛엇엉 못 먹어.(성게국은이 저 조개다시다 놔야 끓여. 조개다시다 아니면 맛없어서 못 먹어.)

107023 @ 맛엇어.(맛없어.)

107023 #1 그것만 놩은 맛엇어. 조개 다시달 헹은에 막 끌영 다싯물 거 메리치 다시물 허듯 그렇게 끌려야 헤여.(그것만 놔서는 맛없어. 조개 다시달 해서 막 끓여서 다시물 거 멸치 다시물 하듯 그렇게 끓여야 해.)

107023 @ 게믄.(그러면.)

107023 #1 경 안허민 맛이 엇어.(그렇게 안하면 맛이 엇어.)

107023 @ 조개에서 국물을, 육수를 내왕 성게를 놓는 게 낫겟다예.(조개에서 국물을, 육수를 내서 성게를 놓는 게 낫겠네요.)

107023 #1 어. 경 허민 맛잇고, 이 성게만 놩은 먹긴 먹어도 그추룩 맛이 엇어. 다시다 놔야.(어. 그렇게 하면 맛있고, 이 성게만 놔서는 먹긴 먹어도 그처럼 맛이 없어. 다시다 놔야.)

107023 @ 성게는 주로 메역을 많이 놓지예 성게국 끌일 때?(성게는 주로 미역을 많이 놓지요. 성게국 끓일 때?)

107023 #1 그렇지. 메역도이 바당에서 놀메역 말앙 저 그 육지서 온 메역.(그렇지. 미역도 바다에서 날미역 말고 저 그 육지서 온 미역.)

107023 @ 음.(음.)

107023 #1 육지 메역덜 그것이 맛딧어.(육지 미역들 그것이 맛있어.)

107023 @ 제주도 것보다.(제주도 것보다.)

107023 #1 어. 육지 메역.(어. 육지미역.)

107023 @ 무산고예?(왠가요?)

107023 #1 제주도 메역은이 좀 누릿누릿허고 육지건 ᄇᆞ들ᄇᆞ들허잖아.(제주도 미역은이 좀 노릇노릇하고 육지건 보들보들하잖아.)

107023 @ 아아.(아아.)

107023 #1 끓여도 보들보들. 이 제주엣 건이 빨리 딸려사, 색깔도 누렁허고.(끓여도 보들보들. 이 제주엣 건 빨리 끓여야, 색깔도 누렇고.)

107023 @ 아아.(아아.)

107023 #1 게난 육지 메역이라사 헤어. 것도.(그러니까 육지 미역이라야 해. 것도.)

107023 @ 아아.(아아.)

107023 #1 거 그때 분시 몰를 때 우리 이디 메역을 끌려난디 육지 메역을 먹으니까

육지 메역이 더 좋더라고. 거난 끌령 먹엉 알아가니까 아, 요디 것이 더 맛이신 걸로구나.(거 그때 분수 모를 때 우리 여기 미역을 끓였었는데 육지 미역을 먹으니까 육지 미역이 더 좋더라고. 그러니까 끓여 먹어서 알아가니까 아, 요기 것이 더 맛있는 거로구나.)

107023 @ 육지 메역은 어떵 헴신고예 해녀덜도 거긴 엇인디?(육지 미역은 어떻게 캐는가요? 해녀들도 거긴 없는데?)

107023 #1 어디?(어디?)

107023 @ 육지.(육지.)

107023 #1 육지, 제주 사람덜 강 허지.(육지, 제주 사람들 가서 하지.)

107023 @ 아아.(아아.)

107023 #1 육지.(육지.)

107023 @ 우도 메역도 맛좋덴 허멍헨게.(우도 미역도 맛좋다고 하면서 하던데.)

107023 #1 어디?(어디?)

107023 @ 우도.(우도.)

107023 #1 우도 메역이 물 과니까 맛잇실 거야. 이 물 안가는 미역이 민지락허곡, 물과는 바당은 감태ᄀᆞ치 과들과들헤.(우도미역이 물 세니까 맛있을 거야. 이 물 안가는 미역이 미끈하고, 물 센 바다는 감태같이 뻣뻣해.)

107023 @ 물이 관다는 건 뭣꽈? 물 관다는 말은?(물이 세다는 건 뭡니까? 물 세는 말은?)

107023 #1 물이 쎄어. 물발이 쎄어.(물이 세어. 물발이 세어.)

107023 @ 물 쎈 데는.(물 센 데는.)

107023 #1 물 과는 바당, 물 안 과는 바당.(물세는 바다, 물 안 '과는' 바다.)

107023 @ 물이 센 바당을 물과는 바당!(물이 센 바다를 물세는 바다!)

107023 #1 응. 그런 디 메역이 맛디서.(응. 그런 데 미역이 맛있어.)

107023 @ 맛잇어. 음. 출렁출렁.(맛있어. 음. 출렁출렁.)

107023 #1 물과는 바당에 꺼.(물세는 바다에 꺼.)

107023 @ 보말국도 끓영 먹어 봣지예?(보말국도 끓여서 먹어 봤지요?)

107023 #1 먹지.(먹지.)

107023 @ 보말? 무슨 보말이 맛좋아마씨?(보말? 무슨 보말이 맛좋아요?)

107023 #1 너무 먹으민 설세나.(너무 먹으면 설사나.)

107023 @ 보말국?(보말국?)

107023 #1 그럼.(그럼.)

107023 @ 수두리보말, 먹보말, 어느 게 맛좋아마씨?(팽이고동, 밤고둥, 어느 게 맛좋아요?)

107023 #1 코ᄐᆞ대기 보말.(남방울타리고둥 보말.)

107023 @ 코ᄐᆞ대기?(남방울타리고둥?)

107023 #1 코ᄐᆞ대기도 잇고, 수두리도 잇고, 먹보말도 잇고, 돌보말도 잇고.(남방울

타리 고둥도 있고, 팽이고둥도 있고, 밤고둥도 있고, 눈알고둥도 있고.)

107023 @ 돌보말은 안먹엇지예?(눈알고둥은 안 먹었지요?)

107023 #1 돌보말은 먹으믄 써. 그게.(눈알고둥은 먹으면 써. 그게.)

107023 @ 써.(써.)

107023 #1 돌 닮은 것이 돌보말.(돌 닮은 것이.)

107023 @ 그거 안 먹는디.(그거 안 먹는데.)

107023 #1 멩꽁. 거 다시다? 무시 거? 다시마옌 허는가? 다시다옌 허는가? 거.('맹꽁.' 거 다시다? 무시거? 다시마라고 하는가? 다시다라고 하는가?)

107023 @ 다시다?(다시다?)

107023 #1 멩꽁이 ᄒᆞ꼼 멥지롱 헤여. 요멘썩헌 멩꽁이.('맹꽁이' 조금 매콤해 해. 요만한 '멩꽁이'.)

107023 @ 아, 메홍이?(아, 두드럭고둥?)

107023 #1 메홍인가? 여기선 멩꽁이옌 헤여.('메홍'인가? 여기선 '맹꽁이'라고 해.)

107023 @ 여긴 맹꽁이렌 헤마씨?(여긴 '맹꽁이'라고 해요?)

107023 #1 응. 말이 뜬나. 저딧말허고 이딧말허고, 것ᄀᆞ라 맹꽁이, 맹꽁이도 두 가지지. 바당에 맹꽁은 막 소라ᄀᆞ찌 커.(응. 말이 달라. 저기 말하고 여기 말하고, 것보고 '맹꽁이', '맹꽁이'도 두 가지지. 바다에 두드럭고둥은 막 소라같이 커.)

107023 @ 응. ᄑᆞ레국도 끓여먹엇수과?(응. 파래국도 끓여먹었습니까?)

107023 #1 ᄑᆞ레국은 준 ᄑᆞ레국이주. 그냥 ᄑᆞ레국은 못 먹어. 준 ᄑᆞ레이, 이런 여에 난 즘진즘진 헌 건 그런 건 먹는디.(파래국은 잔 파래국이지. 그냥 파래국은 못 먹어. 참파래, 이런 여에 난 잘잘 한 건 그런 건 먹는데.)

107023 @ 준 ᄑᆞ레?(잔 파래.)

107023 #1 응. 그냥 ᄑᆞ렌 못 먹어.(응. 그냥 파랜 못 먹어.)

107023 @ 음.(음.)

107023 #1 걸름허는 ᄑᆞ렌, 두 가지라 ᄑᆞ레도. 춤ᄑᆞ레가 잇고, 그냥 ᄑᆞ레 잇고.(거름하는 파랜, 두 가지라 파래도. 참 파래가 있고, 그냥 파레 있고.)

107023 @ 춤ᄑᆞ레가 먹는 거예.(참 파래가 먹는 거요.)

107023 #1 응. 즘진즘진 헤영.(응. 잘잘 해서.)

107023 @ 물훼 어떵 헹 먹습니까?(물회는 어떻게 해서 먹습니까?)

107023 #1 물훼?(물회?)

107023 @ 물훼.(물회)

107023 #1 무신 물훼?(무슨 물회?)

107023 @ 그 저 냉국 끌여 먹는 거를. 아니믄 저 자리물회? 자리물회?(냉국 끌여 먹는 거. 아니면 자리물회? 저 자리물회?)

107023 #1 아. 물훼도 ᄋᆞ라 가지지. 자리물훼가 잇고, ᄯᅳ시 거ᄀᆞ라 무신 물회? 무싱 것도 잇어?(아. 물회도 여러 가지지. 자리물회가 있고, 또 거보고 무슨 물회? 무슨 것도 있어?)

107023 @ 해삼물훼여, 소라물훼여?(해삼물회여, 소라물회여?)

107023 #1 그거ᄀᆞ라 젠자리옌 헨 상어 닮은 거. 젠젠헌 젠자리훼. 그거는 그것이 더 맛딧어. 젠자리훼.(그거보고 '젠자리'라고 해서 상어 닮은 거 자잘한 '젠자리회.' 그거는 그것이 더 맛있어. '젠자리회.')

107023 @ 젠자리훼.('젠자리회.')

107023 #1 응.(응.)

107 023 @ 자리물휀 어떵헙니까? 신촌에도 자린 많이 나낫수과?(자리돔물회는 어떻습니까? 신촌에도 자린 많이 났었습니까?)

107023 #1 나지. 이젠 아니 헨, 거리지 안헹, 자리 그냥 사시미ᄀᆞ치 무쳥도 먹고, 물놩도 먹고, 물 놀 땐 저 식초 놔야혀.(나지. 이젠 아니 해, 잡지 않아서, 자리돔 그냥 사시미같이 무쳐도 먹고, 물 놔서도 먹고, 물 놓을 땐 저 식초 놔야해.)

107023 @ 비릿내 나난예.(비린내 나니까요.)

107023 #1 비릿내 낭(비린내 나서.)

107023 @ 옛날 물이 써넝헤야 그거 허주?(옛날 물이 차야 그거 하지?)

107023 #1 그 물훼도이 옛날은 바당물 질어 와야 이젠 냉장고, 엇인 때난 그 바당물 질어당 물 놔야. 금방 질어온 거난 시원허지.(그 물회도 옛날은 바닷물 길어 와야 이젠, 냉장고 없던 때니까 그 바닷물 길어다가 물 놔야. 금방 길어온 거니까 시원하지.)

107023 @ 시원하니까.(시원하니까.)

107023 #1 거 역불 강 떠온덴 허난. 물훼 놓젠 허민.(거 역불 가서 떠온다고 하니까. 물회 넣으려고 하면.)

107023 @ 응.(응.)

107023 #1 물회 놓젠 허민 시원허게.(물회 넣으려고 하면 시원하게.)

죽류

107024 @ 죽의 종류에 대헤서 말씀헤 주십시오.(죽의 종류에 대헤서 말씀해 주십시오.)

107024 #1 여러 가지지. 콩죽, 풋죽, 녹디죽, 흰쏠론 곤죽, 또 ᄆᆞ멀죽, 다숫가지.(여러 가지지. 콩죽, 팥죽, 녹두죽, 흰쌀론 흰죽, 또 메밀죽, 다섯 가지.)

107025 @ 곤죽은 어떵 쑵니까?(흰죽은 어떻게 쑵니까?)

107024 #1 어?(어?)

107025 @ 곤죽? 흰죽?(흰죽? 흰죽?)

107025 #1 흰죽도게 그냥 쏠 ᄒᆞ끔 담갓다근에 그냥 냉물에 놩 쒀가민 쒀지주게.(흰죽도 그냥 쌀 조금 담갔다가 그냥 찬물에 놔서 쒀 가면 쒀지지.)

107026 @ 조죽도?(조죽도?)

107026 #1 좁쏠죽? 좁쏠죽은 좀 물 끌여가야 놔살거여. 건 너무 즘질아부난 밑에 눌어, 눌어.(좁쌀죽? 좁쌀죽은 좀 물 끓여가야 놔얄거야. 건 너무 잘아 버리니까 밑에 눌

어. 눌어.)

107026 @ 아. 눌어.(아. 눌어.)

107026 #1 쏠 보멍 겐디 대부분은 물 끌영 놔야 안 눌어. 어떤 죽이던지.(쌀 보면서 그런데 대부분은 물 끓여서 놔야 안 눌어. 어떤 죽이든지.)

107026 @ 조죽?(조죽.)

107026 #1 좁쏠죽, 좁쏠죽은 콩ᄀᆞ루에 놩 쑤는 거, 좁쏠죽도 잇지. 좁쏠만 ᄀᆞᆯ앙 환자 멕여 그건.(좁쌀죽, 좁쌀죽은 콩가루에 놔서 쑤는 거, 좁쌀죽도 있지. 좁쌀만 갈아서 환자 먹여 그건.)

107026 @ 환자예?(환자요?)

107026 #1 좁쏠은 모인좁쏠, 거 딸령은에 물로 멕이잖아. 거, 체에 바쳐가지고.(좁쌀은, 메좁쌀, 거 딸려서 물로 먹이잖아. 거, 체에 받쳐가지고.)

107026 @ 체에 받쳥?(체에 받쳐서?)

107026 #1 물로, 이제 그런 좁쏠 막 비싸.(물로, 이제 그런 좁쌀 막 비싸.)

107026 @ 모인 좁쏠로예? 흐린 ᄌᆞ쏠이 아니고예?(메좁쌀로요? 차좁쌀이 아니고요?)

107026 #1 희린 거 잇고, 모인 거 잇고.(차진 거 있고, 메진 거 있고.)

107026 @ 곤죽보다 환자한테 곤죽 주로 하는데 곤죽보다 더 좋아마씨?(흰죽보다 환자한테 흰죽 주로 하는데 흰죽보다 더 좋아요?)

107026 #1 그 비싼 모인 좁쏠죽인디게.(그 비싼 메좁쌀죽인데요.)

107026 @ 옛날엔 쌋잔아?(옛날엔 쌌잖아?)

107026 #1 그걸 멕어야 구미ᄃᆞᆼ경 밥 못 먹는 사람 밥을 땡긴다 허여. 그 모인 좁쏠을 멕어가민, 흰죽은이 심심허고 거 그 죽은 ᄒᆞ낌 좀 베지근헌[117] 맛이 잇어. 그 좁쏠죽, 뚠나 죽도, 뚠나.(그걸 먹어야 구미 당겨서 밥 못 먹는 사람 밥을 땡긴다 해. 그 모인 좁쌀을 먹어 가면, 흰죽은 심심하고 거 그 죽은 조금 좀 '베지근한' 맛이 있어. 그 좁쌀죽, 달라 죽도 달라.)

107027 @ ᄑᆞᆺ죽은 어떵 끌입니까?(팥죽은 어떻게 끓입니까?)

107027 #1 ᄑᆞᆺ죽? ᄑᆞᆺ을 막 솖앙 방에에 막 ᄲᆞᆺ아야허여.(팥죽? 팥을 막 살아 방아에 막 빻아야 해.)

107027 @ ᄲᆞᆺ아야.(빻아야.)

107027 #1 그냥 통차가 하지. ᄲᆞᆺ아 가지고 이젠 물 끌여가민 이제 쏠에 것에 막 젓엉.(그냥 통째가 많지. 빻아가지고 이젠 물 끓어 가면 이제 쌀에 거에 막 저어서.)

107027 @ 거믄 끗? 소금 좀 넣고?(그러면 끝? 소금 좀 넣고?)

107027 #1 엉, 소금은 다 뒈사 놓고.(응. 소금은 다 되어야 놓고.)

107028 @ 다 뒈사예.(다 되어야.)

107027 #1 먹게 뒈엉,(먹게 되어야.)

107028 @ 콩죽은?(콩죽은?)

107028 #1 콩죽도 마찬가지 경 안허민 눌엉 그끈내 나.(콩죽도 마찬가지 그렇게 안

117) '베지근ᄒᆞ다'는 비지근ᄒᆞ다.라고도 하며 고기 따위를 끓인 국물이 맛이 돌아 구미가 있음을 말한다.

하면 눌어서 화독내 나.)

107028 @ 콩죽은 불렷당 ᄀᆞ루로 갈아야지예?(콩죽은 불렸다가 가루로 갈아야지요?)

107028 #1그렇지.(그렇지.)

107028 @ 맷돌로, 아니민 솖앙 이거 막 으깨? 팥죽처럼?(맷돌로, 아니면 삶아서 이거 막 으깨? 팥죽처럼?)

107028 #1 콩ᄀᆞ루 그거 맡기는 디 콩을 무으쪗당 뿟아.(콩가루 그거 맡기는 데 콩을 불렸다가 빻아.)

107028 @ 뿟아.(빻아.)

107028 #1 뿟앙 죽쑤민이 원체 콩이 하부니까 맛 읏어. ᄀᆞ루로 쒀야 허여 것도.(빻아서 죽 쑤면 원래 콩이 많으니까 맛없어. 가루로 쒀야 해.)

107028 @ 그믄 폿죽은 ᄀᆞ루로 안쑤는데 콩죽만 ᄀᆞ루로 쑨다예?(그러면 팥죽은 가루로 안 쑤는데 콩죽만 가루로 쑤네요?)

107028 #1 응. 콩이 훌거부니까 다 그냥 헤싸지지 안 헤. 폿은 다 헤싸지잖아. 콩은 절대 안 헤싸져.(응. 콩이 굵어버리니까 다 흩어지지 않아. 팥은 다 흩어지잖아.)

107028 @ 아아.(아아.)

107028 #1 콩은 절대 솖아도 안 헤싸져. 그냥 오고셍이 잇어. 폿은 솖아가민 다 헤싸져.(콩은 절대 안 흩어져. 콩은 절대 삶아도 안 흩어져. 그냥 그대로 있어. 팥은 삶으면 다 흩어져.)

107029 @ 메밀죽에 대헤서 말씀헤 주십시오.(메밀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7029 #1 또 ᄆᆞ멀죽도 뚠나다고. ᄆᆞ멀죽은 뭐 밥 아무것도 못 먹는 사람 ᄂᆞᄅᆞ지 못허는 사람이 모멀죽, 게난이 말이 잇잖아. ᄆᆞ멀죽에 야게 걸려사 느아피 주느냐? 경 ᄀᆞᆯ아.(또 메밀죽도 다르다고. 메밀죽은 뭐 밥 아무것도 못 먹는 사람 내리지 못하는 사람이 메밀죽, 그러니까 말이 있잖아. 메밀죽에 목 걸려야 너에게 주느냐? 그렇게 말해.)

107029 @ ᄆᆞ멀죽에 야게 걸려?(메밀죽에 목 걸려?)

107029 #1 ᄆᆞ멀죽에는 야게 안 걸려. 죽는 사람이나 야게 걸리주. 게난 싸울 때 야 ᄆᆞ멀죽에 야게 안 걸렷다. 느까진 년안티 지냐? 게난 한○○ 어멍광은 말을 당허지 못헤. 어이구 둥글어온 돌이 박힌 돌 팡팡 차멍. 겨난이 웨방서 둥그러 온 것이 이디 제자리에 사람을 발로 참젠, 거난 그런 것도 다 알아야 헤여. 이 말은이 다 배왕 나둬야 허여. 어떤 말 나올 때 저건 무신 말인가 허영 이 말은 다 알아야 허여. 말은. 우리가 옛날 말허연에 난 일본말 아난 허는디 일본말 몰른 사름은 당허여.(메밀죽에는 목 안 걸려. 죽는 사람이나 목 걸리지. 그러니까 싸울 때 야 메밀죽에 목 안 걸렸다. 너까진 년한테 지냐? 그러니까 한○○ 어머니와는 말을 당하지 못해. 어이구 굴러온 돌이 박힌 돌 팡팡 차면서. 그러니까 외방서 굴러 온 것이 여기 제자리에 사람을 발로 참으려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알아야 해. 이 말은 다 배워 나둬야 해. 어떤 말 나올 때 저건 무슨 말인가 해서 이 말은 다 알아야 해.)

107029 @ 당허여. ᄆᆞ멀죽은 또 ᄆᆞ멀 그 거피헌 거를 뜨거운 물에 넣으면 뭽니까? 것도 뿟지 안헤도 뒈어?(당해. 메밀 죽은 또 메밀 그 거피한 거를 뜨거운 물에 넣으면

됩니까? 것도 빻지 않아도 돼?)

107029 #1 ᄆᆞ멀ᄀᆞ루는 그 방에간에 강 ᄀᆞ루로 ᄀᆞᆯ아당 영 밀엉 ᄆᆞ멀국수나 헹 먹지.(메밀가루는 그 방앗간에 가서 가루로 갈아다가 이렇게 밀어서 메밀국수나 해서 먹지.)

107029 @ 칼국수나 헹 먹지.(칼국수나 해서 먹지.)

107029 #1 응. 환자덜은이 통차, 통차 죽쒀. 통차허민 문작허여.(응. 환자들은 통째, 통째 죽 쒀. 통째하면 문적해.)

107029 @ 아아.(아아.)

107029 #1 그냥 자동적으로 내려가.(그냥 자동적으로 내려가.)

107029 @ 내려가.(내려가.)

107029 #1 게난 ᄆᆞ멀죽에 야게 안 걸렷다. 느까짓 년안티 지냐? 허여.(그러니까 메밀죽에 목 안 걸렸다. 네까짓 년한테 지냐? 해.)

107029 @ ᄆᆞ멀죽은 어떤 때 주로 헤 먹읍니까?(메밀죽은 어떤 때 주로 해 먹습니까?)

107029 #1 ᄆᆞ멀죽은이 환자덜 내립지 못허는 사람.(메밀죽은 환자들 내리지 못하는 사람.)

107029 @ 게도 옛날에 ᄆᆞ멀이 비쌋수과? 막 싸지 안헨?(그래도 옛날에 메밀이 비쌌습니까? 막 싸지 않았어요?)

107029 #1 아니. 그때는 하도 ᄆᆞ멀덜 웃드리서 허난 경 비싸지 안헨, 이제는 비쌀 거여. ᄆᆞ멀가는 사람덜.(아니. 그때는 너무 메밀들 '웃드리'에서 하니까 난 그렇게 비싸지 않아서, 이제는 비쌀 거야. 메밀 가는 사람들.)

107029 @ 이제는 비싸예? 이만 원예. 한 뒈에예?(이제는 비싸요? 이만 원이요. 한 되에요?)

107029 #1 이제 웃드리 사람덜이 수박 놔난 그르에 ᄆᆞ멀 갈아.(이제 '웃드리' 사람들이 수박 놨던 곳에 메밀 갈아.)

107029 @ 아아.(아아.)

107029 #1 ᄆᆞ멀은.(메밀은.)

107029 @ 거믄 잘 뒈마씨?(그러면 잘돼요?)

107029 #1 잘 뒐 때도 잇고 대풍 만나민 못허고.(잘 될 때도 있고 태풍 만나면 못하고.)

107029 @ 겐 이번도 이십오만 평 다 하나토 못 건졋덴.(그래서 이번도 이십오만만 평 다 하나도 못 건졌다고.)

107029 #1 못헤여. 못헤여.(못해. 못해.)

107029 @ 꼿이 예쁘덴 막 찍으레 다니고.(꽃이 예쁘다고 막 찍으러 다니고.)

107029 #1 못헤여, 못헤여. 그거이 꼿이 막 헤영케 피어도 대풍 불엉 홀타불민 엇어.(못해. 못해. 그거 꽃이 막 하얗게 피어도 태풍 불어서 훑어버리면 없어.)

107029 @ 아예 못헷덴예.(아예 못했데요.)

107029 #1 올해 ᄆᆞ밀 엇일 거여. 대풍 불언.(올해 메밀 없을 거야. 태풍 불어서.)

107029 @ 예게.(예.)

107029 #1 한창 피어올 때 보비데겨불언.(한창 피어올 때 비벼버렸어.)

107030 @ 녹두죽은? 풋죽하고 똑같아마씨?(녹두죽은? 팥죽하고 똑같아요?)

107030 #1 똑같이 쑤민 뒈어.(똑같이 쑤면 돼.)

107030 @ 녹두도? 것도 삶앙 부벼?(녹두도? 것도 삶아서 문질러?)

107030 #1 솖앙은에 뻐사야지. 통째 해선 안 뒈지. 것도이 솖앙은에 걸러야 먹기 좋아. 체로 바쳐야.(삶아서 빻아야지. 통째 해선 안 돼지. 것도 삶아서 걸러야 먹기 좋아. 체로 바쳐야, 삶아서 체로 바쳐야.)

107030 @ 아아.(아아.)

107030 #1 솖앙 체로 바쳐야.(삶아서 체로 바쳐야.)

107030 @ 껍데기가?(껍데기가?)

107030 #1 껍데기 헤어뒁 녹디만, 사돈칩이 갈 때는 그추룩허고, 이녁만 먹을 때는 거평 쪙 먹어. 사돈칩이 죽 쒀 갈 때는 신경 막 썽.(껍데기 해두고 녹두만, 사돈집에 갈 때는 그처럼하고, 이녁만 먹을 때는 거피해서 쪄서 먹어. 사돈집이 죽 쒀 갈 때는 신경 막 써서.)

107030 @ 무사 사돈칩이 녹두죽을 쒕 가마씨?(왜 사돈집에 녹두죽을 쒀서 가요?)

107030 #1 녹디도, 풋죽.(녹두도, 팥죽.)

107030 @ 언제?(언제?)

107030 #1 그 이젠 안 헤도 옛날은 사돈 죽으민이, 쏠 한 말에, 죽 흔 허벅에, 경 쒀 가.(그 이젠 안 해도 옛날은 사돈 죽으면, 쌀 한말에, 죽 한 허벅에, 그렇게 쒀 가.)

107030 @ 죽 흔 허벅, 근디 거기에 풋죽도 뒈고, 녹디죽도 뒈어?(죽 한 허벅, 그런데 거기에 팥죽도 되고, 녹두죽도 돼?)

107030 #1 아니 녹디죽은 녹디죽만 쑤고, 풋죽은 풋죽만 쑤고.(아니 녹두죽은 녹두죽만 쑤고, 팥죽은 팥죽만 쑤고.)

107030 @ 게난 둘 중에 흑나만 헹 가도 뒈어마씨? 보통은 풋죽 아니?(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해서 가도 되요? 보통은 팥죽 아니?)

107030 #1 이 풋은이 영장 나민이 그 방법으로 써. 이 무당덜 빌어당 풋, 집안에선 거 방법이야.(이 팥은 상나면 그 방법으로 써. 이 무당들 빌어다가 팥, 집안에선 거 방법이야.)

107030 @ 음.(음.)

107030 #1 거난 잡신 못 부트게.(그러니까 잡신 못 붙게.)

107030 @ 잡신 못 부트게.(잡신 못 붙게.)

107030 #1 풋죽은 장난 딘이 영장 나민 찝찝허잖아. 게난 풋죽 쑤는 거, 방법으로.(팥죽은 상난 덴 상나면 찝찝하잖아. 그러니까 팥죽 쑤는 거, 방법으로.)

107030 @ 녹두는 언제?(녹두는 언제?)

107030 #1 녹두는 그렇게 영장난 디 안 쒀가. 풋죽 쒀 가.(녹두는 그렇게 장례난데 안 쒀가. 팥죽 쒀 가.)

107030 @ 풋죽 쒀 가예.(팥죽 쒀 가요.)

107030 #1 방법으로게.(방법으로)

107030 @ 방법으로.(방법으로.)

107031 @ 닭죽에 대헤서 말씀헤 주십시오. 둑죽도 쒕 먹어낫지예?(닭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닭죽도 쒀서 먹었었지요?)

107031 #1 둑죽도 뭐 옛날엔 둑 귀헐 때는 이제 솖앙은에 그 츰지름 불르멍 그 제골을 빠. 식구 한 딘이 제골을 빵은에 그 물은 아방만 멕여. 밥 즘앙 아방만 먹고, 또 둑은 찢어놩 츰지름에 볶앙 그냥 죽 쒕 아이덜 다 멕여. 게난 진국은 아방이 다 먹엇네.(닭죽도 뭐 옛날엔 닭 귀할 때는 이제 삶아서 그 참기름 바르면서 그 제골을 빠. 식구 많은 덴 제골을 빠서 그 물은 아버지만 먹여. 밥 말아서 아버지만 먹고, 또 닭은 찢어놔서 참기름에 볶아서 그냥 죽 쒀서 아이들 다 먹여. 그러니까 진국은 아버지가 다 먹었네.)

107031 @ 그걸 솖은 물이 진국, 제골이옌 헙니까?(그걸 삶은 물이 진국, 제골이라고 합니까?)

107031 #1 제골 빤 것이 다.(제골 빤 것이 다.)

107031 @ 그 국물로 죽을 쑤는 게 아니고?(그 국물로 죽을 쑤는 게 아니고?)

107031 #1 그 국물에 죽도 쑤고 그냥 밥도 즘앙 먹고 거 먹ᄀᆞ정헌 사름, 죽 싫어 허는 사람은 밥 즘앙 먹고, 여러 가지지.(그 국물에 죽도 쑤고 그냥 밥도 말아서 먹고 거 먹고 싶은 사름, 죽 싫어하는 사람은 밥 말아서 먹고, 여러 가지지.)

107031 @ 그 제골 국물을 아방 놧당 준다고?(그 제골 국물을 아버지 놨다가 준다고?)

107031 #1 둑이 엇이난게, 게난 아방만 그거 놩 죽 끌영주고 애기덜은 둑 그 제골빠난 거난 베지근 안허여. 비살비살해여, 지름 다 빠부난 그거 찢어놩 츰지름 ᄒᆞ꼼 놩 애기덜 주고, 거 줴 지실 짓을, 아방을 멕여야 돈 벌어올 거 아니냐? 생각을 해 보라. 아방이 먹어야 일도 허곡 아방이 약해영 누가 벌어다주곡, 어멍덜이 그렇게 신경 씨잖아.(닭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만 그거 놔서 죽 끓여서 주고 애기들은 닭 그 제골 뺐던 거니까 '베지근' 안 해? '비살비살'해. 기름 다 빼버리니까 그거 찢어놔서 참기름 조금 놔서 애기들 주고, 거 죄 지을 짓을, 아버지를 먹여야 돈 벌어올 거 아니냐? 생각을 해 보라. 아버지가 먹어야 일도 많고 아버지가 약해서 누가 벌어다주고, 어머니들이 그렇게 신경 쓰잖아.)

107033 @ 이외에 죽을 헤먹었던 것이 있으면 말씀헤 주십시오.(이외에 죽을 헤먹었던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꿩죽은?)

107033 #1 꿩죽이 맛싯어. 둑죽보다, 꿩이 좀 기름이 엇지 벨로, 둑은 기름이 잇잖아. 게난 죽부터 틀려. 이상허여. 꿩죽 지름이 엇이니까 코시롱헌 맛이 잇고, 둑은이 능늑헌 기가 이서. 죽을 딱 먹어보민 알아.(꿩죽이 맛있어. 닭죽보다, 꿩이 좀 기름이 없지 별로, 닭은 기름이 있잖아. 그러니까 죽부터 달라. 이상해. 꿩죽 기름이 없으니까 고소한 맛이 있고, 닭은 느끼한 기가 있어. 죽을 딱 먹어 보면 알아.)

107033 @ 깅이죽 같은 경우는 뻣앙은에 헙니까?(게죽 같은 경우는 빻아서 합니까?)
107033 #1 응. 뻣아야지. 뻣앙은에.(응. 빻아야지. 빻아서.)
107033 @ 음.(음.)
107033 #1 물 어느 정도 놩.(물 어느 정도 놔서.)
107033 @ 음.(음.)
107033 #1 그 깅일 체로 바쳐야.(그 게를 체로 받혀야.)
107033 @ 아아.(아아.)
107033 #1 바치지 않으민 못 먹어.(받히지 않으면 못 먹어.)
107033 @ 체로 바쳥 그 국물을.(체로 받혀서 그 국물을.)
107033 #1국물로 쒀야 해. 국물로.(국물로 쒀야 해. 국물로.)
107033 @ 체로 바쳥, 쏠 불렷당 거 놩, 끌이면 뒈어마씨?(체로 받혀서, 쌀 불렸다가 거 놔서, 끓이면 돼요?)
107033 #1 게난 쏠을 뿔르면은 쏠이 쭉 우우쪗당 허여. 그냥허민 문딱 쏠이 부시데 겨져불어.(그러니까 쌀을 불리면 쌀이 쭉 불렸다가 해. 그냥하면 모두 쌀이 부서져버려.)
107033 @ 음.(음.)
107033 #1 무우쪗당 헌 거는 쏠이 그냥 그대로 구짝 쑤는데.(불렸다가 한 거는 쌀이 그냥 그대로 곧장 쑤는데.)
107033 @ 아아.(아아.)
107033 #1 그냥 언 물에 시치면은 그냥 쏠이 다 부서져.(그냥 찬 물에 씻으면 그냥 쌀이 다 부서져.)
107033 @ 아아, 기꽈?(아아, 그렇습니까?)
107033 #1 그렇지.(그렇지.)
107033 @ 죽 쑬 때는 물 우쪗당 허는구나.(죽 쑬 때는 불렸다가 하는구나.)
107033 #1 이녁 ᄆᆞ음이주게. ᄉᆞ레기ᄀᆞ찌 먹ᄀᆞ졍 허민 먹고, 꾸짝헌 냥 먹ᄀᆞ졍허민 꾸짝.(이녁 마음이지. 싸라기같이 먹고 싶으면 먹고, 곧장한 대로 먹고 싶으면 곧장.)
107033 @ 아아.(아아.)
107033 #1 뚠나지. 죽 쑤는 것도.(다르지. 죽 쑤는 것도.)
107033 @ 것도 중요헌 거로구나예.(것도 중요한 거로군요.)
107033 #1 죽도 아무나 못 쒀. 맛딧게 쑤는 사람은 맛딧고, 물 놩은에 자꾸자꾸 노민 맛데가리 읏어. 자기가 이 죽에 딱 맞게 쏠이 얼만이 불어나민 얼마 헐 꺼.(죽도 아무나 못 쒀. 맛있게 쑤는 사람은 맛있고, 물 놔서 자꾸자꾸 놓으면 맛대가리 없어. 자기가 이쪽에 딱 맞게 쌀이 얼마만큼 불어나면 얼마 할 거.)
107033 @ 음.(음.)
107033 #1그거 예산 안헷당은이 쏠 하영 놩 막 이제 쒀가민 막 뒈민이 자꾸 물을 놔.(그거 계획 안했다가는 쌀 많이 놔서 막 이제 쒀 가면 막 되면 자꾸 물을 놔.)
107033 @ 으음.(으음.)
107033 #1 경허민 맛읏어.(그러면 맛없어.)

107033 @ 맛엇어.(맛없어.)

107033 #1 그 물이 막 끌여야지게. 죽에도 그렇게 헤사 맛잇어.(그 물이 막 끓여야지. 죽에도 그렇게 해야 맛있어.)

107033 @ 푸달푸달.(걸쭉걸쭉.)

107033 #1 자꾸 물을 노민 죽이 따락따락헤여.(자꾸 물을 놓으민 죽이 '따락따락'해.)

107033 @ 삼촌은 죽도 잘 쑤는구나. 여기 전복죽이 안 나왔네. 전복죽이 제라헌 거 아니?(삼촌은 죽도 잘 쑤는구나. 여기 전복죽이 안 나왔네. 전복죽이 정확한 거 아니?)

107033 #1 아이구, 전복죽은 아무나 못 먹나, 이신 사람이나.(아이구, 전복죽은 아무나 못 먹나. 있는 사람이나.)

107033 @ 요즘 양식 나오난예. 똥이 안 좋은 거주게. 양식 것이 자연산이 좋은 거주게. 불로초렌 허난.(요즘 양식 나오니까요. 똥이 안 좋은 거지. 양식 것이 자연산이 좋은 거지. 불로초라고 하니까.)

107033 #1 자연산은 왓따지게. 자연산은이 희영 뎅기멍 뜯어먹은 거 허고, 안에서 양식헌 거 하고 막 부드러와. 양식 건, 바당에 건 질겨. 지 멋대로, 힘이 쎄지게. 막 먹젠 돌아뎅기난 질긴 예를 들엉 말을 해봐라.(자연산은 최고지. 자연산은 헤엄쳐 다니면서 뜯어먹은 거 하고, 안에서 양식한 거 하고 막 부드러워. 양식 건, 바다에 건 질겨. 자기 멋대로, 힘이 세지. 막 먹으려고 돌아다니니까 질긴 예를 들어서 말을 해봐라.)

107033 @ 예를 들엉 끌여가민 놉니까? 전복똥을 츤물에 놔?(예를 들어서 끓여 가면 놓습니까? 전복 똥을 찬물에 놔?)

107033 #1 이 답답아. 쏠을 씻어. 첫차 쏠을 씻어. 솟디 딱 놔. 전복허고 쏠허고 게민 게웃[118]은 냉중에 궤여가사.(이 답답아. 쌀을 씻어. 첫차 쌀을 씻어서 솥에 딱 놔. 전복하고 쌀하고 그러면 '게웃'은 나중에 끓여가야.)

107033 @ 궤여가사.(끓여가야.)

107033 #1 헤뜨러지민 죽이 검어불어. 그니까 춤지름에 그것에 달달달달 볶아놩 물 놩 쑤민 맛잇고 그냥허민 맛엇어. 것도 다 잇어.(흐트러지면 죽이 검어버려. 그니까 참기름에 그것에 달달달달 볶아놔서 물 놔서 쑤면 맛있고 그냥하면 맛없어. 것도 다 있어.)

107033 @ 겐 춤지름에 볶앙 쑤당 끌여가면 게웃은 놔? 걸 으깬 거를 게웃도?(그래서 참기름에 볶아서 쑤다가 끓여가면 '게웃'은 놔? 걸 으깬 거를 '게웃'도?)

107033 #1 게웃을 이겨야허지 경 안허민 검어. 그냥 맹물에 타민 게웃이 까지민 똥이 검잖아. 그냥 죽이 검어.('게웃'을 이겨야하지 그렇게 안하면 검어. 그냥 맹물에 타면 '게웃'이 까지면 똥이 검잖아. 그냥 죽이 검어.)

107033 @ 익어야 뭰다는 말은?(익어야 된다는 말은?)

107033 #1 게웃을 끌이는 물에 놔야 토실토실 익어 불잖아. 경헤야 희지. 그 게웃 쑤면이 카져불민 검어, 죽이 검어.('게웃'을 끓이는 물에 놔야 토실토실 익어 버리잖아. 그렇게 해야 희지. 그 '게웃' 쑤면 타져 버리면 검어. 죽이 검어.)

---

118) '게웃'은 게우라고도 하며 전복의 내장을 뜻한다.

107033 @ 꺼멍헤져야 그축헤야 맛잇덴 허는 사람 잇지예?(까매져야 그렇게 해야 맛있다고 하는 사람 있지요?)

107033 #1 사람에 매지. 검은 거 찝찝허덴 헌 사람, 깔끔 헌 사람, 역불 똥 카근에 허는 사람이 잇어. 에이 안 뒈여.(사람에 따라지. 검은 거 찝찝하다고 한 사람, 깔끔한 사람, 일부러 똥 따서 하는 사람이 있어. 에이 안 돼.)

107033 @ 그추룩 해야 진짜렌.(그렇게 해야 진짜라고.)

107033 #1 진짠 뭣 놈의 진짜야? 죽이야 나.(진짠 뭣 놈의 진짜야? 죽이야 나.)

107033 @ 보말도 그렇고?(고둥도 그렇고?)

107033 #1 보말은 그냥 쒀. 보말도 시커멓케 허젠 허민이 방애에 ᄲᅳ사사허고, 그냥 오실오실 쑬 사람은 그냥 쑤고, 자기 먹고 싶은 냥 쑤믄뒈어.(고둥은 그냥 쒀. 보말도 시커멓게 하려고 하면 방아에 빻아야 하고, 그냥 오슬오슬 쑬 사람은 그냥 쑤고, 자기 먹고 싶은 냥 쑤면 돼.)

107033 @ 맛이 문제주게, 맛이?(맛이 문제지, 맛이?)

107033 #1 보말죽은이 기름기가 하부난 설사 나. 전복허고는 틀려.(고둥 죽은 기름기가 많아버리니까 설사 나. 전복하고는 달라.)

107033 @ 깅이도 그렇고?(게도 그렇고?)

107033 #1 깅이도 설사허고.(게도 설사하고.)

107033 @ 보말도 좋은 보말이 잇잖아요?(고둥도 좋은 고둥이 있잖아요?)

107033 #1 보말도 여러 가지라. ᄯᅳ시 무싱거 코ᄐᆞ대기 잇고, 먹보말 잇고.(고둥도 여러 가지라. 또 무슨 거 남방울타리 고둥 있고, 밤고둥 있고.)

107033 @ 수두리?(팽이고둥?)

107033 #1 수두리 잇고,(팽이고둥 있고.)

107033 @ 수두리가 뽀쪽헌 거꽈?(팽이고둥이 뾰쪽한 겁니까?)

107033 #1 수두리 잘 안 솖으민 똥 다 끈어져. 먹보말은 잘 내지는디, 수두린 잘 안 솖으민 그냥 똥부터 끈어져.(팽이고둥 잘 안 삶으면 똥 다 끊어져. 밤고둥은 잘 내지는데, 팽이고둥은 잘 안 삶으면 그냥 똥부터 끊어져.)

107033 @ 수두리는 저 무슨 보말이지예? 뽀쪽헌 거?(팽이고둥 저 무슨 보말이지요? 뾰쪽한 거?)

107033 #1 어, 이 먹보말은 둥글럿허고 수두린 꼬짝헌 거, 거 똥 잘 끈어져.(어, 이 밤고둥은 둥그렇고 팽이고둥은 뾰족한 거, 거 똥 잘 끊어져.)

107033 @ 큰 건 엄청 크지예?(큰 건 엄청 크지요?)

107033 #1 게. 수두리도 거 바당수두리는 크고, 깃수두린 경 ᄒᆞᆫ엇이.(그래. 팽이고둥도 거 바다 팽이고둥은 크고, 갯가팽이고둥은 그렇게 한없이.)

107033 @ 바당수두리가 크구나예?(바다팽이고둥이 크군요?)

107033 #1 어 막 커. 소총각만이 커.(어 막 커. 소총각만큼 커.)

107033 @ 물꾸럭죽은 해 먹어나지 안헷수과?(문어죽은 해 먹어나지 안했습니까?)

107033 #1 문어, 아이구 거 맛잇어.(문어, 아이구 거 맛있어.)

107033 @ 여기는 문어를 문게렌 헙니까?(여기는 문어를 '문게'라고 합니까?)

107033 #1 문게, 저 서촌은 미꾸럭인가, 매꾸럭인가? 여기는 문어옌 허매. 문어ᄀᆞ라 문어, 사투린 문게.(문어, 저 서촌은 미꾸럭인가? 매꾸럭인가? 여기는 문어라고 해. 문어 보고 문어, 사투린 '문게'.)

107033 @ 삼촌, 문게도 잘 잡앗수과?(삼촌, 문어도 잘 잡았습니까?)

107033 #1 아이고 영허난 쉐지서점신가원? 문게도 잘 잡고 전복도 잘 잡고,

107033 @ 문게는 또 막 촉수가 코 막아분덴 헹 조심헙니까, 문게 망사리가 잇수과?(문어는 또 막 촉수가 코 막아버린다고 해서 조심합니까? 문어 망사리가 있습니까?)

107033 #1 문게가 고망에 허는 건 안 나오젠 허민 막 갈코리로 상통이도 끈엉나오고 발도 끈엉나와 겐디 베끗디 앚인 건 팍 심지. 이ᄁᆞ지 막 올라와. 잘못허당 막 대멩이 우티ᄁᆞ지 올라가 그 문어가. 거난 체얌부터 이빨 이신 사람은 눈양셍일 씹어불어. 게사 죽주, 경 안허민 막 이ᄁᆞ지 올라와.(문어가 구멍에 하는 건 안 나오려고 하면 막 갈고리로 상투도 끊어서 나오고 발도 끊어서 나와 그런데 바깥에 앉은 건 팍 잡지. 이까지 막 올라와. 잘못하다가 막 머리 위에까지 올라가 그 문어가.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빨 있는 사람은 '눈양셍이'를 씹어버려. 그래야 죽지. 그렇게 안하면 막 이까지 올라와.)

107033 @ 아예 눈을 까치러불어?(아예 눈을 터트려버려?)

107033 #1 눈양셍일 이빨로 끈어불어, 잘못허당 이 코 망더레 들어가고 문어.('눈양셍이'를 이빨로 끊어버려. 잘못하다가 이 코 망에 들어가고 문어.)

107033 @ 이빨로 앙 끈어불어 아이고야?(이빨로 앙 끊어버려 아이고야?)

107033 #1 눈셍인 놀로 먹어, 죽어 문어가, 경 안허민 고젱이 헤당 꿰어. 꿰엉 드리치민 막 살젠 우트레 막 올라와. 아이고 나도 막 문게 막 하영 잡으멍 전복이고 문어고 막 헐 때는 오죽헷나.('눈셍이'는 날로 먹어. 죽어 문어가, 그렇게 안하면 꼬챙이 해다가 꿰어. 꿰어서 들이치면 막 살려고 위에 막 올라와. 아이고 나도 막 문어 막 많이 잡으면서 전복이고 문어고 막 할 때는 오죽했나.)

107033 @ 겐 그 문게도 다 풀고.(그래서 그 문어도 다 팔고.)

107033 #1 폼도 하고 뭐 험도 허고.(팔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하고.)

107033 @ 그걸 어떵 헹 먹읍니까? 솖앙 저 뒌장에 찍엉 먹고.(그걸 어떻게 해서 먹습니까? 삶아 저 된장에 찍어서 먹고.)

107033 #1 솖앙게 초장혜영 먹고, 죽도 쒀 먹고.(삶아서 초장해서 먹고, 죽도 쒀 먹고.)

107033 @ 죽을 어떵 쑵니까?(죽을 어떻게 쑵니까?)

107033 #1 문얼이 바다에 강 그걸 니빨, 눈 다 빠뒁, 니빨도 이서. 막 돌에 밀려가민 비누게꿈ᄀᆞ찌 막 나와. 그거 막 밀어 불어뒁 짝짝, 경허민 문어가 맛잇고 경안허민 맛이 엇어. 짜락짜락.(문얼 바다에 가서 그걸 이빨, 눈 다 빼 두고, 이빨도 있어. 막 돌에 밀려가면 비누거품같이 막 나와. 그거 막 밀어 버려두고 짝짝, 그렇게 하면 문어가 맛있고 그렇게 안하면 맛이 없어. '짜락짜락'.)

107033 @ 아아 잘 씻어야 뒈는구나.(아아 잘 씻어야 되는구나.)

107033 #1 잘 헤영 돌로 ᄆᆞᆺ아야 북삭북삭 그냥 안허민 따락따락 아이고 뭉게도 못 허는 사람은 맛읏어.(잘 해서 돌로 빻아야 '북삭북삭' 그냥 안하면 '따락따락' 아이고 문어도 못하는 사람은 맛없어.)

107033 @ 숨을 때는 궨찬은데 죽 쑬 때는 막 ᄆᆞᆺ아야 뒈는구나.(삶을 때는 괜찮은데 죽 쑬 때는 막 빻아야 되는구나.)

107033 #1 그렇지. 숨을 때는 그냥 먹만 떼 뒁 숢지. 그냥 죽을 쑤젠 허민 경 헹 안 뒈. 막 바다에 강 밀어야 그 게꿈을 막 짜 불어야, 짜 뒁이, 돌로 막 ᄆᆞᆺ아. ᄆᆞᆺ앙 죽 쑤민 북삭북삭허고 그냥 따락따락 질겨. 아이고, 거 문어도 아무나 못 쒀. 죽도. 우리는 죽이 옌 헌 건 다 잘 쒀.(그렇지. 삶을 때는 그냥 먹만 떼 두고 삶지. 그냥 죽을 쑤려고 하면 그렇게 해서 안 돼. 막 바다에 가서 밀어야 그 거품을 막 짜버려야, 짜 두고, 돌로 막 빻아. 빻아서 죽 쑤면 '북삭북삭'하고 그냥 '따락따락' 질겨. 아이고, 거 문어도 아무나 못 쒀. 죽도. 우리는 죽이라고 한 건 다 잘 쒀.)

107033 @ 오분재기 죽은 뭐가 달라마씨?(오분자기 죽은 뭐가 달라요?)

107033 #1 전복이 맛잇싯지. 오분자긴 따락따락헤여. 전복은 문작허고.(전복이 맛있지. 오분자긴 '따락따락해'. 전복은 반드럽고.)

107033 @ 오분재기허고 똑같이 생긴 거 닮은디 색깔도 틀립니까?(오분자기하고 똑같이 생긴 거 같은데 색깔도 틀립니까?)

107033 #1 색깔도 뜰리고. 죽맛도 뜰려. 전복죽이 맛좋주.(색깔도 다르고. 죽맛도 틀려. 전복죽이 맛좋지.)

107033 @ 크질 안헙니까? 오분재기.(크질 안합니까? 오분자기.)

107033 #1 오분자긴 ᄀᆞ냥에서만 사는 거난 크냐. 그냥 ᄀᆞᆺ디, 오분재긴 엇어. 베끗딘, ᄀᆞᆺ디벳긔.(오분자긴 구멍에서만 사는 거니가 크냐? 그냥 갯가, 오분자긴 없어. 밖엔, 갯가밖엔.)

범벅과 수제비

107034 @ 범벅의 종류에 대헤서 말씀헤 주십시오.(범벅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7034 #1 모멀범벅이 췌고주.(메밀범벅이 최고지.)

107034 @ ᄆᆞ멀범벅 또 무슨 범벅?(메밀범벅 또 무슨 범벅?)

107034 #1 대축범벅도 잇고.(수수범벅도 있고.)

107034 @ 예?(예?)

107034 #1대축범벅.(수수범벅.)

107034 @ 대축범벅?(대죽범벅?)

107034 #1 대축 싱그민.(수수 심으면.)

107034 @ 예.(예.)

107034 #1 ᄋᆞ물이 실락실락허여.(열매가 '실락실락'해.)

107034 @ 응.(응.)

107034 #1 게믄 그거 장만혜영 기계에 골아당.(그러면 그거 장만해서 기계에 갈아다가.)

107034 @ 뭐에 서껑마씨? 보리? ᄆᆞ멀?(뭐에 섞어요? 보리? 메밀?)

107034 #1 대축은이 그 골아당은에 범벅 ᄀᆞ튼 거벳긔 못헤여.(수수는 그 갈아다가 범벅 같은 거밖에 못해.)

107034 @ 대추란 것은 열매 말허는 것꽈?(대추란 것은 열매 말하는 겁니까?)

107034 #1 응.(응.)

107034 @ 차 끌여 먹는 대추차?(차 끓여 먹는 대추차?)

107034 #1 아니, 아니. 차 아니.(아니, 아니. 차 아니.)

107034 @ 대죽?(수수.)

107034 #1 대죽, 대죽.(수수, 수수.)

107034 @ 대죽범벅. 도체비 좋아한덴 ᄒᆞ는 대죽범벅.(수수범벅. 도깨비 좋아한다고 하는 대죽범벅.)

107034 #1 ᄋᆞ.(응.)

107034 @ 것도 대죽이렌 헷수과? 옥수수같이 생긴 거예?(것도 '대죽'이라고 했습니까? 옥수수같이 생긴 거요?)

107034 #1 거 대축. 옥수수는 저 무싱거 아니냐게.(거 수수. 옥수수는 저 뭐 아니냐.)

107034 @ 강넹이.(옥수수.)

107034 #1 강넹이. 뚠나지. 대축은 그냥 구짝 올라와.(옥수수. 수수는 그냥 곧장 올라와.)

107034 @ 대죽도 많이 헷수과?(수수도 많이 했습니까?)

107034 #1 아니 난 안 혜봣어. ᄂᆞᆷ덜이.(아니 난 안 해봤어. 남들이.)

107034 @ 맛좋아마씨? 대죽범벅?(맛좋아요? 수수범벅?)

107034 #1 응. 맛좋아. 겐디 ᄆᆞ멀범벅만이 못허여. 좀 까칠까칠헤여.(응. 맛좋아. 그런데 메밀범벅만큼 못해. 좀 까칠까칠해.)

107034 @ 아아. 겐디 무사 도깨비는 대죽범벅 경 좋아헤싱고예?(아아. 그런데 왜 도깨비는 수수범벅 그렇게 좋아했는가요?)

107034 #1 몰르지. 아멩헤도 맛잇어 뵈난 대축.(모르지. 아무리해도 맛있어 보이니까 수수.)

107034 @ 색깔이 붉어마씨?(색깔이 붉어요?)

107034 #1 뻘겅허여.(뻘개.)

107034 @ 아아. 뭐에 서껑은에 범벅헙니까? 고구마도 넣고?(아아. 뭐에 섞어서 범벅합니까? 고구마도 넣고?)

107034 #1 고구마도 놓고.(고구마도 넣고.)

107034 @ 대죽범벅. 제주사람덜 대죽범벅도 잘 먹엇고, 속범벅?(수수범벅. 제주사람들 수수범벅도 잘 먹었고, 쑥범벅?)

107034 #1 속범벅이 어딧나? 속범벅 헹 물 잘잘 낭 먹어지나 속털털이 헹 먹주. 속범벅 헹 물 질질낭은에 먹어지느냐게.(쑥범벅이 어디 있나? 쑥범벅 해서 물 잘잘 나서 먹어지나? 쑥'털털이' 해서 먹지. 쑥범벅 해서 물 질질 나서 먹어지느냐.)

107034 @ 속털털이옌 헷수과? 속버무리옌 안 헤근에.(쑥'털털이'라고 했습니까? '속버무리'라고 안 해서.)

107034 #1 버무령 치는 건 속털털이.(버무려서 찌는 건 쑥'털털이'.)

107034 @ 속털털이, 는젱이범벅 감제범벅 톳범벅?(쑥'털털이', 나깨범벅 고구마범벅, 톳범벅?)

107034 #1 건 는젱이범벅은 ᄆᆞ멀쏠을 거피 헤다가 중간에 꺼보고 는젱이옌 허여. 시커멍헤여 그놈이 거는.(거는 나깨범벅은 메밀쌀을 거피 해다가 나깨라고 해. 그놈의 거는.)

107034 @ 중간에 거. 시커멍.(중간에 꺼보고 시커매.)

107034 #1 쳇 꺼는 희영 맛딧는디 말제가민 는젱이범벅은이 그 ᄆᆞ멀 거피헤영 쳇것이 시커멍헤여.(첫 거는 희여서 맛있는데 나중에 가면 나깨범벅은 메밀 거피해서 처음 것이 시커매.)

107034 @ 엇이난 이것도 어디십디강 헹 먹는 거 아니? 는젱이도.(없으니까 이것도 어디 있습디까? 해서 먹는 거 아니? 나깨.)

107034 #1 는젱이도 맛잇어. 시커멍헤도, 이 는젱이가 검어.(나깨도 맛있어. 시커매도, 이 나깨가 검어.)

107034 @ 검어예. 는젱이범벅, ᄆᆞ멀범벅, 감제범벅. 감제범벅은 감제만 놩 범벅헙니까?(검어요. 나깨범벅, 메밀범벅, 고구마범벅. 고구마범벅은 고구마만 놔서 범벅합니까?)

107034 #1 아니야, 보리 ᄀᆞ루 ᄀᆞᆯ아당.(아니야, 보리 가루 갈아다가.)

107034 @ 보리범벅도 많이 헹 먹엇구나?(보리범벅도 많이 해서 먹었구나?)

107034 #1 응. 범벅도 아무나 못헤여. 딱 물 맞게 헤사 맛잇주.(응. 범벅도 아무나 못해. 딱 물 맞게 해야 맛있지.)

107034 @ 하하하.(하하하.)

107034 #1 죽ᄀᆞ찌 쒀도 안 뒈고.(죽같이 쒀도 안 되고.)

107034 @ 하하하.(하하하.)

107034 #1 설게 헤도 안 뒈여.(설게 해도 안 돼.)

107034 @ 하하하.(하하하.)

107034 #1 딱 물 맞아야 허여.(죽같이 쒀도 안 되고 딱 물 맞아야 허여.)

107034 @ 삼춘 것도 잘헤마씨?(삼춘 것도 잘해요?)

107034 #1 그렇지. 물을 딱 노면은 이 ᄀᆞ루가 이길까? 아닌가? 벌써 짐작이 나오지.(그렇지. 물을 딱 놓으면 이 가루가 이길까? 아닌가? 벌써 짐작이 나오지.)

107034 @ 하하하하.(하하하하.)

107034 #1 분쉬 모른 사람덜, 물 쳐 놩 흔작허영.(분수 모른 사람들, 물 쳐 놔서 흉건해서.)

107034 @ 고구마가 좀 삶앙 놔둬야 할건가?(고구마가 좀 삶아서 놔둬야 할 건가?)

107034 #1 고구마 썰어가지고 겁적 베껴가지고 뭉탁뭉탁 썰엉 거민 그놈을 물에 솖아. 겐 영 하시착으로 영, 영 쒜 밀아보민 솖아져.(고구마 썰어가지고 껍데기 벗겨가지고 뭉텅뭉텅 썰어서 거면 그놈을 물에 삶아. 그래서 이렇게 젓가락으로 이렇게, 이렇게 쇠 밀어보면 삶아져.)

107034 @ 썰엉.(썰어서.)

107034 #1 썰어야지. 통차로 헤지나게. 겡 헨 그거 이젠 그 ᄀᆞ루이. 우에 놩은에 징을 올려. 떡치듯, 그냥 서끄지 말고.(썰어야지. 통째로 해지나? 그렇게 해서 그거 이제 그 가루. 위에 놔서 징을 올려. 떡치듯, 그냥 섞지 말고.)

107034 @ 아아.(아아.)

107034 #1 징을 지어놩은에 익은 거 닮으민 불 확 걷엉은에 막 젓어. 막 젓어. 경 헹 범벅뒈는 거.(징을 지어놔서 익은 거 닮으면 불 확 걷어서 막 저어. 막 저어. 그렇게 해서 범벅되는 거.)

107034 @ 아이고야.(아이고야.)

107034 @ 톳범벅은?(톳범벅은?)

107034 #1 우리 안 헹 먹어봔.(우리 안 해서 먹어봤어.)

107035 @ 그 다음 수제비? ᄌᆞ베기.(수제비 종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7035 #1 ᄌᆞ베긴 손으로 톧아논 거 ᄌᆞ베기 문작허는데 그걸 허민 그냥 몰앙허민 따락따락헤영 맛읏서.(수제빈 손으로 뜯어 논 거 수제비 반드러운데 그걸 하면 그냥 말아서하면 '따락따락'해서 맛없어.)

107035 @ 무사 몰앙 그냥 영, 영, 영.(왜 말아서 그냥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107035 #1 분쉬 ᄆᆞ른 사람은 몰앙 톧아놔. 맛이 뜰려 불어.(분수 모른 사람은 몰아서 뜯어 놔. 맛이 틀려 버려.)

107035 @ 반죽이 중요하다는 말이지예? 물하고 뜨거운 물에 헙니까?(반죽이 중요하다는 말이지요? 물하고 뜨거운 물에 합니까?)

107035 #1 뜨뜻헌 물에 허민 더 좋주마는 우린 냉수에 헤여.(따뜻한 물에 하면 더 좋지만 우린 냉수에 해.)

107035 @ ᄌᆞ베기 이렇게 ᄐᆞ다놓는 거 아니? 끈어 놓는 거 아니?(수제비 이렇게 뜯어놓는 거 아니? 끊어 놓는 거 아니?)

107035 #1 그건 저 우리는 이 모멀ᄀᆞ루 ᄒᆞ낌허민 이거 수제로 탁탁.(그건 저 우리는 이 메밀가루 조금하면 이거 수저로 탁탁.)

107035 @ 수제로.(수저로.)

107035 #1 그 너미 캉캉허게 몰민 맛엇고, 흔닥허게 몰앙 딱딱, 경 헤야지 캉캉허민 못 먹어. 뒈게 몰앙.(그 너무 딱딱하게 반죽하면 맛없고, 물렁하게 반죽해서 딱딱, 그렇게 해야지 딱딱하면 못 먹어. 되게 반죽해서.)

107035 @ 그 국물은 무신 국물로?(그 국물은 무슨 국물로?)

107035 #1 무신 국물 허여? 그냥 허주.(무슨 국물 해? 그냥 하지.)

107035 @ 꿩허고 어울린다고 헙디다마는?(꿩하고 어울린다고 합디다만?)
107035 #1 ᄆᆞ멀ᄀᆞ루? 꿩허고 ᄆᆞ멀은 두갓이주.(메밀가루? 꿩하고 메밀은 부부지.)
107035 @ 거난.(그러니까.)
107035 #1 두갓이라.(부부라.)
107036 @ 칼국수에 대헤서 말씀헤 주십시오.(칼국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7036 #1 또 모멀ᄀᆞ루 칼국수, 꿩 노민 왓다고, 꿩이 어딧냐? 그냥허주.(또 메밀가루 칼국수, 꿩 놓으면 최고고, 꿩이 어디 있냐? 그냥하지.)
107036 @ 게난마씨. 그냥 물에다가, 칼국수는?(그러니까요. 그냥 물에다가, 칼국수는?)
107036 #1 칼로 써는 것ᄀᆞ라 칼국수.(칼로 써는 것보고 칼국수.)
107036 @ 메밀가루 사당 헷수과?(메밀가루 사다가 했습니까?)
107036 #1 모멀ᄀᆞ루 사당허주.(메밀가루 사다가 하지.)
107036 @ 어떤 날에 먹엇수과?(어떤 날에 먹었습니까?)
107036 #1 이녁 먹ᄀᆞ졍 헌 날게.(이녁 먹고 싶은 날.)
107036 @ 그믄 아이덜이 좋아합니까?(그러면 아이들이 좋아합니까?)
107036 #1 아이덜 안 좋아헤. 검덴.(아이들 안 좋아해. 검다고.)
107036 @ 검덴.(검다고.)
107036 #1 밀ᄀᆞ룬 희양허니까 국수헤도 건 먹는디 ᄆᆞ멀ᄀᆞ룬 맛좋은 거라도 검덴 안 먹어.(밀가룬 희니까 국수해도 건 먹는데 메밀가룬 맛좋은 거라도 검다고 안 먹어.)

김치

107037 @ 김치의 종류는 무슨 김치가 잇수과?(김치의 종류는 무슨 김치가 있습니까?)
107037 #1 하지. 배추김치, 무수김치, 츠마기김치. 무싱 거 것ᄀᆞ라? 아이고.(많지. 배추김치, 무김치, 열무김치, 것보고? 아이고.)
107037 @ 세우리김치. 갯ᄂᆞ멀.(부추김치. 갓.)
107037 #1 것도 갯ᄂᆞ멀김치. 갯ᄂᆞ멀짐치가 맛잇어.(것도 갓김치. 갓김치가 맛있어.)
107037 @ 갯ᄂᆞ물은 일부러 갑니까?(갓은 일부러 갑니까?)
107037 #1 동문시장 가믄 풀아.(동문시장 가면 팔아.)
107040 @ 물김치에 대헤서 말씀헤 주십시오.(물김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7040 #1 물짐치는 그 줌질, 줌질, 납질, 납질 썰어. 그거 웨냐믄 소금을 믄여 허민 안 뒈어.(물김치는 그 잘게, 잘게, 납작, 납작 썰어. 그거 왜냐하면 소금을 먼저 하면 안 돼.)
107040 @ 깍뚜기추룩.(깍두기처럼.)
107040 #1 거 허민이 그냥 북베기에 헤여야 무수가 수왁수왁허고 다 우끗 트지 절엇다 허민 다 골라앚아 불어 무수는 그렇게 해여. 게난 우린 요레도 헤보고 경험자니까

저래도 헤보고.(거 하면 그냥 '북베기'에 해야 무가 서벅서벅하고 다 우꾼 뜨지. 절었다 하면 다 갈아 앉아버려. 무는 그렇게 해. 그러니까 우린 요렇게도 해보고 경험자니까 저렇게도 해보고.)

107041 @ 동지김치에 대헤서 말씀헤 주십시오.('동지김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7041 #1 동지김치허주게. 동지짐친 봄에, 동지 살 때 그거 맛잇어. ᄂᆞ멀 배추 싱경 늙어 가민 꼿 피잖아. 그믄 그거 똑똑 끈어근에 동지짐치 헤여.(동지김치하지. 동지김친 봄에, 동지 살 때 그거 맛있어. 나물, 배추 심어서 늙어 가면 꽃 피잖아. 그러면 그거 똑똑 끊어서 동지김치 해.)

107041 @ 그거 맛좋아예.(그거 맛좋아요.)

107042 @ 무김치에 대헤서 말씀헤 주십시오.(무김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7042 #1 나박짐친옌 헌 것도 이만큼 썰어놩 거 맛잇어. 그거 김치허믄이 수왕수왕 이빨 졸 때 나박짐치 얼마나 맛좋아, 우린 이 손더멍만씩 짐치를 허여. 것도이, 봄에 먹을 거 뜨로 겨울에 먹을 거 뜨로.(나박김치라고 한 것도 이만큼 썰어놔서 거 맛있어. 그거 김치하면 서벅서벅 이빨 졸 때 나박김치 얼마나 맛좋아. 우린 이 손등만큼씩 김치를 해. 것도, 봄에 먹을 거 따로 겨울에 먹을 거 따로.)

젓갈

107048 @ 젓갈은 뭐 놧수과?(젓갈은 뭐 놨습니까?)

107048 #1그거 여러 가지지. 메루치.(그거 여러 가지지. 멸치.)

107048 #1 멜젓.(멸치젓.)

107048 @ 멜젓 놓고 또 그냥 허는 사름도 잇고.(멸치젓 넣고 또 그냥 하는 사람도 있고.)

107048 @ 그난 김치 할땐 주로 멜젓을 썼다는 거다예.(그러니까 김치 할 땐 주로 멸치젓을 썼다는 거네요.)

107048 #1 응.(응.)

107048 @ 새우젓은 안쓰고?(새우젓은 안 쓰고?)

107048 #1 새우젓도 놓고 멜젓도 놓고.(새우젓도 놓고 멸치젓도 놓고.)

107048 #1 새우젓은이 짐치가 수왕수왕헌다.(새우젓은 김치가 서벅서벅한다.)

107048 @ 새우젓은.(새우젓은.)

107048 #1 짐치가 살아가지고.(김치가 살아가지고.)

107048 @ 살아서. 두 가지를 같이 놓는다는 거지예?(살아서. 두 가지를 같이 놓는다는 거지요?)

107048 #1 그렇지.(그렇지.)

107049 @ 자리는 무사 안 놔싱고예?(자리는 왜 안 놨는가요?)

107049 #1 자리가 잇어사 자리젓을 시에 가사 사오주. 시에 갓자이 얼음 놔부난 자

리젯 못헤여. 흔닥허연 그냥 흘 벗어버려. 곧 걸여오는 자리사주. 얼음에 논 자린 못헤여. 먹지 못헤여. 우린 그냥 데껴불언.(자리가 있어야 자리젓을 시에 가야 사오지. 시에 가 봐도 얼음 놔버리니까 자리젓 못해. '흔닥해서' 그냥 허물 벗어버려. 곧 떠 오는 자리야지. 얼음에 넣은 자린 못해. 먹지 못해. 우린 그냥 던져버렸어.)

107049 @ 자리젓에 대헤서 말씀헤 주십시오.(자리젓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7049 #2 벨 내던가 어디 끈으민 안 뒈어. 소금을 잘해야 뒈어. 짜듯허게.(밸 내든가 어디 끊으면 안 돼. 소금을 잘해야 돼. 짜듯하게.)

장아찌와 회

107055 @ 그 장아찌.(그 장아찌.)

107055 #1 응.(응.)

107055 @ 마농지 잇수게.(마늘지 있지요.)

107055 #1 ᄋᆞ.(응.)

107055 @ 그 종류는 무싱 걸로 옛날 헹 먹엇수과?(그 종류는 뭘 걸로 옛날 해서 먹었습니까?)

107055 #1 무슨 거?(무슨 거?)

107055 @ 장아찌는 마농장아찌하고 무슨 거 헷수과?(장아찌는 마늘장아찌하고 뭐 했습니까?)

107055 #1 무수 ᄆᆞᆯ른 것ᄀᆞ라 생기리.(무 마른 것보고 '생기리'.)

107055 @ 생기리도 짱아찌 헷수과?(무말랭이도 장아찌 했습니까?)

107055 #1 그것도 서껑 허여.(그것도 섞어서 해.)

107055 @ 서껑.(섞어서.)

107055 #1 콥데사니 마늘 잇잖아. 것ᄀᆞ라 콥대사니옌 허여, 콥대사니에 그 무 ᄆᆞᆯ른 거에 서꺼근에 지 담아.('콥데사니' 마늘 있잖아. 것보고 '콥데사니'라고 해. 마늘에 그 무 마른 거에 섞어서 장아찌 담가.)

107056 @ 지 담아예.(장아찌 담가요.)

107055 #1 응.(응.)

107056 @ 마늘장아찌 만드는 법에 대헤서 말씀헤 주십시오.(마늘장아찌 만드는 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7056 @ 어떵 헨.(어떻게 해서.)

107056 #1 여기 우리 ᄃᆞᆼ그는 간장 잇잖아. 그걸로 ᄃᆞᆼ그지.(여기 우리 담그는 간장 있잖아 그걸로 담그지.)

107056 @ 어떵? 마농지는 마늘쫑 육지말로는 마늘쫑?(어떻게? 마늘장아찌는 마늘종 육지말로는 마늘종?)

107056 #1 마농쫑은 우로 뽑은 거, 거 씨 나오는 거 것ᄁᆞ라 쫑이옌 허고.(마늘종은 위로 뽑은 거, 거 씨 나오는 거 것보고 종이라고 하고.)

107056 @ 아아.(아아.)

107056 #1 그냥 썰엉은에 이제 지시 담그는 거는 콥데사니, 사투리론 콥데사니지. 그냥은 마늘이엔 허곡.(그냥 썰어서 이제 마늘장아찌 담그는 거 마늘, 사투리론 '콥데사니'지. 그냥은 마늘장아찌라고 하고.)

107056 @ 제주도 마농지는 줄기를 연헐 때 그 대, 마농대를 썰엉 헙니께?(제주도 마늘지는 줄기를 연할 때 그 대, 마늘대를 썰어서 하지요?)

107056 #1 그거는 쫑. 뽑앙 허는 거고. 그 쫑 나기 전에.(그거는 대, 뽑아서 하는 거고. 그 대 나기 전에.)

107056 @ 응.(응.)

107056 #1 건 세영 못 먹어. 쫑 나민. 새기 전에 매어야 지가, 지시가 뒈지.(건 세여서 못 먹어. 종 나면. 쇠기 전에 매어야 장아찌가, 장아찌가 되지.)

107056 @ 예.(예.)

107056 #1 질경 못 먹어.(질겨서 못 먹어.)

107056 @ 마농지는 어떵 담금니까?(마늘장아찌는 어떻게 담급니까?)

107056 #1 간장.(간장.)

107056 @ 간장 끓영?(간장 끓여서?)

107056 #1 아니, 거 끓여 가민 짜. 그놈이게.(아니, 거 끓여 가면 짜. 그놈이게.)

107056 @ 응.(응.)

107056 #1 게난 끓이면은 저 곰상 안 피고 그냥허민 좀 시끔시끔헤여. 곰상 피어. 간장을 끓영 놔야허여.(그러니까 끓이면 저 곰팡이 안 피고 그냥하면 좀 시금시금해서 곰팡이 피어. 간장을 끓여서 놔야해.)

107056 @ 곰팡이를 곰셍이렌 헙니까?(곰팡이를 '곰셍이'라고 합니까?)

107056 #1 응. 곰팡이ᄀᆞ라 곰셍이. 사투리로.(응. 곰팡이보고 '곰셍이'. 사투리로.)

107056 @ 곰팡이, 곰셍이.(곰팡이, 곰팡이.)

107056 #1 곰셍이 핀다.(곰팡이 핀다.)

107056 @ 게믄 아까 마농지로 넘어 강, 마농지 만드는 법, 썰엉, 멧 월달에 그거 연헐 때 케엉.(그러면 아까 마늘지로 넘어가서, 마늘지 만드는 법, 썰어서, 몇 월에 그거 연할 때 캐어서.)

107056 #1 연헐 때가 그때가 음력으로 삼월 초에 담아야 헤여. 삼월 넘어가믄 대가 사가지고 삼월초에 음력으로. 이월들엔 너무 연허고 아멩헤도 삼월들이 나야 그놈이거.(연할 때가 그때가 음력으로 삼월 초에 담아야 해. 삼월 넘어가면 대가 서가지고 삼월 초에 음력으로, 이월엔 너무 연하고 아무리 해도 삼월이 나야 그놈의 거.)

107056 @ 썰엉 그냥 간장만 넣으면 뒈마씨?(썰어서 그냥 간장만 넣으면 되요?)

107056 #1 응, 간장놔근에 헤당 좀 시끔지다 허면은 건져근에 물 빠지왕 또 끓여야 허여.(응, 간장 놔서 하다가 좀 시금하다 하면 건져서 물 빼서 또 끓여야 해.)

107056 @ 식초 안 놓고.(식초 안 놓고.)

107056 #1 식초 안 놔. 우린 식초 안 놔봔. 식촌 경 안헤도 시끔시끔 허는디.(식초

안 놔. 우린 식초 안 놔 봤어. 식촌 그렇게 안 해도 시금시금 하는데.)

107056 @ 응.(응.)

107056 #1 그거 헤영 끓여근에 물 드끈 빠지왕 이제 끓인 걸 끓인 물을 막 식혀야 혀. 식혀.(그거 해서 끓여서 물 가득 빼서 이제 끓인 걸 끓인 물을 막 식혀야 해. 식혀서.)

107056 @ 응.(응.)

107056 #1 막 냉하게 경 식형은에 노면은 맛 잇어. 찝찔헌게, 곰상도 안 피고, 그거 끓여부니까 거 균이 문 죽엇네.(막 냉하게 그렇게 식혀서 노면은 맛있어. 짭짤한 게, 곰팡이도 안 피고, 그거 끓여버리니까 거 균이 모두 죽었네.)

107056 @ 응.(응.)

107056 #1 경 안허민 막 곰상 피어 불어.(그렇게 안하면 막 곰팡이 피어버려.)

107056 @ 조선간장 말고 샘표간장 그런 걸로 헷수과?(조선간장 말고 샘표간장 그런 걸로 했습니까?)

107056 #1 아니 우린 그냥 간장. 우리 담은 걸로.(아니 우린 그냥 간장. 우리 담은 걸로.)

107056 @ 담은 걸로 옛날은예.(담은 걸로 옛날은요.)

107056 #1 응. 담은 걸로 허고 저런 사당 안 헤여.(응. 담은 걸로 하고 저런 사당 안 해.)

107056 @ 아, 예.(아, 예.)

107056 #1 우리 옛날 어른덜은 이녁으로 헌 것만.(우리 옛날 어른들은 이녁대로 한 것만.)

107057 @ 이녁으로 헌 거예. 훼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이녁대로 한 거요. 회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107057 #1 훼? 바당에 것만?(회? 바다의 것만?)

107057 @ 예. 바당에 것도 잇고, 그냥도 잇고.(예. 바다에 것도 있고, 그냥도 있고.)

107057 #1 뭐 훼 뭐 자리훼도 잇고.(뭐 회 뭐 자리회도 있고.)

107057 @ 자리훼.(자리회.)

107057 #1 또시 상어훼도 잇고.(또 상어회도 있고.)

107057 @ 상어훼.(상어회.)

107057 #1 가오리훼도 잇고,(가오리회도 있고,)

107057 @ 가오리훼.(가오리회.)

107057 #1 홍에, 홍에라 한 회도 잇고.(또 상어회도 있고, 가오리회도 있고, 홍어라 한 회도 있고.)

107057 @ 홍어는?(홍어는?)

107057 #1 홍에는 이 가오리 닮아도 뜬나.(홍어는 이 가오리 닮아도 달라.)

107057 @ 어, 제주도 잇어마씨?(어, 제주도도 있어요?)

107057 #1 게. ᄒᆞ꼼허민 욕헐 때 이 홍에좃 ᄀᆞ뜬 놈의 새끼.(그럼. 조금하면 욕할 때

이 홍어좃 같은 놈의 새끼.)

107057 @ 건 무슨 뜻이꽈?(건 무슨 뜻입니까?)

107057 #1 홍에가 좃이 이상허는 셍이라.(홍에가 좃이 이상한 모양이라.)

107057 @ 하하하.(하하하.)

107057 #1 꼬치가.(고추가.)

107057 @ 허허허. 봐봣수과? 이상헙디가?(허허허. 봐봤습니까? 이상합디까?)

107057 #1 홍에?(홍어?)

107057 @ 홍어는 잡안 직접 봐봐수과? 그런 거?(홍어는 잡아서 직접 봐봤습니까? 그런 거?)

107057 #1 홍어. 우리 골겡이로, 고만이 잇더라. 그놈의 게. 난 무신 건 중 아니까 거 쒀 보난 홍어더라고, 또 가오리 가시 착착 허민 옷도 다 찢어져. 그것도.(홍어. 우리 호미로, 가만히 있더라. 그놈의 게. 난 무슨 건 줄 아니까 거 쒀보니까 홍어더라고, 또 가오리 가시 착착 하면 옷도 다 찢어져. 그것도.)

107057 @ 맛좋아? 훼로?(맛좋아? 회로?)

107057 #1 몰라. 난 아니고 아방 먹어낫저. 난 안 먹어. 아방 사시미로 먹데.(몰라. 난 아니고 아버지 먹었었지. 난 안 먹어. 아버지 생선회로 먹대.)

107057 @ 홍어?(홍어?)

107057 #1 홍어도 허고 또 가오리, 가오리가 물에 들언에 여ᄀᆞ치 시커멍 ᄒᆞ니까 그거 이제 가오린 중을 몰랏어. 골겡이로 탁 눈을 쏘난 그냥 착착 헐 땐.(홍어도 하고 또 가오리, 가오리가 물에 들러서 여같이 시커머니까 그거 이제 가오린 줄을 몰랐어. 호미로 탁 눈을 쏘니까 그냥 착착 할 땐.)

107057 @ 아이고.(아이고.)

107057 #1 그놈의 게 이만이헌 꽁지에 칼 달믄 거 과짝 잇데. 그걸로 사름 친덴. 난 분시도 몰르고, 경헨에 아이구 야 느 소망 일엇저. 완전 술 끈엉 나간덴 그거. 착착 헐 때.(그놈의 게 이만한 꽁지에 칼 같은 거 곤두서서 있대. 그걸로 사람 친다고. 난 분수도 모르고, 그렇게 해서 아이구, 야 너 사망 일었다. 완전 살 끊어서 나간다고 그거. 착착 할 때.)

107057 @ 아이구.(아이구.)

107057 #1 게난 나가 그거에 경헌 중도 몰르고 무착대고 무식허게 시리 이젠 그걸 이제 골갱이로 해단 망아리, 망아리에 간 꽉 찔르난 굴갱이 빼젠 허난 이레착 저레착 이레착 흔동안 허단 죽데. 또 흔번은 뭐냐 그것이.(그러니까 나가 그거에 그렇게 한 줄도 모르고 무턱대고 무식하게끔 이젠 그걸 이제 호미로 해다가 망사리, 망사리에 간 꽉 찌르니까 호미 빼려고 하니까 이리 착 저리 착 이리 착 한동안 하다가 죽대. 또 한 번은 뭐냐 그것이.)

107057 @ 삼촌 안 먹고 거의 그걸 아저씨가 훼 헹 먹엇다고예?(삼촌 안 먹고 거의 그걸 아저씨가 회 해서 먹었다고요?)

107057 #1 사시미 헹 먹데.(생선회 해서 먹데.)

107057 @ 삼촌은 사시미 안 먹어마씨?(삼촌은 생선회 안 먹어요?)

107057 #1 아니, 난 먹구정 안헤여. 겐 지냥으로 헹 먹고 또 뭐 아방냥으로 또 빼데긴 놘에 매운탕 헹 먹고. 나는 안 헷지. 지냥으로 다헨. 난 헤당만 줭 내부니까 안헤.(아니, 난 먹고 싶지 않아. 그래서 자기 스스로 해서 먹고 또 뭐 아버지 스스로 또 뼈다귀 놔서 매운탕 해서 먹고. 나는 안했지. 자기 스스로 다 했어. 난 해다가만 줘서 내버리니까 안 해.)

107057 @ 삼촌도 자리물훼 이런 건 잘 드시지예?(삼촌도 자리물회 이런 건 잘 드시지요?)

107057 #1 그래 그거 막. 훼 중엔 질 자리훼가 좋지, 씨원험도 허곡. 훼 중엔 자리회가 췌고야.(그래 그거 막. 회 중엔 질 자리돔회가 좋지, 시원함도 하고. 회 중엔 자리돔회가 최고야.)

107057 @ 옥돔이나 우럭이나 이런 건 훼 안 헹 먹고?(옥돔이나 우럭이나 이런 건 회 안 해서 먹고?)

107057 #1 사시미.(생선회.)

107057 @ 사시미로? 다 헤먹어마씨?(생선회로? 다 해먹어요?)

107057 #1 이 자리훼가 물훼로 들어가지. 다른 건 물훼허민 좀 찝찝허여. 자리는 맛잇고.(이 자리회가 물회로 들어가지. 다른 건 물회하면 좀 찝찝해. 자리는 맛잇고.)

107057 @ 요즘은 객주리로 사시미.(요즘은 쥐치로 생선회.)

107057 #1 객주리도 사시미.(쥐치도 생선회.)

107057 @ 어랭이로 물훼헹 먹고.(어랭놀래기로 물회해서 먹고.)

107057 #1 어랭이는 사시미로 들어갈건디, 늘내 제왕. 그거 물훼는 자리훼나벳긔 다른 건 다 좀 늘내날 것이여. 난 먹어보지 안헷주마는. 자리회는 맛잇더라. 물훼 헌 거. 회도 여러 가지라 돗새끼훼도 잇고.(어렝놀래기는 생선회로 들어갈 건데, 비린내 겨워서. 그거 물회는 자리돔회나 밖에 다른 건 다 좀 비린내 날 것이여. 난 먹어보지 안했지만. 자리돔회는 맛있더라. 물회 한 거. 회도 여러 가지라. 돼지새끼회도 있고.)

107057 @ 돗새끼훼를 새끼훼렌 허지예? 돗새끼(돼지 새끼회를 새끼회라고 하지요? 돼지 새끼)

107057 #1 돗새끼 그 밴 걸 잡아불지 안허나. 잡으믄 거 새끼가 잇어.(돼지 새끼 그 밴 걸 잡아버리지 안하나. 잡으면 거 새끼가 있어.)

107057 @ 봇차.(태째.)

107057 #1 봇차. 그거 헤다근에이, 것이 영양까치 잇인거옌. 거 닥닥 헹간 나도 아방 혼 번 멕이난 거 봇속은 피더라 피.(태째. 그거 해다가, 것이 영양가치 있는 거라고. 거 닥닥 해서 가서 나도 아버지 한 번 먹이니까 거 태속은 피더라. 피.)

107057 @ 응.(응.)

107057 #1 시뻘건 물이 막, 그거 빠불민 맛엇넨.(시뻘건 물이 막, 그거 빼버리면 맛없다고.)

107057 @ 응.(응.)

107057 #1 걸 빠네 이젠 비와둰에 막 칼로 뿟안. 막 뿟이난 소곱에 똑 중이새끼만이 허더라 그게. 거.(걸 빼서 이젠 비워두고 막 칼로 빻아서. 빻으니까 속에 꼭 쥐새끼만 하더라. 그게. 거.)

107057 @ 우리 할머니도 많이 헹 먹읍디다.(우리 할머니도 많이 해서 먹었습니다.)

107057 #1 그거 헤연에 이제 것이 소곱에 가민 씨원헌덴. 난 안 먹어봔. 난 피 벌경 헤부난. 게난 아방이 후룩후룩 먹데. 거 나도 줴 짓어지카부덴이, 영 즉아먹엇지. 자기 구진 거 놈 멕이민 줴 받아지카부덴 영 헨, 먹구정 안헤도 이제 줴 받아지카부덴게.(그거 해서 이제 것이 속에 가면 시원하다고. 난 안 먹어 봤어. 난 피 뻘개버리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후룩후룩 먹대. 거 나도 죄 지어질까봐, 이렇게 찍어 먹었지. 자기 궂은 거 남 먹이면 죄 받아질까봐 이렇게 해서, 먹고 싶지 않아도 이제 죄 받아질까봐.)

107057 @ 안 먹은 거꽈? 구미에 안 맞는 거주.(안 먹은 겁니까? 구미에 안 맞는 거지.)

107057 #1 구진 거 놈 멕이믄 줴 받잔아.(궂은 거 남 먹이면 죄 받잖아.)

107057 @ 구진 건 아니지.(궂은 건 아니지.)

107057 #1 이녁이 궂언 아니 먹는 건디.(이녁이 궂어서 안 먹는 건데.)

107058 @ 그믄 우럭조림이나 고사리무침이나?(그러면 우럭조림이나 고사리무침이나?)

107058 #1 우럭허고 볼락허고 거 췌고 맛잇인 거라. 거 지지민.(우럭하고 볼락하고 거 최고 맛있는 거라. 거 지지면.)

107058 @ 우럭하고 볼락은 뭐가 달라마씨?(우럭하고 볼락은 뭐가 달라요?)

107058 #1 우럭은이 솔치만헌 가시가 엉허곡.(우럭은 쑤기미만한 가시가 '엉'하고.)

107058 @ 아아.(아아.)

107058 #1 볼락은 이 노리롱헤둠서 가시가 영 맨짝헤여.(볼락은 이 노르스름해서 가시가 이렇게 매끈해.)

107058 @ 아아. 틀리구나.(아아. 틀리구나.)

107058 #1 뜬나.(달라.)

107058 @ 머리가 큰 건 우럭이지예?(머리가 큰 건 우럭이지요?)

107058 #1 응. 앙 헌 거.(응. 앙 한 거.)

107058 @ 앙 헌 거. 뻘건 색깔도 잇고?(앙 한 거. 뻘건 색깔도 있고?)

107058 #1 뻘건 색에 또 검은 색깔도 잇고게. 그 검은 것이 맛잇어.(뻘건 색에 또 검은 색깔도 있고. 그 검은 것이 맛있어.)

107058 @ 눈도 크고.(눈도 크고.)

107058 #1 응. 검은 놈이 맛이 잇넨. 쿠신덴 허메. 뿔근 거보다.(응. 검은 놈이 맛이 있다고, 구수한다고 해. 붉은 거보다.)

107058 @ 아아.(아아.)

107058 #1 바당우럭 아냐게? 뻘경헌 거는. 곳디껀 꺼멍허잔아. 게난 곳디껏이 알아줘.(바다우럭 아니냐? 뻘건 거는. 갯가 건 꺼멓잖아. 그러니까 갯가 것이 알아줘.)

107058 @ 아아.(아아.)

107058 #1 바당꺼는 맛이 없어. 깃디껏이. 다 여러 가지.(바다 거는 맛이 없어. 갯가의 것이. 다 여러 가지.)

107058 @ 삼촌 콩 놩 지져먹습니까?(삼촌 콩 놔서 지져먹습니까?)

107058 #1 콩. 콩에 꿰예.(콩. 콩에 깨요.)

107058 @ 꿰도?(깨도?)

107058 #1 어. 경 헹 서꺼근에.(어, 그렇게 해서 섞어서.)

107058 @ 무 그런 건 안 놓고?(무 그런 건 안 놓고?)

107058 #1 건 고등에주, 볼락허고 우럭은이 콩 놩 지져야 맛잇어.(건 고등어지. 볼락하고 우럭은 콩 놔서 지져야 맛있어.)

107058 @ 건 언제 많이 납니까?(건 언제 많이 납니까?)

107058 #1 아, 이제덜 잇지. 시장에.(아, 이제들 있지. 시장에.)

107058 @ 아니,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바당에, 아무 때나?(아니,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바다에, 아무 때나?)

107058 #1 아무 때라도 이 배에덜 거려오잔아게.(아무 때라도 이 배에 떠 오잖아.)

107058 @ 우럭은 아무 때나 나는 거로구나?(우럭은 아무 때나 나는 거로구나?)

107058 #1 볼락도 마찬가질 거여. 볼락은 바당볼락. 깃볼락이 아니고.(볼락도 마찬가질 거야. 볼락은 바다볼락. 객사볼락이 아니고.)

107058 @ 깃볼락이 아니고?(갯가볼락이 아니고?)

107058 #1 깃디서 배 강 영 나끄는 거허고, 베끗디 강 주낙 놓는 것이 뜰리지. 영 나끈 것이 알아줘. 비싸.(갯가에서 배에 가서 이렇게 낚는 거하고, 밖에 가서 주낙 놓는 것이 틀리지. 이렇게 낚은 것이 알아줘. 비싸.)

107058 @ 아아, 비싸. 맛도 좋고?(아아, 비싸. 맛도 좋고?)

107058 #1 응. 그 무시거 바당에 강 그물 놔근에 헌건 싸. 나끈 것이 비싸주. 나끄는 건 일일이 하나씩 하나씩 나끄난.(응. 그 무슨 바다에 가서 그물 놔서 한건 싸. 낚은 것이 비싸지. 낚는 건 일일이 하나씩 하나씩 낚으니까.)

107058 @ 물웨를 옛날엔 노각이렌도 헷수과?(물외를 옛날엔 노각이라고도 했습니까?)

107058 #1 노각?(노각?)

107058 @ 물웨? 물웨?(물외? 물외?)

107058 #1 물웨 어떵? 우린 몰라 노각이옌 헌건 들어본 도래 엇어. 물웨옝만 허지.(물외 어떻게? 우린 몰라. 노각이라고 한 건 들어본 도래 없어. 물외라고만 하지.)

107058 @ 그 물웨는 뒌장에 찍어먹고.(그 물외는 된장에 찍어먹고.)

107058 #1 물웨는 뒌장에 찍어 먹으는 건 저 그 촘웨마랑 물웨가 또 잇어.(물외는 된장에 찍어 먹는 건 참외말고 물외가 또 있어.)

107058 @ 응.(응.)

107058 #1 그거, 그거. 거 냉국도 헤먹곡, 찍엉도 먹고.(그거, 그거. 거 냉국도 해먹

고, 찍어서도 먹고.)

107058 @ 근데 오이는 안 싱그고 그거 제주도는 물웨가 많이 싱것드라예?(근데 오이는 안 심고 그거 제주도는 물외가 많이 심었더군요?)

107058 #1 응. 물웨가 맛잇어. 오이보단.(응. 물외가 맛있어. 오이보단.)

107058 @ 거난.(그러니까.)

107058 #1 근디 오이는 튼튼허곡이, 물웨는 물랑물랑 허잔아. 이 솔이 연드러와. 이저 오이 씹어보고 물웨 씹어 봐도 뜬나. 물웨는 이 좀 부드럽고 또 오이는 쫌 찔깃찔깃헌 맛이 잇어. 뜬나.(근데 오이는 단단하고, 물외는 물랑물랑 하잖아. 이 살이 부드러워. 이 저 오이 씹어보고 물외 씹어 봐도 달라. 물외는 이 좀 부드럽고 또 오이는 쫌 찔깃찔깃한 맛이 있어. 달라.)

107058 @ 고사리는 꼭 제사상에 올리란 말이 무산고예?(고사리는 꼭 제사상에 올리란 말이 왜인고요?)

107058 #1 그거는 옛날에 저 비니루도 엇고, 종이도 엇고 경헌디 그 고사리가 이제 크면은 쫙 벌겨지지 안허나. 게난 그 고사리에 쌍 간단다. 초상들이.(그거는 옛날에 저 비닐도 없고, 종이도 없고 그런데 그 고사리가 이제 크면 쫙 벌겨지지 안하나. 그러니까 그 고사리에 싸서 간단다. 조상들이.)

107058 @ 아아.(아아.)

107058 #1 이제는 비니루 다 잇주만은 그때덜은 그 고사리가 포따리에.(이제는 비닐 다 있지만 그때는 그 고사리가 보자리에.)

107058 @ 계란 헤야 뒈는 거 아니? 계란에 고사리.(계란 해야 되는 거 아니? 계란에 고사리.)

107058 #1 그거는 연헌 때 허고, 고사리 쌍 가는 거는 좀 세여야. 고사리 연헌 걸로 싸지나? 좀 세여야 싸지.(그거는 연한 때 허고, 고사리 싸서 가는 거는 좀 쇠어야. 고사리 연한 걸로 싸지나? 좀 쇠어야 싸지.)

107058 @ 제사 때만 하는 거지예?(제사 때만 하는 거지요?)

107058 #1 아 그냥도 거꺼당 먹어. 그냥도 거꺼당 먹어.(아 그냥도 해다가 먹어. 그냥도 꺾어다가 먹어.)

107058 @ 제사 땐 그거를 꼭 조상안티 올린덴 헙디다.(제사 땐 그거를 꼭 조상안티 올린다고 합디다.)

107058 #1 응. 그거허고 콩ᄂᆞ물.(응. 그거하고 콩나물.)

107058 @ 콩ᄂᆞ물하고예. 콩주름이옌도 헷수과? 여기서.(콩나물 하고요. '콩주름'이라고도 했습니까? 여기서.)

107058 #1 콩주름이옌. 건 사투리. 이제사 콩ᄂᆞ물이옌 허주. 옛날 할망덜은 콩주름, 콩주름.('콩주름'이라고. 건 사투리. 이제야 콩나물이라고 하지. 옛날 할머니들은 '콩주름, 콩주름'.)

107058 @ 그거는 제사멩질 말고도 잘 헹 먹어수과?(그거는 제사명절 말고도 잘 해서 먹었습니까?)

107058 #1 아니 헤영 먹는 사름덜은 헹 먹주. 겐디 이제 콩이 귀헤노난 제ᄉᆞ 때만 헐 거라.(아니 해서 먹는 사름들은 해서 먹지. 그런데 이제 콩이 귀해버리니까 제사 때만 할 거라.)

107058 @ 아, 콩이 귀헤.(아, 콩이 귀해.)

107058 #1 콩이 부제덜벳긔 안 갈지. 밧 없는 사름은 콩 못 ᄀᆞᆯ지.(콩이 부자들 밖에 안 갈지. 밭 없는 사람은 콩 못 갈지.)

107058 @ 뒌장 헤먹젠 허믄 무조건.(된장 해먹으려고 하면 무조건.)

107058 #1 경허니까. 뒌장 담아먹지. 그거 뭐 콩 놓아근에 그거, 이녁으로 콩을 키웁잔아. 그게. 사지 안헤여. 이녁으로 콩ᄂᆞ물 놓아근에 제ᄉᆞ 때 씨지. 엇인 사람도. 이젠 콩ᄂᆞ물이 막 돈만 주민 산디 그때는 이 돈 줘도 못 사. 콩ᄂᆞ물을. 경헨 다 자기 스스로 놔근에. 녹디ᄂᆞ물도 잇고. 응. 녹디로도 허민 채소 맛잇어. 부드러와.(그렇게 하니까. 된장 담아먹지. 그거 뭐 콩 놔서 그거, 이녁으로 콩을 키우잖아. 그게. 사지 않아. 이녁대로 콩나물 놓아서 제사 때 쓰지. 없는 사람도. 이젠 콩나물이 막 돈만 주면 사는데 그때는 이 돈 줘도 못 사. 콩나물을. 그렇게 해서 다 자기 스스로 놔서. 녹두나물도 있고. 응. 녹두로도 하면 채소 맛있어. 부드러워.)

107058 @ 그 알멩이 땐 탱글탱글 허는데.(그 알맹이 땐 탱글탱글 하는데.)

107058 #1 녹디?(녹두?)

107058 @ 예.(예.)

107058 #1 그게 쫙 올라와야 그 거평이 벳겨지지. 어린 땐 안 벳겨져. 것이 쎄여야. 경 안허민 그놈의 거 이 딱 물어근에 벗지도 아녀. 어린 때는. 그 ᄒᆞ꼼 세여야 다 벗어지주.(그게 쫙 올라와야 그 거평이 벗겨지지 어린 땐 안 벗겨져. 것이 쇠어야. 그렇게 안하면 그놈의 거 이 딱 물어서 벗지도 않아. 어린 때는. 그 조금 쇠어야 다 벗어지지.)

장 담그기

107059 @ 장은 언제 담급니까?(장은 언제 담급니까?)

107059 #1 장은 섣ᄃᆞᆯ 그믐날.(장은 섣달 그믐날.)

107059 @ 섯ᄃᆞᆯ 그믐날 딱 날 정혜져수과?(섣달 그믐날 딱 날 정해졌습니까?)

107059 #1 그럼.(그럼.)

107059 @ 날 봥 헌덴도 헨게.(날 봐서 한다고도 했어.)

107059 #1 게난 섣ᄃᆞᆯ 그뭄날. 섣ᄃᆞᆯ 그뭄날은.(그러니까 섣달 그믐날. 섣달 그믐날은.)

107059 @ 음력 삼월 마지막 날?(음력 삼월 마지막 날?)

107059 #1 음력으로 십이월이. 삼십 날이 섣ᄃᆞᆯ그뭄날이옌 헤여.(음력으로 십이 월. 삼십 날이 섣달그믐날이라고 해.)

107059 @ 아아, 무산고예?(아아, 왠가요?)

107059 #1 그것이이, 섣ᄃᆞᆯ 그믐날, 새해는 소금을 못 아져뎅겨.(그것이, 섣달 그믐날, 새해는 소금을 못 가져다녀.)

107059 @ 아아. 무산고예?(아아. 왠가요?)

107059 #1 거 묵은 해엣 소금을 아져뎅기는 덕분에 다 묵은해에 아져뎅기주. 새해 나민이 소금 아니 아져뎅겨.(거 묵은해 옛 소금을 가져다니는 덕분에 다 묵은해에 가져다니지 새해 나면 이 소금 안 가져다녀.)

107059 @ 아.(아.)

107059 #1 새각씨 들어올 때 소금 뿌리잔아. 나갈 때나. 거 방법 아냐. 소금ᄀᆞ찌 잘잘 녹으렌.(새색시 들어올 때 소금 뿌리잖아. 나갈 때나. 거 방법 아냐. 소금같이 잘잘 녹으라고.)

107059 @ 아.(아.)

107059 #1 방법이여. 거 소금 씨는 것도.(방법이야. 거 소금 씨는 것도.)

107059 @ 잘잘 녹으민 뭐가 좋아마씨? 새각시가.(잘잘 녹으면 뭐가 좋아요? 새색시가.)

107059 #1 그 새각씨가 친정에 오지 못허게 방법으로. 옛날에 친정 오는 거 막 나쁜 년이로 허잔아. 씨집이 부모네 보내믄 꼭 거기 살아야 허여. 암만 살기 실퍼도.(그 새색시가 친정에 오지 못하게 방법으로. 옛날에 친정 오는 거 막 나쁜 년으로 하잖아. 시집의 부모네 보내면 꼭 거기 살아야 해. 암만 살기 싫어도.)

107059 @ 그문 친정에서 나갈 때 소금 뿌려.(그러면 친정에서 나갈 때 소금 뿌려.)

107059 #1 어, 친정어멍이. 이런 디 영 나와가민 옛날엔 가마 타잔아. 가마 타자마자 친정어멍이 소금 쫙쫙 뿌려. 어멍이 강 뿌려.(어, 친정어머니가. 이런데 이렇게 나와 가면 옛날엔 가마 타잖아. 가마 타자마자 친정어머니가 소금 쫙쫙 뿌려. 어머니가 가서 뿌려.)

107059 @ 삼촌은 경 안헷겟다예. 친정에 왕 사니까.(삼촌은 그렇게 안했겠네요. 친정에 와서 사니까.)

107059 #1 우리는 신식으로 헷지.(우리는 신식으로 했지.)

107059 @ 아, 맞아.(아, 맞아.)

107059 #1 멘사포 씨고 걸어근에.(면사포 쓰고 걸어서.)

107059 @ 옛날에 이런 거 풍습을 봐낫구나. 삼촌은.(옛날에 이런 거 풍습을 봤었구나. 삼촌은.)

107059 #1 그렇지.(그렇지.)

107059 @ 아아.(아아,.)

107059 #1 우리 어린 때 보면 막 가마덜 싯고 허더라.(우리 어린 때 보면 막 가마등 있고 하더라.)

107059 @ 폿이나 콩이 아니고 소금을 뿌리는구나.(팥이나 콩이 아니고 소금을 뿌리는구나.)

107059 #1 소금 뿌리더라.(소금 뿌리더라.)

107059 @ 어어!(어어!)

107059 #1 폿 소금은 이, 사람이 아프면 이 무당 빌어당 뭐 허잔아. 그거는 방법으

로 뿌리는 거. 소금허고 풋허고 고칫ᄀᆞ리허고 세 가지.(팥 소금은, 사람이 아프면 이 무당 빌어다가 뭐 하잖아. 그거는 방법으로 뿌리는 거. 소금하고 팥하고 고춧가루하고 세 가지.)

107059 @ 방법으로예.(방법으로요.)

107059 #1 방법으로 뿌리는 거.(방법으로 뿌리는 거.)

107061 @ 장은 섣달 그믐날 담그고. 장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장은 섣달 그믐날 담그고. 장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107061 #1 장의 종류에는 무시거 콩 솔망 틔왓당 ᄆᆞᆯ리와근에 섣ᄃᆞᆯ그뭄날에 깨끗이 시쳐근에 어둑어사.(무슨 거 콩 삶아서 틔웠다가 말려서 섣달그믐날에 깨끗이 씻어서 어둑해야.)

107061 @ 아아.(아아.)

107061 #1 해 지기 전이 문딱 준비헷당 어둑어사 드리쳐.(해 지기 전에 모두 준비했다가 어둑해야 들이쳐.)

107061 @ 무산고예?(왜일까요?)

107061 #1 밤에.(밤에.)

107061 @ 무사지?(왜지?)

107061 #1 나가 아냐? 경허드라고. 꼭 밤에 드리쳐.(나가 아냐? 그렇게 하더라고. 꼭 밤에 들이쳐.)

107061 @ 밤에? 항아리에?(밤에? 항아리에?)

107061 #1 게난 뒷날은 정월 초ᄒᆞ루날 아니냐.(그러니까 뒷날은 정월 초하룻날 아니냐.)

107061 @ 아아.(아아.)

107061 #1 게난 정월 허기 전이 그냥 담아 버리는 거라. 섣ᄃᆞᆯ 그믐날.(그러니까 정월 하기 전에 그냥 담아 버리는 거라. 섣달 그믐날.)

107061 @ 항아리에 담아 불어?(항아리에 담아버려?)

107061 #1 ᄀᆞᆫ물 헹 놧다가 거 시쳥 그냥 그믐날은 시쳐근에 물빠줭 그냥 어둑어가믄 디리쳐 불어.(간물 해서 놨다가 거 씻어서 그냥 그믐날은 씻어서 물 빠져서 그냥 어둑해지면 들이쳐 버려.)

107061 @ 거난 그 섣ᄃᆞᆯ 그뭄믐 전에 메주를 쑤고 말령 다 시쳥 이섯구나예.(거난 그 섣달 그믐날 전에 메주를 쑤고 말려서 다 씻어 있었군요.)

107061 #1 그렇지. 음력 동짓ᄃᆞᆯ 나민 막 솖아근에 틔와. 걸언 놔두민 터. 겨민 그거 이젠 내려와근에 산듸찍 전부 앗아뒁 물에 막 시쳐. 솔로 깨끗이 시쳐근에 ᄀᆞᆫ물부떠 헤놔.(그렇지. 음력 동짓달 나면 막 삶아서 틔워. 걸언 놔두면 터. 그러면 그거 이젠 내려와서 밭벼 짚 전부 가져두고 물에 막 씻어. 솔로 깨끗이 씻어서 간물부터 해놔.)

107061 @ ᄀᆞᆫ물이 뭐꽈?(간물이 뭡니까?)

107061 #1 소금.(소금.)

107061 @ 아, 소금 간.(아, 소금 간.)

107061 #1 소금이 그거 웨냐허면은 흔 일주일 든든이 그놈의 거 소금을 흔 열흘도 뒈여. 헤여근에 근물 골앙 놔두민 헤영헌 물이 나와. 밑에는 시커멍허고, 그 앚이난 그니까 그 헤영헌 물.(소금이 그거 왜냐하면 한 일주일 단단이 그놈의 거 소금을 한 열흘도 돼. 해서 간물 갈아서 놔두면 하얀 물이 나와. 밑에는 시커멓고, 그 앉으니까. 그니까 그 허연 물.)

107061 @ 소금을 캉 놔둔덴 말이지예?(소금을 타서 놔둔다고 말이지요?)

107061 #1 그렇지.(그렇지.)

107061 @ 그거는 메칠 전? 섣달그믐 흔.(그거는 메칠 전? 섣달그믐 한.)

107061 #1 섣돌그믐 허지 말고 동짓돌에부떠 그 근물을 골아 놔. 아주 깨끗이 골라 앚지게.(섣달그믐 하지 말고 동짓달에부터 그 간물을 갈아 놔. 아주 깨끗이 갈라 앉게.)

107061 @ 경 헹 그 소금을 다 녹으라는 말로?(그렇게 해서 그 소금을 다 녹으라는 말로?)

107061 #1 아니 그 녹으면은 물이 다 아래 골른 거 시커멍헤여. 소곰이. 경허난 우에 헤영헌 물만 똘롸놓는 거.(아니 그 녹으면 물이 다 아래 가라앉은 거 시커매. 소금이. 그렇게 하니까 위에 하얀 물만 따라 놓는 거.)

107061 @ 똘롸놧당 메주를 드리치는 게 섣돌그뭄이다?(따라놨다가 메주를 들이치는 게 섣달그믐이다?)

107061 #1 응. 다 준비헷당.(응. 다 준비했다가.)

107061 @ 겡 거 띄왕 놧당 이제 정월달에 뒈면.(그래서 거 띄워서 놨다가 이제 정월달에 되면.)

107061 #1 정월달까지 가나게. 정월달엔 소금 아니 아져뎅기지.(정월달까지 가나게. 정월달엔 소금 안 가져다니지.)

107061 @ 아니 다 끝난 다음 메주하고 간장을 어떻게 분리시켜마씨?(아니 다 끝난 다음 메주하고 간장을 어떻게 분리시켜요?)

107061 #1 아, 거 익어야지게.(아, 거 익어야지.)

107061 @ 익는 게 어느 정도 걸려마씨?(익는 게 어느 정도 걸려요?)

107061 #1 섣돌그뭄날 담으면은 음력 삼월이.(섣달그믐날 담으면 음력 삼월.)

107061 @ 아아.(아아.)

107061 #1 삼월 넘어근에 흔 ᄉᆞ월 돌 가까와가믄 거려 불어. 경 익어야 맛잇지. 익기전이 허민 장이 따락따락허여. 익으민 문작허고.(삼월 넘어서 한 사월 가까와지면 떠버려. 그렇게 익어야 맛있지. 익기전이 하면 장이 '따락따락'해. 익으면 반드럽고.)

107061 @ 게민 그걸 뭘로 거려마씨? 간장 된장으로 분리를 시켜야 뒐 거 아니?(그러면 그걸 뭘로 떠요? 간장 된장으로 분리를 시켜야 될 거 아니?)

107061 #1 아, 것도 못허나?(아, 것도 못하나?)

107061 @ 안 헤보니까.(안 해보니까.)

107061 #1 메주를 다라 잇잖아.(메주를 다라 있잖아.)

107061 @ 예.(예.)

107061 #1 다라에 오ᄀᆞᆺ오ᄀᆞᆺ 건져놔.(다라에 '오ᄀᆞᆺ오ᄀᆞᆺ' 건져놔.)

107061 @ 오ᄀᆞᆺ오ᄀᆞᆺ 막 뭉그러지지 안헤?('오ᄀᆞᆺ오ᄀᆞᆺ' 막 뭉그러지지 않아?)

107061 #1 그것이 그냥 이서. 그게. 경허곡 잘못허당 막 헤싸져.(그것이 그냥 있어. 그게. 그렇게 하고 잘못하다가 막 흩어져.)

107061 @ 헷사져불카부덴.(흩어져버릴까 봐.)

107061 #1 게난 헤싸지게 말앙 멩심헹 거려야 헤 그게.(그러니까 흩어지게 말아서 명심해서 거려야 해 그게.)

107061 @ 삼월달에나. 중간에 거릴 때다 느낌이 옵니까?(삼월에나. 중간에 거릴 때다 느낌이 옵니까?)

107061 #1 거 이녁 장 둠은 날 수정 세보믄 알지.(거 이녁 장담은 날 수정 세보면 알지.)

107061 @ 거의 한삼 개월?(거의 한 삼개월?)

107061 #1 응. 삼 개월.(응. 삼개월.)

107061 @ 백일 정도.(백일 정도.)

107061 #1 으응. 그 정도. 그믐날 담으민 정월 이월 삼월, 혼 넉ᄃᆞᆯ 뒈가민 거려야 허여.(으응. 그 정도. 그믐날 담으면 정월 이월 삼월, 한 넉 달 되면 떠야 해.)

107061 @ 그것만 항아리에 담을 거라?(그것만 항아리에 담을 겁니까?)

107061 #1 넌 춤 일본놈 말짓간에 아오바가여.(넌 참 일본 놈 말대로 '아오바보'여.)

107061 @ 하하.(하하.)

107061 #1 그거이 둥둥 떠. 경허민 영 건져냉 다라더레 놓곡 또 영 건졍 다라더레 다 놔. 그게. 다 놩 이젠 간장 놀 거 아냐? 간장은 또 뚠 항에 놔야허여.(그거 둥둥 떠. 그렇게 하면 이렇게 건져내서 대야에 놓고 또 이렇게 건져서 대야에 다 놔. 다 놔서 이젠 간장 놀 거 아냐? 간장은 또 다른 항에 놔야해.)

107061 @ 그니까.(그니까.)

107061 #1 뚠 항에이.(다른 항에.)

107061 @ 걸러야 뒈지 안헤?(떠야 되지 않아?)

107061 #1 체, 체로 바쳐야. 문딱 건져 노믄 국물만 남을 거 아냐? 게믄 체로 이제 그로 걸여 놔야 혀여. 체 우의껀 뭔장더레 ᄀᆞ찌 놩 뀌어불곡. 소금 노멍 뀌어야 혀.(체, 체로 바쳐야. 모두 건져놓으면 국물만 남을 거 아냐? 그러면 체로 이제 그로 떠 놔야 해. 체 위에 건 된장에 같이 놔서 뀌어버리고. 소금 놓으면 끓여야 해.)

107061 @ 뀐다는 건? 막 섞는다는?(뀐다는 건? 막 섞는다는?)

107061 #1 막떡 몰 듯.(막떡 말 듯.)

107061 @ 아아.(아아.)

107061 #1 경허여야 문작허지, 그게.(막 떡 몰 듯. 경허여야 반드럽지, 그게.)

107061 @ 또 손으로 헤야 뭔다는 거구나.(또 손으로 해야 된다는 거구나.)

107061 #1 그렇지. 힘들어 그거. 막 문작허게 꿰야, 소금 노멍.(그렇지. 힘들어 그거. 막 문적하게 끓어야, 소금 놓으면서.)

107061 @ 소금은 짜게 먹을려고?(소금은 짜게 먹으려고?)

107061 #1 눈으로 보민 이정도민 짤 거라, 이정도민 싱거울 거라 눈으로 보민 알아.(눈으로 보민 이정도면 짤 거라, 이정도면 싱거울 거라 눈으로 보면 알아.)

107061 @ 맛도 영 보면 맛이 싱겁다.(맛도 이렇게 보면 맛이 싱겁다.)

107061 #1 싱거우민 고려 불어.(싱거우면 고려버려.)

107061 @ 아, 경허난 소금을 놓아?(아, 그렇게 하니까 소금을 놓아?)

107061 #1 소금을 노멍 뀌여. 뀌여불민 장이 민작허여.(소금을 넣으면서 반죽해. 반죽해버리면 장이 평평해.)

107061 @ 아아.(아아.)

107061 #1 게민 항굽더레 소금 허꺼놩 뒌장을 놓아. 뒌장을 노민 새새더레 소금을 허꺼.(그러면 독 밑에 소금 섞어놔서 된장을 놓아. 된장을 놓으면 사이사이에 소금을 섞어.)

107061 @ 사이사이에?(사이사이에?)

107061 #1 허꺼놓곡 또 우에 다 노면은 손으로 꼭꼭 누르떠노민 곱닥허잔아. 그레는 이제 소금을 끌아야 혀. 소금 끌지 안허민이 쉬ᄑᆞ리 뎅겨근에 벌거지 껴. 그거 허여도 이 기지로 잘 싸사 허여. 뒌장을. 경헹 그 기지로 헤여도 두껭인 올아야 혀. 거 안 올민 이 냄새나.(섞어놓고 또 위에 다 노면은 손으로 꼭꼭 눌러 놓으면 곱잖아. 거기는 이제 소금을 깔아야 해. 소금 깔지 않으면 쉬파리 다녀서 벌레 껴. 그거 해도 이 천으로 잘 싸야 해. 된장을. 그렇게 해서 그 기지로 해도 뚜껑은 열어야 해. 거 안 열면 이 냄새나.)

107061 @ 냄새나고.(냄새나고.)

107061 #1 단내가. 게난 뒌장에 자꾸 숨을 쉬와야 혀. 자꾸 올아야 혀. 비나 아니오게 뒈믄 기냥 계속 올앙 내불어야. 거민이 이실도 맞곡, 밤이도 ᄒᆞ곡 그냥, 이 더꺼가민 이 좀 냄새가 잇어. 어떤 장은 피끗피끗헌데 그거 두껭일 더꺼부니까 그렇지. 뚜껑은 이 비만 아니오민 밤낮 올아야 장이 돌아.(단내가. 그러니까 된장에 자꾸 숨을 쉬게 해야 해. 자꾸 열어야 해. 비나 아니 오게 되면 그냥 계속 열어서 내버려야. 그러면 이 이슬도 맞곡, 밤에도 하고 그냥, 이 덮으면 좀 냄새가 있어. 어떤 장은 피끗피끗한데 그거 뚜껑을 덮어버리니까 그렇지. 뚜껑은 이 비만 안 오면 밤낮 열어야 장이 달아.)

107062 @ 아아, 햇볏을 맞아야 돌아.(아, 햇볕을 맞아야 달아.)

107061 #1 응. 햇빗도 허고, 밤이실도 맞고.(응. 햇빛도 하고, 밤이슬도 맞고.)

107062 @ 콩은 언제 솜습니까? 동짓날. 풋죽 쒀먹는 동짓날부터 콩을 삶아?(콩은 언제 삶습니까? 동짓날. 팥죽 쒀먹는 동짓날부터 콩을 삶아?)

107062 #1 하여튼 동지 넘어가믄 콩 삶아야 허여. 그것이 트곡 몰르곡 허젠 허니까. 막 얼른 트질 안허지, 추워노니까.(하여튼 동지 넘어가면 콩 삶아야 해. 그것이 트곡 모르고 하려고 하니까. 막 얼른 트질 안하지. 추워버리니까.)

107062 @ 동지 넘어가믄 아무 때나 날봥?(동지 넘어가면 아무 때나 날 봐서?)

107062 #1 아니 날 안 봥. 섣ᄃᆞᆯ 그믐날. 날 아니 봐.(아니 날 안 봐서. 섣달 그믐날.

날 아니 봐.)

107062 @ 쏨는 거는 날 안봐도 뒈여?(삶는 거는 날 안 봐도 돼?)

107062 #1 콩솜는 것도 날 봐야지. 집의 띠가 이시민 이, 띠 이신 사름은 그 띠 날에 안 솖아.(콩 삼는 것도 날 봐야지. 집의 띠가 있으면, 띠 있는 사람은 그 띠 날에 안 삶아.)

107062 @ 아아.(아아.)

107062 #1 띠 피허영.(띠 피해서.

107062 @ 띠 피헤영.(띠 피해서.)

107062 #1 물 해치 이신사람 안 솖으곡 이, 게난 자기네 띠 엇인 것만, 호랑이허고 원숭이 허고 소허고이 그런 날은 솜지 말아야 해.(말 해치 있는 사람 안 삶고, 그러니까 자기네 띠 없는 것만, 호랑이하고 원숭이 하고 소하고 그런 날은 삶지 말아야 해.)

107062 @ 아아.(아아.)

107062 #1 소는 늬치름 나잖아.(소는 침 나잖아.)

107062 @ 에?(에?)

107062 #1 늬치름.(침.)

107062 @ 늬치름?(침.)

107062 #1 그믄 소날에 메주허믄 질질 헌덴 해영 아니허잔아. 또 호랑이날은 인일이옝 행 안솜곡.(소는 침 나잖아. 그러면 소날에 메주하면 질질 한다고 해서 안 하잖아. 또 호랑이날은 인일이라고 해서 안 삶고.)

107062 @ 인일이 뭐꽈?(인일이 뭡니까?)

107062 #1 사름 날이옌 허지. 호랑이는 사름 인제.(사람 날이라고 하지. 호랑이는 사람 인제.)

107062 @ 아아!(아아!)

107062 #1 거. 게난 이 이름이 사름 인제가 들어가부니까 인일이라고. 게난 인일엔 이 제ᄉᆞ도이 딱 당허민 그 인일 전의 파젤 헤불던가 인일 넘엉을 허든가 허여. 인일 날엔 안헤여.(거. 그러니까 이 이름이 사람 인제가 들어가 버리니까 인일이라고. 그러니까 인일엔 이 제사도 이 딱 당하면 그 인일 전의 파젤 해버리던가 잉일 넘어서 하든가 허여. 인일 날엔 안 해.)

107062 @ 아아.(아아.)

107062 #1 호랑이가 모소왕 초상이 왕 먹어지나?(호랑이가 무서워서 조상이 와서 먹어지나?)

107062 @ 아아, 그런 뜻에서.(아, 그런 뜻에서.)

107062 #1 그렇지.(그렇지.)

107062 @ 제사라도 열두시 넘엉 헤야 뭰다?(제사라도 열두시 넘어서 해야 된다?)

107062 #1 열두시 넘엉 호랑일 피헤영 호랑이 얼마나 무서우냐게. 구신도 무섭지.(열두시 넘어서 호랑일 피해서 호랑이 얼마나 무서우냐. 귀신도 무섭지.)

107062 #1 거난 호랑이띠이 삼년만 제사 날에 호랑이날 돌아오민 그 집이 좋질 안

헤여. 나가 경험을 얻었어.(그러니까 호랑이띠 삼년만 제사 날에 호랑이날 돌아오면 그 집이 좋질 않아. 내가 경험을 얻었어.)

107062 @ 아아.(아아.)

107062 #1 거 아방이 세 번을 당허더라고. 식게마다. 겐게 돌아간게.(거 아버지가 세 번을 당하더라고. 제사마다. 그러더니 돌아갔어.)

107062 @ 아아.(아아.)

107062 #1 거 확실헤 거. 나가 경험을 헷거든. 아아, 영허난 인일 세 번 식게 들어오믄 망헌다는 게 이거로구낭. 믿겻덴 허난.(거 확실해 거. 나가 경험을 했거든. 아아, 이렇게 하니까 인일 세 번 제사 들어오면 망한다는 게 이거로구나. 믿겼다고 하니까.)

107062 @ 어어.(어어.)

107062 #1 거 아방이 똑 제ᄉᆞ마다 이 삼 년을 경 호랑이날을 들어오드라고.(거 아버지가 똑 제사마다 이 삼 년을 그렇게 호랑이날을 들어오더라고.)

107062 @ 아오야.(아오야.)

107062 #1 경헨게이 아방이 좋질 안허연게.(그렇게 하더니 아버지가 좋질 않아서.)

107062 @ 으응.(으응.)

107062 #1 게난 옛날 어른덜이 딱 맞아. 경험자니까.(그러니까 옛날 어른들이 딱 맞아. 경험자니까.)

107062 @ 예.(예.)

107062 #1 하여튼 경험자 아핀 지여.(하여튼 경험자 앞엔 져.)

107062 @ 으응.(으응.)

107062 #1 벨 공부 ᄆᆞ끈 사름도 경험자 아핀 진다고. 경험 얻으니까게.(별 공부 마친 사람도 경험자 앞엔 진다고. 경험 얻으니까.)

107062 @ 겨믄 콩을 얼마만큼 솖읍니까? 보통.(그러면 콩을 얼마만큼 삶습니까? 보통.)

107062 #1 아니 건 하영 담구정 허민 하영 담구고, 족게 담구정 허민 건 자기 ᄆᆞᆷ.(아니 건 하영 담고 싶으면 많이 담고, 작게 담고 싶으면 건 자기 맘.)

107062 @ 보통.(보통.)

107062 #1 보통.(보통.)

107062 @ 혼 말 이상? 혼 말 이상 헷지예?(한말 이상? 한말 이상? 했지요)

107062 #1 어, 혼 말 이상, 좀 하영 담그민 서 말도 당허고, 두 말도 당허고.(어, 한 말이상, 좀 많이 담그면 서 말도 당하고, 두 말도 당하고.)

107062 @ 몃 말치 솟에 솖아?(몇 말치 솥에 삶아?)

107062 #1 그거 솟이 즉으면은 두서너 번에 솖아야지. 혼뻔에 못 솖아.(그거 솥이 작으면 두서너 번에 삶아야지. 한 번에 못 삶아.)

107062 @ 멧 시간 솖아마씨?(몇 시간 삶아요?)

107062 #1 그거 영.(그거 이렇게.)

107062 @ 물 끌여가믄 와상와상 끌어가믄 놀건가?(물 끓여 가면 부글부글 끓으면

놀 건가?)

107062 #1 게. 끌여야지. 끌이지 안허믄 눌어 불어. 멩물에다가 노민 콩이 골아앚아 불민 솟디 눌엉 끄른내 나잔아. 막 카부니까. 게난 팔팔팔팔 막 끌어갈때에 놓아야. 거믄 아래 골라 안지 못허지. 그니까 안 끄르지. 아, 이치적으로 생각을 헤봐.(그럼. 끓여야지. 끓이지 않으면 눌어 버려. 찬물에다가 넣으면 콩이 갈아 앉아버리면 솥에 눌어서 화독내 나잖아. 막 타버리니까. 그러니까 팔팔팔팔 막 끌어갈 때에 놓아야. 그러면 아래 가라앉지 못하지. 그니까 안 끓지. 아, 이치적으로 생각을 해봐.)

107062 @ 게믄 한 시간 끌이믄 문딱 익어?(그러면 한 시간 끓이면 문딱 익어?)

107062 #1 아니여. 큰 다가리쯤은 물 하부난 걸론 안 끌여. 즉은 솟디 허는 건 금방 끌으고.(아니야. 큰 '다가리'쯤은 물 많아버리니까 걸론 안 끓여. 작은 솥에 하는 건 금방 끓고.)

107062 @ 아아.(아아.)

107062 #1 콩이 즉으민 즉은 솟디 허곡, 한 다가리 ᄒᆞ곡.(콩이 작으면 작은 솥에 하고, 한 '다가리' 하고.)

107062 @ 다가리솟?('다가리'솥?)

107062 #1 다가리에 솖아. 식구 한 사름은?('다가리'에 삶아. 식구 한 사람은?)

107062 @ 다가리가 뭐꽈? 말치솟?('다가리'가 뭡니까? '말치'솥?)

107062 #1 다가리솟도 몰라? 그 옛날 육지사름덜 이만이 앚졍게. 그거 다가리영 허지. 그거보고 다가리솟.(다가리솥도 몰라? 그 옛날 육지사람들 이만큼 앉혀서. 그거 '다가리'라고 하지. 그거 보고 '다가리'솥.)

107062 @ 무쉐솟?(무쇠솥?)

107062 #1 무쉐주. 무쉔 무쉔디 그냥 우리ᄀᆞ찌 무사 육지 사름네가 다가릴 앚젼게 이젠 이디 사름도 다가릴 앚져. 무쉐솟이 잘 안나오거든 이제는.(무쇠지. 무쇤 무쇤데 그냥 우리같이 왜 육지 사람네가 '다가릴' 앉혀. 이젠 여기 사람도 '다가릴' 앉혀. 무쇠솥이 잘 안 나오거든 이제는.)

107062 @ 두 말치여 세 말치여 말하는데.(두 말치여 세 말치여 말하는데.)

107062 #1 그거 솟에 메지. 혼번에 서 말 드는 다가리가 잇고, 즉으민 뭐 혼 말 드는디.(그거 솥에 매지. 한 번에 서말 드는 '다가리'가 있고, 작으면 뭐 한 말 드는데.)

107062 @ 게믄 어머니영 여러 명이 그걸 도와야 뒈겟다예?(그러면 어머니랑 여러 명이 그걸 도와야 되겠네요?)

107062 #1 아니 젊은 사름은 혼자만도 허여. 그전엔 ᄲᆞ아낫지 안허나? 이제 안ᄲᆞ아. 깨끗이 발 시쳐가지고 그 헤양헌 보선 잇잔아. 보선. 아이 신어난 거. 걸로 발라야 허여. 게안허민 초신, 초신 아니 신어난 거. 새 거, 걸로 볼르곡. 걸로 볼라도 양말 신어야 발라. 는작는작 허잔아.(아니 젊은 사람은 혼자만도 해. 그전엔 빻았었지 안하나? 이제 안 빻아. 깨끗이 발 시쳐가지고 그 하얀 보선 있잖아. 보선. 아니 신어난 거. 걸로 발라야 해. 그렇게 안하면 짚신, 짚신 아니 신었던 거. 새 거, 걸로 바르고. 걸로 발라도 양말 신어야 발라. 는적는적 하잖아.)

107062 @ 삼촌은 뻣아수과 옛날에?(삼촌은 빻았습니까? 옛날에?)

107062 #1 옛날엔 뻣일 방에가 이서야 뻣지. 발로 불라야 헤여. 발로가 뿔라.(옛날엔 빻을 방아가 있어야 빻지. 발로 밟아야 해. 발로가 빨라.)

107062 @ 음.(음.)

107062 #1 바락바락 헤지믄 허주마는 일일이 담아놩 뻣아봐. 얼마나 오래나.(바락바락 해지면 하지만 일일이 담아놔서 빻아봐. 얼마나 오래나.)

107062 @ 옛날엔 돌방에에 뻣아수과 남방에에 뻣아수과?(옛날엔 돌방아에 빻았습니까? 남방아에 빻았습니까?)

107062 #1 남방에예.(남방아요.)

107062 @ 삼촌은 젊으난 발로 붋안?(삼촌은 젊으니까 발로 밟았어요?)

107062 #1 것도 이 못 젼뎌가난 데가리가 돌아가는 거라. 경허니까 이젠 푸대에 놩 불르난 혼번에 불롸부는 걸 그렇게 일일이 뻣이멍.(것도 이 못 견뎌가니까 머리가 돌아가는 거라. 그렇게 하니까 이젠 부대에 놔서 밟으니까 한번에 밟아버리는 걸 그렇게 일일이 빻으면서.)

107062 @ 옛날엔 다라이라고 이선? 그렇게?(옛날엔 다라이라고 있었어요? 그렇게?)

107062 #1 다라라? 남 다라, 나무로 만든 거 그런 걸로 뻣안, 그냥 쉐다란 판나. 뻣지 못헤.(다라라? 나무 다라, 나무로 만든 거 그런 걸로 빻아서, 그냥 쇠 대야는 판나. 빻지 못해.)

107062 @ 비싸겟다예?(비싸겠네요?)

107062 #1 게난 이젠. 이제 사람은 이 푸대에 담앙 불람네. 것이 쉬와.(그러니까 이젠. 이제 사람은 이 부대에 담아서 밟았네. 것이 쉬워.)

107062 @ 겐 거 완전 멜락허게 다 허연 메줄 바로 만듭니까?(그래서 거 완전 말랑말랑하게 다 해서 메줄 바로 만듭니까?)

107062 #1 푸대에 껄 털어가지고 바로 만들지. 거 식으민이 잘 안부터. 혼저 뜨거운 때 헤사 거허주.(부대에 껄 털어가지고 바로 만들지. 거 식으면 잘 안부터. 먼저 뜨거운 때 해야 거 하지.)

107062 @ 아아.(아아.)

107062 #1 식으민 트랑트랑헤영 안 뒈어. 곧 허멍사라 헤야 그것이 이쁘게 뒈지이. 식으민이 안 뒈더라고.(식으면 '트랑트랑'해서 안 돼. 곧 하면서 바로 해야 그것이 예쁘게 되지. 식으면 안 되더라고.)

107062 @ 뜨거운 때?(뜨거운 때?)

107062 #1 뜨거운 때. 경 안허면.(뜨거운 때. 그렇게 안하면.)

107062 @ 장갑 안 껴?(장갑 안 껴서?)

107062 #1 장갑 쪄야지. 뜨거왕 헤지냐. 고무장갑 쪄야지.(장갑 껴야지. 뜨거워서 해지냐? 고무장갑 껴야지.)

107062 @ 아아.(아아.)

107062 #1 뜨거왕 못허지.(뜨거워서 못하지.)

107062 @ 모양은 무사 네모로 만드는고예?(모양은 왜 네모로 만드는가요?)

107062 #1 거 네모로 헹 찔뎅이로 영 허니까 네모야. 그렇지.(거 네모로 해서 짚덩이로 이렇게 하니까 네모야. 그렇지.)

107062 @ 크기가 제주돈 어만큼 크게 헷수과? 사람마다 틀려? 육지는 영 넙적도 헙디다.(크기는 제주도는 얼마만큼 크게 했습니까? 사람마다 틀려? 육지는 이렇게 넙적도 합디다.)

107062 #1 이녁 허고정 헌냥, 동글락허게 허고졍 헌 사람은 동글락허고.(이녁 하고 싶은 대로, 둥글게 하고 싶은 사람은 둥글게 하고.)

107062 @ 크기는 어느 정도?(크기는 어느 정도?)

107062 #1 아, 이 정도로 솖지.(아, 이 정도로 삶지.)

107062 @ 너무 커도 그렇고.(너무 커도 그렇고.)

107062 #1 것도 그거 ᄆᆞᆯ라 가민 즉아.(것도 그거 말라가면 작아.)

107062 @ 음. 즉아져.(음. 작아져.)

107062 #1 응. ᄆᆞᆯ라가민 즉아져.(응. 말라가면 작아져.)

107062 @ 겐 그거 산듸찍으로 묶읍니까?(그래서 그거 밭벼 짚으로 묶습니까?)

107062 #1 산듸찍을 묶으던가 그냥 창고에다가 그냥 푸대 아래 ᄀᆞᆯ앙 내불민 헤영케 곰상 피어. 거믄 그대로 내불민 것이 ᄆᆞᆯ라. 겨믄 허주. 산듸짚 어디 경 공장에.(밭벼 짚을 묶든가 그냥 창고에다가 부대 아래 깔아서 내버리면 헤영케 곰팡이 피어. 그러면 그대로 내버리면 것이 말라. 그러면 하지. 밭벼 짚 어디 그렇게 공장에.)

107062 @ 비라도 오민 별로 안 좋다예?(비라도 오면 별로 안 좋네요?)

107062 #1 비이? 비 온 것사 어떵허여?(비? 비온 것이야 어떻게 해?)

107062 @ 아아.(아아.)

107062 #1 창고에 놓는디. 비 맞으민 뒈나 그게.(창고에 놓는 게. 비 맞으면 되나? 그게.)

107062 @ 비 맞으면 안되고. 날씨가 좀 뽀송뽀송헤야 좋주. 바람도 들어와야 좋지 안허꽈?(날씨가 좀 뽀송뽀송해야 좋지. 바람도 들어와야 좋지 안합니까?)

107062 #1 그거이 터 가기 전인 문 올지 말아야 헤여. 창고라도.(그거 떠가기 전엔 문 열지 말아야 해. 창고라도.)

107062 @ 아아. 창고라도.(아아. 창고라도.)

107062 #1 온기가 잇어야 곰상 피거든. 추우민 잘 안피어.(온기가 있어야 곰팡이 피거든. 추우면 잘 안 피어.)

107062 @ 추우민 잘 안 피어.(추우면 잘 안 피어.)

107062 #1 겨믄 이제 곰상펴가민 좀 문 ᄒᆞ꼼 열어야, 공기 들어오게. 그거 어떵 조종허는 줄, 아이구, 츰 힘들어. 그거 허는 것도. 자기 멘스와도 못 솖곡, 영장난디 가와도 못 솖고, 개 죽엉 봐도 못 솖고, 몸 구치민 버려 불어. 장이. 잘 안 뒈어. 냄새 나불어.(그러면 곰팡이 피어가면 문 조금 열어야, 공기 들어오게. 그거 어떻게 조종하는 줄, 아이구, 참 힘들어, 그거 하는 것도. 자기 생리와도 못 삶고, 영장난데 가와도 못 삶고

개 죽어서 봐도 못 삶고. 몸 궂으면 버려버려. 잘 안 돼. 냄새 나버려.)

107062 @ 아아. 정성을 다허는구나.(아아. 정성을 다하는구나.)

107062 #1 그렇지. 경 안헤도 또 벌경 헤도 맛이 없어. 몸이 깨끗허게 안허민, 게난 영장난 디도 못 가곡, 개죽은 것도 안 보곡 얼마나.(그렇지. 그렇게 안 해도 또 뻘경 해도 맛이 없어. 몸이 깨끗하게 안하면, 그러니까 상난 데도 못 가곡, 개죽은 것도 안 보고 얼마나.)

107062 @ 메주 솖는 날만?(메주 삶는 날만?)

107062 #1 그렇지.(그렇지.)

107062 @ 그 다음날은 관계엇고.(그 다음날은 관계없고.)

107062 #1 그 다음날은 섣돌 그믐날 담아불고.(그 다음날은 섣달 그믐날 담아버리고.)

107062 @ 그 날도 조심헤야 뒈고, 섣돌 그믐날도.(그 날도 조심해야 되고, 섣달 그믐날도.)

107062 #1 섣돌 그믐날은이 이날도 아니고 저 날도 아니고 거니까 섣돌 그믐날은 날 엇인 날이니까.(섣달 그믐날은 이날도 아니고 저 날도 아니고 거니까 섣달 그믐날은 날 없는 날이니까.)

107062 @ 아아.(아아.)

107062 #1 둥가부는 거야.(담가버리는 거야.)

107062 @ 날 엇인 날은 무신 말이꽈? 어디 가 불어?(날 없는 날은 무슨 말입니까? 어디 가버려요?)

107062 #1 섣돌 그믐날은, 낼은 멩질헐 거 아니냐? 그물어부난 이것도 안 뒈고, 저것도 아니고, 새해도 안 뒈고 묵은해도 안 뒈니까 묵은해 장을 담는 거. 옛날 어른들이 어떵허나 머리가, 공부는 안 헤도 똑똑헌지 몰라. 진짜이.(섣달 그믐날은, 낼은 명절 할 거 아니냐? 사그라져버리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아니고, 새해도 안 되고, 묵은해도 안 되니까 묵은해 장을 담그는 거. 옛날 어른들이 얼마나 머리가, 공부는 안 해도 똑똑한지 몰라. 진짜.)

107062 @ 메칠을 동짓날부터 섣돌그믐까지, 메칠을 헤야 싹이 트고 곰셍이가 피는 거꽈 거의 한 한 달?(며칠을 동짓날부터 섣달그믐까지, 며칠을 해야 싹이 트고 곰팡이가 피는 겁니까? 거의 한 한 달?)

107062 #1 그거 뜨시민 자기 곰상 피고, 추우민 ᄒᆞ꼼 오레여.(그거 따뜻하면 빨리 곰팡이 피고, 추우면 조금 오래.)

107062 @ 섣돌 그뭄날 곰상이 안 피엉 이시민 어떵헐거라.(섣달 그믐날 곰팡이 안 피어서 있으면 어떻게 할 거라)

107062 #1 안 피지 안헤영 속으로 피어도 피어. 그게. 베끗딜론 안헤여도. 기영허게 뒌거. 그 메주 트는 거봐도 펜안헐 꺼, 아닐 꺼 알아져.(안 피지 않아서 속으로 피어도 피어. 그게. 바깥에선 안 해도. 그렇게 하게 된 거. 그 메주 뜨는 거봐도 편안할 거, 아닐 거 알 수 있어.)

107062 @ 아아.(아아.)

107062 #1 다 알아져. 거 이상허드라고.(다 알 수 있어. 거 이상하더라고.)

107062 @ 거믄 큰 항아리에 그거를 다 담겟다예?(그러면 큰 항아리에 그거를 다 담겠네요?)

107062 #1 아니, 식구 한 딘 쯔끌락허게 담고, 수정 한 딘 큰 항.(아니, 식구 많은 덴 조그맣게 담고, 숫자 많은 덴 큰 항.)

107062 @ 그믄 그 항아리에는 소금은 바로 메주 허는 날 또 따로 놧당. 물 어만큼에 소금을 놔마씨?(그러면 그 항아리에는 소금은 바로 메주 하는 날 또 따로 놨다가. 물 얼마 만큼에 소금을 놔요?)

107062 #1 우리 그거 마련 안허여. 이 정도민 맞을 거다 눈짐작으로 헹 허지, 경 마련해본 ᄃᆞ레 엇어. 게도 맛 잇어.(우리 그거 마련 안 해. 이 정도면 맞을 꺼다 눈짐작으로 해서 하지. 그렇게 마련해본 도리 없어. 그래도 맛있어.)

107062 @ 짜다 헐 정도?(짜다 할 정도?)

107062 #1 영허민 찝찔허지. 싱거우민 안 뒈여. 그거.(이렇게 하면 짭짤하지. 싱거우면 안 돼. 그거.)

107062 @ 왕소금예.(왕소금이요.)

107062 #1 그렇지.(그렇지.)

107062 @ 뚜껑 닫앙 놧당.(뚜껑 닫아서 놨다가.)

107062 #1 뭐 ᄀᆞᆫ물?(뭐 간물?)

107062 @ 열어 놔두기도 헤야 뒈는 거?(열어 놔두기도 해야 되는 거?)

107062 #1 ᄀᆞᄂᆞ물은 두껑 더꺼 불어야지. 몬지 들어가잔아.(간물은 뚜껑 덮어버려야지. 먼지 들어가잖아.)

107062 @ 중간 중간 햇볏은 허지도 말고?(중간 중간 햇볕은 하지도 말고?)

107062 #1 뭰장 담아야 올아야지. 올지 안허민 곰상 피어 불어. 야, 이 장이 열이 잇는가 봐. 그 게난 아이 올민 곰상 피어 불어게. 게난 아이광 장독은 차가와야 존덴.(된장 담아야 열어야지. 열지 안하면 곰팡이 피어버려. 야, 이 장이 열이 있는가봐. 그 그러니까 아니 열면 곰팡이 피어버려. 그러니까 아이랑 장독은 차가워야 좋다고.)

107062 @ 아아.(아아.)

107062 #1 추운디. 아이도 추운디만 놔야 감기 안 걸리고, 게난 아이광 장독은 똑같은덴 헤.(추운데. 아이도 추운데만 놔야 감기 안 걸리고, 그러니까 아이랑 장독은 똑같다고 해.)

107062 @ 햇빛도 호끔 쒜와주고?(햇볕도 조금 쪼여주고?)

107062 #1 햇빛노민 자게 익지. 뜨셔 가지고.(햇볕 쪼이면 빨리 익지. 뜨거워 가지고.)

107062 @ 게믄 그거를 ᄎᆞ곡ᄎᆞ곡 ᄀᆞᆫ물에 담아놩.(그러면 그거를 차곡차곡 간물에 담아놔서.)

107062 #1 ᄀᆞᆫ물은 미릇 ᄀᆞᆯ잔아.(간물은 미리 갈잖아.)

107062 @ 게난 섣돌그믐에 거기 담아놩 고추랑 숯이랑 그런 거 계란도 놉니까?(그러니까 섣달그믐에 거기 담아놔서 고추랑 숯이랑 그런 거 계란도 놓습니까?)

107062 #1 우린 그런 거 안 놔. 그냥. 그 무신 육지 사람은 솥도 영 둘르고 고치여, 무신 숯이여.(우린 그런 거 안 놔. 그냥. 그 무슨 육지 사람은 솥도 이렇게 두르고 고치여, 무슨 숯이여.)

107062 @ 계란이여.(계란이여.)

107062 #1 계란은 저 딱 노면은 곤 맞이민 계란으로 허잖아. 그 계란이 탁 들이치민 이 것이 동글동글 뜨곡 싱거우민 골라 앚아 불어.(계란은 저 딱 놓으면 간 맞으면 계란으로 하잖아. 그 계란이 탁 들이치면 것이 동글동글 뜨고 싱거우면 갈아 앉아버려.)

107062 @ 아아.(아아.)

107062 #1 짜민 둥둥 뜨곡 게난 그거 확인허젠.(짜면 둥둥 뜨고 그러니까 그거 확인하려고.)

107062 @ 곤물 담글 때 아니믄 나중에.(간물 담글 때 아니면 나중에.)

107062 #1 곤물 다 골아놔야 계란 튑지.(간물 다 갈아놔야 계란 띄우지.)

107062 @ 그날. 곤물 헐 때 계란 틔와보는구나예.(그날. 간물 할 때 계란 틔워보는군요.)

107062 #1 게난 곤이 맞앗나? 안 맞앗나? 계란을 틔와 보는 거.(그러니까 간이 맞았나? 안 맞았나? 계란을 띄워 보는 거.)

107062 @ 아, 그건 제주도 똑같구나예.(아, 그건 제주도 똑같군요.)

107062 #1 응, 게믄이 그것이 뽀쪽뽀쪽 허민 좀 싱겁곡이. 흑꼼 중간으로 터야 허여 그건. 아주 둥둥 뜨민 짠 거라 짠 거. 영 뽀쪽뽀쪽헌 거. 걸로다 아이구 옛날 할망덜 머리가 얼마나, 하여튼 머리가. 이제 옛날 할망 공부헤시민이 천재라 천재.(응, 그러면 그것이 뽀쪽뽀쪽 하면 좀 싱겁고. 조금 중간으로 터야 허여 그건. 아주 둥둥 뜨면 짠 거라 짠 거. 이렇게 뾰족뾰족한 거. 걸로 다 아이구, 옛날할머니들 머리가 얼마나, 하여튼 머리가. 이제 옛날할머니 공부했으면 이 천재라 천재.)

107062 @ 게난 삼촌 배운 건 어머님네 허는 거 보멍?(그러니까 삼촌 배운 건 어머님네 하는 거 보면서?)

107062 #1 아이구, 우리 어머님네 그런 거 아니혜 봔.(아이구, 우리 어머님네 그런 거 아니해 봤어.)

107062 @ 할머니 허는 거? 이모 허는 거?(할머니 허는 거? 이모 허는 거?)

107062 #1 아니, 아니. 나냥으로 이겨내멍 허주. 무신 우리 할마님네 그런 거 흑꼼만 담안에 허더라. 경 하영 안 헹 방애 영영 뻑상.(아니, 아니. 나대로 이겨내면서 하지. 무슨 우리 할머님네 그런 거 조금만 담아서 하더라. 그렇게 많이 안해서 방아 이렇게, 이렇게 빻아서.)

107062 @ 게도 그거 할머니네 섣돌그믐날 헌다. 뭐헌다 헌 건.(그래도 그거 할머니네 섣달그믐날 한다. 뭐한다 한 건.)

107062 #1 아, 허는 거 봣지.(아, 하는 거 봤지.)

107062 @ 어쨋튼 거난. 그게 중요헌거주게.(어쨌든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지.)

107062 #1 아, 거난 나가 질문을 헷어. 할머니, 왜 이렇게 섣둘그믐날을 장을 담읍니껜 허난 이날도 아니고 저 날도 아니다 이거라. 경 허니까 장을 담근 거라.(아, 그러니까 나가 질문을 했어. 할머니, 왜 이렇게 섣달 그믐날을 장을 담습니까? 하니까 이날도 아니고 저 날도 아니다 이거라. 그렇게 하니까 장을 담근 거라.)

107062 @ 아이구야, 삼촌 똑똑헷다예.(아이구야, 삼촌 똑똑했네요.)

107062 #1 물어봣지. 겐 나 그거 들엇당 나도.(물어봤지. 그래서 나 그거 들었다가 나도.)

107063 @ 야, 진짜예.(야, 진짜요.)

107062 #1 에구에구.(에구에구.)

107063 @ 그런 거 봐가믄 장 담글 때 금기사항은? 아까 말헷지예? 어디 멘스 와도 안뒈고.(야, 진짜요. 그런 거 보면 장 담글 때 금기사항은? 아까 말했지요? 어디 생리와도 안 되고.)

107063 #1 어, 거이 그거이 멘스 오민 숨지 말아야 뒈.(어, 거 그거 생리 오면 삶지 말아야 돼.)

107063 @ 그문 끝난 다음 솖아야 뭰다는 말이지예?(그러면 끝난 다음 삶아야 된다는 말이지요?)

107063 #1 그거 가 불어야. 그거 온 때 안 솜는 거.(그거 가버려야. 그거 온 때 안 삶는 거.)

107063 @ 아.(아.)

107063 #1 영장난디 강와도 안뒈고, 개죽은 것만 봐도 안 뒈고, 메주 솖는 날 잘도 정성헤사 헤여.(영장난데 가서 와도 안 되고, 개죽은 것만 봐도 안 되고, 메주 삶는 날 잘도 정성해야 해.)

107063 @ 삼촌은 팔십 평생을 살아오멍.(삼촌은 팔십 평생을 살아오면서.)

107063 #1 응.(응.)

107063 @ 매해 장을 담갓수과?(매해 장을 담갔습니까?)

107063 #1 해년마다 담아야지. 이때ᄁᆞ지도.(해년마다 담아야지. 이때까지도.)

107063 @ 지금은 안 둥그지예?(지금은 안 담그지요?)

107063 #1 작년ᄁᆞ지 헌디 이젠 늙어부난 못허크라. 힘들언.(작년까지 했는데 이젠 늙어버리니까 못하겠다. 힘들어서.)

107063 @ 아, 메누리도 주곡 헷수과?(아, 며느리도 주고 했습니까?)

107063 #1 메누리 줘 내불민 먹주. 자이넨 장 담그는 것도 몰라. 아이구, 어머니 죽어불민 우린 못헤여 경 ᄀᆞᆯ안게. 상 먹주.(며느리 줘서 내버리면 먹지. 쟤넨 장 담그는 것도 몰라. 아이구, 어머니 죽어버리면 우린 못해. 그렇게 말하던데. 사서 먹지.)

107063 @ 혼말 헷수과?(한말 했습니까?)

107063 #1 콩 두말 솔만에. 우리 즉은 뚤이 산 장을 안 먹어. 서울에서. 꼭 어멍 헌 장으로 보내야 뒈.(콩 두말 삶아서. 우리 작은 딸이 산 장을 안 먹어. 서울에서. 꼭 어머

니 한 장으로 보내야 돼.)

107063 @ 아이고, 아이고.(아이고, 아이고.)

107063 #1 거 게난 족은 뚤 덕뿐에 저거 헴주. 새해 난 못혀켜 지쳔에.(거 그러니까 작은딸 덕분에 저거 하지. 새해 난 못하겠다. 지쳐서.)

107063 @ 배우기라도 허주기.(배우기라도 하지.)

107063 #1 못헤여. 당추이 뚤이나 메누리나 못허켄 헨게. 왜 못허켄. 솜는 것도 솜는 거주만은 담을 때도 문제엔 허는 거라. 소금을 곤 못 마치켄.(못해. 당최 딸이나 며느리나 못하겠다고 하더니. 왜 못 하나. 삶는 것도 삶는 거지만 담을 때도 문제라고 하는 거라. 소금을 간 못 마치겠다고.)

107063 @ 곤 못 마춰.(간 못 맞춰.)

107063 #1 하영사 놤는지 즉게사 놤신디. 거난 우리는이 딱 노면은이. 뒈지 안허여도 딱 노면 이 소금으론 뭘 거 담다 허민 딱딱 맞아이. 놤은 다 마련허곡 헤도 난 마련헤 본 도리가 무대뽀로 헤여. 무대뽀로.(많이 놓는지 작게 놓는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 딱 놓으면 되지 않아도 이 소금으론 될 거 같다 하면 딱딱 맞아. 남은 다 마련하고 해도 난 마련해 본 도리가 '무대뽀'로 해. '무대뽀'로.)

107063 @ 왕소금?(왕소금?)

107063 #1 응. 왕소금이지. 거 소금 잘못사민 중국 아다로허민이 절대 녹지 안헤영 장그르쳐 불어. 우리 한국 걸로 담아야 혀. 장 그르쳐. 중국 꺼 허지 말아. 써. 써. 장이.(응. 왕소금이지. 거 소금 잘못사면 중국 체하면 절대 녹지 않아서 장 그르쳐 버려. 우리 한국 걸로 담아야 해. 장 그르쳐. 중국 꺼 하지 마. 써. 써. 장이.)

107063 @ 써.(써.)

107063 #1 그 소금 녹지도 안허곡. 게난 이디 소금으로 헤야 혀.(그 소금 녹지도 안하고. 그러니까 여기 소금으로 해야 해.)

107063 @ 구데기 생기믄 못 먹지예?(구더기 생기면 못 먹지요?)

107063 #1 어?(어?)

107063 @ 구데기 생기민?(구더기 생기면?)

107063 #1 어. 우린 구데기 생기민 그냥 데껴 불어. 비유 약헨. 절대 벌거지 못앚지게 헤야 헤. 게난 헐 때부떠 정신 딱 졸려야 혀. 그거 헤영 소금헤영 끌아놔근에 이 푸리 못뎅기게 딱 무꺼 불어야 혀. 고무줄로. 경헤사 헤여. 건디 거 나이롱으로랑 허지 말아. 나이롱은이 이 공기를 못 허지.(어. 우린 구더기 생기면 그냥 던져버려. 비위 약해서. 절대 벌래 못 생기게 해야 해. 그러니까 할 때부터 정신 딱 차려야 해. 그거 해서 소금해서 깔아놔서 이 파리 못 다니게 딱 묶어버려야 해. 고무줄로. 그런데 거 나일론으로는 하지 마. 나일론은 이 공기를 못하지.)

107063 @ 못 들어가게 하니까.(못 들어가게 하니까.)

107063 #1 무명, 모멘으로 헤야 광목으로 헤사 그게 만년무끼주이. 나이롱으로 허민 이 장이 숨쉬지 못허여.(무명, '모면'으로 해야 광목으로 해야 그게 '만년무끼'지. 나일론으로 하면 장이 숨 쉬지 못해.)

107063 @ 사람도 마찬가지.(사람도 마찬가지.)

107063 #1 그게 이 몸에나 무신거나이 나이롱 옷 들어가민 이디 공기가 못허잔아. 게난 나이롱 옷 안 입엄네. 장도 마찬가지. 장허고 사람 똑 ᄀᆞ따.(그게 이 몸에나 뭐나 나일론 옷 들어가면 여기 공기가 못하잖아. 그러니까 나일론 옷 안 입네. 장도 마찬가지. 장하고 사람 똑 같아.)

107063 @ 진짜. 겐 그 간장은 또 조선간장은 여러 가지로 헹 먹고. 장물은.(진짜. 그래서 그 간장은 조선간장은 여러 가지로 해서 먹고. 장물은.)

107063 #1 응. 소고기국엔 왓다! 라. 우리 한국 것이. 이 저 오복간장은 못 먹어. 간장이라야. 간장으로 끌리민 맛잇어. 오복간장은 못 먹어. 완전이 글러 불어. 차라리 소금으로 끌리는 게 낫지.(응. 소고기국엔 왔다! 라. 우리 한국 것이. 이 저 오복간장은 못 먹어. 간장이라야. 간장으로 끓이면 맛있어. 완전히 글러버려. 차라리 소금으로 끓이는 게 낫지.)

107063 @ 아아.(아아.)

107063 #1 이 오복간장은이 먹질 말아야 헤여.(이 오복간장은 먹질 말아야 해.)

107063 @ 맞아.(맞아.)

107063 #1 이녁으로 헌 거.(이녁대로 헌 거.)

107063 @ 나쁜 게 들어갓다고 하드라고.(나쁜 게 들어갔다고 하더라고.)

107063 #1 그렇지. 겨니까 그게 오복간장이라고 헌 거는 소고기 국도 뜰려부럼잖아. 이녁 간장이 나아. 겨난 오복간장덜 안 사람은 안 먹젠 허여. 게난 비싸도 둠은 간장 먹어. 겨난 비싸도 요새 사람덜은 저 둠은 거, 산 먹잖아.(그렇지. 그러니까 그게 오복간장이라고 한 거는 소고기 국도 달라버리잖아. 이녁 간장이 나아. 그러니까 오복간장들 안 사람은 안 먹으려고 해. 그러니까 비싸도 담은 간장 먹어. 그러니까 비싸도 요새 사람들은 저 담은 거, 사서 먹잖아.)

107063 @ 맞수다.(맞습니다.)

107063 #1 오복간장은 여기가 들쿠름허잖아. 이딧 간장은 짠짠 허곡, 뜰리잖아. 간장으로부터. 먹어봐라 너 오복간장 먹어보고 그냥 간장 먹어봐. 뜰려.(오복간장은 여기가 달짝지근하잖아. 여기 간장은 짠짠 하고, 다르잖아. 간장으로부터. 먹어봐라 너 오복간장 먹어보고 그냥 간장 먹어봐. 달라.)

107063 @ 잡채에나.(잡채에나.)

107063 #1잡채에도 야씩 놔야 이딧간장으로는.(잡채에도 살짝 놔야 여기간장으로는.)

떡류

107064 @ 자, 이번에는 떡으로 감수다예.(자, 이번에는 떡으로 갑니다.)

107064 #1 응?(응?)

107064 @ 떡은 어떤 종류가 잇수과? 신촌에서. 떡? 제사떡이나 무슨 떡, 무슨 떡?(떡은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신촌에서. 떡? 제사떡이나 무슨 떡, 무슨 떡?)

107064 #1 아, 이녁 허구정 헌냥 허주.(아, 이녁 하고 싶은 대로 하지.)

107064 @ 그래도 마을마다 떡이.(그래도 마을마다 떡이.)

107064 #1 뜰리지. 반착 떡도 잇더라. 서촌더렌?(틀리지. 반쪽 떡도 있더라. 서촌에는?)

107064 @ 게난마씨.(그러니까요.)

107064 #1 또 이만이헌 떡도 잇고. 여기는 그축 안허여. 시리떡이라고이, 시리에 담지 안허나?(또 이만한 떡도 있고. 여기는 그렇게 안 해. 시루떡이라고. 시루에 담지 안하나?)

107064 @ 예.(예.)

107064 #1 그거허곡.(그거하고.)

107065 @ 벡시리, 아니민 픗시리? 아니민 조침떡?(백시루, 아니면 팥 시루? 아니면 조 시루떡?)

107065 #1 조침떡도 시리에 담곡, 그냥 설기떡도 픗 엇인 사람은 세세에 속질 끌아줘야. 경 안허믄 흔 덩어리 뒈불어.(조 시루떡도 시리에 담고, 그냥 백설기도 팥 없는 사람은 사이사이에 속지를 깔아줘야. 그렇지 않으면 한 덩어리 돼버려.)

107065 @ 아, 하얀 떡도?(아, 하얀 떡도?)

107065 #1 하얀 떡도.(하얀 떡도.)

107065 @ 속지란 것은?(속지란 것은?)

107065 #1 속지.(속지.)

107065 @ 속지가 그 광목?(속지가 그 광목?)

107065 #1 아니야, 창호지 잇잖아.(아니야, 창호지 있잖아.)

107065 @ 아아.(아아.)

107065 #1 창 볼르는 거, 거 닮은 속지가 잇어. 얄륜 얄륜헌 거.(창 바르는 거, 거 닮은 속지가 있어. 얇고 얇은 거.)

107065 @ 아아.(아아.)

107065 #1 조그만이헌 거. 걸 끌아야 떡이 아이 부뜨지 경안허민 흔 덩어리.(조그마한 거. 걸 깔아야 떡이 아니 붙지 그러지 않으면 한 덩어리.)

107065 @ 옛날엔 베로 허지 안 헷수과? 그런 거?(옛날엔 베로 하지 안했습니까? 그런 거?)

107065 #1 베로 무싱걸 허여?(베로 뭘 해?)

107065 @ 삼베로 이렇게 속지 대신 허지 안헤신가?(삼베로 이렇게 속지 대신 하지 안했는가?)

107065 #1 아니야.(아니야.)

107065 @ 옛날엔 뭘로 헤신고?(옛날엔 뭐로 했는가?)

107065 #1 엣날엔이, 잇인 사름은 픗을 솜고, 픗 엇인 사름은 그렇게, 픗을 놔야 그거 징징이 떼지지. 픗 아이노민 그거 한 덩어리 뒈불어. 그 굿 심방[119]덜 빌어근에 나

119) '심방'은 제주에서는 무당을 일컫는 말로 신의 성방이라고 한다.

까시리[120] 허잖아.(옛날엔, 있는 사람은 팥을 삶고, 팥 없는 사람은 그렇게, 팥을 놔야 그거 층층이 떼어지지. 팥 아니 놓으면 그거 한 덩어리 돼 버려. 그 굿 '심방들' 빌어서 '나까시리' 하잖아.)

107065 @ 예. 그거. 설기떡?(예. 그거. 백설기?)

107065 #1 그거는 흔덩어리 헤여야. 흔덩어리 헤서 영영 놀린 때도 헤싸지지 안허주만은.(그거는 한 덩어리 해야. 한 덩어리 해서 이렇게, 이렇게 놀린 때도 흩어지지 안하지만.)

107065 @ 예.(예.)

107065 #1 이 폿 논건 그냥 헤싸져 불어. 이렇게 허믄. 게난 흔덩어리 뒈니까 아니주마는 폿 논 거 헤봐라 탁탁 갈라져 불지.(이 팥 논 건 그냥 흩어져버려.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한 덩어리 되니까 아니지만 팥 논 거 해봐라 탁탁 갈라져버리지.)

107065 @ 갈라져 불어. 그 나까시리는 무사 경들 헴신고예?(갈라져버려. 그 '나까시리'는 왜 그렇게들 하는가요?)

107065 #1 나까시리는 성주. 성주 ᄂᆞ릴 때 나까시리 허여.('나까시리'는 성주. 성주 내릴 때 나까시리 해.)

107065 @ 따른 때도 나까시리 헙디다. 지장본 헐 때도.(따른 때도 나까시리 헙디다. '지장본' 할 때도.)

107065 #1 아니야, 나까시린 성주내릴 때 나까시리 놀리주 무신.(아니야. 나까시린 성주내릴 때 나까시리 놀리지. 무슨.)

107065 @ 무사 성주 헐 때 나까시리를 놀리며, 이름은 무사 나까시린고예?(왜 성주 할 때 '나까시리'를 놀리며, 이름은 왜 '나까시린'가요?)

107065 #1 이젠 그런 거 안 헤여. 옛날은이 그 성주 내릴 땐이, 그 시리를 쳐근에 그냥 영 허주만은 옛날 어른덜은 그렇게 안 헤여.(이젠 그런 거 안 해. 옛날엔 이 그 성주 내릴 땐, 그 시루를 쳐서 그냥 이렇게 하지만 옛날 어른들은 그렇게 안 해.)

107065 @ 무사 성주내릴 때 나까시리를 꼭 헤신고예?(왜 성주 내릴 때 '나까시리'를 꼭 했는가요?)

107065 #1 거 구진 거, 존 거 알아보젠.(거 궂은 거, 좋은 거 알아보려고.)

107065 @ 그 나까시리 점을 쳣지예?(그 나까시리 점을 쳤지요?)

107065 #1 그렇지. 그 나까시리 놀리당이 획 허게 데끼잔아.(그렇지. 그 '나까시리' 놀리다가 이 획 하게 던지잖아.)

107065 @ 예.(예.)

107065 #1 그거허민 탁 어퍼지나 갈라지나 ᄋᆞ피로 영 누나, ᄋᆞ피로 헌 건 좋지 아녀. 영 갈라지나 어퍼지나 헤야.(그거하면 탁 엎어지나 갈라지나 옆으로 이렇게 누나, 옆으로 한건 좋지 않아. 갈라지나 엎어지나 해야.)

107065 @ 둘 중에 하나.(둘 중에 하나.)

107065 #1 좋지 아녀믄 옾으로 탁 드러눠. 나까시리가 춤 희한허여. 춤 그거 경허난

120) '나까시리'는 굿의 '나까시리 놀림'제차에서 높이 던져 올리며 놀리는 흰 시루떡을 말한다.

심방덜이 아는 거라. 그거 허는 거 봉.(좋지 아니면 옆으로 피로 탁 들어 눠. '나까시리'가 참 희한해. 참 그거 그러니까 무당들이 아는 거라. 그거 하는 거 봐서.)

107065 @ 무사 하필이면 떡으로 헷으며 왜 하얀 떡이며, 왜 이름은 나까시리냐?(왜 하필이면 떡으로 했으며 왜 하얀 떡이며, 왜 이름은 '나까시리'냐?)

107065 #1 나까시리 영영 놀리니까.('나까시리' 이렇게, 이렇게 놀리니까.)

107065 @ 나까가 뭐꽈? 일본말도 아니잖아 거?('나까'가 뭡니까? 일본말도 아니잖아 거?)

107065 #1 건 일본말 아니. 나까시리옌 허드라. 거 시리가이 그 나까시리옌 헹 치니까 나까시리옌 헌 거 일름이.(건 일본말 아니. 나까시리라고 하더라. 거 시루가 그 '나까시리'라고 해서 찌니까 '나까시리'라고 한 거 이름이.)

107065 @ 아, 시리는 시루에 시리고.(아, '시리'는 시루에 '시리'고.)

107065 #1 시린디이. 이 저 성주내릴 때 나까시리.(시루데. 이 저 성주내릴 때 '나까시리'.)

107065 @ 나까가 무슨 건고예?('나까'가 무슨 건가요?)

107065 #1 아메도 이렇게 놀리니까 나까시리옌 헴실테주. 거 막 놀리잖아. 심방덜.(아무래도 이렇게 놀리니까 '나까시리'라고 하고 있겠지. 그거 막 놀리잖아. 무당들.)

107065 @ 고기 나끄듯이 나끄니까?(고기 낚듯이 낚으니까?)

107065 #1 아니. 그렇게 막 놀리더라고 영, 영, 영, 영, 놀련 막 빙 빙 빙 빙 돌단 휙 잡아 데끼난에이 탁 어퍼진 건 좋고 갈라젼 읖으로 탁 논 건 좋지 안혀덴 헤여.(아니. 그렇게 막 놀리더라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놀려서 막 빙 빙 빙 빙 돌다가 휙 잡아 던지니까 탁 엎어진 건 좋고 갈라져서 옆으로 탁 논 건 좋지 안하다고 해.)

107065 @ 아, 삼촌은 나까시리를 성주낼 때 허는 거다.(아, 삼촌은 '나까시리'를 성주낼 때 하는 거다.)

107065 #1 게.(그럼.)

107065 @ 그 말을 얘기헴다예.(그 말을 얘기하는군요.)

107065 #1 성주내릴 때 나까시리.(성주내릴 때 '나까시리'.)

107065 @ 큰 굿헐 때도 나까시리.(큰 굿할 때도 '나까시리'.)

107065 #1 큰 굿헐 때는 대신왕[121] 헐 때?(큰 굿할 때는 '대신왕' 할 때?)

107065 @ 대신?(대신?)

107065 #1 대신왕 이제 ᄀᆞ트민 저싱은 대신왕. 이제 ᄀᆞ트민 대통량.('대신왕' 이제 같으면 저승은 '대신왕'. 이제 같으면 대통령.)

107065 @ 아아, 저싱 염라대왕 올 때?(아아, 저승 염라대왕 올 때?)

107065 #1 그거 헐 때.(그거 할 때.)

107065 @ 무사 염라대왕 오면은 그걸 허는고예? 염라대왕 올 때 그거 점을 보는 건가?(왜 염라대왕 오면 그걸 하는가요? 염라대왕 올 때 그거 점을 보는 건가?)

107065 #1 염레대왕은 큰 굿헐 때는 이 메칠 걸어놩 헐 때는 그 그 저 대신왕 청

121) '대신왕'은 저승의 열 시왕을 뜻하며 여기서는 시왕맞이를 뜻한다.

헤.(염라대왕은 큰 굿할 때는 이 며칠 걸어놔서 할 때는 그 그 저 '대신왕 청해.)

107065 @ 청허잖아예.(청하잖아요.)

107065 #1 헐 땐이 수건도 벗어 불렌 허곡 모자도 아니 쓰고. 높은 어른 들어오는디 건방지게 수건 써지나? 목소리도 못허게 허여. 어이구, 춤.(할 땐 수건도 벗어 버리라하고 모자도 안 쓰고. 높은 어른 들어오는데 건방지게 수건 쓸 수 있나? 목소리도 못하게 해. 아이구, 참.)

107065 @ 그 나까시리는 좋은 떡을 올린다는 뜻인가?(그 '나까시리'는 좋은 떡을 올린다는 뜻인가?)

107065 #1 그 성주 내릴 땐 그 나까시리를 놀려야 허냐? 이런 디 문전에 헐 때. 그 옛날은 그 성주 아이내린 집인 식게헐 때도 초상이 들어가지 못 헌덴. 성주에서 딱 막 노렌. 못 들어가게. 겐디 이젠 그런 법이 잇냐?(그 성주 내릴 땐 그 '나까시리'를 놀려야 하냐? 이런 데 문전에 할 때. 옛날은 그 성주 아니 내린 집인 제사할 때도 조상이 들어가지 못한다고. 성주에서 딱 막 놓으라고. 못 들어가게. 그런데 이젠 그런 법이 있나?)

107065 @ 아, 성주에서.(아, 성주에서.)

107065 #1 응. 성주가 쎄영 못 들어온덴. 그 옛날 주둥이로 나온 거지 지금 성주 안 헷덴 식게 못 허나? 옛날 어른덜 지은 대로.(응. 성주가 세서 못 들어온다고. 그 옛날 주둥이로 나온 거지 지금 성주 안 했다고 제사 못 하나? 옛날 어른들 지은 대로.)

107065 @ 경헤도 나름게. 잘도 만들어 놔서예.(그래도 나름이요. 잘도 만들어 놨어요.)

107065 #1 옛날 어른들이 머리 좋아. 공분 안 헤도.(옛날 어른들이 머리 좋아. 공분 안 해도.)

107065 @ 나까시리, 시리는 시루라는 말이고?('나까시리', 시루는 시루라는 말이고?)

107065 #1 시리, 시리옌 말을 나까시리. 나까시리 놀리니까 나까시리라고.(시리, 시리라고 말을 '나까시리'. '나까시리' 놀리니까 '나까시리'라고.)

107065 @ 놀리니까예.(놀리니까요.)

107065 #1 떡으로 막 놀리잖아. 휙 휙 휙 휙 던져.(떡으로 막 놀리잖아. 휙 휙 휙 휙 던져.)

107065 @ 응.(응.)

107065 #1 막 영, 영, 영, 영.(막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107065 @ 나까란 말이 무신 말인질 몰라가지고.('나까'란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107065 #1 그 사람덜이 경 나까시리옌 허난 나까시리민 나까시리. 심방덜이 ᄀᆞ르난. 우리가 아나?(그 사람들이 그렇게 '나까시리'라고 하니까 '나까시리'면 '나까시리'. 심방들이 말하니까. 우리가 아나?)

107065 @ 게난 시루떡은 조침떡허고.(그러니까 시루떡은 조시루떡하고.)

107065 #1 그거 조침떡은 제ᄉᆞ 때나 소상 때나 대상 때나 허지. 이 심방 허는 건 그런 거 안 허여.(그거 조 시루떡은 제사 때나 소상 때나 대상 때나 하지. 이 무당 하는

건 그런 거 안 해.)

107065 @ 음. 심방은 나까시리고?(음. 심방은 '나까시리'고?)

107065 #1 흰떡으로만 허지.(흰떡으로만 하지.)

107065 @ 흰떡으로만 허고.(흰떡으로만 하고.)

107065 #1 그거이 좋젱 허민 제물 헤 보민 알아져. 거츰 희한허게 알아져. 그 제물 허면은이 시리가 앚지잖아. 그 짐 올를 때 안뒈젠 허민 팍팍팍팍 막 터져 불어. 막 이 그냥 사름 ᄀᆞ뜨민 용심낭 허듯 막 허곡이 그 좋젱 허믄이 그 체염 막은 딜로 딱 짐이 올라와.(그거 좋으려면 제물 해 보민 알아져. 거참 희한하게 알아져. 그 제물 하면 이 시루가 앉히잖아. 그 짐 오를 때 안 되려고 하면 팍팍팍팍 막 터져버려. 막 그냥 사람 같으면 화나서 하듯 막 하고 그 좋으려면 그 처음 막은 데로 딱 김이 올라와.)

107065 @ 아아.(아아.)

107065 #1 희한허여 그거.(희한해. 그거.)

107065 @ 거 무슨 떡?(거 무슨 떡?)

107065 #1 시루떡. 체얌 막은 딜로 딱 짐이 올라오민 거 왓다고. 파파파파 허나 다른 딜로 허민. 게난이 제물허는 사름은 심방 이상이라. 딱 제물허믄. 또 셍편도이 돌래떡 잇잔아.(시루떡. 처음 막은 데로 딱 김이 올라오면 거 왔다고. 파파파파 하나 다른 데로 하면. 그러니까 제물 하는 사람은 심방 이상이라. 딱 제물하면. 또 송편도 도래떡 있잖아.)

107065 @ 예.(예.)

107065 #1 동글락헌 거이, 그것도 마찬가지라.(둥근 거, 그것도 마찬가지라.)

107066 @ 거 쉬운 거 아니? 건 물에만 드리치민 뒈는 거 아니?(거 쉬운 거 아니? 그건 물에만 넣으면 되는 거 아니?)

107066 #1 아니라. 드리치민이 그것이 좋젱 허민 떡이 방글 방글 방글 방글 웃는 거 ᄀᆞ찌.(아니라. 넣으면 이 그것이 좋으려면 떡이 방글 방글 방글 방글 웃는 거 같이.)

107066 @ 아까 송편 삶을 때?(아까 송편 삶을 때?)

107066 #1 응.(응.)

107066 @ 안 뒈젠 허민 송편이 어떵헤마씨?(안 되려고 하면 송편이 어떻게 해요?)

107066 #1 송편도 여러 질이라. 시께허는 건 앙꼬 놩 동글락허게 허는 거고, 굿 허는 건 넙작허게 헤여.(송편도 여러 질이라. 제사하는 건 앙금 놔서 둥글게 하는 거고, 굿하는 건 넙적하게 해.)

107066 @ 돌래떡을 송편이라곤 안헴수께.(도래떡을 송편이라고 안하지요.)

107066 #1 돌래떡.(도래떡.)

107066 @ 돌래떡허고 송편은 다른 거잔아예.(도래떡하고 송편은 다른 거잖아요.)

107066 #1 ᄯᅡ나지. 송편은.(다르지. 송편은)

107066 @ 앙꼬 논게 송편?(소 넣은 게 송편?)

107066 #1 그렇지. 그거는 제ᄉᆞ헐 때 씨는 거고.(그렇지. 그거는 제사할 때 쓰는 거고.)

107066 @ 제ᄉᆞ헐 때 쓰는 거.(제사할 때 쓰는 거.)
107066 #1 이 동글락허는 건 굿헐 때 씨는 거. 거 굿헐 때 쓰는 건 물펜.(이 둥근 건 굿할 때 쓰는 거고. 거 굿할 때 쓰는 건 물편.)
107066 @ 돌래떡을 물펜이라고도 헤마씨?(도래떡을 물편이라고도 해요?)
107066 #1 물로 솔믄 거니까 물펜.(물로 삶은 거니까 물편.)
107066 @ 아아, 그거 처음 들어보는 말인데.(아아, 그거 처음 들어보는 말인데.)
107066 #1 물펜. 게난 너 나신디 잘도 배왐다.(물편. 그러니까 너 나한테 잘도 배운다.)
107066 @ 돌래떡이렌도 헙니까? 이 동네?(도래떡이라고도 합니까? 이 동네?)
107066 #1 돌래떡도 허는데 물펜이엔 허메. 물로 솔믄 거니까 물펜.(도래떡도 하는데 물편이라고 해. 물로 삶은 거니까 물편.)
107066 @ 아아. 돌래떡을 물펜이렌도 허곡예.(아아. 도래떡을 물편이라고도 하고요.)
107066 #1 어어.(어어.)
107066 @ 그믄 송펜은 그 속에 앙꼬, 저 속을.(그러면 송편은 그 속에 소, 저 속을.)
107066 #1 요만이헌 거.(요만한 거.)
107066 @ 뭘 놉니까?(뭘 놉니까?)
107066 #1 풋.(팥.)
107066 @ 풋.(팥.)
107066 #1 꿰.(깨.)
107066 @ 꿰, 쉬를?(깨, 소를?)
107066 #1 풋. 꿰. 녹듸.(팥, 깨, 녹두.)
107066 @ 녹듸. 꿰도 놓곡 녹듸도 놓고. 삼촌은 뭐가 맛좋읍니까? 소금 살짝 놓고?(녹두. 깨도 넣곡 녹두도 넣고. 삼촌은 뭐가 맛좋습니까? 소금 살짝 넣고?)
107066 #1 꿰 논 떡이 맛잇지. 앙꼬.(깨 놓은 떡이 맛있지. 소.)
107066 @ 꿰를, 옛날에도 꿰 놧수과?(깨를, 옛날에도 깨 놨습니까?)
107066 #1 응.(응.)
107066 @ 그 송편은 보름달 모양이렌 들어봣수과?(그 송편은 보름달 모양이라고 들어봤습니까?)
107066 #1 보름달만이 헌 건 돌래떡이주게.(보름달만이 한 건 도래떡이지.)
107066 @ 아니, 우주강산에 별떡이여, 보름떡이여.(아니, 우주강산에 별떡이여, 보름떡이여.)
107066 #1 둥글럭헌 건이 ᄃᆞᆯ 닮은 건이 물펜.(둥그런 건 달 닮은 건 이 물편.)
107066 @ ᄃᆞᆯ이엔 헙니까?(달이라고 합니까?)
107066 #1 ᄃᆞᆯ 닮은 떡ᄀᆞ라 물편.(달 닮은 떡보고 물편.)
107066 @ 으음. 돌래떡을 ᄃᆞᆯ 닮아?(으음. 도래떡을 달 닮아?)
107066 #1 아이구, 나 안 헤본 거 엇다.(아이구, 나 안 해본 거 없다.)
107066 @ 게난 ᄃᆞᆯ 닮으난 ᄃᆞᆯ래떡이렌 헤신가예?(음. 도래떡을 달 닮아? 그러니까

달 닮으니까 도래떡이라고 했는가요?)
107066 #1 으응. 동글락허게 만드니까.(으응. 동글게 만드니까.)
107066 @ 둥글락허게 만드난.(둥글게 만드니까.)
107066 #1 돌래떡이니까 동글락허니까 둥근 돌래떡이옌 헤연.(도래떡이니까 동글하니까 둥근 도래떡이라고 해서.)
107066 @ 돌, 동글락허니까 돌래떡.(달, 둥그니까 도래떡.)
107066 #1 응.(응.)
107066 @ 달 닮기도 하고?(달 닮기도 하고?)
107066 #1 동글락허니까 돌래떡.(동글하니까 도래떡.)
107066 @ 아아, 돌래.(아아, 도래.)
107066 #1 응. 동글락허연 우리 태극기 그리젠 허민 사발 어펑 동글락허잖아?(응. 동글해서 우리 태극기 그리려고 하면 사발 엎어서 동글하잖아?)
107066 @ 예.(예.)
107066 #1 그거 동글락헌 건 돌래떡.(그거 동그란 건 도래떡.)
107066 @ 돌래떡. 그걸 물펜이라고 그러고예?(도래떡. 그걸 물편이라고 그러고요?)
107066 #1 응.(응.)
107066 @ 그믄 송펜은 무사 송펜이렌 헷수과? 소나무에.(그러면 송편은 왜 송편이라고 했습니까? 소나무에.)
107066 #1 솔입에 놩 치니까 솔펜.(솔잎에 놔서 치니까 송편.)
107066 @ 솔펜. 송펜.('솔편'. 송편.)
107066 #1 응.(응.)
107066 @ 솔입에 놩 찌믄 솔입 냄새가 나잖아.(솔잎에 놔서 치니까 송편. 솔잎에 놔서 찌면 솔잎 냄새가 나잖아.)
107066 @ 옛날에도 솔입 놩 헷수과?(옛날에도 솔잎 놔서 했습니까?)
107066 #1 그렇지. 옛날엔이 소상, 대상에 시리에 솔입 영 끌앙 시리에 다 쳐.(그렇지. 옛날엔 이 소상, 대상에 시루에 솔잎 이렇게 깔아서 시루에 다 쪄.)
107066 @ 그믄 시리떡에는 송펜이옌 안허고, 요것만 송펜이옌 헌 거는?(그러면 시루떡에는 송편이라고 안하고, 요것만 송편이라고 한 거는?)
107066 #1 솔펜은 솔입에 놩 쪄부니까 송펜.('솔편'은 솔잎에 놔서 쪄버리니까 송편.)
107066 @ 아아.(아아.)
107066 #1 솔입 놩 찌니까 송펜.(솔잎 놔서 찌니까 송편.)
107066 @ 그 송펜도 육지는 쫄락헌디 우린 제주돈 똥글락헤예.(그 송편도 육지는 길쭉한데 우린 제주도는 동글해요.)
107066 #1 동글락허지. 뚠나 떡도 다 뚠나. 저 서더레도 떡 뚠나게 허더라. 반착씩.(동글하지. 달라. 떡도 다 달라. 저 서쪽에도 떡 다르게 하더라. 반착씩.)
107066 @ 응.(응.)
107066 #1 밀언에 이. 동데레도 밀고. 이딘 밀엉 안허여. 저 ᄆᆞᆯ로 만든 건 밀어.

(밀어서. 동쪽에도 밀고. 여긴 밀어서 안 해. 저 메밀로 만든 건 밀어.)

107066 @ 아아. ᄆᆞᆯ로 만든 건, 밀어예.(아아. 메밀로 만든 건, 밀어요.)

107066 #1 응. ᄆᆞᆯ로 만든 건, 밀더라고.(응. 메밀로 만든 건, 밀더라고.)

107067 @ 그믄 빙떡에 대헤서 말씀혜 주십시오.(그러면 빙떡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7067 #1 빙떡은 어떤 빙떡?(빙떡은 어떤 빙떡?)

107067 @ 그 무수, 놈삐 놔가지고 도르르 만 거.(그 무수, 무 놔가지고 도르르 만 거.)

107067 #1 거 빙떡.(거 빙떡.)

107067 @ ᄆᆞ멀로.(메밀로.)

107067 #1 그거 그거주게.(그거 그거지.)

107067 @ 그거 어떵 만듭니까?(그거 어떻게 만듭니까?)

107067 #1 ᄆᆞᆯᄏᆞ루 ᄀᆞᆯ아다가 소금을 쫌 놔이. 놔근에이 그거 왜냐면 잘못허민 뭉글락뭉글락헌 ᄌᆞ배기 뒈여. 거 잘못 카민.(메밀가루 갈아다가 소금을 쫌 놔 이. 놔서 그거 왜냐면 잘못하면 뭉글락뭉글락한 수제비 돼. 거 잘못 카민.)

107067 @ 응.(응.)

107067 #1 거 웨냐면이 그 ᄆᆞᆯᄏᆞ루에다가 소금을 쪼끔 놔 짜게도 말고, ᄒᆞ꼼만 경 놔근에 이 가운디 홈파. 홈프민 여기 물을 놔. 물을 어느 정도 반죽이 뒐 만이 노면은 영, 영, 영, 영 젓어가면은 다 타지는 거라.(거 왜냐면 그 메밀가루에다가 소금을 쪼끔 놔 짜게도 말고, 조금만 그렇게 놔서 이 가운데 홈파. 홈파면 여기 물을 놔. 물을 어느 정도 반죽이 될 만큼 넣으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저어가면 다 타지는 거라.)

107067 @ 응.(응.)

107067 #1 혼번에 다 타민 뭉틀락뭉틀락 헤여.(한번에 다 타면 '뭉틀락뭉틀락' 해.)

107067 @ 찬물에?(찬물에?)

107067 #1 어. 찬물에 아녀믄 안뒈여. 그거. 경 헹 막 헤여근에. 풀라고 막 때려. 막 때려근에 영 허민이 국자로 영 들러보민이 뭉클락헌 건 되고, 영헹 허면은 그것이 얄로롱허게 떨어지믄 그것이 빙떡 뒈는 거야.(어. 찬물에 안하면 안 돼요. 그거. 그렇게 해서 막 해서. 풀라고 막 때려. 막 때려서 이렇게 하면 국자로 이렇게 들어보면 '뭉클락한' 건 되고, 이렇게 해서 하면 그것이 얇게 떨어지면 그것이 빙떡 되는 거야.)

107067 @ 무수렌 헙니까? 놈삐렌 헙니까?('무수'라고 합니까? '놈삐'라고 합니까?)

107067 #1 놈삐영도 허고 무수영도 허주.('놈삐'라고도 하고 무라고도 하지.)

107067 @ 무수는 그거를 솔망.(무는 그거를 삶아서.)

107067 #1 무수를 썰엉.(무를 썰어서)

107067 @ 썰엉.(썰어서.)

107067 #1 썰어근에 이제 파 썰어놓지 안허나? 무 썬 걸 익혀. 익혀근에 구덕에 영 물을 빠주와. 빠줄 때는 이제 소금 쪼끔 놓곡, 그 파, 건진 구덕에 팔, 경 안허민 누렁헤불어 파가, 더운디 노민. 베끗디 짐을 나가 불어야. 어떤 국이던지 이 파 놀 때는이 더

끄나 너무 끌여부난허민 색깔 틀려불곡 거 다 끌려근에 불 다 켜분 때는 탁 놓으민 파랑한 냥. 그것도 배와야 헤여.(썰어서 이제 파 썰어놓지 안하나? 무 썬 걸 익혀. 익혀서 구덕에 이렇게 물을 빼줘. 빼줄 때는 이제 소금 쪼끔 놓곡, 그 파, 건진 구덕에 팔, 그렇게 안하면 누래버려. 파가. 더운데 놓으면. 바깥에 김을 나가 버려야. 어떤 국이든지 이 파 놀 때는 덮으나 너무 끓여버리니까 하면 색깔 달라 버리고 거 다 끓여서 불 다 켜버린 때는 탁 놓으면 파란 대로. 그것도 배워야 해.)

107067 @ 맞아 건.(맞아 건.)

107067 #1 그냥 끌려불민 누렁헤 불어.(그냥 끓여버리면 누래버려.)

107067 @ 예.(예.)

107067 #1 다 끌인난 다음에 좀 식엇다헌 다음에 파를 놔야 파랑헤여. 경 안허민익어 불어(다 끓여난 다음에 좀 식었다한 다음에 파를 놔야 파래.)

107067 @ 응.(응.)

107067 #1 집이서 요리 헐 때도 그런 거 헤어야 헤어.(집에서 요리 할 때도 그런 거 해야 해.)

107067 @ 경 헹 지정 영 도르르헤가지고?(그렇게 해서 지져서 이렇게 도르르해?)

107067 #1 그거 헹 헐만이 헹 국자로 하나민 하나반은 들어야 헐 거라. 영헹 이레 돗지름이나 ᄂᆞ물치름이나 볼라야, 눌지 못허게. 볼라근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가운딜로부터 영, 영, 영, 영 헤사주 경안허민 모두레기쳐.(그거 해서 할 만큼 해서 국자로 하나면 하나 반은 들어야 할 거라. 이렇게 해서 이레 돼지기름이나 나물기름이나 발라야, 눌지 못하게. 발라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가운데로부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안하면 '모두레기쳐'.)

107067 @ 모지레기?(모지레기?)

107067 #1 이 ᄌᆞ배기 지잔아.(이 수제비 지잖아.)

107067 @ 조베기 져.(수제비 지어.)

107067 #1 경허민 이젠 ᄆᆞᆯᄏᆞ룬 데씨지 말아야 혀.(그렇게 해서 이젠 메밀가룬 뒤집지 말아야 해.)

107067 @ 아아.(아아.)

107067 #1 데씨민 안뒈여.(뒤집으면 안 돼.)

107067 @ 데씨민 안뒈어.(뒤집으면 안 돼.)

107067 #1 그냥허믄 것이 다 익으면은 탁 뒤집엉 그때는 무수놩은에 탁탁 ᄆᆞᆯ앙 딱 누르뜨민.(그냥하면 것이 다 익으면 탁 뒤집어서 그때는 무 놔서 탁탁 말아서 딱 누르면.)

107067 @ 바구니, 차롱에 놩 헷수과?(바구니, 채롱에 놔서 했습니까?)

107067 #1 차롱에 놔야 물 아니 들지. 대에는 물이 빠지거든.(채롱에 놔야 물 아니 들지. 대에는 물이 빠지거든.)

107067 @ 응.(응.)

107067 #1 게니까 물 나가지고.(그러니까 물 나가지고.)

107067 @ 차롱 우에 이렇게 우에 어펑? 어펑?(채롱 위에 이렇게 위에 엎어서? 엎어서?)

107067 #1 차롱에. 차롱.(채롱에. 채롱.)

107067 @ 차롱 어펑?(채롱 엎어서?)

107067 #1 무사 어퍼?(왜 엎어?)

107067 @ 차롱 속에서 헙니까?(채롱 속에서 합니까?)

107067 #1 게. 어퍼불민 어떵헹 허렌 말이라.(그래. 엎어버리면 어떻게 해서 하라는 말이라.)

107067 @ 차롱 우에다가 놩 헤신디.(채롱 위에다가 놔서 했는데.)

107067 #1 건 식히는 거.(건 식히는 거.)

107067 @ 이렇게 할 때도 납작하니까 어펑헤야 좋읍디다.(이렇게 할 때도 납작하니까 엎어서 해야 좋습디다.)

107067 #1 아니, 아니. 그거 헤놔근에 식히멍 놔야지. 식히지 안허믄 떡 안 뒈 불어.(아니, 아니. 그거 해놔서 식히면서 놔야지. 식히지 않으면 떡 안 돼버려.)

107067 @ 그믄 이 차롱이 영 잇으면 그기에서 ᄆᆞᆯ아?(그러면 이 채롱이 이렇게 있으면 거기에서 말아?)

107067 #1 돔베에다가 ᄆᆞᆯ아야지.(도마에서 말아야지.)

107067 @ 돔베에서 ᄆᆞᆯ아.(도마에서 말아)

107067 #1 돔배에서 ᄆᆞᆯ아놩 차롱더레 ᄂᆞ려놩 차롱에 식히민 또 다른 차롱더레 놔야. 식히멍 놔야.(도마에서 말아놔서 채롱에 내려 놔서 채롱에 식히면 또 다른 채롱에 놔야. 식히면서 놔야.)

107067 @ 그 말이로구나.(그 말이로구나.)

107068 @ 겨믄 송편, 빙떡 그 다음은 상웨떡?(그러면 송편, 빙떡 그 다음은 상화떡?)

107067 #1 상웨떡?(상화떡?)

107068 @ 예.(예.)

107067 #1 상웨떡은.(상화떡은.)

107068 @ 상웨떡은 밀가루로 헙니까?(그 다음은 상화떡? 상화떡은 밀가루로 합니까?)

107068 #1 밀ᄀᆞ루로 허주게.(밀가루로 하지.)

107068 @ 옛날에 밀가루가 잇어?(옛날에 밀가루가 있어?)

107068 #1 어, 밀 ᄀᆞᆯ아.(어, 밀 갈아.)

107068 @ 밀 갈아.(밀 갈아.)

107068 #1 밀 ᄀᆞᆯ아근에 돌ᄀᆞ레에.(밀 갈아서 돌 맷돌에.)

107068 @ 예.(예.)

107067 #1 보리쏠에 서껑.(보리쌀에 섞어서.)

107068 @ 아아.(아아.)

107067 #1 서꺼근에 그놈의 걸 영 하나씩 디리치멍 ᄀᆞ루로 ᄀᆞᆯ아.(섞어서 그놈의 걸 이렇게 하나씩 들이치면서 가루로 갈아.)

107068 @ 보리쏠하고 서꺼야 맛좋아? 상웨떡은 원래?(보리쌀하고 섞어야 맛좋아? 상화떡은 원래?)

107067 #1 응. 조금 서꺼야지.(응. 조금 섞어야지.)

107068 @ 아아, 밀가루로만 허는 게 아니고?(아아, 밀가루로만 허는 게 아니고?)

107067 #1 밀ᄀᆞ루로만 허주만은 밀이 즉으면은 보리ᄀᆞ루 좀.(밀가루로만 하지만 밀이 작으면 보리가루 좀.)

107068 @ 조금 서껑.(조금 섞어서.)

107067 #1 보리쏠을 ᄀᆞᆯ아놔야.(보리쌀을 갈아놔야.)

107068 @ 겐 서꺼진 ᄀᆞ루로.(그래서 섞인 가루로.)

107067 #1 응. 걸로.(응. 걸로.)

107068 @ 경 헹 그걸로.(그렇게 해서 그걸로.)

107067 #1 걸로 헹은에 다라에 놩 기주 잇어. 보리밥으로 그 저 뭔 것ᄀᆞ라 아이고, 곧 ᄀᆞᆯ젠 헴져마는 못 ᄀᆞᆯ켜.(그걸로 해서 대야에 놔서 기주 있어. 보리밥으로 그 저 뭔 것보고 아이고, 곧 말하려고 하지만 못 말하겠다.)

107068 @ 막걸리여, 이스트여.(막걸리여, 이스트여.)

107067 #1 거 그거이 거 저.(거 그거 거 저.)

107068 @ 부끄는 거? 뭐?(끓어 넘치는 거? 뭐?)

107067 #1 부끄는 거 말고 거 돌래떡 닮은 것이 것ᄀᆞ라 무시거옌 헌다. 그거 놔야 헤여. 이스트 놩은 안 뒈어.(끓어 넘치는 거 말고 거 도래떡 닮은 것이 것보고 뭐라고 한다. 그거 놔야 해. 이스트 놔서는 안 돼.)

107068 @ 아아, 그 저 오일장에 ᄑᆞ는 거. 거 쉰다리 만들 때 허는 거. 골? 골? 누룩?(아아, 그 오일장에 파는 거. 거 '쉰다리' 만들 때 하는 거. 엿기름? 엿기름? 누룩?)

107067 #1 어, 누룩. 누룩. 누룩. 그걸 노시 못 ᄀᆞᆯ안. 그걸로 보리밥 헤영 시켱 그 물 놔근에 누룩을 놓으면은 부글부글 궤어. 영 먹어보민이 시끔허민 이 떡도.(어, 누룩. 누룩. 누룩. 그걸 절대 못 말했어. 그걸로 보리밥 해서 식혀서 그 물 놔서 누룩을 놓으면 부글부글 괴. 이렇게 먹어보면 시큼하면 이 떡도.)

107068 @ 아, 막걸리 놓는 게 아니고 누룩으로 헷수과?(아, 막걸리 놓는 게 아니고 누룩으로 했습니까?)

107067 #1 누룩으로 밥을 만들어야 혀.(누룩으로 밥을 만들어야 해.)

107068 @ 누룩 밥을 만들엉.(누룩 밥을 만들어서.)

107067 #1 보리밥을 만들아. 만들앙 식형 이제 식형은에 그 누룩을 영 벌러 놔. 손으레. 좀지롱이 벌러근에 이제 물을 놩 다 골루루 져서. 그거 게민 너무 하영 물 놔도 안뒈어. 딱 맞게 놩은에 단지에 놔두민 불탕 불탕 불탕 그거 궤어서 궤어. 그걸 걸러서 상웨떡을 만들어야 북삭허지. 그 기주가 나쁘민 안 궤어.(보리밥을 만들어. 만들어서 식혀서 이제 식혀서 그 누룩을 이렇게 잘라 놔. 손에. 잘게 쪼개서 이제 물을 놔서 다 골

고루 찧어서. 그거 그러면 너무 많이 물 놔도 안돼. 딱 맞게 놔서 단지에 놔두면 '불탕 불탕 불탕' 그거 괴어서 괴어. 그걸 걸러서 상화떡을 만들어야 '복삭'하지. 그 기주가 나쁘면 안 괴어.)

107068 @ 아아.(아아.)

107067 #1 기주가 좋아야.(기주가 좋아야.)

107068 @ 그 누룩이 좋아야.(기주가 좋아야.)

107067 #1 그 원료 거 밥 만든 것이이.(그 원료 거 밥 만든 것이.)

107068 @ 응. 부글부글 궤어야.(응. 부글부글 괴어야.)

107067 #1 궬 때 부글부글 궤어.(괼 때 부글부글 괴어.)

107068 @ 메칠을 경 궵니까?(며칠을 그렇게 괍니까?)

107067 #1 거 ᄃᆞ시민 자게 궤고 얼민 오레 궤고.(거 따뜻하면 빨리 궤고 얼면 오래 괴고.)

107068 @ 그믄 미릿 제사 전에 그걸 궤영 놔둬야켜예.(그러면 미리 제사 전에 그걸 괴어서 놔둬야겠네요.)

107067 #1 만들엉 놔둬야.(만들어서 놔둬야.)

107068 @ 국물에다 이제 밀가루 서껑은에 만드는 거 아니?(국물에다 이제 밀가루 섞어서 만드는 거 아니?)

107067 #1 응. 그렇지.(응. 그렇지.)

107068 @ 아이고.(아이고.)

107067 #1 늬 어떵헹 날 촞아왓저? 이디 사람 아무도 모른다.(너 어떻게 해서 날 찾아왔네? 여기 사람 아무도 모른다.)

107068 @ 막걸리 놩 허는 게 아니고.(막걸리 놔서 하는 게 아니고.)

107067 #1 막걸리가 누룩이 그것ᄀᆞ란 뭬옌 허드라만은. 일름이 거 잊어불렁 몰르것네. 누룩 놩 허는 것ᄀᆞ라. 쉰다리옌 허던가? 하여튼 무싱거옌 ᄀᆞᆯ아서. 잊어불언 모르커라. 거믄 일름도 잊어 불언.(막걸리가 누룩이 그것보고 뭐라고 하더라만. 이름 거 잊어버려서 모르겠네. 누룩 놔서 하는 것보고. '쉰다리'라고 하던가? 하여튼 뭐라고 말했어. 잊어버려서 모르겠다. 그러면 이름도 잊어버렸어.)

107068 @ 겐 멧 시간 놔두민 이렇게 밀가루가 부풀어 오릅니까?(그래서 몇 시간 놔두면 이렇게 부풀어 오릅니까?)

107067 #1 그거 뜨신 방에 놓으민 금방 궤어.(그거 따뜻한 방에 놓으면 금방 괴어.)

107068 @ 궤어예?(괴어요?)

107067 #1 응. 차가운 방에 놓으민 자게 안궤고 이추룩 민두룽헌딘 놓으민 그냥 빨리 익어. 게난 뜨신디 놩 담요 막 더끄지 안허나? 그게 빨리 궤라고.(응. 차가운 방에 놓으면 빨리 안 괴고 이처럼 미지근한데 놓으면 그냥 빨리 익어. 그러니까 따뜻한데 놔서 담요 막 덮지 않나? 그게 빨리 괴라고.)

107068 @ 누룩 헐 때도 뜨거운 거에 놔야 뒈는가?(누룩 할 때도 뜨거운 거에 놔야 뒈는가?)

107067 #1 아니.(아니.)

107068 @ 밥헹 뜨거울 때 식형?(밥해서 뜨거울 때 식혀서?)

107067 #1 식형 놔야지. 익어불엉 안 궤어.(식혀서 놔야지. 익어버려서 안 괴어.)

107068 @ 아아.(아아.)

107067 #1 써늘허게 식혀야. 누룩 놔근에 맹물 놔근에.(서늘하게 식혀야. 누룩 놔서 맹물 놔서.)

107068 @ 보리밥에 누룩만 노민 뒈어?(보리밥에 누룩만 넣으면 돼?)

107067 #1 그래.(그래.)

107068 @ 근데 이제 쉰다리[122]하고 틀린 건 보리밥 쉰 게 아니고, 그냥 익은 밥 식힌 거?(근데 이제 '쉰다리'하고 틀린 건 보리밥 쉰 게 아니고, 그냥 익은 밥 식힌 거?)

107067 #1 거 보리밥을 만들앙 민작하게 만들앙은에.(거 보리밥을 만들어서 '민짝'하게 만들어서.)

107068 @ 썩히지 않아도.(썩히지 않아도.)

107067 #1 만들앙은 식형.(만들어서 식혀서.)

107068 @ 식형.(식혀서.)

107067 #1 누룩을 뽓아놔근에.(누룩을 빻아놔서.)

107068 @ 뽓아놩 물 서껑.(빻아놔서 물 섞어서.)

107067 #1 물 영, 영 젓엉 놔두면은.(물 이렇게, 이렇게 저어서 놔두면.)

107068 @ 놔두민 부글부글 한다.(놔두면 부글부글 한다.)

107067 #1 부글부글 궤여.(부글부글 괴어.)

107068 @ 아이고 그렇게 만드는구나.(아이고 그렇게 만드는구나.)

107067 #1 경 헹 만드는 거.(놔두면 부글부글 괴어서 그렇게 해서 만드는 거.)

107068 @ 상웨떡?(상화떡?)

107067 #1 응. 경 안허민 지주가 좋지 않으민 절대 안 부꺼.(응. 그렇게 안하면 지주가 좋지 않으면 절대 안 부풀어.)

107068 @ 지금 여기 신촌 보리빵이 유명한 보리빵이 그런 거 아니?(지금 여기 신촌 보리빵이 그거 아니?)

107067 #1 그 사람덜은 이스트 놤네.(그 사람들은 이스트 넣네.)

107068 @ 응.(응.)

107067 #1 이스트 놔야지. 그거 안 놩은 떡 못 만들아. 우리는 제라한 저 무싱거 아니냐.(이스트 놔야지. 그거 안 놔서는 떡 못 만들어. 우리는 온전한 저 뭐 아니냐.)

107068 @ 상웨떡?(상화떡?)

107068 #1 우린 제라한 그 무신 오리지날. 우린 오리지날.(우린 온전한 그 뭐 오리지널. 우린 오리지널.)

107068 @ 발효뒌 걸로. 몸에 좋은.(발효된 걸로. 몸에 좋은.)

107068 #1 우리냥으로 만든 거. 그 사람덜은 이스트 놩 게야 빨리 궤어.(우리 스스

122) '쉰다리'는 밥과 누룩으로 담가 만든 여름철 음료를 말한다.

로 만든 거. 그 사람들은 이스트 놔서 게야 빨리 궤.)

107068 @ 옛날에도 상웨떡에 속에 쉬 놧수과?(옛날에도 상화떡에 속에 소 놨습니까?)

107068 #1 놓지게.(넣지.)

107068 @ 논 것도 잇고 안 논 것도 잇고?(넣은 것도 있고 안 넣은 것도 있고?)

107068 #1 여름 떡은이.(여름 떡은.)

107068 @ 아아.(아아.)

107068 #1 그 앙꼬 놓으민. 쉰덴 허연이 콩입.(이 그 소프넣으면 쉰다고 해서 콩잎.)

107068 @ 콩?(콩?)

107068 #1 콩? 밧디 콩입 우리 싸 먹지 않나?(콩? 밭에 콩잎 우리 싸 먹지 않나?)

107068 @ 예.(예.)

107068 #1 그런 거 ᄐᆞ다당 놔. 쉬지 못허게.(그런 거 뜯어다가 놔. 쉬지 못하게. 콩잎을 놔?)

107068 @ 메께라?(어머나?)

107068 #1 경 헹 먹을 때 딱 빵 데껴뒁 거 먹어. 경 안허민 여름 떡은 쉬어 불어. 앙꼬 놓으민.(그렇게 해서 먹을 때 딱 빼서 던져두고 거 먹어. 그렇게 안하면 여름 떡은 쉬어버려. 소 놓으면.)

107068 @ 나 건 처음 들엇수다.(나 그런 거 처음 들었습니다.)

107068 #1 메?(어머?)

107068 @ 그 콩잎을 쉬를 속에 넣고 콩입을 놔?(그 콩잎을 소를 속에 넣고 콩잎을 놔?)

107068 #1 아니, 아니. 콩입만 놘.(아니, 아니. 콩잎만 놔서.)

107068 @ 숨 쉬렌?(숨 쉬라고?)

107068 #1 쉬지 말렌.(쉬지 말라고?)

107068 @ 아아.(아아.)

107068 #1 이 앙꼬 놓으민 자게 쉬어 불어. 여름떡은.(이 소 놓으면 빨리 쉬어버려. 여름 떡은.)

107068 @ 앙꼬 안 놩 그냥 헤도 뒈잖아. 잘 안 익어? 안 익어?(소 안 놔서 그냥 해도 되잖아.)

107067 #1 아니, 그냥 만드는 것도 뒈지.(그냥 만들어도 되지.)

107068 @ 근디 콩입도 놘마씨?(그런데 콩잎도 놔요?)

107068 #1 그냥 만드는 것도 뒈지. 콩입 놘 빵 데껴불어.(그냥 만드는 것도 되지. 콩잎 놔서 빼서 던져버려.)

107068 @ 게도 콩입을 논 게 신기하다.(그래도 콩잎을 넣는 게 신기하다.)

107068 #1 그 옛날은 그걸 놓드라고 콩입 놩.(그 옛날은 그걸 놓더라고 콩잎 놔서.)

107068 @ 아오야. 쉬지 않게 허젠?(아오야. 쉬지 않게 하려고?)

107068 #1 ᄋᆞ.(응.)

107068 @ 어머나 건 진짜 신기하다. 콩입 놓는 거는 진짜 신기하다예.(어머나 건 진짜 신기하다. 콩잎 놓는 거는 진짜 신기하네요.)
107068 #1 에구에구.(에구에구.)
107068 @ 콩입을 놓고.(콩잎을 넣고.)
107076 @ 고사나 당에 가지고 가는 떡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당은 어디 갑디까?(고사나 당에 가지고 가는 떡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당은 어디 갔습니까?)
107077 @ 굿 떡에 대헤서 말씀헤 주십시오.(굿 떡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7077 #1 굿 떡은이 소금 놓지 말아야 혀.(굿 떡은 소금 넣지 말아야 해.)
107077 @ 아아, 이거 들어봣수다. 나도.(아아, 이거 들어봤습니다. 나도.)
107077 #1 기도허는 떡은 소금 놓으면 안 뒈여.(기도하는 떡은 소금 넣으면 안 돼.)
107077 @ 무산고예?(왠가요?)
107077 #1 그대로. 몰라. 소금 놓으민 절여분다고 헤가지고.(그대로. 몰라. 소금 넣으면 절여버린다고 해가지고)
107077 @ 절여분다고.(절여버린다고.)
107077 #1 구신이 먹어가지 안 헌다고.(귀신이 먹고 가지 않는다고.)
107077 @ 아아.(아아.)
107077 #1 게난 소금 엇인 떡.(그러니까 소금 없는 떡.)
107077 @ 소금 엇인 떡.(소금 없는 떡.)
107077 #1 심방떡은 소금 엇인 떡.(심방떡은 소금 없는 떡.)
107077 @ 심방떡은 소금 엇인 떡.(심방떡은 소금 없는 떡.)
107077 #1 소금을 안노니까.(소금을 안노니까.)
107077 @ 음. 그렇구나.(음. 그렇구나.)
107078 @ 삼촌은 어떤 떡이 제일 맛좋읍디까?(삼촌은 어떤 떡이 제일 맛좋습디까?)
107077 #1 나는이 상웨떡이?(나는 상화떡이?)
107078 @ 응.(응.)
107077 #1 거 앙꼬 놩 헌 거. 그것이 제일. 다른 거 안 먹고 사람이 여러 가지라.(거소 놔서 한 거. 그것이 제일. 다른 거 안 먹고 사람이 여러 가지라.)
107078 @ 나도 어렷을 때 그 떡 제일 좋아.(나도 어렸을 때 그 떡 제일 좋아.)

소와 고물

(부분 생략)
107080 @ (오메기떡에) 픗허고 콩가루도 묻혀낫수과? 인절미처럼.((오메기떡에) 팥하고 콩가루도 묻혀났습니까? 인절미처럼.)
107080 #1 그렇지. 부뜨지 못허게 희리니까.(그렇지. 붙지 못하게 찰지니까.)
107080 @ 응.(응.)
107080 #1 찰찰 희리니까 걸 미쳐야 안 부뜨지. 떡을.(찰찰 찰지니까 걸 묻혀야 안

붙지. 떡을.)

107080 @ 꿰도 헷수과?(깨도 했습니까?)

107080 #1 꿰는 못허여.(깨는 못해.)

107080 @ 음. 게믄 콩가루도 헷수과? 보릿가루나?(음. 그러면 콩가루도 했습니까? 보릿가루나?)

107080 #1 보릿가루도 안 뒈고, 보리 보깡.(보릿가루도 안 되고, 보리 볶아서.)

107080 @ 보리 보깡.(보리 볶아서.)

107080 #1 골앙 허는 건 뒈도, 보리도 못헤여. 질 그게 허는 건 픗, 픗벳긔.(갈아서 하는 건 되도, 보리도 못해. 질 그게 하는 건 팥, 팥밖에.)

107080 @ 픗 막 으깨영?(팥 막 으깨서?)

107080 #1 픗 막 솖앙.(팥 막 삶아서.)

107080 @ 솖앙 뻣앙.(삶아서 빻아서.)

107080 #1 뻣상 그거 허민 이제 오메기떡 그 픗더레 영 영 영 영 무쳐. 경헹은에 이제 바구니더레 차롱이나 바구니더레.(빻아서 그거 하면 이제 오메기떡 그 팥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무쳐서, 그렇게 해서 이제 바구니에 채롱이나 바구니에.)

107080 @ 지금 시장에 파는 오메기떡이 모양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꽈?(지금 시장에 파는 오메기떡이 모양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겁니까?)

107080 #1 응. 꼭 같은 거. 건 옛날식으로 허는 거.(응. 꼭 같은 거. 건 옛날식으로 하는 거.)

107080 @ 아아, 난 옛날식으로 오메기떡은 고망 뚤랑 허는 것만 봐나신디.(아아, 난 옛날식으로 오메기떡은 구멍 뚫어서 하는 것만 봤었는데.)

107080 #1 아니 무신 고망 뚤라?(아니 무슨 구멍 뚫어?)

107080 @ 픗 허기는 헷구나.(팥 하기는 했구나.)

107080 #1 오메기떡옌 헌 건 희려부니까.(오메기떡이라고 한 건 차지니까.)

107080 @ 바로바로?(바로바로?)

107080 #1 영 그걸 무쳐사 떡에 떡을 놔도 안 부떠.(이렇게 그걸 무쳐야 떡에 떡을 놔도 안 붙어.)

107080 @ 음.(음.)

107080 #1 경 안허민 떡이 혼 덩어리 뒈불어.(그렇게 안하면 떡이 한 덩어리 돼버려.)

107080 @ 요즘은 그거 거의 팔십 프로가 찹쌀로 헤붑디다.(요즘은 그거 거의 팔십 프로가 찹쌀로 해버립디다.)

107080 #1 춥쏠 다.(찹쌀 다.)

107080 @ 그냥 오메긴예? 조는 헤끔 놔.(그냥 오메긴요? 조는 조금 놔.)

107080 #1 이제 오메기떡 ᄒᆞ는 사람 엇어.(이제 오메기떡 하는 사람 없어.)

107080 @ 다 가짜주게. 지금 시장에서도 지금 워낙 비싸부난?(다 가짜지. 지금 시장에서도 지금 워낙 비싸버리니까?)

107080 #1 그거이 ᄒᆞ낌 헤도 좁쏠 놩 헴주. 무신 좁쏠을.(그거 조금 해도 좁쌀 놔서 하지 뭔 좁쌀을.)

107080 @ 으음. 옛날에는 백 프로 조엿잖아예?(으음. 옛날에는 백 프로 조였잖아요?)

107080 #1 그래.(그래.)

107080 @ 게믄 그게.(그러면 그게.)

107080 #1 맛이 뜰려.(맛이 달라.)

107080 @ 맛이 틀려.(맛이 달라.)

107080 #1 먹어보민 좁쏠 희린 좁쏠 오메기떡허고 춥쏠 오메기떡허고 뜰려. 그 좁쏠이 맛잇어. 냄새가 코시롱허여.(먹어보면 흐린 좁쌀 오메기떡하고 찹쌀 오메기떡하고 달라. 그 좁쌀이 맛있어. 냄새 고소해.)

107080 @ 코시롱허여.(고소해.)

107080 #1 냄새부터. 떡으로부터 틀려.(냄새부터. 떡으로부터 달라.)

107080 @ 그믄 떡 헐 때는 어떻게 똑같아?(그러면 떡 할 때는 어떻게 똑같아?)

107080 #1 뭐?(뭐?)

107080 @ 익반죽 헤영 그거 그냥.(그러면 떡 할 때는 어떻게 똑같아? 익반죽해서 그거 그냥.)

107080 #1 물 끓일 때.(물 끓일 때.)

107080 @ 드리청 익으민 끗?(넣어서 익으면 끝?)

107080 #1 물 헐 때 ᄆᆞᆯ아근에 만들앙 솟더레 드리치는 거주게.(물 할 때 말아서 만들어서 솥에 넣는 거지.)

107080 @ 겡 익으민 끝나는 거 고물만 묻히민 뒈는 거?(그래서 익으면 끝나는 거 고물만 묻히면 되는 거?)

107080 #1 게. 거 설민 못 먹어. 것도 익어사.(그래. 설면 못 먹어. 것도 익어야.)

107080 @ 익어야.(익어야.)

107080 #1 거 떡이 익으민 우트레 다 올라.(거 떡이 익으면 위로 올라와.)

107080 @ 아아.(아아.)

107080 #1 ᄀᆞᆯ라앚인 건 선 거라.(갈아 앉은 건 선 거라.)

107080 @ 아아.(아아.)

107080 #1 떡이 익으민 우트레 다 올라와.(떡이 익으면 위로 다 올라와.)

107080 @ 어만큼씩 크길 헷수과?(얼마만큼씩 크길 했습니까?)

107080 #1 어?(어?)

107080 @ 크기가?(크기가?)

107080 #1 건 족게 허고정 허민 족게 허고, 크게 허고.(건 작게 하고 싶으면 작게 하고, 크게 하고.)

107080 @ 아아.(아아.)

107080 #1 자기 허ᄀᆞ정 헌 대로.(자기 하고 싶은 대로.)

107080 @ 아아. 시장에서 헌 건 막 커. 요즘. 하나에 천 원씩 팔아?(시장에서 한 건 막 커. 하나에 천 원씩 팔아?)

107080 #1 건 역불 ᄒᆞ나에 천원이난 홁게 만들암주.(건 역부로 하나에 천원이니까 크게 만들지.)

107080 @ 속에 픗도 놧수과? 막 앙꼬 놔. 지금은.(속에 팥도 놨습니까? 막 소 놔. 지금은.)

107080 #1 지금은 앙꼬. 옛날은 앙꼬 안 놩 그냥 영 베끗디만.(옛날엔 소 안 놔.)

107080 @ 바끗띠만 고물 헷지예? 옛날은예. 응.(바깥에만 고물 했지요? 옛날은요. 응.)

107080 #1 그렇게 앙꼬 안놔.(그렇게 소 안 놔.)

107080 @ 그렇지.(그렇지.)

107080 #1 상웨떡이나 앙꼬 넣주.(상화떡이나 소 넣지.)

107080 @ 으음. 콩가루는?(으음. 콩가루는?)

107080 #1 엉?(엉?)

107080 @ 콩가루?(콩가루?)

107080 #1 콩ᄁᆞ룰 어떵허여?(엉? 콩가루 어떻게 해?)

107080 @ 콩가룰 인절미추룩 찹쌀에 영 옛날부터 육지는 겅?(콩가루 인절미처럼 찹쌀에 이렇게 옛날부터 육지는 그렇게?)

107080 #1 건 인절미레 부트지 못허게.(건 인절미에 붙지 못하게.)

107080 @ 제주도는.(제주도는.)

107080 #1 콩ᄁᆞ루도 막 즘질게 골드라 이제는.(콩가루도 막 잘게 갈더라. 이제는.)

107080 @ 이제는 막 부드럽게. 맛좋긴 허여. 근디 옛날 제주도에서는 그추룩 콩가룬 안헷지예?(이제는 막 부드럽게. 맛좋긴 해. 그런데 옛날 제주도에서는 그처럼 콩가룬 안 했지요?)

107080 #1 무사 허는 사람은 헤여. 보깡은에.(왜 하는 사람은 해. 볶아서.)

107080 @ 아아.(아아.)

107080 #1 보까.(볶아.)

107080 @ 뭐예?(뭐요?)

107080 #1 ᄆᆞ레에 골앙.(맷돌에 갈아서.)

107080 @ 오메기떡에?(오메기떡에?)

107080 #1 맛좋게 허젠 허민 그 콩을 보까. 보끄민 돌ᄆᆞ레에 영, 영 골아.(맷돌에 갈아서.)

107080 @ 아아, 볶은 걸로예. 고소헤?(아아, 볶은 걸로요. 고소해?)

107080 #1 옛날 기계방 엇어부니까.(옛날 기계방 없어버리니까.)

107080 @ 근데 그걸 오메기떡에 무쳣수과? 아니면 뭐에 무쳣수과?(그런데 그걸 오메기떡에 묻혔습니까? 아니면 뭐에 묻혔습니까?)

107080 #1 오메기떡에. 오메기떡에.(오메기떡에. 오메기떡에.)

107080 @ 오메기떡에도 콩가루 무쳔?(오메기떡에도 콩가루 묻혔어요?)

107080 #1 그래. 부뜨지 못허지. 오메기떡에는.(그래. 붙지 못하지. 오메기떡에는.)

107080 @ 게믄 지금은?(그러면 지금은?)

107080 #1 찹쏠이난 다른 떡에 다른 떡에 부뜨민 안 뒈지. 못 부트게 그걸.(찹쌀이니까 다른 떡에 다른 떡에 붙으면 안 되지. 못 붙게.)

107080 @ 무사 오메기옌 헷수과? 좁쌀을 오메기떡?(왜 '오메기'라고 했습니까? 좁쌀을 오메기떡?)

107080 #1 오물락, 오물락 먹으난 오메기떡이옌 안헴서?(오물락, 오물락 먹으니까 오메기떡이라고 안하나?)

107080 @ 오물락오물락 먹으난 오메기떡?(오물락오물락 먹으난 오메기떡?)

107080 #1 몰라. 오메기떡이옌 허난 오물락오물락 먹으난 오메기떡이주. 무신 오메기떡이옌.(몰라. 오메기떡이라고 하니까 오물락오물락 먹으니까 오메기떡이지. 무슨 오메기떡이라고.)

107080 @ 오메기떡이 좁쏠로 헤야 오메기떡인가? 난 경 생각헷수다.(오메기떡이 좁쌀로 해야 오메기떡인가? 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107080 #1 오메기떡은 좁쏠.(오메기떡은 좁쌀.)

107080 @ 무사 오메긴고 헷주게?(왜 오메긴고 했지?)

107080 #1 응. 오메기떡은 좁쏠, 희린 좁쏠.(응. 오메기떡은 좁쌀, 찰 좁쌀.)

107080 @ 좁쌀 이름이 오메긴가? 무사 오메긴고 헷주게?(좁쌀 이름이 오메긴가? 왜 오메긴고 했지?)

107080 #1 모르주게. 일름이게 상웨떡, 근떡 허듯 일름이 오메기주.(모르지. 이름이 상화떡, 흰떡 하듯이 이름이 오메기지.)

107080 @ 오메기예. 그난. 하하.(오메기요. 그니까. 하하.)

107080 #1 그 떡 일름이 오메기지.(그 떡 이름이 오메기지.)

107080 @ 그난.(그니까.)

107080 #1 상웨떡, 근떡, 시리떡. 거 일름이 오메기떡.(상화떡, 흰떡 시루떡. 거 이름이 오메기떡.)

107080 @ 그믄 그 오메긴 어떤 때 먹엇수과?(그러면 그 오메긴 어떤 때 먹었습니까?)

107080 #1 뭐?(뭐?)

107080 @ 그 오메기떡은 제사 때 헷수과?(그 오메기떡은 제사 때 했습니까?)

107080 #1 그 제사 때도 허곡 겨울에 씨지. 으름에는 자게 쉬어 불어.(그 제사 때도 하고 겨울에 쓰지. 여름에는 빨리 쉬어 버려.)

107080 @ 아아.(아아.)

107080 #1 좁쏠은. 빨리 쉬어 불어. 겨울에벳긔.(좁쌀은 빨리 쉬어 버려. 겨울에 밖에.)

107080 @ 게믄 오메기떡은 빙떡처럼 멩절, 제사, 상 난 디, 이런데 다 썻수과?(그러

면 오메기떡은 빙떡처럼 명절 제사, 상 난 데 다 썼습니까?)

107080 #1 겐디 오메기떡은 먹젠이나 허주 경 그런디 쓰젠 안헤여.(그런데 오메기떡은 먹으려고나 하지. 그렇게 그런 데 쓰려고 안 해.)

107080 @ 제사엔 안 올련?(제사엔 안 올렸어요?)

107080 #1 올리긴 올려. 겐디 주로 허는 건 상웨떡 송편허고 빙.(올리긴 올렸어. 그런데 주로 하는 건 상화떡 송편하고)

107080 @ 빙.(빙.)

107080 #1 친떡허고.(시루떡하고.)

107080 @ 그믄 이건 어떤 날 별미로 헹 먹어신고예? 좁쌀. 오메기떡은 ?이것도 특별헌 날에 먹어실건디?(어떤 날 별미로 해서 먹었는가요? 좁쌀. 오메기떡은? 이것도 특별한 날에?)

107080 #1 오메기떡은 식게헐 때 그 먹젠 허는 거 닮아.(오메기떡은 제사할 때 그 먹으려고 하는 거 같아.)

107080 @ 멕젠예. 게믄 그거 삼촌은 맛좋게 먹어낫수과?(먹으려고요. 그러면 그거 삼촌은 맛좋게 먹었었습니까?)

107080 #1 맛좋게 먹지게.(맛좋게 먹지.)

107080 @ 어머니가 잘 헷수과?(어머니가 잘 했습니까?)

107080 #1 ᄋᆞ.(응.)

107080 @ 음. 삼촌은 무신 떡이 상웨떡이 제일 맛좋덴 헷잖아예? 그때예.(음. 삼촌은 무슨 떡이 상화떡이 제일 맛좋다고 했잖아요? 그때요.)

107080 #1 이젠이 떡도 경 베랑 먹고정 안 헤여.(이젠 떡도 그렇게 별로 먹고 싶지 안 해.)

107080 @ 좁쌀은 진짜 혼번 먹어봐시믄. 백 프로 헌 거. 옛날 어렷을 때, 놈삐 놓고 무 놓고, 저 호박 놓고예. 그거 침떡 질질질질헌 색깔이 너미 시커멍헨 맛엇언 맛엇일 거 닮은디 먹어보민 맛좋아.(좁쌀은 한번 먹어봤으면. 백 프로 한 거. 옛날 어렸을 때, 무 넣고, 저 호박 넣고요. 그거 시루떡 질질질질한 색깔이 너무 새까매서 맛없을 거 닮은데 먹어보면 맛좋아.)

107080 #1 거 희린 조떡.(거 차진 조떡.)

107080 @ 게난 그거 생각이 나.(그러니까 그거 생각이 나.)

107080 #1 희린 조떡, 모인 조떡도 잇고 모인 조떡은 헤삭헤삭허고.(찰 조떡, 메 조떡 있고, '헤삭헤삭'하고.)

107080 @ 헤삭헤삭허고.('헤삭헤삭'하고.)

107080 #1 희린 조떡은 찰찰허고.(차진 조떡은 '찰찰'.)

107080 @ 찰찰허고. 만들긴 어렵겟다예.('찰찰'하고. 만들긴 어렵겠네요.)

107080 #1 게. 어려워.(그럼. 어려워.)

107081 @ 떡에 얽힌 속담이나 금기사항?(떡에 얽힌 속담이나 금기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107081 #1 어?(어?)

107081 @ 떡에 얽힌 속담? 또 떡에 얽힌 안 뒌다. 그때 그 그렇게 막당 뭐허면은 그런 거 안뒌다. 떡 허당은에 재수엇다. 뭐.(떡에 얽힌 속담? 또 떡에 얽힌 안 된다. 그때 그 그렇게 막다가 뭐하면 그런 거 안 된다. 하다가 재수 없다. 뭐.)

107081 #1 아, 거 시리떡이주게.(아, 거 시루떡이지.)

107081 @ 시리떡.(시루떡.)

107081 #1 시리떡이 쳐보민 알아. 팍팍 그 이 떡을 만들앙 시릿고멍 막지 안허나? 짐으로 익이는 거난. 건디 거 팍팍 터질 때가 잇고, 또 그게 집이 좋젠 허민이 체얌 영영 막아온 딜로 짐이 팍 올라와 가민 좋덴 허여. 이 심방 굿헐 때. 경헨 제물을 허는 사람, 야 좋다. 심방보다 더 알아. 제물헤 보믄.(시루떡이 쪄보면 알아. 팍팍 그 이 떡을 만들어서 시루 구멍 지 안,허나? 김으로 익히는 거니까, 그런데 거 팍팍 터질 때가 있고, 또 그게 집이 좋으려고 하면 처음 이렇게, 이렇게 막아온 데로 짐이 팍 올라와 가면 좋다고 해. 이 무당 굿할 때 그렇게 해서 제물을 하는 사람, 야 좋다. 무당보다 더 알아. 제물해보면.)

107081 @ 제물헤보믄.(제물해보면.)

107081 #1 거이 송펜이 송펜 헤보민이 부뜨지 안 헹 바글바글바글 올라와가민 좋곡이, 부뜨멍 비길비길헤가민 좋지 안 허여. 제물 헤보면 안덴.(거 송편이 송편 해보면 붙지 않아서 바글바글바글 올라와가면 좋고, 붙으면서 '비길비길'해가면 좋지 않아. 제물해보면 안다고.)

107081 @ 아아.(아아.)

107081 #1 게난 제물 하는 사람 잇지. 이젠 그런 할망들 다 죽어불언.(그러니까 제물 하는 사람 있지. 이젠 그런 할머니들 다 죽어버렸어.)

107081 @ 삼촌은 어머니 돌아가실 때나 귀향풀이나 질 치는 거.(삼촌은 어머니 돌아가실 때나 귀향풀이나 길 닦는 거.)

107081 #1 아니 옛날은 그런 거 아녀.(아니 옛날은 그런 거 안 해.)

107081 @ 안 헤봣지예.(안 해봤지요.)

107081 #1이제나 귀향풀이 허지. 옛날.(이제나 귀향풀이 하지. 옛날은.)

107081 @ 놈이 허는 거 봐낫수과?(남이 하는 거 봤었습니까?)

107081 #1 놈이 귀향 낼 땐 강 보지. 막 울려 울려. 자기가 어쩌고, 저쩌고.(남이 귀향 낼 때 가서 보지. 막 울려 울려. 자기가 어쩌고, 저쩌고.)

107081 @ 막 울려예.(막 울려요.)

별식

107082 @ 순대, 수웨 담그는 거 골아봅서. 그런 거, 피도 놓고 쏠도 놓고 헙니까? 옛날 쏠이 귀헷주게.(순대, '수웨' 담그는 거 말해보세요. 그런 거, 피도 놓고 쌀도 놓고 합니까? 옛날 쌀이 귀했지.)

107082 #1 춥쏠 컷당은에 그거 시리에 쳐근에.(찹쌀 담갔다가 그거 시루에 쪄서.)

107082 @ 시리에 쳥.(시루에 쪄서.)

107082 #1 그거 이제 피에 막 서껑 뭐 거세기 소금 놓곡 헤영 경 헹 수웨 담으는 거.(그거 이제 피에 막 섞어서 뭐 거시기 소금 놓고 해서 그렇게 해서 순대 담는 거.)

107082 @ 것뿐?(것뿐?)

107082 #1 것뿐이주. 무시거.(것뿐이지. 뭐.)

107082 @ 뭐 저 파나 뭐?(뭐 파나 뭐?)

107082 #1 파도 놓고 후추도 놓고.(파도 놓고 후추도 놓고.)

107082 @ 그믄 옛날에는?(그러면 옛날에는?)

107082 #1 옛날에는 그런 거 잇나게. 옛날에 경 무신 거 먹을 거 잇어샤? 수웨도 그 쪽파 ᄀᆞ튼 거 그런 거나 썰어 놩.(옛날에는 그런 거 있나. 옛날에 그렇게 무슨 거 먹을 거 있어? 순대도 그 쪽파 같은 거 그런 거나 썰어 놔서.)

107082 @ 파하고 소금하고 찹쌀이 들어가는구나. 그거 이외는.(찹쌀이 들어가는구나. 그거 이외는.)

107082 #1 별 거 엇어.(별 거 없어.)

107082 @ 걸 어만큼 놔야 그거에 담아? 물 찰찰허지 안헤.(걸 얼마만큼 물 찰찰하지.)

107082 #1 거민 배설에 맞게 걸 헤야지.(그러면 창자에 맞게 걸 해야지.)

107082 @ 피를 다 써?(피를 다 써?)

107082 #1 다 써야지. 피 엇이민 거 맛읏어.(다 써야지. 피 없으면 거 맛없어.)

107082 @ 이만이 한 거에 다 찹쌀도 어마어마?(찹쌀도 어마어마?)

107082 #1 그 이 준 배설 힘들어 홁은 배설이라사. 일일이 준배설(그 이 잔 차아 힘들어 굵은 창자라야. 일일이 잔 창자.)

107082 @ 여자덜이 헙니까? 남자덜이 합니까?(여자?)

107082 #1 남자가 허지.(남자가 하지.)

107082 @ 씻는 건 여자덜이.(씻는 건 여자들이.)

107082 #1 남자덜이 허여. 그것도 대창이 맛잇어.(남자들이 해. 그것도 대창이 맛.)

107082 @ 바당에 강 씻어?(바다에 가서 씻어?)

107082 #1 돌에 강 동창이라노난 겐디 대창이 맛잇어이.(돌에 가서 동창이라서 그런데 대창이 맛있어.)

107082 @ 대창 막은 창은 먹고 순대 안 담앙.(대창 막은 창은 먹고 순대 안 담아서.)

107082 #1 대창은 안 뒈도 막은 창은 순대 만들아. 반으로 두 개 딱 썰언게.(대창은 안 되도 막은 창자는 순대 만들어. 반으로 두 개 딱 썰어서.)

107082 @ 그거 몸국 끓일.(그거 모자반국 끓일.)

107082 #1 도새기 솖아난 국물에 몸 놩 끓이는 거.(돼지 살아난 국물에 모자반 놔서 끓이는 거.)

107082 @ 응. 순대.(순대.)

107082 #1 순대도 숢지. 도새기 숢아난 물에 순대 숢앙.(순대도 삶지. 돼지 삶아난 물에 순대 삶아서.)

107082 @ 순대 숢앙.(순대 삶아서.)

107082 #1 그난 지름 빠질 대로 막 빠졍.(그러니까 기름 빠질 대로 막 빠져서.)

107082 @ 경헨 뭄놓는 거잖아예.(그렇게 해서 모자반 놓는 거잖아요.)

107082 #1 놓앙 어 느것부터 숢아?(놓아서 어느 것부터 삶아?)

107082 #1 도새기부터 먼여 숨지.(돼지부터 먼저 삶지.)

107082 @ 순대도 대창은.(순대도 대창은.)

107082 #1 대창은 안 헤여.(대창은 안 해.)

107082 @ 수웨, 수웨옌 헷지예? 수웨 맛좋아. 제주도 수웨 간단하다예. 피만 놓으민 뒘신게.('수웨', '수웨'라고 했지요? 순대 맛좋아. 제주도 순대 간단하네요. 피만 넣으면 되네요.)

107082 #1 양념 많이 들어가. 잡채.(양념 많이 들어가. 잡채.)

107082 @ 옛날에.(옛날에.)

107082 #1 옛날엔 잡채 엇어.(옛날에. 잡채 없어.)

107083 @ 이번에는 두부, 둠비.(이번에는 두부, '둠비.')

107083 #1 응.(응.)

107083 @ 둠비, 바당에 가서 간수 대신 뭐 저.(두부, 바다에 가서 간수 대신 뭐 저.)

107083 #1 짠물.(짠물.)

107083 @ 짠물로 헷수과?(짠물로 했습니까?)

107083 #1 응.(응.)

107083 @ 그 콩?(그 콩?)

107083 #1 겐디 이젠이 짠물 질레 간 사람이 어딧나?(그런데 이젠 짠물 길러 간 사람이 어디 있나?)

107083 @ 옛날식으로.(옛날식으로.)

107083 #1 이젠이 소금물로 헴네.(이젠 소금물로 하네.)

107083 @ 소금물.(소금물.)

107083 #1 누게가 바당 오염뒌 바당에 강 질어당 먹나? 에이구, 추접허게. 소금물로 헴네. 소금물.(누가 바다 오염된 바다에 가서 길어다가 먹나? 에이구, 추잡하게. 소금물로 하네. 소금물.)

107083 @ ᄆᆞ른 둠비를 좋아헤예.(마른 두부를 좋아해요.)

107083 #1 ᄆᆞ른 둠비는 우린 못 먹어. 야게 걸언.(마른 두부는 우린 못 먹어. 목 메어서.)

107083 @ 게메. 무사 제주사람덜은 꼭 둠비를 저 제사상에 올리더라고예.(글쎄. 왜 제주사람들은 꼭 두부를 저 제사상에 올리더라고요.)

107083 #1 둠비도이 그렇게 ᄆᆞ른 둠비가 잇고.(두부도 그렇게 마른 두부가 있고.)

107083 @ 음.(음.)

107083 #1 물둠비가 잇어이.(물두부가 있어.)

107083 @ 아아 제주도에도.(아아 제주도에도.)

107083 #1 그렇지. 그 이제 그것이 그 콩을 ᄃᆞᆼ갓다가 ᄀᆞ레에 ᄀᆞᆯ아. 물 노멍.(그렇지. 그 이제 그것이 그 콩을 담갔다가 맷돌에 갈아. 물 넣으면서.)

107083 @ 숢앙 ᄀᆞᆯ아.(삶아서 갈아.)

107083 #1 셍콩.(생콩.)

107083 @ 셍콩을 ᄀᆞᆯ아?(생콩을 갈아?)

107083 #1 셍콩을 헤사주 숢앙 허민 뒈나?(생콩을 해야지 삶아서 하면 되나?)

107083 @ 아아.(아아.)

107083 #1 셍콩을 이제 물 노멍 ᄀᆞᆯ아. 셍콩을 물노멍 ᄀᆞᆯ앙은에 그거 이제 바췻당은에 아래 소금물을 놔. 아래 지름 ᄇᆞᆯ라놔. 눌카부덴, 지름 ᄇᆞᆯ라 놩 그 다음엔 소금물을 놔. 소금물을 놓으민 이제 그 두부가 이제 물 짠 거 두불물을 비와 놀 거 아냐. 비와 놔 가믄 그때는 소금을 쪼금씩 궤지 못하게 왈칵하게 부꺼불어.(생콩을 이제 물 넣으면서 갈아. 생콩을 물 넣으면서 갈아서 그거 이제 받혔다가 아래 소금물을 놔. 아래 기름 발라놔. 눌까봐, 기름 발라 놔서 그 다음엔 소금물을 놔. 소금물을 넣으면 이제 그 두부가 이제 물 짠 거 두불 물을 비워 놀 거 아냐. 비워 놔 가면 그때는 소금을 조금씩 끓지 못하게 왈칵하게 부풀어버려.)

107083 @ 아아.(아아.)

107083 #1 궤지 못허게 자꾸 놔줘야 헤여. 게믄 거의 익어가민 왁각왁각 안혀여.(끓지 못하게 자꾸 놔줘야 해. 그러면 거의 익어 가면 '왁각왁각' 안 해.)

107083 @ 약헌 불에.(약한 불에.)

107083 #1 응. 약헌 불에 그냥 막 부꺼 불어. 경헤근에 그거 이젠 자루이 치마나 무신 베치메 ᄀᆞ튼 거 그런 거 이젠 그레 물을 비와. 게민 영, 영 헹 물 짜져. 경허민 포에다가 영 누릇떠근에 우에 무신 남반인가 무싱거 들이쳥 우에 또 ᄀᆞ렛돌 누릇뜨잖아. 물 짜지렌. 그렇게 허민 둠비지. 다른 둠비가 어딧나?(응. 약한 불에 그냥 막 부풀어 버려. 그렇게 해서 그거 이젠 자루 치마나 뭐 베치마 같은 거 그런 거 이젠 거기 물을 비워.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물 짜져. 그렇게 하면 보에다가 이렇게 눌러서 위에 뭔 남반인가 뭐 들이쳐서 위에 또 맷돌 누르잖아. 물 짜지라고. 그렇게 하면 두부지. 다른 두부가 어디 있나?)

107083 @ 아, 말로 들엉 모르겟다예.(아, 말로 들어서 모르겠네요.)

107083 #1 말로 안 들엉. 그렇게 헤여.(말로 안 들어서. 그렇게 해.)

107083 @ 콩 숢지 안허고 콩을 저 물에 담갓다가.(콩 삶지 않고 콩을 저 물에 담갔다가.)

107083 #1 담갓다가 ᄀᆞᆯ아.(담갔다가 갈아.)

107083 @ 멧 시간 담가마씨?(몇 시간 담가요?)

107083 #1 막 풀어지도록.(막 풀어지도록.)

107083 @ 한 열 시간?(한 열 시간?)

107083 #1 막 풀어지도록. 두루 허민 ᄀᆞᆯ아지지 않아.(막 풀어지도록. 대충 하면 갈아지지 않아.)

107083 @ 열 시간은 담가야 뒈켜.(열 시간은 담가야 되겠다.)

107083 #1 아멩헤도 오래 ᄃᆞᆼ가야 헐 거라. 영 보민 콩이 짝 풀어져 물에 ᄃᆞᆼ그민.(아무리 해도 오래 담가야 할 거라. 이렇게 보면 콩이 쫙 풀어져 물에 담그면.)

107083 @ ᄀᆞ레로 ᄀᆞᆯ민 가루가 뒈는 거라?(맷돌로 갈면 가루가 되는 거라?)

107083 #1 물.(물.)

107083 @ 물같이 이렇게.(물같이 이렇게.)

107083 #1 ᄀᆞ루둠비는 ᄀᆞ루로 그냥 놀리고 이 둠비는 물로 ᄀᆞ는 거. 물 노멍 ᄀᆞᆯ아.(가루두부는 가루로 그냥 놀리고 이 두부는 물로 가는 거. 물 넣으면서 갈아.)

107083 @ 음 물 노멍 ᄀᆞᆯ아.(음 물 넣으면서 갈아.)

107083 #1 게난 ᄀᆞ루둠비는 막 목에가 걸고, 물둠비는 막 흐랑흐랑허잔아.(그러니까 가루두부는 막 목에가 걸고, 물두부는 막 '흐랑흐랑'하잖아.)

107083 @ 아아. ᄀᆞ루둠비는 물에 안 큰 그거 콩을.(아아. 가루두부는 물에 안 담근 그거 콩을.)

107083 #1 ᄀᆞ루둠비는 ᄀᆞ루로 ᄀᆞᆯ아다가.(가루두부는 가루로 갈아다가.)

107083 @ 아아.(아아.)

107083 #1 만드는 거. 놀령.(만드는 거. 놀려서.)

107083 @ 그 ᄀᆞ루는 옛날에는 이걸로 찧엇수과? 아니면 맷돌로 갈앗수과? 그 가루, 콩ᄀᆞ루?(아아. 그 가루는 옛날에는 이걸로 찧었습니까? 아니면 맷돌로 갈았습니까? 그 가루, 콩가루?)

107083 #1 뭐? 콩ᄀᆞ루 아까 모인 건 허주만은 ᄀᆞ루로 ᄀᆞᆯ라당 놀리는 거 허곡 또 콩 그냥 물에 ᄃᆞᆼ갓당 ᄀᆞ는 거 두 가지. 물에 ᄃᆞᆼ갓당 허는 것이 맛딧어.(콩가루 아까 모인 건 하지만 가루로 갈라다가 놀리는 거 하고 또 콩 그냥 물에 담갔다가 가는 거 두 가지. 물에 담갔다가 하는 것이 맛있어.)

107083 @ 으음.(으음.)

107083 #1 이 ᄀᆞ루로 헌 건 모의여.(이 가루로 한 건 메져.)

107083 @ 모의여. 게도 적갈헐 때는 그 모인 걸로 헙디다.(메져. 그래도 적 할 때는 그 매진 걸로 합디다.)

107083 #1 그건 그디 따랑 허주. 이 세계에는 그 저 가게에덜 강 사당 만들아.(그건 거기기 따라서 하지 이 세계에는 그 저 가게에서들 가서 사다가 만들어.)

107083 @ 물둠비.(물두부.)

107083 #1 옛날은.(옛날은.)

107083 @ 옛날엔.(옛날엔)

107083 #1 옛날엔 아까 식으로 헤난.(옛날엔 아까 식으로 했어.)

107083 @ 물둠비도.(물두부도.)

107083 #1 ᄀᆞ레에 ᄀᆞᆯ안.(맷돌에 갈아서.)
107083 @ 경헨 적 꼬지에 이렁게 꽂이고예.(그렇게 해서 적 꼬지에 이렇게 꽂고요.)
107083 #1 응.(응.)
107083 @ 다섯 개 꼬집니까? 세 개 꽂입니까? 꽂이잔아예.(다섯 개 꽂입니까? 세 개 꽂입니까? 꽂잖아요.)
107083 #1 네 개는 하. 세 개.(네 개는 많아. 세 개.)
107083 @ 세 개 꽂아?(세 개 꽂아?)
107083 #1 것도 하영 썰고 즉게.(것도 많이 썰고 작게.)
107083 @ 아.(아.)
107083 #1 세 개 즉으만썩 네 개 들어가곡 ᄒᆞᆫᄆᆞᆷ 하영 썰민 세 개.(세 개 자그만하게 네 개 들어가고 조금 많이 썰면 세 개.)

107083 @ 둠비는 무사 놔신고예?(두부는 왜 놨는가요?)
107083 #1 이젠 청묵허주.(이젠 청묵 하지.)
107083 @ 짤라가지고 또 어디.(잘라가지고 또 어디.)
107083 #1 옛날엔 청묵 못허니까 두부로 헷잖아.(옛날엔 청묵 못하니까 두부로 했잖아.)
107083 @ 으응.(으응.)
107083 #1 이젠 청묵으로 허주. 두부로 안혀.(이젠 청묵으로 하지. 두부로 안 해.)
107083 @ 청묵도 사당덜 헤붑디다.(청묵도 사다가 해버립디다.)
107083 #1 아니 이녁으로 허여.(아니 자기대로 해.)
107083 @ 아아.(아아.)
107083 #1 우린 이녁으로 허여.(우린 자기대로 해.)
107083 @ 묵은?(묵은?)
107083 #1 산 것이이 이녁으로 헤여. 제물은 이녁으로 헤사허여.(산 것이 자기대로 해. 제물은 자기대로 해야 해.)
107084 @ 하하하. 청묵하고 메밀묵?(하하하. 청묵하고 메밀묵?)
107084 #1 메밀묵이지. 청묵이지.(메밀묵이지. 청묵이지.)
107084 @ 메밀묵은 메밀가루로 허는 거고.(메밀묵은 메밀가루로 허는 거고.)
107085 @ 청묵에 대헤서 말씀헤 주십시오.(청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청묵은?)
107085 #1 메? 고저 청묵도 못허냐?(왜? 아직도 청묵도 못하냐?)
107085 @ 청묵은?(청묵은?)
107085 #1 청묵은 그냥 ᄊᆞᆯ로.(청묵은 그냥 쌀로.)
107085 @ ᄊᆞᆯ로 허는 거예.(쌀로 하는 거요.)
107085 #1 그렇지.(그렇지.)
107085 @ 그걸 다른 거를 말헤줘야 뭰덴 여긴.(그걸 다른 거를 말해줘야 된다고 여

기는.)

107085 #1 쏠로이 주머니가 잇어. 청묵 주머니가 좀진좀진 헌 산 거. 걸로 이제영 헤근에 졸라메영 무우쪄. 무우쩌야 놀릴 꺼 아냐?(쌀로 주머니가 있어. 청묵 주머니가 자잘한 산 거. 걸로 이제 이렇게 해서 졸라매서 불려. 불려야 놀릴 거 아냐?)

107085 @ 응.(응.)

107085 #1 무우찌민 누리롱헌 물이 잇어. 건 비와 불어야 혀.(불리면 누르스름한 물이 있어. 건 비워버려야 해.)

107085 @ 응.(응.)

107085 #1 청묵허민 헤영 안혀.(청묵하면 하양 안 해.)

107085 @ 아아.(아아.)

107085 #1 불구룽 헤불어.(불그스름 해버려.)

107085 @ 아아.(아아.)

107085 #1게니까 초불은 빠진 걸로 비와뒁 이젠 새물 놩 놀려야 헤영허지. 그거 초벌 아니 헷당은이 이 묵이 불구룽헤여.(그러니까 초벌은 빠진 걸로 비워두고 이젠 새물 놔서 놀려야 하얗지. 그거 초벌 아니 했다가 묵이 불그스름해.)

107085 @ 아아.(아아.)

107085 #1 헤영허지 안혀.(하얗지 않아.)

107085 @ 혼 시간정도 담가놧당?(한 시간정도 담가놨다가?)

107085 #1 혼 시간 든든이 둥가야 헤어.(한 시간 단단히 담가야 해.)

107085 @ 막 그냥, 막.(막 그냥, 막.)

107085 #1 게민 물을 둥그민 그 주머니가 빵빵헤여.(그러면 물을 담그면 그 주머니가 빵빵해.)

107085 @ 응.(응.)

107085 #1 그 청묵, 무울 쏠이 무울어 가니까.(그 청묵, 불릴 쌀이 불려 가니까.)

107085 @ 무우쩡.(불려서.)

107085 #1 무우니까.(불리니까.)

107085 @ 응.(응.)

107085 #1 둥가난 물을 비와불어. 비와뒁 경 안허민 그 물 불구룽헤여.(담갔던 물을 비워버려. 비워두고 그렇게 안하면 그 물 불그스름해.)

107085 @ 불구룽헤여.(불그스름해.)

107085 #1 뒈긴 뒌디 색깔이 헤영 안 헤여.(되긴 되는데 색깔이 하얗지 않아.)

107085 @ 그걸 막 놀리민 물이 빠져.(그걸 막 놀리면 물이 빠져.)

107085 #1 놀리는 것도 영 헤봉은에 이거 질질질질 내린 건 좋고이. 저 그것이 영 헤봐근에 뚝뚝 떨어지면 거 안 뒈는 거.(놀리는 것도 이렇게 해 봐서 이거 질질질질 내린 건 좋고. 저 그것이 이렇게 해봐서 뚝뚝 떨어지면 거 안 되는 거.)

107085 @ 아, 것도 어렵다예.(아, 것도 어렵네요.)

107085 #1 청묵 아무나 못허여.(청묵 아무나 못 해.)

107085 @ 겐 그 저 다 빠지와 난 다음엔 찌꺼기는 버리곡.(그래서 그 저 다 뺀 다음엔 찌꺼기는 버리고.)

107085 #1 버려불지.(버려버리지.)

107085 @ 요 국물을 가졍 냄비에 놩 젓어? 한쪽으로만?(요 국물을 가져서 냄비에 놔서 저어? 한쪽으로만?)

107085 #1 혼쪽으로나 양쪽으로나 눌지 못허게 저서야지.(한쪽으로나 양쪽으로나 눋지 못하게 저어야지.)

107085 @ 계속 약헌 불로 저서가면 묵이 뒈어예?(계속 약한 불로 저어가면 묵이 되어요?)

107085 #1 거민 그게 체얌엔 막 솟을 막 물 놩 끌여.(그러면 그게 처음엔 막 솥을 막 물 놔서 끓여.)

107085 @ 아아.(아아.)

107085 #1 끌이민 솟이 뜨겁잔아? 비와 뒁 이젠 그 솟이 뜨겁지 않으민 눌어 불어.(끓이면 솥이 뜨겁잖아? 비워 두고 이젠 그 솥이 뜨겁지 않으면 눌어 버려.)

107085 @ 아아.(아아.)

107085 #1 냄새나. 이 아래 눌어 불어. 겨니까 눌지 못하게 막 솟을 뜨겁게 끌여. 비와 뒁 이제 솟을 이제 바싹 ᄆᆞᆯ려 불에서 ᄆᆞᆯ리민이 츰지름 쪼금 놩.(냄새나. 이 아래 눌어 버려. 겨니까 눋지 못하게 막 솟을 뜨겁게 끓여. 비워 두고 이제 솥을 이제 바싹 말려서 불에서 말리면 참기름 조금 놔서.)

107085 @ 으음.(으음.)

107085 #1 이레 돌력 저레 돌력 그다 눌지 못허게 다. 헤영 그때는 그거 놀린 걸 그레 놩 막 때려. 막 ᄆᆞ멀은 때려닥기 좋아. 막 때리지 않으민 벌러지고 수망수망허여. 막 때려두고 문작허게 이쁘잖아.(이레 돌리고 저리 돌리고 그다 눋지 못하게 다. 해서 그때는 그거 놀린 걸 거기 놔서 막 때려. 막 메밀은 때릴수록 좋아. 막 때리지 않으면 쪼개지고 수망수망해. 막 때려두고 반드럽게 예쁘잖아.)

107085 @ 아아.(아아.)

107085 #1 거난이 아무나 못허여. 청묵 ᄀᆞ뜬 건.(그러니까 아무나 못해. 청묵 같은 건.)

107085 @ 아아.(아아.)

107085 #1 거 간단헌 거 아니. 볼ᄊᆞ 청묵 헹 내논 거 보민 아 야이는 그만큼 잘 허는 아이로구나. 묵 쑨 거 봔 잘못허민 춤 방상덜 싱싱헌디 쯤 봉 이거 누게 쒓느냐?(거 간단한 거 아니. 벌써 청묵 해서 내 논 거 보면 아 얘는 그만큼 잘 허는 아이로구나. 묵 쑨 거 봔 잘못하면 참 방상들 싱싱한데 쯤 봐서 이거 누가 쒔느냐?)

107085 @ 크으.(크으.)

107085 #1 이거 누게 쒓느냐? 옛날은 남자가 호렝이질 헷잖아.(옛날은 남자가 호랑이질 했잖아.)

107085 @ 으음. 메누리 욕허곡예. 메밀묵보다 청묵이 맛좋구나.(으음. 며느리 욕하고

요. 메밀묵보다 청묵이 맛좋구나.)

107085 #1 메밀묵은 그냥 카 놩 쑤는 것도 메밀묵이고. 청묵은 저 놀령 허는 거.(메밀묵은 그냥 타 놔서 쑤는 것도 메밀묵이고. 청묵은 저 놀려서 하는 거.)

107085 @ 메밀묵은 가루로.(메밀묵은 가루로.)

107085 #1 ᄀᆞ루로,(가루로.)

107085 @ ᄀᆞ루로 물에 타근에 헤도 뒈.(가루로 물에 타서 해도 돼.)

107085 #1 그렇지. 그냥 타근에 너무 뒈어도 막 벌러져불고 그거는.(그렇지. 그냥 타서 너무 되어도 막 벌러져 버리고 그거는.)

107085 @ 물을 잘 조절헤야 뒈야.(물을 잘 조절해야 돼.)

107085 #1 타는 걸 조정헤사 거 잘못허민 흘러부렁도 안뒈고.(타는 걸 조정해야 거 잘못하면 흘러버려도 안되고.)

107085 @ 소금 살짝 놓고.(소금 살짝 놓고.)

107085 #1 소금은 다 헤가사 소금도 놓곡.(소금은 다 해가야 소금도 놓고.)

107085 @ 다 헤가사. 그믄 청묵이 더 맛좋다는 거지예.(다 해가야. 그러면 청묵이 더 맛좋다는 거지요.)

107085 #1 그렇지.(그렇지.)

107085 @ 부드러와. 더예. 가루보다 더.(부드러워. 더요. 가루보다 더.)

107085 #1 거 잘 쑤민이 청묵 맛디서. 잘못허민 비실비실허고.(거 잘 쑤면 청묵 맛있어. 잘못하면 비실비실하고.)

107085 @ 헤헤.(헤헤.)

107085 #1 청묵은 ᄆᆞ멀쏠로이 그 주머니 잇잖아. 걸로 놀린 것이 청묵이라. 그거 허면은 나아피 들어라, 그거 허니까 눌엉 못허컵디덴, 아이고 그걸 막 맷돌 막, 솟을 끌영, 막 솟밑창이 막 뜨겁게 해영, 거 헤영 비와뒁은에 그 ᄆᆞᆯᄀᆞ루 헤영은에 저시민 눌지 안허난 성님 머리도 좋수다, 아, 냉물에 허민 눌게 뭰 거지. 눌민 그끈내 낭 못 먹어.(청묵은 메밀쌀로 그 주머니 있잖아. 걸로 내린 것이 청묵이라. 그거 하면 나에게 들어라. 그거 하니까 눌어서 못하겠다고, 아이고 그걸 막 맷돌 막, 솥을 끓여서, 막 솥밑창이 막 뜨겁게 해서, 그거 해서 비워둬서 그 메밀가루 해서 저으면 눌지 안하니까 형님 머리도 좋습니다. 아, 찬물에 하면 눋게 된 거지. 눌면 화독내 나서 못 먹어.)

107086 @ 그믄 이번엔 미숫가루? 개역?(그러면 이번엔 미숫가루? '개역'?)

107086 #1 개역은 어떵허나?(미숫가루는 어떻게 하나?)

107086 @ 옛날식으로 솟두껭이에 이제 비 오는 날.(옛날식으로 솥뚜껑에 이제 비 오는 날.)

107086 #1 보깡.(볶아서.)

107086 @ 보깡 솟두껭이에?(볶아서 솥뚜껑에.)

107086 #1 옛날은 그 솟두껑에서 거 못허민이 산에 강이 즘진즘진 헌 소낭 잇잔아. 거 젠젠헌 거 걸 꺽어다가.(옛날은 그 솥뚜껑에서 거 못하면 산에 가서 자잘한 소나무 있잖아. 거 잔잔한 거 걸 꺾어다가.)

107086 @ 삭다리?(삭정이?)

107086 #1 삭다리 헤당 그걸로 지져. 빙. 돗지름에.(삭정이 해다가 그걸로 지져. 빙. 돼지기름에.)

107086 @ 돗지름에? 빙이 아니고 개역.(돼지기름에? '빙'이 아니고 미숫가루.)

107086 #1 아, 개역?(아, 미숫가루?)

107086 @ 음.(음.)

107086 #1 개역은 솟두껑에서 보끄나 뚜시 헌 솟엘 보끄나.(미숫가루는 솥뚜껑에서 볶으나 또 헌 솥엘 볶으나.)

107086 @ 헌 솟에.(헌 솥에.)

107086 #1 버려분 솟.(버려버린 솥.)

107086 @ 아아. 두껑으로예 엎엉? 아니믄 위로? 솟두껑 위?(아아. 뚜껑으로요. 엎어서? 아니면 위로? 솥뚜껑 위?)

107086 #1 솟?(솥?)

107086 @ 위로 엎엉?(위로 엎어서?)

107086 #1 솟두껭이 갈라졍 보끄는 거주이. 무신. 솟은이 그냥 이 그 밥 못허는 솟이 잇어.(솥뚜껑 갈라져서 볶는 거지. 무슨. 솥은 그냥 이 그 밥 못하는 솥이 있어.)

107086 @ 음. 그기에. 응.(음. 그기에. 응.)

107086 #1 그것에 헹은에 작박으로 영 글겅 비치락으로 씰엉.(그것에 해서 쪽박으로 이렇게 긁어서 빗자루로 쓸어서.)

107086 @ 경 헹 그것도 ᄀᆞ레로 ᄀᆞᆯ아.(그렇게 해서 그것도 맷돌로 갈아.)

107086 #1 거 개역으로.(거 미숫가루로.)

107086 @ 그거. 대체, 합체 뭐 중체?(그거. 대체, 합체 뭐 중체?)

107086 #1 그거는 저 무싱거 ᄀᆞ는 체로 치고 또 그 다음은 중간체로 치고, 말제는 무신 막 홁은 걸로 헹.(그거는 저 뭐 가는 체로 치고 또 그 다음은 중간체로 치고, 말제는 무슨 막 굵은 걸로 해서.)

107086 @ 제일 나중에가 ᄀᆞ는 체예?(제일 나중에가 가는 체요?)

107086 #1 먼여가 ᄀᆞ는 체.(먼저가 가는 체.)

107086 @ 먼여가?(먼저가?)

107086 #1 말째라가난 중간 뒈 가민 뚜 ᄀᆞᆯ아야 할 거. ᄆᆞ녀 것이 체고, 말제라가민 징기가 엇어.(말째라가니까 중간 돼 가면 또 갈아야 할 거. 먼저 것이 체고, 말제라가면 증기가 없어.)

107086 @ 아아, 처음에 게 맛잇구나.(아아, 처음에 게 맛있구나.)

107086 #1 그렇지.(그렇지.)

107086 @ 처음부터 ᄀᆞ는 체 나온 게 진짜 개역이다예.(처음부터 가는 체 나온 게 진짜 미숫가루이네요.)

107086 #1 게. 말째라가난이 겁적이 많이 들어가잔아.(그래. 말째라가니까 껍데기가 많이 들어가잖아.)

107086 @ 응.(응.)

107086 #1 게니까 비실비실허지.(그러니까 '비실비실'하지.)

107086 @ 비실비실. 그 개역은 어디 항아리에 놔둠니까?('비실비실'. 그 미숫가루는 어디 항아리에 놔둡니까?)

107086 #1 개역? 단지에 놓주 무신. 그디 무신 비니루가 잇나 뭐 잇나? 옛날에 단지에 무신 두껑 더꺼근에.(미숫가루? 단지에 놓지 뭐. 거기 무슨 비닐이 있나 뭐 잇나? 옛날에 단지에 뭐 뚜껑 덮어서.)

107087 @ 지짐이는 비 올 때 지짐이도 지경 먹어낫수과? 부침게? 부침게? 지지미?(지짐이는 비 올 때 지짐이도 지져서 먹었습니까? 부침게? 부침게? 지지미?)

107087 #1 그건 이녁 먹고졍 허민 지졍 먹고.(그건 이녁 먹고 싶으면 지져서 먹고.)

107087 @ 뭘 지져 먹읍니까? 세우리 놓고, 뭐 밀가루 없으면은 뭘로?(뭘 지져 먹습니까? 부추 놓고, 뭐 밀가루 없으면 뭐로?)

107087 #1 보릿ᄀᆞ루 ᄀᆞᆯ앙.(보릿가루 갈아서.)

107086 @ 보릿ᄀᆞ루로. 보릿ᄀᆞ루에 뭐 놩 먹읍니까?(보릿ᄀᆞ루로. 보릿가루에 뭐 놔서 먹습니까?)

107087 #1 물 놩 먹주. 소금 놩.(물 놔서 먹지. 소금 놔서.)

107086 @ 야채는 뭐 놔? ᄂᆞ멀이나 세우리나 이런 것도 안 놔? 파?(야채는 뭐 놔? 나물이나 부추나 이런 것도 안 놔? 파?)

107087 #1 거 놩 먹어.(거 놔서 먹어.)

107087 @ 뭘 주로 놉니까? 지지미 헐 때.(뭘 주로 놉니까? 지지미 할 때.)

107087 #1 그 저 파ᄀᆞ튼 거 세우리ᄀᆞ뜬 거.(그 저 파 같은 거 부추 같은 거)

107087 @ 쪽파? 세우리?(쪽파? 부추?)

107087 #1 응.(응.)

107086 @ 김치도 놓고?(김치도 넣고?)

107087 #1 김친 안 놔. 김치는 이녁 먹젠 허민 그런 거 놓주.(김친 안 놔. 김치는 이녁 먹으려고 하면 그런 거 넣지.)

107087 @ ᄂᆞ물은 안 놓곡?(나물은 안 넣고?)

107087 #1 어?(어?)

107087 @ 호박이나 ᄂᆞ물은 안 놓곡?(호박이나 나물은 안 넣고?)

107087 #1 안 놔. 안 놔.(안 놔. 안 놔.)

107087 @ 세우리하고 파가 좋앗다예.(부추하고 파가 좋았네요.)

107087 #1 응.(응.)

107087 @ 지짐이, 친구덜이영 헹도 먹고. 비 올 때.(지짐이, 친구들이랑 해서도 먹고. 비 올 때.)

107087 #1 에이구, 옛날엔 탕건 허젠 허민 그건 헐 져를이 없어. 오레 먹으민 그런 거 저런 거 허느냐? 밥도이 못 먹어. 탕건 허젠 허민 빨리 두어 숟가락 오레 먹젠 허민 탕건 못헌덴.(아이구, 옛날엔 탕건 하려고 하면 그건 할 겨를이 없어. 오래 먹으면 그런

거 저런 거 하느냐? 밥도 못 먹어. 탕건 하려고 하면 빨리 두 숟가락 오래 먹으려고 하면 탕건 못한다고.)

107088 @ 오매기술[123]에 대헤서 말씀헤 주십시오.('오매기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7088 #1 오매기는 이, 그 희린 좁쏠 헤다가 물을 끓여. 끓여가지고 반죽을 헤여. 반죽을 허면은 그걸 떡을 요만썩 만들엉은에 헤가지고 끓인 물에다가 익혀. 가지고 우끗 떠. 떡이. 골아징 거, 다라에 식혀. 물 노멍 뀌어. 뜨거운 때민 잘 안 뒈어. 식형은에 누룩 물 어느 정도면 어느 정도 놔가지고 뜨신디 놔두민 빨리 익고, 차가운디 노민 자게 궤질 안헤여. 방에 노민 빨라. 뜨시니까.(오매기는 이, 그 차좁쌀 해다가 물을 끓여. 끓여가지고 반죽을 해. 반죽을 하면 그걸 떡을 요만썩 만들어서 해가지고 끓인 물에다가 익혀. 가지고 우끗 떠. 갈아진 거 식혀 물 노면서 뀌어. 뜨거운 때면 잘 안 돼. 식혀서 누룩 물 어느 정도면 어느 정도 놔가지고 따뜻한데 놔두면 빨리 익고, 차가운데 넣으면 빨리 부풀지 않아. 방에 놓으면 빨라. 따뜻하니까.)

107088 @ 아아. 방에.(아아. 방에.)

107087 #1 남자덜이, 걸러근에 막걸리 헹 먹 영양 이신 거여. 동동주가. 걸려난 주신 또 그디 놩은에 빨리 익고 방에 놩 걸령 술 헹 막걸리 발이 죽어가. 또 밥헹 너무헤가민 우깍우깍 올라와. 경허멍 먹는 거. 경 안허민 죽어분다고, 밥을 헹 살려줘야. 누룩도 자꾸자꾸 놔주고(남자들이, 걸러서 막걸리 해서 먹 영양 있는 거야. 걸려난 찌꺼긴 또 거기 놔서 빨리 익고 방에 놔서 걸려서 술 해서 막걸리 발이 죽어가. 또 밥해서 너무 해가면 '우깍우깍' 올라와. 그렇게 하면서 먹는 거. 그렇게 안하면 죽어버린다고, 누룩도 놔주고.)

107088 @ 계속 남자 위해서 헤야 뒈는 거.(계속 남자 위해서 해야 되는 거.)

107088 #1 실프민 안 해. 네불어 신경 써.(싫으면 안 해. 내버려 신경 써.)

107088 @ 아저씨도 술 잘 먹엇수과?(아저씨도 술 잘 먹었습니까?)

107088 #1 밥은 저레 밀리고 술은 앞더레 땡기고.(밥은 저기 밀리고 술은 앞으로 당기고.)

107088 @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107088 #1 초상때부터 경 술을 좋더라고, 큰아덜은 잘 먹고, 족은 아덜은 잘허믄 흔 두 잔.(조상 때부터 그렇게 술을 좋더라고, 큰아들은 잘 먹고, 작은 아들은 잘하면 한두 잔.)

107088 @ 아저씨 좋아하는 술을 계속 만들엇수과?(아저씨 좋아하는 술을 계속 만들었습니까?)

107088 #1 아저씨 돌아가분디.(아저씨 돌아가 버렸는데.)

107088 @ 살아계실 때.(살아계실 때.)

107088 #1 살아계실 때 아난에. 술 바가지가 잇어. 걸이는 거 자꾸 그거만 먹젠 허난 난 안헷어.(살아계실 때 아니까. 술 바가지가 있어 걸이는 거 자꾸 그거만 먹으려고

123) '오매기술'은 좁쌀로 만든 떡에 누룩을 섞어 반죽한 후 발효시킨 제주 전통 술을 말한다.

하니까 난 안했어)

107088 @ 좁쌀을 상 와야겟다예? 흐린 조를 어디 강.(좁쌀을 사서 와야겠네요? 흐린 조를 어디 가서.)

107088 #1 우리가 허여. 밧데 옛날은 ᄆᆞᆯ로 ᄇᆞᆯ리지 않혀. 조로 남태란 거 말 도쪄가지고 아방이 그거 끄령 붋아.(우리가 해. 밭에 옛날은 말로 밟지 않아. 조로 남태란 거 말 도쪄가지고 아버지가 그거 끌어서 밟아.)

107088 @ 오메기술 잘 헹 먹어낫구나예?('오메기' 술 잘해서 먹었었군요?)

107088 #1 잘 안헤여. 내가 힘들어. 바당에 가지. 밧디 가지. 밤에 지치지. 거 한걸 헤야지. 것도 못헐 거라고. 비 온 날은 지쳥 자불지.(잘 안 해. 내가 힘들어. 바다에 가지. 밭에 가지. 밤에 지치지 한가해야지. 것도 못할 비 온 날은 지쳐서 자버리지.)

107088 @ 헹 놔두민 드셧구나?(해서 놔두면 드셨구나?)

107088 #1 응. 불쌍헌 기가 잇더라. 헤도렌은 안하곡이. 일에 지치니까 거 먹으민 좀이 잘오지.(응. 불쌍한 기가 있더라. 해달라고는 안하고 일에 지치니까 거 먹으면 잠이 잘 오지.)

107088 @ 오메기 술허고 고소리 닦으는 거하고 달라?(오메기술하고 '고소리' 닦는 거하고 달라?)

107088 #1 다르지. 거 오메기, 고소리 거에는이 좁쌀을 이제 ᄀᆞᆯ아당 친떡에 쳐. 이만헌 시리에다가.(다르지. 거 오메기, '고소리' 거에는 좁쌀을 이제 갈아다가 시루떡에 쳐. 이만한 시루에다가.)

107088 @ 아아.(아아.)

107088 #1 쳐근에 그놈을 막 식혀. 멍석에다가. 것에 놩 요만헌 ᄀᆞ레에다 가 놩, 식혀. 식히민 이제 그 밥에 물에 누룩에 영 서껑은에 담아놩.(쪄서 그놈을 막 식혀. 멍석 것에 놔서 요만한 맷돌에다 가 놔서 식혀. 식히면 이제 그 밥에 물에 누룩에 이렇게 섞어서 담아놔서.)

107088 @ 밥은 조밥? 그냥 보리밥.(밥은 조밥? 그냥 보리밥.)

107088 #1 조밥이지. 보리밥은.(조밥이지. 보리밥은.)

107088 @ 아까 시루에는 떡이고.(아까 시루에는 떡이고.)

107088 #1 시리에는 떡으로 허는 게 왓다지. 그믄 떡으론 헌 건 술도 잘 나.(시루에는 떡으로 하는 게 왔다지. 그러면 떡으론 한 건 술도 잘 나.)

107088 @ 멍석에 부터불지 않헤마씨?(멍석에 붙어버리지 않아요?)

107088 #1 안 부떠. 왜 부뜨냐? 그게 ᄀᆞ룬데. 탁탁 털민.(안 붙어. 왜 붙으나? 그게 가룬데. 탁탁 털면.)

107088 @ 아아, 좁쌀가루? 떡허민 흐랑흐랑허지 안헙니까?(아아, 좁쌀가루 '흐랑흐랑' 안합니까?)

107088 #1 거난 그게 떡허민 그레 비왕 식혀야지.(난 그게 떡 하면 거기 비워서 식혀야지.)

107088 @ 게난 부터불지 안헤? 막 흐랑흐랑허난.(그러니까 붙어버리지 않아? 막 흐

랑흐랑하니까.)

107088 #1 안 부떠. 부뜨지 안허드라고, 비니루가 잇나? 뭐 기지가 잇나게?(붙지 안하더라고. 비닐이 있나? 뭐 천이 있나?)

107088 @ 멍석허민 짚덜 들어가지 않나?(멍석하면 짚들 들어가지 않나?)

107088 #1 들어가지 않아도 들어가도 체로 바치니까. 뭐 말리나? 안에서 부엌에서 식혀 그냥.(들어가지 않아도 들어가도 체로 바치니까. 뭐 말리나? 안에서 부엌에서 식혀 그냥.)

107088 @ 식으민 바로?(식으면 바로?)

107088 #1 누룩에 이제 서껑은에 항더레 물 비왕.(누룩에 이제 섞어서 항에 물 비워서.)

107088 @ 고소리 닦으는 건 틀리지예? 무슨 항아리 닮은 거예?('고소리' 닦는 건 틀리지요? 무슨 항아리 닮은 거요?)

107088 #1 많이 헤사. 건 많이 헤사.(많이 해야. 건 많이 해야.)

107088 @ 많이 헤사.(많이 해야.)

107088 #1 그거 이제 독주를 빠면은 술이 얼마 거 안 나고, 물을 많이 노민, 술이 많아. 우리 하르방 싱겁다, 싱겁다. 헤. 하르방 입에 아방이 와네 영영헤네 하르방 아이 술 자시는 어른 입에 놩 무싱거 얼마나 남을거냐? 그거게, 그거 물 타야 헤여. 자기네 아방 입에 맞게 허젠 허민 술 얼마 안 난덴 술 마시는 어른안티 맛보렌 허민 싱겁덴 허주. 술이 얼마 안 나. 독주로 빠니까. 그게 고소리조젱이 닮은 거 잇어. 우에 영 허민 물이 뜨뜻허면은 시끔시끔허고 그것이 물을 그것이 뜨끈뜨끈허민 시고 좀 뜩뜻헤가민 허민 제라헌 술이 뒈는 거라. 물로 조종허잖아.(그거 이제 독주를 빼면 술이 얼마 거 안 나고, 물을 많이 넣으면, 술이 많아. 우리 할아버지 싱겁다, 싱겁다. 해. 아방이 와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할아버지 술 자시는 어른 입에 놔서 무슨 거 얼마나 남을 거냐? 그거게. 그거 물 타야 해. 자기네 아방 입에 맞게 하려고 하면 술 얼마 안 난다고 술 마시는 어른한테 맛보라고 하면 싱겁다고 하지. 술이 얼마 안 나. 독주로 빼니까 그게 '고소리조젱이' 닮은 거 있어. 위에 이렇게 하면 물이 따뜻하면 시금시금하고 그것이 물을 그것이 뜨끈뜨끈하면 시고 좀 따뜻해 가서 하면 온전한 술이 되는 거라. 물로 조절하잖아.)

107089 @ 쉰다리[124]는 쉽지예?('쉰다리'는 쉽지요?.)

107089 #1 쉰다린게 밥 쉬어가민게 누룩 놩 물 노민게 쉰다리주게. 사꼬린이나 설탕이나 놩 막 끌여. 것도 누룩 놔야.('쉰다리'는 밥 쉬어가면 누룩 놔서 물 놓으면 '쉰다리'지. 사카린이나 설탕이나 놔서 막 끓여. 것도 누룩 놔야.)

107089 @ 누룩. 뻣앙.(누룩. 빻아서.)

107089 #1 누룩. 누룩 놔야 그것이 잘 궤어.(누룩. 누룩 놔야 그것이 잘 괴어.)

107089 @ 밥에다가.(밥에다가.)

107089 #1 응.(응.)

---

124) '쉰다리'는 쉰 듯한 밥에 누룩을 넣고 발효시킨 음식을 말한다.

107089 @ 메칠 경 놔두민 멧 시간?(며칠 그렇게 놔두면 몇 시간?)

107089 #1 누룩은 놔두민 그 부글부글 궤여가민 뒈는 거지. 그걸 잘 궤와야 허여 그냥은 맛읏어.(룩은 놔두면 그 부글부글 괴어가면 되는 거지. 그걸 잘 괴어야 해. 그냥 맛없어.)

107089 @ 물 안 놓고?(물 안 놓고?)

107089 #1 물 놩, 걸 밥을 물 놔근에 그 누룩 놔근에 막 궤어가야 영 먹어보민 세끔세끔허잖아.(물 놔서, 그걸 밥을 물 놔서 맛있어. 그 누룩 놔서 막 괴어가야 이렇게 먹어보면 새콤새콤하잖아.)

107089 @ 우리 어머니 헌 건 세끔세끔을 안 헙디다?(우리 어머니 한 건 새콤새콤 안 합디다?)

107089 #1 그냥 헤부난 거주기.(그냥 해버리니까 그렇지.)

107089 @ 달콤헤. 그냥.(달콤헤. 그냥.)

107089 #1 거 헐 충 모른 거. 세끔세끔헤야 거 쉰다리지.(거 헐 충 모른 거. 새콤새콤 해야 거 '쉰다리'지.)

107089 @ 그니까.(그니까.)

107089 #1 그렇지.(그렇지.)

107089 @ 근디 그 하나토 달기만 헌디 ᄒᆞ낌 잇이난 또 너무 시어 불어.(그런데 그 하나도 달기만 한데 조금 있으니까 너무 시어 버려.)

107089 #1 거 오레 놔둬부난 시어분 거.(거 오래 놔둬버리니까 시어버린 거.)

107089 @ 식초같이 뒈불어.(식초같이 돼 버려.)

107089 #1그게 부글부글 궬 때에 막 끌여.(그게 부글부글 궬 때에 막 끓여.)

107089 @ 따시 그걸 끌여?(다시 그걸 끓여?)

107089 #1 그냥 막 끌여야 헤여.(그냥 막 끓여야 해.)

107089 @ 아아.(아아.)

107089 #1 끌여야 허지. 그냥허민 시끔지고 시어불어.(끓여야 허지. 그냥하면 새콤하고 시어버려.)

107089 @ 시어불드라고.(시어버리더라고.)

107089 #1 응. 잘 끌여야 혀.(응. 잘 끓여야 해.)

107089 @ 바로 먹어불어야 놔두지 못허지예 거. 오래.(바로 먹어버려야 놔두지 못하지요 거. 오래)

107089 #1 놔둬도 어떵허여. 잘 끌이민.(놔둬도 어떻게 해. 잘 끓이면.)

107089 @ 이상허드라.(이상하더라.)

107089 #1 어멍 잘 못 헤부난 거지.(어머니 잘 못 해버리니까 그렇지.)

107089 @ 히히히히.(히히히히.)

107089 #1 너네 어멍 잘못헷다. 이제 멧살이냐? 것도 못허는 어멍이 어딧나?(너희 어머니 잘못했다. 이제 몇 살이냐? 것도 못하는 어머니가 어디 있나?)

107089 @ 게난 맛은 좋읍디다.(그러니까 맛은 좋습디다.)

107089 #1 맛은 설탕맛이주게. 세끔세끔헤사주게.(맛은 설탕 맛이지. 새콤새콤해야지.)

107089 @ 세꼼을 안헤. 달콤헤.(새콤 안 해. 달콤해.)

107089 #1 쉰다리는 세끔져사 쉰다리라. 으이구.('쉰다리'는 새콤해야 '쉰다리'라. 으이구.)

107089 @ 거니까 하하하하.(거니까 하하하하.)

107089 #1 세끔 세끔 안헌 건 쉰다리 아니.(새콤새콤 안한 건 '쉰다리' 아니.)

107089 @ 보리, 보리밥 헹 먹단 쉬민.(보리, 보리밥 해서 먹다가 쉬면.)

107089 #1 보리밥 헤영 저 식혀. 식히민 누룩 놩 물노민 것이 궤어가민 쉰다리.(보리밥 해서 저 식혀. 누룩 놔서 물 넣으면 것이 괴어가면 '쉰다리'.)

107089 @ 보리밥 쉰 것이 더 잘 뭰덴 허멍?(보리밥 쉰 것이 더 잘 된다고 하면서?)

107089 #1 쉬영 못 먹은 거 쉰다리 멩글암네. 그 저 누룩 엇이민이 좀쏠[125]잇잖아. 보리쏠 벌러난 좀쏠 걸로 허꺼.(쉬여서 못 먹은 거 '쉰다리' 만들었네. 그 저 누룩 없으면 '좀쌀' 있잖아. 보리쌀 쪼갠 '좀쌀' 섞어서 해.))

107089 @ 아아.(아아.)

107089 #1 걸로 허껑은에 저 사ᄁᆞ린인가 무싱 거 놩 막 딸령은에 거 든 맛으로 먹엄쭈기 무신.(걸로 섞어서 저 사카린인가 무슨 거 놔서 막 딸려서 거 단 맛으로 먹고 있지 뭐.)

107089 @ 사ᄁᆞ린 노민 몸에 안 좋덴.(사카린 넣으면 몸에 안 좋다고.)

107089 #1 존디 궂인지 할망덜 아느냐? 이 사ᄁᆞ린 놩 개역 돌ᄀᆞ레에 보리 보깡 골앙 개역도 허곡.(좋은 지 궂은 지 할머니들 아느냐? 이 사카린 놔서 개역 돌 맷돌에 보리 볶아서 갈아서 미숫가루도 하고.)

107089 @ 옛날에예. 당원이여 뭐여예.(옛날에요. 당원이여 뭐여요.)

107089 #1 사ᄁᆞ린허곡 당원. 당원은이 동글동글헨 방울이 당원이고, 사ᄁᆞ리는 ᄀᆞ루라.(사카린하고 당원. 당원은 동글동글해서 방울이고, 사카린은 가루라.)

107089 @ ᄀᆞ루. 하하.(가루. 하하.)

107089 #1 우린 이빨 안 나난 할망 씹으멍 멕여나서. 보리 보깡.(우린 이빨 안 나니까 할머니 씹으면서 먹여나서. 보리 볶아서.)

107090 @ 아이구. 누룩 만드는 것도 아무나 만듭니까?(아이구. 누룩 만드는 것도 아무나 만듭니까?)

107090 #1 누룩 아무나 멘들주. 보리 잇잔아.(누룩 아무나 만들지. 보리 있잖아.)

107090 @ 예.(예.)

107090 #1 발발발발 건펴.(발발발발 거피여.)

107090 @ 응.(응.)

107090 #1 거피민이 치지 말아.(거피면 치지 마.)

107090 @ ᄀᆞ레로?(맷돌로?)

125) '좀쏠'은 잘게 간 보리쌀 따위를 말한다.

107090 #1 그렇게 영 거피엉.(그렇게 이렇게 거피해서.)
107090 @ 겁데기 베낀다는 게.(껍데기 벗긴다는 게.)
107090 #1 겁데기 베껴은 안뒈어. 겁데기째 이제 발발발발.(껍데기 벗겨서는 안 돼. 껍데기째 이제 발발발발.)
107090 @ 맷돌로?(맷돌로?)
107090 #1 맷돌로 골아.(맷돌로 갈아.)
107090 @ 골아놩은에예.(갈아놔서요.)
107090 #1 골아놔근에 물에 잇게 허지 말아.(갈아놔서 물에 있게 하지 마.)
107090 @ 아.(아.)
107090 #1 영 헨 사락사락 헤영은에 쳇망잇잔아. 쳇망. 그 체 치는 쳇망.(이렇게 해서 사락사락 해서 쳇바퀴 있잖아. 쳇바퀴. 그 체 치는 쳇바퀴.)
107090 @ 예.(예.)
107090 #1 체 엇인 것이 잇어. 쳇망.(체 없는 것이 있어. 쳇바퀴.)
107090 @ 응.(응.)
107090 #1 체로 만들지 안은 거 둥글락 헌 거.(체로 만들지 않은 거. 둥글락 헌 거.)
107090 @ 응.(응.)
107090 #1 그걸로 이레 막 담아 놔. 걸랑 가운디 놩 거 쳇망 소곱에.(그걸로 이레 막 담아 놔. 걸랑 가운데 놔서 거 쳇바퀴 속에.)
107090 @ 예.(예.)
107090 #1 너네 어멍 잘 헐 걸.(너희 어머니 잘 할 걸.)
107090 @ 못헤여.(못해.)
107090 #1 못헤여? 뭔 말이냐? 밥만 먹고 똥만 싸냐?(못해? 뭔 말이냐? 밥만 먹고 똥만 싸냐?)
107090 @ 어디 간 사다근에.(어디 간 사다가.)
107090 #1 그거이 겨곡 또 그냥 돌레떡으로 만들아도 뒈곡.(그거 그리고 또 그냥 도래떡으로 만들어도 되고.)
107090 @ 납작납작.(납작납작.)
107090 #1 엉.(엉.)
107090 @ 거 시장에서 그렇게 팔아.(거 시장에서 그렇게 팔아.)
107090 #1 ᄋᆞ 그렇게 헤도 뒈고.(응. 그렇게 해도 되고.)
107090 @ 어.(어.)
107090 #1 하영 술 허는 건 이 쳇망에 거 하영 헤사 술 헐 거 아냐. 우리 술장시도 다 헤낫져.(많이 술 하는 건 이 쳇바퀴에 거 많이 해야 술 할 거 아냐. 우리 술장수도 다 했었지.)
107090 @ 싹트지 않허영 그냥 놔두민 누룩이꽈?(싹트지 않고 그냥 놔두면 누룩입니까?)
107090 #1 그거? 놔두민 무싱 거 푸대나 뭐 더껑 내불민 그것이.(그거? 놔두면 무슨

거 부대나 뭐 덮어서 내버리면 그것이.)

107090 @ 곰팡이?(곰팡이?)

107090 #1 곰팡이 피멍허지. 겐 ᄀᆞ만이 놩 네불민 그것이 거 애기덜도 애기구덕에 누룩 놓잖아.(곰팡이 피면서 하지. 그래서 가만히 놔서 내버리면 그것이 거 애기들도 애기구덕에 누룩 놓잖아 .)

107090 @ 몰라.(몰라.)

107090 #1 몰라. 어멍도 몰라? 옛날은이 병원에도 안 강이 그 애기구덕에 누룩을 놔. 머리맡이 게난이 애기가 왁 하게 울지 말고 누룩 트듯 애기가 ᄆᆞ음을 잔잔허렌 누룩 딱 성냥허곡 누룩.(몰라. 어머니도 몰라? 옛날은 병원에도 안 가서 그 요람에 누룩을 놔. 머리맡이 그러니까 애기가 왁 하게 울지 말고 누룩 트듯 애기가 마음을 잔잔하라고 누룩 딱 성냥하고 누룩.)

107090 @ 누르뜨라는 말로 누룩? 이름이 누룩이 뭰 거로구나?(눌러라는 말로 누룩? 이름이 누룩이 된 거로구나?)

107090 #1 아기가 왈딱왈딱허지 말렌. 애기가 팔딱팔딱허잔아. 울때 겐디 경허지 말렌 그거 다 방법으로.(아기가 '왈딱왈딱'하지 말라고. 애기가 '팔딱팔딱'하잖아. 울 때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거 다 방법으로.)

107090 @ 아아.(아아.)

107090 #1 다 방법.(다 방법.)

107090 @ 누룩이라는 이름이 육지에도 누룩이렌 안헤여?(누룩이라는 이름이 육지에도 누룩이라고 안 해요?)

107090 #1 육지도 몰라. 육지는 뭐옌.(육지도 몰라. 육지는 뭐라고.)

107090 @ 누룩 뜨라는 말로 누룩?(누룩 뜨라는 말로 누룩?)

107090 #1 누루떵 트는 거. 터야 누룩뒈지.(눌러서 뜨는 거. 터떠야 누룩 되지.)

107090 @ 튼다는 건 곰팡이, 곰셍이가 튼다는 거지예?(뜬다는 건 곰팡이, 곰팡이가 튼다는 거지요?)

107090 #1 응. 것이 드뜻헤 가멍 트메.(응. 것이 따뜻해 가면서 떠.)

107090 @ 애기구덕에 놓는 건 방법으로.(애기구덕에 놓는 건 방법으로.)

107090 #1 방법으로게 요만이 돌레떡ᄀᆞ치룩 만들앙. 쪼끌락허게.(방법으로 요만이 도래떡같이 만들어서. 조그맣게.)

107090 @ 거 뭐에 쌍 거기 헝겊에 쌍 거기.(거 뭐에 싸서 거기 헝겊에 싸서 거기.)

107090 #1 아니, 쌍 아니. 몰르민 그냥 머리맡에, 애기구덕에.(아니, 싸서 아니. 마르면 그냥 머리맡에, 애기구덕에.)

107090 @ 그믄 애기가 그 무신 거 헤치라고 마씨?(그러면 애기가 그 뭔 띠라고요?)

107090 #1 애기가이 와달부리멍 우는 애기가 잇어. 누룩을 노민 경 못허게 방법으로.(아기가 날뛰면서 우는 애기가 있어. 누룩을 넣으면 그렇게 못하게 방법으로.)

107090 @ 아오야.(아오야.)

107090 #1 게난 누룩에. 거 어멍 안 ᄀᆞᆯ아줘냐? 우리 아기덜도 몰람실 거여.(그러니

까 누룩에. 거 어머니 안 말해줬니? 우리 아기들도 모를 거야.)

107090 @ 애기가 무싱 거 헤지라고마씨?(애기가 뭘 할 수 있나요?)

107090 #1 애기가이 줌도 곱게 자고 와달부리지도 않허고.(애기가 잠도 곱게 자고 날뛰지도 않고.)

107090 @ 아이구.(아이구.)

107090 #1 방법으로 허는 거.(방법으로 하는 거.)

107090 @ 방법으로. 건 뭐꽈? 보리 싹 나가지고 허는 건?(방법으로. 건 뭡니까? 보리 싹 나가지고 하는 건.)

107090 #1 골, 엿 허는 거.(골, 엿 하는 거.)

107090 @ 건 다르구나.(건 다르구나.)

107090 #1 건 엿 허나 감줄 허나.(건 엿 하나 감줄 하나.)

107090 @ 엿이나 감주는 그거는 물 줘가만 싹 나?(엿이나 감주는 그거는 물 줘야만 싹 나?)

107090 #1 보릴 컹 놔두민.(보릴 담가 놔두면.)

107090 @ 물 컹 놔두민.(물 담가서 놔두면.)

107090 #1 무울어. 무울면 건졋다근에 것이 건져. 다라에나 뭐 놔두민 뽀족 뽀족 뽀족 순 나. 경허민 이젠 순 나가민 걸 널어. 경 혼번에 널민 맛엇어. 돌지 안허여. 그걸 널엇다 뒈싹닥 막 ᄌᆞ들루멍 널어야 돌주. 경 안허민 심심혜. 거 물류는 것도.(불어. 불면 건졌다가 것이 건져. 다라에나 뭐 놔두면 뾰족 뾰족 뾰족 순 나. 그렇게 하면 이젠 순 나가면 걸 널어. 그렇게 한번에 널면 맛없어. 달지 않아. 그걸 널었다 뒤 짚었다. 막 졸이면서 널어야 달지. 경 안하면 심심해. 거 말리는 것도)

107090 @ 싹 나면?(싹 나면?)

107090 #1 싹 나면 싹 나민 막 거 뿔리덜도 나잖아게.(싹 나면, 싹 나면 막 거 뿌리들도 나잖아.)

107090 @ 뿔리도 나고.(뿌리도 나고.)

107090 #1 응. 경헤가믄 그것이 혼 번에 물립지 말고 서서히 물려야 돌지. 혼 번에 물리민 돌질 안혀.(응. 그렇게 해가면 그것이 한 번에 말리지 말고 서서히 말려야 달지. 한 번에 말리면 달질 않아.)

107090 @ 그 저 싹, 초록 색깔이영 뿌리영 다 물려? 그믄 죽어버리는 거네.(그 저 싹, 초록 색깔이랑 뿌리랑 다 말려? 죽어버리는 거네.)

107090 #1 죽어부는 거지.(죽어버리는 거지.)

107090 @ 게민 그게 골이 뒈는 거.(그러면 그게 엿기름이 되는 거.)

107090 #1 응. 그거 ᄍᆞ끗디 ᄆᆞ멀쏠 놩은 안 뒈어. 그거나 미깡이나 절대 묵이고, 청묵이고, 빙이고, 못 지져.(응. 그거 곁에 메밀쌀 놔서는 안 돼. 그거나 밀감이나 절대 묵이고, 청묵이고, 빙떡이고, 못 지져.)

107090 @ 미깡, ᄆᆞ물쏠허고 미깡 넣지 말라는 말은 들엇수다만은 골허고.(밀감, 메밀쌀하고 밀감 넣지 말라는 말은 들었습니다만 엿기름하고.)

107090 #1 골, 골도 골ᄀᆞ찌 그냥 허꺼졍 안 뒈어.(엿기름, 엿기름도 엿기름같이 그냥 섞어져서 안 돼.)

107090 @ 골허고 밀감 놓지 말라고? 골허고 ᄆᆞᆯ 놓지 말라고?(엿기름하고 밀감 놓지 말라고 엿기름하고 메밀 놓지 말라고?)

107090 #1 밀감이나 골이나 절대 ᄆᆞ멀쏠 ᄌᆞ끗디 아져뎅기지 말아. ᄆᆞ멀쏠 버려불어.(밀감이나 엿기름이나 절대 메밀쌀 곁에 가져다니지 말아. 메밀쌀 버려버려.)

107090 @ 아아. 골허고 밀감은 뀐찬고.(아아. 엿기름하고 밀감은 괜찮고.)

107090 #1 밀감도 마찬가지.(밀감도 마찬가지.)

107090 @ 골허곡.(엿기름하고.)

107090 #1 미깡, 뎅오지.(밀감, 당유자.)

107090 @ 메밀도 골허고 안 뒈곡?(메밀도 엿기름하고 안 되고)

107090 #1 안 뒈어.(안 돼.)

107090 @ 미깡도 안 뒈고?(밀감도 안 되고.)

107090 #1 그런 거 허민이 못헤여. 와르르 헤불어.(그런 거 하면 못해. 와르르 해버려.)

107090 @ 응. 와르르 헤불언예.(와르르 해버려요.)

107090 #1 짓질 못헤여. 물 뒈 불언.(지지질 못해. 물 돼 버려서.)

107090 @ 참, 나 벨헌 것도 공부헴수다예.(참, 나 별난 것도 공부합니다.)

107090 #1 게난 이디선 한복희 어멍 못허는 거 엇덴.(그러니까 여기선 한복희 어머니 못하는 거 없다고.)

107090 @ 헤헤.(헤헤.) 누룩은 무슨 누룩?(누룩은 무슨 누룩?)

107090 #1 저 밀누룩, 밀누룩이 보리누룩보다 영양가치가 잇고, 밀누룩이 왓다지. 근디 보리누룩도 잇고, 또 보리 ᄀᆞᆯ아난 뒈지 먹는 거, 그런 걸로도 만들고, 건 누룩이 좋아야. 영 누룩 거이 뒝 영 벌렁 보민이 소곱에이 짓누렁허고이 막 꼿이 뻘겅헌 꼿이 피엇드라고, 영 벌렁보민, 그거 안헹 시커멍이나 어떵허민 누룩이 안 뒈면은 술도 잘 안 뒈여. 그거 원료라 원료.(저 밀누룩, 밀누룩이 보리누룩보다 영양가치가 있고, 밀누룩이 왔다지. 그런데 보리누룩도 있고, 또 보리 갈았던 돼지 먹는 거, 그런 걸로도 만들고, 건 누룩이 좋아야. 이렇게 누룩 그거 두고 이렇게 쪼개서 보면 속이 짓누렇고 막 꽃이 뻘건 꽃이 피었더라고, 이렇게 쪼개보면, 그거 안하고 시커멓거나 어떻게 하면 누룩이 안 되면 술도 잘 안 돼. 그거 원료라 원료,)

107090 @ 아아.(아아.)

107090 #1 그걸 놔야허주. 그걸 안 노민 안뒈.(그걸 놔야하지. 그걸 안 넣으면 안돼.)

107091 @ 이번엔 엿 종류와 만드는 법? 엿이 골이지예?(이번엔 엿 종류와 만드는 법? 엿이 엿기름이지요?)

107091 #1 골 안 놩은 목 씰려.(엿기름 안 넣으면 목 쓰려.)

107091 @ 너미 노민 목 씰려.(너무 넣으면 목 쓰려.)

107091 #1 골이 너미 하면은 목이 와싹와싹헤여. 목 씰려.(엿기름이 너무 많으면 목

이 와싹와싹해. 목 쓰려.)

107091 @ 목 씰려. 익모초 엿이여? 거는 피 막 그.(목 쓰려. 익모초 엿이여? 거는 피 막 그.)

107091 #1 익모초 거 배 아픈 디 먹는 거.(익모초 거 배 아픈 디 먹는 거.)

107091 @ 배 아픈 디 익모초.(배 아픈 데 익모초.)

107091 #1 엿 허영.(엿 해서.)

107091 @ 닭으로 엿을 많이 하지예? 토끼엿이여 나 어릴 때 많이 먹어난.

107091 #1 이제는 보약 잇어부난 그런 거 안 먹어. 옛날은 그 듹이 보약이라.(이제는 보약 있어버리니까 그런 거 안 먹어. 옛날은 그 닭이 보약이라.)

107091 @ 예.(예.)

107091 #1 엿도 헹 먹고 제골도 빵 먹고 죽도 끌영먹고 이젠 듹ᄀᆞ튼 거 먹지도 안혀. 옛날은 듹으로만.(엿도 해서 먹고 제골도 뽑아서 먹고 죽도 끓여서 먹고 이젠 닭 같은 거 먹지도 않아. 옛날은 닭으로만.)

107091 @ 지금도 치킨 그런 건 잘 먹어예. 아이덜예. 게난 그 엿을 허젠 허민 꼭 골이 필요허꽈?(지금도 치킨 그런 건 잘 먹어요. 아이들이요. 그러니까 그 엿을 하려고 하면 꼭 골이 필요합니까?)

107091 #1 골 엇엉은 엿 안 뒈어.(골 없어서는 엿 안 돼.)

107091 @ 골 만드는 거 혼번만 골아봅서. 간단허게.(골 만드는 거 한번만 갈아 보세요. 간단하게.)

107091 #1 저번에 요 혼번이 온 때 골아주니까.(저번에 요 한번이 온 때 갈아주니까.)

107091 @ 게도 그거를 어떻게?(그래도 그거를 어떻게?)

107091 #1 그이 술오리 골이 돌긴 헤여. 겉보리 골보다. 건디 골이 보리가 물에 듕가. 물에 듕강놔두민 혼 아침에 듕그민 듯날 아칙이 건져야 혀. 그거 쑥 풀어져. 물에 듕그민.(그이 쌀보리 엿기름이 달긴 해. 겉보리 엿기름보다. 그런데 엿기름이 보리가 물에 담가. 물에 담가서 놔두면 한 아침에 담그면 뒷날 아침에 건져야 해. 그거 쑥 풀어져. 물에 담그면.)

107091 @ 쑥 풀어져.(쑥 풀어져.)

107091 #1 풀어지민 구덕에 바쳥 물 다 빠지민 다라에 놩 그냥 놔두민 그 순이 나와.(풀어지면 구덕에 바쳐서 물 다 빠지면 다라에 놔서 그냥 놔두면 그 순이 나와.)

107091 @ 하루에.(하루에.)

107091 #1 응. 그거 놔두민이 너무 듯게 헤도 썩어불곡, 하여튼 이 은근헌 디 노민이 뿔리 나.그 거 순. 뿔리 나면은 이젠 그것이 덩어리져.(응. 그거 놔두면 너무 따뜻하게 해도 썩어버리고, 하여튼 이 은근한 데 넣으면 빨리 나 그거 순. 빨리 나면은 이젠 그것이 덩어리져.)

107091 @ 응.(응.)

107091 #1 막 뿔리 낭.(막 뿌리 나서.)

107091 @ 응. 맞아.(응. 맞아.)

107091 #1 겨믄 이제 막 찢어.(그러면 이제 막 찢어.)

107091 @ 응.(응.)

107091 #1 막 찢엉은에 물륩당 또 시들륩단 오널 물릴 건 아니 헷당 또 막 ᄌᆞ늘루멍[126] ᄌᆞ늘루멍 그걸 물류와야 돌아. 지켱허민 돌지 안혀. ᄌᆞ늘롸야 골. 빨리 물리지 말앙 그냥 그걸 저 뒷날도 물리고 또 밤이도 헤쌍 네불고 허멍 ᄌᆞ늘루멍 헌 건 돌고 즉시 그냥 ᄇᆞ싹 물린 건 돌지 안혀.(막 찢어서 말렸다가 또 시들였다가 오늘 말릴 건 아니 했다가 또 막 ‘ᄌᆞ늘루멍’, ‘ᄌᆞ늘루멍’ 그걸 말려야 달아. 지켜서 하면 달지 않아. ‘ᄌᆞ늘롸야’ 엿기름. 빨리 말리지 말고 그냥 그걸 저 뒷날도 말리고 또 밤에도 흐트러뜨리고 하면서 ‘ᄌᆞ늘루멍’ 한 건 달고 즉시 그냥 바싹 말린 건 달지 않아.)

107091 @ 그 이슬도 맞추고 막. 바람도 맞치고.(그 이슬도 맞추고 막. 바람도 맞추고.)

107091 #1 이슬은 안 맞추고 거 너무 질어 가믄 퍼렁헤 불어.(이슬은 안 맞추고 거 너무 길어 가면 퍼렇게 돼 버려.)

107091 @ 으응, 적당히.(아아, 적당히.)

107091 #1 거난 걸 못허게 널어. 널어.(그러니까 걸 못하게 널어. 널어.)

107091 @ 으응.(으응.)

107091 #1 널어.(널어.)

107091 @ 겐 걸 잘 놧당.(그래서 걸 잘 놨다가.)

107091 #1 뭘 놧당?(뭘 놨다가?)

107091 @ 골을 놧당 쓰는 거지예.(엿기름을 놨다가 쓰는 거지요.)

107091 #1 골을 물려야지.(엿기름을 말려야지.)

107091 @ 물령 놧당?(말려 놨다가?)

107091 #1 바싹 물류와. 막 그냥 영 이빨로 딱딱 씹어질 정도로 물류와야 혀. 거믄 이젠 그거 기곗방에 강 혼번 바르르ᄒᆞ게 내려와불민 뒈어.(바싹 말려. 막 그냥 영 이빨로 딱딱 씹어질 정도로 말려야 해. 그러면 이젠 그거 기계방에 가서 한번 바르르하게 내려버리면 돼.)

107091 @ 바르르 내린다는 건 가루로 만든다는 거지요 골을?(바르르 내린다는 건 가루로 만든다는 거지요 엿기름을?)

107091 #1 가루로만 ᄒᆞ지말고 혼번만 내리렌 허민 그 사람덜 다 알앙 헤줘.(가루로만 하지 말고 한번만 내리라고 하면 그 사람들 다 알아서 해줘.)

107091 @ 아아. 기곗방에서.(아아. 기계방에서.)

107091 #1 이거 골이난예 혼번만 내리와줍서허민 그냥 그 사람덜 다 알앙 헤줘.(이거 엿기름이니까요 한번만 내려 주세요하면 그냥 그 사람들 다 알아서 해줘.)

107091 @ 그믄 반착씩 벌러진다는 거지예?(그러면 반쪽씩 쪼개진다는 거지요?)

107091 #1 응.(응.)

126) ‘ᄌᆞ늘다’는 물이 스며들어서 단단하지 않고 알맞게 무른 상태를 말한다.

107091 @ 경허민 그걸 가졍 엿을 허는 거 아니예?(그러면 그걸 가져서 엿을 하는 거 아니에요?)

107091 #1 그렇지.(그렇지.)

107091 @ 엿을 할 때 닭 엿은 어떵헙니까? 닭을 삶앙?(엿을 할 때 닭 엿은 어떻게 합니까? 닭을 삶아서.)

107091 #1 둑을 미릿 딸려불민 나무 ᄀᆞ찌 못 먹어.(닭을 미리 달여버리면 나무 같아서 못 먹어.)

107091 @ 아아 질경.(아아 질겨서.)

107091 #1 꽝꽝헤 불어.(딴딴해버려.)

107091 @ 하하하하.(하하하하.)

107091 #1 엿을 허젠 허믄 멧 시간을 헤살 거아냐. 게믄은 그게 엿을 허젠 허믄 이 솟에 반 이상 ᄌᆞ꽈가민 막 내려가불어. 그 물이. 게가민 두어 번 들이청 둑을 들이쳐. 들이쳐근에 건져불어. 건졋당.(엿을 하려하면 몇 시간을 해야 할 거 아냐. 그러면 그게 엿을 하려고 하면 이 솥에 반 이상 졸여 가면 막 내려가 버려. 그 물이. 그래 가면 두어 번 들이쳐서 닭을 들이쳐. 들이쳐서 건져버려. 건졌다가.)

107091 @ 찢어.(찢어.)

107091 #1 찢엉 놧다근에 불탁불탁헤가민 그때 놔야 부드럽지. 그냥 놩 딸령은 못 먹어. 꽝꽝헤 불어.(찢어서 놨다가 '불탁불탁'해가면 그때 놔야 부드럽지. 그냥 놔서 딸려서 못 먹어. 딱딱해 버려.)

107091 @ 으음. 그믄 그 엿을 만들 때는 뭘 삶아마씨?(으음. 그러면 그 엿을 만들 때는 뭘 삶아요?)

107091 #1 희린 좁쏠이나 춥쌀이나.(찰진 좁쌀이나 찹쌀이나.)

107091 @ 아아.(아아.)

107091 #1 모인 건 안 뒈어.(메진 건 안 돼.)

107091 @ 아아, 다 좁쏠이로구나.(아아, 다 좁쌀이로구나.)

107091 #1 모인 건 엿이 비실비실헤 불어.(메진 건 엿이 비실비실해버려.)

107091 @ 아아.(아아.)

107091 #1 춥쌀이라사.(찹쌀이라야.)

107091 @ 모든 게 다 희린 좁쏠이다예.(모든 게 다 찰진 좁쌀이네요.)

107091 #1 좁쏠도 춥쌀이라사(좁쌀도 찹쌀이라야)

107091 @ 쌀허민 찹쌀?(쌀하면 찹쌀?)

107091 #1 춥쏠로.(찹쌀로.)

107091 @ 쌀은 산듸 찹쌀.(쌀은 밭벼 찹쌀.)

107091 #1 응.(응.)

107091 @ 그리고 조는?(조는?)

107091 #1 희린 거.(찰진 거.)

107091 @ 그걸 놓고 딸리다가 익모초를 놓는다.(그걸 넣고 딸리다가 익모초를 놓는

다.)

107091 #1 걸 헤영 밥을 헤여.(그걸 해서 밥을 해.)

107091 @ 아아. 먼저 밥을 허여.(아아. 먼저 밥을 해.)

107091 #1 그렇지. 밥을 헤여. 밥을 헤여근에 식혀. 다라에 놩 식히민 써늘허민 이젠 골을 그레 놩 허꺼. 허크민 물 흑꼼 놩 허꺼 가민.(그렇지. 밥을 해. 밥을 해. 헤서 식혀. 다라에 놔서 식히면 써늘하면 이젠 엿그름을 거기 놔서 섞어. 섞으면 물 조금 놔서 섞어 가면.)

107091 @ 아아.(아아.)

107091 #1 이 골이 바르르르헹 허면은 그거 솟더레 비와근에 물 어느정도 노민 엿 뭴 건가? 알맞춰 놩.(이 엿기름이 바르르르 해서 하면 그거 솥에 비워서 물 어느 정도 넣으면 엿 될 건가? 알맞게 놔서.)

107091 @ 아아. 거뿐이꽈?(아아. 그거뿐입니까?)

107091 #1 것에 알맞추엉.(것에 알맞게.)

107091 @ 아아 거뿐이꽈?(아아, 거뿐입니까?)

107091 #1 어?(어?)

107091 @ 간단헌게게.(간단하네요.)

107091 #1 간단허지.(간단하지.)

107091 @ 어어, 그추룩 어려운 걸로 생각허니까 어려운 거구나.(어어, 그처럼 어려운 걸로 생각하니까 어려운거구나.)

107091 #1 경헤근에 그 짜근에 짱 끌여 가믄 엿 뒈는 거.(그렇게 해서 그 짜서는 짜서 끓여 가면 엿 되는 거.)

107091 @ 짜서 체에.(짜서 체에.)

107091 #1 다마내기 찰리로 막 놀려야.(양파 자루로 막 놀려야.)

107091 @ 아아.(아아.)

107091 #1 놀령 주시로 막 헤영. 그 다마내기 찰리 안에 물로 체에 바춰야 혀.

107091 @ 체에 바쳥 깨끗하게 그 걸로.(체에 걸러서 깨끗하게 그 걸로.)

107091 #1 경안허민 그 체가이 빠져 불어. 대로 영 헌거니까 그난 물만 비와야지. 그 건데기 비우민이 무거우니까 그 총으로 만든 거니까 털어져 불어. 체 판나불어. 가멩이 찰리로 막 모영 막 짜놩 물만 걸려야 혜여.(그렇게 안 하면 그 체가 빠져버려. 대로 이렇게 한 거니까 그러니까 물만 비워야지. 그 건더기 비우면 무거우니까 그 총으로 만든 거니까 떨어져버려. 체 고장나버려. 가마니 자루로 막 모여서 막 짜놔서 물만 걸려야 해.)

107091 @ 옛날에는 체로 헤신디.(옛날에는 체로 했는데.)

107091 #1 옛날도 마찬가지.(옛날도 마찬가지.)

107091 @ 다마내기 찰리가 어디서? 옛날에.(양파 자루가 어디서? 옛날에.)

107091 #1 옛날엔 구덕에 바쳐낫네.(옛날엔 바구니에 받혔었네)

107091 @ 아아, 구덕에.(아아, 바구니에.)

107091 #1 구덕에 바쳐근에 막 짜 놩은에.(구덕에 밭쳐서 막 짜 놔서는.)

107091 @ 체 빠져 불카부덴.(체 빠져 버릴까봐.)

107091 #1 체 빠져 불잖아. 그거 건데기 노믄게 .거 얼마나 총으로 헌 거 얼마나 약헌 중 아나? 물트락 헤불어.(체 빠져버리잖아. 그거 건더기 넣으면. 거 얼마나 총으로 한 거 얼마나 약헌 중 아나? '물트락' 해버려.)

107091 @ 지금은 프라스틱으로 헤도 옛날엔 말총으로. 헤수게예? 체도예.(지금은 플라스틱으로 해도 옛날엔 말총으로. 했네요? 체도요.)

107091 #1 이젠 프라스틱 헤도 거이 불에 가가민 그냥 카불어. 프라스틱.(이젠 플라스틱 해도 그거 불에 가가면 그냥 타버려. 플라스틱.)

107091 @ 아아, 거 허지도 못허켜.(아아, 거 하지도 못하겠다.)

107091 #1 사람에도 좋지 않추게.(사람에도 좋지 않지.)

107091 @ 좋지도 않주게.(좋지도 않지.)

107091 #1 말총만이 좋지 안혀.(말총만이 좋지 않아.)

107091 @ 그렇지. 그렇구나.(그렇지. 그렇구나)

107091 @ 말총은 안 만들어 봣지예? 체, 체는.(말총은 안 만들어 봤지요? 체, 체는.)

107091 #1 체는 안 허고 탕건헤연(체는 안 허고 탕건해서.)

107091 @ 탕건예. 근데 그 체 만드는 건 육지에서 만들엉 왐겟다예?(탕건이요. 근데 그 체 만드는 건 육지에서 만들어서 오겠네요?)

107091 #1 아니, 이디 사람도 헤여.(아니, 여기 사람도 해.)

107091 @ 체 만드는 거 봐봣수과?(체 만드는 거 봐봤습니까?)

107091 #1 어디 저 어디 저 우에 그디가 멘촌[127]더렌 다 헤.(어디 저 어디 저 위에 거기가 도련 쪽엔 다 해.)

107091 @ 아아, 처음 들어봣수다. 대체, 중체, ᄀᆞ는 체?(아아, 처음 들어봤습니다. 대체, 중체, 가는 체?)

107091 #1 그거 멘촌서 다헤.(거 도련서 다해.)

107091 @ 아아.(아아.)

107091 #1 여기선이 양태하고 탕건벳긘.(여기선 양태하고 탕건밖에.)

107091 @ 탕건이 비싸지예? 어쨌든 체보다는. 근데 무사 체를 헤신고요.(탕건이 비싸지요? 어쨌든 체보다는. 그런데 왜 체를 했는가요.)

107091 #1 말이옌 혀? 멧 곱 비싸주.(말이라고 해? 몇 곱 비싸지.)

107091 @ 멧 곱 비싼데예.(몇 곱 비싼데요.)

107091 #1 탕건 ᄒᆞ나민.(탕건 하나면.)

107091 @ 체 만드는 할아버지가 잇엇구나?(체 만드는 할아버지가 있었구나?)

107091 #1 잇지.(있지.)

107091 @ 여자덜이 만들엇겟다예?(여자들이 만들었겠네요?)

107091 #1 여자덜도 만들안.(여자들도 만들어서.)

---

127) '멘촌'은 맨돈지라고도 불리며 지금은 도련드르, 도련동이라는 마을을 말한다.

107091 @ 저 대나무는 남자덜이 허더라도.(저 대나무는 남자들이 하더라도.)

107091 #1 달롸근에 여자덜도 달롸. 그런 거.(다뤄서 여자들도 다뤄. 그런 거.)

107091 @ 그 겐 끌영 익모초는 언제 놔마씨? 예를 들면, 배 아플 때는? 누게를 위헤서 그 익모초를 헙니까? 나?(그 그래서 끓여서 익모초는 언제 놔요? 예를 들면, 배 아플 때는? 누구를 위해서 그 익모초를 합니까? 나?)

107091 #1익모초를 막 딸려야 혀. 물로.(익모초를 막 딸려야 해. 물로.)

107091 @ 물로?(물로?)

107091 #1 딸령 걸령 체로 바쳣당은에 밥헤영, 밥을 헤영 그 물에다가.(딸려서 걸러서 체로 받혔다가 밥해서, 밥을 해서 그 물에다가.)

107091 @ 아아.(아아.)

107091 #1 찹쏠로 밥헤영.(찹쌀로 밥해서.)

107091 @ 아아, 먼처 익모초를 딸려난 다음 그 국물에 밥을 한다.(아아, 먼저 익모초를 딸려난 다음 그 국물에 밥을 한다.)

107091 #1 그 국물에 밥을 헤여야 허주. 그 주시레기 어떵허렌 말고? 경헨 엿허는 거. 막 우리 아이덜 골아주지 말렌 허매. 우리 어멍 무싱거 기술을 문딱 골아주젠 헴시넨.(그 국물에 밥을 해야 하지. 그 찌꺼기 어떻게 하란 말이니? 그렇게 해서 엿 하는 거. 막 우리 아이들 말하지 말라고 해. 우리 어머니 뭐 기술을 모두 말해 주려고 하느냐고.)

107091 @ 아니, 누가 따라 헐 줄은 모르쿠다만은 이건 책으로 나왕 누가 열심히 보지 않으민 이거는 뭐허지 못 헐 거우다.(아니, 누가 따라 할 줄은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책으로 나와서 누가 열심히 보지 않으면 이거는 뭐하지 못 할 겁니다.)

107091 #1 익모초가 뭔지 진짜 연구허는 사람 잇일 거우다. 요리허는 선생님덜은, 아이구, 다 아느네. 그 사람덜. 익모초는 막 써.(익모초가 뭔지 진짜 연구하는 사람 있을 겁니다. 요리하는 선생님들은, 아이구, 다 아네. 그 사람들 익모초는 막 써.)

107091 @ 나도 먹어봣수다. 어릴 때 할머니가.(나도 먹어봤습니다. 어릴 때 할머니가.)

107091 #1 쑥도 씨곡.(쑥도 쓰고.)

107091 @ 쑥도 놔마씨?(쑥도 놔요?)

107091 #1 쑥도 엿 허여.(쑥도 엿 해.)

107091 @ 아아(아아.)

107091 #1 배 아픈 사람덜. 배 아픈 사람덜. 쑥, 그냥 몰른 쑥 딸려 먹잖아. 이제는 배 아픈 디 먹는 약 잇주만은 옛날은 쑥 먹잖아. 쑥 고령근, 뭐 그것ᄀᆞ라 무싱거옌 헤라만은 쑥 닮은 거ᄀᆞ라 아까 무싱 거옌? 익모초. 그거 먹엉 배 아프지 말렌.(배 아픈 사람들. 배 아픈 사람들. 쑥, 그냥 마른 쑥 딸려 먹잖아. 이제는 배 아픈 데 먹는 약 있지만 옛날은 쑥 먹잖아. 쑥, 고령근, 뭐 그것보고 뭐라고 하더라만 쑥 같은 거보고 아까 뭐라고? 익모초. 그거 먹어서 배 아프지 말라고.)

107091 @ 그거 말고는 또 엇엇수과? 거기다 놓는 거?(그거 말고는 또 없었습니까?

거기다 놓는 거?)

107091 #1 뭐? 뭐 놓는 거?(뭐? 뭐 놓는 거?)

107091 @ 인삼 뭐 이런 거? 무슨 누릅나무껍데기여? 뭐 이런 낭? 녹낭이여? 이런 건 들어본 적 엇수과?(인삼 뭐 이런 거? 누릅나무껍데기여? 뭐 이런 나무? 녹나무여? 이런 건 들어본 적 없습니까?)

107091 #1 몰른다. 나는.(모른다. 나는.)

107091 @ 익모초가 많이들 먹긴 먹엇다예. 제주도에서는.(익모초가 많이들 먹긴 먹었네요. 제주도에서는.)

107091 #1 그렇지. 배 아프니까. 애기 낭은에 피.(그렇지. 배 아프니까. 애기 나서 피.)

107091 @ 여자덜예.(여자들이요.)

107091 #1 여자덜.(여자들.)

107091 @ 오죽 아팠으면.(그렇지. 배 아프니까 오죽 아팠으면.)

107091 #1 이젠 약이 시난에 엿날엔 그것만 먹더라.(이젠 약이 있으니까 옛날엔 그것만 먹더라.)

107091 @ 쑥으로도 애기 나난 다음 막 목욕하고 헷덴은 헙디다?(쑥으로도 애기낳은 다음 막 목욕하고 했다고 하데요?)

107091 #1 쑥으로 막 허잖아. 아래도 시치고 이런 가슴이영 막 시쳐.(쑥으로 막 하잖아. 아래도 씻기고 이런 가슴이랑 막 씻겨.)

107091 @ 쑥을 끌영은에 그 물로예?(쑥을 끓여서 그 물로요?)

107091 @ 응.(응.)

107091 #1 그 물로 식혓다가이.(그 물로 식혔다가.)

107091 @ 나도 경 헤난.(나도 그렇게 했었어요.)

107091 #1 막 쑥으로 영 막 그 때 미는 수건ᄀᆞ치록.(막 쑥으로 이렇게 막 그 때 미는 수건같이.)

107091 @ 예.(예.)

107091 #1 몸을 다 밀어.(몸을 다 밀어.)

107091 @ 예.(예.)

107091 #1 겡 헹 쑥물로 다 싯쳐.(그렇게 해서 쑥물로 다 씻겨.)

107091 @ 응.(응.)

107091 #1 시쳐근에 애기 줏 멕여.(씻겨서 애기 젖 먹여.)

107091 @ 응.(응.)

107091 #1 쑥이 약이여.(쑥이 약이여.)

107091 @ 막 줏 멍울 막 사고.(막 젓 멍울 막 서고.)

107091 #1 그거 헌 것도 쑥으로 다. 쑥으로이 막 눌르멍 막 달롸야 혀. 막 아파.(그거 헌 것도 쑥으로 다. 쑥으로 막 누르면서 막 주물러야 해. 막 아파.)

107091 @ 아이구, 나예. 돌덩어리 뒌예.(아이구, 나요. 돌덩어리 돼서요.)

107091 #1 그거이.(그거)

107091 @ 애기 멕이지도 못허엿수게.(애기 먹이지도 못했습니다.)

107091 #1 그거이 막 달롸야 혀. 막 아파.(그거이 막 주물러야 해. 막 아파.)

107091 @ 아이구.(아이구.)

107091 #1 경헤도 달롭고이 남자 힘으로 거 막 즛을 뿔아야 헤여. 남자의 힘으로.(그래도 주무르고 남자 힘으로 거 막 젓을 빨아야 해. 남자의 힘으로.)

107091 @ 그게 뭽니까?(그게 됩니까?)

107091 #1 뒈지. 거민이 총 잇잖아. 거 저 물총이. 거 궁기마다 뚤버야 혀. 즛궁기마다. 뚤버야 혀. 그이 즛구멍이 이 줄기가 아파. 막아지민 이 줄기 츳앙 거 뚤버야 혀.(되지. 그러면 총 있잖아. 거 저 말총이. 거 구멍마다 뚫어야 해. 젓구멍마다. 뚫어야 해. 그이 젓구멍이 이 줄기가 아파. 막아지면 줄기 찾아서 거 뚫어야 해.)

107091 @ 그거를 요즘 아이덜안티 가르쳐 줘야 뒈는디.(그거를 요즘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107091 #1 거 뚤버야 혀.(거 뚫어야 해.)

107091 @ 젊은 얘덜도 그런 거 압니까?(젊은 얘들도 그런 거 압니까?)

107091 #1 그거 시키민 아이덜 헤여. 그게이 요샌 모유 멕염실 거라.(그거 시키면 아이들 해. 그게 요샌 모유 먹일 거라.)

107091 @ 멕이는 사람도 잇고 안뒈면은.(먹이는 사람도 있고 안 되면.)

107091 #1 그게이 모유 멕이젠 허민 그 즛궁기가 막아불어. 땅땅헤연 즛을 못 멕여.(그게 모유 먹이려고 하면 그 젖 구멍이 막아버려. 딴딴해서 젓을 못 먹여.)

107091 @ 예게. 돌. 돌. 나 경 헨.(예게. 돌. 돌. 나 그렇게 했어.)

107091 #1 그거 경 허민이 막 달롼이 달롸근에 그 줄길 그 총으로 뚤버야 헤여. 막 들어가.(그거 그렇게 하면 막 다져. 다져서 그 줄길 그 총으로 뚫어야 해. 막 들어가.)

107091 @ 아아.(아아.)

107091 #1 그거로 헹 뚤르민 아방 뿔렌허민 막 뿔아. 힘껏 뿔아. 거민 터지는 거. 우리도 아방이 뿔아나서.(그거로 해거 뚫으면 아버지 빨라고 하면 막 빨아. 힘껏 빨아. 거민 터지는 거. 우리도 아버지가 빨았었어.)

107091 @ 아아.(아아.)

107091 #1 이만이 허니까 아팡 즛은 안나오곡게. 이젠 ᄉᆞ믓 그냥.(이만큼 하니까 아파서 젓은 안 나오고. 이젠 사뭇 그냥.)

107091 @ 아아, 물총으로 궁기를 똘랏구나게.(아아, 말총으로 구멍을 뚫었구나.)

107091 #1 물총으로.(말총으로.)

107091 @ 에? 어떵 궁기가 어떵 헹 뚤르는지 알아야.(에? 어떻게 구멍이 어떻게 해서 뚫는지 알아야.)

107091 #1 아방이 다 똘르데. 아방이 다 알안 똘란게.(아버지가 다 뚫었어. 아버지가 다 알아서 뚫었어.)

107091 @ 아아.(아아.)

107091 #1 영, 영 헤봉이 줏 안 나는 궁기는 똘르고. 우리 복희아방 애기도 잘 내웁곡 아방이 다 헤여. 배똥줄이고 문딱 애기 내우는 것도 아방이 다 헤여. 이렇게, 이렇게 해봐서 젖 안 나는 구멍는 뚫고. 우리 복희 아버지 애기도 잘 내고 아버지가 다 해. 배꼽줄이고 모두 애기 내우는 것도 아버지가 다 해.)

107091 @ 어머나 세상에 대단하다예.(어머나 세상에 대단하네요.)

107091 #1 아방이 문딱 애기 다 내와.(아버지가 모두 애기 다 내와.)

107091 @ 닭으로 엿 만드는 거, 토끼도 헤 봣수과?(닭 엿 만드는 거, 토끼도 해 봤습니까?)

107091 #1 토끼는 안 헤봔.(토끼는 안 해봤어.)

107091 @ 응. 염소도 안 헤보고.(응. 염소도 안 해보고.)

107091 #1 안 헤보고.(안 해보고.)

107091 @ 닭 만예.(닭 만요.)

107091 #1 둑만.(닭만.)

107091 @ 겨믄 다 누가 잘 먹습니까?(그러면 다 누가 잘 먹습니까?)

107091 #1 아방 멕여야 일헐 거 아냐.(아버지 먹여야 일 헐 거 아냐.)

107091 @ 아이구, 삼촌은 일 더헷잔아? 바당에도 헤야뒈고.(아이구, 삼촌은 일 더했잖아? 바다에도 해야 되고.)

107091 #1 아이고 게도 아방 멕여야, 아이들이 곱젼 놔두민 으보록스보록 다 먹어불어. 그믄 나 막 야단 헤가민. 아이덜도 먹엉 건강헤사주. 경 아방이.(아이고 그래도 아버지 먹여야, 아이들이 숨겨 놔두면 '으보록스보록' 다 먹어버려. 그러면 나 막 야단 해가면. 아이들도 먹어서 건강해야지. 그렇게 아버지가.)

기타

107092 @ 이외에 이 마을에서 헤 먹었던 음식이 있으면 소개헤 주십시오.(이외에 이 마을에서 헤 먹었던 음식이 있으면 소개해 주십시오.)

107092 #1 무시거, 뭐?(뭐, 뭐?)

107092 @ 뭐 특별한 음식은 엇엇수과?(뭐 특별한 음식은 없었습니까?)

107092 #1 엇어.(없어.)

107092 @ 바당에서 문어를 가지고 뭐 죽을 쑨다던가? 뭐?(바다에서 문어를 가지고 뭐 죽을 쑨다던가? 뭐?)

107092 #1 문어는 놔두민 저 솖앙 썰엉 초장에도 먹고 죽도 쒕 먹고.(문어는 놔두면 저 삶아서 썰어서 초장에도 먹고 죽도 쒀서 먹고.)

107092 @ 특별한 요리? 바다에 꺼 말고도 없엇던가?(특별한 요리? 바다에 거 말고도 없었던가?)

107092 #1 몰라. 그런 거.(몰라. 그런 거.)

107092 @ 뒈지는 돗 추렴 헤가지고 다 헤먹고예.(돼지는 돼지 추렴 해가지고 다 해

먹고요.)

107092 #1 그런 것도 안 헤나고 그런 거 허는 거 본만 헨.(그런 것도 안했었고 그런 거 허는 거 보기만 했어.)

107092 @ 쏙으로 쑥버무리 헤 먹엇지예?(쑥으로 쑥버무리 헤 먹었지요?)

107092 #1 털털이.('털털이'.)

107092 @ 그리고 만듸도 헤 먹엇덴 헙디다? ᄆᆞ멀만듸, 만두?(그리고 만두도 해 먹었다고 하던데요? 메밀만두, 만두?)

107092 #1 우린 ᄆᆞ멀로 헌 건 안 혀나부난 그 저 산에 가는 사람덜 웃드리 사람덜 ᄆᆞ멀 갈매.(우린 메밀로 한 건 안 해 버리니까 그 저 산에 가는 사람들 '웃드리' 사람들 메밀 갈아.)

107092 @ 응.(응.)

107092 #1 우린 이딘 ᄆᆞ멀 안 갈아.(우린 여긴 메밀 안 갈아.)

107092 @ 신촌 얘기만 허믄 뒈마씨. 쏙으로 뭐 쑥 버무리는 헤 먹엇지예.(신촌 얘기만 하면 되요. 쏙으로 뭐 쑥 버무리는 헤 먹었지요.)

107092 #1 쑥 털털이.(쑥 '털털이'.)

107092 @ 털털이 쑥털털이?('털털이', '쑥털털이'?)

107092 #1 응.(응.)

107092 @ 거는 보리ᄀᆞ루 놉니까?(거는 보리 가루 놉니까?)

107092 #1 밀ᄀᆞ루라야지.(밀가루라야지.)

107092 @ 밀ᄀᆞ루?(밀가루?)

107092 #1 옛날엔 보리ᄀᆞ루 헤도 이젠 보릿ᄀᆞ루 못 먹어. 까락까락.(옛날엔 보리ᄀᆞ루 헤도 이젠 보릿ᄀᆞ루 못 먹어. '까락까락'.)

107092 @ 까락까락. 옛날에는?('까락까락'. 옛날에는?)

107092 #1 옛날엔 밀가루 엇어부난.(옛날엔 밀가루 없어버리니까.)

107092 @ 엇어부니까. 무사 밀ᄀᆞ루가 잘 안뒛수과?(없어버리니까. 왜 밀가루가 잘 안됐습니까?)

107092 #1 옛날엔 밀가루 엇언. 돌ᄀᆞ레에 보리 ᄀᆞᆯ아야 ᄀᆞ루라. 돌ᄀᆞ레에 ᄀᆞᆯ앙 떡도 만들곡 허매.(옛날엔 밀가루 없었어. 돌 맷돌에 보리 갈아야 가루야. 돌 맷돌에 갈아서 떡도 만들고 해.)

107092 @ 보리가 잘 뒈신가? 밀보다 제주도에 밀도 심엇덴 허는디.(보리가 잘 됐는가? 밀보다 제주도에 밀도 심었다고 하는데.)

107092 #1 밀 싱그는 사름 원간 부제나벳긔 가난한 사람은 보리 갈앙 먹기도 힘든 디 밀 가느냐? 밀 가는 건 부젯칩이 땅 한 사람.(밀 심는 사람 원체 부자나 밖에 가난한 사람은 보리 갈아서 먹기도 힘든 디 밀 가느냐? 밀 가는 건 부자 집에 땅 한 사람.)

107092 @ 게난 밀보다는 보리가 밥을 헤 먹을 수 잇으니까. 보리가 낫다고 생각헤신가?(그러니까 밀보다는 보리가 밥을 헤 먹을 수 있으니까 보리가 낫다고 생각했는가?)

107092 #1 그래. 보린 다 갈지게. 밥 헹 먹으니까.(그래. 보린 다 갈지. 밥해서 먹으니까.)

107092 @ 밀로는 칼국수만 헤 먹을 수 없으니까.(밀로는 칼국수만 해 먹을 수 없으니까.)

107092 #1 밀로는 상웨떡.(밀로는 상화떡.)

107092 @ 떡밖엔 헹 먹을 수 없잔아예? 밥을 못 헤먹잔아예?(떡밖엔 해서 먹을 수 없잖아요? 밥을 못 해먹잖아요?)

107092 #1 응. 밥도 허긴 허는데 그 귀헌 밀로 밥 허느냐? 뽁뽁헤여. 그거 밀밥.(응. 밥도 하긴 하는데 그 귀한 밀로 밥 하느냐? 팍팍해. 그거 밀밥.)

107092 @ 또 농사를 지으민 보리가 더 잘 뭰 거 닮아예. 무사 밀은 안 헤신고? 보리철에 똑같이 밀도 헙니까?(또 농사를 지으면 보리가 더 잘 된 거 같아요. 왜 밀은 안 했는가? 보리 철에 똑같이 밀도 합니까?)

107092 #1 응. 똑ᄀᆞ치 비어.(응. 똑같이 베어.)

107092 @ 아오야, 근디 무사 밀은 안 허고 보리만 헤신고예?(아오야, 그런데 왜 밀은 안 했는가? 왜 보리만 했는가요?)

107092 #1 밀은 무신 떡ᄒᆞ는 사람이나벳긔.(밀은 무슨 떡 하는 사람이나 밖에.)

107092 @ 밥을 못 헤먹으니까.(밥을 못 해먹으니까.)

107092 #1 게. 보리나벳긔. 아이고 우리 옛날에 그냥 물에 들젠 허난 밀ᄀᆞ루 혼푸대 헤당 네불민이 아이덜 무신 떼기여 무신, 무신 거여 허멍 막 먹어. 난 몰라. 헤당 네불민 바당에 어둑어사 들어오난 헹 먹는지 마는지 몰라. 게난 지네가 영 ᄆᆞᆯ아근에 저 설탕 놔근에 지졍 먹으민 맛 좋넨. 나 무신 그런 거. 지네 경 헹 먹노렌. 우리 아이덜.(그럼. 보리나 밖에. 아이고 우리 옛날에 그냥 물에 들려고 하니까 밀가루 한 부대 해다가 내버리면 아이들 무슨 '때기'여 무슨, 무슨 거여 하면서 막 먹어. 난 몰라. 해다가 내버리면 바다에 어두워야 들어오니까 해서 먹는지 마는지 몰라. 그러니까 자기네가 이렇게 말아서 저 설탕 놔서 지져서 먹으면 맛 좋다고. 나 무슨 그런 거. 자기네 그렇게 해서 먹는다고. 우리 아이들.)

107092 @ 막걸리하고 고소리가 다른 게 뭐꽈?(막걸리하고 '고소리'가 다른 게 뭡니까?)

107092 #1 막걸리는 자기 먹젠 허민이 꿰도 넣고.(막걸리는 빨리 먹으려고 하면 깨도 넣고.)

107092 @ 오합주 무싱 거여?(오합주 뭐예요?)

107092 #1 그런 식으로 수로 다끈 건이 술 푸대덜은 그것도 막 좋덴헨 먹드라. 그것이 우에꺼 건져먹으민 술 잘 안나. 우에 남자덜이 우에 디끈 ᄀᆞᆯ라 안자나? 그거 먹어불민 술 잘 안 나더라.(그런 식으로 수로 곤 건 술 부대들은 그것도 막 좋다고 해서 먹더라. 그것이 위에 꺼 건져먹으면 술 잘 안나. 위에 남자들이 위에 '디끈' 가라앉잖아? 그거 먹어버리면 술 잘 안 나더라.)

107092 @ 막걸리는 막거릴 헤야 뒈고?(막걸리는 막걸릴 해야 되고?)

107092 #1 막걸리는 이제 그냥 먹젠 허는 거고 고소리에 닦으는 건 밥을 허던가 크게 떡을 허던가 헤여.(막걸리는 이제 그냥 먹으려고 하는 거고 '고소리'에 고는 건 밥을 하든가 크게 떡을 하든가 해.)

107092 @ 제사상에 올리는 건 막걸리보다 소주가 더, 청주 이런 거?(제사상에 올리는 건 막걸리보다 소주가 더, 청주 이런 거?)

107092 #1 소주, 소주, 청주는 막걸리골라아진게 청주고, 소주는 뺀 거고, 청주는 막걸리골라 아진게. 게난 것도 알앙헤여.(소주, 소주, 청주는 막걸리 갈아 앉은 게 청주고, 소주는 뺀 거고, 청주는 막걸리 갈아 앉은 게. 그러니까 것도 알아서 해.)

107092 @ 게난.(그러니까.)

107092 #1 청주, 것도 알앙헤여. 요샛아이덜은 청주옌헤도 몰라.(청주, 것도 알아서 해. 요새 아이들은 청주라고 해도 몰라.)

107092 @ 오합주여, 오양주여 무신?(오합주여, 오양주여 뭐?)

107092 #1 오합주는 그게 인삼, 꿀, 꿰 그렇게 들어가지. 난 안 헤봣져. 그런 거 말만 들어봣주.(오합주는 그게 인삼, 꿀, 깨 그렇게 들어가지. 난 안 해봤지. 그런 거 말만 들어봤지.)

107092 @ 막걸리만.(막걸리만.)

8. 주생활

구조

108001 @ 이번에는예 집을 지었던 경험이 있으면 말씀헤 보십시오. 초가집?(이번에는예 집을 지었던 경험이 있으면 말씀헤 보십시오. 초가집?)

108001 #2 초가집은 멧 번 지엇지. 아, 경 허니까 사람덜이 석수를 잘 빌고 목수를 잘 빌어야지 잘못허다가는 실수를 많이 허여.(초가집은 몇 번 지었지. 석수를 잘 빌고 목수를 잘 빌어야지 잘못하다가는 실수를 많이 해.)

108002 @ 게난예. 집의 종류에 대헤서 초가, 기와집, 흙집, 돌집 또 어떤 나무집 잇수과? 집의 종류? 말씀헤 주십시오.(그러니까요. 집의 종류에 대해서 초가, 기와집, 흙집, 돌집 또 어떤 나무집 있습니까? 집의 종류? 말씀해 주십시오.)

108003 @ 집채의 종류 안거리, 밧거리, 모커리?(집채의 종류 안채, 바깥채, 곁채?)

108003 #2 그렇지. 우리집은 안거리, 밧거리, 모커리 잇엇어.(그렇지. 우리 집은 안채, 바깥채, 곁채 있었어.)

108004 @ 예. 삼간집 짓는 거는?(예. 삼간집 짓는 거는?)

108004 #2 옛날엔 삼간집 지을려면 부역으로 헷으니까 동네에서 전부 동원해서 벽도 만들고 돌도 집을 지엇어.나중에 뒈가니 나무도 동원해서 산에 가서 나무 끈어다가 헤오고.(옛날엔 삼간집 지으려면 부역으로 했으니까 동네에서 전부 동원해서 집을 지었

어. 나중에 되가니 나무도 동원해서 산에 가서 해오고)

108005 @ 주춧돌, 기둥, 보, 도리, 서까래 등에 대헤서 말씀혜 주십시오.(주춧돌, 기둥, 보, 도리, 서까래 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8005 #2 그니까 서까레 헐 낭은 좋은 낭을 써야 허고 마루 ᄀᆞ튼데, 지방 ᄀᆞ튼데 좋은 낭은 난간 같은데 다 들어잇어. 무신 낭?(그니까 서까래 할 나무는 좋은 나무를 써야하고 마루 같은데, 지방 같데 좋은 나무는 난간 같은데 다 들어있어. 무슨 나무?)

108005 @ 굴무기낭?(느티나무?)

108005 #2 굴무기낭이나 가시낭이나 상당이 좋주. 서까래는.(느티나무나 종가시 나무나 상당이 좋지. 서까래는.)

108005 @ 서까래는 뭐꽈?(서까래는 뭡니까?)

108005 #2 서까래는 지붕우이 이렇게, 이렇게 그 놓은 것이 서까래.(서까래는 지붕위에 이렇게, 이렇게 그 놓은 것이 서까래.)

108005 @ 주춧돌은?(주춧돌은?)

108005 #2 주춧돌은 허염직헌 거 봉가당 밑에다 놓고.(주춧돌은 할 만한 거 주서다가 밑에다 놓고.)

108006 @ 흙으로 보릿짚에 서꺼가지고 다데겻수과? 어떵?(흙으로 보릿짚 섞어서 발랐습니까?)

108006#2 그거 다 그냥 좋은 흙을 파다가 마당에 놔가지고 그냥 소로 헤가지고.(그거 다 그냥 좋은 흙을 파다가 마당에 놔가지고 그냥 소로 해가지고.)

108006 @ 소로. 말은 아니고 소로 붋아?(소로. 말은 아니고 소로 밟아?)

108006#2 소로 붋아야 뒈어.(소로 밟아야 돼.)

108006 @ 아아.(아아.)

108006 #2 응. 막 볼라가지고 그놈으로 흑질굿.(응. 막 밟아가지고 그놈으로 '흑질굿'.)

108006 @ 흑질굿?('흑질굿'?)

108006 #2 흑질굿이라고 그레.('흑질굿'이라고 그래.)

108006 @ 흑질굿 헐 때 노래 엇엇수과?('흑질굿' 할 때 노래 없었습니까?)

108006 #2 흑질굿도 밧 볼리는 소리나 마찬가지지.('흑질굿'도 밭 밟는 소리나 마찬가지지.)

108006 @ 아아. 흑질굿도 밧 볼리는 소리.(아아. '흑질굿'도 밭 밟는 소리.)

108006 #2 그 그걸 가지고 다 벽을 바르고 돌 우이도 바르고 음. 그 저 무신 찌뿌락 놔가지고 소로 붋아 가지고(좋은 흙을 파다가 마당에 놔가지고 소로 막 밟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벽을 바르고 돌 위에도 바르고 지푸라기 놔가지고 밟고 했어.)

108006 @ 예.(예.)

108007 @ 큰방, 작은방, 시렁, 벽장, 궤?(큰방, 작은방, 시렁, 벽장, 궤?)

108007 #2 궤들 많이 다 잇엇지 뭐.(궤들 많이 다 있었지 뭐.)

108009 @ 고팡은.(고방은.)

108009 #2 고팡은 창고주 뭐.(고방은 창고지 뭐.)

108009 @ 창고예. 고팡에 창곰이 터져낫수과? 이렇게 구멍?(창고요. 고방에 '창곰'이 터져났습니까? 이렇게 구멍?)

108009 #2 그렇지.(그렇지.)

108009 @ 걸 창곰이렌 험니까?(그걸 '창곰'이라고 합니까?)

108009 #2 창곰[128].('창곰')

108009 @ 그건 무사 터졋수과? 열엇다 닫앗다 헐 수 잇어마씨?(그건 왜 터졌습니까?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어요?)

108009 #2 집집마다 창곰 잇엇는데 그 고팡에 그 공기 통허라고 아마.(집집마다 '창곰' 있었는데 그 고방에 그 공기 통하라고 아마.)

108009 @ 공기 통허라고예.(공기 통하라고요.)

108010 @ 살레, 솟, 재, 물항, 찻방, 정지에 대헤서 말씀혜 주십시오. 정지에 솥도 잇고 물항도 잇고.(살레, 솟, 재, 물독, 찻방, 정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정지에 솥도 있고 물독도 있고.)

108010 #2 정지, 쳇방[129]으로 들어가서 정지에 가는 거니까 출입허는 곳이 쳇방이고 살레[130]옌 헌 건 그릇 놓는 지금 저 씽크대라는 거. 그거 살레허고. 그릇 엎으는 곳.(정지, '쳇방'으로 들어가서 정지에 가는 거니까 출입하는 곳이 '쳇방'이고 '살레'라고 한 건 그릇 놓는 지금 저 싱크대라는 거. 그거 '살레'하고. 그릇 엎는 곳.)

108010 @ 그릇 엎으는 곳예? 살레가예.(그릇 엎는 곳이요? '살레'가요.)

108012 @ 문지방? 돌쩌귀?(문지방? 돌쩌귀?)

108012 #2 아아. 문지방, 돌쩌귀 그 다 거적문, 옛날엔 그 다 돌쩌귀 둘아서 문을 열엇다 닫앗다 헷으니까.(아아. 문지방, 돌쩌귀 그 다 거적문, 옛날엔 그 다 돌쩌귀 달아서 문을 열었다 닫았다 했으니까.)

108013 @ 호령창[131]은 뭐꽈? 호령창?('호령창'은 뭡니까? '호령창'?)

108013 #2 호령창?('호령창'?)

108013 @ 서귀포에서 호령창?(서귀포에서 '호령창'?)

108013 #2 건 잘 모르고.(건 잘 모르고.)

108013 @ 안 들어봔예. 신촌에서는예.(안 들어봤군요. 신촌에서는요.)

108014 @ 굴묵?('굴묵'?)

108014 #2 굴묵이야 거 뭐 집집마다 잇는 거니까.('굴묵'이야 거 뭐 집집마다 있는 거니까.)

108014 @ 불 때는 거예.(불 때는 거요.)

108014 #2 응, 방 뜻시게.(응, 방 따뜻하게.)

108015 @ 어머니가 주로 땟지예? 그믄 풍채에 대헤서 말씀혜 주십시오.(어머니가

128) '창곰'은 밝게 하려고 바람벽에 뚫어낸 구멍을 말한다.
129) '찻방'은 마루와 부엌사이에 있는 작은 마루를 뜻한다.
130) '살레'는 찬장모양으로 간략히 짜서 부엌 안에 세워놓고 식기 따위를 넣는 물건을 말한다.
131) '호령창'은 마루방인 '상방'의 큰 대문 앞에 시설한 조그만 창으로 서귀포, 표선, 중문에서 나타나고 있다.

주로 땠지요? 그러면 풍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8015 #2 풍채는 아무 햇빛도 받고 비도 막고, 풍채, 그것도 집집마다 잇다시피 헷어. 그 풍채도.(풍채는 아무 햇빛도 받고 비도 막고, 풍채, 그것도 집집마다 있다시피 했어. 그 풍채도.)

108015 @ 풍채는 비 삐어들지 않게 풍채를?(풍채는 비 들어오지 않게 풍채를?)

108014 #2 그렇지. 집 앞에.(그렇지. 집 앞에.)

108015 @ 집 앞에예.(집 앞에요.)

108015 #2 응.(응.)

108016 @ 물팡[132]은 마씨?('물팡'은요?)

108016 #2 허벅 부리는 디.(허벅 내리는 데.)

108018 @ 올레예. 문간채는 뭐꽈?(올레요. 문간채는 뭡니까?)

108018 #2 올레로 들어 올 때를 문간채렌 허는 거지.(올레로 들어 올 때를 문간채라고 하는 거지.)

108020 @ 통시는 어떤 거꽈?(돼지우리는 어떤 겁니까?)

108020 #2 통시는 뒈야지 기루는 데고, 사람이 변소 보는 데고.(돼지우리는 돼지 기루는 데고, 사람이 변소 보는 데고.)

108021 @ 뒈지우리. 변소에 대해서 말씀헤 주십시오.(돼지우리. 변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8021 #2 아, 게니까 옛날은 집집마다 벤소가 잇고, 뒈지 기르는 데가 잇고, 통시가 잇고.(아, 그러니까 옛날은 집집마다 변소가 있고, 돼지 기르는 데가 있고, 돼지우리가 있고.)

108022 @ 헛간에 대헤서 말씀헤 주십시오.(헛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8022 #2 헛간? 헛간은 히여뜩헌 거 논는 디 창고 닮은 거지 뭐.(헛간? 헛간은 '히여뜩헌' 거 놓는 데 창고 같은 거지 뭐.)

108023 @ 웨양간은?(외양간은?)

108023 #2 오양간은 소 메는 디가 오양간.(외양간은 소 메는 데가 외양간.)

108024 @ 다음 장독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장독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8024 #2 장독댄 집 뒤에 항이랑 젓갈이랑 뭐랑 놓는 게 그 항아리랑 막 놓아 가지고 장독대라고 그러주.(장독댄 집 뒤에 항이랑 젓갈이랑 뭐랑 놓는 게 그 항아리랑 막 놓아 가지고 장독대라고 그러지.)

108025 @ 장독대예. 그 다음 춤[133] 또는 춤항[134]에 대헤서 말씀헤 주십시오. 춤항이 뭔고?(장독대요. '춤' 또는 '춤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춤항'이 뭔고?)

108025 #2 춤항? 건 잘 모르겟네.('춤항'? 건 잘 모르겠네.)

---

132) '물팡'은 물을 길어 나르는 동이를 올려 넣어 두는 대를 말한다.

133) '춤'은 새를 머리 땋듯이 땋아 나무에 거꾸로 매달아 이슬 따위를 받아 그 밑에 둔 항아리에 들어가게 하는 물건을 말한다.

134) '춤항'은 '춤'을 타고 내려온 이슬 따위를 담는 항아리를 말한다.

초가 지붕 이기

108027 @ 그 다음 초가 지붕 이기예. 새, 각단 준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그 다음 초가지붕 이기요. 새, 각단 준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8027 #2 그 새왓디 가면 그 새가 진 것은 그 지붕을 덮고, 짧은 것은 거 각단이여. 짧은 건 줄 놔가지고 저 만들어서 거 지붕을 무끄고. 각단으로.(그 띠밭에 가면 그 띠가 긴 것은 그 지붕을 덮고, 짧은 것은 거 각단이야. 짧은 건 줄 놔가지고 저 만들어서 거 지붕을 묶고. 각단으로.)

108028 @ 집줄 만들기는 진 줄, 쯔른 줄이 잇수과?('집줄' 만들기는 진 줄, 짧은 줄이 있습니까?)

108028 #2 그렇지. 줄 호렝이가 잇고.(그렇지. '줄호렝이'가 있고.)

108029 @ 줄 호렝이예. 줄 호렝이, 뒤치기[135]가 잇수과?('줄 호렝이'요. '줄 호렝이', '뒤치기'가 있습니까?)

108029 #2 뒤치기도 잇주.('뒤치기'도 있지.)

108031 @ 집줄 매는 건 어떵 멧수과?(집줄 매는 건 어떻게 맸습니까?)

108032 #2 매는 딘 다 그 저 대로 헤가지고 다 메는 딜 다 만들어 놧어. 초집.(매는 덴 다 그 저 대로 해가지고 다 메는 디 다 만들어 놨어. 초가집.)

108032 @ 쓰다 남은 '집줄'잇수게.(쓰다 남은 '집줄'있죠.)

108032 #2 응.(응.)

108032 @ 그거 뭐에 썻수과? 놧당.(그거 뭐에 썼습니까? 놨다가.)

108032 #2 정지방석.(부엌방석.)

108032 @ 아아, 정지방석도 만들고.(아아, 부엌방석도 만들고.)

9. 놀이

111001 @ 어릴 땐 어떤 놀이를 하며 자랏습니까?(어릴 땐 어떤 놀이를 하며 자랐습니까?)

111001 #1 나? 낮인 혹교허고 밤인 탕건허고.(나? 낮인 학교하고 밤엔 탕건하고.)

111001 @ 일만 헷수과? 놀 때 곱을락이여 무신 베뜰락이여?(일만 했습니까? 놀 때 숨바꼭질이랑 무슨 줄넘기랑?)

111001 #1 건 어릴 때.(건 어릴 때.)

111001 @ 어떤 놀이?(어떤 놀이?)

111001 #1 어릴 땐 베틀락허고 이렇게 영 헤영은에 영 둘이 줴연 그믄 영 이렇게

135) '뒤치기'는 두 가닥의 집줄을 하나로 만들 때, 뒤에서 돌리는 기구를 말한다.

막 뛰곡, 이렇게 둘이 고무줄 잇잖아. 게믄 고무줄로 막.(어릴 땐 줄넘기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둘이 잡아서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막 뛰고, 이렇게 둘이 고무줄 있잖아. 그러면 고무줄로 막.)

111001 @ 고무줄놀이 노래라도 불럿수과?(고무줄놀이 노래라도 불렀습니까?)

111001 #1 거 이, 이찌게츠람뽕 하루스시데허멍 일본말로, 무시거 이제 그꼬지벳긔 몰라.(거, '이찌게츠람뽕 하루스시데'하면서 일본말로, 뭐 이제 그까지 밖에 몰라.)

111001 @ 생각헹 놔둡서. 일본말로 고무줄놀이 헷고, 공기를 뭐렌 헷수과? 돌멩이?(생각해서 놔두세요. 일본말로 고무줄놀이 했고, 공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돌멩이?)

111001 #1 돌멩이 공기렌벳긔 더허여 그거 이 다숫 겐가 멧 게? 또 그 영 튀우는 거 오지다마엔 헌 거, 그거 콩이나 보리술이나 놩이 이렇게 올리잖아.(돌멩이 공기라고 밖에 더해. 그거 이 다섯 갠가 몇 개? 또 그 이렇게 틔우는 거 오지다마라고 한 거, 그거 콩이나 보리쌀이나 놔서 이렇게 올리잖아.)

111001 @ 오지다마 오재미렌 안헹?('오지다마' 오재미라고 안하고?)

111001 #1 오지다마가, 세 개, 네 개꼬진 우리 올려나서. 경허믄 고무줄헤가민 남혹생덜 빼가불고 그것 덕분 쌉고, 하이고 얼마나 남자혹생허고 싸왕 만날 빼가불고 공허믄 공 빼가불고이 그렇게 허드라고.('오지다마'이, 세 개, 네 개까진 우리 올렸었어. 그렇게 하면 고무줄해가면 남학생들 빼가버리고 그것 때문 싸우고, 하이고 얼마나 남자학생하고 싸워서 만날 빼가버리고 공하면 공 빼가버리고 그렇게 하더라고.)

10. 통과의례

출생

112001 @ 태교는 어떻게 합니까?(태교는 어떻게 합니까?)

112001 #1 어?(어?)

112001 @ 태교? 아이가 뱃속에 들어갓을 때.(태교? 아이가 뱃속에 들어갔을 때.)

112001 #1 응.(응.)

112001 @ 그 가지는 그런 거 잇수게. 뭐 먹으믄 구진 과일은 먹으민 안뒌다. 뭐 이런 거?(그 가지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먹으면 궂은 과일은 먹으면 안 된다 뭐 이런 거?)

112001 #1 아, 그거는 날 고비에.(아, 그거는 날 고비에.)

112001 @ 음.(음.)

112001 #1 나기 전엔 어떵 안허여.(나기 전엔 어떻게 안 해.)

112001 @ 나기 전엔 날 고비에?(나기 전엔 날 고비에?)

112001 #1 어.(어.)

112001 @ 어떵헤마씨?(어떻게 해요?)

112001 #1 아기 혼 둘쯤 날ᄀᆞ비에는이, ᄀᆞ루음식 먹으민 애기가 다 ᄀᆞ루 쎵 나와.(아기 한 달쯤 날 고비에는 이, 가루음식 먹으면 애기가 다 가루 써서 나와. 그전엔 어떻지 안 해.)

112001 @ 아, 한 달 전.(아, 한 달 전.)

112001 #1 그전인 어떵 안허여.(그전엔 어떻지 않아.)

112001 @ 그전인 어떵 안하고.(그전인 어떻지 않고.)

112001 #1 애기 그 태번, 날 고비에 먹엇당은 ᄀᆞ루음식은 먹지 말아야 허여.(애기 그 태반, 날 고비에 먹었다가는 가루음식은 먹지 말아야 해.)

112001 @ 또 닭고기도 잇지 안헤?(또 닭고기도 있지 않아?)

112001 #1 ᄃᆞᆨ고기는 애기가 ᄃᆞᆨ술 나. 애기가 나민 이런 디 ᄃᆞᆨ술ᄀᆞ치 막 난덴 ᄃᆞᆨ고기 먹지말렌, ᄃᆞᆨ술 산덴.(닭고기는 애기가 닭살 나. 애기가 나면 이런 데 닭살같이 막 난다고 닭고기 먹지 말라고. 닭살 선다고.)

112001 @ 게난 뭐 뭐가 맛좋게 먹고 뭐 조심허는 거는 어디 막 나상 뎅기거나 이러지도 않고?(그러니까 뭐 뭐가 맛좋게 먹고 뭐 조심하는 거는 어디 막 나서서 다니거나 이러지도 않고?)

112001 #1 이기는 혼 오 개월쯤 뒈가민 쫌 자리잡히는데 그전인 애기가 물 아니냐? 물, 우리 뒈지 잡앙보민 그 중이ᄀᆞ찌 그축헤. 새끼도. 이 사람도.(이기는 한 오 개월쯤 돼 가면 좀 자리 잡히는데 그전엔 애기가 물 아니냐? 물, 우리 돼지 잡아서 보면 그 중이같이 그렇게 해. 새끼도. 사람도)

112001 @ 그난 조심헤야 뒈?(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112001 #1 게난 그거 ᄒᆞ끔ᄒᆞ민 물 터진덴 조심허라. 조심허라.(그거 조금하면 물 터진다고 조심하라. 조심하라.)

112001 @ 조심허라.(조심하라.)

112001 #1 애기가 혼 댓ᄃᆞᆯ 뒈가민 자리 잡앙 앉는덴.(애기가 한 다섯, 여섯 달 되가면 자리 잡아서 앉는다고.)

112001 @ 댓ᄃᆞᆯ.(대여섯 달.)

112001 #1 응.(응.)

112001 @ 댓ᄃᆞᆯ이 멧 달이꽈?(댓 달이 몇 달입니까?)

112001 #1 육개월 ᄀᆞ라 댓ᄃᆞᆯ.(육 개월 보고 대 여섯 달.)

112001 @ 댓달.(대여섯 달.)

112001 #1응. 그축헤 가민 괜찬에고, 애기어멍도 입덧도 아녀고, 석 ᄃᆞᆯ 나민 막 입덧허는 사름은 입덧헹 무시거 먹도 못헤.(응. 그렇게 해가면 괜찮고, 애기어머니도 입덧도 안하고, 석 달 되면 막 입덧 하는 사람은 입덧해서 뭐 먹지도 못해.)

112001 @ 게믄 물질 들어가는 것도 삼 개월까진 조심은 헤야켜예? 그레도.(그러면 물질 들어가는 것도 삼 개월까진 조심은 해야겠네요? 그래도.)

112001 #1 아이구, 물질허는 사름은 그런 거 아이생각헌다. 죽지아녀믄 살기로게 애

기 생각 경 허느냐? 애기 막 죽어불렌 내리렌 헤도 안내려, 해녀애기덜은. 꺼꾸리 ᄂᆞ다 막 숨벼도 아무충도 안 허여. 꺼꾸리 갓다 ᄂᆞ다 갓다. 해녀 애기덜은 죽으렌 헤도 죽지도 안헤여.(아이구, 물질하는 사름은 그런 거 아이 생각헌다. 죽지 안하면 살기로 애기 생각 그렇게 하느냐? 애기 막 죽어버리라고 내리라고 해도 안내려. 해녀애긴. 거꾸로 놔도 막 '숨벼도' 아무렇지도 않아. 거꾸로 갔다 바로 갔다. 해녀 애기들은 죽으라고 해도 죽지도 않아.)

112002 @ 출산 준비는 어떻게 하며, 어디서 출산합니까?(출산 준비는 어떻게 하며, 어디서 출산합니까?)

112002 #1 옛날은이 이녁집이서 보리낭 꼴아근에 그 애기내우는 할망덜이 잇어. 그런 할망 데려당은에.(옛날은 이녁집에서 보릿대 깔아서 그 애기내우는 할머니들 있어. 그런 할머니 데려다가.)

112002 @ 삼촌 다 경헷수과?(삼촌 다 그렇게 했습니까?)

112002 #1 응?(응?)

112002 @ 보리낭 꼴앙헷수과?(보릿대 깔아서 했습니까?)

112002 #1 아니, 우린 그런 시절 넘엇지. 옛날.(아니, 우린 그런 시절 넘었지. 옛날.)

112002 @ 어머니네.(어머니네.)

112002 #1우리 날 고비에 그 뭐.(우리 날 즈음에 그 뭐.)

112002 @ 그거 봐낫수과? 북덕자리렌 헙니까?(그거 봤었습니까? '북덕자리'라고 합니까?)

112002 #1 북덕자리라? 그거 애기 나나민 태술레. 태가 뭔 중아나? 애기 나난 봇 잇잔아. 그거 술 레 가는 거.('북덕자리'라? 그거 애기 나나민 태 태우러. 태가 뭔 줄아나? 애기 났던 봇 있잖아. 그거 태우러 가는 거.)

112002 @ 어디 강 술아마씨?(어디 가서 사라요?)

112002 #1 바당에 가나, 산에. 그거 잘못, 이 곱닥헌 데 아니 헷당은 애기가 태독 올라. 그거 잘못헷당은.(바다에 가나, 산. 그거 잘못, 이 고운 데 아니 했다가 애기가 태독 올라. 그거 잘못했다가는.)

112002 @ 태독?(태독?)

112002 #1 막 그냥 뽀족뽀족 나멍 얼굴에고 머리에고 태독 나. 거 잘못헷당은 애기.(막 그냥 뽀족뽀족 나면서 얼굴에고 머리에고 태독 나. 거 잘못했다가는 애기.)

112002 @ 삼촌은 어떵헤낫수과? 삼촌도 병원에서 안 헷지예?(삼촌은 어떻게 했었습니까? 삼촌도 병원에서 안했지요?)

112002 #1 아니여, 그땐 병원이 엇엇어.(아니야. 그땐 병원이 없었어.)

112003 @ 그 태를 어떵 헷수과? 바당에 강 삼촌이 직접 술안?(그 태를 어떻게 했습니까? 바다에 가서 삼촌이 직접 사랐어요?)

112003 #1 아니, 우리 대에는이, 단지에 그 태를 헤여근에 뭐 접시나, 뭐 그 전복껍절, 그거나 두 개 영 헤영 무껑은에 저 뭐냐 거 망아리 잇어. 물질허는 망아리, 그런 헝겊 끈어당은에 그 소곱에 돌 둘아메영 데끼민 돌이영 ᄀᆞ치 ᄀᆞ라앚아.(아니, 우리 대에는

이, 단지에 그 태를 해서 접시나 뭐, 그 전복껍질 그거나 두 개 이렇게 해서 묶어서 망사리 있어. 물질하는 망사리, 그런 헝겊 끊어다가 그 속에 돌 달아매어서 던지면 돌이 이렇게 같이 가라앉아.)

112003 @ 물에? 바당에?(물에? 바다에?)

112003 #1 응, 바당에가 질 깨끗허여. 곳디서 잘못 솔민 막 아기 태독 올라.(응, 바다에가 제일 깨끗해. 갯가서 잘못 태우면 막 아기 태독 올라.)

112003 @ 게난 삼촌은 거 다 바당에 강 던졋수과?(그러니까 삼촌은 거 다 바다에 가서 던졌습니까?)

112003 #1 응. 다 바당에 데껴불어.(응. 다 바다에 던져버려.)

112003 @ 그거 허민 막 많지 안헙니까?(그거 하면 막 많지 안합니까?)

112003 #1 아이구, 경 하도 아녀. 저 전복껍질이 더끌 적에 무신 하나?(아이구, 그렇게 많지도 않아. 저 전복껍질이 덮을 적에 무슨 많나?)

112003 @ 으음.(으음.)

112003 #1 그게. 거 쉐 물 뒈지 ᄀᆞ뜬 건 하도 사름은 경 하지 안헤여.(그게. 거 소, 말, 돼지 같은 건 많아도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

112003 @ 아아, 난 탯줄이영 그 끈어난 거영.(아아, 난 탯줄이랑 그 끊었던 거랑.)

112003 #1 탯줄허고 애기봇은 그냥 그 단지에 담던가 뭐 조겡이에 담든가 바당에 들이차불민.(탯줄하고 태는 그냥 그 단지에 담던가 뭐 조개에 담든가 바다에 들이쳐 버리면.)

112003 @ 단지채?(단지째?)

112003 #1 응, 단지채 그냥.(응, 단지째 그냥.)

112003 @ 아, 항아리 더껑 영 무껑?(아, 항아리 덮어서 이렇게 묶어서?)

112003 #1 응. 경허든가 조갱이에 덮엉 영 그디 무신 망아리나 돌 돌아멩 경 안허민.(응. 그렇게 하든가 조개에 덮어서 이렇게 거기 무슨 '망사리'나 그렇게 안하면 돌 달아매서.)

112003 @ 아, 돌 돌아메엉.(아, 돌 달아매어서.)

112003 #1 경 안허민 골라 앚지도 않곡 둥둥 떵.(그렇게 안하면 갈아 앉지도 않고 둥둥 떠서.)

112003 @ 망아리라는 건 망사리, 그물같은 거예?(망사리라는 건 망사리, 그물 같은 거요?)

112003 #1 응, 그런 걸로 헹. 그 옛날은 ᄉᆞ는 사름은 솔아이. 경헌디 우리 난 땐 우리 할마님네 바당더레 다 데껸. 바당이 질 깨끗허덴.(응, 그런 걸로 해서. 옛날은 태우는 사람은 태워. 그런데 우리 난 땐 우리 할머님네 바다에 다 던졌어. 바다가 제일 깨끗하다고.)

112003 @ 어머니도? 출산 준비허젠 허민 뭐뭣을 준비헙니까?(어머니도? 출산 준비하려고 하면 뭐뭣을 준비합니까?)

112003 #1 이신 사름 준비허주 엇인 사름이 뭘 준비허나? 잇는 사름은 ᄆᆞ밀ᄏᆞ루도

준비허고.(있는 사람 준비하지. 없는 사람이 뭘 준비하나? 있는 사름은 메밀가루도 준비하고.)

112003 @ 메역도.(미역도.)

112003 #1 메역이야 뭐 죽장 나는 거난 허주마는. 뭐 애기 기저귀 ᄀᆞ뜬 거 그런 거 다 준비허주. 그런 거 무시거 헐 거 잇어.(미역이야 뭐 죽장 나는 거니까 하지만. 뭐 애기 기저귀 같은 거 그런 거 다 준비하지. 그런 거 뭐 할 거 있어.)

112003 @ 집이서 출산헷다예.(집이서 출산했네요.)

112003 #1 그 ᄆᆞᆯᄏᆞ린이 피가 삭으렌.(그 메밀가룬 이 피가 삭으라고.)

112003 @ 으음. 산모의 음식으로는 어떤 것이 잇습니까 허는게 ᄆᆞ밀ᄏᆞ루구나.(으음. 산모의 음식으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는 게 메밀가루구나.)

112003 #1 ᄆᆞ밀ᄏᆞ루. 그것에 미역. ᄆᆞ밀ᄏᆞ르고 미역이고 우리가 먹으민 피가 죽지안헹 깨끗헌 피 허렌 그거 먹는 거. 미역허고 ᄆᆞ멀ᄏᆞ리허고. 또 ᄆᆞ밀ᄏᆞ리 엇인 사름은 보릿ᄀᆞ리 ᄀᆞᆯ아당도 허고. 또 아무것도 엇인 사름은 메역국만도 들이씨고.(메밀가루. 그것에 미역. 메밀가루고 미역이고 우리가 먹으면 피가 죽지 않고 깨끗한 피 하라고 그거 먹는 거. 또 메밀가루 없는 사람은 보릿가루 갈아다가도 하고. 미역하고 메밀가루하고. 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미역국만도 들이마시고.)

112003 @ 보릿ᄀᆞ르보단 ᄆᆞ밀ᄀᆞ루가 더 비싸지예?(보릿가루보단 메밀가루가 더 비싸지요?)

112003 #1 ᄆᆞ밀ᄀᆞ르 거 신사름덜이나 먹주 엇인 사름덜은. 이젠 막 하 ᄆᆞ밀ᄏᆞ르. 그땐 ᄆᆞ밀ᄏᆞ르가 귀헤여.(메밀가루 거 있는 사람들이나 먹지. 없는 사람들은 . 이젠 막 하 메밀가루. 그땐 메밀가루가 귀해.)

112003 @ 게도 이제도 비싸.(그래도 이제도 비싸.)

112003 #1 게난 집 가난헌 것이 서러와.(그러니까 집 가난한 것이 서러와.)

112005 @ 게난예 그러면 아기 목욕은 언제 합니까?(그러니까요. 그러면 아기 목욕은 언제 합니까?)

112005 #1 애기목욕은 곧 나멍사라 목욕시켜야지. 핏덩어리가 막 메여진디?(애기목욕은 곧 나면서 바로 목욕시켜야지. 핏덩어리가 막 매여진데?)

112005 @ 어멍도 아픈디 그 애기를 어떵 목욕을 해?(어머니도 아픈데 그 애기를 어떻게 목욕을 해?)

112005 #1 뚠 사람이 시치지. 어멍이 어떻게 시치나?(딴 사람이 시키지. 어머니가 어떻게 씻기나?)

112005 @ ᄯᆞ뜻헌 물?(따뜻한 물?)

112005 #1 그 쑥물 솖아다가.(그 쑥물 삶아다가.)

112005 @ 애기도?(애기도?)

112005 #1 어.(어.)

112005 @ 아아.(아아.)

112005 #1 어어. 어멍도? 어멍은 ᄒᆞᆫ ᄉᆞ일 시면은 뭐허고 일주일 뒈야 어멍도 완전히

그 쑥물로 다 긺고. 애기도 쑥물로 긺고.(어, 어머니도, 어머니는 한 사일은 뭐하고 일주일 되야 어머니도 완전히 그 쑥물로 다 몸 감고. 애기도 쑥물로 몸 감고.)

112005 @ 애기는 뜨뜻헌 물로 씻어주는구나.(애기는 따뜻한 물로 씻어주는구나.)

112005 #1 음.(음.)

112005 @ 경헨 탯줄은 누가 짤라?(그렇게 해서 탯줄은 누가 잘라?)

112005 #1 건 애기 나오는 사름이 쫄르주.(건 애기 나오는 사람이 자르지.)

112005 @ 무슨 씰로 무꺼?(무슨 실로 묶어?)

112005 #1 탯줄로 이 박박 거 애기신더레 훌터 놩 배설을.(탯줄로 이 박박 거 애기에게 훑어 놔서 창자를.)

112005 @ 아아.(아아.)

112005 #1 훌터 놩근에 실로 딱 졸라메연 딱 끈지.(훑어 놔서 탯줄로 박박 애기어개 훓어 놔서 창자를, 그렇게 해서 실로 딱 잘라매서 딱 끊지.)

112005 @ 삼촌도 헤봣수과? 그런 거?(삼촌도 해봤습니까? 그런 거?)

112005 #1 난 안 헤봣어. 아방이 다 허주.(난 안 해봤어. 아버지가 다 하지.)

112005 @ 아방이.('아방이'.)

112005 #1 아방이 다 내웁지. 나는 안 헤여.(난 안 해봤어. 아버지가 다 하지. 아버지가 다 내우지.)

112005 @ 게난 아기내우는 할망 엇일 땐 아방, 아저씨가 헤본 적도 잇수과?(그러니까 아기내우는 할머니 없을 땐 아저씨가 해본 적도 있습니까?)

112005 #1 그런 사람 우리 애기 난 땐 엇어나서.(그런 사람 우리아기 난 땐 없었어)

112005 @ 아이구, 지독허다예.(아이구, 지독하네요.)

112005 #1 야, 보리비단도 왕 나 낳쪄.(야, 보리비단도 와서 났었어.)

112005 @ 거믄 동네 친헌 삼촌이나 성님안테 도와달렌도 못허곡. 부탁도 안 헤마씀?(그러면 동네 친한 삼촌이나 성님에게 도와달라고도 못하고 부탁도 안해요?)

112005 #1 어떵 애기 낳는 사름이 그냥 막 죽게 된디 그딜 들아가나.(어떻게 애기 낳는 사름이 그냥 막 죽게 된데 거길 데려가나.)

112005 @ 아니, 아저씨가 데령 오기라도.(아니, 아저씨가 데려서 오기라도.)

112005 #1 아니 그냥 아방냥으로 헌덴.(아니 그냥 아버지대로 한다고.)

112005 @ 아이구야. 멧 명 다?(아이구야. 몇 명 다?)

112005 #1 응. 아방냥으로.(응. 아버지대로.)

112005 @ 대단허다예.(대단하네요.)

112005 #1 다 탯줄 끊고 문딱 헤여.(다 탯줄 끊고 모두 해.)

112005 @ 헤? 아오구야.(헤? 아오구야.)

112005 #1 겐디 이 아방이 이서사 애기가 나주. 아방 엇으민 생전 나오도 안허여.(그런데 이 아버지가 있어야 애기가 나지. 아방 없으면 생전 나오지도 안해.)

112005 @ 건 무사마씸?(건 왜요?)

112005 #1 그 쳇 애기가 아방 봐나믄이, 계속. 아방 와야 나와. 거 춤 희한허더라.

(그 첫 애기가 아버지 봤으면, 계속. 아버지 와야 나와. 거 참 희한하더라.)

112005 @ 아오야.(아오야.)

112005 #1 우린 꼭 아방 봐나니까 꼭 아방이 와야 나. 애깃뻰 맞추와도 아방 오기 전인 절대 나오질 안허여.(우린 꼭 아방 봐나니까 꼭 아방이 와야 나. '아깃뻬'는 맞추어도 아버지 오기 전엔 절대 나오질 않아.)

112005 @ 아아.(아아.)

112005 #1 아방 와야 나.(아버지 와야 나.)

112005 @ 손이라도 잡아 줍디가? 아프민 어떵헙디가? 어디? 삼촌은 금방 납디가?(손이라도 잡아 줍디까? 금방 아프면 어떻게 합디까? 어디? 삼촌은 납디까?)

112005 #1 아이구, 우린 아깃 배 맞추민 이 아팡 막 허당 눅이민 막 즘자. 막 자당 흔 사흘도 가고 이틀도 가곡. 그냥 어떤 사름은 그냥 낳는 사름도 이신디 우린 기영 안 혀. 자다강은에 깨어낭.(아이구, 우린 아기 배 맞추면 이 아파서 막 하다가 눅이면 막 잠 자. 막 자당 한 사흘도 가고 이틀도 가곡. 어떤 사름은 그냥 낳는 사람도 있는데 우린 그렇게 안 해.)

112005 @ 어디가 아파? 배가 아파?(어디가 아파? 배가 아파?)

112005 #1 배 아프는 사름도 있고 이 허리 아프는 사름, 엉치 아프는 사름도 잇어. 겐디 질이 엉치로 나는 애기가 막 못 젼뎌. 배로 아프는 건.(배 아프는 사람도 있고 허리 아픈 사람, 엉덩이 아픈 사람도 있어. 그런데 이 엉덩이로 나는 애기가 막 못 견뎌. 배로 아픈 건.)

112005 @ 아들이 어깨도 넙지예? 암만헤도 머리도 크고, 뚤 아들 좀 다르지 안으카?(아들이 어깨도 넓지요? 아무리해도 머리도 크고, 딸 아들 좀 다르지 않을까?)

112005 #1 뚠나지. 아덜은 배가 튼튼허곡, 뚤은 이레저레 쫌 흔들려. 아덜은 튼튼혜. 뜰려뜰려.(다르지. 아들은 배가 단단하고, 딸은 여기들이 좀 흔들려. 달라. 달라.)

112005 @ 먹는 것도?(먹는 것도?)

112005 #1 아니, 뭐 우린 애기가 국에 서는듯 경 무시거 먹어지질 안헤여. 냄새나.(아니 우린 이 애기가 들어서면 뭐 그렇게 먹어지지 않아. 냄새 나.)

112005 @ 음.(음.)

112005 #1 겐디 입덧 아니허는 사름은 몰른덴.(그런데 입덧 안 하는 사람은 모른다고.)

112005 @ 음.(음.)

112005 #1 우린 애기 나는 줄도 모르고 배는 중도 몰르고. 난 막 입덧헹이 절로저레 냄새재왕 막 코더레만.(그런데 입덧 안 하는 사람은 모른다고. 애기 나는 줄도 모르고 배는 중도 모르고. 난 막 입덧해서 저리로 절로 냄새 겨워서 막 코에만.)

112005 @ 그렇구나.(그렇구나.)

112005 #1 우린 경헌디 다른 사름은 그런 거 엇넨.(우린 그렇게 했는데 다른 사람은 그런 거 없다고.)

112005 @ 음.(음.)

112005 #1 사름에 메어.(사람에 매.)

112005 @ 사름에.(사람에.)

112006 @ 깃저고리에 대헤서 말씀헤 주십시오.(깃저고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12006 #1 무시거?(뭐?)

112006 @ 깃저고리가 뭣꽈?(깃저고리가 뭡니까?)

112006 #1 봇딧저고리지. 무신 깃저고리가 어디셔? 아기 낭 곧 입지는 건 봇딧저고리, 베적삼. 왜냐하면이 이 광목이나 무시거 입지민이, 베는 노시니까 이런 디 긁지 안허나? 게난 이디 등 긁지 말렌 베로 입지고, 몰른 사름은 광목 입지고. 그 베에다가 실데기민 애기가 ᄀᆞ롭질 안헤여. 봇딧저고리, 베로.('봇딧저고리'지. 무슨 깃저고리가 있어. 아기 나서 곧 입히는 건 '봇딧저고리', 베적삼. 왜냐하면 이 광목이나 무슨 거 입히면, 베는 날카로우니까 이런데 긁지 않나? 그러니까 여기 등 긁지 말라고 베로 입히고, 모른 사람은 광목 입히고. 그 베에다가 닿으면 애기가 가렵질 않아. '봇딧저고리', 베로.)

112007 @ 봇딧저고리예. 할망상에 대헤서 말씀헤 주십시오.('봇딧저고리'요. '할망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12007 #1 할망상엔 뭐, 물 거려 놓곡, 쌀 놓고, 씰 놓고, 돈 만원 놓곡 허는 거.('할망상'엔 뭐, 물 떠 놓고, 쌀 놓고, 실 놓고, 돈 만원 놓고 하는 거.)

112007 @ 거 누가 가져가 남은 돈 심방도 안 오곡 허는 디?(거 누가 가져가?)

112007 #1 아니 가져가. 집이.(안 가져가. 집에.)

112007 @ 집이 그냥 놔두는 거, 애기나면?(집에 그냥 놔두는 거, 애기나면?)

112007 #1 아니. 거 놔두는 사름도 잇곡, 업솨부는 사름도 잇고, 사름에 메어. 업솨부는 사름은 그냥 헤낭 밥을 헹 먹든가.(거 놔두는 사람도 있고, 없애버리는 사람도 있고, 없애버리는 사람은 그냥 한고 나서 밥을 해서 먹든가.)

112007 @ 옛날 심방 이실 땐 삼싱할망이렌 헹 그런 걸 또.(옛날 심방 있을 땐 삼신할머니라고 해서 그런 걸 또.)

112007 #1 그런 걸 모사이.(그런 걸 모셔.)

112007 @ 그런 것도 가져가고.(그런 것도 가져가고.)

112007 #1 아니. 아져가진 안해. 절대 애기 본지 어멍 신디로 헤야주.(아니. 가져가진 않아. 절대 애기 어머니에게로 해야지.)

112007 @ 돈만 만원?(돈만 만원?)

112007 #1 돈 만원이나 옛날엔 천원?(돈 만원이나 옛날엔 천원?)

112007 @ 할망상예? 셍꼬나 향까지도 밥에 찔릅니까? 쌀에?('할망상'이요? 향이나 향가지도 밥에 찌릅니까? 쌀에?)

112007 #1 밥에, 메에. 상가질 허나 새 잇잔아, 집이는 새. 그런 걸 끈어당 해.(밥에, 메에. 향가지 하나 띠 있잖아, 집에는 띠. 그런 걸 끊어다 해.)

112007 @ 무사 그걸 헴신고예?(왜 그걸 하는가요?)

112007 #1 거 우리 ᄀᆞ뜨민 하시로 밥 줍아 먹듯.(그거 우리 같으면 젓가락으로 밥

집어 먹듯.)

112007 @ 아아.(아아.)

112007 #1 그 할마님도 걸로 먹으렌 꼭꼭 찔르는거야. 다 이유가 잇는 거지. 똑 골아야만 아냐?(그 할머님도 걸로 먹으라고 꼭꼭 찌르는 거야. 다 이유가 있는 거지. 꼭 갈아야만 아냐?)

112007 @ 상가지하고 새는 그거엿구나. 무사 그걸 헴신고예?(향가지하고 띠는 그거였구나. 왜 그걸 하는가요?)

112007 #1 그래, 밥 먹는 젓가락. 손으로 영 먹냐?(그래, 밥 먹는 젓가락. 손으로 이렇게 먹나?)

112008 @ 배냇머리는 어떻게 합니까?(배냇머리는 어떻게 합니까?)

112008 #1 뭐? 거 무신 말고?(거 무슨 말인가?)

112008 @ 애기 머리를 까끕니까?(애기 머리를 깎습니까?)

112008 #1 애기 곧 나민 그냥 건졍 고만이 내불어. 뭐 돌이나 넘어야 가끄나 내부나. 초파일날이나 돌아와야.(애기 곧 나면 그냥 건져서 가만히 내버려. 뭐 돌이나 넘어야 깎으나 내버리나. 초파일날이나 돌아와야.)

112008 @ 한번 쫙 까까주지예? 초파일날 까까주는 거?(한번 쫙 깎아주지요? 초파일날?)

112008 #1 거 정신 이신 사름은 허곡, 경 아니헌 사름은 어느 때사 까깜신디. 무신 그 애기는 키왐서? 이젯사름ᄀᆞ찌 애기를 안키와. 내불어 기냥. 죽고살고. 이젠 애기나 금자동아 은자동아.(거 정신 있는 사람은 하고, 그렇게 아니 한 사람은 어느 때야 깎는지. 무슨 그 애기는 키우나? 이제 사람같이 애기를 안 키워. 내버려 그냥. 죽고살고 이젠 애기나 금자동아 은자동아.)

112009 @ 천연두나 홍역 예방은 어떻게 합니까?(천연두나 홍역 예방은 어떻게 합니까?)

112009 #1 아아. 옛날은 예방이 엇어서이. 그거 열.(옛날은 예방이 없었어. 그거 열.)

112009 @ 열.(열.)

112009 #1 홍역이 열이라. 그 열 버치민 죽는 애기도 잇잔아. 거 허당. 이젠 주사 딱딱 놔부난 그런 거 엇잔아. 옛날엔 그 예방주사가 엇언 이 우두이, 우리 어릴 땐 우두. 거 이제사 말허민 아마도 멘 직원덜 왕 놔줘실거라. 무신 물 닮은 소독 헤놔근에 이 저 칼 닮은 걸로 쌱쌱 열십ᄌᆞ로 쨍 하나허나 두 개허나 여섯 개허나 헹. 그거 왜냐허면이 그 소님ᄀᆞ라 마누라엔 헨 옛날 마누라. 그거 열 처지렌 그거 허는 거. 그거 막 열 버치는 거.(홍역이 열이라. 그 열 버치면 죽는 애기도 있잖아. 거 하다가. 이젠 주사 딱딱 놔버리니까 그런 거 없잖아. 옛날엔 그 예방주사가 없어서 우두, 우리 어릴 땐 우두. 이제야 말하면 아마도 면 직원들 와서 놔 줬을 거라. 무슨 물 닮은 소독 해놔서 이 저 칼 닮은 걸로 싹싹 열십자로 쨍 하나하나 두 개하나 여섯 개하나 해서. 그거 왜냐하면 그 소님보고 마누라라고 해서 옛날 마누라. 그거 열 처지라고 그거 하는 거. 그거 막 열 버치는 거.)

112009 @ 큰마누라, 즉은 마누라 이런 것도 이섯수과? 대별상이여? 소별상이여?(큰마누라, 작은마누라 이런 것도 있었습니까? '대별상'이다? '소별상'이다?)

112009 #1 거 옛날 말이주. 이젠 큰마누라가 어딧나. 그땐 무신 원장도 엇고 뭣도 엇곡 허난 심방 빌어단 할마님아 할마님아 이렇게만 헤여낫네.(거 옛날 말이지. 이젠 큰마누라가 어디 있나? 그땐 무슨 원장도 없고 뭣도 없고 그러니까 심방 빌어다가 할머님아. 할머님아. 이렇게만 했었네.)

112009 @ 마마렌 안헹 마누라렌 헷구나예?(마마라고 않고 마누라라고 했군요?)

112009 #1 소님이옌 허더라. 소님.(손님이라고 하더라.)

112009 @ 무섭긴 무서운 거주게.(무섭긴 무서운 거지.)

112009 #1 그 열게 열.(그 열게 열.)

112009 @ 꼼보 만들어부난.(곰보 만들어버리니까.)

112009 #1 게난게 이젠 다 예방주사 맞아부난 그런 거 하나도 엇어. 옛날엔 나는냥 고만이 내부난 열 버쳔, 열로 죽는 애기가 얼마나 하는 중 알아.(그러니까 이젠 다 예방주사 맞아버리니까 그런 거 하나도 없어. 옛날엔 나는 냥 가만히 내버리니까 열 버쳐서, 열로 죽는 애기가 얼마나 한 중 알아.)

112009 @ 그런 거 봐낫수과.(그런 거 봤었습니까.)

112010 @ 출산과 관련헤서 어떤 금기 사항이 있습니까? 아기 날 때는 금줄?(출산과 관련해서 어떤 금기 사항이 있습니까?)

112010 #1 거 아기 나사 허주. 아기 나기전인 안 허여. 애기 나면은 애기 낳당 죽은 사람 그런 사름도 방비허고, 또 몸 구친 사람, 그런 것도 방비허고.(거 아기 나야 하지. 아기 나기 전엔 안 해. 애기 나면 애기 낳다가 죽는 사람 그런 사람도 방비하고, 또 몸 구친 사람, 그런 것도 방비하고.)

112010 @ 세이레[136]옌 헤수과? 세이레?(세이레라고 했습니까? 세이레?)

112010 #1 세이레가 뭐야?(세이레가 뭐야?)

112010 @ 스물 하루까지는 조심허렌 헤가지고 이십일일 동안은 고셍헷다고 오지 못허게 한다든가. 이십일일?(스물 하루까지는 조심하라고 해가지고 이십일일 동안은 고생했다고 오지 못하게 한다든가. 이십일일?)

112010 #1 그건이, 그런 집이 잇어. 북작북작 허는 집은 그냥 내 불어. 사름이 오던가 말던가. 경헌디 그걸 조심허여야 해. 아이난 디는 그 아기 어멍이 막 약허고 핏내난 디이, 구진 것이 조차와. 거, 사람 죽은덴. 게믄 애기우일 가나 애기어멍 우일 가나. 경허니까 못 오게 선을 긋는 거. 건 잘 허는 거라, 옛날 어른덜.(그건, 그런 집이 있어. 북작북작 하는 집은 그냥 내버려. 사람이 오든가 말든가. 그렇게 한데 그걸 조심해야 해. 아이난 데는 그 아기어머니가 막 약하고 피내 난데, 궂인 것이 쫓아와. 거, 사람 죽는다고. 그러면 애기 우일 가나 애기 어머니 우일 가나. 그렇게 하니까 못 오게 선을 긋는 거. 건 잘하는 거라, 옛날 어른들.)

136) '세이레'는 아기가 태어난 후 스무하루동안 또는 스무하루가 되는 날로 대개 이 날 금줄을 거두며 이 날을 삼칠, 또는 삼칠일이라고 한다.

112010 @ 삼촌네 금줄 그런 건 안 달아봐수과? 아덜나면 고추 걸고, 숯 걸고, 또 소나무, 걸고 이런 거.(삼촌네 금줄 그런 건 안 달아봤습니까? 아들 낳으면 고추 걸고 숯 걸고 또 소나무 걸고 이런 거.)

112010 #1에구에구, 거 옛날 어른덜이 거여게. 옛날엔 아덜난에 지꺼젼 놈덜 이디 아덜 낫젠 자랑험으로 거 둘아멩.(에구에구, 거 옛날 어른들이 그래. 옛날엔 아들 나서 기쁜 남들 여기 아들 낳았다고 자랑함으로 거 달아매서.)

112010 @ 뭘 둘아메마씨? 아덜나면?(뭘 달아매요? 아들 낳으면?)

112010 #1 꼬치에, 숫에 헤여근에 것ᄀᆞ라 금줄이옌 허더라, 금줄. 저 올레에 사름 못 뎅기게.(꼬치에, 숯에 해서 것보고 금줄이라고 하더라, 금줄. 저 올레에 사람 못 다니게.)

112010 @ 제주도도 허엿구나.(제주도도 했구나.)

112010 #1 허여.(해.)

112010 @ 여자아이 나믄?(여자아이 나면?)

112010 #1 여자아이나 남자아이나 그 어멍이 약헌 덕분에.(여자아이나 남자아이나 그 어머니가 약한 덕분에.)

112010 @ 여자엔 고춘 안 달고?(여자엔 고추는 안 달고?)

112010 #1 아니 둘고.(아니 달고.)

112010 @ 소낭가진?(소나무 가진?)

112010 #1 소낭 가진 허는 사름이나 허고, 경 안허민 숯만 매는 사름은 숯만 매고. 거 애기 어멍 조름에 뭐 조차왕 애기신더레나 애기어멍신디 가카부덴 숫 매는 거.(소나무 가진 하는 사함이나 하고, 그렇게 안하면 숯만 매는 사람은 숯만 매고. 거 애기 어머니 뒤에 뭐 쫓아와서 애기에게나 애기어머니에게 갈까봐 숯 매는 거.)

112010 @ 삼촌은 태몽을 꾼다든가, 애기 날 때 숭 봣다든가 그런 건 어수과?(삼촌은 태몽을 꾼다든가, 애기 날 때 흉 봤다든가 그런 건 없습니까?)

112010 #1 무신 애기 나멍 숭보는 거 잇나?(무슨 애기 나면서 흉보는 거 있나?)

112010 @ 경허곡 물질헐 때 암만헤도 임신헤서 할 때는 힘들텐데.(그렇게 하고 물질할 때 암만해도 임신해서 할 때는 힘들 텐데)

112010 #1 막 나도록 해녀덜 ᄉᆞ뭇 바다에 가. 작업헤여.(막 나도록 해녀들 사뭇 바다에 가 작업해.)

112010 @ 막 죽도록 힘든 기억은 엇수과?(막 죽도록 힘든 기억은 없습니까?)

112010 #1 아니여. 바당에 들 땐 그런 거 엇어. 좀 숨은 바빠이.(아니야. 바다에 들 땐 그런 거 없어. 좀 숨은 바빠.)

112010 @ 바빠.(바빠.)

112010 #1 애기배믄 숨은 좀 바빠.(애기배면 숨은 좀 바빠.)

112010 @ 물옷도 안 맞잔아. 배불 땐.(물옷도 안 맞잖아. 배불 땐.)

112010 #1 아니 우린 배가 경 크지 아니 헤부난 그냥 입어. 그냥. 다른 사름덜은 이만이헤도 우린이 애기 배에 밴 줄도 몰라 배가. 밥 먹어도 몰르곡, 배가 바짝헤부난.(아니 우린 배가 그렇게 크지 안 해버리니까 그냥 입어 그냥. 다른 사람들은 이만해도 우

린 이 애기 배에 밴 줄도 몰라 배가. 밥 먹어도 모르고, 배가 바짝해 버리니까.)

혼례

112011 @ 구식 결혼식의 절차를 말씀헤 주십시오.(구식 결혼식의 절차를 말씀해 주십시오.)

112011 #1 옛날 결혼식은이, 가마, 가마 그.(옛날 결혼식은 이, 가마, 가마. 그.)

112011 @ 새각신?(새색신?)

112011 #1 새각신 모실 하인이옌 헌 쌍놈덜. 홍홍 허는 그사름덜은이 마당에 덕석페왕 밥 멕여. 쌍놈덜. 그런 사름덜 데려다근에 새각시. 그믄 우시가 쎈 사름 새각시 조름에 바짝 안조치민 이 그 놈덜 벨 말을 다 골아. 어느 ᄆᆞ을 조심헙서. 흥창흥창헴져 허멍 막 추접헌 말 ᄀᆞ난 그 우시가 딱 조차야 헤. 말 못 골게.(새색시 모실 하인이라고 헌 상놈들. 그 사람들은 이 마당에 덕석 펴서 밥 먹였어. 그런 사람들 빌어다가 새색시. 그러면 우시가 센 사람 새색시 뒤에 바짝 안 쫓으면 이 그 놈들 별 말을 다 말해. 어느 마을 조심하세요. 흥창흥창하네 하면서 막 추접한 말 하니까 그 상객이 딱 쫓아야 해. 말 못 하게.)

112011 @ 우시는 새각시 펜 친척이꽈?(상객은 새색시 편 친척입니까?)

112011 #1 새각시 허멍 우시도 아무나 못 가. 팔제 곶엉 이 각시 엇는 사름이나 서방 엇는 사름은 아이뒈고. 딱 제 혼불에 강 아기 나는 사름벳긴 안가. 그렇게 애기가 팔자 그르쳐분덴이.(새색시 하면서 우시도 아무나 못가. 팔자 곶어서 이 각시 없는 사람이나 서방 없는 사람은 아니 되고. 딱 제 '한불'에 가서 아기 낳은 사람밖엔 안가. 그렇게 애기가 팔자 그르쳐버린다고.)

112011 @ 으음.(으음.)

112011 #1 복 좋은 사름벳긔 아니 가.(복 좋은 사람밖에 아니 가.)

112011 @ 복 좋은 사람. 여자 집에 갑니까, 남자 집에 갑니까?(여자 집에 갑니까, 남자 집에 갑니까?)

112011 #1 여자 집으로 모시레 가지. 무신 남자 집으로 갈 말이냐게?(여자 집으로 모시러 가지. 무슨 남자 집으로 갈 말이냐?)

112011 @ 그렇지.(그렇지.)

112011 #1 가마를 아졍 강 새각시칩의 강 새각시 태와 아젼 남자 집의 들어오주.(가마를 가져서 가서 새색시 집에 가서 새색시 태워 가지고 남자 집에 들어오지.)

112011 @ 결혼식을 어떵헷수과? 삼촌.(결혼식을 어떻게 했습니까? 삼촌.)

112011 #1 우리?(우리?)

112011 @ 족두리?(족두리?)

112011 #1 그런 거 아니헨. 멘사포.(그런 거 아니했어. 면사포.)

112011 @ 멘사포 헷수과? 사진도 찍언?(면사포 했습니까? 사진도 찍었어요?)

112011 #1 그때 당시엔 사진이 어딧나. 그냥 걸엉가고 걸엉오고. 사진 찍는 사름도

원간 부자사람이나 하지. 보통 사람은 그런 거 안 헤.(그때 당시엔 사진이 어디있나? 그냥 걸어서 가고 걸어서 오고. 사진 찍는 사람도 원간 부자사람이나 하지. 보통 사람은 그런 거 안 해.)

112011 @ 게도 영 맞절허고 절차는 있었을 거 아니? 옛날식으로.(그래도 이렇게 맞절하고 절차는 있었을 거 아니? 옛날식으로.)

112011 #1 거 옛날식 허주이. 중간엔 그런 거 엇엇어. 멘사포만 씨영.(거 옛날식하지. 중간엔 그런 거 없었어. 면사포만 써서.)

112011 @ 닭 날리고 이런 건 엇언?(닭 날리고 이런 건 없었어요?)

112011 #1 그런 건 막 아주 옛날.(그런 건 막 아주 옛날.)

112011 @ 그냥 새각시만 데려가믄 끗?(그냥 새색시만 데려가면 끝?)

112011 #1 데려왕 끗이주게.(데려와서 끝이지.)

112011 @ 새각시 밥은?(새색시 밥은?)

112011 #1 그땐 곤쏠이 귀헤여. 그믄 통보리쌀에 폿에 밥을 헤영 곤밥이엔 헌 건 우에 혼숟가락만 더꺼.(그땐 흰쌀이 귀해. 그러면 통보리쌀에 팥에 밥을 해서 흰밥이라고 한 건 위에 한 숟가락만 덮어.)

112011 @ 새각시 밥에?(새색시 밥이요?)

112011 #1 아니 새각시는 완전히 곤밥 ᄒᆞ난 허고. 그냥 사름덜은 통보리쏠에 그 ᄇᆞ리쏠에 솔믄 밥에 우이 곤밥 더꺼근에.(아니 새색시는 완전히 흰밥 하니까 하고. 그냥 사람들은 통보리쌀에 삶은 밥에 위에 흰밥 덮어서.)

112011 @ 게난 새각시 곤밥 다 먹엇수과? 아이덜 ᄃᆞ려들지 안헨?(그러니까 새색시 흰밥 다 먹었습니까? 아이들 달려들지 안했어요?)

112011 #1 아이구, 아이구 그 새각시 앚은 방엔 아무도 아이 가. 복좋은 할망덜 ᄃᆞᆯ아당 앚지주. 경허믄 할망덜이 대관상이옌 허주. 대관상. 새각시 ᄀᆞ치 출령 새각시 ᄌᆞ끗디 아진 할망. 게믄 손지덜 가민 이레 오라. 이레 오라. 헤영 당신 밥사발에 꺼 혼수까락씩 영.(아이구, 아이구 그 새색시 앉은 방엔 아무도 아니 가. 복 좋은 할머니들 데려다가 앉히지. 그러면 할머니들이 대관상이라고 하지. 대관상. 새색시 같이 찰려서 새색시 곁에 앉은 할머니. 그러면 손자들 가면 이리 오라. 이리 오라. 해서 당신 밥사발에 꺼 한 숟가락씩 이렇게.)

112011 @ 아아.(아아.)

112011 #1 ᄂᆞᆷ은 아이간다게. 할망네 이신 아이덜이 가주. ᄂᆞᆷ이가 어떵 헹 그디 가나. 게난 아이덜은 그 할망꺼 얻으믄 할망은 당신 먹도 안허고 손지덜 다 주고. 다 거려줘 불어.(남은 아니 간다. 할머니네 있는 아이들이 가지. 남이가 어떻게 해서 거기 가나.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 할머니 거 얻으면 할머니는 당신 먹지도 안하고 손자들 다 주고. 다 떠 줘버려.)

112011 @ 새각신 다 먹어?(새색신 다 먹어?)

112011 #1 새각시? 잘 안먹어. 혼 반 먹는 사름도 잇고, 두수까락쯤 먹는 사름도 잇고.(새색시? 잘 안 먹어. 한 반 먹는 사람도 있고, 두 숟가락쯤 먹는 사람도 있고.)

112011 @ 게민 아이덜 ᄎᆞ진게게.(그러면 아이들 차지네요.)

112011 #1 어떤 새각시덜은 놈움치게 밥 잘먹는 새각시도 서. 부끄러왕 어떵 입을 놀려고. 난 이녁신더레 ᄇᆞ램시카부덴이 밥도 아이 먹엇저. 나신디레만 다 ᄇᆞ렴시카부덴. 야, ᄋᆞ막ᄋᆞ막 먹는 사름 잇어. 아이 다 쳐다보는디 어떵 부끄러왕은에.(어떤 새색시들은 남 웃끼려고 밥 잘 먹는 새색시도 있어. 부끄러워서 어떻게 입을 놓으려고. 난 이녁에게 볼까봐 밥도 아이 먹었다. 나에게만 다 보고 있을까봐. 이렇게 'ᄋᆞ막ᄋᆞ막' 먹는 사람 있어. 아이 다 쳐다보는데 어떻게 부끄러워서.)

112011 @ 삼촌은 어디 와흘인디, 어떵 조천에도 가지 않고,(삼촌은 어디 와흘인데, 어떻게 조천에도 가지 않고.)

112011 #1 와흘은 그때 사삼사건에 불 태와분디 집이 잇나? 다 조천서 내려왓지.(와흘은 그때 사삼사건에 불 태워버린데 집이 있나? 다 조천서 내려왔지.)

112011 @ 게난. 어디서 결혼헌 거?(그러니까. 어디서 결혼한 거?)

112011 #1 조천서.(조천서.)

112011 @ 그때까진 시어머니 시아버지 이서시난예.(그때까진 시어머니 시아버지 있었으니까요.)

112011 #1 어어, 다 살앗지.(어어, 다 살았지.)

112011 @ 그믄 거기서 하룻밤 장 또 일로 완? 메칠 잇단?(그러면 거기서 하룻밤 자서 또 일로 왔어? 며칠 있다가?)

112011 #1 경 헤실 거라. 남자집의서 ᄒᆞ룻밤 자아잔 뒷날은 새각시칩.(그렇게 했을 거라. 남자집의서 하룻밤 자고서 뒷날은 새색시집.)

112011 @ 말 탕 옵니까? 새시방은?(말 타서 옵니까? 새신랑은?)

112011 #1 아니야, 물 탕 오는 집인 막 아주 옛날이주. 옛날엔 막 물 타근에 살랑살랑살랑.(아니야, 말 타서 오는 집엔 막 아주 옛날이지. 옛날엔 막 말 타서 살랑살랑살랑.)

112011 @ 옛날 제주도에도 막 창구멍 뚤렁 보곡 허는 것덜이 이서신가? 하하(옛날 제주도에도 막 창구멍 뚫어서 보고 하는 것들이 있었는가?)

112011 #1 거 잇어. 옛날에. 새시방 새각시 밤에 무시거옌 ᄀᆞᆫ는 거 든젠 막 창호지로 막 터주왕 영 헹 보잔아.(거 있어. 옛날에. 새신랑 새색시 밤에 뭐라고 말하는 는 거들을 려고 막 창호지로 막 터져서 이렇게 해서 보잖아.)

112012 @ 중매에 대헤서 말씀혜 주십시오. 중신이옌 헙니까?(중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중신이라고 합니까?)

112012 #1 중진애비.(중신아비.)

112012 @ 중진애비?(중신아비?)

112012 #1 중매 잘허민 술이 삼 잔이고 못허민 삐얌다가리 세 대고. 거짓말헷당.(중매 잘하면 술이 삼 잔이고 못하면 뺨따귀 세 대고. 거짓말 했다가.)

112012 @ 삐얌다가리 맞는다고.(뺨따귀 맞는다고.)

112012 #1 삐얌 세 번. 중진아비 잘허면 술이 삼 잔, 석 잔 먹곡.(뺨 세 번. 중신아

비 잘하면 술이 삼 잔, 석 잔 먹고.)

112012 @ 석잔.(석잔.)

112012 #1 중진 못허당은 삐얌 세 대 맞는덴. 귀쌰대기.(중신 못하다가 뺨 세 대 맞는다고. 귀싸대기.)

112012 @ 히히 중진아비가 잇어낫수과?(히히 중신아비가 있었습니까?)

112012 #1 우린 이 새시방이영 얼굴도 아이봔 중매말만 들엉 헤세. 새시방 얼굴도 아이봔. 옛날엔 이 중매말만 듣주 새시방 안봐. 겐디 자이네 아방은 날 보고렌 헤라. 야 사람 아이봉 누게가 결혼헌덴 헤니, 경 골안게. 남자가 이. 난 이 그런 거 저런 거 ᄀᆞ리지 안헤. 자긴 다 보고렌. 보지도 안헹 장개간덴 누게가 골아넨. 또 우린 그때 이 막 한창일 때 훈련 받앗잔아. 게난 그 흑교 마당에서 본 거주게. 남자가. 난 어느 남잔 중도 몰르곡, 그 남잔 알안에. 막 훈련허는 것도 보고 막 허고렌.(우린 이 새신랑이랑 얼굴도 아니 보고 중매말만 듣고 했어. 새신랑 얼굴도 아니 봤어. 옛날엔 이 중매 말만 듣지. 새신랑 안 봐. 그런데 쟤네 아버지는 날 봤다고 해라. 야, 사람 안 보고 누가 결혼한다고 하니? 그렇게 말하더니. 남자가. 난 이 그런 거 저런 거 가리지 않아. 자긴 다 봤다고. 보지도 않고 장가간다고 누가 말하느냐고. 또 우린 그때 이 막 한창일 때 훈련 받았잖아. 그러니까 그 학교 마당에서 본 거지. 남자가. 난 어느 남잔 줄도 모르고, 그 남잔 알아서. 막 훈련하는 것도 보고 막 했다고.)

112012 @ 그렇구나.(그렇구나.)

112012 #1 구늉도 다 잇어, 나원.(궁흉도 다 있어. 나 원.)

112013 @ 막편지에 대헤서 말씀헤 주십시오.('막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12013 #1 막편지[137]가 무시거라?('막편지'가 뭐라?)

112013 @ 결혼허기 전에 마지막으로 결혼허겠습니다. 헹 보내는 거.(결혼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결혼하겠습니다. 해서 보내는 거.)

112013 #1 아 문우장.(아 '문우장'.)

112013 @ 문호장?('문호장'?)

112013 #1 그거이 결혼 헹 씨집장게 아이 가가믄 그거 춪으레 막 오느네. 문우짱 춪이레.(거 결혼해서 시집장가 아니 가가면 그거 찾으러 막 오잖아. '문우장' 찾으러.)

112013 @ 결혼 안 허켄 허믄?(결혼 안 하겠다고 하면?)

112013 #1 결혼 안 살며는. 거 춪이레 와.(결혼 안 살면. 거 찾으러 와.)

112013 @ 뭐 이혼 식으로?(뭐 이혼 식으로?)

112013 #1 그 여자가 안 살자고 헤가믄 이 남자가 거 춪이레 와. 거이, 어느 날짜 결혼허는 거 다 약속, 계약서지. 경허민 그 새각시 도망해 불면은 새시방이 거 춪이레 와.(여자가 안 살자고 해가면 이 남자가 거 찾으러 와. 거 이, 어느 날짜 결혼하는 거 다 약속, 계약서지. 그렇게 해서 그 새색시 도망가 버리면 새신랑이 거 찾으러 와.)

112013 @ 주위에서 그런 거 봐낫구나예. 막편지.(주위에서 그런 거 봤었군요. '막편

137) '막편지'는 혼인하기 전에 신랑쪽에서 정식으로 신부의 집을 찾아갈 때에 가지고 가는 의례적인 문서를 말한다.

지’.)

112013 #1 우리 댄 아년디 우리 후대에. 우리 이모님 헐 때 봐낫다.(우리 대엔 안 했는데 우리 후대에. 우리 이모님 할 때 봤었다.)

112013 @ 막편지 받으면 여자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영 결혼헤라 허는 거렌.(‘막편지’ 받으면 여자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랑 결혼해라 하는 거라고.)

112013 #1 그게 거 심방 덕담에 그거 잇어이. 그건 애기 엇일 때 불도굿헐 때 그런 거 허주. 애기 내와주렌. 그거 ᄌᆞ청국이 얘기 알아져? 그게 옛날에 비단을 짜는디, 비단을 살랑살랑 막, 그 문 도령이 다른 디 결혼허젠 헌디 그 ᄌᆞ청국이가 어떵헤신곤 허난에 어멍, 아방이 사는데 애기가 엇어. 애기 엇이난 애기 ᄒᆞ나라도 이서야 우리가 사는 맛이 좋을건디 이렇게 헹 어떵허리 허난에, 게건 경허렌 허난 아방은 ᄌᆞ청허영 낫젠 ᄌᆞ청국이라 지으렌 허고, 어멍은 또 뭐옌 ᄀᆞᆯ앗젠 헤라마는. 게난 아방이 이겻주. ᄌᆞ청국이옌 헤연에. 겡 그 아방이 지은 거. 게난 그 ᄌᆞ청국이가 어떠해신곤 허난, 아까 하늘옥황 문 도령인가 누겐가 이제 장개가는디 비단을 달캉달캉달캉 그 수 노멍 짜는디, 그 ᄌᆞ청국이가 어떵헨 부모의 눈 벳긔 나신곤 허난, 그 ᄆᆞᆯ 아홉 마리, 쉐 아홉 마리 ᄒᆞ루에 먹는 장남이 잇어. 것ᄀᆞ라 정이 엇인 정수냄이. 경허난 그것이 이젠 주젱이 씌연 앚아둠서 ᄌᆞ청국이 장 거리레 가믄 그레 막 쳐다보고, 막 하도 헤가난, 어멍, 아방 몰르게 게걸랑 니허고 나허곡 구경가게. 게난 얼싸 좋다 헌 거 아냐? 얼싸 좋다 헹 가서이. 가난 이젠이, 밤의 눅젠 허민 그 여자가 머릴 씬 거라. 밤이 눅젠 허민 미여지벵뒤[138]서 어떵 자냐고, 집이라도.(그게 심방 덕담에 그거 있어. 그건 애기 없을 때 불도굿[139]할 때 그거 하지. 애기 내와주라고. 그거 자청국이 얘기 알아? 그게 옛날에 비단을 짜는데, 비단을 살랑살랑 막, 문 도령이 다른 디 결혼하려고 하는데 그 자청국이가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사는데 아기가 없어. 아기 없으니까 아기 하나라도 있어야 우리가 사는 맛이 좋을 건데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리 하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아버지는 자청해서 낳았다고 자청국이라 지으라고 하고, 어머니는 또 뭐라고 말했다고 하더라만.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겼지. 자청국이라고 해서. 그래서 그 아버지가 지은 거. 그러니까 그 자청국이가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아까 하늘옥황 문 도령인가 누군가 이제 장가가는데 비단을 달캉달캉달캉 그 수 놓으면서 짜는데, 그 자청국이가 어떻게 해서 부모의 눈 밖에 났는가 하니까, 그 말 아홉 마리, 소 아홉 마리 하루에 먹는 장남이 있어. 것보고 정이 없는 정수남이. 그렇게 하니까 그것이 이젠 주저리 써서 앉아서 자청국이 장 뜨러 가면 거기 막 쳐다보고, 막 하도 해가니까, 어머니, 아버지 모르게 그러면 너하고 나하고 구경 가자. 그러니까 얼싸 좋다 한 거 아냐? 얼싸 좋다 해서 갔어. 가니까 이젠, 밤에 누우려고 하면 그 여자가 머릴 쓴 거라. 밤에 누우려고 하면 ‘미여지벵뒤’서 어떻게 자냐고, 집에라도.)

112013 @ 미여지벵뒤?(‘미여지벵뒤’?)

112013 #1 미여지벵뒤. 그 산에 가민 벵뒤 잇잔아. 집도 아무것도 엇고 허난 미여지

138) ‘미여지 벵뒤’는 아무 거침없이 트인 널따란 벌판을 말한다.
139) ‘불도굿’은 ‘불도맞이’굿을 말하며 제주도에서 삼승 할머니를 맞아들여 자식의 출생과 양육을 비는 굿을 말한다.

벵뒤.(‘미여지벵뒤’. 그 산에 가민 들판이 있잖아. 집도 아무것도 없고 하니까 ‘미여지벵뒤’.)

112013 @ 여기 일상적으로 미여지벵뒤엔 쓰는 말이구나예?(여기 일상적으로 ‘미여지벵뒤’라고 쓰는 말이군요?)

112013 #1 그렇지. 역ᄉᆞ가.(그렇지. 역사가.)

112014 @ 이바지에 대헤서 말씀헤 주십시오. 뭘 가정 갑니까? 이바지.(이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뭘 가져서 갑니까? 이바지.)

112014 #1 이바지는이.(이바지는.)

112014 @ 여자가 가정 가는 거우꽈? 남자가 가정가는 거우꽈?(여자가 가져가는 겁니까? 남자가 가져가는 겁니까?)

112014 #1 남자가 가정 가지. 그땐 광목이영 미녕 ᄒᆞᆫ 필에 그 각서 이, 결혼허는 날짜, 문호장, 그거 헤다가 빨강한 포에 싸. 싸근에이 그 호옹! 헐 때 홍세 지는 여자가 잇어. ᄆᆞᆯ 탕 그 여자가 홍셀 지여. 게민 내리민이, 그 홍세를 받는 사름이 잇져.(남자가 가져 가지. 그땐 광목이랑 무명 한 필에 그 각서, 결혼하는 날짜, ‘문호장’, 그거 해다가 빨강한 포에 싸. 싸서 그 호옹!할 때 홍세 지는 여자가 있어. 말 타서 그 여자가 홍셀 져. 그러면 내리면, 그 홍세를 받는 사람이 있지.)

112014 @ ᄆᆞᆯ 타는 거 남자가 타는 게 아니고?(말 타는 거 남자가 타는 게 아니고?)

112014 #1 여ᄌᆞ. 여자가 타? 여자가 그 빨강헌 봇 지여아졍.(여자. 여자가 타? 여자가 그 빨간 봇 지여가지고.)

112014 @ 무사지?(왜지?)

112014 #1 게민 그 새각시칩의 져가면은 거기서 홍세 받는 또 남자가 잇서. 막 복존 사람. 복 엇인 사름은 안 ᄆᆞ까. 경 그 사름이 받앙. 받으민 이 그 홍세 펜은 여자 펜에서가 가. 그 들러리로 가는 것ᄀᆞ라 뭐옌 ᄀᆞᆯ아낫저마는 잊어 불언. 겡 가민 홍센 그 홍세 헌 사름이 남자가 딱 받안 문전 앞이 딱 싸. 방에 들어가는 문전 앞이 딱 사면은 그때는 이젠 상을 영 마주 대여. 마주대면은 배운 사람은 걸 알앙 허는디 못 배운 건 이레 젓억 저레 젓억 허민 창피보지. 게난 그 사름이 탁 그 홍셀 노면 이제 영 헤영 받앙 허민 또 홍셀 받는 사름이 잇어. 그 안에. 상 받앙. 경 헹 그 문전에 가근에 절 시켜. 경 헹 들여놔.(그러면 그 새 색시집에 져서 가면 거기서 홍세 받는 또 남자가 있어. 막 복 좋은 사람. 복 없는 사람은 안 마쳐. 그렇게 그 사람이 받아서. 받으면 이 그 홍세 편은 여자 편에서가 가. 그 들러리로 가는 것보고 뭐라고 말했다만 잊어버렸어. 그렇게 가면 홍센 그 홍세 한 사람이 남자가 딱 받아서 문전 앞에 딱 싸. 방에 들어가는 문전 앞에 딱 서면 그때는 이젠 상을 이렇게 마주 대. 마주 대면은 배운 사람은 걸 알아서 하는데 못 배운 건 이리 젓고 저리 젓고 하면 창피하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탁 그 홍셀 놓으면 이제 이렇게 해서 받아서 하면 또 홍셀 받는 사람이 있어. 그 안에. 상 받아서. 그렇게 해서 그 문전에 가서 절 시켜. 그렇게 해서 들여놔.)

112014 @ 문전에 두 번?(문전에 두 번?)

112014 #1 ᄒᆞᆫ 번허지. 무신 죽은 사름이 두 번 허주, 산 사름은 ᄒᆞᆫ번. 거 다 배와.

안 배왓다근 이 산 사름신디 두 번허민 실수라. 산 사름은 무조건에 혼번.(한 번하지. 무슨 죽은 사람이 두 번 하지. 산 사름은 한번. 거 다 배워. 안 배웠다가 이 산 사람에게 두 번하면 실수라. 산 사름은 무조건에 한 번.)

112014 @ 문전에 성 이시믄 그 사름안티 절허는 거로구나.(문전에 서서 있으면 그 사름한테 절하는 거로구나.)

112014 #1 절 받젠 그디 잇어. 거민 절 헤여. 이제 사둔을 맺이는 거라. 그 사름 그 사름. 겡 맺엉 절 헤여근에 성통명 해연 새각시 ᄉᆞ춘이믄 ᄉᆞ춘이우다, 육춘이믄 육춘이우다, 혜영 성통명혜영 우시 들어가는 방 ᄯᅳ루 출려.(절 받으려고 거기 있어. 그러면 절해. 이제 사돈을 맺는 거라. 그 사람 그 사람. 그렇게 맺어서 절해서 성통명해서 새색시 사촌이면 사촌입니다, 육촌이면 육촌입니다, 해서 성통명해서 우시 들어가는 방 따로 차려.)

112014 @ 우시, 우시.(위요, 위요.)

112014 #1 응. 경혜영 허는 디 새각시 펜에 오라방 강 누이 주어동 오젠 허민 막 울멍 온뎅 헤여. 섭섭혜영. 그집의 주어동게 빈차 오젠 해난. 게난 뚤 아진 사름은 막 울멍 오곡, 아덜집읜 지쁜덴. 게난 여존 나민 나는 날부떠 우 는게 죽는 날ᄁᆞ지 울어. 복이나 조민 허곡 복이나 안 조민.(응. 그렇게 해서 하는데 새색시 편에 오라비 가서 누이 줘두고 오려고 하면 막 울면서 온다고 해. 섭섭해서. 그 집의 주어두고빈채 오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딸 가진 사람은 막 울면서 오고, 아들집엔 기쁘다고. 그러니까 여잔 나면 나는 날부터 우는 게 죽는 날까지 울어. 복이나 좋으면 하고 복이나 안 좋으면.)

112014 @ 게난 이바지렌 헌 건 남자집서 여잣 집의 가져가는 거?(그러니까 이바지라고 한 건 남자 집에서 여자 집에 가져가는 거?)

112014 #1 어, 건 미녕.(어, 건 무명.)

112014 @ 뭐, 뒈지고기 한 다리여 이런 건 엇어?(뭐, 돼지고기 한 다리여 이런 건 없어?)

112014 #1 그거는 둣날 사둔 잔치헌 둣날, ᄃᆞᆺ다리 하나에 이스루 술 한펭에, 쏠 한 말에 경 헹 정 가.(그거는 뒷날 사돈 잔치한 뒷날, 돼지다리 하나에 '이스루' 술 한 병에, 쌀 한 말에 그렇게 해서 져서 가.)

112014 @ 건 이바지가 아니고 뒷날?(건 이바지가 아니고 뒷날?)

112014 #1 뒷날. 잔칫날에 무시거 거 ᄒᆞ느니?(뒷날. 잔칫날에 뭐 거 하니?)

112014 @ 이바지는 잔칫날.(이바지는 잔칫날.)

112014 #1 잔치 넘엉. 거 사돈이 집 알아보레 가는 거지. 이제 그런 거, 저런 거, 엇어.(잔치 넘어서. 거 사돈이 집 알아보러 가는 거지. 이제 그런 거, 저런 거, 없어.)

112015 @ 혼수에 대헤서 말씀혜 주십시오. 남자 집에 들어가니까 여자가 뭘 가경가지예?(혼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남자 집에 들어가니까 여자가 뭘 가져서 가지요?)

112015 #1 여ᄌᆞ이 이불.(여자 이불.)

112015 @ 이불 혼 채?(이불 한 채?)

112015 #1 옛날은 흔 채주게. 이불 두 채가 어딧나? 이불 ᄒᆞ나에 베게 진 진헌게 ᄒᆞ나. 둘이영 베게. 베게 진 진헌 거 ᄒᆞ나이 헤아졍. 부젯칩인이 이불 두 개 노메. 부젯칩 산건이. 가난헌 사름덜이 이불 흔 채허곡 베게 이만이 헤여. 진진헹 둘이 ᄀᆞ찌 눕곡. 에이구, 나 베게 봐 가민.(옛날은 한 채지. 이불 두 채가 어디 있나? 이불 하나에 베게 길디긴 거 하나. 둘이랑 베게. 베게 긴 긴한 거 하나 해서. 부자 집에는 이불 두 개 놔. 부잣집 산 건. 가난한 사름들이 이불 한 채하고 베게 이만큼 긴긴해서 둘이 같이 눕고. 에이구, 나 베게 봐 가면.)

112015 @ 재밋다예.(재밌네요.)

112015 #1 이만이 혀, 꼭 이만이. 지레기 이불광 ᄀᆞ따. 둘이 ᄀᆞ찌 누렌. 베게 하나.(이만큼 해, 꼭 이만큼. 길이 이불과 같아. 둘이 같이 누우라고. 베게 하나.)

112015 @ 게난 삼촌은 그 하나짜리 베엉 살아수과?(그러니까 삼촌은 그 하나짜리 베어서 살았습니까?)

112015 #1 아니. 우린 두 개. 거 옛날이여게 옛날.(아니. 우린 두 개. 거 옛날이여 옛날.)

112015 @ 이불 한 채하고 또? 요강이나.(이불 한 채하고 또? 요강이나.)

112015 #1 이불 흔 채에, 요강에, 우리 옛날엔 이 거울, 경대 이 경대 대신 영 경대 아니 난 때난 이 요만이헌 ᄌᆞ락 돋은 거울에 무신 낭 얼레기 그것에 정헨 놧더라.(이불 한 채에, 요강에, 우리 옛날엔 이 거울, 경대 이 경대 대신 이렇게 경대 안 난 때니까 이 요만큼한 자루 돋은 거울에 무슨 나무 빗 그것에 그렇게 해서 놨더라.)

112015 @ 솟이나 이런 건 안허고 요강만? 요강에도 뭐 담앙간덴 헙디다.(솥이나 이런 건 안하고 요강만? 요강에도 뭐 담아서 간다고 헙디다.)

112015 #1 쏠 담앙 요강이? 거 무사 요강 노는 중 알암나? 새각시가 저 남군 새각씰 헤여오게 뒀어. 경허민 거 오줌 ᄆᆞ류민 가마에서 우줌누렌 요강 노는 거마씨.(쌀 담아서 요강이? 거 왜 요강 넣는 줄 아나? 새색시가 저 남군 새색시를 해서 오게 됐어. 그렇게 하면 거 오줌 마려우면 가마에서 우줌 누라고 요강 넣는 거요.)

112015 @ 그렇구나.(그렇구나.)

112015 #1 그렇지. 무신 쏠 담앙 갈 말이라? 거 새각시 가마 소곱에. 그 가까운딘 안 놓고 먼 디 놘. 오줌 ᄆᆞ류면 그것에 누렌. 겡 새각신 메칠 밥 아니먹주게. 오줌 눠지 카부덴.(그렇지. 무슨 쌀 담아서 갈 말이니? 거 새색시 가마 속에. 그 가까운 덴 안 놓고 먼 데 놨어. 오줌 마려우면 그것에 누라고. 그래서 새색신 며칠 밥 안 먹지. 오줌 눠질까봐.)

112016 @ 예장에 대헤서 말씀헤 주십시오.(예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12016 #1 그 예장이 그거지.(그 예장이 그거지.)

112016 @ 그거 안 가져왓져. 뎃져. 씨집이선 경허지 안허여?(그거 안 가져왔다. 가져왔다 시집에선 그렇게 하지 않아?)

112016 #1 그거 허면 이불안 허는 사름은 이불안 허곡, 옛날엔 미녕을 그 중간엔 광목, 광목허곡, 발레영 이불안허곡, 또 보선. 이제 ᄀᆞ뜨민 양말 산 허는디 그걸로 보선 주

어가 씨집이. 씨누이, 시아주방네.(그거 하면 이불안 하는 사람은 이불안 하고, 옛날엔 무명을 그 중간엔 광목, 광목허곡, 바래어서 이불안허곡, 또 보선. 이제 같으면 양말 산 하는데 그걸로 보선 기워 가. 시집에. 시누이, 시아주버니네.)

112016 @ 아, 예장이.(아, 예장이.)

112016 #1 응. 여자는 다 보선으로, 그 시어멍이여 허멍 그 수정에 다 광목으로.(응. 여자는 다 보선으로, 그 시어머니여 하면서 그 숫자 다 광목으로.)

112016 @ 사돈에 팔촌까지 다 주는구나.(사돈에 팔촌까지 다 주는구나.)

112016 #1 게난 그 시어멍이 멧 갤 주어오라 헹 연락을 헤여.(그러니까 그 시어머니 몇 갤 주어오라 해서 연락을 해.)

112016 @ 게도 잘도 소박허다예. 보선만?(그래도 잘도 소박하네요. 보선만?)

112016 #1 보선.(보선.)

112016 @ 치마저고리는 아니고?(치마저고리는 아니고?)

112016 #1 아니. 보선. 거 선사, 선사.(아니. 보선. 거 선사, 선사.)

112016 @ 지금 ᄀᆞ트민 중간에 이불로 헷수게.(지금 같으면 중간에 이불로 했습니다.)

112016 #1 이불 헌디 그땐 보선, 보선.(이불 할 때 그땐 보선, 보선.)

112016 @ 그믄 거 누가 만들어? 돈 줭 맡경?(그러면 거 누가 만들어? 돈 줘서 맡겨서?)

112016 #1 아니. 그 허는 사름덜 잇지. 보선허는 사름덜. 옛날엔 미싱이 이서서?(아니. 그 하는 사람들 잇지. 보선하는 사람들. 옛날엔 재봉틀이 있었어?)

112016 @ 옛날엔 예단이 보선이로구나.(옛날엔 예단이 보선이로구나.)

112016 #1 광목, 광목. 그걸로 이젠 새각신 보선 줘가메.(광목, 광목. 그걸로 이젠 새색신 보선 줘 가.)

112016 @ 잘도 소박허다예.(잘도 소박하네요.)

112016 #1 에구 야, 이런 양말 막 ᄀᆞ진 거 신어? 막 터지곡. 이거 우의 이것만 ᄀᆞ지민 만날 주멍 입어. 주멍 에이고. 만날 양말 주어.(에구 야, 이런 양말 막 멀쩡한 거 신어? 막 터지고. 이거 위에 이것만 멀쩡하면 매일 기우면서 입어. 기우면서 에이고. 맨날 양말 주어.)

112017 @ 가문잔치에 대헤서 말씀헤 주십시오. 가문잔치는 언제 허는 것꽈?('가문잔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가문잔치'는 언제 하는 겁니까?)

112017 #1 가문잔치는 낼 잔치헐 때 오널 저녁에.(가문잔치는 낼 잔치할 때 오늘저녁에.)

112017 @ 저녁에 하는 거?(저녁에 하는 거?)

112017 #1 돗베설 숢아놓고 무신 궤기 썰단 주시레기나 쟁반에 놔근에 것이 가문잔치주.(돼지창자 삶아놓고 무슨 고기 썰다가 찌꺼기나 쟁반에 놔서 것이 '가문잔치'지.)

112017 @ 게민 그때도 마을 사람덜 많이 옵니까? 도와주레도 오고?(그러면 그때도 마을 사람들 많이 옵니까? 도와 주러도 오고?)

112017 #1 응. 올 만헌 사름은 다 오지. 권당이.(응. 올 만한 사람은 다 오지. 권당이.)

112017 @ 게민 부주는 가문잔칫날 헙니까? 다음날 헙니까? 동네 사람덜.(그러면 부주는 가문잔칫날 합니까? 다음날 합니까? 동네 사람들.)

112017 #1 잔칫날 헐 테주. 이제는 미릇 허는 디, 그때는 잔치날사 앗아가더라.(잔칫날 할 테지. 이제는 미리 하는데, 그때는 잔치날에야 가져가더라.)

112017 @ 가문잔칫날?(가문잔칫날?)

112017 #1 가문잔치 듯날 잔치 아냐. 그날.(가문잔치 뒷날 잔치 아냐. 그날)

112017 @ 게믄 가문잔칫날도 가고 잔칫날도 갑니까? 도와주레.(그러면 가문잔칫날도 가고 잔칫날도 갑니까? 도와주러.)

112017 #1 권당게. 권당덜은. 놈은 안 가. 친척덜만.(친척. 친척들은. 남은 안가. 친척들만.)

112017 @ 게믄 돗베설 헹 친척덜이 먹는구나.(그러면 돼지창자 해서 친척들이 먹는구나.)

112017 #1 그거 궤기 썰안 주시레기. 그거 허주게.(그거 고기 썰어서 찌꺼기. 그거 하지.)

112017 @ 그문 진짜 잔치는.(그러면 진짜 잔치는.)

112017 #1 진짜잔치는 뒈지 너불너불 썬 거.(진짜잔치는 돼지 너불너불 썬 거.)

112017 @ 몸국 이런 거?(모자반국 이런 거?)

112017 #1 몸국은 그거 가문잔치예 숢앙 내놓는 거.(모자반국은 그거 가문잔치에 삶아서 내놓는 거.)

112017 @ 잔치에는 무싱 걸로 대접헙니까?(잔치에는 무슨 걸로 대접합니까?)

112017 #1 두부. 두부에 돗궤기에 썰어놔근에.(두부. 두부에 돼지고기에 썰어놔서.)

112017 @ 국은?(국은?)

112017 #1 국으로. 메역 아니 앗아 뎅겨.(국으로. 미역 안 갖고 다녀.)

112017 @ 돗궤기 국?(돼지고기 국?)

112017 #1 하여튼 잔칫날은 메역 아니앗아 뎅겨.(하여튼 잔칫날은 미역 안 갖고 다녀.)

112017 @ 메역은 안 써.(미역은 안 써.)

112017 #1 닝끼려분덴.(미끄러져버린다고.)

112017 @ 아, 닝끼려분덴. 제삿날은 쓰고예?(아, 미끄러져버린다고. 제삿날은 쓰고요?)

112017 #1 제삿날은 쓰지.(제삿날은 쓰지.)

112017 @ 몸은 써도예.(모자반은 써도요.)

112017 #1 몸은 가문잔치에 놓는 거. 잔칫날은 몸 안허곡. 두부에 돗궤기 멧 점 놔근에 국 끌려.(모자반은 가문잔치에 노는 거. 잔칫날은 모자반 안하고. 두부에 돼지고기 몇 점 놔서 국 끓여.)

112017 @ 아아.(아아.)

112017 #1 아메도 뻬 딸린 물에 그것에 놓는 것 닮아.(아마도 뼈 달인 물에 그것에 놓는 것 닮아.)

112018 @ 우시에 대헤서 말씀헤 주십시오. 이바진 뭐고? 우신 뭐라?(위요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바진 뭐고? 위요는 뭐라?)

112018 #1 우시는.(위요는.)

112018 @ 데련 간사람?(데리고 간 사람?)

112018 #1 새각시 조름에 우시가 가지.(새색시 뒤에 위요가 가지.)

112018 @ 잔칫날 오는 거지예? 우시가? ᄀᆞ치 앉앙 밥먹고.(잔칫날 오는 거지요 ? 우시가? 같이 앉아서 밥 먹고.)

112018 #1 우시 간 사름은 뚠 방에 앚져.(위요 간 사람은 딴 방에 앉혀.)

112018 @ 음.(음.)

112018 #1 새각시는 큰방에 펭풍 쳥 앚고, 또 그디 복존 할망덜.(새색시는 큰방에 평풍 쳐서 앉고, 또 거기 복 좋은 할머니들.)

112018 @ 음.(음.)

112018 #1 당할망이나 시할망이나 그런 할망덜 앚져.(당할머니나 시할머니나 그런 할머니들 앉히고.)

112018 @ 음. 여자들만? 남자도 오지예?(여자들만? 남자도 오지요?)

112018 #1 남잔 우시 가민 뚠 방 출려.(남잔 위요 가면 딴 방 차려.)

112018 @ 아.(아.)

112018 #1 여자 돌레 간 사름덜이 우시 잇어이.(여자 데리러 간 사람들이 위요 있어.)

112018 @ 음.(음.)

112018 #1 그 사름은 새각시 방에.(그 사람은 새색시 방에.)

112018 @ 친구나 이런 사람들?(친구나 이런 사람들?)

112018 #1 친구나 우시 ᄀᆞ치 돌레 간 사름덜이 잇어.(친구나 위요 같이 데리러 간 사람들이 있어.)

112018 @ 음.(음.)

112018 #1 그런 사름은 이제 새각시방에.(그런 사름은 이제 새색시 방에.)

112019 @ 대반이나 중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대반이나 중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12019 #1 아, 대방이 그놈의 방이주게.(아, 대방이 그놈의 방이지.)

112019 @ 대반, 중반?(대반, 중반?)

112019 #1 고기 주는 잔칫날, 대반상이옌 헌건 잔칫날 멕이는 것ᄀᆞ라 대반상이옌 허곡.(고기 주는 잔칫날, 대반상이라고 한 건 잔칫날 먹이는 것보고 대반상이라고 하고.)

112019 @ 아아.(아아.)

112019 #1 할망덜. 할망덜 대반상.(할머니들. 할머니들 대반상.)

112019 @ 새각시에 할망?(새색시에 할머니?)

112019 #1 응.(응.)

112019 @ 같이 간 할망 우시?(새색시에 할머니? 같이 간 할머니 위요?)

112019 #1 아니 우시 간 할망이 누게가 잔칫날 누게가 사돈칩의 할망이 가느니? 그 이녁칩의.(아니 위요 간 할머니가 누가 잔칫날 누가 사돈집의 할머니가 가니? 그 자기집의.)

112019 @ 아, 남편, 신랑의 새시방의 할망? 새시방 쪽에?(아, 남편, 신랑의 새신랑의 할머니? 새신랑 쪽에?)

112019 #1 새시방 쪽에가 무신 사돈칩이 오느니? 우시덜이나 오주.(새신랑 쪽에가 무슨 사돈집에 오느니? 위요들이나 오지.)

112019 @ 거난 거기.(그러니까 거기)

112019 #1 대반상이옌 헌 건 할망덜.(대반상이라고 한 건 할머니들.)

112019 @ 할망덜은 새 시방쪽 친척?(할머니들은 새 신랑쪽 친척?)

112019 #1 에이구 춤말로.(에이구 참말로.)

112019 @ 새각시?(새색시?)

112019 #1 새각시 펜에 대반상허주. 새시방은 지네냥으로 허주. 무신. 게민 새시방 들어가가민 대반상 출리지.(새색시 편에 대반상하지. 새신랑은 자기대로 하지. 무슨. 그러면 새신랑 들어 가가면 대반상 차리지.)

112019 @ 그믄 이건 여자 칩이꽈? 남자 칩이꽈?(그러면 이건 여자 집입니까? 남자 집입니까?)

112019 #1 남자칩이.(남자 집에.)

112019 @ 남자칩이. 할망이 어떵 가? 여자 칩이 할망이 같이 가?(남자 집에. 할머니가 어떻게 가? 여자 집에 할머니가 같이 가?)

112019 #1 메, 새각시 할망덜 엇느냐?(메, 새색시 할머니들 없느냐?)

112019 @ 아아.(아아.)

112019 #1 권당할망덜.(권당할머니들.)

112019 @ 새각시 들어갈 때 권당할망 글로 가는구나.(새색시 들어갈 때 권당할머니 그리로 가는구나.)

112019 #1 권당칩이난게.(권당 집이니까.)

112019 @ 잔친 여자 칩이서 안하고 남자칩이서만.(잔친 여자 집에서 안하고 남자 집에서만.)

112019 #1 아니. 여자칩이서 대반상은 여자칩. 남자칩인 남자 펜에 대반상 허곡.(아니. 여자 집에서 대반상은 여자 집. 남자 집엔 남자 편에 대반상 하고.)

112019 @ 아아.(아아.)

112019 #1 여자칩인 여자 저 권당덜끼리 게믄 사돈칩인 대반상.(여자 집은 여자 저 권당들끼리 그러면 사돈 집은 대반상.)

112019 @ 아아. 그니까 그 말이엇구나.(아아. 그니까 그 말이었구나.)

112019 #1 그래.(그래.)

112019 @ 거난 자기 집이 웃어른덜을 대반상이라는 게. 그믄 예를 들면 우리 할머니.(그러니까 자기 집의 웃어른들을 대반상이라는 게.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 할머니.)

112019 #1 그렇지.(그렇지.)

112019 @ 우리 큰 어머니.(우리 큰 어머니.)

112019 #1 응.(응.)

112019 @ 이런 분들을 앉혀 놓는 거구나.(그러니까 자기 집의 웃 어른들을 앉혀 놓는 거구나.)

112019 #1 응. 그렇지. 하르방덜이영.(응. 그렇지. 할아버지들이랑.)

112019 @ 대우를 헤줘야주게.(대우를 해줘야지요.)

112019 #1 게난 대반상.(그러니까 대반상.)

112019 @ 대반상. 중반상은? 그 다음 밑에?(대반상. 중반상은? 그 다음 밑에?)

112019 #1 중반상이 어디 잇나?(중반상이 어디 있나?)

112019 @ 헤헤헤.(헤헤헤.)

112019 #1 대반상벳긔 더 잇어? 중반상은 어디? 중반은 어디?(대반상밖에 더 있어? 중반상은 어디? 중반은 어디?)

112020 @ 헤헤헤 대반이 그거고. 부조는 어떻게 합니까? 옛날에 부주?(헤헤헤 대반이 그거고. 부조는 어떻게 합니까? 옛날에 부조?)

112020 #1어? 부주? 옛날엔 봉투가 엇엉 그냥 손으로.(옛날엔 봉투가 없어서 그냥 손으로.)

112020 @ 돈으로?(돈으로?)

112020 #1 봉투가 엇지 옛날엔.(봉투가 없지 옛날엔.)

112020 @ 쏠이나 뭐 이런 걸로 헤본 적은 엇수과? 부주를?(쌀이나 뭐 이런 걸로 해본 적은 없습니까? 부조를?)

112020 #1 그런 걸로 헤가는 사람사 이신디사 몰라도 우리 대엔 그냥 돈으로덜. 쏠 허고 헤가는 사름덜 싯긴 실 거라. 막 생각헌 사름덜. 큰 부젠 쏠 흔 말이라. 이젠 돈까치 엇어부난 쏠 흔 말이. 옛날엔 제일 사돈집 죽엉 아져가는 게 쏠 흔 말이라. 이젠 쏠이 아무것도 안 닮아도. 옛날은 하도 쏠이 귀헤노난.(그런 걸로 해가는 사람이야 있었는지 몰라도 우리 대엔 그냥 돈으로들. 쌀하고 해가는 사람들 있기는 있을 거라. 막 생각한 사람들. 큰 부잔 쌀 한 말이라. 이젠 돈 가치 없어버리니까 쌀 한 말이. 옛날엔 제일 사정 좋아서 가져 가는 게 쌀 한 말이라. 이젠 쌀이 아무것도 안 같아도. 옛날은 하도 쌀이 귀해버리니까.)

112021 @ 암창개에 대헤서 말씀헤 주십시오.('암창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12021 #1 암창개는 새각시 죽어불민 암창개가 뒈주. 맞추왓당 새각시 죽어불잔아. 게믄 새시방이 암창개로 들어가. 새각시 엇이난 암창개. 여자가 맞춥지 안허나. 옛날엔 일 년 이 년 맞촤. 그 사이에 여자가 죽어 불어.('암창개'는 새색시 죽어버리면 '암창개'가 되지. 맞췄다가 새색시 죽어버리잖아. 그러면 새신랑이 '암창개'로 들어가. 새색시 없

는 '암창개'. 여자가 맞추지 안하나. 옛날엔 일 년. 이 년. 맞춰. 그 사이에 여자가 죽어 버려.)

112021 @ 결혼헹?(결혼해서?)

112021 #1 결혼허기 전에.(결혼허기 전에.)

112021 @ 아오고야.(아오야.)

112021 #1 허기 전에는 그 잔칫날은 아무도 아이 강 그 새시방만 강 암창개를 둘아 와.(하기 전에는 그 잔칫날은 아무도 안 가서 그 새신랑만 가서 '암창개'를 데리고 와.)

112021 @ 죽은 사람을 데려와?(죽은 사람을 데려와?)

112021 #1 응. 그렇지.(응. 그렇지.)

112021 @ 그냥 파혼시키믄 안 뒈여?(그냥 파혼시키면 안 돼요?)

112021 #1 안 뒈여. 이제 날짜 나니까 자기집의 구신이옝. 겡 데려와.(안 돼. 이제 날짜 나니까 자기 집의 귀신이라고. 그래서 데려와.)

112021 @ 데려 왕? 그 남자 일생은 어떻게 뒈는 거라?(데려 와서? 그 남자 일생은 어떻게 되는 거라?)

112021 #1 남ᄌᆞ 일생은 이 년이고, 삼 년이고 혜여 나민 또 두 번 장개 갈 테주.(남자 일생은 이 년이고, 삼 년이고 해나면 또 두 번 장가 갈 테지.)

112021 @ 그 여자 집에서는 그 사위라고 생각 헹 또 허고?(그 여자 집에서는 또 사위라고 생각해서 또 하고?)

112021 #1 게. 암창개[140]. 새각시 엇이. 게난 얼마나 쏙 아플 거니? 그거 헤서. 여ᄌᆞ 엇이 구신으로 경 데려올 거. 에구, 이젠 그런 것이 심이랑마랑.(그래. '암창개'. 새색시 없이. 그러니까 얼마나 속 아플 거니? 그거 했어. 여자 없이 귀신으로 그렇데 데려 올 거. 에구, 이젠 그런 것이 있기는커녕.)

112022 @ 사혼의 예가 있으면 말씀헤 주십시오. 죽은 사람끼리 결혼하는 거.(사혼의 예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죽은 사람끼리 결혼하는 거.)

112022 #1 것ᄀᆞ라 무신 잔치옌 허더라마는. 죽은 혼ᄉᆞ. 죽은 혼ᄉᆞ는 그냥 잔치ᄀᆞ찌 해여. 옷덜 헤놓고.(것보고 무슨 잔치라고 하더라만. 죽은 혼사. 죽은 혼사는 그냥 잔치 같이 해. 옷들 해놓고.)

112022 @ 사람도 없는데? 제사 하듯이?(사람도 없는데? 제사 하듯이?)

112022 #1 옷덜 헤놓고, 그 옷덜 주고받고 헤여.(옷들 해놓고, 그 옷들 주고받고 해.)

112022 @ 혼수 그런 거 주고받고 허고? 아이구 춤.(혼수 그런 거 주고받고 하고? 아이구 참.)

112022 #1 얼마나 가슴 아플 거니?(얼마나 가슴 아플 거니?)

112022 @ 게난.(그러니까.)

112022 #1 거 춤 헐 짓이 아니지.(거 참 할 짓이 아니지.)

112022 @ 게도 안 허는 것보단 마음이 영 허난 허는 거 아니?(그래도 안하는 것보

140) '암창개'는 약혼 한 다음 혼례를 치르기 전에 신랑의 아버지가 돌아가거나, 혼례 당일 신랑이 먼 곳으로 나갔다가 부득이 돌아오지 못했을 때에 예정된 날에 신랑집에서 상객들만 신부 집으로 가서 신부를 데려오고 보통 혼례처럼 하객을 맞이하면서 치르는 혼례를 말한다.

단 마음이 이렇게 하는 거 아니?)

112022 #1 남자 집읜 안헤도 여즈 집읜 구신 멧기젱 꼭 허여. 자기 뚤 그냥 아녀믄이, 뭐허카부덴 큰 구신 멧기젱 여자 집이서 따올려.(남자 집엔 안 해도 여자 집엔 구신 맡기려고 꼭 해. 자기 딸 그냥 안하면, 뭐 할까봐 큰 귀신 맡기려고 여자 집에서 재촉해서 해.)

112022 @ 아아.(아아.)

112022 #1 남즈 칩의선 시나마나주게. 거민 여줄 경 뚤 시집을 보내노민 다음 사름이 큰 각시구신으로라도, 큰 각시구신이라도 생긴 거.(남자 집에선 있으나마나지. 그러면 여잘 그렇게 딸 시집을 보내놓으면 다음 사람이 큰 각시귀신이라도, 큰 각시귀신이라도 생긴 거.)

112022 @ 경 헤시민 재산도 주고 뭐 허겟다예.(그렇게 했으면 재산도 주고 뭐 하겠네요.)

112022 #1 식게도 다 허고. 또 세각시 칩이서도 이불 다 헨와. 뚤 죽어부난. 이불 다 헤여놓고.(제사도 다 하고. 또 새색시 집에서도 이불 다 해서 와. 딸 죽어버리니까. 이불 다 해놓고.)

112023 @ 혼례와 관련하여 어떤 금기 사항이 있습니까? 결혼허젠 허민 뭐, 뭐 조심헤라 결혼허젠 허민 새각신 뭐 조심헤라. 새시방은 뭐 조심헤라. 허는 거.(혼례와 관련하여 어떤 금기 사항이 있습니까? 결혼하려고 하면 뭐, 뭐 조심해라 하는 거.)

112023 #1 새각시가 밥을 딱 놓젱 허면 고팡더레 영 돌아앚인 새각신 잘산다 헤여. 베끗더레 영 돌아앚인 새각신 베끗디 가고. 고팡더레 돌아앚이민 아이구, 잘 살켜. 베끗더렌 저거, 저거 곧 나감직 허다. 거는 새각시 앚는 걸로 봉 알아.(새색시가 밥을 딱 놓으려고 하면 고방에 돌아앉은 새색신 잘산다 해. 밖에 이렇게 돌아앉은 새색신 바깥에 가고. 고방에 돌아 앉히면 아이구, 잘 살겠다. 바깥에 저거, 저거 곧 나갈 것 같다. 거는 새색시 앉는 걸로 봐서 알아.)

112023 @ 아오야.(아오야.)

112023 #1 새각씬 뭐 분시 알앙 헴시카부덴. 거 재수주게. 재수라. 부모나 아니시키민 모르지. 엣날엔 고팡이옌 허민 이 구들 즈끗디가 고팡이라게. 쏠 창고난 잘살암주게.(새색신 뭐 분수 알아서 할까봐. 거 재수지. 재수라. 부모나 안 시키면 모르지. 옛날엔 고방이라고 하면 이 구들 곁에가 고방이라. 쌀 창고니까 잘 살지.)

112023 @ 게난 이 음식 만들레 온 친척들이나 다 새각시보고 막 말 곧는구나예?(그러니까 이 음식 만들러 온 친척들이나 다 새색시보고 막 말 하는군요)

112023 #1 무신 초라니 닮다, 무시 미꾸럭 닮다 허멍 그 궨당덜이 왕 봐근에, 새각시난 멜긋허민 아따 술칩의 가시민 장사 잘허켜 허고. 그자 고와도 숭 궂어도 숭 이거 원. 고민 이젠 술칫 새각시나 놧이민 곱닥헌 새각시, 또 그냥허민 아이구 미꾸럭 ᄀᆞ치 에이구, 에이구.(뭐 초라니 닮았다. 뭐 '미꾸럭' 닮았다하면서 그 친척들이 와서 봐서, 새색시니까 '멜긋'하면 아따 술집에 갔으면 장사 잘 하겠다 하고. 그저 고와도 흉, 궂어도 흉. 이거 원. 고민 이젠 술집 새색시나 놨으면 고운 새색시, 또 그냥하면 아이구, '미꾸

럭' 같이 에이구, 에이구.)

112023 @ 미꾸럭이 뭣과? 물구럭?('미꾸럭'이 뭡니까? 문어?)

112023 #1 미꾸럭이옌 헌 건 바당에 물토새기 닮은 미꾸럭이 잇어.('미꾸럭'이라고 한 건 바다에 군소 닮은 '미꾸럭'이 있어)

112023 @ 문어가 아니고? 미꾸럭이 뭔고?(문어가 아니고? '미꾸럭'이 뭔고?)

112023 #1 응. 미꾸럭. 물토새기ᄀᆞ찌 흔드랑 헌 거.(응. '미꾸럭'. 군소같이 '흔드랑' 한 거.)

112023 @ 먹을 수 잇는 거?(먹을 수 있는 거?)

112023 #1 거 먹으메, 미꾸럭도. 구워근에. 물토새기 구면 이만 거라도 요만벳긔 안 해.(거 먹어. '미꾸럭'도. 구워서. 군소 구우면 이만한 거라도 요만밖에 안 해.)

112023 @ 물토새기를 굴멩이렌도.('물토새기'를 '굴멩이'라고도)

112023 #1 굴멩이. 여기선 물토새기.('굴멩이'. 여기선 '물토새기'.)

112023 @ 게난 문어도 여긴 뭉게렌 허곡, 서쪽에서는 물꾸럭이렌 헤예.(그러니까 문어도 여긴 '문게'라고 하고, 서쪽에서는 '물꾸럭'이라고 해요.)

112023 #1 여긴 문게.(여긴 문어.)

112023 @ 무사 문겐고예?(왜 문어인가요?)

112023 #1 에이구 물꾸럭 닮은 서방님에 솔치 닮은 시아주방에 졸락 닮은 동세에 코생이 닮은 시누이에 허멍 ᄀᆞᆯ잔아. 그 탕관헐 때 막 ᄀᆞᆯ메. 무시거? 고치장을 멥덴 말라 시집살인 더 메와라 장ᄃᆞᆨᄀᆞ튼 시아방에 암ᄃᆞᆨᄀᆞ튼 시어멍에 졸락 닮은 시누이에 코생이 닮은 동세예 물꾸럭 닮은 서방에 막 ᄒᆞ고 ᄀᆞᆫ잔아.(에이구 문어 닮은 서방님에 솔치 닮은 시아주버니에 노래미 닮은 동서에 코생놀래기 닮은 시누이에 하면서 말하잖아. 그 탕간 할 때 막 말해. 뭐? 고추장을 맵다고 말라. 시집살인 더 매워라. 장탉 같은 시아버지에 암탉 같은 시어머니에 노래미 닮은 시누이에 코생놀래기 닮은 동서에 문어 닮은 서방에 막 하고 말하잖아.)

112023 @ 거믄 물꾸럭 아니고 미꾸럭이 따로 잇구나.(그러면 문어 아니고 '미꾸럭'이 따로 있구나.)

112023 #1 미꾸럭이옌 헌 거 이신 셍이라. 저 바당에.('미꾸럭'라고 한 거 있는 모양이라. 저 바다에)

112023 @ 서쪽은 물꾸럭이 문게라.(서쪽은 '물꾸럭'이 '문게'라.)

112023 #1 문게도 요망진 건 튼튼혜여. '밀꾸럭' 밀싹헌 문게도 잇곡.(문어도 좋은 건 탄탄해. '밀꾸럭' 물렁한 문어도 있고.)

상례

112024 @ 죽음을 어떻게 확인합니까?(죽음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112024 #1 죽는 걸 어떻게 내가 아냐?(죽는 걸 어떻게 내가 아냐?)

112024 @ 아니. 그 죽으면 뭐 이렇게 혼 불르는 거 이수게.(아니. 그 죽으면 뭐 이

렇게 혼 부르는 거 있지요.)

112024 #1 응.(응.)

112024 @ 지붕우이 올라강 저고리 이렇게.(지붕위에 올라가서 저고리 이렇게.)

112024 #1 응.(응.)

112024 @ 거, 들어 봣수과?(거, 들어 봤습니까?)

112024 #1 거 죽장 허는 거지. 그 혼은 왜 불르느냐 허면은 그게 내 이치적으로 허는 말인데.(거 줄곧 하는 거지. 그 혼은 왜 부르느냐 하면 그게 내 이치적으로 하는 말인데,)

112024 @ 예.(예.)

112024 #1 사름은 신첸 고만이 누워도 혼은 빠가분 거지. 사름은. 거난 신첸 고만이 이서도 혼은 다른디 가부니까 신체가 소관이 없어.(사람은 시체는 가만이 누워도 혼은 빼가버린 거지. 그러니까 시체는 가만히 있어도 혼은 다른 데 가버리니까 시체가 소관이 없어.)

112024 @ 아아.(아아.)

112024 #1 그렇잔아게.(그렇잖아.)

112024 @ 혼 불르는 거. 누가 만약에 돌아가시민 심장이 멎이민 죽은 거꽈?(혼 부르는 거. 누가 만약에 돌아가시면 심장이 멈추면 죽은 겁니까?)

112024 #1 그렇지. 심장 뛰지 안으민 죽는 거지. 이 심장이 멈춰불믄 그냥 가는 거라. 가심이 딸락딸락 뛰잖아. 그거 못 뛰민 가는 거.(그렇지. 심장 뛰지 않으면 죽는 거지. 이 심장이 멈춰버리면 그냥 가는 거라. 가슴이 '딸락딸락' 뛰잖아. 그거 못 뛰면 가는 거.)

112025 @ 복부르기는 어떻게 합니까? 지붕 위에서 부르는 거. 봐낫수과?(복부르기는 어떻게 합니까? 지붕 위에서 부르는 거. 봤었습니까?)

112025 #1 어, 옛날에 봐낫지.(어, 옛날에 봤었지.)

112025 @ 어떤 식으로 합니까?(어떤 식으로 합니까?)

112025 #1 거이, 죽은 사람이 웃도리 적삼 잇어이. 그거 들렁 강은에 그 심방덜 삼 혼 불르잖아. 거는 이 사람이 체시 돌아가부니까 혼이 나가불엇어이. 거니까 그 혼을 나간 걸 집더레 데려 오는 거야.(거, 죽은 사람 이 윗도리 적삼 있어. 그거 들고 가서 그 무당들 삼 혼 부르잖아. 거는 이 사람이 저승사자 돌아가 버리니까 혼이 나가버렸어. 그러니까 그 혼이 나간 걸 집으로 데려 오는 거야.)

112025 @ 아아.(아아.)

112025 #1 그 사람 일름 부르면서 삼 혼, 우리도 이 넋 디릴 때 삼 혼 들이잔아. 초넋, 이넋. 삼넋. 거난 죽어도 마찬가지야.(그 사람 이름 부르면서 삼 혼, 우리도 이 넋 드릴 때 삼 혼 들이잖아. 초넋, 이넋. 삼넋. 그러니까 죽어도 마찬가지야.)

112026 @ 그믄 장지 마련은 어떻게 합니까?(그러면 장지 마련은 어떻게 합니까?)

112026 #1 장지 마련은 뭐 날 봐근에 허는 거주. 뭐.(장지 마련은 뭐 날 봐서 하는 거지. 뭐.)

112026 @ 정시 빌어당?(지관 빌어다가?)

112026 #1 정실 빌어당을 허나 날 보는 철학관이 이시난, 그런 디 강 존날 택해서, 이제 감장허는 날도 조은 날에 다 허는 거야. 또 나쁜 날에 허면은 자식덜이 좋질 안허여.(지관을 빌려다가 하나 날 보는 철학관이 있으니까, 그런데 가서 좋은 날 택해서, 이제 감장하는 날도 좋은 날에 다 하는 거야. 또 나쁜 날에 하면 자식들이 좋질 않아.)

112026 @ 음.(음.)

112027 #1 그니까 자식을 위해서 존 날에 가잖아. 죽은 사람 무신 존 날, 구진 날 아나?(그니까 자식을 위해서 좋은 날에 가잖아. 죽은 사람 무슨 좋은 날, 궂은 날 아나?)

112027 @ 관과 횡대는 어떻게 마련합니까?(관과 횡대는 어떻게 마련합니까?)

112027 #1 뭐?(뭐?)

112026 @ 관?(관?)

112027 #1 관은 집이엔 허주게. 우리 이제 사는 집이나 관이 집이라. 집이엥 허메.(관은 집이라고 하지. 우리 이제 사는 집이나 관이 집이라. 집이라고 해.)

112027 @ 집널을 휑대렌 허는구나?('집널'을 횡대라고 하는구나?)

112027 #1 집널.('집널'.)

112027 @ 응. 거는 어디 강 사서?(응. 거는 어디 가서 사서?)

112027 #1 그 저 낭 오리는 디 잇잖아? 그런 디 강 사당 허는 거, 그런 디 강 상 허고 또 잇는 사람은이 미릇 다 준비하고.(그 저 나무 오리는 데 있잖아? 그런데 가서 사다가 하는 거, 그런 데 가서 사서하고 또 있는 사람은 미리 다 준비하고.)

112027 @ 아.(아.)

112027 #1 옛날은 관도 다 짱 놔둬.(옛날은 관도 다 짜서 놔둬.)

112027 @ 관도. 어디다 놔둬?(관도. 어디다 놔둬?)

112027 #1 집에.(집에.)

112027 @ 아이고.(아이고.)

112027 #1 옛날에 이제는 그런 거 엇어.(옛날에 이제는 그런 거 없어.)

112027 @ 무슨 낭이 좋고 이런 건 엇고?(무슨 나무가 좋고 이런 건 없고?)

112027 #1 옛날은 그렇게 관도 다 짱 놔두곡이. 자기 산 때 다 준비허는 거야.(옛날은 그렇게 관도 다 짱 놔두고. 자기 산 때 다 준비하는 거야.)

112028 @ 수의와 상복은 어떻게 마련합니까?(수의와 상복은 어떻게 마련합니까?)

112028 #1 수의는 뭔데?(수의는 뭔데?)

112028 @ 호상옷 아니? 수의는 죽엉 갈 때 입는 호상옷, 그런 거 아니우꽈?(수의 아니? 수의는 죽어서 갈 때 입는 '호상옷', 그런 거 아닙니까?)

112028 #1 아, 그런가? 상복이란 거는 이제 죽은 사람 아덜이 상복을 입는 거야. 거난 상복이 어떠냐허면은 느 젊으니까 알아둬이. 두건 잇잖아. 두건이. 두건을 이렇게 안으로 주어가지고 이렇게 헌 거는 이제 저 뭐? 이 조카덜 그런 건 복친.(아, 그런가? 상복이란 거는 이제 죽은 사람 아들이 상복을 입는 거야. 그러니까 상복이 어떠냐하면 너

젊으니까 알아둬. 두건 잇잖아 두건. 두건을 이렇게 안으로 주어가지고 이렇게 한 거는 이제 저 뭐? 조카들 그런 건 '복친'.)

112028 @ 복친.('복친'.)

112028 #1 두건으로 알아이. 직계상제는 이렇게 우이로 줘. 우이로.(두건으로 알아. 직계상제는 이렇게 위로 줘. 위로.)

112028 @ 아아.(아아.)

112028 #1 이거 거끄지 안 헹 우이로 줘. 우이로.(이거 꺾지 안 하고 위로 기워. 우이로)

112028 @ 아아.(아아.)

112028 #1 우이로 줍고 또 뒤에다가 실밥허고.(위로 줍고 또 뒤에다가 실밥하고.)

112028 @ 아아.(아아.)

112028 #1 그걸 보민 상제 알고.(그걸 보면 상제 알고.)

112028 @ 아아.(아아.)

112028 #1 또 이제 복 옷을 입잖아. 여즈 죽은 거 남자 죽은 거 뜨나. 복옷이.(또 이제 복 옷을 입잖아. 여자 죽은 거 남자 죽은 거 달라. 상복이.)

112028 @ 아아.(아아.)

112028 #1 남즈는 이렇게 거끄지 안헤서. 그냥 푼 냥, 단 푼 냥 그냥 입고, 또 여즈는 단 꺽어.(남자는 이렇게 꺾지 않았어. 그냥 푼 대로, 단 푼 대로 그냥 입고, 또 여자는 단 꺾어.)

112028 @ 아아.(아아.)

112028 #1 그니까 단 거끄민 여즈가 죽엇구나.(그니까 단 꺾으면 여자가 죽었구나.)

112028 @ 아아.(아아.)

112028 #1 또 단이 풀어가지고 그냥 영영 헌 건 남즈 죽엇구나.(또 단이 풀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한 건 남자 죽었구나.)

112028 @ 아아.(아아.)

112028 #1 거 복옷보민 다 알아.(거 상복 보면 다 알아.)

112028 @ 무사 산디 몰르고예?(왜인지 모르고요?)

112028 #1 어?(어?)

112028 @ 웬지는 모르고예?(왠지는 모르고요?)

112028 #1 복옷 보민 남즈 죽은 거 여즈 죽은 걸 다 알아.(복옷 보면 남자 죽은 거 여자 죽은 걸 다 알아.)

112028 @ 풀고 ᄆᆞ작 지고 헴신고예?(풀고 매듭지고 했는가요?)

112028 #1 ᄆᆞ작은 안 지와. 죽은 사람은, 이 오장을 다 풀엉 나가렌.(매듭은 안 지워. 죽은 사람은, 이 오장을 다 풀어서 나가라고.)

112028 @ 아아.(아아.)

112028 #1 ᄆᆞ작지면은.(매듭지면.)

112028 @ 예.(예.)

112028 #1 게난 ᄆᆞ작을 안 헤영 그 사람이 다 풀고 나가렌. 그 사람이 몽니가 나쁘민 ᄆᆞ작이 지잖아. 죽엉 갈땐 다 풀엉가라고 그 ᄆᆞ작을 안 지와. 다 풀엉. 죽은 사름 헐 땐 ᄆᆞ작 아니 지와. 다 옛날 어른이 다 뜰림엇인 어른덜이라 그게.(그러니까 매듭을 안 해서 그 사람이 다 풀고 나가라고. 그 사람이 성질이 나쁘면 매듭이 지잖아. 죽어서 갈 땐 다 풀어서 가라고 그 매듭을 안 지워. 다 풀어서. 죽은 사람 할 땐 매듭 아니 지워. 다 옛날어른이 다 틀림없는 어른들이라 그게.)

112028 @ 수의, 호상옷은 마련헙니까? 멧 살쯤?(수의, 수의는 마련합니까? 몇 살 쯤?)

112028 #1 잇인 사름은 일찍 마련허고 엇인 사름은 죽어사 사당 입지고.(있는 사름은 일찍 마련하고 없는 사름은 죽어야 사다가 입히고.)

112028 @ 호상옷은 멩지가 좋아마씨?(수의는 명주가 좋아요?)

112028 #1 멩지가 좋지.(명주가 좋지.)

112028 @ 무사 멩지를 헴신고예?(왜 명주를 했는가요?)

112028 #1 멩지는 죽엉 술이 다 빠지잖아. 그 술에 뻬에다가 딱 부뜬단다.(명주는 죽어서 살이 다 빠지잖아. 그 살에 뼈에다가 딱 붙는단다.)

112028 @ 아아.(아아.)

112028 #1 멩지가. 다른 건 다 떼어져분덴. 비단 ᄀᆞ뜬 것도 다 떼고 광목 ᄀᆞ뜬 것도 다 뗀디 멩지는 뻬에 딱 부뜬덴, 천리허멍 봐도 ᄃᆞ난덴.(명주가. 다른 건 다 떨어져버린다고. 비단 같은 것도 다 떨어지고 광목 같은 것도 다 떨어지는 데 명주는 뼈에 딱 붙는다고, 이장하면서 봐도 다르다고.)

112028 @ 아아.(아아.)

112028 #1 그러니까 신체는 멩지 옷 이상 엇어.(그러니까 시체는 명주 옷 이상 없어.)

112029 @ 아아 그렇구나. 상복. 상장과 찝동[141]에 대헤서 말씀헤 주십시오.(아아 그렇구나. 상복. 상장과 짚동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12028 #1 뭐? 머구낭은 어멍, 대막뎅인 아방, 그 이유가 알아져? 알아지나?

가시허고 ᄆᆞ디ᄆᆞ디?(뭐? 머귀나무는 어머니, 대 막대 아버지, 그 이유가 알아져?)

112029 #1 그 대막뎅인 아방이라. 이 아방은이 막 큰일 나사 아이고 아부지 허지만은 어멍은 네려져도 아이구 어멍아 ᄒᆞ꼼 감기 아파도 아이구 어멍아, 계속 어멍 불르잔 아이. 게난 머구낭이 가시가 계속 불르는 거. 가시가. 대막뎅이는 ᄆᆞ디ᄆᆞ디. 막 큰일나야 아이구 아버지 허곡 어멍은 계속 불르니까 어멍은 머구낭, 아방은 대막뎅이.(그 대 막대는 아버지라. 이 아버지는 막 큰일나사 아이고, 아버지. 하지만 어머니는 넘어져도 아이구, 어머니야 조금 감기 아파도 아이구, 어머니, 계속 어머니 부르잖아 이. 그러니까 머귀나무가 가시가 계속 부르는 거. 가시가. 대 막대는 마디마디. 막 큰일 나야 아이구, 아버지 하곡 어머니는 계속 부르니까 어머니는 머귀나무, 아버지는 대 막대.)

112029 @ 그렇구나.(그렇구나.)

141) '찝동'은 상제 앞에 늘 놓아두는 상장의 길이만큼 길고 아주 굵직하게 짚을 묶어서 만든 물건을 말한다.

112028 #1 그렇지.(그렇지.)

112029 @ 그믄 찝동은 어떤 거꽈?(그러면 짚동은 어떤 겁니까?)

112029 #1 짚?(짚?)

112029 @ 찝동?(짚동?)

112029 #1 찝은 산듸찝 잇잖아. 산듸찝이 이만이 놔. 돌아가시민 그 앞이 방장대허고 산듸찝 놓잖아. 거니까 산듸찝은 우리가 죽으면은 무끄는 거 아냐. 그니까 무끄는 식으로 상제 앞이 놓는 거야.(짚은 밭벼 짚 잇잖아. 밭벼 짚이 이만큼 놔. 돌아가시면 그 앞이 방장 대하고 밭벼 짚 놓잖아. 그러니까 밭벼 짚은 우리가 죽으면 묶는 거 아냐. 그러니까 묶는 식으로 상제 앞에 놓는 거야.)

112029 @ 아아.(아아.)

112029 #1 그게. 찝뎅이.(그게 짚동.)

112029 @ 찝뎅이.(짚동.)

112029 #1 거난 소상날, 대상날은 다 솔아불지 안허나?(그러니까 소상날, 대상날은 다 사라버리지 않나?)

112029 @ 놧당.(놨다가.)

112029 #1 찝뎅이광 대막댕이나 머구낭은 소상 날은 다 솔아 불어.(그러니까 소상날 대상 날은 다 태워버리지 안하나. 짚동이랑 대막대나 머귀나무는 소상 날은 다 태워버려.)

112029 @ 소상은 일 년?(소상은 일년?)

112029 #1 일 년 허는 디 그전인 삼 년 허잖아. 근디 옛날엔 몸에 다 니가 난다. 왜니가 나냐허믄은 삼 년간을 목욕도 안녀고 머리도 안 곰고 상을 딱 모시는 거라. 겨믄 ᄀᆞ만이 허믄 머리에 니도 궤곡 옷도 안 뿔아불민 그대로고. 이제 사람은 그냥 이 자기 부모를 목욕시켜불민 도망가분덴 헤여. 그니까 목욕도 안허고 머리도 아이곰곡. 게난 니가 떨어지잔아. 경헨 옛날은 그런 효자가 어딧나?(일 년 하는데 그전엔 삼 년 하잖아. 그런데 옛날엔 몸에 다 이가 난다 왜 이가 나느냐하면 삼 년간을 목욕도 안하고 머리도 안 감고 상을 딱 모시는 거라. 그러면 가만히 하면 머리에 이도 궤고 옷도 안 빨아버리면 그대로고. 이제 사람 그냥 이 자기 부모를 목욕시켜버리면 도망가 버린다고 해. 그러니까 옛날은 그런 효자가 어디 있나?)

112029 @ 게메마씸. 삼년상을.(글쎄요. 삼년상을.)

112029 #1 이제 ᄀᆞ뜨민 그냥 오멍사라 모욕헐 걸.(이제 같으면 그냥 오면서 바로 목욕할 걸.)

112029 @ 장밧디 강 오멍사라. 헤헤.(장지에 가서 오면서 바로. 헤헤.)

112029 #1 옛날은 모욕을 아니헌덴. (옛날은 모욕을 아니 한다고.)

112030 @ 두건과 복치마는 어떻게 마련하고, 누구에게 줍니까? 두건과 복치마.(두건과 복치마는 어떻게 마련하고, 누구에게 줍니까? 두건과 복치마.)

112030 #1 복친덜. ᄉᆞ촌, 육촌, 칠팔촌.('복친'들, 사촌, 육촌, 칠팔촌)

112030 @ 칠팔 촌까지.(칠팔 촌까지.)

112030 #1 당상제는 그냥 이 복으로 입고 그런 복친들은 두건하나씩 수건, 막 생각허민 치마도 주고.(당상제는 그냥 이 복으로 입고 그런 복친들은 두건하나씩 수건, 막 생각하면 치마도 주고)

112030 @ 치마도 주고, 속바지도 주고.(치마도 주고, 속바지도 주고.)

112030 #1 어?(어?)

112030 @ 저 저 몸빼?(치마도 주고, 속바지도 주고 저 저 일바지?)

112030 #1 어? 몸빼는 치마 대신 주는 거.(어? 일바지는 치마 대신 주는 거.)

112030 @ 치마대신.(치마대신.)

112030 #1 광목으로.(광목으로.)

112030 @ 광목으로.(광목으로.)

112030 #1 치마대신 몸빼로 주는 거. 이제나 경 헴주. 옛날은 치마로 줘낫저.(치마대신 일바지로 주는 거. 이제나 그렇게 하지. 옛날은 치마로 줬었지.)

112030 @ 복치마?(복치마?)

112030 #1 또이 이 당부모가 죽으민 당자식은이 산듸찝 들이잖아. 산듸찝(또 이 당부모가 죽으면 당 자식은 밭볏짚 들이잖아. 밭볏짚.)

112030 @ 아아.(아아.)

112030 #1 산듸찍. 체얌은. 산듸찍 왜 묶으냐 허면은 부모가 관 소곱에 들어가기 전에는 산듸찝 묶어. 잇당 날 봐근에 어느 날 좋으민 그거 클러두고 머리창[142]. 그 관 소곱에 논 후에는 머리창 들여.(밭벼 짚. 처음은. 밭벼 짚 왜 묶느냐하면 부모가 그 관속에 들어가기 전에는 밭벼 짚 묶어. 있다가 날 봐서 어느 날 좋으면 그거 풀러두고 머리창. 관 속에 논 후에는 '머리창' 들여.)

112030 @ 아아.(아아.)

112030 #1 이제 뭐 경 헴나. 다 불더레 팡팡 솜앙.(이제 뭐 그렇게 하나. 다 불에 팡팡 때서.)

112030 @ 다 이유가 이실 건디예.(이유가 있을 건데요.)

112030 #1 그렇지.(그렇지.)

112031 @ 그 다음 팥죽에 대헤서 말씀헤 주십시오.(그 다음 팥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12031 #1 풋죽은 풋 잇잖아. 풋은 방법이야. 게니까 사람이 죽으면 풋죽 허잖아. 잡신을 못 부트게 풋죽으로 다 먹는 거야. 그니까 심방 빌어당 뭐 헐 때는 풋으로 뿌리잖아.(팥죽은 팥 잇잖아. 팥은 방법이야.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팥죽 하잖아. 잡신을 못 붙게 팥죽으로 다 먹는 거야. 그니까 무당 빌어다가 뭐 할 때는 팥으로 뿌리잖아.)

112031 @ 누가 풋죽 쒕가지예? 사돈.(누가 팥죽 쒀 가지요? 사돈?)

112031 #1 사돈, 사돈덜 쒀가는데 사돈이 돈으로도 ᄋᆞ져가고 풋죽 쒀도렌, 또 그 상제네 집도 풋죽을 쒀. 방법으로(사돈 쒀 가는데 사돈이 돈으로도 가져가고 팥죽 쒀 달라고, 또 그 상제네 집도 팥죽을 쒀. 방법으로)

142) '머리창'은 부모나 시부모상이 났을 때 부녀자들이 머리에 넣어 땋는 긴 헝겊오리를 말한다.

112031 @ 응. 바로 돌아가시민 바로 쒀?(바로 돌아가시면 바로 쒀?)

112031 #1 아냐. 픗죽은 흔 날 봥 흔 사흘이나 뒈야. 픗죽. 이틀인가? 사흘인가? 날 보멍 이틀인가 사흘인가. 날 보멍 빨리 허면은 죽는 날부터 픗죽 들어가고, 흔 오일장 삼일장 허민 뒷날 삼 일차날.(아냐. 팥죽은 한 날 봐서 한 사흘이나 되야. 이틀인가? 사흘인가? 날 보면서 이틀인가 사흘인가. 날 보면서 빨리 하면 죽는 날부터 팥죽 들어가고, 흔 오일장 삼일장 하면 뒷날 삼 일째 날)

112031 @ 누가 먹어마씨?(누가 먹어요?)

112031 #1 그디 가는 사람덜, 방법으로 죽으로 주잖아. 그 잡신 방법이야.(거기 가는 사람들, 방법으로 죽으로 주잖아. 그 잡신 방법이야.)

112031 @ 밥도 주고? 죽만?(밥도 주고? 죽만?)

112031 #1 밥 먹구정 헌 사름은 밥 먹고 죽 먹고정 헌 사름은 죽 먹고. 죽은 사돈덜, 쒀가서. 허벅에다가. 게난 다 빕당 그 허벅 속에 흔 두 사발쯤 넹경 두메.(밥 먹고 싶어 한 사람은 밥 먹고 죽 먹고 싶어 한 사람은 죽 먹고. 죽은 사돈들, 쒀가서. 허벅에다가. 그러니까 다 비우다가 그 허벅 속에 한 두 사발쯤 남겨 둬.)

112031 @ 무사마씸?(왜요?)

112031 #1 그디 죽 쑨 사름 너무 섭섭허잔아게. 죽 강 먹으렌. 더러 안비와.(거기 죽 쑨 사람 너무 섭섭하잖아. 죽 가서 먹으라고. 더러 안 비워.)

112031 @ 그렇구나.(그렇구나.)

112031 #1 너무 복복 비우면 미안허니까 넹기는 거. 사돈칩이 죽 쒕가는 허벅은 어떵사 이쁜 허벅을 가는디. 아무 허벅이나 못가. 곱닥헌 허벅이라야. 게난 사돈칩이 죽 쒕갈 허벅은 물도 안 질어, 벌러 불카부덴, 뚜로 나둬.(너무 박박 비우면 미안하니까 넘기는 거. 사돈집에 죽 쒀서가는 허벅은 어떻게야 예쁜 허벅을 가는데. 아무 허벅이나 못가. 고운 허벅이라야. 그러니까 사돈집이 죽 쒀서 갈 허벅은 물도 안 길어. 깨 버릴까봐, 따로 놔둬.)

112031 @ 겐 또 허벅은 가져와?(그래서 또 허벅은 가져와?)

112031 #1 그거 죽 비와둥 아져오지. 게난 그 허벅 소곱에 죽을 두 사발쯤은 넹겨.(그거 죽비와두고 가져오지. 그러니까 그 허벅 속에 죽을 두 사발쯤은 남겨.)

112031 @ 아, 그 말이로구나. 비와둥 온다.(아, 그 말이로구나. 비워두고 온다.)

112032 @ 성복제에 대헤서 말씀헤 주십시오.(성복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12032 #1 날 봐야 성복허지. 날 안 보민 성복 못헤여. 그 사람이 날 안 보면은 성복 못허여.(날 봐야 성복하지. 날 안 보면 성복 못해. 그 사람이 날 안 보면 성복 못해.)

112032 @ 음.(음.)

112032 #1 그냥 산 사름광 ᄀᆞ타. 거민 이제 성복제는 죽은 사람 혼 불러내고 다 헤내는데 성복제 허드라.(그냥 산 사람과 같아. 거민 이제 성복제는 죽은 사람 혼 불러내고 다 해내는데 성복제 하더라.)

112032 @ 성복이란 말이 뭐꽈?(성복이란 말이 뭡니까?)

112032 #1 복 입고, 복, 두건을 상제만이 헤영 썻당 그 복 입는 날은 상제두건이 제

라허게 우의로 줍아. 이만이헌 통 두건 써. 우이 그냥 튼 냥. 건디 이제 날 본날은 이제 제라허게 두건 씨곡 복 입고. 통 두건만 씨잔아. 날 아이 본 땐.(복 입고, 복, 두건을 상제만큼 해서 썼다가 그 복 입는 날은 상제두건이 이제 온전하게 위로 좁아. 이만큼한 통 두건 써. 위에 그냥 터진 대로. 그런데 이제 날 본 날은 온전하게 두건 쓰고 복 입고. 통 두건만 쓰잖아, 날 안 본 땐.)

112032 @ 아아.(아아.)

112032 #1 통 이디 그냥 통차.(통 여기 그냥 통째.)

112032 @ 성복제 날 나면.(성복제 날 나면.)

112032 #1 날 나야 두건도 쓰곡, 속곳덜도 다 입곡.(날 나야 두건도 쓰고, 속옷들도 다 입고.)

112032 @ 그게 바로 성복제꽈?(그게 바로 성복제입니까?)

112032 #1 ᄋᆞ 그렇지. 성복제. 성복 안 허민이 통두건 쓰곡이.(응. 그렇지. 성복제. 성복 안 하면 '통두건' 쓰고.)

112033 @ 그 다음 일포제에 대헤서 말씀헤 주십시오.(일포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12033 #1 일포제는 큰뚤이 출리는 거난.(일포제는 큰딸이 차리는 거니까.)

112033 @ 일포제는?(일포제는?)

112033 #1 응.(응.)

112033 @ 일포, 일포험니께? 요즘.(일포, 일포하잖아요? 요즘.)

112033 #1 게메. 일포제는 큰뚤이 출려.(글쎄. 일포제는 큰딸이 차려.)

112033 @ 원래? 무사마씸?(원래? 왜요?)

112033 #1 거 아덜은 계속 그걸 허주마는 뚤은이.(그거 아들은 계속 하지만 딸은 .)

112033 @ ᄒᆞ루만?(하루만?)

112033 #1 ᄒᆞ루 ᄒᆞ는 덕분에.(하루 하는 덕분에.)

112034 @ 부조와 조문은 어떻게 합니까?(부조와 조문은 어떻게 합니까?)

112034 #1 동넷사름덜 손에 쥐영 강. 옛날은 엽전이.(동네사람들 손에 쥐여서 가서. 옛날은 엽전.)

112034 @ 몃 냥 헤신지 기억 안 남수과?(몇 냥 했는지 기억 안 남습니까?)

112034 #1 그런 건 난 몰라. 닷냥, 엇냥은 허는가?(그런 건 난 몰라. 다섯 냥, 여섯 냥은 하는가.)

112034 @ 곡식으론 안 주고예?(곡식으론 안 주고요?)

112034 #1 옛날 할망덜이 공불 아니 헤 부니까.(옛날 할머니들이 공불 아니 해 버리니까.)

112034 @ 떡도 주지 안 헙니까? 부조로.(떡도 주지 안합니까? 부조로.)

112034 #1 야, 옛날엔 떡이 어딧나? 떡이 귀헤여. ᄀᆞ레에서만 골앙 기곗방 엇언. 떡이 귀하지. 상에 논 거벳긔 엇지.(야, 옛날엔 떡이 어디 있나? 떡이 귀해. 맷돌에서만 갈아서 기계방 없어서. 떡이 귀하지. 상에 놓은 거밖에 없지.)

112034 @ 조문은 어떻게 합니까?(조문은 어떻게 합니까?)

112034 #1 조문은 동넷사름이나 강.(조문은 동네사람이나 가서.)

112034 @ 동넷사람, 친척들예.(동네사람, 친척들이요.)

112035 @ 토신제에 말씀헤 주십시오.(토신제에 말씀해 주십시오.)

112035 #1 토신제는 뭐 거, 집이 집 짓젠 헤도 날 봉 토신 그런 날 보고, 또 죽엉 강 무덤 멩길 때도 토신제허고, 밧딜로, 또 산 때도 집 짓젠 허민 토신제허고 경허지. 새로 집 짓젠 헤도 토신제헤사, 장밧디 강 들어가젠 헤도 토신젤 헤여사 꼭 ᄀᆞ따.(토신제는 뭐 거, 집의 집 지으려고 해도 날 봐서 토신 그런 날 보고, 또 죽어서 가서 무덤 만들 때도 토신제하고, 밭으로, 또 산 때도 집 지으려고 하면 토신제 하고 그렇게 하지. 새로 집 지으려고 해도 토신제해야, 장지에 가서 들어가려고 해도 토신제해야 꼭 같아.)

112035 @ 아, 집 짓는 거나.(아, 집 짓는 거나.)

112035 #1 게난 죽엉 가는 사름도 집 짓엉 가난에 토신젤 헤야주.(그러니까 죽어서 가는 사름도 집 지어서 가난에 토신젤 해야지.)

112035 @ 땅에 뭔가 기운이 중요허니까.(땅에 뭔가 기운이 중요하니까.)

112035 #1 그렇지.(그렇지.)

112036 @ 상여꾼은 어떻게 부립니까?(상여꾼은 어떻게 부립니까?)

112036 #1 옛날엔 그냥 밥 멕이면은 영장을 헤다 줘. 헤다 준디 이제는 동넬 안 부렴잔아. 그냥 돈 주엉 멧겨.(옛날엔 그냥 밥 먹이면 장사를 해다 줘. 해다 줬는데 이제는 동넬 안 부리잖아. 그냥 돈 줘서 맡겨.)

112036 @ 음.(음.)

112036 #1 옛날은 막 상여 빌어. 메여가단 막 멀면 이 영장을 노앙 쉬여. 쉬면 그때는 떡 안주에다가 술을 멕여. 멕영 이젠 ᄒᆞ꼼 배불르민 장밧디까지 막 모사가. 막 소리 허멍 모사가메 옛날엔. 이제는 이 허여주도 안허곡 허도 안허여. 이제는.(옛날은 막 상여 빌어. 메여가다가 막 멀면 이 영장을 놓아서 쉬여. 쉬면 그때는 떡 안주에다가 술을 먹여. 먹여서 이젠 조금 배부르면 장지에까지 막 모셔가. 막 소리하면서 모셔가 옛날엔. 이제는 해지지도 않고 하지도 않아. 이제는.)

112036 @ 그렇지예. 옛날엔.(그렇지요. 옛날엔.)

112036 #1 옛날엔 인심이 좋잔아게.(옛날엔 인심이 좋잖아.)

112036 @ 동네 젊은 사람덜이 다 도왓다는 거지예.(동네 젊은 사람덜이 다 도왔다는 거지요.)

112036 #1 이젠 인심 엇어. 우 알력 집의도 그런 일 엇고 인심이이. 난 옛날이 좋아 뵈여.(이젠 인심 없어. 위, 아래 집에도 그런 일 없고. 인심이. 난 옛날이 좋아 보여.)

112037 @ 운상은 어떻게 합니까?(운상은 어떻게 합니까?)

112037 #1 그거는 이제 기와집 올르는 거, 그거이 과일 소주 다 그 소곱에 놩 모사가는 거라. 게민 장밧디 가민 그 모사가는 걸 빼연에 장 앞이다 과일 놓잔아. 거 경허는 거. 행상보다 ᄆᆞ녀가 그게.(그거는 이제 기와집 오르는 거, 그거 과일 소주 다 그 속에 놔서 모셔가는 거라. 그러면 장지에 가면 그 모셔가는 걸 빼서 장 앞에다 과일 놓잖아.

거 그렇게 하는 거. 행상보다 먼저 가. 그게.)

112037 @ 설배[143]가?('설배'가?)

112037 #1 아니. 그 저 들렁가는 게.(아니. 그 저 들어가는 게.)

112037 @ 상여?(상여?)

112037 #1 어. 먼여 들어강 준비 딱 헤여. 장보단 먼여 들어간 거. 또 옛날은 이 영장허고 결혼헤영 딱 마따가릴 거 아냐. 기분 나쁘지. 옛날은 가메 들렁 가잔아게.(어. 먼저 들어가서 준비 딱 해. 장보단 먼저 들어간 거. 또 옛날은 이 장사하고 결혼해서 딱 맞닥뜨릴 거 아냐. 기분 나쁘지. 옛날은 가마 들어서 가잖아.)

112037 @ 응.(응.)

112037 #1 또 행상이 영 씨영 메여가고. 그런 때는 이 사름이 쎄야 헤. 이 우시가 쎄고 또 영장헌디, 영장도 우터레 가저. 잔치도 웃질로 가저 막 싸와.(또 행상이 이렇게 써서 매여가고. 그런 때는 이 사람이 세야 해. 이 위요가 세고 또 영장하는데, 영장도 위로 가랴, 잔치도 윗길로 가랴. 막 싸워.)

112037 @ 아아.(아아.)

112037 #1 경허믄 잔치 우시가 쎄여야, 이겨나가. 강 영장이 우로 가불민 좋지가 안허잔아. 게난 이 될 수 시민 죽은 사름이 좀 양볼 헤야지. 옛날은 기냥 권리로 다 뒈여. 권리로.(그러면 잔치 위요가 세어야, 이겨나가. 가서 영장이 위로 가버리면 좋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 될 수 있으면 죽은 사람이 좀 양볼 해야지. 옛날은 그냥 권리로 다 돼. 권리로.)

112037 #2 옛날엔 보면 젊은 사람이 죽으민이 억울하게 죽엉 허민 꼿놀렷어.(옛날엔 보면 젊은 사람이 죽으면 억울하게 죽어서 하면 '꼿놀렸어.')

112037 @ 아아. 신촌에.(아아. 신촌에.)

112037 #2 꼿 놀려서 행상 메어가지고 말여이. 거리마디 뎅기면서 막 그냥 그 저 북, 살장고 뭐 치면서 어, 그 시체는 아니 놓고. 시체는 아니 놓고.('꼿놀려서' 행상 매어가지고 말이야. 거리마디 다니면서 막 그냥 그 저 북, 설장구 뭐 치면서 어, 그 시체는 아니 놓고. 시체는 아니 놓고.)

112037 @ 시체는 안 놓고.(시체는 안 놓고.)

112037 #2 그냥 다른 영장ᄀᆞ찌 그 화단 메어가지고 그냥.(그냥 다른 장사같이 그 화단 매어가지고 그냥.)

112037 @ 응.(응.)

112037 #2 꼿놀린다고 헷어. 꼿놀린다고('꼿놀린다고' 했어. '꼿놀린다'고.)

112037 @ 그 노래 기억남수과?(그 노래 기억납니까?)

112037 #2 어?(어?)

112037 @ 노래? 아아 월동걸동 저 영산 보아라. 뭐라고 그 꼿놀래 상여소리?(노래? 아아 월동걸동 저 영산 보아라. 뭐라고 그 '꼿놀래' 상여소리?)

112037 #2 뭐 잡탕으로 막 꼿 놀리는 덴 젊은 사람덜 모여가지고 잡탕으로 헷으니

143) '설배'는 운상할 때에 상여에 매어 앞으로 잡아당기게 된 참바를 말한다.

까.(뭐 잡탕으로 막 꽃 놀리는 데는 젊은 사람들 모여가지고 잡탕으로 했으니까.)

112037 @ 노래가 잇어실 거 아니?(노래가 있었을 거 아니?)

112037 #2 다른 놀래가 없고 행상 노랜 내가 많이 헷어.(다른 노래가 없고 행상 소린 내가 많이 했어.)

112037 @ 흔번 헤봅서? 행상노래.(한번 해 보십시오? 행상노래.)

112037 #2 가자가자 어서가자. 에이여야~ 그 저 훗소리. 허허 나가 그 저 훗소리. 저승길이 멀다더니 창문밖이 저승일세. 에 헤야 어어허어야~ 그 훗소리, 후렴은 그렇게 허고 게니까 내가 그 행상소릴 많이 헷어.(가자가자 어서가자. 에이여야~ 그 저 훗소리. 허허 나가 그 저 훗소리. 저승길이 멀다더니 창문 밖이 저승일세. 에 헤야 어어허어야~ 그 훗소리, 후렴은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내가 그 행상소릴 많이 했어.)

112037 @ 예.(예.)

112037 #2 저승길이 멀다더니 창문 밖이 저승일세. 경 또 후렴허고.(저승길이 멀다더니 창문 밖이 저승일세. 그렇게 또 후렴하고.)

112037 @ 예.(예.)

112037 #2 행상꾼들이 후렴허고. 어이 갈꼬? 어이 갈꼬? 나만 홀로 어이 갈꼬? 이경 또 후렴허고.(행상꾼들이 후렴하고. 어이 갈까? 어이 갈까? 나만 홀로 어이 갈까? 그러면 또 후렴하고.)

112037 @ 그믄 꼿놀래 할 때도 이 노랠 부르고?(그러면 '꼿놀래' 할 때도 이 노랠 부르고?)

112037 #2 그렇지.(그렇지.)

112037 @ 만약에 그냥 돌아가신 할머니, 할아버지한테도 이 노래를 불럿수과?(만약에 그냥 돌아가신 할머니, 할아버지한테도 이 노래를 불렀습니까?)

112037 #2 그렇지.(그렇지.)

112037 @ 노래는 같아? 꼿놀래 할 때만 이 노래를 불럿고.(노래는 같아? '꼿놀래' 할 때만 이 노래를 불렸고.)

112037 #2 아니 이건 영장 나갈 때.(아니 이건 영장 나갈 때.)

112037 @ 나갈 때 행상. 꼿놀래 할 때도 이거 썻수과?(나갈 때 행상. '꼿놀래' 할 때도 이거 썼습니까?)

112037 #2 꼿놀래[144] 할 땐 이것도 불르고 잡탕 막 잡탕노래도 불르고.('꼿놀래' 할 땐 이것도 부르고 잡탕 막 잡탕노래도 부르고.)

112037 @ 응. 이게 행상소리엿구나.(응. 이게 행상소리였구나.)

112038 @ 봉분은 어떻게 만듭니까?(봉분은 어떻게 만듭니까?)

112038 #1 봉분은 어떵 만들아?(봉분은 어떻게 만들어?)

112038 @ 옛날에 상여멘 사람덜이?(옛날에 상여 맨 사람들이?)

112038 #1 가면은 그 사람덜 공걸로 헤주메, 밥만 멕이민. 이젠 안 헤줘. 게민 이제

144) '꼿놀래'는 신촌에서는 젊은 사람이 죽었을 때 '꽃염불'을 불렀으며 장사를 치르는 날 행상화면서 부르는 염불소리를 뜻한다.

관 들어 갈 디 개광을 파. 파면은 딱 맞게 관이 들어가는 거라. 게믄 우이 개판 더꺼. 개판 더꺼난 우에는 또 멩전이 잇어이. 그 죽은 사름 일름. 뻘겅헌 거.(가면은 그 사람들 공짜로 해줘, 밥만 먹이면. 이젠 안 해 줘. 그러면 이제 관 들어갈 데 개광을 파. 파면은 딱 맞게 관이 들어가는 거라. 그러면 위에 개판 덮어. 개판 덮으니까 위에는 또 명전이 있어. 그 죽은 사람 이름. 뻘건 거.)

112038 @ 아아.(아아.)

112038 #1 그 멩전이 죽은 사름 일름이야. 게믄 이 그 멩전 비추민, 보민 몸 궂히는 거라.(그 명전이 죽은 사름 이름이야. 그러면 이 그 명전 비추면, 보면 몸 궂는 거라.)

112038 @ 아아.(아아.)

112038 #1 먼 디서 멩전만 봣다면. 거난 제사고 날 넹기는 거고 그거 보면 못헤여. 제사도 이 몸 구쳣젠 허연 뚠 사름이 허고 권당이라도 시켱 자긴 안헤여. 멩전 보민 몸 궂힌다는 거라. 그 사름 일름 봐부니까. 나이 벱지 아니혜도 무식이라도 그거 영 보민 다 알잔아.(먼 데서 명전만 봤다면. 그러니까 제사고 날 넘기는 거고 그거 보면 못해. 제사도 이 몸 궂었다고 해서 딴 사람이 하고 친척이라도 시키고 자긴 안 해. 명전 보면 몸 궂는다는 거라. 그 사람 이름 봐버리니까. 나 이 배우지 아니해도 무식이라도 그거 이렇게 보면 다 알잖아.)

112039 @ 음. 이번은 호충에 대헤서 말씀헤 주십시오.(호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12039 #1 호충이 뭐냐?(호충이 뭐냐?)

112039 @ 호충?(호충?)

112039 #1 호충 몰라.(호충 몰라.)

112039 @ 호충, 호충허는디 봉분 만들어놓고 뭐 허는 거 닮은디.(호충, 호충하는데 봉분 만들어놓고 뭐 하는 거 닮은데.)

112039 #1 아, 봉분 만들어놓고 마지막 제.(아, 봉분 만들어놓고 마지막 제.)

112039 @ 마지막 제 헤마씨?(마지막 제 헤요?)

112039 #1 아아. 봉분 만들어 놓고 마지막 제. 봉분 묻어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 보는 거.(아아. 봉분 만들어 놓고 마지막 제. 봉분 묻어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 보는 거.)

112040 @ 장지에서 상여꾼에게 음식 대접은 어떻게 합니까?(장지에서 상여꾼에게 음식 대접은 어떻게 합니까?)

112040 #1 그냥 뭐 뒈지고기 숢앙 썰어놓고, 술 놓고, 또 밥이영 뭐, 국도 뒈지고기 국 끌리고, 옛날은 그릇이 엇어이. 대막뎅이 이만이한 대막뎅이 ᄆᆞ디ᄆᆞ디 끈엉.(그냥 뭐 돼지고기 삶아서 썰어놓고, 술 놓고, 밥이랑 뭐, 국도 돼지고기 국 끓이고, 옛날은 그릇이 없어. 이만큼한 대막대가 마디마디 끊어서.)

112040 @ 아이고야.(아이고야.)

112040 #1 겡 그것에서 밥 주고.(그래서 그것에서 밥 주고.)

112040 @ 아아.(아아.)

112040 #1 낭푼 헤다가, 낭푼도 엇이난.(양푼 해다가, 양푼도 없으니까.)

112040 @ 차롱.(채롱)

112040 #1 차롱도 아니. 나무.(채롱도 아니. 나무.)

112040 @ 남박?(나무바가지?)

112040 #1 남박 그런 것에 밥 줘.(나무바가지 그런 것에 밥 줘.)

112040 @ 음. 보리밥? 쌀밥?(음. 보리밥? 쌀밥?)

112040 #1 보리밥에 서껑 헴지. 풋에다가. 쏠은 밥을 우에만 걸치고. 쏠이 엇이니까. 근쏠은 보리밥. 경헹 멕여. 경 헹 엇이니까 밥은 배고프니까 밥 먹으레도 가는 사름 잇어. 빌지 아니 허여도. 장밧디. 밥이 엇이니까. 에이고 그런 놈이 세상.(보리밥에 섞어서 하지. 팥에다가. 쌀은 밥을 위에만 걸치고. 쌀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먹여. 그렇게 해서 없으니까 밥은 배고프니까 밥 먹으러도 가는 사람 있어. 빌지 아니 해도. 장지에. 밥이 없으니까. 에이고 그런 놈이 세상.)

112041 @ 장사 때 특별히 수고한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장사 때 특별히 수고한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112041 #1 특별히 수고헌 사름은 밥 흔 낭푼에다가 뒈지고기허고.(특별히 수고한 사람은 밥 한 양푼에다가 돼지고기하고.)

112041 @ 뒈지고기.(돼지고기)

112041 #1 응. 술허곡, 그렇게 아져가. 그건 인정 가프는 거, 공 가프는 거.(응. 술하고, 그렇게 가져가. 그건 인정 갚는 거, 공 갚는 거.)

112042 @ 공 가프는 거예. 상식은 어떻게 합니까?(공 갚는 거요. 상식은 어떻게 합니까?)

112042 #1 상식은 죽으민 상 올리는 것이 상식이지.(상식은 죽으면 상 올리는 것이 상식이지.)

112042 @ 상에? 매일?(상에? 매일?)

112042 #1 매일 촐리는 사름도 잇고, 보름 뒈민 설러부는 사름도 잇고. 삼년간 허는 사름도 잇고.(매일 차리는 사람도 있고, 보름 되면 그만두는 사람도 있고. 삼년간 하는 사람도 있고.)

112042 @ 상식은 죽은 사람안티 밥 안네는 것이 상식.(상식은 죽은 사람한테 밥 드리는 것이 상식.)

112042 #1 밥 안네는 것이.(밥 드리는 것이.)

112042 @ 아침, 점심 저녁?(아침, 점심 저녁?)

112042 #1 그렇지. 자기 먹을 때꺼지 삼시 거려놔 삼시.(그렇지. 자기 먹을 때까지 삼시 거려놔 삼시.)

112043 @ 삭망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삭망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12043 #1 뭐?(뭐?)

112043 @ 삭망제가 삭제꽈?(삭망제가 삭제입니까?)

112043 #1 색일이옌 골아난.(삭일이라고 말했었어.)

112043 @ 삭일예?(삭일이요?)

112043 #1 쎅일은 ᄎᆞ하루 보름.(삭일은 초하루 보름.)

112043 @ 초하루 보름마다 상식을 올리는 거로구나.(초하루 보름마다 상식을 올리는 거로구나.)

112043 #1 아니 매날 자기 먹듯 올리는데.(아니 맨날 자기 먹듯 올리는데.)

112043 @ 올리다가.(올리다가.)

112043 #1 초하루 보름은 삭일로.(초하루 보름은 삭일로.)

112043 @ 삭일은 뭔가 쪼금 다르게?(삭일은 뭔가 조금 다르게?)

112043 #1 삭일은 뭐 과일 올리고 막 아이고, 아이고 허고.(삭일은 과일 올리고 막 아이고, 아이고 하고)

112043 @ 걸 삼년동안 허는 거라? 십오일마다? 아이고, 아이고. 십오일마다 소상 때까지?(걸 삼년동안 하는 거라? 십오일마다? 아이고, 아이고. 십오일마다 소상 때까지?)

112043 #1 그렇지. 경허는 거.(그렇지. 그렇게 하는 거.)

112044 @ 소상・대상에 대헤서 말씀헤 주십시오.

112044 #1 소상 대상은 뭐 일 년 돌아오면 소상이고, 또 이년 채는 대상이고. 게난 삼년.(소상 대상은 뭐 일 년 돌아오면 소상이고, 또 이년 채는 대상이고. 게난 삼년.)

112044 @ 게믄 대상이 더 커마씨?(그러면 대상이 더 커요?)

112044 #1 대상이나 소상이나 똑같지. 이젠 당일제 허잔아. 산에서. 구신 말 잘들어. 오지 말렌 허민 아니와. 이젠 구신 말 잘 들어.(대상이나 소상이나 똑같지. 이젠 당일제 하잖아 산에서. 귀신 말이 저 아래에 오지 말라고 하면 아니 와. 이젠 귀신 말 잘 들어.)

112044 @ 삭일도 이젠 안허잔아예.(삭일도 이젠 안하잖아요.)

112044 #1 이젠 그냥 산에서 탈상헤 불어. 오지 말렌.(이젠 그냥 산에서 탈상해버려서. 오지 말라고.)

112044 @ 탈상헤. 세상에.(탈상해. 세상에.)

112044 #1 하나님덜 낙으로 더 헴주게.(하나님들 낙으로 더 하지.)

112044 @ 음.(음.)

112044 #1 십자가 낙으로 더 헴서.(십자가 낙으로 더 하지.)

112045 @ 토롱에 대헤서 말씀헤 주십시오. 임시 묻는 거?(토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임시 묻는 거?)

112045 #1 여기는 그렇지 안헤. 저 서촌덜은 그렇게 토롱헤.(여기는 그렇지 안 해. 저 서촌들은 그렇게 '토롱'해.)

112045 @ 아.(아.)

112045 #1 서촌더레는 죽으면 날이 아니 나. 안 나기 덕분에 토롱헤여. 토롱헤둠서 집이서 상 봐.(서촌에는 죽으면 날이 아니 나. 안 나기 때문에 토롱해. 토롱 해 두고서 집에서 상 봐.)

112045 @ 여기는 그런.(여기는 그런.)

112045 #1 여기선 경 안 헤 그냥 죽으민 삼일장 헹 그냥 강 묻어.(여기선 그렇게 안 해 그냥 죽으면 삼일장 해서 그냥 가서 묻어.)

112045 @ 날 안 나와도?(날 안 나와도?)

112045 #1 안 나와도 뭐 삼일장이니까. 왜 삼일장 허난 상제 하나는 날짜가 재기나와. 상제 여서 일곱 나가민 그 상제 전부 놓젠 허민 힘들지. 날짜가.(안 나와도 뭐 삼일장이니까. 왜 삼일장 하니까 상제 하나는 날짜가 빨리 나와. 상제 여서 일곱 나가면 그 상제 전부 놓으려고 하면 힘들지 날짜가.)

112046 @ 이묘는 어떻게 합니까?(이묘는 어떻게 합니까?)

112046 #1 어?(어?)

112046 @ 이묘가 천리지예?(이묘는 어떻게 합니까? 이묘가 '천리'지요?)

112046 #1 천리. 이묘는 천리허는 거.('천리'. 이묘는 '천리'하는 거.)

112046 @ 건 어떵헙니까? 무사 천리헙니까?(건 어떻습니까? 왜 이묘헙니까?)

112045 #1 나쁘덴 허민 철리허는 거지. 집에 잇잔아, 즈순 잘못허민 초상을 헌덴. 어느 초상이 즈순 안뒈게 헐 사름이 어딧나.(나쁘다고 하면 이묘하는 거지. 집에 있잖아. 자손 잘못하면 조상을 한다고. 어느 조상이 자손 안 되게 할 사람이 어디 있나.)

112047 @ 맞수다게.(맞습니다.)

112045 #1 말이 말 닮아야지.(말이 말 같아야지.)

112047 @ 복은 언제 벗습니까?(복은 언제 벗습니까?)

112047 #1 복은 일 년에 벗어부는 사름도 잇고, 삼년에 허는 사름도 잇고.(복은 일 년에 벗어버리는 사람도 있고, 삼년에 하는 사람도 있고.)

112047 @ 대상 지난 다음 한 일년 더 입고?(대상 지난 다음 한 일 년 더 입고?)

112047 #1 아니 한 일년에 헤여부는 사름 잇어. 경 안허민 산에서 다헤부는 사름도 잇고.(아니 한 일 년에 해버리는 사람 있어. 그렇게 안하면 산에서 다 해버리는 사람도 있고.)

112047 @ 사십구재에 허는 사름도 잇고?(사십구재에 하는 사람도 있고?)

112047 #1 사십구재에도 허곡, 사십구재 전에도 이 산에서 오지 말렌 다 헤 불어.(사십구재에도 하고, 사십구재 전에도 이 산에서 오지 말라고 다 해버려.)

112048 @ 어이구.(어이구.)

112047 #1 축으로 오지 말렌.(축으로 오지 말라고.)

112048 @ 축으로예. 상례와 관련하여 금기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죽엉갈 때 멧 살은 보지 말라든가.(축으로요. 상례와 관련하여 금기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죽어서 갈 때 몇 살은 보지 말라든가.)

112048 #1 그거 다 나와. 웨냐하면은 멧 술 보지 말라 무시거 허라 다 나와이. 그 사름이 껄린단다. 그 보지 말라 헌 사름이. 경 만약에 그런 사름이 이시면은 이제 그 하관헐 때는 아무 선친 멧 술! 여기 잇소! 허면은 잇어도 없소! 헤 불어야 헤. 그 사름 끌려들어가.(그거 다 나와. 왜냐하면 몇 살 보지 말라! 뭐 하라 다 나와. 그 사람이 걸린단다. 그 보지 말라 한 사람이. 그렇게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이제 그 하관할 때는

아무 선친 몇 살 여기 있소! 하면 없어도 없소! 해버려야 해. 그 사람 끌려 들어가.)

112048 @ 아아.(아아.)

112048 #1 잇어도 없어! 헤 불어야. 그런디 가지 말아. 껄리는 사람덜은. 또 껄려 들어가. 거니까 이 껄린다 허면은 주의헤사. 이제도 주의헐 건 주의헤사 허여. 재수 궂이 민 껄려들여 간덴 허난.(있어도 없어! 해버려야. 그런데 가지 말아야 걸리는 사람들은. 또 걸려 들어가. 거니까 이 걸린다 하면 주의해야. 이제도 주의할 건 주의해야 해. 재수 궂으면 걸려들어 간다고 하니까.)

제례

112049 @ 제사 준비는 어떻게 합니까?(제사 준비는 어떻게 합니까?)

112049 #1 제ᄉᆞ?(제사)

112049 @ 예.(예.)

112049 #1 제ᄉᆞ 준빈 어떵허여? 옛날엔 콩ᄂᆞ물이 풀질 안 허니까 콩ᄂᆞ물 집이서 키와. 키와근에 허고, 또 묵, 묵 ᄀᆞ뜬 거 허고.(제사 준빈 어떻게 해? 옛날엔 콩나물이 팔질 안 하니까 콩나물 집에서 키워. 키워서 하고, 또 묵, 묵 같은 거 하고.)

112049 @ 여긴 콩주름이렌 안허영 그냥 콩나물이옌 헷수과?(여긴 콩나물이라고 않고 그냥 콩나물이라고 했습니까?)

112049 #1 콩주름이옌 허여. 옛날 콩주름.(콩나물이라고 해. 옛날 '콩주름'.)

112049 @ 콩주름.(콩나물.)

112049 #1 녹디주름.(녹두 나물.)

112049 @ 녹두주름.(녹두 나물.)

112050 @ 제물로 무엇을 준비합니까?(제물로 무엇을 준비합니까?)

112050 #1 잇인 사름은 막 출리구정 출리고, 엇인 사름은 못 출리는디, 밥만 거려놓는 때도 잇고, 힘이 엇이니까.(있는 사람은 막 차리고 싶으면 차리고, 없는 사람은 못 차리는데, 밥만 떠 놓는 때도 있고, 힘이 없으니까.)

112050 @ 경헤도 옥돔이라도 하나 꼭 올리젠 허지예?(그렇게 해도 옥돔이라도 하나 꼭 올리려고 하지요?)

112050 #1 에구 옥돔인가 무싱것가? 것도 잇인 사름 허주 엇인 사름은 것도 힘들어. 볼락 ᄒᆞ나 구워 놈도 힘들어. 자기 먹는 쏠이 엇인디, 금방 애기들 밥 헤줄 것도 엇인디 구신까지 생각허냐? 그 부자 ᄀᆞ튼 넉넉헌 사름덜은 경 왕창 출리주마는 엇는 사름은 그날 밥 헤먹을 것도 엇인 사름은.(에구 옥돔인가 뭔가? 것도 있는 사람 하지. 없는 사람은 것도 힘들어. 볼락 하나 구워놓기도 힘들어. 자기 먹는 쌀이 없는데, 금방 애기들 밥 해줄 것도 없는데 귀신까지 생각하나? 그 부자 같은 넉넉한 사람들은 그렇게 왕창 찰리지만 없는 사람은 그날 밥해 먹을 것도 없는 사람은.)

112050 @ 옛날엔 돗궤기, 쉐궤기, 무슨 상어고기 이런 거 아예 ᄒᆞᆫ 가지 헷수과?(옛날엔 돼지고기, 소고기, 무슨 상어고기 이런 거 아예 한 가지 했습니까?)

112050 #1 뒈지고기벳긔 더 허나. 상에 고기, 소고기가 어딧나? 옛날엔 뒈지고기 하나(돼지고기 밖에 더하나. 상에 고기, 소고기가 어디 있나? 돼지고기 하나.)

112050 @ 뒈지고기 하나?(돼지고기 하나?)

112050 #1 이제는 뭐 상에고기여 무신 뒈지고기여, 소고기여 다 잇잖아.(이제는 뭐 상어고기여, 무슨 돼지고기여, 소고기여 다 잇잖아.)

112050 @ 응.(응.)

112050 #1 옛날은.(옛날은.)

112050 @ 옛날 바닷고기로 적헐 때는 상어고기 많이 헤낫수과?(옛날 바닷고기로 적할 때 상어고기 많이 했었습니까?)

112050 #1 상어고기허는 사름, 부제나 허지.(어고기하는 사람, 부자나 하지.)

112050 @ 기지예.(그러죠.)

112050 #1 어디 가난뱅이도 상어고기 허나?(어디 가난뱅이도 상어고기 하나?)

112050 @ 뒈지고기 하나?(돼지고기 하나?)

112051 @ 콩나물은 어떻게 준비합니까?(콩나물은 어떻게 준비합니까?)

112051 #1 콩ᄂᆞ물은 콩ᄂᆞ물 키와야지.(콩나물은 콩나물 키워야지.)

112051 @ 시루에서 어떵?(시루에서 어떻게?)

112051 #1 집이서 콩 ᄃᆞᆼ갓다가 거 물 빠주와. 빠주민 ᄉᆞ락ᄉᆞ락 허민 사기 영 코 돋은 것이 이서. 것ᄀᆞ라 무시거렌 헌다? 무싱거옌 허여. 그것에 놔.(집에서 콩 담갔다가 거 물 빼줘. 빼 주면 사락사락 하면 사기 이렇게 코 돋은 것이 있어. 것보고 뭐라고 한다? 뭐라고 해. 그것에 놔.)

112051 @ 아.(아.)

112051 #1 그것에 키와.(그것에 키워.)

112051 @ ᄯᅳ뚯헌디 노민 잘.(따뜻한데 놓으면 잘.)

112051 #1 아니 건 철에 따라. 추우민 ᄯᅳ신디 놓고, 유월에 쯤은 베끗디.(아니 건 철에 따라. 추우면 따뜻한데 놓고, 유월에 쯤은 바깥에.)

112051 @ 음.(음.)

112051 #1 썩어 불어. 계절에 따랑. 그것이.(썩어버려. 계절에 따라서. 그것이.)

112052 @ 제육이?(제육이?)

112052 #1 제육은 그거 적게. 세 가지 허는 사람도 잇고 엇이민 뒈지고기 ᄒᆞ나만 허는 사름 잇고.(제육은 그거 적. 세 가지 허는 사람도 있고 없으면 돼지고기 하나만 하는 사람 있고.)

112053 @ 적은 몇 종류 준비합니까? 누가 또 합니까? 적?(적은 몇 종류 준비합니까? 누가 또 합니까? 적?)

112053 #1 옛날엔 뒈지고기 하나벳긔 안 헤여.(옛날엔 돼지고기 하나밖에 안 해.)

112053 @ 뒈지고기 하나(돼지고기 하나.)

112053 #1 이제는 세 개. 뒈지고기 소고기, 상에궤기허주만은 옛날은 뒈지고기 하나벳긔 안 헤여.(이제는 세 개. 돼지고기 소고기, 상어고기하지만 옛날은 돼지고기 하나밖

에 안 해.)

112053 @ 적은 적갈을 말하는 구나.(적은 '적갈'을 말하는 구나.)

112053 #1 그렇지.(그렇지.)

112054 @ 떡은 몇 종류를 준비합니까?(떡은 몇 종류를 준비합니까?)

112054 #1 이신 사름은 이신 냥 막 출리곡 엇인 사름은 하나토.(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막 차리고 없는 사람은 하나도)

112054 @ 게도 이신 사름을 기준으로 헹 골아봅서.(그래도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말해 보세요.)

112054 #1 신촌에는 이 설기떡허고 곤떡허곡이, 상웨떡, 그거벳긔 엇어. 지름떡허고.(신촌에는 이 백설기하고 흰떡하고, 상화떡, 그거밖에 없어. 기름떡하고.)

112055 @ 과일은 뭐?(과일은 뭐?)

112055 #1 세 가지. 또 엇인 사름은 혼 가지만.(세 가지. 또 없는 사람은 한 가지만.)

112055 @ 혼 가지엔 헌 건 뎅유지?(한가지라고 한 건 당 유자?)

112055 #1 혼 가지엔 헌 거는 이제 돈이 엇이니까 배 하나, 사과 하나 뎅오지. 옛날엔 뎅오지. 경 헹 올려. 세 가지를. 이젠 막 이만썩 올리잔아.(한가지라고 한 거는 이제 돈이 없으니까 배하나, 사과 하나, 당 유자. 옛날엔 당 유자. 그렇게 해서 올려. 세 가지를. 이젠 막 이만큼씩 올리잖아.)

112055 @ 옛날은 과일도 귀헷주게.(옛날은 과일도 귀했지.)

112055 #1 과일도 귀허여. 계란도 귀허여.(과일도 귀해. 계란도 귀해.)

112056 @ 계란도 귀허곡예. 채소는 어떤 것을 준비합니까?(계란도 귀하고요. 채소는 어떤 것을 준비합니까?)

112056 #1 콩나물허고 고사리. 옛날엔 거 두 가지벳긔 아니 허여.(콩나물하고 고사리. 옛날엔 거 두 가지밖에 아니 해.)

112056 @ 음. 꼭 세 가지 안올려도 뒈는구나.(음. 꼭 세 가지 안올려도 되는구나.)

112056 #1 응. 옛날은이 고사리허곡 콩ᄂᆞ물.(응. 옛날은 고사리하고 콩나물.)

112056 @ 무사 제사상엔 고사리 꼭 올리렌 헙니까?(음. 꼭 세 가지 안 올려도 되는구나. 왜 제사상엔 고사리 꼭 올리라고 합니까?)

112056 #1 그 고사리는 나도 몰르는데, 거 고사리가 세 가지로 벌리잔아. 그것에 이 음식을 쌍 간단다.(그 고사리는 나도 모르는데, 거 고사리가 세 가지로 벌리잖아. 그것에 이 음식을 싸서 간단다.)

112056 @ 음.(음.)

112056 #1 고사리. 옛날엔 무신 비니루가, 종이가 잇나.(고사리. 옛날엔 무슨 비닐이, 종이가 있나.)

112056 @ 음.(음.)

112056 #1 엇이니까 고사리에 거 쌍간덴.(없으니까 고사리에 거 싸서 간다고.)

112057 @ 음. 진설은 누가 합니까?(진설은 누가 합니까?)

112056 #1 어?(어?)

112056 @ 상에 이렇게 저녁에 이렇게 진설허는 거.(상에 이렇게 저녁에 이렇게 진설하는 거)

112056 #1 누게가 촐립네까?(누가 차립니까?)

112056 @ 예.(예.)

112056 #1 애기덜이 촐리주. 누게가 촐려?(애기들이 차리지. 누가 차려?)

112056 @ 아부지가? 남자가? 상에?(아버지가? 남자가? 상에?)

112056 #1 뭐?(뭐?)

112056 @ 제사상에 올리는 건 누가 합니까?(제사상에 올리는 건 누가 합니까?)

112057 #1 그디 아덜이 촐리지.(거기 아들이 차리지.)

112057 @ 큰 아덜?(큰 아들?)

112057 #1 큰 아덜이 허나 족은아덜이 허나. 또 아덜 엇인 사름은 뚤냥으로.(큰 아들이 하나 작은 아들이 하나. 또 아들 없는 사람은 딸 스스로.)

112057 @ 뚤이라도 그냥 올리믄 뒈는 거?(딸이라도 그냥 올리면 되는 거?)

112057 #1 응.(응.)

112058 @ 메, 겡은 누가 뜹니까?(메, 갱은 누가 뜹니까?)

112058 #1 이제는 아무라도 떠도 그때는 큰메누리.(이제는 아무라도 떠도 그때는 큰며느리.)

112058 @ 큰메누리예. 시어멍이 떠도 뒈고?(큰며느리요. 시어머니 떠도 되고?)

112058 #1 그 시어멍이 늙으믄 메누리 허렌 주지.(그 시어머니 늙으면 며느리 하라고 주지.)

112059 @ 헌관에 대헤서 말씀혜 주십시오. 초헌관이여, 이헌관이여, 들어봣수과?(헌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초헌관이여, 이헌관이여, 들어봤습니까?)

112059 #1 초헌관, 이헌관은 장때나 허주. 어디 초헌관? 그거는 포제 헐 때.(초헌관, 이헌관은 장 때나 하지. 어디 초헌관? 그거는 포제 할 때.)

112059 @ 포제헐 때예.(포제 할 때요.)

112059 #1 ᄆᆞ을에 큰 제. 그런 건 상제관, 중제관, 하제관 허잔아. 건 ᄆᆞ을제.(마을에 큰 제. 그런 건 상제관, 중제관, 하제관 하잖아. 건 마을제.)

112060 @ 파제는 몇 시에 합니까?(파제는 몇 시에 합니까?)

112060 #1 게난 열두시에 허주. 딱 열두시. 열두시 딱 뒈어사 이 구신이 조용헐 때 먹엉간덴. 사람 와글와글 이젠 그냥 식게밥을 저녁밥으로 헌덴 허난.(그러니까 열두시에 하지. 딱 열두시. 열두시 딱 되어야 이 귀신이 조용할 때 먹어서 간다고. 사람 와글와글 이젠 그냥 제사 밥을 저녁밥으로 한다고 하니까.)

112060 @ 게니까.(그러니까.)

112060 #1 옛날은 이 고요헌 때. 열두시. 옛날식이 어디 셔.(옛날은 이 고요한 때. 열두시. 옛날식이 어디 있어.)

112061 @ 문전제는 어떻게 지냅니까?('문전제'는 어떻게 지냅니까?)

112061 #1 문전제[145]는 문전제지. 문전제는이 들어가는 거 보고 문전[146]이라고 허

여. 건디 상을 체얌 문여 문전상부터 문저 출리는 거. 그다음은 초상.('문전제'는 문전제지. '문전제'는 이 들어가는 거 보고 문전이라고 해. 그런데 상을 처음 먼저'문전상'부터 먼저 차리는 거. 그다음은 조상.)

112061 @ 열두시쯤에 파제허기 전에 문전제를 지냅니까?(열두시쯤에 파제허기 전에 '문전제'를 지냅니까?)

112061 #1 파제헐 고비에 문전제도 ᄀᆞ찌 봐.(파제할 즈음에 문전제도 같이 봐.)

112062 @ 제반은 거뒁 어떻게 합니까?(제반은 거둬서 어떻게 합니까?)

112062 #1 제반을 걷으민 옛날은 초가집 잇잔아.(제반을 걷으면 옛날은 초가집 있잖아.)

112062 @ 문전제 제반?(문전제 제반?)

112062 #1 그거는 이제 문전허고 조왕에 어멍, 아덜이니까 문전꺼 걸어당 조왕더레 강 놓잔아. 조왕허곡 문전허곡 큰아덜에 어멍.(그거는 이제 문전하고 조왕에 어머니, 아들이니까 문전 거 걸어다가 조왕에 가서 놓잖아. 조왕하고 문전하고 큰아들에 어머니.)

112062 @ 큰아덜에 어멍? 그거는 걷어당 어떵헤.(큰아들에 어머니? 그거는 걷어다가 어떻게 해.)

112062 #1 그거는 거둬당 부엌더레 놔. 겐디 부엌에는 바닷고기 안 써. 바닷고긴 안 놔.(그거는 걷어다가 부엌에 놔. 그런데 부엌에는 바닷고기 안 써. 바닷고긴 안 놔.)

112062 @ 무사마씸?(왜요?)

112062 #1 춤 이상허여. 조왕에는 바닷고기 안 들어가.(참 이상해. 조왕에는 바닷고기 안 들어가.)

112062 @ 물에 빠져부난 경 헴신가?(물에 빠져버리니까 그렇게 했는가?)

112062 #1 무신 덕분산디 몰라. 거 이 역사가 잇어.(무슨 때문인지 몰라. 거 이 역사가 있어.)

112062 @ 음.(음.)

112062 #1 역ᄉᆞ가 잇어. 어멍이.(역사가 있어. 어머니가.)

112062 @ 음. 식계 파제헌 제반은 초가집에 올리고?(제사 파제한 제반은 초가집에 올리고?)

112062 #1 어, 또 문전제 헤난 건 조왕에.(어, 또 문전제 했던 건 조왕에.)

112063 @ 지제는 언제 합니까?(지제는 언제 합니까?)

112063 #1 지제는 자식 엇인 사름 지제헤 불어. 오지 말렌. 자식 잇인 사름은 지제 안 허여. 몃 대 손 손지덜ᄁᆞ지 허잔아.(지제는 자식 없는 사람 지제해 버려. 오지 말라고. 자식 있는 사람은 지제 안 해. 몇 대 손 손자들까지 하잖아.)

112063 @ 제사가 없어지는 거로구나, 대가 끊기면.(제사가 없어지는 거로구나, 대가 끊기면.)

112063 #1 대 끈어지민 그냥 아녀는 거. 겨니까 아덜 나민 좋다. 좋다. 허곡, 뚤은

145) '문전제'는 주로 본 제사를 지내기 전에 문 앞에서 지내는 제사를 말한다.
146) '문전'은 마루방의 문을 관장하는 신을 말한다.

나민 피목ᄉᆞ 놈의 집의 가부니까. 애기업게[147]로. 똘은 애기로 아이 생각혜.(대 끊어지면 그냥 안 하는 거. 그러니까 아들 나면 좋다. 좋다, 하고, 딸은 나면 피목사. 놈의 집의 가부니까. 업저지로. 딸은 애기로 아니 생각해.)

112063 @ 웨손지가 웨할아버지 제사를 하기가 어렵겟다예.(외손자가 외할아버지 제사를 하기가 어렵겠네요.)

112063 #1 똘보단 낫넹 혜. 웨손지가. 산을 옛날엔 놈의 맥산을 강 씨여 불어. 게믄 막 산우에 싸움덜 막 칼들르멍 막 헤도 웨손지가 나강 싸운단다. 산 싸움을. 웨손지가 앞상 헌덴 성손지보다.(딸보다 났다고 해. 외손자가. 산을 옛날엔 남의 맥산을 가서 써 버려. 그러면 막 산우에 싸움들 막 칼 들으면서 막 해도 외손자가 나가서 싸운단다. 산 싸움을. 외손자가 앞서서 한다고 성손자보다.)

112064 @ 묘제는 어떻게 합니까?(묘제는 어떻게 합니까?)

112064 #1 묘제는 그냥 이제 여러 대 뒈가민 묘제로 들어가.(묘제는 그냥 이제 여러 대 돼 가면 묘제로 들어가.)

112064 @ 합쳥?(합쳐서?)

112064 #1 아니 묘제는 산으로 강 혜부는 것이 묘제.(아니 묘제는 산으로 가서 해버리는 것이 묘제.)

112064 @ 제사를 산으로 강?(제사를 산으로 가서?)

112064 #1 그렇지. 묘제는 이 집이서 허당 이제 ᄌᆞ순덜이 멧 가지덜이 넘어가민 산으로 가 불어. 지네가. 삼대ᄁᆞ지는 집이서 허주마는 사대 뒈가믄 산으로.(그렇지. 묘제는 이 집에서 하다가 이제 자손들이 몇 가지들이 넘어가면 산으로 가버려. 자기네가. 삼대까지는 집에서 하지만 사대 되 가면 산으로.)

112064 @ 아, 한꺼번에 모아서.(아, 한꺼번에 모아서.)

112064 #1 거난 친인척덜이 다 한 뻔에. 거난이. 이제 ᄉᆞ춘 넘엉 육춘으로 가민 친척 아니냐게. 거난 이녁이 육촌, 칠촌 뒈여가민 산으로 들어가.(그러니까 친인척들이 다 한번에. 그러니까 이제 사촌 넘어서 육촌으로 가면 친척 아니냐. 그러니까 이녁이 육촌, 칠촌 되 가면 산으로 들어가.)

112065 @ 제사와 관련하여 금기 사항이 있으면 말씀혜 주십시오.(제사와 관련하여 금기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112065 #1 제삿날은 무슨 몸 구치민 그 초상이 안 먹어가. 냄새 나뎅 해.(제삿날은 무슨 몸 궂어지면 그 조상이 안 먹어가. 냄새 난다고 해.)

112065 @ 게믄 어떵혜? 메누리가 그날 멘스가 오민 어떵혜?(그러면 어떻게 해? 며느리가 그날 생리가 오면 어떻게 해?)

112065 #1 멘스 오면은 뚠 사름이 혜야주. 동넷사름을 빌어당을 허던가. 권당을 허던가.(생리 오면 딴사람이 해야지. 동네 사람을 빌어다가 하던가. 친척을 하던가.)

112065 @ 정말마씨?(정말요?)

112065 #1 그렇지. 냄새낭 무신 제삿밥을 허나게. 거니깐 옛날에도 날레[148]널젠 허

147) '애기업게'는 어린아이를 업어주며 돌보는 사람을 말한다.

당 그거오민 설러부렁게.(그렇지. 냄새나서 무슨 제삿밥을 하나. 그러니깐 옛날에도 '날레' 널려고 하다가 그거 오면 그만둬 버렸어.)

112065 @ 아이고야.(아이고야.)

112065 #1 설렁 훗날로 허잔아. 재수 궂젠 허민 그것이 꼭 그 고리에 와.(그만두고 훗날로 하잖아. 재수 궂으려고 하면 그것이 꼭 그쯤에 와.)

11. 민간요법

113001 @ 이번에는 민간요법이우다예. 기계총 들어봣수과?(이번에는 민간요법입니다. 기계총 들어봤습니까?)

113001 #1 기계총 들어본 도리가.(기계총 들어본 도리가.)

113003 @ 비듬?(비듬?)

113003 #1 비듬은 머리에 비듬.(비듬은 머리에 비듬.)

113003 @ 게난 건 어떵 치료해?(그러니까 건 어떻게 치료해?)

113003 #1 머리 아이 곰아가민 비듬 생기주게.(머리 아이 감으면 비듬 생기지.)

113003 @ 옛날엔 비듬 셍기민 방법이 엇엇수과?(옛날엔 비듬 생기민 방법이 없었습니까?)

113003 #1 옛날엔 뭐 머리에 니가 털어졍 머릴 곰냐? 뿔래비누도 엇고, 옛날엔 이 요름에 꿰 잇잔아 꿰. 그거 해단 영 물 거련 허민 푸달푸달헌 물이 나와. 그것에 머리 곰아. 옛날에 요름에. 비누도 엇곡 그냥 맨 물에다가 곰지.(옛날엔 뭐 머리에 이가 떨어져서 머릴 감냐? 빨래비누도 엇고, 옛날엔 이 여름에 깨 있잖아 깨. 그거 해단 이렇게 물 떠서 하면 푸달푸달한 물이 나와. 그것에 머리감아. 옛날에 여름에. 비누도 없고 그냥 맨 물에다가 감지.)

113004 @ 버짐은? 진버짐? 므른버짐?(버짐은? 진버짐? 마른버짐?)

113004 #1 버즘은 옛날 조 잇잖아. 조를 이제 쏠로, 좁쏘로 골때에 그 조채, 조채 헤당은에 그 지름을 빠. 게믄 그것이 알로이 노랑헌 물이 나와. 그거 불르믄 좋는 거.('버즘'은 옛날 조 있잖아. 조를 쌀로 좁쌀로 갈 때에 그 조채, 조채 해다가 그 기름을 빼. 그러면 그것이 아래로 노랑한 물이 나와. 그거 바르면 낫은 거.)

113004 @ 아아 세상에.(아아 세상에.)

113004 #1 조채지름. 옛날 무신 약이 잇나 뭐 잇나게. 그런 걸로 허지 안행.(조채기름. 옛날 무슨 약이 있나 뭐 있나. 그런 걸로 하지 않아서.)

113005 @ 백선? 무좀은?(백선? 무좀은?)

113005 #1 나는 무좀이 생기면은 무엇이 허냐 허면은 그게 소금물에다가 누룩낭 잇

148) '날레'는 볕을 쐬기 위하여 멍석에 널어놓은 곡식을 말한다.

잖아. 가신세 뿌리, 들에 가믄 잇어. 그거 헤여다가 물 뜨뜻허게 막 끓영 식히면은 그냥 듕가.(나는 무좀이 생기면 무엇을 하냐 하면 그게 소금물에다가 느릅나무 있잖아. '가신세' 뿌리, 들에 가면 있어. 그거 해다가 물 따뜻하게 막 끓여서 식히면 그냥 담가.)

113005 @ 소금 놩은에. 누룩? 누릅?(소금 놔서. '누룩'? 느릅?)

113005 #1 누룩낭.(느릅나무.)

113005 @ 누룩낭에?(느릅나무에?)

113005 #1 누룩낭이옌 허면은 종기 나면 그 누룩낭 헤당 부찌민 막 구진물 짜잔아.(느릅나무라고 하면 종기나면 그 느릅나무 해다가 붙이면 막 구정물 짜잖아.)

113005 @ 아아.(아아.)

113005 #1 구진물 짜는 거. 누룩낭. 가신세 뿔리로는 이 저 무신 거 균 죽이는 거. 누룩낭은 그 구진물 짜는 거. '가신세' 뿔리는 이 무시거 균 죽이는 거. 경허난 가신세 뿔리하고 누룩낭 막 비싸잖아.(구정물 짜는 거. 느릅나무. '가신세' 뿌리로는 이 저 뭐 균 죽이는 거. 느릅나무은 그 궂은 물 짜는 거. '가신세' 뿌리는 이 뭐 균 죽이는 거. 그러니까 '가신세' 뿌리하고 느릅나무 막 비싸잖아.)

113006 @ 아아. 여드름 나민?(아아. 여드름나면?)

113006 #1 여드름나민 내불주 거.(여드름나면 내버리지. 거.)

113006 @ 옛날에.(옛날에.)

113006 #1 내불어. 여드름 나민 거 기냥 내불주 무신.(여드름 나면 내버리지. 내버려. 여드름 나면 거 그냥 내버리지 무슨.)

113007 @ 지미?(기미?)

113007 #1 지미도 내불고. 약이 어딧나? 옛날에.(지미도 내불고. 약이 어디 있나? 옛날에.)

113007 @ 어떤 때 지미가 납니까?(어떤 때 기미가 납니까?)

113007 #1 지미는 애기 나근에 몸조리 못허민 지미 지잔아. 애기 낭.(기미는 애기 나서 몸조리 못하면 지미 생기잖아. 애기 나서.)

113008 @ 주근깨?(주근깨?)

113008 #1 주근깬 얼굴에 나고.(주근깬 얼굴에 나고.)

113008 @ 프리똥?(기미.)

113008 #1 프리춤 잇는 사름이 이젠 엇어. 그런 사람 엇어. 옛날엔 데닥데닥 허연. 약으로 헨 다 고쩜신가?(주근깨 있는 사람이 이젠 없어. 옛날엔 다닥다닥 해서. 약으로 해서 다 고쳤는가.)

113008 @ 게메.(글쎄.)

113008 #1 거 씨로 가메. 종류로. 프리춤 이신 집은 똑.(거 씨로 가. 종류로. 주근깨 있는 집은 꼭.)

113008 @ 헤헤헤.(헤헤헤.)

113008 #1 프리춤 거 잇어 또.(주근깨 거 있어 또.)

113008 @ 하하.(하하.)

113009 @ 다음, 사마귀? 사막?(다음, 사마귀? 사마귀?)

113009 #1 사막은 다 얼굴에 신거. 내불어.(사마귀은 다 얼굴에 있는 거. 내버려.)

113009 @ 내불어 그냥.(내버려 그냥.)

113009 #1 눈물사막은 눈 아래 신건 눈물사막. 우는 눈물사막은 질 나쁜 거 ᄀᆞ타.(눈물사마귀는 눈 아래 있는 거, 눈물사마귀. 우는 눈물사마귀는 제일 나쁜 거 같아.)

113009 @ 나빠예.(나빠요.)

113009 #1 복 사막은 요런 디 부뜨는 건 복 사막.(복 사마귀은 요런 데 붙은 건 복 사마귀.)

113009 @ 복 사막.(복 사마귀.)

113009 #1 눈물사막, 복 사막.(눈물사마귀, 복 사마귀.)

113010 @ 다래끼?(다래끼?)

113010 #1 다래낀 눈, 눈에.(다래낀 눈, 눈에.)

113010 @ 으흐흐, 눈에.(으흐흐, 눈에.)

113010 # 것ᄀᆞ라 거 무시게옌 ᄀᆞᆯ아라만은 다래끼 ᄀᆞᆯ아라마는.(것보고 거 뭐라고 말해라만. 다래끼 말하더라만.)

113010 @ 개 뭐여. 개. 우엣 건 개씹이고, 개좇이여. 아이 개씹이여, 개좇이여. 뭐 헌덴 허드라.(개 뭐여. 개. 위의 건 '개씹'이고, '개좇'이여. 아이 '개씹'이여, '개좇'이여. 뭐 한다고 하더라.)

113010 # 뭐옌 ᄀᆞᆯ아난 디 잊어불언. 거 이제 그런 거 나는 사름 엇어.(뭐라고 말했는데 잊어버렸어. 거 이제 그런 거 나는 사람 없어.)

113010 @ 여기서도 개씹, 두 가지 다 썻수과?(여기서도 '개씹', 두 가지 다 썼습니까?)

113010 #1 개 씹.('개씹'.)

113010 @ 개 좇?('개좇'?)

113010 #1 개좇은 아녀고 눈에이 드렝이 난 건 개씹 난 거.('개좇'은 안했고 눈에 '드렝이' 난 건 '개씹' 난 거.)

113010 @ 아, 드렝이.(아, '드렝이'.)

113010 #1 이젠 그런 사람 못봐.(이젠 그런 사람 못 봐.)

113010 @ 약이 좋으난예.(약이 좋으니까요.)

113010 #1 약이 좋으난.(약이 좋으니까.)

113011 @ 눈 충혈 뒈민 뭐렌 헙니까? 눈 막 뻘겅허면.(눈 충혈 되면 뭐라고 합니까? 눈 막 뻘겅하면)

113011 #1 뻘겅헌 걸 어떵 혀. 열 생겨도 뻘겅허지 감기사.(뻘건 걸 어떻게 해. 열 생겨도 뻘겅 하지 감기야.)

113012 @ 이빨 아프민 뭐 어떵허여?(이빨 아프면 뭐 어떻게 해?)

113012 #1 이빨 아픈 걸 어떵허여? 소금에다 ᄌᆞ져사. 약 엇이난.(이빨 아픈 걸 어떻게 해? 소금에다 적셔야. 약 없으니까.)

113013 @ 셋가시? 혓바닥에 셋가시 나민 어떵헙니까?(혓바늘? 혓바닥에 혓바늘 나면 어떻게 합니까?)

113013 #1 셋가시 나면은 저 소금에 저 그 세우리 잇잔아. 것ᄀᆞ라 달레옌 허는가? 것에서 박박 문데경. 피나게. 경허민 좋아 불어.(혓바늘 나면 저 소금에 부추 있잖아. 것에서 박박 문질러서 피나게. 그렇게 하면 좋아 버려.)

113013 @ 세우리하고 달래 꿩마농허고 뜰려예?(부추하고 달래 '꿩마농'하고 틀려요?)

113013 #1 세우리 뜰리지. 세우리ᄀᆞ라 뭐옌 헨?(부추 틀리지. 부추보고 뭐라고 했어요?)

113013 @ 세우리가 세우리주게. 부추, 부추.(부추가 부추지. 부추, 부추.)

113013 #1 부추. 부추. 나가 어떵헹 알리만은 서울 살 때 세우리 풀렌허난 세우리 엇덴? 그 사람덜이. 이제 뚤ᄀᆞ라 야! 세우리 엇덴. 시장에 천지만진디 무슨, 세우리 풀렌? 사투리 골믄 나 그 사람덜이 압네까? 무싱거옌 골아? 부추ᄃᆞ렌 헤야 걸 줘.(부추. 부추. 나가 어떻게 해서 알랴 만은 서울 살 때 부추 팔려고 하니까 부추 없다고? 그 사람들이. 이제 딸보고 야! 부추 없다고. 시장에 천지만지인데 무슨, 부추 팔라고? 사투리 말하면 나 그 사람들이 압니까? 뭐라고 말해? 부추 달라고 해야 걸 줘.)

113013 @ 맞수다게. 진짜.(맞습니다. 진짜.)

113013 #1 거 육지 사람덜은 몰르더라고 엇덴. 이거 풀렌 이거. 게난 부추옌 골렌.(거 육지 사람들은 모르더라고 없다고. 이거 팔라고 이거. 그러니까 부추라고 말하라고.)

113013 @ 부추.(부추.)

113014 @ 천연두?(천연두?)

113014 #1 뭐?(뭐?)

113014 @ 천연두가 뭐꽈? 마마지예.(천연두는 뭡니까? 마마지요.)

113014 #1 천연두?(천연두?)

113014 @ 음. 천연두. 마마, 홍역. 홍역은 마누라고.(음. 천연두. 마마, 홍역. 홍역은 마누라고.)

113014 #1 응, 홍역, 홍역.(응. 홍역, 홍역.)

113014 @ 천연두는 또 뭔고?(천연두는 또 뭔고?)

113014 #1 거는 저 돌림병 닮다. 천연두. 막 열나는 천연두. 옛날은 그거 막 올르곡 헤여.(거는 저 돌림병 닮다. 천연두. 막 열나는 천연두. 옛날은 그거 막 오르고 해.)

113014 @ 예. 옮기는 거 닮다. 천연두는.(예. 옮기는 거 닮다. 천연두는.)

113014 #1 음. 옛날엔 예방주사가 엇잔아. 게믄 그냥 올라. 감기도 올리고.(음. 옛날엔 예방주사가 없잖아. 그러면 그냥 올라. 감기도 올리고)

113014 @ 고치는 방법은? 그렇게 하면 옮기면 어떻게 할 거라.(고치는 방법은? 옮기면 어떻게 할 거라.)

113014 #1 옮기믄 어떵허여게. 그냥 내불어사주.(옮기면 어떻게 해. 그냥 내버려야지.)

113015 @ 홍역?(홍역?)

113015 #1 옛날은이 마누라도 숫 잔아. 거 마누라엔 헌 건이. 열병.(옛날은 마누라도 새끼 매잖아. 거 마누라라고 한 건 열병.)

113015 @ 열병.(열병.)

113015 #1 열병. 그거 헐 때 다 숫 매어.(열병. 거 할 때 다 새끼 매어.)

113015 @ 숫이 뭐꽈?(새끼가 뭡니까?)

113015 #1 올래에.(올래에.)

113015 @ 금줄?(금줄?)

113015 #1 그런 줄.(그런 줄.)

113015 @ 거 숫이렌 헙니까?(거 새끼라고 합니까?)

113015 #1 그걸 숫 매는 거. 금줄 심방덜은 금줄이엔 헤여.(그걸 새끼 매는 거. 금줄 무당들은 금줄이라고 해.)

113015 @ 아, 그걸 숫이렌 허는구나.(아, 그걸 새끼라고 하는구나.)

113015 #1 숫 놓곡, 또 아픈 사름은 숫메영 그 진 나무 정낭, 정난 놓곡, 숫 메고. 숫도 막 알더레 지렝이 헌 거는 무시거 헤난 집이고, 또시 바짝허게 맨 집이는 날 넹길 집이고.(새끼 놓고, 아픈 사람은 새끼 매여서 그 진 나무 정낭, 정낭 놓고 새끼 놓고. 새끼도 막 알에 늘어지게 한 집은 뭐 해난 집이고, 또 바싹하게 맨 집이는 날 넘길 집이고.)

113015 @ 날 넹긴다는 건 뭐꽈?(날 넘긴다는 건 뭡니까?)

113015 #1 심방 빌어다근에 기도허는 거. 정월나민.(무당 빌어다가 기도하는 거. 정월나면.)

113015 @ 여긴 소나무가지나 이런 거 꼽고 숯 꼽고 이런 건 아니고 새끼만?(여긴 소나무가지는 애기 난 때 하는 거고. 이런 거 꼽고 숯 꼽고 이런 건 아니고 새끼만?)

113015 #1 거 소나무가지는 애기 난 때에.(소나무가지는 애기 난 때요.)

113015 @ 응.(응.)

113015 #1 고추 숯, 그런 건 애기 난 때 허는 거.(소나무가지는 애기 난 때에 고추 숯 그런 건 애기 난 때 하는 거.)

113015 @ 애기난 때만 새끼줄만?(애기 난 때만 새끼줄만?)

113015 #1 숫은 이제, 열병ᄀᆞ라 소님이엔 허여.(새끼는 이제, 열병보고 손님이라고 해.)

113015 @ 손님.(손님.)

113015 #1 그거 헐 때예 숫 매불어. 몸 궂힌 사름 들어가믄이 그냥 아기가 병신 뒈불어.(그거 할 때에 새끼 매버려. 몸 궂은 사람 들어가면 이 그냥 아기가 병신 돼버려.)

113015 @ 음.(음.)

113015 #1 박박 긁어 불어.(박박 긁어버려.)

113015 @ 아아.(아아.)

113015 #1 게민 곰보 뒈잔아.(그러면 곰보 되잖아.)

113015 @ 곰보 뒈불어.(곰보 돼버려.)

113015 #1 게난 그거 못 들어오게.(그러니까 그거 못 들어오게.)

113015 @ 아아.(아아)

113015 #1 방비허는 거. 몸 구친 사름이나 또 마누라 허당 애기덜 죽은 사름이나.(방비하는 거. 몸 궂은 사람이나. 또 마누라 하다가 애기들 죽은 사람이나.)

113015 @ 음.(음.)

113015 #1 옛날은 열병허단 많이 죽엇네. 이젠 주사로 다 옮기고. 옛날은 열병 허멍 막 죽어불어. 게난 그런 사름 못 들어가게. 이제 숫 매는 거. 다 이유가 잇지이.(옛날은 열병하다가 많이 죽었네. 이젠 주사로 다 옮기고. 옛날은 열병 하면서 막 죽어버렸다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 못 들어가게 새끼 매는 거. 다 이유가 있지.)

113016 @ 학질? 들어봣수과? 학질 들어봐수과?(학질? 들어봤습니까? 학질 들어봤습니까?)

113017 @ 볼거리?(볼거리?)

113017 #1 몰라. 그런 건.(몰라. 그런 건.)

113018 @ 목거리?(목거리?)

113019 @ 땀띠? 똠띠?(땀띠? 땀띠?)

113019 #1 땀띠는 이 똠 나가민 잰잰헌 거 낭. 건 바당의 짠물에 강 드러누워야.(땀띠는 이 땀 나가면 자잘한 거 나서. 건 바다의 짠물에 가서 드러누워야.)

113019 @ 헤헤헤헤.(헤헤헤헤.)

113019 #1 그건 짠물에만 들어앚이민 들어가. 짠물에만 곰아가민 들어가. 막 끈적끈쩍 ᄀᆞ롭지 건.(그건 짠물에만 들어앉히면 들어가. 짠물에만 목욕하면 들어가. 막 끈적끈쩍 가렵지. 건.)

113020 @ 음. 부스럼?(음. 부스럼?)

113020 #1 부스럼? 부시럼 나민 궤약을 부찌던가.(부스럼? 부스럼 나면 고약을 붙이던가.)

113020 @ 음.(음.)

113020 #1 궤약이 잇어. 옛날은. 옛날은이.(고약이 있어. 옛날은. 옛날은.)

113020 @ 응.(응.)

113020 #1 이 탕관청에 강.(이 탕건청에 가서.)

113020 @ 예.(예.)

113020 #1 비리옌 헌 거 올라와. 막 ᄀᆞ로와.(비리라고 한 거 올라와. 막 가려워.)

113020 @ 아아.(아아.)

113020 #1막 무신 거 뽀족뽀족 나곡 거이 혼이불덜 눅잔아. 옛날엔. 그런 거 그냥 올라와. 아이구, 혼낫젠 허난 나도.(막 무슨 거 뾰족뾰족 일어나고. 거 이 한 이불들 눕잖아. 옛날엔. 그런 거 그냥 올라와. 아이구, 혼났다고 하니까. 나도.)

113020 @ 아, 빈데, 빈데?(아, 빈대, 빈대?)

113020 #1 빈데가 아니고 것ᄀᆞ라 비리, 비리.(빈대가 아니고 것보고 비리, 비리.)

113020 @ 비리엔?(비리라고?)

113020 #1 빈데 아니곡. 빈데는 사름 튿어먹는 것이 빈데고 비리. 비리.(빈대 아니고. 빈대는 사람 뜯어먹는 것이 빈대고 비리. 비리.)

113020 @ 음.(음.)

113020 #1 비리 올랏젠 혀.(비리 올랐다고 혀.)

113020 @ 아아.(아아.)

113020 #1 이런 손까락에도 막 나고.(이런 손가락에도 막 나고.)

113020 @ 아아.(아아.)

113020 #1 막 끈적끈적혜.(막 끈적끈적해.)

113022 @ 종기가 아까?(종기가 아까?)

113022 #1 허물.(허물.)

113022 @ 종기가 뭐가 좋덴 헷수과?(종기가 뭐가 좋다고 했습니까?)

113022 #1 종기에도 궤약. 또시이, 함박허물 나잔아. 함박허물 아나? 몸에다가 종기 나잔아 종기, 그거 나믄 바당에 강 그것ᄀᆞ라 무신 조개엔 흔다마는 바당에 그런 조개가 잇어. 그거 테당 부쪄. 옛날에 욕헐 때 느네 어멍x에 함박허물이나 나라. 무사 경 어멍x에 함박허물 나랜.(종기에도 고약. 또, 함박허물 나잖아. 함박허물 아나? 몸에다가 종기 나잖아 종기, 그거 나면 바다에 가서 그것보고 무슨 조개라고 한다만 바다에 그런 조개가 있어. 그거 떼다가 붙여. 옛날에 욕할 때 너네 어멍x에 함박허물이나 나라. 무사 경 어멍x에 함박허물 나라고.)

113024 @ 생손앓이 들어 봣수과?(생손앓이 들어 봤습니까?)

113024 #1 생손 알리는 거? 생손?(생손 알리는 거? 생손?)

113024 @ 생손앓이?(생손앓이?)

113024 #1 생손 알리는 거? 생손 알릴 땐이 소곰장에 놩 뒌장 잇잔아. 것에 찌메야 해. 거난 그것이이, 꽝꽝헌 것이 죽어 불어.(생손 알리는 거? 생손 알릴 땐 이 소금장에 놓아서 된장 있잖아. 것에 싸매야 해. 그러니까 그것이 이, 꽝꽝한 것이 죽어버려.)

113024 @ 뒌장이 좋긴 좋은거다예.(된장이 좋긴 좋은 거네요.)

113024 #1 뒌장이 약이라.(된장이 약이라.)

113025 @ 두드러기, 두드러기는?(두드러기, 두드러기는?)

113025 #1 두드러기는 뻬비옌 헌 것이 잇어이. 개미 닮은 것이 잇어. 그것이 사름을 쏘아불어.(두드러기는 '뻬비'라고 한 것이 있어. 개미 닮은 것이 있어. 그것이 사람을 쏘아불어.)

113025 @ 빼비, 빼비. 응.('빼비', '빼비'. 응.)

113025 #1 빼비 그거 물어 불민.('빼비' 그거 물어 버리면.)

113025 @ 두드러기?(두드러기?)

113025 #1 긁어가민 두드레기 닮은 것이 막 나잔아.(긁어 가면 두드러기 닮은 것이 막 나잖아.)

113025 @ 고치는 방법은?(고치는 방법은?)

113025 #1 고치는 방법 막 긁당 보민 허당 버치민 소금에다가.(막 긁다가 보면 하다가 버치면 소금에다가.)

113025 @ 소금벳긔 엇는.(소금밖에 없는.)

113025 #1 ᄀᆞ류우면은 소금에다가 박박 문뎌. 게난 이거 절여져불민 ᄀᆞ롭지 안허는 거지.(가려우면 박박 문질러. 그러니까 이거 절여져버리면 가렵지 안하는 거지.)

113026 @ 하하하. 뚬띠? 아까 헷고.(하하하. 땀띠? 아까 했고.)

113027 @ 경기? 애덜 정끼나민? 깜짝깜짝 놀레 가민?(경기? 아이들 경기 나면? 깜짝깜짝 놀래 가면?)

113027 #1 놀레 가민 의원신디 강 침 맞아야지.(놀래어 가면 의원에게 가서 침 맞아야지.)

113027 @ 옛날에 의원이 이수과게?(옛날에 의원이 있었나요?)

113027 #1 아, 침 노는 의원은 잇어.(아, 침 놓는 의원은 있어.)

113028 @ 어어. 화상? 데면? 데어, 데어.(화상? 데면? 데어, 데어.)

113027 #1 화상 어떵허여? 불에 데면은, 데면 죽지 사나?(화상 어떻게 해? 불에 데면, 데면 죽지 사나?)

113028 @ 게도 어느 정도.(그래도 어느 정도.)

113028 #1 열 소곱에 들으민 요샌 주사로 그 열을 다 뽑지만 옛날엔 그것에 바당에 가민 메역 잇잔아. 그걸 막 감아. 게민 메역이 파랑케 익어.(열 속에 들으면 요샌 주사로 그 열을 다 뽑지만 옛날엔 바다에 가면 미역 있잖아. 그걸 막 감아. 그러면 미역이 파랗게 익어.)

113028 @ 아아.(아아.)

113028 #1 감으민 파랑케 익어가믄 빼어당은에 또 그레 허곡.(감으면 파랗게 익어가면 빼어다가 또 거기 하고.)

113029 @ 화상. 동상? 얼어가지고.(화상. 동상? 얼어가지고.)

113029 #1 동상 걸린 거는 둠비 물 잇잔아. 둠비물 빌어다가 뜨뜻허게다가 발을 커. 손이고 뭐이고 둠비에. 옛날에 약이 잇나?(동상 걸린 거는 두부 물 있잖아. 두부물 빌어다가 따뜻하게다가 발을 담가. 손이고 뭐이고. 옛날에 약이 있나?)

113030 @ 바로 커. 감기? 고뿔?(바로 담가. 감기? '고뿔?')

113030 #1 고뿔?(감기?)

113030 @ 예.(예.)

113030 #1 감기는 옛날엔 주사도 엇고 뭣도 엇고 허면은 그 계란 잇잔아.(감기는 옛날엔 주사도 없고 뭣도 없고 하면 그 계란 있잖아.)

113030 @ 예.(예.)

113030 #1 계란에 술 것에 타근에 들이싸민 뜨신 방에 누민 막 뚬으로 나.(계란에 술 것에 타서 들이 마시면 뜨거운 방에 누우면 막 땀으로 나.)

113030 @ 아아.(아아.)

113031 #1 뚬으로 다 나민 감기가 좋아.(땀으로 다 나면 감기가 좋아.)

113030 @ 아아.(아아.)

113031 #1 이젠 약만 놓으민.(이젠 약만 놓으면.)

113031 @ 기침?(기침?)

113031 #1 기침은 어떵허는고? 허면 배 잇잔아. 배, 배에 꿀 놓아근에 딸령 먹어. 배에 꿀을 막 딸리잔아. 물에 끌여. 그거 먹어야.(기침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배 있잖아. 배, 배에 꿀 넣어서 달여서 먹어. 배에 꿀을 막 달이잖아. 물에 끓여. 그거 먹어야.)

113031 @ 도라지 그런 건 얘기 안 들어 봣수과?(도라지 그런 건 얘기 안 들어 봤습니까?)

113031 #1 안 들언. 배허고이.(안 들었어. 배하고.)

113031 @ 배가 어딧어?(배가 어디 있어?)

113031 #1 배나 댕오지. 두 가지 막 딸령 먹어.(배나 당유자. 두 가지 막 달여서 먹어.)

113032 @ 딸꾹질?(딸꾹질?)

113032 #1 툴국질엔 존 약이 잇어. 먼 약인곤 허민이 이거 진짜 나가 당헤난 일인디, 우리어머님 산 때 아, 툴국지가 죽어도 안 내려. 물 먹어도 안 내려가고. 얘야 , 우리 어머님 돌아갓주. 돌아가기 전에 느 무사 느 우리 오래비가, 이젠 죽엇주마는 일름이 원택이라. 무사 느 원택이 주젠 헌 저 떡 빌어단 놔두난 그거 옴막 먹언디?(딸꾹질엔 좋은 약이 있어. 먼 약이 있는가 하면 이거 진짜 나가 당해난 일인데, 우리어머님 산 때 아 딸꾹질이 죽어도 안내려. 물 먹어도 안 내려가고. 얘야, 우리 어머님 돌아가기 전에 너 왜 너 우리 오라비가, 이젠 죽어버렸지만 이름이 원택이라. 왜 너 원택이 주려고 한 떡 빌어다가 놔두니까 그거 '옴막' 먹었냐고?)

113032 @ 하하.(하하.)

113032 #1 어느제 나 먹엇수꽈? 막 어멍이, 나 안 경. 아 그냥 싸우노렌 허난 툴국질이.(언제 나 먹었습니까? 막 어머니가, 나 안 그렇게. 아 그냥 싸우노라고 하니까 딸꾹질이.)

113032 @ 하하하하.(하하하하.)

113032 #1 약은 다 뒈신게게.(약은 다 되었네.)

113032 @ 미신 약 말이꽈? 나 언제 먹어수꽈?(무슨 약 말입니까? 나 언제 먹었습니까?)

113032 #1 툴국질 들어가신게. 아이구, 어떵사 웃어신디. 아이구 어멍이영 잘도 싸와낫젠 허난.(딸꾹질 들어갔네. 아이구, 어떻게나 웃었는지. 아이구 어머니랑 잘도 싸웠었다고 하니까.)

113032 @ 아이고 진짜.(아이고 진짜.)

113032 #1 먹엇저. 아이 먹ᄀᆞ라 허멍.(먹었다. 안 먹었다고 하면서.)

113032 @ 생각남수다예.(생각납니다.)

113032 #1 경 속이는 거라라, 그거. 이제도 혼번 그런 거 헤봐봐시믄 좋커라. 약쓰지 말고이, 툴국질 나가게.(그렇게 속이는 거라, 그거. 이제도 그런 거 한번 해봐봤으면 좋

겠다. 약 쓰지 말고, 딸꾹질 나가게.)

113032 @ 하하.(하하.)

113032 #1 벗이라도 잘도 나쁜 아이여. 무사 나가 나쁘나. 야 너 나빠아. 우리 집 가왓나 안 가왓나? 아니, 뭐가, 뭐가 엇어졋단 말이여. 눈망뎅이 봣냐? 막 싸와가민 엇어져 불어. 쌉젠 막 신경 써 가민 그놈이 거 돌아나 불어.(벗이라도 잘도 나쁜 아이여. 왜 내가 나쁘나. 야 너 나빠. 우리 집 가왔나 안 가왔나? 아니, 뭐가, 뭐가 없어졌단 말이여. 눈으로 봤냐? 막 싸워 가면 없어져버려. 싸우려고 막 신경 써 가면 그놈의 거 달아나 버려.)

113033 @ 코피?(코피?)

113033 #1 코피 나면 영 쑥 헤당 막 영.(코피 나면 이렇게 쑥 해다가 막 이렇게.)

113033 @ 쑥? 하하하하.(쑥? 하하하하.)

113033 #1 보비영 지렝이 막앙. 아이구, 아이구.(비벼서 '지렝이' 막아서. 아이구, 아이구.)

113034 @ 가래?(가래?)

113033 #1 가래?(가래?)

113034 @ 감기 걸령 가래춤?(감기 걸려서 가래침?)

113034 #1 가래 나오는 거는 잘 모르겟는데.(가래 나오는 거는 잘 모르겠는데.)

113035 @ 가래톳? 막 누렁헌 하르방덜게 갈그랑갈그랑 헙니께.(가래톳? 막 누런 할아버지들 갈그랑갈그랑 하네요.)

113034 #1 늙어 가면은 그게.(늙어 가면 그게.)

113036 @ 설사?(설사?)

113036 #1 설세는이 이 저 옛날 불 솜아나민 솟강알에 그 솟, 시꺼멍헌 거 잇잔아. 그거 헤다근에 물에 탕 먹어야 혀.(설사는 옛날 불 때고 나면 '솥강알'에 그 솥, 시꺼먼 거 있잖아. 그거 해다가 물에, 물에 타서 먹어야 해.)

113036 @ 하하하하.(하하하하.)

113036 #1 시커멍헌 거. 거 좋아. 그것도. 거 왜 조냐면은 그 우리가 밥 헹먹젠 허면은 산에 강 나무도 헤오고이 검질도 헤당 막 솜잔아. 경허난 그 기운이 솟 그 우에 그 기실엉. 것이 다 약에 그 기시령 그 우에 다 들어간덴, 약이. 거니까 그것이 설새낭 긁어당 먹으민 좋는 것이 바로 그거옌.(시커먼 거. 거 좋아 그것도. 거 왜 좋으냐면 그 우리가 밥해서 먹으려고 하면은 산에 가서 나무도 해오고 이 김도 해다가 막 불 때잖아. 그렇게 하니까 그 기운이 솥 그 위에 그슬어. 것이 다 약에 그슬어서 들어간다고, 약이. 거니까 설사 나서 긁어다가 먹으면 좋은 것이 바로 그거라고.)

113037 @ 이질? 설사 비슷헌 거 닮아.(이질? 설사 비슷한 거 같아.)

113037 #1 그거 이질은 이 똥은 ᄆᆞ롭고 안 나오는 거 바직바직 헤근에.(그거 이질은 이 똥은 마렵고 안 나오는 거 바직바직 해서.)

113037 @ 아아.(아아.)

113037 #1 그거 헌 때는 뭐 먹어신고?(그거 한 때는 뭐 먹었는가?)

113037 @ 음 게민 약은 엇고?(음 그러면 약은 엇고?)

113037 #1 약은 엇어. 그거 이질이옌 헌 것이.(약은 없어. 그거 이질이라고 한 것이.)

113038 @ 체? 체 헷을 때?(체? 체 했을 때?)

113038 #1 어?(어?)

113038 @ 체?(체?)

113038 #1 체가 뭐여?(체가 뭐여?)

113038 @ 체허민 땁니까? 손가락? 아니민 영영영 체 허는 할망신디 가야 뒈?(체하면 땁니까? 손가락?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체 허는 할머니에게 가야 돼?)

113038 #1 옛날은 무식헤노난 그런 거 알아도 대부분 체 ᄂᆞ리는 거 집마다 아는데 옛날엔 몰라. 배 아파가민 곽란이 걸렷젠 헹이 드러누랜 헹 갈라지민이 배똥 막 둘리는 거. 게민이 그 곽란이가, 영 돌라가믄이 손가락이 배똥에 막 들어가 불어. 막 빠짝허게. 거난 웨우 아옵 번 또 ᄋᆞ답 번 아옵 번을 둘러야 그게. 게믄 손가락이 막 그냥 배똥 소곱에 막 들어가.(옛날은 무식해버리니까 그런 거 알아도 대부분 체 내리는 거, 집마다 아는데 옛날엔 몰라. 체가 했는지 배 아파가면 곽란이 걸렸다고 해서 드러 누라고 해서 갈라지면 배꼽 막 돌리는 거. 그러면 그 곽란이, 이렇게 돌아가면 손가락이 배꼽에 막 들어가 버려. 막 '빠짝'하게. 그러니까 왼쪽으로 아홉 번 여덟 번 아홉 번을 돌려야 그게. 그러면 손가락이 막 그냥 배꼽 속에 막 들어가.)

113038 @ 아아.(아아.)

113038 #1 것이 곽란이옌 허여.(것이 곽란이라고 해.)

113038 @ 곽란? 그거 허는 사람 잇겟다예.(곽란? 그거 하는 사람 있겠네요.)

113038 #1 아, 우리도 거 헤낫어.(아, 우리도 거 했었어.)

113039 @ 아아, 세상에, 배 아프면. 체헷을 때는 뭐 뒤로 두둘려 준다든가?(아아, 세상에, 배 아프면. 체했을 때는 뭐 뒤로 두들겨 준다든가?)

113039 #1 거 이제나 뒤로 두들주. 옛날엔 곽란이 걸렷젱 뱃똥만 둘르곡.(거 이제나 뒤로 두드리지. 옛날엔 곽란이 걸렸다고 배꼽만 돌리고.)

113039 @ 아아, 토하곡?(아아, 토하고?)

113039 #1 옛날엔 연친 것도 몰랑 이 본벵 걸렷젱 허곡.(옛날엔 체한 것도 몰라서 이 본병 걸렸다고 하고.)

113039 @ 언친 것도 몰라. 본병이 뭐꽈?(체한 것도 몰라. '본병'이 뭡니까?)

113039 #1 배 아프는 사람 잇어.(배 아프는 사람 있어.)

113039 @ 아아.(아아.)

113039 #1 그런 거 걸린 사람. 아이고, 옛날엔 약도 엇고 원장도 엇곡.(그런 거 걸린 사람. 아이고, 옛날엔 약도 없고 원장도 없고.)

113040 @ 손 베면 어떵허여?(손 베면 어떻게 해?)

113040 #1 손? 아, 보리비당 끈으면은. 소웽인가 잇어.(손? 아, 보리 베다가 끊어지면. 엉경퀴인가 있어.)

113039 @ 아아.(아아.)

113040 #1 소웽이 헤다근에 보비영 처매어야 허여. 쑥을 헤당 보비나. 쑥도 헤당 보비영 처맵곡 또 소웽이도 헌 것도 처맵곡.(엉겅퀴 해다가 비벼서 처매어야 허여. 쑥을 해다가 비비나. 쑥도 해다가 비벼서 처매고 또 엉겅퀴도 한 것도 처매고.)

113041 @ 모기 물린 데는?(모기 물린 때?)

113041 #1 모기 물린 때는 뭐 막 긁당 보민.(모기 물린 데는 뭐 막 긁다가 보면.)

113042 @ 뱀 물린 데는?(뱀 물린 데는?)

113042 #1 베염 물린 데는 베염 물리민이. 옛날엔 발에 잘 물려이. 그 저 갈중이ᄀᆞᆷ이나 소중이ᄀᆞᆷ이나 거 방법이라. 이런 디 무꺼. 이레 올라오지 못허게.(뱀 물린 데는 옛날엔 발에 잘 물려. 그 저 갈중이감이나 소중이감이나 거 방법이라. 이런 데 묶어. 이리 올라오지 못하게.)

113042 @ 아아.(아아.)

113042 #1 경 무끄민 여기서만 빵빵혜.(그렇게 묶으면 여기서만 빵빵해.)

113042 @ 아아.(아아.)

113042 #1 거믄 이 우터레 올라오민 죽지. 사람이. 게난 옷 아울라이. 여기 막 무꺼. 게민 여기서만 겨믄 의원신디 가민 침으로 걸 막 빠. 이만이헌 선흘 사람인디 그 사람 죽으카부덴 헤서. 눈도 엇고이 문둥이 뒈불언.(그러면 이 위로 올라오면 죽지. 사람이. 그러니까 옷마저. 여기 막 묶어. 그렇게 해서 여기서만 의원에게 가면 침으로 걸 막 빼. 이만한 선흘 사람인데 그 사람 죽을까봐 했어. 눈도 없고 문둥이 돼버렸어.)

113042 @ 아이고.(아이고.)

113042 #1 이 저 의원 저 사람만 살리면은 의원이다. 헤서이. 눈도 몸도 다 부서불곡 문둥이 뒈불언. 게난 양 의원네 집이 ᄋᆞ름에 식게가 잇어이. 게난 아덜이 큰아덜이가이 우에 아이가 신디 일뤠만이 죽어 불엇어. 게난 양의원이 똑 그 증이 돌아올 거난 야이 침 마칩서. 매날 ᄒᆞ루 두 번도 갈 때 ᄒᆞᆫ번도 매날 울어가민 가곡,가곡 침 마지민 야이가 안 울곡 침 안 마지민 야이가 막 울어. 나도 이제 허다허다 버쳐서. 허다허다 버쳔 이제 양의원ᄀᆞ라 침 ᄒᆞ나만 줍센 힘들엉 잘못허단 셍의원 죽여. 아이고 죽고 살고 침 ᄒᆞ나 주난이 양의원 삼년을 뎅겨가난이 어디로 노는 걸 다 알아지드라. 게난 칵칵 주고 칵칵 주고 조용헹 나이 경도 헤낫저. 매날 의원칩이 뎅기기 힘들어. 으이구 저 아덜이 굿도이 굿도 허곡 양 의원신디도 뎅기고 게단 버치난 소아마비 걸련 아이고.(이 저 의원 저 사람만 살리면은 의원이다. 했어. 눈도 몸도 다 부어버리고 문둥이 돼 버렸어. 그러니까 양 의원네 집에 여름에 제사가 있어. 그러니까 아들이 큰아들이 걔 위에 아이가 있는데 이레만에 죽어 버렸어. 그러니까 양 의원이 꼭 그 증이 돌아올 거니까 얘 침 맞히세요. 매일 하루 두 번도 갈 때 한번도 매일 울어가면 가고, 가고 침 맞으면 얘가 안 울곡 침 안 맞으면 얘가 막 울어. 나도 이제 하다하다 부쳐서. 하다하다 부쳐서 이제 양의원보고 침 하나만 주시라고 힘들어서 잘못하다가 생의원 죽여. 아이고 죽고 살고 침 하나 주니까 양 의원 삼 년을 다녀가니까 어디로 놓는 걸 다 알게 되더라. 그러니까 콱콱 주고 콱콱 주고 조용해서 나 그렇게도 했었다. 매일 의원집에 다니기 힘들어. 으이구 저 아들이 굿도 굿도 하고 양 의원에게도 다니고 그러다가 부치니까 소아마비 걸려

서 아이고.)

113042 @ 쯧쯧.(쯧쯧.)

113042 #1 아이고. 이젠 의원신디 강, 이 애기 어떵헨 좁니껜, 막 울엇어. 아기가 이 바짝바짝 사단 아이가 즌등으로 강 소아마비 걸련. 거난 물락물락 아무 노릇도 안뒈.(아이고. 이젠 의원에게 가서, 이 애기 어떻게 해서 좋겠냐고, 막 울었어. 아기가 이 바짝바짝 서다가 아이가 허리로 가서 소아마비 걸렸어. 그러니까 '물락물락' 아무 노릇도 안돼.)

113042 @ 아오.(아오.)

113042 #1 이런 애긴 죽도 안허메. 아이고, 아주바님 요 노릇을 어떵허민 좁네까? 막 울어가난 양 의원이 허는 말이 아주마님도 정신 출리고 나도 정신 출리믄 이거 고치는 건 문제가 아니우덴 헨 곧는 냥 들으쿠덴 허난.(이런 애긴 죽지도 않아. 아이고, 아주버님 요 노릇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막 울어가니까 양 의원이 하는 말이 아주머니도 정신 차리고 나도 정신 차리면 이거 고치는 건 문제가 아니 라고 해서 말하는 대로 듣겠다고 하니까.)

113042 @ 아휴.(아휴.)

113042 #1 야이 울어가거들랑 그냥 나신디 옵센 아지바님 아무 밧디 시니까 그디라도 업엉 오렌 강 보난 양 의원 잇느냐? 밧디 강 조 살랑살랑허난 조 털어지젠 밧디 가부난 그 애기 업엉 밧디끄지 아이구, 아기 키우는 것이 경 힘들어라. 허단 버치난 이젠 양 의원 이 굿을 허렌. 굿을 못허게 허는 어른이 이거 그자 굿헙센 허연이 굿이 허난이 침 아니 맞아도 뒈어. 껄린 거. 침만 양 의원이 허당 버쳔 굿허렌. 굿 허지 말렌 소관엇덴 허단 버치난 굿 허렌 허연. 겐 굿헌 후제 침은 마쳐도 메칠에 혼번 맞주이. 매날은 안 가완. 걸련 걸련. 에이구, 나이 베염 잇잔아. 베염도 구신이라. 아이, 우리 셋뚤 클 때 우리 말젯뚤이 이만이 배고, 셋뚤은 세 술엔가? 졸음에 졸졸졸. 그땐 바당물 먹잖아. 바당에 강 물 질어당 죽어분 사름이 베염을 이만이 들렁 가는 거 아니라. 물질 가는디, 셋뚤이 갈 때도 보고 요 집이 베염술 담젠 펭을 논 거라. 그디끄지 아이가 그냥 번찍헌 아이가 그냥 ᄂᆞ릇ᄂᆞ릇ᄂᆞ릇허난 그때 뭐 약이 샤 뭐 시니? 죽으민 그냥 골체 담앙 강 묻어불 걸로 헤연 이젠 아기가 그냥 음음음 뭐 허여.(야이 울어가거든 그냥 나에게 오시라고 아주버님 아무 밭에 있으니까 거기라도 업어서 오라고 가서 보니까 양의원 있느냐? 밭에 가서 조 살랑살랑하니까 조 떨어지라고 밭에 가버리니까 그 애기 업어서 밭에까지 아이구, 아기 키우는 것이 그렇게 힘들더라. 하다가 버치니까 이젠 양의원이 굿을 하라고. 굿을 못하게 하는 어른이 이거 그저 굿하라고 해서 굿이 하니까 침 아니 맞아도 돼. 걸린 거. 침만 양의원이 하다가 힘들어서 굿하라고. 굿하지 말라고 소용 없다고 하다가 힘드니까 굿하라고 했어. 그래서 굿한 후에 침은 맞혀도 며칠에 한번 맞지. 매일은 안 가왔어. 걸렸어 걸렸어. 에이구, 나 뱀 잇잖아. 뱀도 귀신이라. 아이, 우리 둘째딸 클 때 우리 셋째딸이 이만큼 배고, 둘째딸은은 세 살엔가? 졸음에 졸졸졸. 그땐 바닷물 먹잖아. 바다에 가서 물 길어다가 죽어버린 사람이 뱀을 이만큼 들고 가는 거 아니라. 물질 가는데, 둘째딸이 갈 때도 보고 요 집에 뱀술 담으려고 병을 놓은 거라. 거기까지 아이

가 그냥 멀쩡한헌 아이가 그냥 ‘ᄂᆞ릇ᄂᆞ릇ᄂᆞ릇’하니까 그때 뭐 약이 있어? 뭐 있니? 죽으민 그냥 삼태기 담아 가서 묻어버릴 걸로 해서 이젠 아기가 그냥 음음음 뭐 해.)

113042 @ 아오야.(아오야.)

113042 #1 게난 베염 걸린 건 모르고 저 입 ᄆᆞᆯ라가난 졍 헴구나. 살젠 허난이 살젠 부트더라고. 죽어분 문호진이가 살아서, 요디 밧이라낫저. 집 짓이난 허주 밧이라낫어.(그러니까 뱀 걸린 건 모르고 저 입 말라가니까 저렇게 하는구나. 살려고 하니까 살려고 붙더라고. 죽어버린 문호진이가 살아서, 요기 밭이었어. 집 지으니까 하지. 밭이었어.)

113042 @ 음.(음.)

113042 #1 겐 말젯뚤 배고 문호진이가 정문젱이라. 저 동더레 감서. 가민 멜 거리레 강 오단 네려지니까 똑 그 아래만 앚더라고. 게난 걷질 못허난 아이구 애기 왕 봉 갑서. 무사? 아기가 아퍈예. 칠성에 걸려싱게, 굿 헤사크라. 어떵허젠? 굿허게 뒈민 낼 허렌 허곡 안 허켄 허민 설러불켄. 야이 살아납니까? 살리주게. 못 살리민 만원대 이만원 주켄. 날 살릴 ᄌᆞ신 이수과? 예. 나 살리켄. 게민 굿허쿠다. 야이 누게 살아난덴 누게 ᄀᆞᆯ아넨. 죽어 분 아방ᄀᆞ라 죽저 살자 싸운 거라. 나만 아기냐? 너도 애기지. 살 애기 굿 안 헤부난 죽어시카부덴 나가 가심 아퍈 살아지냐고, 허멍 굿허젠 허믄 할망을 빌어와야. 제물할 할망. 젊은 사람은 안 빈다. 할망은 깨끗허지 알도 깨끗하고. 젊은 사람은 알이 궂잖아.(그래서 셋째 딸 배고 문호진이가 ‘정문젱이’라. 저 동으로 가대. 가면 멸치 잡으러 가서 오다가 넘어지니까 꼭 그 아래만 앉더라고. 그러니까 걷질 못하니까 아이구, 애기 와서 보고 가십시오. 왜? 아기가 아파사요. 칠성에 걸렸네, 굿 해야겠어. 어떻게 하려고? 굿하게 되면 낼 하라고 하고 안 하겠다고 하면 그만두겠다고. 얘 살아납니까? 살리지. 못 살리면 만원대, 이만원 주겠다고. 날 살릴 자신 있습니까? 예. 나 살리겠다고. 그러면 굿 하겠습니다. 얘 누가 살아난다고 누가 말했냐고. 죽어 버린 아버지보고 죽자 살자 싸운 거라. 나만 아기냐? 너도 이기지. 살 애기 굿 안 해버려서 죽었을까봐 나가 가슴 아파서 살 수 있냐고, 하면서 굿하려고 하면 할머니를 빌어와야. 제물할 할머니. 젊은 사람은 안 빈다. 할머니는 깨끗하지. 아래도 깨끗하고. 젊은 사람은 아래가 궂잖아.)

113042 @ 아아.(아아.)

113042 #1 야이덜아 쌉지 말라. ᄉᆞ망일켜. 아이구, 삼촌 어떵 헹 알암수과?(얘들아 싸우지 마라. 사망 이루겠다. 아이구, 삼촌 어떻게 해서 알았습니까?)

113042 @ 하하.(하하.)

113042 #1 재물헤 보민 알아진다.(재물해 보면 알수 있다.)

113042 @ 아오야, 신기ᄒᆞ다.(아오야, 신기하다.)

113042 #1 신기허잖아. 어떵 헹 알암수과? 재물이 좋젠 허민이 시루떡 잇잔아. 그것이 탁 체얌 막은 딜로부터 탁 짐이 올라오면은 ᄉᆞ망인단 거라. 딱 헤봐도 ᄉᆞ망일켜. 경헤도 아방하고 난 죽저 살저 싸완. 굿헤영 애기 살렷저. 사흘첸 날이난 알아본 도래라, 눈 직직 곰안, 애기가, 세만.(신기하잖아. 어떻게 해서 알았습니까? 재물이 좋으려고 하면 시루떡 있잖아. 그것이 탁 처음 막은 데로부터 탁 김이 올라오면 사망 있다는 거라. 딱 해봐도 사망 있겠다. 그래도 아버지하고 난 죽자 살자 싸웠어. 굿해서 애기 살렸다.

사흘째 날이니까 알아본 도리라, 눈 직직 감았어, 애기가, 혀만)

113042 @ 아오야, 세상에.(아오야, 세상에.)

113042 #1 아방이 어느 거 사흘체 날 오널.(아버지가 어느 거 사흘째 날 오늘.)

113042 @ 어어.(어어.)

113042 #1 살아낫나? 어느 거냐? 어느 거냐? 아, 나가 미쳐져. 미쳐젼.(살아났니? 어느 거냐? 어느 거냐? 나 미쳐지겠더라고. 미치겠더라고.)

113042 @ 아우.(아우.)

113042 #1 돈 돌아나고. 아이 경 헤노난.(돈 달아나고. 아이 그렇게 해 놓으니까.)

113042 @ 게니까.(그러니까.)

113042 #1 미친 거라. 완전 미쳐.(미친 거라. 완전 미쳐.)

113042 @ 미친 거라. 진짜.(미친 거라. 진짜.)

113042 #1 물 질레 가멍도 아이고 우리 애기 살려줍서.(물 길러 가면서도 아이고, 우리 아기 살려주십시오.)

113042 @ 응.(응.)

113042 #1 장 거리레 가멍도 아이고 우리 애기 살려줍서. 더퍼놓고 우리 애기 살려줍서. 우리 애기 살려줍서. 중알중알, 중알중알. 이제 사흘챗 날은 심방이 사흘챗 날은 알아볼 도리가 쌉지 말렌만 하드라. 심방이 큰 싸움 낫쿠덴 이 집이. 족은 싸움이 완전히 세간을 갈르나 큰 싸움이 날 거난 맬 두들려도 대답을 말렌 아방광 쌉지 말렌 두들고 씨고 벨거옌 곧고 귀막앙 대답을 말렌 아방은 사흘채 날 눈 터근에 바리카부덴 허난 눈 곰아부난 어느 거냐? 어느 거냐? 심방이영 살렌 나 답두리허고이. 거난 이젠 물을 풀아야 굿헌 빚을 물어야 헐 거라.(장 뜨러 가면서도 아이고 우리 아기 살려주세요. 덮어놓고 우리 아기 살려주세요. 우리 아기 살려주세요. 중얼중얼, 중얼중얼. 이제 사흘째 날은 심방이 사흘째 날은 알아볼 도리가 싸우지 말라고만 하더라. 무당이 큰 싸움 나겠다고 이 집에. 작은 싸움이 완전히 세간을 가르나 큰 싸움이 날 거니까 매를 두드려도 대답을 말라고 아버지랑 싸우지 말라고 두드리든 말든 별거라고 말하고 귀 막아서 대답을 말라고 아버지는 사흘째 날 눈 떠서 볼까 했는데 눈 감아버리니까 어느 거냐? 어느 거냐? 무당이랑 살라고 나 잡도리하고. 그러니까 이젠 말을 팔아야 굿한 빚을 갚아야 할 거라.)

113042 @ 아이구, 세상에.(아이구, 세상에.)

113042 #1 나 잘도 울엇어. 물 질레 가멍도 우리 애기 살려줍서.(나 잘도 울었어. 물 길러 가면서도 우리 아기 살려주세요.)

113042 @ 메칠 만에.(며칠 만에.)

113042 #1 응? 사흘째 날은 심방이 알아볼 도리가 싯젠덴 헌 아기가 눈을 트느냐?(응? 사흘째 날은 무당이 알아볼 도리가 있다고 한 아이가 눈을 뜨느냐?)

113042 @ 요만이.(요만큼.)

113042 #1 이상하다. 눈 영 보난이 요만이 베르싸졋어. 봐라 어느 거냐? 어느 거냐? 심방이영 강 살아라. 이 무당이영 살아라. 아.(이상하다. 눈 이렇게 보니까 요만큼 벌어

졌어. 봐라 어느 거냐? 어느 거냐? 무당이랑 살아라. 이 무당이랑 살아라. 아.)

113042 @ 허허허.(허허허.)

113042 #1 대답을 안 헷어.(대답을 안했어.)

113042 @ 저건 미친개옌 주껌주긴. 영 골아도 대답 안 허고 정 골아도 대답을 안 허고.(저건 미친개라고 짖는다고. 이렇게 말해도 대답 안 하고 저렇게 말해도 대답을 안 하고.)

113042 @ 허허허허.(허허허허)

113042 #1 이젠 허난 막 헤엿어, 허난 애기가 사흘쳇 날은 눈을 번쩍 튼 거 아니가?(이젠 하니까 막 했어, 하니까 애기가 사흘째 날은 눈을 번쩍 뜨는 거 아니니?)

113042 @ 아유. 신기하다.(신기하다.)

113042 #1 아이고, 돈 생각 안 나라.(아이고, 돈 생각 안 나더라.)

113042 @ 그러지.(그러지.)

113042 #1 빚져단 헌 거.(빚져다가 한 거.)

113042 @ 그런 일도 잇구나.(그런 일도 있구나.)

113042 #1 이젠이 아방ᄀᆞ라 경 허지 맙센 그거 살아나젠 ᄒᆞ난 경헷주 원 세상에.(이젠 아버지보고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그거 살아나려고 하니까 그렇게 했지. 원 세상에.)

113042 @ 하하하하. 남자들은예.(하하하하. 남자들은요.)

113042 #1 실게창지가 이젠이 할망신디 강 돈을 빚져당 헷네게. 빚져당 허난 ᄆᆞᆯ 풀아당 아져오커메 빚집센 안네커메 빚집센 할망더레 살아나젠 ᄒᆞ난 ᄆᆞᆯ 풀데.(쓸개창자가 이젠 할머니에게 가서 돈을 빚져다가 했네. 빚져다가 하니까 말 팔아다가 가져오겠으니 빚져서 드리겠으니 빚져서 할머니에게 살아나려고 하니까 말 팔데.)

113042 @ 그렇지.(그렇지.)

113042 #1 ᄆᆞᆯ 풀앙 주엇어. 빚진 할망신디 강은에 돈 아졍왓수다. 게난 돈 어디 시니? ᄆᆞᆯ 풀앙 아졍왓수다. 느네 식구 애기가 ᄋᆞ섯개. 어멍 아방 ᄋᆞ덟 식구. 아니 이거 풀아불민 거 ᄆᆞᆯ 낭고지 시에 강 성안 강 나 우리 살아난 거 아무도 몰라. 이제 사람은 ᄃᆞᆯ아나 불어. 완전이 도망가 불어. 경헤영 이젠 ᄆᆞᆯ 풀앙 아졍 가시난 이걸로 ᄆᆞᆯ을 사라. 벌멍 ᄒᆞ꼼 벌어지민 하영 벌어지건 하영 아사오고 ᄆᆞᆯ사렌 너무 고마왕 아이고 할마님 고맙수다. 그 식구에 ᄆᆞᆯ 엇엉 못 산덴. 할망 벌어지는 냥 ᄒᆞᆫ푼씩 ᄀᆞ져오렌 춤 고마운 할망이여. 허멍 ᄆᆞᆯ을 삿어. 낭고지 가근에 성안 강 풀앙 쏠 받아당 먹고 또 그걸로 이제 집이 용돈도 쓰고 게난 지넨 뭔 놈이 귀신 잇느냔 말이냐? 애기 살아나난 신기헌 거라. 이상헌 거라. 겐 ᄆᆞᆯ을 어거라 풀아라.(말 팔아서 주었어. 빚진 할머니에게 가서 돈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돈 어디 있니? 말 팔아서 가져 왔습니다. 너네 식구 애기가 여섯개. 어머니, 아버지 여덟식구. 아니 이거 팔아버리면 거 말 나뭇가지 시에 가서 성안 가서 나 우리 살아난 거 아무도 몰라. 이제 사람은 달아나버려. 완전이 도망가버려. 그렇게 해서 이젠 말 팔아서 가져서 갔으니까 이걸로 말을 사라. 벌면서 조금 벌어지면 많이 벌어지건 많이 가져오고 말사라고 너무 고마워서 아이고 할마님 고맙수다. 그 식구에 말 없어서 못 산다고. 할머니 벌어지는 냥 한푼씩 가져오라고 참 고마운 할머니여. 하면

서 말을 샀어. 나뭇가지 가서 성안 가서 팔아서 쌀 받아다가 먹고 또 그걸로 이제 집에 용돈도 쓰고 그러니까 자기넨 뭔 놈이 귀신 있느냔 말이냐? 애기 살아나난 신기한 거라. 이상헌 거라. 그래서 말을 어거라 팔아라.)

113042 @ 응.(응.)

113042 #1 물 풀안 할망이 벌어진 냥 또 물 산. 경ᄒᆞ연 벌멍 물어낫져. 에이고.(말 팔아서 할머니가 벌어지는 대로 또 말 샀어. 그렇게 해서 벌면서 갚았어. 에이고.)

113042 @ 정말 대단허우다.(정말 대단합니다.)

113042 #1 도망가 불언 나가 돈 엇이난 그때 돈 오천 원 큰 돈이여.(도망가 버렸어. 나가 돈 없으니까 그때 돈 오천 원 큰 돈이여.)

113042 @ 음.(음.)

113042 #1 이제 우리 뚤이 예순 ᄋᆞ섯인가? 예순 둘인가? 가이가 이거 멧 해고? 멧 년이냐? 게난 그때 돈 오천 원, 나는 냥 아져 물 풀안 경 헨 살아.(제 우리 딸이 예순 여섯인가? 예순 둘인가? 걔가 이거 몇 해고? 몇 년이냐? 그러니까 그때 돈 오천 원, 나는 대로 가져 말 팔아서 그렇게 해서 살아.)

113042 @ 아이구, 대단허우다. 그 뚤은 잘 잇지예? 야 거 알암싱가?(아이구, 대단합니다. 그 딸은 잘 있지요? 야 거 알고 있는가?)

113042 #1 옛말을 ᄀᆞᆯ앙 그 돈을 내렌 ᄀᆞᆯ아사크라.(옛말을 해서 그 돈을 내라고 말해야겠어.)

113042 @ 하.(하.)

113042 #1 이건 서울집이 큰 건물이 두 개 가져서.(이건 서울 집에 큰 건물이 두 개 가졌어.)

113042 @ 크으으으.(크으으으.)

113042 #1 이건 서울이라.(이건 서울이라.)

113042 @ 음.(음.)

113042 #1 또시 저 어디가 육칭.(또 저 어디가 육층.)

113042 #1 그렇게 건물을 가졋어, 서울서.(그렇게 건물을 가졌어, 서울서.)

113042 @ 음.(음.)

113042 #1 큰 뚤애기 잔치할 때 올 거주.(큰 딸애기 잔치할 때 올 거지.)

113042 @ 음.(음.)

113042 #1 무신 뚤 나가 살려ᄃᆞ렌 헙디가? 경 ᄀᆞᆯ은 걸. 잔치허는 디 올 거주. 이제 ᄀᆞ만이 생각헤보난 이제 머리를 써사커라. 그거 헤치 이상 먹엇어.(무슨 딸 나가 살려달라고 합디까? 그렇게 말한 걸. 잔치하는 디 올 거지. 이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제 머리를 써야겠다. 그거 띠 이상 먹었어.)

113042 @ 게난. 아이고, 어디꽈게. 생명이라는 게.(그러니까. 아이고, 어딥니까?. 생명이라는 게.)

113042 #1 서울서 부제라 육층짜리 집이 하나고 지네 집이 삼층짜리 건물 잇고.(서울서 부자라. 육층짜리 집이 하나고 자기네 집이 삼층짜리 건물 있고.)

113043 @ 벌 쏘인 때 오좀?(벌 쏘인 때 오줌?)

113043 #1 벌 쏘인 땐이, 뜨신 오좀 싸더라. 겐디 얼굴엔 못허지.(벌 쏘인 땐, 따뜻한 오줌 싸더라. 그런데 얼굴엔 못하지.)

113043 @ 응.(응.)

113043 #1 손에 ᄀᆞ뜬디 ᄇᆞ르민 어떵헐티.(손에 같은데 바르면 어떻게 할지.)

113044 @ 옻 오른 때? 옻나무, 옻칠, 옻. 옻이렌 헤가지고 옻낭 잇수과?(옻 오른 때? 옻나무, 옻칠, 옻. 옻이라고 해가지고 옻나무 있습니까?)

113044 #1 칠낭.(옻나무.)

113044 @ 칠이엔 허는구나.('칠'이라고 하는구나.)

113044 #1 칠낭 조끗디 가민 칠 올란 이 문둥이 뒈여. 게믄 그 칠낭 굽에다가이 막 불을 살라야 뒈.(옻나무 곁에 가면 옻 올라서 이 문둥이 돼. 그러면 그 옻나무 굽에다가 막 불을 사라야 돼.)

113044 @ 죽여 불어?(죽여 버려?)

113044 #1 ᄋᆞ.(응.)

113044 @ 아아.(아아.)

113044 #1 칠낭.(응. 옻나무.)

113044 @ 약은 엇고?(약은 없고?)

113044 #1 어. 약은 없지.(어. 약은 없지.)

113044 @ 죽여야 뒈는구나.(죽여야 되는구나.)

113044 #1 본지 잇잔아. 본지, 젬진게 막 복작복작 긁으는 거. 것도 본지낭에 강은에 불 부쪄 불곡.(노박 덩굴 있잖아. 노박 덩굴, 가는 게 막 '복작복작' 긁는 거. 것도 노박 덩굴에 가서 불 붙여 버리고.)

113044 @ 본지낭?(노박 덩굴.)

113046 @ 말을 더듬을 때?(말을 더듬을 때?)

113046 #1 경헐 때 어떵허느니?(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하니?)

113047 @ 허리 삐었을 때는?(허리 삐었을 때는?)

113047 #1 침이나 맞곡.(침이나 맞고.)

113048 @ 발목 삐었을 때도?(발목 삐었을 때도?)

113048 #1 침 맞곡.(침 맞고.)

113049 @ 귀에 물이 들어갔을 때는?(귀에 물이 들어갔을 때는?)

113049 #1 귀에 물 들어간 땐 귀에 따시 물을 질엉 영 허민 그냥 곧, 즉 빠져.(귀에 물들어간 땐 귀에 물 길어서 이렇게 하면 그냥 곧, 즉 빠져.)

113049 @ 하하하하.(하하하하.)

113049 #1 그 ᄆᆞᆫ여 들어간 물이 뜨겁잔아. 거를 말제 귀더레 물을 질어. 영영영영 영영영 허민 뜨뜻헌 물 나와. 경 빠져 불어.(그 먼저 들어간 물이 뜨겁잖아. 거를 말째 귀에 물을 길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 따뜻한 물 나와. 그렇게 빠져버려.)

12. 경험담, 속담, 금기어 듣기

114001 @ 죽을 뻔 헷던 일?(죽을 뻔했던 일?)

114001 #1 물에 들엇단 죽을 뻔 헌 건 세 번 죽을 뻔 허당 살아낫어.(물에 들었다가 죽을 뻔 한건 세 번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어.)

114001 @ 삼촌?(삼촌?)

114001 #1 완전 죽엇단 살아난. 것도 흔번은이 박 잇잔아, 테왁.(완전 죽었다가 살아났어. 것도 한번은 이 박 있잖아, 테왁.)

114001 @ 예.(예.)

114001 #1 테왁 꺼내젠 소라는 골라앚아 불곡, 테왁은 도망가난 바당에서 어떵헐 거라.(테왁 꺼내려고 소라는 가라앉아 버리고, 테왁은 도망가니까 바다에서 어떻게 할 거라.)

114001 @ 아아.(아아.)

114001 #1 이제 그 동이옌 헌 아이가 살렷어. 골라앚아 분 소라를 이빠이헹 골라앚아 부난. 우리 아시 가이 보민 미안은 헤여. 우리 아시에 동이에 이젠 나 망아릴 건진 거라. 건젼에이 둘이가 허곡 난 그냥 희어 오곡. 건 둘이가 거 건져완. 에이고 테왁 둘아난 흔번은 이 닻 이디 걸련. 걸리니까 이 숨은 지니까 이것 헐 거 아니? 아니 영 나오젠 허니까 일로 알로 뗑겨부난 뭐 숨은 다 먹고. 살려주는 법이 잇어? 앞이선 즘녀덜 숨비는디 나를 보아줘야 나를 살릴 건디 날 안 본 거라. 아, 오널로 나 이거 끗이로구나 아무 생각도 안 나. 눈이 뻘겅헨 숨 다 먹으니까. 게난 가까운 디 왕 퀴 멧 개 허젠 허단.(이제 그 동이라고 한 아이가 살렸어. 가라앉아 버린 소라를 가득 해서 가라앉아 버리니까. 우리 아우 걔 보면 미안은 해. 우리 아우에 동이에 나 망사릴 건진 거라. 건져서 둘이가 하고 난 그냥 헤엄쳐 오고. 그건 둘이가 거 건져왔어. 아이고 테왁 달아나서 한번은 이 닻 여기 걸려서. 걸리니까 이 숨은 기니까 이것 할 거 아니? 아니 이렇게 나오려고 하니까 일로 아래로 당겨버리니까 뭐 숨은 다 먹고. 살려주는 법이 있어? 앞에선 잠녀들 '숨비'는데 나를 봐줘야 나를 살릴 건데 날 안 본 거라. 아, 오늘로 나 이거 끝이로구나, 아무 생각도 안 나. 눈이 뻘게서 숨 다 먹으니까. 그러니까 가까운 데 와서 성게 몇 개 하려고 하다가.)

114001 @ 퀴가 뭣과?('퀴'가 뭡니까?)

114001 #1 구살. 나오젠 허난 이디 걸렁 나와지나? 아, 그냥 나는 오늘 이걸로 끗이로구나. 허는디 저디 갓단 테왁이 나아피 온 거라. 테왁을 꽉 눌리난 요만큼 숨을 다 죽은 콱! 그냥 하늘도 벌겅, 바당도 벌겅. 숨 다 먹어부난. 한참, 한참 이섯어. 한참 이선 이젠 그걸 강 풀엇어. 또 올라왓어. 올라완에이 야! 숨쉬라! 이젠 허연 그 닻줄을 테왁에서 클러불엇어. 클렁 데껴 불언.(성게. 나오려고 하니까 여기 걸려서 나올 수 있니? 나 이젠 끝이로구나 하는데 저기 갔다가 테왁이 내 앞에 온 거라. 테왁을 꽉 내리니까 요만큼 숨을 콱! 그냥 하늘도 뻘겅 바다도 뻘겅. 숨 다 먹어버리니까. 한참 한참 있었어. 한참 있어서 이젠 그걸 가서 풀었어. 또 올라왔어. 올라와서 야! 숨 쉬라! 이젠 해서 그

닻줄을 테왁에서 풀어버렸어. 풀어 던져버렸어.)

114001 @ 아아.(아아.)

114001 #1 그냥 완. 나 바당에서 멧 번 죽을 뻔. 또 혼번은 옛날엔 실겡이 듬북이 잇서. 이젠 오염뒌 듬북도 아무것도. 그땐 실갱이 듬북이 이만이 이선. 혼번은 요만이헌 전복 텡 오단 실겡이에 그냥 눈 걸령 그냥 벳겨져부니까 숨이 다 먹어분 거라. 아이고 숨 먹언. 그때도 테왁이 조끗디 온거라게.(그냥 왔어. 나 바다에서 몇 번 죽을 뻔. 또 한 번은 옛날엔 '실갱이' 듬북이 있어. 이젠 오염되어서 듬북도 아무것도. 그땐 '실갱이' 듬북이 이만큼 있었어. 한번은 이만한 전복 따서 오다가 '실겡이'에 그냥 물안경에 걸려서 그냥 벗겨져버리니까 숨을 다 먹어버린 거라. 아이고. 숨 먹었어. 그때도 테왁이 곁에 온 거야.)

114001 @ 아.(아.)

114001 #1 경 그때도 이제 허! 이젠 물질 설러불주. 이 물질 안 허민 나 못살리. 물질 안허젠 믄딱 다 아졍와 불엇어. 아져완 허난 아방이 재무 허렌 허난 재무 죽어도 안 허더라게. 돈 꾸레 뎅기기 실펀. 놈신디 수정허기 실펀. 재무만 허민 당신허고 나 밧디 가근에 일허켄. 놈ᄀᆞ찌 ᄀᆞ찌 들엉. 대답을 안허더라게. 바당에 가믄 그날그날 돈 올라오주게.(그렇게 그때도 이제 허! 이젠 물질 그만둬버리지. 이 물질 안하면 나 못 살랴. 물질 안 하려고 모두 다 가져와 버렸어. 가져와서 하니까 아버지가 재무 하라고 하니까 재무 죽어도 안 하더라. 돈 꾸러 다니기 싫어서. 남에게 사정하기 싫어서. 재무만 하면 당신하고 나 밭에 가서 일하겠다고. 남같이 같이 들어서. 대답을 안 하더라. 바다에 가면 그날그날 돈 올라오지.)

114001 @ 음.(음.)

114001 #1 거난 대답을 아녀. 또 울멍 테왁 질머졍.(그니까 대답을 안 해. 또 울면서 테왁 짊어져서.)

114001 @ 음.(음.)

114001 #1 또 바당에 간. 나 이 살아온 역ᄉᆞ 아무도 모른다. 이제 쎄면은 밧디 강 놈이 밧디 벵작을 헤살거난 검질메곡, 불면 바당에 오곡. 아이고 나이 살아난 생각허민이.(또 바다에 갔어. 나 살아난 역사 아무도 모른다. 이제 세면은 밭에 가서 남의 밭에 병작을 해야 할 거니까 김매고, 날씨가 좋으면 바다에 오고. 아이고, 나 살았던 생각하면.)

114001 @ 진짜예.(진짜요.)

114001 #1 이딧아이. 이제 닷줄이 닷줄을 탁 정훈아. 이 닷줄 알암댜? 야! 이 닷줄 소곱에 나 들어 간 전복 테멍 느네 살앗저. ᄀᆞ만이 보더라고. 이제 그 닷줄 그냥 잇어.(여기 아이. 이제 닻줄이 닻줄을 탁, 정훈아. 이 닻줄 알고 있니? 야! 이 닻줄 속에 나 들어 간 전복 따면서 너네 살았다. 가만히 보더라고. 이제 그 닻줄 그냥 있어.)

114001 @ 테왁도 중요하지만 닷줄도 중요한 거로구나예.(테왁도 중요하지만 닻줄도 중요하군요.)

114001 #1 닷줄 아니민 작업 못헤여. 막 물에 끄서가불어. 딱 이 엉에 강 좁져야.(닻

줄 아니면 작업을 못해. 막 물에 끌려가버려. 딱 이 돌에 가서 끼워야.)

114001 @ 그니까. 닷줄이 중요하구나예.(그니까. 닻줄이 중요하군요)

114001 #1 경 안허믄 도망가 불어.(그렇게 안하면 도망가 버려.)

114002 @ 도깨비를 만낫던 일에 대헤서 말씀헤 주십시오.(도깨비를 만났던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14002 #1 도깨비덜토 아이 만나보고, 거 무신 밤에 댕겨야 그런 거 만나주 무신.(도깨비들도 아니 만나보고, 거 무슨 밤에 다녀야 그런 거 만나지 무슨.)

114002 #2 잘못 대접허민 대번 망헤 불어. 없는 사람은 모실랴고 도채비 좋아허는 건 뭐냐 허믄 대죽떡허고 샛머심을 도체비가 지일 좋아헤여.(잘못 대접하면 대번 망해버려. 없는 사람은 모시려고 도깨비 좋아하는 건 뭐냐면 수수떡하고 '샛머심'을 도체비가 제일 좋아해.)

114004 @ 어렷을 적 들었던 재미있는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어렸을 적 들었던 재미있는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14004 #2 나 옛날 저 꿈 본 얘기나 할까?(나 옛날 저 꿈 본 얘기나 할까?)

114004 @ 예. 무슨 꿈?(예. 무슨 꿈?)

114004 #2 여기 호열자 들어오젠 해도 꿈꾸고, 육이오 일어나젠 해도 꿈을 꾸고.(여기 호열자 들어오려고 해도 꿈꾸고, 육이오 일어나려고 해도 꿈을 꾸고,)

114004 @ 아, 큰일 잇젠 허난 삼촌도 꿈을 꿉디가?(아, 큰일 있으려고 하니까 삼촌도 꿈을 꿨습니까?)

114004 #2 저 육이오 일어나젠 허니까 저 인천서 꿈을 꾸는데 나가 어욱밧디 강 미[149]를 빠먹어보질 아니허엿는데 어욱밧이 큰 너른 벵뒤가 잇는데 이놈의 고고리가 나올까말까 헌데.(저 육이오 일어나려고 허니까 저 인천서 꿈을 꾸는데 나가 억새밭에 가서 새품을 뽑아 먹어보질 않았는데 억새밭이 큰 너른 벌판이 있는데 이놈의 이삭이 나올까말까 한데)

114004 @ 뭐가마씨 무슨 고고리?(뭐가요? 무슨 이삭?)

114004 #2 어욱 고고리가 나와야 하얗게.(억새 이삭이 나와야 하얗게.)

114004 @ 미, 미.('미', '미'.)

114004 #2 미삐쟁이, 나가 미도 경 아이 빠봣는디 꿈에 그냥 어욱이 그 너른 디 그냥 막 왕상헷는데, 그놈을 막 짤르고 그냥 밧 하나 또 넘으니까 그 머들 우에다 이렇게 긴 어욱이 바람에 흔들흔들 허고 있는데 하이구, 이런 걸 헤야 뒈겟구나. 헤영 헌 것이 깨나니까 꿈인데 막 그 어욱을 짤르고 그냥 빠고 헷는데 깨어나니까 아 저 흔 육이오가 흔 새벽 세 시쯤에 일어나실 거야.(새품, 나가 새품도 그렇게 아니 뽑아 봤는데 꿈에 그냥 억새가 그 너른 데 그냥 막 '왕상'했는데, 그놈을 막 자르고 그냥 밭 하나 또 넘으니까 그 '머들' 위에다 이렇게 긴 억새가 바람에 흔들흔들하고 있는데 하이구, 이런 걸 해야 되겠구나. 해서 한 것이 깨나니까 꿈인데 막 그 억새를 자르고 그냥 빼고 했는데 깨어나니까 아 저 한 육이오가 새벽 세 시쯤에 일어났을 거야.)

149) '미'는 참억새의 꽃이 채 나오기 전에 그것을 싸고 있는 껍질을 말한다.

114004 @ 아아.(아아.)

114004 #2 흔 네 시, 다섯 시쯤. 그 꿈을 봐서 동세벡이 별 꿈을 꿧네이. 밖에 나오니까 사람소리 드난 사람소리가 나길래 밖에 나와 보니 나오니까 북쪽으로 우르릉 허는 소리가 나. 우르릉 우르릉 허는 소리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천둥 헌다혀. 보니까 천둥은 흔번 우르릉허믄 끄치는디 게속 나니까 아 이거 이상허다. 거 육이오 전쟁 터진 거.(한 네 시, 다섯 시쯤. 그 꿈을 봐서 동새벽에 별 꿈을 꿨네. 밖에 나오니까 사람소리 들리니까 사람소리가 나길래 밖에 나와 보니 나오니까 북쪽으로 우르릉 하는 소리가 나. 우르릉 우르릉 허는 소리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천둥 한다 해. 보니까 천둥은 한 번 우르릉하면 그치는데 계속 나니까 아 이거 이상하다. 거 육이오 전쟁 터진 거.)

114004 @ 아, 인천에서?(아, 인천에서?)

114004 #2 인천에서 나 그 꿈 꿧는데. 아, 그니까 붉아와 가니까, 그날은 공일날인데 아, 이제 전쟁 터졋다고, 그래서 그냥 사람덜이 스뭇(인천에서 나 그 꿈꿨는데. 아, 그니까 밝아와 가니까, 그날은 공일날인데 아, 이제 전쟁 터졌다고,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사뭇)

114004 @ 꿈자리 보는 뭣도 있구나예?(꿈자리 보는 뭣도 있군요?)

114004 #2 저 나가 꿈 본 말을 하자는 건 나가 동생이 세 번째 동생이 형무소에 가서 죽엇는데, 아 그러니까 제주도 사람이면 전부 빨갱이로 육지에서 인정을 헷어. 저 서울서도 많이 죽엇어, 제주도 사람. 그냥 빨갱이 아니라도 막 죽엿다니까. 견디 우리 친구가 하나 죽엇어. 서울서. 그 제주면 다 빨갱이로 인정헷던 거주.(저 나가 꿈 본 말을 하자는 건 나가 동생이 세 번째 동생이 형무소에 가서 죽었는데, 아 그러니까 제주도 사람이면 전부 빨갱이로 육지에서 인정을 했어. 저 서울서도 많이 죽었어. 제주도 사람. 그냥 빨갱이 아니라도 막 죽였다니까. 그런데 우리 친구가 하나 죽었어, 서울서. 그 제주면 다 빨갱이로 인정했던 거지.)

114004 @ 아이구.(아이구.)

114004 #2 육지에서. 게니까 나가 그냥 육이오 나니까 여기서 빨갱이로 취급헤서 말이야, 나도 경찰에서 잡아갓어. 겐디 유치장에 요만헌 방에다가 흔 멧 십 명사 앚아신지 앚일 수가 없어. 꽉허게 사람이 앚아 노니까 만딱 죄인들 잡아다가 겐 이 한 밤 열두시 뒈니까 다 줍져가지고 앉아서 곧 첫날 저녁에 꿈을 꾸는디 말이야 흔 열두시 뒈니까 앚아서 좀이 들어. 꿈에다가 세상에 원 사진에도 봐나질 안헷는데 백발노인이 이 육각 관을 썻고 하얀 수염이 이끄지 착 늘어졋어. 그 도복을 입고 얼굴은 아주 그냥 눈이 크고 수염이 하얀 수염이 이끄지 착 늘어졋고. 나 앞이 탁 허게 앚아서 느 조심허라. 위험허다. 잡귀가 많다. 아 그 하르방이 게난 들어오는 건 알고 가는 건 몰라. 겨니까 그때부터는 잡귀가 많다고 허길래 거 내가 잡귀 쫓는 경을 아니까, 그걸 입속으로 자꾸 웨왓어.(육지에서. 그러니까 내가 그냥 육이오 나니까 여기서 빨갱이로 취급해서 말이야. 나도 경찰에서 잡아갔어. 그런데 유치장에 요만한 방에다가 한 몇 십 명이야 앉았는지 앉을 수가 없어. 꽉 하게 사람이 앉아놓으니까 모두 죄인들 잡아다가 그래서 이 한 밤 열두시 되니까 다 좁혀가지고 앉아서 곧 첫날 저녁에 꿈을 꾸는데 말이야 한 열두시 되니

까 앉아서 잠이 들어. 꿈에다가 세상에 원 사진에도 봐나질 안했는데 백발노인이 이 육각 관을 썻고 하얀 수염이 이까지 착 늘어졌어. 그 도복을 입고 얼굴은 아주 그냥 눈이 크고 수염이 하얀 수염이 이까지 착 늘어졌고. 나 앞에 탁 하게 앉아서 너 조심하라. 위험하다. 잡귀가 많다. 아 그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들어오는 건 알고 가는 건 몰라.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잡귀가 많다고 하길래 거 내가 잡귀 쫓는 경을 아니까, 그걸 입속으로 자꾸 외웠어.)

114004 @ 아아.(아아.)

114004 #2 잡귀를 겐디 그거 춤 뭐야 하마 죽을 건데 살앗어. 스십삼 일만에 유치장에서 나오니까 세 발짝을 못 걸어가. 그냥 박아져가지고.(잡귀를 그런데 그거 참 뭐야 하마터면 죽을 건데 살았어. 사십삼 일 만에 유치장에서 나오니까 세 발짝을 못 걸어가. 그냥 박아져가지고.)

114004 @ 세상에.(세상에.)

114004 #2 견디 그 하르방이 제주 와서 또 흔 번 봣어, 꿈에. 우리집의 큰아덜이 지금 저기 이신 아덜 날 때 이제 흔 둘쯤 이시민 이제 아이를 날 때가 됏는데 우리가 어머니가 큰방에 살고 우리가 작은방에 사는데 하르방이 꿈에 문이 그뜩허게 들어와 나 앞이 딱 허게 앚아서 너 이 방에서 아이 나믄 좋지 안허니까 방을 옮겨라.(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제주 와서 또 한 번 봤어, 꿈에. 우리 집의 큰아들이 지금 저기 있는 아들 낳을 때 이제 한 달쯤 있으면 이제 아이를 낳을 때가 됐는데 우리가 어머니가 큰방에 살고 우리가 작은방에 사는데 할아버지가 꿈에 문이 가득하게 들어와 내 앞에 딱 하게 앉아서 너 이 방에서 아이 낳으면 좋지 않으니까 방을 옮겨라.)

114004 @ 아아.(아아.)

114004 #2 하하, 그 하르방이 나 죽을 때 뒈면 또 흔번 볼는지, 두 번 봣는데.(하하, 그 할아버지가 나 죽을 때 되면 또 한 번 볼는지, 두 번 봤는데.)

114004 @ 아오야.(아오야.)

114004 #2 저 인천 살 때 흔 번 보고, 이디완. 게서 춤 방 옮겻어.(저 인천 살 때 한 번 보고, 여기 왔어. 그래서 참 방 옮겼어.)

114004 @ 아아.(아아.)

114004 #2 하르방이 와서 그렇게 허는디 방 옮견 저 큰아덜 낳앗고 그때가 서른두 술, 내가. 서른두 술 때 게난 그게 난 산신으로 생각을 허는디 우리 조상이 그런 조상도 엇고.(할아버지가 와서 그렇게 하는데 방 옮겨서 저 큰아들 낳았고 그때가 서른두 살, 서른두 살 때 내가. 그러니까 그게 난 산신으로 생각을 하는데 우리 조상이 그런 조상도 없고.)

114004 @ 게메예.(글쎄요.)

114004 #2 해방 후에 호열자 여기 들어오젠 허니까 저 하ᄅᆞ산까지 그냥 이 저 내창이 물이 그냥. 곱닥헌 돗을 든 배덜이 하ᄅᆞ산더레 그냥 쭉쭉 올라가벼데. 이 배 들어가민 병 들어온 거라. 어디서나 아무 때도. 배가 들어가민 거 병 들어온 거여.(해방 후에 호열자 여기 들어오려고 하니까 저 한라산까지 그냥 내창에 물이 그냥. 고운 돛을 단

배들이 한라산에 그냥 쭉쭉 올라가 버리대. 이 배 들어가민 병 들어온 거라. 어디서나 아무 때도. 배가 들어가면 거 병 들어온 거야.)

114004 @ 아아.(아아.)

114004 #2 경 호열자 들어완.(그렇게 호열자 들어왔어.)

114004 @ 아아. 배가 들어오면? 바당에 배예? 아아 외부에서 들어오난 그렇구나?(배가 들어오면? 바다에 배요? 아아 외부에서 들어오니까 그렇구나?)

114004 #2 배가 들어가면 거 병 들어온 거야. 아무 때라도.(배가 들어가면 거 병 들어온 거야. 아무 때라도.)

114004 @ 아아 꿈에? 게난예. 이제까지 살멍 무심코 지나가던 거주만은 게도 누군가 도와준다는 그런 생각으로 허다보면.(아아 꿈에? 그러니까요. 이제까지 살면서 무심코 지나가던 거지만 그래도 누군가 도와준다는 그런 생각으로 하다 보면.)

114004 #2 게난 하르방이 산신인지 우리 조상인지 몰라도 그런 하르방을 본 예가 없고. 사진에도.(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산신인지 우리 조상인지 몰라도 그런 할아버지를 본 예가 없고. 사진에도.)

114004 @ 응.(응.)

114004 #2 건디 하얀 수염이 이꺼지 이 하르방이 턱 하게 앚이민 이 아래꺼지 척 흘렷어.(그런데 하얀 수염이 이까지 이 할아버지가 턱 하게 앉으면 이 아래까지 척 흘렸어.)

114004 @ 아아.(아아.)

114004 #2 하얀 수염이.(하얀 수염이)

114004 @ 참 신기하다예.(참 신기하네요.)

114004 #2 우리 조상인지 산신인지.(우리 조상인지 산신인지.)

114004 @ 하하. 게난예.(하하. 그러니까요.)

연구 참여자

이름	소속	분야	구분
김순자	제주학연구센터	국어학(제주도방언)	연구 책임・총괄 성산읍 온평리
김미진	제주학연구센터	국어학(제주도방언)	공동 연구 남원읍 태흥리
강영봉	(사)제주어연구소	국어학(제주도방언)	교열 및 감수
안민희	민요패 소리왓	한국학(제주민요)	조천읍 신촌리
김승연	(사)제주학연구소	한국학(제주무속)	제주시 우도면
허영선	제주대학교	한국학(제주역사)	성산읍 온평리
최연미	돋을양지책드르	국문학	표선면 세화리
권미소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국어학(제주도방언)	남원읍 태흥리
김보향	제주대학교	국어학(제주도방언)	한경면 신창리
신우봉	제주대학교	국어학(제주도방언)	한림읍 옹포리
김성룡	귀일중학교	국어학(제주도방언)	애월읍 구엄리
현혜림	제주학연구센터		연구 보조
서수빈	제주학연구센터		연구 보조

2019년도 제주어구술자료집 21

발행인 김동전
발행일 2019년 12월 24일
발행처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63196 제주시 동광로 51(이도1동) 3층
전화 (064) 726-5623 **팩스** (064) 747-6140
누리집 www.jst.re.kr

□ 이 보고서는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 전재나 복제를 금합니다.